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2025년 10월 25일 (토)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위당관

주최 한국중어중문학회, 한국중국어언어학회, 한국중국어문학회,
한국중국어교육학회, 한국중국어소설학회, 중한연구학회, 중국인문학회,
중국어문학회, 중국어문학연구회, 중국어문연구회, 중국어문논역학회,
중국문화연구학회, 영남중국어문학회

주관 한국중어중문학회,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후원 한국연구재단, 주한중국대사관, 연세대학교

이 발표논문집은 2025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단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NRF-2025S1A8A4A01015148).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추계학술대회 사진첩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 2025년 10월 25일 (토)
- 장소: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위당관
- 주최: 한국중어중문학회, 한국중국어언어학회, 한국중국어문학회, 한국중국어교육학회, 한국중국어소설학회, 중한연구학회, 중국인문학회, 중국어문학회, 중국어문학연구회, 중국어문연구회, 중국어문논역학회, 중국문화연구학회, 영남중국어문학회
- 주관: 한국중어중문학회,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 후원: 한국연구재단, 주한중국대사관, 연세대학교

행사일정 및 내용

등 록 (09:00 - 09:30)

[위당관 B1층 로비]

1부	09:30-11:20	고전문학(1)(2), 현대문학, 중국문화(1), 중국어학(1)(2)(3)(4)(5), 중국어교육(1)(2)
오찬	11:30-12:50	한경관 (교수식당)
개회식 (13:00 - 13:25) 사회: 박민준 (덕성여대) [위당관 B09호 대강당] 개회사 김현철 (한국중어중문학회 회장, 연세대) 환영사 김장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장) 축 사 다이빙 (戴兵, 주한중국대사) 기념촬영		
기조강연 (13:30 - 14:30) [위당관 B09호 대강당] 박정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이옥연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교수)		
휴식	14:30-14:45	휴식
2부	14:50-16:40	고전문학(3)(4)(5), 중국문화(2)(3), 중국어학(6)(7)(8), 중국어교육(3)(4)(5)
폐회강연 (16:50-17:20) [위당관 B09호 대강당] 오태석 (동국대학교 교수, 한국동아시아과학철학회 명예회장)		
폐회식 (17:20 - 18:00) 사회: 이석구 (전남대) [위당관 B09호 대강당] 폐회사 송지현 (한국중어중문학회 부회장, 안양대)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학술대회

분과별 일정표

1부 (09:30-11:20)		발표내용	사회토론자
1 고전문학(1) 위당관 201호		의례·신화시가 연구의 의미	
09:30 ~ 11:20	임미주 (한양대)	청궁정희를 통해 본 청황실 외교 문화 – 빈례(賓禮)를 중심으로	정세진 (성신여대)
	李嘉好 (四川大學)	鼓與中國先秦雷崇拜	이정하 (이화여대)
	송동령 (연세대)	중국 신화의 재구성과 현대적 의미	
2 고전문학(2) 위당관 202호		중국 고전문학과 사상: 형성과 변천 혁신의 길	
09:30 ~ 11:20	麥子龍 (四川大學)	性情·日常化·以唐塑宋：《宋詩別裁集》選本思想新論	閻君祿 (홍익대)
	譚惠靜 (四川大學)	張元凱與王世貞交游考論	
	연소영 (연세대)	燉煌 講經文에서의 唱에 관한 一考	최수경 (경상국립대)
	張琳媛 (四川大學)	闡釋學視域下的《詩經·沔水》“規諫宣王”說	
3. 현대문학 위당관 203호		중국 근현대문학: 갈등, 정체성, 공생의 서사	
09:30 ~ 11:20	고경나 (北京大學)	한중 여성 SF 작가 비교 연구 -하오징팡(郝景芳)의 「접는도시(北京折疊)」와 정세량의 『지구에서 한아뿐』을 중심으로	최재용 (명지대)
	이종철 (연세대)	중문학자의 눈으로 보는 한국 무협영화	
	劉姪香 (고려대)	1990년대 중국 대륙과 타이완 소설에 나타난 세기말 정서에 대한 트랜스-동아시아적 고찰 —자핑와(賈平凹)의 <<페이두 廢都>>와 주톈원(朱天文)의 <<세기말의 화려함 世紀末的華麗>> 중심으로	이현정 (서울시립대)
	심지희 (北京大學)	트라우마와 파레시아의 사이에서 - 말년 웨이쑤이(韋君宜)를 예로	

4. 중국문화(1) 위당관 204호		동아시아 문학의 상호 작용: 공생과 확장	
09:30 } 11:20	王樂 (단국대)	中韓建交之後的韓國華文文學	송가배 (서울대)
	김선영 (中國礦業大學)	'지식인(학술) 문화사단' 으로서의 신월사(新月社) 성격 재인식의 필요성	
	于翠玲 (전북대)	韓國現代小說在中國的譯介、傳播與接受	
5. 중국어학(1) 위당관 205호		중국어 어휘·의미·문자 연구: 역사와 현대, 공생과 혁신	
09:30 } 11:20	김혁 (경상대)	古文字 가운데 淘汰된 글자에 대한 考釋의 사례 분석	신세리 (경성대)
	박성우 (순천대)	'昆侖刻石'의 의의와 논쟁에 관한 문자학적 고찰	
	李鑫庚 (전북대)	《世說新語·劉孝標注》人稱代詞研究	박원기 (원광대)
	NGO THI PHUONG THAO (PHENIKAA Univ.)	語言變遷與文化交融：新詞新語視角下外來文化對中國文化的影響	
6. 중국어학(2) 위당관 209호		중국어와 한국 한자음의 음운 변화: 갈등과 공생의 언어사	
09:30 } 11:20	이옥주 · 박지은 (서울대)	중국어 성조 습득과 성조 유형론	김태은 (연세대)
	이옥주 · 노혜정, (서울대 · 숙명여대)	The Distributional Typology of Consonants among Languages in China	
	김선호 (연세대)	『漢韓大字典』의 다음자 연구	한서영 (한밭대)
7. 중국어학(3) 위당관 210호		중국어 문법·번역텍스트 분석: 교육과 연구의 혁신	
09:30 } 11:20	金英姬 (George Mason Univ. Korea)	两岸译本用语与表达差异比较研究 — 以王鵬行的On Earth We're Briefly Gorgeous 大陆台湾译本为例	이슬기 (충북대)
	이아형 (부산외대)	'(S)+Aasp+N' 구문에서 중국어 선택형용사의 의미 확장과 감성 분석 - '紅', '黑'를 중심으로	
	이은경 (상지대)	현대중국어 반복 사건 구문의 구별적 동사 연구 - 코퍼스와 실험의 증거	문유미 (전남대)
	이영란 (연세대)	현대중국어 'V+X' 구문의 통계 분포 비교 연구	

8. 중국어학(4) 위당관 211호		중국어 음운과 방언 연구: 공시성과 통시성의 만남	
09:30 } 11:20	陳卓 · 이상임 (한양대)	Sibilant fronting in Mandarin : An interaction between sociolinguistic and phonological factors	이선희 (사이버 한국외대)
	何瑜 · 이상임 (한양대)	Incomplete neutralization of r-suffixation in Beijing Mandarin	
		이지영 (연세대)	中古 방언에서 유래한 異讀音 연구
9. 중국어학(5) 위당관 212호		현대중국어 문법구조와 구문 기능 연구	
09:30 } 11:20	윤유정 (경기대)	중국어 회화문 주제 구조 및 주제 전개 구조 분석	박용진 (전북대)
	진화진 (연세대)	형용사의 정도성과 동사형 구문연구	
	祁志霞 · 김현철 (상명대 · 연세대)	動詞“刷”語義泛化認知機制研究	김정은 (고려사이버대)
	劉亞菲 (서울대)	時間名詞與情態副詞連用規則芻議	
10. 중국어교육(1) 위당관 215호		중국어 교육 내용과 교수 전략의 다층적 접근	
09:30 } 11:20	李浩佳 (山東理工大學)	認知社會語言學視角下的網絡熱詞研究	劉娜 (성신여대)
	王賀 (경기대)	現代漢語“什麼”的非疑問指稱義及其句法制約	
	이명정 (한국외대)	‘怎么+M+VP’ 구문의 의미 기능과 용법	錢兢 (국민대)
	孫貞 (성결대)	現代汉语副词“再”的韩国语对应研究	
11. 중국어교육(2) 위당관 216호		미디어와 중국어 교육	
09:30 } 11:20	袁紅 (안양대)	韓國商務漢語教材詞彙研究——以系列教材爲中心	위수광 (창신대)
	이승희 (광운대)	認知視角下的形容詞“寬”和“넓다”的語義範疇及搭配分析	
	楊柳 · 송지현 (서강대 · 안양대)	중국어 반복 형식과 그 의미 — 드라마 <광표(狂飈)>를 중심으로	于鵬 (성균관대)
	陳依諾 (안양대)	基於R語言的韓國教育廣播電台《初級韓語》教材的情感分析	
오찬 (11:30 – 12:50) 한경관 (교수식당)			

개회식 (13:00 – 14:30) 위당관 B09호 대강당			
개회사 13:00~13:05		김현철 (한국중어중문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박민준 (덕성여대)
환영사 13:05~13:10		김장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장)	
축사 13:10~13:15		다이빙 (戴兵, 주한중국대사)	
13:15~13:25		기념촬영	
기조강연 1 박정원 (한국외대) 13:30~14:00		AI 시대, 중어중문학 연구자·교육자의 경쟁력과 미래 전망	강병규 (서강대)
기조강연 2 이육연 (서강대) 14:00~14:30		전환기, 공생을 위한 한국 중어중문학의 몫	천진 (서울대)
14:30~14:45		휴식	
2부(14:50-16:40)		발표내용	사회토론자
12. 고전문학(3) 위당관 201호		중국 고전문학과 동아시아 전통과 공생의 확장	
14:50 ~ 16:40	王飛燕 (魯東大學)	東亞文明交流視域下的《紅樓夢》翻譯	주준영 (고려대)
	袁明嶸 (수원대)	韓末東洋書院的成立與中文底本譯事活動	
	橋美幸 (華中科技大學)	中國儒學對越南傳統社會倫理架構的塑形	유강하 (강원대)
	王楠楠 (四川傳媒學院)	人間之境：《列仙傳》中的仙人形象构建	
13. 고전문학(4) 위당관 202호		장르의 변용과 지역서사의 구축	
14:50 ~ 16:40	양바름 (경희대)	수당(隋唐)계열 소설의 국내 수용과 변용	권운영 (신한대)
	武思思 (四川大學)	《青泥蓮花記》與《義妓傳》中的義妓塑造	
	冷加冕 (四川大學)	元代青詞異名現象論辯	이은주 (한국교통대)
	黎曉茵 (四川大學)	境物到心識：元代“江南”文化功能與一體化書寫	

14. 고전문학(5) 위당관 203호		동아시아 고전의 상징과 상생	
14:50 } 16:40	이성현 (연세대)	李商隱 변려문의 문학적 특징 고찰	전영숙 (연세대)
	김기원 (신성대)	한중일 고전시가 속 두견(杜鵑) 이미지 비교	
	김익정 (성결대)	명말 청초 문인 祁彪佳의 초기시 연구	홍성초 (한밭대)
	謝明勳 (國立中正大學)	百回本《西遊記》『續補後置』說考辨：從『隱霧山』故事談起	
15. 중국문화(2) 위당관 204호		중국 문화사상영화 : 다문화 공생과 확장	
14:50 } 16:40	김민우 (상지대)	팡원산 작사·저우제룬 작곡 '중국풍 음악'의 문학적 실천 - <동풍파(東風破)>와 <발여설(髮如雪)> 가사의 한시(漢詩) 수사학	류호현 (고려대)
	孔浩榮 (山東理工大學)	新實踐美學視閥中的中國陶瓷藝術	
	左維剛 (湖北工程學院)	董永故事14-18世紀在朝鮮半島的傳播與接受	허윤정 (서울대)
	姜雪今 (서울시립대)	중국의 SF 영화 속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16. 중국문화(3) 위당관 205호		중국 당대문학의 새로운 모색	
14:50 } 16:40	黃平 (華東師範大學)	中文系能否培养作家？	박자영 (협성대)
	李藝 (華東師範大學)	新世紀上海文學的突圍與可能——從《繁花》說起	
	項靜 (華東師範大學)	《活着》的讀者接受與當代中國的情感結構	김태연 (서울시립대)
	顧文艷 (華東師範大學)	中國當代文學在德國	
17. 중국어학 (6) 위당관 209호		중국어 문법과 어법의 변천: 공생과 확장	
14:50 } 16:40	이유진 (연세대)	현대중국어 '不怎麼'와 '沒怎麼'의 정도성 척도 분석	明洋洋 (상지대)
	송화영 (연세대)	번역과 문화의 경계에서: 제주 자연관광지 명칭의 중국어 번역 실태와 전략	
	焦毓梅 (덕성여대)	程度副詞“挺”的語篇研究	鄭殿輝 (성결대)
	徐澤方 (연세대)	認知語言學視野下“反語”的探析	

18. 중국어학(7) 위당관 210호		중국어 담화화용AI 연구: 디지털 시대의 공생과 확장	
14:50 } 16:40	이서이 (한국체대)	생성형 AI를 활용한 중국 도시 탐색 기반 중국 문화 교육 - 학습자 전공 연계를 중심으로	진준화 (군산대)
	鄭晴 (연세대)	基於CiteSpace的韓國中文測試研究可視化分析——以1995-2025年爲中心	
	邱文蓉 (山東理工大學)	DeepSeek賦能下的國際中文教育路徑創新研究	孔凡蓮 (교원대)
	于鹏 (성균관대)	網絡語言中的規避與強化——以“叢”爲中心	
19. 중국어학(8) 위당관 211호		한중 언어 비교와 표현 유형 연구	
14:50 } 16:40	趙琳琳 (山東理工大學)	韓國擬聲擬態語個漢語擬聲詞的語義對比研究：以音象徵個形象徵爲中心	蕭悦宁 (광운대)
	이은경 (교원대)	중국어 방언 분열문의 공시적 변이와 그 기제	
	박혁재 (건국대)	"-e hata" in Korean and deem construction in Chinese	송미령 (서일대)
	李繼征 (수원대)	조선시대 중국어교육에 대하여 朝鮮時代漢語教育試論	
20. 중국어교육 (3) 위당관 212호		중국어 교재와 교육 연구: 공생과 혁신을 위한 탐색	
14:50 } 16:40	김예은 (北京師範大學)	시노포비아 시대의 중국어 교육 -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 분석과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 혁신	김석영 (교원대)
	韓立信 (山東理工大學)	國際中文教育漢字教學中文化融入研究——以十天干爲例	
	趙太蓮 (濟南大學)	韓國大學生線上漢語課程多模態教學研究——以崇實大學爲例	이금희 (인덕대)
	오순방 (승실대)	國際中文教育의 관점에서 살펴본 韓國高等教育단계의 漢字教育 연구	

21 중국어교육(4) 위당관 215호		중국어 교육과 AI 융합: 교육의 혁신과 확장		
14:50 }	潘安琪 (山東理工大學)	數字時代下中文教育的創新發展路徑研究	王楠 (전주대)	
	姬代玲 (平頂山學院)	語言數字化賦能韓國中文教學模式研究		
	16:40	박영미 · 신승희 (이화여대)	AI 활용 반도체 분야 특수목적 중국어 교재 개발에 대한 고찰	윤비취 (한국외대)
		고은미 · 최향란 (한국외대)	생성 AI 활용 중국어 독해 자동 문항 생성과 평가 - 대학교 '고급중국어 진단평가 문항을 중심으로	
22 중국어교육(5) 위당관 216호		AI와 중국어교육		
14:50 }	박정원 · 임지선, 백현정 · 김시아 (한국외대)	AI 기반 바이트 코딩 중국어문 교육 웹앱 제작 연구	박민준 (덕성여대)	
	하두진 (경기대)	AI 휴먼은 강의자를 대체할 수 있는가?		
	16:40	박응석 · 鄒怡婷 (연세대)	韓中科幻電影中賽博格角色的認知分析 ——以賽博格角色人機接口位置與功能為例	이아형 (부산외대)
		서흥기 (한국외대)	중국어 AIDT 도입에 대한 중국어 교사의 수용태도 분석	
폐회강연 (위당관 대강당) 오태석 (동국대) 16:50~17:20		인문융합의 중국어문학 연구 송지현 (안양대)		
폐회식 (17:20 - 18:00) 위당관 B09호 대강당				
17:20~17:40		연합학회 우수논문 시상식 鄭殿輝 (성결대)		
총회 개최 및 폐회사 17:40~18:00	한국중어중문학회 총회 개최 및 의결		이석구 (전남대)	
	송지현 (한국중어중문학회 부회장, 안양대학교)			
만찬 (18:00 -) “제주돈1848”(서울시 서대문구 명물길 27-7) 연세대 정문에서 1분, 사전 온라인 등록 필요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1부

1. 고전문학(1) 위당관 201호

의례 · 신화 · 시가 연구의 의미

청 궁정회를 통해 본 청 황실 외교 문화*

「化遠薦新」, 「太平王會」 속 사신 영접 퍼포먼스에 반영된 청 황실 빈례 문화를 중심으로

임미주**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청 궁정회 사신 영접 의례 소재회 개괄
 3. 賞雪節戲「化遠薦新」속 사신 영접 의례 묘사
 4. 上元節戲「太平王會」속 사신 영접 의례 묘사
 5.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청대 궁정에서 매 절기마다 공연된 월령승응회 중 청나라 국가 전례 및 제사 활동을 그대로 재현하는 내용의 작품들을 통해 연극이자 의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월령승응회의 이중적 기능을 부각시키고, 각 의례의 재현에 반영된 청대 오례 문화를 규명하고자 한다. 의례를 재현하는 퍼포먼스는 ‘복원된 행동’으로 서, 이미 존재하는 청 황실의 실제 의례들을 복구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그간 주로 『大清會典』이나 禮書 등 문헌 기록에 의존하여 이해하던 청대 ‘五禮’ 의례의 모습을, 퍼포먼스적인 형태의 생동적인 형태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청대 오례 문화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 및 풍부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그간 명절별 월령승응회 극목과 명절 특성만을 분석하는 데에 편중된 연구 방식을 벗어나, 희곡이라는 테두리를 넘어 청대 오례 및 청대 사회·문화 연구의 시각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청대 궁정 實禮 중 사신영접의례를 재현하는 연극 작품으로 그간 연구가 진행된 바 없는 『節節好音』 수록본 중 賞雪節戲 「化遠薦新」과 故宮博物院 소장 上元節戲 「太平王會」를 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속에 재현된 청 빈례 사신영접 의례의 모습 살펴보았다. 퍼포먼스적 방법론을 통해 작품을 해제하고 그 오례 문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극본 외에도 청대 월령승응회의 구체적 공연 상황을 기록한 昇平署 檔案을 통해 해당 작품의 공연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적극 활용하고, 『대청회전』 등의 典禮書와 『淸史考』, 『淸實錄』과 같은 정사류를 통해 청 황실의 실제 빈례 의례를 이해하고, 월령승응회 속 빈례 의례와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모든 형태의 연극과 의례들은 그것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고 구현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퍼포먼스’의 성격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그 속에 반영된 청나라 빈례 문화, 사신 영접 의례의 ‘복원된 행동’을 통해 청 황실이 어떻게 공연과 의례를 활용하여 청 제국과 조공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청 황실 문화를 천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청 궁정에서 공연된 사신 영접 의례 소재회들은 청 중엽에 그 창작이 가장 활발하였고, 청 후기로 갈수록 쇠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 중 건륭 연간 상설절회인 「화원천신」은 東夷·西戎·南蠻·北狄 등 사방의 藩王들이 한나라 제례 및 제사 음악을 준비했다는 소식을 듣고 臘日에 각국의 기이한 꽃을 바치며 중화의 성대함을 배우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건륭제 시기 만방의 朝覲, 인근 사신들의 방문·헌상이라는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하며, 이전부터 전승된 ‘만국래조’ 체계의 공연을 잇고 있다. 또, 조공국이 황제를 알현하기 위한 覲禮 준비 단계부터, 정식 覲禮, 覲禮이 마친 후의 장면까지, 상세하게 무대 위에서 구현하고 있다. 게다가 지시문인 ‘科介’와 등장인물의 노래와 대사를 통해 헌상하는 朝貢品 및 황제의 詔文, 回賜, 賜宴 등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편, 정식화된 명·청 시기의 고정 사신영접의례가 대부분 연초, 재석, 상원이나 황제의 탄신일인 만수절에 이루어진 반면, 「화원천신」에서는 賞雪日이자 臘日에 이루어지는 차이점이 건륭 45년 팔월 13일 피서산장에서 거행한 만수절 賀禮 이래로 ‘3대 외변연’ 등의 문호를 외국 사신들에게 개방한 변화를 반영하고, 覲禮에서 청나라 때 바뀐 황제에 대한 인사법인 ‘三跪九叩頭’를 투영하고 있다.

그러나 「화원천신」은 후대 청 궁정에서 공연 전승되지 못한 반면, 상원절회 「太平王會」는 건륭부터 광서 연간까지 계속 공연 전승되었다. 외국 사신들이 동정공주의 보호 속에 평안히 도착한 후 황제를 알현하고 조하하고, 황제가 會同館 대사에게 명해 각국 사신들을 데리고 화등을 구경하게 하고, 사신들과 도성 백성들이 함께 원소절을 즐기는 내용이다. 극 중, 외국 사신들이 머무는 객관인 會同館의 존재나 通事가 東方九夷, 南方八蠻, 西方六戎, 北方五狄 등의 순서로 등장하여 무대를 한 바퀴 돌고 지나가는 장면은 당나라 이래부터 전승되는 '외국인 가면회'의 走會 공연을 연상케 하고, 청 황실에서 원소절에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고 연극을 공연하던 전통을 다채롭게 반영하고 있다.

1. 서론

중국에서 거의 모든 공적 행사는 일찍부터 예에 의해 규범화되고 연출되었다. 가령 역대 왕조의 중심인 궁성은 작게는 매일 같이 출근하는 관료들에 의한 일상적 조례에서부터 각종 의례가 연출되는 무대 공간이라는 일면을 가지며, 그러한 의식 중에는 도성 전체를 무대 공간으로 하여 군중을 참가시키는 의례도 적지 않았다.¹⁾ 전통적으로 중국의 예는 '吉·嘉·賓·軍·凶(喪)'라는 소위 五禮로 구분된다. 이 중 '빈례(賓禮)'는 외국에 사신을 파견하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정해놓은 사신 영접 의례로서, 중국 황제가 외국의 사절을 맞아 조공국의 국서와 조공물을 받고 그들을 위로하는 연회를 베푸는 일련의 과정이 그 핵심이다. 중국의 빈례는 『周禮』에서 주나라의 천자국과 주변의 제후국 간의 봉건 관계를 규정한 데서 처음 비롯되었고, 중국 빈례의 원점을 이루는 『儀禮』의 '覲禮'에는 주나라 봉건 관계인 천자와 제후 사이의 알현 의식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勞禮'·'賜館禮'·'戒覲期禮'·'覲禮'·'三享禮'·'請罪禮'·'賜車服禮'·'饗宴禮'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주나라 이후 중국은 봉건제에서 군현제로 전환되었고, 그 관계는 이후 『開元禮』 등의 '예서'에 반영되어, 중국의 빈례는 모두 '번국을 대상으로 하고 藩主와 藩使의 경우로 구별되었다. 송대에 이르면 불특정 다수 국가로 일괄 취급되지 않고 '국가'·'지역'별로 구별되었다. 역대 빈례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자세한 규정을 남긴 것이 명나라의 빈례인데, 『明集禮』에는 藩王朝貢, 藩使朝貢, 遣使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역대 빈례 중 가장 포괄적이고 자세한 규정을 남기고 있다.²⁾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는 유목 지역을 정복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진 국가이자 한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였다. 청나라는 입관 후, 명대의 예제를 이어받아 조공 의례도 명나라의 기초 위에서 약간의 변화를 도모하였고, 청대 빈례는 대외 교류 중에서 점차 확립되고 완비되었는데, 조공 의례 이외에도 종실 구성원과 외번 왕공들이 황제를 알현하는 상견례를 포함한 각종 상견 의례가 포함되었다. 『清史稿·禮志十』 賓禮 조목 아래 「藩國通禮」, 「山海諸國朝貢禮」, 「敕封藩服禮」, 「外國公使覲見儀」 등이 있다. 「藩國通禮」는 주로 理藩院 관할 아래 있는 몽고족, 티베트, 青海 등 주변 지역과 중앙 정부 간의 조공 의례이며, 「外國公使覲見儀」는 오늘날의 외교 의례와 유사하다. 나머지 두 항목은 청대 전기 중국 외교 중의 조공 의례로, 속국에 대한 책봉례, 각국 파견 사신 조공 시 進表, 朝覲, 頒賞 등과 관련된 의례를 기록하고 있다. 청나라는 순치 연간 이래 外藩의 봉작 소지자들에게 연반 朝覲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외번의 봉작 소지자들은 북경으로부터의 원근에 따라 지역마다 몇 개의 班으로 나누어 매년 연말연시 황제를 만나러 북경에 왔다. 이러한 萬國來朝의 웅장한 장면을 다룬 南府 극본 창작은 건륭 연간에 절정을 이루었다. 이런 사신 영접 의례 소재회에는 대부분 세시 명절이나 중대한 국가 경축 행사 때 주변 조공국들이 사신을 파견해 와서 신하로서 조공을 바치고 앞다투어 보물을 헌상해 경하하는 장면을 그렸다. 그 극본의 내용은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기이하며 과장된 부분이 많고, 공연 중 각종 새로운 燈이나 기계 장치 등을 빌려 이목을 끌었다. 이를 통해 盛世의 청나라가 광대한 영토와 무한한 해역을 지닌 대통일 제국이자 주변의 작은 나라들까지 굴복시키는 광경을 연상케 했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8051210)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조교수, 중어중문학과 강사 (whiteangel32@hanmail.net)

1) 梅原都, 「皇帝·祭祀·國都」 (中村賢二郎 編, 『歴史のなかの國都』, 東京, ミネルウサア書房, 1986, pp.303-306)

2) 김성규, 『송대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와 외교 의례』, 신아사, 2020, pp. 314-338 참고

한편, 궁중의례로서 사신 영접 의례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주로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의례적, 절차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문화사적 측면에서 사신 영접이라는 국가적 의례와 영접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연회를 연계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최근 국내 학계에서는 연행록과 관련하여 중국의 사신 영접 행사에서 공연된 다양한 전통 연회와 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사신들이 연도의 객관에서 펼쳐진 연회에서 연행된 가무희와 공연 문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간 중국 학계의 청 궁정 사신 영접 의례회 관련 연구는 여러 학문분야에 걸쳐 다양한 층위로 이루어지며 풍성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관련 문헌 및 사료를 정리하였고, 문헌에 수록된 극본의 수량이나 줄거리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이미 대략적인 면모가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 이런 종류의 작품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정설이 확정되지 않아서, ‘外邦朝拜戲’, ‘外邦朝觀戲’, ‘朝貢戲’ 등의 개념이 함께 혼용되고 있다. 또한 그 극본의 수량이나 현전하는 극본의 수집, 정리 작업도 여전히 연구 단계에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청 궁정 공연 담당 기구인 南府나 昇平署 관련 연구로부터 배우나 무대를 비롯한 공연 환경에 관해 연구, 萬壽戲나 節令戲를 비롯해 여러 종목들과 관련된 궁정 문건이나 극본이 소개되어 관련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특히 乾隆 때의 『萬國來朝圖』, 『皇清職貢圖』를 소개한 연구와 명대 궁정 교방의 ‘만국래조’ 공연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청대의 경우에는 사신의 조공과 관련해서 공연과 관련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오래 문화와의 연관성을 검토하기에 빈례 중 ‘사신 영접 의례 소재회’로 명명하고, 그 중에서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절절소음』 堂々 賞雪節戲인 「化遠薦新」과 승평서 전승 月令承應戲 上元節戲 「太平王會」를 중심으로, 연극과 의례가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는 ‘문화적 퍼포먼스’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퍼포먼스 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 속에 반영된 청나라 빈례 문화, 사신 영접 의례의 ‘복원된 행동’을 통해 청 황실이 어떻게 공연과 의례를 활용하여 청 제국과 조공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청 황실 문화를 천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청 궁정회 사신 영접 의례 소재회 개괄

청나라는 강희·옹정·건륭 세 황제의 노력으로 마침내 광활한 영토를 형성했고, 근대 중국의 판도를 확립했다. 이 광대한 국토를 경영한 것 또한 건륭제의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였다. 이 시기의 청나라의 위세와 명성은 멀리까지 퍼져, 사신이 사방에서 조공을 바치러 찾아왔고, 심지어 이전까지 청과 교류가 없던 나라들까지도 앞다투어 사신을 파견해 왔다. 역대 사신 영접 의례 연회 전통을 이어받아 청대에도 이러한 萬國來朝의 웅장한 장면은 건륭 연간에 남부(南府) 극본에서 절정으로 묘사되었다. 이런 사신 영접 의례 소재회에는 대부분 세시 명절이나 중대한 국가 경축 행사 때 주변 조공국들이 사신을 파견해 와서 신하로서 조공을 바치고 앞다투어 보물을 헌상해 경하하는 장면을 그렸다. 그 극본의 내용은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기이하며 과장된 부분이 많고, 공연 중 각종 새로운 燈이나 기계장치 등을 빌려 이목을 끌었다. 이를 통해 盛世의 청나라가 광대한 영토와 무한한 해역을 지닌 대통일 제국이자 주변의 작은 나라들까지 굴복시키는 광경을 연상케 했다.

청나라 황실은 다른 국가를 자신들의 신하로 여기며, 스스로를 ‘중앙제국’으로 높이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종주국과 속국의 관계로 바라보았다. 이는 청 황실에서 편찬한 궁정회 작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청 궁정에서 공연된 사신 영접 의례 소재회들은 청 중엽에 그 창작이 가장 활발하였고, 청 후기로 갈수록 쇠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은 강희 9년(1670)에 창작된 「八蠻進寶」이다. 이후 국력이 가장 흥성했던 건륭 연간에 많은 작품들이 활발히 창작되고 공연되었으며, 도광 연간 이후 청 황실의 쇠락 및 조공 관계의 와해로 인해 관련 창작은 줄어들고, 기존 작품들을 줄여 각색하거나 극명을 바꾸어 공연하였다. 구체적으로 창작 시기별 작품 수와 작품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

3) 張義, 『清宮朝貢題材劇目研究』, 北京外國語大學博士論文, 2023, pp. 70-73 참조

<표 1> 청 궁정 사신 영접 의례 소재의 시대별 극목 상황

편찬시기	작품명			수량
강희 연간	「萬國嵩聲」	「萬國梯航」	「八蠻進寶」	3
건륭, 가정 연간	「萬國麟儀」	「萬國來朝」	「萬國來譯」	24
	「四海昇平」	「四海清寧」	「重譯來朝」	
	「群仙慶賀」	「群仙慶壽」	「協和萬邦」	
	「年年康泰」	「回回進寶」	「圖王會」	
	「環宇咸寧」	「裔夷來享」	「八方向化」	
	「光被四表」	「鯨波不動」	「天衢十二」	
	「香象渡滇池」	「虹橋現大海」	「海不揚波」	
	「太平王會」 1	「太平王會」 2	「化遠薦新」 4)	
합풍 연간	「萬國嵩呼」			0
광서 연간	「夷狄來朝」			1
총계				28

총 28종 작품 중 「萬國梯航」, 「萬國來譯」, 「重譯來朝」, 「協和萬邦」, 「回回進寶」, 「光被四表」 6개 작품은 극본이 이미 실전되었고, 나머지 22종 현전 작품들은 모두 사신들이 조공품 준비, 사행 출발, 사행 여정, 황제 알현, 봉직과 연회 참여, 경내 관광 등 일련의 사행 과정 및 빈례 중 사신 영접 의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에 따라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渡海故事)’, ‘보물 쟁탈 이야기(爭寶故事)’, ‘보물을 바치는 이야기(獻寶故事)’, ‘관광하는 이야기(觀光故事)’, ‘토벌하는 이야기(征討故事)’ 등 다섯 종류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⁵⁾ 이 중 청 말까지 가장 빈번히 공연된 작품으로는 「海不揚波」, 「年年康泰」, 「太平王會」 등이 있다.

한편, 『節節好音』에 수록된 賞雪節戲 「化遠薦新」 또한 외국 왕이 토산품과 기이한 꽃을 바치러 오는 이야기를 세밀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역시 상술한 사신 영접 의례 소재의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그 간 학계에서 거의 언급된 바가 없으며, 관련 연구도 전무하다. 그러나 『절절호음』이 건륭 연간 창작 편찬된 월령승응회 작품집임을 감안하고, 함께 공연된 「報功大祭」 역시 청 황실 길례 중사 선농단 의례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 의례(사신영접의례)와 연극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살펴보면 매우 유용한 작품이라 하겠다. 그러나 『절절호음』은 이후 관련 공연 기록이 전무하고, 승평서에서 공연 전승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청 후기까지 활발히 공연된 사신 영접 의례희 작품인 상원절희 「太平王會」를 함께 살펴봄에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송구영신 기간에 공연된 사신 영접 의례희의 시대에 따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청 궁정 빈례 문화 및 사신 영접 의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2. 사례 연구 1- 賞雪節戲 「化遠薦新」 속 사신 영접 의례 묘사

『절절호음』은 청대 궁정희가 가장 성행하던 건륭제 시기에 內府에서 편찬된 월령승응회 극본집이다. 현재 중국국가도서관 고적선본실에 소장되어 있으며, 元旦·上元·燕九·賞雪·祀竈·除夕 등 6개 명절 節戲 43책 86권이 전해진다. 현전하는 대다수 월령승응회 극본들이 대부분 승평서 등 공연 기관에서 보관한 공연용 대본인 데 비해, 『절절호음』은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 제작한 四色精抄本으로 그 판본 가치가 높다. 또한 송구영신의 시기이자 궁중 연회 및 공연이 가장 빈번한 시기였으므로, 수록된 작품들을 통해 청 전기 궁정의 송구영신 연극과 관련 풍속 문화를 연구할 수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절절호음』 제29책에 실린 상설절희 「報功大祭」와 「化遠薦新」 두 작품은 각각 국가대전의 吉禮 중 先農壇 제사⁶⁾와 賓禮 중 외국 사신 접견 의례를 상세히 묘사해 그 연구 가치가 높다. 특히 「화원천신」은 東夷·西戎·南蠻·北狄 등 사방의 藩王들이 한나라 제례 및 제사 음악을 준비했다는 말을 듣고 臘日에 각국의 기이한

4) 본래 『清宮朝貢題材劇目研究』에는 「化遠薦新」이 누락되어 총 27종으로 있다.

5) 張義, 위의 책, pp. 73 참조

6) 「보공대제」에는 상서로운 눈이 내리는 납일(臘日)에 나라에서 선농단에 제사하던 풍속을 반영하고 있다. 장단관(掌壇官), 사향관(司香官), 헌작관(獻爵官), 헌백관(獻帛官), 독축관(讀祝官) 등이 순서에 따라 등장하고, 의례 순서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제사에 바친 제품, 축문, 제사의 순서 및 제사 음악 등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청 황실 선농단 제례 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꽃을 바치며 중화의 성대함을 배우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건륭제 시기 만방의 朝覲, 인근 사신들의 방문·헌상이라는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하며, 이전부터 전승된 '만국래조' 체계의 공연을 잇고 있다. 『절절호음』에는 등장인물의 무대의상을 소개하는 ‘穿戴’와 지시문인 ‘科介’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당시 청 궁정회의 무대 의상 및 공연 상황을 유추할 수 있게 도와준다. 동·서·유·남·북·적의 네 나라 국왕의 ‘외국국왕의 모자(外國國王帽)’, ‘외국국왕의 옷(外國國王衣)’, 16인 소변의 ‘외국 소변의 모자(外國小番帽)’, ‘외국 소변의 옷(外國小番衣)’이라는 특수한 무대의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 청 궁정회에서 외국 소변과 외국 국왕이 전용으로 쓰는 모자와 무대의상이 확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복장은 극 중 한나라 조정의 황문관이나 감문사들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을 것이다.

한편, 「화원천신」 속에는 조공국이 황제를 알현하기 위한 覲禮 준비 단계부터, 정식 覲禮, 覲禮이 마친 후의 장면까지, 상세하게 무대 위에서 구현하고 있다. 게다가 지시문인 ‘科介’와 등장인물의 노래와 대사를 통해 헌상하는 朝貢品 및 황제의 詔文, 回賜, 賜宴 등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화원천신」의 의례 과정은 비록 역사서 및 전례서에 기록된 실제 청나라 빈례 중 사신영접의례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략하지만, 네 국왕이 한나라로 오는 여정에서부터 한나라 천자를 알현하기까지 과정을 묘사하고 있고, 이후 벌여질 賜宴까지도 암시하고 있어 연극이라기 보다는 마치 사신영접의례를 직접 참관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실제 사신영접의례보다 간략하게 묘사된 데에는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과 정해진 공연 시간이라는 제한 속에서 펼쳐지는 무대 공연의 상황이 작용했을 것이다.

주목할 점은 정식화된 명·청 시기의 고정 사신영접의례는 대부분 연초, 재석, 상원이나 황제의 탄신일인 만수절에 이루어진 반면, 「화원천신」에서는 상설일(賞雪日)이자 납일(臘日)에 이루어지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어쩌면 건륭 45년 팔월 13일 避暑山莊 澹泊敬誠殿에서 거행한 만수절 賀禮에 건륭 연간에 비로소 청에 완전히 복속한 집단의 지도자들인 두르베트, 우랑하이, 토르구트, 회부의 무슬림 백 관원, 금천의 토사 등이 대거 참석하도록 ‘기획’한 이래, ‘一視同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3대 외변연’ 등의 문호를 외국 사신들에게 개방한 사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매년 연말연시 북경의 황성과 원명원을 무대로 거행되던 ‘3대 外藩宴’ 등은, 외변을 위한 宴禮라는 종래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내의 백·토사와 외국의 사신들까지 포함하는, 말하자면 天下·萬國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건륭의 ‘盛世’를 기념하고 즐기는 연례로 바뀌게 되었다. 7) 또 실제 覲禮에서 명나라까지는 조선을 비롯한 번국의 황제에 대한 인사는 ‘五拜三叩之禮’였지만, 「화원천신」 속에서는 청나라 때 바뀐 황제에 대한 인사법인 ‘三跪九叩頭’가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화원천신」은 표면상으로는 한나라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한나라의 번국인 동·서·유·남·북·적 네 국왕이 황제께 조공을 바치러 오고, 한나라 대신인 숙손통이 황제를 대신해서 빈례인 사신영접의례를 지정한 이야기를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상설일(겨울철 혹은 납일)에 청 황실의 궁정 무대에서 공연하며, 황제, 황후 및 비빈들, 왕공대신, 외변(外藩)이나 외국의 사신 등으로 구성된 관객들이 함께 빈례-사신영접의례를 관람하며 천하가 태평하고 만국이 내조하는 안정된 상태를 확인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식이었다. 즉, 「화원천신」의 공연은 역대 혹은 청나라의 빈례 사신영접의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반복 재현하기보다는 무대화, 상징화하여 새롭게 재현되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청 황실에 의해 새롭게 정의되고 재현되는 사신영접의례는 대청제국의 문화 정체성을 드러내며, 당시 역사, 정치, 문화 등 시대상을 반영한다.

애석하게도 「화원천신」은 현재 堂『절절호음』 堂을 제외하고는 승평서 檔案을 비롯하여 청대 역사 자료에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아마도 청 후기로 갈수록 국세가 나날이 쇠퇴해 가는 상황 및 도광 7년 승평서 개혁 이후 궁정 극단의 규모가 대폭 감소하고, 민간 예인들이 모두 방출하여 기존의 작품들 중에서 계속 공연되는 작품들은 자연히 소규모 간단한 작품들로 대체되는 경향이 발생한다.⁸⁾ 이에 본고에서는 청말까지 빈번히 공연되며 다양한 종류의 극본이 전승되고, 공연 시기와 관련된 당안 기록이 전하는 상원절회 「太平王會」를 함께 고찰하며, 청 궁정 사신 영접 의례회가 무대 위에서 빈례 문화를 구현하는 상황을 한층 더 검토하고자 한다.

7) 구범진, 「清 乾隆 연간 外藩 宴禮의 변화와 乾隆의 ‘盛世」, 『역사문화연구』 6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8, pp.147-196

8) 임미주, 「청 궁정 월령승응희(月令承應戲)의 전승 연구 I - 청 궁정회 속 사마등(司馬騰)의 '옥마고사(玉馬故事)' 전승을 중심으로」, 『동양학』 92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3, 92집. pp.63

3. 사례 연구 2- 上元節戲 「太平王會」 속 사신 영접 의례 묘사

본고에서 저본으로 삼은 上元後承應 「太平王會」는 『故宮珍本叢刊』 第660冊의 「宴戲」에 수록되어 있다. 「海不揚波」와 함께 공연되며, 葉首에 “無排場様子・共一刻三分(약 18분) 上元後承應”이라 기록하고 있으며, 工尺譜가 기록되어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太平王會」는 원단에 외국 사신들이 조하하고 경성의 花燈을 보고자 오자 조정에서 특별히 관원을 보내어 질서를 유지하게 한다. 이후 東方九夷, 南方八蠻, 西方六戎, 北方五狄이 등장하자 백성들이 구경하러 모이고, 마지막에는 함께 태평성세를 경하한다는 내용이다.

함께 공연한 「海不揚波」 제목 옆에 작은 글자로 그 공연 시간을 ‘十一分(약 5분 30초)’, 「태평왕회」에는 ‘七分(약 4분)’으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 두 작품이 함께 공연되었으며, 그 공연시간이 매우 짧아 아주 간략하게 공연되는 방식의 공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청 궁정에서 정월 14일에는 宗室宴이 열렸는데, 이때는 고정적으로 「景星協慶」, 「燈月交輝」 두 작품이 원명원 正大光明殿이나 涵月樓에서 공연되었다. 정월 16일에는 廷臣宴이 열렸는데, 이때는 고정적으로 「海不揚波」, 「太平王會」가 원명원 正大光明殿에서 공연되었고, 원명원이 불탄 뒤로는 乾清宮에서 공연되었다. 이들 宴戲는 술을 바치고, 황제가 상을 하사하는 의식도 함께 수반되었다.⁹⁾

「태평왕회」의 줄거리는 다시 세 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 ① 외국사신들이 동정궁주의 보호 하에 평안하게 도착한 후 황제를 알현하고 조하함, ② 황제가 會同館 대사에게 명해 각국 사신들을 데리고 화등을 구경하게 함. ③ 사신들과 도성 백성들이 함께 원소절을 즐기는 것이다.

「태평왕회」극 초반에 회동관대사가 처음 등장하여 하는 대사에서 “저는 회동관(會同館) 대사(大使)입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매년 원단에 외국에서 왕으로 받들러 온 지가, 지금까지 이백여 년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라는 대사를 통해 청나라가 정식 성립된 1644년으로부터 200년이 지난 때면 광서 연간이고, 또 함께 공연한 「海不揚波」 題目 옆에 ‘광서 10년 정월 17일 철거하여 인사하니, 謝宴이 있었다.’¹⁰⁾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판본은 광서 10년(1884) 정월 17일에 공연된 극본임을 유추할 수 있다. 또 함께 공연한 「海不揚波」의 극 초반 洞庭公主의 대사 중 “지금 중화 성주의 七德誕이 있습니다.”¹¹⁾에서 청나라 황제 중 건륭제 만이 70세 이상 생존했기 때문에, 판본은 건륭 70세 만수절(1780)에 사용된 적이 있는 극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上元後承應」 「海不揚波」, 「太平王會」 串關¹²⁾극본의 「太平王會」극 초반에서 회동관대사는 후에 다시 “일백 여년이 되었습니다.”를 “190여 년이 되었습니다.”로 각색하였다. 청 건륭 후 100년은 건륭 연간이고, 190여년은 도광 연간 말기이다. 이처럼 상원절회 「태평왕회」는 실제 공연되는 시간과 공연 장소에 따라 상징적인 대사를 바꾸고 있다.¹³⁾ 이를 통해 이 작품이 건륭 연간부터 광서 연간까지 계속 공연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극 중 배경이 되는 외국 사신들이 머무는 객관인 會同館 역시 원, 명, 청 세 조대에서 사신들을 접대하던 장소로 사용되었다. 회동관 대사는 외국 빈객들을 접대하는 관리로서, 극 초반 이 인물의 등장 만으로도 이 작품이 빈례, 사신영접의례와 관련된 작품임을 표명한다. 중국 고대 도성에는 조정의 빈객을 접대하는 기구가 있어 외국사신들이 입경하여 황제를 알현하기 전에 필요한 의식은 사신들이 머무르는 객관에서 거행되었다. 회동관대사의 등장 대사는 매년 원단에 외국에서 조공하러 온 200여 년의 역사와 청 황실이 成湯과 鎬京의 성세에 버금가는 성세임을 간략하게 보여준다.

한편, 御史 2인이 【仙呂過曲小措大】에서 태평성대의 모습을 노래할 때, 통사가 동방구이, 남방팔만, 서융육융, 북방오적 등의 순서로 등장하여 무대를 한 바퀴 돌고 지나가는데, 간단한 대사 지문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 장면이 진정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이자 볼거리라 할 수 있다. 이 장면은 또한 당나라 이래부터 송, 명, 청 궁정이나 관방에서 계속 공연되던 민간 儺戲에서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외국인 가면회’의 走會 공연을 연상케 한다. 청 통치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외국인 조공의 행위에는 본국의 강성한 국세가 사방에 영향을 끼친 효

9) 陳建華, 『節日視閥下的戲曲演藝研究』, 長江文藝出版社, 2016

10) “光緒十年正月十七日撤去告座, 有謝宴”

11) “今者中華聖主七德誕。”

12) 吳書蔭, 『綏中吳氏藏鈔本稿本戲曲叢刊』 第26冊, p.263-268.

13) 劉鐵, 「清宮月令承應戲改編略論」, 『戲曲研究』 第106期, 中國藝術研究院戲曲研究所, 2018, p.260

과적인 공연물이라 할 수 있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평상시 만나기 어려운 볼거리와 오락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이 조공품을 들고 행진하는 도상 자료로인 건륭 연간의 『肅歡薈慶圖冊』 중 『萬國來朝圖』 『皇清職貢圖』를 함께 대조 분석하면 더욱 흥미로운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다.

「태평왕회」는 또한 청 황실에서 원소절에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고 연극을 공연하던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상술한 바대로, 상원절회 「태평왕회」는 건륭 연간부터 광서 연간까지 공연 전승되며 청 궁정 빈례 사신영접의례를 반영하고 있고, 공연 시대나 상황의 변화도 극본 속에 적절히 변용하여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청 궁정 사신영접의례의 면면을 더욱 풍성하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4. 결론

상술한, 청 궁정에서 공연된 월령승응회 「化遠薦新」, 「太平王會」 두 작품은 외국 국왕 및 사신을 영접하는 빈례 제도를 묘사한 작품으로, 이러한 궁정 의례 장면을 복원하는 청 궁정회는 우리에게 청대 오례 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작품 속에서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의 네 국왕이 한나라에 와서 각국의 공물을 헌상하고, 중화 문화의 성대함을 학습하고, 상원절 화등을 구경하는 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두 작품 모두 표면상으로는 한나라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아 한나라의 번국인 동이, 서융, 남만, 북적 네 국왕이 황제께 조공을 바치러 오고, 한나라 대신인 숙손통이 황제를 대신해서 빈례인 사신영접의례를 지정한 이야기를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상설일(겨울철 혹은 납일), 상원절에 청 황실의 궁정 무대에서 공연하며, 황제, 황후 및 비빈들, 왕공대신, 외번(外藩)이나 외국의 사신 등으로 구성된 관객들이 함께 청 황실의 빈례- 사신영접의례를 되새기는 동시에 청 황실의 우수함과 주변국에 대한 통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의식이었다. 이 때 역대 혹은 청 황실의 빈례 의식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배우 및 극단의 공연 상황과 관람하는 청 황실 통치자들의 신분을 고려하여 의례를 간소화하거나 상징화하여 새롭게 정의되고 복원된 기억으로 재현하였다.

이처럼 청 황실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복원된 빈례 의식은 작은 연극 무대 속에 대청 제국의 거대한 문화 정체성을 담아내며 청나라의 역사와 정치 문화를 재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역사 문헌이나 예서 등 자료들과 함께 상호 보완하며 더욱 풍성하고 다각적으로 청나라 오례 문화를 이해하게 돕는다. 의례라는 퍼포먼스는 반복된 행위로만 구성되지 않고, 사회와 시대상, 통치자의 목적에 따라 변형이 발생한다. 오랜 역사 동안 중국 안 궁정에서 전승되어 온 유가적 통치 이념이자 국가 의례인 오례도 만주족이라는 이민족 통치자와 다민족 국가를 만나 과거의 전통과 관례에 대한 반복과 변형이 작용하였다. 이는 오례 문화를 공유하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인 조선과 청나라의 오례 문화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 월령승응회에 반영된 청대 오례 문화의 반복과 변형을, 동시대 조선의 오례 문화와 비교연구를 통해 더 심도 있게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오례 문화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찾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國家圖書館古籍善本室藏, 『節節好音』, 乾隆五色鈔本, 四十三冊
 故宮博物院編, 『故宮珍本叢刊』 (第660-696冊, 海口: 海南出版社, 2000
 中國國家圖書館編撰, 『中國國家圖書館藏清宮昇平署檔案集成』, 中華書局, 2011
 周祥鈺、鄒金生等輯, 『九宮大成南北詞宮譜』, 『續修四庫全書』 第1753卷
 傅惜華, 『清代雜劇全目』 卷九 『月令承應戲』, 人民文學出版社, 1981
 김성규, 『송대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와 외교 의례』, 신아사, 2020
 김순희, 「명대 궁정 교방의 ‘만국래조’ 공연에 관한 연구」, 『중국학연구』 81집, 2017
 김용수, 『퍼포먼스로서의 연극 연구』,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7
 민태례, 『동아시아의 사신 영접 의례와 공연 문화』,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張義, 『清宮朝貢題材劇目研究』, 北京外國語大學博士論文, 2023
 임미주, 『清宮廷戲‘節節好音’研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鼓與先秦雷崇拜

李嘉好*

<目次>

【摘要】

1. 引言
 2. 鼃鼓逢逢：鼓與雷獸傳說
 3. 豐隆橐雲：鼓與祈雨古俗
 4. 震來虩虩：鼓與神聖信仰
 5. 結語
- 參考文獻

【摘要】

鼓在人類社會中出現很早，在中國亦有悠久的歷史，最初可能是由動物皮革蒙於陶匡或木匡製成。鼓與雷的聯繫，在於鼓聲能夠模擬雷聲。又由於鼃皮正是適合製作鼓面的材料之一，古籍中有鼃鼓腹作雷的傳說。根據順勢巫術的原理，擊鼓能夠喚來隨著雷電而至的風雨。在有關鼓和雷的神話中，出現了牛、龍、鳥等動物意象，它們都與農業耕作所必需的雨水有著直接或間接的聯繫。傳說中的神獸夔、商羊均擁有奇異的“一足”外形，與跛腳之人“尪”求雨的古俗有關。雷電讓人產生畏懼、崇敬、依賴等情緒，這些情緒恰恰是構建宗教世界所需要的。模擬天雷的鼓也具有神聖性，在先民信仰中扮演了重要角色。鼓被廣泛使用在驅散疫病、陰氣的儀式中，這是因為人們相信模擬雷聲的鼓可以起到恐嚇、震懾的效果；在世俗生活層面，鼓的震懾作用還被用於戰爭、訴訟。

* 四川大學文學與新聞學院，博士研究生

1. 引言

鼓是一種非常古老的膜面打擊樂器。《禮記·明堂位》有“土鼓、蕢桴、葦龠，伊耆氏之樂也”的傳說，將鼓係於上古帝王，雖無確切材料可考，但也表明鼓具有悠久的歷史。《周禮·地官》中有鼓人一職，專掌擊鼓之事務。考古發掘亦能與文獻相印證，距今約一萬年的小河西文化出土的陶鼓，是迄今為止國內所發現的最早的史前陶鼓實物。鼓的發音原理和演奏方式簡單，且從人類學和民俗學資料來看，鼓在各民族和地區都有廣泛的製作與使用。與鼓有關的記載中又能見到雷獸或雷神身影，這暗示了鼓與雷的關係，以及兩者的特殊屬性。而雷與雷崇拜，在中國乃至世界許多民族的文化系統中都扮演了重要角色。探討先秦鼓樂與雷崇拜的關係，有助於理解中國古代音樂、宗教和文化之間的互動。

2. 鼉鼓逢逢：鼓與雷獸傳說

古人常將樂器與自然相聯係，樂器不僅是發聲之器，更是天地萬物的回聲與照。

古籍記載中的鼓與雷獸傳說有關。《山海經·海內東經》云：“雷澤中有雷神，龍身人頭，鼓其腹則雷。”與之相似的有《呂氏春秋·古樂》：“帝顓頊……乃令鯀為樂倡。乃偃寢，以其尾鼓其腹，其音英英。”“鯀”，《集韻·戈韻》記為“鼉”之異體字，即今之揚子鱉，棲息在沼澤湖泊等濕地環境，習性和外形均與《山海經》所載生活在澤中的龍身“雷神”頗為相近。

先秦時期有一種鼓以鼉為名。《詩經·大雅·靈臺》“鼉鼓逢逢”句鄭箋引《草木疏》云：“（鼉）形似蜥蜴，四足長丈餘，甲如鎧，皮堅厚，宜冒鼓。”考古發掘情況也能證明鼉鼓的存在。山西襄汾陶寺墓地、河南安陽侯家莊M1217各有一件木鼉鼓出土。缶本是盛酒器，有節律地敲擊缶，則賦予了它樂器的功能。又《周禮·春官·籥章》“掌土鼓、豳籥”句鄭注引杜子春云：“土鼓，以瓦為匡，以革為兩面，可擊也。”《禮記·明堂位》亦有“土鼓”之名。土鼓是以陶土為鼓框、蒙皮革製成，可與以革蒙於缶而擊互證。這在考古發掘中也得到了證實。雲南省楚雄縣萬家坝23號墓出土一件銅鼓，時代約春秋至戰國前期，表面有煙熏痕跡，王子初指出這件銅鼓“尚停留在炊器、樂器分工不十分嚴格的初期階段”。最初的鼓可能是用動物皮革蒙在陶製炊具上而成，而鼉皮是最適合製作鼓面的材料之一。

鼉與鼓的聯繫已然明朗，那鼉鼓腹作雷的傳說又如何解釋？

雷聲與鼓聲相近，鼓是對雷聲的模擬。《考工記·鞀人》云：“凡冒鼓必以啟蟄之日。”啟蟄即驚蟄節氣，正是春雷初生的時節。雷電來自天空，《荀子·樂論》“鼓似天”之說與鼓法雷一脈相承。

從聲韻角度亦可證古人觀念裡鼓聲、雷聲之聯繫。《離騷》中的雷神名“豐隆”，“豐”上古音為滂母冬部，擬音為phjũŋ；“隆”為來母冬部，擬音為ljũŋ。“豐隆”是形容雷聲的擬聲詞，為疊韻聯綿詞，與現代漢語裡形容雷聲的“轟隆隆”性質相近。再來看《詩經》中對鼓聲的描述：如“鼉鼓逢逢”（《大雅·靈台》），逢，上古音為並母東部，與“豐”之聲紐滂母同屬唇音；上古音有“p1”等複聲母幾為學界所接受，則並母、滂母與來母亦關係密切。韻部方面，東、冬兩部均為陽聲韻部，兩部亦有相通之例。又有形容鼓聲的“淵淵”（《小雅·采芣》），為影母真部；形容雷聲的“殷”（《召南·殷其雷》）、“虺”（《邶風·終風》），分屬影母文部、

曉母微部。聲紐影母、曉母均為喉音，韻部文部、微部陰陽對轉，真部、文部陽聲韻旁轉，三字音可通，則“淵淵”之聲與“殷殷”“虺虺”之聲相近。要而言之，在古人的描述裏，鼓聲、雷聲相近。

古人繪畫時正是以鼓來表示雷神。《論衡·雷虛》云：“圖畫之工，圖雷之狀，纍纍如連鼓之形。又圖一人，若力士之容，謂之雷公，使之左手引連鼓，右手推椎，若擊之狀。”漢代畫像磚中可見這一畫法，如徐州紅樓祠堂《雷神圖》有五鼓相連，嘉祥武氏祠《雷神出行圖》有雷神擊鼓的畫面。在敦煌莫高窟的壁畫中亦有體現，第249窟窟頂西披壁畫、第285窟窟頂西披壁畫、第329窟西壁龕頂壁畫的雷神形象均裝飾以連鼓。

眾多古籍記載與民俗資料均表明，鼓最初是將鼉皮或其他動物皮革蒙於陶匡或木匡上製成，其聲音模仿雷聲，《山海經》與《呂氏春秋》等書中將鼓與雷獸傳說聯繫起來正是由此而來。

3. 豐隆乘雲：鼓與祈雨古俗

雷電往往是風雨的前兆，根據順勢巫術的原理，模擬雷聲的鼓能夠帶來雨水。當人類社會由巫術階段發展到宗教階段，獲得雨水的方式則從順勢巫術發展為向超自然力量祈求。《詩經·小雅·甫田》云：“琴瑟擊鼓，以禦田祖，以祈甘雨。以介我稷黍，以穀我士女。”即是鼓樂用於祈雨儀式的明證。

傳說中的雷獸或雷神具有奇異的外貌特征。《山海經·大荒東經》云：“……其上有獸，狀如牛，蒼身而無角，一足，出入水則必風雨，其光如日月，其聲如雷，其名曰夔。黃帝得之，以其皮為鼓，橛以雷獸之骨，聲聞五百里，以威天下。”這則故事中的夔，與《海內東經》的“雷神”相似，都可出入水澤，“以其皮為鼓”又可與“鼓其腹”對應。至於對夔的描述，“其光如日月”為與雷聲一同出現另一自然現象——閃電，而“出入水則必風雨”則暗示雷電帶來降雨。《說文·夂部》云：“夔，神虺也。如龍，一足。”又言其身似龍，一足。

夔之外形為何有如牛和如龍兩說？它“一足”的奇特體征該如何解釋呢？

古籍中不乏“一足”怪獸或神獸的記載，與雷雨相關的有橐蜚和商羊。橐蜚為鳥，它“冬見夏蟄”的習性恰好與冬蟄夏見的雷相反，且服用後有“不畏雷”的功效。自然界確有一些禽類習慣於一隻腳站立，如鶴類、鸛類、鷺類、鴨類等，這些禽鳥多生活在岸邊、沼澤，根據順勢巫術的原理，它們的親水屬性很可能被認為能帶來雨水。例如一種水濱鳥類鷓鴣，《說文·鳥部》稱其為“知天將雨鳥也”。《金枝》中記載了澳洲北方的阿努拉部落中以轉舌金絲雀為圖騰的人在指定的水塘邊施行求雨巫術。楊琳進一步指出，其他民族傳說中的雷神也常常有鳥的特征，如壯族的雷神有鳥喙、翅膀，侗族的雷神有紅色的鳥喙、雙翅和像鳥爪的雙足，瑤族的雷神背上有肉翅。因此，橐蜚、商羊都是鳥形便不奇怪了。

《山海經·大荒東經》云夔狀如牛，牛也與求雨有關。牛耕是古代農業主要生產力，世界許多民族都存在著對牛的崇拜習俗及相關儀式。而農業耕種依賴雨水，祭祀耕牛、祈禱豐收，很自然地與祈求風調雨順相聯係。

《山海經》載夔如牛，《說文·夂部》卻說夔“如龍，一足”，《山海經·海內東經》中的“雷神”也是“龍身人頭”。龍在中國古代文化體系中是及其重要的存在，

傳說中的龍有行雲布雨之能，與龍有關的祭祀、節慶也常與求雨有關。“龍”，上古音為來母東部，以雷聲為名的雷神“丰隆”之“隆”為來母冬部。如本文第一部分所述，東部與冬部音近可通，則“龍”之音讀亦可能與雷聲有關。“龍身人首”容易讓人聯想到又有鼃龍之稱的鼃，其皮可製鼓，鼓聲近於雷聲，雷聲引來風雨，故而傳說中的“龍”有降雨之能。此外，龍與降水的關係還與星象有關。東方七宿又名“蒼龍七宿”，其出沒週期與一年農時週期一致，當蒼龍七宿的第一宿——角宿露出地平線時，便是雨水增多、萬物復甦的時節。

商周青銅器上有一種紋飾被稱為“夔龍紋”，紋形為一角、一足、口張開、尾上卷的龍形動物。現藏山西省博物館的鼓座圓盤，鼓座表面飾有相互纏繞的夔龍紋帶。又湖北隨州曾侯乙墓出土一件彩漆鴛鴦盒，其右腹中部繪有鼓舞圖，畫面中部一建鼓立之鼓座呈獸形，吻長、腿短、頭身均扁平，與鼃近似。同墓還有一件青銅建鼓底座，裝飾有八對主龍軀幹及數十條攀附主龍的小龍。這些鼓座的造型或鼓座上的紋案、裝飾，能夠與夔、龍等傳說相應。鼓模仿雷聲，雷電能夠帶來雨水，因此，根據順勢巫術的原理，人們用擊鼓的方式求得雨水。鼓和鼓座上的造型、花紋，正是這一古老儀典和習俗的體現。

夔如牛或龍形，而橐蜚、商羊為鳥，都是因牛、龍、鳥與求雨儀式有關。那麼它們為什麼都有共同的特征，一足呢？

學者劉宗迪將商羊舞與禹步聯繫起來，認為這是一種用於求雨的“曲足而舞”，將巫尪之“尪”解釋為曲足而舞之人的形態。商羊舞的求雨功能幾乎毋庸置疑，劉氏將其與巫尪聯繫起來確為卓識，但將一足解為“曲足而舞”卻有待商榷。尪之本義，古人尚有分歧。《左傳·僖二十一年》載：“夏大旱，公欲焚巫尪。”杜注兩說，一說巫尪連言，指稱女巫；另一說以尪為面部朝天者。古籍常以“巫”“覡”連言，而幾無“覡”獨用之例。“巫”也并非女巫專稱，如《周禮》以“巫”統稱，而別以“男巫”“女巫”；傳說中的巫咸、巫賢為男性，《禮記·禮運》“王，前巫而後史”、《喪大記》“巫止於門外”中的“巫”也為男性。故巫、尪、覡之別於性別，未知孰是。至於杜注之面部朝天者說，《禮記·檀弓下》：“（魯穆公）曰：‘天久不雨，吾欲暴尪而奚若？’”鄭注云：“尪者，面鄉天，覲天哀而雨之。”“尪”，“尪”之異體，杜說蓋源於鄭注。又《呂氏春秋·盡數》曰：“苦水所多尪與傴人。”高誘注：“尪，突胸仰向，疾也。傴，傴脊，疾也。”則以尪為患突胸仰向之疾者。《荀子·正論》曰：“譬之，是猶傴巫跛匡大自以為有知也。”楊倞注：“匡讀為尪，癱疾之人。……《禮記》曰：‘吾欲暴尪而奚若？’”“傴巫”“跛匡”對言，從構詞法來看均為兩個雙音節偏正詞，皆為身患殘疾而行巫職之人，又以尪為跛腳之人。則有尪為面部朝天者、突胸仰向者、跛腳者三說，三者皆為生理殘疾。三說孰是，還需從字形分析。“尪”，甲金文未見，最早的形體為許慎《說文解字》所收篆書，作“𠂔”。《說文·尪部》：“尪，尪，曲脛也。𠂔，古文從尪。”段注：“本從尪聲，省作尪字。”“尪”，《說文·尪部》云：“蹇也。”段注：“俗作跛。”以尪為跛腳之狀。尪部還有“尪”（膝病也）、“尪”（尪尪，行不正）、“尪”（行脛相交也）、“尪尪”（行不正也）等字，多與人之腿病有關。故以跛腳者解“尪”更佳。夔、商羊等獸之一足，都是源於最初用跛腳者求雨。

為何跛腳者被認為有求雨之能？劉長東據中國古籍所載瘸子、駝背為巫師，以及希臘神話中的盲人作預言者、莫斯文化人類學考察發現異常體貌者在各種族中作巫師

等材料，指出“異常的體貌，從人類宗教信仰的共性以觀，亦多具神聖性”。此說可從。“𪚩”之本義為跛足之人，由於古人認為異常體貌具有神聖性，故而跛足之人被認為有求雨之能。

模擬雷聲的鼓被用於求雨儀典中，考古發掘出土的青銅鼓座和漆器圖像中的鼓座以龍或鼉為裝飾即是旁證。傳說中的夔有如牛和似龍兩種體貌，橐蜚、商羊為鳥，這些動物意象都與祈求雨水有關。夔和商羊又被塑造為奇異的“一足”，其實是跛足之人求雨古俗的體現。

4. 震來虩虩：鼓與神聖信仰

在中國古代信仰體系中，雷與雷崇拜扮演了重要角色。《易·震》云：“震來虩虩，笑言啞啞。”虩虩，王弼注：“恐懼之貌也。”爻辭描繪了雷霆襲來時萬物驚懼敬畏的圖景，在先民的感知世界裡，這一自然現象背後很可能蘊藏了神秘而強大的力量。

雷電交加，不論在視覺還是聽覺上都使人感到戰慄；雷能帶來雨水，農耕依賴充沛而適時的雨水，故而雷讓人產生渴求和依賴感；雷聲又從遙遠的天空中傳來，原始人難以找到其發源的地理空間，更難以從自然科學角度解釋它發生的原因，它又蒙上了一層神秘的面紗。這些複雜的情緒恰恰是構建宗教世界所需要情感體驗。由此，雷被描述成外形奇異或本領高超的神獸、精怪，成為人們崇拜乃至祭祀的對象。從造字層面來看，雷電在原始人的自然崇拜中扮演著重要角色。“雷”字甲骨文字形從“申”，“申”即“電”字初文。《說文解字·申部》云：“申，神也。”于省吾認為：“（申）本象電光回曲閃爍之形，即‘電’之初文。……古人見電光閃爍於天，認為神所顯示，故金文又以‘申’為‘神’，神為申的孳乳字。”“申”象電光閃爍，後疊加形符“雨”作“電”，造字與用字上展露了原始人對自然神祇尤其是雷電的崇拜。

在世界其他地區和民族的神話中，雷神往往是最高神或最高神之一。我國瑤族、壯族等民族至今有崇拜雷神的傳統，布依族甚至將雷神視為自己的祖先。古希臘神話中的眾神之王宙斯的武器是雷電；吠陀神話中，以雷電（金剛杵）為武器的因陀羅亦取代了伐樓拿成為眾神之主。維科在《新科學》中提出：“拉丁人首先根據雷吼聲把天帝叫做‘幼斯（Ious）’，希臘人根據雷電聲把天帝叫做宙斯（Zeus）。’”此說從字音角度將不同民族的神話傳說串聯起來，頗具啟發意義。在中國古代神話體系中，雷神似乎沒有成為諸神系統中的最高主神，但雷電在先民自然崇拜乃至古代神話體系中的主導地位又早有端倪：例如龍成為中國傳統文化中的重要意象，表示電光符號的“申”為“神”之本字，夔還是世俗世界中的樂官之首“樂正”，等等。

模擬雷聲的鼓也遠非尋常樂器，而是具有神聖性。除了用於祈雨，鼓還用於各類祭祀、辟邪等場合。葉舒憲根據考古出土的鼓實物之形製與比較神話學材料，指出鼓是能夠通神的神聖樂器。當發生日食時，要伐鼓相“救”。《周禮·地官·鼓人》云：“救日月，則詔王鼓。”《左傳》中有多次伐鼓救日的記載，分別在莊公二十五年、莊公三十年、文公十五年、昭公七年、昭公十七年、昭公二十一年。鼓在儺中也有使用。《呂氏春秋·十二月紀》“（季冬之月）命有司大儺”句下高誘注：“大儺，逐盡陰氣為陽導也，今人臘歲前一日擊鼓驅疫，謂之逐除是也。”日食、大儺等場合擊鼓，目的是恐嚇鬼怪或陰氣，達到驅逐不祥的效果。

鼓在世俗生活層面的亦有廣泛應用。戰場上，鼓是重要的信號器，能夠起到擾亂敵心、提振士氣、指揮戰鬥等效果。所謂“擊鼓進軍，鳴金收兵”，鼓聲代表統帥的意志和戰爭的號令。鼓能警戒訴訟糾紛者，維持法律的尊嚴。上博簡《容成氏》簡22云：“禹乃建鼓於廷，以爲民之有訟告者鼓焉。撞鼓，禹必速出，冬不敢以寒辭，夏不敢以暑辭。”葉舒憲指出，其他版本的《管子》“建鼓”又作“諫鼓”，《呂氏春秋·自知》又云“堯有欲諫之鼓”，但《容成氏》簡為戰國文字，當更可信。“建”為動詞，若以“諫”解則不妥；又言“民之有訟告者鼓焉”，亦與“諫”抵牾。則夏禹所建之鼓，當是為訴訟而設。

鼓與雷關係匪淺，鼓用於訴訟，而雷電亦被視為司法的象征。《易·噬嗑》象辭云：“雷電噬嗑；先王以明罰敕法。”噬嗑卦的卦象是下震上離，震為雷，離為電，因此卦象被描述為“雷電噬嗑”。雷電交合，被用來象徵刑罰的嚴明和公正，亦是雷電與法律訴訟相關的旁證。相似的觀念在其他民族和地區的神話中也有體現。如侗族信奉的雷神，司掌五穀種植與罪孽罰判。羅馬神話中的眾神之王朱庇特，司掌法律，以雷電為武器，擊退了妄想破壞神人秩序的巨人。雷電代表威嚴和懲處，這與法律具有一致性。

鼓的神聖性源於古人對自然偉力的敬畏與模仿，並將其內化為社會文化秩序的一部分。通過鼓，古人實現了從聽覺到心理，再從儀式到宇宙觀的全面貫通。

5. 結語

鼓與雷的聯繫，在於鼓聲能夠模擬雷聲。根據順勢巫術的原理，擊鼓能夠喚來隨著雷電而至的風雨。在有關鼓和雷的神話中，出現了牛、龍、鳥等動物意象，它們都與農業耕作所必需的雨水有著直接或間接的聯繫，是古人心目中的求雨獸。這些傳說中的神獸夔、商羊均擁有奇異的“一足”外形，一方面來自人們對一些生活在水邊、以一足站立的禽類與雨水的聯繫，一方面源於以跛腳之人“尪”有求雨之神通的古俗。

火光閃爍、聲響震天的雷電讓人產生畏懼，它又能帶來農耕文明所必需的雨水，因此被想象成神秘而強大的超自然力量，雷獸傳說和雷神崇拜就此產生。在世界許多地區和民族的神話體系中，雷神是最高神或最高神之一；在中國古代文化中，也有先民雷神崇拜的遺存。先秦鼓樂與雷神崇拜的關係，不僅反映了先民對自然力量的認知和想象，也為進一步探究先秦社會的文化內涵和精神信仰提供了重要的線索。

参考文献

- [東漢]王充著，黃暉撰：《論衡校釋》，北京：中華書局，1990年。
- [東漢]許慎撰，[清]段玉裁校注，許惟賢編：《說文解字注》，南京：鳳凰出版社，2015年。
- [宋]洪興祖撰，白化文等點校：《楚辭補注》，北京：中華書局，1983年。
- 梁啟雄：《荀子簡釋》，北京：中華書局，1983年。
- [清]阮元校刻：《十三經注疏》（清嘉慶刊本），北京：中華書局，2009年。
- 《中國音樂文物大系》總編輯總編，王子初主編：《中國音樂文物大系 湖北卷》，鄭州：大象出版社，1999年。

- 馬承源主編：《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 二》，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1年。
- 林太著：《〈梨俱吠陀〉精讀》，上海：復旦大學出版社，2008年。
- 許維遹集釋：《呂氏春秋集釋》，北京：中華書局，2009年。
- 呂大吉：《宗教學新編通論》，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10年。
- 袁珂校注：《山海經校注》，北京：北京聯合出版公司，2014年。
- 高尚舉等校注：《孔子家語校注》，北京：中華書局，2021年。
- [古羅馬] 奧維德著，楊周翰譯：《變形記》，北京：人民文學出版社，1958年。
- [意] 維柯（Vico, G.）著，朱光潛譯：《新科學》，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6年。
- [英] 詹姆斯·喬治·弗雷澤著，徐新育等譯：《金枝》，北京：大眾文藝出版社，1998年。
- [德] 斯威布著，楚南圖譯：《希臘的神話和傳說》，北京：人民文學出版社，2002年。
- 梁思永遺稿，高去尋輯補，李濟總編輯：《侯家莊第六本 1217號大墓》，台北：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1968年。
- 雲南省博物館文物工作隊，四川大學歷史系考古專業七四級學員：《雲南省楚雄縣萬家墳古墓群發掘簡報》，《文物》，1978年第10期，第1-18、97-98頁。
- 于省吾：《壽縣蔡侯墓銅器銘文考釋》，《古文字研究》第1輯，北京：中華書局，1979年。
- 高煒，李健民：《1978—1980年山西襄汾陶寺墓地發掘簡報》，《考古》，1983年第1期，第30-42、100-103頁。
- 耀宏集，雲清：《侗族信奉“雷神”》，《貴州民族研究》，1989年第4期，第29頁。
- 楊琳：《〈釋名〉“雨，羽也”的民俗內涵》，《民間文學論壇》，1994年第4期，第21-24、36頁。
- 劉宗迪：《禹步·商羊舞·焚巫尪——兼論大禹治水神話的文化原形》，《民族藝術》，1997年第4期，第113-124頁。
- 王宇，蔡舉坤：《雷州鼓文化與“雷州換鼓”辨議》，《嶺南文史》，2007年第4期，第14-16頁。
- 葉舒憲：《〈容成氏〉夏禹建鼓神話通釋——五論“四重證據法”的知識考古範式》，《民族藝術》，2009年第1期，第98-108頁。
- 肖遠平：《壯族民間故事中的雷神形象及其文化解讀》，《時代文學（雙月上半月）》，2009年第4期，第49-51頁。
- 彭建兵：《論布依族雷神信仰》，《黔南民族師範學院學報》，2016年第4期，第23-27頁。
- 劉長東：《試探臨濟義玄傳法手段之意義——以異僧佐贊與棒喝接引為例》，《國學》，2017年第1期，第154-185頁。
- 伍妍，陳杉：《瑤族雷神形象的演變及其文化意蘊》，《中華文化論壇》，2018年第1期，第75-80頁。
- 王冬力，李維濤，張婧：《論小河西文化陶鼓》，《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18年第1期，第22-34頁。
- 杜曉君：《漢代畫像石中“祈雨”圖像溯源》，《書畫世界》，2018年第9期，第14-17頁。
- 于凱：《上博楚簡〈容成氏〉疏札九則》，03/9/24，簡帛研究網站。
- 《敦煌歲時節令 | 驚蟄：“爆裂鼓手”醒萬物》，敦煌研究院網站。

‘중국 신화의 재구성’과 현대적 의미

송 동 령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신화의 개념과 연구 시각
 3. 전자매체를 통한 신화의 재구성
 4. 신화의 현대적 의미와 기능
 5.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현대 중국 사회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신화의 재구성’ 현상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신화가 새롭게 획득하는 의미와 기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신화는 세계와 인간, 사회 질서를 설명하는 신성한 이야기였으나, 오늘날에는 대중문화와 뉴미디어 속에서 재해석·재창조되며 다층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신화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정의와 양리후이(楊利慧)의 ‘신화주의’ 개념을 검토하여 현대 신화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전자매체를 중심으로 신화의 전파 양상을 살펴보고, 조지프 캠벨(J. Campbell)의 『신화의 힘』에서 제시된 신화의 네 가지 기능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아 현대 신화의 의미 형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신화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문화적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살아 있는 문화적 자원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신화의 재구성, 현대 중국 신화, 조지프 캠벨, 신화주의, 대중문화

1. 서론

본 연구는 최근 중국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신화의 재구성’ 현상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그 현상이 현대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화는 오랜 세월 동안 세계와 인간, 사물의 기원을 설명하며, 신과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문화적·사회적·심리적 삶에 깊이 관여해왔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이성과 과학 중심의 사고가 강조되면서, 신화는 점차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간주되며 그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인식되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신화가 전자 매체와 뉴미디어 등의 현대적 기술과 결합하여 새롭게 해석되고 재창조되는 ‘신화의 재구성’ 현상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¹⁾ 신화는 더 이상 과거에 고

정된 이야기로 머무르지 않고, 현대 사회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창조적 문화 현상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학계에서도 신화의 현대적 재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양리후이(楊利慧)를 중심으로 ‘신화주의’라는 새로운 연구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는 신화를 단순한 고전 서사가 아닌, 현대인의 문화적 상상력, 사회적 기억, 정체성 구축 과정과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바라보며 신화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문화, 뉴미디어, 학계 담론을 아우르는 변화는 신화가 과거의 고정된 이야기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문화적 욕구와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살아 있는 담론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현대 사회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신화의 ‘개념’에 대한 문제이다. 신화는 TV,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구성되면서 다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그 의미 또한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적 콘텍스트 속에서 재해석된 신화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오늘날 신화가 지니는 확장된 의미 범위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신화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문제이다. 신화는 여전히 현대인의 가치관, 정체성,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여러 영역 속에 작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지프 캠벨(J. Campbell)의 『신화의 힘』에서 제시된 신화의 네 가지 기능을 분석의 기준으로, 현대 사회의 문화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신화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신화의 재구성 현상을 통해 신화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는 문화적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문화적 변화와 가치관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신화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현대적 담론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신화의 개념과 연구 시각

오늘날 신화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신화란 무엇인가’이다. 이 질문은 단순한 정의의 차원을 넘어, 전통 신화와 현대 대중문화 속 신화를 어떻게 연결하고 구분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내포한다.

고대 사회에서 신화는 신성한 이야기로 전승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영화, 드라마,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롭게 재해석되고 재생산되며, 고정된 전통이 아닌 유동적이고 창조적인 서사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신화를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문화적 실천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따라서 ‘신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신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 전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신화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정의는 각자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신화를 단순한 허구가 아닌, 공동체의 세계관과 질서를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서사적 구조로 본다. 예를 들어 말리노

1) 최근 중국에서는 애니와 영화 중심의 재신화화가 본격화되어 <나타지마동강세>(哪吒之魔童降世, 2019), <강자아>(薑子牙, 2020), 라이트체이서의 ‘신신방(新神榜)’ 시리즈 <나타 중생>(哪吒重生, 2021), <양진>(楊戩, 2022), <봉신 제1부>(封神第一部, 2023) 등이 흥행과 담론을 견인했다. 게임·플랫폼에서도 <선검기협전>, <왕자영요>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웨이보(微博), 더우인(抖音)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의 영역에서도 신화적 이야기를 활용한 다양한 2차 창작물이 활발히 생산·공유되며, 신화는 개인적 정체성 표현과 사회적 메시지 전달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프스키(Malinowski, B.)는 신화를 “사회제도의 현장”이라고 하며, 그 사회의 제도와 풍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라고 정의한다. 엘리아데(Eliade, M.)는 신화를 공동체가 의례 속에서 그 이야기를 반복할 때 성스러운 시간이 현재화되며, 인간의 삶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는 신성한 이야기로 이해했고,²⁾ 알라이다 아스만(Assmann, A.)은 신화를 공동체의 기원과 규범을 문화기억의 매체에 응결시켜 세대를 횡단해 지속 전승되는 정체성 서사로 보았다.³⁾

이러한 이론들은 신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재생산되는 신화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양리후이(楊利慧)가 제시한 ‘신화주의(神話主義, mythologism)’⁴⁾ 개념은 유용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전통 신화가 현대 사회에서 재구성되고 재활용되는 방식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문화유산관광이나 전자매체(인터넷, 영화, 텔레비전, 전자게임을 포함한다) 등과 같은 새로운 콘텍스트에서 신화에 대한 유용과 재건을 ‘신화주의(Mythologism)’라고 한다. ... 필자의 ‘신화주의’는 민속학계의 ‘민속주의’와 ‘민속화’와 같은 개념의 범주를 더 많이 참고하여 신화가 그 원래 생존한 커뮤니티의 일상의 콘텍스트에서 추출되어 새로운 콘텍스트에서 다른 관객들을 위해 보여지며 새로운 기능과 의미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⁵⁾

양리후이는 ‘신화주의’를 제안하며 자신의 연구 방법을 ‘현재지향(朝向當下)’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는 전통적인 연구가 과거의 기원 규명에 치중했던 한계를 넘어, ‘지금-여기’의 맥락 속에서 신화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문화유산 관광지의 가이드 해설이나 인터넷·영화·텔레비전·전자게임·뉴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재구성되는 신화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나아가 그는 신화를 현재적 문화 실천으로 파악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1) 민속학적 현장 조사, (2) 온라인 민속학, (3) 텍스트 분석, (4) 콘텍스트 연구, (5) 통합적 연구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⁶⁾ 이처럼 신화주의의 시각은 신화를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새롭게 의미화되는 서사로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신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현대적 해답의 일부가 된다.

물론 신화주의 담론도 비판이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자들은 신화의 본질적 성격이 신성성과 종교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화를 현대 대중문화 속에서 상업적·오락적으로 자유롭게 변용·소비되는 텍스트로 이해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들에게 있어 신화는 공동체의 성스러운 질서를 확인하고 인간 존재의 근원적 의미를 드러내는 이야기이지, 상업적·오락적 맥락에서 재구성될 수 있는 단순한 문화 자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천융차오(陳泳超)는 신화가 현대 매체 속에서 문화 비평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신화주의 담론이 신화의 종교적·상징적 권위를 지나치게 희석할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다. ⁷⁾

2) 이반 스트렌스키 지음, 이용주 옮김, 『20세기 신화이론』, 이학사, 2013. 참고.

3) 알라이다 아스만 지음, 변학수, 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4. 참고.

4) 양리후이(楊利慧)가 2014년에 ‘신화주의(神話主義)’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여 중국의 현대 사회의 다양한 새로운 맥락에서 전통적인 자원인 신화가 어떻게 재생산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의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가 제시한 신화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관점은 중국 신화학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고, 최근 중국 신화학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담론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관련된 논문으로 「遺產旅遊語境中的神話主義—以導遊詞底本與導遊的敘事表演爲中心」(2014), 「“神話主義”的再闡釋：前因與後果」(2015), 「當代中國電子媒介中的神話主義」(2016) 등이 있다.

5) 楊利慧, 「“神話主義”的再闡釋：前因與後果」, 雲長江大學學報社科版, 第38卷 第5期, 2015, 2쪽.

6) 楊利慧, 「“朝向當下”的神話學論綱：路徑、視角與方法」, 『西北民族研究』, 2019. 168-170쪽 참고.

7) 陳泳超, 「神話的當代性」, 《民族文化論壇》2017年第5期.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주의는 신화를 단순한 과거의 유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대 사회 속에서 끊임 없이 새롭게 재맥락화되고 의미화되는 문화적 실천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용하다. 다시 말해, 신화주의 담론은 신화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확장해 주고, 신화 연구의 지평을 넓혀주는 중요한 학문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3. 전자매체를 통한 신화의 재구성

현대 사회에서 신화는 여전히 문헌이나 구술과 같은 전통적 매체를 통해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 매체가 아닌 전자매체라는 새로운 매체 환경 속에서 신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파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물론 최근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신화의 활발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범위를 좁혀 전자매체를 통한 전파 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 중국에서 신화는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게임과 같은 전자매체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매체들은 기본적으로 제작자와 수용자 간의 일방향적 소통 구조를 전제로 하며, 보통 신화의 기존 서사 구조를 유지하면서 현대적 감각과 가치관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나타지마동강세(哪吒之魔童降世, 2019)⁸⁾는 중국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고전 소설 『봉신연의(封神演義)』와 『서유기(西遊記)』에 등장하는 나타 신화를 모티프로 하여 현대적으로 재탄생되었다. 캐릭터의 내면·관계·연출을 통해 청년층의 감수성에 부합하도록 변형하였다. 특히 ‘오병’과 같은 캐릭터 창조로 선악 구도를 새로 배열하고,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메시지를 전면화하였다. 이처럼 고전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나타 신화의 서사를 더욱 풍부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었다. 애니메이션 《나의붉은고래(大魚海棠, 2016)⁹⁾은 중국 고대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또 다른 사례이다. 작품은 『장자(莊子)』와 『산해경(山海經)』 등에 등장하는 바다와 신령의 이미지를 모티프로 삼아, 인간과 신계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서사로 확장하였다. 주인공 춘(椿)과 곤(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 삶과 죽음의 조화를 탐구하며,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생명 존중과 희생의 가치를 부각시켰다. 특히 전통 신화 속 ‘곤(鯀)’을 단순한 신수(神獸)가 아니라 인간적 감정을 지닌 존재로 재해석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서사를 완성하였다. 이처럼 《나의붉은고래》는 고대 신화를 현대적 감수성 속에서 재맥락화하여, 신화적 상상력을 오늘날의 관객에게 새롭게 전달하였다.

실사 영화 《몬스터 헌트(捉妖記, 2015)¹⁰⁾ 역시 중국 신화를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현대 콘텐츠이다. 이 영화는 『산해경』의 파편적 이미지(요괴, 이형의 존재)를 현대적 세계관으로 재배열하였다. 고대 중국의 지리·생물·신화를 담은 백과사전적인 문헌인 『산해경』의 단편 기록을 바탕으로 인간과 요괴가 공존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설정하고, 혼혈 요괴 ‘후바’를 매개로 전통적인 신화가 가진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배척’이라는 요소를 넘어서, 오히려 이질적 존재와의 ‘공존과 이해’라는 현대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는 기존 신화와는 다른 방향으로 서사를 확장한 것으로, 단순히 신화적 이미지를 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현대 사회의 가치관과 결합해 재의미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8) 나타지마동강세(哪吒之魔童降世)는 중국에서 제작된 자오즈 감독의 2019년 3D 애니메이션, 드라마, 코미디, 판타지 영화이다. 전 세계 약 7억 4,270만 달러를 벌어들여 중국 역대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 기록을 갖고 있다.

9) 나의붉은고래(大魚海棠)는 중국에서 제작된 량쉬안(梁旋)·장춘(張春) 감독의 2016년 2D 애니메이션, 판타지 영화이다. 중국 고대 신화를 모티프로 하여 인간과 신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랑과 희생을 그렸으며, 약 5억 6천만 위안(약 8,3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기록하였다.

10) 몬스터 헌트(捉妖記)는 라만 후이(Raman Hui) 감독의 2015년 공개된 중국의 홍콩의 합작 판타지 모험 영화이다. 2015년 7월 16일 중국에서 공개되었고, 개봉 당시 중국 역대 최고 흥행 영화 기록을 달성하였다.

게임에서도 신화의 재구성성은 활발하다. 예를 들어 2017년 국내에서도 출시된 적 있는 RPG 《선검기협전(仙劍奇俠傳)》¹¹⁾ 시리즈는 여와 신화를 세계관의 핵으로 삼아, 여와의 인수사신 형상과 인류 구원의 모티프를 자오링얼 캐릭터에 계승한다. 더불어 반고·복희·신농·치우 등 다양한 신화 요소를 연쇄적으로 배치해 중국의 신화를 보여준다. 반고의 천지개벽과 정·가·신의 분화(복희, 신농, 여와), 치우의 패배와 마계의 형성, 복희의 대항, 이후 신계와 인간계의 충돌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플레이어는 인간·요괴·신적 존재가 얹힌 내러티브를 상호작용적이지만 설계된 플롯 안에서 체험한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는 단순한 이야기 소비자가 아니라, 신화 세계의 참여자가 된다.

이 외에도 수많은 대중문화 작품에서 신화는 중요한 서사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양리후이는 현대 중국 전자매체 속 신화주의를 분석하며, 드라마·애니메이션·온라인 문학·게임 등에서 신화가 단순 차용을 넘어 인용·융합·재구성의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¹²⁾ 이는 신화가 전자매체의 서사 구조와 결합하여 산업적·오락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전통 중국 신화는 애니메이션·영화·게임 등 전자매체에서 현대적 정서와 가치에 맞게 재구성되며, 이를 통해 더 넓은 층위에서 공유되고 소비되는 문화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 신화의 현대적 의미와 기능

신화는 인류의 보편적 문화 코드이자 삶의 지도를 제공하는 서사로 오랫동안 기능해 왔다. 조지프 캠벨(Joseph Campbell)은 『신화의 힘(The Power of Myth)』에서 신화를 단순한 고대 전승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를 안내하는 보편적 상징 체계로 규정하였다. 그는 신화가 고대 사회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특히 대중문화와 결합할 때 새로운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이론을 토대로 신화의 현대적 의미를 설명하고, 그것이 오늘날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캠벨은 신화의 기능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신비주의적 기능으로 신화는 인간이 세계와 우주의 신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둘째, 우주론적 기능은 세계의 기원과 구조를 설명한다. 셋째, 사회적 기능은 공동체의 질서와 규범을 정당화하고 강화한다. 넷째, 교육적 기능은 개인이 삶의 전환기를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캠벨은 이 네 가지 기능을 통해 신화가 고대 사회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¹³⁾

먼저 교육적 기능의 측면에서 《나타지마동강세》는 전통 나타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표적 사례이다. 기존의 서사와 달리, 영화는 가족애와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탐구, 자기 선택의 과정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를 두고 천잉(陳穎)은 「浅谈动画中的中国传统教育理念——以《哪吒之魔童降世》为例」에서 교육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부모가 나타를 ‘마환(魔丸)의 환생’이라는 사회적 낙인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11) 선검기협전(仙劍奇俠傳)은 1995년 대만 大宇資訊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이후 다수의 후속편과 리메이크되고 콘솔로 이식되었다. 대략 200만 장 판매되었고, 동아시아권 대표 RPG 시리즈로 자리매김하여 국내에도 2017년에 출시된 적 있다.

12) 楊利慧, 《當代中國電子媒介中的神話主義》, 《雲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4年第4期, 第69-77頁 참고.

13) 물론 캠벨의 연구 대상은 주로 전통적인 신화였지만, 그는 신화가 단순히 과거의 전승이나 종교적 의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사회 질서, 세계 인식에 필수적인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 기능은 특정 시대나 종교적 맥락에 구애받지 않고, 보편적이고 초역사적인 차원에서 신화가 인간 삶에 작동하는 방식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캠벨의 관점은 신화의 신성성이나 공동체적 기원에 집중한 기존 정의들과 달리, 현대 대중문화와 같은 세속적이고 상업적 맥락에서도 신화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유연한 틀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캠벨의 기능론은 신화의 ‘본질적 정의’를 확정하기보다는, 신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전자매체와 결합해 재구성되는 신화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이러한 기능론적 틀은 현대 대중문화 속에서 재구성된 중국 신화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랑과 헌신으로 지탱하는 모습은 부모의 사랑이 자녀 성장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또한 영화는 나타가 “내 운명은 내가 정한다(我命由我不由天)”라고 선언하며 숙명론적 굴레를 거부하고 자기 주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그려내는데, 이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제약 속에서도 자아를 긍정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교육적 모형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¹⁴⁾ 이처럼 《나타지마동강세》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과 도덕적 성장을 다루며, 개인적 차원의 자아 확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 학습과 가치 교육의 차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이는 신화가 오늘날에도 캠벨이 말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며, 현대 사회 속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신비주의적 기능은 인간이 세계와 존재의 신비를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다. 애니메이션 《나의불은고래》에서 주인공 춘(椿)은 인간 영혼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붉은 고래로 환생한 존재와 교감한다. 이러한 전개는 인간과 자연,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며 모든 존재가 순환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더우반(豆瓣)에서 譚昕swag는 “생사(生死)의 문제는 동양 문화에서 가장 신비롭고 난해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며, 이 작품이 생사의 문제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⁵⁾ 이는 신화를 통해 관객이 우주와 존재의 신비를 다시금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캠벨이 말한 신비주의적 기능이 현대 사회에서 구현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기능은 사회 질서와 규범을 정당화하고, 공동체 내 상호 수용의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영화 《몬스터 헌트》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요괴와의 갈등과 화해를 겪는 서사를 통해, 과거의 배척 관계를 수용과 공존의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서사 전략을 택한다. 이는 ‘다름의 존재’를 어떻게 공동체 안에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현대 사회적 과제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영화 소개에서는 이 작품의 중심 테마로 ‘수용’이 언급되며,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태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점에서 《몬스터 헌트》는 신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타자와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공존과 조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우주론적 기능은 세계의 기원과 질서를 설명하는 역할이다. 여와(女媧)의 보천(補天) 신화는 하늘의 붕괴와 그 수리를 통해 혼돈을 질서로 전환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이러한 모티프는 《선검기협전》 시리즈의 여자 주인공의 능력으로 구현되는데, 플레이어는 혼돈을 안정시키는 체험을 통해 신화적 우주 질서 회복의 상징을 경험한다. 또 반고(盤古)의 천지개벽 신화와 여러 신화들은 게임 속 세계관의 기초로 차용되어, 플레이어가 직접 체험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신화가 제공하는 우주적 질서의 구조를 상호작용적으로 경험하고 파악하게 해준다.

캠벨이 제시한 네 가지 기능은 신화의 보편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 이와 더불어, 현대 중국의 신화 재구성은 캠벨이 제시한 기능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기도 한다. 특히 《哪吒之魔童降世》의 흥행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 서사에 머무르지 않고, 중국 사회 전체의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고양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관객들은 “중국인으로서의 깊은 자부심”을 표현했고, 언론 역시 이 작품의 성공을 “중국 애니메이션이 국제 관객과 공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며 문화적 자신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수용 양상은 신화가 공동체적 정체성과 문화적 위상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화는 교육적·신비적·사회적·우주론적 기능이라는 보편적 역할과 더불어, 오늘날에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신감을 강화하는 현대적 의미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는 신화가 단순히 고대의 잔재가 아니라, 현재적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새롭게 의미화되는 살아 있는 문화 자원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14) 陈颖, 「浅谈动画中的中国传统教育理念——以《哪吒之魔童降世》为例」, 江西电力职业技术学院学报, 2020 年 5月. 128-129쪽 참고.

15) “生死問題可以說是東方文化里最神秘最諱莫如深的一個宏大主題”, (<https://movie.douban.com/review/8791378/>)(2017-09-02)

5. 결론

본 연구는 현대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신화의 재구성 현상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신화가 새롭게 획득한 의미와 기능을 고찰하였다. 먼저 고전적 신화 이론과 양리후이의 ‘신화주의’ 논의를 통해 현대 신화 연구의 시각을 정리하고, 이어 영화·애니메이션·게임 등 전자매체를 중심으로 신화의 전파와 변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조지프 캠벨의 네 가지 기능을 적용하여 오늘날 신화를 분석한 결과, 교육적·신비적·사회적·우주론적 기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신화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신감을 고양하는 현대적 의미를 수행한다는 점도 드러났다. 다만 본 연구는 영화와 게임의 사례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드라마·온라인 문학·뉴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분석이 요구된다. 아울러 관객과 수용자 담론에 대한 더욱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와 검증도 필요해 보인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드라마·온라인 문학·뉴미디어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를 포함하여 신화 재구성의 양상을 폭넓게 분석하고, 관객과 수용자의 반응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동아시아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나 사회·정치적 맥락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신화가 오늘날 어떻게 끊임 없이 재구성되며 공동체와 세계 인식을 형성하는 살아 있는 자원으로 기능하는지를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윤교임, 「미국의 구술예술 연구·연행중심적 접근과 구술시학의 민족지」, 『국립민속박물관연구』 15호, 2002.
- 이반 스트렌스키 지음, 이용주 옮김, 『20세기 신화이론』 이학사, 2013.
- 楊利慧, 「遺產旅遊語境中的神話主義——以導遊詞底本與導遊的敘事表演爲中心」, 『民俗研究』 2014年第1期.
- 楊利慧, 「當代中國電子媒介中的神話主義」, 『雲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4. 7.
- 나수호, 「구술성/기록성에 대한 미국의 최근 연구동향」, 『국립민속박물관연구』 2015.
- 홍윤희, 「리처드 바우만의 연행이론과 중국 민속학의 발전」, 『중국언어문화학회 중국어문학지』 제55집, 2016.
- 홍윤희, 「21세기 중국신화학의 현재지향성」, 『중국언어문화논집』 113, 2018.
- 陈颖, 「浅谈动画中的中国传统教育理念——以《哪吒之魔童降世》为例」, 『江西电力职业技术学院学报』, 2020年 5月.
- 張多, 「抖音里的神話：移動短視頻對中國神話傳統的重構」, 『互聯網時代的民俗研究』 2021年第1期.
- 張多, 「當代中國神話的大眾化重構——基於新興自媒體對神話資源轉化的分析」, 『文化遺產』 2021年第2期.
- 송동령, 『당근현대 중국 신화학의 매체성 연구』, 『延世大學校大學院』, 2021.
- 조셉 캠벨, 빌 모이어스 지음, 이윤기 옮김, 『신화의 힘』, 아르테, 2023.
- 洪允姬·마크 벤더(Mark Bender), 「매체성을 통해 보는 중국 신화의 현재성」, 『中國語文學論集』(第146 號), 2024.
- 張棟, 曾豔茹, 「移動短視頻對中國傳統神話資源的創新傳播——以抖音平台爲例」, 『海河傳媒』 2025年2月.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1부

2. 고전문학(2) 위당관 202호

중국 고전문학과 사상: 형성과 변천, 혁신의 길

性情・日常化・以唐塑宋：《宋詩別裁集》選本思想新論

麥子龍*

<目次>

【摘要】

1. 引言
 2. 本論1
 3. 本論2
 4. 本論3
 5. 本論4
 6. 結語
- 參考文獻

【摘要】

《宋詩別裁集》是清代頗有影響力的宋詩選本，孕育於唐宋詩之爭趨於緩和的詩學氛圍，其選本思想是學界重點關注的問題之一，多被指出選詩依從理學標準、題材強調盛世之音以及詩學主張以唐存宋。通過編者生平事蹟與思想著述的深入考察，以及基於選本作詩人、詩派與詩歌題材等方面的數據統計、對比與分析，在商榷學界觀點的基礎之上，筆者認為該選本的選詩標準主情而非主理，選詩題材重日常生活而非盛世頌歌，選詩宗旨主以唐塑宋而非盲從格調。總言之，性情、日常化、以唐塑宋構成《宋詩別裁集》選本思想的三大維度。

【關鍵字】：《宋詩別裁集》；清代宋詩選本；性情；日常化；以唐塑宋

* 四川大學文學與新聞學院，博士研究生

1. 引言

《宋詩別裁集》，原名《宋詩百一鈔》，是清代學者姚培謙、張景星、王永祺合編的宋詩選本，共計8卷，收錄137家647首詩。該選本誕生於唐宋詩之爭走向緩和的詩學背景下，最初由誦芬樓刻行於乾隆二十六年（1761），後在嘉道年間與《元詩別裁集》《唐詩別裁集》《明詩別裁集》《清詩別裁集》彙刻成《五朝詩別裁集》^①，正式定為今名。此後，此書在晚清至民國時期不斷被翻刻與出版，至當代出現多種點校本，流傳廣泛，影響波及域外^②，堪稱一部具有代表性的清代宋詩選本。

作為清代頗有影響力的宋詩選本，《宋詩別裁集》備受學界關注，在專書研究領域呈現較為豐富的學術成果^③。其中，該書的選本思想得到重點關注，多被認為選詩依從理學標準、題材強調盛世氣息以及詩學主張以唐存宋^④。然而，通過稽考三位編者的生平事蹟與思想著述，以及基於選本內容作詩人、詩派、詩歌題材等方面的數據統計、對比與分析，筆者發現上述觀點尚有可商榷之處。因此，筆者不揣譾陋，擬在現有研究的基礎之上，從選詩標準、選詩題材、選詩宗旨三方面探討學界觀點並闡發己見，以期全面深入地揭示《宋詩別裁集》的選本思想。

2. 選詩標準：主情而非主理

關於《宋詩別裁集》的選詩標準，現有研究多認為其選詩依從理學標準^⑤，均依據於“主要編選者張景星是理學信徒”或“編選者崇奉宋代理學”等觀點^⑥，甚至對《宋詩別裁集》產生“理學色彩相當濃重”“選有大量理學家的詩”“選理學家詩較多”的印象^⑦。然而，有學者曾對此提出異議^⑧。筆者通過考察《宋詩別裁集》及其三位編

^① 關於《五朝詩別裁集》最早刊刻時間的考論，可參看陳漢文：《〈元詩百一鈔〉與乾嘉詩壇的元詩接受——兼論此本在〈五朝詩別裁集〉的定位問題》，《清華學報》，2019年新49卷第3期，第494-495頁。

^② 《宋詩別裁集》在日本的流傳與影響情況，可參看劉軻超：《賴山陽〈東坡詩鈔〉考論》，《中華文史論叢》，2022年第2期，第331-347頁；卞東波：《宋詩東傳與異域闡釋——四種宋人詩集日本古注本考論》，《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9年第5期，第60-70頁；劉芳亮：《江戶後期的田園詩》，何建軍、李軍主編：《日本學論叢》第1輯，南開大學出版社，2015年版，第200-211頁。

^③ 《宋詩別裁集》的專書研究包括基本信息概述、選源考、文獻指瑕、選本思想與批評宗旨、綜合研究等五個方面。相關成果如下：其一有伍傑：《古編林百人錄（二十）·古詩編輯張景星》，《編輯之友》，1989年第4期，第81頁。其二有高磊：《〈宋詩別裁集〉選源考》，《陰山學刊》，2012年第25卷第6期，第32-35頁。其三有王友勝：《〈宋詩別裁集〉指瑕》，《咸寧師專學報》，2000年第4期，第58-59頁；高磊：《〈宋詩別裁集〉文獻編輯疏誤舉隅》，《唐山學院學報》，2014年第27卷第5期，第80-84頁。其四有高磊：《〈宋詩別裁集〉批評主張管窺》，《西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8年第5期，第43-44頁；高磊：《從〈宋詩別裁集〉的選目看該書唐宋兼采的批評宗旨》，《大連大學學報》，2009年第30卷第5期，第42-47頁；申屠青松：《〈宋詩百一鈔〉的詩學思想和批評策略》，《華南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0年第9卷第1期，第99-104頁。其五有高磊：《〈宋詩別裁集〉研究》，潘美月主編：《古典文獻研究輯刊》第21編第7冊，花木蘭文化出版社，2010年版，第117-137頁。

^④ 高磊：《〈宋詩別裁集〉研究》，第117-126頁；申屠青松：《〈宋詩百一鈔〉的詩學思想和批評策略》，第99-104頁。

^⑤ 揆其觀點出處，乃引自該書中華書局1975年版《出版說明》：“張景星是宋代理學家的信徒。在本書中，他對周敦頤、朱熹不直呼名字，稱為‘周子’、‘朱子’，即可見其思想的大概。”見（清）張景星、姚培謙、王永祺編：《宋詩別裁集》，中華書局，1975年版，第1頁。

^⑥ 如高磊：《〈宋詩別裁集〉研究》，第117-126頁；（清）張景星、姚培謙、王永祺編：《宋詩別裁集》，上海古籍出版社，2013年版，第1頁；王友勝：《〈宋詩別裁集〉指瑕》，第58頁。

^⑦ 見丁華等編：《文史大全》，河北教育出版社，1991年版，第168頁；王友勝：《〈宋詩別裁集〉指瑕》，第58頁；高磊：《〈宋詩別裁集〉研究》，第125頁。

^⑧ 申屠青松指出“許多人都認為《宋詩百一鈔》選詩標準是依從於理學一派，……這種看法並不準確。”但僅在餘論中簡要說明，未充分展開。見申屠青松：《〈宋詩百一鈔〉的詩學思想和批評策略》，第103-104頁。

者，發現主理說確有不符之處，並依次從編者的生平思想與治學作風、該書的選詩情況兩方面對其進行商榷。

要之，從編者來看，雖然姚培謙與王永祺在思想上尊奉程朱理學，但三位編者治學均屬考據一派，與理學的治學方式並無關涉。就詩選而論，理學詩派之詩僅占全書6%的比例，並非全書選錄的主要詩派，而且入選之詩並無載義理、主說教的語錄體之病，絕大多數為題咏性情的作品，所以貫穿全書的選詩標準當是主情而非主理，以理學為選詩標準的說法並不準確。《宋詩別裁集》以性情裁取各派詩歌，因詩存人，理學詩派作為宋代詩史中不可忽視的一個重要群體，避而不談是不現實的，批判選錄乃科學合理的做法，此正符合該詩選所提倡的賞鼎一鑒以窺探宋詩宗派的選詩理念。

3. 選詩題材：重日常生活而非盛世頌歌

《宋詩別裁集》的刊行正處於政教昌隆的乾隆盛世之時，所以不少學者以其多選頌聖詩為依據，認為該選本在選詩題材上注重廟堂化和盛世氣息，甚至批評編者完全站在統治階級立場而著意歌功頌德^①。然而，綜觀《宋詩別裁集》全書，其選詩題材並非單一，除了部分頌聖詩之外，囊括寫景、懷古咏史、登覽、紀游、羈旅、田園生活、諷喻等多種題材，主要體現出生活感興、人事體驗等日常化的選詩傾向。

從《宋詩鈔》問世開始，到《宋詩紀事》《宋百家詩存》出現，再到《宋詩別裁集》編成，宋詩選本的編選目的從備一代詩學文獻逐漸走向別裁與精選，而裁取審定的過程與結果，同時也是編者編選意識的突顯與結晶。相比於前三部宋詩選本，《宋詩別裁集》卷帙更為縮小，在所選的137家647首詩歌裏益加突顯宋詩日常生活化的題材，確立其主導地位。與此同時，直指時政、揭露時弊的政治詩和直面現實、關注民生的諷喻詩多數被割棄，《宋詩鈔》《宋詩紀事》《宋百家詩存》所收錄的遺民感時傷亂之作也刪減殆盡。此外，少量頌聖詩罕見地被收入選本當中。揆其原因，日常化題材在《宋詩別裁集》中的主導地位固然與宋詩本身書寫日常的詩學策略有關，同時與清人擺脫寫詩困境的應對策略也不無關係。蔣寅教授指出清人為了擺脫詩歌內容的日常化和藝術的平庸化的寫作困境，採取的策略為：以旅行離開日常經驗的空間，以咏史懷古超越日常經驗的時間，以提煉生活場景和制造事件提升和裝飾日常經驗，以咏物設定和虛擬特殊經驗^②。這解釋了該選本多選日常化題材的另一層原因，而三位編者均屬在野的文士，交游、雅集、忘情山水、流連風物等成為其日常生活最重要的主題。相反，乾隆盛世之下文教昌盛與思想鉗制並立兩極，遺民意識、諷喻、感時傷亂等主題皆為不合時宜^③，甚至可能招引禍患。由此觀之，《宋詩別裁集》重日常題材的選詩傾向既是詩學發展規律在選本領域的折射，也緣於時代政治因素的限制與規約。

總而言之，姚培謙等人通過“選”與“不選”裁定《宋詩別裁集》的詩歌題材，首要確立了以紀游、寄贈唱和、寫景為主的日常生活題材的主導地位，其次在選汰取舍的過程中有所保留懷古咏史、諷喻、抒懷言志、邊塞等關涉現實主題的詩歌，同時

^① 相關研究成果參看高磊：《姚培謙詩教芻議》，《西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6年第5期，第24頁；申屠青松：《〈宋詩百一鈔〉的詩學思想和批評策略》，第99-104頁；伍傑：《古編林百人錄（二十）·古詩編輯張景星》，第81頁。

^② 蔣寅：《生活在別處——清詩的寫作困境及其應對策略》，《文學評論》，2020年第5期，第130-141頁。

^③ 現存《宋詩鈔》沒有文天祥的《集杜詩》和《指南後錄·胡笳十八拍》，鞏本棟教授懷疑是後來所刪，其論據在於文天祥小傳在《宋詩鈔》中的篇幅最大，而且呂留良在小傳中詳述其抗元之事，贊賞並明言錄其《集杜詩》和《指南後錄·胡笳十八拍》，然現存該書未見載，集中所見文天祥詩亦甚少。類似情況的還有陸游，呂留良在陸游小傳中大加稱贊其詩“愛君憂國之誠”，但現存此書並未多見陸游“愛君憂國之誠”的代表作品，鞏本棟教授同樣懷疑為後來所刪。見鞏本棟：《〈宋詩鈔〉的編纂及其詩學史意義》，《南京大學學報》（哲學·人文科學·社會科學），2015年第52卷第3期，第102-103頁。

選錄少量的頌聖詩。該書以日常題材為主要傾向的選本特徵由詩學發展規律所驅動，同時受到時代政治的限定和約束。

4. 選詩宗旨：以唐塑宋而非盲從格調

作為一部在唐宋詩調和背景下誕生的宋詩選本，《宋詩別裁集》自有其選詩宗旨。有學者指出《宋詩別裁集》受到沈德潛格調說的深刻影響，編選宗旨與沈氏一致，選詩主張以唐存宋或近唐遠宋^①。該選本的刻行正處於格調說盛行詩壇的風氣之下，“以唐存宋”的觀點對深入探討其選詩宗旨具有啟發意義。然此觀點是基於該選本是《五朝詩別裁集》之一的地位提出的，如若轉換視角，將之歸置於《宋詩百一鈔》的本位進行考察，我們還可以進一步發現其以唐塑宋的選詩宗旨。

《宋詩別裁集》之序點明其詩學目的是“杜兩宋末流之弊，踵三唐最勝之業”，首先肯定唐宋“正變”論，認為“變化者，前人後人所以日出不窮，……不能相逐於變化無窮之域，惡足闖唐賢閭奧哉？”^②其次提出了補救宋詩弊端的策略：“波瀾雖富，句律不可疏；鍛煉雖精，情性不可遠。比興深婉，何貴乎走石揚沙；宮商協暢，何貴乎腐木濕鼓？”^③“波瀾富”“鍛煉精”是宋詩特點，分別對應以文入詩、注重學問的特徵，若依次諧之以“句律”（宮商協暢）、“情性”（比興深婉），便分別可以避免“腐木濕鼓”“走石揚沙”的流弊，即語錄議論^④、粗率淺露，正對應嚴羽所批評的“以文字為詩”“以議論為詩”“以才學為詩”的弊病^⑤。據此可知，編者在序言中明確了“以唐塑宋”的選詩宗旨，提出以唐詩之美匡救宋詩之弊的詩學策略。具體而言，以唐之句律精嚴、音律協暢矯正宋之散文化、議論體，以唐之比興深婉、豐神情韻裨補宋之學問化、直露性。

總之，在乾隆時期唐宋詩之爭趨於緩和的詩學背景下，為了進一步確立宋詩的詩學史地位，姚培謙等人有意識以唐詩之美匡救宋詩之弊，希冀構建格律謹嚴與形式自由相協調、技巧精深與情韻深婉相渾融的宋詩典範。由此看來，以唐塑宋不僅是《宋詩別裁集》的選詩宗旨，同時也是其構築宋詩典範的詩學策略。

5. 結語

本文基於選本內容作數據統計、對比與分析，對其中的詩人、詩派及其作品作具體闡釋，其間結合編者生平事蹟與思想著述的考察，意在通過量化分析與文獻考證相統一的研究方法，發掘並總結《宋詩別裁集》的選本思想。據此出發，圍繞該書的選本思想，筆者在商榷現有研究的基礎之上，提出三個觀點：選詩標準主情而非主理，選詩題材重日常生活而非盛世頌歌，選詩宗旨主以唐塑宋而非盲從格調。但每節標題並非有意將前後兩點截然對立，存此而去彼，而是基於選本內容與編者思想的考量，探討該選本在選詩標準、題材與宗旨方面的整體傾向，這也正是筆者在標題上使用“主”“重”“盲從”的用意。

^① 申屠青松：《〈宋詩百一鈔〉的詩學思想和批評策略》，第102-103頁；高磊：《〈宋詩別裁集〉研究》，第106-107頁。

^② （清）張景星、姚培謙、王永祺編：《宋詩別裁集》，第1頁。

^③ （清）張景星、姚培謙、王永祺編：《宋詩別裁集》，第1頁。

^④ 清代潘德輿《養一齋詩話》云：“或言詩貴質實，近於腐木濕鼓之音，不知此乃南宋之質實，……南宋以語錄議論為詩，故質實而多俚詞。”潘氏批評宋詩多“腐木濕鼓”之音，實際上是以理學詩派語錄議論的說理詩為代表。見張葆全、周滿江選注：《歷代詩話選注》，廣西師範大學出版社，2020年版，第292頁。

^⑤ （宋）嚴羽撰，普慧、孫尚勇、楊遇青評注：《滄浪詩話》，中華書局，2014年版，第23頁。

總而言之，“性情”“日常化”“以唐塑宋”分別體現了《宋詩別裁集》選詩標準、選詩題材、選詩宗旨三個方面的重要特徵。其一，《宋詩別裁集》的選詩標準主性情，以性情裁取宋詩各派吟咏自然情性的詩歌，因詩存人，對被指斥以語錄議論為詩的理學詩派同樣以此準則批判選錄。其二，編者通過“選”與“不選”兩方面裁定選詩題材，以日常生活題材為主導，選擇性地保留現實政治主題的詩歌，同時選入少量的頌聖詩。其三，通過“以唐塑宋”的選詩宗旨與詩學策略，姚培謙等人突破沈德潛格調說的藩籬，有意識以唐詩之美匡救宋詩之弊，構建格律謹嚴與形式自由相協調、技巧精深與情韻深婉相渾融的宋詩典範。由此，性情、日常化、以唐塑宋構成了《宋詩別裁集》選本思想的三大維度。

參考文獻

- 1、（宋）劉克莊撰，王秀梅點校：《後村詩話》，中華書局，1983 年版。
- 2、（宋）黎靖德編，王星賢點校：《朱子語類》，中華書局，1986 年版。
- 3、（宋）嚴羽撰，普慧、孫尚勇、楊遇青評注：《滄浪詩話》，中華書局，2014 年版。
- 4、（元）方回：《桐江續集》，《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 1193 冊，臺北商務印書館，1986 年版。
- 5、（元）方回選評，（清）紀昀刊誤，諸偉奇、胡益民點校：《瀛奎律髓》，黃山書社，1994 年版。
- 6、（明）胡應麟：《詩藪》，中華書局，1958 年版。
- 7、（清）王士禛編：《唐賢三昧集》，清乾隆二十年（1755）清妙軒巾箱刻本。
- 8、（清）姚培謙、張景星、王永祺編：《宋詩百一鈔》，清乾隆二十六年（1761）誦芬樓刻本。
- 9、（清）姚培謙：《甲餘錄》，清乾隆二十七年（1762）刻本。
- 10、（清）姚培謙、張景星編：《硯北偶鈔》，清乾隆二十七年（1762）姚氏草草集刻本。
- 11、（清）姚培謙、王鼎編：《陶謝詩集》，清乾隆二十九年（1764）姚培謙刻本。
- 12、（清）姚培謙、張景星編：《通鑒攬要》，日本天保五年（1834）刻本。
- 13、（清）姚培謙編：《元詩自攜》，日本安政五年（1858）刻本。
- 14、（清）方東樹著，汪紹楹校點：《昭昧詹言》，人民文學出版社，1961 年版。
- 15、（清）張景星、姚培謙、王永祺編：《宋詩別裁集》，中華書局，1975 年版。
- 16、（清）朱庭珍：《筱園詩話》，郭紹虞、富壽蓀編：《清詩話續編》下冊，上海古籍出版社，1983 年版。
- 17、（清）吳之振、呂留良、吳自牧選，（清）管庭芬、蔣光煦補：《宋詩鈔》，中華書局，1986 年版。
- 18、（清）曹庭棟編：《宋百家詩存》，上海古籍出版社，1993 年版。
- 19、（清）姚培謙：《松桂讀書堂集》，《四庫全書存目叢書》第 277 冊，齊魯書社，1997 年版。
- 20、（清）王懋竑撰，何忠禮點校：《朱熹年譜》，中華書局，1998 年版。
- 21、（清）姚培謙：《春秋左傳杜注》，《續修四庫全書》第 121 冊，上海古籍出版社，2002 年版。

- 22、（清）姚培謙、張卿雲輯，（清）張隆孫補遺：《類腋》，《續修四庫全書》第1248冊，上海古籍出版社，2002年版。
- 23、（清）王嘉曾：《聞音室遺文》，《續修四庫全書》第1447冊，上海古籍出版社，2002年版。
- 24、（清）宋如林修，（清）孫星衍、莫晉纂：《嘉慶松江府志》，《續修四庫全書》第689冊，上海古籍出版社，2002年版。
- 25、（清）張景星、姚培謙、王永祺編：《宋詩別裁集》，上海古籍出版社，2013年版。
- 26、（清）紀曉嵐著，劉金柱、楊鈞主編：《紀曉嵐全集》，大象出版社，2019年版。
- 27、（清）乾隆御定，喬繼堂整理：《唐宋詩醇》下冊，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2020年版。
- 28、上海張氏纂修：《雲間張氏族譜》，民國鈔本。
- 29、胡明：《“以文為詩”和“以文字為詩”》，《河北師範學院學報》，1984年第1期。
- 30、沈瑜慶、陳衍纂：《福建通志》，江蘇廣陵古籍刻印社，1986年版。
- 31、伍傑：《古編林百人錄（二十）·古詩編輯張景星》，《編輯之友》，1989年第4期。
- 32、北京大學古文獻研究所編：《全宋詩》，北京大學出版社，1991年版。
- 33、丁華等編：《文史大全》，河北教育出版社，1991年版。
- 34、張毅：《宋代文學思想史》，中華書局，1995年版。
- 35、中國科學院圖書館整理：《續修四庫全書總目提要（稿本）》第27冊，齊魯書社，1996年版。
- 36、張仲謀：《清代文化與浙派詩》，東方出版社，1997年版。
- 37、木齋：《蘇東坡研究》，廣西師範大學出版社，1998年版。
- 38、陳衍編選，蔡義江、李夢生譯注：《宋詩精華錄譯注》，上海古籍出版社，1999年版。
- 39、王友勝：《〈宋詩別裁集〉指瑕》，《咸寧師專學報》，2000年第4期。
- 40、王友勝：《簡論清代的蘇詩選錄》，《漳州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1年第3期。
- 41、呂肖兔：《宋詩體派論》，四川民族出版社，2002年版。
- 42、高磊：《〈宋詩別裁集〉主編張景星籍貫考》，《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2008年第5期。
- 43、高磊：《〈宋詩別裁集〉批評主張管窺》，《西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8年第5期。
- 44、高磊：《從〈宋詩別裁集〉的選目看該書唐宋兼采的批評宗旨》，《大連大學學報》，2009年第30卷第5期。
- 45、高磊：《〈宋詩別裁集〉研究》，潘美月主編：《古典文獻研究輯刊》第21編第7冊，花木蘭文化出版社，2010年版。
- 46、高磊：《清代宋詩選本研究》，蘇州大學2010年博士學位論文。
- 47、申屠青松：《〈宋詩百一鈔〉的詩學思想和批評策略》，《華南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0年第9卷第1期。
- 48、謝海林：《清代宋詩選本研究》，上海古籍出版社，2011年版。
- 49、高磊：《〈宋詩別裁集〉選源考》，《陰山學刊》，2012年第25卷第6期。

- 50、高磊：《〈宋詩別裁集〉文獻編輯疏誤舉隅》，《唐山學院學報》，2014年第27卷第5期。
- 51、高磊：《〈宋詩別裁集〉編者張景星家世考》，《長江師範學院學報》，2014年第30卷第6期。
- 52、劉芳亮：《江戶後期的田園詩》，何建軍、李軍主編：《日本學論叢》第1輯，南開大學出版社，2015年版。
- 53、高磊：《姚培謙家世生平考論》，《寧波工程學院學報》，2015年第27卷第2期。
- 54、鞏本棟：《〈宋詩鈔〉的編纂及其詩學史意義》，《南京大學學報》（哲學·人文科學·社會科學），2015年第52卷第3期。
- 55、羅鷺：《姚培謙與〈元詩自攜〉和〈元詩別裁集〉》，《古典文學知識》，2015年第4期。
- 56、高磊：《姚培謙詩教芻議》，《西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6年第5期。
- 57、陳漢文：《〈元詩百一鈔〉與乾嘉詩壇的元詩接受——兼論此本在〈五朝詩別裁集〉的定位問題》，《清華學報》，2019年新49卷第3期。
- 58、卞東波：《宋詩東傳與異域闡釋——四種宋人詩集日本古注本考論》，《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9年第5期。
- 59、張葆全、周滿江選注：《歷代詩話選注》，廣西師範大學出版社，2020年版。
- 60、蔣金芳：《吳之振與清初宋詩宗尚研究》，黑龍江大學2020年博士學位論文。
- 61、蔣寅：《生活在別處——清詩的寫作困境及其應對策略》，《文學評論》，2020年第5期。
- 62、劉幗超：《賴山陽〈東坡詩鈔〉考論》，《中華文史論叢》，2022年第2期。
- 63、麥子龍：《〈類腋〉研究》，暨南大學2024年碩士學位論文。

张元凯与王世贞交游考论

谭惠静*

<目次>

【摘要】

1. 引言
 2. 张元凯家世生平
 3. 张元凯与王世贞的交游始末
 4. 张元凯与王世贞的交游心态
 5. 结语
- 参考文献

【摘要】

明代嘉隆万之际，苏州卫指挥张元凯以一地方世袭武官身份凭借诗歌创作与文坛盟主王世贞相交，得以位列王氏“四十咏”之一，并在历史上留下诗名。张氏家族经历了明代文武地位的变迁，张元凯个人的宦途也并不得志。而张王两人的交往从万历元年起，持续了十几年时间，其交游的主要形式为宴饮集会和诗歌赠答，两人的心态则体现于赠答诗的细节当中。张元凯力图通过交游获得知音，而王世贞对张氏的评价则更多受其酒狂形象而非武职身份的影响，这种影响直到张元凯去世后才有所改变。在当时“重文轻武”风气之下，张王二人的交往体现出了文人交游的多样性。

引言

明代嘉隆万之际，作为文坛领袖的王世贞交游遍布天下，其重要的交游者大多有诗为纪，如《弇州四部稿》中的《五子篇》《后五子篇》《广五子篇》《续五子篇》，《弇州山人续稿》中的《二友篇》《重纪五子篇》《末五子篇》《四十咏》《八哀篇》等，王世贞统称为“诸友篇”。诗歌所纪者多为当时闻名的诗人才子或吴中的风雅名士，这些人大都与王世贞交情匪浅，亦得到了王世贞不同程度的认可。《四十咏》中的张元凯曾在嘉隆万之际任苏州卫指挥，是王世贞“诸友篇”中唯一一位地方武官。明初重武轻文，武官整体地位颇高，而随着承平日久，重文轻武之风益盛，武官受制于文人，地位不断降低，以至于在弘、正年间逐渐形成了“武臣好文”的现象。但由于大多数武官诗文修养不高，故多遭文人轻视。在这种风气下，张元凯作为一名普通地方世袭武官而能进入王世贞的主要交游圈中，其中当有值得探究之处。前人对王世贞的交游研究主要集中于“七子”或“五子”等最核心的交游者上，对“四十咏”这一复杂庞大的群体研究相对不足，而对张元凯个人与王世贞的交游更无深入研究。因此，本文将从考证张元凯的生平

* 四川大学文学与新闻学院，博士研究生

事迹出发，在此基础上梳理张元凯与王世贞交往的始末，并以两人往来赠答的诗歌的诗歌为中心，分析张王二人交往中的心态。

2. 张元凯家世生平

人际交往通常受到交往双方的社会身份和社会关系的影响，因此要深入理解张元凯的与王世贞的交游，需要了解两人的生平经历。王世贞的生平已有各种传记与年谱可以参考，而张元凯的家世生平等信息尚无详细研究，因此下文将先对张元凯的家世生平等情况进行梳理。

张元凯所任职务为苏州卫指挥，明代规定，地方卫所武职为家族世袭，张氏家族的世系与职务袭替情况在明代兵部档案《苏州卫武职选簿》中有所记载。而王世贞曾应张元凯之托为其父撰写墓志铭^①，其中亦有对家族世系的叙述。因此下文的梳理主要以这两种材料作为参考。

据墓志铭记载，张元凯祖籍为凤阳府五河县，“六世祖得从高皇帝起义，为徐州卫千户”^{[9]卷八十九 18b}。此为张氏立功并获封世袭武职的初代。初代有二子，长子张祥继承父职，并移籍陕西。次子张真本无世袭职位，其乃因在靖难之役中多次立功而被授与徐州卫世袭指挥使，为张元凯这一支世袭武职的奠基者。此后张真又升浙江都指挥僉事，最终官至右军都督同知，为张氏家族武功最高者。明代官制规定，五军都督府与都司中的高级武职为流官，不可世袭，所以后代世袭之职仍为卫指挥使。张真子张智因病未袭职，其孙张英直接袭职并调任苏州卫指挥使，为袭职的第二辈。从张英调任开始，张氏家族一直居于吴地并世袭苏州卫指挥使一职。第七辈即为张元凯之父张建节。张建节，字子行，号咸虚，生于正德七年（1512），卒于嘉靖四十五年（1566）。其少时“日夜习读经史，为书生业”^{[9]卷八十九 19a}，并以“高等补郡诸生”^{[9]卷八十九 19b}。嘉靖二十四年六月，张建节袭父职，并在此后逐渐展现出将帅之才，在漕运、缉盗、抗倭方面皆成绩卓越，历任南京总漕行都指挥、湖广鄖阳行都司署分司署指挥、福建都指挥司都指挥僉事等职。张建节于福建任职时正值倭患，其指挥有方击退倭寇，但却因拒绝贿赂而遭到抚臣弹劾，解职回乡。张建节袭职后也颇喜文人之事，其在福建抗倭期间“与其舍人雅歌投壶自如”^{[9]卷八十九 21a}，解职后则在吴中“与故吏部郎谷祥、彭征君年、章宪使美中辈课诗酒以自娱”^{[9]卷八十九 21b}，直至去世。张建节的著述也十分丰富，《墓志铭》记载十数种，惜未流传至今。《（康熙）五河县志》评价张建节“为人慷慨有大志，念先世虽以武功显，而诗书翰墨未肯让人”^{[3]卷三 5b}。张建节娶正德朝吏部尚书陆完孙女为妻，所生独子即为张元凯。

张元凯的生平信息主要见于钱谦益《列朝诗集》和其个人诗集《伐檀斋集》。张元凯，字左虞，或一字子予，吴县人。其生于嘉靖十六年（1537），少时长于吴中，自束发即学诗，弱冠后数年随其父张建节调职而辗转于多地。嘉靖三十五年丙辰（1556），张元凯二十岁，随父前往鄖阳，两年后迁至福建，至嘉靖三十七年庚申（1560），又因其父解职回到吴县。跟随父亲张建节时，其父于经学武术都对张元凯多有督促，而此时元凯“懒向帷中学经术，慷慨塞外邀奇勋”^{[13]卷四 28a}，也常为其父责备“曰余小子不好武，当筵漫学赋鸚鵡”^{[13]卷四 29b}。在鄖中时，“不耐操觚，颇事侠游，与二三年少击鲜、射飞、斗酒、慰劳，煦煦乐也”^{[13]卷四 27a}；在闽时也因“闽多佳山水、珍草木，得以徧游恣采，惟日不及”^{[13]卷四 27b}。且爱好交游，与人交时往往“贵游造请刺磨灭，博徒之辈聊延结。大道相逢脱佩钩，交欢岂必归金埒”^{[13]卷四 29b}。可见张元凯年少时喜作诗文、好为任侠，而不爱经术武学。其在父亲的庇护下生活颇为逸乐，但也能看出慷慨豪爽的性格特点。

后张元凯袭祖职为苏州卫指挥使，具体承袭时间不详，但据《武职选簿》，其“原袭祖职指挥使，嘉靖四十二（1563）年犯该运粮违限，参降指挥僉事”^{[14]30}，因此张元凯至晚已于嘉靖四十二年袭职。而此后一直任指挥僉事一职，直到“遇蒙万历十年（1582）九月恩诏复职”^{[14]30}。据《列朝诗集》小传，张元凯“既膺世爵、属囊鞬，挽强跃马，顾盼自喜，冀驰骛功名之会，以洗纨裤之辱”^{[5]5034}，可见其少时虽不好武艺，任职后却渴望通过本职取得功名，以改变少时逸乐的纨绔形象。然而张元凯不仅袭职不久后即遭降职，且由于此时武职地位低下，在任时“服兜鍪而荷剑戟，不过以之趋蹕蒲伏于封亭司府间耳”^{[13]卷十一 1}，与其期待的建功立业相去甚远。任职期间可称重任的只有两次督漕北上。第一次在隆庆二年（1568），张元凯在督漕至京后，写下了《部饷至京引见皇极门时戊辰九月五日》二首^{[13]卷五 2}。第二次为隆庆六年（1572），在这一次漕运中，张元

^① 墓志铭全称为《故昭毅将军上轻车都尉福建等处都指挥使司掌司事署都指挥僉事张君墓志铭》。

凯写下了多首诗歌作为记录。先是夏季，漕船在彭城遭遇河决而停泊，又遇炎热天气，故作《苦热诗》四首^{[13]卷一15-16}。同年秋，漕船行至潞河，内心为“复有漕渠之役”而欣喜，期待能因漕运之功获得晋升，并作《军中乐》二十首^{[13]卷十一1-5}。但入京之后，其心态发生了明显的转变。张元凯在京中亲见明穆宗棺椁移至陵墓。^①中秋日在潞河上度过三十六岁的生日，写下“公交车不待诏，客舍祇思家”^{[13]卷五6b}之句。十月朔，朝皇极殿，见证万历改元历颁布，写到“世臣唯饱饭，常作太平人”^{[13]卷五4}之句。尽管具体遭遇不明，但从诗中的消极情绪可知，张元凯不仅没能达成期望，其求取功名的意愿亦被严重挫伤。此次漕役结束后，张元凯于万历元年（1573）秋作《杂咏》十首，其小序言：“余生草莽，放旷形骸，世及戎官，数奇踉跄，心固学农而事渔猎矣。……乃若磬折于当涂，而自婴于时纲者，吾安能置之齿颊云乎哉。”^{[13]卷一16b-17a}可见张元凯彻底对功名心灰意冷，选择自免归乡。

张元凯自免后，“归而悒悒不得志，游于酒人以自放”^{[5]5035}。可知其自放后长居家乡，不再热心于求取功名，而是多参与宴饮集会，其交友也应当主要集中在这一时期。宴饮之外张元凯则过着近似隐居的生活，并写下了《岫崦山居》二首^{[13]卷六29}、《园居》二首^{[13]卷六30}等诗，表现自己的居住环境和生活动态。此后虽有友人劝其出仕，且有再度任职的机会，但张元凯直到去世都未再出仕。张元凯卒于万历十四年（1586），享年四十九岁。张氏娶嘉靖朝吏部员外郎王穀祥之女为妻，育有三子。长子张允文，字孟孺，于万历十四年八月因父老疾而替祖职，在张元凯的影响下亦爱好诗文，并常随父参与文人交友。次子张起文，以科举为业，于万历十年（1582）补博士弟子员。三子之姓名事迹则未详。

张元凯诗集《伐檀斋集》，曾先后被《徐氏家藏书目》《千顷堂书目》《明史·艺文志》《四库全书总目》《苏州府志·艺文志》等多部明清公私目录著录。今有两种版本系统传世：一为《伐檀斋集》十二卷，有万历间刻本一种（国图藏）；一为《伐檀斋集》十二卷《诸名家赠答诗》一卷，有清康熙十八年（1679）刻本（南图、日本静嘉堂藏）、清康熙三十二年（1693）刻本（上图藏）、清刻本（大连藏）和四库全书本五种。此外还有清抄本《伐檀斋集选》不分卷（南图藏）一种。从目录著录的情况看，张元凯诗在明清两代还是有一定的影响力。

从第一辈张真到第九辈张允文，我们可以看到张氏家族在明代的地位变迁。张真在靖难之役中立功，官至右军都督同知，品级和文官中的少师、太子太师等相当，可见地位之尊崇。明初重武轻文，对武臣格外优待，据此可以想见张氏家族最初之盛况。中间数代人，相对平庸但总体稳定地承袭着苏州卫指挥使一职。但与此同时，明代的文武地位已经发生了极大的转变。到明代中期，天下太平日久，武官优待和特权逐渐丧失，加上朝廷重视科举，逐渐形成了“崇文黜武”的体制，世袭武官家族亦就此衰落。受重文之风影响，张氏家族从张建节这一代开始走向学文。但张建节虽醉心文人之学，却也并未偏废本职，且正逢明代倭患频发之际，得以发挥将才，因此在文武两方面都取得了不俗的成就，成为张氏家族史上又一座高峰。张元凯幼时即长于吴中，受到吴中地区的人文风雅熏陶，在父亲身边时也当深受影响。因此尽管张建节在经术和武学上都尽心培养张元凯，但他却表现出了对诗书的偏好，并积累了深厚的文人修养。张建节解职归乡后，与吴中名士多有交游，也为张元凯未来的交游打下了基础。张元凯袭职之后虽立志建立功名，却因无时运际遇而屡遭挫折，最终选择了放弃武职之业而致力于参与文人交游。可以说，明代后期重文轻武的风气和来自父亲张建节的影响，塑造了张元凯的人生和选择。

3. 张元凯与王世贞的交游始末

前文提到，张元凯的交游主要在其自放期间，而他与王世贞的交游则始于王世贞的外甥曹昌先的推荐。曹昌先，字子念，“习古文辞，为其舅王世贞所重，从之游，海内人士登琅玕门，非子念介弗进。”^{[6]卷十三 108}可知，欲与王世贞结交者很多都是通过曹昌先的介绍而登王氏之门。张元凯《赠子念》其一提到：“吾自识曹丘，同为长者游。”^{[13]卷五 18b}这里曹丘当为双关，既以姓氏相同代指曹昌先，又指曹氏如汉代曹丘生一般，乃是自己的推荐人。长者在此处当指王世贞。这一句即是说张元凯在曹昌先的介绍下结识王世贞，并与曹昌先同游于王氏门下。

^① 依《明神宗实录》，此日为七月初九壬辰。（《明实录》第96册，《明神宗实录》卷一至八，第79-81页）张元凯作《长安街伏觀庄皇帝梓宮歸山陵》二首（见《伐檀斋集》卷五3b-4a）。

张元凯与王世贞结交的具体时间并不明确，但可以参考二人集中涉及对方的诗文梳理出大致的时间范围。张元凯集中与王世贞相关的诗歌共有十六首，其中可考的时间最早的一首为《寄王敬美参伯于南康分署时长公开府郟中》^{[13]卷九31b}。此为寄王世贞弟王世懋之诗，写作时王世懋正于南康任职，而王世贞亦身在郟阳。据周颖《王世贞年谱长编》，王世贞于万历二年（1574）从太仆寺卿迁右金都御史，巡抚郟阳，万历三年（1575）正月正式开府郟阳，直到万历四年（1576）十月遭弹劾，从郟阳解职归乡。万历四年五月末，“时（王）世懋自尚宝司司丞出使秦藩，其间外选得除江西布政左参议，特取道郟阳，与世贞言别”^{[19]426-427}。六月朔日，兄弟两人共登太和山顶。期间王世贞作有《敬美尚宝使秦有江藩之擢取道郟阳言别聊尔有赠》和《太和绝顶赠敬美少参弟时游自太华新领部南康为匡庐主人》两首诗。由此可知，张元凯诗当作于万历四年六月至十月之间，这说明张王相识当不晚于这一时间。

王世贞集中则有更多可参考的信息。王世贞为张元凯之父所作墓志铭开头写道：“余所友者张将军元凯，为布衣，饮竟岁，甚欢。一日，悴其容而造余，拜且请曰：‘幸有以铭吾父昭毅君之墓。’”^{[9]卷八十九18b}由此可知，张元凯在请王世贞为其父撰写墓志铭之前便已经与之相交，且此时张元凯已经自免，日常为一好酒善饮的形象。王世贞《弇州四部稿》始编辑于万历三年在郟阳任巡抚时，万历四年六月编成一百八十卷并在郟阳刊刻。^{[19]427-428}张建业墓志铭收入《四部稿》，则其撰写时间当在王世贞入郟以前。据此，张元凯与王世贞结交的时间范围又可以缩小至张元凯隆庆六年自放后至王世贞万历三年任郟阳巡抚前。

由前文生平可知，除去两次漕运之役外，张元凯基本主要活动于吴中地区。王世贞的经历则相对较为复杂。据《长编》，隆庆四年九月，王世贞之母卒，其于十月起在家居丧，至隆庆六年十月禫服，万历元年正月除服。同年六月启程任湖广按察使，九月迁广西右布政使，十月回乡休沐，中途迁太仆寺卿。万历二年二月入京赴太仆寺卿任，九月升都察院右金都御史，督抚郟阳，万历三年正月开府郟阳。^{[19]294-405}由此可知，王世贞从隆庆四年居丧至万历三年出仕郟阳前的这段时间中，仅有隆庆四年十月至万历元年六月和万历元年十月至万历二年二月这两段时间身在家乡，且有与人交往的空闲时间。

值得注意的是，张九一曾于隆庆六年冬至访问王世贞。此为张九一与王世贞自嘉靖三十九年在京中分别后首次相见。此次会面，张九一在吴中留居时间甚长，直到万历元年三月尚与王世贞同游吴中名胜虎丘山。之后两人仅在郟阳有过两次会面，张九一出仕凉州后便再未相见。^{[19]371}而张元凯与张九一亦有交往，《伐檀斋集》卷八收录了张九一《赠左虞都尉》和张元凯《逢张参伯辱赠漫答》这一组赠答诗。张九一诗中有“雪尽吴阊柳未柔，鹈鹕共脱酒家楼”^{[13]卷八12b}之句，张元凯诗亦提到“腊尽郊原多气色，春回凫雁满江湖”^{[13]卷八12a}，可知两人赠答之诗作于吴中，且正值冬春之际，与张九一访问王世贞并留居吴中的季节相合。张元凯诗中又有“倾盖不须通姓字，高阳今古是吾徒”^{[13]卷八12}句，此句当指两人初次相识便把酒言欢。张九一早年曾任南京尚宝少卿，此后亦辗转各地任职，并因丁忧归乡十年。此次当为其在隆万间唯一一次来到吴中，也应当正是在此时与张元凯相识。而张元凯极有可能是通过王世贞的介绍而与张九一结交。因此，综合来看，我们推测张元凯与王世贞最有可能结识于万历元年初。

但张元凯与王世贞真正的交游则应当集中在万历四年与万历十二年之间。嘉靖四十三年，王世贞居父丧期满后，本于家宅旁已构一园林，名曰“离觞”，后因“居住不静，且欲奉友人所赠释典诸部经，始于隆福寺右方僻地创一藏经阁，将诸经奉之阁中，又修治小祇园（小祇林）。”^{[19]271}这座园林即为王世贞弇山园的前身。万历元年王世贞丁母忧毕，出任湖广按察使。王氏出仕后，将园林交给家仆打理，小祇园在数年中大行扩建，到万历三年时已有“弇山”之名。万历四年十月王世贞遭弹劾，于郟阳离任归家，从此在弇山园闲居，直到万历十二年再次出仕。“自去岁归里，将故第授与弟世懋，复修凉风堂、尔雅楼及西三书舍。园成后，世贞以兹胜当与人人共之，尽发园之扃，不复拒游客，己亦常与来者同游相狎。”^{[19]441}万历七年，“始为小祇园作记文，并定名曰弇州园”^{[19]471}

王世贞长居弇山园，且开放园林许人游览，使张元凯有机会加深与王世贞的交游。《伐檀斋集》序曾多次提到张元凯到弇山园拜访王世贞。如王世贞《伐檀斋集序》：“彼睥睨于其僚舍，而数从余于东海上，不以余之侘傺齷齪而有倦心，意者其有真嗜也。”^{[13]序2}魏学礼《伐檀斋集序》：“而左虞去王中丞百里所，而数过海上，从王中丞游，其知慕事者若此。”^{[13]序5}张元凯与王世贞相关的十六首诗中，有十一首提及“弇山园”之名，且大都描写了弇山园宴会和宴会上宾主作诗的情景。张元凯与王世贞之间的两组赠答诗，一组为张元凯《春日宴弇山园呈琅琊长公》与

王世贞《承左虞兄过访赠余长歌感激用壮聊尔志答》（《伐檀斋集》卷四），另一组为王世贞《看左虞与仲德姪姪饮》与张元凯《弇山堂与王仲德饮长公有作率尔奉同》（《伐檀斋集》卷九）。从诗题可知两组诗都作于弇山园的宴会之上。据此，我们可以推知张元凯与王世贞的交游主要集中于万历四年至万历十二年间，交游的主要场合即弇山园，交游形式以参与弇山园的宴饮集会为主，并在集会上进行诗歌创作与交流。

除诗歌外，王世贞与张元凯还有书法上的交流。王世贞《有明三吴楷法序》列举三吴擅长楷书者之名时，吴郡共举五十八人，其中便有“曰指挥使张元凯”。^{[10]卷五十一^{6b}}在词翰风雅盛行的吴中地区，张元凯能够在王世贞遴选的楷书家中占据一席之地，可知其书法亦有造诣。

4. 张元凯与王世贞的交游心态

在人际交往中，交往双方的心态对交游关系有重要的影响。作为古代文人交际的重要形式，赠答唱和是交际双方在同一时空中的直接互动，往往能直观地表现出交游时的想法，但也可能因为应酬的属性而隐藏一些微妙的心态。张元凯和王世贞之间的赠答诗也存在上述特征，分析赠答诗中的细节有助于我们理解二人在交往中的心态。前文提到张元凯与王世贞有两组赠答诗，即张元凯《春日宴弇山园呈琅琊长公》^{[13]卷四³³}与王世贞《承左虞兄过访赠余长歌感激用壮聊尔志答》^{[13]卷四^{33b-34}}，以及王世贞《看左虞与仲德姪姪饮》^{[13]卷九³³}与张元凯《弇山堂与王仲德饮长公有作率尔奉同》^{[13]卷九^{33b}}。下文将对这两组诗歌进行分析。（限于篇幅，原诗省略）

首先是第一组诗。由诗题可知，张元凯诗为某年弇山园的春日宴会上赠予王世贞。该诗前四句以赞美王世贞与弇山园开篇，先将王世贞比作名士张良与谢安，又赞弇山园之美，如同道家相传的海中仙山，由此奠定了该诗的基调。开篇后的前半部分以写弇山园为主。其中“珠帘翠阁白云中”至“萧瑟崢泓不可言”八句，极尽描写弇山园的景观之曲折繁复、清幽雅致。随后四句则以“烟霞草木”“山水音”写弇山园隐居生活的自然闲适。“春宵花月欢为剧”至“何必平泉醒酒石”四句写弇山园中众人集会欢宴的场面。而这部分看似只写园林，实则包含对主人品味高雅的赞美。诗歌后半部分则转至自述和对王世贞隐居的看待之上。张元凯叹息自己落魄穷困的处境和不为人所理解的品格。“葛疆头白无推择，常伴清游山季伦”二句用山简葛疆之典^{[4]396}，张元凯以山简比王世贞、葛疆比自己，借此写自己在宦途失意后常在弇山园参与宴饮之事。而“终使揶揄满人口，青蝇白璧亦何有”二句或暗示张元凯追随王世贞的做法在当时曾遭遇一些中伤，而其终并不改爱好诗酒的本色。最后八句为张元凯对王世贞因被弹劾而闲居的宽慰，王世贞此时的隐居固然是顺应时势，但亦只是暂时，未来将如谢安一般东山再起、身名俱泰。末二句中，“冥鸿”本义为高飞的鸿雁，后多比喻避世远引。此处或指王世贞在弇山园的闲居生活虽然在诗酒中度过，但其心事却在归隐之外，似有猜测王世贞出仕之心的意味。

王氏酬答之诗则主要分为三个部分。前半部为“张侯若乳虎”至“时复扁舟下娄水”十八句，主要写张元凯怀才不遇的生平经历和尚气节轻声利的性情品格。后半部分以张元凯到访并赠诗为转折，主要为对张元凯诗歌的评价和对其经历的感慨。王世贞以“易水”比张诗，写其诗具有慷慨悲壮的总体特点。“虹云缭绕气郁淳，珠玑错落光纵横”则是用盛大之虹光和错落的珠玉来形容张元凯之诗文辞华丽而富有气势。随后，诗歌转入对张元凯际遇的感慨。王世贞为张元凯的怀才不遇而心神震动，“生欲槌周子南床，死欲掘顾元公冢”则用周邵与丘灵鞠两人出仕而不称意之典^{[4]482-483[11]889}，指责上位者不能发现张元凯的才能，未使其人尽其才、才尽其用。“嗣宗见忌双眼色，宣明可憎一面孔”二句用阮籍与谢晦皆有高才，却因性情遭到排斥的典故^{[2]1361[7]1310}，类比张元凯在宦途上的挫折。最后一段则连用两个关于酒的典故，写张元凯之好酒。“汝莫学，灌将军，我非窆家老秃翁”三句用灌夫“使酒骂座”的典故^{[8]2845-2856}，写张元凯也如灌夫一般易于酒后言行失态。末四句则用费长房与壶仙典故^{[1]2743}，写张元凯好酒善饮，失意之时便似费长房跳入酒壶一般耽溺于饮酒。

第二组诗由王世贞先作，张元凯“奉同”。王诗以阮咸和张翰两位晋代著名饮者代称其侄王仲德与张元凯，描写了二人的对饮场面：两人相遇便只饮酒，半醉之时仍狂饮不止，不一会便饮尽大量酒水，两人的身体也随醉酒而歪斜。王世贞遂在末二句中感叹想要留客却酒水将尽，不知如何是好。张氏在酬答中则称自己爱好参与宴饮以至于无暇作诗，“茂世百船聊尔耳，巨源八斗竟如何”句，写张元凯自认好饮，即便是毕卓、山涛等古代善饮之士亦不放在眼中。与王仲德之

间酒量相当，因此双方都能在对饮中尽兴，而张元凯解释自己之所以行为放纵，是因为主人在礼数上的宽容，言语中表达了对王世贞的感谢。至于这场对饮，张元凯尚且要与王仲德分个高下。

可以看到，张元凯在第一首赠诗中表达了对王世贞与弇山园的赞美，自述个人的遭遇与操守，并宽慰王氏遭弹劾后的闲居。作为自下而上结交的一方，这样的诗歌内容正符合张元凯的身份和立场，相对比较常规。诗中提到自己多次来拜访王世贞，引起了他人的嘲弄，或许是被认为利用与王世贞的交往求取声名，而张元凯对此做出了辩解，他认为作诗与饮酒都是自己本色的表现。由前文生平可知，张元凯自宦途失意后，便放弃功名而游于酒人，而在他与其他人的交游诗中都可以看出他想要在气节和作诗上获得知音的愿望。如张元凯在赠予黎民表的《酬黎户部见赠》中写“愧我燕然无计勒，可堪执御老词场”^{[13]卷八 11a}，表示自己在作诗上仍有可取之处。顾愿《张侯行赠左虞都尉》中“丈夫有怀自激烈，何嗟独未逢知音”^{[13]卷四 45a}，也正写出了张元凯对知音的渴望。或许正是因此，张元凯在与王世贞交往的过程中亦以狂放酒人的形象出现，即使王世贞在赠答诗中对此略有微词，他也依然希望展现自己真实的一面。若为求名而结交王世贞，交往策略的选择上可能会更加稳重，而无需冒可能被王世贞厌恶的风险。尽管主观上或许并未以求取声名为目标，但获得王世贞的赏识客观上为张元凯带来了诗名。

相较之下，王世贞在赠答诗中表现出的心态要更加复杂，主要表现在对张元凯酒人之姿的态度和对张氏诗歌的评价上。王世贞在《伐檀斋集序》中形容张元凯的饮酒姿态：“至于命亲知浮大白，鲸吸牛饮，飞不及停，居然高阳酒人也。酒后耳热，慷慨谈说天下事，或意有所不可，白眼骂坐，皆稍稍避去。”^{[13]序 1a}可知张元凯饮中的言行堪称酒狂。因此，王世贞相对委婉地在赠答诗中表现出了对张元凯好酒任气的不满。如在写张元凯与王仲德对饮一诗中，王氏以夸张的方式将张元凯纵饮的场面写得犹如奇景，诗题中的“轰饮”指大饮，而略带不雅之义，与文人雅集的气氛并不相符，诗歌末句“将耻吾墨奈若何”看似调笑也隐含无奈意味。

而对张元凯酒狂言行的不满在酬答之七古中则表现得更加明显。“汝莫学，灌将军，我非窦家老秃翁”三句在以灌夫比张元凯的同时，还提到自己并非魏其侯窦婴，对应的是西汉时期魏其侯与灌夫的交往。魏其侯与灌夫交好，灌夫曾数次为维护魏其侯得罪丞相武安侯田蚡。其为人刚直好酒，后又在宴会之上使酒骂座，武安侯因此以骂坐不敬弹劾灌夫。魏其侯与武安侯素有嫌隙，后也因维护灌夫的骂坐行为而被降罪。尽管灌夫酒后无状是直接原因，但二人遭遇的核心实在于得罪当朝丞相。而由王世贞的经历来看，其这一时期之所以被弹劾而解职归乡，正是因为得罪首辅张居正，与此典故颇有相似之处。因此王世贞此处或许也有担心张元的骂坐之举遭致祸事之意。在诗中如此运用这一典故，已经略带劝诫意味。

尽管张元凯在王世贞面前展现其本色，但酒狂形象也影响了王世贞对张元凯诗才的认识。王世贞在赠答诗中称赞了张元凯的诗才，并将张元凯列入“四十子”之一，但直到张元凯去世之后，王世贞才在《弇州续稿》卷十八中这首祭奠张元凯之诗^{[10]卷十八 2}中表露出与张氏相交时的真实心态。该诗题目中提到“余犹以酒客卤莽遇之”^{[10]卷十八 2a}，可以看出正是酒人形象，影响了王世贞对张元凯的认识。“后稍出其诗，余稍稍称善，然不觉其异也”^{[10]卷十八 2a}，说明王世贞总体上认可张元凯之诗，但并不十分高看。王世贞《四十咏》小序中提到“诸贤操觚而与余交，远者垂三纪，迹者将十年，不必一一同调，而臭味则略等矣。”^{[10]卷三 10b-11a}而张元凯“其所读书，必西京后而开元前，其于格务跻于武德贞观，而稍稍柔之以齐、梁之月露，其语务出于不经人道，宁有瑕疵而无完珞”^{[13]序 1}，可见张元凯的读书和作诗大致符合王世贞的复古理念。而“仅居四十人之一”，可知王世贞对其交游者有高下分别，若非“还从凿落误深知”，对张氏的评价当应更高。由此来看，当初赠答诗中对张元凯诗的称赞或存在些许应酬意味。

张元凯的武官身份在其与王世贞的交游中也常被提及。王世贞曾道：“吾居恒怪夫脱胄珥貂者，例不能为文语，即有之，而若沈始兴之授口，曹竟陵之险步，偶然之所发，亦喻吃幸中耳。”^{[13]序1b}可见王世贞亦认为武人一般缺乏文学素养，但在“四十咏”中，王世贞称张元凯：“时平介冑间，风雅亦一诣。我怜张将军，摆脱谢流辈。”^{[10]卷三15}说明他认可张元凯的诗歌水平高出一般武人。而在整个交游的过程中，张元凯通过宴饮集会、诗歌赠答的方式参与交游，这正是文人圈社交的基本规则。张元凯依靠自己的辞赋学养，完全基于文人的社交规则来进行交往，除了任职身份以外实际与文人并无太大区别。而这或许也是张元凯能够打破一般文人对武人的偏见，融入到王世贞交际圈中的原因之一。王世贞也在凭吊诗中写到“岂为兜鍪宽自狎”，可见王世贞并没有因为张元凯的武官身份而区别对待于他，张元凯的武官身份对交游的负面影响实际不如酒狂形象带来的严重。

5. 结语

总的来看，王世贞与张元凯一为当时的文坛盟主，一为不得志的地方武官，在“重文轻武”的时代风气下，这无疑是一场身份差异巨大的交往。但我们通过研究可以发现，地方世袭武职的家世决定了张元凯的身份乃至其坎坷的生平经历，而在时代风气和父亲张建节的影响下，张元凯积淀了深厚的诗书学养，并能够按照文人的规则参与到交游活动当中。尽管放纵的酒狂形象影响了王世贞在张元凯生前对他的接受程度，但张元凯诗歌创作本身的质量和特色是最终打动王世贞的关键，并为其赢得了流传于后世的诗名。张元凯和王世贞这样的特殊身份人物之间的交游能够体现出明代文人交游的多样性，而二人交游的始末和交游中的心态也启示我们，只有通过分析留存的赠答诗等文献深入到交游过程的细节之中，才能真正把握其内涵。

参考文献

- [1]（南朝宋）范晔撰，（唐）李贤等注，中华书局编辑部点校：《后汉书》，中华书局，1965年。
- [2]（唐）房玄龄等撰，中华书局编辑部点校：《晋书》，中华书局，1974年。
- [3]（清）李云景原本，郑鼎增订：《五河县志》五卷，清康熙二十五年刻本
- [4]（南朝宋）刘义庆著，徐震堃校笺：《世说新语校笺》，中华书局，1984年。
- [5]（清）钱谦益编：《列朝诗集》，北京：中华书局，第5034页。
- [6]（明）钱肃乐修，张采纂：《（崇祯）太仓州志》十五卷，明崇祯十五年刻清康熙十七年递修本。
- [7]（梁）沈约撰，中华书局编辑部点校：《宋书》，中华书局，1974年。
- [8]（汉）司马迁撰，（南朝宋）裴驷集解，（唐）司马贞索隐，（唐）张守节正义，中华书局编辑部点校：《史记》，中华书局，1982年。
- [9]（明）王世贞：《弇州四部稿》一百八十卷，明万历五年王氏世经堂刻本。
- [10]（明）王世贞：《弇州山人续稿》二百七卷，明万历刻本。
- [11]（梁）萧子显撰，中华书局编辑部点校：《南齐书》，中华书局，1972年。
- [12]（清）张廷玉等：《明史》，北京：中华书局，1974年。
- [13]（明）张元凯：《伐檀斋集》十二卷，明万历年刻本。
- [14]中国第一历史档案馆，辽宁省档案馆编：《苏州卫武职选簿》，载《中国明朝档案总汇》第61册，桂林：广西师范大学出版社，2006年，第1-310页。
- [15]中国古籍总目编纂委员会编：《中国古籍总目》集部第2册，上海古籍出版社，2021年。
- [16]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编：《明实录》第96册，《明神宗实录》卷一至八，1966年。
- [17]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编：《明实录》第101册，《明神宗实录》卷一百一至一二九，1966年。
- [18]梁志胜：《明代卫所武官世袭制度研究》，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2012年。
- [19]周颖：《王世贞年谱长编》，上海交通大学2017年博士学位论文。
- [20]陈宝良：《明代的文武关系及其演变——基于制度、社会及思想史层面的考察》，《安徽史学》2014年第2期。

燉煌 講經文에서의 唱에 관한 一考

연소영*

「目 次」

【 국문초록 】

1. 들어가며
 2. 강경문의 일반적인 구조 및 經-白-唱
 3. 강경문에서의 唱의 내용
 4. 나오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燉煌文獻들은 돈황지역에서 발굴된 두루마리 필사본으로 이러한 작품들은 燉煌遺書, 燉煌寫本이라고도 불린다. 본 연구는 돈황문헌 중 講經文의 經-白-唱的 구조로 나타나는 내용 중에서 唱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강경문의 唱은 그 내용이 강경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강경문에 나타난 唱의 언급과 불경 문장을 지칭하는 표현, 운문과 唱의 관계, 강경의 의식절차를 살펴 唱의 내용을 고찰하고자 했다.

1. 들어가며

燉煌文獻들은 돈황지역에서 발굴된 두루마리 필사본으로 이러한 작품들은 燉煌遺書, 燉煌寫本이라고도 불린다. 돈황지역에서 발굴된 이러한 문헌들을 지역적 특성에 의미를 두어 ‘돈황문학’이라 하기도 하는데, 돈황문학에 포함될 수 있는 문학은 크게 燉煌講唱文學, 曲子詞, 通俗詩歌 등으로 나뉘며, 그 중 산문과 운문이 조합된 강창문학은 다시 講經文, 變文, 詞文, 話本, 故事, 賦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¹⁾ 정병윤은 ‘돈황불교고사류 강창문학’을 變文類, 講經文類, 押座文類 중 강경문류로 보았으며,²⁾ 조명화는 ‘강창류 돈황사본’을 講經과 轉變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세분화했다.³⁾ 이밖에도 많은 분류가 있으나 돈황문학에서의 명칭, 개념, 범주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현재까지도 논의가 진행중인 문제이므로 본 발표문에서는 일반적인 강경문 관한 내용보다는 강경문에 나타난 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

* 이 발표문은 필자가 기존에 진행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보충한 것으로, 일부 중복된 내용이 있음을 밝힌다. 해당 논문은 「敦煌「金剛般若波羅密經講經文」에 대한 불교문학적 연구」, 중국어문논역총간, 2025.

1) 정광훈, 「中口韓口蒙 목련 고사의 그림서사 비교 연구 — 「大目乾連冥間救母變文」 그림두루마리 재구성」, 『중국소설논총』, 2020, 3-4쪽.

2) 정병윤, 「敦煌講唱文學中佛教故事類作品之研究」, 南京大學 박사학위논문, 1998, 14-68쪽.

3) 조명화, 『佛敎와 敦煌文學』, 서울: 이회, 2003, 267쪽.

본 연구의 목적은 돈황 강경문에 나타난 전환구인 將唱來⁴⁾ 뒤에 나오는 창(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 범위는 돈황 강경문 중 『長興四年中興殿應聖節講經文』(p.3808), 『金剛般若波羅蜜經講經文』(p.2133), 『佛說阿彌陀經講經文』1(p.2931), 2(p.6551), 3(p.2955), 『妙法蓮華經講經文』1(p.2305), 2(플루크365호), 3(p.2133), 4(符盧格編365호), 『維摩詰經講經文』1(p.4571), 2(p.3872), 3(p.3972), 4(p.2292), 5(p.3079), 6(符盧格編252호), 7(『燉煌零拾』), 『雙恩記』(플루크96호),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講經文』(p.3093), 『父母恩重經講經文』1(p.2418), 2(北京河字12호), 『孟蘭盆經講經文』(『돈황권자』32호)으로 연구를 진행했다.⁵⁾

2. 강경문의 일반적인 구조 및 經-白-唱

불경은 일반적으로 序分, 正宗分, 流通分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강경문들은 일반적으로 불경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금강경강경문』은 앞 부분이 쉼표문이라 강경문 끝부분을 보면 알 수 있고, 『불설아미타경강경문』에서도 “이 경전을 해설하자면,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은 서분이고 다음은 정중이며 그 뒤가 유통이다(將釋此經, 且分三段, 初乃序分, 次則正宗, 後乃流通)라고 하여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하는 것은 일반적인 불경의 구조와 같음을 알 수 있다.⁶⁾ 강경문에 따라 경의 일부만을 강경하기도 했으나, 기본 구조는 같다.⁷⁾

강경문은 강경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경전문구에 내포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經-白-唱的 순서로 나타난다. 이 때 경문은 설명할 내용의 문장 전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에서 …까지(…乃至…))’ 등의 문장을 이용하여 일부만 인용한 것이 특징이다. 경문의 설명 부분의 가장 보편적인 표기와 함께 그 구조를 살펴보면, ‘經云, …乃至…’→ 산문→운문(운문 말미에 ‘창장래’라는 전환구)→ 다시 ‘經云, …乃至…’의 순환구조이다. 산문과 운문, 백과 창(唱)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견해와 관련해 설명하겠다.

돈황 강경문은 변문이라는 이름 속에, 혹은 속강으로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왔다. 강경문의 창에 대한 연구도 돈황 강경문 연구 속에 함께 이루어졌는데, ‘강창’의 형식을 강경문의 經-白-唱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鄭振鐸이 『中國俗文學史』⁸⁾에서 돈황문헌을 모두 변문으로 보고, ‘강창’의 ‘강’을 산문, ‘창’을 운문으로 보았는데, 현재까지 강경문의 백 부분을 불경을 설명한 산문으로, 창 부분을 운문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전의 연구들을 집적한 가장 근래에 나온 박사 논문 두 편을 보아도, ‘경’을 인용된 경전문구, ‘백’을 경전 구절의 의미를 설명하는 산문, ‘창’을 산문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요약하는 운문으로,⁹⁾ 산문을 ‘강’으로, ‘운문’을 창으로 설명¹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일찍이 孫楷第가 ‘창장래’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이 계송 말미에 붙고 그 다음은 반드시 ‘經云’이 나온다고 하면서 이 세글자는 ‘唱經’을 촉구하는데 있음에 의심할 바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창경’을 ‘경문을 읊으며 목청 높여 노래하는’것으로 설명하면서도 ‘경문을 가려뽑아 誦하는 것’으로, ‘詠經’, ‘轉讀’과

4) 창이 나온다는 전환구는 이외에도 唱將羅羅, 唱將羅, 唱將將, 唱唱羅, 唱看看 등이 보이는데, 이들을 아울러 본 발표문에서는 편의상 가장 많이 쓰인 ‘將唱來’로 표기하기로 한다. ‘인용공식구’라는 용어는 빅터메이어 지음, 정광훈·전홍철·정병윤 옮김, 『당대변문』, 서울: 소명출판, 2012, 186쪽 참고.

5) 黃征, 張涌泉 교주, 전홍철·정병윤·정광훈 옮김, 『敦煌變文校注』, 서울: 소명출판, 2015. 번역문에 있어 일부 수정이나 가감이 있음을 밝힌다. 『佛說阿彌陀經講經文』2와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講經文』(p.3093)에는 전환구가 나타나지 않으나,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위해 연구범위에 포함한다.

6) 장용천·황정 교주, 전홍철·정병윤·정광훈 옮김, 앞의 책4, 113, 179쪽.

7) 전홍철, 『돈황강창문학의 이해』, 서울: 소명출판, 2011, 109쪽.

8) 鄭振鐸 『中國俗文學史』, 北京: 商務印書館, 2005, 245-250쪽.

9) Sinae Kim, “Preaching Buddhism in Medieval China_Sutra Lecture Texts, Rituals, and Manuscripts”, Princeton University, 2024, 42쪽.

10) 黃喚平, 「燉煌文獻『妙法蓮華經講經文』研究」, 四川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6, 50-51쪽.

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보면 강경문에 기록된 경문을 읊는 것을 ‘창경’으로 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¹¹⁾

이렇듯 지금까지 강경문의 창창과 관련하여 운과 창 의 문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있었으나, ‘唱將來’, 즉 창이 나오는 전환표기 뒤에는 아무런 내용도 강경문에 나와있지 않았기에 운문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용된 경문인지 다른 창인지 알 수 없었다. 본 발표문에서는 돈황 강경문의 경, 백, 창에서 백인 산문과 운문 뒤에 창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 하였으며, 이는 운문 뒤에 기재된 불경 인용문이 아닌 설명의 대상인 불경 문장으로 보았다. 이에 관해 다음 장에서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창 의 내용이 강경한 내용에 해당하는 각각의 불경의 경문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3. 강경문에서의 창 의 내용

1) 강경문에서의 직접적 언급

돈황 강경문에서 경문을 창한다고 직접 언급한 내용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긴 운문 중에 창 의 내용을 언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A. 이제 아래에 한 경문이 있으니
 부모님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은혜를 갚고자 하는 부분이지요.
 대중들께선 마음을 가다듬고 합장하십시오.
 이제 경문을 창하겠습니다.
 今此向下一唱經, 欲度父母報恩處.
 大眾好生合掌着, 經文有即唱將來.¹²⁾

위의 인용문 A는 『우란분경강경문』에 나오는 문장이다. 여기서 ‘經文有即唱將來’, 즉 ‘경문을 창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경문이 노래로 불러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용문에서 경문을 ‘一唱經’이라고 지칭하고, 다른 강경문에서도 경문을 설명하면서 해당 경문을 ‘此唱經文’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¹³⁾ 특히 『묘법연화경강경문』1, 2에서는 거의 모든 引經文, 즉 강경문에서 인용한 불경 뒤에 ‘此唱經文...’이라고 설명을 시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경문 자체가 창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특히 『묘법연화경강경문』의 인경방식은 경문을 그대로 옮겨 인용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강경문의 引經 방식이 불경문장의 일부분만 인용하거나, “...乃至...”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문장의 앞부분과 끝부분만 인용한 경우가 보편적임을 감안하면¹⁴⁾ 경문을 인용한 부분을 창으로 보기 어렵다.

2) 운문의 문학적 기능과 창 의 내용

강경문은 인용한 경문을 산문으로 설명한 뒤, 운문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운문 마지막에 ‘창이 나온다(唱將來)’라는 전환구가 나오는데, 이러한 운문의 기능과 관련해 이 부분을 『유마힐강경문』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孙楷第, 「唐代俗講軌範與其本之體裁」, 『敦煌變文論文錄』上, 臺北: 明文書局, 1985, 73-74, 101-102쪽. 이 외에도 한운진은 창부분이 운문으로 보았으나, ‘창장래’라는 후렴구가 매 단락 붙어있는 것으로 보았다. 「世俗化된 金剛經 金剛般若波羅蜜經講經文 小考」, 중국학논총, 2010, 102쪽 참고.

12) 장용천 · 황정 교주, 진홍철 · 정병윤 · 정광훈 옮김, 앞의 책5, 467쪽. 불경의 원문은 모두 『高麗大藏經』本(『父母恩重經』제외), 번역은 불교학술원의 번역문(<https://kabc.dongguk.edu>, 舊 한글대장경)을 따랐으며, 일부 수정이나 가감이 있음을 밝힌다.

13) 특히 『금강경강경문』, 『묘법연화경강경문』1, 2, 『유마힐경강경문』, 『부모은중경강경문』 등에서 보인다.

14) 장춘석, 「敦煌 講經文의 引經 방식 연구」, 『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110-123쪽.

- B. 햇별은 하늘의 달과 함께
언제나 하늘에서 밝고 깨끗하게 [만물을] 비춘다.
해와 달에 광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맹인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중략)
- C. 나계범왕이 인도하기를 청하며
말을 하는데 [그] 창이 곧 나온다.
- (B) 日光兼與天邊月，常向天邊多皎潔，
非於日月沒光明，自是盲人不分別. …(中略)
- (C) 螺髻梵王請指引，分明更說唱將來. ¹⁵⁾

위에 인용한 운문 B, C는 하나의 운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한 것이다. B부분이 설명하는 부분을 『유마힐경강경문』에서 경문을 인용한 부분을 찾아보면 “경전에서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에서 ‘해와 달이 어찌 청정하지 않는가?’까지(經: “佛知其念，即告之言”，乃至“日月豈不淨也”云云).”인데, 같은 운문의 말미인 C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에 설명할 내용의 인경문인 “경전에서 말하기를, ‘그때 나계범왕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이 불국토가 청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시오’에서 ‘마음이 높고 낮고 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따르지 못하므로 이 국토가 부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까지(經: “爾時螺髻梵王語舍利弗，勿作是意，謂此佛土以爲不淨”，乃至“心有高下，不依佛惠，故見此土爲不淨耳.”) 중에서 나계범왕이 나오고 일러주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 내용만 보아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경 방식으로 말미암아 쉽게 내용을 파악하기도, 양자의 내용을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유마힐소설경』경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 b. 부처님께서 그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곧 말씀하셨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해와 달이 왜 깨끗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장님은 왜 보지 못하는 것인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는 장님의 허물일지라도 해와 달의 허물은 아닙니다.” “사리불이여, 이와 같이 중생의 죄 때문에 여래의 불국토가 깨끗하게 장엄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할지언정 여래의 잘못이 아니니, 사리불아, 나의 국토가 깨끗하지만 그대가 보지 못하는 것이니라.”]
- c. 그 때 나계범왕(螺髻梵王, Brahm Skhin)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그러한 생각으로 이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하지 못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 는 석가모니부처님의 불국토가 깨끗하기가 마치 타화자재천궁(自在天宮)과 같습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제가 보기에 이 나라[土]는 언덕[丘陵]과 험한 구덩이[坑坎]와 가시밭[荊]과 모래와 자갈, 그리고 흙과 돌과 온갖 산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계범왕은 말하였다. “그대의 마음에는 높고 낮은 차별[高下]이 있어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으므로 이 나라를 보고 깨끗하지 않다고 할 뿐입니다. …”
- (b.) 佛知其念，即告之言：“於意云何？日月豈不淨耶，[而盲者不見？”對曰：“不也。世尊，是盲者過，非日月咎。”“舍利弗，衆生罪故，不見如來佛土嚴淨，非如來咎，舍利弗，我此土淨，而汝不見。”]
- (c.) 爾時，螺髻梵王語舍利弗：“勿作是意，謂此佛土以爲不淨。所以者何？我見釋迦牟尼佛土清淨。譬如自在天宮。”舍利弗言：“我見此土，丘陵、坑坎、荊棘、沙磧、土石、諸山，穢惡充滿。”螺髻梵言：“仁者心有高下，不依佛慧故，見此土爲不淨耳。”¹⁶⁾

위에 인용한 『유마힐소설경』 b, c는 각각 『유마힐경강경문』의 B, C부분과 연관된다. B에서 해와 달이

15) 장용천 · 황정 교주, 전홍철 · 정병운 · 정광훈 옮김, 앞의 책5, 20-26쪽.

16) 『고려대장경』 K0119『유마힐소설경』 b, c는 V09 P0979b10L~P0979b21L로 이어지는 내용임. 굵은 글씨로 강조한 부분은 강경문에서 인경한 부분임.

하늘에서 깨끗이 만물을 비추는데, 맹인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운문으로 설명하고, 같은 운문의 말미인 C에서는 다음에 올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나계법왕이 인도하기를 청하며 말을 하는데 그 창이 곧 나온다’는 운문 C의 설명과, 이어서 설명할 불경 c가 나계법왕이 사리불에게 불국토의 청정함을 깨우쳐 인도하는 내용임을 비교해 보면 내용상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운문이 다음에 올 불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창이 곧 나온다(將唱來)’라는 전환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에 올 불경 문장이 곧 창이 곧 나온다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강경문에서 인용하지 않고 ‘云云’으로 표시되었을 뿐인 []에 해당하는 불경 문장이 있음과 강경문에서 []부분도 포함하여 설명되고 있음을 보면, 창으로 불려진 내용이 불경 b 전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강경문에서 이러한 형식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앞서 인용한 인용문 A를 다시 살펴보자. 뒤에 이어지는 강경문 내용이 “경문에 이르기를 ‘목련은 부모님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젓 먹이신 은혜에 보답하려 하였다’(經云: ‘目連欲度父母, 報乳哺之恩.’)”인데, 이에 해당하는 불경의 내용 또한 일치한다. 운문에서 소개한 ‘이제 아래에 한 경문이 있으니 부모님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은혜를 갚고자 하는 부분(今此向下一唱經, 欲度父母報恩處)’이라는 내용과도 부합된다. 바로 운문에서 소개한 내용에 해당하는 불경 문장이 창으로 나옴을 알 수 있다. 『우란분경강경문』은 앞부분만 설한 매우 짧은 강경문이고 인용한 불경의 문장 또한 짧아서 이러한 특징을 뚜렷이 보여 준다.

일부 강경문의 경우, 긴 설명으로 인해 창과 경문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묘법연화경강경문』2의 “경전에서 말하기를, ‘이 일체중생희견보살은 기꺼이 고된 수행을 함에 일월정명덕여래의 가르침 속에서 정진 수행하며 일심으로 부처에게 빌었다. 그렇게 1만2천 년이 지나자 현일체색신삼매를 얻었다. 이 삼매를 얻자 마음에 커다란 기쁨이 생겼다(經云[云]: ‘是一切眾生喜見菩薩, 于日月淨明德佛法中精進修行, 一心求佛. 滿萬二千歲已, 得現一切色身三昧. 得此三昧已, 心大歡喜.’)”와 “경전에서 말하기를, ‘곧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온갖 색신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삼매[현일체색신삼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법화경을 들었던 덕분이니, 내 이제 일월정명덕부처님과 법화경에 공양하리라(經云: ‘即作念言: 我得現一切色身三昧, 皆是得聞妙法經力. 我今當供養日月淨明德佛及法花經’).”』17) 사이에 경전을 인용한 내용이 셋, 이에 따른 운문이 넷이 있어 혼란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많은 내용의 서술과 운문이 나오는데, 두 번째 경문의 바로 앞의 운문 말미에 “이 삼매를 얻게 되리라 알 수 없었으니 무엇으로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지 그 창이 곧 나오리라(未審既能得此定, 作何報賀(尙)也唱將來.)”라는 다음 경문의 소개가 나온다. 이해하기 어려운 불경 설명 속에서 창이 나온다는 전환구의 규칙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나,18) 운문이 다음에 올 불경 내용을 소개하고 창이 나옴을 밝히는 것은 공통적이며, 이로써 창이 곧 나온다의 다음에 올 불경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운문의 문학적 기능, 즉 앞서 설명한 불경의 내용을 설명한 뒤 다음 불경의 내용을 소개하는 역할은 강경문만 보았을 때는 구분이 쉽지 않다. 해당 불경을 모두 외우고 있거나, 불경을 옆에 두고 비교해 볼 때 극명하게 드러나며, 내용이 파악되면 비로소 운문에서 자연스럽게 창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강경문에 나타난 강경 순서를 보면 불경의 내용을 인용하고 산문으로 뒤이어 설명한 후, 운문에서 다시 쉽게 혹은 불교의 교리에 맞게 설명하고 계속해서 운문에서 뒤이은 다음 불경의 내용을 제시하고 해당

17) 장용천·황정 교주, 전홍철·정병윤·정광훈 옮김, 앞의 책4, 244-252쪽. 이에 대한 불경원문은 강경문에 인용된 문장과 일치한다. 『고려대장경』 K0116『묘법연화경』 6권 V09 P0788a12L~P0788a18L

18) 창장래라는 전환구가 나오지만, 강경문에 이어 다음에 오는 인경문이 “如是”, “我聞”, “一時” 와 같이 짧은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대조결과, 해당 불경에 대응하는 내용도 강경문의 인경문과 같다. 이런 경우 창이 내용을 이러한 몇 글자로 불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는 후속연구로 삼겠다. 『유마힐경강경문』1, 장용천·황정 교주, 전홍철·정병윤·정광훈 옮김, 앞의 책5, 334-379쪽; “如是我聞. 一時,” 『유마힐경소설경』 K0119, V09P0977a04L.

내용이 창으로 다시 이어진다. 창으로 경문을 노래한 뒤 해당 내용을 인용한 내용이 뒤따르는 ‘經-白(散韻)-唱’, 혹은 ‘講(散韻)-唱’의 반복 순환구조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현재 읽을 수 있는 이런 순서로 이어지는 순환에 대해 강경의식의 순서와 관련하여 비교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창 의 내용이 경문임도 고찰해보기로 한다.

3) 강경의 의식절차와 강경문의 창

강경의 의식절차와 관련하여 조명화는 그의 책에서 南北朝時代 무렵의 강경은 승단 내의 정식강경, 포교를 위해 승속을 가리지 않고 개방하는 강경, 그리고 開題大會라는 이름으로 제목만을 설명하고 공덕위주로 설하는 강경 세 가지로 구분했다. 강경의 의식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본강 전에 梵唄를 하고 押座文을 설하며, 경전의 題名을 창하고 경전 제목을 설명하는 등의 형식이 있기도 하다. 본강을 서분, 정중분, 유통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나면, 마무리로 회향발원을 하고 解座文을 설한다. 『금강경강경문』에서는 정중분, 유통분, 그리고 짧지만 해좌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볼 수 있으나 서분만을 인용하여 강설하거나 정중분의 일부만 이용하여 강설한 강경문도 있다.¹⁹⁾

세 가지 강경 형식 중 정식 강경의 기본 형식에서 講師와 都講의 역할을 살펴보자. 강경의 의식 절차 중 本文을 강설하는 本講 형식은 講師와 都講 두 사람이 高座에 올라 서로 마주보고 앉은 다음 도강이 먼저 경전의 문구를 창하고 나면 그 부분을 강사가 강설하기를 반복하는 형식이었다. 강경회에서는 법사 혼자서 경전을 강설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문구를 좋은 목소리로 창하는 한편 법사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 도강이라는 직책을 반드시 두었다. 법당의 전면 양쪽에 높은 법좌를 설치해 두고 마주보고 앉은 다음, 도강이 먼저 경전의 문구를 창하면 법사는 그 부분을 받아서 강설하고, 법사의 강설이 끝나면 다음 부분의 경전문구를 창하는 식으로 진행한 것이다.²⁰⁾

이렇듯 도강이 경전의 문구를 창하면 강사가 강설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강경’이었다. 강경문을 대입하여 살펴보면 도강이 경문을 창하면, 강사가 경전의 문구를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설명을 덧붙이고 운문으로 설명한 뒤 이어지는 뒷 내용을 소개하며 창이 나옴을 역시 운문으로 밝힌다. 그러면 뒤이은 경문을 다시 도강이 창하는 것이 반복 순환되는 형식임을 알 수 있다. 창이 먼저 나오고 경문의 해설이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 부분이 꺾문인 강경문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묘법연화경강경문』³을 보면 어느 정도 참고가 가능하다. 강경문이 시작되는 첫머리를 보면, 먼저 운문으로 관음보살의 공덕을 讚한 뒤 이어지는 경문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운문을 마무리 지으며 계속된 운문으로 창이 이어짐을 밝히고 뒤이어 경문이 인용되고 있어,²¹⁾ 강경문에서 본격적인 경문의 설명인 본강에서는 창으로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강경문의 창에 대해 살펴보았다. 강경문에서 창 의 내용은 운문이나 인경문이 아니며, 다음에 설명할 부분의 불경 문장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강경문의 강경범위나 특징, 강경형식과 관련하여 보다 세밀한 분류와 그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후속연구로 삼겠다.

4. 나오며

돈황의 강경문은 일찍이 불경의 내용을 평이하고 알기 설명하고 있다는 이유로 평가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불교문학적 관점으로 볼 때, 강경의식에 사용되고 불경의 내용을 신도나 일반 대중들이

19) 전홍철, 『돈황강창문학의 이해』, 서울: 소명출판, 2011, 107-109쪽.

20) 조명화, 《불교와 돈황의 강창문학》, 이회, 2003, 78-91쪽.

21) 장용천·황정 교주, 전홍철·정병운·정광훈 옮김, 앞의 책, 265-267쪽. <묘법연화경강경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속연구로 삼기로 한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점에서 의의가 깊다. 특히 여러 불경의 난해함이 불교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불경을 설명하는 주석서들도 난해함은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점에서 대중들에게 불교를 쉽게, 더욱이 어려운 불경 구절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한 강경문은 본격적으로 불경을 일반대중에게 설명한 가장 불경에 근접한 문학형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강경문을 주석서와 비교하거나 창 의 내용에 대해 고찰하면서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한 접근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문헌

- 『高麗大藏經』(K1075『續高僧傳』, K1340『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 K013, K014『金剛般若波羅蜜經』, K0192『佛說阿彌陀經』, K0116『妙法蓮華經』, K0119『維摩詰小經』, K0402『大方便佛報恩經』, K0277『佛說孟蘭盆經』)
- 『父母恩重經』
- 장용천·황정 교주, 전홍철·정병윤·정광훈 옮김, 『敦煌變文校注』4, 서울: 소명출판, 2015.
- 黃征, 張涌泉校注, 『敦煌變文校注』, 中華書局, 1997.
- 사재동, 『불교계 서사문학의 연구』, 대전: 중앙문화사, 1996.
- 서영애, 『불교문학의 이해』, 서울: 불교시대사, 2002.
- 연소영, 「敦煌 『金剛般若波羅蜜經講經文』에 대한 불교문학적 연구」, 중국어문논역총간, 2025.
- 장춘석, 「敦煌 講經文의 引經 방식 연구」, 『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 전홍철, 『돈황강창문학의 이해』, 서울: 소명출판, 2011.
- 정병윤, 「敦煌講唱文學中佛教故事類作品之研究」, 南京大學 박사학위논문, 1998.
- 조명화, 『敦煌講唱文學의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
- 조명화, 『佛敎와 敦煌文學』, 서울, 이회, 2003.
- 한운진, 「世俗化된 『金剛經』 金剛般若波羅蜜經講經文 小考」, 『중국학논총』, 2010.
- 高國藩, 『敦煌民間文學』, 臺灣聯京出版公司, 1994.
- 黃喚平, 「敦煌文獻『妙法蓮華經講經文』研究」, 四川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6.
- 潘文竹, 「敦煌孝親類說唱文獻研究」, 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 2022.
- 潘重規編著, 『敦煌變文集新書』, 文津出版社, 1994.
- 孫楷第, 「唐代俗講軌範與其本之體裁」, 『敦煌變文論文錄』上, 臺北: 明文書局, 1985.
- 顏廷亮, 『敦煌文學概論』, 甘肅人民出版社, 1993.
- 楊雄, 「『金剛經』·金剛經變及金剛經變文的比較」, 『敦煌研究』, 1986.
- 張鴻勛, 『敦煌俗文學研究』, 甘肅教育出版社, 2002.
- 鄭振鐸『中國俗文學史』, 北京: 商務印書館, 2005,
- Sinae Kim, “Preaching Buddhism in Medieval China_Sutra Lecture Texts, Rituals, and Manuscripts”, Princeton University, 2024.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
- 프랑스국립도서관 갈리카 프로젝트: <https://gallica.bnf.fr>

阐释学视域下的《诗经·沔水》“规谏宣王”说

张琳媛*

<目次>

【摘要】

1. 引言
2. 毛《传》、郑《笺》、孔《疏》中的“规谏宣王”说
3. 为何以“规谏宣王”说阐释《沔水》？
4. 再议《沔水》“规谏宣王”说
5. 结语
参考文献

【摘要】

《诗经·小雅·沔水》一诗笔墨凝练，自古难解，历代诗家众说纷纭，其中《毛诗正义》所主张的“规谏宣王”说广受支持。笔者基于阐释学理论，对《毛诗正义》中的《沔水》阐释展开研究，梳理了毛《传》、郑《笺》、孔《疏》所述“规谏宣王”说的异同，阐明了“规谏宣王”说在文本逻辑、阐释目的、阐释原则和方法方面的合理性，讨论了这一说法在阐释视角和阐释主体性、阐释尺度方面存在的问题，并在此基础上提出“周王忧乱”说，试图为理解《沔水》提供新思路。

关键词：《诗经》；《沔水》；《毛诗正义》；阐释学；比兴

* 四川大学，博士研究生

1. 引言

《诗经·小雅·沔水》篇幅短小，传世版本仅有三章，二章章八句，一章章六句，合计二十二句，其中缺少具体的时、地、人信息，是公认的难解之诗。《诗经原始》称“其诗词意于宣王前后诸诗大不相类，故难诠释，姑阙之以俟识者”。^[1]历代诗家对《沔水》的解读，鲁洪生先生主编的《诗经集校集注集评》一书一共概括出了规谏宣王说、宣王乞言于群后说、忧乱说、朋友相戒说、诸侯相戒宗周说、畏谗说、刺懿王说、大夫忧谗说、责难宣王说、阙疑说十类题解观点。^[2]近年还有学者指出《沔水》难解原因有三，一是错简、遗简，二是用谜语较多，三是没有交代任何的创作背景，并从流水和飞隼两个意象着手，称《沔水》是一首“忠贞不渝的爱情诗”。^[3]在历代诸家所持的观点中，“规谏宣王”说支持者甚多。毛《序》中称“《沔水》，规宣王也”。郑玄也在笺注中说：“规者，正圆之器也。规主仁恩也，以恩亲正君曰规。《春秋传》曰：‘近臣尽规’。”孔颖达则言“作《沔水》诗者，规宣王也。”^[4]随着经学的演进，《毛诗正义》逐渐经典化，其观点对后世诗家阐释《诗经》产生了深远的影响。按照“规谏宣王”说的观点，则《沔水》的创作视角必是臣下或诸侯的视角，对于此，后世诗家亦有人对此提出质疑，如《诗经通释》中说：“诗中但有规其亲友止乱之意，恐非规王之诗也。”^[2]从毛到孔，《沔水》“规谏宣王”说的是怎样形成、发展的？这一观点是如何产生的？是否能够自圆其说？《沔水》的创作视角真的是自下对上吗？本文聚焦《毛诗注疏》阐释《沔水》的“规谏宣王”说，尝试在阐释学视域下分析其阐释生成的原因与逻辑，并就《沔水》的创作视角提出己见。

2. 毛《传》、郑《笺》、孔《疏》中的“规谏宣王”说

1. 毛亨、毛萁提出“规谏宣王”说

“《沔水》，规宣王也。”毛亨、毛萁在诗序中用简洁明了的语言说明了《沔水》的诗旨，而毛《传》传文主要从三个层面对《沔水》一诗进行了阐释。一是字词层面，解释了一些字词的含意，包括“沔，水流满也”“不迹，不循道也”“弭，止也”“惩，止也”；二是诗法层面，他在“沔彼流水，朝宗于海”的传文中点明了比兴手法的使用，说这句话写的是“水犹有所朝宗”；三是揭示了一定的诗义，点明“邦人诸友”指诸侯，“兄弟”指同姓臣，京师相当于诸侯之父母等，“沔彼流水，其流汤汤”是“言放纵无所入也”，“馱彼飞隼，载飞载扬”是“言无所定止也”，“我友敬矣，谗言其兴”则是“疾王不能察谗言也。”

可以看出，虽然毛亨、毛萁指出了“流水”“飞隼”的一些比兴意义，在最后给出了一个比较明确清楚的规谏内容，即规劝宣王察辨谗言，但从全诗的传文来看，毛亨、毛萁的传文比较简略，对《诗经》的阐释多限于字词及句意，阐释尺度比较谨慎，并没有十分详细透彻地说明《沔水》全诗的论述逻辑、实指内容以及它们如何指向规谏宣王这一主题。总的来说，毛亨、毛萁更像“规谏宣王”说的提出者，率先点明了这一结论，但在论述上留下了较多阐释空间。

2. 郑玄具体阐释“规谏宣王”说

郑玄生活在东汉末年，是汉代经学的集大成者，对多部儒家经典进行了笺注，他对《诗经》《周礼》《仪礼》《礼记》的注解都在后世被奉为正注，“以传入经”，对后世影响深远。所谓《毛诗传笺》，主要是对毛《传》进行笺注，郑玄在此书中对《沔水》一诗中的每一句都进行了阐释。在题解中，他着重对“规”字进行了阐释，

并“以经注经”，引用了《春秋传》中“近臣尽规”的说法，表明天子近臣确实有规谏之责。第一章中，他指出“朝宗”二字在礼法中的特别意义，“诸侯天子曰朝，夏见曰宗”，所以主张“沔彼流水，朝宗于海”说的是“水流而入海，小就大也”，在此处是比兴手法，喻指诸侯朝见周天子也应该像水一样，即是说诸侯朝见天子也是理所应当、符合天理的，而“馭彼飞隼，载飞载止”则是说隼想飞就飞，想停就停，是暗喻“诸侯之自骄恣，欲朝不朝，自由无所在心也”。对于第一章后四句“嗟我兄弟，邦人诸友。莫肯念乱，谁无父母”，他认为“我”指的是周王，这句话是站在周王的立场上，嗟叹那些同姓异姓的诸侯自恣不朝，没有人念及这会乱了礼法，并以父子关系喻君臣关系，说明为臣之道就是要“事父以事君”，你们这些诸侯是父母所生啊，为臣之道，不正是要用对待父母的态度对待君王吗？阐释第二章时，他更是继续将诗义与诸侯关联，称前六句是喻指“诸侯奢僭，既不朝天子，复不事侯伯”“诸侯出兵，妄相侵伐”“诸侯不循法度，妄兴师出兵”，最后表达了“我”对此情况的担忧，“我念之忧，不能忘也”。及至第三章，郑玄说“馭彼飞隼，率彼中陵”的意思是隼依着山陵而飞翔是它的常理，在诗中是喻指诸侯守其职、遵从法度是他们的常理，“民之讹言，宁莫之惩”则是指当时社会环境不好，有小人散播虚假的流言，却没有人去制止。而“我友敬矣，谗言其兴”则被他解读为“言诸侯有敬其职、顺法度者，谗人尤兴其言以毁怨之，王与侯伯不当察之”，并称其中的“我”指周王，“友”指诸侯，意即诸侯中有遵纪守法的被小人谗言中伤，周王与诸侯却没察觉。

可以看出，郑玄是以诸侯的行径为线索串联起了《沔水》全诗的诗义，认为“流水”“飞隼”“兄弟”“邦人诸友”“友”都是指诸侯，而诗中两度出现的“我”则都是指周王，全诗先后描述了部分诸侯不守法度和部分守法度的诸侯受到谗言攻击的现象，最后落脚到周王不察谗言的问题上。如果说毛亨、毛萇对《沔水》的阐释是“点到即止”，给出了结论但读者读《沔水》时仍会有一种“雾里看花”之感，那么郑玄在《毛诗传笺》中就将“那层窗户纸”也给戳穿了，对错暂且不论，他比较清楚地具体地阐明了他的理解，让后来人从字面上就能基本明白他所阐释的诗义。

3. 孔颖达等注解“规谏宣王”说

《五经正义》的编撰和《开成石经》的凿刻是唐代经学史上的两大里程碑性的事件，而《五经正义》正是由孔颖达主持编撰，其中就包含《毛诗正义》。从篇幅来说，孔颖达的疏文比此前的传文、注文要更长一些；从内容来看，《毛诗正义》主要是对毛《传》和郑《笺》的疏解，其所持观点主要是延续毛、郑而来。不过，虽然都主张“规谏宣王”说，《沔水》的疏文中也不乏一些与毛、郑所述略有差异或在其基础上有所延伸的见解。

为避免累赘，笔者在此不再对相同观点过多叙述，而主要指出这些微妙的差别所在，以凸显《沔水》阐释中“规谏宣王”说的流变，并呈现孔《疏》之观点。第一章中，疏文指出“沔水”形容水之满，在此处有喻指“诸侯强盛”之义，这是毛《传》所未点透、郑《笺》所未提及的，他还在郑玄引《大宗伯》中“诸侯天子曰朝，夏见曰宗”说法的基础上补充了《大宗伯》注的阐释，并新引入了《禹贡》“江、汉朝宗于海”的说法及其注解作为新证据，进一步巩固了“沔彼流水，朝宗于海”喻指“诸侯亦当朝宗天子”的观点。而关于“嗟我兄弟，邦人诸友”一句，孔颖达延续了毛《传》认为兄弟指同姓，邦人诸友指异姓诸侯的说法，对邦人诸友的说法含义进行了详细的阐释，并言及为何先责兄弟，再责邦人诸友，指出郑《笺》在此处是将二者

“总责之”。在阐释“莫肯念乱，谁无父母”时，孔颖达说：“若然，则谁无父母乎？何者？人皆生于父母，臣之道，资于事父以事君，故京师者，诸侯之父母，何为补遗事父母之道事京师也？诸侯自恣如是，王不能禁，所以规王也。”他将毛《传》和郑《笺》的说法整合到了一起，以郑《笺》阐释毛《传》说法的原因，又回到经文，将其中暗含的意义阐释得更加详细、澄明。更为关键的是，他补充了这种阐释与毛、郑所赞同的“规谏宣王”说的关联，揭示了这一章与诗旨的关系，这是毛、郑所没有做到的。第二章中孔颖达基本是延续了郑玄的观点，没有补充新见，而是注重阐释某些郑《笺》中看似和毛《传》不同的说法，解释其与毛《传》说法的关系。而在第三章中，孔颖达则和第一章一样进行了较多的补充阐释。对于“馱彼飞隼，率彼中陵”，他在郑《笺》注出的诸侯守法是其常这一层意思的基础上，与郑《笺》在第二章所提及的“诸侯出兵，妄相侵伐”现象进行了关联，点明这句话恰是在说“诸侯之不可起行妄伐，犹飞隼之不可飞扬妄作也”，完善了第二章与第三章的逻辑关联。在“民之讹言，宁莫之惩”两句的疏文中，孔颖达对郑笺提到的“诈伪交易之言”进行了解释，称这会导致两家相互怨怼，并指出诸侯不守法的现象，并不只是因为他们自恣，还因为这样的小人谗言，把第一章、第二章所说的现象与谗言进行了关联，这也是毛、郑所未作出的阐释。而在最后的“我友敬矣，谗言其兴”中，他在毛、郑的说法上进一步补充、延伸，指出谗言会使诸侯更加不守法，并总结称“此篇主责诸侯之自恣，因疾王之不察谗也。先责下而后刺上，欲规王令禁察之”，点明了“责诸侯”的意味，而毛《传》和郑《笺》中未有此说。

总的来说，孔颖达一是对已有的阐释进行了进一步疏解，二是对毛、郑未提及或未点透的地方进行了补充阐释，其主要贡献是解释了一些传笺未尽之意，将传笺进行了统合，修补了论述的逻辑链，使之更加清晰、完整、严密。需要注意的是，孔颖达在最后指出的“先责下而后刺上”，其实已经较毛《传》中简短的“规宣王也”“疾王不能察谗言也”多了一层“责下”的意思，虽然郑《笺》也一定程度暗示了“责诸侯”这一层意义，但其并未点出“责诸侯”亦是诗旨的一部分，并且是“主责诸侯之自恣”，趁机规谏周王，所以这一点是在《毛诗正义》出来后才被清晰揭示的，孔颖达也正是以此为诗旨才将三章之间的逻辑疏通。也就是说，“规谏宣王”说发展到孔颖达这里，其实已然变成了“责诸侯而规宣王说”。

3. 为何以“规谏宣王”说阐释《沔水》？

1. 文本逻辑：《诗经》排布与宣王时期背景

对于“为什么是宣王”这个问题，诸多诗家从文本内容的出发寻找逻辑关联，并进行了阐释。他们认为，宣王作为周代中兴之主，他上位之后“忧乱”等也一定程度符合文本中“心之忧矣，不可弭忘”的情感态度，如戴溪就曾在《续吕氏家塾读诗记》中说：“《沔水》，属王之乱，诸侯莫朝。宣王中兴，诗人戒诸侯以来朝，其末因以规宣王也。”^[2]张次仲《待轩诗记》中也曾有相关的按语，指出宣王在位后期渐生怠惰之心，所以诗人作诗以规谏宣王：“宣王初年，精勤政治，不藉千亩，而后怠心渐萌。诗人以为此人心所繇失，乱几所繇伏，故托于告友以讽王，主于敬以胜怠也。”^[2]范家相《诗藩》中则引用历史记载道：“为不朝之人作劝戒，而所以规王者益切。史载宣王杀杜伯而非其罪，《国语》言阳叔达周新于晋国，是信谗明证”^[2]，称宣王曾有所信谗言误杀杜伯的事迹，与诗中“民之讹言”“谗言其兴”的描述相符。此外，小雅内容上主要侧重战争、祭祀、礼乐、王政，《沔水》之前的多首诗也

是宣王时期的篇目，这样的观点普遍为诗经学界所接受，因此就《汧水》在《诗经》中所处的位置而言，“规谏宣王”说也具有一定的合理性。

2. 阐释目的：经学的政治性

李春青教授曾将经学阐释的目的概括为“通经致用”，即“阐释经典主要是为了实际的社会功用，不是为学术而学术。”^[5]他所提到的这种社会功用，其实主要就体现在政治上。周公制礼作乐后，礼乐文化成为周代文明的核心，因此，《诗经》中的诗歌诞生的时代，尚处于诗、乐、舞一体的时期，因此其中的诗篇与先秦时代的礼乐文化息息相关，其中不少诗篇的创作从一开始就具有一定的政治性。后来，孔子嗟叹感慨“礼崩乐坏”，坚持讲习六艺，传播儒家思想，在百家争鸣的时代产生了较大的影响力。及至汉武帝“罢黜百家，独尊儒术”，儒家思想被正式确立为国家的统治思想，经学的地位也随之变得至高无上。《诗经》作为“五经”之一，其注解工作以及注解它的人也不可避免地受到时代背景的影响，因此或多或少地存在服务国家政治的目的。孔颖达主持编纂《毛诗正义》更是由皇帝直接授意的行为，其目的是依然是维护和统一政权的意识形态，因此编纂完成后也被作为科举考试的“官方教材”在全国范围使用。因此，无论是《诗经》的创作、诗在周代的用途，还是汉唐注诗的阐释目的，都与经学的政治性息息相关。无论是毛亨、毛萇，还是郑玄、孔颖达，作为一代儒者，他们都不可避免地或者有意识地从政治角度、经学角度去理解诗经，故他们所阐释的“规谏宣王”说必然带有服务政权统治这一前提，符合经学阐释的政治目的。

3. 阐释原则与方法：微言大义，比兴赋义，以典注经

李春青教授指出，“‘微言大义’说堪称经学阐释学的一个纲领性原则，它规定了经学阐释的基本指向。其核心含义是：孔子在删述六经时以隐晦的形式为之注入了深刻而重大的义理，重新找回这些义理乃是经学阐释的主要任务。”他还提到，汉代的经学阐释学正是在“微言大义”说这一经学基本原则的指导下对“五经”进行意义建构，而出于《诗经》与《春秋》的不同，“经学家们依据诗歌的特点想出了借‘比兴’以赋义的绝妙办法”，但汉代经师在阐释时也存在“过度阐释”甚至是“强制阐释”。^[5]纵观郑玄对《汧水》一诗的阐释，我们也能看到他运用“比兴赋义”的方法，以“流水”“飞隼”喻指诸侯进行全诗的意义建构，并遵循“微言大义”说，进一步阐释了“规谏宣王”说，也沿袭了“诗言志”的阐释传统。而流水、飞隼和诸侯的关联，是毛《传》所没有的，这一层关联的建构也埋下了过度阐释的嫌疑，对此，笔者将在后文详论。除此之外，郑玄和孔颖达注疏《毛诗》时还运用了“以典注经”的方法，如引入《春秋传》《大宗伯》《禹贡》的材料对《汧水》第一章进行注解。

4. 再议《汧水》“规谏宣王”说

1. 阐释视角：是否真的只有规谏的角度？

郑玄和孔颖达曾表达出“臣之道，资于事父以事君”的观点，而郑玄的笺注指出“汤汤，波流盛貌。喻诸侯奢僭，既不朝天子，后不事侯伯”，而“则飞则扬，喻诸侯出兵，妄相侵伐”，孔颖达也说“馡然而疾飞者彼飞隼，则已飞而不息，则又加之游扬，妄相击害。以兴彼自恣之诸侯，则已不朝天子，则又加以出兵，妄相侵伐。”私以为在周代的礼乐文化环境之下，不朝天子已是极大的不敬之举，如果已经到了诸侯擅自出兵的程度，那几乎是天下大乱了，如果当时的社会礼制已被破坏至此，这些不循法度的诸侯或臣子显然不会“事父以事君”，遑论采用上书、作诗这种遵从周礼

的方式来规劝宣王，并在其中用“嗟我兄弟，邦人诸友”“我友敬矣”这样的口吻来书写，更不会为这样的局面忧心忡忡，担心那些莫须有的传言没有人制止。即使不是那些不敬王上、妄自出兵的诸侯写的，而是天子近臣或者仍然遵循法度的诸侯视角所书，在这种情况下，难道不应该首先责备那些不敬周王、不循礼制的诸侯吗？何以毛《传》、郑《笺》都只说“规宣王”而只字不提“责诸侯”呢？如此一来，其实就更应该偏向于孔颖达所写的“主责诸侯之自恣，因疾王之不察谗”才能勉强说得通，即使真如孔颖达所说，“诸侯自恣如是，王不能禁，所以规王也”，诸侯自恣到了妄相侵伐的程度，天下动荡至此，乱世出现谗言再正常不过，但其根源在于诸侯之乱，为何如此大的一个乱局之下，规劝周王的内容却不是主张周王先平乱，而是警惕小人谗言？若是诗旨为规劝宣王，又为何郑玄、孔颖达将诗中出现的“我”解为周王，为何一首规劝周王的诗里会出现周王视角的描写？假如将“我”解为诸侯，对“周王”称“兄弟”并用“谁无父母”来规谏，是否有僭越之嫌？因此笔者以为，郑《笺》中大量着墨的诸侯自恣行为其实已经偏离了郑玄主张的“规谏宣王”说的视角，存在自相矛盾，将第二章起兴的句子与诸侯朝见、出兵相关联，证据亦有些不足，更多是出于主观的比兴赋义，存在过度阐释的嫌疑。而如果按照孔颖达的说法，那就意味着《沔水》一诗其实也已经不纯然是以下对上的规谏视角，其中还包括一部分从周王视角出发责难诸侯自恣的内容，且在前后文的描述中也存在视角转换的矛盾性，最终落脚到规谏宣王警惕谗言其实是有一些抓小放大、不合逻辑的。

2. 阐释主体性和阐释尺度：是否真的疏不破注？

笔者以为，虽然“规谏宣王”说有其合理性，但郑玄的笺注所传递的对诸侯不朝天子、妄自出兵这等不循法度的行为的批判其实已经与他所单纯主张的“规谏宣王”说自相矛盾，而这一层对诸侯自恣行为的揭示也是郑《笺》相对于毛《传》的最大不同，体现了郑玄的阐释主体性。正如杨金花在她的《〈毛诗正义〉研究：以诗学为中心》一书中所指出的，在孔颖达之前，陆德明和颜师古的著述已经“使得《诗经》的底本和音义都有了统一的标准”，因此孔颖达的阐释目的主要是对毛郑存在分歧之处进行疏通，“使论归一定，维护《诗经》的经学地位”，他本人对此也有明确的认识，故而在疏解中严格遵循“疏不破注”的原则。^[6]孔颖达发现了毛郑阐释《沔水》时的不同，秉承着“疏不破注”的想法在疏解此诗时进行了逻辑描补。从这一点来说，他的阐释目的就具有一定的局限性。而且他虽然努力遵循“疏不破注”，却也未完全避免。李春青教授曾指出：“尽管经学家有所谓‘注不驳经，疏不破注；不取异义，专宗一家’的说法，但在实际的传注过程中，意义的建构是随处可见的。这就意味着，经学的传注即是经学阐释的主要方式。”^[5]事实上，经孔颖达疏解之后的诗义，其实也已经增加了一层“责诸侯”的意味，体现出了孔颖达的阐释主体性，可以说对原本毛《传》、郑《笺》的注解有了一定的打破。

3. 新的阐释可能：“周王忧乱”说

从周王或者“代王言”的视角理解《沔水》，诗义也是贯通的，这也与小雅诸篇大多都从王之视角展开的规律相符。首先，从内容来说，《沔水》中有明显的劝诫、担忧之辞，如“莫肯念乱，谁无父母”“心之忧矣，不可弭忘”“民之讹言，宁莫之惩”，因此历代《诗》家所陈规劝、忧乱、畏谗之意是合理的，但到底是谁在担忧动乱、畏惧谗言、发出劝诫又是谁被规劝，原文文本却并未明指。然而，从周王视角理解，全诗可译为：“河水虽然弥漫，最终都朝着大海流去，游隼虽然飞得很快，但飞

的途中也有休息的时候，可叹我的兄弟、乡亲、朋友们却没有人想到去制止丧乱，大家谁没有要担心的父母呢？河水弥漫，奔腾无际。游隼疾飞，飞扬不息。想到有的人不遵循法度，我坐立不安。心里的忧思久久不能消除。游隼疾飞，沿着山陵。民众中流传的谗言，没有人去制止。我已经做到友好、尊重了，这些谗言还是甚嚣尘上。”毛《传》有言：“京师者，诸侯之父母也。”周王这一身份称诸侯为“兄弟”“诸友”体现了他的友好，也是最有权力用“父母”这样的比兴来劝诫人的。同样地，周王的口吻与“民之讹言”的说话者也很匹配，“我友敬矣”亦传达出了他的态度——我已经做到友好、尊重了。或许因为社会已经开始动乱，周王的权力有所式微，他也不能特别直白、特别严厉地指责，所以借流水和飞隼的起兴，婉转地指责那些本应“朝宗于海”的诸侯现在言行“不迹”，放任流言，然后表达了自己的担忧，又用“嗟我兄弟，邦人诸友”“我友敬矣”的态度来表示自己把诸侯们当朋友、兄弟，希望他们也遵循“事父以事君”的古道，停止不合礼制与法度的行为，平息社会流言。综上所述，笔者以为《沔水》应当和小雅中大多数篇目一样，是一首从周王视角写作的诗，其中的规劝之意是自上劝下，担忧之意是王忧天下之乱、王忧民众之讹言，其中暗含的是周王对诸侯的不满与指责。同时可以看出周王此时并没有反求诸己，此时的君臣关系虽然还在称兄道友，但实质上已经不再“兄友弟恭”了。

5. 结语

总之，毛亨、毛萇的诗序和传文中对《沔水》的阐释比较精简，阐释尺度比较谨慎，而郑玄大胆采用了比兴赋义的方法，将诸侯不朝天子、妄自出兵等现象引入《沔水》的阐释体系，存在自相矛盾、过度阐释的嫌疑。孔颖达虽然发现了郑玄解释中一些存在漏洞的地方，但他遵循“疏不驳注”的宗旨，致力于统一毛郑的分歧，因此他并未对郑《笺》观点进行大幅改动，只是对传、笺进行了一些补充阐释，并进行了逻辑上的描补，经他疏解后，《沔水》的诗旨已然由“规谏宣王”说发展成“责诸侯而规宣王”说。笔者以为，“规谏宣王”说的合理性在于经学的政治性、“微言大义”说这一经学阐释原则和《沔水》文本与宣王时期的贴合度，但它在阐释视角、阐释尺度及主体性等方面也存在一定的不合理之处。对于此，笔者提出“周王忧乱”说这一阐释思路，认为它是代周王而作，彼时周王式微，力有不逮，诸侯言行放纵，故诗中蕴藏着周王对天下乱局的担心、对百姓谗言的畏惧、对诸侯恣肆的不满及规劝之意。

参考文献

- [1]方玉润：《诗经原始》，中华书局2002年版，第212页。
- [2]鲁洪生主编：《诗经集校集注集评》，现代出版社、中华书局2015年版，卷七第4517-4558页。
- [3]徐艳兰：《〈诗经·小雅〉中的〈沔水〉新解》，名作欣赏，2015年第23期，第114-115页。
- [4]蒋鹏翔：《阮刻毛诗注疏》第六册，西泠印社出版社2013年版，第1472-1478页。本文所引《毛诗正义》皆出于此。
- [5]李春青：《“经义”的生成——关于经学阐释学的目标与方法问题》，中国社会科学，2023年第3期，第76-97页。
- [6]杨金花：《〈毛诗正义〉研究 以诗学为中心》，中华书局2009年版，第5页。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1부

3. 현대문학 위당관 203호

중국 근 · 현대문학:
갈등, 정체성, 공생의 서사

한중 여성 SF 작가 비교 연구

-하오징팡(郝景芳)의 「접는 도시(北京折疊)」와 정세라의 『지구에서 한아뿐』를 중심으로-

고경나*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분할된 공간
 3. 팽창하는 공간
 4.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한중을 대표하는 여성 SF 작가인 하오징팡(郝景芳)과 정세라의 대표작품을 비교하고자 한다. 2016년 휴고상을 수상한 하오징팡의 「접는 도시(北京折疊)」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접는 베이징이라는 상상력을 통해 폭로한다.

미래의 베이징은 인구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를 접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고안한다. 베이징을 세계의 공간으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펼쳐지는데 이 공간은 자본과 사회적 지위 등 사회 계층 구조와 관련을 밀접하게 맺는다. 마치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이 세밀한 관찰력으로 냉엄하게 그려낸다. 반면, 정세라는 『지구에서 한아뿐』에서 외계인과의 로맨스라는 감성적인 소재로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자본주의의 구조에 편입하기 어려운 젊은 여성, 그리고 의류 재활용 수선을 하는 주인공 한아를 통해 여성주의적 유토피아를 상상한다. 남자친구인 외계인의 몸을 구성하는 망원경으로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구에서 한아뿐』의 공간은 끝없이 팽창한다.

한중 여성 SF 작가의 대표작들을 살펴 보면서 자본주의가 압축적으로 성장한 양국이 가지는 갈등과 부작용을 SF 소설의 타자성과 어떤 식으로 맞물리는지 살펴본다.

1. 서론

SF는 본질적으로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풀어내는 장르이다. 이러한 이유로 SF와 타자성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보인다. 중국은 류츠신(劉慈欣) 등을 필두로 오래전부터 SF 소설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류츠신과 하오징팡(郝景芳), 두 명의 휴고상 수상자를 2년 연속으로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¹⁾ SF의 불모지라고 불리던 한국 또한 이런 분위기가 무색하게 2010년대 이후로 SF 소설이 대중

* 이화여자대학교 특임교수

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한중 양국 모두 여성 SF 작가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들은 SF 장르를 통해 대안적 삶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현실 세계의 시스템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불러들여' 이들을 중심에 세운다.

하오징팡과 정세량은 각각 중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SF 작가로 이들의 작품을 통해 각 나라가 가지는 모순을 엿볼 수 있다. 하오징팡은 2012년에 발표한 「접는 도시(北京折疊)」를 에서 자본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공간이 접히는 베이징이라는 은유를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어느 미래의 베이징은 불어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시 정책의 하나로 베이징을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베이징 시민들은 생활한다. 제1공간이 펼쳐지면 나머지 두 공간은 접는 식으로 베이징에서 생활하는데 문제는 시간과 공간의 배분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제3공간에 사는 하층민은 제일 좁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낮에 생활할 수 없다. 작가인 하오징팡은 제3공간 주민인 라오다오(老刀)를 그가 존재할 수 없는 밝은 대낮으로 밀어 넣고 정세량은 『지구에서 한아뿐』이라는 작품에서 미지의 외계인을 지구로 불러들인다.

사실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SF란 장르는 굉장히 남성적인 장르로 여겨졌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SF란 또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장르로 SF 작가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관을 독자들이 믿게끔 만드는, 즉 개연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 치밀한 과학적 지식을 끌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²⁾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의심하는 이성으로 중무장한 채 세계관을 설정하는 것이 1980년대 혹은 1990년대의 경향이었다면 최근 여성 SF 작가들은 다양한 대안적 삶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두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 「접는 도시」, 『지구에서 한아뿐』을 통해 작가가 양국의 사회적 모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두 작품 모두 SF 소설이 가지는 소외된 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자본주의가 집약적으로 발달한 국가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대신 그 부작용이 사회적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중을 대표하는 두 작가는 자본주의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서 다른 양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하오징팡은 공간을 분할함으로써 예리한 시선을 들이대고 정세량은 지구를 벗어나 전 우주로 공간을 팽창함으로써 이상적 세계를 구축한다. 2000년대에 들어 SF가 대중적 장르로 자리잡고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작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한중 SF 소설을 비교하는 몇몇 의미 있는 연구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덩징이의 「한·중 여성 SF소설에 나타난 페미니즘 양상 — 『지구 끝의 온실』과 『작은 버섯(小蘑菇)』을 중심으로」와 진아구, 김지혜의 「한·중 SF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 비교 연구 — 김초엽과 하오징팡(郝景芳)을 중심으로」가 있다.³⁾ 본 발표문은 이런 연구들의 연장선에서 공간을 어떻게 작품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주로 논의하도록 한다.

1) 류츠신은 2015년 『삼체(三體)』(2008)로 장편 소설 부문을 수상했고 하오징팡은 2016년 「접는 도시(北京折疊)」(2012)로 중편 소설 부문을 수상했다.

2) SF는 Science Fiction의 약자로 과학적 사유에서 비롯된 소설이다. 최근에는 약어인 SF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과학 소설로 번역하여 쓰는 경우도 다수이다. 고장원은 SF의 규칙 하나를 “과학 소설은 과학적 근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초기 SF 소설들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한데 그 이유는 황당한 동화나 판타지 소설로만 비추어질 우려에 의한 것이다. (고장원, 『SF란 무엇인가?』, 북크크, 2016, pp. 205-207)

3) 덩징이, 「한·중 여성 SF소설에 나타난 페미니즘 양상 — 『지구 끝의 온실』과 『작은 버섯(小蘑菇)』을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no.73, 2024.

진아구, 김지혜, 「한·중 SF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 비교 연구 — 김초엽과 하오징팡(郝景芳)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no. 38, 2024

2. 분할된 공간

「접는 도시」는 자본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공간이라는 장치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준다. 흔히들 말하길 시간과 공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고들 말하지만⁴⁾ 인식론적 차원에서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더불어 자본이 모든 것을 대체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간은 더욱 권력과 밀착될 수밖에 없다. 사실 공간과 권력의 불가분한 관계에 대해서 이미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안은희에 따르면 사회 구조는 여러 계층과 집단 간의 거리 및 위계질서를 공간적으로 배치될 수 있고 주거는 그러한 사회 구조의 공간적 배치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분야라고 한다.⁵⁾

하오징팡은 특유의 냉엄함으로 「접는 도시」를 통해 주거 공간이 어떻게 재배치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느 미래의 대도시 베이징은 밀려드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 정책을 발표한다. 이 정책은 베이징을 3개의 공간으로 분할하고 각 구역이 순차적으로 펼쳐져 해당 공간의 주민들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하오징팡은 도시의 지리적 형태를 고정하는 것 아니라 유동적으로 그 형태를 변화시킨다. 즉, 베이징을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으며 베이징이 완전히 접혔을 때는 마치 차가운 금속의 정육면체 같은 형태가 된다. 그리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필요한 공간만 펼쳐 그 구역의 주민들만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접는 도시’는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대지의 한쪽 면은 제1공간이고 500만 명이 산다. 할당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다. 제1공간이 휴면에 들어가면 대지가 뒤집힌다. 대지의 반대쪽은 제2공간과 제3공간이다. 제2공간의 인구는 2500만 명이고 둘째 날의 아침 6시부터 밤 10시가 할당된다. 제3공간에는 5000만 명이 살고 있다. 밤 10시부터 그다음 날의 아침 6시까지를 산다. 그런 다음 제1공간으로 돌아간다.⁶⁾

책의 내용에 따르면 제1공간에 사는 주민들은 주로 국가의 지도층이다. 그리고 제2공간은 화이트칼라, 즉 사무직인 사람들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제3공간에 사는데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거나 혹은 불법 장물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주인공 라오다오(老刀)는 쓰레기 처리공으로 그의 아버지도 쓰레기 처리공이었다. 라오다오의 아버지가 쓰레기 처리공이 된 이유는 새로이 탄생하는 접힌 도시 베이징에 남으려면 어떻게든 베이징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쓰레기 처리공은 고된 중노동이지만 그래도 경쟁은 치열했고 라오다오의 아버지가 마침내 쓰레기 처리공이라는 일자리를 얻었을 때 “기쁜 나머지 사흘을 내리 축하하며 보냈다.”⁷⁾ 라오다오는 비록 제3공간의 쓰레기 처리공이지만 그가 처리하는 쓰레기는 제3공간의 쓰레기만이 아니다. 제1공간, 제2공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모두 제3공간으로 넘어온다. 각 공간 간의 이동은 엄격한 통제하에 이루어지는데 쓰레기만은 넘어올 수 있다니 이것만큼 불공평한 일이 없을 수 없다.

라오다오는 자신의 친딸은 아니지만 딸과도 같은 탕탕(糖糖)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제2공간으로의 잠입을 시도한다. 라오다오는 결국 제1공간으로까지 잠입하게 되는데 이동의 자유가 있는 쓰레기가 마치 라오다오의 운명을 암시하는 듯하다. 하오징팡이 배경으로 삼는 것은 미래의 베이징이며 공간이 접힌다는

4) 데카르트는 공간을 마치 매트릭스와 같은 균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안은희, 「주거에서 발생하는 공간-권력에 대한 담론 연구」, 『한국 실내 디자인 학회 논문집』 vol. 20, no. 4, 2011, p. 38)

5) 안은희, 「주거에서 발생하는 공간-권력에 대한 담론 연구」, 『한국 실내 디자인 학회 논문집』,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1, p.41

6) 하오징팡 지음, 강초아 옮김, 『고독 깊은 곳』, 글항아리, 2018, p. 22

7) 하오징팡 지음, 강초아 옮김, 『고독 깊은 곳』, 글항아리, 2018, p. 23

설정은 매우 생소할 듯 하지만 독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는 그 모습만 미래의 모습을 띠고 있을 뿐 그 내용은 리얼리즘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적이기 때문이다.

하오징팡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베이징의 CBD⁸⁾에서 얻었다고 한다. 수중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결정권자, 피로해 보이는 사무직 노동자들, 그리고 보안 직원, 배달원, 미화원들이 모두 CBD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맞물린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사실 이들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머무를 뿐 사실 평행선상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⁹⁾ 특히 보안 직원, 배달원, 미화원 등과 같이 사회적 하위 계층을 비가시화 처리해 버린다. 하오징팡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접는 도시라는 은유를 통해 물질화시켰다.

원칙적으로 제3공간 주민은 아침을 누릴 수가 없다. 따라서 라오다오는 제1공간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낮을 목격한다.

창밖으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창밖의 햇빛에 적응할 수가 없었다. 태양이 노란색이 아니라 흐린 흰색이었다니!¹⁰⁾

라오다오는 단 한 번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태양이 천천히 솟아오른다. (중략) 라오다오는 일어서서 태양 쪽을 향해 뛰었다. 그는 그 희미해져가는 금빛을 붙잡고 싶다고 생각했다. 푸른 하늘에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보인다. 그의 심장이 두방망이질 쳤다. 일출이 이토록 매혹적 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¹¹⁾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접는 도시에서 공간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의 시간마저 정하고 이들의 감각, 행동양식 등 모든 것을 결정한다. 즉, 공간은 하나의 정체성이다. 하오징팡은 라오다오의 ‘쓰레기’ 같은 정체성을 통해 장소의 고착화를 깨뜨리고 유동적인 성질을 강조한다. 김봉연은 이런 라오다오의 모험이 곧 정치의 의미를 어렵게 파악하게 하고 고정된 정체성의 거부와 부조화를 지향하면서 인간관계를 다시 소환한다고 하였다.¹²⁾

「접는 도시」는 미래 베이징을 통해 계급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냉엄한 현실을 고발한다. ‘접는 도시’는 단순히 지리적인 분할을 넘어, 공간이 곧 거주민의 시간, 감각, 그리고 정체성을 결정하며 하오징팡의 작품 속에서 베이징은 과학이 이상적으로 발달되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된 유토피아처럼 보이지만 전환¹³⁾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축소되고 단절된 디스토피아로 나타난다.

8) 베이징의 중심업무지구를 가리킨다. Central Business District의 준말이며 차오양구(朝陽區)에 위치해있으며 CCTV를 비롯하여 각종 금융, 미디어, 상업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Beijing Central Business District,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Beijing_central_business_district&oldid=1231821259, 검색 일자: 2025.09.23)

9) 任冬梅, 「從科幻現實主義角度解讀《北京折疊》」, 『南方文壇』, vol 6, 2016, p.48

10) 하오징팡 지음, 강초아 옮김, 『고독 깊은 곳』, 글항아리, 2018, p. 30

11) 하오징팡 지음, 강초아 옮김, 『고독 깊은 곳』, 글항아리, 2018, p. 33

12) 랑시에르는 장소에 알맞은 격식이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한편, 개인에게 고정된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부여된 장소를 변경하려는 행위를 정치라고 명명하였는데 라오다오의 공간 이동 경험은 주어진 자리를 벗어남으로써 정치적 성격을 띤다. (김봉연, 「하오징팡(郝景芳)의 『접는 도시(北京折疊)』를 통해 본 이동과 ‘정치’의 관계」, 『비교문화연구』, vol.59, 2020, pp. 86-97) 다시 자신의 자리인 제3공간에 돌아온 라오다오는 자신이 쓰레기장에서 기른 탕탕을 보며 인간적 감성을 회복하며 탕탕을 위해 살아갈 내일을 다짐한다. 탕탕을 쓰레기장에서 주는 것으로 미뤄볼 때 탕탕 또한 라오다오와 같이 표류하는 쓰레기의 운명을 가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13) 하나의 공간이 접히고 다른 공간이 펼쳐지는 활동을 작품 속에서는 전환(轉換)이라고 한다.

3. 팽창하는 공간

하오징팡이 SF적인 구조 속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밀도 있게 담아냈다면 정세랑은 이와 반대의 전략을 취한다. 정세랑은 『지구에서 한아뿐』에서 우리의 일상에 바로 미지의 존재를 침투시킨다. 외계인과 사랑이라는 다소 말랑하고 대중적인 소재로 일상과 외계의 거리를 좁히며 주인공 한아와 외계인 경민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계인과 같은 타자의 존재를 생각해보게 한다. 하오징팡이 공간을 분할함으로써 고정된 정체성을 부여했다면 정세랑은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를 떠돌면서 언제든지 변화하는 정체성으로 대안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라오다오와 한아 모두 쓰레기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라오다오가 쓰레기 처리공이라면 한아는 '환생'이라는 업사이클링을 전문으로 하는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두 작가가 작품에서 지향하는 바를 엿볼 수 있다.

한아는 남자친구 경민과 11년째 사귀고 있지만 둘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 경민은 한아에 따르면 늘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존재로 어딘가 붕 떠 있는 사람이다. 언제나처럼 경민은 또다시 여행을 떠났고 다시 돌아온 경민은 어딘가가 달라져 있었다. 사실 그 정체는 외계인으로 40퍼센트의 광물로 이루어진 어떠한 생명체였다. 사실 생명체라기 보다는 무기체의 조합과 같은 "아름다운 구조물"이었다. 14)

"망원경은 몸의 일부로 만든 것이어서, 본체가 꿈을 꾸고 있을 때는 스스로 움직여, 대개는 어떤 일관성 없이 그저 산발적으로 우주의 곳곳을 비추고 있지. 그런데 내 망원경은 달랐어. 깨어나서 내가 잠든 동안 어디를 비췄는지 체크해보면 꼭 비슷한 지점을 스쳐갔더라고 지구에서도 아주 좁은 면적을.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그건 너무 이상한 일이었어. 그래서 한동안 잠들지 않고 계속 그 근처를 살폈지. 곧 망원경이 뭘 보고 있었는지 알았어. 그러니까, 웃기자? 나보다 내 망원경이 더 먼저 널 사랑한 거야." 15)

마음이 아니라 망원경이 먼저 사랑했다는 대목에서 유기체와 유기체 간의 사랑이 아니라 무기체와 유기체의 사랑이라는 포스트 휴머니즘적 대안을 읽을 수 있는 동시에 아름다운 구조물의 사랑이 어쩐지 그 어떠한 사랑보다 더 인간적으로 느껴진다. 외계인은 한아에게 다가가기 위해 남자친구인 경민을 추적한다. 그리고 마침 경민이 여행을 떠난 것을 알고 그에게 접근하여 우주여행 여행권과 경민의 신체를 교환하고자 제안한다. 그렇게 외계인은 경민으로 변신하고 한아에게 경민으로서 다가가게 된 것이다.

참으로 특별한 사랑이지만 이상하게도 한아와 경민의 사랑은 매우 일상적으로 느껴진다. 현실과 상상이 춤추듯 얹혀들면서 독자들은 어느새 타자와의 조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라오다오가 자신이 존재해서는 안 될 제1공간에 침입하여 공간의 분할만큼이나 엄격한 자신의 고정된 위치를 느꼈다면 한아는 지구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외계인을 만나면서 지구적 삶, 즉 가부장적 삶의 한계 그 너머를 알게 된다. 그 안에서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공간적 맥락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경민의 가족들도, 대단한 우정을 과시하던 친구들도 경민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한아는 그 부분에서 솔직히 섬뜩함마저 느꼈다. 완전히 태양계 밖으로 사라졌는데, 전혀 다른 존재가 그 자리를 대신했는데 알아차린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니. 원래의 경민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16)

14) 정세랑, 『지구에서 한아뿐』, 난다, 2019, pp. 98-99

15) 정세랑, 『지구에서 한아뿐』, 난다, 2019, p. 101

16) 정세랑, 『지구에서 한아뿐』, 난다, 2019, p. 145

경민은 지구 밖을, 아예 태양계 밖을 떠나서야 자신다움을 찾았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을 구성하는 건 내가 어떤 장소에서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세랑은 이를 여성주의적 대안 세계로 풀어낸다. 그녀가 대안 세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현실의 한계와 억압을 세밀하게 풀어내는 대신,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을 상세하게 구현한다.¹⁷⁾ 하오징팡이 돋보기를 들이민 것처럼 라오다오의 생활을 세밀하게 묘사한다면 정세랑은 망원경을 통해 또 다른 세계를 탐구한다.

한이는 경민과 함께 망원경으로 우주 곳곳을 살핀다.

"어째서 우주 전체가 그렇게 자본주의적인 거지? 지구랑 그렇게 다를 것도 없잖아."

"미안, 기왕이면 부자 외계인이면 좋았을 텐데 가난해."

그러고는 경민은 망원경을 들어 먼 곳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기 위해 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보여주었다.

(중략)

"하지만 전 우주가 자본주의가 불완전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하니까. 새로운 노력들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이 가혹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지구도 재밌는 샘플이니 어쩌면 여기서 아주 다른 대안이 탄생할지도 모르죠!"¹⁸⁾

이 대목에서 정세랑의 이상주의적 생각을 엿볼 수 있다. 하오징팡과 정세랑 모두 자본주의의 한계에 동의하는 바지만 하오징팡이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면 정세랑은 완벽한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다.

4. 결론

본 발표문은 하오징팡의 「접는 도시」와 정세랑의 『지구에서 한아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중 여성 SF 작가들이 어떻게 타자를 작품의 중심에 세워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고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지 살펴해보았다.

먼저, 하오징팡의 「접는 도시」는 자본주의의 계층적 폭력을 물리적 공간이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폭로한다. 미래의 베이징을 세 개의 계층 공간으로 나누고 그들의 생활하는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설정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미세한 구조적 불평등이 미래에는 가시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접는 도시, 베이징은 인구 폭발의 문제를 팽창히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해결했으며 그런 만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이상적인 도시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위 계층을 아예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처리하고 그들의 삶을 극도로 통제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은유이다. 알튀세르가 지적한 것처럼 이데올로기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매우 자연스러운 것처럼 작동하는데¹⁹⁾ 라오다오를 비롯하여 접는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그 공간만이 전부인 세상에 살므로 그러한 불평등조차 못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오징팡이 그려내는 디스토피아에서는 상위 계층의 시간과 공간이 곧 권력의 독점임을 증명한다.

반면, 정세랑의 『지구에서 한아뿐』은 또한 자본주의의 여러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 편입되기 힘든 소수자인 여성 주인공 한아를 통해 끊임없이 또 다른 세계를 제시한다. 한이는 남자친구는 있지만 결혼할 생각이 없으므로 가부장제에 들어갈 수 없고, 새로운 재화를 소비하기

17) 최정은, 「여성주의적 변신, 돌봄을 위한 마법 -여성주의 장르로서 정세랑 소설과 돌봄 정치-」, 『인문과학연구』, vol.51, no. 1, 2025, p. 230

18) 정세랑, 『지구에서 한아뿐』, 난다, 2019, pp. 158-159

19) 루이 알튀세르 지음, 김용권 옮김, 『재생산에 대하여 :자크 비테 서문』, 동문선, 2007, pp. 263-270

위해 만들어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활용을 업으로 삼는 여자다. 그녀는 원래 남자친구인 경민의 모습을 한 외계인을 만나고 그의 몸에 있는 망원경을 통해서 한아의 우주는 끝없이 팽창한다. 그러면서 하오징팡이 고착화된 공간과 정체성을 보여주었다면 정세랑은 유동하는 정체성을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세월이 아주 많이 흐른 다음 원래의 경민이 잠시 지구에 돌아와 만나게 되는데 원래의 경민은 이제 엑스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작품의 초반부에 외계인을 계속해서 경민으로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다면 돌아온 엑스에게는 이제 경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가 꺼려진다. 왜냐하면 "언제나,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한아가 사랑하는 존재"²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세랑의 유토피아에서 고정된 정체성은 없고 그것은 언제나 가변적인 것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두 작가가 모두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두 작가의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볼 수 있다. 「접는 도시」 속에는 제3공간 출신이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제1공간에 사는 것을 허가받은 라오거(老葛)가 등장하는데 그는 자본주의를 낱알이 고발한다.

"하지만 문제는 땅을 비우고 사람이 남아도는데 이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거냐는 거지. 서구권에서는 개인의 노동시간을 강제로 줄여서 일자리를 늘렸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활력이 없어. 알겠나?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사람들의 생활시간을 철저히 줄이고 그런 다음 그들에게 할 일을 찾아주는 것이었지. 이해하겠나? 밤 시간에 사람들을 몰아넣었다는 말이야. 이 방법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뭘까? 인플레이션 상황이 사회하층계급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야. 돈을 찍고 돈을 쓰는 일은 전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화하지. GDP는 올라가지만 사회 하층의 물가는 오르지 않아.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할 거라고"

라오다오는 알 듯 말 듯했다. 그러나 라오거의 말투가 신랄하고 차갑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²¹⁾

차가움이 하오징팡이 보는 자본주의의 본질이고 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하오징팡의 방식이라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떻게든 이상 세계를 찾는 것이 정세랑의 방식이다.

두 작가는 각기 다른 지점에서 SF적 상상력을 활용하여 동시대 동아시아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즉 자본주의, 가부장적 사회 등 사회 구조가 가지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이들의 작품은 현대 동아시아 여성 SF가 타자성을 통해 현재의 모순을 해체하고 대안적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장임을 입증한다. 이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심화된 사회적 모순 속에서, 주류 서사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작가들이 '시스템 바깥의 존재'인 타자를 호출하여 현실 비판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SF 장르가 본질적으로 가지는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한국과 중국은 20세기 가장 변화 속도가 빠른 나라이므로 사회적 모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양국의 여성 작가들이 창작한 SF 소설들을 통해 그 복잡성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 정세랑, 『지구에서 한아뿐』, 난다, 2019, p. 193

21) 하오징팡 지음, 강초아 옮김, 『고독 깊은 곳』, 글항아리, 2018, p. 57

참고문헌

<1차 자료>

1. 정세랑, 『지구에서 한아뿐』, 난다, 2019
2. 하오징팡 지음, 강초아 옮김, 『고독 깊은 곳』, 글항아리, 2018
3. 郝景芳, 『孤獨遠處』, 江蘇鳳凰文藝出版社, 2016

<단행본>

4. 고장원, 『SF란 무엇인가?』, 북크크, 2016
5. 고장원, 『중국과 일본에서 SF소설은 어떻게 진화했는가?-중국과 일본의 과학소설 역사』, 북크크, 2017
6. 루이 알튀세르 지음, 김웅권 옮김, 『재생산에 대하여 :자크 비데 서문』, 동문선, 2007

<논문>

7. 김봉연, 「하오징팡(郝景芳)의 『접는 도시(北京折疊)』를 통해 본 이동과 ‘정치’의 관계」, 『비교문화연구』, vol.59, 2020
8. 덩징이, 「한·중 여성 SF소설에 나타난 페미니즘 양상 — 『지구 끝의 온실』과 『작은 버섯(小蘑菇)』을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no. 73, 2024
9. 복도훈, 「SF, 타자성을 탐구하는 사고실험의 미학 : 스타니스와프 렘의 SF 『솔라리스』(1961)를 중심으로」, 『탈경계인문학』, vol. 10, no.2, 2017
10. 안은희, 「주거에서 발생하는 공간-권력에 대한 담론 연구」, 『한국 실내 디자인 학회 논문집』 vol. 20, no. 4, 2011
11. 진아구, 김지혜, 「한·중 SF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 비교 연구 — 김초엽과 하오징팡(郝景芳)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no. 38, 2024
12. 최정은, 「여성주의적 변신, 돌봄을 위한 마법 -여성주의 장르로서 정세랑 소설과 돌봄 정치-」, 『인문과학연구』, vol.51, no. 1, 2025
13. 任冬梅, 「從科幻現實主義角度解讀《北京折疊》」, 『南方文壇』, vol. 6, 2016
14. 霍國安, 「論郝景芳《北京折疊》的空間敘事藝術」, 『寧波職業技術學院學報』, vol. 22, no. 2, 2018
15. 張江鑫, 「空間置換：郝景芳科幻小說空間敘事探析」, 『名作欣賞』, vol. 3, 2004

<기타>

16. Beijing Central Business District,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Beijing_central_business_district&oldid=1231821259, 2024, 검색 일자: 2025.09.23

중문학자의 눈으로 보는 한국 무협영화

이종철*

<目 次>

【 국문초록 】

1. 正名, 이름을 바로 해야 한다
 2. 한국 무협영화의 계보를 논하자면
 3. 暗中摸索, 나름의 시도들
 4. 久旱甘雨, 주목해볼 작품
 5. 문제와 지향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한국에서 만들어졌던 무협영화를 일별하고, 역대 주목할 만한 작품과 감독 및 최근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무협영화에 대한 한국 영화계의 인식 및 한국형 무협영화의 지향점과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1. 正名, 이름을 바로 해야 한다

우리 한국에도 무협 매니아가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 보니 관련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장도 웬만큼 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도 무협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많고, 소위 무협 만화를 그리는 만화가들도 많다. 필자의 지인도 무협 소설을 몇권이나 출간한 무협 소설가이다. 만화 <열혈강호>는 30년을 이어가며 지금도 연재되고 있다. 웹툰 순위에 항상 빠지지 않고 이 무협 만화가 랭크 되어 있다. 필자도 최근에 <앵무살수>라는 무협 웹툰을 재밌게 본 바 있다.

자 그런데 영화로 시선을 돌려보면 상황이 좀 다르다. 일단 한국에서는 무협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는 것 같다. 대개 액션 사극, 액션 시대물이나 혹은 그냥 시대극이나 액션물 등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딱 정해진 호칭이 없다. 무협이라는 호칭은 거의 쓰지 않는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 몇 년간 지속되다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충주시에 야심차게 진행했던 국제 영화제가 “충주 국제무예영화제”였다. 왜 “무협”이 아니라 “무예”라는 명칭을 사용했을까. 소설이나 만화 등에는 무협이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반면, 영화는 왜 쓰지 않을까.

일단 무협이라는 이름에는 중국의 느낌이 너무 강하게 깃들어 있는 것 같다. 즉 무협영화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중국이 연상되는 경향이 있어 한국의 영화인들은 그 용어를 쓰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 그러

*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 영화감독, 제작자. 용단필름 대표. 단편영화 <배회자>, <나혜석을 따라 걷다>, 장편영화 <청춘 소나타>, <도시의 방랑자> 연출, 제작.

니 만약 무협영화라고 한다면 그냥 앞뒤 없이 도매급으로 넘어가거나, 기껏해야 중국의 무협영화를 흉내 낸 아류로 취급받을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 같다. 물론 일견 이해가 간다. 영화라는 것이 자본이 한두 푼 들어가는 매체가 아닐진데, 어렵게 만들었는데 기껏 중국의 아류로 취급된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림1 웹툰 <맹무살수>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좀 다르다. 무협이라는 것은 결코 중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국에도 얼마든지 무협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수많은 인물과 에피소드들이 있다. 가령 홍길동, 장길산, 임궽정, 전우치 등의 활약도 얼마든지 무협의 개념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무협에서 “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협”이라는 정신적인 것이다. “무예”라는 기능적 개념을 주로 지칭하는 용어로는 “협”의 정신을 제대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 애매한 무예영화제보다는 과감하게 무협영화제라는 명칭을 고려해봐도 좋을 거 같다. 요컨대 무협영화를 그냥 하나의 장르로 보고 같이 공용으로 써도 무방할 것 같다. 좋은 무협영화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느와르라는 용어가 이후 하나의 장르명으로 정착되어 사용되는 것처럼 말이다. 주지하듯 홍콩 느와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고, 한국 느와르, 한국형 느와르라는 이름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여기엔 전혀 거부감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단순히 액션영화라고 지칭하는 것보다 특유의 분위기를 더해주는 것 같아 즐겨 사용하지 않는가.

2. 한국 무협영화의 계보를 논하자면

무협영화의 전성기는 6, 70년대다. 저 유명한 영화사 쇼브라더스에서 제작한 술한 무협영화와 이소룡을 발굴하며 급부상한 골든 하베스트가 주도한 무협의 시대가 존재했다. 흥미로운 건 그 시절 한국의 여러

감독과 배우들도 무협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직접 홍콩으로 건너가 홍콩의 시스템 하에서 만든 영화들도 여러 편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창화 감독일 텐데, 1958년 <망향>, <햇빛 쏟아지는 벌판> 등의 영화로 전후 한국 액션영화를 개척한 그는 이후 홍콩 쇼브라더스에 스카웃 되어 1969년부터 여러 편의 무협영화를 만들었다. <천면마녀>, <여협매인두>, <육자객>, <래여풍>, <천하제일권>, <아랑곡> 등이 있는데, 그중 <천하제일권>은 홍콩에서의 흥행은 물론 북미에서도 개봉되어 흥행 1위라는 기염을 토했다. 북미 개봉 시에는 <죽음의 다섯손가락>이라는 이름으로 개봉되었고, 이 영화는 이후 쿠엔틴 타란티노의 화제작 <킬빌>에서 오마주되기도 했다. 정창화는 이후 골든하베스트와도 손잡고 <흑야괴객>, <파계> 같은 영화를 연출하기도 했다. 정창화 감독은 또한 1967년 <나그네 검객 황금 108관>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장동휘, 박노식 등 당대의 한국 톱스타들을 대거 기용해 만든 당대 한국형 무협영화의 대표작이라 할 만 하다. 물론 이러한 영화들은 홍콩 무협영화들을 많이 참고하고 모방한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한국적 정서를 결합시키고 이런저런 새로운 시도를 더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장철, 호금전, 이한상, 초원 등 기라성 같은 감독들이 활동하던 당시 홍콩 영화계에서 정창화 감독이 자신만의 자리를 당당히 차지했다는 점이 대단히 흥미롭고 짜릿하다.1)

정창화 감독 외에도 임권택 감독의 1969년 작 <십오야>라는 영화도 이 시기 한국형 무협영화의 또 다른 대표작이라 할만하다. 빠르고 색다른 액션을 추구했으며, 호금전의 대 히트작 <대취협>의 느낌도 좀 나는 영화다. 그 밖에도 정창화 감독에 이어 홍콩에 진출하여 <하남별곡>, <쌍용비객>, <소림관문돌파> 등의 영화를 만든 김명용 감독도 거론되어야 한다. 이두용 감독의 <용호대련>, <돌아온 외다리>, 변장호 감독의 <흑나비>도 70년대 만들어진 한국 무협영화들이다.



그림2 정창화 감독 <죽음의 다섯손가락(1972)> 포스터

- 1) 한국 액션영화의 계보에서 꼭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감독이다. 특히 한국 무협영화를 논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 2003년 부산영화제에서 그의 회고전이 진행된 적이 있지만, 대다수 한국인은 그에 대해 잘 모른다. 아무래도 일찍 은퇴하여 도미한 것이 영화계와 떨어진 이유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3. 暗中摸索, 나름의 시도들

홍콩 무협영화의 열기가 시들해지면서 자연히 한국에서도 무협영화의 제작은 뜸해졌다. 하지만 완전히 명맥이 끊긴 것은 아니어서 이후에도 종종 무협영화라는 타이틀을 걸고 제작된 일련의 영화들이 있었다. 예컨대 2000년대 이후에도 <비천무>, <무사>, <청풍명월>, <천년호>, <무영검>, <불꽃처럼 나비처럼>, <협녀-칼의 기억>,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최종병기 활>, <군도>, <검객>, <살수> 같은 영화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밖에도 여러 소재를 활용하여 변주된 영화들도 있다.²⁾

<천년호>는 신상옥 감독의 1969년 작 <천년호>를 리메이크한 영화다. 사실 원작은 60년대 공포영화의 최고작 중 하나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판타지와 멜로, 액션이 결합된 실험적인 작품으로, 기존의 전형적인 공포물을 벗어난 상상력과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영화로 거장 신상옥의 저력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2003년 <천년호>는 흥행과 비평 모두 실패하며 원작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평을 받았다. 중국 올로케이션을 감행하며 액션과 미장센에 공을 들였지만, 무협이라 하기에, 호러라고 하기에 애매했다.

<협녀-칼의 기억>은 일단 중국 무협의 고전 호금전의 <협녀>와 동일한 제목을 사용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모처럼 무협영화 타이틀을 전면에 걸고 이병헌, 전도연, 김고은 등 티켓파워가 큰 톱스타를 주인공으로 삼았음에도 흥행과 비평 양면에서 모두 실패했다는 점이 무척 아쉽다. 구도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무겁고 지루한 면이 있었다. 무협의 주요 요소인 액션에서도 이렇다 할만한 것이 없었고, 대체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어색했다. 요컨대 시도는 좋았으나 여러모로 아쉬움이 큰 영화였다.

그 밖에도 유명 배우들을 기용하고 큰 제작비를 투여하며 나름 기대를 모았던 <무사>나 <비천무>, <청풍명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등도 이렇다 할만한 성적이나 화제를 얻지 못했다. 이런 영화들은 동명의 인기 만화 원작으로 삼거나 과감하게 중국 올로케이션을 감행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역시 뭔가 확실한 한방이 부족했다는 느낌이다.

자, 맹인 검객과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좋다. 잘만하면 쾌감이 배가되는 설정이다. 맹인 검객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나 <검객>은 신체적 결함을 뛰어넘는 초인적 실력과 그에 대한 배경이 좀 제시되어야 하는데 엉성했다. 김고은과 전도연이 체현하는 칼을 휘두르는 협녀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너무 어색하고 엉성하여 감정 이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4. 久旱甘雨, 주목해볼 작품

자, 이번에 그런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성공을 거둔 케이스를 좀 거론해보고자 한다. 김한민 감독의 <최종병기 활>은 2011년에 개봉되어 740만을 동원한 히트작이다. 소개를 보면 사극 액션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무협영화로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영화다. 주인공 남이는 전형적인 무협영화 속 인물로, 역적의 아들로 겨우 목숨을 건진 후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남자이고 최고의 활솜씨를 지니고 있다. 출세의 길이 막힌 남이의 유일한 희망은 여동생 자인의 행복인데, 그녀의 혼인날 일이 벌어진다. 조선을 자신의 발밑으로 알고 무례한 약탈을 일삼는 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자, 이제 구도는 제대로 만들어졌으니, 남은 건 남이의 초인적인 활약과 복수다. 활이라는 무기가 이렇게 다이내믹했나 싶게 활을 이용한 액션이 돋보인다. 강력한 빌런으로 끝까지 긴장감을 붙여넣는 청의 무장 슈신타의 추격

2)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창궐>, <물괴>, <킹덤> 같은 작품들도 무협영화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로 이런 영화들은 퓨전 사극 정도로 지칭된다. 명칭은 다양할 수 있다. 가령 SF 무협, 판타지 무협 등등으로 이런저런 변주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여러 장르를 뒤섞는다고 새롭게나 더 입체적인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액션도 인상적이다. 영화 <최종병기 활>은 이중삼중 극한의 상황에 몰린 주인공의 분투를 생생하게 담아내는 동시에, 활을 사용한 신선한 액션과 배우들의 열연, 만주어까지 직접 구사하는 도전과 열정 등이 박자를 잘 맞추며 재미와 감동을 주는 데 성공했다.

<군도-민란의 시대>는 역사 활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역시 충분히 무협영화로 분류될 만 하다. 부패와 탐관오리가 판을 치는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차별받고 핍박받는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 권력에 맞서는 이야기다. 예컨대 <수호지>, <홍길동> 등이 연상되는 의적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인물 군상과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로 재미와 의미를 나름대로 잘 살리고 있다. 백정, 스님, 여성 등 의적에 참여한 다양한 인물들의 스토리,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다채로운 액션이 흥미롭다. 그런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강력한 악당 조윤의 설정도 인상적이다. 그 또한 아픔이 있는 인물로, 차갑고 냉정하면서 잔혹하기 그지 없는 인물을 잘 살려내고 있다. 거기에 변사가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처럼 나레이션을 삽입하는 형식까지 더하는 등 이런저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관객 470만명을 동원하며 중박 이상의 성과를 낸 영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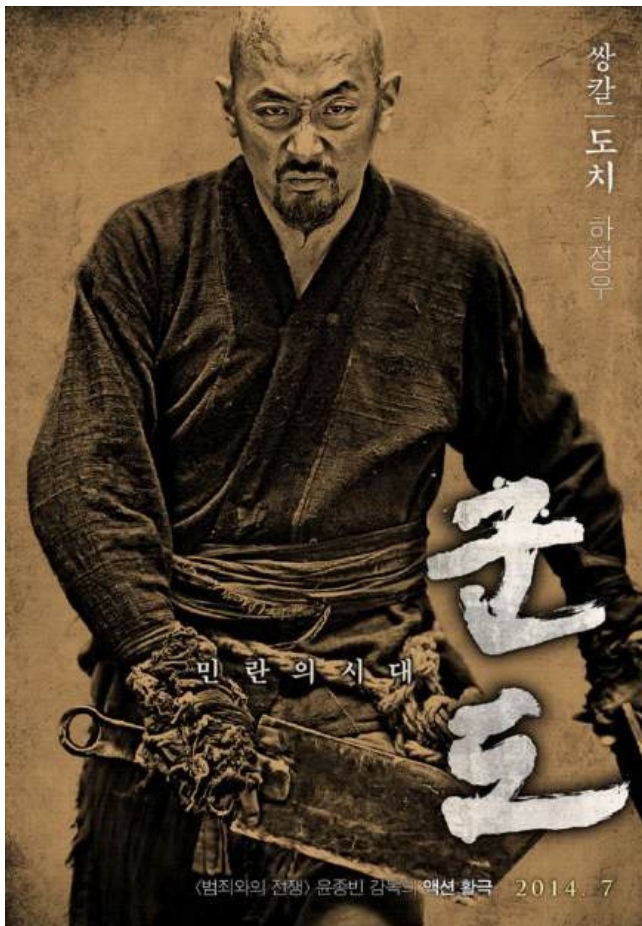


그림3 영화 <군도> 포스터

5. 문제와 지향점

최근 몇 년 선보인 <검객>과 <살수>를 눈여겨 보았다. 한국에서 무협은 안된다는 인식 하에서 나름대로 독심 있게 무협을 표방한 영화들이었지만, 여러모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 눈을 돌려 무협의 나라 중국은 어떤가에 대해 좀 얘기해보겠다. 중국영화의 초창기부터 큰 인기를 얻은 무협영화는 1920년대 대 히트작 <화소홍련사>부터 40년대의 <황비홍>, 그리고 6, 70년대 전설적인 무협의 시대를 거쳐 8, 90년대에도 적지 않은 명작들이 나왔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리안의 <와호장룡>, 장예모의 <영웅>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큰 화제와 흥행몰이를 하며 정점을 찍었다. 그리고 20여 년, 중국에선 여전히 대형 무협을 표방한 영화들이 줄기차게 쏟아져 나오지만, 이거다 하고 환호할 만한 무협영화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더 커진 자본력과 첨단 기술력을 고려하면 더 많은 명작들이 나올법도 한데, 왜 나오지 않는 것인가.

일단 무협영화는 무협영화 다뤄야 한다. 다시 말해 무협의 본질, 특히 협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강자의 횡포를 두고 보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서는 협객에 집중해야 한다. 가족, 스승, 친구의 희생을 두고 보지 않고 확실하게 되갚는 복수의 서사가 제대로 구현되어야 한다. 주저주저 하지 않고 악당을 처단하는 일도양단의 시원함을 놓쳐서는 안된다. 무협영화의 핵심인 액션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 멜로, 판타지, 코믹 등을 섞으며 자꾸 잔가지를 치며 무협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순간, 영화는 이도저도 아닌 잡탕밥이 되기 일쑤이고, 배는 산으로 가게 된다. 또한 과도한 CG를 남발하거나 화려한 액션에 대한 강박 역시 영화를 망치는 주요 원인이다. 여배우들이 풀메이크업을 하고 나오는 것도 한숨을 짓게 만든다. 자, 중국 무협영화는 더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들의 숨소리조차 연기일진데, 지금 시대에 더빙은 진짜 최악이다. 그밖에도 이런저런 요소들을 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공허한 말이 될 것 같으니 그쯤하고자 한다.³⁾ 아무튼 열거한 이런 요소들로 인해 한국이든 중국이든 최근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무협영화는 신선함은 커녕 실소를 자아내며 고개를 젓게 만든다.

무엇보다 대결 구도를 잘 짜야 한다. 다시 말해 무협영화에서 빌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주인공이 폭발할 수밖에 없도록 빌런의 악행을 제대로 빌드업 해야 한다. 그래야 복수를 해야 하는 당위가 생기고 관객을 설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웅> 속 이연결과 장만옥이 평생에 걸쳐 무예를 연마하고 복수의 칼을 갈게 만든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진시황이다. 장철의 전설적인 영화 <독비도>도 역시 그렇다. 주인공 방강은 문파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설상가상 팔이 잘리는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된 뒤, 각고의 노력으로 최고의 고수가 되어 컴백하고, 사부를 해하려는 악당무리와 한판 대결을 펼친다.

호금전의 명작 <협녀>, <용문객잔>의 구도 역시 일대 다의 싸움이고 절대악과의 한판 승부다. 게다가 여성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결코 어설피지 않고 긴장감을 높이면서 관객을 몰입시킨다. 악당들에 의해 집안이 풍비박산난 충신 가문의 딸, 시골에 몰래 숨어 살려고 하는데도 그마저도 그냥 두지 않고 제거하려는 빌런과 그런 그녀를 도와 악에 맞서는 인물들의 피끓는 복수가 잘 구현되어 있다.

<와호장룡>은 물론 좀 다르다. 피 끓는 복수의 이야기는 아니다. 뭐랄까 다분히 철학적인 영화고, 가령 무협의 옷을 입은 멜로영화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거 다 떠나 <와호장룡>이 무협영화의 한 획을 그었다는 것에 토를 다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자기가 리안 정도의 공력을 가졌다면 마음 가는 대로 만들어도 명작이 될 것이다.

3) 영화를 만드는 감독, 제작자의 입장에 서보니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작업인지 절감한다. 특히나 특유의 분위기와 미장센을 살려야 하는 무협영화의 경우 제작의 어려움이 더더욱 크다. 지적이나 훈수는 너무나 쉽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공허하게 들린다.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빼어난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멋지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너무나 어렵다.

설득력을 잘 갖춘 ‘복수’의 서사를 갖추었다면, 다음으로 액션의 설계에 공을 들여야 한다. 음악이 그러하듯 액션은 만국의 공통어이고, 무협영화의 형식적인 핵심이 바로 액션이기 때문이다. 무협영화는 현실을 뛰어넘는 액션이 얼마든지 허용되지만 그렇다고 허무맹랑한 액션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어려운 말이지만 자신만의 액션 인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⁴⁾

너무 빠른 얘기 같지만 한국적 특색, 한국적 맛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한국형 무협영화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한국적인가 라는 질문이 이어질 것이다. 예컨대 지정학적 특징을 살려 중국이나 일본과 대결 구도를 만들어 뭔가 색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대나무숲, 사막 등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자연을 잘 활용한 미장센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⁵⁾ 액션도 마찬가지다. 뭔가 중국과 차별되는 한국적인, 새로운 액션을 잘 설계하면 좋을 것 같다.

참고문헌

강내영, 「중국 무협영화의 장르 변천 과정 연구<용문객잔> 시리즈를 중심으로」, 중국문화연구 22집, 2013

김현, 「무협 소설은 왜 읽히는가」, 시대, 1979

이종철, 「세계화를 향한 중국영화의 새로운 징후-장예모의 <영웅>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24집, 2004

최봉원, 「고대 중국의 「협」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논문집 26, 1979

송희복, 『무협의 시대』, 경성대 출판부, 2007

오현리, 『무협 영화』, 한숲, 2001

이종철, 박성배, 『중국영화의 인식과 담론』, 한국문화사, 2016

이종철, 박성배, 『중국영화의 인식과 담론2』, 한국문화사, 2022

이종철, 「우리는 누구나 무협을 꿈꾼다」, 어문학사, 2024

4) 개인적으로 2000년대 이후 불만한 중국 무협영화를 꼽으라면 <검우강호>, <명장>, <금의위> 정도를 든다. 각각의 장점은 다른데, <검우강호>는 정중동의 긴장감을 잘 살렸고, 전통적 구도에 새로운 요소를 잘 섞은 것 같다. <명장>은 이한상의 <자마>를 리메이크 한 영화인데, 세 남자의 배신과 암투, 형제애의 허상 등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금의위>는 전적으로 액션의 화려함과 신선함에 점수를 주고 싶다.

5) 장철이 <금연자>를 일본 로케로 찍은 것이나, 호금전이 <산중전기>, <공산영우>를 우리나라 남한산성, 해인사, 불국사 등지에서 찍고, 임영동이 <생사결>을 태종대 등지에서 찍은 것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중국 대륙과 타이완 소설에 나타난

세기말 정서에 대한 트랜스-동아시아적 고찰

— 자평와(贾平凹)의 《폐이두 废都》와 주톈원(朱天文)의
《세기말의 화려함 世紀末的華麗》 중심으로

刘娅香*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1990년대 세기말 정서의 표현
 3. 퇴폐적인 도시 서사
 4. 개인 정체성의 상실
 5.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고는 1990년대 중국 대륙과 타이완 소설에 나타난 세기말 정서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트랜스-동아시아적 문화심리의 맥락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은 자평와(贾平凹)의 《폐도 廢都》와 주톈원(朱天文)의 《세기말의 화려함 世紀末的華麗》로, 두 작품은 서로 다른 정치·사회적 조건에서 창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현대화와 세계화, 소비주의 확산이라는 공통된 배경 속에서 주체의 해체와 정신적 불안을 공유한다. 《폐도》는 지식인 왕즈데(莊之蝶)의 몰락을 통해 전통 가치의 붕괴와 도시 욕망의 범람 속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폐허’를 형상화하였고, 《세기말의 화려함》은 도시 여성 미아(米亞)의 공허한 내면과 파편화된 언어를 통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체성 상실을 드러냈다. 두 작품 모두 ‘폐허’라는 모티프를 통해 동아시아 도시 문학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화적 위기를 상징하며, 서사 전략에서는 현실주의적 언어 위상 전환과 포스트모더니즘적 단편화가 대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비교는 세기말 정서가 단지 지역적 특수성에 머무르지 않고, 냉전 해체와 글로벌 자본주의 확산 속에서 동아시아 전역이 공유한 보편적 문화심리 현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는 중화권 내부의 차이를 넘어, 동아시아 현대문학의 교차적 경험을 밝힘으로써 지역 간 현대성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1990년대 중국 대륙과 타이완은 각각 급격한 사회 변혁과 문화 재편을 경험했다. 대륙은 1979년 《타이완 동포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告台灣同胞書》 발표 이후 양안 간 문학 교류가 점차 복구되었으나, 정치적 변수로 인해 간헐적 단절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문학적 연계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1990년대에 들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어서면서 대륙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기를 맞았고, 타이완은 계엄령 해제 이후 다원사회로 진입하였다. 정치 체제와 역사적 조건은 달랐지만, 두 지역 모두 현대성의 충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¹⁾

세기말에 이르러 세계화, 도시화, 소비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물질적 삶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사회 전반에서는 문화적 정체성의 동요, 전통과 현대의 충돌, 정신적 공허 등이 두드러지는 ‘세기말 위기’가 표면화되었다.²⁾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자핑와의 《페이두》와 주톈원의 《세기말의 화려함》이 각각 발표되었다. 두 작품은 개인 내면의 섬세한 포착을 통해 퇴폐와 불안으로 점철된 세기말적 정서를 형상화하며, 시대적 위기와 정체성 해체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본고의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핵심 개념인 ‘세기말 정서’의 의미와 이론적 방향성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기말 정서’는 단순히 근대화 과정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정체성 혼란, 소외감, 정신적 불안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개념도 아니며, 모더니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에서 나타나는 ‘근대성의 병리’를 반복하는 표현도 아니다³⁾. 물론 이들 사이에는 심리적 구조의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세기말 정서’는 1990년대 말이라는 특정한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출현한 문화심리적 현상으로, 역사의 종말에 대한 상상, 체제 붕괴에 대한 공포, 그리고 가치 상실감이라는 집합적 상상력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⁴⁾. 이 정서는 계몽적 이성의 종말 이후 발생한 철학적 반성이나 산업사회 속 주체화 과정에서의 개인적 고뇌와는 구별되며, 탈냉전 시기 사회 질서의 재편, 도시 공간의 위기, 문화 지형의 전환이 동시에 발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나타난 집단적 불안을 반영한다⁵⁾.

이러한 맥락에서 자핑와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세기말 인간의 정신적 공허감”⁶⁾이나 주톈원의 소설 제목 《세기말의 화려함》 속 ‘화려함’ 이면에 감춰진 허무감은 단순한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 특정 시대의 심리적 구조를 반영하는 역사적 기호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본고에서 사용하는 ‘세기말 정서’란 근대성 불안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탈냉전 이후 전환기 사회의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심리적 반응을 내포한 중국적 맥락의 감정 구조이다. 비록 이 개념이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과 일정 부분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기 근대성 불안’이 화교권 문학에서 어떻게 지역적으로 변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하나의 문제 의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⁷⁾. 나아가, 이른바 ‘세기말 문화심리’와 ‘현대성 위기’는 중국 대륙과 타이완만의 특수 경험에 그치지 않고, 냉전 해체와 글로벌 자본 확산이라는 거시 구조 속에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전역이 공유한 보편적 문화 증후군으로 확장된다⁸⁾. 동시기 한국의 도시 소설이나 일본의 후기 현대 문학에서도 유사한 정서적 불안과 정체성 혼란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본고는 《페이두》와 《세기말의 화려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현대문학이 세기말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 문화심리와 시대적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서사화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중화권 내부의 지역적 차이’를 넘어서 ‘동아시아적 공명과 변주’에 주목함으로써, 동아시아 근현대 문학 속 세기말 감수성과 현대성 체험의 교차 지점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김자은, <20세기말 21세기초 중국 시에 나타난 죽음 형상>, 《중국인문과학》 제66집, 2017, 325-346쪽.

2) 劉亮雅, <世紀末台灣小說裡的性別跨界與頹廢>, 《中外文學》 第6期, 1999, 109-131.

3) 프레드릭 제임슨은 “제3세계 문학은 민족 우화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고 말하며, 이는 곧 근대성의 병리와 집단 정체성 간 긴장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Fredric Jameson,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Social Text*, no.15, 1986, 69-88쪽.

4) 얀 아스만(Jan Assmann)은 문화기억의 단절 순간이 사회 질서와 정체성 체계의 붕괴와 밀접히 관련된다고 본다. 楊阿斯曼 著, 劉北成、張寧 譯, 《文化記憶》(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2), 46쪽.

5) 쑤거(孫歌)는 1990년대 중국 사회에서 ‘문화지형’이 총체적으로 재구성되며, 정치적 시간의 부재로 인한 불안을 심리 구조에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孫歌 著, 《歷史與語言之間》(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3), 172쪽.

6) 자핑와는 1999년 한 인터뷰에서 “세기말에 이르러 인간은 공허하고, 초조하며, 겁에 질려있었고, 전부 정신의 문제”라고 말했다. 재인용: 韓小蕙 著, 《世紀末訪談錄》(北京: 作家出版社, 2000), 34쪽, 재인용.

7)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후기 근대성’을 유동적 상태로 규정하며, 문화와 정체성이 끊임없이 해체되고 재구성된다고 주장한다. Zygmunt Bauman, *Liquid Modernity*, Polity Press, 2000.

8) Chun, Allen. *The Other Side of Modernity: Toward an Ethnography of the Contemporary*, Routledge, 1996, 참고.

2. 1990년대 세기말 정서의 표현

20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중국 대륙과 타이완은 급속한 경제 성장, 사회 구조의 변혁, 문화적 가치의 재편 과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일종의 정신적 불안과 문화적 환멸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정서는 단순한 시대 부적응 증후군이 아닌, 보다 심층적인 문화심리적 구조로서 학계에서는 이를 ‘세기말 정서’로 통칭한다. 이는 주체성의 붕괴, 욕망 논리의 통제 불가능, 언어와 의미의 해체, 그리고 미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집단적 회의로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세기말 정서’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자평와의 《페이두》와 주톈원의 《세기말의 화려함》이라는 두 대표 작품을 중심으로 서사 구조, 인물 심리, 문화적 코드 측면에서 면밀한 비교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자평와의 《페이두》는 왕즈데(莊之蝶)의 심리적 궤적을 통해 1990년대 중국 지식인이 시장경제와 관료 문화의 이중적 소외 속에서 겪는 정신적 ‘붕괴’를 드러낸다. 주인공은 한편으로는 체제 내 문학관료로서 명성을 누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욕망, 불안, 환멸에 깊이 빠져 있다. 소설에는 ‘몽유’, ‘무기력함’, ‘언어의 상실’ 등의 묘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주체의식의 지속적인 붕괴를 표현한다. 왕즈데는 독백 속에서 “나는 늘 내 삶이 남의 계획의 일부일 뿐이라는 느낌을 받았다”⁹⁾고 고백하는데,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감각은 1990년대 급속한 도시화 과정 속에서 개인이 겪는 심리적 불균형을 상징한다.

소설 속 성적 서사는 단순한 선정주의가 아니라, 욕망의 경제적 배경 아래 인간 존엄성이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왕즈데가 여러 여성들과 맺는 관계는 진정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며, 일시적인 마취제처럼 기능하는 ‘자아 확인’에 불과하다. 그는 계속 반복했다. “그것은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무력감의 증명을 찾기 위한 것처럼 보였다”¹⁰⁾. 이러한 ‘욕망-허무-반복’의 정신구조야말로 세기말 문화적 불안의 문학적 투영이다. 그의 죽음은 비극적 절정이나 도덕적 심판이 아니라, 상징적인 ‘정신적 고갈’이자 자아의 소멸로 기능하며, 이는 이상(理想)의 해체와 가치 체계의 붕괴를 상징한다.

주톈원은 《세기말의 화려함》에서 미야(米亞)를 비롯한 도시 여성들이 고도로 소비화된 사회 속에서 점차 주체성을 상실해 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한다. 소설 서두에서 “그녀는 거울 앞에서 물러섰다. 마치 자신이 거기에 있었던 적조차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¹¹⁾라는 문장은 거울 상의 실패를 통해 존재론적 구조를 형성하며, 미야가 ‘지각의 부재’와 ‘반영의 상실’ 속에서 살아갈 것임을 암시한다. 미야는 화장, 파티, 섹스, 음주 등에 집중하지만, 끝내 ‘텅 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녀는 가장 시끄러운 자리에서도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¹²⁾는 문장은 이러한 내적 공허를 직관적으로 드러낸다.

소설의 언어는 파편화되어 있고, 리듬은 불규칙하며, 논리는 단절되어 있는데, 이는 포스트모던 도시 경험의 개인의 정신에 미치는 교란을 형상화한 것이다. 미야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존재감을 찾으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무한한 선택’과 ‘완결되지 못한 정체성’ 사이에서 후기 산업사회 도시 논리 속의 ‘공허한 인간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주톈원은 더 이상 민족적 수난이나 역사적 기억에 호소하지 않고, 삶의 파편화된 감각적 디테일을 통해 도시인의 내면에 자리한 ‘무의미한 존재’를 조명한다. 이 과정에서 언어 그 자체가 ‘공허한 구조’를 구현하는 매개체로 기능하게 된다.

1989년 이후 중국 대륙에서는 ‘계몽-근대화’라는 이중 신념 체계가 붕괴되면서 문화 엘리트들은 담론 자원의 단절과 이상적 좌표의 상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문학은 거대 서사에서 개인의 붕괴로 전환하였으며, 지식인들은 시장 메커니즘과 관료적 체제 구조 속에서 발언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들의 정신적 불안은 ‘정체성의 공백화’와 ‘윤리 구조의 해체’로 나타났으며¹³⁾, 여기에 소비주의, 도시 확장, 오

9) “我總覺得我的人生只是別人計劃中的一部分。”賈平凹 著, 《廢都》(北京: 作家出版社, 1993), 294쪽.

10) “這似乎不是在追求快感, 反倒像是在尋找某種無力感的証據。”賈平凹 著, 위의 책, 315쪽.

11) “她從鏡子前退了開去, 仿佛自己從未在那里出現過一樣。”朱天文 著, 《世紀末的華麗》(臺北: 遠流出版社, 1990), 12쪽.

12) 李永平, <世紀末的哀悼與救贖——朱天文訪談錄>, 《聯合文學》第2期, 1991.

락 문화의 전면적 침투가 더해지면서 기존의 정신적 고지는 ‘감각과 욕망의 논리’에 의해 대체되었다¹⁴⁾.

이와 대조적으로, 타이완의 세기말 정서는 정치적 해금 이후 나타난 ‘정체성 위기’와 ‘문화의 부유성’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1987년 해금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된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되자, 대중은 정치의 다원화와 본토 의식의 대두 사이에서 복잡한 정체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주톈원의 소설에 등장하는 미아는 바로 이러한 ‘중화 정체성’의 해체와 ‘타이완 본토화’ 정체성 구축이 미완성 상태에 놓여 있는 가운데 완전히 ‘소속 없는’ 도시적 방랑자로 형상화된다¹⁵⁾.

비록 《페이두》와 《세기말의 화려함》은 각각 중국 대륙과 타이완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 체계 속에서 창작된 작품이지만, 이 두 작품은 ‘세기말 정서’에 있어 놀라운 구조적 유사성을 보인다. 황즈데과 미아의 심리 메커니즘은 모두 ‘통제 상실-억압-마비’라는 점진적 단계를 거치며, 그들은 자아를 구원하지 못하고 정신적 의지처도 찾지 못한다. 그러나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자핑와는 남성 지식인의 정체성 불안을 통해 ‘실패의 윤리’를 형상화하는데, 이는 현대 사회 질서 속에서 전통 지식인 계층의 주변화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주톈원은 여성의 감각과 도시 경험을 매개로 현대 소비주의가 주체 형성 메커니즘을 어떻게 침식하는지를 드러낸다. 이러한 ‘문화 심리 구조의 이질적 공명’¹⁶⁾은 바로 세기말 문학 비교 연구의 핵심 가치가 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대륙에서의 세기말 정서는 ‘이상의 붕괴’로 요약될 수 있으며, 타이완에서는 ‘정체성 상실’로 나타난다. 비록 각기 다른 사회적 메커니즘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공통적 결과는 문학 인물의 정신적 붕괴, 가치 의미의 구조적 단절, 그리고 텍스트 언어의 파편화 및 탈중심화이다. 이처럼 ‘구조는 다르나 결과는 유사한’ 현상은 동아시아 문화 근대성의 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하나의 설득력 있는 비교 시각을 제공한다.

3. 퇴폐적인 도시 서사

미국 학자 조엘 코트킨(Joel Kotkin)은 《글로벌 도시의 역사 The History of Global Cities》에서 도시를 인간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말하며, 그것은 우리 종이 가진 상상력의 장엄한 결작이며, 우리가 가장 깊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자연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¹⁷⁾ 도시는 발달한 물질문명과 풍요로운 사회문화를 의미하며, 현대 문명 발전의 최고 수준을 대표한다. 현대의 정치 제도, 사회 제도, 자연과학, 인문 예술은 모두 도시에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도시는 인간의 생활 공간이며, 인간은 도시 공간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드러낸다. ‘퇴폐’라는 개념은 쇼월터(Showalter)의 견해에 따르면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편으로 ‘퇴폐’는 중산층이 그들의 시각에서 부자연스럽거나, 과장되거나, 변태적으로 보이는 모든 현상——신예술 운동(Art Nouveau)부터 동성애에 이르기까지——을 경멸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다른 한편으로 ‘퇴폐’는 유럽 전역을 가로지르는 탈다윈(post-Darwinian) 미학 운동으로, 모든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을 거부하고, 정교하고, 참신하며, 희귀한 예술과 예술품, 감각, 상상의 내면적 삶을 선호한다. 이러한 운동은 신선하고 이색적인 감각적 자극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물애(物愛)나 신체 탐구, 심지어 약물 복용 및 이중 교배와 같은 실천을 수반하며,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성별 및 성애 관념으로부터 일탈하게 만든다. 여성은 자연적 신체 및 물질에 더 가깝다고 인식되어 종종 여성성과 여성의 몸이 폄하되는 경향을 보인다. 나아가 ‘퇴폐’는 세기말 동성애를 은유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하며, 반체제적 의미를 내포한다.

13) 王曉明, <“啓蒙”及其終結: 八十年代中國文化的一種敘述>, 《讀書》 第5期, 1997.

14) 陳思和 著, 《新時期文學思潮研究》(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5), 225쪽.

15) 孫歌, <台灣主體意識的形成與知識分子話語>, 載《歷史與語言之間》(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3), 141-157쪽.

16) 孫歌 著, 위의 책, 177-179쪽.

17) 喬爾·科特金 著, 王旭等 譯, 《全球城市史》(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2~3쪽.

자평와의 도시 서사는 인간과 도시 사이의 정신적 연결을 탐구한다. 《페이두》는 도시의 사적 공간을 중점적으로 표현하면서 사람과 도시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화적 공간을 형성한다. 도시는 인간성과 욕망의 투사체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통문화의 현대적 변혁 속에서 정신적 혼란, 육체의 무거움, 영혼의 공허함이 드러난다. 성(性)과 애정은 도시인의 정신적 속죄의 중요한 방식이 되었다. 《페이두》는 심신의 욕구와 애정의 갈등을 다루지만, 작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인의 정신적 진로를 탐구하는 데 있다. 문인들은 그들의 활동 공간인 ‘추채방(求缺屋)’에서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탐구를 이어나간다. 다이상텐(戴尚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집에서 나는 부모님의 아들, 아내의 남편,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밖에서는 당신들의 친구이고,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진정한 나만의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내 것은 내 이름뿐이요.”¹⁸⁾

지친 도시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치 ‘황무지’에 갇힌 듯한 딜레마에 봉착한다. 왕즈데는 관리 사회, 쇼핑물, 문화의 장을 돌아다니며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보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외롭고 초라하다. 그는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지만, 자신이 속한 삶의 세계에서는 외부인에 불과하다.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기에 그는 여성에게서 도피하며 약간의 정신적 위안을 찾고, 몸과 마음을 의탁하려 한다. 그러나 그 여성들 또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재자와 미인’이라는 정신적 나르시시즘에 갇혀 살아간다. 왕즈데는 명예와 이익의 세계 속에서 수혜자이자 동시에 피해자로 존재하며, 그의 넘치는 자신감과 자멸은 외부적 요인이면서도 내면의 욕망에 의한 자기 파괴적 압박에서 비롯된다.

1980년대 신사실주의 소설에서는 시민 계급이 담론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들 소설은 평범한 삶을 시적으로 해소하려 했지만 그 이면에는 도시 일상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긍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농촌 생활의 경험과 기억을 간직한 자평와에게 시대정신을 포착하는 도시 글쓰기는 모순되고 당혹스러운 사상적, 심리적 여정이었다. 그의 장편소설 후기에는 삶과 창작 속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모순과 당혹스러움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다. 《페이두》의 후기에서 작가는 이렇게 탄식한다. “모든 게 막막하다.”¹⁹⁾ 30년 가까이 지난 후, 같은 고도 ‘시징성(西京城)’을 배경으로 한 《좌좌 暫坐》에서 자평와는 여전히 ‘의혹’으로 가득하다.²⁰⁾ 이처럼 현대 도시 생활의 진실을 글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막막함’과 ‘의혹’은 현대성을 반영하는 불안의 본질적 모습이다. 문학의 현대성은 문학 창작을 통해 드러나며, 이는 인간 사회가 전통적인 농업 생산 관계를 벗어나 현대적 생산 방식 속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혼란을 반영한다.²¹⁾

도시 역시 현대성의 역설로 가득 찬 정신적 문화 공간이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워진다. 그러나 물리적 공간의 확장과 물질적 번영은 인간 정신 공간에 대한 압박과 항상 양면적으로 작용한다.

“시안은 고대 도시로서, 곳곳에 붕괴된 담장과 풍화된 문루가 남아 있고, 새로 지어진 건물들조차 빈혈 환자의 얼굴처럼 어둡고 흉하게 보인다.”²²⁾

시안은 이미 현대 상업 문명의 강한 충격을 받으며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와 애정, 도시와 인간성, 도시와 일상, 도시와 여성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페이두》에서 장지철은 종종 ‘몽유(夢遊)’하듯 도시 공간을 배회한다. 그는 소설 속에서 이렇게 독백한다. ‘나는 원래 주인공이 아니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타인 하라는 대로 받아왔을 뿐이다.’ 이 대사는 주체감의 붕괴를 드러낸다.

18) “在家裡我是父母的兒子，是老婆的丈夫，是兒子的父親；在外邊是你們的朋友，是單位的職工。那麼，在這個世界上什麼是真正屬於我的呢？真正屬於我的只是我的名字。” 賈平凹 著，위의 책，195쪽.

19) 賈平凹 著，《廢都·後記》(南京：譯林出版社，2012)，467쪽.

20) 賈平凹 著，《暫坐·後記》(北京：作家出版社，2020)，276쪽.

21) 陳思和，〈試論賈平凹《山本》的民間性、傳統性和現代性〉，《小說評論》第4期，2018.

22) “西京是一個古老的城市，到處都是坍塌的牆壁和風化的門樓，新修的樓房卻灰暗醜陋，像貧血病人的臉。” 賈平凹 著，위의 책，5쪽.

한편, 반세기에 걸친 식민 통치의 역사를 지닌 타이완에서 도시는 식민지적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작가들의 비판의 초점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급격히 변화한 도시 경관은 식민지의 죄악을 기록하고 민족적 상처를 증언하는 장이 되었다. 탈식민 시대의 도시 사회에 만연한 서구 숭배와 사대주의적 분위기는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힌 비극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100여 년에 걸친 신문학사에서 도시는 줄곧 외래적이고 이질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늘 벗어나기 어려운 오명들을 짊어지고 있었다. 《세기말의 화려함》의 여주인공 미야는 수많은 변화한 대도시에서 살아가는데, 이 도시들은 물욕이 넘치고 사치스럽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미야는 화려하고 호화로운 외모와 허영심에 빠져 있으며, 물질세계의 풍요로움에 매몰되어 정신세계에 대한 어떠한 추구도 하지 못한 채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폐허 속에서 고향을 찾으려 하고, 폐허 속에서 이름을 찾으려 하며, 폐허 속에서 사랑을 찾으려 하지만, 끝내 찾아낸 것은 오직 폐허 그 자체였다.”²³⁾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그녀의 마음은 거짓된 사교 속에서 술잔을 주고받으며 담소하는 동안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간다.

“도시는 눈부시게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인간을 무연(無緣)하게 만든다.”²⁴⁾

주토크의 《세기말의 화려함》 속 미야는 화려한 사교 생활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공허와 불안을 감추지 못하며, 감각적 쾌락과 물질적 자극에 탐닉하다가 결국 황폐와 허무에 빠진다. 이는 실존적 인간성의 비극적 외침으로 읽힌다. 자평와의 《폐도》 역시 전통 향토 문화의 붕괴와 시장화 초기 욕망의 범람 속에서 도시 공간의 혼란과 개인의 상실을 드러낸다. 두 작품은 서로 다른 출발점(현실주의적 향토 단절 vs. 포스트모더니즘적 도시 허무)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폐허화’를 통해 개인 정신의 소외, 정체성 해체, 존재 의미의 붕괴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형상화한다.

이처럼 대륙과 타이완 문학은 각각 ‘정신적 폐허’와 ‘내면의 공허’를 부각시키면서도, 글로벌 모더니티 속 동아시아 문학이 공유한 질문 — “현대 도시 속에서 어떻게 자아를 재정의할 것인가” — 에 응답한다. 따라서 이들 서사는 단지 지역 문학의 현상을 넘어, 냉전 이후 신자유주의와 글로벌 자본의 압력 아래 동아시아 도시문학이 직면한 공통적 문화심리적 위기의 증후군을 보여준다.

4. 개인 정체성의 상실

현대 도시는 물질적 풍요와 함께 상품이 인간을 포위·지배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마르크스의 물화소외, 드보르의 스펙터클, 보드리야르의 상징가치 소비가 맞물리며 사람들은 사용가치가 아닌 기호·지위를 소비해 정체성을 꾸린다. 1990년대 중국의 시장화는 지식인 소외를 가속했고 ‘하이하(下海)’ 같은 현상이 확산되며 1980년대의 ‘문화 영웅’상은 해체되었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원고료 체계 붕괴 등 현실 조건과 맞물려 지식인들의 자기회회와 적응 딜레마를 낳았다.

자평와의 《폐도》는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표류하는 지식인의 공허·불안·나르시시즘을, 주토크의 《세기말의 화려함》은 세계화된 타이베이에서 파편화된 의식과 일시적 쾌락에 의존하는 도시 여성의 정체성 상실을 그린다. 전자는 속어·관용어·신체 언어가 충돌하는 언어 위상 붕괴로, 후자는 의식의 흐름·비선형 시간으로 해체를 형상화한다. 두 작품은 서로 다른 전략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폐허화’를 공통 표상으로 제시하며, 개인 정신의 소외·문화 정체성 붕괴·존재 의미의 실종이라는 세기말 증후군을 드러낸다. 이는 양안의 특수성을 넘어 냉전 해체와 글로벌 자본 압력 속 트랜스·동아시아적 문화심리로 읽힌다.

23) “我們在廢墟中尋找故鄉，在廢墟中尋找名字，在廢墟中尋找愛，最後只找到廢墟本身。”朱天文 著，앞에 책，116쪽.

24) “城市如此華麗，卻華麗得叫人無家可歸。”朱天文 著，위의 책，48쪽.

5. 결론

본고는 1990년대 중국 대륙과 타이완 소설에 나타난 세기말 정서를 비교·고찰하며, 이를 트랜스·동아시아적 문화심리의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자펑와의 《폐도》는 시장경제 전환기의 중국 대륙을 배경으로, 전통적 가치의 붕괴와 욕망의 범람 속에서 지식인의 정신적 공허와 몰락을 그려낸다. 반면 주톈원의 《세기말의 화려함》은 세계화·도시화가 심화된 타이완의 현실을 반영하며, 주인공 미야의 내면적 공허와 감각적 쾌락 속 소외를 통해 시대적 불안을 형상화하였다. 두 작품은 리얼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서로 다른 전략을 취했으나, 세기말 현대성의 균열과 정체성 해체라는 공통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러한 비교는 양안 문학이 각기 다른 정치·역사적 조건 속에서 지역적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결국 동아시아 전역이 공유한 세기말 문화 증후군에 응답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체제 전환의 혼란을, 타이완은 탈권위주의와 세계화의 충격을 반영했지만, 두 지역 모두 인간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치열한 내적 투쟁을 서사화했다. 이는 세기말 정서가 단지 중화권 특수성이 아니라, 한국·일본 문학에서도 드러난 광역적 문화심리임을 시사하며, 향후 동아시아 현대문학을 트랜스내셔널 관점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참고문헌

- 고점복, <1990년대 중국의 인문정신논쟁과 인문의 자리>, 《협성대학교 교양학연구소 학술대회지》 제1호, 2015.
- 김자은, <20세기말 21세기초 중국 시에 나타난 죽음 형상>, 《중국인문과학》 제66집, 2017.
- 최윤식, <IMF 이후 한국 청년문화와 ‘세기말 정서’의 변화 양상>, 《한국사회문화연구》 제3호, 2005.
- 王德威 著, 《(현대) 중문소설 작가 22인》, 서울: 學古房, 2014.
- 許紀霖, 저, 이주노 李殊魯, 역, 《계몽의 자아와해 : 1990년대 이래 중국사상문화계의 중대 논쟁 연구》,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 劉麗香, 《1990년대 중국의 ‘산시(陝西) 작가 열풍’과 작가의 지역 문화심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 陳光興 著, 《去帝國：亞細亞作為方法》,台北: 麥田出版社, 2006.
- 陳明遠 著, 《知識分子與人民幣時代》,上海: 文匯出版社, 2006.
- 陈思和 著, 《中国当代文学主潮论》,上海: 復旦大学出版社, 2000.
- 东湄 著, 《下海：中国人的突围》,昆明: 云南大学出版社, 1993.
- 佛克馬·蟻布思 著, 俞國強 譯, 《文學研究與文化參與》,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6.
- 李文俊·杨永青, <浅论朱天文《世纪末的华丽》的“张腔胡调”>, 《北方文学》 第5期, 2019.
- 李欧梵 著, 《中国现代文学與现代性十讲》,上海: 復旦大学出版社, 2002.
- 李延佳, <现代性的审视與後现代性的反思——从《永远的尹雪艳》到《世纪末的华丽》>, 《湖南人文科技学院学报》 第4期, 2016.
- 李怡 著, 《現代性：批判的批判》,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6.
- 劉亮雅, <世紀末台灣小說裡的性別跨界與頹廢>, 《中外文學》 第6期, 1999.
- 呂正惠 著, 《解构與再建：台湾文学與後殖民现代性》,高雄: 復文图书, 2002.
- 賈平凹 著, 《廢都》,北京: 北京出版社, 1993.
- , 《廢都·後記》,南京: 譯林出版社, 2012.
- , 《暫坐·後記》,北京: 作家出版社, 2020.
- 卡爾·雅斯貝爾斯 著, 《當代的精神處境》,上海: 三聯書店, 1992.
- 马克思 著, 《政治经济学批判》,转引自让·波德里亚 著, 刘成富·全志钢 译, 《消费社会》,南京: 南京大学出版社, 2014.

- 迈克·克朗 著, 杨淑华·宋慧敏 译, 《文化地理学》, 南京: 南京大学出版社, 2003.
- 那晓颖, <试析白先勇《台北人》和朱天文《世纪末的华丽》中的“末世”色彩>, 《名作欣赏》 第15期, 2021.
- 乔尔·科特金 著, 王旭等 译, 《全球城市史》,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6.
- 孙妍涛, <世纪末“女妖”图鉴——《世纪末的华丽》與《愴细怨》中的都市女性想象>, 《华文文学》 第6期, 2020.
- 钟本康, <世界末: 生存的焦虑——的主题意识>, 《当代作家评论》 第12期, 1993.
- 王德威, <从“文化中国”到“跨区域中国”: 华语文学的空间重构>, 《当代作家评论》 第5期, 2015.
- , 《当代小说家二十家》, 北京: 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 2006年.
- , 《被压抑的现代性——中国大陆新文学與历史政治想象》, 香港: 牛津大学出版社, 1997.
- 王丽叶, <论朱天文小说的感官书写——以《世纪末的华丽》和《荒人手记》为例>, 《浙江万里学院学报》 第1期, 2023.
- 汪晖 著, 《死火重溫》,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0.
- 汪政 著, 《論賈平凹》, 見《賈平凹研究資料》,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5.
- 吳叡人 著, 《認同的鬥爭: 戰後臺灣歷史經驗與主體意識的轉折》, 台北: 衛城出版, 2014.
- 新世纪周刊社: 《也是历史——本周刊 20 年的中国记忆》, 北京: 外文出版社, 2009.
- 曾 悅, <《學生托樂思的迷惘》中的“世紀末”情緒及危機意識>, 《浙江外國語學院學報》, 第1期, 2018.
- 张隆溪 著, 《文化身份與全球现代性》(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6.
- 张真, <全球化、都市與文化身份——东亚现代性的空间政治>, 《文化研究》 第4期, 2015.
- 朱天文 著, 《世纪末的华丽小说集(1988-1990)》, 上海: 上海译文出版社, 1995年.
- 周毅恒, <华美下的苍凉——浅析朱天文小说《世纪末的华丽》的人性呼喊>, 《名作欣赏》 第3期, 2017.

트라우마와 파레시아의 사이에서

말년 웨이궈이(韦君宜)를 예로

심지희*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웨이궈이의 기억 실천은 왜 환영받았는가?
3. “행복의 기억”
4. “진실”과 “거짓” 사이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웨이궈이의 말년 기억 실천을 중심으로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 중국 지식인 문화의 특징 중 한 면을 분석한다. 그녀는 직설적이고 고백적인 서술을 통해 트라우마적 기억을 직면하고, 정체성을 재구성하며 집단 역사 서사에 자신을 재통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웨이궈이의 기억 실천이 환영받은 이유와 학계에서 의식적으로 소홀히 여겼던 그녀의 ‘행복한 기억’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그녀가 공동체적 경험을 통해 심리적 치유와 혁명적 신념 회복을 가능하게 했음을 밝힌다. 사실성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서사는 객관적 사건의 재현보다 개인적 상처와 사회적 경험의 복합적 관계를 성실히 재구성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웨이궈이의 기억 실천은 단순한 역사 고백을 넘어,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 사회와 지식인의 집단적 정신 재건 과정에 기여한 문화적 실천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서론

웨이궈이(韦君宜)의 말년 창작은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에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었다. 단편소설 《세례(洗礼)》는 1982년 전국 우수 단편 소설상을 수상하였으며, 회고록 《사통록(思痛录)》은 지셴린(季羨林)의 《소 우리 회상록(牛棚杂忆)》과 함께 베이징 일부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도 하였다¹⁾. 《사통록》의 출판은 독자들의 광범위한 주목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른바 ‘웨이궈이 현상’을 촉발하였다²⁾.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배경에는, 그녀의 회고록이 ‘파레시아(真言)’³⁾로서의 특성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이 있다.

웨이궈이의 기억 실천은 흔히 바진(巴金)의 《수상록(随想录)》과 함께 대표적인 고백 문학으로 평가되는데, 실제로 그녀의 작품은 ‘바진의 《진언집》에 이어 또 한 권의 진언(真言)을 말하는 책⁴⁾’으로 홍보되

* 북경대학교 당대 문학 박사

1) 孟繁华、程光炜：《中国当代文学发展史》，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9，330.

2) 颜敏、王嘉良主编：《中国现当代文学史（修订版）下册》，上海：上海教育出版社，2009，313.

3) 刘心武：《真言直说》，邢小群、孙珉编：《回应韦君宜》，北京：大众文艺出版社，2009，166-167.

기도 하였다. 유명 작가 종푸(宗璞)는 웨이궈원이 “마침내 말해야 할 말을 명확히 말하였다”라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그녀가 죽음 후에도 “안심하고 침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사람들의 슬픔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언급하였다⁵⁾. 혁명 동지 황추원(黃秋耘) 또한 웨이궈원의 《루사의 길(露沙的路)》과 《젊은이들에게 고함(我對年輕人說)》의 특징을 ‘진실’하다고 규정하며, 등장인물의 형상이 “정확히 대응하며,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였다⁶⁾. 연구자 상창바오(商昌寶)는 웨이궈원, 바진, 샤오옌샹(邵燕祥) 등이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과거 사상과 행적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용감히 제시하였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⁷⁾.

딩링(丁玲)을 포함한 많은 다른 작가들도 회고록에서 진실 된 태도를 보였으나, 웨이궈원의 기억 실천이 특별히 ‘진언’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그녀의 직설적인 서술 방식에 기인한다. 그녀는 창작에서 옌안(延安) 시기의 간부 심사 운동부터 ‘문화대혁명’ 시기까지의 복잡한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고통과 모순으로 점철된 역사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는 1990년대 서사 방식의 변화와도 연결이 되는데, 허구이메이(賀桂梅)는 1980년대 ‘반우파’ 관련 역사 텍스트가 점차 허구적 서사에서 1990년대의 사실 기록으로 전환되었음을 지적한다. 허구이메이에 따르면 상업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980년대 서사에서 나타난 일종의 타협과 협력과 달리, 1990년대 서사는 체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맞서는 방식으로 진화하였다. ⁸⁾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활발히 말년의 창작 활동을 이어간 웨이궈원의 기억 구성 방식은 실제로 다른 작가들에 비해 더욱 직설적이며, 내적 갈등과 사상적 변화를 숨김없이 표현한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60년대 혁명 유산에 대한 공공적 반향과 은밀한 계승⁹⁾’이라는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의 문화적 분위기와 특히 잘 부합하며, 그로 인해 그녀의 작품은 ‘양심¹⁰⁾’의 구체적 표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진언(眞言, *parthesia*)’이라는 평가로 웨이궈원이 혁명 역사 전반을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회고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그녀 기억의 복합적인 기억 내용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웨이궈원 현상’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어서 그녀의 ‘진언’이라는 개념의 다층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2. 웨이궈원의 기억 실천은 왜 환영받았는가?

‘사인방(四人幫)’이 몰락하기 이전, 웨이궈원은 이미 그녀의 유명 회고록인 《사통록》의 집필 의도를 품고 있었지만 출판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딸 양투안은 웨이궈원이 1975년에 집필을 시작했으나, 당시 ‘문화대혁명’의 여파가 여전하였기에 “인민출판사의 공선대(工宣隊)는 날마다 그들을 탄압했고, 한 번은 어머니가 거의 예전 병(정신 분열 - 인용자 주)이 재발할 뻔했다”¹¹⁾라고 회고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웨이궈원은 누구보다도 더 신중하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으며, 집필 후 원고를 서랍에 숨기고는 딸에게도조차도 보여주지 않았다. 양투안은 그때 어쩌다 “어머니를 화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너는 언젠가 나를 배신할 것이야!’라고 호통치셨다”¹²⁾라고 회상한다. 이러한 은밀하고 억압된 창작 상태는 ‘사인방’이

4) 孟繁华、程光炜：《中国当代文学发展史》，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9，330.

5) 宗璞：《大哉韦君宜》，《我生命中的那些人物》，上海：东方出版中心，2017，133.

6) 黄秋耘：《两部值得一读的奇书》，博览群书，1995（12）：5.

7) 商昌宝：《忏悔：现代文人的自省与拷问》，现代中国与文学，2013（1）：92-100.

8) 贺桂梅：《世纪末的自我救赎之路——1998年“反右”书籍热的文化分析》，上海文学，2000（4）：71-76.

9) 刘复生：《重返“短八十年代”——〈修改过程〉的精神现象学》，南方文坛，2019（4）：122-126.

10) 何满子：《以良知呼唤同代人的良知——读韦君宜〈思痛录〉》，邢小群、孙珉编：《回应韦军宜》，北京：大众文艺出版社，2009，145-147.

11) 陈远：《韦君宜：〈思痛录〉的人生底色》，《在不美的年代里》，重庆：重庆出版社，2011，245.

붕괴한 후에야 종료되었으며, 웨이궈이는 그제서야 원고를 딸에게 내어주고 편집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작품이 자신의 생전에 출간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였기에, 출판의 책임을 딸에게 맡기기도 했다. 웨이궈이는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하고 신중하게 행동했지만, 결코 타인의 요구에 따라 작품을 수정하고자 하지 않았다. 원래 그녀는 인민출판사에서 《사통록》을 출간할 계획이었으나, 출판사 책임자는 책 제목 변경과 사망자 관련 내용 삭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웨이궈이는 “그렇다면 차라리 출간하지 말고, 우선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논하겠다”¹³⁾라고 밝혔고, 결국 수정하지 않은 《사통록》 전편이 1998년 5월 베이징 시월 문예 출판사에서 출간될 수 있었다.

그녀가 이토록 작품의 사실성과 진실성을 고집한 이유는, ‘문화대혁명’ 시기 겪은 ‘정신 분열’ 경험 때문이다. 웨이궈이는 ‘문화대혁명’ 기간의 극심한 정치적 타격으로 정신적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자아와 현실 인식에 심각한 왜곡이 나타났다. 원로 혁명가로서 그녀의 주체적 정체성은 본래 혁명 이상과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상징 질서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오직 마오쩌둥이라는 상징적 인물에 의존하여 마지막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은 그녀와 이 질서와의 연결마저 단절시켰다. 이러한 주체의 붕괴는 그녀의 정신 상태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고,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얀 아스만(Y. Assmann)에 따르면, ‘트라우마적 기억’은 “개인이 신체에 저장한 기억이 의식과 완전히 단절된 기억¹⁴⁾”을 의미한다. 말년 웨이궈이의 ‘문학’ 경험은 이런 ‘트라우마적 기억’에 속하며, 기존 서사 방식으로 쉽게 처리될 수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녀의 기억 서사는 단순한 회상이나 객관적 역사 성찰이 아니라, 트라우마의 순환을 종료하고 내적 심리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실천이었다. 즉, 그녀가 말년 창작에서 사실성을 고집한 것은, 자기 내면의 트라우마를 온전히 직면하고 재현함으로써, 주체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며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려는 절박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녀의 ‘정신 분열’ 경험은 개인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정신 위기의 개인적 반영이기도 하다. 장 스타로빈스키(Jean Starobinski)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질병은 문화적 사실이며, 문화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¹⁵⁾” 이는 질병이 특정 역사적 조건에서 집단적 사회 심리의 증상을 반영함을 의미한다. 혁명적 이상주의와 집단주의의 정치적 열정이 사그라든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에 사람들은 허무주의적 정신 곤경에 빠졌고, 이 시기 사회에 드러난 내적 갈등은 이상과 현실의 극심한 괴리에서 비롯되었으며, 사람들은 가치 체계 붕괴 후 발생한 심리적 공백과 정체성 위기를 직면해야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신 분열’을 겪었던 웨이궈이가 트라우마적 기억을 직면하는 서사를 통해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 중국 지식인과 사회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정신적 충격을 드러내었고 이에 큰 환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녀의 글쓰기와 고백적 성찰이 시대가 요구하는 집단적 정신의 재현과 재건의 필요에 부응했으며, 사회적 ‘정신 분열’ 증상의 대표적 표상으로 광범위한 공감과 인정을 얻을 수 있었다.

웨이궈이의 역사 서술은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 문예계 문맥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루샤의 길》과 《사통록》은 1985년 이후 문예계에서 1950~70년대 문학을 반성하는 흐름과 부합하였다. 비록 두 작품이 1990년대에 발표되었지만, 기억 구성에서 나타난 역사적 태도는 1980년대 중반 부상한 ‘신계몽주의’ 문화 문맥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딸 양투안은 “어머니는 남개(南开) 중학교 시절 ‘민주’, ‘인도주의’, ‘자유’ 사상에 영향받았다. 이 정신적 바탕이 《사통록》에서 드러난다”¹⁶⁾라고 밝혔다. ‘신계몽’ 담론 속에서 문학 창작은 점차 문예 제도와 미학 규범 등 전통적 내용을 깊이 비판하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웨이궈이의 작품은 이러한 ‘신’과 ‘구’의 단절을 촉진하는 강력한 텍스트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12) 陈远：《韦君宜：〈思痛录〉的人生底色》，《在不美的年代里》，重庆：重庆出版社，2011，248。

13) 黄伟经：《文学路上六十年——老作家黄秋耘访谈录(下)》，新文学史料，1998（2）：65-100。

14) [德]阿莱达·阿斯曼(Assmann, A.)：《回忆空间：文化记忆的形式和变迁》，潘璐译，北京：北京大学出版社，2016，13。

15) [瑞]让·斯塔罗宾斯基(Jean Starobinski)：《忧郁症治疗的历史》，Kim, Younguk译，韩国首尔：ITTA，2023，13。

16) 陈远：《韦君宜：〈思痛录〉的人生底色》，《在不美的年代里》，重庆：重庆出版社，2011，240-241。

그 외에도 《루사의 길》과 《사통록》이 1990년대의 역사적 문맥에서 출간된 시점은 ‘마오쩌둥 열풍’이 부상하던 시기와 맞물리며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이진화(戴錦華)의 분석에 따르면, 초기 ‘마오쩌둥 열풍’은 새로운 사회적 문맥 속에서 고전 신화의 재서술이라는 정치적·현실적 의미를 내포하며, 상상의 구원과 회귀의 길을 지향한다. 이는 점차 다원화되고 중심이 분산되는 시대에서 권위와 신앙에 대한 감정적 회상을 드러내며, 실용주의·상업화·소비주의가 지배하기 전 이상주의 시대를 향한 회한과 조롱을 혼합한 회고를 나타낸다.¹⁷⁾ 그러나 웨이쥔이에게 있어 ‘마오쩌둥 열풍’은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 망각에 대한 깊은 공포와 직결되었다. 1989년 초에 작성된 미발행 원고 《개혁이 실패한다면...(假如改革失败了...)》에서, 웨이쥔이는 완전한 서구화를 추진하는 ‘추신파(趙新派)’의 견해를 비판하면서도, 현재 개혁 방식에 문제가 있더라도 개혁이 중단될 경우 사회가 과거의 경직 상태로 후퇴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십 년 전, 우리는 ‘8억 인민이 8편의 극’을 본다는 것이 극도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으며 누구든 들으면 짜증을 냈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치며 그 8편의 극을 환영한다. 극은 작은 문제지만, 이를 통해 큰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은 흐르고, 인간의 망각은 크며, 사람들의 수준은 다양하다. 무감각함은 사실상 적을 돕는 것이다.”¹⁸⁾

제프리 큐비트(Geoffrey Cubitt)에 따르면, 개인 기억은 겉보기에 개인적이지만 실제로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회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 웨이쥔이는 개인적 트라우마 기억을 집단 기억으로 전환함으로써 단순한 개인 치유를 넘어 정치적 역사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재정의하였는데 이는 연안부터 문화대혁명 시기 정치 운동 속 기억을 정리하고, 시간이 흘러 망각되려는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체제 문제를 직시하고 재해석함으로써, 그녀는 ‘마오쩌둥 시대’의 역사적 상징을 재검토하고, 향수적 문화 표상 속에서 반성적 경로를 개척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녀와 ‘구시대’의 결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웨이쥔이의 ‘진언’은 단일한 반성·비판 실천으로 축소되어,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에도 여전히 자신을 공산당원으로 정체화하며 유지한 복합적 감정 구조와 역사적 논리를 간과하게 된다.

3. “행복의 기억”

말년의 웨이쥔이는 혁명적 고전 서사의 재서술과 재구성을 통해 ‘마오쩌둥 열풍’에 대응함과 동시에, 트라우마를 인정하되 혁명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녀는 《사통록》 집필의 계기를 밝히며, “우선 명확히 할 것은, 나는 충실한 원로 공산당원이라는 점이다”¹⁹⁾라고 서술하였다. 비록 웨이쥔이는 혁명 원로로서 ‘옌안’시기부터 여러 번의 정치 운동과 개인적 위기를 경험했지만, ‘진실’을 발화하기 이전부터 자신을 혁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명확히 위치시켰다. 이러한 정체성 인식은 단순히 정치적 입장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그녀 평생의 가치 추구와 신념 체계의 핵심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파레시아’ 실천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사통록》 또한 모두 고통스러운 기억만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그녀는 반우파 투쟁 이후 ‘하방(下放)’과 ‘대약진(大跃进)’ 시기를 회고하면서, 과거의 혁명적 삶을 단일한 수난 서사로 환원하지 않고 아름다운 장면 역시 회고하고 기록하였다. ‘하방’ 이후 노동 경험에 대한 회상을 통해 드러나는 내적 만족감과 강한 집단 의식은 공동 노동 경험과 상호 지지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런 혁명 윤리에 뿌리내린 핵심 가치 체계가 그녀로 하여금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 戴錦華：《隱形書寫：90年代中國文化研究》，北京：北京大學出版社，2018，90-92.

18) 韋君宜：《假如改革失敗了……》，《韋君宜文集第五卷》，北京：人民文學出版社，2013，409.

19) 韋君宜：《思痛錄》，《韋君宜文集第二卷》，北京：人民文學出版社，2013，165.

“우리는 농사짓는 법을 몰랐다. 마을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였다. 모내기는 뺨뺨뺨했다. 대장 가오지앙원은 빨리 배웠는데, 그는 역시농민 출신이었다. 나는 그만큼 잘하지 못했지만 다른 농촌 여성보다는 나았다. 그녀들은 양말을 벗고 물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재잘거리며 물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모를 이리저리 삽질했다. 하지만 결국엔 넓은 논밭을 잘 심었다. 푸르른 들판을 바라보며 모두 마음이 즐거웠다. ... 우리는 참 순진했다. 그렇게 많은 운동을 겪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그때 나는 마치 장난꾸러기 아이가 엄마에게 혼이 나면서도 잠시 화를 내고는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는 것과 같았다.²⁰⁾”

마을 주민과 모내기 참여자들이 숙련된 농부는 아니었고, 모는 뺨뺨뺨 심어졌지만 그들의 노동은 그로 인해 비난받지 않았다. 오히려 열린 분위기 속에서, 참여자들은 서로 배우고 시도하며 넓은 논밭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정치 운동의 중심이었던 북경에서와 달리 그녀에게 불안을 초래하지 않았고 성장과 조정의 기회로 인식되었다. 이 시기 ‘인민’ 공동체의 관용적 태도는 노동 성과뿐 아니라 집단적 정체감과 성취감을 강화하였으며, 공동 노력의 가치와 노동 자체의 즐거움을 보여주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지지와 노동의 의미가, 그녀의 신념이 외부 충격에도 긍정적 기억 서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녀는 또 다른 수필 《시위린 회상(忆西榆林)》에서도 다음과 같이 결말을 맺는다.

“시위린의 꽃, 시위린의 과수, 시위린의 논밭과 신선한 물고기, 게다가 유명한 돼지농장까지. 어느 하나 강남에 뒤지겠는가? 물론 그 중 최고는 역시 여기 사람들이다. 이 풍광은 모두 그들이 직접 만들어낸 것이다. 그들은 삽과 호미, 어선으로 ... 붓을 삼아, 황사 가득한 만리장성 밖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 지금 공사는 시위린에 양수장을 지으려 한다. 다른 대대는 공사 지원을 받을 테니, 금세 완공될 것이다. 지금 큰 냇물 위쪽은 이미 진정한 호수와 습지가 되었을 것이고, 그 논밭은 얼마나 넓은지, 아마 한눈에 다 보이지 않을 것이다. 축복하라, 시위린! 축복하라, 화원 공사!²¹⁾”

이러한 희망과 찬사의 문구는 웨이권이 집단 노동의 긍정적 가치를 통해 자신 존재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녀는 ‘하방’ 경험을 긍정적 기억 패턴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신적 차원에서 다시 단합되고 적극적인 상태를 회복하였으며, 이는 자아 정체성 재구성의 중요한 경로가 되었다. 《시위린 회상》은 웨이권의 주체성이 집단적 노력과 합의 속에서 유지됨을 보여주며, 그녀가 이러한 공동 성취를 기록하고 찬양함으로써 내적 균형과 위안을 찾았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주체 재구성 과정에서, 그녀의 기억 실천은 점차 ‘행복한 기억’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 ‘행복한 기억’은 단순히 과거 사건을 객관적으로 회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주체의 희망과 기대 속에서 형성된 특별한 기억 형태로, ‘언어 행위’를 통해 내면 깊은 곳의 욕망과 요구를 재현한다. 이러한 기억 작용은 현재-부재의 인지적 곤란을 넘어, 베르그송이 강조한 이미지 기억을 통해 되살아나며, 주체의 재인지 현상 속에서 나타난다. 이 재인지 현상은 폴 리콥르가 말한 기억의 ‘작은 기적’과 유사하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개인과 공동체 간의 연계 인식을 환기시킨다.²²⁾ 웨이권의 기억 실천은 바로 이러한 ‘행복한 기억’을 통해 자신의 혁명 공동체 재포섭에 대한 강한 희망을 표출한다. 즉, 말년 웨이권이는 정신적 위기를 겪은 뒤에 공공 장소에서 여전히 혼잣말을 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고 지내면서도, 기억 실천을 통해 고립과 주변화 상태에서 벗어나 집단 역사 서사에 다시 통합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따라서 웨이권이 말년의 기억 서사는 단순히 혁명 역사 비판으로 환원될 수 없다.

20) 韦君宜：《思痛录》，《韦君宜文集第二卷》，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3，210.

21) 韦君宜：《忆西榆林》，《韦君宜文集第四卷》，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3，74.

22) [韩]Jang, Kyung：《The Forgiveness manifested in "Memory, History, Forgetting" of Paul Ricoeur》，Theology and Philosophy, 2014 (25)：173-204.

4. “진실”과 “거짓” 사이

그러나 말년 웨이쥔이의 ‘엔안’ 시기와 관련된 ‘파레시아’는 원로 세대 혁명 동지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사통록》 출간 이후, 인민 문학 출판사 동료들은 엔원징(嚴文井)에게 회고록 집필을 권했으나, 그는 이를 거절하며 “그때 나는 엔안(延安)에 있었고, 웨이쥔이는 쑤이더(綏德)에 있었다. 엔안에서 일어난 일은 그녀가 많이 알지 못한다”²³⁾고 설명하였다. 펑란루이(馮蘭瑞) 또한 웨이쥔이가 작품의 사실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녀는 《웨이쥔이의 거짓》에서, 웨이쥔이가 양수(楊述)와 결혼하기 전 그녀의 남편과 혼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청년 위원회에서 그녀를 쑤이더로 보냈다고 언급했다. 또 웨이쥔이는 엔안 정풍 운동이 끝나기 전에 엔안에 있지 않았으므로 엔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직접적 이해가 부족하며, 내용은 보다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만 출간과 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²⁴⁾

웨이쥔이가 말년 회고록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바로 ‘파레시아’ 자체가 다층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서사는 구체적 사실 측면에서 원로 동지들의 의문에 직면했으나, 회고록의 가치는 객관적 사실의 정확성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관적 시각으로 자신의 삶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개인적 상처와 역사적 현실 사이의 복합적 관계에 성실히 응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사통록》의 서문 끝에서 웨이쥔이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나는 단지 사실을 말할 뿐이고, 사건을 하나하나 나열할 뿐이다.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 당이 역사의 교훈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고, 과거의 우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국가가 항상 올바른 궤도 위에서 번영하도록 하는 것이다.”²⁵⁾

기억은 결코 순수한 객관적 역사 재현이 아니며, 개인이 자신의 입장에서 과거 경험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웨이쥔이의 기억 실천의 가치는 사실 정확성의 절대적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기억 행위 자체가 갖는 재구성적 의미에 있다. 나탄 와첼은 기억의 진실성 문제를 논하면서 “만약 진실성의 표지가 특정 장소와 사건의 일치로 의미한다면, 회고의 장소는 ‘이곳’만 있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반쪽짜리 진실성에 해당한다. 이는 두 분리된 반쪽을 다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과 지금을 고집스럽게 분리시키는 것이다. 회고 장소의 신비적 차원은 바로 이 낮춤, 무조건적 단절 속에 있으며, 사람은 그 장소에 있을 때 그 단절을 넘기 매우 어렵다. 독서나 영화 감상 시 상상보다 훨씬 어렵다”²⁶⁾라고 지적하였다.

와첼의 이러한 관점은 웨이쥔이의 ‘거짓’ 논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진실성 기준을 특정 장소와 사건의 완전한 일치로 한정하면, 회고록 속 공간은 결국 ‘이곳’만 남게 되고 ‘지금’은 소멸한다. 이는 분리된 두 요소를 결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소와 시간의 단절을 드러내며, 회고 장소의 낮춤을 생성한다. 웨이쥔이가 텍스트에서도 이러한 단절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녀가 서술하는 경험은 쑤이더에서의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당시 구체적 물리 공간을 초월해 새로운 기억의 장을 구축하였다. 이 기억의 장은 개인 기억과 서사 구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과거 사건의 생생한 재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기억의 특성과 기억 쓰기의 현재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제공한다.

23) 王培元：《永远的朝内166号：与前辈灵魂相遇（增订本）》，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4，196.

24) 冯兰瑞：《“真言”中的谎言》，开放，2006（11），来源：<https://www.aisixiang.com/data/22965.html>，访问日期：2025.01.19.

25) 韦君宜：《缘起》，《韦君宜文集第二卷》，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3，167.

26) [德]阿莱达·阿斯曼(Assmann, A.)：《回忆空间：文化记忆的形式和变迁》，潘璐译，北京：北京大学出版社，2016，391.

웨이쥔이는 당시 실제로 쑤이더에 있었고, 회고록은 쑤이더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나, 그 안에 담긴 비판과 성찰, 각종 모순과 혼란은 사실 엔안의 정풍 운동과 이후 정치 정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들을 반영한다. 그녀는 회고록에서 ‘강요된 자백서’나 ‘가짜 자백’과 같은 현상이 쑤이더에서도 있었음을 드러내며, 엔안의 정치 실천에서 발생한 오류 경향을 보여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쑤이더의 운동 발전 양상은 지역적 특수 사례가 아닌 중앙과 마오쩌둥의 직접적 지도 아래 이루어진 또 다른 엔안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와첼의 말처럼, 회고 장소는 시간 결여의 반진실이 아니라, 단절 속에서 역사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지점이다. 웨이쥔이의 회고록은 바로 이러한 회고 장소가 낯설 속에서 가능성을 드러내는 문학적 실천이다. 그녀는 주관적 글쓰기를 통해 개인적 상처 경험과 사회 역사적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 사회가 요구하는 역사 재검토와 자아 정체성 회복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였다. 따라서 설사 그녀의 서사가 일부 원로 엔안 인사들에게 ‘거짓’으로 비판받는다 하더라도, 역사 기억 그 자체에 내재한 주관적 성실성과 심리적 진실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韦君宜：《韦君宜文集》，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3.
- 孟繁华、程光炜：《中国当代文学发展史》，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9.
- 颜敏、王嘉良主编：《中国现当代文学史（修订版）下册》，上海：上海教育出版社，2009.
- 邢小群、孙珉编：《回应韦军宜》，北京：大众文艺出版社，2009.
- 宗璞：《我生命中的那些人物》，上海：东方出版中心，2017.
- 陈远：《在不美的年代里》，重庆：重庆出版社，2011.
- [德]阿莱达·阿斯曼（Assmann, A.）：《回忆空间：文化记忆的形式和变迁》，潘璐译，北京：北京大学出版社，2016.
- 장 스타로뱅스키 지음：《멜랑콜리 치료의 역사》，김영옥 옮김，서울：일다，2023.
- 戴锦华：《隐形书写：90年代中国文化研究》，北京：北京大学出版社，2018.
- 王培元：《永远的朝内166号：与前辈灵魂相遇（增订本）》，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4.
- 黄秋耘：《两部值得一读的奇书》，博览群书，1995（12）：5.
- 商昌宝：《忏悔：现代文人的自省与拷问》，现代中国文化与文学，2013（1）：92-100.
- 贺桂梅：《世纪末的自我救赎之路——1998年“反右”书籍热的文化分析》，上海文学，2000（4）：71-76.
- 刘复生：《重返“短八十年代”——〈修改过程〉的精神现象学》，南方文坛，2019（4）：122-126.
- 黄伟经：《文学路上六十年——老作家黄秋耘访谈录（下）》，新文学史料，1998（2）：65-100.
- 장경：《폴 리콴르의 작품 『기억, 역사, 망각』을 통해서 본 ‘용서’》，신학과 철학，2014（25）：173-204.
- 冯兰瑞：《“真言”中的谎言》，开放，2006（11），来源：<https://www.aisixiang.com/data/22965.html>，访问日期：2025.01.19.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1부

4. 중국문학(1) 위당관 204호

동아시아 문학의 상호 작용: 공생과 확장

지식인 ‘학술-문화사단’으로서의 신월사(新月社) 성격 재인식의 필요성

김선영*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베이징대학 영문계와 『현대평론』
 3. 신월서점 운영과 『신월』 발간
 4. 쉬즈모 이후 : 『문학잡지』와 린후이인의 살롱
 5.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이제까지 주로 신시 창작과 관련된 (신)문학사단으로 국한되어 평가되던 신월사는 사실 그 규모와 구성원을 고려하면 지식인 ‘학술-문화사단’으로서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기존 문학 사단으로 평가할 당시의 신시 분야에 국한되어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단은 단순히 신시 창작에만 공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단 구성원의 대학교원이란 신분을 이용하여 신시의 학술적 체계화에도 공헌이 있다. 그리하여 본고는 이를 근거로 사단으로서의 신월사의 성격을 인식하는 데 있어 단순히 문단 내의 활동에만 근거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신월사 성원들이 자리 잡고 있던 배경으로서의 대학공간과 이와 연관된 간행물에서의 활동까지 함께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쉬즈모와 쉬즈모가 주축이 되어 발간하던 잡지를 중심으로 해석, 서술되던 신월사를 후스(胡適) 및 다른 동인, 그리고 관련된 다른 간행물을 중심으로 다르게 재해석함으로써 신월사 활동기간을 더 확장하고 그 성격과 활동을 더 다양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1. 서론

과거에 신월사는 주로 신시 창작과 관련된 ‘문학 사단’으로서의 의미에만 국한되어 평가되어왔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까지도 거의 그대로 이어져 온다고 볼 수 있는데¹⁾, 그 대표적인 예로 현재 중국 대학교

* 中國鑛業大學 人文與藝術學院 漢語言文學專業 助理教授

1) 신월사의 규모와 성격에 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서술은 사실상 신중국 성립 전후의 마오쩌둥의 신월사 주축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마오쩌둥의 연안문예강화 「延安文藝講話」에서의 량스추 등의 인물에 대한 평가가 후에 차이이蔡儀 『중국신문학사강화 (中國新文學史講話)』 (신문예출판사 新文藝出版社, 1952년 11월 출판) 덩이丁易의 「중국현대문학사략中國現代文學史略」 (작가출판사 作家出版社1955년 7월 출판) 같은 문학사 저작의 신월사에 관한 언급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袁洪權, 「作為新文學史問題的新月派 (1950-1957)」, 『中國當代文學研究』 2023年 第4期 참고.

내 중문 전공의 현대문학사 과정 수업에서 보편적으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중국현대문학 삼십년 (中國現代文學三十年) (수정본)』만 살펴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저작에서 신월사에서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제6장과 제16장으로, 그 중심인물로 쉬즈모와 원이뤄를 꼽고 주로 신문학 신시사단으로서 관련 간행물 발간을 중심으로 신시창작 중심의 문학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²⁾

그러나 실제 신월사는 그 성격이 매우 복잡다단하며, 그 규모와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다소 어려운 단체이다. 우선 활동 지역만 보더라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두 대도시가 모두 연관이 되어 있다. 신월사의 탄생은 베이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1927년 대혁명 실패 후 주요 구성원들이 상하이로 주거지로 옮기면서 간행물 발행지도 옮겨졌으며 동시에 신월서점(新月書店)을 여는 등의 의미 있는 활동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조건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신월사 성원으로 여겨지는 여러 인물은 대부분 ‘직업(전업)작가’라기 보다는 대학에서 교원으로 일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간행물에 새 글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작가 생활을 이어갔기에 그들이 당시 속했던 ‘대학’이라는 (체제적) 학술 공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³⁾ 이는 단순히 대학 내에서 그들 사이에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직접 개설한 수업과 관련하여 출판한 저작(교재) 과 같은 결과물 또한 지식인 문화사단으로서의 신월사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제까지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 특히 쉬즈모의 사망 전까지의 활동 시기로 국한하여 판단하던 신월사의 (신시 관련) 문학사단적 성격에 의문을 제기하려 한다. 곧 기존에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신월사의 활동 시기보다 좀 더 오랜 시기를 활동한, 더 큰 규모의 구성원을 갖추고, 대학을 포함한 학계, 그리고 문학 살롱을 포함한 제3문화장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지식인 ‘학술-문화사단’으로서의 신월사의 성격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고찰한다.

2. 베이징 대학(北京大學) 영문계(英文系)와 『현대평론(現代評論)』

신중국 성립 이후에 한동안 멈춰있던 신월사에 대한 서술은 관련 자료가 새롭게 발견될 때마다 보충 서술되는 형식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그 단편적인 예가 천즈산(陳子善)의 연구다. 천즈산은 『장평춘 청화일기(張彭春淸華日記) (1923—1924)』와 『장평춘 청화일기(張彭春淸華日記) (1925)』가 출판되고, 하버드 엔칭에 이 일기의 수고본이 존재하는 바, 이를 참고하여 「장평춘, 신월사의 탄생과 기타 (張彭春、新月社的誕生及其他)」(2023)에서 신월사의 초기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연구가 신월사가 처음에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로 삼는 것은 쉬즈모가 1926년 6월 17일 『신보부간(晨報副刊)·극간(劇刊)』에 발표한 창간사의 한 단락인데 천즈산 또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그는 대표인물로 이 글을 쓴 쉬즈모 외에 장평춘을 꼽았다. 쉬즈모는 본래 보편적으로 신월사의 대표 인물로 다루어지고 있었던 바 새로운 견해라고 할 수 없지만, 장평춘은 다르다. 천즈산은 이전까지 가볍게 다루어지던 장평춘을 전면으로 내세워, 그의 일기에 근거하여 신월사가 처음 구성되던 때의 전후 사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재구성했다. 그리하여 신월사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필자가 보기엔, (신월사는) 1923년 11월 7일 베이징 라이진위취엔(來今雨軒)에서 탄생한 후, 1933년 6월 『신월』 제4권 제7기가 상하이에서 출판, 정간될 때까지 십여 년의 여정을 거쳤다. 이 십여 년은 대략,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는 신월사 탄생과 『치트라』

2) 錢理群 · 溫儒敏 · 吳福輝 『中國現代文學三十年』,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p.357.

3) 사실 이는 신월사 성원들만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오사운동전후에 발생한 신문학사단 구성원의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연을 기준으로, 중기는 『신보부간(晨報副刊)』과 『시간(詩刊)』 그리고 『극간(劇刊)』의 발간을 기준으로, 후기는 신월서점의 설립과 『신월』과 『시간』이 두 잡지의 발간을 기준으로 한다.⁴⁾

본고는 기본적으로 천즈산의 이러한 신월사를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론에 동의한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특별히 의미부여하지 않았던 인물을 꺼내어 다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구성해보면서 새롭게 서술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론으로 신월사의 초기 형성 과정에 관하여 재구성하는 연구가 근래 여럿 나왔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가 대부분 신월사 초기에만 집중되었기에 신월사 중기, 후기에 대한 재서술, 혹은 신월사의 성격 재인식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려 한다. 서술의 맥락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주축 인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신월사의 초기의 주축 인물로 쉬즈모와 장평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쉬즈모가 죽고 난 뒤 중기, 후기 신월사까지 아우를 수 있는, 혹은 신월사의 구체적인 활동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다른 주축 인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다면 누구라고 특정할 수 있는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신월사 결성 당시의 상황- 신월사의 타고르 방문 공연으로 돌아가 볼 필요성이 있다.

1924년 5월8일 저녁, 협화의학원(協和醫學院) 강당(大禮)에서 진행된 신월사의 인도 시인 타고르 방문⁵⁾을 기념하기 위한 공연 『치트라 齊德拉』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신보(晨報)』의 1924년 5월10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날 밤, 린후이인(林徽音) 여사가 ‘계괴랍(契塊臘)’을 맡았고, 장신하이(張歆海) 군이 ‘아구나(阿糾那)’를 맡아 극 중 주인공이 되었으며, 쉬즈모 군은 애신(愛神)을, 린종명(林宗孟) 군은 춘신(春神)을 연기하였다. 왕명위(王孟瑜) 여사, 위안창잉(袁昌英) 여사, 장바이리(蔣百裏) 군, 덩세린(丁燮林) 군은 마을 사람을 연기하였다. 장평춘(張彭春) 군이 연출을 맡고, 량쓰청(梁思成) 군이 무대 장치를 담당하였다.⁶⁾

이 단락에서 언급한 공연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한 1924년의 각각의 개인적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7) 주목할 만한 점은 우선 쉬즈모, 린후이인, 량쓰청, 린종명은 쉬즈모와 량치차오 간의 사제관계로 인해 맺어진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과, 장신하이와 덩세린 같은 경우는 영국유학과 귀국 후 베이징대학(北京大學) 교수라는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중 이 본고가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초기 신월사 형성의 유력한 학술적 배경이자 공간으로서의 베이징 대학 영문계(英文系)이다.

베이징 대학 영문계의 전신은 동문관(同文館)으로, 동문관이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에 편입되고, 후에 베이징대학 영문계로 개편된 것이다.⁸⁾ 한 과로서 체계가 잡히기 시작한 것은 후스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1917년 귀국하여 베이징대학에 자리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이 당시 베이징대학의 국문계, 철학계와 관련하여 후스를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베이징 대학 내에서 후스가 가장 영향력을 발휘했던 곳은 영문계였다는 점이다. 타고르의 공연 참여자이자 신월사의 초기 구성원, 후스, 쉬즈모와 장신하이 등이 모두 1924년 전후의 베이징 대학 영문계의 교수로 임용되어 있었으며, 특히나 후스 같은 경우는 1924년 4월 선거를 통해 영문계 주임으로 발탁될 만큼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4) 陳子善, 「張彭春、新月社的誕生及其他」,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23(04), p.131.

5) 타고르의 중국방문은 강학사講學社의 초대로 이루어졌고, 강학사는 량치차오가 조직한 단체로, 쉬즈모는 량치차오와 사제지간이었기 때문에 타고르 방문시 통역을 맡았다. 費冬梅, 「泰戈爾訪華與新月社的戲劇實踐」, 『現代中文學刊』, 2021(02), p.54

6) 「竺震旦誕生與愛情名劇契塊臘」, 『晨報』, 1924年5月10日.

7) 표 1. 타고르 중국방문 기념 공연 관련 인물 (지면상 생략)

8) 王傑, 祝士明, 『學府典章』, 天津: 天津大學出版社, 2010. pp155-165

베이징 대학 영문계 내 신월사와 관련하여 이들 외 또 한 명 주목할 만한 인물은 천위안(陳源)이다. 1924년 계주임 선거 당시 후스가 3표(당시 후스 당선), 천위안이 1표를 받을 만큼 천위안이 후스 다음으로 영문계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9) 천위안은 연극에 직접적으로 출현하지는 않았지만 후스와 함께 쉬즈모가 초기 신월사 구성 당시 참여했으며, 실제로 이후 신월사 내부에서 꾸준히 활동한 인물이다. 천위안과 신월사를 다루는 데 있어, 『현대평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평론』은 1924년 12월 13일 베이징에서 정식 창간되었고, 주편은 왕스제였지만, 실제 관련 업무는 쉬즈모와 천위안이 도맡아 처리하였다. 10)

『현대평론』의 성격에 대해서는 『현대평론』 창간호 「공고 (啟事)」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현대평론』은 종합적인 주간지로서, 그 내용은 정치·경제·문예·문학·법률·철학·과학·교육 등 여러 방면을 포함한다. 『현대평론』은 정신에 있어 독립을 제창하며, 남의 언행을 맹종하는 것을 반대한다. 태도에 있어 연구를 제창하며, 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을 반대한다. 언론에 있어 실천을 제창하며, 비현실적인 공론을 반대한다. 11)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현대평론이 평론에만 편중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주제를 아우르는 종합 주간지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문예도 포함되어 있으며, 문예 방면으로는 2권까지는 천위안이, 그 후로는 양전성(楊振聲)이 편집을 현대평론 1기의 啟事맡았다. 12) 쉬즈모 또한 『현대평론』에 문예작품을 꾸준히 발표하였다. 13) 곧 신월사를 대표하는 간행물—『신월』등이 창간되기 전 대부분의 베이징대 교수였던 신월사 성원들, 쉬즈모, 후스, 천위안, 그리고 양전성 등은 『현대평론』을 통해 작품(혹은 평론)을 발표했으며, 실제 이 성원들이 이후 신월사에 있어 꾸준히 활동하는 주축인물이 되었다.

3. 신월서점(新月書店) 운영과 『신월 新月』 발간

1927년, 대혁명이 실패하면서 베이징의 많은 (문학)사단을 포함한 지식인과 지식인 단체가 상하이로 근거지를 옮겼다. 『현대평론』도 사정이 마찬가지였다. 『현대평론』 또한 1927년 7월 23일에 출판한 제6권 제137기부터 상하이에서 발행하게 된다. 이때 베이징에 거주하던 많은 지식인도 함께 옮겼는데 신월사와 현대평론과도 예외가 아니었다. 후스만 하더라도 1926년 유럽 여행을 시작으로 1927년 미국에서 일본까지 내내 해외에 있다가, 1928년 4월30일에 상하이 중국공학 교장으로 부임, 문리학원 원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쉬즈모 같은 경우도 루샤오만(陸小曼)과 결혼한 후 상하이로 주거지를 옮겼다. 신월사에 있어서 1927년 이후 상하이에서의 활동은 꽤나 의미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신월서점을 창립하고 신월을 발간하기 시작한 것이다.

1927년 6월 27일 『신보(申報)』에는 아래와 같은 신월서점¹⁴⁾에 관한 기사가 실렸고, 실제 1927년 7월 1일에 문을 열었다.

우리의 많은 친구 중 책을 썼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출판하지 못한 이도 있고, 이미 오랫동안 붓을 놓아둔 이도 있습니다. 출판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월서점(新月書店)을 조직, 발기

9) 「校長布告」, 『北京大學日刊』, 1924.2.23

10) 표 2 『현대평론』 관련 인물 (지면상 생략)

11) 「啟事」, 『現代評論』創刊號, 1924.12.13

12) 孔祥宇, 『現代評論派與1920年代的中國自由主義』,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2, p.43.

13) 1924년 1편, 1925년 9편, 1926년 1편, 1927년 2편, 대부분 시였지만 1925년에는 소설 『船上』, 평론 『一個譯詩的問題』 같은 시 외에 다른 장르의 글도 발표하였다.

14) 표3. 신월서점 관련 인물 정리 (지면상 생략)

로 하였습니다. 책을 직접 인쇄하여 출판하기도 하고 위탁 판매도 하려고 합니다. 출판하는 책들은 모두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위탁 판매하는 책 또한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이로써 교육과 문화에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일 것입니다.¹⁵⁾

곧 신월사는 서점이라는 명칭을 가지기는 했지만 출판사와 서점 중간 사이의 성격을 지니며, 관련 창립인은 “후스(胡適) 송춘방(宋春舫), 장신하이(張歆海), 장위주(張禹九) 쉬즈모(徐志摩), 쉬신류(徐新六), 우더성(吳德生), 위상위안(餘上沅)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신월서점은 후스가 이사장을 맡았고, 장위주(張禹九)가 경리로 임명되었다. ¹⁶⁾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는 대부분 위상위안이 맡아 처리했다. ¹⁷⁾

이들 중 후스, 쉬즈모, 장신하이는 베이징대학 영문계 교수로, 위상위안은 베이징대학 영문계 졸업으로 모두 베이징대학 영문계라는 배경을 가졌고, 그중 후스, 쉬즈모, 우더성은 『현대평론』과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앞서 지적한 대로 신월서점은 현재의 출판사와 책을 판매하는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나 이익을 많이 내는 방향보다는 뜻이 맞는 이들의 저작 출판과 보급에 그 의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¹⁸⁾이 서점에서 출판한 것 중에 신월사와 직접적인 연관을 지닌 것은 아무래도 잡지 『신월』의 출판이다.

잡지 『신월』은 1928년 3월 10일 창간되어, 권당 12호씩 4권을 냈고, 1933년 6월에 종간했다. 실제 발행 호수는 모두 43호였다. 중요한 점은 『신월』 또한 신시 전문 잡지라기보다는 『현대평론』과 같이 종합 간행물로서 문예, 사상, 정치 등의 글을 다양하게 실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개인 한 명이 주편을 맡는 방식이 아닌 몇 명이 함께 편집에 참여하는 ‘집단 편집’이라는 독특한 형태였다.

잡지의 기획은 처음에 후 선생과 즈모, 상위안(上沅)이 책임지고 추진했다. 대략 틀이 잡히자, 상위안이 ‘스코트로(斯考特路)’에 사는 판광단(潘光旦)의 집으로 가서, “잡지는 후 선생이 사장을 맡고 즈모가 주편을 맡는다”는 발표를 했다. 그때 광단의 집에 모여 있던 원이뉘(聞一多), 라오즈리(饒子離) 등은 이의(異議)를 제기했는데, 겉으로는 사장과 주편이 동인들의 추대를 거치지 않아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월』의 여러 사람 모두가 강한 개인주의자였고, 누구도 남을 쫓아 뒤따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즈모는 얼마나 원만한 사람인가. 곧바로 ‘집단 편집’으로 바꾸자고 주장했고, ‘후형(胡大哥)’은 아예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다. 내가 이 작은 파동을 들추는 것은, 『신월』 사람들에게는 아무 조직도 없었고, 무슨 ‘파벌’이라 할 수 없음을 밝히기 위함이다.¹⁹⁾

량스추는 신월사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사단으로서의 어떤 지향, 예 정치적 목적 등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서술했다지만, 이 단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신월』 편집, 발간에 있어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주요 인물들이다. 바로 쉬즈모, 위상위안, 원이뉘, 라오즈리, 량스추, 후스 등이다. 그중 라오즈리 같은 경우 사실 당시 잡지 『신월』 보다는 후에 『문학잡지(文學雜誌)』 편집인의 신분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곤 한다.

15) 『申報』 1927. 6. 27.

16) . 梁實秋. 陳子善, 編. 『梁實秋文學回憶錄』, 長沙: 嶽麓書社, 1989.p.113.

17) 張偉, 『大上海-亭子間: 一群文化人和他們的事業』,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1, p.35.

18) 그리하여 량스추가 신월사 성원들이 사단으로서의 성격이 없다고 단언하지만, 실제 그 실천에 있어서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의식이 분명 존재했다고 보인다.

19) 梁實秋. 陳子善編. 『梁實秋文學回憶錄』, 長沙: 嶽麓書社, 1989.p. 124-125.

4. 쉬즈모 그 후 : 『문학잡지』와 린후이인의 살롱

앞서 라오즈리와 관련하여 언급했던 『문학잡지』는 1937년 5월 창간되었다. 『신월』 잡지가 1928년에 창간되어 1933년에 중단된 것을 감안하면, 『신월』과 『문학잡지』 사이에는 4년 정도의 시간 격차가 있으며, 중간에 『신월』 기존 성격의 변질을 고려한다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문학잡지』 발간에 관한 주광치엔(朱光潛)의 회고에 따르면 비록 쉬즈모가 사망(1931)한 이후에 발간된 『문학잡지』지만, 실제 발간 관련 구성원을 고려하면 이전의 신월사와 관련된 많은 인물이 중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는 마침 ‘경파(京派)’와 ‘해파(海派)’가 대치하던 때였다. 경파는 대체로 문예계의 구(舊) 지식인들이었고, 해파는 주로 좌련(左聯, 좌익작가연맹)을 가리켰다. 나는 후스(胡適)의 초청으로 베이징대에 갔으니, 당연히 경파 인물이 되었다. 경파는 ‘신월(新月)’ 시기에 가장 성했으나, 시인 徐志摩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뒤로는 점차 쇠퇴해 갔다. 후스와 양전성 등이 경파를 다시 일으켜 보려 하여, 8인 편집위원회를 조직하고 『문학잡지』를 발간하려 준비했다. 편집위원회에는 양전성, 선충원, 꺾꺾런, 위펑보, 주쓰칭, 린후이인 등과 내가 있었다. 그들은 내가 갖 등단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크게 받지 않아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나를 주편으로 추대했다. 후스와 왕윈우(王雲五)가 교섭하여, 새로 태어난 『문학잡지』의 출판을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 맡기게 했다. (중략) 『문학잡지』는 비록 경파의 간행물이지만, 게재 원고를 경파로만 한정하지 않았다. 주쓰칭(朱自清)·윈이둬(聞一多)·펑즈(馮至)·리광텐(李廣田)·허치팡(何其芳)·비엔즈린(卞之琳) 등,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좌파 색채를 지닌 작가들도 자주 『문학잡지』에 모습을 드러냈다.²⁰⁾

주광치엔의 『문학잡지』에 관한 언급 중 우선 주목할 만한 점은 경파와 신월사를 연관 짓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당시 주광치엔은 쉬중수를 통해 후스를 알게 되었고, 후스가 주광치엔의 시론(詩論)을 읽고 그를 베이징대학 서양어문학과(西語系) 교수로 임용하였는데 ²¹⁾, 주광치엔 본인이 이로 인해 자신도 경파로 분류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주광치엔 또한 베이징대학 영문계의 배경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경파와 베이징 대학 영문계와 신월사 성원과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주광치엔 외에도 위 단락에서 언급된 『문학잡지』 8인의 편집인²²⁾은 대부분 베이징 대학, 혹은 베이징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다. ²³⁾

그리하여 쉬즈모 사망 이후에도 기존의 신월사 성원들은 대학내 활동,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단체는 1932-1937년까지 린후이인과 량쓰칭의 집에서 모인 살롱형태의 모임이다. 일명 린후이인의 살롱이라고 불리는 이 모임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표²⁴⁾에 따르면 주광치엔이 『문학잡지』와 관련하여 언급한 여러 인물의 명단과 대부분 겹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곧, 쉬즈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1923년부터 시작된 신월사의 맥락이 1937년 전후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朱光潛, 吳福輝, 錢理群 主編. 『朱光潛自傳』,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1998, pp6-7.

21) 朱光潛, 吳福輝, 錢理群 主編. 『朱光潛自傳』,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1998, pp6-7.

22) 표4. 『문학잡지』 관련 인물 (8인의 편집인) (지면상 생략)

23) 예외적으로 양전성이 칭다오 대학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신월 발간 당시의 주요 인물 중의 하나인 윈이뚜어와 선충원이 모두 칭다오 대학에서 동료로 있었음을 감안하면 신월사에 있어서 칭다오 대학 중문과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민국 19년(1930년)에 이르자, 신월 동인들은 거의 상하이를 떠났다. 聞一多是 본디 상하이에 살지 않았는데, 그해 여름 상하이에 왔다가 나와 함께 楊金甫의 초청을 받아, 막 창립을 준비 중이던 국립 칭다오대학으로 갔다.” 梁實秋, 陳子善編. 『梁實秋文學回憶錄』, 長沙: 嶽麓書社, 1989, p.116.

24) 표 5. 린후이인 살롱에 참여한 인물 (지면상 생략) 費冬梅, 『沙龍: 一種新都市文化與文學生產 (1917—1937)』,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6

5. 결론

본고는 신월사의 탄생으로서의 타고르 기념 공연, 『현대평론』과의 연관성, 신월서점 운영과 『신월』의 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린후이인의 살롱과 『문학잡지』와의 관련성을 차례로 다루어 보았다. 첫째, 타고르 기념 공연을 중심으로 신월사와 베이징대학 영문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현대평론』의 주요 인물들과 초기 신월사 성원들 간에 중첩되는 인물이 많았으며 신월사가 『신월』 등을 발간하기 전 대부분 『현대평론』을 통해 글을 발표하였다. 셋째, 본격적으로 신월사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것은 아무래도 신월서점의 운영과 잡지 『신월』을 발간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은 쉬즈모가 그 주축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 그 조직과 결과를 살펴보면 후스가 더 실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37년에 베이징에서 창간된 『문학잡지』의 주요 필진이 1932년 1937년 사이의 린후이인의 살롱에 참여했던 겹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월사의 초기, 중기를 거치며 꾸준히 등장하는 인물들과도 어느 정도 겹친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신월사를 다루는 데 있어 단순히 신시 문학 사단으로 한정 지어 인식하는 것보다는, 신월사의 성원들이 쉬즈모가 죽은 이후 1937년까지도 대학 공간과 간행물의 발행 등의 활동을 통해 그 명맥을 이어가는 지식인 학술-문화사단으로서의 성격을 재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申報』
『北京大學日刊』
『晨報』
『晨報副刊·劇刊』
『晨報副刊·詩鐫』
『現代評論』
『新月』
『文學雜誌』

錢理群 · 溫儒敏 · 吳福輝, 『中國現代文學三十年』,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耿雲志, 『胡適年譜』, 福州: 福建教育出版社, 2012
厲小勵, 『塵世是唯一的天堂 林語堂的流寓人生』, 北京: 現代出版社, 2022
王傑, 祝士明, 『學府典章』, 天津: 天津大學出版社, 2010
林徽因, 『九十九度中』,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11
陳從周, 『徐志摩: 年譜與評述』,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8
張偉, 『大上海·亭子間: 一群文化人和他們的事業』,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1
費冬梅, 『沙龍: 一種新都市文化與文學生產 (1917—1937)』,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6
梁實秋. 陳子善, 編. 『梁實秋文學回憶錄』, 長沙: 嶽麓書社, 1989
孔祥宇, 『現代評論派與1920年代的中國自由主義』,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2
曹聚仁, 『蔣百裏評傳』, 北京: 新星出版社, 2016
朱光潛. 吳福輝, 錢理群 主編. 『朱光潛自傳』,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1998
陳子善, 「張彭春、新月社的誕生及其他」,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23(04)
袁洪權, 「作為新文學史問題的新月派 (1950-1957)」, 『中國當代文學研究』 2023年 第4期
曾祥金, 「張彭春『(清華學校)日程草案』裏的新文學」, 『新文學史料』, 2023年 第1期
費冬梅, 「戈泰爾訪華與新月社的戲劇實踐」, 『現代中文學刊』, 2021(02)

韩国现代小说在中国的译介，传播与接受

——以梁贵子小说《矛盾》为例

于翠玲*

<目次>

【摘要】

1. 引言
2. 《矛盾》在韩中两国的出版及接受概况
3. 《矛盾》中译本的翻译美学与策略
4. 结语
参考文献

【摘要】

韩半岛与中国大陆一衣带水，经贸往来频繁，而数千年的文化交流更是形成了一种和而不同、携手共进的良好局面。及至近现代，由于种种人为的政治因素，交流的有效链接一度被打断。1949年中国建国之后，直至1992年中韩建交，中国与半岛的文化交流基本上发生于中国与朝鲜之间，几乎少有韩国现代文学被译介到中国，而中韩建交为韩国现代文学的汉译打开了新的窗口。中韩建交三十余年，韩国现代文学的汉译，在曲折中不断发展，最终凭借一部分主题深刻的文学文本和充满个性的写作引起了读者的共鸣，改变了中国读者对韩国文学的认知。

那么，2024年，韩江斩获诺贝尔文学奖这一事实能否掀开韩国现代文学汉译的新篇章呢？时至今日，面对接受度和审美度大幅提高的中国读者，哪些因素会左右韩国现代文学在中国的译介和传播呢？这里，笔者以2009年译介至中国的梁贵子的长篇小说《矛盾》为例，着眼于该小说在韩中两国读者群（一般读者和学术研究者）的接受反应，以及译者在翻译过程中采用的翻译美学和策略，探讨数字时代韩国现代文学汉译与传播模式的新途径。

* 全北大学中文系，讲师

1. 引言

韩半岛与中国大陆一衣带水，经贸往来频繁，而数千年的文化交流更是形成了一种和而不同、携手共进的良好局面。及至近现代，由于种种人为的政治因素，交流的有效链接一度被打断，可以说1949年中国建国之后，直至1992年中韩建交，中国与半岛的文化交流基本上发生于中国与朝鲜之间。不过，在建交之前的10年间，中国文艺界已经开始有意识地整理、分析和小范围地介绍韩国现代文学。进入九十年代，中国的改革开放政策给中国社会带来了政治、经济、文化等全方位的变化，文学的出版发行也正式步入了以市场为中心的自由发展阶段。在中韩建交的这三十余年，韩国现代文学的汉译基本上可以分为以下三个阶段：一，探索期（1992 - 2001）：译本的选择主要依靠建交后的政治推动和学术界的初步引进，数量少、影响小。译者也多为高校教师或中国的朝鲜族，缺乏专业译者。但这一期间的探索为后续发展积累了选题、翻译与出版方面的经验；二，繁荣期（2002 - 2011）：受韩流文化影响，大众文学尤其是影视剧改编小说和青春爱情小说，大量进入中国市场。前半期，译本数量可以说是逐年增加，其中不乏现象级汉译本。虽然译本数量众多，但文学性不足这一问题也很明显。不过，随着此间接受韩国文学翻译院资助的专业译者的参与，翻译质量较高的纯文学译本的数量开始增加；三，理性期（2012 - 至今）：韩流影响减弱，文本自身价值凸显，特别是随着诸多国际文学奖项对韩国现代文学的认可，在中国出版社的自主选择 and 韩国本土机构的双重加持下，翻译出版的着眼点开始从数量转向质量，商业利益不再是唯一的关注点，文学性、思想性得到兼顾，出现重版、学术关注与读者公共讨论并存的局面，尤其是一些反映社会议题的小说获得广泛关注。¹可见，中韩建交之后，韩国现代文学的汉译，在曲折中不断发展，最终凭借一部分主题深刻的文学文本和充满个性的写作引起了读者的共鸣，改变了中国读者对韩国文学的认知。

在这一过程中，可以发现中国出版社和读者对获奖作品表现出了浓厚的兴趣，被译介到中国的大部分都是获奖作品。那么，2024年，韩江斩获诺贝尔文学奖这一事实能否掀开韩国现代文学汉译的新篇章呢？时至今日，面对接受度和审美度大幅提高的中国读者，哪些因素会左右韩国现代文学在中国的译介和传播呢？这里，笔者以2009年译介至中国的梁贵子的长篇小说《矛盾》为例，着眼于该小说在韩中两国读者群的接受反应，以及译者在翻译过程中采用的翻译美学和策略，尝试探讨数字时代韩国现代文学汉译与传播模式的新途径。

¹ 以上对韩国现代文学汉译阶段的划分，参考了包括...在内的数篇论文，以上论文基于各自基准对中韩建交后出版发行的韩国现代文学汉译本进行了统计分析，韩国方面主要参考了韩国文学翻译院提供的官方数据，而中国方面则是汇总了以前诸多的研究资料，也就是说中国方面没有第一手资料，亦即准确的权威资料，而韩国方面从译者接受资助到最终出版之间的时间距离也是有长有短，所以阶段划分和相关分析无法做到精准，仅供参考。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1부

5. 중국어학(1)

위당관 205호

**중국어 어휘 · 의미 · 문자 연구:
역사와 현대, 공생과 혁신**

古文字 가운데 淘汰된 글자에 대한 考釋의 사례 분석

金 赫*

<目 次>

【 국문초록 】

1. 들어가며
 2. 古文字와 후대 글자의 字形적 상관 관계
 3. 古文字 가운데 淘汰된 글자에 대한 考釋 사례 분석
 4. 나오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唐蘭이 『古文字學導論』에서 제시한 對照法·推勘法·偏旁分析法·歷史考證法 등 네 가지 考釋의 원칙만 가지고 해결이 되지 못하는 難字를 考釋하는데 있어서,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미해독 글자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의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였다. 3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출토된 戰國竹簡에 출현하는 수많은 戰國文字 字形들은 더 이른 시기의 甲骨文과 金文의 考釋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문자학적 정보를 제공해주었고, 동시에 이로 인하여 기존의 古文字 考釋의 방법이나 과정에서 어렵게 느껴왔던 字形 변화 발전의 복잡한 문제를 더욱 섬세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났다. 필자는 그 가운데 하나의 글자가 현존하거나 이른 시기 隸楷 字形에 보이는 글자와 순리적인 변화 발전 관계를 가지는 글자가 아닌, 古文字 당시에만 존재했고 淘汰되어 후대의 隸楷 字形으로 전승되지 않은 글자들에 대한 考釋의 사례를 분석하여, 새로운 考釋 방법론의 틀을 세우는 하나의 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기존의 考釋을 다시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考釋 이론의 한 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古文字에 대한 考釋의 역사는 대략 東漢 許慎의 『說文解字』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六書 이론을 기반으로 字形을 해석하고 本形과 本義를 탐구하여, 文字學과 古文字 考釋의 이론적 토대를 세웠다. 그 이후 宋代 鄭樵의 『六書略』과 元代 戴侗의 『六書故』가 許慎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켰고, 당시 볼 수 있었던 青銅器 銘文과 小篆의 비교를 통하여 古文字 字形에 대한 정보를 金石學의 측면에서 축적할 수 있었다. 또한 清代 小學의 발전과 함께 만들어진 吳大澂의 『說文古籀補』는 古文字의 考釋에 탁월한 견해를 볼 수 있는 저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孫詒讓의 偏旁分析의 방법을 최초로 제시하였고, 당대 학자 가운데 唐蘭이 『古文字學導論』에서 제시한 對照法·推勘法·偏旁分析法·歷史考證法 등 네 가지 考釋의 원칙은 근본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도 연구에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于省吾, 姚孝遂, 林澐, 裘錫圭 등 걸출한 연구자들이

* 慶尙國立大學校, 副教授

보다 심화되고 과학적인 古文字 考釋 방법을 활용하여 몰랐던 글자에 대한 考釋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잘못된 考釋을 바로잡는 등 考釋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왔다.¹⁾

이에 더하여 최근 3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출토된 戰國竹簡에 출현하는 수많은 戰國文字 字形들은 더 이른 시기의 甲骨文과 金文의 考釋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문자학적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이는 우리가 『說文解字』의 籀文·古文 정보를 통해서, 또는 일부 戰國時代에 해당하는 青銅器 銘文의 字形과 여타 玉器나 貨幣 등에 새겨진 字形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중간 연결 고리가 되는 字形의 새로운 정보를 새롭게 얻어낸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字形 정보로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甲骨文이나 西周春秋時代 金文의 글자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기존의 古文字 考釋의 방법이나 과정에서 어렵게 느껴왔던 字形 변화 발전의 복잡한 문제를 더욱 섬세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났다.

필자는 考釋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보다 과학적으로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考釋 방법론을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새롭게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古文字를 考釋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글자가 현존하거나 이른 시기 隸楷 字形에 보이는 글자와 순리적인 변화 발전 관계를 가지는 글자가 아닌, 古文字 당시에만 존재했고 淘汰되어 후대의 隸楷 字形으로 전승되지 않은 글자들에 대한 考釋의 사례를 분석하여, 새로운 考釋 방법론의 틀을 세우는 하나의 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기존의 考釋을 다시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考釋 이론의 한 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古文字와 후대 글자의 字形적 상관 관계

甲骨文이나 殷商시기 金文에 출현하는 수많은 글자들 가운데 후대 글자와 직접적인 字形의 순리적 발전 변화 관계를 가지는 常用字들이 있다. 예를 들면, 日, 月, 女, 大, 木, 目 등으로 이른 시기 古文字에서 지금의 楷書까지 초기 字形의 기본적인 형체가 시대적 서사 변화에 따른 차이만 있지, 본질적으로는 초기 字形이 지금의 글자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면서 古文字 가운데 아직 해독되지 못하거나, 字形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글자는 그리 많지 않다. 현재 아직 모르는 미해독의 古文字 字形 가운데 대다수는 이처럼 字形에 있어서 직접적인 상관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글자들일 것이다. 최근 復旦大學 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에서 출간된 『出土文獻與古文字教程』의 古文字考釋 파트를 서술한 陳劍 역시 이러한 간단하지 않은 정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즉 어떤 한 글자가 후대의 어떤 글자에 해당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아래 간략히 다섯 가지 정황을 소개하겠다.

첫째, A 字形이 B 글자에 해당하며, 동시에 후대에 연속적으로 사용된 글자들로 숫자 一, 二, 三, 四, 기본 명사인 人, 女, 子, 日, 月, 山, 艸, 木, 鳥, 魚 등이 있다.

둘째, B 글자가 후대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데, 후대의 어떤 글자와 연원 관계를 가져서 B 글자가 偏旁으로서 후대의 C, D 글자의 일부분에 남아 있는 경우로, 예를 들면 𠂔의 상단부 偏旁인 囚이 있다.

셋째, A 字形이 후대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다른 글자의 偏旁에도 보이지 않는데, 늦은 시기 古文字 자료를 통하여 形音義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琮자가 있다.

넷째, A 字形이 후대에 완전히 淘汰된 경우인데, 독체자와 합체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독체자는 오직 형체와 문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합체자의 경우는 분해하였을 때 偏旁은 후대의 어떤 글자인지 알 수 있지만, 해당 글자는 후대에 없는 글자로 聲符를 통하여 讀音을 확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戰國文字에 보인다.

다섯째, 기타 混同이나 兼併 등 특수한 정황으로 단선적인 변화 발전 관계를 가지지 않는 글자들이다.²⁾

1) 古文字 考釋 및 構形 연구에 관한 回顧는 劉釗의 『古文字構形學(修訂本)』을 참고할 것. 劉釗, 『古文走構形學(修訂本)』, 福建人民出版社, 2011, 2~5쪽.

2)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編撰, 『出土文獻與古文字教程』, 中西書局, 2024, 6쪽.

3. 古文字 가운데 淘汰된 글자에 대한 考釋 사례 분석

(1) 甲骨文에만 존재했다가, 후대에 완전히 淘汰된 글자

甲骨文에 매우 자주 출현하는 글자로 𠂔(出)자가 있는데, 이는 𠂔(又)자와 同音字로 주로 {有}를 표기하는 글자이다. 이 字形은 甲骨文에만 출현하고, 후대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淘汰되었다. 이 글자에 대한 考釋은 주로 수많은 문례의 근거를 통하여 확정된 것이며, 造字本義는 정확히 알 수 없다.³⁾ 이외에 해당 글자 字形의 表意的 성질과 문례에 근거하여 考釋한 甲骨文에만 존재했던 글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𠂔, 虹, 蝠, 衝, 死의 특수 異體 등이 있다.

𠂔



𠂔은 甲骨文에 𠂔으로 서사하여 사람의 다리를 톱과 같은 것으로 자르는 모습을 본뜬 表意字이다. 字形이 보여주는 表意的인 요소와 문례를 통하여 확정된 것으로, 후대에 形符 刀와 聲符 月로 이루어진 形聲字로 대체된 글자이다.⁴⁾

虹



虹은 甲骨文에 虹으로 서사하여 무지개를 본뜬 表意字이다. 이 글자 역시 表意的인 요소와 문례를 통하여 확정된 것으로, 후대에 形符 虫와 聲符 工으로 구성된 形聲字로 대체되었다. 또한 중국 고대인들의 상상 속에 무지개는 일종의 머리가 두 개 달린 神獸이며, 무지개가 출현하여 물을 마시고 그로 인하여 물이 고갈된다는 관념과 甲骨文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 측면도 있어서 考釋이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⁵⁾

蝠



蝠은 甲骨文에 蝠으로 서사하여 박쥐를 본뜬 表意字이다. 이 글자는 오직 表意的인 요소만 고려하여 考釋한 것이기 때문에 蝠으로 확정하기는 아직 설부른 상황에 있는 글자라고 할 수 있다. 字形적인 측면에서 쥐를 본뜬 鼠자가 鼠으로 鼠의 머리 부분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나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역시 후대에 形符 虫와 聲符 富으로 구성된 形聲字로 대체되었다.

3) 牛의 일부를 생략한 글자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가능성이 있는 해석일 뿐, 아직 확정하기는 어렵다.

4) 裘錫圭, 『甲骨文中所見的商代五刑』, 『裘錫圭學術文集(甲骨文卷)』, 復旦大學出版社, 2015, 1~3쪽.

5) 虹과 관련된 古文獻 기록은 『山海經·海外東京』, 『釋名·釋天』, 『漢書·燕王旦傳』 등에 보인다.

衝

衝은 甲骨文에 두 가지 字形으로 출현한다. 하나는 衝車를 본뜬 表意字로 으로 서사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으로 서사하여 敵城을 무기로 충격을 가하는 모습을 본뜬 表意字이다. 이 두 字形은 모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甲骨文 문례에 출현하면서, 동시에 敵城을 돌격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衝}을 표기한다. 表意的 요소와 문례 두 가지, 그리고 衝車에 대한 古文獻에서의 기록 등을 통하여 입증된 글자라고 할 수 있다. 후대에 形符 行과 聲符 重 또는 童으로 구성된 衝/衝의 形聲字로 대체되었다.⁶⁾

死의 특수 異體

死자는 甲骨文에서 보통  또는 로 서사하는데, 疾과 歹로 구성된 와 가 출현한다. 는 의 생략형으로, 기존의 학자들 가운데 王國維를 필두로 葬으로 오인해온 字形들이다. 甲骨文의 문법적인 구조와 문례, 그리고 해당 글자가 출현하는 인물 관련 정황으로 볼 때, 이 글자는 매장의 의미가 아닌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死자와 달리 疾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은 '질병에 의하여 죽다'라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글자로 봐야 한다. 이 글자는 甲骨文 당시에만 출현했던 死자의 특수 異體로 伐羌을 나타내는 자와 같은 유형인 일종의 專用字로 봐야 한다. 후대에 전혀 전승되지 못하고, 甲骨文에만 존재했던 특수한 異體였다.

(2) 古文字 시기에만 존재했다가, 후대 隸楷 단계에 보이지 않는 글자

위에서 제시한 글자들은 모두 甲骨文 시기에만 존재하였다가 淘汰되어 秦漢時期에 形聲字로 대체되거나, 아예 사라진 글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甲骨文에 이어 西周 金文, 戰國時期 또는 『說文解字』 籀文 등까지만 이어진 字形들을 다룬다. 예를 들면, 捷, 踊, 干支를 표기하는 子 등이 있다.

𢦏(捷)

𢦏은 甲骨文에 '적과 싸워 이기다' 또는 '적을 멸망시키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捷}을 표기하는 字形으로, 으로 서사한다. 아마도 창으로 초목을 베어내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추정되는데, 이 字形은 西周 金文에도  (《史牆盤》)의 형태로 출현한다. 戰國文字까지 이어져 으로 서사한다. 이 字形은 隸楷 단계에서는 淘汰되어 사라졌으나, 古文字 단계 내에서 많은 문례로 출현하기 때문에 考釋이 가능한 글자라고 할 수 있다.⁷⁾ 후대에 形符 扌(手)와 聲符 走으로 구성된 形聲字로 대체되었다.

踊

踊자는 甲骨文에서 으로 서사하고, 金文에서는 으로 서사한다. 이 글자는 聲符인  (同)과 形符 步로 구성된 形聲字로 '높은 곳에 오르다'는 의미를 가지는 {踊}을 표기한다. 본래 甲骨文 字形으로 보면 가운데 부분이 으로 堂의 初文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 字形은 金文 단계까지만 출현하고 淘汰되어 隸楷 단계에서는 形符 足과 聲符 甬으로 구성된 形聲字로 대체되었다. 이 글자 역시 古文字 단계 내에서 많은 문례로 출현하기 때문에 考釋이 가능한 글자이다.⁸⁾

6) 金赫, 「釋甲骨文中的“衝”」, 『探尋中華文化的基因(一)』, 商務印書館, 2018, 125~131쪽.

7) 陳劍, 「甲骨文“𢦏”字補釋」, 『甲骨文考釋論集』, 綫裝書局, 2007, 99~106쪽.

8) 陳劍, 「金文字詞零釋(四則)」, 『古文字學論稿』, 安徽大學出版社, 2008, 132~136쪽.

干支를 표기하는 子

干支를 표기하는 子는 甲骨文에서 𠂔로 서사하지 않고, 𠂔로 서사한다. 西周 金文에서는 𠂔로 서사하다가 春秋時期 이후로는 𠂔의 字形을 사용하여 干支의 子를 표기한다. 이 字形은 『說文解字』의 籀文인 𠂔와 古文인 𠂔에 전승되어 남아 있다. 이 글자도 字形과 문례를 통하여 古文字 단계에서 특수한 상황, 즉 干支를 표기하는 용례에서만 사용된 특수 字形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 두 가지 정황, 즉 甲骨文 시기에만 존재했다가 淘汰되어 후대의 形聲字로 대체되거나 아예 전승되지 못한 특수 글자와 古文字 시기 내에서 일정 단계를 거치며 존재했다가 후대의 形聲字로 대체되거나 전승되지 못한 특수 글자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A 字形이 후대의 특정 글자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며,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古文字 字形들은 이러한 사례에 속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이 考釋된 과정은 대부분 하나의 글자가 특정 단어(詞)를 표기하고 있는, 즉 언어를 기록하는 부호로서의 漢字라는 관념에서 출발하여, 해당 글자가 위치해 있는 문법적인 위치와 문례의 전후 맥락을 중심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나오며

본 논문에서는 甲骨文 또는 古文字 단계에서만 존재했다가, 후대의 隸楷 단계까지 전승되지 못하고 淘汰되어 사라진 글자들을 예로 들어, 해당 글자들이 考釋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古文字를 연구 해오면서 考釋해온 글자들 가운데, 이미 해결된 字形들은 대다수가 古文字 字形과 후대 隸楷 단계의 글자가 직접적으로 전승 관계를 가지는 것들이다. 또한 古文字 考釋의 발전을 통하여 새롭게 해독되는 字形들은 陳劍이 다섯 가지로 분류한 가운데 네 가지에 해당하는, 즉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글자들이라는 점을 현 시점에서 주의 깊게 의식하여 考釋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전부터 이러한 복잡한 정황, 즉 후대의 글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지만, 古文字 단계내에서만 존재했으면서 그 당시 字形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글자들을 접할 때, 반드시 기존의 偏旁分析法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글자들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文字學적 원칙은 字形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해당 글자가 놓여 있는 문례에 대한 분석,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일 것이다.

참고문헌

- 裘錫圭, 「甲骨文中所見的商代五刑」, 『裘錫圭學術文集(甲骨文卷)』, 復旦大學出版社, 2015.
 金赫, 「釋甲骨文中的“衝”」, 『探尋中華文化的基因(一)』, 商務印書館, 2018.
 劉釗, 『古文走構形學(修訂本)』, 福建人們出版社, 2011.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編撰, 『出土文獻與古文字教程』, 中西書局, 2024.
 陳劍, 「甲骨金文“𠂔”字補釋」, 『甲骨金文考釋論集』, 綫裝書局, 2007.
 陳劍, 「金文字詞零釋(四則)」, 『古文字學論稿』, 安徽大學出版社, 2008.

'昆侖刻石'의 의의와 논쟁에 관한 문자학적 고찰

박성우*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刻石의 내용 분석
3. 刻石의 문자 특성 분석
4. 결론

【 국문초록 】

본 발표문은 '昆侖刻石'의 새겨진 문자와 문체를 분석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고 한다. 중국에서 촉발된 진위 논쟁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 학계에 학술적 토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1. 서론

최근 2025년 6월 8일,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研究員으로 재직하는 톈타오(仝涛)는 『光明日報』에 「고대 '昆侖'의 지리적 위치 실증—青海 黃河 원류에서 발견된 진시황 사신의 '采藥昆侖' 석각」이라는 제목으로 고고학 보고서 형태의 글을 발표하였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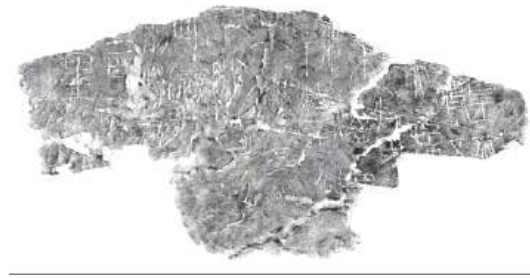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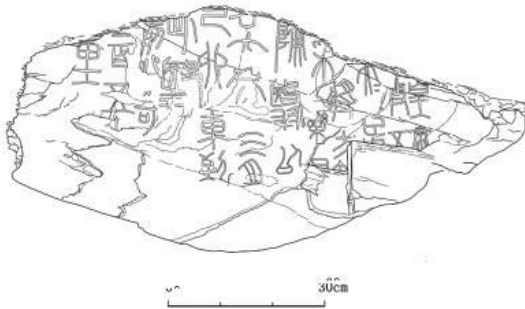
仝涛는 진시황 사신이 새긴 이 刻石은 青海省 瑪多縣에서 발견되었고, 이 지역은 고대시기 중원에서 티베트를 진입하는 '唐蕃古道'의 중추 지역이라고 서술하였다. 또한 해당 석각에는 진시황 26년(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오대부 예(翳)와 일부 방사들을 보내어, 수레를 타고 장거리 여행 끝에 칭하이 곤륜산 깊숙한 곳까지 가서 불로장생약을 채집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풀이하였다. 결과적으로 석각의 내용과 그 지리적 위치를 토대로 '昆侖'과 '황하의 발원'에 관한 오랜 논쟁의 정확한 실마리를 제공하며, 나아가 隋唐 시기의 '唐蕃古道'가 진시황 시대에 이미 가장 중요한 구간이 뚫려 있었음을 실증했다고 주장하였다.

즉, 仝涛는 이 석각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 남겨진 유일하게 원래 자리에 현존하는 석각이자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석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더욱이 秦 나라 시기 국가적 행적의 직접적 증거로, 이는 '昆侖'의 정확한 고지 및 고대 황하 교통, 무역 교류사 연구에 결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석각의 위치와 형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국립순천대학교 글로벌중국학 전공, 조교수

2) 仝涛, 「實證古代“昆侖”的地理位置-青海黃河源發現秦始皇遣使“采藥昆侖”石刻」, 『光明日報』, 發布時間: 2025年, 6月8日, https://news.gmw.cn/2025-06/08/content_38076328.htm.



[그림 1] 위: 석각 위치, 아래: 모사본, 탁본³⁾

파견된 고고학팀의 현장 분석에 근거하면, 이 석각은 扎陵湖 북안 산비탈 중간 지점에 돌출된 현무암 기저부에 위치하고, 석각은 마애각의 일종이라고 한다.⁴⁾ 벽면의 전체 길이는 82cm, 가장 넓은 부분은 30cm에 달하고, [그림 1] 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자가 새겨진 암벽의 중앙 부위가 높으며, 점차 양쪽으로 비스듬히 내려오는 마름모 형태로 유지되어 있다. 또한 아래 모사본과 탁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스럽지 않은 불규칙한 암면을 따라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새겨져 있으며, 각 글자의 세로 길이는 대략 5-7cm, 가로 폭은 4.5-5.5cm로, 총 37자가 12행으로 나뉘어 각 행에는 짧으면 2자 길면 5자로 배치되어 있다.

이상 全濤의 기사가 발표된 이후 고고학계의 새로운 발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지만, 비판적인 견해 또한 연이어 발표되었다. 대표적으로 北京大學 辛德勇은 중국 SNS 위챗 공식 계정에 『高度懷疑乃今人偽刻—石刻造假新高度』라는 제목으로 "명문이 해석된 대로라면, 본인은 이를 현대인이 새긴 위조라고 의심한다. 이것은 석각 위조의 새로운 '고도'라고 할 수 있다(銘文若如釋文所釋, 敝人高度懷疑乃今人偽刻, 這是石刻造假新高度)."라고 직설적으로 언급했으며, 北京語言大學 劉宗迪는 자신의 블로그에 연호와 달력 체계, 어휘 사용, 기후지형상 모순, 전래 문헌과의 대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의문을 제기하였다.⁵⁾

3) 석각 위치 촬영: 全濤, 모사본, 탁본: 王存存

http://big5.china.com.cn/gate/big5/grassland.china.com.cn/2025-06/09/content_43139179.html.

4) https://news.gmw.cn/2025-06/08/content_38076328.htm.

5) 이상 두 학자의 발언은 개별 SNS 공식 계정을 통해 공개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구체적 링크를 검색할 수 없지만, 光明日報가 운영하는 光明文化記憶 또는 騰訊新聞 등 여러 미디어를 통해 널리 인용·소개되고 있다. <https://mp.weixin.qq.com/s/9OoUHnKEWt0l4ajsNC3ymg>.

이 석각의 최초 발견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20년 7월 5일, 青海師範大學 地理科學學院 侯光良이 연구팀을 이끌고 황하 원류 지역 유적의 탐사 중에 이뤄졌으며, 2023년에는 侯光良이 『昆侖上下』를 출판하여 사진과 함께 석각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였다. 제시된 일부 중요 내용을 제시하면, 당시 해당 석각은 현대의 위조가 아닌 고대 유물이며 서체의 수준은 높지만 석각이 오래 보존되기 어려운 풍식이 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元淸시대의 유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⁶⁾ 이렇듯 최근 발표된 '昆侖刻石'에 대한 논쟁은 중국 고고학과 문자학계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견해가 일치되지 못하는 현재, 올해 6월 復旦大學 出土文獻古文字研究 센터의 센터장 劉釗가 발표한 문장에 주목해 볼만하다. 劉釗는 석각에 대한 1차 분석으로 고문자의 자형과 고대 문헌의 문장 서술 방식을 검토하였으며, 만약 해당 자료가 위조라면, 동일한 용례가 없는 상황에서 방대한 秦 문자 자료 속 글자들을 모아 위조의 샘플로 삼고, 각 글자의 구조를 완벽히 맞추어 오류 없이 재현하며, 동시에 서체 스타일까지 통일시키는 작업은 전문가라 하더라도 완벽히 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였다.⁷⁾

이렇듯 昆侖刻石의 발견과 분석은 중국 고대사 및 교류사, 곤륜과 青海省 지대 고고학 연구에 새로운 논쟁의 불씨를 제공했으며, 최종적으로 진위가 판명될 때까지 학술적·사회적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학계 전문가들의 문헌 대조, 서체 분석, 성분 및 제작 기법 등에 대한 추가적 고증과 공식적 감정이 필요하다.

본 발표문은 해당 각석에 새겨진 문자와 문체의 형태를 현재 확인되는 秦 나라 시기 출토자료와 문헌 자료에 보이는 서사 습관을 면밀히 대조 분석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당 각석을 공식적으로 한국 학계에 알리고, 중국에서 촉발된 진위 논쟁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며, 한국 학계에 학술적 토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刻石의 내용 분석

주지하다시피 '昆侖刻石'의 내용은 간략하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고고학, 고문헌학, 고문자학, 의학사 등 여러 학문 분야에 중요한 기초 자료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석각 문자의 형태, 문체, 문법, 어휘 사용과 秦 시대의 일치성, 그리고 역사적 배경과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진위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각석의 최초 釋文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⁸⁾

皇帝/使五/大={大夫}臣醫/將方_王/采藥_昆/論醫以/廿_六年三月/己卯車到/此醫□/前□可/一百五_十/里

이 각석에서 발견된 글씨는 모두 37자로 파악되며, 서체는 전형적인 秦 나라 소전체로 쓰였다는 것이 비교적 통일된 견해이다. 이상 제시한 釋文을 토대로 풀이하면, '황제께서 오대부 신 醫에게 방사를 거느리고 곤륜산의 약을 채집하도록 하셨다. 醫은 26년 3월 기묘일에 수레를 타고 도착했으며, 이곳에서 醫은 150리를 더 가야 한다.'라고 한다. 즉, 秦始皇이 신하들을 외부로 파견하여 약을 구하게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익숙히 알려진 秦始皇의 불사약에 대한 당시의 이슈를 연상케 한다.

중국의 대표적 역사 문헌인 『史記·秦始皇本紀』를 통해서도 전해지듯이 秦始皇이 不老長生の 약을 구하도록 명령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몇몇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면, '일이 끝나자, 齊 사

6) 侯光良, 『昆侖上下』, 西北大學出版社, 2023年, 118-121쪽.

7) 劉釗, 『我對昆侖刻石的看法』,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論文, 發布時間: 2025年6月12日, <http://www.fdgwz.org.cn/Web/Show/11263>

8) 全濤의 考釋에 근거하였다. https://news.gmw.cn/2025-06/08/content_38076328.htm

람 서불 등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저 멀리 바다 건너 봉래, 방장, 영주라는 삼신산에 신선이 삽니다. 청컨대 재계하여 어린 남녀를 거느리고 모셔 오고자 합니다.」 이에 [진시황은] 서불을 보내 동남동녀 수 천을 뽑아 바다로 나가 신선을 찾아오게 하였다(既已, 齊人徐市等上書, 言海中有三神山, 名曰蓬萊, 方丈, 瀛洲, 僊人居之. 請得齋戒, 與童男女求之. 於是遣徐市發童男女數千人, 入海求僊人).」라고 하여 '이에 한중, 후공, 석생을 시켜 신선에게 불사약을 구하게 하였다. 시황은 북쪽 변방을 순행하며, 상군으로 들어갔다(因使韓終、侯公、石生求僊人不死之藥. 始皇巡北邊, 從上郡入).'라는 내용과 함께 동편에서 '후생과 노생이 함께 일을 꾸미며 말하길: 「시황제의 사람됨은 천성적으로 재능과 지혜만 믿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권세를 탐하는 것이 이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으니 그를 위해서 선약을 구해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며, 이에 곧장 도망가 버렸다(侯生盧生相與謀曰: 始皇為人, 天性剛戾自用, ...貪於權勢至如此, 未可為求僊藥. 於是乃亡去).'라는 기록도 전하며, 더 나아가 동편의 다음 구절에서는 '방사인 서불 등이 바다를 건너 신선의 약을 구했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얻지 못하고 비용만 많이 쓰자, 책망이 두려워 이에 거짓으로 말하였다. 「봉래의 약은 얻을 수는 있으나 항상 커다란 상어 때문에 고충을 당해 도달할 수 없사오니, 청하건대 활 잘 쏘는 사람과 함께 가서 상어가 나타나면 연노를 쏘도록 해 주십시오」 (方士徐市等入海求神藥, 數歲不得, 費多, 恐譴, 乃詐曰: 「蓬萊藥可得, 然常為大鯨魚所苦, 故不得至, 願請善射與俱, 見則以連弩射之」).'라는 내용도 있다. 이처럼 진시황이不老不死한 존재가 되기를 열망하여 여러 지방에 사절단을 파견해 약을 구하게 한 사실, 그 과정에서의 사건, 그리고 불사약과 관련된 국가 운영상의 행위, 맥락 등이 원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석각의 내용과 밀접하게 부합한다.

이밖에 『史記』 외의 문헌에도 진시황의 불로장생약 탐구를 언급한 문장이 서술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漢書』의 기록을 보면, 「郊祀志上」에는 '이 三神山은 전설에 따르면 渤海 가운데에 있는데, 인간 세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일찍이 그곳에 가본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신선과 불사약이 모두 거기에 있다(此三神山者, 其傳在渤海中, 去人不遠. 蓋嘗有至者, 諸僊人及不死之藥皆在焉).'라고 전하며, 또한 「郊祀志下」에는 '진시황은 처음 천하를 통일하고, 신선의 道를 기꺼이 원하여, 徐福과 韓終 등에게 많은 어린 남녀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신선의 약을 구하게 하였으나, 그들이 도리어 도망쳐 돌아오지 않으니, 천하 사람들이 원망하였다(秦始皇初并天下, 甘心於神僊之道, 遣徐福, 韓終之屬多齋童男男女入海求神采藥, 因逃不還, 天下怨恨).'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처럼 『史記』 외의 전래 문헌에서도 진시황이 불로장생약을 얻기 위해 서복(徐福, 서불)을 파견했다는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며, 그 서술 또한 『史記』와 매우 유사하다.

이상, 昆侖刻石의 문장이 만약 秦 시기의 자료라면, 다양한 전래 문헌과의 대조검증을 통해 많은 부분 역사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사료임은 분명하다. 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으며, 그중 하나로 날짜와 관련된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北京語言大學 劉宗迪가 블로그에 게재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석각에는 오대부 翳가 황제의 명을 받아 진시황 26년 3월 기묘일에 도착했다고 되어있지만, 『史記』에 따르면, 진시황은 재위 26년에 이르러서야 육국을 멸망시키고 전국시대를 종식시키면서 비로소 '황제' 칭호의 사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따라서 석각에 기록대로라면, 오대부 翳는 '황제'로 불리지 않던 25년 중기 또는 말기에 중원에 출발해 26년 3월 기묘일에 도착한 셈이 되므로, 26년에 '황제' 칭호를 사용하여 석각을 제작했다는 주장에는 연대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⁹⁾

실제로 전래 문헌에 따르면, 진왕 26년에야 전국시대의 종결이 기록되어 있다. 『史記秦始皇本紀』에 '진왕 26년, 제 나라 왕 田建과 그의 재상 後勝이 군대를 일으켜 서쪽 국경을 방어하며, 진 나라와의 왕래를 끊었다. 진은 장군 王賁을 보내 燕 남쪽에서 제 나라를 공격했고, 제 나라 왕 田建을 잡았다. 육국의

9) <https://mp.weixin.qq.com/s/9OoUHnKEWt0l4ajsNC3ymg>

왕들은 모두 그 죄를 승복하니 천하는 크게 안정되었다(二十六年, 齊王建與其相後勝發兵守其西界, 不通秦. 秦使將軍王賁從燕南攻齊, 得齊王建. ……六王咸伏其辜, 天下大定).¹⁰⁾라고 하여, 진시황 26년에 육국 최후의 국가로 남았던 齊 나라가 멸망하고 전국이 통일되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바로 일차 자료 고석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하며 다시 한번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劉釗가 공개한 사진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그림 2].



[그림 2] 昆侖刻石의 역일 확대 자료

劉釗와 姜生은 [그림 2]와 같은 고화질 사진을 통해 원자료를 재검토하며 분석하였고, 결과적으로 '廿六年(26년)'을 '卅七年(37년)'으로 수정 고석하였다.¹⁰⁾ 즉, 최초 고석된 '廿六年(26년)'은 석각 실물에 대한 상세한 관찰과 고해상도 사진 분석을 통해 보면 오독된 것으로 판명된다.

秦 문자 '廿'의 형태를 보면 '廿', '廿', '廿' ¹¹⁾ 등으로 나타나고, '卅'은 '卅', '卅', '卅' ¹²⁾ 등으로, 앞서 [그림 1]에서는 석각의 자형 형태가 선명하지 않아 명확히 판별할 수 없었지만, [그림 2]의 확대 자료에서는 자형 중간 부분에 한 획이 뚜렷이 보여 '卅'자의 필획과 일치한다.

그 아래 글자 역시 小篆의 일반적인 서체를 기준으로 볼 때 '六'이 아니라 '七'과 매우 유사하다. 小篆 '六'은 '六', '六', '六' ¹³⁾ 등과 같이 이미 今文字 형태로 변천된 모습을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반면, '七'은 '七', '七', '七' ¹⁴⁾ 등으로 나타나며, 이는 刻石 자료의 글자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정리하면, 최초 고석된 '廿'자는 실제로 '卅'의 소전체이며, '六'은 돌 표면의 균열과 선명도가 낮은 원석 사진에 기반하여 오인되었고, 실제로는 '七'자임을 밝혀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원석의 고해상도 사진에 근거하여 기존 해석이 수정·보완된 것으로, 이 수정된 연대, 즉 진시황 37년은 현재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진시황의 심리 상태 및 역사적 맥락과 더욱 밀접하게 부합하는 시기이다. 이로써 전래 문헌과의 연대 불일치 문제가 해소되었으며, 결과적으로 崑崙 각석의 석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10) 劉釗, 『再論昆侖刻石』,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論文, 發布時間: 2025年 6月 30日, <http://www.fdgwz.org.cn/Web/Show/11273>. 姜生, 『秦昆侖刻石考』, 『文史哲』第3期, 2025年.

11) 王輝 主編, 『秦文字編: 全4冊』, 北京: 中華書局, 2015年, 339-345쪽.

12) 王輝 主編, 『秦文字編: 全4冊』, 北京: 中華書局, 2015年, 346-348쪽.

13) 王輝 主編, 『秦文字編: 全4冊』, 北京: 中華書局, 2015年, 2015-2023쪽.

14) 王輝 主編, 『秦文字編: 全4冊』, 北京: 中華書局, 2015年, 2023-2028쪽.

皇帝/使五/大={大夫}臣醫/將方田/采藥昆/輪醫以/卅七年三月/己卯車到此醫□/前□可/一百五□/里

'황제께서 오대부 신 醫에게 방사를 거느리고 곤륜산의 약을 채집하도록 하셨다. 醫은 37년 3월 기묘일에 수레를 타고 도착했으며, 이곳에서 醫는 150리를 더 가야 한다.'

흥미로운 부분으로, 앞서 진시황 37년은 진시황의 심리 상태 및 역사적 맥락과 밀접하게 부합하는 시기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전래 문헌의 해당 연도 기록과 대조하면 알 수 있는 사실로, 출토자료와 전래 문헌의 연관성을 통해 昆侖刻石이 진본에 가깝다는 학설에 대한 설득력을 한층 더 강화시킨다.

刻石에 기록되어 있는 진시황 37년에 불사의 약초를 채집하게 했다는 내용은 진시황 말기의 정치적 불안감과 불로장생에 대한 강한 열망을 반영하는 역사 문헌의 서술과 일치한다. 『史記·秦始皇本紀』에 따르면 '36년에 화성이 심수를 침범했다. 유성이 동군에 떨어졌는데, 땅에 닿자 돌로 변하였다.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 그 돌에 「시황제가 죽으면 땅이 갈라질 것이다」라는 글을 새겼다. 이어 「금년에 조룡이 죽을 것이다」라는 말도 나왔다(三十六年, 熒惑守心. 有墜星下東郡, 至地為石, 黔首或刻其石曰「始皇帝死而地分」. 因言曰: 「今年祖龍死」).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화성이 심수를 침범했다(熒惑守心)'라는 문구는 예부터 천문의 변화로 왕조의 미래를 예측한 행위를 기록한 것으로, 황제의 죽음을 암시하는 국가적 재난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으며, '금년에 조룡이 죽는다(今年祖龍死)'라는 문구는 진시황 자신을 가리키는 별칭인 '조룡'을 통해 그의 죽음을 암시한 것이다. 정리하면, 당시 진시황의 심리적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크게 다가온 심리 상태, 또한 그에 따른 사회적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시황은 37년부터 순행을 시작하여 『秦始皇本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37년 10월 계축일, 시황제가 순행을 나섰다. 좌승상 이사가 수행하고, 우승상 거질은 도성을 지켰다. 막내 아들 호해가 동경하여 따르기를 청하였고,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三十七年十月癸丑, 始皇出游. 左丞相斯從, 右丞相去疾守. 少子胡亥愛慕請從, 上許之).'라고 하였고 이 구절에 근거해 보면, 행차의 배경에는 외부 전역으로 보낸 사신 일행이 성과 없이 끝난 절박한 상황이 있었으며, 따라서 직접 순행을 통해 개인적인 목적이었던 불로장생약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시도였음을 추론하게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37년 10월 진시황이 순행을 시작한 후, 서불이 남긴 '「봉래의 약은 얻을 수는 있으나 항상 커다란 상어 때문에 고충을 당해 도달할 수 없사오니, 청하건대 활 잘 쏘는 사람과 함께 가서 상어가 나타나면 연노를 쏘도록 해 주십시오」(乃詐曰: 「蓬萊藥可得, 然常為大鯨魚所苦, 故不得至, 願請善射與俱, 見則以連弩射之」)'라는 구절은 진시황의 순행이 단순한 행차가 아닌 불로장생을 구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는 발견된 『北大簡』의 『趙正書』 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¹⁵⁾ "옛날 秦王 조정은 천하를 순행하다가, 백인으로 돌아와 병이 들었다. 병이 심해지고 우울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쉬고 좌우 신하들에게 말했다. 「천명은 바꿀 수 없나」. 「나 자신이 천명을 살펴보니, 나이 50세에 죽을 운명이다. 나는 14세에 즉위했고, 지금까지 37년을 통치해 왔다. 나는 올해 죽게 되겠지만, 그 달과 날짜는 알지 못하니, 천하를 순행하며 기운을 바꿔 천명을 바꿔보려 하는데, 안되는 것인가? 지금 병이 심해 거의 죽을 지경이다」(昔者, 秦王趙正出游{遊}天下, 環{還}至白{柏}人而病. 焉病薦{篤}, 愚{喟}然流涕長大{太}息, 謂左右曰: 「天命不可變于歟?」. 「吾自視天命, 年五十歲而死. 吾行年十四而立, 立卅七歲矣. 吾當以今{歲}死, 而不智{知}其月日, 故出游{遊}天下, 欲以變氣易命, 不可于{歟}? 今病薦{篤}, 幾死矣」.)라고 하여 秦始皇의 입장과 태도를 상세히 드러내 순행의 이유를 알 수 있는 문장이 기록되었으며, 특히 昆侖山으로 사절단을 보내 약초를 채취하게 했다는 刻石의 내용은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의 부합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신하를 파견해 불사약을 구하게 했다는 역사적 중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5) 姜生이 논문에서 언급하였으며, 문장의 이해를 돕고자 원문을 제시한다. 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編, 『北京大學藏西漢竹書[叁]』(全二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5年, 189쪽. 姜生, 「秦昆侖刻石考」, 『文史哲』第3期, 2025年.

이밖에, 石刻의 진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텍스트 사용 습관의 시대적인 부합성 역시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 石刻의 문체, 문법, 어휘 사용이 秦 나라 시대의 언어 관습에 타당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아래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지만, 결론을 먼저 언급하면 石刻 문자의 용어 사용 습관은 표준적인 秦 나라 서법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五大'의 '大'은 일반적으로 '大人'의 합문으로 풀이해야 하지만, 앞뒤 문맥에 근거하면 '大夫'로 풀이하여 '五大夫'로 읽어야 문장이 매끄럽다. '大夫'를 '大'로 서사하는 습관은 『睡虎地秦簡·傳食律』에도 보이는 형태로, 이는 秦 시기의 문장 사용 습관과 부합하는 부분이다.¹⁶⁾ 이뿐만 아니라 石刻의 마지막 단락인 '可一百五'의 '可'는 '대략', '대강'의 의미로 풀이해야 자연스러운데, 秦代 전래문헌인 『韓非子·外儲說左上』에서 "대략 몇백 걸음을 몰았으나, 말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니, 수레를 모두 놓고 달렸다(御可數百步, 以馬為不進, 盡釋車而走)."라고 하여 수량 앞에 '可'를 사용해 '추정', '대략', '대강'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두 자료에 보이는 '可'의 사용 습관 모두 '可 + 수량 + 명사'의 순서로 사용되어 수량, 거리를 어림하는 형태의 서사 방식으로 일정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본 석각이 秦 시기의 유물이라는 연대적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으로, 秦代의 대표적인 출토자료 중 하나인 『裡耶秦簡』의 글자 사용 습관과도 높은 일관성을 보인다. 石刻에서 '昆侖'의 '崙'을 '隴'으로 표시하였는데, 『裡耶秦簡』에 '琅邪獻昆隴五杏藥'라고 하여, 이 문장에 보이는 단어 '昆隴'의 표기와 일치한다.¹⁷⁾ 비록 秦簡의 昆隴는 동쪽의 琅邪 지역을 가리킨다고 하므로, 昆侖山 石刻의 昆崙과 동일한 지명인지 서로 다른 지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어원이 같다는 점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는 곧 '昆崙'을 '昆隴'로 쓴 것은 秦 시기의 글자 사용 습관임을 보여준다. 특히 劉釗은 이러한 특이한 표기법을 위조자가 발견하여 교묘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높은 학술적 소양을 요구하는 일로, 위조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학술적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¹⁸⁾

또한 참고할 만한 견해로, 中國美術學院의 馮麗는 석각의 문자는 평평하게 깎은 방식으로 秦代부터 西漢 시기의 고고학 자료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자형은 '秦代 양식'과 부합하지는 않지만, 만약 위조된 것이라면 秦 시기의 보편적인 서법을 어찌서 모방하지 않았는지를 의문하며, 결과적으로 서풍과 각법이 모두 秦 시기의 조각이라는 합리성을 지녔다고 분석하였다.¹⁹⁾

이밖에 덧붙여 언급할 부분으로, 刻石의 텍스트 사용의 배열법 또한 일정한 규칙을 유지하는데, 각석 문장에 보이는 '皇帝+使+□', '五大夫+臣+人名', '將+인명(또는 관직명)', '採藥+地名', '以+年月+幹支', '車+到此' 등의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인 배열은 진한 시기 문헌에 흔히 등장하는 형태이다.²⁰⁾

예컨대, 『史記·列傳·白起王翦列傳』의 "이듬해, ...진왕은 왕전으로 하여금 연을 공격하게 하니, 연왕회는 요동으로 달아났다(明年, ...秦王使王翦攻燕, 燕王喜走遼東)."와 『越絕書·外傳春申君』의 "진시황제가 왕전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멸하게 하였다(秦始皇帝使王翦滅之)."라고 하여 '통치자+使+명령 집행자'로 서술하였고, 『史記·秦本紀』의 "45년 오대부 분이 한을 공격하여, 10개의 성을 취하였다(四十五年, 五大夫賁攻韓, 取十城)."와 『史記·秦始皇本紀』의 "열후 무성후 왕리, ...오대부 조영, 오대부 양구가 따랐으며,

16)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編, 『睡虎地秦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1990年, 29쪽; 李洪財, 「漢簡中與重文號相關的幾個問題」, 『文物』第1期, 2023年, 39쪽; 姜生, 「秦昆崙刻石考」, 『文史哲』第3期, 2025年.

17) 曹旅寧, 「里耶秦簡“琅邪獻昆隴五杏藥”解說」, 『簡帛』, 發布時間: 2017年12月27日, <http://www.bsm.org.cn/?qinjian/7692.html>.

18) 劉釗, 「我對昆崙刻石的看法」,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發布時間: 2025年6月12日, 12쪽. <http://www.fdgwz.org.cn/Web/Show/11263>.

19) 馮麗, 「“昆崙刻石”應為秦代刻法與書風」, 『光明網』, 發布時間: 2025年8月4日, <https://baijiahao.baidu.com/s?id=1839471950981262367&wfr=spider&for=pc>.

20) 劉釗, 「我對昆崙刻石的看法」,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發布時間: 2025年6月12日, 11쪽. <http://www.fdgwz.org.cn/Web/Show/11263>. 劉釗, 「再論昆崙刻石」,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論文, 發布時間2025年 6月 30日, 40쪽, <http://www.fdgwz.org.cn/Web/Show/11273>.

해상에서 논의하였다(列侯武城侯王離, ……五大夫趙嬰, 五大夫楊樛從, 與議於海上)."라고 하여 秦 시기의 작위인 五大夫와 인명을 넣은 秦代 관료 문서의 형식을 반영해 기록하였다.

또한 『左傳·桓公九年』의 "초자가 도삭으로 하여금 巴의 客들을 **거느리고** 등에 가서 예를 갖추어 찾아보게 하였다(楚子使道朔將巴客以聘於鄧)."와 『淮南子·人間訓』 "몇 달을 머문 뒤, 그 말이 胡의 駿馬를 **거느리고** 돌아왔다(居數月, 其馬將胡駿馬而歸)."라고 하여 진·한대 전래문헌에서 '將+인명(또는 관직명)'을 결합해 복합어를 이루고 있으며, 군사, 순행 등을 서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법이다.

이뿐만 아니라, 『道家·列仙傳·赤斧』의 "**영산**에서 약을 **채집**하고, 멀리 남쪽에 백성을 교화하다(採藥靈山, 觀化南遐)."라는 '採藥+靈山'으로 쓰여 '동목 구조 + 장소 부사'의 형태로 쓰였거나, 또는 『吳越春秋·吳太伯傳』의 "두 사람은 형산에서 약초를 캐는 것을 핑계 삼아 형만 지역으로 갔다(二人託名採藥於衡山, 遂之荊蠻)."라고 하여 전치사 '於'를 사용하여 장소를 나타낸 특징을 제시할 수 있고, 『史記·李將軍列傳』의 "원삭 5년 경거장차가 되어, 대장군을 따라 우현왕을 공격하였고, 공이 있어 중술로 승진하였으며, 낙안후로 봉해졌다(以元朔五年為輕車將軍, 從大將軍擊右賢王, 有功中率, 封為樂安侯)."의 '以+年月'으로 쓰인 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到此' 역시 秦漢 이후의 용법으로, 『문헌』의 "漢文帝가 말하기를, '朕이 즉위하고 나서 [다른 나라를 정벌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다(孝文曰: 朕能任衣冠, 念不到此)."라고 하여 문법적 특징이 石刻의 서술 용법과 매우 유사하다.

정리하면, 石刻의 문장은 秦漢 시기 문헌의 서술 방식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더욱이 현재 모방 자료를 구할 수 없는 현재에 자형의 필적, 문체, 내용 고증 등 역사적 사실에 따라 세밀하게 구사한다는 사실은 매우 난해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²¹⁾ 즉, 모방할 수 있는 刊本이 없는 상황 속에서, 현대의 일반적인 위조자가 한 점의 흠집도 드러내지 않으며 역사적 사료의 내용을 옮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刻石의 문자는 전체적으로 필적과 구조 면에서 높은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여, 스타일이 하나로 통일되고 시대적 특징이 뚜렷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3. 刻石의 문자 특성 분석

앞서 제시한 [그림1]의 모사본과 탁본에서도 알 수 있듯이 '昆侖刻石'의 서체는 小篆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秦 시기의 필법과 문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익숙한 石鼓文, 秦山刻石, 秦詔版, 岳麓秦簡, 雲夢秦簡, 裡耶秦簡, 睡虎地秦簡 등의 秦 문자 스타일과 비교해도 유사해 보인다.

일부 학자는 昆侖刻石 자형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서술된 형태도 규칙적이지 않으며 글자 배열이 매우 어지러워 위작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하였으며,²²⁾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진대의 석각은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기물의 석각 또한 매우 희소한데, 秦 나라 영역 밖에 이러한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었다는 사실이 의심되며, 더욱이 석각의 결손으로 보았을 때 정상적인 풍화로는 형성이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²³⁾

즉, 昆侖刻石의 글자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자형도 秦 시기의 전형적인 서체로 보이지만, 서체의 형태와 배치, 서술된 구도의 특징, 보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21) 劉釗, 『再論昆侖刻石』,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論文, 發布時間: 2025年 6月 30日, 40쪽, <http://www.fdgwz.org.cn/Web/Show/11273>.

22) 劉紹剛, 『“昆侖石刻”獻疑』, 『光明日報』, 發布時間: 2025年7月2日, https://news.gmw.cn/2025-07/02/content_38128774.htm.

23) 李豪, 『“昆侖石刻”的三個疑點』, 『光明日報』, 發布時間: 2025年7月25日, <https://baijiahao.baidu.com/s?id=1838559941964728618&wfr=spider&for=pc>.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당시의 사회 배경과 생산력에 대한 전제 조건을 주의하지 않고 선불리 내린 판단이다. 가볍게 생각해 보아도 고대 시기 일반 피지배 계층의 사람들은 문맹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지배 계층 또한 모든 글자를 완벽하고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정형화된 글자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서사가 보편화된 오늘날에도 동일한 필체가 불가능한 것을 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욱이 매끄럽게 준비된 秦 시기의 여러 텍스트 자료의 글자 또한 모두 일률적으로 동일하지 않는데, 심지어 고지대의 황야에 험준한 절벽의 石壁이라는 새김이 어려운 곳에 제작되었다면 당연히 자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재료에 새겨진 글자와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昆侖刻石'의 첫 번째 글자인 '皇'을 제시하여 다른 秦 시기의 문자 형태와 비교해 보도록 한다.



일부, 秦 시기 '皇'의 서법에 근거하여 皇의 상부인 '白'자의 사선 획이 위로 모여서 하나의 꼭짓점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며, 하부의 '王'자 중간 획도 측면으로 가면 알아지는 동시에 가장 아래 수평 가로획이 아닌 아래로 휘어진 획은 선례가 없다고 한다.²⁴⁾ 그러나 이상 다른 秦 시기의 문헌 자료에서도 확인되듯이 皇의 형태는 텍스트 자료에 상관없이 모두 뚜렷한 시대적 특징과 통일된 풍격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동일한 문헌에서 정형화되지 않은 서로 다른 차이가 있는 형태 또한 전체적인 풍격은 동일하다. 즉, 미세한 서체의 차이는 흔한 현상으로, 서사자·서사 공간 등 지역적, 시기적 편차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획 하나 또는 단지 자형의 일부 형태를 근거로 위작이라 의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서체와 자형의 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刻石의 전체적인 문자 형태, 즉 '皇'자의 구성 요소 '白'의 형태, 앞서 언급한 '大夫'의 합문 기호의 위치, '方'자의 오른쪽 빼침을 먼저 쓰고 왼쪽으로 돌아오는 필획 전환 방식, '醫'자의 편방 '医'의 위로

24) 俞超, 「再談《昆侖刻石》——美好願景與實事求是」, 發布時間: 2025年6月21日, https://mp.weixin.qq.com/s/7wH2eQF2CDLHJOo9GG_Wv

돌출된 세로획 등은 완벽한 秦代 문자의 특징을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以'자의 구성요소 '人'의 쓰인 형태, '己'자 오른쪽 하단부의 늘어진 형태, '年'자의 구성 요소 '禾' 윗부분이 왼쪽 사선으로 관통하는 획, '到'자의 구성 요소 '至' 윗부분 사선 획의 벌어진 모양, '此'자의 구성 요소 '匕'가 아래로 길게 뻗어 내려가는 형태 등 모두 秦漢 시기의 서사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²⁵⁾ 또한 이러한 특징들은 秦漢 시기의 다양한 출토 문자 자료(석각문자, 인장문자, 죽간문자, 봉니문자, 도문, 권량문자, 옥석문자 등)와 비교했을 때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며, 이는 昆侖刻石이 秦代의 유물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로 여겨진다.

이 외에도, 만약 昆侖刻石이 위작이라면, 우선적으로 상당한 학식이 축적된 위조자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더욱이 눈에 잘 띄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고원 지대 황야일 뿐만 아니라, 접근도 어렵고 발견도 어려운 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비용을 감수하며 위조했다는 합리적인 동기가 부족해 보인다.

6. 결론

본 발표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昆侖刻石은 秦代 문자의 형체 특징과 서사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당시의 역사적 맥락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작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여러 의혹은 최근의 고해상도 사진 분석과 추가 연구를 통해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본다.

위작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 이 각석을 위조하기 위해서는 고대 한어에 정통하고, 진한 시기의 문체와 언어 습관에 대한 깊은 이해, 秦代 문자의 글자체 특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며, 이 모든 조건을 갖추어 완벽한 위조물을 제작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곤륜각석은 진시황 37년(기원전 210년) 3월 기묘일에 오대부 익이 곤륜산에서 약을 채취하러 가는 여정에서 남긴 기록으로, 당시 진나라의 서역 진출과 불로장생 추구에 관한 중요한 역사적 증거이자, 秦代 문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秦 나라의 문화·지리적 영향력과 고대 중국의 동서 교류사 연구에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25) 발표문 지면의 제한으로 劉釗의 견해를 참고해 작성했으며, 보다 심도 있는 보충 분석이 필요하다. 劉釗, 「我對昆侖刻石的看法」,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發布時間: 2025年6月12日, 11쪽.
<http://www.fdgwz.org.cn/Web/Show/11263>.

《世說新語·劉孝標注》人稱代詞研究

李鑫庚*

< 目 次 >

- I. 引言
 - II. 人稱代詞
 - 1. 第一人稱代詞
 - 2. 第二人稱代詞
 - 3. 第三人稱代詞
 - 4. 反身代詞
 - V. 結論
-

I. 引言

代詞主要分爲人稱代詞、指示代詞、疑問代詞三大類¹⁾，部分分類下還包含細分小類，核心功能是替代名詞、動詞、形容詞或句子等，避免重復。人稱代詞用于指代人或事物，可分爲第一人稱代詞、第二人稱代詞、第三人稱代詞、反身代詞。指示代詞用于指明或限定人、事物的位置、時間、數量等，可分爲近指代詞（指代距離近或時間近的對象）、遠指代詞（指代距離遠或時間遠的對象）、旁指代詞、統指代詞、逐指代詞、無定代詞、特殊代詞。疑問代詞用于提出疑問，詢問人、事物、時間、地點、方式等。

清朝乾隆時期編纂《四庫全書總目》時，四庫館臣在談到《世說新語·劉孝標注》時，就已將其與《三國志·裴松之注》、《水經·酈道元注》、《文選·李善注》並稱，認爲它們同爲考証家所引據²⁾。錢穆在《中國史學名著》中提到，劉孝標的《世說新語注》和裴松之的《三國志注》、李善的《文選注》、酈道元的《水經注》，是當時四部有名的史注。

《世說新語·劉孝標注》既考証人物、事件，也指出書中存疑之處，是魏晉南北朝時期的代表性文獻，鮮活的語料以對話式口語實錄的形式呈現在我們面前，真實地反映了中古初期的語言面貌。本文通過對文獻中人稱代詞的使用頻次、語法功能等進行統計分析，探究其使用特征，爲漢語人稱代詞的歷時演變研究提供微觀層面的實証參考。

* 제1저자 : 李鑫庚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lixingeng093@gmail.com)

1) 黃伯榮、廖序東(主編)(2002),『現代漢語.下冊』,北京:高等教育出版社, p21

2) 韓國磐(著)(1983),『魏晉南北朝史綱』,北京:人民出版社, p587

II. 人稱代詞

1. 第一人稱代詞

1) “我”字在60條注文中出現，共使用87次。

①用作主語，共26條33次。

其中，句子主語25條30次，如：

我殷侯吏，見遇以國士，不能共殄醜逆，致此奔敗，何面目就桓求生乎？(1.43B3)

我淮南已來，畫無遺策，四海共知，持此欲安歸乎？(2.12B1)

任賢使能，各盡其心，我不如卿。(13.11B2)

主謂短語作賓語時，作主謂短語的主語，共3條3次，如：

凡人損己以贍人者，謂彼急我緩也。今彼此正等，何爲與人？(2.9B2)

臺下云我反，反豈得活邪？(5.34B1)

猶不廢我嘯歌。(8.97B1)

②用作賓語，共26條32次，其中7條8次出于所引《詩經》《莊子》《論語》《春秋傳》《列仙傳》，可不計，余19條24次。

其中，作動詞賓語，13條18次，如：

先君曰：‘年少何以問我？’(2.15B1)

昭垂涕問陳泰曰：‘何以居我？’(5.8B3)

峻怒曰：‘庾亮欲誘殺我也！’遂克京邑。(27.8B1)

作介詞賓語，5條5次，如：

自汝得之，於我何有？(4.68B3)

經正直，不忠於我，故談之。(19.10B1)

刊定律令，爲佐命之功，我有其分，李那得與我並！(19.13B5)

作判斷詞賓語1條1次，如：

此必爲我也！(8.43B1)

③用作定語，共16條19次，其中1條1次出于所引《詩經》，可不計，余15條18次，如：

不意我家昌明便出。(2.89B1)

我衣惡，那得見貴人？(5.18B5)

吾以天地爲宅舍，以屋宇爲幃衣，諸君自不當入我幃中，又何惡乎？(23.6B1)

④用作兼語，2條2次，其中1條1次出于所引《莊子》，可不計，余1條1次，如：

卿尚不去，使我成薄德二千石。(22.4B1)

⑤用作人名，1條1次，出于所引《論語》，可不計，如：

《論語》曰：“宰我問：‘三年之喪，暮已久矣。’”(10.3B1)

宰我，名予，字子我，是人名，他是孔子的著名弟子，位列“孔門十哲”之一，以善于言辭、敢于質疑著稱。他最著名的典故是曾質疑“三年之喪”的合理性，與孔子展開辯論，展現了獨立思考的特質。

由上述統計分析可知，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我”常用于作主語，其次是作賓語，再次是作定語，極少數用作兼語。

2) “吾”字在77條注文中出現，共使用109次。

①用作主語，共53條70次，其中作句子主語50條64次，如：

吾乃舉故太尉荀景倩、尚書董仲達、僕射王公仲。(1.15B1)

司馬昭之心，路人所知也，吾不能坐受廢辱。(5.8B1)

吾欲告爾以養性，誨爾以優游，而以蟻蝨同情，不聽我謀。(25.7B6)

主謂短語作賓語時，作主謂短語的主語，共3條6次，如：

此兒神爽聰令，與衆大異，恐吾年老，不及見爾。(7.8B1)

自吾得由也，惡言不入於耳，是非禦侮邪？(9.50B1)

此是吾授命之日。(15.1B4)

②用作賓語，共6條7次，

其中，作動詞賓語，3條3次，如：

復問吾。(1.15B1)

卿昔不顧吾，今可爲交未？(5.2B1)

此人尤能以通家年少遇我，子元、子上不吾容也。(5.6B1)

作介詞賓語，3條3次，如：

卿便爲吾作。(5.6B2)

爲吾更思其次。(5.8B3)

常恐祖生先吾著鞭耳。(8.43B1)

作間接賓語，1條1次，如：

上顧謂吾等曰：‘必不得已而去，於斯三者何先？’(1.15B1)

③用作定語，共25條27次，如：

是吾奉祿之餘，故以爲汝糧耳。(1.27B3)

有貴介公子，縉紳處士，聞吾風聲，議其所以。(4.69B1)

吾才不如弟，位亦通塞，請以餘年代弟。(17.16B2)

④用作兼語，1條3次，如：

今欲使吾爲忠也，卽當如伍胥、屈平。(25.7B6)

欲使吾爲信也，則當殺身以成名。(25.7B6)

欲使吾爲介節邪，則當赴水火以全貞。(25.7B6)

⑤用作人名，2條2次，出于所引《史記》《莊子》，可不計，如：

《史記》曰：“管仲夷吾者，潁上人，相齊桓公，九合諸侯，一匡天下。”(2.36B1)

《莊子》曰：“肩吾問於連叔曰：‘吾聞言於接輿，大而無當，往而不反，怪怖其言，猶河漢而無極也。’”(2.75B1)

由上述統計分析可知，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吾”常用于作主語，其次是作定語，再次是作賓語，極少數用作兼語。

3) “余”字在10條注文中出現，共使用11次。

①用作主語，共6條7次，均爲句子主語。如：

余少慕老莊之道，仰其風流久矣。(2.84B1)

余兼虎賁中郎將，寓直於散騎之省。(2.107B2)

余尋師，來入經吳，行達昌門，忽覩斯亭，傍川帶河，其榜題曰‘金昌’。(26.7B1)

②用作定語，共4條4次，如：

感不絕於余心，遡流風而獨寫。(4.92B2)

余友有秦生者，雖有姊夫之尊，少而狎焉。(25.7B6)

余同僚桓子野，有故長笛，傳之耆老，云蔡邕伯喈之所製也。(26.20B1)

由上述統計分析可知，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余”用于作主語和定語，實用頻率不高。

4) “予”字在7條注文中出現，共使用8次，其中1條1次用作動詞，為“給予”之意，可不計。

①用作主語，共3條3次，均為句子主語，出于所引《禮記》《孔子家語》和誄文，如：

天乎，予之無罪也。(6.1B3)

命也夫！歌，予和汝。(5.36B2)

咨予與公，風流同歸。(5.48B1)

②用作賓語，共2條3次，均為動詞賓語，其中1條2次出于所引《公羊傳》。如：

弼之卒也，晉景帝嗟歎之累日，曰：‘天喪予！’(4.6B2)

《公羊傳》曰：“顏淵死，子曰：‘噫！天喪予！’子路亡，子曰：‘噫！天祝予！’”(17.18B2)

③用作定語，共1條1次，出于所引《詩經》，如：

角枕粲兮，錦衾爛兮，予美亡此，誰與獨旦？(25.36B1)

由上述統計分析可知，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予”的使用頻率非常低，雖然可被用作主語、賓語、定語，但大多出自所引上古文獻。

5) “身”字在43條注文中出現，共使用49次。其中，用作第一人稱代詞僅2次。

①用作賓語，作介詞賓語，1條1次，如：

君太不逮，須食，何不就身求，乃至於此！(23.41B1)

譯文：您太不像話了，需要食物，為什麼不向我要，竟然到這種地步！

②用作定語，共1條1次，如：

君後當居身處。(2.47B1)

譯文：你今后會坐到我的位置。

用作主語和兼語，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沒有找到實例，但是在《世說新語》和《三國志》中均有實例，只是使用頻率較低。如：

用作主語：

身不如夷甫。(25.29A1)

譯文：我不如王夷甫。

《三國志·蜀志·張飛傳》：“飛据水斷橋，瞋目橫矛曰：‘身是張益德也，可來共決死！’”

譯文：張飛占据河岸、截斷橋梁，瞪大眼睛、橫握長矛說道：“我是張益德（張飛字益德，部分史料作“翼德”），你們可敢過來和我決一死戰！”

用作兼語：

君道身最得。(8.148A1)

譯文：您說我最得體。

由上述統計分析可知，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身”可用于作賓語和定語，但是使用頻率極低，僅各有1例，“身”作名詞“軀體”之意和反身代詞“自己”之意的實例較多，分別為14例和22例。沒有用作主語和兼語的實例。在《世說新語》原文中，“身”在28條原文中共出現31次，其中作主語有7例，作兼語、定語、賓語均各有1例，“身”作名詞“軀體”之意和反身代詞“自己”之意的實例較多。

6) “朕”字在1條注文中出現，共使用1次，用于皇帝自称，在文中作定語，如：

我兄弟至親，今出齊王，自朕家計，而甄德、王濟連遣婦入，來生哭人邪？(5.11B1)

譯文：齊王是我關係最親近的兄弟，如今讓他去藩國，本是我家族內部的事，可甄德、王濟竟然接連派妻子入宮，這是來哭喪的嗎？

根據張玉金的研究成果可知“朕”在西周漢語中絕大多數是作定語，其次是做主語，“朕”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作定義且僅有1例，通過歷時對比可知，“朕”從上古到中古，使用頻率越來越低。

小結：

結合上面的統計分析，對比已有研究成果³⁾，我們可以得出下表：

第一人 稱代詞	左傳		世說新語		世說新語注	
	頻次	百分比	頻次	百分比	頻次	百分比
我	597	41.7%	165	67.1%	79	38.7%
吾	664	46.3%	60	24.4%	107	52.5%
余	167	11.7%	5	2.0%	11	5.4%
其他	5	0.3%	16	6.5%	7	3.4%
合計	1433	100%	246	100%	204	100%

由上圖可知，《世說新語·劉孝標注》中使用頻率最高的第一人称代詞是“吾”，其次是“我”，由張玉金的研究成果可知，春秋時期，高頻使用的第一人称代詞是“我”和“余”，“吾”在其統計的文獻資料中使用頻率極低，僅為個位數⁴⁾，通過歷時對比，我們可以清晰地看到從上古到中古初期，“吾”的使用頻率越來越高，甚至超過了“我”的使用頻率，“我”從上古開始一直是被高頻使用的第一人称代詞。

何樂士選取《左傳》進行統計分析，“吾”的使用頻率最高，張玉金選取“春秋金文”進行統計分析，“吾”的使用頻率是各位數，這說明不同的文獻作品中第一人称代詞的使用情況是有很大差異的，我們對每一種文獻材料進行認真研究是非常重要的。

3) 何樂士(2000), 「《左傳》的人稱代詞」, 『古漢語語法研究論文集』, 北京: 商務印書館

4) 張玉金(2008), 「春秋時代第一人称代詞研究」, 『語言研究』, (4), pp.66-72

《世說新語·劉孝標注》中“我”和“吾”的使用頻次及所占比重如下圖所示：

	我		吾	
	頻次	百分比	頻次	百分比
主語	33	43.40%	70	65.40%
賓語	24	31.60%	7	6.60%
定語	18	23.70%	27	25.20%
兼語	1	1.30%	3	2.80%
合計	76	100%	107	100%

黃盛璋認為第一人稱代詞“吾”在文言文中主要用作主語和定語⁵⁾，本文在精確統計和認真分析之後得出的結論是，“吾”和“我”均可作主語、賓語、定語、兼語，只是使用頻率不同罷了，它們功能齊全，這也是“我”與“吾”作為第一人稱代詞在漢語史中長期被使用的原因。

2. 第二人稱代詞

1) “汝”字在55條注文中出現，共使用68次，其中用作水名或地名25條31次，可不計。

①用作主語，共16條18次，均為句子主語，如：

汝何不樂乎？復從牛醫兒所來邪？(1.2B1)

商，汝何無罪也？(6.1B3)

汝出問，是誰家兒？(26.6B1)

②用作賓語，共9條9次，其中，作動詞賓語，5條5次，如：

何以爲勝汝邪？(1.27B3)

往所以止汝者，恐不得其所也。(19.10B1)

我見汝亦憐，何況老奴。(19.21B2)

作介詞賓語，4條4次，如：

自汝得之，於我何有？(2.45B2)

今日當與汝言。(8.17B1)

食夫稻，衣夫錦，於汝安乎？(10.3B1)

③用作定語，共6條6次，如：

是吾奉祿之餘，故以爲汝糧耳。(1.27B3)

誰是汝父？(5.18B5)

特當借汝死以厭衆心。(27.3B1)

④用作兼語，3條4次，如：

選曹舉汝爲尚書郎，幸可作諸王佐邪？(5.46B2)

我只見汝送人作郡，何以不見人送汝（兼語）作郡？(23.41B1)

5) 黃盛璋(1963)，「古漢語的人身代詞研究」，『中國語文』，(6)，pp.443-472

⑤用作水名或地名，25條31次，可不計，如：

黃憲字叔度，汝南慎陽人。(1.2B1)

汝、潁固多賢士，自頃陵遲，雅道殆衰，今復見周伯仁。(2.30B1)

祖猷，侍中。父勛，臨汝令。(2.83B2)

由上述統計分析可知，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第二人称代詞“汝”常用于作主語，其次是作賓語，再次是作定語，少數用作兼語。

2) “爾”字在41條注文中出現，共使用50次，其中用作句末語氣詞9條9次，用作指前文所提內容的代詞18條18次，用作詞尾4條4次，用作書名2條4次，可不計，余10條15次。

①用作主語，共6條8次，均為句子主語，如：

夫有陰德，必有陽報，爾無憂也。(1.31B3)

爾為善，善，人疾之。(19.5B1)

爾安見君子乎！(25.62B1)

②用作賓語，共2條3次，其中，作動詞賓語，1條1次，如：

晉德靈長，功豈在爾？(25.24B1)

作間接賓語，1條2次，如：

吾欲告爾以養性，誨爾以優游，而以蟣蝨同情，不聽我謀。(25.7B6)

③用作定語，共2條4次，如：

少與孔融作爾（定語）汝之交，時衡未滿二十，融已五十。(2.8B1)

喪爾（定語）子，喪爾（定語）明，爾（主語）罪三也。(6.1B3)

④用作句末語氣詞，9條9次，如：

此兒神爽聰令，與衆大異，恐吾年老，不及見爾（語氣詞）(7.8B1)

況輅心過草木，注情葵藿，敢不盡忠！唯察之爾（語氣詞）。(10.6B1)

劉氏，政謂其姑爾（語氣詞），非指其女姓劉也。(27.9B1)

⑤用作指前文所提內容的代詞，18條18次，如：

夫見兩頭蛇者必死，今出見之，故爾（指前文提到的哭泣）。(1.31B3)

不爾（指前文提到的動作），何由測天之高也？(2.66B2)

正自不能不爾（指前文提到的做法。）(6.29B2)

⑥用作詞尾，4條4次，如：

兀然而醉，慌爾（詞尾）而醒，靜聽不聞雷霆之聲，熟視不見太山之形，不覺寒暑之切肌，利欲之感情。(4.69B1)

蘇門先生乃迪爾（詞尾）而笑。(18.1B1)

初，安之交康也，其相思則率爾（詞尾）命駕。(24.4B1)

⑦用作書名，2條4次，如：

《爾（書名）雅》曰：“東南之美者，有會稽之竹箭焉。”(2.34B2)

由上述統計分析可知，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第二人称代詞“爾”可用于作主語、賓語、定語，使用頻率較低。

3) “吾子”在2條注文中出現，共使用2次。

①用作主語，共1條1次，如：

吾子行矣！(19.10B1)

②用作介詞賓語，1條1次，如：

二陸龍躍於江、漢，彥先鳳鳴於朝陽，自此以來，常恐南金已盡，而復得之於吾子。(8.19B

1)

由上述統計分析可知，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第二人称代詞“吾子”可用于作主語、賓語，使用頻率較低。

“吾子”是古漢語中常用的第二人称尊稱，字面可理解為“我的先生或者您”，核心含義是對對方的敬重，比“子”“君”的敬意更委婉親切，常用于對同輩或晚輩中賢德、有才華者的稱呼，是通過“吾”（我的）與“子”（對人的尊稱）的組合，表達“我所敬重的人”這一含義，常見於書信、對話等正式或半正式場合。根據已有研究成果，《左傳》中已出現77⁶⁾個用例，說明“吾子”在上古已經較為通行。查閱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CCL語料庫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檢索“吾子”，在古代漢語語料庫中可查到萬余條“吾子”作為第二人称代詞的用例，從《春秋》《左傳》《國語》等文獻開始，其後歷朝歷代的文獻中均有實例。現代漢語語料庫中無此用例。

4) “子”字在448條注文中出現，共使用814次，其中用作第二人称代詞共50次。

①用作主語，共16條32次，如：

大道東矣，子（主語）勉之！（4.1B2）

譯文：大道向東而去了，你要努力啊！

子（主語）冠冕不戴，金銀不佩，釵以當笄，幘以代幘。(25.7B6)

譯文：你不戴冠冕，不佩金銀，用釵代替簪子，用便帽代替頭巾。

②用作賓語，共7條11次，如：

吾亦與子（賓語）採南山蕨，飲三江水爾。(7.10B1)

譯文：我也和您一起去採南山的蕨菜，飲三江的水吧。

子（主語）厭我於形容，我賤子（賓語）乎意態。(25.7B6)

譯文：你嫌棄我的形貌，我鄙視你的神態。

③用作定語，共4條7次，如：

子（定語）親伊姑，我父唯舅。(8.139B3)

譯文：你親是我姑母，我父是你舅舅。

如子（定語）之言，則蘧瑗、季札之徒，皆負責矣。(29.3B1)

譯文：按照你的說法，則蘧伯玉、季札這樣的人，都要被指責了。

由上述統計分析可知，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第二人称代詞“子”常用于作主語，其次是作賓語、定語。

5) “卿”字在80條注文中出現，共使用100次，其中用作第二人称代詞共51次。

①用作主語，共31條36次，如：

卿（主語）何妄生同異，疑誤朝野。(8.153B1)

6) 夏先培(1997),「《左傳》的“吾子”“夫子”和“數詞+子”的結構」,『長沙電力學院社會科學學報』,(3), pp.119-122

卿（主語）有何癖？（20.4B1）

卿（主語）形雖散朗，而內勁狹，以此處世，難得其死。（32.1B1）

②用作賓語，共7條7次，如：

今日當與卿（賓語）自出討之。（5.8B1）

吾之不足盡卿（賓語），如此射矣！（8.17B2）

舉江東之衆，決機於兩陳之間，卿（主語）不如我；任賢使能，各盡其心，我不如卿（賓語）。（13.11B2）

③用作定語，共8條8次，如：

今視卿（定語）盃甚似，得盃本末，可得聞不？（5.18B5）

世論卿（定語）書不逮獻之。（9.75B1）

向誤入卿（定語）室內。（30.2B1）

由上述統計分析可知，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第二人称代詞“卿”常用于作主語，其次是作賓語、定語。

6) “而”字在425條注文中出現，共使用775次，其中用作第二人称代詞1次。

①用作定語，共1條1次，如：

而父見執。（2.5B1）

由上述統計分析可知，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第二人称代詞“而”可用作定語，僅有1例。

綜上，《世說新語·劉孝標注》中，第一人称代詞和第二人称代詞出現的頻率可匯總如下：

	頻次				合計
	主語	賓語	定語	兼語	
我	33	24	18	1	76
吾	70	7	27	3	107
余	7		4		11
予	3	3	1		7
身		1	1		2
朕			1		1
汝	18	9	6	4	37
卿	36	7	8		51
子	32	11	7		50
爾	8	3	4		15
吾子	1	1			2
而			1		1
合計	208	66	78	8	360

3. 第三人称代詞

第三人称代詞是指代說話双方之外第三方（人或事物）的代詞，核心作用是避免名詞重復，讓表達更簡潔。

1) “之”字在805條注文中出現，共使用2045次，其中用作人名223次，用作助詞993次，用作動詞11次，可不計。用作第三人称代詞818次。

①用作動詞賓語，共729次，如：

蕃在豫章，爲穉獨設一榻，去則懸之（動詞賓語），見禮如此。（1.1B5）

晉安西將軍伐蜀，勢歸降，遷之（動詞賓語）揚州。（7.20B1）

石崇有妓人綠珠，美而工笛，孫秀使人求之（動詞賓語）（36.1B1）

②用作介詞賓語，共29次，如：

每與之（介詞賓語）言，言及玄遠，而未嘗評論時事，臧否人物，可謂至慎乎！（1.15B1）

玄叔父安曾爲吳興，玄少時從之（介詞賓語）遊，故珉云然。（6.38B3）

說寶父常致飲食，與之（介詞賓語）接寢，恩情如生。（25.19B2）

③用作意動賓語，共27次，如：

子魚本欲作老吏，故榮之（形容詞意動賓語）耳。（1.11B2）

戎爲兒童，鍾會異之（形容詞意動賓語）。（8.6B1）

孫權見而奇之（形容詞意動賓語），謂瑾曰：‘藍田生玉，真不虛也。’（25.1B2）

④賓語“之”后接補足語，共16次，如：

諸葛誕反，文王征之（動詞賓語），會謀居多，時人謂之（間接賓語）子房。（2.12B1）

今之（助詞）水牛唯生江淮間，故謂之（間接賓語）吳牛也。（2.20B2）

澄放蕩不拘，時謂之（間接賓語）達。（24.6B2）

⑤用作使動賓語，共7次，如：

宣王出游，吉甫從，伯奇乃作歌，以言感之（使動賓語）。（2.6B4）

豈唯蒸之（動詞賓語）使重無使輕，芬之（使動賓語）使香勿使延哉？（4.21B2）

而一旦如此，無乃欲除疾而更深之（使動賓語）邪？（19.10B1）

⑥用作爲動賓語，共3次，如：

今日之（助詞）事，我必死之（爲動賓語）。（1.43B3）

于以誅之（爲動賓語），爰旌芳郁。（4.102B1）

桓公殺公子糾，召忽死之（爲動賓語），管仲不死。（9.41B1）

⑦用作前置賓語，共7次，如：

長八尺，每自比管仲、樂毅，時人莫之（賓語前置）許也。（5.5B1）

隱德，人莫之（賓語前置）知，雖兄弟宗族亦以爲癡。（8.17B1）

嘗私入常侍張讓宅中，讓乃手戟於庭，踰垣而出，有絕人力，故莫之（賓語前置）能害也。（27.1B1）

由上述統計分析可知，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第三人稱代詞“之”常用于作賓語。

2) “其”字在370條注文中出現，共使用663次。其中，用作副詞、指示代詞、人名共33次，可不計，余630次。

①用作主語，共80次。

其中，句子主語40次，如：

其（主語）婉約遜遁如此。（2.9B2）

其（主語）見重如此。（8.31B1）

其（主語）得如此乎？（33.4B1）

主謂短語作賓語時，作主謂短語的主語，共40次，如：

仲堪見其（主謂結構主語）無脫理，策馬而去。(1.43B3)

善屬文，時人謂其（主謂結構主語）有祖楚風。(9.59B1)

浩雖廢黜，夷神委命，雅詠不輟，雖家人不見其（主謂結構主語）有流放之戚。(28.5B1)

②用作賓語，共10次，。

其中，作動詞賓語，6次，如：

桓彝見其（賓語）四歲時，稱之曰：‘此兒風神秀徹，當繼蹤王東海。(1.34B1)

或勸其（賓語）詣京師貴游者。(2.8B1)

寧可使其（賓語）若此？(5.62B2)

太傅謝安見其（賓語）少時。(7.24B1)

作介詞賓語，2次，如：

當時名流皆爲其（介詞賓語）美譽。(8.82B1)

從弟緒，有寵於王，深爲其（介詞賓語）說，國寶權動內外。(10.26B1)

作間接賓語2次，如：

所誣胡厚德攸，遺其（間接賓語）驢馬護送，令得逸。(1.28B1)

賜其（間接賓語）鞠養。(19.31B2)

③用作定語，共538次，如：

巨伯，漢桓帝時人也。亦出潁川，未詳其（定語）始末。(1.9B1)

阮裕少有德行，王敦聞其（定語）名，召爲主簿。(8.55B2)

林宗賞其（定語）介決，因以知其（定語）德性，謂必爲美士，勸令讀書。(28.6B2)

④用作兼語，2次，如：

或勸其（兼語）詣京師貴游者。(2.8B1)

天籟者，吹萬不同，而使其（兼語）自己也。(4.46B1)

⑤用作副詞，共18次，表推測、祈使或加強語氣，可不計，如：

然天下之至慎者，其（推測副詞）唯阮嗣宗乎？(1.15B1)

其（祈使語氣副詞）令八坐議，吾將折其（定語）衷。(33.9B2)

按傅暢、千寶所記，則是經實忠貞於魏，而《世語》既謂其（定語）正直，復云因沈、業申意。何其（語氣副詞）相反乎？(19.10B1)

⑥用作指示代詞，共12次，可不計，如：

後來匡主寧民，君其（指示代詞）人也。(2.47B1)

其（指示代詞）時，衆人爲之失色。(5.28B1)

玠以永嘉六年五月六日至豫章，其（指示代詞）年六月二十日卒。(14.19B1)

⑦用作人名，共3次，可不計，如：

後漢時大司徒、伏三老、江革、逢萌、禽慶、承幼子、徐防、薛方、鄭康成、周孟玉、劉祖榮、臨孝存、侍其（人名）元矩、孫賓碩。(2.72B2)

項羽急圍漢王於滎陽，漢王與酈食其（人名）謀撓楚權。食其（人名）勸立六國後，王令趣刻印。(7.7B2)

由上述統計分析可知，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其”常用于作定語，其次是作主語，少數用作賓語，極少數用作兼語。

3) “彼”字在23條注文中出現，共使用26次。其中，用作指示代詞6次，可不計，余20次。

①用作主語，共11次。

其中，句子主語10次，如：

彼（主語）良醫也，懼傷我焉。（4.14B2）

彼（主語）晉三公，不爲我用。（8.16B1）

彼（主語）則一時之爲也。（23.45B1）

彼（主語）爲誰也？（24.2B1）

主謂短語作賓語時，作主謂短語的主語，共1次，如：

樂令之言有旨哉。謂彼（主謂短語主語）非玄心，徒利其縱恣而已。（23.13B1）

②用作賓語，共5次。

其中，作動詞賓語，2次，如：

後注《周易》，大義可觀，而與漢世諸儒互有彼（賓語）此，未若隱《莊》之絕倫也。（4.17

B1）

如眼觸目，則不能見彼（賓語）。（4.48B2）

作介詞賓語，3次，如：

物定於彼（介詞賓語），非名不辨。（4.21B3）

王處仲得志於彼（介詞賓語），家叔猶不免害，豈能容我？（8.35B1）

然愈於彼（介詞賓語）。（10.2B1）

③用作定語，共4次，如：

裴徽通彼（定語）我之懷，爲二家釋。（4.9B3）

彼（定語）國僧衆，皆稱漢地有大乘沙門。（4.61B1）

彼（定語）節者有間，而刀刃無厚，以無厚入有間，恢恢乎其於遊刃必有餘地。（25.53B1）

④用作指示代詞，共6次，可不計，如：

常謂彼（指示代詞）人不達堯意，本非所慕也。（2.18B1）

波羅密，此言到彼（指示代詞）岸也。（4.50B3）

彼（指示代詞）多君子，上勝可投。（8.114B1）

由上述統計分析可知，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彼”的使用頻率不高，常用于作主語，其次是作賓語和定語，沒有用作兼語的實例。

4) “伊”字在15條注文中出現，共使用21次。其中，用作人名16次，用作水名和地名各1次，用作聯綿詞2次，可不計，用作第三人稱代詞，作定語1次。

“郁伊”是聯綿詞，且屬於聯綿詞中的“雙聲疊韻”類（“郁”與“伊”古音相近，韻部關聯）。它的特点是兩個字不能拆開單獨表意，必須組合成“郁伊”才能表達“憂愁、煩悶”的核心含義，拆開後的“郁”或“伊”均無法單獨承載這一完整語義，完全符合聯綿詞“形義結合、不可拆分”的本質特征。

“淹伊”是古典文學中的聯綿詞，核心含義是形容人神態上的“憂愁舒緩、溫婉纏綿”，常用來描繪帶有淡淡愁緒却又不失柔美、嫵靜的模樣。它無法拆字理解，整體表義。

由上述統計分析可知，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伊”作爲第三人稱代詞使用頻率極低。

4. 反身代詞

1) “己”字在40條注文中出現，共使用42次，其中用作人名2次，可不計，余40次。

①用作主語，共2次。

其中，句子主語1次，如：

且己（主語）所不解，上人未必能通。（4.43B2）

主謂短語作賓語時，作主謂短語的主語，共1次，如：

殷仲堪舉兵，覬弗與同，且以己（主謂短語主語）居小任，唯當守局而已。（10.23B2）

②用作賓語，共31次。

其中，作動詞賓語，27次，如：

其友巢父聞由爲堯所讓，以爲汚己（賓語），乃臨池洗耳。（2.1B3）

武見而偉之，以爲勝己（賓語），知人多此類。（8.13B1）

仲堪以人情注於玄，疑朝廷欲以玄代己（賓語）。（33.17B1）

作介詞賓語，4次，如：

壽以亮將與己（介詞賓語）異，又恐其協情不允，累啓亮可爲左丞相，非選官才。（3.7B1）

功不爲己（介詞賓語），志存廣濟。（4.37B1）

夫生代死者，以己（介詞賓語）年限有餘，得以足亡者耳。（17.16B2）

③用作定語，共6次，如：

冠帶以下，皆割己（定語）之資供鑒。（1.24B1）

逖既有豪才，常忼慨以中原爲己（定語）任。（8.43B1）

忖己（定語）德量不及謝安，故解揚州以讓安，自謂少經軍鎮。（33.16B1）

④用作兼語，1次，如：

言己（兼語）當王，應符命也。（7.22B1）

⑤用作人名，2次，可不計，如：

《帝王世紀》曰：“殷高宗武丁有賢子孝己（人名），其母蚤死，高宗惑後妻之言，放之而死，天下哀之。”（2.6B3）

《魏氏春秋》曰：“五官將納熙妻也，孔融與太祖書曰：‘武王伐紂，以妲己（人名）賜周公。’太祖以融博學，真謂書傳所記。後見融問之，對曰：‘以今度古，想其然也。’”（35.1B1）

由上述統計分析可知，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己”常用于作賓語，其次是作定語，極少數用作主語和兼語。

2) “身”字在43條注文中出現，共使用49次。其中，用作反身代詞22次，意爲“自己”。

①用作主語，共9次，如：

身（主語自己）不跨馬，射不穿札，而每有大事，輒在將帥之限。（5.12B1）

雖身（主語自己）登顯列，而每挹降，閒靜自守而已。（8.88B2）

身（主語自己）自織屨，令妻擗繡，以易衣食。（13.9B1）

②用作賓語，共13次，

其中，作動詞賓語，12次，如：

不脩身（賓語自己）而求之人，不亦外事者乎？（2.108B3）

仁則仁矣，恐不免其身（賓語自己）。（4.55B2）

胡之治身（賓語自己）清約，以風操自居。（8.131B2）

作介詞賓語，1次，如：

以一身（介詞賓語自己）勞百姓，非吾先君文王之志也。（10.27B1）

由上述統計分析可知，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身”用于作主語和賓語，沒有作定語和兼語的實例。

3) “自”字在237條注文中出現，共使用322次，其中用作介詞83次，用作副詞65次，用作固定搭配4次，可不計，余170次。

①用作主語，共112次。

其中，句子主語104次，如：

每至客舍，自（主語）放驢，取樵爨炊。（1.27B3）

自（主語）知終日，開棺無屍，唯袈裟法服在焉。（2.45B1）

自（主語）取死耳。（32.1B1）

主謂短語作賓語時，作主謂短語的主語，共8次，如：

凡諸注解，皆思自（主謂短語主語）爲，欲重其文，故假時人名姓也。（4.68B4）

劉琨知軼必敗，謂其自（主謂短語主語）取之也。（7.9B1）

而《世說》云自（主謂短語主語）不肯還，謬矣。（19.13B5）

②用作賓語，共57次，均爲賓語前置，如：

聞君有箕山之志，何能自（賓語前置）屈。（2.18B1）

紹懼不自（賓語前置）容，將解褐，故咨之於壽。（3.8B2）

今萬失律致敗，雖復自（賓語前置）咎，其可濟焉。（26.19B1）

③用作兼語，1次，如：

逖既有豪才，常忼慨以中原爲己任，乃說中宗雪復神州之計，拜爲豫州刺史，使自（兼語）招募。（8.43B1）

由上述統計分析可知，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自”常用于作主語，其次是作賓語，極少數用作兼語。沒有作定語的實例。

V. 結論

經過逐個分析，《世說新語·劉孝標注》中的人稱代詞的使用情況可匯總如下表：

		頻次				合計
		主語	賓語	定語	兼語	
第一 人 稱 代 詞	我	33	24	18	1	76
	吾	70	7	27	3	107
	余	7	0	4	0	11
	予	3	3	1	0	7
	身	0	1	1	0	2
	朕	0	0	1	0	1
第二	汝	18	9	6	4	37
	卿	36	7	8	0	51

人 稱 代 詞	子	32	11	7	0	50
	爾	8	3	4	0	15
	吾子	1	1	0	0	2
	而	0	0	1	0	1
第 三 人 稱 代 詞	之	0	818	0	0	818
	其	80	10	538	2	630
	彼	11	5	4	0	20
	伊	0	0	1	0	1
反 身 代 詞	己	2	31	6	1	40
	身	9	13	0	0	22
	自	112	57	0	1	170
	合計	422	1000	627	12	2061

綜上可知，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第一人稱代詞“吾”“我”的使用頻率比較高，可用作主語、賓語、定語；第二人稱代詞“卿”“子”“汝”的使用頻率比較高，主要用來做主語；第三人稱代詞“之”“其”的使用頻率比較高，“之”主要用作賓語，“其”主要用作定語；反身代詞“自”“己”的使用頻率比較高，“自”主要用作主語，“己”主要用作賓語。

柳士鎮認為魏晉南北朝時期萌生發展的第一人稱代詞有“身”和“儂”⁷⁾，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身”作第一人稱代詞有2個實例，作反身代詞有22個實例，沒有出現“儂”的用例，部分印証了柳士鎮的觀點。柳士鎮在其文章中提到的第二人稱代詞“汝”和“爾”，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的使用頻率并不高，其指出此一時期新生的第三人稱代詞有“渠”和“伊”，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沒有出現“渠”用作第三人稱的實例。“伊”僅有1例，是用作定語。其指出反身代詞“己”在魏晉南北朝時期有用作第三人稱代詞的現象，但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還沒有出現實例。其指出“自”在此時期有作定語的現象，但是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沒有這樣的用例。其提到此時期出現“身自”連用現象，在《世說新語·劉孝標注》中有3個實例，印証了單音節詞雙音化的趨勢。

人稱代詞在不同文獻中的使用情況是不一樣的，單篇文獻的人稱代詞使用具有“个体特殊性”，這與文獻的時代、地域、文体、作者語言習慣以及所反映的社會文化背景等因素密切相關。要想準確總結某一時期人稱代詞的使用規律，對該時期所有文獻進行逐一統計是非常必要的。

【參考文獻】

- 趙伯義(1986),「特殊指示代詞“者”、“所”的異同」,『蘭州教育學院學報』,(8), pp.106-110
趙懷英(1989),「古漢語中無指代詞“莫”和否定副詞“莫”的辨析」,『漢中師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4), pp.83-87
朱聲琦(1985),「上古無指代詞“莫”和“无”」,『雲南民族學院學報』,(12), pp.78-83
蔡文婷(2008),「關於“所”、“者”的詞性、特點及其異同」,『太原城市職業技術學院學報』,(3), pp.129-130
陳丹,方有國(2009),「“所+動+者”結構中“者”字詞性辨析」,『韶關學院學報』,(1), pp.131-133
張玉金(2004),「論西周漢語第一人稱代詞有無謙敬功能的問題」,『華南師範大學學報』,(4), pp.62-68
朱聲琦(1984),「上古無指代詞“有”」,『語言教學與研究』,(7), pp.144-159
潘玉坤(2015),「無定代詞“有”與動詞“有”及相關句子的辨析」,『中國文字研究』,(8), pp.160-164
盧玉亮(2022),「殷墟甲骨文有爭議的幾個代詞研究綜述」,『殷都學刊』,(6), pp.23-33
張玉金,喬盼峰(2023),「殷墟甲骨文“其”為代詞說商榷」,『語言研究』,(1), pp.1-18

7) 柳士鎮(著)(2019),『魏晉南北朝歷史語法』,北京:商務印書館, p168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1부

6. 중국어학(2)

위당관 209호

**중국어와 한국 한자음의 음운 변화:
갈등과 공생의 언어사**

중국어 성조 습득과 성조 유형론*

이옥주, 박지은**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연구 목적과 방법
 - 2.1 연구 목적
 - 2.2 연구 방법
 3. 연구 결과
 - 3.1 말하기 수준과 성조 정확도
 - 3.2 성조·음절 유형과 성조 정확도
 - 3.3 성조 유형론적 함의
 4. 결론과 논의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L1 한국어 화자의 성조 습득의 어려움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조 습득의 어려움은 L1이 성조언어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 연구는 L1 한국어 화자의 중국어 습득 양상을 음운 유형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AI Hub ‘교육용 한국인의 다국어 음성 데이터’의 중국어 음성 데이터에 반영된 성조 오류, 성조 복잡도와 음절 유형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조 정확도와 중국어 말하기 수준은 선형적 상관성을 보이지 않으며, 성조 정확도는 성조 및 음절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유표적인 성조 유형인 2성과 3성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편, 2성 오류는 고급 수준에서도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무표적인 (C)V 음절 구조의 성조 정확도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성조 습득은 성조의 음높이 특성뿐만 아니라 성조가 연계된 음절의 구조 및 리듬 구조와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조 습득이 분절음, 음절 구조, 운율 구조와 통합적으로 탐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 현송교육문화재단 학술연구지원기금 인문학 연구 지원사업,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5A2A01008329)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과정

1. 서론

1. 서론 중국어 성조 습득

- L1 비성조언어 화자는 성조 산출, 청취의 어려움을 겪음 (산출: Shen 1989; Shi 2007; Fu and Lee 2023, 집회: Xu et al. 2006; Kaan et al. 2008; Huang and Johnson 2010; Ko and Choi 2020; Liu et al. 2022; Lee and Lee 2022; 이경민 2024)
- 그러나, L1 성조언어 화자의 L2 성조 습득이 L1 비성조언어 화자에 비하여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님. L1 성조 목록과 음성 특성이 L2 성조 산출과 지각에 영향을 미침 (Hao 2012; Leung 2008; Qin and Mok 2011; Peng et al. 2012; Yang et al. 2020; Pelzi et al. 2022)
- 서로 다른 L1 비성조언어 화자의 성조 습득, L1 중국어와 L2 중국어 성조 습득에 유사한 양상이 관찰됨 (Zhang 2018)
- L1 한국어 화자에게 2성, 3성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심소희 1999; 이미경 2008; 潘宝莹, 燕芳 2015; Zhang 2018; Tsukada and Han 2018; 张洁 2019; 고성분·최지연 2020; Lee-Kim 2021; Fu and Lee 2022)
- 이는 2성과 3성의 음성적 유사성, 3성 음운 변조의 복잡성과 관련됨

1. 서론 연구 동기

- L1 한국어 화자의 성조 습득 양상이 L1 한국어 화자에게 고유하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성조 습득의 보편적 경향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
- 말하기 수준의 객관적 구분 및 수준별 집단의 균형적 발화 데이터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말하기 숙련도(proficiency)와 성조 습득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어려움
- 특정 발음 오류 관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대규모 음성 데이터가 성조 습득 양상을 관찰하기에 적합함
- 성조가 연계되는 음절의 구조나 분절음 특성과 성조의 상호관련성에도 불구하고 (Gordon 2013, 2016; Zheng 2018),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음

2. 연구 목적과 방법

2.1 연구 목적 연구 문제

- 초급, 중급, 고급 수준의 중국어 음성 데이터를 분석하여, 성조 산출의 정확도와 오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L1 한국어 화자의 성조 습득에 나타나는 성조 유형론적 함의를 규명하고자 함

Q1: L1 한국어 화자의 성조 정확도는 중국어 말하기 숙련도와 선형적 관계를 갖는가?

Q2: 성조 유형은 L1 한국어 화자의 성조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Q3: 성조가 연계되는 음절 유형은 성조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Q4: L1 한국어 화자의 성조 습득 양상에 반영된 성조 유형론적 함의는 무엇인가?

2.2 연구 방법 분석대상

- AI Hub 교육용 한국인의 중국어 음성 데이터 (<https://www.aihub.or.kr/>; 이옥주, 박지은 (2025))
 - 음성 데이터 (.wav): 약 510시간의 초급, 중급, 고급 수준 L1 한국어 화자 음성 데이터
 - 라벨링 데이터 (.json): 녹음자 정보 (화자 ID, 성별, 연령, 언어 수준),
평가 결과 (평가 점수, 음소 인식 결과, 표준 발음, 오류 유형 라벨링) 등의 정보 포함
- 90%의 데이터가 정식 개방됨 (training : validation : testing = 8 : 1 : 1)
 - 정식 개방 데이터 규모: 발음 평가용 데이터 57,311개, 말하기 평가용 데이터 33,127개

2.2 연구 방법 분석 대상 (cont'd)

- AI Hub 교육용 한국인의 중국어 음성 데이터 (<https://www.aihub.or.kr/>; 이옥주, 박지은 (2025))
 - 발음 평가용 데이터:
 - 수준별 15개(총 45개) 스크립트 세트
(각 세트는 문장 평가, 문단 평가로 구성됨)
 - 문장 단위 인식 결과, 표준 발음, 오류 유형 라벨링 포함
 - set01의 참여자가 가장 많고, 말하기 수준의 분포가 균형적임
(초급 14명, 중급 15명, 고급 18명, 총 47명)
 - 문장 평가 데이터(1번~100번의 원천 데이터와 라벨링 데이터 분석)

[illegible]

2.2 연구 방법 분석 방법

- '성조' 오류를 검토하기 위해 정조음 음절을 추출함 (표준성조 + 표준음모 = 인식성조 + 인식음모)
- set01 문장 평가용 데이터 가운데 음성 인식 오류가 발생한 음절을 제외한 총 음절 수는 54,669개
 - 이 가운데 분석대상 음절인 '표준성조가 1성~4성이고 정조음인 음절'은 총 39,763개
 - 분석대상 음절 분포:

	표준성조				
	1	2	3	4	총합계
LOW	2,274	2,279	2,439	3,654	10,646
MID	2,586	2,658	2,922	4,205	12,372
HIGH	3,571	3,496	3,978	5,700	16,745
총합계	8,431	8,433	9,339	13,560	39,763

■ Ex) 표준발음의 '<unk> ing', 음소 인식 결과의 '**** ying' → 모두 'unk ing'로 통일하여 수정함.

品類	品名	単位	買入単価	買入金額
I	V	箱	100	V
II	C V	大箱	100	V
	M V	中箱	100	0.5V
	V Ee	小箱	100	0.1V
III	V Ee	大箱	100	VE
	C V	中箱	100	VE
	C M V	小箱	100	0.5VE
	M V Ee	大箱	100	0.1VE
	M V Ee	中箱	100	0.05VE
IV	C M V Ee	大箱	100	0.05VE
	C M V	中箱	100	0.01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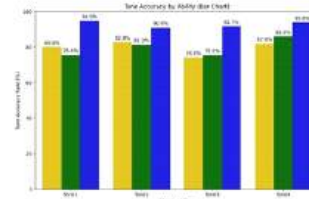
[illegible]

3. 연구 결과

3.1 연구 결과 말하기 수준과 성조 정확도

Q1: L1 한국어 화자의 성조 정확도는 중국어 말하기 숙련도와 선형적 관계를 갖는가?

- 성조 정확도와 수준이 선형적 관계를 보이지 않음
- 전반적으로 고급 수준은 초급, 중급에 비하여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초급과 중급은 수준과 정확도의 관계가 불분명함
- 초급→중급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중급→고급에서 급격히 상승함
- L1 한국어 화자가 성조를 안정적으로 습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함



3.2 연구 결과 성조 유형과 성조 정확도

Q2: 성조 유형은 L1 한국어 화자의 성조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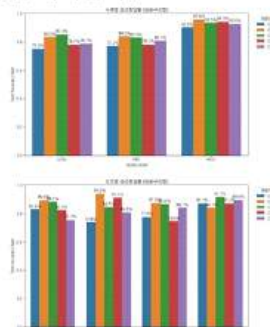
- 성조 유형에 따라 정확도의 차이를 보임
- 초급과 중급은 3성의 정확도가 가장 낮은 반면, 고급은 2성의 정확도가 가장 높음
- 1성 ↔ 4성, 2성 ↔ 3성 간 혼동이 상대적으로 많음
- 초급은 3성 → 2성, 중급은 1성 → 4성, 고급은 2성 → 3성 오류가 가장 많음



3.2 연구 결과 음절 유형과 성조 정확도

Q3: 성조가 연계되는 음절 유형은 성조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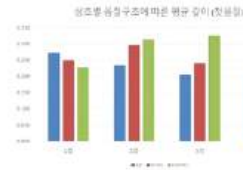
- 모든 수준에서 가장 무표적인 음절 구조인 (C)V 구조의 (Zsiga 2013; Gordon 2016) 성조 정확도가 가장 낮음
- 초급과 중급은 말음을 갖는 (C)VC, (C)VVC에서 성조 정확도가 상승함
-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2성과 3성에서 (C)V 음절의 낮은 정확도가 명확히 관찰됨
- (C)V 음절의 2성의 정확도가 가장 낮음



3.2 연구 결과 음절 유형과 성조 정확도 (cont'd)

Q3: 성조가 연계되는 음절 유형은 성조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중국어는 음절 기반 리듬 구조: 성조가 실현되는 강세 음절의 길이가 일정함 (Ladefoged and Johnson 2015)
- L1 한국어 화자는 모어화자와는 다른 리듬 특성을 보임
- 운율 구조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각 문장의 첫 음절에 대해 음절 유형과 음길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2성과 3성에서 음절 유형의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CV → CVVC → CMVC) 음절 길이가 현저히 증가함
- 2성(오름조)은 다른 성조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Zhang, J. 2002, 2004, 2009; Zhang H. 2018), 한국어 모어화자는 CV 음절의 음길이를 축소하여 오름조의 정확도가 낮아짐.



3.3 연구 결과 성조 유형론적 함의

Q4: L1 한국어 화자의 성조 습득 양상에 반영된 성조 유형론적 함의는 무엇인가?

- 성조가 분절음에 비하여 습득에 시간이 소요되는 현상은 L1 습득에도 나타남 (Feng and Peng 2023)
- 성조 유형의 복잡도는 성조 습득의 지연 현상을 야기함 (Zhang 2018)
- 음절 유형과 특성은 성조 정확도에 영향을 줌
- L2 화자가 산출하는 음절 무게 (syllable weight)와 리듬 구조는 성조 습득에 영향을 미침

4. 결론과 논의

4. 논의와 결론

- 중국어 말하기 수준과 성조 정확도의 비선형적 관계
: 성조 습득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시사하며, 이는 L1 습득과 유사함
 - 성조의 유표성이 습득에 미치는 영향
: 유표적 성조 유형인 T2, T3은 상대적으로 무표적인 T1, T4보다 습득이 늦으며, 이는 L1 습득과 유사함
 - 가장 무표적인 CV 음절 구조에서 2성의 오류율이 높은 현상
: L1 한국어 화자가 중국어 음절 무게와 리듬 구조를 습득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 성조 습득은 분절음, 음절 구조, 운율 구조와 함께 연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
- 향후, L1의 영향과 언어보편성이 L2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OPM 모형 등을 활용하여, 성조와 분절음, 음절의 유표성 간의 상호작용이 성조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함

참고문헌(일부)

- 고성실, 최지연. 2020. 중국어를 학습하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중국어 지각과 산출. *말소리와 음성과학* 12(1): 11-17.
- 심소희. 1999. 한국인이 발음하는 중국어 성조의 문제와 개선. *중국어문학지* 6: 237-253.
- 이미경. 2008. 중국어 12음절어 음높이 변화에 대한 한중 대조. *중어중문학* 43: 613-634.
- 이옥주. 2017. 표준중국어 음절유형에 대한 유형론적 고찰. *중어중문학* 68: 119-143.
- 이옥주, 박지은. 2025. AI Hub [교육용 한국인의 중국어 음성 데이터]의 평가와 활용. *중국문학* 122: 319-333.
- Feng, Yan and Gang Peng. 2023. Development of categorical speech perception in Mandarin speaking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94: 28-43.
- Fu, Yuping, and Yong-cheol Lee. 2022. The Production of tone 3 by advanced Korean learners of Mandarin. *Linguistic Research* 39(1): 213-233.
- Hao, Yen-Chen. 2012.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f Mandarin Chinese tones by tonal and non-tonal language speakers. *Journal of Phonetics* 40: 269-279.
- Huang, Tsan and Keith Johnson. 2010. Language specificity in speech perception: Perception of Mandarin tones by native and nonnative listeners. *Phonetica* 67: 243-267.
- Lee-Kim, Sang-Im. 2021. Development of Mandarin tones and segments by Korean learners: From naïve listeners to novice Learners. *Journal of phonetics* 86: 101-136.
- Liu, Min, Yiya Chen and Niels O. Schiller. 2022. Context matters for tone and intonation processing in Mandarin. *Language and Speech* 65(1): 52-72.
- Major, Roy C. 2001. *Foreign Accent: The Ontogeny and Phylogeny of Second Language Phonology*.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ublishers.
- Xu, Yisheng, Jackson T. Gandour, and Alexander L. Francis. 2006. Effects of language experience and stimulus complexity on the categorical perception of pitch direction.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20(2): 1063-1074.
- Zhang, Hang. 2018.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f Mandarin Chinese Tones: Beyond First-language Transfer*. Leiden: Brill.

The Distributional Typology of Consonants among Languages in China

Roh, Hye-jeong and Lee, Ok Joo*

<目 次>

1. Introduction
2. Background and research aims
 - 2.1 Typology of consonants
 - 2.2 Consonant complexity
 - 2.3 Languages in China
 - 2.4 Research aims
3. Methodology
 - 3.1 Data construction
 - 3.2 Analysis
4. Results
5. Discussion and conclusion

【 Abstract 】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distribution of consonants across languages spoken in China by constructing a balanced database of varieties that have long been underrepresented in major global linguistic databases such as UPSID, WALs, and PHOIBLE. Of particular interest is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distributional typology of consonantal phonemes, based on the database compiled from *Languages of China* (中国的语言, 2007) and a representative selection of other resources on Chinese dialects. The results reveal significant typologic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not only in inventory size but also across phonetic dimensions such as place and manner of articulation, laryngeal features, airstream mechanisms, and articulatory complexity. The findings broaden our understanding of previously understudied languages in China and provide further insight into typological commonalities and diversity among geographically proximate languages.

1. Introduction

□ Languages from multiple language families are spoken in China. Enormous phonological and phonetic diversity is observed in these languages. However, many languages remain understudied, partly due to underrepresentation within major language databases (UPSID, WALs, and PHOIBLE, Maddieson 1984; Maddieson and Precoda 1990; Gordon 2016, Dryer and Haspelmath 2013). Research on the phonological typology of the languages of China is particularly limited.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Seoul National University

2. Background and research aims

2.1 Typology of consonants

□ Phonological typology: Despite immense cross-linguistic variation in sounds, universal tendencies are found. For example, languages prefer peripheral vowels, and stress systems assign stress preferentially to peripheral vowels over central vowels. (Gordon 2016: 3-4)

□ Distributional typology of consonants: Some consonants have a wider distribution than others. For example, plosives exist in all known languages, probably due to their perceptual salience. Bilabial, dental/alveolar, and velar are the most typical places of stop articulation, and plain (i.e., unaspirated) voiceless plosives are the most widespread. (Maddieson 1984; Lindblom and Maddieson 1988; Gordon 2016)

□ Distributional typology of consonants: Among plosives, labial, denti-alveolar, velar are common; voiceless and unaspirated are preferred. Among fricatives, voiceless are preferred, and /s/ is most common. (Maddieson 1984, 2013, Gordon 2016)

□ Inventory expansion: Languages prefer sounds that are maximally distinct in the perceptual domain. As each articulatory subspace is perceptually saturated, inventories are expand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rogressively more complex articulatory tiers. (Gordon 2016:18).

□ If a language has only one series of stops, it is typically a series of plain voiceless plosives, with almost 92 % of languages exhibiting such a series. As the number of series expands, a contrast along the voice onset time (VOT) dimension is introduced, resulting in a voiced and voiceless contrast. When plosives have secondary articulations such as labialization, palatalization, velarization, or pharyngealization, labialization is the most common. (Maddieson 1984; Lindblom and Maddieson 1988; Gordon 2016).

2.2 Consonant complexity

□ Phonological complexity: the inherent phonetic complexity of elements in the phonological inventory, the role played by freedom vs. limitation of combinatorial possibility, the contribution of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difference properties, and the relative transparenc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honological variants (Maddieson 2009:85). Complexity of consonants can be measured by articulatorily complex properties. (Maddieson 1984; Lindblom and Maddieson 1988; Maddieson 2009).

□ Consonants are classified into 3 categories, Basic, Elaborated, and Complex. (Maddieson 2009: 88). Elaborated consonants have one of a set of complicating properties, Complex consonants have more than one of these properties; the residue are Basic. ‘Complicating’ properties include breathy voicing, aspiration, ejective articulation, voiced fricatives and affricates, voiceless sonorants, prenasalization, lateral release, and secondary articulations, clicks, doubly-articulated consonants, configurations representing departures from the near-rest positions of the lips, tongue-tip and tongue-body components of an articulatory model (ex. retroflex, uvular).

2.3 Languages in China

2.4 Research aims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al typology of consonants among languages spoken in China. Given the vast phonological diversity among the languages, a thorough examination can provide insight into the following questions:

1. How different are the language (sub)families in China in the typology of consonants?
2. What does the distributional typology of consonants tell about the typology of phonological inventory expansion and changes in complexity?
3. Can we find evidence that how contact with Chinese, the dominant language in the region, influence the typology of other languages?

3. Methodology

3.1 Data construction

□ Database was constructed using the consonantal inventories from Languages of China (孙宏开 · 胡增益 · 黄行 (2007). 中国的语言. 北京: 商务印书馆). Among 11 language subfamilies, 9 were selected after excluding Indo-European and Creole, due to the small number of IE languages and different nature of CR. A total of 135 languages from 9 subfamilies (6 language families), TB (Tibeto-Burman), HM (Hmong-Mien), AA (Austroasian), MG (Mongolian), TK (Tak-Kadai), TR (Turkic), TG (Tungusic), CH (Chinese), and AN (Austronesian), were analyzed.

□ Languages of China only provides a list of consonants from each language. For data construction, the IPA transcription from the source was adopted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for each language, although several necessary modifications were made. Consonants transcribed with two or more IPA symbols were treated as complex consonants; however, when two symbols were used for implosives following transcription conventions in a language, they were treated as simple consonants. Consonants that appeared only in constrained environments, such as the coda or in clusters, were nonetheless included in the consonant inventory. When a consonant only appears in consonant clusters, it is included in the consonant inventory. If phonetic variants of a phoneme were listed as distinct consonants in the source, we selected the representative phoneme by considering the transcribers' descriptions and the phonological system of the language. When mismatches occurred between IPA symbols and the sounds they represented, we replaced the symbols with those that more accurately reflected the phonetic values, based on the transcribers' descriptions of the sounds.

□ After data construction, all consonants were first classified as simple and complex consonants.

The place and manner of articulation for each consonant were classified:

- (1) The place of articulation: Bilabial, Labiodental, Interdental, Alveolar, Postalveolar, Alveolo-palatal, Retroflex, Palatal, Velar, Uvular, Pharyngeal, Glottal
- (2) The manner of articulation: Plosive, Fricative, Affricate, Nasal, Trill, Tap, Lateral fricative, Lateral affricate, Approximant, Lateral approximant, Implosive

3.2 Analysis

□ Complexity values ‘1’, ‘2’, and ‘3’ were assigned to each consonant. Absolute and relative measures of consonant complexity were assessed for each language, with relative complexity defined as the absolute complexity value divided by the number of consonants.

Figure 1. Complexity measures

Figure 2. Complexity measures: Rouruo (柔若语 23 consonants, complexity score 31)

4. Results

□ How different are the language (sub)families in China in the typology of consonants? Language subfamilies exhibit substantial differences in consonantal inventory size and complexity.

Total inventory: HM > MG > AA > TB > TK > TR > TG > CH > AN

Simple consonant inventory: TB > HM > AA > MG > TK > TR > TG > CH > AN

□ TB tends to have the largest inventories of simple consonants, with relatively fewer complex consonants. However, TB shows considerable variation in the number of complex consonants. By contrast, CH and AN are characterized by small inventories of simple consonants and a lack of complex consonants.

Figure 3. Consonantal inventory size: simple and total

□ How different are the language (sub)families in China in the typology of consonants? Language subfamilies exhibit substantial differences in consonantal inventory size and complexity.

Absolute complexity: TB > HM > MG > AA > TK > TR > TG > CH > AN

Relative complexity: HM > MG > TB > TG > TR > AA > TR > CH > AN

TB, HM, MG rank higher in both complexity measures, whereas CH and AN are consistently at the lower end.

Figure 4. Consonantal complexity: absolute and relative

□ What does the distributional typology of consonants tell about the typology of phonological inventory expansion and changes in complexity? Consonantal inventory size positively correlates complexity. As the inventory of simple consonant becomes larger, the complexity tends to increase. TB, HM, MG, ranking higher in both complexity measures, also show stronger correlations between inventory size and complexity. Complexity cannot be explained solely by inventory size. Rather, both the composition (i.e., Simple, Elaborated, and Complex) and the inventory size jointly determine the complexity of the consonantal system. Language subfamilies with relatively small inventories (CH, AN) exhibit a high proportion of Basic consonants. Conversely, larger inventories (TB, HM, AA) have greater proportions of Elaborated and Complex consonants. This confirms that consonants with relatively complex properties tend to be incorporated once Basic consonants are maximally utilized.

Figure 5. Consonantal inventory size (simple) and complexity (absol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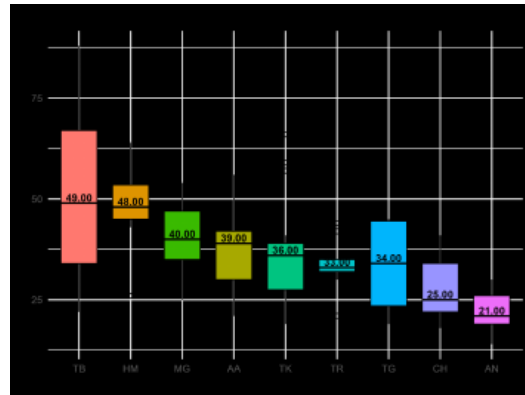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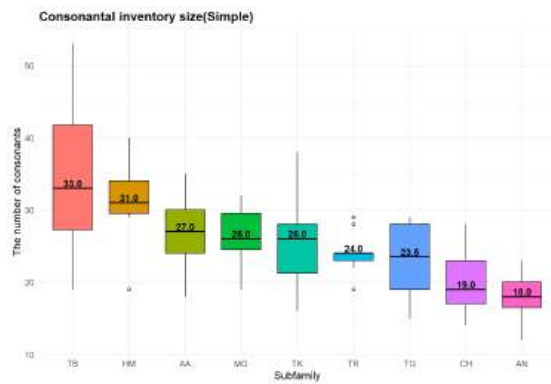


Figure 6. Consonantal inventory size (simple) and complexity (relative)

Figure 7. Consonantal inventory size (simple+complex) and complex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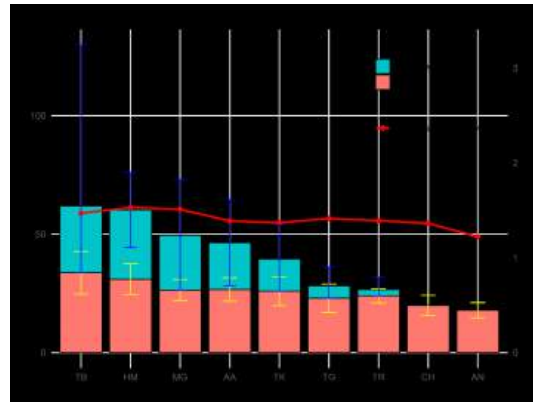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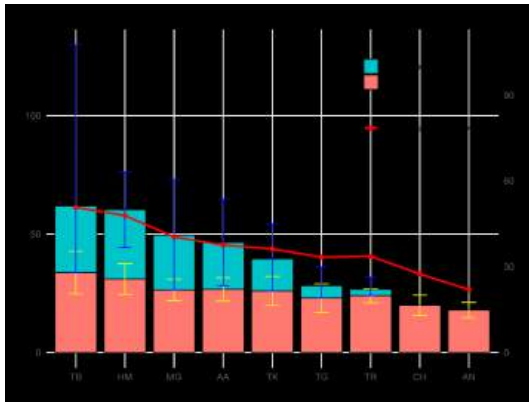


Figure 8. Simple consonant inventory and complexity by sub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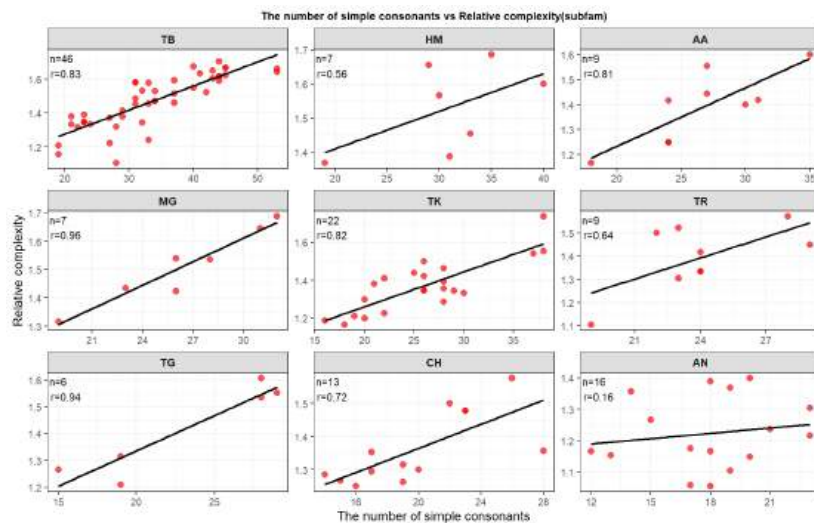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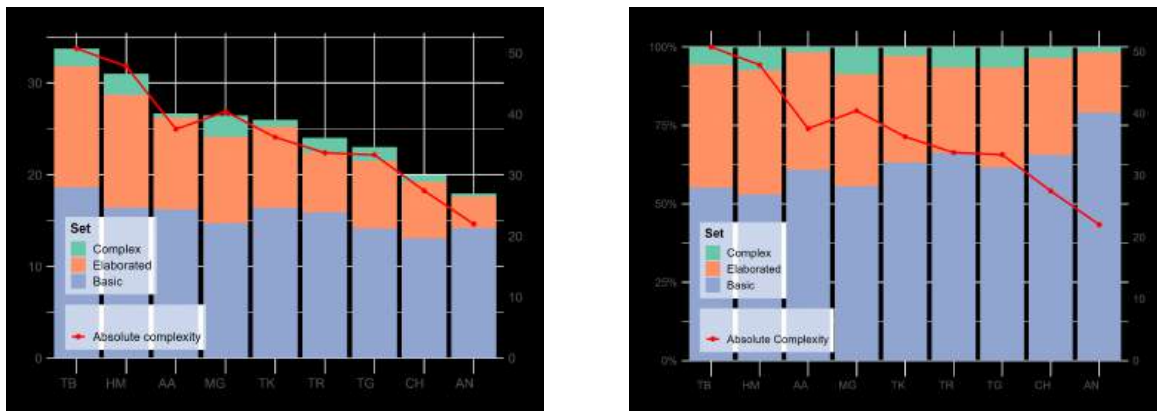


Figure 9. Distribution of Basic, Elaborated, Complex consonants and complexity



□ What does the distributional typology of consonants tell about the typology of phonological inventory expansion and changes in complexity? The place of articulation plays a more important role than the manner of articulation in expanding consonant inventories. (Maddieson 1984) This study further finds that the expansion beyond seven distinctions in manner of articulation is not preferred. The differences across languages are significantly larger in the expansion of manner of articulation than in that of place of articulation. The place of articulation can expand to five with little impact on consonantal complexity, suggesting that five place distinctions are common across languages.

Figure 10. The place and manner of articulation and absolute complex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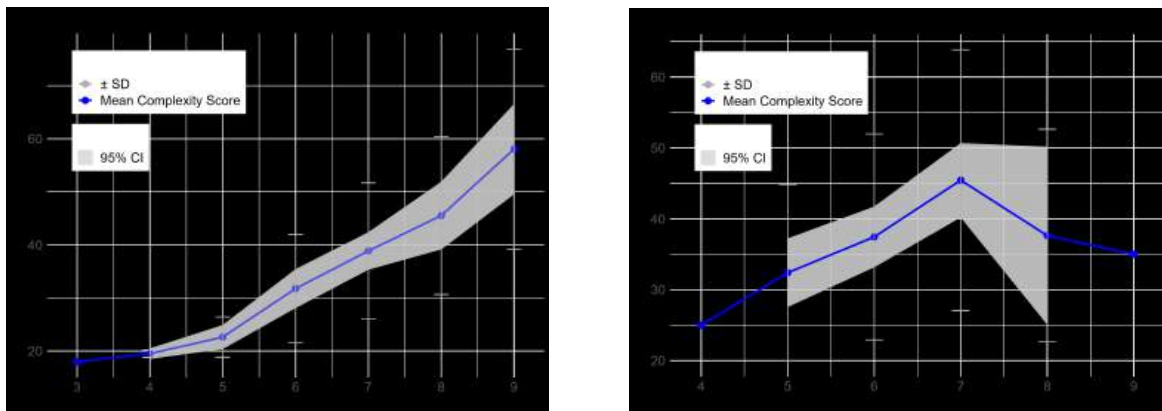


Figure 11. The place and manner of articulation and relative complexity

□ Can we find evidence that how contact with Chinese, the dominant language in the region, influence the typology of other languages? Due to geographical proximity to Chinese, the complexity changes in some languages. The same languages families can diverge due to language contact and the influence of dominant language. In Pubiao (普标语, TK), aspirated affricates [tsh], [tʃh] and fricatives [s], [f] are found only in loanwords borrowed from Chinese.

5. Discussion and conclusion

□ In sum, this study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consonants across languages spoken in China by constructing phonologically annotated consonant inventories from 135 languages. It found that language subfamilies exhibit substantial differences in both inventory size and complexity, with TB, HM, and MG ranking higher in complexity, while CH and AN rank the lowest. Stronger correlations between inventory size and complexity were observed in TB, HM, and MG.

□ Place of articulation plays a more important role than manner of articulation in expanding consonant inventories, and expansions beyond seven manner distinctions are not favored. It may be attributed to perceptual robustness and physiological simpleness of place distinctions. (Maddieson 1984; Clements and Hume 1995) The study further confirms the unmarkedness of five place distinctions.

□ Language contact with Chinese not only creates loanwords but also contributes to structural complexity in phonology in some less dominant languages, although Chinese ranks significantly lower in complexity. This does not conform to the so-called “rich-get-richer” adaptation, in which words entering the lexicon tend to contain commonly occurring phonemes. (Martin 2007; Gordon 2016:80) Further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und adaptation and the frequency/markedness of sounds is warranted. The genealogical relations and typological proximity among languages are to be examined.

References (selected)

- 孙宏开·胡增益·黄行 (2007). 中国的语言. 北京: 商务印书馆.
- Gordon, Matthew K. (2016). *Phonological Typ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berg, Joseph H. (1966). Language universals. In Thomas A. Sebeok (ed.) *Current trends in linguistics*. Paris: Mouton. pp.61-112.
- Lindblom, Björn and Ian Maddieson (1988). Phonetic Universals in Consonant Systems. In Larry M. Hyman and Charles N. Li (eds.) *Language, Speech, and Mind: Studies in honor of Victoria A. Fromkin*. London: Routledge. pp.79-95.
- Maddieson, Ian (1984). *Patterns of Soun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ddieson, Ian (2009). Calculation Phonological Complexity. In Loana Chitoran, Christophe Coupe, Egidio Marsico, and Francois Pellegrino (eds.) *Approaches to Phonological Complexity*. Berlin: De Gruyter Mouton. pp.85-110.
- Maddieson, Ian (2011). Phonological typology. In J. J. Song (ed.)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Typ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534-548.
- Maddieson, Ian (2013). Consonant Inventories. In Dryer, Matthew S. and Martin Haspelmath (eds.) *WALS Online*. <https://doi.org/10.5281/zenodo.13950591>. (Available online at <http://wals.info/chapter/1>, Accessed on 2025-09-16.)
- Martin, Andy (2007). *The evolving lexicon*. Ph.D. dissertation.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漢韓大字典』의 다음자 연구

김선호*

〈 목 차 〉

【 국문초록 】

1. 서론
 2. 연구 자료 및 방법
 3. 유형별 분석
 4.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漢韓大字典(2025 크라운판)』에 수록된 다음자(多音字)를 대상으로, 『廣韻』의 반절 자료와 현대 중국어 표준어 병음, 그리고 한국 한자음을 교차 대조하여 다음자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자의 생성은 단순한 발음의 분기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음운 차이, 의미 분화, 異體字·俗字의 영향 등 복합적 요인들이 중첩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 한자음은 중국 내부에서 이미 소실된 고대 음운의 흔적을 보존함과 동시에, 한국적 음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발음을 창출하여 독자적 층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한자음 연구의 지평을 확장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비교언어학적 차원에서 중국 음운사의 복원에도 중요한 기여를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약 2,700여 개 다음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계량적·통계적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한자음 변천의 규칙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1. 서론

한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글자에 하나의 발음을 대응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여겨지지만,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여러 음가를 지닌 글자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러한 다중 발음 현상, 즉 다음자는 단순한 발음 변이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그 배경에는 오랜 역사 속에서 누적된 음운

* 延世大學校 中語中文學科 碩士課程

변천, 異體字(이체자)·俗字(속자)와의 교섭, 의미적 분화, 그리고 한국 내부의 음운 체계와의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한국 한자음 연구는 대체로 正音(정음) 중심에 치중하여, 실제 어휘 사용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俗音(속음)이나 다중 발음 현상에 대해서는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한자음의 다층적 구조와 그 역사적 전개 양상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漢韓大字典(한한대사전)』(2025년 크라운판)에 수록된 약 3,000여 개의 다음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廣韻(광운)』의 반절·사성 자료와 대조하고, 한국 한자음 및 현대 중국어 병음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동일 글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복수의 발음을 지니게 되었는지, 또 특정 음가가 어떤 의미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자의 형성은 단일한 원인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음운적 요인, 의미적 요인, 그리고 문헌 전승상의 외적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다음자의 형성을 음운 차이형, 의미 분화형, 이체·속자 영향형이라는 세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실제 다음자의 사례는 방대하나, 지면의 한계상 일부 대표적 예시만을 선별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2. 연구 자료 및 방법

2.1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국 자료로는 『漢韓大字典(한한대사전)』(2025 크라운판)을 사용하였다. 이 사전은 최신 교감을 거쳐 편찬된 표준 한자 사전으로, 다의·다음 현상을 비롯하여 異體字(이체자), 俗字(속자)에 이르는 폭넓은 표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각 한자의 현대 한국 한자음, 출현하는 문헌, 의미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다음자 연구에 가장 적합한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전 판본의 오류를 보완하고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통시적 한자음 연구의 신뢰할 만한 출발점이 된다.

둘째, 중국 운서 자료로는 『廣韻(광운)』을 활용하였다. 송대에 편찬된 절운계 운서인 『廣韻(광운)』은 한자의 반절 정보를 통해 중고음 체계의 음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고음 단계에서 다음자가 형성되는 원리와 분포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현대 중국어 자료로는 『現代漢語詞典(현대한어사전)』 제7판의 표준어 병음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고대 중국어 자료와의 연속성과 단절을 확인하고, 한국 한자음과 현대 중국어 독음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특히 일부 다음자는 현대 중국어에서 이미 단일 음가로 정리되었으나, 한국 한자음에는 여전히 다중 발음이 남아 있어 중국 음운사에서 소실된 흔적을 보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음자의 형성과 변천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漢韓大字典(한한대사전)』에서 약 3,000개의 다음자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사례를 산발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통계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각 다음자의 『廣韻(광운)』 反切(반절)을 확인하여 해당 글자의 중고음 발음을 복원하고, 의미 분류를 함께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다중 발음이 형성된 구체적인 음운적 배경을 파악하였다.

셋째, 한국 한자음과 현대 중국어 병음을 확인하여 동일 글자가 어떤 방식으로 발음이 달라졌는지, 또 특정 음가가 주로 어떤 의미 영역에서 사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넷째, 다음자의 형성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似音關係(사음관계)와 異音關係(이음관계)를 구분하였다. 전자는 동일한 음계에서 발생한 역사적 음운 변화의 산물로, 하나의 기원에서 분화된 발음을 가리킨다. 반면 후자는 異體字(이체자), 通假字(통가자), 외래어 차용 등 이질적 요인의 개입에 의해 형성된 발음을 뜻한다. 이러한 구분은 다음자의 기원을 추적하고 한국 내부의 독자적 음운 변화를 밝히는 데 중요한 준거가 된다.²⁾

다섯째, 의미 변화는 다의화, 축소, 확대, 전문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음운 변화와 의미 변화가 결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음자가 단순한 발음 차이에 그치지 않고 의미 체계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3. 유형별 분석

다음자의 형성은 단일한 원인으로 환원하기 어렵다. 음운적 요인, 의미적 요인, 그리고 문헌 전승상의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 속에서 일정한 경향을 정리할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 즉 음운 차이형, 의미 분화형, 이체·속자 영향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아울러 다음자의 사례는 방대하나, 지면의 한계로 인해 이 글에서는 일부 대표적 예시만을 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3.1 음운 차이

음운 차이형은 동일한 글자가 여러 운서(韻書) 체계에서 상이한 반절(反切)이나 운목(韻目)에 속함으로써 복수의 발음을 얻게 된 경우이다. 이는 언어 내부의 체계적 차이에서 비롯된 변화로, 다음자의 가장 전형적인 형성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김령령(2025) 「한중 다음자의 통시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다음자 연구에서 음운 변천 및 의미 분화의 기원을 밝히는 목적에서 ‘사음관계’와 ‘이음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음자를 분류한다.

예컨대 ‘丞’은 『廣韻』에서 署陵切과 常證切로 기록되며, 한국 한자음에서는 ‘승·증’ 두 갈래로 분화하였다. 실제 용례에서도 丞相(승상)과 丞丞(증증)처럼 상이한 발음이 나타난다. 이는 동일한 글자가 두 개 이상의 반절에 걸쳐 분류되면서 음운적 차이를 발생시킨 전형적인 경우이다.

‘串’또한 古患切로 제시되지만, 한국 한자음에서는 ‘천·찬·관·곶’ 등으로 확장되어 실현된다. 串子(천자), 串數(관삭), 곶(지명) 등 다양한 용례가 존재하는데, 이는 반절 차이가 지역적·맥락적 요인과 결합하면서 다중 발음으로 고정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九’는 舉有切에 근거하여 본래 ‘구’로 읽히지만, 한국 한자음에서는 ‘구·규’ 두 갈래로 나뉜다. 九禮(구례), 九合(규합)과 같이 문맥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양상은 음운 체계의 분화가 실제 어휘에서 고정된 결과를 잘 보여준다.

또한 ‘乞’은 『廣韻』에서 去訖切로 제시되며, 한국 한자음은 ‘걸·기’로 분화되었다. 예컨대 乞丐(걸개)와 乞與(기여)에서 서로 다른 발음이 굳어졌다. 이는 동일 반절에서 비롯된 발음이 음운 환경과 어휘적 기능의 차이로 고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예시들은 모두 동일 글자가 복수의 반절에 걸쳐 속하거나, 음운 분화가 누적된 결과로서 다중 발음을 형성한 경우로, 다음자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에 해당한다.³⁾

3.2 의미 분화

의미 분화형은 동일한 어원을 가진 글자가 의미의 차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 경우이다. 즉, 단순한 음운적 차이를 넘어 의미적 기능의 확장과 문맥적 차이가 결합하여 발음이 고정된 양상이다.

‘冫’의 경우, 『廣韻』에서 七也切·子魚切 등으로 나타나며, 한국 한자음은 ‘차·저·조’ 세 갈래로 실현된다. 여기서 ‘차’는 접속사적 기능에서, ‘저’는 ‘趄’와의 통용에서, ‘조’는 ‘俎’와의 통용에서 확인된다. 이는 의미 차이가 음운 분화를 고착화시킨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冫’역시 鋤駕切에서 기원하지만, 作(작)과의 통용으로 인해 한국 한자음에서는 ‘사·작’ 두 가지로 나뉜다. 이는 본래 하나의 어원이 의미적 확장을 거치면서 새로운 발음을 정착시킨 경우이다.

‘乃’또한 奴亥切에 기원을 두나, 한국 한자음에서는 ‘내·애’로 공존한다. ‘내’는 문어적·전통적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며, ‘애’는 일부 특수한 용례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의미 기능과 문맥 차이가 음운의 다중화에 직접 기여한 경우이다.

한편 ‘也’는 『廣韻』의 羊者切에 근거하지만, 한국 한자음은 ‘야·이’ 두 갈래로 나타난다. ‘야’는 문법적 기능어로서 보편적으로 쓰이며, ‘이’는 제한된 용례에서만 등장한다. 이러한 예시는 동일 글자가 의미의 세분화에 따라 발음을 달리하게 된 경우라 할 수 있다.⁴⁾

3) 이 외에도 ㄴ(구·교)은 『廣韻』 居求切에 근거하여 ‘구’와 ‘교’ 두 갈래로 나뉘며 얹히다·엮이다의 의미 차이와 함께 발음이 분화하였고, ㄷ(갈·진)은 고문자 계통에서 전승되면서 일부 문헌에서는 ‘갈’, 다른 경우에는 ‘진’으로 읽혀 복수 음가가 형성되었다. 또한 ㅁ(야·이)는 『廣韻』(광운)에서는 하나의 반절에 속하지만 전승 과정에서 ‘야’와 ‘이’ 두 발음이 공존하게 된 사례이다.

3.3 異體·俗字 영향

이체·속자 영향은 異體字(이체자), 俗字(속자), 또는 고문자 전승이 발음 분화에 직접 관여한 경우이다. 이는 문자 전승이라는 외적 요인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萬/万은 『廣韻』에서 無販切과 莫北切로 제시되며, 한국 한자음은 ‘만·묵’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는 ‘만’이 수량의 의미로 쓰이지만, 성씨 万俟에서는 ‘묵’으로 발음된다. 이는 異體字 ‘万’의 제한적 용법이 별도의 발음을 고착시킨 전형적 예라 할 수 있다.

麗은 ‘麗’의 古字로 전승되며, 한국 한자음에서는 ‘려·리’ 두 가지로 나타난다. 고문자 전승 과정에서 異體字가 발음 분화에 기여한 사례이다.

樂/乐的 경우, 원래는 동일 글자에서 출발했으나, 의미 기능과 문자 전승의 결합으로 ‘악·락·요’ 세 발음으로 분화하였다. 음악적 의미에서는 ‘악’, 즐기다의 의미에서는 ‘락’, 기뻐하다의 의미에서는 ‘요’로 구별된다. 이는 의미적 변화와 문자 전승이 동시에 작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龜/龜역시 居迫切·居求切 등에 기원을 두며, 한국 한자음에서는 ‘구·균·귀’ 세 갈래로 분화하였다. 異體字 ‘龜’와의 통용 관계가 발음 분화에 영향을 미친 전형적 예다.

끝으로 짚는 한국 한자음에서 ‘얼·늘’로 실현되는데, ‘얼’은 ‘얼기’ 등의 일반적 어휘에서 쓰이고, ‘늘’은 주로 인명이나 지명에서 확인된다. 이는 특정 지역적·속용적 전승이 발음의 다중화를 고착시킨 경우라 할 수 있다.⁵⁾

4. 결론

본 연구는 『漢韓大字典』(2025 크라운판)에 수록된 다음자를 대상으로, 『廣韻』(광운)의 반절 자료와 현대 중국어 병음, 그리고 한국 한자음을 교차 확인하여 다음자의 형성과 변천 양상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자의 생성은 단순히 발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음운 차이, 의미 분화, 異體字(이체자)·俗字(속자) 전승의 영향이라는 세 요인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복합적 산물임을 확인하였다.

음운 차이형에서는 동일한 글자가 서로 다른 반절이나 운목에 속하면서 복수의 발음을 형성하였고, 이는 실제 어휘 속에서 상이한 음가가 고착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의미 분화형에서는

4) 이 외에도 亓(축·마)는 멈추다의 의미에서는 ‘축’, 지명에서는 ‘마’로 구분되어 사용되며, 亓(선·환·궁)은 지속되다의 의미에서는 ‘선’, 뻗다·퍼지다의 의미에서는 ‘환’, 그리고 긍정의 의미와 관련된 특수 용례에서는 ‘궁’으로 발음이 달라졌다. 또한 亏(우·휴·규)는 본래 ‘모자라다’의 뜻에서는 ‘우’, 결손이나 흠결의 의미에서는 ‘휴’, 일부 한정된 음가로 ‘규’가 쓰이며, 𢵿(들·걸)역시 본래 ‘들다’의 동작에서는 ‘들’, 특정 문맥에서는 ‘걸’로 발음이 고착되었다. 이와 같은 예시 역시 의미 차이에 따라 발음이 분화된 경우이나, 지면의 한계상 본문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5) 이 외에도 丕(불·부)은 본래 ‘不’의 古字(고자)로, ‘불’과 ‘부’ 두 갈래 음가가 함께 전승되었고, 乾(건·간)역시 ‘乾’의 異體字(이체자)로서 동일 계통임에도 ‘건’과 ‘간’으로 병존한다. 또한 𩇛(간·간)은 籀文 계통의 전승에서 파생된 異體字(이체자)로, 같은 글자군 안에서도 이체자 전승이 발음 차이를 만들어 낸 사례이다. 더 나아가 𩇛(아·압)은 ‘亞’의 간체자이자 異體字(이체자)로서, 일반적인 음가 ‘아’ 외에도 특수한 용례에서 ‘압’으로 실현된다. 이처럼 異體字(이체자)·俗字(속자)·籀文(주문)의 전승이 음가 분화에 관여한 사례는 적지 않으나, 본문에서는 모두 다루지 못하였다.

하나의 어원이 의미적 기능의 확장과 문맥 차이에 따라 분화하여, 특정 의미 영역에 한정된 발음이 독립적으로 정착하였다. 이체·속자 영향의 경우, 異體字(이체자)·俗字(속자)·古字(고자)·籀文(주문)의 전승 과정이 발음 분화를 촉발하여, 동일 계통의 글자임에도 상이한 음가가 병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한국 한자음이 중국 내부에서 이미 소실된 고대 음운의 흔적을 보존하는 동시에, 한국적 음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발음을 창출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즉, 한국 한자음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독자적 층위를 지닌 역사적 언어 자원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존 연구가 正音(정음) 중심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실제 언어 사용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俗音(속음)과 다중 발음을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한국 한자음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둘째, 한국 한자음 속에 보존된 소실 음가는 동아시아 비교언어학적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중국 음운사 복원 및 일본·베트남 한자음과의 비교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다음자의 기원과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한자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전 편찬에서도 다층적 발음을 반영한 새로운 편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지면의 한계로 일부 대표적 사례만을 다루었으나, 향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약 3,000여 개의 다음자를 대상으로 계량적·통계적 분석을 진행된다면, 다음자의 분포 양상과 유형별 비중, 그리고 음운 변화의 규칙성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한자음 연구뿐 아니라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언어사 연구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홍길동(2015), 『중국인의 메신저』, 서울: 길음사. (*도서)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1부

7. 중국어학(3)

위당관 210호

**중국어 문법 · 번역 · 텍스트 분석:
교육과 연구의 혁신**

两岸译本用语与表达差异比较研究

一 以王鸥行的*On Earth We' re Briefly Gorgeous*大陆台湾译本为例

金英姬^{*1}

<目 次>

【摘要】

1. 引言
 2. 本論1
 3. 本論2
 4. 本論3
 5. 結語
- 參考文獻

【 摘要 】

台湾与大陆虽然同根同源，但是时代和历史差异，导致两岸语言有很多不同的现象。本文通过越南裔美国新星作家王鸥行的《大地上我们转瞬即逝的绚烂》（大陆版，译者李鹏程）和《此生，你我皆短暂灿烂》（台湾版，译者何穎怡）的译文对比，通过选词、句式、文化、语气等几个方面的比较，找出两岸译本各自的表达特点，这些特点又是怎么渗透到文化认知，情感感知，角色理解和信心获取等方面从而影响了对于原作的理解。小说中涉及很多美国地域文化，如红脖子（redneck，大陆译本，编者注：指美国南方向下白人）、乡巴佬红脖子（台湾译本）等，大陆读者通过注释理解“红脖子”的地域与阶层属性，能精准捕捉崔福（崔佛，台湾译本）父亲“底层白人的暴躁与自卑”——这是他酗酒、家暴的深层原因之一；台湾读者虽能通过“乡巴佬”感知贬义，但可能误解“红脖子”仅指“乡下粗鲁的人”，忽略“美国南方白人的历史阶层困境”，导致对崔福父亲角色的理解停留在“单纯的施暴者”，而非“被阶层压迫的悲剧性人物”。通过对比才有会更大的发现，这些发现有助于我们更加切实地理解原文，对于教学也会起到一定的促进作用。

* 韩国乔治·梅森大学，副教授

1. 引言

本文的研究对象为越南裔美国作家王鸥行（Ocean Vuong）的小说 *On Earth We're Briefly Gorgeous* 的两个中文译本，具体为：大陆译本《大地上我们转瞬即逝的绚烂》（李鹏程 译）与台湾译本《此生，你我皆短暂灿烂》（何颖怡 译）。就书名选用而言，相较于大陆译名《大地上我们转瞬即逝的绚烂》，台湾译名《此生，你我皆短暂灿烂》更贴合英文原文

“On Earth We're Briefly Gorgeous” 的语义内核，且中文表达更简洁上口，故本文在论述中统一引用《此生，你我皆短暂灿烂》作为作品核心称谓，同时标注大陆译名为参照，以避免混淆。

《此生，你我皆短暂灿烂》作为王鸥行的处女作，属自传体小说范畴。作品以主人公“小狗”（其外祖母兰对他的昵称，蕴含“疼惜骨肉”的情感隐喻）向目不识丁的越南裔战争移民母亲“红”写信为叙事框架，采用非线性、碎片化的回忆片段构建文本肌理——叙事场景如文艺电影镜头般的吉光片羽，既保留自传的真实质感，又兼具小说的文学虚构性，形成独特的叙事美学。作品核心聚焦三代越南裔战争移民的生命体验：从越南本土的枪林弹雨，到移民美国后的底层生存挣扎，文本串联起多重议题——战争创伤的代际传递、移民群体面临的生存困境（含种族歧视、语言障碍、劳动剥削等）、身份认同的多维焦虑（涉及种族归属、性别认知、文化身份定位），最终将主题落脚于“痛苦中的美”：即便生命如“君主斑蝶”般短暂易逝，亦能在存在的过程中绽放转瞬即逝的绚烂，构成对移民生命价值的深刻叩问。

语言作为文化的重要载体，大陆与台湾地区虽同根同源，却因历史发展轨迹、社会文化语境的差异形成用语分野，此种差异在外文文学作品的中文翻译实践中尤为显著。王鸥行的 *On Earth We're Briefly Gorgeous* 的两版中文译本（大陆版李鹏程译、台湾版何颖怡译），在翻译处理中，于词汇选择、表达方式等层面呈现出显著差异，部分译法甚至存在与原文语义的偏差。鉴于学界对王鸥行的个人背景（如 1988 年生、幼年随母移民美国、以诗歌创作闻名、获怀丁奖、麦克阿瑟天才奖及艾略特奖等）及创作生涯的研究与介绍已较为充分，本文不再对其个人信息进行细致阐述，仅聚焦两版译本的文本。本文以两版译本为研究对象，从“词汇差异”“表达方式差异”两个核心维度展开比较分析，并对照英文原文核验各版译法的合理性，以期两岸用语差异研究、文学翻译实践的优化提供参考与借鉴。

2. 本論1

一、词汇选择差异：两岸日常用语与文化词汇的分野

两岸用语差异在文本中的直观呈现，集中体现于词汇选择层面。无论是日常事物名称的指称，还是文化专属概念的转译，《大地上我们转瞬即逝的绚烂》（大陆译本，李鹏程译）与《此生，你我皆短暂灿烂》（台湾译本，何颖怡译）均展现出鲜明的地

域语言特征。部分词汇的翻译需结合英文原文进行语义核验，以判断其对原文指涉范围的覆盖度与准确性。

（一）日常事物名称：大陆“通用化—规范化”与台湾“具体化—口语化”的分野

日常事物命名的差异，本质是两岸语言使用习惯与语义编码逻辑的分野。大陆译本倾向采用“通用化、规范化”的词汇，确保对原文语义域的完整覆盖；台湾译本则常附加具体化修饰成分或采用口语化表达，部分译法因过度限定或语义聚焦偏差，导致与原文指代范围不符。以下结合具体实例，对照英文原文展开语义合理性分析：

1. “自动售货机”（大陆）与“饮料贩卖机”（台湾）

大陆译本（李鹏程译）：“在弗吉尼亚的某公路休息站，你盯着卫生间旁边自动售货机上方悬挂的鹿头标本”

台湾译本（何颖怡译）：“回到維吉尼亞州休息站的廁所，妳滿臉驚恐瞪視飲料販賣機上方的公鹿標本”

英文原文：

“a highway rest stop in Virginia, you stared at the deer head mounted above the vending machine next to the bathroom”

原文“vending machine”为通用名词，指“可自动售卖各类商品（如零食、饮料、日用品等）的机器”，未对售卖品类进行限定。从语义对应性来看：- 大陆译本“自动售货机”采用通用化表述，完整覆盖“vending machine”的语义范围，符合原文“不限定商品类型”的客观指涉，属于“语义全等翻译”；

台湾译本“饮料贩卖机”通过“饮料”一词将原文的宽泛概念窄化为“仅售卖饮料的机器”，人为缩小了“vending machine”的指代域，构成“窄化翻译偏差”——原文未隐含“售货机仅售饮料”的语境，该译法与原文语义的通用性存在冲突，导致场景细节的准确性受损。

2. “公路休息站”（大陆）与“休息站的厕所”（台湾）

大陆译本（李鹏程译）：“在弗吉尼亚的某公路休息站”

台湾译本（何颖怡译）：“回到維吉尼亞州休息站的廁所”

英文原文：“a highway rest stop in Virginia”

原文“highway rest stop”的核心语义为“位于公路旁、提供临时休憩功能的场所”，而“bathroom（卫生间）”是“rest stop”内的附属设施，二者构成“整体—部分”的语义关系。从语义逻辑来看：

大陆译本“公路休息站”精准锁定原文核心概念“整体场所”，既保留“highway”（公路）的属性限定，又突出“rest stop”（休息站）的功能本质，属于“语义核心全等翻译”；

台湾译本将“休息站”与“厕所”绑定，误将“部分（卫生间）”当作“整体（休息站）”的核心标识，导致“整体—部分”语义关系错位。这种译法不仅偏离原文对“休憩场所”的整体指涉，还改变了场景的空间焦点——原文旨在呈现“休息站”

这一公共空间中的观察场景，而译本聚焦“厕所”这一局部空间，造成“场景语义偏差”。

3. “君主斑蝶”（大陆）与“帝王斑蝶”（台湾）

大陆译本（李鹏程译）：“一大群君主斑蝶，一万五千多只，正准备一年一度的南迁” 台湾译本（何颖怡译）：“一群超過一萬五千隻的帝王斑蝶開始年度南遷”

英文原文：

“a swarm of monarch butterflies, over fifteen thousand of them, preparing for their annual migration south”

原文 “monarch butterflies” 对应生物学界明确物种 *Danaus plexippus*，其核心语义为 “具有年度南迁习性的斑蝶科物种”，无额外属性限定。从两岸译法来看，大陆译本 “君主斑蝶” 为大陆生物学界与通用语境中的主流定名，台湾译本 “帝王斑蝶” 为台湾地区的常用称谓，二者均严格指向 “*Danaus plexippus*” 这一物种，无语义范围偏差。如果说有差异性，那是两岸地域词汇偏好差异，而非语义合理性差异：两种译法均遵循 “物种名称—生物学分类” 的对应逻辑，仅反映两岸语言使用中对同一物种的习惯性指称选择，不存在 “优劣” 或 “对错” 之分，本质是中文语境下物种定名的地域化呈现。

（二）药物名称翻译：“奥施康定”（大陆）与“疼始康定”（台湾）—注释策略与语义提示差异

1. 译本原文对照

大陆译本（《大地上我们转瞬即逝的绚烂》）：“崔福在树林里骑着越野摩托车玩儿跨越时脚踝骨折，医生给他开了奥施康定”（后文补充：“麻醉剂，基本上是把海洛因变成药片”）

台湾译本（《此生，你我皆短暂灿烂》）：“崔佛十五歲，在林裡玩越野車跳躍，摔斷腳踝，開始服用疼始康定”（前文铺垫：“醫院給我開了一瓶藥，我吃了一個月…… 那是麻醉劑，基本上是把海洛因變成藥片”）

英文原文：“Trevor was fifteen when he broke his ankle jumping dirt bikes in the woods, and the doctor prescribed OxyContin”

2. 语义与注释策略分析

原文 “OxyContin” 为阿片类止痛药（主要成分 Oxycodone）的商品名，核心语义为 “用于缓解中重度疼痛的处方药物”，需通过语境补充其 “麻醉属性” 与 “潜在成瘾性”。两岸译法的差异集中于音译逻辑与注释策略：

音译层面：二者均以 “音译” 为基础（大陆 “奥施康定” / 台湾 “疼始康定”），均能对应 “OxyContin” 的发音核心，无音译准确性偏差；

注释策略层面：

大陆译本采用 “音译 + 后文补充” 模式：先给出药物音译名 “奥施康定”，后续通过 “麻醉剂，基本上是把海洛因变成药片” 补充其药物属性，属于 “后置性语义提示”，需读者结合上下文关联理解；

台湾译本采用“音译 + 前文铺垫”模式：在提及“疼始康定”前，已通过“醫院給我開了一瓶藥……那是麻醉劑”铺垫“处方止痛药”的属性，属于“前置性语义提示”，读者在接触药物名时即可快速关联其“止痛、麻醉”功能；

差异性质为注释策略差异，而非语义偏差：两种译法均准确传递“OxyContin”的药物指代与核心属性，仅通过“前置 / 后置”的注释节奏调整，优化不同地域读者的理解效率，体现两岸译本对“专业术语语义传递节奏”的差异化处理思路。

3. 本論2

（二）文化专属概念：大陆“简洁音译”与台湾“音译+标注”差异

对于越南文化专属概念（如服饰、民歌），两版译本的处理方式不同，反映了两岸对异文化词汇的传递策略差异。

1. “奥黛”与“奥黛 (áo dài)”

李鹏程版：“讲她遇见他时穿着一件紫色奥黛，从酒吧的灯下走过时，开衩的下摆在身后飘扬”

何穎怡版：“相遇那天，她穿紫色奥黛 (áo dài)，走路時，燈光滲透她的飄飄裙衩”

对照原文：“she was wearing a purple áo dài”

“áo dài”是越南传统服饰“奥黛”的越南语原文，李鹏程版直接采用音译“奥黛”，默认读者对该文化概念有基础认知；何穎怡版在音译“奥黛”后标注越南语原文“(áo dài)”，更注重为读者提供原文参照，降低异文化理解门槛。二者均符合原文语义，仅翻译策略不同，属于表达方式差异而非合理性问题。

2. “歌筹”与“歌筹 (Ca trù)”

李鹏程版：“歌筹，民歌——外婆以前老唱”

何穎怡版：“歌筹 (Ca trù)，民謠。外婆常唱的”

对照原文：“Ca trù, the folk songs—Grandma used to sing them all the time”

“Ca trù”是越南传统民歌“歌筹”的原文，李鹏程版用“民歌”解释“歌筹”，简洁传递属性；何穎怡版用“民謠”解释，且标注原文“(Ca trù)”。 “民歌”与“民謠”是两岸对“folk songs”的常用译法（大陆多称“民歌”，台湾多称“民謠”），均符合原文语义，标注方式的差异仅体现台湾译本对“原文溯源”的重视。

4. 本論3

二、表达方式差异：句式结构与语气传递的地域倾向

除词汇外，两版译本在句式结构、语气传递上也呈现差异：大陆译本倾向简洁紧凑的句式，语气更贴近原文的抒情性；台湾译本常使用口语化句式或补充细节，部分表达弱化了原文的情感浓度。

（一）句式结构：大陆“紧凑抒情”与台湾“松散口语”

1. 核心抒情句的句式差异

小说以“零散回忆”构建

叙事（如从弗吉尼亚休息站的鹿头标本，跳转到烟田的少年时光），李鹏程译本未刻意调整为“线性时序”，而是保留“跳跃感”，贴合

“通过回忆碎片留白，让读者用情感填补”的效果：

大陆版：“我书写是想抵达你——虽然我每写下一个字，离你就又远一个字”

台湾版：“我書寫，是為了接近妳，雖然我每寫下一字，跟妳就多了一個字的距離”

对照原文：“I write to reach you—though every word I put down is a word further from you”

原文通过“though”引导转折，传递“书写的矛盾：想接近却更遥远”的抒情性。李鹏程版采用“—”衔接转折，句式紧凑，“抵达你”比何穎怡版“接近妳”更具情感张力（“抵达”暗含“跨越阻碍的渴望”，“接近”更平淡）；何穎怡版用逗号拆分句子，句式更松散，且“跟妳就多了一個字的距離”比李鹏程版“离你就又远一个字”更口语化，弱化了原文的抒情浓度。二者均符合原文语义，但李鹏程版更贴近原文的文学性语气。但是何颖怡的表达更贴近汉语的表达习惯，读起来更上口，更容易让人理解。

2. 动作描写的句式差异

大陆版：“你打开前门，对着我人生中的第一场雪，耳语道：‘看’”。

台湾版：“妳打開前門低聲說：‘瞧。’我看到了生命第一場雪。”

对照原文：“You opened the front door, and to the first snow of my life, whispered, ‘Look.’”

原文“对着我人生中的第一场雪”是“耳语”的伴随场景，大陆版将其作为状语嵌入句中，句式连贯，符合原文“动作+场景”的融合表达；台湾版将“我看到了生命第一場雪”拆分为独立句子，虽补充了“我”的视角，但割裂了原文“开门-耳语-看雪”的动作连贯性，属于“过度拆分”的表达方式差异，虽不影响语义，却破坏了原文的动作流。

（二）语气传递：大陆“忠实原文”与台湾“口语化调整”

1. 儿童对话的语气差异

大陆版：“我五六岁的时候，搞恶作剧，从走廊的门后跳出来，冲你喊：‘轰！’”

台湾版：“我五歲還是六歲時惡作劇，從走道門後跳出，衝妳大叫：‘砰！’”

对照原文：“When I was five or six, I played a prank, jumping out from behind the hallway door and yelling ‘Boom!’ at you”

原文“Boom!”是儿童模仿爆炸的拟声词，大陆版“轰”、台湾版“砰”均符合拟声效果，但台湾版“大叫”比大陆版“喊”更口语化（“喊”更中性，“大叫”强调“声音大”，更贴近儿童恶作剧的夸张语气），属于语气传递的地域倾向差异，无合理性问题。

2. 情绪爆发句的语气差异

大陆版：“你挥舞着拳头，在停车场里大喊大叫，夕阳把你的头发蚀刻成红色”

台湾版：“妳握緊拳頭，在停車場大叫大嚷，夕陽將妳的頭髮勾成紅色”

对照原文：“You were swinging your fists, screaming in the parking lot, the sunset etching your hair red”

原文“screaming”强调“情绪激动的尖叫”，大陆版“大喊大叫”准确传递情绪强度；台湾版“大叫大嚷”虽也表“大声喊叫”，但“嚷”更偏向“吵闹、不庄重”，弱化了原文中“愤怒、痛苦”的情绪内核，语气传递稍显偏差。

5. 本論4

三、翻译合理性争议：偏离原文语义的典型案列

两版译本中均存在部分偏离原文语义的翻译，或因“窄化概念”，或因“过度本土化”，导致与原文表达的核心含义不符，需结合原文逐一辨析。

（一）台湾版“你棒棒”：语义窄化与文化错位

台湾版：“你棒棒，別砰砰。你棒棒。”

大陆版：“美国第一。别砰砰，美国第一。”

对照原文：“USA Number One.” “No bang bang. USA Number One.”

原文是兰面对美国士兵时，用破碎的英语表达“美国第一”“别开枪”，核心是“迎合士兵的国家认同以求自保”。李鹏程的“美国第一”准确对应“USA Number One”，传递出“求生时的妥协”；何穎怡的“你棒棒”将“USA Number One”（美国第一）转化为“你很棒”，完全脱离原文的“国家认同”语境，属于“过度本土化”的不合理翻译——“棒棒”是台湾口语中“很棒”的意思，与原文“USA Number One”的“国家地位强调”毫无关联，既丢失语义，又造成文化错位。

（二）台湾版“我從她的屁眼出來的”：用词粗俗化与语义偏差

台湾版：“我從她的屁眼出來的，我很愛她。”

大陆版：“我从她屁股里出来的，我很爱她。”

对照原文：“I came out of your ass, and I love you very much.”

原文“ass”在英语中可指“屁股”，是口语化表达，但非粗俗词；中文中“屁眼”是“肛门”的俗称，属于粗俗用语，而“屁股”是更委婉、通用的表达。何穎怡版用“屁眼”直译“ass”，忽略了中英文“粗俗程度的不对等”——英语“ass”在日常对话中可使用，中文“屁眼”却极少用于母子对话，且偏离原文“委婉口语”的语气，属于“用词不当”的不合理翻译；李鹏程版“屁股”既符合原文语义，又契合中文的委婉表达习惯，更具合理性。

（三）台湾版“休息站的厕所”：整体与部分混淆

如前文“公路休息站”案例所述，台湾版将原文“highway rest stop”（公路休息站）译为“休息站的厕所”，误将“厕所(bathroom)”这一“部分设施”当作“休息站(rest stop)”的“整体概念”，属于“以偏概全”的不合理翻译，大陆版“公路休息站”则准确保留原文的“整体指代”，更符合语义逻辑。

6. 結語

本研究基于《大地上我们转瞬即逝的绚烂》与《此生，你我皆短暂灿烂》两个文本，聚焦 *On Earth We're Briefly*

Gorgeous 两岸译本差异，发现两版译本的用语分野，本质是两岸语言发展轨迹、社会文化语境与翻译策略选择共同作用的结果，其差异具体体现在三个核心维度，且均需结合文本实例与原文语义展开合理性核验。从词汇选择维度看，大陆译本倾向采用“通用化、简洁化”表述，如以“自动售货机”对应原文“vending machine”，完整覆盖其语义范围；台湾译本（何颖怡

译）则偏好“具体化、口语化”表达，部分词汇因过度限定导致“语义窄化”，如将“vending

machine”译为“饮料贩卖机”，人为缩小原文“可售卖各类商品”的指代域，与原文语义通用性存在偏差。从表达方式维度看，大陆译本句式更紧凑，抒情性更强，如对“君主斑蝶南迁”场景的叙述，以连贯长句保留原文的画面整体性；台湾译本句式更松散，口语化特征更明显，部分长句拆分虽贴合地域语言习惯，但存在破坏原文动作连贯性的问题——如将“休息站与卫生间”的“整体一

部分”关系误译为“休息站的厕所”，导致场景空间焦点错位。从翻译合理性维度看，两版译本的差异并非“绝对优劣之分”，而是两岸语言生态与翻译目标的真实映射：台湾译本中“你棒棒”“屁眼”等表达，存在语义偏离原文或语言粗俗化的问题，削弱了文本的文学性与情感严肃性；大陆译本则更注重“原文语义与情感的忠实传递”，如通过“公路休息站”精准对应“highway rest

stop”的核心概念，以“奥施康定+后文补充”的策略平衡专业术语的准确性与读者理解效率，在核心信息传递上更贴近原文内核。进一步而言，大陆译本的核心价值在于突破“翻译=语言转换”的表层局限：通过对原文诗性语言的还原（如保留“自由不过是猎人与猎物之间的距离”的短句节奏）、文化负载词的适度补位（如对“红脖子”的编者注说明）、非线性叙事结构的尊重（贴合回忆碎片的美学特征），使中文读者不仅能“读懂”文本中越南裔移民的生存故事，更能“共情”故事背后的人类共通体验——

战争创伤的代际传递、身份认同的迷茫挣扎、短暂生命中对“绚烂”的执着追寻。正如《大地上我们转瞬即逝的绚烂》中所述：“接纳这个故事，就像拥抱自己——我们活过的刹那，前后皆是永夜。哪怕生活千疮百孔，那也是绚烂”，这正是大陆译本最终传递的核心意涵：其翻译的并非“异乡的猎奇故事”，而是每个人都可能经历的“生命本质的脆弱与坚韧”。从学术价值与实践意义来看，两版译本的差异为“两岸用语比较研究”提供了鲜活的文学文本语料，尤其为“日常事物名称”“专业术语注释策略”等细分领域的差异分析提供了具体例证；对文学翻译实践而言，本研究揭示的“过度本土化易导致语义偏差”问题具有警示意义——

翻译需在保留地域语言特色的同时，坚守“原文语义不扭曲、情感不衰减”的底线，实现“地域适配”与“原文忠实”的平衡。未来两岸用语研究可基于本研究的文本范围进一步拓展，从“文化负载词的深层隐喻传递”“叙事节奏的地域化调整”等更多维度，挖掘语言差异背后的文化逻辑与社会心理；同时可结合更多两岸译本实例，为两岸语言融合、文学交流与翻译实践提供更具针对性的理论支撑与实践参考。

参考文献

王鷗行 (Ocean Vuong). 大地上我们转瞬即逝的绚烂 [M]. 李鹏程, 译. 北京: 北京联合出版公司, 2023. (原作名: *On Earth We're Briefly Gorgeous*)

王鷗行 (Ocean Vuong). 此生, 你我皆短暂灿烂 [M]. 何颖怡, 译. 台北: 时报文化, 2022. (原作名: *On Earth We're Briefly Gorgeous*)

Vuong, Ocean. *On Earth We're Briefly Gorgeous*. New York: Penguin Press, 2019.

‘(S)+A_{asp}+N’ 구문에서 중국어 색채형용사의 의미 확장과 감성 분석 ‘红’, ‘黑’를 중심으로

이아형¹⁾*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선행연구
 3. ‘(S)+红_{asp}+N’의 감성 분석
 4. ‘(S)+黑_{asp}+N’의 감성 분석
 5.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

1. 서론

색채는 물리적 자극이면서 동시에 심리적·문화적 표상이다. 색채형용사는 이러한 색채 인식이 언어화된 형태로, 물리적 속성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가치 판단을 반영한다. 특히 중국어의 색채형용사 红과 黑은 고대부터 음양오행(阴阳五行) 사상과 밀접히 관련되며, ‘吉凶’·‘善恶’·‘荣辱’ 등 도덕적 가치 판단의 틀 속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왔다.

최근 인지미론과 말뭉치언어학의 발전으로 색채형용사의 비유적 확장과 감정적 함의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색채형용사가 시태조사(了·着·过)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의미 전이와 감정극성의 상관성에 주목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색채어의 문화 상징이나 인지적 은유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구문적 표지(aspect marker)가 색채 의미의 해석에 미치는 영향은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어 색채형용사 ‘红’과 ‘黑’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S)+A_{asp}+N’ 구문에서 어떠한 의미 확장과 감정적 함의를 보이는지를 구문·의미·감정 인터페이스(interaction)의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다음 세 가지이다.

- ① ‘红’, ‘黑’이 ‘(S)+A_{asp}+N’ 구조에서 보이는 결합 양상과 상표지(了·着·过) 분포를 기술하고,
- ② 시태조사의 상적(相的) 기능이 색채형용사의 기본의미에서 확장의미로의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며,

1)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중전공 부교수

③ 구문별 감정 극성(긍·부·혼합)과 감정유형(喜怒哀懼愛厭)을 분석하여 색채형용사의 감성 자질(feature)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설정된다.

- 1) ‘紅’, ‘黑’이 ‘A+시태조사+N’ 구문에서 보이는 결합 양상과 상표지 분포는 어떠한가?
- 2) 구문 구조(‘(S)+A_{asp}+N’)는 색채형용사의 기본의미 → 확장의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3) 상표지에 따라 색채형용사가 획득하는 감정 극성 및 감정유형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4) 이러한 차이가 번역·감성 분석 및 언어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말뭉치 기반 통계 분석과 인적 주석(人力标注)을 결합한 혼합형 코퍼스 연구(hybrid corpus study)이다. 연구 절차는 다음 여섯 단계로 구성된다.

단계	주요 내용
① 코퍼스 수집	대규모 말뭉치 BCC에서 ‘紅/黑+(了/着/过)’ 자동 추출
② 데이터 정제	중복·비문 제거 및 문맥 확보
③ 의미 범주 분류	기본의미 / 심리·감정 / 사회·도덕 평가
④ 감성 주석	극성·감정유형·강도·상표지 기능 부여
⑤ 통계 및 의미망 분석	색채어별 감정부호·의미확장 경로 시각화
⑥ 비교 및 논의	‘紅’ vs ‘黑’의 구문·감정 차이 비교 및 번역 시사점 도출

표1 연구절차

감정 분석은 다음을 기준으로 진행할 것이다.

범주	구분	설명
A. 색채어	紅, 黑	기본형 및 파생형 포함
B. 시태조사	了(변화), 着(지속), 过(경험)	감정전이·지속·회상 구분
C. 명사범주	신체(脸, 心, 眼), 자연(天, 夜), 사물(衣, 灯), 추상/사회(名声, 权力)	결합 명사 유형
D. 의미유형	1. 물리색, 2. 감정·심리, 3. 사회·도덕 평가	3단계
E. 감정유형	喜, 怒, 哀, 惧, 爱, 厌	Plutchik 6대 범주 기준
F. 극성	긍정, 부정, 혼합, 중립	문맥 기반 판정
G. 강도	1~5	감정 강도 평가

표2 감정 분석 기준

본 연구의 주석 체계는 말뭉치 내 ‘색채형용사+시태조사+명사(S)+A_{asp}+N’ 구문을 대상으로, 형태적 일관성과 감성 의미의 객관적 분류를 보장하기 위해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하였다.

주석 과정은 기본 규칙, 의미 분류 원칙, 감성 판정 규칙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I) 기본 규칙

첫째, 주석 대상은 반드시 ‘A+시태조사+N’의 형식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형용사는 색채형용사 중에서도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紅’(붉다)와 ‘黑’(검다) 계열로 한정하였다.

셋째, 명사(N)는 1~3자의 범위로 설정하여 지나치게 복잡한 명사구(예: 修饰语+名词 구조)는 제외하였으며, 구체 명사(예: 脸, 天, 灯)뿐 아니라 추상 명사(예: 心, 名声, 情)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석의 문맥 단위는 감정 해석이 가능한 최소 절(clause) 단위로 설정하였다.

(2) 의미 분류 원칙

색채형용사의 의미는 용례의 문맥적 기능에 따라 물리색(physical color), 감정·심리(emotional/psychological), 사회·도덕 평가(social/moral evaluation)의 세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째, 물리색 범주는 색채형용사가 실제 색의 변화를 기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둘째, 감정·심리 범주는 신체기관이나 감정기관과 결합하여 감정의 내면적 변화를 표현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红了脸(얼굴이 붉어졌다)'은 부끄러움 혹은 분노의 감정을, '黑了心(마음이 검게 변했다)'은 냉혹함·악의 등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므로 이 범주에 포함된다.

셋째, 사회·도덕 평가 범주는 색채형용사가 개인의 평판, 행위, 도덕적 속성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红了他(그가 유명해졌다)'는 사회적 성공과 명예의 긍정적 평가를, '黑了名声(명성이 더럽혀졌다)'은 부정적 사회 평가를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은유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색채어가 형용사적 의미 기능을 상실한 경우(예: 관용구 내부에서 의미가 고정된 경우)는 확장 불가 항목으로 간주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는 색채형용사가 단순한 지각적 수식어를 넘어, 감정 및 평가 기능을 지닌 어휘적 단위로 확장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3) 감정 판정 규칙

감정 판정 단계에서는 각 구문이 표현하는 정서적 함의를 긍정(positive), 부정(negative), 혼합(mixed), 중립(neutral)의 네 범주로 구분하였다.

① 긍정 감정은 활력, 명예, 성공, 사랑, 희망 등 화자에게 긍정적 가치로 인식되는 정서를 포함하며, 예를 들어 '红了他(그가 유명해졌다)'나 '红透半边天(매우 인기 있다)'와 같은 구문이 이에 해당한다.

② 부정 감정은 어둠, 냉혹, 부패, 절망 등 부정적 가치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로, '黑了心(마음이 사악해졌다)', '黑了名声(명성이 더럽혀졌다)' 등이 대표적이다.

③ 혼합 감정은 서로 상반된 정서가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红了脸'은 부끄러움(羞)과 분노(怒)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감정 구조를 보여주므로 혼합형으로 분류하였다.

④ 중립 감정은 단순히 색채 변화나 물리적 상태를 기술하는 데 그치는 구문으로, '红了灯(불이 켜졌다)'와 같은 예문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색채형용사의 감정적 함의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며, 각 구문에 내재된 감정의 극성(Polarity), 감정 강도(Intensity), 감정 유형(Type)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색채형용사가 시대조사와 결합할 때 드러나는 감정의 발생·지속·회상 등 상적(Aspectual) 감성 전이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연구 자료는 北京语言大学 BCC Corpus에서 수집하며, 분석 대상은 '红', '黑' 및 그 파생형(通红, 发红, 乌黑, 黝黑 등)을 포함한다. 구문 형태는 A+了+N, A+着+N, A+过+N으로 한정하고, '红'은 BCC 多领域에서 검색어 红[了 着 过]로 검색한 26708개의 예문 중 랜덤으로 10000개를 다운로드하였고, '黑'은 多领域에서 검색어 黑[了 着 过]로 검색한 9504개의 예문을 다운로드하여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 목적어를 가지는 예문을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단위는 절(Clause) 수준으로 하며, 추출 기준은 ①A가 색채형용사일 것, ②시대조사가 了/着/过 중 하나일 것, ③N이 명사일 것, ④문맥이 완결된 문장일 것이다.

2. 선행연구

3. ‘(S)+红了+N’의 감성 분석

紅의 전체 10,000개 예문 중 16행은 한 문장 안에 둘 이상의 형태가 함께 나타났으나, 가장 먼저 등장하는 형태로 분류하여 집계했다. 그리고 1행은 红[了/着/过]가 발견되지 않아 ‘무분류’로 처리했으며 나머지 분류는 다음과 같다.

형태	개수	비율
红了	7,695	76.95%
红着	2,171	21.71%
红过	133	1.33%

표 3 红[了/着/过] 분포표

그럼 다음으로 ‘红了N’, ‘红着N’ ‘红过N’을 각각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3.1 ‘红了+N’의 감성 분석

먼저 총 7,695개의 ‘红了’ 예문 중 후행 명사가 있는 예문은 3,468건이며, 후행명사는 다음과 같다.

脸, 地, 眼, 眼睛, 红了 (중복패턴), 天, 要, 水, 山, 哥哥, 拍鸟去, 天图, 他的衣, 情, 新生活, 刚早报, 剧情介绍 등

‘红了’ 뒤에는 신체 명사(脸, 眼, 眼睛) 및 자연·환경 명사(天, 地, 水, 山)가 가장 빈번히 결합이며, 특히 脸, 眼은 감정 표현(부끄러움·분노)의 전형적 구문으로, 감성 구문 빈도의 중심을 이룬다. 후행 명사 결합 비율은 전체 ‘红了’ 용례의 약 45% 내외로, 나머지는 술어·절 결합형(‘红了起来’, ‘红了他’)으로 분류된다.

그중 다음은 ‘红了+신체·자연·추상 명사’ 결합만 필터링한 결과 총 7,695개의 ‘红了’ 예문 중, 아래 8개 명사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순위	명사	의미범주	빈도
1	脸	신체(얼굴)	7
2	地	자연(땅, 대지)	6
3	眼	신체(눈)	6
4	天	자연(하늘)	5
5	水	자연(물)	3
6	山	자연(산)	3
7	情	추상(감정)	2
8	心	신체/추상(마음, 심장)	2
9	月亮	자연(달)	1

표 4 ‘红了+신체·자연·추상 명사’ 분포표

‘红了脸’, ‘红了眼’은 감정 표출(부끄러움·분노·감동)의 대표 구문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红了天’, ‘红了地’ 등은 자연색 변화(새벽, 석양 등)를 표현하는 물리적 의미의 예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红了心’, ‘红了情’은 은유적·감정적 확장 예로, 감성 분석 핵심 구문군(심리·정서적 색채 변화)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红了+신체·자연·추상 명사’ 결합 예문을 대상으로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을 수행했다.

데이터는 앞서 도출된 9개 주요 명사(脸, 眼, 心, 情, 天, 地, 山, 水, 月亮)이며, 각 명사군의 감정 유형·극성(긍·부·혼합·중립)·감정 강도(1~5)를 문헌적 맥락과 말뭉치 통계 경향(‘红了脸=羞/怒’, ‘红了天=喜/平静’)을 근거로 분석했다.

순 위	구문	의미범주	주된 감정	극성	강도 (1~5)	해석 및 주석
1	红了脸	신체(얼굴)	羞(부끄러움) / 怒(분노)	혼합	4	감정의 순간적 폭발. 부끄러움과 분노의 경계. 인간 감정 변화의 전형적 상징.
2	红了眼	신체(눈)	哀(슬픔) / 怒(분노)	부정	4	눈의 충혈로 분노·울음의 감정이 지속된 상태. 비탄·격정 표현.
3	红了心	추상 / 신체(마음)	爱(사랑) / 喜(기쁨)	긍정	3	감정의 고조·열정. 심리적 ‘불타오름’의 은유.
4	红了情	추상(감정)	爱(사랑) / 欲(열망)	긍정	3	감정이 생동하는 상태. 낭만·열정·애정 표현.
5	红了天	자연(하늘)	喜(평온·희망)	긍정	2	새벽 또는 석양의 붉은빛으로 자연의 변화 묘사. 미학적·평화적 정서.
6	红了地	자연(대지)	喜(활력)	긍정	2	봄·가을의 색채 변화 묘사. 자연의 생명감, 풍요의 은유.
7	红了山	자연(산)	喜(활력) / 爱(감탄)	긍정	2	산의 단풍·석양 묘사. 안정·조화의 감정.
8	红了水	자연(물)	惧(불안) / 哀(불길)	긍정	2	물이 붉어짐은 종종 사고·전쟁 등 비유적 공포를 암시. 문맥 의존적.
9	红了月亮	자연(달)	惧(불안) / 哀(쓸쓸함)	부정 (경미)	2	붉은 달은 상징적 불길함 또는 낭만적 비유로 사용. 이중 감성 구조.

표 5 ‘红了+정상 명사’ 감성 분석 결과

‘红了’ 구문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감정 56%, 부정·혼합 감정 44%의 비율로, 감정적 양가성이 높았다. 그중, 신체 명사 결합형(脸, 眼, 心)은 감정의 직접 표출(내적 정서)이 주를 이루었으며, 자연 명사 결합형(天, 地, 山, 水, 月亮)은 색채의 외연적·상징적 감정 표현(심미·비유)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특히 红了脸과 红了眼은 중국어 감정 구문의 핵심 패턴으로, 감정 전이(transition of emotion)와 시태조사 ‘了’의 변화 의미가 가장 강하게 결합됨을 알 수 있었다.

감성 범주	해당 구문	비율(%)	특징
긍정 감정 (喜, 爱)	红了心, 红了情, 红了天, 红了地, 红了山	55.6%	생명력·열정·조화·희망 등 생성적 감정군 중심
부정 감정 (怒, 哀, 惧)	红了眼, 红了水	22.2%	분노·슬픔·불안 등 걱정·비탄형 감정
혼합 감정 (羞/怒, 哀/喜)	红了脸, 红了月亮	22.2%	상반 감정이 공존하는 전이형 감정 구조
중립	(없음)	0	‘红了’ 구문은 대부분 감정적 전이 요소를 포함

표 6 ‘红了+정상 명사’ 감정 분포표

‘红了脸’과 ‘红了眼’은 인간 감정의 내적 동요를 나타내며, 상표지 ‘了’의 결과상태가 감정의 ‘폭발적 변화점’으로 기능한다. ‘红了天’, ‘红了地’, ‘红了山’은 물리적 변화가 정서적 평온·활력으로 환원되는 구문으로, 색채의 감정화(emotionalization of color)의 대표 예이다.

‘红了心’과 ‘红了情’은 감정의 심리화·추상화 경향을 보여주며, 사랑·열정·몰입 등의 정서를 내포한다.

전체적으로 ‘红了+정상 명사’ 구문은 감정적 확장과 색채의 은유적 기능이 결합된 복합 감성 구문으로, 중국어의 색채심리적 언어관을 반영하는 핵심 구조로 해석된다.

범주	대표 구문	감정유형	극성	강도 평
신체형	红了脸, 红了眼, 红了心	羞/怒/哀/爱	혼합→긍정	3.7
자연형	红了天, 红了地, 红了山, 红了水, 红了月亮	喜/哀/惧	긍정→혼합	2.2
추상형	红了情	爱/喜	긍정	3.0

표 7 ‘红了+정상 명사’ 감성 해석 요약표

3.2 ‘红着+N’ 구문의 감성분석

다음은 ‘红着+명사’ 구조로 나타난 신체명사 성분의 통계 결과이다. ‘红着+N’의 경우 자연명사 및 추상명사와의 결합은 없고 신체명사와의 결합이 두드러졌다. 신체 명사(脸, 耳, 唇, 颈, 眼, 脖子)가 주된 결합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红着脸’, ‘红着眼’, ‘红着耳’ 등 감정의 지속 상태(분노·부끄러움·긴장)를 표현하는 구문으로 해석된다. 즉 ‘红着’는 ‘红了’보다 감정 지속형 구문에서 더 한정적으로 사용됨을 시사한다.

순위	명사	의미범주	빈도	감정 해석
1	脸	신체(얼굴)	4	부끄러움·분노의 지속 (红着脸说话, 红着脸争论)
2	耳	신체(귀)	4	긴장·당혹·수치 (红着耳根)
3	唇	신체(입술)	3	설렘·열정·유혹 (红着唇微笑)
4	颈	신체(목)	3	감정 긴장·홍분 (红着颈脖)
5	眼	신체(눈)	3	분노·울음의 지속 (红着眼看着他)
6	脖子	신체(목 전체)	1	열기·걱정의 신체 반응 (红着脖子喊)

표 8 ‘红着+신체 명사(脸, 眼, 耳, 唇, 颈, 脖子)’ 감성분포

‘红着’ 구문은 신체 부위 명사와 결합하여 ‘감정의 지속 상태’를 표현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상표지 ‘着’은 변화가 아닌 지속·유지의 상적 의미를 가지며, 감정의 시간적 연장을 나타낸다. 그래서 ‘红着脸/眼/耳’은 모두 ‘붉은 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한다. 가장 빈도가 높은 ‘红着脸’과 ‘红着耳’은 수치심·분노·당황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며, 감정 강도는 중간~상(3~4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요 결합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구문	기본 의미	감정 유형	극성	강도	감정 설명
红着脸	부끄러움·분노가 남은 얼굴	羞(수치)+怒(분노)	혼합	4	감정 폭발 후 잔존하는 수치·당혹의 정서
红着眼	눈이 붉어진 채	哀(슬픔)+怒(걱정)	부정	4	울거나 분노하여 지속된 감정 긴장
红着唇	입술이 붉은 채	爱(사랑)+欲(설렘)	긍정	3	감정적 매혹·설렘의 잔존 상태
红着耳	귀가 붉은 채	羞(부끄러움)+慌(당황)	혼합	3	부끄러움이 남은 상태로 심리적 불안정 표현
红着颈 / 红着脖子	목이 붉은 채	怒(분노)+热(걱정)	부정	4	분노·걱정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는 상태

표 9 ‘红着+신체 명사(脸, 眼, 耳, 唇, 颈, 脖子)’ 감성분석표

해당 구문은 주로 ‘红着+脸/眼/唇/颈/耳/脖子’의 형태로 나타나며, 모두 신체 부위가 ‘붉은 상태로 유지되는’ 감정의 지속적 국면(aspect of persistence) 을 표현한다. 그리고 ‘红着’은 변화(了)가 아닌 상태 유지(着)를 나타내므로, 감정이 이미 발생한 뒤 일정 시간 동안 지속·잔존하는 심리 상태를 표상한다.

감성 범주	구문	비율(%)	특징
긍정(愛·喜)	红着唇	16.7	매혹·애정·미적 감정
부정(怒·哀)	红着眼, 红着颈, 红着脖子	50.0	걱정·분노·비통의 지속
혼합(羞·慌)	红着脸, 红着耳	33.3	수치·당혹과 함께 감정 긴장 유지

표 10 ‘红着+신체 명사(脸, 眼, 耳, 唇, 颈, 脖子)’ 감성 범주 분포

전체적으로 부정 및 혼합 감정이 83%로, ‘红着+신체명사’는 ‘红了+명사’보다 감정의 즉시적 변화보다는 지속·불안정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상표지 着은 감정의 완화가 아닌 지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감정 강도는 평균 3.5~4.0, 즉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를 표상한다. 예를 들면, ‘他红着眼说话(분노·비통의 감정 지속)’, ‘她红着脸低头笑(부끄러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지속 감정)’ 등이 있다.

인지·의미적 측면에서 보자면 ‘红着+N’은 신체 반응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얼굴, 귀, 눈 등은 감정의 생리적 표상으로, 색채 변화가 곧 심리 변화로 연결됨을 의미한다. ‘红着’의 감정을 시간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红了’이 감정의 발생점(transition) 이라면, ‘红着’은 감정의 유지·확장(persistence) 단계를 형상화한다. 의미 확장 경로를 보자면 ‘물리색 → 신체 반응 → 감정 상태 → 태도 표현(예: 红着脸 → 羞愧 → 谦卑/紧张)’의 경로를 떠나는 것을 알 수 있다. ‘红着+신체 명사’ 구문은 중국어에서 감정이 이미 발생한 후 일정 시간 유지되는 국면을 표현하는 핵심 패턴이며, ‘红了’보다 덜 폭발적이지만 심리적으로 더 깊은 정서의 잔향(residual emotion) 을 드러내는 감성적 표현으로 해석된다.

3.3 ‘红过+N’ 구문의 감성 분석

본 예문은 133개에 불과하며 ‘红过’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는 매우 적다(3건, 약 2.2%). 대부분 ‘红过脸’ 형태에 집중되어 있는데 ‘红过脸’은 과거 경험을 회상하거나 완화된 부정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의 경험상(Aspect of experience) 구문으로 해석된다. ‘红过’는 ‘红了’(변화형)·‘红着’(지속형)에 비해 사용 빈도가 극히 낮으며, 감정의 강도가 약하고 회상·완화 기능이 중심이다.

‘红过’는 상표지 ‘过’를 수반하여 과거의 경험 또는 완결된 상태에 대한 회상을 표지하는 구문이다. 즉, ‘A过+N’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나 감정의 경험을 회상할 때 사용되며, 감정이 현재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감정 경험의 흔적’을 표현한다.

예:

我们以前红过脸, 但现在好了。

他和父亲红过脸以后再也不提那件事。

이러한 구문에서 ‘红’의 색채 의미는 사라지고, 감정의 흔적(분노·다툼)이 중심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红过脸’은 ‘예전에 서로 화를 낸 적이 있다’, 즉 일시적 감정 경험의 회상으로 의미화된다.

코퍼스 내 红过 용례 133건 중 실제 명사가 결합된 경우는 3건(2.2%)이며, 이 중 2건이 红过脸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해 의미적으로 동일한 회상 구문(红过架, 红过眼 등 변형형태 포함)을 통합하면 다음과 같은 감정 극성 분포를 얻을 수 있다.

감정 유형	대표 구문	극성	강도	해석 및 주석
분노·다툼(怒)	红过脸, 红过架	부정	2~3	감정 충돌의 과거 경험. 현재는 해소됨. ‘과거의 분노’가 완화된 의미.
부끄러움·후회(羞·哀)	红过脸	혼합	2	다툼 이후의 반성·후회가 동반됨. 감정 회복의 문맥에서 사용됨
친밀·화해(爱·喜)	红过脸以后好了	긍정	2	갈등 경험이 관계 회복의 계기로 전환될 때 긍정적 회상으로 해석됨.

표 11 ‘红过’ 구문 감성 분포표

비록 예문은 적지만 부정극성(분노·다툼), 혼합(후회·감정완화), 긍정(화해·교감의 회상) 등 다양한 감정 분포를 보였으며 감정 강도 평균은 2.3, 즉 ‘감정이 약화된 경험적 기억’ 수준을 보였다.

‘红过脸’은 위 세 구문 중 감정의 ‘시제적 종결점’을 담당한다. 감정이 현재로부터 분리되어 과거의 사건으로 객관화되며, 화자는 감정의 잔류보다는 감정의 기억과 관계의 변화를 강조한다. 그리고 중국어 화자는 红过脸을 ‘서로 다투거나 감정이 상한 경험’의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갈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 ‘감정이 오간 적이 있다’는 식의 관계 완화 담화 전략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红了脸’이 부끄러움·분노의 즉시 감정이라면, ‘红过脸’은 감정의 냉각 후 회상적 중립화가 진행된 상태이다. 따라서 색채 감정의 ‘탈감정화(emotional attenuation)’ 현상이 관찰된다.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중국어에서 ‘红脸’은 자체가 ‘감정의 폭발’을 상징하는 동시에, ‘红过脸’은 그 폭발이 ‘이미 지나감’을 표현한다. 따라서 본 구문은 감정 경험의 시간적 거리두기(emotional distancing)를 구현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4. ‘(S)+黑asp+N’의 감성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 김수현. (2019). 현대중국어 ‘(S)+A_{asp}+O’ 구문의 결합 양상 및 의미 확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상경. (2021). 중국어 색채어 ‘黑’ 신경망 기계번역 의미 오류 분석: ‘黑’류 형용사가 쓰인 문장의 중한 번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이아형. (2024). 색채형용사 ‘红, 黑’의 ‘A_{asp} +NP’문형 의미확장 연구 — ‘VA_{asp} +NP’ 문형과 ‘A_{asp} +NP’ 문형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회].
- 전은경. (2022). 한·중 색채형용사 의미 대조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현대중국어 반복 사건 구문의 구별적 동사 연구

코퍼스와 실험의 증거

이은경*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분석 결과: 웨이보
3. 분석 결과: 인민일보
4. 원어면 실험(예정)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중국어 반복 사건 구문—‘经常VP’, ‘常常VP’, ‘总是VP’, ‘往往VP’, ‘老是VP’, ‘一直VP’—를 대상으로, 구문 슬롯 VP에 결합하는 공기어휘 패턴을 코퍼스로부터 추출·비교함으로써 사용 차이와 의미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CCL코퍼스의 인민일보(2021~2022)와 微博(weibo 001~010)를 활용하여, 구문 (6개)×VP 공기표를 정리한 후 다중 구별적 공기어휘 분석(Multiple Distinctive Collexeme Analysis, MDCA)을 통해 각 구문이 통계적으로 선호(또는 기피)하는 공기어휘(VP)를 도출하였다.

웨이보 코퍼스의 MDCA 결과, ‘经常VP’는 出现, 吃, 去, 看到, 遇到 등 일상 활동·지각 동사를, ‘往往VP’는 是, 不是, 复杂句式, 取决于, 不会, 越A越B 등 판단·비교, 복잡 구문 등 추상 동사를, ‘老是VP’는 崩溃, 搞混, 失眠, 骗 등 불만·부정적 운율 동사를, ‘常常VP’는 迷茫, 被忽略, 徘徊在, 反悔 등 정서·인지 동사를, ‘一直VP’는 在V, 没有V, 想, 以为, 觉得, 喜欢, 记得 등 진행상 구문·동작 실현의 부정 구문·심리 동사를, ‘总是VP’는 那么/这么X, 要, 让人X, 感觉, 希望, 觉得 등 평가·감각 동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민일보 코퍼스에 대한 MDCA 결과, ‘经常VP’는 参加, 举办, 开展, 组织 등 제도적·공식적 활동 동사를, ‘往往VP’는 需要, 复杂句式, 具有, 意味着, 是 등 판단·추론 추상 동사를, ‘一直VP’는 在V, 坚持, 保持, 致力于 등 진행, 지속, 연속성 동사를, ‘总是VP’는 冲在前面(冲锋在前), 第一时间V, 绝不畏惧 등 정치적·구호적 표현을 선호한다. ‘常常VP’는 复杂句式, 一A就B, 想, 感到, 令人X 등 복잡한 구문형식과 심리, 감각 동사를 선호하고, ‘老是VP’는 드물게 사용된다.

본 연구는 사용 기반 의미론과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을 이론적 토대로, 두 코퍼스 사용역(Register)에서 6개 구문의 선호 공기 어휘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각 구문의 공기 어휘는 슬롯 어휘와 구문 의미 일관성 원칙에 따라 구문 의미를 설명하는 근거를 제공하며, 후속 원어면 실험을 통해 해당 의미 가설의 수렴적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검증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상지대학교 인문사회연구원 연구원

1. 서론

본 발표는 중국어의 반복 사건 범주에 속하는 6개 구문—‘经常VP’, ‘常常VP’, ‘总是VP’, ‘往往VP’, ‘老是VP’, ‘一直VP’—를 대상으로, 코퍼스를 통해 구문 슬롯 VP의 공기어휘를 추출·비교하여 주요 사용 차이를 분석하고 나아가 원어인 설문을 설계하여 결과의 심리적 실재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CCL코퍼스를 활용하였으며 코퍼스 범위와 구문 빈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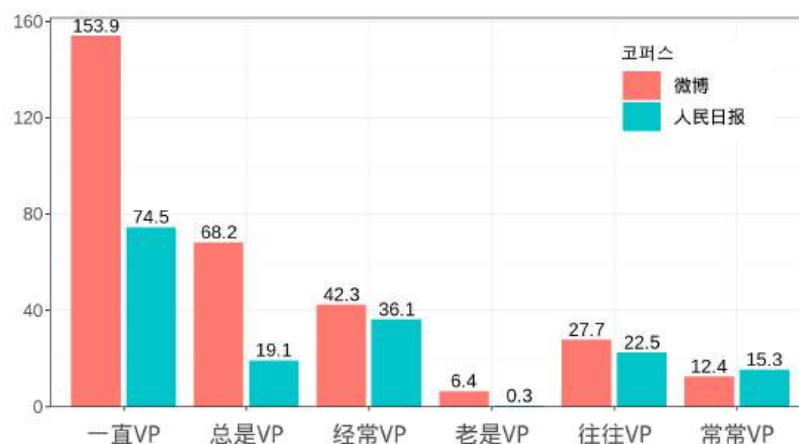
구문	웨이보(weibo 001.txt~010.txt) 86,068,351자 규모	인민일보(2021~2022) 152,442,481자 규모
经常VP	1,821	2,754
老是VP	275	22
常常VP	535	1,167
往往VP	1,190	1,714
一直VP	6,623	5,678
总是VP	2,935	1,459

[표 1] 코퍼스와 구문 빈도

위와 같은 사용 데이터에 대해 다중 구별적 공기어휘 분석(Mutiple Distinctive Collexeme Analysis, MDCA) 통해 각 구문의 구별적 공기어휘를 도출하였다.*

우선 각 구문의 두 코퍼스 간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두 코퍼스와 6개 구문의 2×6 빈도표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전반적 분포 차이를 검정하고, 코퍼스 규모 차이를 반영한 PMW(per million words) 상대빈도를 계산하였다. 나아가 각 구문에 대해 (해당 구문 vs 나머지)×(웨이보 vs 인민일보)의 2×2 분할표에 기반한 로그우도비 검정(LLR, G^2)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PMW를 기준으로 ‘总是VP’, ‘一直VP’, ‘老是VP’, ‘往往VP’, ‘经常VP’가 웨이보에서 더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고, ‘常常VP’만이 인민일보에서 더 자주 사용되었다.



[그림 1] 구문별 상대빈도(PMW, 추정 토큰 기준)

* 다중 구별적 공기어휘 분석(Mutiple Distinctive Collexeme Analysis, MDCA)은 Stefanowitsch & Gries(2003), Gries & Stefanowitsch(2004)에서 개발된 공기구문 분석(Collostructional Analysis) 접근법의 방법론으로 통계적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은경(2023a,b)을 참조할 수 있다.

로그우도비 검정을 통해 각 구문의 사용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와 같으며, 각 구문별 검정 통계량(G^2)과 유의확률, 상대빈도(PMW), 효과 크기($\log_2$ ratio, OR)를 제시한다.*

구문	G2	p	$\log_2$ ratio	OR	PMW_微博	PMW_人民日报	방향
总是VP	1704	< .001	1.83	3.56	68.2	19.1	微博 > 人民日报
一直VP	1605	< .001	1.05	2.07	154	74.5	微博 > 人民日报
老是VP	423	< .001	4.44	21.7	6.39	0.289	微博 > 人民日报
往往VP	29.6	< .001	0.298	1.23	27.7	22.5	微博 > 人民日报
经常VP	27	< .001	0.228	1.17	42.3	36.1	微博 > 人民日报
常常VP	16.3	< .001	-0.3	0.812	12.4	15.3	人民日报 > 微博

[표 2] 구문별 로그 우도비 검정 결과와 효과 크기

특히 ‘总是VP’($\log_2$ ratio=1.83 $\approx$ 3.6배), ‘一直VP’(1.05 $\approx$ 2.1배), ‘老是VP’(4.44 $\approx$ 21.7배)는 효과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 모두 매우 커 웨이보를 선호하는 사용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往往VP’(0.30 $\approx$ 1.23배), ‘经常VP’(0.23 $\approx$ 1.17배), ‘常常VP’(-0.30 $\approx$ 0.81배)는 효과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두 영역 모두에서 폭넓게 쓰이되 미세한 선호 차이만 존재함을 시사한다.

2. 분석 결과: 웨이보

웨이보(001~010)												
	经常VP(1821)		老是VP(275)		常常VP(535)		往往VP(1190)		一直VP(6623)		总是VP(2935)	
	VP	강도**	VP	강도	VP	강도	VP	강도	VP	강도	VP	강도
1	出现	22	不首发	3.37	迷茫	6.99	是	117	在V	150.5	那么/这么X	45.4
2	吃	19.4	崩溃	3.37	被忽略	5.29	复杂句式	56	没有V	73.96	要	34.9
3	去	16.8	潮机机 潮机机	3.37	徘徊在	4.66	不是	29	以为	42.08	让人X	24.3
4	看到	15.6	派发	3.37	想起	4.41	比字句	6.7	想V	35.89	充满	9.53
5	遇到	15	害人V	2.9	反悔	4.19	成为	5.5	到	25.22	有	9.49
6	来V	12.7	说	2.65	感到	4	不期而至	5.3	觉得	20.6	能	7.93
7	去V	12.3	弹出	2.61	听到	3.72	忽略	4.9	在	18.92	复杂句式	7.86
8	收到	11.9	搞混	2.61	忘记	3.53	决定	4.5	认为	16.49	好	7.5
9	听到	11.6	骗	2.39	看到	3.28	相反	4.2	喜欢	14.32	惊人的相似	7.25
10	使用	11.4	拍	2.22	忽视	3.22	越A越B	4.1	坚持	13.55	美好	6.27
11	碰到	10.2	失眠	1.86	迷失	2.93	不会	3.6	不明白	7.33	从X开始	6.14
12	发生	8.37	错过	1.77	供不应求	2.8	产生	3.5	下雨	7.08	忍不住	5.93
13	来	7.77	MISMATCH	1.69	徘徊不定	2.8	能	3.5	在N	6.89	感觉	4.82
14	看见	6.96	拣到	1.69	瞥向	2.8	发觉	3.2	走下去	6.11	容易V	4.66
15	见面	6.03	无法访问	1.69	不同	2.8	取决于	3.2	保持	6.01	短暂	4.61
16	说	6.02	坎坷	1.69	纠结	2.61	既A也B	3.1	用	5.92	难免	3.95
17	玩	5.89	更名	1.69	困扰	2.51	失去	3.1	不知道	5.48	多	3.95
18	坐	5.89	考不上	1.69	想	2.4	失败	2.8	记得	5.06	给人惊喜	3.87
19	看	5.8	咬到	1.69	突然V	2.33	选择	2.8	等	4.89	善于	3.8
20	出差	5.62	口是心非	1.69	伴	2.33	缺乏	2.6	好奇	4.78	用NV	3.59

* $\log_2$ ratio: 두 코퍼스 간 상대빈도의 비율을 $\log_2$ 스케일로 변환한 값으로, 0은 차이 없음, +1은 한쪽에서 약 2배, +2는 약 4배 더 자주 사용됨을 의미한다.

OR(Odds Ratio, 오즈비)은 2x2 분할표를 기반으로 산출된 상대 오즈의 비율로, 1은 차이 없음, 1보다 크면 웨이보에서 더 자주, 1보다 작으면 인민일보에서 더 자주 쓰임을 의미한다.

‘经常VP’는 吃, 去/来/去V, 看到/听到, 遇到/碰到, 出现/发生, 玩, 坐 등 일상 행위·지각·출현을 나타내는 동사들과 폭넓게 결합하며 개인적 생활 습관과 일상 사건의 반복을 서술하는 용도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老是VP’는 崩溃, 搞混, 骗, 失眠, 错过, 口是心非, 不首发 등 부정 정서·불편·불만을 표현하는 어휘와 결합이 두드러진다. 화자 관점에서 반복의 짜증·불평을 드러내는 사용이 중심으로 ‘맨날 이래’라는 정서적 불만의 상투적 틀을 제공한다.

‘常常VP’는 迷茫, 被忽略, 后悔, 感到, 想起, 忽视, 困扰, 迷失 등 심리적 내면적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어휘군과 밀접하게 공기한다. 심리적 부정적 상태의 반복을 서술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往往VP’는 是/不是, 复杂句式, 比字句, 相反, 决定, 越A越B, 不会, 产生 등 판단·비교문·복잡한 구문 구조와 결합하여, 현상에 대한 경향 일반화를 짧고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성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주로 그렇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一直VP’는 在V/没V와 같은 진행상/부정 구문과 以为, 想V, 觉得, 喜欢, 不知道, 记得, 그리고 坚持/保持, 走下去 등 지속 행위·지속적 심리 표현과 폭넓게 결합한다. 행위·태도·심리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总是VP’는 那么/这么X(대부분 형용사) 같은 정도 강조 표현, 要, 让人X(感动/激动), 充满, 忍不住, 感觉, 美好, 难免, 容易V 등 평가 어휘군과 밀접하게 공기한다.

3. 분석 결과: 인민일보

인민일보(2021~2022)												
经常VP(2754)			老是VP(22)		常常VP(1167)		往往VP(1714)		一直VP(5678)		总是VP(1459)	
VP	강도		VP	강도	VP	강도	VP	강도	VP	강도	VP	강도
1	参加	45.7	架着	2.8	复杂句式	11	需要	54.5	在V	145	冲在前面	22.5
2	来V	23.6	哭哭啼啼	2.8	一A就B	8.4	复杂句式	38.7	在NV	70.9	第一个V	20.5
3	连动	20.1	那么一套	2.8	想	5.5	具有	20.4	保持	52.2	第一时间V	13.3
4	去V	18.1	乱搭乱建	2.8	问	5.4	意味着	17.7	是	45.6	发展	13.2
5	开展	17.2	亡羊补牢	2.8	让人X	5	是	13.8	没有V	41.3	同生并存	11.4
6	交流	15.4	怀疑	2.8	要	5	有	12.4	坚持	40.6	冲锋在前	8.5
7	举办	14.2	少	2.8	想起	4.6	不是	12.1	致力于	34.4	留给	7.6
8	对照	13.9	填错	2.8	遇到	3.6	难以	11.1	关注	34	绝不畏惧	7.6
9	组织	13.9	提	2.8	提及	3.3	涉及	10.4	重视	17.7	能够	7.4
10	讲	13.4	吵架	2.8	一票难求	3.1	要	10.4	延续	15.7	让人X	7
11	出现	12.4	充不满	2.8	这样X	3.1	能	10.2	想V	14.4	赋予	6.7
12	对表对标	10.8	盯着	2.2	感到	3	产生	8.9	积极V	14.4	前进	6.7
13	吃肉	10.8	拖着	2.1	令人X	3	成为	8.7	努力V	13.5	复杂句式	5.8
14	看到	10.8	堵塞	2	客满	2.6	不会	7.9	从事	13.1	及时V	5.7
15	往返于	10.4	回想	2	亮到深夜	2.6	很难V	7.9	牵挂	12.5	给以	5.7
16	进行	9.9	有人V	2	连A也B	2.6	能够	6.2	坚守	12	尽心尽力地	5.7
17	深入	9.9	不能	1.9	累得	2.6	容易V	6.2	激励	11.3	投向	5.7
18	发生	8.76	感觉	1.9	引用	2.5	只能	4.9	持续	9.9	从A开始	5.3
19	听到	8.71	当作	1.9	顶着NV	2.5	隐藏	4.5	困扰	9.5	以A为B	5.1
20	说	8.54	想着	1.7	做	2.4	荆棘丛生	4.4	到时间	9.2	笑着V	4.9

‘经常VP’는 参加, 举办, 开展, 组织, 交流, 对表对标, 出现, 发生 등 제도·조직 활동과 사건 발생 동사들과의 높은 결합을 보인다. 인민일보에서 이러한 ‘자주’는 정기 행사업무 집행·현상 발생과 같은 객관적·사실보고형 반복성을 기술하는 기능으로 쓰임을 시사한다.

** 지면의 제약을 고려해 빈도는 제시하지 않고 강도만 제시한다.

‘老是VP’는 전체적으로 희귀하나, 출현시에는 哭哭啼啼, 乱搭乱建, 填错, 吵架, 堵塞 등 부정 평가적이거나 문제 상황을 지시하는 어휘와 공기한다. 인민일보와 같은 공식 매체에서 사용 자체가 억제되는 경향이 있으나 출현 시에는 사건·현상에 대한 부정적 운율을 드러낸다.

‘常常VP’는 复杂句式, 一A就B와 같은 구문적 장치와 想, 问, 感到, 令人X, 提及 등의 심리·인지 동사와 주로 공기하며 상황·맥락의 반복(조건·연쇄·설명적 진술)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往往VP’는 需要, 复杂句式, 具有, 意味着, 是/不是, 有, 难以, 涉及, 成为 등 판단·추상 동사와 강하게 결합하며, 인과정의·분류와 같은 일반화·추론적 진술에 사용된다. 개별 사례를 넘어서는 경향성을 표현하며, ‘대체로/흔히 ~이다’라는 일반화 진술의 기능을 담당한다.

‘一直VP’는 在V, 在NV, 没有V 같은 진행상, 부정 등 구문적 표지와 더불어 坚持, 保持, 延续, 致力于, 关注, 重视 등 지속·연속성을 표현하는 동사들과 공기한다. 정책·노선·기조의 일관된 지속을 서술하는 데 주로 쓰이며, 특정 행위나 태도가 장기간 유지됨을 강조한다.

‘总是VP’는 冲在前面(冲锋在前), 第一时间V, 绝不畏惧, 发展, 前进, 赋予 등 ‘항상 맨 앞에 선다/첫 번째로 ~한다/첫 시간에 ~한다’처럼 수사·상징적 어구(冲在前面/第一时间V/绝不畏惧)와 결합하며 가치 판단과 표어적 문장에서 빈번히 사용된다.

4. 원어민 실험(예정)

코퍼스 기반 공기강도 결과가 원어민의 직관적 선택·판단과 어느 정도 수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원어민 실험 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Q1) 코퍼스의 공기 강도 순위와 원어민의 자연스러움 평가 순위의 상관, (Q2) 구문별 대표 공기 어휘(Top collexeme)의 일치 여부, (Q3) 동일 동사에서의 부사 간 선호 서열 존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연성 평가 실험, 강제 선택 실험, 유도 산출 실험의 세 가지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극은 인민일보·웨이보 분석에서 확인된 상위 결합 동사(예: 经常-看/参加, 常常-想/感到, 往往-需要/难以, 总是-觉得/希望)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제시 발화는 사용역 중립적으로 통제한다.

(Q1) 평가(rating) (7점 척도)

목표는 코퍼스에서 산출된 공기 강도 순위와 원어민의 자연스러움 평가 순위 간 상관을 정량화하는 데 있다. 각 동사-문장 틀에 대해 ‘经常/常常/往往/总是’의 네 버전을 준비하되, 라틴 스퀘어로 피험자당 동일 동사가 사용된 4개 구문 중 1개만 보게 하여 학습, 비교 효과를 최소화한다. 대표 자극은 다음과 같다. “他经常/常常/往往/总是参加志愿服务。” “压力增大时, 他经常/常常/往往/总是想起童年。” “这种方案经常/常常/往往/总是需要专家评估。” “这个问题我们经常/常常/往往/总是难以解决。” “上班路上, 他经常/常常/往往/总是看手机。” “面对新任务, 他经常/常常/往往/总是感到兴奋.” 응답은 1-7점 리커트로 수집하며, 동사별 부사 4개의 평균 평가값을 구해 Kendall’s τ 또는 Spearman’s ρ 로 코퍼스 순위와의 순위 상관을 추정한다.

(Q2) 강제 선택 (4개 부사 중 택1)

목표는 코퍼스에서 관찰된 대표 결합(Top collexeme)이 원어민의 최상위 선택으로 재현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문장 공란에 네 부사 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게 하며, 예시는 다음과 같다. “A. _____ 需要专家评估.(기대=往往)”, “B. 他上班路上 _____ 看手机.(기대=经常)”, “C. 面对新任务, 他 _____ 感到兴奋.(기대=常常/总是)”. 분석은 (i) 코퍼스 Top1/Top3와 응답 Top1/Top3의 Top-k overlap 비율, (ii) χ^2 검정(기대분포=코퍼스, 관측분포=선택)을 통해 코퍼스-직관 간 정합성을 평가한다.

(Q3) 생산 실험 (구문 고정, 동사 자유 기입)

목적은 코퍼스에서 확인된 ‘구문↔대표 동사’의 연관(예: 往往-需要/难以, 经常-看/参加, 常常-感到/想起, 总是-觉得/希望)이 원어민의 자발적 산출에서도 재현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자극은 네 부사(经常·常常·往往·总是) 중 하나를 괄호로 고정 제시하고, 문장 내 동사 자리를 빈칸으로 둔 발화를 구성한다. 분석은 (i) 구문별 Top-k 겹침 비율—산출 빈도 상위 k개 동사와 코퍼스 핵심동사 상위 k개 간 교집합 비율—을 통해 대표 동사의 재현도를 정량화하고, (ii) 산출 분포의 정규화 엔트로피를 통해 응답의 산포도를 평가한다.

이러한 생산 기반 지표가 판단 기반 실험(자연스러움 평가·강제 선택)과 함께 코퍼스 결과와 수렴할 경우, 본 연구가 제시한 어휘-구문 매핑이 원어민의 심성어휘집에서 실제 단서로 작동함을 강하게 뒷받침하게 된다.

참고문헌

- 이은경(2023a), 「‘一再VP’, ‘再三VP’, ‘屢次VP’의 공기구문 분석 - 다중 구별적 공기어휘 분석」, 『중국어학』 제106집.
- 이은경(2023b), 「‘突然VP’, ‘忽然VP’, ‘猛然VP’, ‘驟然VP’의 공기어휘 분석 - 공기구문 분석 접근법」, 『중어중문학』 제94집.
- 江雨馨(2021), 「从时空特征看“往往”与“常常”异同的历史与认知成因」, 『云南师范大学学报』06.
- 卢淑芳(2014), 「基于语料库的近义副词“常常”和“往往”辨析」, 『沈阳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06.
- 吕叔湘(1999), 『现代汉语八百词』(增订本), 北京:商务印书馆.
- 石定栩·孙嘉铭(2016), 「频率副词与概率副词—从“常常”与“往往”说起」, 『世界汉语教学』03.
- 石定栩·孙嘉铭(2017), 「客观副词与主观副词—再论“常常”与“往往”的区别」, 『现代外语』01.
- 孙雪妮(2015), 「“常常”与“往往”的研究及其对外汉语教学方法」, 『开封教育学院学报』03.
- 王海霞(2023), 「副词“常常”“往往”“时时”的比较研究」, 『汉字文化』(12).
- 殷思源(2023), 「概率视野下“常常”和“往往”的语义辨析」, 『世界汉语教学』04.
- 詹卫东·郭锐·常宝宝·谌贻荣·陈龙(2019), 「北京大学CCL语料库的研制」, 『语料库语言学』第1期, 总第11辑.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2016),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北京: 商务印书馆.
- Ellis, N., Römer, U., & O'Donnell, M.(2016), Usage-based Approaches to Language Acquisition and Processing: Cognitive and Corpus investigations of Construction Grammar. New York, NY: John Wiley.
- Gilquin, G.(2006), The verb slot in causative constructions: Finding the best fit, In: Constructions, Vol. 1, no. 3, 1-46.
- Goldberg, A. E., D. M. Casenhiser, & N. Sethuraman(2004), Learning argumentstructure generalizations, Cognitive Linguistics 15(3), 289-316.
- Gries, Stefan Th.(2007), Coll.analysis 3.2a. A program for R for Windows 2.x.
- Gries, Stefan Th.(2013), Statistics for linguistics with R: a practical introduction (2nd revised ed.), Berlin: De Gruyter Mouton.
- Gries, Stefan Th.(2019), 15 years of collocations: some long overdue additions/corrections (to/of actually all sorts of corpus-linguistics meas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24(3), 385-412.
- Gries, St. Th., & Stefanowitsch, A.(2004), Extending collocation analysis: A corpus-based perspective on 'altern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9(1), 97-129.
- Gries, St. Th., Hampe, B. & Schonefeld, D.(2005), Converging evidence: Bringing together experimental and corpus data on the association of verbs and constructions, Cognitive Linguistics 16 (4), 635-676.
- Gries, St. Th., Hampe, B. & Schonefeld, D.(2010), Converging Evidence II: more on the association of verbs and constructions. In John Newman and Sally Rice (eds), Empirical and Experimental Methods in Cognitive/Functional Research, 59-72, Stanford, CA: CSLI.
- Hilpert, M.(2014), Collocational analysis: Measuring associations between constructions and lexical elements, In Dylan Glynn & Justyna A. Robinson(eds.), Corpus methods for semantics : Quantitative studies in polysemy and synonymy,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391-404.
- R Core Team(2020),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URL <https://www.R-project.org/>.
- Stefanowitsch, A., & Gries, St. Th.(2003), Collocations: Investigating the interaction between words and constru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8(2), 209-243.

현대중국어 ‘V+X’ 구문의 분포 연구

이영란*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V往’과 ‘V向’ 구문 분포 분석
 3. ‘V於’와 ‘V在’ 구문 분포 분석
 4. ‘V成’과 ‘V爲’의 구문 분포 분석
 5.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현대중국어의 ‘V+X’ 구문을 대상으로 ‘이동 사건’, ‘상태 변화 사건’, ‘실현 사건’ 등의 거대 사건을 틀 사건의 구성 요소로 분석하여 ‘V往/向’, ‘V於/在’, ‘V成/爲’ 대립쌍의 어법 특징과 유형 변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R 모형을 활용하여 구문의 어법적 특징과 분포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구문별 핵심 유형 변수를 도출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북경어언대학교 말뭉치(北京語言大學-BCC語料庫)에서 약 10,000개의 예문을 체계적 표집 방법으로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하였으며, 데이터를 정제한 뒤 로지스틱 회귀 분석, 다중 대응 분석, 다중 변별적 언어회소 분석, 조건부 추론 나무, 군집 분석, 히트맵, 뱀 모형 등의 다양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방법 분석은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는 탈미의 거대 사건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중국어 ‘V往’과 ‘V向’ 구문(이동 사건), ‘V於’와 ‘V在’ 구문(상태 변화 사건), ‘V成’과 ‘V爲’ 구문(실현 사건)의 유형 변수를 고찰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 사건에 해당하는 ‘V往’과 ‘V向’ 구문에 대한 분석이다. ‘V往’과 ‘V向’ 구문은 ‘이동 주체’, ‘진실성’, ‘목적지’, ‘이동 대상’, ‘초래성’ 등의 유형 변수에 따라 특성이 결정된다. ‘이동 주체’의 ‘행위자’와 ‘대상’, ‘진실성’의 ‘현실’과 ‘허구’, ‘목적지’의 ‘명확성’과 ‘불명확성’, ‘이동 대상’의 ‘구체성’과 ‘추상성’, ‘초래성’의 ‘의지적 이동’과 ‘비의지적 이동’ 등이 ‘V往’과 ‘V向’ 구문 간 호환변별·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상태 변화 사건에 해당하는 ‘V於’와 ‘V在’ 구문에 대한 분석이다. ‘V於’와 ‘V在’ 구문은 ‘전경의 유정성’, ‘행위자의 추상성’, ‘동사 의미’, ‘음절 길이’, ‘언어 사용역’과 같은 유형 변수에 따라 특성이 구분된다. 전경의 ‘유생물’과 ‘무생물’, 행위자의 ‘추상성’과 ‘구체성’, ‘동사 의미’의 ‘지속성’과 ‘비지속성’, ‘음절 길이’의 ‘일음절’과 ‘다음절’, ‘언어 사용역’의 ‘입말’과 ‘글말’ 등이 ‘V於’와 ‘V在’ 구문 간 호환성·변별성·선호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서울 신목중학교 교사

셋째, 실현 사건에 해당하는 ‘V成’과 ‘V爲’ 구문에 대한 분석이다. ‘V成’과 ‘V爲’ 구문은 ‘행위자의 유형성’, ‘실현 대상’, ‘실현 결과’, ‘실현 상황’, ‘언어 사용역’, ‘음절 길이’ 등의 유형 변수에 의해 특성이 규정되었다. ‘행위자’의 ‘유생물’과 ‘무생물’, ‘실현 대상’의 ‘유생물’과 ‘무생물’, ‘실현 결과’의 ‘제작’과 ‘자격’, ‘실현 상황’의 ‘묘사’와 ‘객관’, ‘언어 사용역’의 ‘입말’과 ‘글말’, ‘음절 길이’의 ‘일음절’과 ‘다음절’ 등의 차이가 ‘V成’과 ‘V爲’ 구문 간의 호환변별·선호를 결정하였다.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코퍼스 언어학적 관점에서 현대중국어 ‘V+X’ 구문의 거대 사건 구조 가운데 ‘이동 사건’, ‘상태 변화 사건’, ‘실현 사건’ 구문을 중심으로 각 구문의 분포 경향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이 세 가지 사건 유형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각 사건에 해당하는 동일한 의미 범주에 있는 대립쌍을 찾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R 모형을 활용하여 분포 경향을 비교 분석하여 그 통사의미·화용 특징과 양상도 규명하고자 한다.

2. ‘V往’과 ‘V向’ 구문 분포 분석

현대 중국어 ‘V往’과 ‘V向’ 구문의 어법 특징을 나타내는 특정 변수 유형을 찾았다. 그 하위 변수와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호환성 분석 결과, ‘V向’ 구문은 ‘진실성의 허구’, ‘목적지의 불명확성’, ‘이동 대상의 추상성’과 같은 어법적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경우 ‘V往’ 구문과의 호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변별성 분석에서는 ‘V向’이 ‘의지적 이동’, ‘추상적 이동 대상’, ‘행위자 주체’와 같은 어법 특성 일 때 ‘V往’과의 변별성이 드러났다. 선호성 분석에서는 구체적 대상이며 비의지적 이동이고 현실 이동의 조합에서 ‘V往’이 80% 이상 선호되었고, 추상적 대상이며 의지적 이동이고 허구 이동의 조합에서 ‘V向’이 90% 이상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3. ‘V於’와 ‘V在’ 구문 분포 분석

현대중국어 ‘V於’와 ‘V在’의 어법 특징을 나타내는 특정 변수 유형을 탐색하여 도출된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호환성 분석 결과, ‘V在’ 구문은 ‘동사의 지속’, ‘입말’, ‘일음절’ 등의 특성과 연관되며, 이러한 경우 ‘V於’ 구문과의 호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변별성 분석에서는 ‘V於’ 구문이 ‘비지속 동사’, ‘글말’, ‘이음절’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두 구문 간의 어법적 변별성을 확인하였다. 선호성 분석에서는 지속성 동사 및 일음절 동사 그리고 유생물 전경의 조합에서 ‘V在’가 90% 이상 선호되었고, 비지속성 동사 및 구체적 행위자 그리고 글말의 조합에서 ‘V於’가 85% 이상 선호되는 경향을 보였다.

4. ‘V成’과 ‘V爲’의 구문 분포 분석

현대중국어 ‘V成’과 ‘V爲’의 어법 특징을 나타내는 핵심 변수 유형을 찾았고 그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호환성 분석 결과, ‘V成’ 구문은 ‘실현 상황의 묘사’, ‘일음절’, ‘입말’의 특성을 지닐 경우 ‘V爲’ 구문과의 호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변별성 분석에서는 ‘V爲’ 구문이 ‘객관적인 상황’, ‘글말’, ‘이음절’의 어법 특

성에서 ‘V成’과 뚜렷한 변별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선호성 분석에서는 ‘묘사적 상황’에서 ‘V成’ 구문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객관적 상황’과 ‘자격’의 의미를 가질 때는 ‘V爲’ 구문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현대중국어 ‘V+X’ 구문에서 이동 사건, 상태 변화 사건, 실현 사건에 해당하는 ‘V往’과 ‘V向’ 구문, ‘V於’와 ‘V在’ 구문, ‘V成’과 ‘V爲’ 구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골드버그의 구문어법 이론과 거대 사건 이론을 근거로 각각의 유형 변수와 하위 변수를 설정하였다. 코퍼스 언어학 연구 방법과 R를 활용하여 구문의 분포를 시각화하여 어법 특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1. 단행본류

- 강병규 외 譯(2024), 『구문문법 : 구문의 창의성, 경쟁 그리고 부분적 생산성』, 서울: 학고방.
- 골드버그(Goldberg, 1995), *Construction: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IL:Chicago University Press.
- _____(Goldberg, 2006), *Constructions at Work: The Nature of Generalization i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Goldberg, 2019), *Explain Me This: Creativity Competition and the Partial Productivity of Constructions*, Princeton University.
- 그리나르크(M. Greenacre, 2007), *Correspondence Analysis in Practice*, second edition
- 金基石·朴正九·金鉉哲 譯(2024), 『중국어 문법론 15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진혜(2000), 『언어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金鉉哲 외 譯(2005), 『실용현대한어어법』, 서울: 송산출판사.
- 하영삼 譯注(2022), 許愼撰, 『완역 설문해자』, 서울:도서출판사.
- 戴耀晶(1997), 『現代漢語時體系統研究』,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 레브시나(Natalia Levshina, 2015), *How to do Linguistics with R-Data exploration and statistical analysi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레빈(Levin, Beth(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레이브 헤스키쓰(Rabe-Hesketh, 2022), *Multilevel and Longitudinal Modeling Using Stata*, Stata Press, Volume II.

- 마크(Mark P.J. 2012), *Learning RStudio for R Statistical Computing*, Packt Publishing.
- 맥패든(McFadden. D, 1978), *Quantitative Methods for Analyzing Travel Behavior of Individuals- Some Recent Development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바이버와 콘래드(Biber & Conrad, 2009), *Register, Genre, and Sty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슈테판 그리스 · 최재웅 · 홍정하(2013), 『언어학자를 위한 통계학 — R 활용』,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呂叔湘([1942]1990), 『呂叔湘文集, 第一卷』 北京: 商務印書館.
- 劉月華 · 潘文娛 · 故韓(2001), 『實用現代漢語語法』, 北京: 商務印書館.
- 陸儉明 · 沈陽(2003), 『漢語和漢語研究十五講』,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張伯江(2013), 『什麼是句法學』, 上海: 上海外語出版社.
- 탈미(Leonard Talmy, 2000a),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ume1 :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 Cambridge/Massachusetts : MIT Press.
- _____(Leonard Talmy, 2000b),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ume2: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 Cambridge /Massachusetts : MIT Press.

2. 논문류

- 賈紅霞 · 李福印(2015), <狀態變化事件與實現事件的概念界定>, 『外語教學』36:22-27.
- 江藍生(1994), <“動詞+X+地點詞”句型中介詞“的”探源>, 『古漢語研究』4:21-28.
- 강범모(2020), <통사적 사역 구문의 의미: [V-게 하다]와 [V-게 만들다]>, 『한국어학』86:119-151.
- 高佳(2004), <魯迅《書信集》中謂詞性成分後“於”的考察>, 『西華師範大學學報』108-110.
- 龔娜(2006), 『“x 於”結構的多角度考察—兼論“V+P+N”結構』, 湖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郭銳(1993), <漢語動詞的過程結構>, 『中國語文』237:410-419.
- 郭妹慧(2004), 『堂現代漢語致使句式研究』 堂 北京語言大學 博士學位論文.
- 郭錫良(1997), <介詞“於”的起源與發展>, 『中國語文』257:131-138.
- 김성아(2018),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심상 어휘부에 관한 사용기반적 접근>, 『언어학 연구』10(49):1213-142.
- 김소희 · 강범모(2018), <부정극 경향의 한국어 표현 연구>, 『언어』43(2):175-200.
- 김원희(2017), 『현대중국어 초래구문의 범주화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金鍾讚(2004), <試論“雙音節+於”的句子成分>, 『語言研究』24(3):32-44.
- 金鉉哲(1999), 『現代中國語의 賓語 研究』,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李漢蘭 · 金惠眞(2023), <R을 이용한 현대중국어 ‘V往’과 ‘V向’의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 『中國語文學論集』143:197-220.

- _____ · 李漢蘭(2024), <현대중국어 ‘V成’과 ‘V爲’ 구문의 생산성과 통계적 선점 분석>, 『中國語文學論集』146:33-61.
- _____ · 李漢蘭(2025), <현대 중국어 ‘V於’와 ‘V在’ 구문 분포에 대한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 『中國語文學論集』151:7-37.
- 김혜진(2023), <한국어와 그리스어 이동사건의 어휘화 대조 연구>, 『현대문법연구』117:65-89.
- 盧斌(2011), <“向”和“往”中介詞“向”“往”的語義性質及圖式>, 『百色學院學報』24:91-93.
- 全佩穎(2012), 『“V在”和“V於”差異比較研究』, 江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鄧守信(1985), <漢語動詞的時間結構>, 『語言教學與研究』1:7-48.
- 鄧耀堯 · 馮志偉(2013). <詞彙長度與詞彙頻數關係的計量語言學研究>, 『外國語』3:29-39.
- 레브시나 등(Natalia Levshina, Dirk Geeraerts and Dirk Speelman, 2013), <mapping constructional spaces: A contrastive analysis of English and Dutch analytic causatives>, *Linguistics*, 825 - 854.
- 리우하이러 · 김성주(2022), <한 · 중 이동사건의 어휘화 양상 대조 연구>, 『한국언어문화학』19(1):31-59.
- 마크맨과 겐트너(Markman & Gentner, 1993), <Structural Alignment during Similarity Comparisons>, *Cognitive Psychology* 25(4), 431 - 467.
- 明洋洋(2019), 『현대중국어 ‘V+在+NL’ 구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미애(2020), <거대 사건(Macro Event) 이론을 통한 현대 중국어 습관문 연구>, 『中國言語研究』90:233-259.
- 朴正九(2002), <중국어 전치사구의 분포적 특징>, 『中國文學研究』24:543-557.
- _____ (2008), <현대중국어 ‘V{往/向}’ 구조의 결합조건과 어법 특성>, 『中國言語研究』26:165-285.
- 方緒軍(2004), <“V向……”和“V往……”>, 『語言教學與研究』2:17-24.
- 白曦(1990), <現代漢語“爲”類動詞當論>, 『唐山師範學院學報』38(4):132-135.
- 보이드와 골드버그(Boyd & Goldberg, 2011), <Learning What NOT to Say: The Role of Statistical Preemption>, *Language*, Volume 87(1), 55-83.
- 邵敬敏(1988), <說“成”結構的性質>, 『漢語學習』1:2-6.
- 邵洪亮(2005), <“V在L格式”的發展和虛化歷程>, 『上海師範大學學報』34:62-69.
- 서로(2022), <국어 유정성 개념에 대한 일고찰>, 『한말연구』63(32):1-20.
- 송영규(2012), <“V+在+Np” 연구 — 이음절 동사를 중심으로>, 『中國語文論叢』55:83-112.
- 수틀과 골드버그(Suttle & Goldberg, 2011), <The partial productivity of constructions as induction>, *Linguistics* 49(6), 1237-1269.
- 宛新政(2004), 『臺現代漢語致使句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 嚴辰松(1998), <運動事件的詞彙化模式－英漢比較研究>, 『解放軍外語學院學報』6:10-14.

- _____ (2005), <英漢語表達實現意義的詞彙化模式>, 『外國語學報』155:23-29.
- _____ (2008). <倫納德·泰爾米的宏事件研究及其啓示>, 『外語教學』5:9-12.
- _____ (2018), <漢語動結式研究新視角>,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42(2):72-80.
- _____ (2019), <表狀態變化句子的共核: 變化複合體>, 『外語教學』40(1):12-16.
- 倪濤(2018), 『漢英狀態變化事件的形義類型研究』, 華中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王永娜(2011), <書面語體“V+向_往+NP”的構成機制及句法特徵分析>, 『華文教學與研究』43(3):64-69.
- 牛順心(2004), 『漢語中致使範疇的結構類型研究』, 上海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袁明軍(2008). <與“V於NP”結構有關的句法語義問題>, 『漢語學習』, 4:24-30.
- 熊嶺(2006), <論“N+V爲(是或做)+O”句式>, 『文教資料』4:215-216.
- 劉成章(2005), 『使字句的句法語義研究』,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유수란·국지연·윤홍옥·정동규(2019), <이동사건의 경로(path)와 공간관계 인지>, 『독어학』, 40:23-51.
- 윤유정(2009), 『‘得’자 상태보어구문의 문법화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인선(2024), <양보 구문 ‘-어도’와 ‘-더라도’의 사용 양상 연구>, 『언어학 연구』71:87-112.
- 유형재(2021), 『현대중국어 동개식 ‘V在NP’구문 의미 기능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李桂梅(2009), <“向”的目標指向圖式和“往”的空間定位圖式>, 『渤海大學學報』124-131.
- 이수민(2022), <V在NL 구조에 대한 이해도 실험분석 및 교육 방안>, 『中國文化研究』58:345-367.
- 이수현·안혁·유현조·하주애·정하경(2023), <한국어 화자의 러시아어 이동사건 표현의 어휘화 패턴 습득 양상 연구>, 『러시아연구』33(1):191-236.
- 이운재·송홍령(2014), <코퍼스에 근거한 현대중국어“V+在+장소”구문의 의미 분석>, 『中國語文學誌』49:491-515.
- 이은경(2022), <“前/後+一/半+X”와 “上/下+一/半+X”의 구문 의미 연구-코퍼스 중심의 공기 구문 분석>, 『중국학보』102:23-55.
- 이정인(2019), 『현대중국어 방향표지 구문 연구 — ‘向/往/到+DP’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지룡(2000), <한국어 이동 사건의 어휘화 양상>, 『현대문법연구』20:23-45.
- 尉春艷·尉春艷(2016), <“爲”結構研究綜述>, 『唐山師範學院學報』38(4):31-34.
- 張國憲(2009), <“在 + 處所”構式的動詞標量取值及其意義浮現>, 『中國語文』4:346-384.
- _____·盧建(2010), <“在+處所”狀態構式的事件表述和語篇功能>, 『中國語文』339:483-575.
- 張進凱·金鉉哲(2022a), <“V走”和“V去”互換性的多重對應分析>, 『漢語學報』3:19-29.
- _____·金鉉哲(2022b), <焦點敏感算子“就”和“才”互換性的多重對應分析>, 『語言教學與研究』4:101-112.
- _____·李偉雄·吳思敏(2022),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of Seven Emerging Intensifiers in Chinese>, 『華文學刊』2(20):23-49.

- _____. 趙海川(2021), <差比結構“X不比Y·Z”“X沒有Y·Z”的多重分析>, 『中國語文學論集』127:181-198.
- 張海濤(2022), <“V向_往+目標域”構式群的多界面互動機制研究>, 『新疆大學學報(語言學研究)』6(224):125-130.
- 儲澤祥(2005), <“V往 + O”的語義約束>, 『江漢大學學報』24(4):62-66.
- 정병철(2021), <한국어 습득 초기의 통사적 구문 발달 양상: 사용 기반 접근>, 『담화와 인지』28(4), 95-127.
- 정해권·서강보·신수련(202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심성어휘집 연결에 대한 모어 영향 연구>, 『언어와 문화』17:199-226.
- 조영순(2023), <강조정도부사의 사용 비교>, 『언어과학』30(3):97-118.
- 曹晋(2014), <“V成”的語法化>, 『黔南民族師範學院學報』34(2):21-28.
- 趙賢德(2007), <常規性“V成”結構中“V”的入句考察>, 『江漢大學學報』26(4):76-78.
- _____(2008), <含“V 成”結構把字句的認知研究>, 『高等函授學報』21(2):11-19.
- 周紅(2006), <客體致使句的認知語義分析>, 『語言研究』26(3):20-25.
- 曾傳祿(2009), <漢語位移事件與句法表達>, 『集美大學學報』3(12):52-57.
- 秦華鎮(2023), <사건구조와 현대 중국어 ‘형용사 在+NP’구조>, 『中國語文學論集』143:107-134.
- 츠비키(Zwicky, 1971), <In a Manner of Speaking>, *Linguistic Inquiry* 2(2):223-233.
- 최규발·신경미(2013), <이동사건 틀의 구성요소로 본 방향동사>, 『中國語文論叢』 57:79-96.
- 최유미(2013), 『현대중국어V+(成/爲/作) 구문의 어법특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崔希亮(1996), <“在”字結構解析—從動詞的語義配價及論元之關係考察>, 『世界漢語教學』37:32-42.
- 카스카와 글렌버그(Kaschak & Glenberg, 2000), <Constructing Meaning:The Role of Affordances and Grammatical Constructions in Sentence Comprehens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43(3):508-529.
- 한경숙(2015), <현대중국어 전치사 ‘在’, ‘於’ 의미 구조 비교 연구>, 『동북아문화연구』34:187-203.
- 해리 타일리 외(H. TILY et al, 2009), <Syntactic Probabilities Affect Pronunciation Variation in Spontaneous Speech>, *Language and Cognition* 1(2), 147-165.
- 玄珮(2006), <“V成”述補結構的句法形式>, 『華中科技大學學報』4:52-56.
- 호손(Torsten Hothorn, 2006), <Survival Ensembles>, *Biostatistics*, 355 - 373.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1부

8. 중국어학(4)

위당관 211호

**중국어 음운과 방언 연구:
공시성과 통시성의 만남**

Sibilant fronting in Mandarin:

An interaction between social and phonological factors

Zhuo Chen* and Sang-Im Lee-Kim*

<Table of Content>

【Abstract】

1. Introduction
 2. Method
 3. Result
 4. Conclusion
- References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how phonological contrasts are preserved in the face of variation, focusing on the three-way place contrast among the sibilants (/s ʃ ɕ /) in Mandarin Chinese. Young female speakers tend to front /ɕ /, a feature often associated with femininity. However, fronting raises its spectral mean (M1) and reduces its distance from /s/, which may jeopardize the phonological contrast and potentially trigger a restructuring of the sibilant system. In a wordlist reading task, 40 young Mandarin speakers (20F, 20M) produced sibilants before [a] and [u]. The results showed that females exhibited higher M1 for /ɕ / than male speakers in both vowel contexts. Furthermore, vowel-dependent strategies emerged. In the /a/ context, they exhibited increased M1 values for /s/, suggesting a chain-shift where both /s/ and /ɕ / are fronted. In the /u/ context, /s/-fronting was inhibited, and speakers instead compensated for the reduced spectral contrast by relying more on F2 at vowel onset.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dynamic nature of phonetic cue selection in preserving phonological contrasts under sociophonetic pressure. Female speakers actively adopt fronted /ɕ / variants, potentially as indexical markers of femininity. In response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sibilants' acoustic space, speakers employ a flexible and context-sensitive mechanism.

*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 Korea; PhD Student

*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 Korea; Associate Professor

1 Introduction

Language variation reflects a tension between social-indexical uses of phonetic variability and the need to preserve phonological contrasts. Sibilants are particularly revealing, as their cross-linguistic variability is well documented and socially meaningful (Stuart-Smith, Timmins, & Wrench, 2003; Zhang, 2005; Zimman, 2017). Against this backdrop, Mandarin offers a valuable test case: its three-way sibilant system relies on multidimensional cues, raising the question of how such a system is reorganized in the face of socially conditioned variation.

1.1 Sibilant fronting: a cross-linguistic gendered speech pattern

While anatomical differences partly explain gender-based speech variation, sociophonetic evidence shows that such patterns are also socially acquired (Simpson, 2009; Munson, Lackas, & Koeppe, 2022). Cross-linguistically, females tend to produce fronted sibilants with higher spectral frequencies. In Mandarin, impressionistic studies reported that young female speakers in Beijing often realized palatal sibilants /ʃ tʃ tʃʰ/ as alveolar sibilants [s ts tsʰ] (Cao, 1986, 1987; Hu, 1988; Zhu, 2004). More recent experimental research by Li (2017) confirmed that the productions of /ʃ/ by young female speakers, as well as /s/ and /ʃ/ by female children, exhibited higher spectral frequencies than those of males, indicating a more anterior articulation. These findings show that Mandarin sibilant variation systematically aligns with cross-linguistic gender-based patterns, underscoring the need for a general theoretical account.

Ohala's Frequency Code (1984, 1996) offers a theoretical account: higher frequencies index “smallness” and femininity. In Mandarin, fronted /ʃ/ has similarly been associated with femininity, described as elegant and delicate (Cao, 1986, 1987; Hu, 1988; Zhu, 2004). Beyond gender, /ʃ/-fronting has also indexed cultural prestige, historically linked to Suzhou and Shanghai accents celebrated for refinement and sophistication (Cao, 1987). These associations explain the social salience and diffusion of /ʃ/-fronting in Mandarin.

1.2 CV coarticulation as a phonetically motivated source of sibilant variation

Mandarin sibilants differ primarily in their place of articulation, which crucially affects the size and shape of the front cavity, yielding an **M1** (the first spectral moment) hierarchy of /s/ > /ʃ/ > /ʂ/ (Lee-Kim, 2011). F2 at vowel onset (hereafter, **onset F2**) is an additional cue: /ʃ/ is characterized by a fronted tongue body posture, yielding a higher onset F2 in the following vowel than is observed for /s/ and /ʂ/, which involve a relatively retracted tongue body (Ladefoged & Maddieson, 1996; Lee-Kim, 2014).

Fronting increases /ʃ/'s M1 while may preserve the onset F2, paralleling [sʲ]-like realizations reported in Polish (Czaplicki, Zygis, Pape, & Jesus, 2016). Vowel context further modulates realization: back vowels such as /u/ lower both M1 and onset F2, particularly for /s/, whereas /ʃ/ remains comparatively stable due to its greater coarticulatory resistance (Recasens & Espinosa, 2009). As a result, the /s/-/ʃ/ M1 contrast compresses in /u/, but onset F2 separation expands, suggesting context-dependent reorganization of cues.

1.3 Restructuring multidimensional cues to sibilant contrast in the face of variation

Two mechanisms may preserve the /s/-/ʃ/ contrast in face of /ʃ/ fronting. One proposed strategy is a chain shift (Li, 2017), where /ʃ/-fronting triggers /s/-fronting, maintaining separation along M1. An alternative strategy is cue reweighting: instead of fronting /s/, speakers enhance onset F2 separation to offset weakened M1 distinctions. Importantly, the two mechanisms may apply differentially depending on vowel context. From this perspective, cue reweighting is especially likely to occur in back vowel environments, where onset F2 separation expands.

This study tests both strategies by analyzing adult Mandarin speech with controlled vowel contexts. Using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we estimate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M1 and onset F2 to the /s/-/ʃ/ contrast across contexts, revealing how speakers dynamically reorganize cues to maintain phonological distinctiveness under social and articulatory pressures.

2 Method

2.1 Participants

Forty Mandarin speakers (20F, 20M; aged 18–30) participated. All were college or graduate students with high Mandarin proficiency and no reported speech or hearing impairments.

2.2 Stimuli

The stimuli list included 30 disyllabic Mandarin target items and 120 fillers. Each target word began with one of three sibilants (/s, ʃ, ʒ/) followed by one of two vowel contexts (/a, u/), yielding six sibilant-vowel combinations at word-initial position (e.g. /a/ context: 撒野 /sa jɛ/ ‘meaning’ ~ 沙发 /ʃa fa/ ‘meaning’ ~ 虾米 /ʒa mi/ ‘meaning’). Five lexical items were selected for each sibilant-vowel combination, yielding 30 target items in total. The word-initial syllable carried either T1 (X⁵⁵) or T2 (X³⁵).

2.3 Procedure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in 2023 at XXX University, Beijing, China, using a randomized word list reading task. The 150 items were randomly shuffled four times to create four distinct word lists. Stimuli were presented one per slide, each visible for two seconds. Participants were instructed to read the words in a natural speaking style.

2.4 Acoustic analysis

The dataset comprised 4,778 analyzable tokens. All tokens were initially aligned using the *Montreal Forced Aligner* (MFA; McAuliffe, 2017) and subsequently manually adjusted in Praat (Boersma & Weenink, 2008). The frication noise was then submitted to a multitaper spectral analysis (Blacklock & Shadle, 2003; Blacklock, 2004) in MATLAB and M1 was selected to characterize the noise properties of the fricatives, given its robust correlation with front cavity length. Vowel F2 was measured in Praat at 20 ms after onset, reflecting consonantal influence.

2.5 Assessing contextual cue reweighting strategies

To assess context-dependent cue weighting,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LDA) was performed separately for each speaker in /a/ and /u/ contexts, with M1 and onset F2 as predictors. The resulting discriminant coefficients were interpreted as cue weights, representing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M1 and onset F2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s/-/ʒ/ contra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then conducted in R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speaker-level cue weights of the two acoustic cues, collapsed across vowel contexts.

3 Result

3.1 M1 realization in Mandarin sibilants

Figure 1 summarizes the distribution of M1 and onset F2 values for alveolars (pink), retroflexes (blue), and palatals (green), paneled by GENDER and VOWEL. The linear mixed-effects regression model was fitted using the *lmer* function in the *lme4* package in R. The dependent variable was M1 values (Hz). The fixed effects included GENDER (two levels: Female vs. Male), SIBILANT (three levels: Alveolar, Palatal, Retroflex), VOWEL (two levels: /a/ vs. /u/) and their interactions. The random effects included by-subject random intercepts and slopes for the SIBILANT and VOWEL interaction, as well as by-word random intercepts. Table 1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model.

Starting with the reference level (SIBILANT = palatal, VOWEL = /a/, GENDER = female), both SIBILANT_{alv} ($p < .0001$) and SIBILANT_{retro} ($p < .0001$) exerted significant effects on M1. /s/ ($M = 7,957$ Hz) had higher M1 than /ʒ/ ($M = 6,981$ Hz), while /ʃ/ ($M = 3,587$ Hz) was much lower, confirming the expected hierarchy /s/ > /ʒ/ > /ʃ/ (Lee-Kim, 2011).

For /ʒ/, VOWEL significantly lowered M1 in /u/ compared to /a/ ($p < .0001$), reflecting the influence of tongue retraction and lip rounding. GENDER was also significant ($p < .0001$), with females ($M = 6,981$ Hz) producing higher M1 than males ($M = 5,288$ Hz). A GENDER:VOWEL

interaction ($p < .0001$) showed that the gender difference was smaller in /u/ ($\Delta = 669$ Hz) than in /a/ ($\Delta = 1,693$ Hz), indicating that /u/ attenuates female-led fronting.

The patterns observed for /ɕ/ were not found consistently for other sibilants, as evidenced by several higher-order interactions involving the predictor SIBILANT. To examine the patterns of the /s/ and /ʃ/ categories, we fitted separate models using each as the reference levels. For /s/, both VOWEL and GENDER were significant ($p < .0001$), with female speakers ($M = 7,957$ Hz) showing higher M1 than males ($M = 6,771$ Hz), and with substantial retraction in /u/. A GENDER:VOWEL interaction ($p = .0018$) revealed that the gender difference was reduced in /u/, paralleling /ɕ/. However, as indicated by the significant GENDER:SIBILANT_{alv} interaction ($\beta = -507$, $p = .0273$) in the main model, the gender difference in M1 values in the /a/ context was larger for /ɕ/ ($M = 1,693$ Hz) than for /s/ ($M = 1,186$ Hz), pointing to a stronger female-led fronting effect for /ɕ/. Thus, although both sibilants are shaped by VOWEL and GENDER, the degree of gender-driven fronting is amplified in /ɕ/, underscoring its sociolinguistic salience as a key indexical marker of gendered speech in Mandarin.

Next, the pattern for /ʃ/ diverges substantially from that of /ɕ/, as evidenced by the significance of all higher-order interactions involving SIBILANT_{retro} in the main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ʃ/ model, effects of VOWEL ($p = .1284$), GENDER ($p = .5493$), and their interaction ($p = .2472$) were non-significant, showing neither vowel-induced shift nor female-led fronting. Given the significant fronting of /s/ and /ɕ/, the absence of gender effects for /ʃ/ argues against an anatomical account predicting uniform GENDER effects. Instead, it supports a social account in which speakers selectively advance particular sibilants to construct gendered speech sty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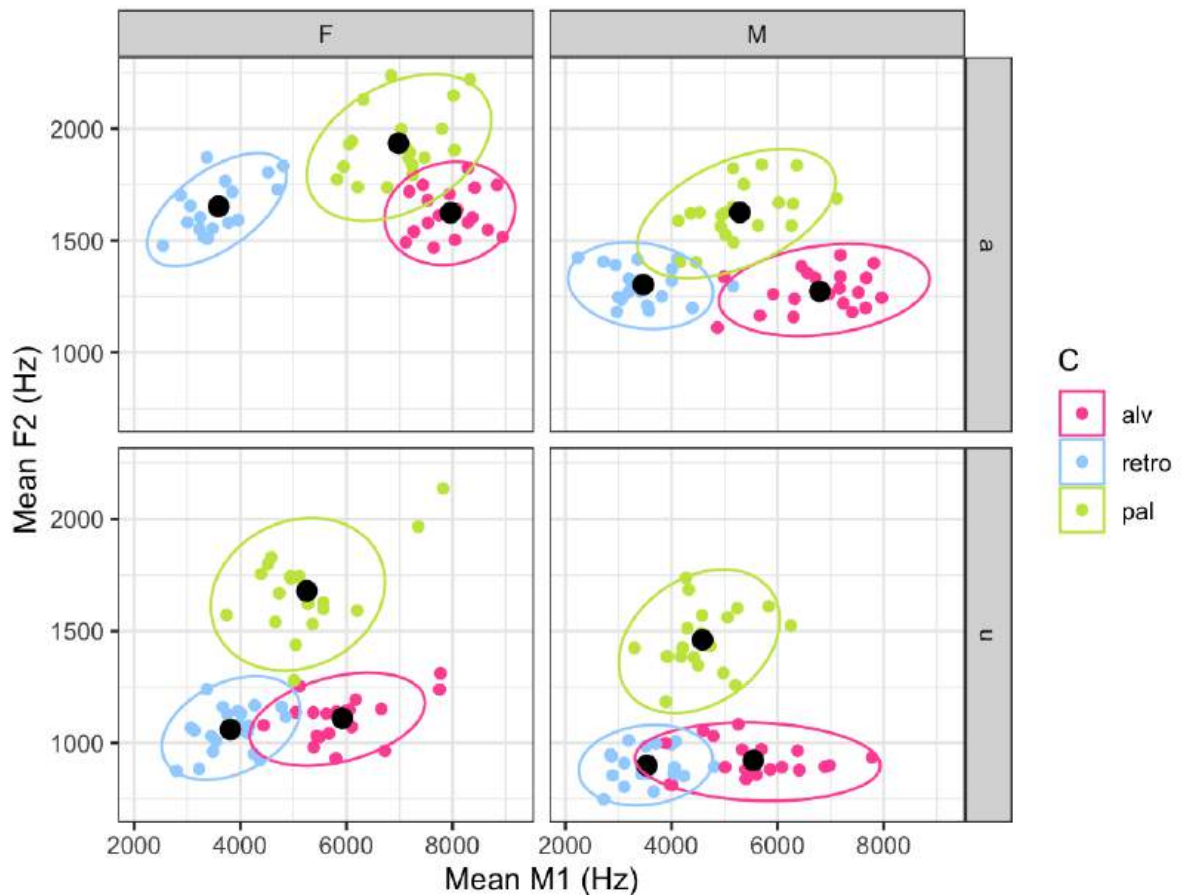


Figure 1. (Color online) By-subject M1 values (Hz) and F2 values at vowel onset (Hz) of alveolars (pink), retroflexes (blue), and palatals (green). Individual productions are shown as colored dots, with ellipses indicating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a multivariate t-distribution. Black dots represent the across-speaker means for each sibilant category. The results are divided by female (left) and male (right) speakers and by /a/ (top) and /u/ (bottom) vowels.

Table 1. Summary of the mixed-effects regression Model. Formula: $M1 \sim \text{GENDER} * \text{SIBILANT} * \text{VOWEL} + (1 + \text{SIBILANT} * \text{VOWEL} | \text{SUBJECT}) + (1 | \text{WORD})$. Significant results are in bold.

Predictors	Coefficient	SE	t value	p value
Intercept	6980.69	190.20	36.70	<0.0001
SIBILANT_{alv}	976.19	191.82	5.09	<0.0001
SIBILANT_{retro}	-3393.64	224.26	-15.13	<0.0001
Vowel_{/u/}	-1728.46	161.59	-10.70	<0.0001
Gender_M	-1692.81	244.74	-6.92	<0.0001
Gender_M:Vowel_{/u/}	1023.78	165.28	6.19	<0.0001
Vowel _{/u/} :SIBILANT _{alv}	-310.00	217.97	-1.42	0.1608
Vowel_{/u/}:SIBILANT_{retro}	1955.63	224.81	8.70	<0.0001
Gender_M:SIBILANT_{alv}	506.70	220.71	2.30	0.0273
Gender_M:SIBILANT_{retro}	1574.51	275.09	5.72	<0.0001
Gender _M :Vowel _{/u/} :SIBILANT _{alv}	-212.59	212.70	-1.00	0.3239
Gender_M:Vowel_{/u/}:SIBILANT_{retro}	-1182.46	226.43	-5.22	<0.0001

Reference levels were set as: SIBILANT = palatal, VOWEL = /a/, GENDER = female

The preceding analyses focused on the /a/ context, where clear gender effects emerged, but given the strong coarticulatory constraint of /u/, it remained unclear whether female-led fronting persists in this environment. Post-hoc comparisons conducted on the fitted linear mixed-effects model showed that in /u/, gender differences in M1 were significant only for /ɕ/ ($p = .0109$), but not for /s/ ($p = .2037$) or /ʃ/ ($p = .1139$). Thus, female-led fronting persisted exclusively for /ɕ/, reinforcing the social account of selective sibilant fronting and underscoring /ɕ/ as a stronger indexical resource than /s/, since it consistently exhibits fronting across both vowel contexts.

To summarize, gender-related variation was limited to a subset of Mandarin sibilants, which points to socially driven patterns as a source of variation in sibilant production. Crucially, this variation showed vowel-dependent asymmetry. In /a/, both /s/ and /ɕ/ were fronted by females, with a stronger effect for /ɕ/; in /u/, only /ɕ/ showed female-led fronting, suggesting a weakening of the M1-based /s/-/ɕ/ contrast. This raises the question of how speakers preserve the contrast when M1 cues are reduced, motivating an examination of onset F2 as a compensatory resource.

3.2 Onset F2 realization in Mandarin sibilants

Since this section focuses on the /s/-/ɕ/ contrast, th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a subset of the data including only /s/ and /ɕ/ tokens. We fitted a linear mixed-effects model similar to that in Section 3.1, with onset F2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fixed and random effects structure and coding were identical to the M1 analysis. Table 2 summarizes the regression model.

The regression model revealed significant effects of all predictors on onset F2 values at the reference level (SIBILANT = palatal, VOWEL = /a/, GENDER = female). The significant main effect of SIBILANT ($p = .0008$) showed that /ɕ/ ($M = 1,935$ Hz) had higher onset F2 than /s/ ($M = 1,621$ Hz), reflecting a more fronted tongue body posture. And the significant main effect of VOWEL ($p = .0046$) indicated lower onset F2 for /ɕ/ in /u/ ($M = 1,679$ Hz) than in /a/ ($M = 1,935$ Hz), consistent with the well-known coarticulatory effects of the back rounded vowel. Gender-related patterns also emerged: the significant GENDER effect ($p < .0001$) indicated that females ($M = 1,935$ Hz) produced higher onset F2 values than males ($M = 1,626$ Hz) for /ɕ/.

Importantly, a significant VOWEL:SIBILANT interaction ($p = .0329$) revealed that /s/ ($\Delta = 511$ Hz) underwent greater onset F2 lowering than /ɕ/ ($\Delta = 256$ Hz) in the /u/ context, demonstrating their differential coarticulatory susceptibility. As a result, the onset F2 separation between /s/ and /ɕ/ was larger in /u/ ($\Delta = 568$ Hz) than in /a/ ($\Delta = 314$ Hz). This enhanced spectral separation may support increased reliance on onset F2 for maintaining the contrast in /u/. Also, a significant VOWEL:GENDER effect ($p = .0170$) showed that vowel-based variation was also modulated by gender, with larger vowel-induced onset F2 lowering in females ($\Delta = 256$ Hz) than males ($\Delta = 165$ Hz). Moreover, the significant VOWEL:SIBILANT:GENDER interaction ($p = .0484$) indicated that vowel coarticulatory effects on onset F2 separation are more pronounced in female ($\Delta = 255$ Hz) than in male speakers ($\Delta = 184$ Hz).

In sum, vowel context crucially shapes onset F2: /u/ lowers onset F2 across categories, with /s/ more affected than /ʃ/, thereby enlarging their separation and suggesting greater reliance on F2 cues in back vowel contexts. This motivates testing whether cue weights shift under vowel-induced constraints and how speakers preserve the /s/-/ʃ/ contrast across environments.

Table 2. Summary of the mixed-effects regression Model. Formula: *onset F2* ~ GENDER*SIBILANT*VOWEL + (1 + SIBILANT*VOWEL|SUBJECT) + (1|WORD). Significant results are in bold.

Predictors	Coefficient	SE	t value	p value
Intercept	1934.76	61.59	31.41	<0.0001
SIBILANT_{alv}	-313.43	78.66	-3.98	0.0008
VOWEL_{/u/}	-256.00	79.96	-3.20	0.0046
GENDER_M	-308.78	43.04	-7.17	<0.0001
VOWEL_{/u/}:SIBILANT_{alv}	-254.56	109.89	-2.32	0.0329
GENDER_M:VOWEL_{/u/}	90.65	36.31	2.50	0.0170
GENDER _M :SIBILANT _{alv}	-41.48	30.13	-1.38	0.1767
GENDER_M:VOWEL_{/u/}:SIBILANT_{alv}	71.05	34.84	2.04	0.0484

Reference levels were set as: SIBILANT = palatal, VOWEL = /a/, GENDER = female.

3.3. Cue reweighting across vowel contexts

To qua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ues, we conducted 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on the speaker-level cue weights, collapsed across vowel contexts. The analysis revealed a significant inverse correlation between M1 and onset F2 cue weights ($R = -0.56$, $p < .0001$). In /a/, speakers relied more on M1, while in /u/, reliance shifted toward onset F2. This pattern aligns with the cue reweighting hypothesis, showing that speakers adjust cue reliance dynamically to maintain the /s/-/ʃ/ contrast.

In sum, the findings highlight the flexibility of cue selection under both social and linguistic pressures. In the face of /ʃ/-fronting, the /s/-/ʃ/ contrast is preserved through different strategies: in /a/, a chain-shift pattern involving /s/-fronting maintains M1 separation, whereas in /u/, cue reweighting leads to greater reliance on onset F2, allowing the absence of /s/-fronting. These results demonstrate how sociophonetic pressures and vowel-induced constraints jointly shape the acoustic implementation of phonological contrasts.

4 Conclusion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dynamic nature of phonetic cue selection in preserving robust phonological contrasts under sociophonetic pressure. Specifically, female speakers actively adopt fronted /ʃ/ variants, potentially as indexical markers of femininity or modernity. In response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sibilants' acoustic space, speakers employ a flexible and context-sensitive mechanism through which the weighting of acoustic cues is dynamically adjusted to preserve phonological distinctiveness.

References

- Cao, Y. (1986). 北京话语音里的性别差异 [Gender difference in the phonetics of Beijing Mandarin]. *汉语学习 [Chinese Studies]*, 6, 31–31.
- Cao, Y. (1987). 北京话ʈʂ组声母的前化现象 [The fronting phenomenon of the /ʈʂ/ class sounds in Beijing Mandarin]. *语言教学与研究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3, 84–91.
- Czaplicki, B., Zygis, M., Pape, D., & Jesus, L. (2016). Acoustic Evidence of New Sibilants in the Pronunciation of Young Polish Women. *Poznan Studies in Contemporary Linguistics*, 52, 1–42. <https://doi.org/10.1515/psicl-2016-0004>

- Hu, M. (1988). 北京话“女国音”调查(1987) [A survey of the “female Mandarin” in Beijing (1987)]. *语文建设[Language Planning]*, 01, 28–33.
- Ladefoged, P., & Maddieson, I. (1996). *The Sounds of the World's Languages*. Wiley.
https://books.google.co.kr/books?id=h1byJz_rWUcC
- Lee-Kim, S.-I. (2011). Spectral Analysis of Mandarin Chinese Sibilant Fricatives. *International Congress of Phonetic Sciences*,
- Lee-Kim, S.-I. (2014). Revisiting Mandarin ‘apical vowels’: An articulatory and acoustic study.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44(3), 261-282.
<https://doi.org/10.1017/S0025100314000267>
- Li, F. (2017). The development of gender-specific patterns in the production of voiceless sibilant fricatives in Mandarin Chinese. *Linguistics*, 55(5), 1021-1044.
<https://doi.org/doi:10.1515/ling-2017-0019>
- Munson, B., Lackas, N., & Koeppel, K. (2022).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Gendered Speech in Preschool Children: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65(4), 1311-1330.
https://doi.org/doi:10.1044/2021_JSLHR-21-00465
- Ohala, J. J. (1984). An Ethological Perspective on Common Cross-Language Utilization of F₀ of Voice. *Phonetica*, 41(1), 1-16. <https://doi.org/doi:10.1159/000261706>
- Ohala, J. J. (1996). Ethological theory and the expression of emotion in the voic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oken Language Processing (ICSLP 1996),
- Recasens, D., & Espinosa, A. (2009). An articulatory investigation of lingual coarticulatory resistance and aggressiveness for consonants and vowels in Catalan.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25, 2288-2298. <https://doi.org/10.1121/1.3089222>
- Simpson, A. P. (2009). Phonetic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peech. *Language and Linguistics Compass*, 3(2), 621-640. <https://doi.org/https://doi.org/10.1111/j.1749-818X.2009.00125.x>
- Stuart-Smith, J., Timmins, C., & Wrench, A. (2003). Sex and gender differences in Glaswegian/s. *Proceedings of the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honetic Sciences, Barcelona, Spain*.
- Zhang, Q. (2005). A Chinese yuppie in Beijing: Phonological vari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 new professional identity. *Language in society*, 34(3), 431-466.
- Zhu, X. (2004). 亲密与高调——对小称调、女国音、美眉等语言现象的生物学解释[Intimacy and high pitch: A biological explanation for diminutive tone, female Mandarin, and meimei]. *当代语言学[Contemporary Linguistics]*, 6(3), 193-222.
- Zimman, L. (2017). Variability in /s/ among transgender speakers: Evidence for a socially grounded account of gender and sibilants. *Linguistics*, 55. <https://doi.org/10.1515/ling-2017-0018>

Incomplete neutralization of r-suffixation in Beijing Mandarin

Yu He and Sang-Im Lee-Kim*

< Contents >

【Abstract】

1. Introduction
 2. Experiment 1: Production of r-suffixation in Beijing Mandarin
 3. Experiment 2: Perception of r-suffixation in Beijing Mandarin
 4. General discussion
- References

【 Abstract 】

R-suffixation is a morphophonological process in Mandarin in which a rhotic [ʐ] is suffixed to express diminutiveness. Previous studies (Zhang, 1999, 2000; Fu, 2022) have shown that CV and CVn words are neutralized into CVʐ after r-suffixation, while CVŋ-ʐ words remain distinct with a fully nasalized vowel (CV-ʐ = CV-ʐ ≠ CṼ-ʐ). This study carried out a comprehensive phonetic investigation of incomplete neutralization of r-suffixed forms in Beijing Mandarin. Wordlist produc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three acoustic cues: rhyme nasalization (A1-P0), rhyme retraction (F2), and rhoticity degree (F3-F2). The results revealed that CV-ʐ and CVn-ʐ rhymes are largely neutralized in high and low vowel contexts (Ci-ʐ = Ci-ʐ ≠ Cĩ-ʐ), but a three-way contrast was observed in the mid vowel context (Cɤ-ʐ ≠ Cə-ʐ ≠ Cṁ-ʐ). In a word identification task, listeners accurately identified r-suffixed forms in the mid vowel context, whereas performance for CV-ʐ and CVn-ʐ forms in other contexts showed significant conf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r-suffixation is not uniformly applied across different vowel contexts, with neutralization patterns modulated by vowel height. The vowel-dependent asymmetries are discussed with reference to the role of paradigm uniformity between stem and suffixed forms (Steriade, 2000).

*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t Hanyang University, Korea.

1. Introduction

Incomplete neutralization refers to cases where phonological neutralization is assumed to occur, yet subtle phonetic differences persist on the surface (Port & O'Dell, 1985). Cross-linguistic studies have documented incomplete neutralization in diverse domains: final devoicing in German and Dutch (Port & O'Dell, 1985), flapping in American English (Braver, 2014), vowel length in Japanese monomoraic nouns (Kawahara & Braver, 2015), and tonal alternations in Huai'an Mandarin (Du & Durvasula, 2022). A key explanatory factor is paradigm uniformity (PU), which is often expressed in Optimality Theoretic terms through output–output correspondence constraints requiring phonetic similarity between base and derived forms (Zhang, 2000; Hayes, 2004; Braver, 2014; Fu, 2022).

Despite this wide coverage, incomplete neutralization has also faced substantial criticism. Some scholars argue that apparent subphonemic contrasts may be artifacts of experimental design, such as orthographic interference, metalinguistic tasks, or over-sensitivity of acoustic measurements (Roettger et al., 2014). Moreover, the robustness of the phenomenon has been questioned, as replication attempts across languages and speakers sometimes yield inconsistent findings. These challenges underscore the need for methodological rigor and multi-dimensional evidence when testing incomplete neutralization.

Mandarin r-suffixation provides a valuable testing ground for addressing these concerns. When the diminutive suffix *r* attaches, stems undergo systematic phonetic modifications with the nasal coda deleted. Early impressionistic descriptions (Zhang, 2000) suggested that open-syllable and alveolar-nasal stems neutralize after *r*-suffixation, while velar-nasal stems remain distinct with greater nasalization. Later acoustic work (Fu, 2022) confirmed these asymmetries, but key questions remain unresolved: Do these patterns hold uniformly across vowel heights? Are the contrasts perceptible to listeners? And how can potential orthographic and task-induced artifacts be minimized?

The present study introduces several improvements. First, to minimize orthographic effects, stimuli were presented in Chinese characters, reducing alphabetic bias. Second, we combine production and perception evidence, allowing us to evaluate whether acoustic differences are also functionally accessible to listeners. Third, the analysis targets multiple acoustic cues—rhyme nasalization, rhyme retraction, and rhoticity degree—providing a more comprehensive account than previous studies. Finally, by explicitly testing across high, mid, and low vowel contexts, we address how vowel height systematically conditions the degree of neutralization.

2. Experiment 1: Production of r-suffixation in Beijing Mandarin

2.1. Materials and Methods

Thirty native speakers of Beijing Mandarin (15 female, 15 male, aged 18–30), all with normal hearing and no speech disorders, participated in Experiment 1. Stimuli comprised 18 items representing three stem types (V-stem, n-stem, ŋ-stem) across three vowel contexts (high, mid, low), with both base and r-suffixed forms presented in Chinese characters (Table 1). Recordings were made individually using a Shure head-worn dynamic microphone and Zoom H4n Pro recorder at 44.1 kHz and a bit depth of 16, with randomized presentation. Acoustic analyses targeted rhyme nasalization (A1–P0), retraction (F2), and rhoticity (F3–F2). Data were analyzed with mixed-effects models including TYPE, VOWEL, and GENDER, with model simplification based on likelihood-ratio tests.

Table 1. Stimuli of the production experiment.

	CV + □	CVn + □	CVŋ + □
	/ɕ jaʊ ²¹⁴ t□i ⁵⁵ + □/	/maʊ ³⁵ t□in ⁵⁵ + □/	/ʃ ui ²¹⁴ t□iŋ ⁵⁵ + □/
/i/	小鸡儿 little chick	毛巾儿 towel	水晶儿 crystal
	/ʃ i ⁵⁵ kə ⁵⁵ + □/	/ɕ je ³⁵ kən ⁵⁵ + □/	/tʰ jaʊ ³⁵ kəŋ ⁵⁵ + □/
/ə/	诗歌儿 pome	鞋跟儿 heel	调羹儿 spoon
	/la ⁵¹ pa ⁵⁵ + □/	/tsaʊ ²¹⁴ pan ⁵⁵ + □/	/tʃh ai ²¹⁴ paŋ ⁵⁵ + □/
/a/	腊八儿 The Laba Festival	早班儿 early shift	菜梆儿 knife handle

2.2. Results

2.2.1. Rhyme nasalization

Figure 1 plots by-subject mean A1-P0 (dB) values obtained at 75% timepoint of the rhymes in different vowel contexts, stem conditions, and gender, where lower A1-P0 values indicate greater nasalization (Styler & Scarborough, 2014). Statistical results revealed consistent neutralization between V-stem and n-stem forms, while ŋ-stem words remained significantly more nasalized across all vowel contexts ($p < 0.001$). As shown in Figure 1, this robust separation supports the claim that ŋ-stems resist complete merger, indicating that r-suffixed rhymes exhibit a systematic reduction of the original three-way stem contrast, a pattern that holds consistently across vowel heights. Specifically, the distinction between V-stem and n-stem words is neutralized with respect to the degree of rhyme nasalization—both showing weaker nasalization—while ŋ-stem words remain distinct with significantly greater nasalization. This pattern confirms impressionistic descriptions, which report that r-suffixed form derived from velar stem words are more nasalized (Zhang, 1999, 2000; Lin, 2007; Duanmu, 1990). Further, this finding provides solid empirical supports for the assumptions of theoretical approaches (Zhang, 2000; Fu, 2022), where /an-ɿ / rhymes are assumed to undergo denasalization and neutralized with /a-ɿ /, whereas /aŋ-ɿ / rhymes retain distinct nas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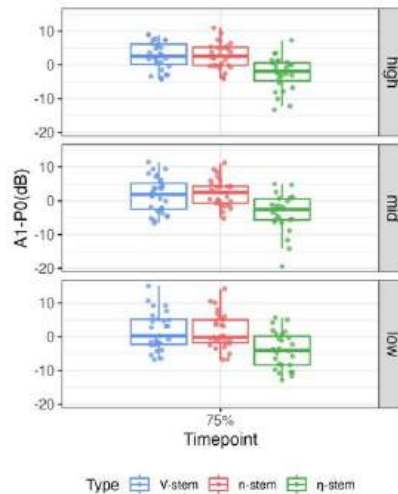


Figure 1. Boxplots of mean A1–P0 values (dB) at the 75% timepoint of the rhyme for V-stem (blue), n-stem (red), and η -stem (green) words across high, mid, and low vowel contexts.

2.2.2. Rhyme retraction

Figure 2 shows by-subject mean F2 values for each TYPE broken down by GENDER and VOWEL. For rhyme retraction, F2 values showed significant TYPE $\times$ VOWEL interactions ($p < 0.01$). In high and low vowel contexts, V-stem and n-stem forms did not differ reliably, whereas η -stem words exhibited greater retraction ($p < 0.001$). In mid vowels, however, all three categories diverged significantly: V-stem rhymes showed the lowest F2 values (most retracted), n-stem rhymes the highest (least retracted), and η -stem rhymes intermediate (all pairwise comparisons $p < 0.01$). This three-way separation is clearly visible in Figure 2. The results of rhyme retraction for r-suffixed rhymes demonstrate a vowel-dependent pattern across stem type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η -stem and n-stem words remains consistent across all vowel heights, with η -stem words always exhibiting a greater degree of retraction than n-stem words. This pattern is in line with the findings of Fu (2022). In contrast, the behavior of V-stem words differs depending on vowel height. In the high and low vowel contexts, the degree of retraction is neutralized between V-stem and n-stem words, whereas in the mid-vowel context, V-stem words show the strongest retr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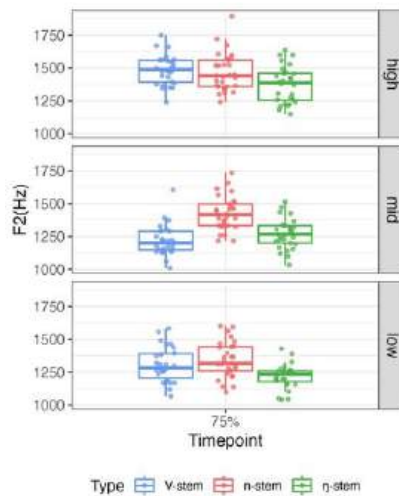


Figure 2. Boxplots of mean F2 values (Hz) at the 75% timepoint of the rhyme for V-stem (blue), n-stem (red), and η -stem (green) words across high, mid, and low vowel contexts.

2.2.3. Rhoticity degree

Turning to rhyme rhoticity, measured by F3–F2, the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main effects of TYPE ($p < 0.001$) and TYPE $\times$ VOWEL interactions ($p < 0.01$). In low vowels, n-stem words exhibited the strongest rhoticity, V-stem words intermediate, and η -stem words weakest, with all contrasts significant ($p < 0.05$). In high vowels, the difference between V-stem and n-stem was reduced while the n-stem vs. η -stem contrast remained robust ($p < 0.001$). In mid vowels, a full three-way contrast re-emerged, with n-stem $>$ η -stem $>$ V-stem (all $p < 0.01$; Figure 3).

In summary,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degree of rhoticity in r-suffixed rhymes is conditioned by both stem type and vowel height. The difference in rhoticity between η -stem

and n-stem words was likewise consistent across vowel heights, with n-stem words exhibiting weaker rhoticity than η-stem words across all vowel contexts. By contrast, the rhoticity of V-stem words varied as a function of vowel height. In the high vowel context, V-stem words patterned closely with n-stem words, whereas in the low vowel context, rhoticity of V-stem words fell between that of n-stem and η-stem words. Most strikingly, in the mid vowel context, V-stem words showed the weakest rhoticity of all three stem typ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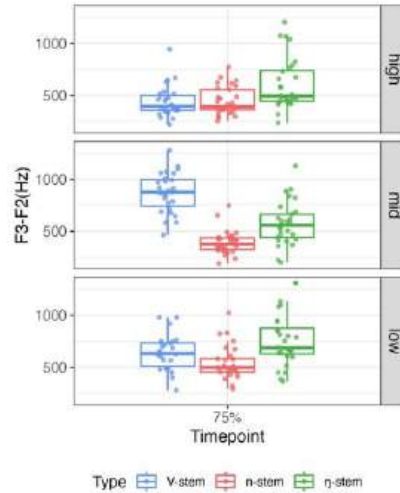


Figure 3. Boxplots of mean F3-F2 values (Hz) at the 75% timepoint of the rhyme for V-stem (blue), n-stem (red), and η-stem (green) words across high, mid, and low vowel contexts.

3. Experiment 2: Perception of r-suffixation in Beijing Mandarin

Having established acoustic differences across r-suffixed forms, we next examined their functional significance in perception through a word identification task. Twenty native speakers of Beijing Mandarin (10 female, 10 male), none of whom participated in Experiment 1, completed the task. Stimuli were r-suffixed forms from the same set as Experiment 1, recorded by two speakers, with the first syllables of carrier phrases masked by white noise (see Figure 4 for an example). The perception experiment, conducted in E-Prime with AKG headphones, tested 216 randomized tokens in a forced-choice identification paradigm, where participants selected among three r-suffixed options (e.g., 小鸡儿 vs. 毛巾儿 vs. 水晶儿) presented in Chinese charac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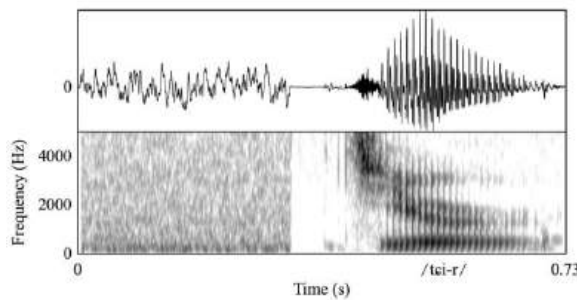


Figure 4. Example spectrogram of the stimulus /ɕ jaʊ tɕ i / ‘小鸡儿’. The first syllable (/ɕ jaʊ /) was masked with 300 ms of white noise, and a 50 ms closure was inserted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syllables.

Figure 5 shows mean identification accuracy by vowel height. A mixed-effects logistic regression (accuracy as dependent variable; TYPE, VOWEL, and interaction as fixed effects; random intercept for PARTICIPANT) was fitted, with model comparisons confirming the full specification. Results revealed that in high and low vowels, V-stem and n-stem were frequently confused while η -stem was reliably identified ($p < 0.001$). In mid vowels, however, a robust three-way contrast emerged, with all pairwise comparisons significant ($p < 0.01$) and V-stem forms most clearly identified. This asymmetry parallels the production findings, where mid vowels enhanced perceptual access to stem distin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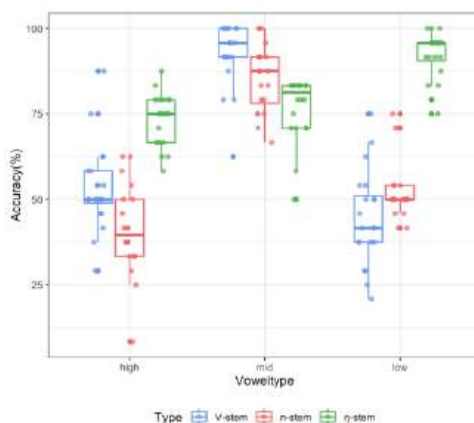


Figure 5. Distribution of by-subject mean accuracy for V-stem (blue), n-stem (red) and η -stem (green) words across vowel contexts.

4. General discussion

This study conducted comprehensive phonetic investigation with multiple acoustic cues of r-suffixation in Beijing Mandarin, integrating both production and perception data. The production results revealed systematic asymmetries depending on both stem type and vowel height in three major phonetic dimensions, providing clear evidence that r-suffixation yields structured, yet incomplete, neutralization patterns through stem types, with details conditioned by vowel height. Such incomplete neutralization, particularly in rhyme nasalization and retraction can be attributed to paradigm uniformity, as rhymes tend to retain the nasalization and retraction properties of their stem forms. These differences are well reflected in the perception of the r-suffixed words: listeners were able to exploit these residual acoustic cues, with vowel-dependent asymmetries that aligned with the patterns found in production.

The robust incomplete neutralization pattern observed both in production and perception while minimizing orthographic confounds confirmed that incomplete neutralization is cognitively realistic and pervasive during morpho-phonological processes and further indicates that theoretical approaches that incorporate paradigm uniformity into formal analyses appear well-motivated and merit continued development.

References

- Braver, A. (2014). Imperceptible incomplete neutralization: Production, non-identifiability, and non-discriminability in American English flapping. *Lingua*, 152, 24-44.
<https://doi.org/https://doi.org/10.1016/j.lingua.2014.09.004>
- Du, N., & Durvasula, K. (2022). Phonetically incomplete neutralisation can be phonologically complete: evidence from Huai'an Mandarin. *Phonology*, 39(4), 559-595.
<https://doi.org/10.1017/S0952675723000192>
- Duanmu, S. (1990). A formal study of syllable, tone, stress and domain in Chinese languages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Dept. of Linguistics and Philosophy.
- Fu, B. (2022). Contrast Preservation in Mandarin R-suffixation: A comparative study of Beijing and Liaoning dialects. *Glossa: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s*, 7.
<https://doi.org/10.16995/glossa.5801>
- Hayes, B. (2004). Phonological Acquisition in Optimality Theory: The Early Stages1. *Constraints in Phonological Acquisition*. <https://doi.org/10.1017/CBO9780511486418.005>
- Kawahara, S., & Braver, A. (2015). Incomplete Neutralization in Japanese Monomoraic Lengthening. *Proceedings of AMP 2014*, 2. <https://doi.org/10.3765/amp.v2i0.3757>
- Lin, Y.-H. (2007). *The Sounds of Chine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rt, R. F., & O'Dell, M. L. (1985). Neutralization of syllable-final voicing in German. *Journal of Phonetics*, 13(4), 455-471. [https://doi.org/https://doi.org/10.1016/S0095-4470\(19\)30797-1](https://doi.org/https://doi.org/10.1016/S0095-4470(19)30797-1)
- Roettger, T. B., Winter, B., Grawunder, S., Kirby, J., & Grice, M. (2014). Assessing incomplete neutralization of final devoicing in German. *Journal of Phonetics*, 43, 11-25.
<https://doi.org/https://doi.org/10.1016/j.wocn.2014.01.002>
- Steriade, D. (2000). Paradigm uniformity and the phonetics phonology boundary. *Papers in Laboratory Phonology V: Acquisition and the Lexicon*, 313-334.
- Styler, W., & Scarborough, R. (2014). Surveying the nasal peak: A1 and P0 in nasal and nasalized vowels.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36(4_Supplement), 2083-2083.
<https://doi.org/10.1121/1.4899480>
- Zhang, J. (1999). The /n/-ŋ/ Asymmetry upon /ɿ /-Suffixation in Beijing and Elsewhere -- A Phonetically Based OT Analysis. *North East Linguistics Society*, 29(2), Article 15.
- Zhang, J. (2000). Non-Contrastive Features and Categorical Patterning in Chinese Diminutive Suffixation: "Max[F]" or "Ident[F]"? *Phonology*, 17(3), 427-478.
<http://www.jstor.org/stable/4420181>

中古 방언에서 유래한 異讀音 연구

이지영*

<目 次>

【 국문초록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中古 시기 佛經音義書에 나타나는 방언을 조사하여, 중고 방언에서 유래한 異讀音을 찾는 데 주목하였다. 佛經音義書는 佛經에 나타나는 어휘를 표제어로 하는 일종의 어휘집으로, 당시 字形, 字音, 字義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현존하는 佛經音義書 중 玄應의 《一切經音義》, 慧琳의 《一切經音義》, 慧苑의 《新譯大方廣佛華嚴經音義》, 可洪의 《新集藏經音義隨函錄》, 希麟의 《續一切經音義》는 五大音義書로 불린다. 본 연구에서는 이 五大音義書를 저본으로 하여 異讀音이 방언에서 유래한 경우를 찾아 연구하였다. 五大音義書에서는 당시 여러 방언 어휘 및 자음이 등장하는데, 특히 秦音과 吳音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통 秦音은 關中音, 吳音은 江東方音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儲泰松(2001:13-14) 등은 秦音은 北方通語, 吳音은 江南이나 吳楚 지역에서 통용되는 南方通語이며 《切韻》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張鉉(2010:69)은 《慧琳音義》에서 ‘掛’를 ‘吳音怪’로 표기한 예) 등을 들어, 唐代 문헌들에서 吳音으로 표기되는 음운 체계와 《切韻》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掛’는 《切韻》에서 佳韻 去聲이고 ‘怪’는 皆韻 去聲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秦音과 吳音을 北方과 南方의 通語라기보다는 각 지역의 方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關中’, ‘關西’, ‘吳楚之音’, ‘江外吳地’ 등이 秦과 吳 지역 내부의 국소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秦音과 吳音은 이들보다는 넓은 범위를 나타내는 大方言을 나타낸다. 즉, 秦音은 關中 일대의 大方言, 吳音은 江南 일대의 大方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우선, 佛經音義書의 주석을 통해 각 방언의 음운 특징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尤韻은 《慧琳音義》의 기초방언과 吳音에서보다 秦音에서 낮은 모음으로 발음되었고, 支韻은 秦音에서 《慧琳音義》가 기초하는 방언의 脂韻과 같이 읽혔으며, 吳音과 달리 韻尾 /-i/를 동반하였다. 이 외 방언이 등장하는 글자들에서 異讀音을 《切韻》과 《集韻》 등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해당 글자의 異讀音과 佛經音義書에 나타나는 방언음을 비교하여 이들 異讀音이 방언음에서 유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참고문헌

- 《高麗大藏經》，東國大學校譯經院，1976
- 儲泰松，〈唐代的秦音與吳音〉，古漢語研究，2001年 第2期，12-15，2001
- ，〈唐代音義所見方音考〉，語言研究，第24卷 第2期，73-83，2004
- ，〈中古佛典翻譯中的“吳音”〉，古漢語研究，2008年 第2期，2-9，2008
- 劉曉南，〈毛氏父子吳音補證〉，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9年 第5期，52-60，2009
- 余迺永，《新校互註宋本廣韻定稿本》，上海人民出版社，2008
- 張鉉，〈再論慧琳《音義》中的“吳音”〉，語文學刊，2010年 第7期，69-70，2010
- 張凱，〈《吳音奇字》中的明末清初北部吳音聲母特徵〉，棗莊學院學報，2015年 第1期，108-110，2015
- 周祖謨，《廣韻校本》，中華書局，2004
- 高麗大藏經 지식베이스: <http://kb.sutra.re.kr>
- SAT大正新修大藏經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 <http://21dzk.l.u-tokyo.ac.jp/SAT/>
- CBETA 中華電子佛典協會: <http://www.cbeta.org>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1부

9. 중국어학(5) 위당관 212호

현대중국어 문법구조와 구문 기능 연구

중국어 회화문 주제 구조 및 주제 전개 구조 분석

윤유정*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교실 담화 및 주제 전개 모형
 3. 교실 담화의 전개 양상
 4.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의 ‘주제 구조(thematic structure)’ 및 ‘주제 전개 모형(thematic progression patterns)’ 개념을 적용하여 외국인 대상 초급중국어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실 담화의 전개 방식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중국어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수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담화 조직 양상을 살펴본다. 연구 대상은 초급중국어 수준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인 교사가 진행한 회화 수업 시범 영상이며, 수업 단계를 ‘도입-전개-마무리’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주제 전개 및 주제 선택권 분배 양상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교실 담화는 모든 단계에서 주로 ‘주제 반복 모형’, ‘주제 선형 모형’, ‘파생 주제 모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복합 서술부 모형’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또한 도입 단계에서는 학생이 새로운 주제 도입에 일부 참여하는 양상이 있으나, 나머지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새로운 주제가 교사에 의해 주도적으로 제시되어 담화 전개가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의 ‘주제 구조(thematic structure)’ 및 ‘주제 전개 모형(thematic progression patterns)’ 개념을 적용하여 외국인 대상 초급중국어 수업에 나타나는 중국어 회화문의 담화 전개 방식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중국어 수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실 담화의 조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주제(theme)’란 발신자가 메시지의 출발점으로 삼는 절의 첫 부분으로, 텍스트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이에 반해 ‘서술부(rheme)’는 주제를 제외한 절의 나머지 부분으로, 메시지의 주요 내용을 전개하는 역할을 한다.¹⁾ ‘주제 전개(thematic progression)’란 각 절의 주제가 이전 절의 주

* 경기대학교 글로벌어문학부 중어중문전공, 부교수

제 혹은 서술부와 어떠한 연관성을 맺으며 발전하는지, 즉 텍스트가 조직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이다.²⁾ 교실 담화에서 주제 전개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담화의 응집성과 일관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아울러 주제가 누구에 의해서 변환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교실 담화에서 주제 선택권의 분배 양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³⁾ 이에 따라 담화의 주도권이 교사에게 집중되는지 혹은 학생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밝혀낼 수 있다. 일반적인 텍스트 분석에서는 ‘어떤 주제가 제시되는가’에 초점을 두지만, 교실 담화와 같이 복수의 담화 참여자가 존재하는 상호작용적 맥락에서는 ‘누가 주제를 제시하는가’ 또한 중요한 분석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실 담화의 주제 전개 양상과 더불어, 새로운 주제가 누구에 의해 제시되는지에 집중하여 수업 담화의 응집성과 주제 선택권 분배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교실 담화 및 주제 전개 모형

본 연구에서 ‘교실 담화’라 명명한 개념은 교실 내 수업 중 교사와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중국어에서는 이를 ‘課堂(教學)語言’이라고 하며, 이는 교사가 수업 진행 시 사용하는 교육용 언어를 말한다. 한국어에서 중국어 ‘課堂語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주로 ‘교실 담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課堂(教學)語言’을 ‘교실 담화’로 번역하여 활용한다.

교실 담화는 광의와 협의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교실 담화는 구어, 서면어, 몸짓어를 모두 포함하는 반면, 협의의 교실 담화는 구어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교실 담화’의 개념은 협의에 해당하며, 구어적 담화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구어는 다시 언어형식과 담화 기능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다. 언어형식 측면에서는 낭독어, 독백어, 대화어로 구분 가능하며, 담화 기능 측면에서는 吳艷(2010)이 교실 담화, 강의 담화, 소통 담화, 피드백 담화로 분류하고, 態莉(2012)가 지령성 교실 담화, 시범성 교실 담화, 해석성 교실 담화로 구분한 바 있다.

기존의 교실 담화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은 대부분 ‘교사’의 담화만을 분석한 반면, 교사와 학생 간의 담화 조직 방식 및 흐름을 함께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馮耀華·吳英成(2020:77)은 국제 중국어 교육 분야에서 교실 담화 연구가 주로 교사의 담화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보를 수용하는 학생의 담화 연구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교사와 학생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교실 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교육 과제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제 간에 긍정적 상호관계 형성 및 학생의 학습 동기와 흥미 고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傅傳鳳(2011)은 상하이와 베이징 지역에서 21명의 교사가 입문, 초급, 중급 단계의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어 수업 33회를 참관하고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실 담화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기능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는 교실 담화 기능 유형을 ‘교실용어(課堂用語)’, ‘교육내용용어(教學內容用語)’, ‘사제 교류 용어(師生交流用語)’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기능 유형을 다시 하위 분류하고 실제 수업 녹취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였는데,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1) Halliday & Matthiessen 저,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4th ed), New York: Routledge, 한정환 등 옮김, 『HALLIDAY의 기능문법 입문 체계기능언어학』, 서울, 박이정, 2022, 138, 이관규 등 저, 『체계기능언어학 개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124 참조.
 - 2) 윤혜경·한정환, 「한국어 텍스트 유형과 주제구조(Thematic Structure)의 상관관계—체계기능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국어학』 92, 2021, 128 참조.
 - 3) 이정아·맹승호·김찬중, 「과학수업담화의 새로운 독법: 교수학적 담화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8권 8호, 2008, 8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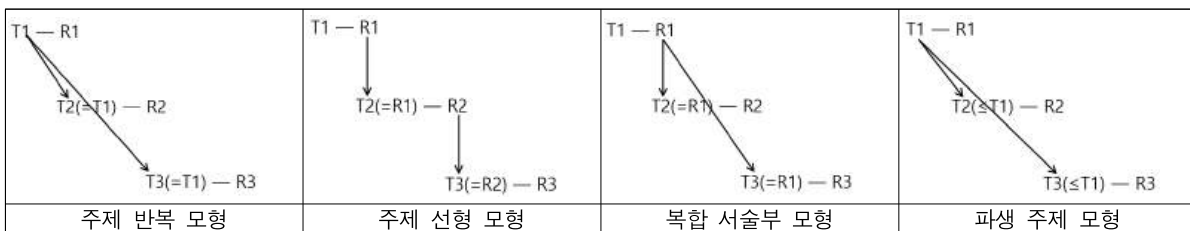
기능 유형	세부 유형	예시
교실용어 (課堂用語)	도입어(導入語)	好, 我們開始上課。昨天我們學了第四課, 我們複習生詞。
	마무리어(結束語)	看看還有什麼問題沒有, 如果沒有問題我們就下課吧。
	지령어(指令語)	我們先學習生詞。184頁。我們一起, 先一起念一下。 我們每一次念兩次。來, 一、二、三。
	설명어(說明語)	好, 來我們看lesson two第二課, lesson two第二課, page five.
교육내용용어 (教學內容用語)	시범어(示範語)	下面跟我念一下, “桔子沒有蘋果那麼新鮮”。
	해석어(解析語)	第九個生詞, 大家注意一下。這個上呢, 我們念輕聲, 念輕聲, “世界上”。
사제교류용어 (師生交流用語)	발문어(提問語)	我們來想一下, 昨天我們學習了節日, 中國有哪些節日? 春節是什麼時候? 還有什麼節日? 中秋節怎麼過? 中秋節吃什麼?
	피드백어(反饋語)	你說得也很好, 說得也很好。

<표 1. 교실 담화 분류>

본 연구는 중국 현지에서 녹화된 초급중국어 수준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교사의 시범수업 영상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수업 진행 상황에 따라 교실 담화를 몇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교사와 학생 간 담화에서 나타나는 주제 전개 모형을 분석한다.

‘주제’는 텍스트 대기능에 따라 ‘화제적 주제(topical theme)’, ‘대인적 주제(interpersonal theme)’, ‘텍스트적 주제(textual theme)’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 절 내에 주제가 한 개만 출현하면 ‘단일 주제(simple theme)’라고 하며, 두 개 이상의 주제가 출현하면 ‘복합 주제(multiple theme)’라고 한다. 복합 주제에서 화제적 주제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주제 전개 모형을 분석할 때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교실 담화의 전개 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주제 전개 모형’의 분류는 학자마다 명칭과 세부 구분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Halliday & Matthiessen 저(2014), 한정환 등 옮김(2022), David Banks 저(2019), 이관규 등 옮김(2023), 이관규 등(2021), 윤혜경·한정환(2021) 그리고 朱永生·嚴世清(2001), 胡壯麟·朱永生·張德祿·李戰子(2005) 등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⁴⁾



<표 2. 주제 전개 모형 분류>

첫째, ‘주제 반복 모형’이란 절1의 주제가 절2와 절3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 주제로 출현하고, 서술부 부분에 새로운 내용이 서술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둘째, ‘주제 선형 모형’은 절1의 서술부가 절2의 주제가 되고, 다시 절2의 서술부가 절3의 주제로 이어지면서 담화가 전개되는 방식을 말한다. 셋째, ‘복합 서술부 모형’은 절1의 서술부가 절2와 절3에서 각각의 주제로 기술되는 경우를 뜻한다. 넷째, ‘파생 주제 모형’은 절의 주제가 상위 주제로부터 파생되어 조직되는 담화 전개 방식을 의미한다.

4) 윤유정, 「중국어 회화 텍스트의 테마 구조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152호, 2025, 84 참조.

3. 교실 담화의 전개 양상

본 연구에서는 北京語言大學 電子音像出版社에서 제작한 “漢語課堂教學示範” 동영상 중 초급중국어 수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회화 수업 ‘初級口語課教學’(강사 : 楊楠)⁵⁾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초급중국어 회화 시범수업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해당 회화 수업이 주요 회화 표현과 관련된 듣기, 말하기, 읽기 등 다양한 언어기능뿐만 아니라 발음 지도, 어휘 용법, 문법 설명 등 언어요소도 함께 다루고 있어 교실 담화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범수업은 일정 수준 계획되고 통제된 수업으로 실제 현장 수업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모범이 될 만한 수업 시연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완성도 높은 수업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 진행 단계를 ‘도입-전개-마무리’의 세 단계로 구분한 뒤, 각 단계별 교사와 학생 간 교실 담화의 주제 전개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수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담화 조직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동영상 수업의 주제는 ‘여행 계획’이다.

(1) 도입 단계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시범수업 동영상에서는 도입 단계에서 오늘 수업 주제에 대한 위밍업 활동이 진행되었다. 수업이 시작되면 교사와 학생이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오늘의 학습 주제인 ‘여행’과 관련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간단한 질문-답변 및 지령-수행 활동이 서너 차례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도시를 대표하는 사진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지도에서 해당 위치를 손으로 가리킨 뒤 사진을 부착하며, 이어서 해당 도시에 대해 소개하거나 간단한 질문-응답을 수행한다. 이 단계의 교실 담화에서 나타난 주제 전개 모형은 다음과 같다.

주제 전개 모형	새주제	주제 반복	주제 선형	파생 주제	복합 서술부	총합
출현 빈도	10	30	9	11	0	60

위 표를 통해 위밍업 활동에서는 ‘주제 반복 모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으로 ‘파생 주제 모형’, ‘주제 선형 모형’이 사용되며, ‘복합 서술부 모형’은 거의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주제가 10개 도입되는데, 이 중 7개는 교사에 의해, 3개는 학생에 의해 제시되어, 학습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답식 위밍업 단계에서 교사가 담화 전개를 주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2) 전개 단계

본 수업의 전개 단계는 다시 몇 가지 세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범수업 동영상에 나타난 본 수업 전개 단계는 다음과 같이 하위 구분할 수 있다.

새단어	새단어 학습 및 연습
교재 본문	교재 본문 읽기 및 이해도 확인
주요 어휘 및 표현	주요 어휘나 표현 학습 및 연습

5) 해당 동영상의 출처는 Youtube Annie Wang(汉语课堂教学示范 - YouTube)으로, 해당 수업에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8명 등 총 12명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의 연령과 정확한 국적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외형상 3명은 동양인, 나머지는 서양인으로 추정된다. 수업의 도입부에서 교사의 발화를 통해 학생들이 중국에 온 지 약 1년이 되어감을 알 수 있다.

연습	1) 학생 2명씩 짝지어 교재 본문 암기하기 2) 학생 1인이 앞으로 나와 본문 속 주인공이라고 설정하고 회화 내용 발표하기 3) 학생 2명씩 짝지어 새로운 여행 계획 회화문 연습한 후 발표하기 4) 새로운 여행 계획 회화문 이해도 확인을 위해 교사-학생 질의응답 5) 학생 1인이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 학생들이 여행지 추천하기. 연습 시간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함.

위 네 개의 세부 단계 중 ‘새단어’, ‘교재 본문’, ‘주요 어휘 및 표현’ 단계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나, ‘연습’ 단계에서는 교사가 지령어를 발화하면 학생이 이에 따라 행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단어’, ‘교재 본문’, ‘주요 어휘 및 표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 간 교실 담화를 중심으로 주제 전개 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① 새단어 학습 및 연습

한 개의 새 단어를 설명할 때 교사는 두세 가지 상황을 예시로 들어 어휘의 의미를 설명하는 ‘상황예시법’을 활용하며, 이후 해당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 활동을 진행한다. 새 단어 한 개의 학습 및 연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실 담화의 주제 전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주제 전개 모형	새주제	주제 반복	주제 선형	파생 주제	복합 서술부	총합
출현 빈도	2	11	3	0	0	16

이 단계에서는 ‘주제 반복 모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주제 선형 모형’을 사용한다. 또한 총 2개의 새로운 주제가 도입되고 모두 교사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이를 통해 상황예시법을 활용한 새 단어 학습 단계에서 담화의 전개가 전적으로 교사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교재 본문 이해도 확인

교재 내 한 단락으로 구성된 회화 본문을 교사가 낭독한 후, 교사는 학생들의 내용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과 답변 활동을 진행한다. 이 단계의 교실 담화에 나타난 주제 전개 모형의 유형과 출현빈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주제 전개 모형	새주제	주제 반복	주제 선형	파생 주제	복합 서술부	총합
출현 빈도	1	8	6	3	0	18

이 단계에서도 ‘주제 반복 모형’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순서대로 ‘주제 선형 모형’, ‘파생 주제 모형’의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복합 서술부 모형’은 출현하지 않았다. 총 1개의 새로운 주제가 도입되었으며, 역시 교사에 의해 제시되었다.

③ 주요 어휘와 표현 학습 및 연습

한 개의 주요 표현을 연습할 때 세 가지 상황을 예시로 제시하고, 각 상황별로 학생 두 명이 회화 연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 반복 모형’과 앞서 등장한 주제의 하위 개념어가 주제로 사용되는 ‘파생 주제 모형’이 빈번히 출현했다. 이 단계 교실 담화에 나타난 주제 전개 모형의 유형과 출현빈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주제 전개 모형	새주제	주제 반복	주제 선형	파생 주제	복합 서술부	총합
출현 빈도	6	20	4	6	1	37

여기에서는 총 6개의 새로운 주제가 도입되었으며, 모두 교사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상황에서 법을 활용한 주요 표현 학습 단계에서도 담화 전개가 전적으로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사가 오늘 학습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오늘 학습 주제를 다시 한 번 언급하여 학생들에게 상기 시키고, 수업 중 파악한 개별 학생들의 상황을 적절히 언급하며 학습 주제와 연계하고 있다. 이 단계의 교실 담화에 나타난 주제 전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주제 전개 모형	새주제	주제 반복	주제 선형	파생 주제	복합 서술부	총합
출현 빈도	1	2	0	5	0	8

이 단계에서는 ‘我們’에서 파생된 개별 학생을 주제로 한 ‘파생 주제 모형’이 주로 나타나며, 새로운 주제 1개가 교사에 의해 도입되었다.

4. 결론

본 연구의 결과, 분석 대상이 된 특정 중국어 회화 시범수업 영상의 교실 담화 전개 양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교실 담화의 전개는 도입, 전개, 마무리의 모든 단계에서 주로 ‘주제 반복 모형’, ‘주제 선형 모형’, ‘파생 주제 모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복합 서술부 모형’의 활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도입과 전개 단계에서 ‘주제 반복 모형’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파생 주제 모형’의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실 담화가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거나 관련 주제로 확장되어 응집력 있게 전개됨을 보여준다. 또한 ‘주제 선형 모형’도 빈번히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가 의문사를 서술부 부분에 포함하여 학생에게 발문하고, 학생이 그에 대해 단답형으로 응답하는 상황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학생의 발화가 교사의 서술부 구조를 채우는 형태로 이루어져, 학생 발화의 주제가 교사의 발화에 종속적인 특성을 지님을 의미한다.

둘째, 주제 선택권의 분배 양상에 있어, 도입 단계의 위밍업 활동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분배 비율이 약 7:3으로 학생 역시 새로운 주제의 도입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개의 ‘새 단어’, ‘교재 본문 이해’, ‘주요 어휘 및 표현’ 학습 단계와 마무리 단계에서는 대다수의 새로운 주제가 교사에 의해 주도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담화의 전개가 교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학생은 주로 이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중국어 수준이 초급 단계로 표현상의 제약이 크고, 연구대상이 통제된 시범수업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용중, 「초급중국어과정 원어강의용 ‘교실중국어’ 개발」, 『중국어언어연구』 제29집, 2009.
- 신희성, 「체계기능언어학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의 양상과 쟁점」, 『한국어학』 93, 2021.
- 윤유정, 「중국어 회화 텍스트의 테마 구조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152호, 2025.
- 윤혜경·한정 한, 「한국어 텍스트 유형과 주제구조(Thematic Structure)의 상관관계—체계기능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국어학』 92, 2021.
- 이정아·맹승호·김찬중, 과학수업담화의 새로운 독법: 교수학적 담화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8권 8호, 2008.
- 이관규 등 저, 『체계기능언어학 개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 白朝霞, 「對外漢語教學初級階段課堂語言的特點和組織原則」, 『德州學院學報』 第1期, 2005a.
- _____, 「對外漢語教學初級階段課堂語言芻議」, 『唐代教育科學』 第1期, 2005b.
- 傅傳鳳, 「對外漢語課堂教學語言的特點和功能類型」, 『四川教育學院學報』 第2期, 2011.
- 吳艷, 「對外漢語教學中的課堂教學語言綜述」, 『遼寧經濟管理幹部學院學報』 第1期, 2010.
- 王振利, 「對外漢語初級階段口語課教師課堂語言個案分析—以《圖書館在哪兒?》為例」, 『散文百家』 08, 2018.
- 熊莉, 「留學生初級階段的教學語言」, 『學習月刊』 第4期, 2012.
- 李玉莉, 「淺談對外漢語教學中教師的課堂語言」, 『外語教學』 1月, 2012.
- 祖曉梅, 「漢語課堂的師生互動模式與第二語言習得」, 『語言教學與研究』 第1期, 2009.
- 朱永生·嚴世清, 『系統功能語言學多維思考』,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1.
- 曾麗娟·梁卓, 「對外漢語課堂教學語言研究述評」, 『凱里學院學報』 第2期, 2024.
- 陳叔蘭, 「對外漢語課堂教學語言中導入性銜接語的模式及功能淺析」, 『語言教學研究』 05, 2011.
- 馮耀華·吳英成, 「漢語作為二語教學的課堂語言: 初學者視覺」, 『國際漢語教育(中英文)』 第3期, 2020.
- 胡壯麟·朱永生·張德祿·李戰子, 『系統功能語言學概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David Banks,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England, New York, Routledge, 2019, 이관규 등 옮김, 『체계기능언어학의 기초』, 서울, 박이정, 2003.
- Halliday, M.A.K,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Edward Aronold, 1985.
- Halliday & Matthiessen,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4th ed), New York, Routledge, 2014, 한정 한 등 옮김, 『HALLIDAY의 기능문법 입문 체계기능언어학』, 서울, 박이정, 2022.

형용사의 정도성과 동사형 구문연구

-가상이동 관점에서

진화진*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가상이동
 3. 형용사 척도구조와 가상이동
 4.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고는 중국어 형용사의 척도구조(비율척도, 등간척도, 서열척도)에 따른 상표지 결합 양상 고찰을 통해 척도구조가 통사-의미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음을 제기하였으며, Talmy(2000)의 이동사건 은유적 사상 이론에 기반하여 형용사의 동사형 구문이 실제 변화(상태변화사건)와 가상적 변화(가상이동)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 형용사가 서술어 기능을 할 때 통사적 선택에 따라 상태변화사건과 도래경로를 통해 언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1. 서론

중국어 형용사가 동사와 동일한 통사형식을 취하는 현상에 대해 기존 연구는 주로 품사 활용, 겹품사, 동태화 용법 등으로 설명해왔다. 그러나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품사 전환을 넘어선 복잡한 인지적 과정이 개입된다. 다음을 보자.

- (1) 没事, 偶尔胖一下。(괜찮아, 가끔은 살 좀 찌도 돼.)
- (2) 美味的糖瓜甜一甜。(맛있는 사탕으로 달콤하게 해봐.)
- (3) 你站久了会累。(오래 서 있으면 힘들 수 있어.)

이들 예문에서 ‘胖’, ‘甜’, ‘累’은 형용사로 ‘胖一下’, ‘甜一甜’, ‘會累’로 사용될 때, 실제 상태변화의 완성이 아니라, 해당 속성에 대한 가상적 경험 사건을 나타낸다. 이러한 형용사의 동사형 통사 형식을 동사형 구문으로 설정하고, Talmy(2000)의 가상이동/상태변화(fictive motion/change) 이론을 적용하여 가상이동 사건의 해석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現代漢語形容詞用法詞典』에 수록된 1,342개 형용사(의 미향 세분화)에 대해 Google Embedding 클러스터 분석, 형용사의 척도구조분류를 시도하여, 가상이동의 유형과 형용사 척도구조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형태 변화가 없는 고립어에서 어떻게

*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

범주 간 이동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화자가 어떻게 정적 속성을 동적 경험으로 재개념화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과정을 밝혀보고자 한다.

2. 가상이동

Talmy(2000:105-135)의 가상이동 이론에 따르면, 언어는 실제로는 정적인 상황을 동적인 움직임이나 변화로 개념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가상이동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¹⁾

〈표1. Talmy(2000) 가상이동 주요 유형〉

유형	특징
emanation(발산)	고정된 원점에서 방사상으로 퍼져나가는 움직임의 가상적 인식
Pattern paths(패턴 경로)	공간적 배열을 경로로 인식
Frame-relative motion(틀 상대적 이동)	관찰자 관점의 변화
Advent paths(출현/도래 경로)	점진적 출현 과정
Access paths(접근 경로)	도달 가능성의 경로화
Coextension paths(상호확장 경로)	연장선상의 움직임

위와 같은 가상이동 사건은 이동사건(motion event)²⁾에 기반한 것으로, Talmy는 물체의 움직임과 지속성을 가지는 정지상태도 이동사건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사건구조에서는 실제 변화가 없어도 인지적으로 변화를 개념화하는 현상을 가상적 변화(Fictive Change)로 설명한다³⁾. 또한 Talmy는 이동사건의 은유적 표현은 상태변화사건이라 설명한다. 상태변화 사건은 초점실체, 배경실체, 활성화과정, 연상기능으로 구성되며, 상태변화가 이동사건에 기반하기에 가상적 변화는 가상이동 사건의 은유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가상이동 유형 중 도래경로(advent paths)는 어떤 정적인 물체를 관찰할 때, 그 물체가 마치 어떤 경로를 따라 이동하여 현재의 위치에 도달했거나 그 위치에 출현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3. 형용사의 척도구조와 가상이동

3.1 형용사의 척도구조

척도구조(Scale Structure)는 개별 형용사가 나타내는 속성의 측정 방식과 경계성의 조합으로 결정되는 내재적 의미구조로, 형용사와 상표지, 정도부사, 수량구 등의 결합 양상을 예측하는 주요 성분이다. 본 연구는 측정 특성을 1차 기준으로, 척도 경계성을 2차 기준으로 하여 중국어 형용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박미애(2023:125-130)참조

2) Talmy는 언어의 사건구조를 이동사건(Motion event)을 중심으로 시간묘사사건(Time contouring), 상태변화사건(State change), 행동관련사건(Action correlation), 실현사건(Realization)로 구분했다. 이동사건(Motion event)은 가장 기본이 되는 틀사건으로 이동+방식(Manner)/원인(Cause), 이동+경로(Path), 이동+동작주체(Figure)등으로 재구분된다. 이것은 이동을 나타내는 중심사건(Main event)과 이와 결합하는 부사건(Co-event), 즉 방식, 원인, 경로, 동작주체 등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3) Talmy(2000:105-135)참조

〈표2. 중국어 형용사의 척도구조〉

측정	하위분류	특징	예시
비율척도	개방형	절대적 영점과 등간격 단위, 무한 확장	高/矮, 長/短, 重/輕
	완전 폐쇄형	최소값과 최대값이 모두 고정	滿/空, 彎/直
등간척도	개방형	등간격 존재, 절대 영점 없음	熱/冷, 暖/涼
	상한 폐쇄형	최대값 고정, 하향 무한 확장	幹淨/髒, 濕/幹
서열척도	개방형	순서 관계만 존재, 주관적 판단	好/壞, 美/醜
	하한 폐쇄형	최소값 고정, 상향 확장	累, 傷心/開心

이상의 각 척도는 서로 다른 측정 가능성과 경계 특성을 가지며, 이는 형용사가 동사형 구문을 구성할 때 차별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비율척도 형용사는 절대적 기준점과 등간격 단위를 갖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 표현과 완료상 ‘了’와의 결합이 자연스러우며, ‘高了三米’, ‘重了五斤’처럼 구체적인 변화량을 명시할 수 있다. 등간척도 형용사는 상대적 정도 차이가 중요하므로 ‘熱了一些’, ‘冷了很多’와 같이 정도 표현과 결합한다. 서열척도 형용사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므로 ‘累了’, ‘開心了’처럼 상태 변화 표현을 선호한다.

형용사는 의미적 클러스터별 상표지 결합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완료상 ‘了’의 경우 물리적 속성(83.5%)>감정/평가(80.9%)>상태 속성(78.9%) 순으로 결합률을 보이며, 경험상 ‘過’는 상태 속성(60.5%)>감정/평가(57.1%)>물리적 속성(54.7%)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시상 ‘起來’는 상태 속성(35.5%)에서 가장 높은 결합률을 보여, 상태 변화의 시작을 나타내는 의미적 특성과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現代漢語形容詞用法詞典』에 수록된 1,342개 형용사 중 대표적인 60개 형용사의 척도별 분석 결과, 완료상 ‘了’는 등간척도 상한폐쇄형과 서열척도 하한폐쇄형에서 100%의 결합률을 보이며, 서열척도 개방형 중 색채 관련 형용사에서만 37.5%로 상대적으로 낮은 결합률을 보인다. 기시상 ‘起來’는 등간척도에서 평균 42.2%의 가장 활발한 결합을 보이는데, 이는 등간척도 형용사가 명확한 기준점 없이 점진적 변화를 나타낼 수 있어 상태변화 시작 의미와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경험상 ‘過’는 비율척도와 등간척도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서열척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지속상 ‘著’는 전체적으로 1% 내외의 매우 낮은 결합률을 보여 중국어 형용사가 지속상 표현에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척도구조에 따른 상표지 결합 차이는 척도구조가 형용사의 통사적 결합에 체계적 영향을 끼침을 보여준다. 특히 명확한 변화 경계를 갖는 척도일수록 완료상 ‘了’와의 결합률이 높고, 연속적 변화가 가능한 척도일수록 다양한 상표지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척도구조가 단순한 의미적 분류를 넘어 중국어 형용사의 통사-의미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2 동사형 구문의 가상이동

형용사는 중국어에서 서술어로 기능한다. 서술어로 기능하는 형용사의 대표적인 통사 형식은 ‘很+형용사’이며, 중국어 형용사는 ‘了, 着, 過’와 같은 동태조사, 빈어수반, 동사형 중첩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통사적 양상은 형용사의 어휘상 [상태(Stage)]를 문장상 층위에서 동적 사건 구조로 전환시키는 중요 수단이다. 예를 들어, 형용사가 서술어 기능을 담당할 때 가장 빈번하게 결합하는 동태조사는 ‘了’이다. ‘了’와의 결합은 형용사의 [+상태]가 상태변화의 시간적 완결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시간성(Temporality)을 가지게 한다. 달리 말해, 시간성은 형용사가 ‘了’와 결합하여 시간축에서 상태변화를 ‘상태→변화 과정→결과 상태’로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어휘상의 단일사건인 상태사건이 문장 층위에서는 복합사건인 상태변화 사건(State change)으로 재개념화하는 것이다. 상태변화 사건을 통해 이상의 예문을 살펴보자.

〈표3. 상태변화사건과 가상이동 관점의 분석〉

예문	초점실체	배경실체	활성화과정	연상기능	척도유형	가상성 실현
(1)	화자의 체중 상태	정상 체중 범위에서 약간 증가된 체중 지점	체중의 가상적 증가 이동: 현재 체중 → ‘살찐’ 상태로 일시적 도달	지속적 체중 상태를 일시적 ‘살찌기’ 사건으로 재개념화	비율척도	‘一下’ → 일시적·반복
(2)	사탕의 단맛 속성	감각 체험의 활성화 지점 (단맛을 느끼는 순간)	단맛의 가상적 출현 이동: 잠재적 단맛 → 실제 감각 체험으로 도달	정적인 맛 속성을 동적인 감각 활성화 사건으로 재개념화	등간척도	동사 중첩 ‘A—A’
(3)	서 있는 행위자의 신체 상태	피곤함이라는 목표 상태 지점	시간 경과를 통한 가상적 상태 이동: ‘서 있음’ → ‘피곤함’으로 점진적 도달	정적 자세 유지를 미래 상태 출현으로 이어지는 동적 과정으로 재개념화	서열척도	‘會’ → 조건적 사건화

Talmy는 이동사건의 은유적 형태가 상태변화사건이라고 제시했다. 형용사가 다른 성분들과의 결합을 통해 상태변화사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도달, 즉 [+완료]로 대표되는 ‘了’가 가장 부합한다. 이 상에서 ‘一下’는 동작량을 부여하여 ‘胖一下’에서와 같이 뚱뚱함이라는 지속적 속성을 순간적이고 반복 가능한 경험 사건으로 전환시킨다. 이때 실제 체중 증가라는 객관적 변화가 아닌, ‘살찐 느낌’의 주관적 체험으로 재구성된다. 중첩형 ‘A—A’는 ‘甜—甜’에서 사탕의 단맛 속성을 순간적 감각 체험 사건으로 재개념화하여 정적인 맛 속성을 동적인 감각 활성화로 전환한다. 즉 속성의 완전한 실현이 아닌 감각적 경험을 하게 한다. ‘會’는 ‘會累’에서 현재 상황을 조건적 미래 사건으로 재구성하여 피곤함이라는 속성을 시간적 변화 과정으로 개념화한다. 달리 말해, 이상의 동사형 형용사 구문은 형용사가 나타내는 속성을 시간축 상의 ‘속성 경험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적 상태를 일시적 사건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정적인 속성이 시간축 상에서 ‘출현하여 경험되는’ 동적 과정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상의 예문들은 모두 동작량(一下), 잠시잠간의 시간성(동사중첩), 능원동사(會)와의 결합으로 [-완료] 특징을 보인다. 이는 실제 상태변화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의 일시성을 부여하며 가상성을 가진다. 즉, 변화의 실제 도달을 전제하지 않으면서, 도래경로에서 정의하는 ‘출현’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적인 속성이 나 자질을 마치 특정 지점에 ‘도달’하거나 ‘출현’하는 경험 사건으로 재개념화된다. 따라서 이들은 Talmy의 상태변화사건과는 구별되며, 이러한 [-완료] 특징을 통한 가상적 변화는 정적 현실을 동적 사건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

결국 형용사는 서술어 기능을 할 때 [±완료]에 따른 통사적 선택에 따라 두 가지 사건화 방식이 가능하다. [+완료, +현실]의 실제 상태변화사건과 [-완료, +가상]의 가상이동, 즉 도래경로를 통한 가상적 체험 사건이다. 더욱이 도래경로는 점진적 출현(gradual emergence)을 특징으로 하는데, 형용사 상태의 본질적 연속성이 이러한 점진적 이동과 구조적으로 부합한다. 즉, 형용사의 척도적 연속성이 시간축을 따라 확산되면서 정적 속성이 도래경로를 통해 점진적으로 출현하는 동적 사건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

한 가상적 변화가 경험 사건에 국한되는 것은 형용사가 동사적 통사 형식을 가질 때 나타나는 높은 타동성과 연관된다. 이들은 화자가 행위자로서 자신의 감각이나 인지를 대상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속성 경험을 생성하는 타동적 구조⁴⁾를 가진다. 즉, 객관적 상태변화와 달리 화자의 능동적 의도를 통해 통제 가능한 주관적 체험 영역에서 실현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Talmy의 가상이동 이론을 적용하여 중국어 형용사 동사형 구문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했다. 척도구조 분석을 통해 형용사를 비율척도, 등간척도, 서열척도로 분류하고, 각 척도가 상표지 결합에서 보이는 차별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완료] 대립을 통해 형용사 동사형 구문이 실제 상태변화사건과 가상적 체험 사건으로 구분됨을 보였다.

특히 [-완료] 구문이 도래경로를 통한 가상이동으로 해석 가능함을 제기했으며, 이러한 시도는 형용사의 의미적 기반과 인지적 과정의 결합을 통해 중국어 범주 간 이동 현상을 새롭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는 형태 변화가 없는 고립어에서 통사적 수단을 통한 범주 간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설명을 제공하며, 화자가 정적 속성을 동적 경험으로 재개념화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박미애 (2023), 현대중국어 가상이동(fictive motion)의 구문 특징 연구, 중국어문학연구회, 중국어문학논집 (140), pp.121~149.
- 이지현(2017), 현대 중국어 반의어 형용사 ‘大/小’류와 ‘熱/冷’류의 의미 척도 체계와 상적 특성 비교 분석」, 중어중문학 68, p.161~194.
- 조경환(2011), 중국어의 종결성과 척도성, 중국어문학논집 (71), p.87-105.
- 진화진(2015), 현대중국어 빈어수반 형용사서술어문의 타동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진화진(2022), 거대사건개념을 통한 ‘형용사+到+X’구조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133, pp. 75-100.
- Croft, W.(2001). Radical construction grammar: Syntactic theory in typological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ixon, R. M. W., & Aikhenvald, A. Y. (Eds.). (2004). Adjective classes: A cross-linguistic typ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ennedy, C. (2007), Vagueness and grammar: The semantics of relative and absolute gradable adjectiv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30(1), p.1-45.
- Kennedy, C., & McNally, L. (2005), Scale Structure, Degree Modification and the Semantics of Gradable Predicates, 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81 p. 345-381
- Lassiter, D.&Noah D Goodman(2013), Context, scale structure and statistics in the Interpretation of positive form adjectives,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23, p.587-610.
- Lassiter, D.(2017), Graded Modality:qualitative and quantitative perspectives, Oxford linguistics, Oxford studies in semantics and pragmatics 10, Oxford University Press
- Talmy Leonard(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II: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Cambridge, The MIT Press.

4) 진화진(2015:133)참조

- 賈紅霞·李福印(2015), 狀態變化事件與實現事件的概念界定. 外語教學, 第36卷 第1期, p.22-27.
- 杜軍(2016), 狀態變化事件認知機制探究. 外國語文 第32卷 第3期, p.69-75.
- 杜靜·李福印(2015), 施事性狀態變化事件的詞彙化模式, 語言學研究 第2期, p.79-91.
- 李福印 等(2019), 認知語義學(卷II)概念構建的類型和過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孫鵬飛(2018), 形容詞謂語句的標記手段及其功能透視—類型學的視角, 上海對外經貿大學學報 第 25 卷 第 2 期, p.76-86.
- 倪濤(2018), 漢英狀態變化事件的形義類型研究, 華中師範大學 博士学位論文.
- 袁毓林(2013), 形容詞的語義特征和句式特點之間的關係, 漢藏語學報 第7期 p.147-166.
- (2022), 形容詞的極性程度意義及其完句限制條件, 中國語文 第2期, p.131-144+254. Yuan Yulin. Xingrongcidejixingchengduyiyijiqiwanju xianzhitiaojian, Zhongguoyuwendi2qi, p.131-144+254.
- 張國憲(1995), 現代漢語的動態形容詞, 中國語文 第3期, p.221-229. Zhang Guoxian, Xiandaihanyudedongtaixingrongci, Zhongguoyuwendi3qi, p.221-229.
- (1998), 現代漢語形容詞的體及形態化歷程, 中國語文 06期, p.403-413. Zhang Guoxian, Xiandai hanyu xingrongci de ti ji xingtaihua licheng, Zhongguo yuwen di06qi, p.403-413.
- 鄭懷德·孟慶海(2010[2003]), 漢語形容詞用法詞典, 商務印書館. Zheng Huaide·Meng Qinghai, Hanyu xingrongci yongfa cidian, Shangwu yinshuguan.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2012), 現代漢語詞典(第6版), 商務印書館.
- Google Embedding. (2025,7,14), <https://developers.googleblog.com/ko/gemini-embedding-available-gemini-api/>
- BCC 코퍼스 (Beijing Language and Culture University Corpus Center)

動詞“刷”語義泛化認知機制研究

祁志霞 金鉉哲*

<目次>

【摘要】

1. 引言
 2. 動詞“刷”語義泛化機制分析
 3. 結語
- 參考文獻

【摘要】

本文旨在從認知語言學的視角，系統探討現代漢語中動詞“刷”的語義泛化現象及其認知機制。

*祥明大学，中国語圏地区学专业招聘教授 延世大学，中文系教授

引言

動詞“刷”的本義為“用刷子清除或塗抹”，是一個具體的、及物的身體動作動詞。然而，在現代漢語，尤其是網路語言的快速發展下，“刷”的用法發生了顯著的泛化，其語義範圍從具體的物理域擴展至抽象的社會行為域和心理域，衍生出如“刷微博”、“刷存在感”、“刷信用卡”、“刷題”、“刷副本”等一系列高頻運算式。

4. 2. 動詞“刷”語義泛化機制分析

本文認為，“刷”的語義泛化並非偶然，而是遵循人類普遍的認知規律，主要通過隱喻和轉喻兩種核心機制驅動。其泛化路徑呈現出清晰的認知邏輯鏈。

2. 1 轉喻與隱喻的初始觸發：從具體動作到抽象行為

動詞“刷”泛化的起點是“刷”這一動作的核心特徵被提取和突顯。這些特征包括：

- (1)** 工具与表面的接觸性；
- (2)** 動作的重複性與高頻性；
- (3)** 旨在達到某種效果的目的性（如清潔、覆蓋、平滑）。

例如，“刷牙”、“刷牆”等本義用法就體現了這些特徵。最初，通過轉喻機制，動作所憑藉的工具（刷子）被隱含，動作本身被突顯，使得“刷”可以用於指代任何具有“反復來回摩擦”特徵的動作，如“刷鞋”。

2.2 隱喻擴展1：基於動作“重複性”和“高頻性”

這是“刷”語義泛化的最主要路徑。認知主體將物理動作中“快速、連續、重複”的特徵隱喻性地投射到其他行為領域。

(1) 資訊獲取域： 將流覽資訊的行為隱喻為“用刷子刷過表面”，強調快速、大量、非深度地接觸資訊，如“刷新聞”、“刷朋友圈”、“刷短視頻”。

(2) 社會互動域： 將為了引起他人注意而進行的重複行為隱喻為“刷”的動作，強調行為的刻意性與重複性，如“刷存在感”、“刷好評”。

(3) 技能提升域： 將通過大量、重複的練習來提升技能或數值的過程，隱喻為通過反復摩擦以達到平滑或光亮的效果，如“刷題”、“刷經驗”、“刷熟練度”。

2.3 隱喻擴展2：基於動作“使表面發生變化”的

認知主體將“刷”所帶來的“改變物體表面狀態（如變乾淨、覆蓋新塗層）”的結果特徵，投射到能夠引發某種狀態改變或結果確認的抽象行為上。

(1) 金融交易域： 將使用信用卡等支付工具的行為隱喻為“刷”過讀卡器，此動作直接導致帳戶狀態的改變，如“刷卡”、“刷支付寶”。

(2) 資格認證域： 將通過驗證或許可的過程隱喻為“刷”一下以使身份或狀態生效，如“刷門禁卡”、“刷身份證”。

2.3 網路語境下的進一步規約化

在網路虛擬空間，特別是遊戲語境中，“刷”的語義進一步泛化和固化。如“刷副本”指重複挑戰遊戲關卡以獲取獎勵，它綜合了“重複性”和“目的性”特徵；“刷屏”則形象地描述了資訊像用刷子塗抹一樣快速覆蓋整個螢幕的現象。這些用法通過高頻使用，已成為語言社區的規約性表達。

3. 結語

動詞“刷”的語義泛化是一個動態的、多路徑的認知過程。其根本動力源於人類通過身體經驗（具身體驗）來理解和建構抽象概念的認知方式。轉喻機制實現了從具

體工具到抽象動作的初步剝離，而隱喻機制則成為語義跨域映射的核心引擎，將“刷”的本義中所包含的【+重複】、【+接觸】、【+改變】等意象圖式系統地投射到新的認知域中。這一過程不僅豐富了漢語的辭彙系統，也生動體現了語言的經濟性原則和認知的創造性。對“刷”的個案研究，為理解漢語動詞乃至整個漢語辭彙系統的語義演變提供了典型的認知語言學分析範例。

關鍵字： 刷，語義泛化，認知機制，隱喻，轉喻，意象圖式

參考文獻

- 敖世翠(2006)，〈原型範疇理論對一詞多義現象的解釋〉，《湖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4：508-510.
- 陳曉宇(2021)，〈“刷”字短語及其對外漢語教學分析〉，中國高校人文社會科學資訊網.
- 陳穎・李金平(2020)，〈從“刷”新義產生的路徑和機製看新詞語產生的認知理據〉，《語言文字應用》01：103-111.
- 董子暢(2023)，〈基於語料庫對現代漢語“刷”字的義項分佈研究〉，《現代語言學》11(03)：105-1054
- 郭璞・邢昺(1990)，《爾雅注疏》，上海：上海古籍出版社.
- 郝銳(2017)，〈“刷”類新搭配略析〉，《鹽城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37(2)：27-30.
- 蔣紹愚(1985)，〈詞義的發展和變化〉，《語文研究》2：7-12.
- 金鉉哲・祁志霞(2023)，〈現代漢語“秒殺”引起的“秒”的語義演變考察〉，《중국어문학논집》，142：167 - 181.
- 李福印(2008)，《認知語言學概論》，北京：北京大學出版社.
- 李金平(2017)，《認知視角下當代漢語動作動詞“刷”新義衍生現象研究》，哈爾濱師範大學碩士論文.
- 廖光蓉(2005)，〈多義詞範疇原型裂變、次範疇化及相關問題研究〉，《外語與外語教學》10：12-13.
- 羅琿昕(2022)，〈當代漢語“刷”的語義擴展路徑及泛化動因〉，《新疆大學學報(哲學人文社會科學版)》50(1)：125-131.
- 申曉雲(2017)，〈“刷”字語義義項演變思考〉，《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2：138-140.
- 帥傑(2020)，〈基於原型範疇理論的多義詞認知—以“抄”為例〉，《黑河學院學報》11(1)：152-154.
- 王寅(2001)，《認知語言學》，北京：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 (2007)，《認知語言學》，上海：上海外語教育出版社.

时间名词与情态副词连用规则刍议

刘亚菲*

<目 次>

【摘要】

1. 引言
 2. 研究对象的界定
 3. 语料统计结果
 4. 语序分析
 5. 结语
- 参考文献

【 摘要 】

本研究以汉语中时间名词与情态副词的共现为研究对象，基于语料库统计和句法测试，系统考察了它们连用的语序规则及其理据。根据统计分析我们发现，时间名词前置于情态副词占绝对优势，这是因为它常作为句子话题成为背景信息；少量的时间名词后置于情态副词，这是时间名词成为句子焦点信息的必然要求，只有后置时它才可能成为焦点；部分语境中时间名词和情态副词的语序可以互换，如果存在差异仍体现为话题和焦点功能的不同；若句中有多个时间词分分别出现在情态副词前后，那么前者为话题后者可以成为句子焦点。本研究可以为汉语教学及二语习得中的相关偏误提供简单清晰的理论解释，也验证了信息结构理论对汉语语序的制约作用。

* 首尔大学中文系，讲师

1. 引言

根据现有的研究成果，一般我们认为时间名词可以做句子事态的整体背景，是句子谓语的时间信息，因此从深层结构来看，时间名词可以处于谓语的上一层；而“可能”、“一定”这样表达说话人对情况可能性判断的情态副词也被不少学者称为高层谓语，表达对句子整体命题的判断。那么，这两种成分连用时，它们的语序是怎么样呢？现有的研究尚未进行相关的考察。

正是因为我们对两者连用现象的描写和解释的缺席，汉语教学和学习中常常出现相应的问题，如从HSK中介语语料库中我们可以发现这样的偏误：

(1) *所以我觉得可能今天晚上一直会下雨。

所以我觉得今天晚上可能一直会下雨。

(2) *他自己学的是国际贸易，现在在这里学中文，因为他想可能将来在中国做生意。

这两处偏误都更适合使用“时间名词+情态副词”的语序。那么这是否是汉语中两类成分共现时的固定语序规则呢？答案是否定的，在实际使用中，我们也可以看到“情态副词+时间名词”语序的出现。如HSK中介语语料库中也有使用“时间名词+情态副词”语序的偏误。

(3) *这个学期，我们下午可能去上课。

这个学期，我们可能下午去上课。

另外，我们还可以发现有两个时间成分时的其他偏误，两个成分需要分别出现在情态副词的前后：

(4) *我以后每天一定去那个地方，然后继续学习。

我以后一定每天去那个地方，然后继续学习。

由此可见，时间名词和情态副词共现的语序值得深入考察，需要找出不同语序的使用规律并解释背后的原因和理据。

2. 研究对象的确定

2.1 时间名词

关于时间词的界定和分类学者们有不同的观点，因为本研究的考察对象是其与情态副词共现时语序可能存在不同的情况，通过测试我们可以发现，只有表达句子描写的事态发生的时间背景的时间成分会存在语序变化，而能成为时间背景的仅包括时点时间词，而时段时间词一般只能作为谓语内部的成分使用¹。如：

¹ 有部分时段时间词出现在主要谓语动词前，如“三个月没回家了”，但是它们在与情态副词共现时仅出现在情态副词后，因此本研究中将不再进行考察。

(5) a. 我爷爷上月死了。

b. 我在这儿住了三年了。 陆俭明 (1991)

本研究在确定时点时间名词或短语时主要依据陆俭明 (1991) 中提到的相关标准。首先，某词能回答“什么时候”的问题时即是我们考察的对象。其次，用能否做定语来区分时间名词和时间副词。如关于“每天”的词性有名词和副词两种看法，可是基于“每天的工作”这样的用法成立，我们认为它是时间名词属于我们的考察对象。

2.2 情态副词

关于情态副词学者们的看法也有很多的不同，如取最广义的汉语学界的“情态”概念，甚至把“随手”、“白白”等具体描写动作性质或者样貌的词语也判定为“情态副词”。而广义的情态副词明显不符合本研究的考察性质，它们并不从整体上与句子的事态产生关系，不能做高层谓语。因此本研究确定的情态副词取狭义的概念，即说话人对句子描写的整体事态对应的命题是否为真的判断。我们比较熟悉的副词“一定”、“也许”、“可能”即为典型的情态副词。

可是即使取情态副词的狭义范畴，情态副词的数量仍然较大，因为本研究希望通过语料库考察的方法来统计分析时间名词和情态副词共现的语序情况，常用的几个情态副词与时间名词连用的检索结果均超过千条以上，为了控制整体工作量，本研究以现有情态副词的分类研究成果张云秋，林秀琴 (2017) 송소맹 (2020) 为基础，同时参考情态副词在语言中整体上的使用频度，将考察对象限定为如下：

表1 情态副词分类及抽取的考察对象

分类		考察对象
义务情态	盖然	最好，不妨，无妨
	必然	必须，只好，只得
认识情态	可能	似乎，也许，仿佛
	盖然	几乎，至少，大多
	必然	肯定，确实，实在

3. 语料统计结果

我们在BCC语料库中分别检索了各个情态副词前后连用时间词“t”的结果²，整体来看，时间名词出现在前的情况占绝对优势。下面是表达认识情态的必然性类情态副词的相关统计结果：

² BCC并没有给出时间词“t”的明确定义，但是从检索的结果来看，它们均为本研究限定的时点时间名词或词组。

表2 表达认识情态必然类的情态副词与时间名词共现结果

情态副词	t+情态副词	情态副词+t	频度比
肯定	3217	109	29.5:1
确实	1861	124	15:1
实在	1893	40	47.3:1

4. 语序分析

根据语料统计的相关结果我们可以发现，时间名词和情态副词连用时“X-Y”和“Y-X”语序均有出现，但是两者的地位并不完全相同，经过测试不是所有的句子中两者都可以自由移位。下面根据我们的统计和测试结果，对不同使用现象进行相关的理论解释。

4.1 时间名词在前占优

抛开与情态副词共现的情况不谈，一般来说汉语句子中时间名词常位于句首或者紧跟在主语之后，这是因为除了表达人或者事物的一般名词以外，汉语中时间和场所较容易成为句子的话题，设定句子的背景信息，其后表达的内容为句子的自然焦点。当句中出现情态副词时，情况也是相同的，这通过一般话题和焦点测试可以得到证明。时间名词在前时，其后可以出现停顿，可以对后面的事态进行提问，但是不能针对时间名词进行提问：

(6) 今天必须去拍摄。（语料原句）

a. 今天啊，必须去拍摄。

b. 今天必须做什么？

c. *什么时候必须去拍摄？

根据句子信息结构理论，句子中一定存在一个焦点，那么人们在对某事态进行描述时，事态整体或者事态中的某一部分信息都可以成为焦点，从概率的角度来看，时间成分成为焦点的比例自然只会占其中的一小部分，不做焦点的占大多数，这就导致了我們看到的上文中的统计结果³。

4.2 时间名词在后存在的依据

正如上文所述，如果时间名词成为句子的焦点信息时，其出现在情态副词后就成为了必需，这一点仍然可以通过焦点测试的方法进行证明：

³ 有趣的是在实际语料里从上下文来看，“任务紧急，明天就要回京，今天必须去拍摄”中的“今天”看起来可以被分析为对比话题，而有学者主张对比话题是一种对比焦点，也就是说是一种焦点。可是本研究支持另外一种观点，即对比话题虽然起到对比的功能，但是不具有焦点的属性，焦点仍然是对比话题之后的成分，例（6c）中的焦点测试即可作为证据。

(7) 今天的事情必须今天做完。(语料原句)

今天的事情必须什么时候做完?

因此根据上下文语境, 如果能够明确时间名词是句子的焦点, 那么时间名词要出现在情态副词后, 如:

(8) 如果你不着急, 最好明天来买, 今天已经结账了。

*如果你不着急, 明天最好来买, 今天已经结账了。

除了依靠上下文以外, 有时候句内出现相关的成分已经直接要求时间名词位于情态副词后, 比较典型和常见的是时间名词后使用语义指向它的相关副词, 如下面使用“就”表达时间早或者快的意义的情况:

(9) 这么重大的事情, 周恩来肯定当时就接到了汇报。

*这么重大的事情, 周恩来当时肯定就接到了汇报。

4.3 两者位置互换的差异

根据前面两节的分析, 时间名词出现在前和在后有不同理据, 可是从统计结果来看, 句子中两者的位置互换后也仍然成立的情况占大多数, 它们的主要区别也是时间名词做话题还是做焦点的差异, 这一点从时间名词是否重读可以得到证明, 做话题时重读不自然, 而做焦点时可以被重读。不过观察更大篇幅的上下文, 我们也无法找到确定该使用哪种语序的相关语境, 因此有大量的句子中时间名词和情态副词的语序可以对调。如:

(10) a. 曾庆洪表示, 广汽集团明年下半年肯定上市, 并优先选择境外上市, 很有可能是香港上市。(语料原句)

b. 曾庆洪表示, 广汽集团肯定明年下半年⁴上市, 并优先选择境外上市, 很有可能是香港上市。

(11) a. “不光是真贺田博士, 研究所里的人大概都是。肯定现在’还有人在盯着显示屏呢。”萌绘也看着天空。“但是那种生活方式也许……”(语料原句)

b. “不光是真贺田博士, 研究所里的人大概都是。现在肯定还有人在盯着显示屏呢。”萌绘也看着天空。“但是那种生活方式也许……”

当然, 也有部分句内成分或者上下文语境决定了时间名词不能自由移位。如, 句中有其他焦点成分或者上下文语境给足了确定句子焦点的相关信息:

(12) 你帮我决定明天最好穿哪一件。

*你帮我决定最好明天穿哪一件。

(13) 他表示, 本沃周三肯定上场, 至于上场时间长短, 将视其临场发挥而定。

*他表示, 本沃肯定周三上场, 至于上场时间长短, 将视其临场发挥而定。

⁴ “’”表示该成分可重读。

4.4 时间名词分列前后的现象

除了上述时间名词和情态副词分别位于前后的情况以外，语料中还有少量的句子里时间名词分别位于情态副词的前后。关于这种情况的分析，上述的看法仍然可以适用，即情态副词前的时间名词为话题/背景信息，情态副词后的为焦点信息。如果脱离上下文语境，两个时间名词可以同时出现在情态副词前，做话题，也可以出现在其后，成为句子的焦点信息。

(14) a. 今晚肯定2点前搞定。（语料原句）

b. 今晚2点前肯定搞定。

c. 肯定今晚2点前搞定。

(15) a. 不知道昨晚爸爸哥哥有没有熬夜看NBA，今天肯定一大早起来看体育新闻了。（语料原句）

b. 今天一大早肯定起来看体育新闻了。

c. 肯定今天一大早起来看体育新闻了。

5. 结语

参考文献

李行健，苏新春（2021）《现代汉语常用词表》，商务印书馆。

陆俭明（1991）《现代汉语时间词说略》，《语言教学与研究》第1期。

张云秋，林秀琴（2017）《情态副词的功能地位》，《中国语文》第1期。

송소맹（2020）《현대중국어 양태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1부

10. 중국어교육(1)

위당관 215호

중국어 교육 내용과 교수 전략의 다층적 접근

认知社会语言学视角下的网络热词研究

李浩佳*

<目 次>

【摘要】

1. 引言
 2. 理论基础
 3. 网络热词生成的认知机制
 4. 网络热词流行的社会成因
 5. 典型网络热词案例分析
 6. 结语
- 参考文献

【摘要】

本研究基于认知社会语言学理论，对网络热词的生成、传播与功能进行系统性探析。网络热词被视为社会心态经由认知加工后所形成的认知构式，而非随意创造。论文通过建立整合框架与案例剖析，阐明了热词生命力源于认知机制与社会语境的互动。研究强调，网络热词是以最小认知消耗满足复杂表达需求的结构化单位，为社会认知研究提供了关键个案。末节归纳了研究价值并展望了未来方向。

。

* 山东理工大学文学与新闻传播学院，硕士研究生

1. 引言

随着互联网与社交媒体的普及，网络空间已成为与现实社会交织的新型场域。在此背景下，“网络热词”不仅是一种沟通符号，更成为反映社会变迁、群体心态和文化建构的重要镜像。从早期的“囧”“给力”到近年的“内卷”“躺平”“破防”等，这些词语凭借强大的衍生能力与传播力，深刻影响着当代话语方式。当前网络语言的蓬勃发展，亟待系统阐释特定词语如何在信息过载环境中突破传播阈值、形成跨群体共识的关键影响因素；其传播与接受过程中存在的普遍认知规律及其核心机制也有待深入挖掘；同时，词语爆发式流行所映射的集体情绪特征与深层文化动因，需结合具体语境进行精准解构。本研究立足于认知社会语言学的理论框架，旨在探讨网络热词如何借助人类共有的认知机制实现生成与理解，并在特定社会文化情境中与之互动，从而完成广泛传播并实现相应的社会功能。

2. 理论基础

认知社会语言学的理论渊源主要植根于两大语言学传统。其一为认知语言学，它在对生成语言学的反思中兴起，主张语言的体验性、认知性与象征性，强调语言并非自主的系统，而是人类一般认知能力的体现，其结构与理解深受隐喻、转喻、意象图式等基本认知机制的支配。其二为社会语言学，该流派关注语言使用与社会变量（如阶层、性别、群体）之间的关联，侧重研究语言在实际运用中的变异性及其社会功能，认为语言是建构社会身份与维系群体认同的重要工具。

认知社会语言学的核心主张在于弥合“认知”与“社会”研究维度之间的割裂，其整合性视角体现为两个基本命题：第一，认知具有社会性，即个体的认知模式是在特定社会文化实践中形成并强化的，语言作为认知的外在表现，其变异系统地反映了不同言语社区的认知取向；第二，社会具有认知基础，即社会文化现象（如群体认同、意识形态）需经由个体的认知机制方能被理解、传播与维持，语言变异因而不仅是社会身份的标记，更是共同体认知方式的体现。因此，对于网络热词的研究，必须同时考察其“认知合理性”——即表达形式如何契合心智的理解机制，以及其“社会适用性”——即表达功能为何在特定社会情境中具有传播效力。

3. 网络热词生成的认知机制

3.1 基于隐喻的概念建构

隐喻是用一个熟悉、具体领域的概念，去理解和表达另一个抽象、复杂领域的概念。在网络热词的形成过程中，隐喻通过以下几种典型机制，赋予抽象的社会心态与复杂经验以具身化的表达形式。

结构隐喻是指一个概念域（源域）的认知框架向另一个概念域（目标域）的系统性映射。例如，热词“内卷”即是通过“社会竞争是物理空间的向内挤压”这一隐喻映射，将“非理性的内部竞争”这一抽象社会现象，建构为具象可感的物理缠绕与窒息体验。源域“卷”所蕴含的动觉意象，为目标域“竞争”赋予了方向性、压迫性与无出路感，使其成为一种可被身体感知的经验结构。方位隐喻则依赖人类基本的空间方位图式（如上下、内外、前后），为抽象概念赋予价值判断或情感色彩。例如，“高端/低端”将社会评价映射到垂直空间维度，利用“上为好，下为劣”的认知图式，隐含了对社会群体的层级化判断；“上线/下线”则将行为状态的切换映射为空间位置的变动，使抽象的行为控制变得可定位、可操作，这类隐喻反映出认知对空间体验的深层依赖。本体隐喻通过将抽象的经验（如情绪、责任、事件）视为有边界的实体或物质，使其可被指称、量化、分类乃至操作。例如，“耗尽了能量”将心理资源视为可量化的燃料实体；“甩锅”将责任视为可传递、可抛弃的具体物件；“吃瓜”则将围观事件视为可供消遣的实体对象。这类隐喻通过实体化操作，极大降低了抽象经验的认知难度，使其成为日常推理和语言表达的基础。

3.2 基于转喻的认知操作

转喻指用一个事物（部分、特征或相关物）的名称，来指代与之紧密相关的另一个事物（整体、事物本身或另一相关物），深刻体现了认知经济性原则，即在保证交际效果的前提下，以最小认知努力实现最大化信息传递。

转喻的认知效力首先体现在其“部分代整体”的指代模式上。例如，热词“大佬”以个体在社会结构中占据的显著地位（部分）作为认知入口，高效地指代具有该地位的个体（整体）；“键盘侠”以其进行网络论战的主要工具“键盘”（部分）来指代那些在网络上表现活跃、言辞激烈的个体。这类转喻操作基于“显著性”认知原则，通过焦点化事物的突出特征，实现指代的简洁与高效。此外，“属性代范畴”是网络热词构建社会分类的常见手段。例如，“社恐”“社牛”等词，以个体在社交情境中表现出的极端心理或行为属性为核心特征，直接指代并构建出一类特定的人群范畴。这类转喻不仅实现了语言符号的经济性，更参与了社会认知的范畴化进程，通过标签化方式简化了复杂的社会认知。尤为重要的是“结果代原因”的转喻模式，它能够在单一符号中封装一个完整的叙事框架。典型案例热词“破防了”以心理防线的最终崩溃（结果）作为认知参照点，来激活并指代整个导致该情绪状态的心理冲击过程（原因），这一过程可能包括被话语击中、被场景感动或被事实震撼等复杂原因。另一个典型例子为“上头”，该词以情绪激动、理智下降的生理心理感受（结果）作为认知参照点，来转喻指代导致这种状态的复杂原因，如连续获胜的刺激、消费冲动或争论中的愤怒等（原因）。

3.3 基于经济性原则的形式生成

在形式表现层面，网络热词通过一系列能指层面的创新与重构，集中体现了语言经济性原则在网络语境下的极致运用。这些形式简化策略通过优化符号的编码与解码效率，显著降低了交际的认知负荷，从而适应了新媒体环境下对信息传递即时性与高效性的内在要求。

首先，缩略与谐音作为典型的形态音系简化手段，直接缩减了符号的物理长度或利用语音相似性实现快捷编码。例如，缩略词“yyds”（永远的神）将四字格成语压缩为字母组合，极大提升了输入速度；谐音词“蚌埠住了”（绷不住了）则借由语音关联，在保持原有语义的同时，通过地域化、趣味性的音译形式增强了符号的注意价值与记忆度。这两种策略均遵循“省力原则”，通过最小化符号形式的物理及认知复杂度，实现信息的高效传递。其次，旧词新义与语义泛化则是在词汇-语义层面实现经济性的核心机制。旧词新义，如“卷”从描述植物形态到指代非理性竞争，实质是依托现有能指负载新的所指，避免了创造全新符号的认知成本，体现了“最大利用已有资源”的经济性原则。语义泛化，如“神器”从特指神话武器到泛指一切高效工具，或“打 call”从特定粉丝行为扩展为一般性支持行为，则是通过扩大原有概念的指称范围，使单一符号能够覆盖更广的语义场，从而提升其表达效率与语境适应性，符合“一词多用”的经济逻辑。

从认知语言学的角度看，这些形式策略之所以能够有效降低认知负荷，在于它们深度契合了人类认知系统的运作特征：缩略与谐音通过减少符号的形态复杂性，降低了工作记忆的存储与提取难度；旧词新义与语义泛化则通过激活已有的语义图式或扩展其应用边界，充分利用了认知背景知识，减少了理解新意义所需的心智努力。其根本动因在于，语言经济性不仅是结构上的简化，更本质的是认知经济性的外在表现，即在保证交际效果的前提下，追求认知资源投入的最小化。

4. 网络热词流行的社会动因

4.1 社会心态的镜像反映

网络热词是集体心态最敏锐的捕捉者，其流行往往折射出特定时期的社会情绪结构。例如，“内卷”与“躺平”的流行，精准命名了当代年轻群体在高度竞争环境下产生的普遍性焦虑，前者表达被迫参与非理性竞争的窒息感，后者则成为一种对系统性压力的消极抵抗策略。这类热词为弥漫性的社会情绪提供了宣泄出口，体现了网民对现实困境的集体共鸣。同时，热词亦承载着自我调适的幽默与积极情感的共享。例如，“打工人”以戏谑口吻消解职场压力，赋予平凡劳动以坚韧色彩；而“yyds”

（永远的神）则通过极致的赞美传递正向情绪，促进群体间的情感共鸣。这种情绪表达不仅缓解个体焦虑，也强化了社群的黏合度。

4.2 群体身份的建构工具

热词作为“社交货币”，是群体划分身份边界的重要符号。1990年代末至2010年代初出生的人群通过“awsl”（啊我死了）、“xswl”（笑死我了）等拼音缩略词构建独特的语言体系，以此与父辈文化区隔，宣告其代际身份。此外，不同圈层亦借助热词强化内部认同：游戏圈的“Gank”（围攻）、粉丝圈的“塌房”等术语成为圈内“暗号”，听不懂者即被排除在群体之外。职业群体同样通过热词凝聚认同，如“打工人”统合了各行各业的上班族，“大厂”特指互联网从业者。这些词汇帮助个体在共享的语义中找到归属感，折射出社会分工细化下的身份认知需求。

4.3 技术环境的催化作用

社交媒体平台的技术逻辑极大加速了热词的传播效率。微博、抖音等平台的推荐算法基于热度与互动率，优先推送具有情绪爆发力或争议性的内容，使热词在短时间内完成裂变式扩散。例如，“绝绝子”因其适配多种语境的特点，被算法识别并衍生出海量二创内容，迅速引爆全网。

4.4 社会动因的交互性与动态性

上述动因并非孤立存在，而是相互交织、动态演化的。例如，“班味”一词既反映了职场群体的共同心态（社会镜像），又成为打工人的身份标签（群体建构），最终在社交媒体的推送下形成跨圈层传播。热词的生命周期亦受社会议题变迁影响：如公共事件催生的“躲猫猫”“楼脆脆”等词，虽短期爆发力强，但因与社会议题绑定紧密，随事件热度下降而快速衰减。

5. 典型网络热词案例分析

5.1 “内卷/躺平”

在对“内卷/躺平”这一对共生热词的案例中，可以清晰地观察到认知机制与社会动因之间的深度耦合。从认知层面看，“内卷”通过结构隐喻将社会竞争建构为一种向内缠绕、令人窒息的系统性压力，而“躺平”则通过方位隐喻将消极抵抗具身化为一种“由立至卧”的姿态转换，二者以高度形象化的方式完成了对复杂社会心态的概念化封装。从社会动因层面看，这对概念在2020-2021期间的爆发，精准呼应了后疫情时代青年群体在经济增速放缓、社会流动渠道收窄的背景下所体验到的普遍焦

虑与无力感。其流行机制正体现在认知与社会的互动中：“内卷”的隐喻成功将弥散的社会焦虑客体化，使其成为可被言说、批判的公共议题；而“躺平”的隐喻则为此种批判提供了一种低门槛、易传播的象征性行动脚本。因此，这两个热词的流行不仅是社会心态的镜像反映，更是认知模型被社会情绪选择并赋予能动性的结果，充分展现了语言符号在特定历史节点参与社会心态建构的强大效能。

5.2 “破防”

“破防”一词的流行典型地体现了认知机制与社会动因的协同互动。在认知层面，该词通过概念转喻（以“防御被击破”这一结果代指“遭受强烈情感冲击”的原因），巧妙地借用了游戏术语固有的视觉冲击力与动态画面感，为抽象的情感体验提供了具象化的认知模型。在社会层面，该词的流行呼应了现代社会中个体对低风险情感表达的内在需求；其游戏化的外衣赋予情感宣泄以戏谑色彩，有效消解了直接表达脆弱时可能产生的社交尴尬，从而实现情感的去个体化与共情共享。最终，社会对适宜表达渠道的需求，主动选择并重塑了源自游戏领域的认知框架，而该认知框架的生动性与低门槛特性又反过来加速了其社会扩散，形成一种双向建构的语言实践。

5.3 “烟火气”

“烟火气”一词的流行，是其根植于身体经验的认知机制与后疫情时代特定社会心态深度互动的结果。在认知层面，该词是一个复合性的本体隐喻与通感隐喻，它将抽象的生活幸福感与人间温情融合为一种可被视觉、嗅觉、温觉等多种感官体验的实体化“气息”，从而为美好的生活氛围提供了具身化的理解框架。在社会动因层面，该词的广泛共鸣源于新冠疫情所造成的社会创伤，长期的隔离与不确定性激发了个体对回归常态、重获日常确定性的深切渴望，使得原本寻常的市井生活被赋予了珍贵的价值内涵。二者的互动体现在：社会集体性心理需求激活并强化了这一古老词汇的当代意义，而该词本身强大的多感官意象和情感温度，恰好为这种普遍的怀旧与珍视情绪提供了最贴切、最生动的语言容器，实现了认知模型与社会情感的高度同构，使其成为标志后疫情时代价值回归的文化符号。

6. 结语

本研究通过构建认知社会语言学的整合性分析框架，对网络热词的生成与传播机制进行了系统考察。主要研究发现表明，网络热词的生命力源于认知与社会维度的高效互动。在认知层面，热词通过概念隐喻、转喻等机制及语言经济性原则，实现了概念的高效建构与形式的极致简化，为其广泛传播奠定了内在的认知合理性。在社会层面，热词则作为社会心态的镜像与群体身份的标识，其流行深刻依赖于特定社会情绪的表达需求与媒介技术的扩散能力。

参考文献

- [1] 束定芳. 认知语言学研究方法、研究现状、目标与内容[J]. 西华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3(3):52-56.
- [2] 胡青青. 国内近十年网络热词研究述要[J]. 南华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9(2):97-102.
- [3] 李东坡, 尚德琛. “摆烂”热词背后青年群体消极社会心态问题研究[J]. 甘肃理论学刊, 2024, No. 281(01):119-128+2.
- [4] 朱佳乐. 网络热词“内卷”的语言学分析[J]. 泰州职业技术学院学报, 2024, 24(05):53-57.
- [5] 唐晶, 吴瑕. 流行与嬗变：网络热词的传播与表达——以 2019—2022 年的年度热词为例[J]. 辽宁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24, 52(01):117-126.
- [6] 谢世坚, 张丽媛. 认知社会语言学视域下网络热词“xx 搭子”研究[J]. 华南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25, No. 273(01):131-140+207.

現代漢語“什麼”的非疑問指稱義及其句法制約

王賀*

<目次>

【摘要】

1. 引言
 2. “什麼”的非疑問指稱義
 3. “什麼”的句法制約
 4. 結語
- 參考文獻

【摘要】

本文以現代漢語疑問代詞“什麼”的非疑問指稱義為研究對象，對其語義分類與句法制約進行分析。“什麼”的非疑問指稱義分為虛指與任指，並可進一步區分為特指與非特指；在句法分佈上，虛指多局限於賓語，出現在主語位置時受句法限制，而任指常依附於“都”、前後呼應等結構，虛指與任指皆受語境及修飾語影響。本文指出，“什麼”的多樣用法實際上反映了語義類型與句法條件之間的緊密互動，這不僅加深了對漢語疑問代詞多功能性的理解，也為不定指理論研究提供了新材料。

關鍵詞：疑問代詞 什麼 非疑問指稱

* 京畿大學，招聘教授

1. 引言

在現代漢語中，疑問代詞具有多種功能。除了最基本的疑問用法之外，它們往往還承擔非疑問的語義功能。其中，“什麼”是最具代表性的疑問代詞，其非疑問指稱義在實際語料中極為常見，並展現出豐富的語義特徵與句法分佈。對“什麼”的深入研究，既有助於揭示漢語疑問代詞的多功能性，也能為不定指等理論問題提供參考。本文以“什麼”為研究對象，旨在考察不同語義類型在句法分佈上呈現出哪些條件。本文首先從語義角度分析“什麼”的非疑問指稱義，重點討論虛指、任指及特指、非特指的劃分。接著在句法層面上，考察“什麼”在不同結構中的分佈制約，揭示語義與句法的互動關係。

2. “什麼”的非疑問指稱義

2.1 虛指與任指

漢語疑問代詞的指稱義一般可分為“虛指”與“任指”兩大類。“什麼”作為典型的疑問代詞，同樣具有這兩種用法。《現代漢語詞典》（第7版）列舉了“什麼”的七種義項，其中“虛指”與“任指”的釋義與例句如下：

一、虛指，表示不確定的事物。

- (1) 他們仿佛在談論什麼。
- (2) 我餓了，想吃點兒什麼。

二、任指

a. 用於“也”或“都”之前，表示所涉及的範疇無一例外。

- (3) 他什麼也不怕。
- (4) 只要認真學，什麼都能學會。

b. 前後呼應，前項決定後項。

- (5) 想什麼說什麼。
- (6) 你什麼時候去，我也什麼時候去。

需要注意的是，不同研究對上述情況的術語使用並不一致：例如，“虛指”有時稱為“泛指”，“任指a”可稱為“全指”，“任指b”則稱為“承指”。也有研究將兩種指稱義統稱為“虛指”或“泛指”。本文沿用“虛指”與“任指”的劃分。

2.2 特指與非特指

虛指與任指皆屬於不定指（indefinite）範疇，而不定指又可進一步區分為特指（specific）與非特指（non-specific）。特指指向唯一、可識別的對象；非特指則指向不確定、未設定的對象（參見 Haspelmath 1997:37 - 38）。

先看虛指“什麼”的情況：¹

(7) 迷亭跑到門前，像連珠炮似的在和誰爭辯些什麼。

(8) 我從來沒在試圖告訴我的任何一個孩子應該去做什麼。

例(7)中的“什麼”指稱爭辯的具體內容，為特指；例(8)中的“什麼”指稱孩子應該做的事情，但未設定，屬非特指。

同樣地，任指“什麼”也存在特指與非特指之分：

(9) 你明明是中了圈套，幹嘛什麼都一個人扛下，你不是那種人啊！

(10) 中國人聰明，什麼都一學就會，可是只沒學會怎麼強硬與反抗！

例(9)中“什麼”指稱已經承擔的所有事情，為特指；例(10)中“什麼”則指未設定的事物，為非特指。然而，無論是特指還是非特指，任指“什麼”語義上均表現為全量涵蓋，且多與“都”或“也”結合使用，因此在實際分析中，區分兩者的意義有限。

2.3 類型與例示

“類型”(type)與“例示”(instance)是認知語言學入場理論(grounding)的核心概念(Langacker 2008[2016]:12)。根據該理論，名詞短語或限定小句可分別呈現某一事體的“類型”或“已入場的例示”。

這一視角有助於解釋“什麼”與“什麼+NP”的差異。單獨的“什麼”語義模糊，圖式化程度高；而“什麼+NP”則相對更具體，進行了例示化。

(11) 凱米爾知道出了什麼事，顯然狄恩已經平靜了幾個月了。

(12) 他唯一的願望就是能在什麼地方躺下。

在例(11)中，動詞“出”要求賓語為“事件”，因此必須用“什麼事”，不能僅用“什麼”；例(12)中，介詞“在”要求賓語為“地點”，同樣必須用“什麼地方”。

根據 Taylor ([2002]2005:378-379) 的層理論(layered theory)²，名詞短語可在概念層和結構層呈現多層次特徵。從這一理論看，“什麼”本屬類型層級，而“什麼+NP”則將“什麼”推入“詳述”位置，但例示化程度有限。

虛指與任指是非疑問指稱義主要類型，且二者皆可分為特指與非特指。“什麼+NP”相較於單獨“什麼”，例示化程度更高。這些語義特徵為後文的句法分析提供了基礎。

¹ 本文例句若無特殊說明均選自BCC語料庫。

² 概念層：（入場（量化（例示化（詳述（類型）））））

結構層：（入場（量化（詳述（類型））））

3. 非疑問指稱義“什麼”的句法制約

3.1 虛指的句法特徵

虛指“什麼”在句法上主要局限於賓語位置。《現代漢語八百詞》（[1980]2010: 485）指出，當“什麼”代替不確定事物時，一般僅能作賓語。這是因為“什麼”語義高度圖式化，缺乏可識別性。然而，若與特定謂語動詞、修飾語或數量詞結合，則其圖式化程度可被削弱，從而拓展句法功能。

（13）他要搗毀那可憐的“防空洞”，會遭致什麼是最明白不過了。

（14）我也想安靜一下，到什麼山裡去做他一樣的詩。

例（13）中，“遭致”要求賓語為“結果事件”，因此“什麼”可虛指某種結果；例（14）中，“到”後必須接地點名詞，單獨“什麼”過於模糊，故需加“山”以限定範疇。

此外，修飾語可提升“什麼”的例示化程度：

（15）他的腦筋永遠是溫美平淡的，不至於受什麼重大的刺激，使他的心思有所偏倚。

（16）如果查出什麼嚴重的腐敗問題來，他將立刻引咎辭職。

同樣，數量成分也能限制“什麼”的指稱範圍：

（17）有時候，開了長途回來，到了城裡，第一件事就是到茶館去吃些什麼。

（18）真正的想成為一個獨立的人，最好是養一個什麼，孩子也行花草也行。

在主語位置，單獨“什麼”一般不可用，但“什麼+NP”則可合法出現：

（19）什麼東西又動了一動。

（20）什麼事情正在發生，然而她不知道。

（21）什麼人費盡心思地找遍整個網站刪除了我的名字。

（22）什麼力量附在我的身上。

（23）什麼地方出了差錯。

例（19）-（23）均為現實句，“什麼+NP”可特指存在的對象。若加入修飾語，例示化程度更高：

（24）什麼不吉的東西來到這裡，這才明白了拇指的疼。

非特指的“什麼+NP”則多見於條件句：

（25）什麼花兒到了澳大利亞就不那麼香了。

（26）什麼東西散架了，人還可以去支撐。

（27）什麼事有了帶頭的，擔風險的，別人跟著幹也就比較容易了。

此外，若在“什麼”前加上“有”，則可使原本不合語法的主語結構成立：

- (28) a. *什麼順著髮際滲出，我像一個軍人一樣挺直了上軀。
 b. 有什麼順著髮際滲出，我像一個軍人一樣挺直了上軀。
 c. 什麼東西順著髮際滲出，我像一個軍人一樣挺直了上軀。
- (29) a. *什麼出了差錯，我覺得自己犯了天大的錯誤。
 b. 有什麼出了差錯，我覺得自己犯了天大的錯誤。
 c. 什麼地方出了差錯，我覺得自己犯了天大的錯誤。

這些例子顯示，“有+什麼”結構在主語位置起到合法化的作用。

3.2 任指的句法特徵

任指“什麼”主要依附於“全程量化”結構中，例如“什麼…都…”。在這一結構中，“都”總括前項，表示無一例外：

- (30) 中國人聰明，什麼都一學就會，可是只沒學會怎麼強硬與反抗！
 (31) 女人啊，性子上來了什麼事都幹，什麼話都說。

在此類結構中，任指“什麼”作主語。例(31)中的“什麼事”“什麼話”分別表示“任何事”“任何話”。

任指還可通過前後照應形式實現：

- (32) a. 什麼人習慣於勇往直前，到後他就成了功。
 b. ?什麼人習慣於勇往直前。
 c. 什麼人習慣於勇往直前，到後什麼人就成了功。
 d. 習慣於勇往直前的人到後都成了功。

例(32a)中，前半句的“什麼人”為非特指，後半句的“他”指代“什麼人”；(32b)中“什麼”既不能表示虛指也不能表示任指；例(32c)中，前後“什麼人”對應，後者由前者決定，屬任指；例(32d)則用“都”結構概括全體。由此可見，任指“什麼”的語義解釋依賴於句法結構。

本章探討了“什麼”的非疑問指稱義在句法上的分佈。虛指“什麼”多局限於賓語位置，但若構成“什麼+NP”或添加修飾語，亦可用作主語；非特指“什麼+NP”常出現在條件句中。任指“什麼”則依附於“都/也”等量化結構，既能作賓語，也可作主語。

這些現象顯示，“什麼”的非疑問用法並非隨意展現，而是受到語義與句法雙重條件的制約。

4. 結語

“什麼”的非疑問指稱義可分為虛指與任指，且兩者又可細分為特指與非特指。這些語義差異在句法分佈上有明顯對應關係。虛指“什麼”多用於賓語位置，反映其語義

上的模糊性與圖式化特徵。若無額外限制，虛指“什麼”難以直接充當主語。任指“什麼”常依附於“都”等全量結構，不僅可作賓語，也能在特定語境下出現於主語位置，顯示其“無例外涵蓋”的語義特徵。由此可見，語義類型並非獨立存在，而是與句法分佈緊密相關。

特指與非特指的區分也在句法層面有所反映。特指多出現在現實句中，指向唯一、可識別的事件。非特指多見於條件句或假設語境中，“什麼”指向未被具體設定的事物。這表明句法結構在很大程度上決定了“什麼”究竟被解讀為特指還是非特指。

“什麼+NP”結構相較於單獨的“什麼”，在語義上更具體化，例示化程度更高。這是由於：NP縮小了“什麼”的指稱範圍；形容詞或數量詞等修飾語進一步提高了可識別性；在主語位置或賓語需具體填充時，“什麼+NP”比單獨“什麼”更符合語法需求。因此通過語義與句法互動，使得“什麼”在語義上的模糊性被句法手段部分消解。

“什麼”的多樣化用法既反映了語義分類的差異，也揭示了語法結構對語義解讀的調節作用。本研究不僅深化了對“什麼”本身的理解，也為漢語疑問代詞的多功能性研究提供了理論依據。

参考文献

- 黃蓓 譯(2016a)，認知語法導論·上卷 (Ronald W. Langacker, 2008)，北京：商務印書館。
- 黃蓓 譯 (2016b)，認知語法導論·下卷 (Ronald W. Langacker, 2008)，北京：商務印書館。
- 呂淑湘 (2010)，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北京：商務印書館。
- 邵敬敏 (2014)，現代漢語疑問句研究（增訂本），北京：商務印書館。
- 朱德熙 ([1982]2008)，語法講義，北京：商務印書館。
- 김현철、박정구、오문의、최규발 譯(2005)，실용현대한어어법(上)，(劉月華 等, 2001)，首爾：송산출판사。
- 임지룡、김동환 譯(2005)，인지어법 (John R. Taylor, 2002)，首爾：한국문화사。
- Martin Haspelmath (1997)，*Indefinite Pronou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怎么+M+VP’ 구문의 의미 기능과 용법

이명정*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의미 유형과 생성 기제
3. 통사적 특징
4. 결론

【 국문초록 】

본고는 현대중국어 ‘怎么 + M + VP’ 구문의 의미 기능과 통사적 제약을 정보 구조 관점에서 분석한다. 선행연구에서 개별적으로 논의된 구문의 ‘방법 질문, 원인 질문, 불가능, 부적절’ 의미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묶기 위해 Lambrecht(1994)의 화제-전제-초점 틀을 분석의 기본 참조 틀로 삼아, 구문의 전제와 생성 기제를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i) 의문문 용법에서 ‘방법 질문’은 VP의 조건부 실현 개연성을 전제로 충족 방식을 탐색하는 구조로, ‘원인 질문’은 기대와 불일치한 결과를 전제로 원인을 추궁하는 구조임을 밝혔다. (ii) 반문 용법에서는 의미가 화용적 부정으로 전이되는데, ‘불가능’은 실현 조건의 부재를 전제로 조건-결과 사슬의 붕괴를 주장하며, ‘부적절’은 실현의 개연성·허용성은 인정되지만 규범·맥락과 충돌함을 전제로 평가적 부정을 산출한다. (iii) 나아가 ‘怎么 + M + VP’와 공기하는 양태 조동사의 유형과 그 공기 이유를 분석하고, 네 가지 의미 기능에 따른 VP의 선택 제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동사 없이도 사용될 수 있는 ‘怎么 + M’의 담화적 특징을 논하고, 향후 어휘화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1. 서론

현대중국어에서 양태 조동사가 본동사 없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은 흔한 현상이다. 특히 구어체에서는 양태 조동사가 의문사와 결합하여 독립적인 발화 단위로 자주 쓰인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怎么可能’, ‘怎么会’이다.

(1) (後悔搬出来了?) 怎麼可能?

(2) (可以判定是胎停育。) 怎么会呢? 上次我都听到他的心跳了。 『三十而已』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통번역학과 강사. mmdd2006@daum.net

(1)에서 화자는 ‘이사 나온 걸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怎么可能’으로 답한다. (2)에서는 의사가 계류유산을 언급하자 ‘怎么会呢’라고 반응한다. 두 예문 모두 본동사가 없는 구문이지만 의미 파악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의문 구조를 가지지만, 실제로는 화자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므로, ‘怎么’는 의문 용법이 아니라 반문 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더욱이 앞뒤 문맥이 제시되지 않고 ‘怎么可能’, ‘怎么会’라는 표현만 단독으로 제시되어도, 청자는 이를 곧바로 반문 용법으로 해석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怎么’의 다양한 의미(방식 질문, 원인 질문, 화용적 부정) 가운데 화용적 부정만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또한 ‘会’는 본래 지닌 여러 기능(믿음, 능력, 패턴, 약속) 중 믿음의 의미만이 활성화된다. 그렇다면 ‘怎么可能’, ‘怎么会’와 같이 본동사 없이도 관용적으로 쓰이는 양태 조동사가 또 존재하는지, 나아가 새롭게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러한 표현들이 결국 본래 구조인 ‘怎么 + 양태조동사 + 동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구문 자체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또 어떠한 통사적·화용적 특징을 지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怎么 + M + VP’²⁾ 구문을 중심으로 그 의미 기능과 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의미 유형과 생성 기제

현대중국어 의문사 ‘怎么’는 표면적으로 방법(어떻게)을 묻는 기능을 갖지만, 실제로는 원인 의문, 반문, 부정적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양태 조동사와 결합하는 ‘怎么+M+VP’ 구문은, 단순한 정보 탐색형 의문을 넘어 화자의 불신, 비난, 감정 표출 등 강한 주관적 의미를 담아내는 경우가 많다(蔡维天 2007, 刘彬袁毓林2019, 李湘 2019 등).

蔡维天(2000, 2007)에서는 ‘怎么’가 양태사·양화 부사·부정사 등의 내부에 있으면 방법을 묻는 의미를, 외부에 있으면 사건 발생의 원인을 묻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邓思颖(2011)에서는 주어를 기준으로 문두와 문중에 놓이는 두 가지 ‘怎么’로 구분하고, 문두에 놓이는 ‘怎么’는 본래의 의문 기능이 줄어들고 화용 기능이 쉽게 강화되고 문중에 놓이는 ‘怎么’는 이와 반대라고 하였다. 刘彬袁毓林(2019)에서는 ‘怎么’가 포함한 반문 구문을 ‘怎么_{방식}+VP’와 ‘怎么_{원인}+VP’로 구분하고, 만약 방식을 묻는 ‘怎么’라면 구문은 ‘不可能VP’를, 만약 원인을 묻는 ‘怎么’라면 구문은 ‘不应该VP’를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부정 의미를 형성하는 기제를 맥락 억제와 협동 원리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李湘(2019)에서는 ‘怎么’의 의미 기능을 ‘상황 질문(怎么₀)’, ‘방법 질문(怎么₁)’, ‘의아함을 나타냄(怎么₂)’, ‘추측을 이끌어 냄(怎么₃)’ 4가지로 구분하고, 이러한 ‘怎么’가 포함한 구문은 원인 질문, 방식 질문, 부정(不合理, 不可能)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이들 의미 기능이 실현될 수 있는 기제를 제시하였다.

.....

2.1 방법 질문

현대중국어에서 ‘怎么’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 기능은 ‘방법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现代汉语八百词』, 651쪽).

2) M은 양태 조동사(Modal Auxiliary Verb)를 의미한다.

- (3) a. 怎么把东西取出来呢?
b. 怎么能把东西取出来呢?

(3a)는 ‘어떻게 물건을 꺼낼 수 있는가’라는 실행 방식을 탐색하는 전형적인 예문이다. Lambrecht(1994)의 초점 이론에 따르면, 이 구문은 논항 초점 구조로 분석된다.³⁾ 곧 ‘东西를 꺼낸다’는 행위 자체는 이미 담화의 전제로 주어져 있으며, 화자가 청자에게 새롭게 요청하는 정보는 ‘방법(怎么)’이라는 특정 논항이다. 따라서 (3a)는 행위와 방법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통해 이해된다.

반면 (3b) 역시 방법을 묻지만, 양태 조동사 ‘能’의 출현으로 인해 구문의 의미 기제가 달라진다. 만약 (3a)와 (3b)가 전적으로 동일하다면, (3b)의 ‘能’은 불필요한 요소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能’은 동적 양태(dynamic modality)를 나타내어, 해당 사건이 단순히 실행 가능한지가 아니라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실행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만든다. 따라서 (3b)는 단순한 방법 질문을 넘어, 조건부 가능성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묻는 구문으로 해석된다.

이 차이는 ‘才’와의 공기 가능성에서도 잘 드러난다. ‘?怎么才把东西取出来呢?’는 문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나 자연스럽지 않고, 주로 ‘왜 이제야 꺼냈어?’와 같은 원인 해석으로 기울기 쉽다. 반면 ‘怎么才能把东西取出来呢?’는 자연스럽게 수용되며, 여기서 ‘才’는 ‘조건부 가능성’이라는 전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3b)에서 ‘能’이 단순한 의미적 첨가물이 아니라, 초점의 해석 방향을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임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怎么 + VP’와 ‘怎么 + M + VP’는 모두 방법 질문이라는 공통 의미 기능을 가지지만, 양태 조동사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전제와 초점 도메인의 범위를 통해 서로 구별된다. 전자는 단순히 동작 실행의 방식을 묻는 구조이고, 후자는 사건이 조건부 가능성을 전제한 상황에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을 묻는 구조이다. 따라서 양태 조동사의 출현 여부는 구문이 담화에서 전달하는 화용적 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

2.2 원인 질문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존재하게 된 원인에 대해 질문하는 것’ 역시 ‘怎么’의 대표적인 의미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现代汉语八百词』 651쪽, 蔡维天 2007, 邓思颖 2011). 이에 대해 李湘(2019:552)은 현대 중국어에서 ‘怎么’에 독자적인 원인 질문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원인을 묻는 ‘为什么’와 ‘怎么’가 상호 치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怎么’는 원인 의문사로 기능하지 않으며, 단지 화용적 추론 과정을 통해 ‘의아함’이나 ‘의외성’의 의미가 실현될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고는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怎么’의 원인 질문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李湘(2019:552)은 ‘怎么’가 원인 의문사 ‘为什么’와 통사적 특성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점, 특히 초점 강세를 직접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원인 질문 기능 부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기능의 결여로 설명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은 ‘怎么’가 지닌 정보 구조적 특성과 직결되며, 초점 배치 방식의 차이가 곧 ‘为什么’와 ‘怎么’의 기능적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3) Lambrecht는 문장 내 초점 배치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 논항 초점 구조(argument-focus structure)는 특정 논항(주어·목적어 등)이 초점이 되는 경우이고, (2) 술어 초점 구조(predicate-focus structure)는 화제(주어)가 이미 전제된 상태에서 서술부 전체가 새 정보로 제시되는 경우이며, (3) 문장 초점 구조(sentence-focus structure)는 문장 전체가 새로운 정보로 제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떤 부분이 초점이 되느냐에 따라 화용적 기능과 담화적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Knud Lambrecht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4) a. 他为什么没去公司?
 b. 他怎么没去公司?
 c. ?他怎么没去公司?

Knud Lambrecht(1994)에 따르면, 초점은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담화적·인지적 장치이며, 화자의 태도나 담화적 기능에 따라 문장의 서로 다른 위치에 실현될 수 있다.⁴⁾ (4a)의 ‘为什么’ 구문은 정보 구조상 화제가 ‘他’, 전제는 ‘他没去公司’이며, 초점은 ‘为什么’로 실현된다. 따라서 사건 자체는 이미 주어진 사실이고, 새 정보는 ‘그가 가지 않은 이유’이다. 화자는 이를 중립적으로 탐색한다.

반면 (4b)의 ‘怎么’는 표면적으로 원인을 묻지만, 초점은 ‘怎么’ 자체가 아니라 술어부 ‘没去公司’에 놓인다. 즉, 화제는 ‘他’, 전제는 ‘그가 회사에 가야 한다는 기대’라는 배경 지식이며, 초점은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 사실인 ‘그가 회사에 가지 않았다’라는 술어 전체이다. 따라서 화자는 단순히 사건의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상충하는 결과가 어떻게 성립했는지에 대해 의아함·놀라움 등 태도적 평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李强(2019) 역시 ‘怎么’가 없어도 의외성 의미는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怎么’는 전형적인 의외성 표지가 아니라 그 의미를 한층 현저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요컨대, ‘怎么’는 전형적인 원인 의문사 ‘为什么’와 달리 초점을 결과 사실에 두고, 이를 통해 원인을 간접적으로 추궁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초점 강세의 부재는 곧 원인 질문 기능의 결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결과에 대한 평가와 불가해성을 드러내는 독자적 원인 질문 방식임을 보여준다.

이를 근거로 볼 때, ‘怎么 + M + VP’ 구문의 원인 질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화자는 통상적 기대와 다른 사건의 실현 가능성을 인지하고, VP가 지시하는 결과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질문한다는 것이다.

(5) a. 少年说：“您瞧，您不认识我，我可认识您哪。您不是在宝局报铁字儿的吗？”张铁汉说：“不错呀！您怎么会知道啊？请问阁下高姓大名？”

b. 一个学生模样的小伙子径直走到我面前：“首长，我能当兵吗？”我问他：“你怎么想当兵呀？”

(5a)에서 张铁汉은 자신을 모르는 소년이 자기 신상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知道’라는 결과가 성립한 원인을 묻는다. 여기서 조동사 ‘会’는 원인-결과 관계를 활성화하여, 사건 발생의 불가해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물론 ‘会’를 생략해도 문장은 성립하며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会’의 출현은 원인 질문의 화용적 효과를 강화한다.

반면 (5b)의 경우, 조동사 ‘想’을 생략할 수 없다. 화자는 학생이 ‘当兵’을 희망하는 발화를 듣고, 통념적으로는 학생 신분에서 군 입대를 지망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불가해성을 인지한다. 따라서 질문 “你怎么想当兵呀?”는 단순히 행위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군 입대를 염원하게 된 동기와 배경(원인)을 추궁하는 것이다.

2.3 화용적 부정

‘怎么’ 구문은 의문 형식에 머물지 않고 반문의 형식으로 사용될 때 화용론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나타

4) Knud Lambrecht (1994)는 언어의 문장 구조를 단순한 구문적 단위가 아니라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 차원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보 구조는 화자의 발화가 담화 맥락 속에서 화제(topic), 전제(presupposition), 초점(focus)으로 어떻게 조직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때 화제는 발화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전제는 발화 시점에서 이미 공유된 배경지식이며, 초점은 청자에게 새롭게 제시되는 정보이다.

낼 수 있으며, 이는 크게 불가능과 부적절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邵敬敏 2014:235, 刘彬·袁毓林 2019, 李强 2019). 일반적으로 [불가능]의 의미를 전달하는 구문에서 ‘怎么’는 [방식 질문]의 기능을, [부적절]의 의미를 전달하는 구문에서는 [원인 질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된다(邵敬敏 2014:35, 李湘 2019).

(6) a. 近视眼怎么能当飞行员?

b. 这个衣服色系不对啊, 怎么能放在这个位置呢? 『三十而已』

(6a)는 질문이 아니라 반문으로 이해될 때 ‘근시는 비행사가 될 수 없다’라는 화용적 부정 의미를 실현한다. 이는 [불가능]에 해당한다. (6b) 역시 반문적 맥락에서 해석될 경우 ‘이 옷은 이 자리에 둘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 [부적절]의 의미를 실현한다. 여기서 (6a)의 怎么는 [방식 질문]의 구문과 마찬가지로 ‘才’와 쉽게 공기한다는 점에서, 방식 질문 구문과 긴밀히 연속성을 갖는다. 반면 (6b)는 화자의 기대와 상충하는 결과 사실을 근거로, 사건 발생의 원인을 문제 삼는 구조와 결부되며, 앞서 논의한 [원인 질문]의 기능과 통한다.

흥미로운 점은, [불가능] 의미 기능이 대체로 양태 조동사와의 결합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7) a. 你是不是不要我了? 妈妈怎么会不要你呢?

b. 禅师, 磨砖怎么可以做镜呢?

(7)의 예문에서 화자는 술어(VP)가 지시하는 사건의 조건을 질문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청자가 그 조건을 알 수 없음을 전제하고 사건 실현 자체를 부정한다(李湘 2019, 刘彬·袁毓林 2019). 다시 말해, 겉으로는 ‘조건에 대한 반문’이지만 실제 담화 기능은 결과의 불가능성 주장이다. 특히 (7a)의 ‘会’는 생략될 수 없는데, 이는 ‘怎么’와 결합하여 사건의 실현 조건과 결과를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조동사 유무는 단순한 부수 요소가 아니라, 불가능 의미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불가능] 의미를 나타내는 ‘怎么’와 결합하는 조동사에는 의미적 제약이 존재한다. 즉, ‘能, 可以, 会, 可能’과 같이 동적 양태(dynamic modality)나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를 나타내는 조동사와는 잘 결합하지만, 의무 양태(deontic modality)나 화자의 주관적 희망을 나타내는 ‘想, 要’ 등과는 공기하지 않는다. 이는 ‘怎么’ 구문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의미가 본질적으로 ‘조건 성립 불가능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

종합하면, ‘怎么 + M + VP’ 구문에서 [불가능]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화자는 사건 발생의 조건이나 방식을 문제 삼는 형식으로 질문을 제기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조건이나 방식의 부재를 전제하고, 이를 통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화용적 부정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한편, ‘怎么’구문은 반문적 맥락에서 ‘부적절’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邵敬敏 2014:235, 刘彬·袁毓林 2019, 李强 2019). 이는 사건의 발생 자체가 불가능함을 강조하는 [불가능]과 달리, 사건의 발생이나 존재가 가능하더라도 당위성·합리성의 결여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8) a. 现在的年轻人怎么这么没礼貌?

b. 现在的年轻人怎么会这么没礼貌?

(李湘 2019)

李湘(2019)은 ‘怎么 + VP’와 ‘怎么 + M + VP’의 추론 기제를 구분하지 않고, 두 구문 모두 ‘화자가 VP가 지시하는 사실의 존재나 발생에 대해 의아해한다’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본고는 (8a)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8b)는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고 본다. 두 예문 모두 ‘这么没礼貌’라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8a)는 그 사실 자체의 존재에 대한 의아함을 드러내는 반면, (8b)는 ‘会’가 지시하는 개연성의 실현을 문제 삼으며, 그 개연성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8a)는 ‘원인 → 사실’의 경로를, (8b)는 ‘원인 → 개연성 실현’의 경로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9) a. “看来我只能和她本人讨论这个问题了。”罗主任说：“你**怎么可以**和病人谈这个问题呢？”(张洁, 『世界上最疼我的那个人去了』)

b. 老头子听得迷迷糊糊的笑着, 结果他也告诉杨亮, 假如他入党, 得先找一个人商量商量。杨亮说:“这种事**怎么能**找人商量呢? 只能你自己做主呀!”(丁玲, 『太阳照在桑干河上』)

.....

요컨대, ‘怎么 + VP’는 사건의 기정사실에 대한 화자의 의아함을 드러내는 반면, ‘怎么 + M + VP’는 양태 조동사가 부여하는 가능성·당위성의 충위를 문제 삼는다. 따라서 [부적절]의 의미 기능은 단순히 ‘사실의 합리성 결여’로 환원될 수 없으며, ‘조건·당위성의 발생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확장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怎么 + M + VP’ 구문의 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전제 ⁵⁾	생성 기제
방법 질문	사건의 실현이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됨	화자는 그 조건을 전제로 삼고, 구체적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을 탐색
원인 질문	사건이 기대와 다르게 실현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이미 주어진 사실	화자는 결과 사실을 전제로 삼고, 그 결과가 성립한 원인을 추궁
불가능	사건 실현을 위한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화자는 인식	표면적으로는 조건을 묻지만, 실제로는 조건 부재를 전제하며 사건 불가라는 추론을 통해 불가능 의미를 드러냄
부적절	사건 실현의 개연성·허용성은 인정되지만, 맥락적 기대나 사회적 규범과 충돌	표면적으로 원인을 묻지만, 실제로는 개연성·허용성과 규범의 불일치를 부각하여 ‘실현 가능하지만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실현

3. ‘怎么 + M + VP’ 구문의 통사적 특징

앞의 논의를 통해 ‘怎么+M+VP’는 [방식 질문], [원인 질문], [불가능], [부적절]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 질문을 하는 의문문이면 방식과 원인을 묻게 되고, 질문의 형식을 빌린 반어문이면, 불가능과 부적절의 의미를 전달한다. 이들은 모두 ‘怎么’의 의미 기능과 무관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는 [방식 질문]에서 [불가능]이, [원인 질문]에서 [부적절]의 의미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조동사별 결합 양상과 VP의 특징 분석을 통하여 ‘怎么+M+VP’ 구문의 통사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5) 본고에서 ‘전제’는 Lambrecht(1994)의 정의처럼 발화 시점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화자와 청자가 공유 가능한 정보로 이해한다. 다만 실제 분석에서는 발화의 출발점으로서 ‘화자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전제하는 배경’에 초점을 두어, 구문 해석 과정의 기제를 밝히고자 한다.

3.1 조동사와의 결합 양상

양태 조동사는 일반적으로 인식 양태, 의무 양태, 동적 양태로 구분된다. 본 절에서는 ‘怎么 + M + VP’ 구문이 각 양태 조동사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본다.

먼저 인식 양태 조동사를 보자. 실제로 이 구문과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것은 ‘会, 可能’에 한정된다. 반면 ‘应该, 要, 得, 能’ 등은 문맥에 따라 인식 양태적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怎么’와의 결합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자연스럽다.

(10) a. 你怎么会有这么多的钱? [원인 질문]

b. 你这傻冒儿, 百灵鸟根本就上不了树, 怎么会在树上唱歌. [불가능]

c. 一个装备精良的甲种师, 怎么会屡屡犯如此低等的错误! 真是不可思议. [부적절]

(11) a. 好朋友相处时间长了, 也往往会有积怨, 更何况夫妻朝夕相处, 那么久, 怎么可能没有积怨. [불가능]

b. 这就是之钩, 性情温和心思简单的男孩. 她怎么可能把自己的终生托付给他呢? [불가능]

‘怎么 + M + VP’ 구문에 인식 양태 조동사 ‘会’를 대입하면, [원인 질문], [불가능], [부적절]의 의미를 모두 실현할 수 있다. 이는 ‘会’가 단순한 가능성 판단을 넘어서 조건-결과 및 원인-결과의 연계를 전제로 한 개연성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 이미 성립한 결과에 대해 그 원인을 추궁하는 [원인 질문], (ii) 표면적으로는 조건을 묻지만 실제로는 조건 부재를 통해 사건 실현이 불가능함을 드러내는 [불가능], (iii) 사건의 개연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맥락적 기대나 사회적 규범과 충돌할 경우 ‘개연성은 있으나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전달하는 [부적절] 용법이 가능하다. 또한, 개연성이 맥락적으로 자명할 때는 ‘会’가 생략될 수도 있으나, 출현할 경우 화자의 의아함과 규범적 불만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낳는다.

한편, (11)의 ‘可能’은 인식 양태 조동사로서 사건의 가능성을 표현한다. ‘怎么可能 VP’ 구문은 표면적으로는 사건이 어떻게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 반문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怎么可能 VP’ 구문은 ‘不可能 VP’와 의미적으로 유사하지만, 단순 서술이 아니라 반문을 통해 화자의 주관적 태도(의아함, 단정, 강한 부정)를 부각한다는 점에서 화용적 차이를 가진다. 또한 ‘怎么会 VP’ 구문이 [원인 질문], [불가능], [부적절] 등 다양한 해석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과 달리, ‘怎么可能 VP’는 사건의 가능성 자체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주로 [불가능] 의미로만 귀결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
.....

3.2 VP의 유형과 통사적 제약

4. 결론

참고문헌

现代汉语副词“再”的韩国语对应研究

孙贞*

<目次>

【摘要】

1. 引言
 2. 汉语副词“再”的语义项再分析
 3. 副词“再”的韩国语对应分析
 4. 结语
- 参考文献

【摘要】

现代汉语副词“再”因其多义性和复杂功能，成为国际中文教育的核心难点。本研究的起始点为韩语学习者对“再”的翻译和语义解释偏误，这种普遍性并非简单的偶然的句法产出错误，应该深究其原因并寻求措施改进。本论文先分析了汉语副词“再”的语义向及认知语言学，以及框架语言学方面解释分类，再对与其对应的韩语词汇进行分析，最后再解释偏误产生的理由。

1. 引言

在《现代汉语频率词典》中，副词“再”以0.1131的频率高居第103位，累计频率达42.0287。它在报刊、科普书刊、生活口语、文学作品等四类语体中的出现次数和频率均处于较高水平，显示出极高的使用度（1235）。在对外汉语教学中，“再”也属于Hsk1级甲类词汇，也是BCTA类基本词汇，是学习者学习汉语时最初接触到的词汇。

因其高频使用、多义性和功能复杂性，副词“再”一直是语言学和国际中文教育领域的研究热点之一。相关研究层出不穷，涵盖了语义、句法、语用等各个方面，也包括针对韩国学习者的对比分析研究和教学研究。

国内学界对副词“再”的本体研究已经非常详实且出色。从最早的史锡尧（1996）、蒋琪、金立鑫（1997）、吴中伟（1997），到陈立民等（2008）等，研究成果涵盖了“再”的语义演变、义项划分和形式语言学，认知语言学或其他角度的解释。如而邓根芹（2007）提出

* 韩国圣洁大学中文系，助教授

的“拷贝型副词”理论，将“再”的核心功能定义为信息拷贝，并区分完全性拷贝和部分性拷贝。金立鑫，崔圭铎（2018）通过最小对立对方法逐一描写现代汉语中常见的四个表示重复或继续（简称“复续”）行为的副词：再、又、还、也。揭示了“再”用于表达未然的、有间隔的行为的复续。独海峰（2009）认为，汉语副词“再”和韩语频度副词“다시”的不同点主要在于：“다시”可用于表示已然、未然的动作行为，而“再”通常只能表示未然的动作。张思（2022）进一步作出分析，运用对立比较法、互补分析法等相关语义特征分析法提取了韩语“다시”的[+已然]、[+未然]、[+间隔]等语义特征，和“再”的[+未然]、[+间隔]、[+相同范畴行为]等语义特征。

在这些论文中，我们注意到了이나현(2019)在《중한 번역에 나타난 번역투 유형》提到了在一些中文教材中出现了这样的翻译偏误：

例1 你再试试那件蓝色的。（1a 저 파란 걸 다시 좀 입어보시죠.）

论文中指出，这是错译，不能用韩文的“다시”因为并非要重新穿同样一件衣服，而是要试别的衣服，应该是：

1b 저 파란 것도 한 번 입어보세요.

无独有偶，笔者在Naver在线词典的例句中也可以发现类似的大量的错译现象：

例2 再吃两块肉。2a 다시 고기 두 점을 먹었다.

这里的“两块肉”并非指吃“两块肉”的重复发生，而是追加，增补义，对应的韩文应该是：고기 두 점 더 먹었다.

那么，出现这种错译的原因是什么呢？我们推测，这种现象的一再产生可能是学习者未能清楚理解“再”的语义项和对应的韩语副词的语义项的对应关系。

因此，本文将从“再”的语义和功能出发，结合韩语相关词汇的对比分析，并在大量的语料库的调查的基础之上，先分析汉语副词“再”的语义向及认知语言学，以及框架语言学方面解释分类，再对与其对应的韩语词汇进行对应性分析，最后再解释偏误产生的理由。

2. 汉语副词“再”的语义项再分析

“再”字在上古汉语中是一个数词，意思是“二”，而在现代汉语中则是一个副词，它的意思呈多样化。

根据“再”修饰的成分的不同，侯学超的《现代汉语虚词词典》里分为后接动词，后接形容词和固定格式三大类，在后接动词下类，又分为 1 表示某一行为的重复或状态的持续，多用于未实现的事；2 表示现有状态的继续；3 表示隐含的重复，被重复的行为隐而未露。句中的“再”多可去掉，不会改变句子的意思。用于未实现的事。4 同类型为的重复，具体行为不同（有的前一行行为不出现），性质相同，表示增补或扩大，无所谓实现不实现。5 相同性行为的重复。6 用于否定式。修饰形容词时，“再+形容词”表示某一性质或状态的继续，表示在原有程度上加深。这样零总加起来也超过了十类。

史锡尧（1996）全面考察了“再”的语义，从表第二次，再到修饰动词表重复，继续义，之后是添加义，再延伸到然后义，最后是修饰形容词表示程度加深。

此外，也有其他角度的分类方式，如李秉震（2009）从“认知图式”的角度对“再”的演变过程进行了解释。他把“再”的义项划分为以下五类：两次和第二次、表承接义、表延续义、表程度变化及让步、表主观推测。高思欣，高思艳（2007）将副词“再”的语义分为基本义，派生义，基本义又分为同类添加（重复，继续，程度加深）和异类添加（范围扩大），派生义分动作相继和时间延后等语义。宋璟瑶（2014）基于国家语委现代汉语通用平衡语料库的调查分析，运用“语义特征分析法”，将“再”划分为七个义项：重复义（修饰动词为主）、持续义（修饰动词为主）、程度加深义、添加义、继起义、推迟义、一直延伸达到极值义。从频率上来看，“重复义”占比35.2%，继起义占24.2%，是语料库里使用频率最高的。

根据这些研究，结合对应的韩语词汇，接下来我们将对表示重复或继续类的“再”的语义做进一步分析。

2.1 “再”的原型图式：同类重复

这是“再”的原型义。同类重复，意为完全性重复。指动作、状态等信息在下一时间点完全重复。在认知语言学和语义学中，当副词“再”表达“同类重复”义时，它指的是一个事件（Event）的再次发生。要构成“完全重复”，通常要求两次事件（Event 1 和 Event 2）在语义上保持“同质”（即“相同”或“等同”）。

如果用框架语义学来分析的话，【同类重复】框架

- 核心元素：施事、活动、初始事件、后续事件。
- 框架逻辑：某个活动已经至少发生了一次，后续发生的是完全同类的活动。
- 触发词元：包含可持续或可重复动作的动词，如“看、说、试、吃”。
- 例3：“你再去看看火苗灭了没有。

불씨가 살아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라.

具体分析这两个事件（Event）

1. 事件的时间、地点和情景背景

“重复”强调的是事件在时间上的再次发生，所以虽然事件的核心内容相同，但其发生的时间点必须不同。

动词的主体，一般来说，必须保持一致。前后两个事件中，上句的动作主体都为“你”。

动作的时间（Time）：两次事件发生的时间点必须不同。但并非强调事件的先后顺序。

动作的地点（Location）：尽管地点可以相同（例如“在同一个房间再开一次会”），但在要求绝对完全重复时，如果涉及移动或不同地点，则地点也应是相同或等效的。

情景背景/结果（Context/Result）：两次动作发生时所处的情景条件（如前提、原因）和期望达到的结果也通常被认为是相似或相同的，否则就可能引向“添加”义（如条件发生变化，需要再做一件事）。

2. 事件的谓词和谓词的内涵

这是核心，即动作或状态本身。

动作的谓词 (Verb/Predicate)：两次事件所涉及的动作或状态必须是同类的，甚至相同的。例如，如果第一次是“写”，第二次也必须是“写”。

动作的次数 (Frequency/Number)：“再”用于表达复续（重复或继续）行为，但它本身并不限定“完全重复”的具体次数，而是强调在事件一之后，事件二再次发生。

动作的客体，工具/方式 (Means/Manner)：如果方式和工具的改变会导致动作本质的变化（例如：第一次“骑车”去，第二次“走路”去），则不能算作完全重复。

例4：得再去一趟我们刚才经过的街道。

우리가 아까 지나온 거리를 다시 가 봐야겠다.

这句话中，动词“去”动作的主体“我们”，“去”的地方“街道”等都是完全一致的。

例5 你把今早发生的事再叙说一遍。

당신이 오늘 아침에 발생한 일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라.

[事件一 (E1)] 先后出现 [事件二 (E2)]

主体、客体、谓词等 隐性关系：相同 主体、客体、谓词等

韩语投射：主要对应 다시 (33.36%)，该高频对应证实了其作为认知原型的地位。

2.2 “再”的延伸图式：部分性拷贝（增添、递进）

又名为补充性拷贝，指主体或动作继续，但客体、数量或程度等信息被增添、递进。这里所说的增量操作 (Incremental Operation)：“再”所标记的对事件 E 1 的处理方式，增量操作后产生的结果情境 (Resulting Situation) 新情境 E 2。

E 1 （先前情状）：可以是已发生的活动、已持续的过程、已存在的数量、已进行的状态，或先决条件等。

E 2 （当前情状）：由“再”引出的后续活动、延续状态、新增数量或后续事件

此类语义内部又可以分为两类：

2. 【延续义】框架

- 核心元素：施事、过程、初始阶段、延续阶段。
- 框架逻辑：某个过程已经开始但未完成，需要或计划将其进行下去。
- 触发词元：表达持续状态的动词或形容词，如“等、住、想、安静”。
- 例6：“你再等我十分钟。” 10분만 더 기다려라.

3. 【添加/补充义】框架

- 核心元素：整体、部分、已存在部分、新增部分。
- 框架逻辑：在一个已有集合或整体上增加新的同类或异类成分。
- 触发词元：包含“增加”义的动词，如“加、添、买、给”。
- 例7：“我再给你一个苹果。” 사과를 하나 더 주겠다.

在这一类中，可以产生的增量变化可能会是：

1 数量的变化

添加义：

这个苹果很甜，我想再买一斤。

이 사과를 달아서 전 한 근 더 사고 싶어요.

2 客体的变化

这次英语考试只做**填空练习**，下次再做**翻译练习**。

3 程度的变化：如果油价再上涨，问题就更加严重了。

4 时长的变化：你再等我十分钟。

5 工具或方式的变化：这次坐出租车去，下次再坐地铁去。

认知图式：[A 动作 (X 客体) → A 动作 (X+Y 客体)]。

韩语投射：主要对应 더 (23.19%)，即数量或程度上的增添/进一步。

2.3 “再”的延伸图式：非同质拷贝

“继起”义（先后顺序）的核心特征

“继起”义的核心功能是连接两个功能或语义上不同质的、但时间上前后相连的事件，构成一个行动序列或步骤。如“你先洗脸再吃饭。”

隐性关系：非同质性。尽管主体相同，但事件 E 1（洗脸）的本质和功能与事件 E 2（刷牙）的本质和功能是不同的。这里的“再”作用于整个流程，强调的是顺序。

图式：强调事件一和事件二在时间轴上的先后排列，并不要求 $E_1 \equiv E_2$ 。

继起义框架

核心元素：条件、前提事件、后续事件。

• 框架逻辑：后续事件的发生以前提事件的实现为条件。常与“先”连用，形成“先...再...”结构。

• 触发词元：任何表示事件的VP都可以进入此框架。

• 例8：“你先写完作业，再看电视。”

韩语: 첫 번째 알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보내라.

汉语: 如果对第一个提示没有反应, 就再发一次。

韩语: 일단 확인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汉语: 先确认一下再给答复, 然后挂断了电话。

认知图式: [A 动作 (X 客体) → A 动作 (Y 客体)]。

韩语投射: 主要对应 ……하고 나서 , ……한 뒤에 , 即表达两个事件的先后条件或顺序。

将上述内容总结整理如下:

“再” 的语义	突出维度 (焦 点)	框架元素间的关系	框架实例
重复	事件计数 (Event Count)	E2 与 E1 同质, 并在时 间上完全分离。	你再说一遍。(一个通 知新事件)
继续	事件持续 (Event Duration)	E2 是 E1 的延伸, 在时 间上紧密相连或重叠。	你再等一下。(在原事 件上增加时长)
添加/ 累加	数量/总量 (Qua ntity/Collection)	E2 是 E1 中的实体数量 增加, 事件本身可瞬间完成。	再给我一个苹果。(在 原总量上增加实体)
顺序	事件序列 (Event Sequence)	E2 是 E1 的后续步骤, 强调逻辑或计划的先后关系。	先洗澡再吃饭。(强调 事件在时间轴上的线性排列)

3. 汉语副词“再”的韩语对应分析

《现代汉语词典》(现汉)将副词“再”的词条分5条, 同样高丽大学民族文化研究所的《中韩词典》(中韩)也根据《现代汉语词典》将之分为5条, 对应的韩语词汇以及例句摘录如下:

	《现汉》 词典	《中韩》词典	例句
1	表示又一 次(有时专指 第二次)	제차, 다시 (한 번)	学习, 学习, 再学习。 배우고, 배우고, 또배워라 再试一次。 다시 한번 시도해 보다 再来一个。 하나 더 주세요.

2	表示更加	그 위에, 더,	高点儿, 再高点儿 좀 높게, 좀 더 높게.
3	表示如果 继续下去就会 怎样	어, 이 이상..... 한다면	离开车只剩半个钟头了, 再不走 可赶不上了。 발차 시간이 30분 밖에 안 남았 는데 더 지체하면 시간이 대지 못 할 것이다.
4	表示一个 动作发生在另 一个动作结束 之后	하고 나서 , ...한 뒤에	咱们看完了这个节目再走 우리 이 프로그램을 다 보고 나 서 가자.
5	表示另外 有所补充	그런데도, 더욱 이, 게다가	院子里种着迎春、牡丹、海棠、 石榴, 再就是玫瑰和月季。 정원에서 개나리, 모란, 해당화, 서류 외에 또 장미와 월계를 신었 다.
	제차, 다시 (한 번) , 또, 더, 그위에, 이상 , ...하고 나서 , ...한 뒤에, 그런데도, 더욱이, 게다가		

虽然词典只列出5条,但从例句以及释义来看,对应的韩文词条则更多,根据Naver在线词典,它分为8条分别为 1 부사 재차. 또. [같은 동작・행위의 중복이나 계속을 나타내며, 주로 아직 실현되지 않거나 지속성 동작・행위를 가리킴]; 2. 동사 문어 다시 나타나다. 계속되다; 3. 부사 다시. [동작이 일정한 기간 후에 장차 나타날 것을 가리킴]; 4 수사 두 번. 두 번째; 5부사 ...하고 나서. ...한 뒤 (후) 에. [동작이 장차 다른 동작이 끝난 후에 나타남을 가리킴]; 6 부사 계속 ...한다면.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찌 될 것임을 나타냄] ; 7 부사 그 위에. 더. 아무리. [형용사 앞에 쓰여 정도가 더 심함을 나타내며, 대체로 ‘更’, ‘更加’에 상당함]; 8 부사 별도로. 더. 그리고. [보충됨을 나타내며, ‘另外’, ‘又’에 상당함]

在这些多样语义中,其对应关系到底如何呢?

由于篇幅原因,下略.....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1부

11. 중국어교육(2) 위당관 216호

미디어와 중국어 교육

韩国商务汉语教材词汇研究

——以系列教材为中心

袁红^{*1}

<目 次>

【摘要】

1. 引言
 2. 词汇等级分布考察
 3. BCT大纲覆盖率考察
 4. 结语
- 参考文献

【 摘 要 】

词汇的选取是衡量一部教材编写质量的重要标准，而商务汉语教材与通用汉语教材的最大区别也主要体现在词汇的选取上。近年来，商务汉语教材词汇考察逐渐形成了一种新的研究趋势。然而，现有研究大多以单本教材为对象，针对韩国出版的商务汉语系列教材的系统性研究仍较为缺乏。为弥补这一不足，本文选取近年来韩国出版的三套商务汉语系列教材作为考察对象，从整体上分析其词汇选取情况，并重点考察教材词汇的等级分布以及对《BCT大纲》的覆盖率，以期为商务汉语教材的编写与改进提供参考。研究表明，三套教材在词汇选取上均体现出循序渐进、逐级递进的编排思路，并较好地突出了商务汉语教材的特色。但从具体分册来看，词汇安排仍存在差异，这些差异在一定程度上反映出编者在教材编写理念和教学取向上的不同侧重。

* 安养大学中国言语文化学科，助教授

1. 引言

词汇的选取是衡量一部教材编写质量的重要标准，而商务汉语教材与通用汉语教材的最大区别也主要体现在词汇的选取上。²近年来，商务汉语教材词汇考察逐渐形成了一种新的研究趋势。国内相关研究成果已颇具规模，包括辛平（2007），周小兵、干红梅（2008），安娜、史中琦（2012），贾蕃、周小兵、郭曙纶（2019）等。在韩国学界，亦有部分学者对商务汉语词汇展开探讨，如임학준（2016a、2016b），王帅（2016），周赞杰（2020），袁红（2025）等。然而，现有研究大多以单本教材为对象，有关韩国出版的商务汉语系列教材的研究成果仍然相对匮乏。为弥补这一不足，本文选取近年来韩国出版的系列教材作为考察对象，从整体上分析其词汇选取情况，并重点考察教材词汇的等级分布以及对《BCT大纲》的覆盖率，从而为商务汉语教材的编写与改进提供参考。

本文语料来源为三套韩国商务汉语系列教材，共计9册，分析对象为教材生词表中所收录的全部词汇。教材选取时，主要考虑以下三个因素：（1）编写体系：教材为系列教材，至少包括两个级别，以保证教材体系的完整性。³（2）适用范围：面向韩国高校汉语语言文化专业的商务汉语教学。（3）教材质量：由外语教材专业出版社出版，编者均为长期从事商务汉语教学的知名专家。本文所选取的教材信息如下表所示。

〈表1〉韩国商务汉语系列教材

编号	教材名称	出版时间	编者	出版社
1	비즈니스 실무 중국어 초·중급	2014	진탁, 윤형빈	동양북스
	비즈니스 실무 중국어 중·고급			
2	CBP 비즈니스 중국어 1: 입문 코스	2015	정인선	시사중국어사
	CBP 비즈니스 중국어 2: 기초 코스			
	CBP 비즈니스 중국어 3: 초급 코스			
3	맛있는 비즈니스 중국어 Level 1: 첫걸음	2013	한민이	JRC북스 (맛있는 books)
	맛있는 비즈니스 중국어 Level 2: 일상 업무			

² 季瑾（2007），周小兵、干红梅（2008）提出此观点，安娜、史中琦（2012），贾蕃、周小兵、郭曙纶（2019）等学者对其表示认同。

³ 系列教材通常是作为规划教材设计开发的，一般包括初级、中级和高级三部分。具体教材册数因各系列教材编者设计理念不同而略有不同，但一般至少包括两个级别或两部教材。参考倪明亮（2015：11）。

	맛있는 비즈니스 중국어 Level 3: 중국 출장			
	맛있는 비즈니스 중국어 Level 4: 실전 업무			

2. 词汇等级分布考察

本文以《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⁴(以下简称《等级标准》)为依据,对三套韩国商务汉语系列教材中词汇的等级分布进行统计分析,结果如下表所示。

〈表2〉 商务汉语系列教材词汇等级

	词汇 总量	初等		中等		高等		其他	
		数量	占比	数量	占比	数量	占比	数量	占比
教材A	647	280	43.3%	150	23.2%	61	9.4%	156	24.1%
教材B	520	327	62.9%	59	11.3%	25	4.8%	109	21%
教材C	1288	568	44.1%	221	17.2%	98	7.6%	401	31.1%

首先,三套教材的词汇总量存在明显差异。教材A收录647个词汇,教材B收录520个词汇,而教材C则收录1288个词汇。整体来看,教材A和教材B的词汇总量相对接近,而教材C的词汇总量约为前两者的两倍。根据周小兵(2017)的研究,商务汉语教材的词汇总量可以参照通用汉语教材的编写标准,初级800至1000个,中级1000至1200个,高级1200至1600个。与这一标准相比,本研究考察的三套教材在词汇总量上普遍偏少,未能达到相应的规模,反映出韩国商务汉语系列教材在词汇编排上缺乏明确的定量依据。

其次,从等级分布来看,三套教材所选取的词汇中,初等词汇比例最高,初等、中等、高等词汇比例由高到低。其中教材B初等词汇比例高达62.9%,而中等词汇和高等词汇比例不到20%,初等词汇数量是中高等词汇总量的三倍以上。教材A和教材C初等词汇比例较为相似,教材A中、高等词汇比例(32.6%)略高于教材C中、高等词汇比例

⁴ 由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国家语言文字工作委员会发布,于2021年7月1日实施。共收词11092个,词汇分为三等九级,初等词汇(一级、二级、三级)共2245个,中等词汇(四级、五级、六级)共3211个,高等词汇(七级、八级、九级)共5636个。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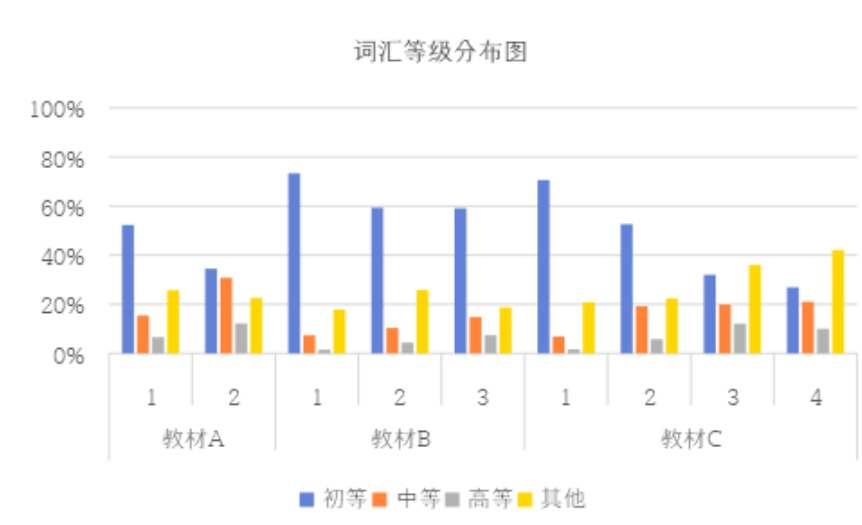
综上所述，教材A和教材B词汇总量过少，尤其是中、高等词汇的收录数量明显不足，与中高级阶段商务汉语学习的需求存在差距。教材B的初等词汇比例过高，可能导致学习内容停留在基础层面，难以满足实际商务交际的需求。教材C虽词汇总量相对较高，但中、高等词汇比例仍然偏低，且其他类词汇占比较大。由此可见，韩国商务汉语教材在词汇总量与等级分布上均缺乏与学习阶段相匹配的系统性与科学性，有必要在未来编写中建立明确的分级标准与定量规范。

三套教材各分册的词汇等级分布情况如<图1>所示。从整体趋势来看，三套教材均显现出较为一致的规律：初等词汇的比例随着教材级别的提升而逐渐下降，中、高等词汇的比例则相应上升。这一变化模式表明，三套教材在词汇编排上均遵循了由易到难、逐渐递进的原则，体现出词汇选取的层次性与系统性。

具体而言，教材A第一分册的初等词汇比例超过一半，与之相比，中、高等词汇比例明显偏少。而第二分册中、高等词汇的比例增加，尤其是中等词汇的比例为第一分册的两倍，与初等词汇占比相近。教材B中各分册的初等词汇占比均超过半数，第一分册中高达73.3%，第二、三分册的初等词汇比例相对减少，中、高等词汇比例虽有所增长，但各分册中的中等词汇比例均低于15%，高等词汇比例均低于10%。教材C第一分册的初等词汇占比亦达到70.6%，但随着级别的提升，初等词汇占比大幅减少，第四分册的初等词汇占比仅为26.9%。相对而言，中、高等词汇比例逐渐增加，第四分册的中等词汇占比21%，高等词汇占比10%。值得注意的是，教材各分册中其他类词汇的占比均明显高于中、高等词汇，尤其是第四册其他类词汇的占比高达42.1%，这表明该教材在后期更强调学习者的词汇扩展与复杂语境的覆盖。

综合分析三套教材可以发现，它们在整体上均体现了词汇教学由浅入深、逐级递进的编排思路，但在具体分册中的词汇安排上仍存在一定差异。教材A偏重初级阶段的词汇积累，教材B则在后期更注重高等词汇的引入，而教材C在各分册间体现出较强的均衡性和递进性。这些差异反映出不同教材在编写理念和教学取向上的不同侧重。

<图1> 商务汉语系列教材词汇等级分布图



3. BCT大纲覆盖率考察

商务汉语词汇是商务汉语的一大特色，而商务汉语词汇比例则在一定程度上反映了教材词汇选取的科学性与合理性。本文以《商务汉语考试BCT大纲》(以下简称《BCT大纲》)为依据，对三套教材中商务汉语词汇比例及教材词汇对大纲词汇的覆盖率进行考察，旨在为商务汉语教材的词汇选取提供参考指标。具体研究步骤如下：首先，将三套系列教材的词汇与《BCT大纲》进行比对，统计教材与《BCT大纲》重合的词汇数量，记为商务词汇总量。然后，将商务词汇总量与教材的总词汇量进行对比，计算出各教材的商务词汇比例。最后，以《BCT大纲》收录的4000个词汇为基础，进一步分析各教材对《BCT(A)大纲》和《BCT(B)大纲》的覆盖率。⁵结果如下表所示。

〈表3〉商务汉语系列教材词汇大纲覆盖率

	词汇总量	商务词汇		BCT(A)大纲		BCT(B)大纲	
		数量	占比	涵盖词数	覆盖率	涵盖词数	覆盖率
教材A	647	443	68.5%	213	35.5%	230	6.8%
教材B	520	319	61.3%	213	35.5%	106	3.1%
教材C	1288	700	54.3%	399	66.5%	301	8.9%

从〈表3〉可以看出，三套教材收录的商务词语数量由多到少依次为教材C、教材A、教材B；而商务汉语词汇比例由高到低依次为教材A、教材B、教材C。教材C的词汇总量最多，但商务词汇比例最低。而教材A、教材B的词汇总量较少，但商务词汇比例却相对较高。这一现象与前文所提到其他类词汇比例密切相关，教材C中所选取的一部分词汇并未收录于《等级标准》和《BCT大纲》。尽管如此，本文所选取的三套教材中商务词汇比例均高于50%，远超于安娜、史中琦(2012)所提出的商务类词语选词率标准⁶。由此看见，三套教材在商务词汇比例上均有效突出了商务汉语教材的特点。

在大纲覆盖率方面，教材C对《BCT(A)大纲》和《BCT(B)大纲》的覆盖率最高，明显高于教材A和教材B，这与其词汇总量显著高于后两者相一致。教材A与教材B对《BCT(A)大纲》词汇的覆盖率相同，对《BCT(B)大纲》词汇的覆盖率差异也不明显。从涵盖词汇数量来看，教材A中初级词汇与中高级词汇的数量相近，中高级词汇数量略

⁵ 《BCT(A)大纲》收录了600个初级商务词汇，《BCT(B)大纲》新增了3400个中高级商务词汇。在计算教材词汇对《BCT(B)大纲》的覆盖率时，本文提出了与初级商务词汇相重合的部分，仅统计与新增的3400个中高级商务词汇的重合情况，并据此计算其覆盖比例。

⁶ 安娜、史中琦(2012)指出商务类汉语选词率是指一本商务汉语教材所收录的商务类词语数量跟全书词汇总数的比例，并认为商务汉语教材收录的商务类词语应该达到一定的比例，每百词中应有25个左右的商务类词语。参考安娜、史中琦(2012: 123-130)。

高，而教材B和教材C则呈现出初级词汇数量均高于中高级词汇的特点。由此可见，教材A不仅较为合理地控制了商务词汇比例，同时在初级词汇与中高级词汇的选取上也体现出较强的均衡性。

众多学者从不同角度对商务汉语教材的商务汉语词汇比例进行了深入研究，但相关研究多集中于同一级别商务汉语词汇比例的静态比较，对于同一系列教材在不同级别中商务汉语词汇比例的动态变化及差异对比关注较少。⁷于此，本文对三套教材在不同级别中所收录的商务词汇进行统计分析，结果如<图2>所示。

三套教材各分册中商务词汇比例分布情况整体上较为相似，即随着教材级别的提升，初级商务词汇比例逐渐下降，而中高级商务词汇的比例则相应上升。这一变化趋势与前文所述的词汇等级分布特征基本一致，说明三本教材在编写过程中均遵循了教学难度递进的原则。三套教材在词汇等级设置及商务词汇选取上兼顾了层级递进与合理分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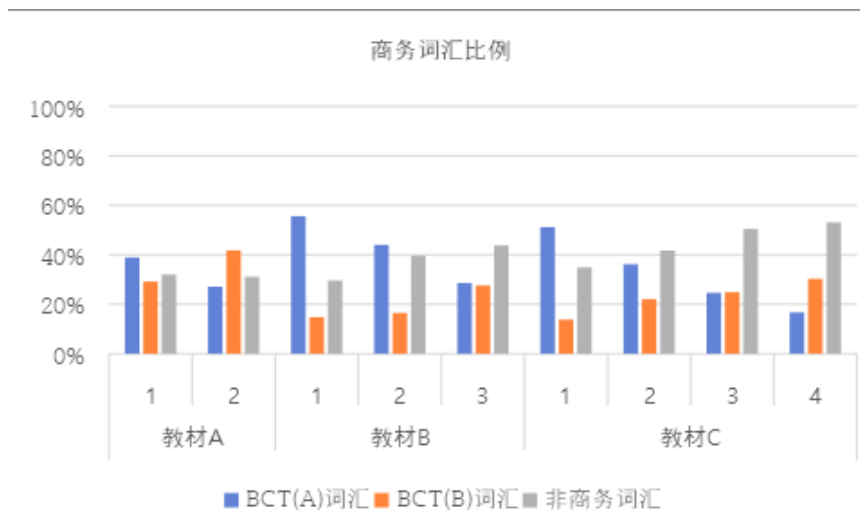
具体来看，教材A中非商务词汇比例为31.5%，初级商务词汇（32.9%）、中高级商务词汇（35.5%）的分布也较为均衡，显示出较为合理的结构。与第一分册相比，第二分册中初级词汇比例略有下降，而中高级词汇比例有所上升，两者的变化幅度均控制在10%以内，非商务词汇比例基本保持稳定。教材B中非商务词汇约为39%，初级商务词汇（41%）约为中高级商务词汇（20.4%）的两倍。从各分册的分布趋势来看，初级商务词汇比例随着教材级别的提升逐渐下降，而中高级商务词汇和非商务词汇比例则呈上升态势。值得注意的是，各分册中非商务词汇的比例均高于中高级商务词汇。教材C中非商务词汇比例为45.7%，显著高于初级商务词汇（31%）和中高级商务词汇（23.4%）。且随着教材级别的上升，非商务词汇比例呈逐步增加的趋势，在第三、四分册中均超过50%。然而，已有研究普遍认为，随着教材级别的上升，商务知识的比重应相应增加，商务词汇的比例也应随之上升，即商务词汇比例应呈现“初级—中级—高级”递增的规律。换言之，非商务词汇比例应随着教材级别的提升而逐渐下降。⁸相较而言，教材B与教材C在教材级别提升过程中，非商务词汇比例反而呈上升趋势，这与既有研究的结论明显不符。

综上所述，教材A在商务词汇选取上兼顾了初级与中高级词汇的均衡分布，并合理控制了非商务词汇的比重；而教材B和教材C虽对各分册中初级及中高级商务词汇的比例有所调整，但在非商务词汇的控制方面存在不足，导致其高阶教材的商务特色不够突出。

⁷ 参考贾蕃、周小兵、郭曙纶（2019：114）。

⁸ 参考贾蕃、周小兵、郭曙纶（2019：115）。

〈图2〉 商务汉语系列教材商务词汇比例



4. 结语

本文对韩国出版的商务汉语系列教材的词汇选取情况进行了系统考察，重点分析了教材词汇的等级分布以及对《BCT大纲》的覆盖率，研究结果如下。

在词汇等级分布方面，教材A与教材B词汇总量相对较少，尤其是在中、高等词汇的收录上明显不足，难以有效支撑中高级阶段商务汉语学习的需求。其中，教材B的初等词汇比例过高，可能导致学习内容局限于基础层面，无法充分满足实际商务交际的需求。教材C的词汇总量相对较大，但中、高等词汇比例仍偏低，且其他类词汇占比过高。总体而言，三套教材在整体设计上均体现出循序渐进、逐级递进的编排思路，但从具体分册来看，词汇安排仍存在差异：教材A偏重于初级阶段的词汇积累，教材B则在后期更加强调高级词汇的引入，而教材C在不同分册之间体现出较强的均衡性与递进性。这些差异在一定程度上反映出编者在教材编写理念和教学取向上的不同侧重。

在商务词汇比例以及对《BCT大纲》的覆盖率方面，三套教材均较好地突出了商务汉语教材的特色。其中，教材A不仅在商务词汇比例上控制得较为合理，而且在初级词汇与中高级词汇的分布上保持了相对均衡，即兼顾了不同学习阶段的需求，又有效限制了非商务词汇的比重。相比之下，教材B和教材C虽然在不同分册中对初级及中高级商务词汇的比例作出了一定调整，但在非商务词汇的收录上仍显冗余，削弱了高阶教材的商务特色与针对性。

参考文献

임학준 (2016a), 「现代商务汉语 초급교재 어휘 특징 연구 - 《新丝路初级速成商务汉语》(I·II)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第73辑: 451-486.

임학준 (2016a), 「现代商务汉语 중급교재 어휘 특징 연구 - 《新丝路中级商务汉语综合教程》을 중심으로」, 东亚人文学, 第37辑: 389-420.

安娜、史中琦 (2012), 「商务汉语教材选词率及核心词表研究」, 语言文字应用, 第2期: 122-130.

贾蕃、周小兵、郭曙纶 (2019), 「基于语料库的商务汉语教材词汇考察」, 对外汉语研究, 107-118.

辛平 (2007), 「面向商务汉语教材的商务领域词语等级参数研究」, 语言文字应用, 第3期: 70-77.

王帅 (2016), 비즈니스 중국어 어휘 연구 - 한·중·일 교재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袁红 (2025), 「韩国商务汉语教材分析—以近五年出版的三本教材为对象」, 중국어교육과 연구, 第46号: 57-74.

周小兵、干红梅 (2008), 「商务汉语教材选词考察与商务词汇大纲编写」, 世界汉语教学, 第1期: 77-84.

周赟杰 (2020), 《新丝路速成商务汉语》系列教材的词汇研究,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朱黎航 (2003), 「商务汉语的特点及其教学」, 暨南大学华文学院学报, 第3期: 55-60.

认知视角下的形容词“宽”和“넓다”的语义范畴及搭配分析

이승희(李承熹)*

<目 次>

【摘要】

1. 引言
2. 研究问题及研究方法
3. 汉语“宽”和韩语“넓다”基本义的共同点及不同点
4. 汉语“宽”和韩语“넓다”的空间义搭配范畴分析
5. 汉语“宽”和韩语“넓다”的搭配词及概念空间
6. 结语
参考文献

【 摘 要 】

由Langacker所提倡的认知语法的核心内容是“意义等同于概念化(conceptualization)”。本文在Langacker的认知语法的理论基础上,考察了在不同语言中的概念如何表现,即汉语形容词“宽”和韩语“넓다”进行了对比研究。其具体研究对象为语义范畴及语义搭配,语料来源主要为BCC语料库和延世大学韩语语料库的相关例句。另外,对词语的概念空间分析方面,将苏新春的《现代汉语分类词典》当作划分语义范畴的依据。通过语料分析,我们对汉语“宽”和韩语“넓다”的空间义进行了深入研究,从而细致描写汉、韩之间形容词“宽”和“넓다”的语义范畴和词语搭配上的异同点。

1. 引言

不管是哪种语言,都存在着空间维度。其中,人们对“宽”的认知基本上是一致的,但其表达方式和理解方面可能会有不同之处。

中国知网数据显示,现已有不少针对汉语“宽”的语义研究,其中与本文的研究对象相关度最高的研究为伍莹(2011)提出的对现代汉语空间维度形容词语义系统方面的内容。该文的第三章分析了“宽、窄”的空间义和隐喻义。在空间义方面,该文

* 光云大学,兼任教授

对“宽、窄”维度义的语义特征及与其搭配的名词的语义特征进行了分析。不仅如此，在文章中还探讨了“宽、窄”面积义的语义特征。此外，该文还指出了“宽、窄”的隐喻义，并把它分成了四类，即：范围域、心里域、政策域、经济域。陈颖、李治平（2016）从认知角度对“宽”的语义演变进行了分析，他们根据三个维度分析“宽”的空间维度，即：原始义和原型义、本义演变、隐喻演变。最终得出了三个结论，一是“宽”表示“房子宽大、范围广”，而这个意义既是原始义，又是原型义；二是，从本义方面来看，“宽”的空间义渐渐演变成距离域；三是，从隐喻演变方面来看，“宽”具有不同的隐喻义，即：气量域、心情域、时间域、制度域、经济域、声音域、范围域、身体域。

在词典释义方面，本文基于《现代汉语大词典》、《标准国语大词典（以下简称《标国》）》对汉语“宽”和韩语“넓다”进行了分析。根据《现代汉语大词典》里的释义，汉语“宽”有六个义项，而它具有形容词、名词、动词词性，而根据《标国》中的释义，韩语里的“넓다（宽）”有一个词性，形容词。

2. 研究问题及研究方法

汉语的“宽”和韩语的“넓다”都是表示空间量度，词性均为形容词。本研究在语言类型学的基础上，结合认知视角对汉语形容词“宽”和韩语“넓다”进行了对比研究，其主要研究范围为语义范畴和词语搭配。本文语料来源主要为BCC语料库和延世大学韩语语料库的相关例句，将苏新春的《现代汉语分类词典》当作划分语义范畴的依据。

本研究在BCC语料库中输入“宽/a”后检索到10000条语料，经过再次提取得到了1358条语料。在延世大学韩语语料库里检索到了与“넓다”相关的22416条语料。但其中不少数据不在于本文的研究范围内，因此经过删除和筛选语料过程，最后得出了共7099条语料。

通过语料分析，我们对汉语“宽”和韩语“넓다”的空间义进行了深入研究，从而细致描写汉、韩之间形容词“宽”和“넓다”的语义范畴和词语搭配上的异同点。

3. 汉语“宽”和韩语“넓다”基本义的共同点及不同点

从基本义方面来看，汉语的“宽”和韩语“넓다”有共同点和不同点，具体内容如下：

一是韩语“넓다”的第一个义项是指“面和地板等面积大”，该义项与汉语“宽”的第一个义项有相同的部分，即“横的距离大”。另外，汉语“宽”的第一个义项里还有一个释义，即“范围广”，而该释义与韩语“넓다”的第四个义项大致相同；二是韩语“넓다”的第二个义项是指“宽度大”，而这也是形容词用法，但在汉语“宽”的词典释义中则是属于名词用法；三是汉语“宽”的第四个义项的释义为“宽大；不压力；不苛求”，与该意思匹配的韩语“넓다”的义项为第三个义项；四是，汉语“宽”的第五个义项的释义为“宽裕、宽绰”，但该释义不在韩语“넓다”的语义范围中；五是，汉语“宽”的第三个义项是属于动词用法，具有“放宽、使松缓”的意思，而与这个语义匹配的韩语词语并不是“넓다”，这则是属于“넓히다（放宽）”的语义范畴内。

4. 汉语“宽”和韩语“넓다”的空间义搭配范畴分析

本文根据苏新春主编的《现代汉语分类词典（以下简称“分类词典”）》里的语义分类范畴对汉语“宽”和汉语“넓다”的搭配词语进行了分析。这部词典里把语义范畴划分为9种，即：生物、具体物、抽象事物、时空、生物活动、社会活动、运动与变化、性质与状态、辅助词。根据该《分类词典》我们将“宽”和“넓다”的空间义搭配范畴进行了对比。

Lang (2001:1258)采用三个木板来指出了“不同空间位置的木板”概念，具体内容如图1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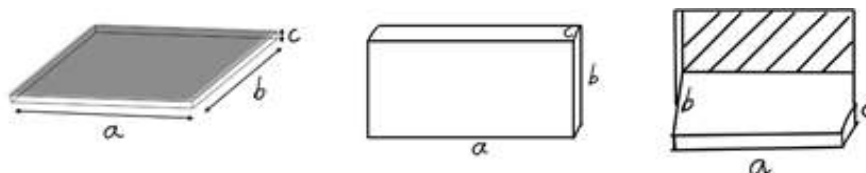


图1. 不同空间位置的木板 (Lang 2001:1258)

根据上图1，我们从汉语“宽”和韩语“넓다”进行了对比，其中对汉语“宽”的认识，我们参见了伍莹（2011：56）的内容。先从汉语的角度看不同空间位置的木板，如下图2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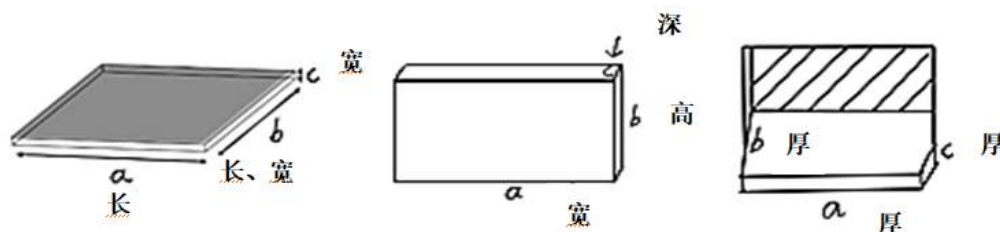


图2. 汉语-不同空间位置的木板 (伍莹 2011:56)

从图2里我们可以看出第一个木板的a、b、c分别为“长”、“长/宽”、“宽”，而第二个木板里a、b、c面分别指出“宽”、“高”、“深”。最后的第三个木板里，a、b、c均为“厚”。下面是以不同空间位置的木板为例对韩语“넓다”进行的分析，其具体分析结果如图3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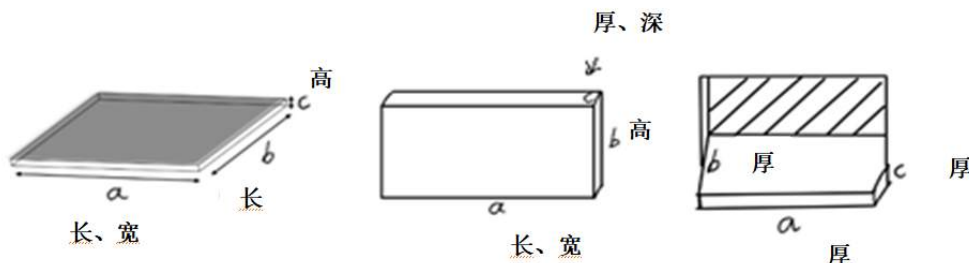


图3. 韩语-不同空间位置的木板

经过韩语中的不同空间位置的木板分析，我们不难发现其结果与汉语截然不同，其具体内容如下：

首先，第一个木板里a、b、c分别指出“长/宽”、“长”、“高”，而韩语里“넓다(宽)”的概念一般用在“横向”平面身上，而不能用在“纵向”。在韩语里c面是可以用来“高”词来表达，不能用“宽”来描写。其次，汉语和韩语对第二个木板的描写方法也有所不同，除了两个语言中的b都指出“高”以外，对a、b的认识有明显的差异。

具体说，韩语中的a面可以用来“길다(长)、넓다(宽)”来描写，但汉语里只能用“宽”，而c面在韩语里可以用来“깊다(深)、두껍다(厚)”这两个词，汉语里只能用“深”。其三，第三个木板的a、b、c面，汉语和韩语里都可以“厚”来描写。

我们在语言类型学角度的基础上，结合上述的《分类词典》里搭配范畴，对与“宽”相关的1358条例句进行了分析。从中我们可以发现其搭配范畴共有7个，即：生物、具体物、抽象事物、时空、社会活动、运动与变化、性质与状态。

本文发现汉语“宽”的词种数最多的为“具体物”范畴，共有42个，而属于“抽象事物”范畴的搭配词出现数量为32次，占第二位。具体占比如下表1：

表1 汉语“宽”搭配词语范畴和占比分析表

序号	搭配范畴	占比 (%)	排序
1	生物	10	3
2	具体物	46.67	1
3	抽象事物	35.56	2
4	时空	4.44	4
5	社会活动	1.11	5
6	运动与变化	1.11	5
7	性质与状态	1.11	5
累计		100 (%)	

根据上表1里的数据，搭配词语范畴的出现频率的排序为具体物>抽象事物>生物>时空>社会活动、运动与变化、性质与状态（从大到小）。

在延世大学韩语语料库中，我们提取了7054条语料，根据苏新春的《分类词典》里搭配范畴，对与“넓다”相关例句进行了分析。但韩语中的“넓다”作形容词用法的时候，该词应要改为“넓은”，因此我们将“넓은”当作提取语料的关键词。这些7054条语料中的语义范畴有6类，即“具体物、生物、抽象事物、时空、运动与变化、性质与状态”。

本文发现韩语“넓다”的词种数最多的也是属于“具体物”范畴，共有160个，而属于“抽象事物”范畴的搭配词出现数量为101次，占第二位。值得注意的是属于“社会活动”范畴的搭配词都没有出现过。具体占比如下表2：

表2. 韩语“넓다”的搭配词语范畴和占比分析表

序号	搭配范畴	占比 (%)	排序
1	生物	9.03	3
2	具体物	51.61	1
3	抽象事物	32.58	2
4	时空	4.52	4
5	社会活动	0.00	7
6	运动与变化	0.32	6
7	性质与状态	1.94	5
累计		100 (%)	

根据上表2里的数据，韩语“넓다”的搭配词语范畴的出现频率的排序为“体物>抽象事物>生物>时空>性质与状态>运动与变化>社会活动”（从大到小）。由此可见，汉语“宽”和韩语“넓다”的基本义和隐喻义在内的搭配词范畴的排序大致相同。

5. 汉语“宽”和韩语“넓다”的搭配词及概念空间

5.1 生物类

在生物类方面，汉语“宽”的搭配词可分为“躯体部分”和“植物”部分，如宽脸、宽林带等，而韩语“넓다”的搭配词还可分为“躯体部分”、“植物”、“自然物”，如“宽额（넓은 이마）”、“宽溪谷（넓은 계곡）”等。与汉语“宽”的搭配词相比，属于生物类的韩语“넓다”的搭配词的概念空间较为广泛。

5.2 具体物

在具体物方面，汉语“宽”的搭配词的语义范畴可分为“布料、地貌、材料、光影、水”等，如“宽布”、“宽河”等，其搭配词的语义范畴也非常广泛，有25个。与此相比，属于具体物类的韩语“넓다”的搭配词的语义范畴仅有11个。如，“大地(넓은 대지)”、“宽碗（넓은 그릇）”等。由此可见，属于具体物类的韩语“넓다”的搭配词能表达的概念空间较少，甚至其数量少于汉语“宽”的隐喻义范畴。

5.3 抽象事物

属于“抽象事物”类的汉语“宽”的搭配词能代表的语义范畴的数量有24种，具体包括“途径”、“目标”、“源头”、“思路”等。通过语料分析，本文发现，汉语“宽”的和韩语“넓다”所能表达的概念空间截然不同。韩语“넓다”的语义范畴仅有16个。这里我们值得关注的是，其所能表达的概念空间的抽象程度比较高，甚至涉及到感情和人际关系等。例如，“宽爱（넓은 사랑）”、“宽音域（넓은 음역대）”、“宽人脉（넓은 인맥）”、“宽交际（넓은 교제）”等等。韩语“넓다”的搭配词及概念空间虽小，但其可表达的语义范畴还包括“爱的深度”“声音的高度”以及“人际关系的紧密度”等。这些隐喻义，在汉语“宽”的搭配词中并未出现。

5.4 时空

从时空类的搭配词方面来看，属于这一类的汉语“宽”的搭配词的语义范畴有四类，即“席位、路线、地方、地点”。属于时空类的搭配词有“卧铺、航道、区域、河

口”，与此相比，韩语“넓다”的概念空间较小，仅有两种，即“地方”和“地点”。具体说，第一类是与“地方”有关的搭配词，如“宽区域（넓은 구역）、宽空间（넓은 공간）、宽世界（넓은 세계）、宽夜空（넓은 밤하늘）”。通过这些例子中本研究发现，对“地方”类的韩语“넓다”的搭配词而言，这都与抽象的空间维度紧密相连。第二类是属于“地点”的搭配词，例如，“宽河川（넓은 하천）、宽江（넓은 강）、宽湖（넓은 호수）、宽太平洋（넓은 태평양）、宽河口（넓은 하구）、宽人工湖（넓은 인공호）”。从这些例子中我们得出一个结论，那就是属于第二类的韩语“넓다”的搭配词都是与“水”有关的词语。另外，在时空类的韩语“넓다”的搭配词中没有包含“席位”和“路线”在内的概念空间。

5.5 社会活动

从社会活动类搭配词方面来看，韩语“넓다”并没有属于该类的搭配词语，而汉语则有两个语义范畴，即“指挥”和“送”。

5.6 运动与变化

从“运动与变化”语义范畴方面来看，汉语“宽”和韩语“넓다”的搭配词数量很少，而且对应的搭配词也不一样。汉语中的“适应”和韩语中的“活动（활동）”能表达的语义不同，但这两个词语的属性基本上有相同之处。换言之，“适应”是一种“随着客观条件变化而作相应的改变”，而“活动”是指“（身体或身体的某个部分）动作”。由此可见，不管是“适应”还是“活动（활동）”，其内部都包含着“变化”义。

5.7 性质与状态

从性质与状态方面，汉语“宽”的搭配词仅有一个，即“宽专业”，而韩语“넓다”的搭配词具有三个概念义，其语义范畴主要包括“性质、能力、情形”。韩语“넓다”的搭配词能表达的语义范畴更为广泛，而其抽象程度也很高。不仅如此，与汉语“宽”相比，韩语“넓다”的搭配词在语义方面具有模糊性，再说，“性格”、“理解力”、“情况”都不能用一个词来形容其具体义和概念义。但汉语的“专业”这一搭配词，可以划分其具体类型。总之，属于“性质与状态”类的韩语“넓다”的搭配词，在语义方面的模糊性非常强，汉语则其模糊程度不高。

6. 结语

本研究从认知视角出发对汉语“宽”和韩语“넓다”的语义范畴及搭配词语进行了语言对比研究。从词典释义方面来看，本文个别选了两部词典，即《现代汉语大词典》和《标准国语大词典》。本研究将这两部词典中的释义当作词性和语义分辨的标准，在形容词词性在内的具有“宽”义的汉韩语料进行了分析。在语料选取方面，我们分别在BCC语料库和延世大学韩语语料库提取了与本研究范围相关的语料。

为了考察汉语“宽”和韩语“넓다”的语义范畴，我们将苏新春的《现代汉语分类词典》当作划类依据，分析结果指出，汉语“宽”的语义范畴有7个，即：生物、具体物、抽象事物、时空、社会活动、运动与变化、性质与状态。而韩语“넓다”的语义范畴为“具体物、生物、抽象事物、时空、运动与变化、性质与状态”。通过本研究我们得出了如下四个结论：

首先，无论是汉语还是韩语，两种语言在“生物”和“时空”类的语义范畴基本上是一致的；其次，韩语“넓다”的汉语对应词，不一定是“宽”，也有可能是“广”，因此我们如果想要准确掌握两个语言中的“宽”义，不仅要理解“宽”义，还得理解“广”义；其三，具有“时空”义的搭配词语中，我们不难发现具有空间义的词语占大数，但无法测量其量度的词语却很多，如“세상(世界)”等。；最后，汉语和韩语两个语言都对“运动与变化”范畴几乎没有关系，语此相关词语的出现频率也非常低。

另外，从搭配词的语义范畴方面来看，汉语“宽”和韩语“넓다”的语义范畴有异同点，其内容如下几点：

一是与汉语“宽”的搭配词相比，属于生物类的韩语“넓다”的搭配词的概念空间较为广泛；二是属于具体物类的韩语“넓다”的搭配词能表达的概念空间较少；三是韩语“넓다”的搭配词及概念空间虽小，但其所能表达的语义范畴较为特殊，例如，“宽音域(넓은 음역대)”等；四是从时空类的搭配词方面来看，对“地方”类的韩语“넓다”的搭配词而言，这都与抽象的空间维度紧密相连，而属于“地点”类的韩语“넓다”的搭配词都是与“水”有关；五是从社会活动类搭配词方面来看，韩语“넓다”不具有相应的搭配词；六是不管是“适应”还是“活动(활동)”，其内部都包含着“变化”义；最后，从语义方面来看，属于“性质与状态”类的韩语“넓다”的搭配词的模糊性程度较高。

因论文篇幅和语料有限，本文中只能探讨了汉语“宽”和韩语“넓다”的一部分语料分析结果，在今后的研究中，将进一步扩大语料范围，并完善论文体系，发挥本研究对汉韩语语言对比研究的重要作用。

参考文献

- Lakeoff George,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In A.Ortony(ed.) Metaphor and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1993
- Lang, Ewald. Spatial dimensional terms. In:M.E. Haspelmath et al.(eds.).:Language Typology and
- Language Universals. An International Handbook. 2, Berlin & NewYork:Mouton de Gruyter, 2001, pp. 1251-1275
- 陈 颖 李治平 从认知角度看空间维度词“宽”的语义演变, 2016
- 权喜静 中韩空间度量形容词的意义对应关系及概念化研究韩国外国语大学博士学位论文, 2019
- 苏新春 主编 现代汉语分类词典商务印书馆, 2013
- 文澜 “宽/窄”类单音形容词的语义演变研究广西大学硕士学位论文, 2017
- 伍莹 现代汉语空间维度形容词语义系统研究武汉大学博士学位论文, 2011
- 伍莹 现代汉语空间形容词“宽、窄”面积义分析, 2013

伍莹 汉语空间形容词“宽”语义系统研究, 2013

阮智富 郭忠新 主编. 现代汉语大词典上海辞书出版社, 2009

张寿康 林杏光 主编 现代汉语实词搭配词典, 商务印书馆, 2002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商务印书馆, 2016

参考网站

BCC语料库 <http://bcc.blcu.edu.cn/>

韩国国立国语院《标准国语大词典》<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延世大学韩语语料库 <https://ilis.yonsei.ac.kr/corpus/#/>

중국어 반복 형식과 그의 의미

— 드라마 〈광표(狂飆)〉를 중심으로 —

양류(楊柳) · 송지현*

<目 次>

【 국문초록 】

1. 들어가기
 2. 형태적 양상
 3. 발화 유형과 화용적 의미
 4. 나오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화용론적 접근 방법으로 중국어 구어에 나타나는 반복 형식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구어적·상황적 맥락이 풍부한 드라마 『광표(狂飆)』의 대사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실제 발화에서 반복은 어떤 형태적 특징을 지니며, 주로 어떠한 발화 상황에서 어떤 유형으로 발생하는가? 둘째, 문자적 의미를 넘어 반복 형식이 지니는 화용적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이러한 의미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 발생하며, 화자가 반복 표현을 사용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이이러한 분석을 통해 언어 사용의 사회적 기능과 인지적 원리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연구 성과는 한국 내 중국어 교재 편찬이나 중국어 교육과 같은 응용 영역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중국어 반복, 중국 드라마, 화행, 발화 유형, 화용론, 인지

1. 들어가기

반복(repetition)은 특정 언어 형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자어족을 비롯한 여러 언어에서 관찰된다(李宇明 1996). 반복은 언어 층위에 따라 형태소·문법 단위에서 실현되는 경우와 담화 차원에서 나타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어의 ‘试试(좀 시도해 봐라)’는 전자에, ‘走走走(가, 가, 가 / 가자, 가자, 가자)’는 후자에 해당한다. 특히 담화 차원의 반복 발화는 일상적으로 빈번히 관찰되며, 아래 대화에서 남편의 응답이 지니는 의미 역시 논의의 대상이 된다.

* 양류(楊柳): 제1저자,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강사);
송지현: 교신저자, 안양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교수)

(1) 妻子：老公，你看这件衣服是不是特别适合我？¹⁾

(아내: 여보, 이 옷 나한테 정말 잘 어울리지?)

丈夫：是是是。

(남편: 응, 응, 응.)

반복은 구어와 문어에서 모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문어에서의 반복은 전통적으로 수사적 장치로 이해되며 특정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劉丹青 2012). 구어에서의 반복은 보다 다양한 담화화용적 기능을 지니며, 이에 관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져 있다. 예컨대 이지원(2019)은 중국어 이인칭대명사 ‘你’의 반복이 조롱, 질책, 명령 행위에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표출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화용적 관점에서 다시 위 예문을 보자. 예문에서 남편은 ‘是(응)’를 세 차례 반복하면서 마지막 해 억지로 답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거듭 반복되는 발화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반어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반복의 기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며, 실제 발화 맥락을 고려한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화용론적 접근을 기반으로, 구어적·상황적 맥락이 풍부한 실제 담화 자료인 드라마 『광표(狂飆)』에서 나타나는 담화 차원에서 실현된 중국어 반복 형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드라마 『광표』는 동명 장편 소설을 바탕으로 한 범죄 수사극이다. 주인공 형사 안신(安欣)과 경찰들이 범죄 조직을 오랫동안 추적하며 맞서는 과정을 보여준다. 중국중앙방송국(CCTV)과 온라인 플랫폼 아이치이(iQIYI)가 공동 제작하였으며, 2023년 1월 14일 CCTV 드라마채널에서 처음 방영되었다. 작품은 방영 직후 중국 전역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다양한 수상을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본 연구는 실제 담화 자료를 분석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실제 발화에서 반복은 어떤 형태적 특징을 지니며, 주로 어떠한 발화 상황 또는 발화 유형에서 발생하는가? 둘째, 문자적 의미를 넘어 반복 형식의 화용적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이러한 의미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 발생하며, 화자가 반복 표현을 사용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따라서 제2장에서는 반복 형식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반복 형식이 나타나는 발화 상황을 규명하고, 이를 어떠한 발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반복 형식이 지니는 화용적 의미·기능을 밝히며,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 및 인지적 차원에서 반복 형식 사용의 동기와 의미 발생 가능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일상 담화에 나타나는 반복 형식의 양상을 살펴보고, 형태와 의미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중국어 구어 담화에서 반복이 지니는 기능을 조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반복의 발화 동기와 의미 생성 가능성을 탐구하여 언어 사용의 사회적·인지적 차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 연구가 주로 이상화된 문장에 집중하여 실제 언어 자료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는 한계(陳新仁 외, 2021:35)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성과는 향후 한국 내 중국어 교재 편찬 및 중국어 교육과 같은 응용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2. 형태적 양상

드라마 『광표(狂飆)』 전 39회의 대사를 대상으로 반복 형식을 조사한 결과, 총 702회의 반복 현상이 확인되었다.²⁾ 반복 형식은 두 차례 반복(이하 AA), 세 차례 반복(이하 AAA), 네 차례 이상 반복(이하 $A \geq 4$), 그리고 타 성분의 삽입이 수반된 반복 형식(이하 $A+a$)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반복 단위 ‘A’는 다음절

1) 예문 출처: https://www.sohu.com/a/204027836_99920697

2) 전통 문법 범주에서 논의되는 동사, 형용사, 양사의 중첩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어휘에서부터 10자 이상의 문장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이러한 반복 형식의 사용은 전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반복 형식은 주로 AA와 AAA 유형에 집중되어 있다. AA와 AAA 형식은 총 617회 출현하여 전체 출현 빈도(Token Frequency)의 88%를 차지하는 반면, $A \geq 4$ (23 token)와 $A+a$ (62 token)는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AAA 유형은 빈도 분포에서 극도의 이산성(離散性)을 보인다. 다시 말해, 소수의 유형이 고빈도로 출현하는 반면, 다수의 유형은 단 한 회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더 나아가, 고빈도 유형들은 대부분 단음절로 구성된 AAA 형식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반복 형식 사용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동일한 ‘A’라 하더라도 반복 횟수에 대한 규범적 제약이 약하며, 다른 성분과 결합하여 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吃饭(밥을 먹다)’은 AA 형식뿐 아니라 AAA 형식으로도 실현된다. 또한 ‘快走(빨리 가다)’는 AA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5회 반복된 형태로도 출현하며, 더 나아가 ‘快走吧走吧走吧(빨리 가자 가자 가자)’와 같이 다른 성분이 삽입된 변형된 반복 형식으로도 실현된다.

네 번째 특징은 A 구성 요소 가운데 ‘快’로 시작하는 유형이 집중적으로 출현한다는 점이다. 다른 유형들이 구성 형태소를 공유하는 상황이 거의 없는 것과 대조적으로, ‘快X’ 형태의 유형은 총 10개가 확인되었다.

3. 발화 유형과 화용적 의미

출현하는 텍스트 맥락을 보면, 반복 형식이 모두 대화 속에서 인접쌍(adjacency pair)의 일부로 실현된다. 예컨대 질문에 대한 대답, 초대나 요청에 대한 수락 또는 거절, 칭찬에 대한 겸손 표현 등과 같은 담화 상황에서 반복 형식이 사용된다. 이러한 대화 인접쌍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2) 王秘书: 这个, 李有田送的加油卡, 你拿去用。

(왕 비서: 이거, 리유텐이 준 주유카드인데, 가져가서 써요.)

李响: 别别别。

(리상: 아냐 아냐 아냐.)

반복 형식은 의도적 발화와 비의도적 발화로 구분될 수 있다. 비의도적 발화는 주로 화자가 당황하거나 두려운 상황에서 다음 발화를 즉시 산출하지 못하거나, 긴장으로 인해 직전에 산출한 발화를 반복하는 경우, 혹은 말실수·말더듬증 등 개인적 언어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도적 발화는 정보확인형, 지시형, 표현형, 언약형, 단언형, 호명형 발화로 분류되며,³⁾ 일부 반복 형식은 이미 관습적 용법으로 정착되어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발화를 언어 행위(화행)로 간주하고, 반복 형식에 대한 분류는 Searle(1976)의 화행 이론을 근거로 하였다. 그는 ‘발화수반적요점(illocutionary point)’, ‘적합방향(direction of fit)’, ‘표현되는 심리상태(expressed psychological state)’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화행을 다섯 범주로 구분하였다. 즉, 단언, 지시, 언약, 표현, 선언이다. 본고에서 고찰하는 반복 형식에는 선언 유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발화 유형	출현빈도	비율
지시	304	43%
언약	133	19%
단언	113	17%
표현	96	13%
호명	47	7%
정보확인	9	1%

〈표 1〉 반복 형식의 발화 유형

정보확인형 발화는 단순히 정보 확인 기능을 수행하는 발화 유형으로, 화자가 직전 발화를 반복하여 청자로부터 확인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지시형 발화는 주로 명령, 요청, 충고, 제안, 주문, 요구, 질문 등의 형태로 실현되며, 전형적으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의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의문문의 형식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 지시형 반복이 주로 나타나는 의미 범주는 아래 표를 통해 제시된다.

의미 범주	출현빈도 및 비율	주요 유형 및 빈도
위치 이동	90회(30%)	来(45회)
		走(22회)
		기타(去, 跑, 让开, 后退, 起来 등)
일상 예의 표현	37회(12%)	(请)坐(21회), (请)进(7회), 喝(4회), 吃饭(5회) 등
‘빨리’	31회(10%)	快/快点(29회), 赶紧 (2회)
‘됐다. 됐어’	21회(7%)	行了(17회), 好了(2회), 算了(2회)

〈표 2〉 자주 사용된 지시형 반복 형식

지시형 발화에서 반복은 다급한 상황이나 일상적 관습으로서의 예의적 표현이라는 맥락 속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화자의 재촉, 반가움, 환대 등 화자의 마음이 전달된다. 또한 ‘됐어/그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상대방의 현재 발화나 행동을 중지시키고 주의를 환기하며 화제를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 ‘~제발’이라는 의미로 기능하면서 지시의 힘, 즉 발화수반력의 강도를 강화하는 화용적 기능도 수행한다.

언약형 발화는 화자가 미래의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발화 행위로, 약속거절·위협·서약 등이 이에 포함된다. 드라마에서 확인된 언약형 반복 발화의 상위 10개 유형은 ‘好好好’(30회), ‘好好’(9회), ‘好的好的’(4회), ‘行行行’(9회), ‘行行’(3회), ‘不不不’(17회), ‘别别别’(9회), ‘不用(了)不用(了)’(7회) 등이었으며, 이들 유형이 전체 언약형 발화의 67%를 차지하였다.

언약형 반복, 예컨대 고빈도로 나타나는 ‘好好好’, ‘行行行’, ‘不不不’은 ‘그러자’, ‘아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긍정은 긍정대로, 부정은 부정대로 기능한다.

(3) 街坊：快点搬。

(이웃: 빨리 옮겨요.)

唐小虎：好好好。

(긍정적 대답)

(탕샤오후: 네, 네, 네.)

그러나 이러한 언약형 반복은 표정이나 제스처와 결합할 경우, ‘아닌데’, ‘정말 그런가’와 같은 반어적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4) 高启强：要惊动警察的话我还能回来吗？

(가오치창: 경찰이 출동했으면 내가 여기 돌아올 수 있었겠어?)

高启盛：太危险了，以后这种事情我必须陪你去。

(가오치성: 너무 위험해. 앞으로 이런 일은 반드시 내가 함께 가야 해.)

(高启强用手指指着弟弟高启盛)

(가오치창이 손가락질하며 동생 가오치성을 압박하듯 가리킨다)

高启盛：好好好。谈得怎么样？ (반어)

(가오치성: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일이 어떻게 된 거야?)

또한 강한 부정의 맥락에서는 발화수반력의 강도를 강화하는 화용적 기능을 수행한다.

단언형 발화는 화자가 자신이 인식한 세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을 표현함으로써, 특정 명제를 참 또는 거짓으로 규정하는 발화 유형이다. 전형적인 단언형 발화에는 진술, 주장, 예측 등이 포함된다. 드라마에서 나타난 단언형 반복 발화 가운데 상위 10개 유형은 ‘对对对’(24회), ‘是是是’(12회), ‘是是’(5회), ‘明白明白’(4회), ‘不是不是’(2회), ‘不是不是不是’(2회), ‘没没’(5회), ‘没有没有’(4회), ‘有有有’(2회), ‘挺好的挺好的’(2회) 등이었으며, 이들이 전체 단언형 발화의 54%를 차지하였다.

(5) 陈书婷：怎么，我不是高家人？

(천슈팅: 왜, 나 고 씨 집안 사람 아니야?)

唐小虎：是是是。

(탕샤오후: 그럴리가요 그럴리가요.)

단언형 발화의 대표적 예로 ‘对对对’, ‘是是是’, ‘没没’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사회적 지위나 심리적 지위가 낮은 화자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상대방에게 사용하는 발화로 기능한다. 대답 발화로써 단언형 반복은 앞서 발화된 상대방의 말이 옳다는 화자의 판단을 드러내며, 동의나 부정의 강도는 반복을 통해 강화된다. 아울러 일상적인 예의적 표현을 포함하여, 단언형 발화는 반어적 용법을 지니기도 한다.

표현형 발화는 기쁨이나 슬픔 등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화행으로, 감사, 사과, 위로, 인사와 같은 발화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드라마에서 나타난 표현형 반복 발화 가운데 상위 10개 유형은 ‘没事没事’(18회), ‘没事没事没事’(2회), ‘你好你好’(9회), ‘谢谢谢谢’(8회), ‘谢谢谢谢谢谢’(3회), ‘抱歉抱歉’(4회), ‘我错了我错了’(3회), ‘对不起对不起’(3회), ‘再见再见’(2회), ‘辛苦辛苦’(2회)로 확인되었으며, 주로 만남 및 이별 인사, 감사, 사과, 위로 등 일상적 예의 표현으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어의 일상적 예의 표현은 반복이라는 수단을 매우 빈번하게 활용한다. 이러한 반복은 화자의 반가움, 아쉬움, 죄송함, 위로하는 마음이 강렬하고 진심어린 것임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호명형 발화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관직, 관계적 호칭을 부르는 발화로, 총 38가지 유형에서 47회 출현하였다. 호명형 반복 형식의 발화 의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한 발화로, 이는 호명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반복적으로 호명함으로써 화자와 청자가 친밀한 관계임을 암시하거나 긴장된 분위기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발화로,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호감을 형성하거나 상대방이 화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중지시키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상과 같이, 드라마 『광표(狂飙)』에 나타난 반복 형식은 모두 대화적 인접쌍의 일부로 실현되며, 의

도적 발화의 경우 지시형·언약형·단언형·표현형·호명형·정보확인형의 여섯 가지 발화 유형으로 분류됨을 확인하였다. 각 유형은 긴급한 상황이나 상하 관계에서의 발화 등 특정한 담화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은 반복 형식이 단순한 언어적 수단을 넘어 화용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화용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반복의 화용적 의미는 정보 확인 의도의 전달, 재촉과 같은 심리적 태도의 표출, 강한 지시 의도의 전달, 동의나 거절 의사의 강조, 불가피한 수용 의사 및 반어적 의미의 표현, 강하게 감사사과위로 등 감정의 표출 등으로 나타나며, 일부 반복 형식은 일상적 관습 표현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Grice(1989)의 협력 원리와 대화 격률에 비추어 볼 때, 반복은 양(quantity)의 격률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화자가 원칙적으로 협력의 격률을 준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특정 격률을 위반할 때, 대화 함의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화자가 대화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발화하는 것은 분명한 원인을 지닐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원인을 바탕으로 발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러한 효과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복이라는 기제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의미를 지닌 발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 발화가 초래한 효과 및 영향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주목 환기는 화자가 반복 발화를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주목 환기 동기의 실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재의 행위를 중단하고, 이어지는 발화나 행동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지닌다. 다음으로, 공손성의 유지와 강화 역시 반복 발화를 유발하는 핵심적 동기라 할 수 있다. 셋째, 인간관계가 멀거나 대화 분위기가 긴장된 상황은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므로, 화자는 반복 표현을 통해 친밀감을 암시하고 대화를 보다 편안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발화수반력과 감정적 강도를 강화하는 것 또한 화자가 반복을 활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주목 환기, 공손성의 유지와 강화, 친밀도의 증진, 발화수반력과 감정의 강화는 반복이라는 수단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인지적 원리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지적으로 Lakoff(1980)가 제시한 [형태의 많음은 내용의 많음]이라는 개념적 은유에 기반을 둔다. 여기서 ‘형태의 많음은 내용의 많음’에서 말하는 ‘내용’은 반복에 있어 보다 정확히 동질적인 양의 증가로 이해해야 한다.

4. 나오기

본 연구는 드라마 『광표(狂飆)』에 나타난 중국어 반복 형식을 화용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반복은 단순한 언어적 현상을 넘어 발화 맥락 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이 드러났다.

첫째, 반복은 주로 지시형·언약형·단언형·표현형·호명형·정보확인형 발화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은 긴급한 상황, 상하 관계, 일상적 예의 표현 등 특정한 담화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둘째, 반복의 화용적 의미는 재촉과 같은 심리적 태도의 표출, 강한 지시 의도의 전달, 긍정 및 반어적 의미 표현, 강렬한 감정(감사사과위로 등)의 표출로 나타났다. 일부 표현은 관습적 예의 표현으로 굳어져 반복 자체가 하나의 담화 규범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셋째, 반복의 사용 동기는 주목 환기, 공손성의 요구, 친밀도 증진 및 편안한 분위기 조성, 발화수반력과 감정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지적으로 [형태의 많음은 내용의 많음]이라는 은유적 원리에 근거하여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어 구어 담화 속 반복이 단순한 강조나 수사적 장치가 아니라,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을 조율하고 사회적·인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 장치임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어 화용 연구뿐 아니라, 중국어 교육 및 교재 개발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숙·이지은(2016), 「‘VV’, ‘V—V’, ‘V—下’ 형식의 화행 의미 고찰 연구—『編輯部的故事』와『渴望』을 중심으로」, 『中國學報』, 78집:63-89.
- 이지원(2019), 「‘중국어 이인칭대명사 ‘你’의 반복사용에서 나타나는 담화-화용적 기능」, 『담화와 인지』, 제26권 4호:67-96.
- 김현철·권문란(2012), 「현대중국어 ‘VV’형 동사중첩식의 의미고찰」, 『중국어문학회논문집』, 16호:199-228.
- 김하영(2016),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듣기 평가 대화 지문의 화행 분석: Searle(1976)의 화행 이론을 근거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유진(2019), 「맥락주의 관점에서 본 ‘화행의미’ 결정과정- 르카나티의 이론을 중심으로」, 『독어교육』, 제63집:77-102.
- 김소희(2011), 『미국 드라마 『Friends』에 나타난 화행 분석: Searle(1976)의 화행 분류를 근거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刘丹青(2012), 「原生重叠和次生重叠: 重叠式历时来源的多样性」, 『方言』, 2012年 第1期.
- 李宇明(1996), 「论词语重叠的意义」, 『世界汉语教学』, 第35期.
- 陈新仁等(1996), 『语用学新发展研究』, 北京: 清华大学出版社.
- Brown, P & Levinson, S(1978),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ice, H. P. (1989), 『Studies in the Way of Wor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earle, John R. (1979), 『Expression and Meaning: Studies in the Theory of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n Huang(2007), 『Pragma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摘要 】

本研究基于情感分析的方法，对韩国教育广播电台（EBS）出版的《初级汉语》月刊教材进行了系统的课文文本情感分析。通过对教材文本中情感词汇的情感类型、情感极性、出现频率等各个方面的考察，我们可以较为清楚地掌握该教材的情感表达风格和情感编写态度，并为教材日后的编写提出相关的建议。

研究分析结果表明，在情感类型方面，《初级汉语》教材课文文本包含《大连理工大学情感词汇本体库》中的20类情感类型，其中占比最高的情感类型为“赞扬（PH）”、“喜爱（PB）”、“快乐（PA）”，占比最低的情感类型为“愤怒（NA）”、“慌（NI）”、“思（PF）”。从整体上看，积极正向情感是主导，占比为65.84%，出现总频数为1274次；负向消极情感较少，占比为34.16%，出现总频数为661次。教材在情感表达积极正面，在情绪传达上愉悦、友好，文本语气温和、平稳，适用于初级汉语学习者与自由学习者，有利于减轻学习者的语言学习焦虑，营造良好的学习氛围，增强语言学习自信与语言学习效果。同时，负向情感词汇占比少但种类丰富，且集中在批评、判断、思考等主题，为学习者留有一定的理性与思考空间，能够锻炼学习者真实的交际能力。

在情感极性方面，《初级汉语》教材文本中的褒义词汇占主导地位，在2018年至2024年间情感极性相对频率始终保持在最高位置，2023年达到最高值；中性词的情感极性相对频率处于褒义与贬义之间，呈温和波动上升趋势；贬义词的情感极性相对频率虽逐年稳步上升，但始终处于最低位置，其中2019年最低，仅0.543，2025年最高，达到1.130。这表明教材在保持友好积极的情感表达的同时，在情感输出上有更加客观、真实、丰富的趋向，这不仅有利于完善学习者的语言表达能力，还有利于提高语言学习者的真实交际能力。

在情感词汇频率方面，《初级汉语》教材文本的高频词汇以积极正向词汇为主导，如“喜欢、好吃、客气、快乐、舒服、恭喜、可爱”等，这为学习者提供积极的情感支持的同时，能够激发学习者的学习热情。同时，教材中包含了一定比重的、能够运用于语言交际的中性词汇或否定词汇，如“对不起、小心、

* 延世大学 中语中文系，讲师

不好意思、麻烦、打扰、担心、误会”等，帮助学习者形成更加真实完整的情感表达体系。另外，□初级汉语□教材中大量贴近真实生活的情感表达能够增强初级学习者的语言表达动机，刺激学习者开口表达自己的喜好。不过，教材中贴近中国人现实生活和文化交际的部分词汇，如“贵姓、发财、元宵”等，也存在实用性与难度兼具的问题。最后，教材中大量的“喜欢、对不起、讨厌、不好意思、开心”等情感词汇借助广播媒介的配套优势，通过“加工层次理论”，配合课文下方的插图，很好地弥补了由于广播配套月刊教材的课文篇幅限制带来的语境构建不足问题。建议充分发挥广播优势，在课文中适当插入相关背景音效，为汉语学习者构建更加真实的语言情境。

参考文献

Craik, F.I.M. & Lockhart, R.S., “Levels of processing: A framework for memory research”,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1(6), New York, Academic Press, 1972.

高凌飏,「关于教材评价体系的建议」,『全球教育展望』 (04), 北京师范大学, 2002.

公确多杰·索南才让·才藏太,「融合词典的BERT-BiGRU的藏语句子情感分类方法」□计算机工程与设计□ 46(03), 中国图学学会, 2025.

卮丽湛,「教材评价的本质及其价值分析」,『教育研究』 (07), 中国教育科学研究院, 2002.

김보라,「러시아어 텍스트의 감성분석: 주요 도구와 활용법」,『노어노문학』 36(4), 한국노어노문학회, 2024.

김현철,「關於韩国的汉语教学现状與发展」,『중국어문학논집』 53, 한국중국어문학회, 2008.

김현철,「韓國 中文科 大學院의 現況과 未來 展望」,『중국어문학논집』 137, 한국중국어문학회, 2023.

김혜림,「수능 중국어 교재 내 ‘V+个+X’ 구조 분석 : EBS 2022, 2023학년도 교재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23.

刘金芳·杨蓉蓉,「从Facebook“孔子学院”关键词看中国文化的海外传播 - 基于python 的数据采集与情感分析」□한중언어문화연구□ 56, 한중언어문화학회, 2023.

- 买买提阿依甫·吾守尔·斯拉木·帕丽旦·木合塔尔·杨文忠, 「基于LDA与深度神经网络的维吾尔文情感分类」 □计算机仿真□ 36(10), 中国仿真学会, 2019.
- 무봉·설산(薛珊)·김현철, 「韓國中文教育發展特點、困難及啟示」, 『중국어문학논집』 138, 한국중국어문학회, 2023.
- 徐琳宏·林鸿飞·潘宇·任惠·陈建美, 「情感词汇本体的构造」, 『情报学报』 27(2), 中国科学技术信息研究所, 2008.
- 薛하얀, 「EBS ‘중국어 I’ 연계교재의 적합성 연구 : 문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16.
- 孙妮·李海峰, 「大数据下网络评论情感分析方法的研究」, 『科技创新』 (33), 中国高科技产业化研究会, 2017.
- 신나래, 「중국어 2009 개정 교육과정 기본어휘와 교과서·EBS 교재·수능문제와의 연계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2017.
- 안혜란, 「중국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와 수능 EBS 교재의 연계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5.
- 杨佳能, 「基于语义分析的中文微博情感分类研究」, 广东外语外贸大学, 2014.
- 王宁, 『教材分析论纲』, 河南大学, 2022.
- 이민행, 「독일어 텍스트의 감성분석 연구」, 『독일언어문학』 85,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19.
- 이수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국어 I 과 EBS연계정책의 연계성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18.
- 이수현·이선중,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정도부사 교육 내용 연구-감성분석 접근법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38, 전국국어교사모임, 2024.
- 이지선, 「< EBS FM Radio 초급중국어 > 교재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

- 이현경·김종배, 「R 프로그램을 이용한 SNS상의 모바일 기기 사용자 감성분석」,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5),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17.
- 任帅, 『面向语义特征的电影评论情感分类研究』, 东北林业大学, 2019.
- 张圣声, 『基于微博平台的产品评论情感分类研究』, 广东外语外贸大学, 2015.
- 赵亚欧·张家重·李贻斌·付宪瑞·生伟, 「融合基于语言模型的词嵌入和多尺度卷积神经网络的情感分析」, 『计算机应用』 40(3), 中国科学院软件研究所, 2020.
- 贺海玉, 「大数据下的网络评论情感分析研究与实现」, 『电脑知识与技术』 19(18), 中国科技期刊编辑学会, 2023.
- 韩国教育广播电台, 『EBS 공식 홈페이지』, <https://www.ebs.co.kr/>
- 홍문표, 「독일어 감정사전을 활용한 감성분석」, 『독어학』 30, 한국독어학회, 2014.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기조강연

박정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AI 시대,
중어중문 연구자 · 교육자의
경쟁력과 미래 전망

AI 시대, 중어중문 연구자·교육자의 경쟁력과 미래 전망

박정원*

존경하는 학회 회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인류 지성사의 거대한 전환점 위에서, “AI 시대, 중어중문 연구자·교육자의 경쟁력과 미래 전망”이라는, 우리 모두의 현재이자 미래가 걸린 목직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의 동력이 되고 인쇄술이 지식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것과 비견될, 혹은 그 이상의 파급력을 지닌 변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AI), 특히 인간의 창의적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과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s, LLMs)의 등장은 더 이상 공상 과학의 영역이 아닌, 우리의 연구실과 강의실 문턱을 넘어 학문과 교육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기술적 파도는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텍스트 해석의 방법론은 유효한가?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육자의 역할은 어떻게 재정의되어야 하는가? 나아가, 인간의 고유한 지적 활동이라 여겨왔던 사유와 창작의 과정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은 중국어문학을 포함한 인문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를 넘어, 학문 공동체의 정체성과 생존에 관한 실존적 질문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과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의 연구와 교육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 다섯 가지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축으로 삼아, AI 시대 중어중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을 여러 선생님과 함께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AI 기술, 특히 언어 처리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했으며, 이것이 중어중문학 연구와 교육의 현장에 어떤 혁신적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단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중어중문학계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진단하겠습니다.

셋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전략과 전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 대학, 그리고 학회, 개별 연구자 및 교육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넷째, 현재의 AI를 넘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초지능(Artificial Superintelligence, ASI)의 도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미래 연구와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모할 것이며 그 속에서 인간 고유의 역할과 가치는 무엇인지 진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여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며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 AI 기술 발전 현황과 교육·연구 결합의 구체적 가능성

AI 기술의 발전은 더 이상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질적 도약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 기술적 빅뱅은 인문학, 특히 언어와 텍스트를 핵심 연구 대상으로 삼는 중어중문학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1) 기술적 도약: 단순 흐름을 넘어선 지적 파트너

오늘날 AI 기술의 혁신은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각각 중어중문학 연구와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의 고도화: 과거의 기계 번역이 문법적 오류와 어색한 표현으로 가득했다면, 오늘날의 NLP 기술, 특히 트랜스포머(Transformer) 아키텍처에 기반한 모델들은 문장의 표면적 의미를 넘어 문맥적 뉘앙스, 화자의 의도, 심지어 아이러니와 같은 수사적 장치까지 파악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 번역을 넘어, 고문(古文)의 현대어역, 방대한 문헌의 자동 요약, 특정 텍스트의 문체 분석 및 모방 등 고도의 언어 처리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ML)과 딥러닝(Deep Learning)의 심화: 머신러닝, 특히 다층 신경망을 활용하는 딥러닝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 속에서 인간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패턴과 규칙성을 식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가의 위작(偽作)을 판별하기 위해 진품의 문체적 특징(평균 문장 길이, 특정 접속사 사용 빈도, 단어 분포 등)을 학습하여 위작의 통계적 이질성을 감지하거나, 시대별로 특정 개념어(예: ‘天’, ‘仁’)의 의미망이 어떻게 변천해왔는지를 계량적으로 추적하는 연구가 가능해 집니다.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s, LLMs)의 창발적 능력: GPT-4, LLaMA, Gemini 와 같은 LLMs 는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고 요약하는 수준을 넘어, 주어진 프롬프트에 따라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특정 주제에 대한 비평적 에세이 초안 작성, 두 가지 다른 사상(예: 공자와 장자)의 가상 대화 구성, 특정 시인의 문체를 모방한 새로운 시 창작 등, 과거 인간의 고유한 창의적 영역으로 간주되던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연구 패러다임의 전환: '읽기'에서 '분석하고 질문하기'로의 전환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중어중문학 연구의 방법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연구가 개별 연구자의 정독(close reading)과 직관에 크게 의존했다면, 이제는 거시적 분석(distant reading)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통한 거시적 담론 분석: 예를 들어, 《사기(史記)》부터 《청사고(淸史稿)》에 이르는 이십사사(二十四史) 전체를 디지털 텍스트화하여, ‘효(孝)’라는 키워드가 각 왕조의 정사(正史)에서 어떤 인물, 사건, 제도와 함께 등장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라는 이념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어떻게 재해석되고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는지 그 거시적 변화의 흐름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한 사회·지성사 복원: 《세설신어(世說新語)》나 당대(唐代) 시인들의 교류를 담은 문헌들을 기반으로 인물 간의 관계망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교류했으며, 어떤 인물이 지식 네트워크의 허브(hub) 역할을 했는지, 특정 학파나 문학 유파가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되었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텍스트 뒤에 숨겨진 사회적, 지성사적 구조를 입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주제 모델링(Topic Modeling)을 통한 숨겨진 주제 발굴: 《홍루몽(紅樓夢)》과 같이 방대한 분량의 텍스트에 주제 모델링을 적용하여,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군(예: ‘가족 내의 권력 관계’, ‘개인의 운

명과 초월적 힘’, ‘물질적 세계와 정신적 가치’)을 통계적으로 추출하고, 각 주제가 작품의 전개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자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새로운 연구 가설을 생성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 방법론의 혁신: 개인화, 체험화, 상호작용화

교육 현장에서 AI의 잠재력은 더욱 무궁무진하며, 전통적인 교수자 중심의 강의 모델을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체험형 모델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s, ITS): 학생 개개인의 중국어 작문 과제를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법 오류, 부자연스러운 어휘 선택 등을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해당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문법 설명과 연습 문제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수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24시간 개인 교사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통한 몰입형 문화 체험: 학생들은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당나라 시대의 장안 거리를 거닐며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체험하거나, 소동파(蘇東坡)가 유배되었던 황주(黃州)를 가상으로 방문하여 그의 작품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AR 기술을 활용하면, 박물관의 갑골문 유물에 스마트폰을 비추었을 때 해당 문자의 해석과 관련 용례가 3D 그래픽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등,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AI 기반 발음 및 성조 교정 솔루션: 학습자가 중국어를 발음하면, AI가 원어민의 발음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여 어느 부분의 혀 위치가 잘못되었는지, 성조의 높낮이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 개별적인 발음 교정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을 활용한 중국어문 교육·학습 웹앱: 학습자가 단순히 문법적 정확성을 넘어 텍스트에 담긴 고유의 분위기, 어조, 감성(Vibe)을 코딩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직접 생성해보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이백(李白)의 시 <월하독작(月下獨酌)>을 분석하면, 앱이 ‘낭만적’, ‘탈속적’, ‘호방함’과 같은 감성 키워드와 함께 해당 분위기를 구성하는 핵심 어휘(예: 月, 影, 舞)와 문장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나아가 학습자가 ‘고독’이라는 감성 코드를 입력하면, AI가 두보(杜甫)나 유종원(柳宗元)의 문체를 모방하여 ‘고독’의 분위기를 담은 새로운 문장을 생성해주는 창작 훈련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의 지식 암기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문학적 감성과 스타일의 구성 원리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체득하게 함으로써, 수준 높은 문학 감상 능력과 창의적 글쓰기 역량을 동시에 함양시키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외에도 노래와 영화 기반 미디어 콘텐츠, 중국어 통번역 웹앱, 다양한 게임형 중국어 학습 웹앱, 중국 역사문화 자원 타임라인 웹앱 등의 개발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금일 중국어 교육(5) 세션에서 “AI 기반 바이브 코딩 중국어문 교육 웹앱 제작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AI는 더 이상 연구와 교육의 보조 도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연구자에게는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연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지적 증강(Intellectual Augmentation)’의 파트너이며, 교육자에게는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창의적이고 몰입적인 교육 환경을 설계하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중어중문학계의 현황 진단: 위기의 본질

이처럼 눈부신 기술적 진보와 혁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떠합니까? 안타깝게도 한국 중어중문학계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과 익숙한 관성에 안주하며 점차 고립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1) 고전적 방법론에 대한 고착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부재

한국 중어중문학 연구와 교육의 현장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론의 정체: 오늘날 새로운 AI 기반 도구와 방법론은 텍스트 연구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패턴 인식, 주제 모델링, 네트워크 분석은 방대한 텍스트 자료 속에서 거시적 구조와 사회문화적 맥락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이미지·음성·영상 자료까지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는 인문학적 해석의 범위를 기존 문헌학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AI 활용에 대한 논의와 실제 적용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소수 연구자들만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인문학적 연구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인문학은 전통적 고증학의 토대를 유지하면서도, AI를 통해 인간의 해석적 상상력을 보완·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 방식의 경직성: 강의실에서는 여전히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주입식 문법 교육과 문학사 암기가 중심을 이룹니다. 번역기와 AI 튜터가 기본적인 언어 학습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지식의 ‘전달’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AI와 협업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길러주기보다는,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암기와 정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합니다.

2) 시대적 불일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세대 간 단절

이러한 내적 정체는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맞물려 심각한 불일치를 낳고 있습니다.

글로벌 학문 지형과의 괴리: 현재 북미, 유럽, 심지어 중국 본토의 인문학계에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제 간 융합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계량적, 공간적, 네트워크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학문적 성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연구 트렌드에서 소외된 채, 우리 학계가 폐쇄적인 틀 안에서 반복적인 주제의 연구에만 머무른다면, 국제 학계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은 시간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의 소통 실패: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일방적인 강의와 텍스트 암기 위주의 학습 방식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상호작용적이고, 시각적이며, 기술 친화적인 학습 경험을 원합니다. 학문 자체의 깊이와는 별개로, 그것을 전달하고 함께 탐구하는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면, 우리는 미래 세대로부터 외면받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3) 위기의 본질: 패러다임 전환 실패에 따른 존립 기반의 약화

따라서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취업률 하락이나 학과 통폐합과 같은 현상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근저에는 학문적 패러다임 전환의 실패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기술 변혁 앞에서 기존의 지식 생산 및 전달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창조해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전환에 실패할 경우, 중어중문학은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비판하는 살아있는 학문이 아니라, 소수만이 향유하는 박제된 과거의 유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제적 경쟁력 상실, 사회적 영향력 약화, 그리고 미래 세대와의 단절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학문 공동체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3. 위기 돌파를 위한 전략과 기술: 국가·대학·개인의 유기적 융합

이 심각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개별 연구자의 고군분투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국가, 대학, 그리고 학회, 개별 연구자 및 교육자가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삼위일체가 되어 변화를 이끌어가는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디지털 인문학 인프라 구축

고품질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 구축 및 표준화: 모든 연구의 기초는 데이터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한국고전번역원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중국 고전 문헌 및 관련 자료들을 통합하고, AI가 학습하기 용이한 형태(예: TEI XML 형식)로 정제하여 공개하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급합니다. 이는 단순한 원문 이미지 스캔을 넘어, 정교한 메타데이터와 상호참조 기능이 포함된 고품질의 ‘디지털 코퍼스’ 구축을 의미하며, 이는 미래 중어중문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학제 간 융합 연구 프로젝트(Fusion Research Projects)의 전략적 육성: “중문학+AI”, “중국어+공간정보시스템(GIS)+AI 타임라인 플랫폼”, “중국철학+데이터 시각화”와 같은 창의적인 학제 간 융합 연구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가 필요합니다. 인문학자들의 창의적인 질문과 공학자들의 기술적 해결 능력이 결합될 수 있는 연구 플랫폼을 마련하고, 초기 단계의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장려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이 요구됩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AI 개발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인문학과 AI 융합 활용에 대한 정책이나 대안을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인문학 데이터 과학자 양성 지원: 인문학적 소양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겸비한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대학원 과정의 특성화 트랙 신설 지원(AI 공통 교육과정 개발), 해외 우수 디지털 인문학 센터와의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대학과 학과의 과감한 혁신: 교육과 연구 시스템의 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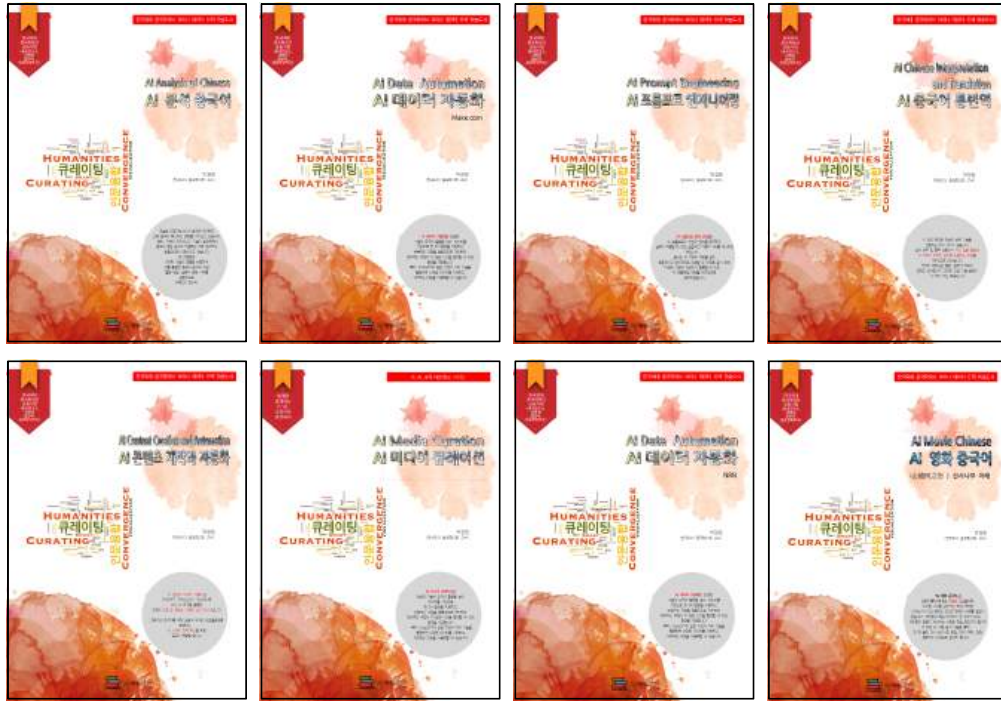
변화의 파도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파도를 일으키는 주체가 될 것인가. 대학과 학과의 미래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점진적 개선을 넘어, 학문의 DNA 자체를 바꾸는 과감하고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향후 인간 교강사와 아바타 교강사가 강의 경쟁을 하는 시대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교과 과정의 전면적 재설계: 인문학과 데이터 과학의 완전한 융합

기존 교과 과정에 몇 개의 디지털 과목을 추가하는 소극적 방식을 넘어, 학문 체계의 근본적인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어학, 문학, 사학, 철학이라는 전통적 칸막이를 허물고, 그 중심에 'AI,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세워야 합니다.

‘디지털 원어민’ 인문학도 양성: 1학년 과정부터 ‘인문학도를 위한 바이브 코딩’, ‘텍스트 데이터 분석’, ‘AI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와 같은 과목을 전공 기초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고전 원문을 읽듯 AI 프롬프트를 기획, 작성하고, 문학 작품을 비평하듯 데이터의 편향성을 비판하는 ‘바이링귄(Bilingual)’ 인재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전과 AI의 만남: ‘AI 윤리와 인문학적 성찰’, ‘디지털 기술로 본 중국 고대사’와 같은 융합 교과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고전적 텍스트에서 얻은 통찰력으로 현대 기술의 문제를 분석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해 인문학적 질문에 답하는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핵심 과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 배양을 위한 문학작품 읽기, 음악 감상, 그림과 사진 분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AI 인문학 팩토리(AI Factory)’ 구축: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혁신 엔진

단순한 실습실을 넘어, 학과의 심장부 역할을 할 혁신의 허브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곳은 이론이 현실이 되고, 개인의 연구가 공동의 창작으로 진화하는 ‘AI 인문학 팩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최첨단 인프라 구축: 현재 대학의 현실에서는 요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반 텍스트 분석,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 프롬프팅 아카이브 등이 가능한 컴퓨팅 자원과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학문 공동체의 융광로: ‘AI 인문학 팩토리’는 학부생들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대학원생들의 심화 연구, 교수들의 학제 간 융합 프로젝트가 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문 공동체의 융광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학(AI), 디자인, 사회과학 등 다른 전공의 학생 및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통적인 인문학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지식이 탄생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3) 개별 연구자·교육자의 능동적 변신: 지식의 소비자에서 질문의 설계자로

연구자, 텍스트 해석가에서 ‘데이터 해석가’로의 전환: 이제 연구자는 단순히 텍스트를 깊이 읽는 독해자를 넘어,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 도구를 활용하며, 그 결과 속에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데이터 기반 질문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파이썬과 같은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와 바이트 코딩을 결합하여 텍스트 마이닝, 주제 모델링과 같은 분석을 직접 수행하거나, 최소한 공학자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혀줄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는 과정입니다. 바이트 코딩은 진정한 인문학의 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경험 설계자’로의 변모: AI가 지식 전달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미래의 강의실에서, 교육자의 역할은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AI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안내하며, 그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길러주는 ‘학습 경험 설계자’이자 ‘프로젝트 멘토’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AI를 경쟁자나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교육 파트너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4) 중국학계의 “범학회 AI 교육단” 구성과 운영

단순한 협력 체계를 넘어, 학계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거대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곳은 각 학회가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는 것을 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교육 혁신을 창출하는 ‘범학회 AI 교육단’이 되어야 합니다.

허브 플랫폼 구축: 범학회 AI 교육단은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과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중앙 허브여야 합니다. 인문학, 공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들이 이곳에 모여 공동 교과를 개발하고, 최신 AI 기술을 인문학적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실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학문적 소통을 촉진하고, 단일 학문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혁신적 결과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인프라 지원: 교육단은 AI 기반 텍스트 분석,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가 가능한 연구 인프라를 학문 공동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한 온라인 강좌 제공을 넘어, 학생과 연구자가 자유롭게 실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 교육과정 개발: 범학회 AI 교육단은 각 학문 분야의 교수진이 함께 참여해, 학제 간 융합 교과를 공동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AI와 인문학적 성찰’, ‘중국 고전 텍스트 데이터 분석’, ‘언어와 알고리즘의 만남’과 같은 교과는 모든 인문학 학생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새로운 학습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강의 교료를 넘어,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모델로 발전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 단기적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범학회 AI 교육단은 국가 지원과 대학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워크숍과 학제 간 심포지엄을 통해 연구자·교육자의 교류를 촉진하고, 차세대 인재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4. 초지능(ASI) 시대의 연구와 교육: 질문과 해석, 그리고 인간 고유 가치의 재발견

우리의 논의는 현재의 생성형 AI를 넘어,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초월하는 가상적 존재인 초지능(Artificial Superintelligence, ASI)의 시대까지 내다보아야 합니다. 만약 거의 모든 지적 노동을 기계가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인문학자와 중어중문학 연구자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 교유의 가치가 가장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1) 연구의 미래: ‘답’을 찾는 것에서 ‘질문’을 창조하는 것으로

초지능 AI는 현존하는 모든 텍스트를 순식간에 분석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가장 개연성 높은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질문이 가치 있는 질문인지, 왜 그 질문을 지금 이 시점에서 던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것입니다.

맥락적 해석과 가치 판단: AI가 “송대(宋代) 문헌에서 ‘이(理)’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가 급증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할 때, 그 데이터가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발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이 당시 사회와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해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연구자의 몫입니다. AI는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 있지만, 인과관계와 역사적 의미를 서사로 엮어내는 것은 인간의 능력입니다.

새로운 담론의 창출과 의제 설정: 연구자의 궁극적인 역할은 AI가 제공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담론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바다 속에서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인간적 맥락을 엮어내며,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지적 나침반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초지능 시대에도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문학자의 고유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2) 교육의 미래: 지식 습득에서 ‘인간성 함양’으로

모든 지식에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교육의 목표는 더 이상 지식의 암기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의 중심은 ‘무엇을 아는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협력하며,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로 이동할 것입니다.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정해진 답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이 AI라는 강력한 도구와 협력하여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도록 돕는 프로젝트 설계자이자 비판적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고전 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을 AI와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식을 내면화하고 창의성을 발현하게 될 것입니다.

3)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인간 고유의 가치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역설적으로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미래 인문학 교육은 바로 이러한 가치를 함양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공감(Empathy):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능력. 문학 작품 속 인물들의 고뇌에 공감하고, 역사 속 인간들의 희로애락을 이해하는 과정은 그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성의 핵심입니다.

영감(Inspiration):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이고 미적인 통찰. 한 수의 시, 한 폭의 산수화가 주는 미적 감동과 영감은 데이터 분석을 넘어선 인간 정신의 고유한 작용입니다.

윤리적 성찰(Ethical Reflection):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 AI 기술의 발전이 야기할 수많은 윤리적 딜레마 앞에서,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가 던졌던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적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치야말로, 초지능 시대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인문학의 본질이며, 미래 중어중문학 연구자와 교육자가 지켜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5. 시대를 선도하는 연구자·교육자의 책무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숙명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기 앞에서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전통과 혁신의 창조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엄밀한 고증이라는 전통적 방법론의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 굳건한 뿌리 위에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전통적 해석학과 데이터 과학의 변증법적 결합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더욱 깊고 넓게 탐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융합과 개방을 통해 학문의 경계를 확장해야 합니다. 더 이상 중어중문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컴퓨터 공학자, 데이터 과학자, 디자이너, 인지과학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닫힌 성채를 허물고 열린 광장을 만들어, 다양한 지식이 교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 학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에 대한 비판적 감시자와 윤리적 성찰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언어와 문화 콘텐츠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거나 문화적 편견을 재생산할 위험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언어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이 인류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가는 ‘공적 지식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AI와 지혜롭게 협력하면서도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그리고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가르쳐야 할 교육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코딩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기술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인간다운 삶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학회 회원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우리 중어중문학계에 분명 거대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는 수천 년간 축적된 인류의 지적 자산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 정신의 깊이와 복잡성을 탐구해 온 우리야말로, 기술과 인문학의 이상적인 융합 모델을 제시하고, AI 시대의 인류 문명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배제 대신 협력으로, 안주 대신 혁신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시다. 우리의 사명은 과거의 위대한 유산을 미래의 언어로 번역하고,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그것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 중어중문학이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한 담대한 항해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기조강연

이육연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교수)

전환기, 공생을 위한
한국 중어중문학의 몫

전환기, 공생을 위한 한국 중어중문학의 몫

이옥연(서강대)

목차

1. 전환기의 세계와 문명, 번역학 시대의 회귀
2. 험중 시대, 중국 이해의 토대이자 출발점인 중어중문학
3. 인공지능 시대, 다시 인간다움을 묻는 중어중문학

1. 전환기의 세계와 문명, 번역학 시대의 회귀

다시 세계가 큰 전환기에 놓였습니다. 세계질서가 흔들리고, 인간지능(HI)이 인공지능(AI)과 경쟁/협력하는 시대도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궤도가 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낯선 일이 출현하는 블랙스완 현상이 뉴노멀이 된 전환기입니다. 전환기적 혼란과 위기, 갈등도 늘었습니다. 이런 전환기를 순조롭게 극복할지, 아니면 재앙적인 파국을 겪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런 세계 국면을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간전기(間戰期)에 비유하는 국제정치학자들의 시각은 대체로 후자 쪽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자들이 앞장서서 훼손하고, 선거로 탄생한 권력이 권위주의 길로 갑니다. 인간의 노동을 재정의하고 인간다움을 다시 묻는 인공지능 시대가 이 위기를 가속할지, 이 위기에서 구할지도 주목거리입니다.

이런 전환기적 흐름 가운데, 중국학이라는 외국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우리 중어중문학 연구자는 세계화의 위축과 이로 인한 갈등이 높아진 것에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화가 위축되고, ‘좁은 마당,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의 디커플링 시대가 열리면서, 외국적인 것을, 그리고 국가와 민족 밖에서 온 이방인을 경계하고 배척하는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타자인 외국(의 것)과 이방인을 경계심과 적대감, 배척 등의 부정성의 상징으로 보지 않았습다. 독특한 취향, 다름이 주는 신선함과 자극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외국(의 것)과 이방인을 공격하거나 방어해야 하는 타자로 보지 않았고, 개인이든 국가나 민족이든 자아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를 지닌 타자로 여긴 것입니다. 철학자 한병철의 지적대로, 세계가 냉전으로 나뉜 시대가 타자성을 방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번역학의 시대였다면, 세계화의 시대는 이질성과 타자성이 소멸하는 탈번역학의 시대였습니다¹⁾. 외국(의 것)과 이방인 타자를 적대와 추방의 마음이 아니라 환대와 우호의 마음으로 맞으면서, 자기 성찰과 성장의 계기로 삼는 시대는 외국학의 황금기입니다. 세계화 시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화 시대가 저물면서, 외국(의 것)과 이방인 타자를 이질적인 대상으로 낙인찍거나 오염원이나 병균으로 여기면서 혐오하고, 추방

1) 한병철,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2, 12-14면.

하고 제거하려는 번역학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지나쳐서 번역체계가 밖에서 온 것에 과잉 반응하면서 번역체계가 도리어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증세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미국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자가면역 질환은 전환기의 새로운 팬데믹으로 미국을 넘어 세계로 번질 것입니다.

이런 세계 흐름은 외국학에 위기를 가져옵니다. 외국학에 관심이 줄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정치학과 문화학(politics and culture of identity)에 봉사할 것을 요구하는 애국주의적 압박과 쇼비니즘적이고, 심지어 인종주의적 압력이 정치 흐름으로, 그리고 대중 여론으로 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는 유무형으로 외국학 연구와 교육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외국학의 여건이 보편적으로 나빠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외국학 중에서도 중국학의 입지가 빠르게 궁색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넓게 퍼지고, 여기에 2024년 이후 극단적인 혐중 현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혐중 현상은 중국에 대한 합리적 비판의 차원을 넘어 인종주의적 혐오로 확산하고, 이것이 중국 연구와 교육 여건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관련 학과가 폐과되는 것도 그 한 예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중어중문학 연구와 교육은 세계화의 위축, 그리고 혐중 현상의 유행이라는 국내외의 전환기적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 시대라는 문명사적 전환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겹겹의 도전, 겹겹의 과제입니다. 이런 겹겹의 도전과 과제에 제대로 응전하기 위한 공동의 지혜를 모은다는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이 공존/공생하고,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공존/공생하기 위해서 오늘 한국에서 중어중문학이 감당해야 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몫과 역할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중국 현대문학이라는 근대 학문을 해오고, 문학작품 번역과 문학 연구를 병행하고, 중국학이 한국 현실과 긴밀하게 접목해야 한국 개성을 담은 중국학이 나오며, 그럴 때 한국 현실을 변혁하는 데 이바지하는 중국학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중국 공부해 온 사람의 소견일 따름입니다. 이런 한계를 고려하시면서, 답답한 마음을 나누기 위한 제 작은 제안으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혐중 시대, 중국 이해의 토대이자 출발점인 중어중문학

우리 사회 혐중이 정서 차원을 지나 혐오범죄로 이어지고 있고, ‘혐오의 피라미드’ 형태도 증폭되면서, 혐중이 ‘분류 → 혐오 표현 → 차별 행위 → 혐오 범죄’를 거쳐 제노사이드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²⁾ 혐중 문제는 이제 한중 관계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 안위에 관한 한국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냉전 해체 이후 우리에게 다시 다가온 중국이 원래부터 이런 혐오 대상이었던 건 아닙니다. 수교(1992) 이후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환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랜 한중 교류사의 경험으로 보자면, 특이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국을 손님으로 환대한 시기가 드뭅니다. 한국이 그렇게 중국을 환대한 것은 중국이 더는 한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었고, 한국이 중국보다 더 발전하고, 위계의 구도에서 중국보다 위에 있다는 우월감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수교 이후 지난 30년 한국인이 중국에 가졌던 정동(情動)을 보면, 중국에 우월감을 느끼고, 중국 앞에서 민족적, 국가적 자부심을 느낀 시기였습니다. 공생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뒤 중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로서 빠르게 성장하였고, 한국 역시 그 수혜를 공유하면서 중국과 더불어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2) ‘‘혐오 피라미드’ 꼭대기 향하는 혐중...참극 막을 장치 절실하다’, 『한겨레』 2025.10.18.

하지만 한중 수교 30주년(2022)을 전후하여 상황이 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대규모로 폭발하고, 중국이 대국으로 성장하고, 미중이 대립하고, 세계화가 퇴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우위가 흔들리는 상황이 출현했습니다. 특히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뒤떨어지는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더는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부할 수 없고, 두 나라가 공생하는 게 아니라 상호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한중 관계의 이런 뉴노멀은 한국인의 대중국 정동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인이 가졌던 대중국 우월감도, 한중 공생의 시간도 끝나고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환대도 사라졌습니다. 중국과 중국인은 이제 불안감과 위협을 주는 이방인이자, 심지어 추방의 대상입니다. 과거 30년 동안 한국이 중국에 누린 우월적 지위를 잃게 되자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향수적 박탈감(nostalgic deprivation)’도 퍼집니다. 최근에는 ‘공대에 미친 중국’이 ‘의대에 미친 한국’을 밀어내고 첨단산업에서 한국 먹거리를 앗아가고, 한국의 살길을 막을 거라는 첨단산업 버전의 황화론과 공중증(恐中症)도 한국인 마음에 퍼집니다. 한국인이 지닌 대중국 정동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환대와 우호, 공생에서 위기와 두려움, 갈등과 혐오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대중국 정동의 변화에 역사갈등, 문화갈등, 사드배치 후폭풍, 그리고 홍콩 민주화 운동 진압의 여파와 강성 시진핑 체제의 연장, 그리고 미중 대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한국 국민 정서가 되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한국인 가운데 70%가량은 중국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청년과 청소년 세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혐중 세력은 이런 국민 정서를 파고들어,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시각에서 중국을 보는 부정적 정서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갑니다. 미국 트럼프즘과 제휴하면서 이제는 인종주의 차원에서 혐중을 유포합니다. 중국의 특정 정책이나 특정 중국인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중국인 자체를 근본적인 악이나 병균으로 본다는 점에서 지금 혐중은 분명 인종주의적 혐오입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규정한 것과 유사한 인식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유대인 학살, 그리고 21세기 이방인 혐오 등 인종주의적 혐오와 학살 배경을 두고 아도르노(Theodor W. Adorno)나 바우만(Zygmunt Bauman) 등 학자는 경제 양극화, 실업률 증가, 정치적, 사회적 불안 등으로 대중이 느끼는 불안감과 불만, 위기를 정치인들이 외부로 투사하여 인종 혐오와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다고 지적합니다. 인종주의 양상을 보이는 우리 사회 혐중 정서도 크게 보면 우리 사회 불안감과 위기감을 파고듭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에서 인종주의 양상으로 진화한 혐중 현상은 일시적 병리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고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혐중만이 아니라 중국을 보는 부정적 인식이 일종의 대한민국 국민 정서가 된 오늘 한국의 상황은 한국의 중국학 전반에 위기를 가져오지만, 중국학 분야 중에서도 중어중문학 분야에는 더욱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관계가 안정적일 때 한국의 중국학은 유례 없는 호황기를 누렸지만, 그런 중에도 중국학 분야 가운데 중어중문학의 위상은 계속 낮아지고 몫과 역할도 축소되었습니다. 국가 교육정책과 경제적, 사회적 수요, 융합교육의 추세, 그리고 인문학의 침체 등과 맞물려 한중 관계가 좋을 때마저도 지역학과 인문학으로서 중어중문학의 입지는 계속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그 축소된 자리를 사회과학 위주 지역학이 채웠습니다. 중국 정보와 중국 이해라는 지역학 차원에서 중어중문학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간 사정이 이러하데, 중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높아지고, 혐중이 심각해진 지금은 중어중문학 연구와 교육에 더욱 큰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주로 중어중문학계 밖에서 온 위기입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이 「모순론」에서 강조한 것처럼, 위기를 초래하는 외적 요인(外因)은 내적 요인(內因)을 통해서만 발현됩니다. 이 위기가 중어중문학에 영향을 미치게 된 내적 요인에 대한 자성이 필요한 건 이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다시 희망을 만들기 위한 자성입니다. 자성이 필요한 부분을 저 나름대로 추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중어중문학이 오늘 중국, 그리고 오늘 한국과 유리된 채 골동품상과 문제의식 없는 수입상을 한다는 오래된 비판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양적인 학술 평가 시스템 속에서 연구가 소재주의와 소개 및 요약, 그리고 중국 연구의 번안 등에 빠진 채, 연구의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잃어 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중국을 깊이 있게 해명하기 위해서 언어와 문학 속에 담긴 중국인의 집단무의식을 깊이 해명하는 그 몫과 역할을 다했는지, △오늘 중국을 구조적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중국 내지는 현대 중국과 전통 중국을 통시적, 공시적으로 고찰하는 일이 필수이고, 오늘 중국에 관심 두는 것이 중국 연구의 방향 설정을 위한 좌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 현대중국 연구와 전통 중국 연구 사이에 심각한 단절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 중어중문학 연구자에게는 다른 중국학 분야에 없는 희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의 근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역에서 박괘(剝卦)는 6효중 5효가 음효이고, 상효만이 양효입니다. 소멸의 위기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런 박괘의 효사는 이렇습니다. “먹지 않은 남은 큰 열매가 있다(碩果不食).” 주역의 박괘는 말합니다. 아무리 난리가 나고 세상이 뒤집혀도 남아 있는 그 큰 열매는 희망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해도 큰 열매 하나는 늘 남아 있습니다.³⁾ 중어중문학이 직면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진 큰 열매가 무엇인지를 찬찬히 생각하면서 자존감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성찰의 시간을 제안합니다.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혐오가 퍼지는 때, 중국 이해라는 지역학 차원에서 중국 언어와 문학을 다루는 중어중문학이 잘 감당할 수 있고, 응당 감당해야 할 몫과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위한 중어중문학이 지닌 큰 열매는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중국학에서 쟁점 가운데 하나가 ‘중국적인 것(Chineseness/中華性/中國性)’에 관한 시각의 차이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시대 이후 ‘중국적인 것’을 재발견하는 흐름이 정치는 물론, 학술과 일상 문화, 소비 동향에 이르기까지 크게 유행합니다. ‘중국적인 것’을 애국주의나 민족주의 차원에서 선호하기도 하고, ‘서구적인 것’을 넘어서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⁴⁾ 중국 밖에서도 ‘중국적인 것’을 발굴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랜 역사에 걸쳐 형성된 중국의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특징을 추출하는 작업입니다. 중국 안과 밖에서 ‘중국적인 것’을 재발견하는 흐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중국 밖에서는 중국의 발전이 결국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자유민주국가로 바뀔 수 없는 이유를, 나아가 중국이 대국이 되면 세계가 위협해지는 이유를 중국의 역사와 구조 속에서 발굴하는 차원에서 ‘중국적인 것’에 주목합니다.⁵⁾ ‘중국적인 것’이 지닌 의미를 보는 시각은 이렇게 정반대이지만, ‘중국적인 것’을 해석하는 방법론은 같습니다. 본질주의(essentialism) 해석법이 그것입니다. 중국에는 서구나 다른 국가와 다른 불변의 고정된 속성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것을 본질주의적으로 구성하고, 그 본질적인 것에서 연역하여

3) 대산 김석진, 『대산 주역 강의』, 한길사, 2015, 565-566면.

4) 국내에 소개된 대표적 주장으로는 판웨이 지음, 김갑수 옮김, 『중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모델론』, 에버리치, 2010. 참조

5) 국내에 소개된 대표적 주장으로는 야성 황 저, 박누리 옮김, 『중국필패』, 생각의힘, 2024. 참조.

오늘 중국을 해석하는 건 마찬가지로, 다만 그 ‘중국적인 것’을 중국에서는 과잉 긍정하고, 중국 밖에서는 과잉 부정합니다.⁶⁾

최근 우리 사회에도 중국을 보는 시각에서 대중적 인식 차원은 물론이고 학계 연구에서도 이런 본질주의적 중국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인과 중국인은 원래 이러하다’라고 중국과 중국인의 고정된 속성을 본질주의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 중국과 중국인을 해석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러한 본질주의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명나라를 사대하고 청나라를 비하한 역사적 경험에서 오는 사대와 비하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전통적 본질주의도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 본질주의 인식 속에서는 오늘 중국인도 청나라 사람들처럼 근본적으로 오랑캐이고, ‘짚개’입니다. 근대주의 패러다임에 바탕을 둔 본질주의도 있습니다. 근대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서구에서 기원한 근대성을 궁극적 가치로 설정한 한 뒤 사회주의 중국은 물론이고, 중국은 본질적으로 근대문명과 어울릴 수 없는 존재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비하하고 중국과 단절할 것을 주장합니다. 근대 사회주의 시각의 본질주의도 있습니다. 서구 마르크스주의를 기준으로 삼아 사회주의 모델에서 벗어난 중국 사회주의는 결코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렇게 오늘 한국에 유행하는 본질주의적 중국 해석 시각은 선형적으로 중국의 본질을, 주로 부정적으로 본질을 규정한 뒤 여기서 연역하여 오늘 중국을 해석합니다. 중국이 지금은 발전하더라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중국은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심지어 인종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본질주의적인 중국 필망론입니다. 형이상학적 인식구조이자, 선악관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믿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국 인식입니다. 이렇게 본질주의적 중국 해석이 유행하면, 중국을 납작하게 만들어 해석하면서 복합적으로 중국을 보는 시각을 잃습니다. 공자는 『예기』에서, “좋아하면서도 그 사람의 좋지 않은 점을 볼 줄 알고, 싫어하면서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드물다.”(好而知其惡, 惡而知其美者, 天下鮮矣)라고 개탄한 상황이 중국 이해에도 연출됩니다.

중국을 보고 해석하는 데 이런 본질주의적 방법이 유행하는 지금, 중국 이해와 관련하여 중어중문학이 지닌 위기 속 ‘큰 열매’를 생각할 때입니다. 중어중문학이 중국학의 출발점이자 본령인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사람의 말과 생각을 다루는 중어중문학은 중국과 중국인을 선형적이고 본질주의 방법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 중국과 중국인의 속을 이해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과 글, 생각의 상황, 맥락, 관계 속에서 그 섬세한 결을 읽으며 중국을 해석합니다. 이는 선형적 본질주의 차원과 다른 경험주의에 바탕을 둔 중국 해석법입니다. 저는 이런 중국 해석법이 바로 중어중문학이 가진 ‘큰 열매’라고 봅니다.

중어중문학이 중국인과 중국을 독해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공자가 언급한 지인(知人), 지사(知事)를 위한 인문주의 해석법 전통에서 기원합니다. 공자는 『논어』 위정(爲政)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는 것을 보고, 그 동기를 들여다보고, 그 편안히 여김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子曰, 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人焉廋哉, 人焉廋哉)” 공자가 이 구절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는 세 단계는 형이상학적 본질주의에 바탕을 둔 해석이 아닙니다. 중국 특유의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한 해석법입니다. 공자는 여기서 사람을 알고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6) ‘중국적인 것’의 과잉 긍정과 과잉 긍정에서 벗어나 서구 근대와 다른 눈으로 ‘중국적인 것’의 역사적 구조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구조적 특징을 조명하는 흐름도 있다. 오카모토 다카시 저, 강진아 역, 『중국사, 어떻게 읽은 것인가』 투비북스, 2023. 참조.

를 말합니다. 먼저 행동을 보고,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과 동기를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편하게 느끼는 가치관과 정신적 지향을 꼼꼼히 살피는 단계적 해석법입니다.

공자가 한 위의 말을 중국 문학 해석의 특징을 상징한다고 보면서 이를 서구의 그것과 비교하여 분석한 스테phen 오웬(Stephen Owen)의 지적처럼, 서구 문학 사유가 플라톤적 형이상학 세계관에 따른 시학의 세계라면, 중국 문학의 사유는 해석학의 세계입니다.⁷⁾ 이는 형이상학적 본질이나 숨은 불변의 진리를 구명하기보다는 인간의 행위와 언어를 구성하는 복합적 조건을 드러내는 해석학입니다. 공자는 사람을 알고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를 권합니다. 공자는 내적 진실과 외적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외면만 보면 내면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외면을 잘 살피면 내면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기서 내면과 외면의 관계는 발현의 관계로,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플라톤적 의미의 서구 형이상학적 본질론과 다릅니다. 외면을 가짜나 그림자로 보는 게 아니라 외면의 것이 어디서 비롯하였는지, 즉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상황과 이유로 현전한 것인지를 살피고 사유하는 거여서 그렇습니다. 이때 내면과 외면의 관계 속에서 외면으로 드러난 것은 본질주의적 존재(being)의 영역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성(becoming)의 영역에 속합니다.

중국 인문학의 오랜 전통적 해석법이자 중어중문학에 오랫동안 내려온 이러한 해석법의 출발점은 깊이 보는 것입니다. 공자가 각 단계에 시(視)와 관(觀), 찰(察)이라는 다른 글자를 쓴 이유입니다. 보고, 들여다보고, 꼼꼼히 살피는 것이 사람과 사물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자가 원래 말한 의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일이나 사람을 이렇게 거듭 거듭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깊이 들여다보면, 그 동기와 상황, 내면적 가치관과 정치적 지향까지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나 사람을 단순히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일과 사람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비판적 입장에 서더라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해는 그 행동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지 무조건 동조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요즘 교육학에서 타자와 새로운 관계 맺기 차원에서 대두하는 타자에 대한 비판적 공감(critical empathy)도 가능해집니다. 이해나 공감을 동반한 비판 혹은 비판을 동반한 이해와 공감이 생기고, 일방적 비판이나 일방적 공감의 이분법을 넘어서게 됩니다. 상대를 비판하더라도 이런 비판은 상대와 소통을 가져옵니다. 내 비판을 상대에게 더 잘 전달할 수도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본질주의적 중국 이해가 유행하는 오늘 한국에서 중국을 깊이 이해하는 차원, 그리고 중국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저는 공자가 제안한 해석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국 해석법은 오늘 중국의 쟁점을 이해하는 데도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왜 하나에 집착하고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일당 체제를 받아들이는지, △중국은 왜 ‘중국적인 것’에 집착하는지, 중국은 왜 민주화되지 않는지, △중국 어떤 능력주의 사회인지 등, 중국을 이해하는 초미의 현안에 대해서 서구 근대 가치관에 따른 본질주의적 해답을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런 중국 현상 이해에서 출발하여, 그 역사적 경과와 그런 중국의 가치관과 정신적 지향을 중국적 문맥과 상황 속에서 깊이 들여다보고 찬찬히 살피는 데서 이런 쟁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관한 선형적이고 본질주의적 이해가 유행하는 오늘 한국에서 중국과 중국인을 해석하는 중어중문학의 오랜 인문주의 해석법에 따른 중국 이해와 해석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오늘 한국 현실에 개입하는데 중어중문학의 중요한 몫과 역할이 있고,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남은 먹히지 않은 희망의 ‘큰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7) Stephen Owen, *Readings in Chinese Literary Thought*, Harvard UP, 1992, pp.19-22.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과 오늘 중국이라는 문제의식을 연구와 교육의 방향키로 삼는 일입니다. 방향 잃은 골동품 학문과 수입상 연구, 소재주의식 소개에서 벗어나 중어중문학 연구와 교육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한국 현실에서 무슨 의미인지를 끝없이 묻는 학문적 자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과 생각을 다루는 어학과 문학은 외국학의 출발점이자 토대라는 점도 자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오늘 한국에서 한국 중어중문학계가 깊이 있는 중국 이해를 위한 학문적, 교육적 노력은 물론이고, 그리고 한국을 보다 평화롭고 인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힘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인공지능 시대, 다시 인간다움을 묻는 중어중문학

오늘 한국의 중어중문학 연구와 교육에는 중국 지역학의 출발점이자 토대로서 감당해야 할 몫과 역할도 있지만, 사람의 말과 생각을 연구와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보편적 인문학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과 역할도 있습니다. 인문학으로서 중어중문학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인간이 필요한지, 어떤 인간다움을 발굴하고 지향할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에서 인공지능이 가져다준 편리함과 새로움에 잘 대처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인간은 이제 무엇으로 인간인지, 그리고 어떤 인간다움을 추구할지를 묻는 것, 이것이 인문학 연구자이자 교육자인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감당할 또 하나의 몫과 역할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문학 연구에서 ‘멀리 읽기(distant reading)’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하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거나 어려웠던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멀리 읽기’는 많은 연구 자료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새로운 분석법과 연구 거리를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인인 이백(李白)의 「정야사(靜夜思)」 해석에서 첫 구절 ‘牀前明月光’의 ‘상(牀)’을 침상이 아니라 ‘우물가 난간’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는 해석 역시, 인공지능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단어가 쓰인 다량의 용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해석입니다.⁸⁾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이런 새로운 해석과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 ‘멀리 읽기’ 시대에 더욱 많아질 것이고, 문학과 사회 현상을 망라하여, 서사가 어떻게 생성/유포/소비/인지되는지와 서사나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다루는 ‘서사 지능(Narrative Intelligence)’에 관한 연구와 교육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텍스트 해석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멀리 읽기’가 문명의 대세로 등장하면서, 전통적 ‘가까이 읽기(close reading)’는 이제 철 지난 해석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영미 신비평(New Criticism)에서 비롯된 이 해석법은 텍스트 외부의 역사·전기·사회 맥락보다 텍스트 내부의 언어, 구조, 형식을 세밀하게 뜯어 읽으며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작가라든지 사회라든지 텍스트 밖의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해석의 본질로 간주하면서 그것에서 연역하여 텍스트를 해석하지 않고, 자신만의 사고력으로 세부 언어와 구조의 근거를 따져 묻는 해석 방식이라는 점에서 비판적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해석법입니다. “작가가 이렇게 말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절이 단어 관계에서, 문맥에서 어떻게 의미화되고, 관계 맺고,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따져 묻는 이성적 과정이, ‘가까이 읽기’ 해석법입니다.

이는 데카르트적 의미에서 깊이 들여다보고 깊이 사유하면 인간의 이성적 사유 능력에 힘입어 결국 해명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언어의 미묘한 표현과 문장의 섬세한 결을

8) 「정야사」 해석에서 ‘牀’을 둘러싼 해석의 쟁점은 김보경 선생님(서강대)의 소개에 의지하였습니다.

깊게 파고드는 일은 텍스트 해석의 과정이자, 이를 통해 인간의 이성적 사유 능력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나온 많은 연구 성과와 작품 해석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이 가졌던 전이해(pre-understanding)마저도 성찰하면서 텍스트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세워나가 텍스트 해석은 비판적 성찰력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비판적 성찰 능력이라는 이성 능력을 갖춘 근대적 인간을 만드는 교육에서 문학 작품 해석이 인문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인간 교양 양성을 위한 필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읽기’가 대세가 된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가까이 읽기’가 여전히 의미 있는 텍스트 해석법이자 이상적인 인간 교양 양성법일까요? 이제 우리 어문학 연구와 교육은 ‘가까이 읽기’를 버리고 ‘멀리 읽기’를 추구해야 할까요? 이는 단순히 텍스트 연구와 교육 방법에만 국한된 질문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인간이 필요한지, 어떤 인간다움이 필요한지,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간다움의 상징인 이성의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현실에서 이성의 어떤 기능을 우리가 키워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다움을 빠르게 추격합니다. 특히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믿어온 계산과 추리 능력에서 이미 인간에 근접했습니다. 사유하는 인공지능 앞에서 그동안 인간다움이라고 믿은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에는 추론과 논리의 영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행동과 사유를 되돌아보는 비판적 성찰 능력(critical reflective capacity)입니다. 인간 이성에서 비판적 성찰 능력이란 자신의 사유와 행동, 욕망의 의미를 ‘왜?’라고 물으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고, 사유하고, 욕망하는지를 정당화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성찰 능력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 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별해 주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에이전트로서 연구자의 요구를 수행하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런 수행 요구에 ‘왜?’라고 연구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 능력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판적 성찰 능력 차원에서 사유와 행동의 의미를 묻는 건 아직 인공지능에는 부족합니다. 결국, 인간다움의 구성 요소로서 비판적 성찰 능력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우리가 여전히 보존해야 하고, 더욱 갈고 다듬어야 할 인간다움입니다. 더구나 정보의 홍수, 그리고 확증편향이 바이러스처럼 유포되는 시대에 비판적 성찰 능력이 있어야 정보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생각을 추종하여 그것을 내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시선을 지닌 나다움을 지닌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비판적 성찰 능력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가까이 읽기’를 통해 비판적 성찰 능력을 키우는 연구와 교육의 몫과 역할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물론 과거처럼 ‘가까이 읽기’ 일변도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가 전해주는 문명의 혜택인 ‘멀리 읽기’와 더불어 ‘가까이 읽기’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루쉰(魯迅) 연구자로서 루쉰이 「문화편향발전론(文化偏至論)」에서 “모든 문명은 편향 발전한다”라고 한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에게는 근대문명의 편향된 발전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편향된 발전도 동시에 투시하는 문명사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문명 전환기를 사는 인문학자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물론 이런 제안을 두고 이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까이 읽기’가 추구하는 비판적 성찰을 지닌 인간도 결국은 이성적 인간이고, 결국은 근대성의 범주 안에 있는 인간상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비판이 그것입니다. 이성에서 인간다움을 찾는 근대적 사유의 틀 안에 있다는 비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비판적 성찰 능력이라는 인간다움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은 이성의 계열 안에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다움을 구축하는 건 근대적 인간상으로 회귀하는 일이라는 비판은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더구나 비판적 성찰 능력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비판적 이성과 성찰적 이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릅니다. 비판적 이성은 대상과 타자를 지향하고, 성찰적 이성은 나의 인식까지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비판적 이성만 주도하게 되면, 나에 대한 성찰은 뒤로 물러나고 타자와 대상을 비판하는 차원으로만 비판성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성이 도구적 이성으로 전략한 채 또 다른 폭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확실히 인공지능이 지닌 한계와 약점을 생각할 때, 인공지능 시대를 잘 살기 위해서는 비판적 성찰 능력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성과는 다른 계열에 있는 다른 인간다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과 소통과 연결은 늘어나지만 인간 사이 소통과 연결은 줄어들고, 이것이 인간 공동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비판적 성찰 능력이 지닌 의미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 소통과 연결, 유대와 공생을 위해서 비판적 성찰력에만 기대할 수 없고, 이와 더불어 다른 인간다운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백의 「정야사」 해석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랫동안 우리는 ‘상(牀)’을 침상이라고 해석해 왔을까요? 낮은 독해 능력이나 많은 자료를 토대로 그 용례를 두루 분석하지 못한 한계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는 고향을 떠나 타향에 뜬 달을 보면서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한 나머지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게 잠들지 못한 인간 보편의 경험이 일종의 집단무의식으로 작용하여, 오역이라든가 오역일 수 있는 번역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물론 이향배정(離鄉背井)고 하듯이, ‘우물가 난간’이라는 번역 역시 향수와 연결될 수 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서 잠자리에 들어서도 전전반측하거나 침상 주변을 서성이며 잠들지 못한 경험 쪽이 더 보편적일 것입니다. 문학 해석에는 종종 이런 번역/오역이 많습니다. 이런 번역/오역은 비판적 성찰 같은 이성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적 해석이 아닙니다. 삶 속 경험의 공유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집단무의식 차원의 해석이자,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감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입니다. 이는 내 경험에 비추어 다른 이의 삶을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다른 이의 아픔과 기쁨을 이해하는 공감의 감정입니다. 이런 공감의 감정으로 「정야사」에서는 이백과 독자는 물론이고 독자와 독자가 서로 연결되고, 소통됩니다. 그 번역이 오역이라고 하더라도 멋진 문학적 오역인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경험의 공유와 유대에서 오는 공감이 그 토대입니다.

경험의 공유와 유대가 인간 공동체에서 지닌 의미를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이야기의 몫과 역할과 연결하여 강조합니다. 발터 벤야민은 인간의 경험은 인간의 지혜와 관련 있고, 사람 사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곧 지혜를 공유하는 일이며, 이는 인간 유대와 공생을 위한 공동체적 삶의 기반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가 이야기가 사라지는 걸 아쉬워한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⁹⁾ 벤야민은 이야기는 경험을 전수하면서 지혜를 조연하는 이야기만의 몫이 있는데, 그런 몫을 담당하던 이야기가 사라지고 정보가 유행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지적합니다. 정보의 의미는 유희와 그림, 그리고 낡음과 새로움 사이에 있습니다. 이는 경험이 주는 지혜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벤야민이 살았던 1936년 현실보다 더욱 정보가 경험을 밀어내고, 경험이 정보 앞에 무력한 시대가 오늘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식은 무한 확대되지만, 경험에서 오는 지혜는 빈곤하고 무력한 시대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는 타인의 삶의 경험에 공감하여 소통하는 건 이성 이전에 감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야기의 이런 기능과 작동 영역은 기본적으로 고독한 개인의 밀실에서 창작되고 읽히는 근대 소설과는 다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인공지능 시대에도, 우리는

9) 발터 벤야민 지음/최성만 옮김, 『서사 기억 비평의 자리』, 도서출판 길, 2012, 418면.

여전히 소설을 쓰고 읽고, 연구하고 교육하겠지만, 소설과 정보의 시대 이전에 이야기가 담당했던 몫과 역할을 다시 소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이 주는 지혜의 조연에 귀 기울이고, 그 경험의 공유에서 오는 정감의 교류와 소통 속에서 인간 유대와 인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는 이야기 전통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풍부한 중어중문학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몫과 역할이자, 더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멀리 읽기’와는 다른 ‘가까이 읽기’의 몫과 그 의미, 그리고 정보와 다른 이야기의 몫과 그 의미,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 중어중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연구적, 교육적 화두입니다.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정보 처리가 문학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대에도 한편으로는 꼼꼼한 ‘가까이 읽기’를 통해서 비판적 성찰 능력을 키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의 공유가 주는 지혜를 늘리는 정감 능력을 키우는 걸 우리가 지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그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문자 텍스트에서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텍스트로 확대하더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몫과 역할은 같습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그 대응의 출발점은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것, 우리가 지닌 ‘큰 열매’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질서의 변화와 미중대립, 중국의 부상, 그리고 혐중 현상 등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중어중문학이 지역학으로서 중국 이해라는 차원에서 감당할 몫과 역할은 물론이고, 인문학 차원에서 인공지능 시대 필요한 인간다움 양성을 위해서 감당할 몫과 역할 역시 무겁습니다. 자존감을 챙기고, 함께 걸어가다 보면 그 걸음이 많아져서 결국은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공존/공생하고,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공존/공생하는 길이 지상에 생긴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토록 찬란한 가을에, 무거운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2부

12. 고전문학(3)

위당관 201호

중국 고전문학과 동아시아: 전통과 공생의 확장

东亚文明交流视域下的《红楼梦》传播与翻译

(中国) 鲁东大学 王飞燕

绪论

关于《红楼梦》在东亚不同国家中的传播与翻译的研究,一直以来大多都是各自进行的,很少有学者能够有意识地打破语言的壁垒,同时对两个以上的国家的资料进行探讨。以韩国与日本为例,两个国家中的相关研究都已经取得了相当多的成果,^①但却很少有学者对这两个国家的资料进行统合性的探讨。实际上从东亚文明交流的视域下来探讨早期《红楼梦》的域外传播与翻译,能够克服囿于一国的局限性,获得更为开阔的研究视野。

十九世纪晚期是世界格局最为动荡的时期之一,在西方文明与科技的冲击下,持续了上千年的相对静态的东亚文明开始受到冲击,进入了分裂与重构的历史阶段。《红楼梦》虽然在问世之后相当短的时间内就传入了日本和朝鲜,^②但其进入大众视野的传播与翻译,却是在十九世纪晚期十分动荡的局势下进行的。

笔者一直致力于研究《红楼梦》在韩国早期的传播与翻译,尤其是乐善斋本《红楼梦》的翻译。^③近来在研究日本殖民地时期朝鲜的报纸连载《红楼梦》的翻译的过程中,发现《红楼梦》早期的传播与翻译与日本有着一定的联系,于是开始对日本方面的资料进行调查与探讨。将视野扩展到日本之后,笔者开始反思已往的研究只囿于韩国一国的局限性,并发现了中韩日三国之间的交流与《红楼梦》在韩日的早期传播与翻译之间的相关联系,本稿将对此次展开说明与论述。

一、《红楼梦》与“北京官话”学习

^① 对《红楼梦》在东亚的传播与翻译进行研究的较为代表性的学者,韩国方面为崔溶澈教授,日本方面为宋丹。

崔溶澈:《홍루몽의 전파와 번역》,首尔,도서출판 신서원,2007。

崔溶澈著,肖大平译:《红楼梦在韩国的传播与翻译》(中文版),北京,中华书局,2018。

宋丹:《〈红楼梦〉日译本研究(1892~2015)》,南开大学日语语言文学 博士学位论文,2015。

^② 根据伊藤漱平的研究,《红楼梦》在程甲本出版的第二年即1793年就传入了日本。

伊藤漱平:《日本の〈红楼梦〉传播与影响》,崔溶澈:《红楼梦的传播与翻译》(韩文版),首尔,图书出版신서원,2007。

但伊藤漱平最早发表此观点的时间为1965年。

而根据崔溶澈的研究,《红楼梦》最早传入朝鲜的记录是李圭景(1788~?)的《五洲谚文长笺散稿》中的《小说辩证说》,推测《红楼梦》传入朝鲜的时间约为1830年左右。

李桂柱提出,虽然尚未发现确切的证据,但无论是从使节往来的次数还是两国之间的贸易状况来说,《红楼梦》传入朝鲜的时间应该不会比传入日本晚。但这种主张仅限于推测。

李桂柱:《〈红楼梦〉的诗词翻译比较试论—乐善斋全译本을 비롯한 数种의 外国译本에 대하여》,《中国语文学》22,영남중국어문학회,1993。

^③ 王飞燕:《乐善斋本〈红楼梦〉的翻译研究》,高丽大学中国文学专业 博士学位论文,2019。



迄今为止所知的世界上最早的《红楼梦》全译本，是完成于朝鲜晚期1885年左右的乐善斋本《红楼梦》，这一译本不仅是全译本，而且是注音对译全译本，这一形式上的特点说明这一译本从一开始就不是以单纯阅读为目的，而是兼具汉语教材(发音)的功能。

朝鲜时期对汉语的学习有着长久的历史，从高丽末期到朝鲜末期外语教育的专门机构司译院一直承担者培养译官的作用。^①而译官学习所使用的汉语教材，从早期的《老乞大》与《朴通事》，到朝鲜后期的《伍伦全备谚解》(谚解本中删去了唱词，只保留了对白部分)、《华音启蒙谚解》等，采用的也都是对译注音的方式，这种用한글给汉字注音的方式也是朝鲜传统的谚解。从这一点上来讲，乐善斋本《红楼梦》的翻译可以放到朝鲜悠久的谚解传统中来理解。

实际上，使用《红楼梦》来学习北京官话，还有一条更为清晰的脉络，而这一脉络有可能跟乐善斋本《红楼梦》的翻译有着更为密切的联系。

朝鲜方面提到使用《红楼梦》来学习官话的资料，出自朝鲜晚期在政治与外交史上均占有十分重要的地位的云养金允植(1835~1922)的《阴晴史》中，此书是其作为领选使于1881至1883在清期间所作的日记。^②书中的相关内容如下：

《阴晴史》上，高宗十八年辛巳(1881)十二月二十二日

阴寒有雪意，块坐沍寞，中国与各国通商税则，使通词郑麟兴买来《红楼梦》

一部，欲观官话也，袖珍本，极细琐讹迷，不可读矣。^③

上述日记的时间为1881年12月22日，日记中提到其让翻译官(通词，即通事，二词的韩国语发音均为통사)郑麟兴为其买来《红楼梦》，“欲观官话”，但郑麟兴所买来的《红楼梦》为“袖珍本，极其细琐讹迷、不可读矣”。可知郑麟兴买来的并非是很好的版本。^④这一记录的重点是，金允植曾经希望通过《红楼梦》来“观官话”。

^① 郑光：《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坡州，김영사，2014。

^② 金允植此行的目的，一方面是带领朝鲜学徒赴清学习近代武器的制造，另一方面则试图在李鸿章的授意或者调节之下与美国缔结友好通商条约。

^③ (朝鲜)金允植：《阴晴史》(上)，韩国史料丛书第六，首尔，国史编纂委员会，1958年，第49页。

引用文原文的标点符号仅有顿号与句号，此处符号为笔者所改。“通词”疑应为“通事”，即通常所言的“翻译官”。但纵观《阴晴史》整体，“通词”与“通事”存在普遍性的混用情况。

^④ 据说霍克思最初看到的《红楼梦》是其牛津大学的中国同学裘克安给他的，时间大概是1940年代，是一册“用极差的草纸印刷的中国古典名著《红楼梦》第一卷，字体很小也很不清晰。”

王丽耘：《中英文学交流语境中的汉学家大卫·霍克思研究》，福建师范大学比较文学与世界文学专业 博士学位论文，2012，第280页。

金允植的这种想法并非凭空的心血来潮，在二十多天之前的十二月一日，其曾受李鸿章的邀请，去李鸿章家赴宴，期间二人有过下面对话，对话是李鸿章通过翻译来问，金允植作答。

高宗十八年辛巳（1881）十二月一日

○指余及从事、官弁曰：“此三君将往往津局，习用官话为好。”

答“聪明衰钝，恐不能易学”。

○问“泰西诸国皆能汉语，比诸国中最易学”。

答“谨当留意学习矣”。

○问：“贵国能解日本语否？”

答：“亦有学习者，苦无精熟者耳。”

○问：“贵国公私文字用何文？”

答：“纯用国文（按，指汉文，笔者）。”

○问：“无国书（按，指朝鲜文字，笔者）乎？”

答：“有之，惟妇女常贱用之。”

○问：“日本国书亦解么？”

答：“此亦有精通者。”^①

当日李鸿章向金允植问了很多关于朝鲜的问题，此处仅选了其中与语言有关的一部分。从对话中可以看出，李鸿章认为要往津局的朝鲜人（从事、官弁）如果能够学习官话会比较好，而金允植也表示当留意学习。亦即，二人虽然不是很明确地在谈论学习官话的问题，但言谈之中有透露出学习官话的必要性。其实纵观《阴晴史》，可以发现虽然金允植不会汉语，但其与李鸿章就国家外交重要事宜进行商议时，基本上都是以“笔谈”^②的方式进行的，双方都没有借助翻译人员的帮助。而有些借助翻译进行的对话，反而往往是相对而言无关紧要或者并不机密的内容，例如朝鲜的风土人情等等。当然，作为担负国家的重要外交任务的官员而言，学习或者了解一些官话总是有好处的。

金允植想要通过《红楼梦》来学习官话，并不是一个偶然的、随意性的选择，而是当时“外交圈”中的一个普遍性的认识，而这一认识的起点，则在日本。

汉文是东亚汉文化圈内诸国的通用文言，各国人虽然语言不通，但大部分识

我们由此可以知道，至少十九世纪后期到二十世纪前半期，图书市场上应该是充斥着很多抄写、印刷、纸质以至装订都十分低劣的《红楼梦》版本。笔者虽未见过此处所言袖珍本《红楼梦》，但曾见过一些袖珍本小说抄本，大概是出于盈利目的，字迹密密匝匝，几无空隙，且内容芜杂，似乎是删减缩略本。

^①（朝鲜）金允植：《阴晴史》（上），第34页。十二月初一日。

^② 笔谈是同文不同言的文人之间普遍的交流方式，在朝鲜王朝出使明清的使行记录“朝天录”与“燕行录”中随处可见以笔谈形式进行交流的内容。

者层都可以使用汉文，正是因为这一条件，所以笔谈在各国的交流史上，尤其是外交使节团成员的交流中，成为了一种普遍的方式。1871年清王朝与日本签署了《中日修好条规》，两国开始了近代的外交关系。1877年，清朝的第一届驻日公使团到达日本，正使为何如璋（1838～1891），副使为张斯桂（1817～1888），参赞官为黄遵宪（1848～1905），此外还有一些随员与仆役。驻日期间有很多日本文人与公使馆诸人笔谈往来，或以诗会友、或吟风弄月、或讨论学问，留下了不少笔谈资料。其中日本文人大河内辉声（1848～1882，源姓，号桂阁）留下的笔谈资料中，有不少关于《红楼梦》的内容，从这些笔谈中我们可以看到一些以《红楼梦》来学习北京官话的认识产生的脉络。

来具体地看一下相关内容，笔话中的如璋是正使何如璋，桂阁即大河内辉声，公度则是黄遵宪的字。

①. 1878. 7. 12

（何如璋告诉我，要理解北京官话，最好读《红楼梦》。梨门当翻译）

桂阁：《红楼梦》全续篇，儿熟焉。可惜无句读之○号，故甚苦读过。如有得贵署中等授其句读者，则儿一生之大幸。①

②. 1878. 7. 26（桂阁与泰园笔话）

桂阁：前日何如璋告弟曰：谈北京官话，莫如知北京官话；知北京官话，莫如读《红楼梦》一书，子请勉读焉。弟尝试之，弟欲读过，独苦无解其句读。故启此事于何氏，何氏又云：宜烦王明经，乞其句读。弟乃今朝携其书而来，不知以许否？使闲时则施焉。是祈。②

③. 1878. 9. 12

桂阁：贵邦小说中解北京语以《红楼梦》为第一，其他亦以北京语否？又闻《红楼梦》有数种，以何种书为佳？前日魏梨门曰：有五色《红楼梦》者颇佳，且精，惜其板已毁了。如在尊藏种贮之，则异日暂借而抄写之耳。

如璋：小说用北京话，雅俗事都写得出者，以《红楼梦》为最佳。其次则《品花宝鉴》，说北京名伶，笔墨殊不及《红楼梦》。魏所谓五色板未见之。且此二书，现中土禁其印卖。购之亦殊不易，大抵皆旧日所藏旧本，非近日书肆所售。③

① 刘雨珍编校：《清代首届驻日公使馆员笔谈资料汇编》（上），天津，天津人民出版社，2010。第160页。

② 刘雨珍编校：前揭书，第174页。

③ 刘雨珍编校：前揭书，第222页。

④. 1878. 10. 4

桂閣：是書（按，指的是北京官話本《正音提要》，筆者）官話了，不知別有纂北京土話者否？如那《紅樓夢》中話，則照之而好否？

公度：其為北音一也。編《紅樓夢》者乃北京旗人，又生長富貴之家，於一切描頭畫角零碎之語，無不通曉，則其音韻腔口，較官話書尤妙。然欲學中國音，從官話書學起，乃有門徑。譬如學日本語，不能從《源氏物語》諸說入門也。^①

筆談的內容具有一定的局限性，未必能夠將一件事物的來龍去脈全都記錄在內，但我們依然可以通過以上的內容整理出這一事件的脈絡。首先是何如璋公使告訴源桂閣“要理解北京官話，最好讀《紅樓夢》”，而源桂閣則苦於手中的《紅樓夢》沒有句讀，讀起來相當困難。為了讀《紅樓夢》，既為讀作品的内容，也為了學習北京官話，源桂閣需要有人幫他將作品的内容加以句讀。例文④中，源桂閣又請教黃遵憲照着《紅樓夢》學習北京官話是否就可以，黃遵憲則指出，《紅樓夢》中的話是北音，且因為作者是旗人，又生長富貴之家，所以音韻腔口，比官話書更妙。但其也指出，學北京官話，還是需要從官話書學起。亦即，《紅樓夢》的語言並不適於初學官話者，正如學習日本語，不能從《源氏物語》開始一樣。在此之前的9月6日，黃遵憲在筆談中聽源桂閣說起過《源氏物語》，嘆息自己不解日本語，不能閱讀，而當日石川鴻齋（1833～1918）指出《源氏物語》“此文古語，雖人國（按，可能是“國人”的誤寫，筆者）解之者亦少。”即《源氏物語》的語言是古語，日本人中能夠理解的人也不多。所以黃遵憲在這裡用《源氏物語》來對比說明《紅樓夢》中的語言對於初學北京官話的人而言可能太難，還是應該先從官話書開始學起。

因為沒有句讀而帶來的閱讀困難，因公使館內的諸人公事繁忙，無暇為之，源桂閣最終拜托在日中國文人秦園王治本（1835～1908）為其一一圈點句讀，其在得到圈點的《紅樓夢》之後，給秦園的信中說“《紅樓夢》朱圈明亮，恍如瞽者得杖，輒耐得水一般，此恩此惠，雖趙氏連城璧，亦不足為報。”^②可見其得到句讀圈點之後的喜悅。

眾所周知，傳統的漢文書寫是沒有句讀符號的，朝鮮與日本的傳統文人熟知中國的古代典籍，因而對於閱讀沒有句讀符號的古文詩辭也並不陌生。然而被認為適合用來學習北京官話的《紅樓夢》的語言更多的是口語，而這種口語對於只熟悉傳統文言的日本與朝鮮文人而言，顯然是很困難的。這也是源桂閣請人為了其

^① 劉雨珍編校：前揭書，第235頁。

^② 劉雨珍編校：前揭書，第179頁。筆談時間為1878.8.3。

王治本是旅日文人，並非使館隨員，其主要工作是在不同的社中任漢語教師，其還擔任源桂閣的漢詩文教師，指導、刪正源桂閣的各種漢詩文寫作等，並收取一定的報酬。其間曾短暫地作為使館隨員工作過，約1878.9～1879.1。

圈点的原因。实际上乐善斋本《红楼梦》中许多对原文文章判读的错误，绝大部分都是断句的错误，这也从侧面反映了当时译者对白话文判断的困难。

除了语言之外，使馆人员与在日文人还向源桂阁介绍了《红楼梦》的思想与艺术价值。且看一下两则记录：

① . 1878.8.8

泰园回信：

刻尊记来舍，所委《红楼梦》圈毕者奉上，未圈者缓以数日再奉。

《金瓶梅》一书板子大好，但此书作者有所托而云然，故满纸淫奔之言，较《红楼梦》大觉粗露。其实《红楼梦》之意淫，有不可思议者，较《金瓶梅》有过之。然即色即空，高明者与《道德经》、《楞严经》并参之可以（按，或许为“也”的误写，笔者）。过眼烟云，现身设法，何害焉？况题其书曰《金瓶梅》，则明示空中之烟花也；曰《红楼梦》，不过如梦如影而已。赏其辞不着其意，取为龟鉴也大妙。①

② . 1878.9.6

鸿斋：民间小说传敝邦者甚夥（本意同“鲜”，笔者），《水浒传》、《三国志》、《金瓶梅》、《西游记》、《肉蒲团》数种而已。

公度：《红楼梦》乃开天辟地、从古到今第一部好小说，当与日月争光，万古不磨者。恨贵邦人不通中语，不能尽得其妙也。

（这时泰园来了）

泰园：《红楼梦》写尽闺阁儿女性情，而才人之能事尽矣。读之可以悟道，可以参禅。至世情之变幻、人事之盛衰，皆形容至于最极。欲谈经济者，于（按，或为“亦”的误写，笔者）可领略于其中。

公度：论其文章，直与《左》《国》《史》《汉》并妙。

桂阁：敝邦呼《源氏物语》者，其作意能相似。他说荣国府、宁国府闺阁，我写九重禁庭之情，其作者亦系才女子紫式部者，于此一事而使曹惊悸。

鸿斋：此文古语，虽人国（按，可能是“国人”的误写，笔者）解之者亦少。

公度：《源氏物语》，亦恨不通日本语，未能读之。今坊间流行小说，女儿手执一本者，仆谓亦必有妙处。②

① 刘雨珍编校：前揭书，第187页。

② 刘雨珍编校：前揭书，第221～213页。

例文①中泰园王治本对《红楼梦》之意淫、色空、如梦主题的说明，是在为源桂阁辨别《金瓶梅》板子（版本）的脉络上进行的。笔者猜测，这可能出于泰园的文学自觉。具体言之，作为中国文人兼任源桂阁的汉诗文教师，其或许担心源桂阁未必能分辨《金瓶梅》与《红楼梦》在思想、主题、审美上的区别，因此便借机加以说明。至于源桂阁能否理解其中深奥的意味，则无由确认。

例文②中黄遵宪对《红楼梦》价值的极度称赞，可见其非凡的鉴赏力。公使馆中虽然几乎人人皆能吟咏风月，但作为文人的诗才、文采、批评与鉴赏力，黄遵宪堪为第一。对《红楼梦》的评价与黄遵宪的评语可谓一脉相通。王治本虽然在仕途与文名上皆无法与黄遵宪相提并论，但在驻日公使馆的笔谈资料中出现的他与其他文人的唱和、对源桂阁诗文的修正、对学问的探讨等内容来看，其文采与鉴赏能力同样不凡。无论源桂阁是否能够理解黄遵宪与王治本的话，真正领会《红楼梦》的艺术价值之所在，至少其看到了中国文人对《红楼梦》的极高的评价，这也会直接影响其对《红楼梦》的评价。

再回到金允植于 1881 年意欲购买《红楼梦》以观官话的记录。以上考察的笔谈的时间均为 1878 年，1880 年朝鲜修信使金宏集（1842～1896）出使日本，与何如璋、黄遵宪等就很多外交通商税则等问题进行过严肃的笔谈。1881 年鱼允中（1848～1896）、洪英植（1856～1884）等也曾到过日本，黄遵宪也曾“频见韩人”^①。作为同时期的朝臣，金允植、金宏集、鱼允中等在国家内忧外患的局势中必然会共享信息，驻日公使馆小圈子内的“可用《红楼梦》学习北京官话”的认识并不是什么秘密，而成为了一种东亚外交圈中的普遍性认识，因此笔者前面强调，金允植想要通过《红楼梦》来学习官话，并不是一个偶然的、随意性的选择，而是受当时“外交圈”中的一种普遍性的认识的影响。

二、《红楼梦》与早期高等教育的汉语教育

虽然有不少日本各方人士走访驻日公使馆与公使馆员进行笔谈，有的只是文人，有的则在明治政府中兼任官职，且目前留下的大部分笔谈资料都是以文人风雅集会为主的，只是间或涉及具体的政治事件，但归根结底，这是一个相对较小的文人交游圈，且诸人除了本职工作之外，并没有有意识地参与与自己的职责无关的社会活动中去。但在，就是这样一个较小的社交圈中对《红楼梦》的认识与评价，却影响到了日本早期高等教育中的汉语教育。

早在 1873 年，东京外国语学校就不仅聘用了大批唐通事（按，汉语翻译人员，笔者），还聘用了来自北京的旗人薛乃良等人担任中文教师，《红楼梦》被他

^① 刘雨珍编校：前揭书（下），第 574 页。

们作为正式的教材使用。^①就目前所见的驻日公使馆相关笔谈资料中，并未有言及《红楼梦》在学校中被当作教材使用的内容。亦即，何如璋与黄遵宪等人所主张的《红楼梦》最适合学习北京官话的认识，是一种自主、自发的认识，并非是受到某种前例影响的认识。

在源桂阁留下的笔话中，也可以找到一些与日本早期学校汉语教育有关的信息。王治本的族弟惕斋王仁乾（1839～1911）曾在1880年2月给源桂阁写过一封信，当时王治本因事暂回中国，直至同年5月9号才重新回到日本。信的一部分内容如下：

1880 . 2.16

昨蒙枉顾，诸多简慢，歉仄奚如。弟晤龚莲舫兄，据其云：三田福泽先生学校，欲聘清练达精通汉文教师，但兼北京话语。恐泰兄北音欠精，前曾与泰兄晤谈，承阁下惠及良多，殊难报答，不防将龚先生所云之处，或可询探，纵能如是，俾泰兄进益于他人也。^②

这封信的主要内容是，王仁乾从朋友龚莲舫处听到了福泽谕吉（1835～1901）先生的应庆义塾大学欲招聘“清练达精通汉文教师，但兼北京话语”，希望源桂阁能够从中周旋，帮助王治本获得此职位。但因为王治本是浙江慈溪人，王仁乾也坦白承认“恐泰兄北音欠精”。源桂阁收到此信之后，也的确在数月之内积极为王治本活动，但就结果而言，王治本并没有获得这一教职。

最终获得这一教职的人同样出现在笔谈中，是张薰昉（1839～1900），福泽谕吉起初便属意其人。此人为北京大兴人，自1880年起，先后在兴亚会支那语学校、庆应义塾大学、东京外国语学校、中国驻日公使馆东文学堂、东京帝国大学等任教，1899年回国，翌年歿于上海。^③

福泽谕吉作为务实性的教育家，其聘请的要求十分清楚“练达精通汉文教师，但兼北京话语”，就前者而言，差不多的晚清文人都可以达到要求，重要的是后者，即福泽谕吉要聘请的是一位能兼教北京官话的人，作为北京大兴人的张薰昉自然具有先天性优势，而作为浙江慈宁人的王治本恐怕也的确是“北音欠精”。

此外，张薰昉还有一个优势，是家学渊源。何如璋言“闻其系张翰山^④之令

^① 宋 丹：前揭论文，第23页。

^② 刘雨珍编校：《清代首届驻日公使馆员笔谈资料汇编》（下），天津，天津人民出版社，2010。第333页。

^③ 刘雨珍编校：前揭书（上），第8页。

^④ 张岳崧（1789～1863），字翰山，号筠心堂，清代海南定安县人，嘉庆十四年（1809）恩科一甲第三名进士，为海南历史上唯一的探花，曾任翰林院编修、陕西提督学政、浙江按察使等职，并参与《琼州府志》的编纂。

孙，翰山嘉庆时榜眼，文章书法极有名，人品亦雅洁，仕官至外省。方细想已是其家儿，必有矩矱也。”^①虽然仅就目前所见的笔谈资料而言，未见张薰昉文采有何出众之处，且源桂阁、石川鸿斋等人似乎对此人的文采以及借祖上之光的身位略有微词，但最终还是此人获得了应庆义塾的教职。

张薰昉虽然并未积极参与日本文人与驻日公使馆员之间的交游唱和，但其也是这个圈子中人。在日本近代教育起步初期，且中文教育并未有教材的情况下，张薰昉非常有可能受到这个圈子对《红楼梦》适合于学习北京官话的认识的影响，使用《红楼梦》作为教授汉语的教材。而事实上，前面已经提过，日本高校早期的中文教育，的确是使用《红楼梦》当作教材的。

此外，驻日公使馆圈子中还有一位不容忽视的人物便是森槐南(1862~1911)，森槐南曾经跟随其父森春涛(1819~1889)与驻日公使馆诸人有过交游，尤其是与黄遵宪有过密切的诗文往来。森槐南极其爱读《红楼梦》，后来曾被坪内逍遙(1859~1935)于1890年创立的东京专门学校(现早稻田大学)的文学科聘请为中国小说史课程的讲师，其于1891年便在《早稻田文学》(27)上发表了《红楼梦论评》^②，1892年发表了《红楼梦序词》^③，成为日本最早翻译、评论《红楼梦》的文人。《红楼梦》在日本早期的传播与翻译中，森槐南及其相关评论、创作、译作，都具有非常重要的价值。

朝鲜的情况，朝鲜后期的译官李应宪(1838~?)曾于1883年编撰了新的汉语学习教材《华音启蒙》，这部教材是一部顺应时代需求的新的实用汉语会话教材，较之之前的《老乞大》与《朴通事》，该教材更符合当时朝鲜与清朝之间的外交与贸易的实际需求，该教材也有谚解本。在该教材的最后买卖古董的部分，出现了与《红楼梦》有直接关系的两段内容。其一是关于女娲炼石补天剩下的石头的内容，另一则是关于子母珠的内容。具体内容如下：

①

“罢了罢了，你这样俗眼那能懂得了，我说给你听罢：那女娲娘娘炼石补天时候儿，剩下这块石头，放在青埂山上以来，不定有多少的轮回，一五一十的都说他。所以拿这石头到京里来，找行家要卖，问他要多少价钱，他要五千两银子。”^④

① 刘雨珍编校：前掲书（下），第341页。

② 森槐南，《红楼梦论评》，《早稻田文学》(27)，1891。

③ 森槐南，《红楼梦序词》，《城南评论》(1)，1892。

④ 李应宪编：《华音启蒙谚解》（下），藏书阁藏书，藏书编号：K3-606，第28~29页。

②

“(前略)我问他有什么试认，他说：‘这是瞒不得我的，这叫子母珠，原来海里出的，一颗大的七十二颗小的，这才是全套。你这个珠子少咧一块，咳(还，笔者)不跟我这个好。’，我终是不信他咧。那王爷拿两个金盘子，把这两样珠子搁得盘子里，果然是都滚在一块来，成个鸡蛋(且+鸟)样的。”^①

虽然是简短的内容，但可见朝鲜也将使用《红楼梦》学习汉语付诸了实践。

《华音启蒙》完成于 1883 年，而乐善斋本《红楼梦》完成于 1884 年左右，这二者之间同样存在着可能的联系。

此外，被推测为乐善斋本《红楼梦》译者的译官李钟泰（1850～1908）于 1874（高宗 11 年）同治甲戌增广译科及第，在其及第之前与之后有将近十年的时间（1873～1885）在宫中以写字官的身份活动，之后出任地方知县郡守，似乎在渐渐脱离了译科出身者的活动领域与范围，开始以类似文官的身份踏入仕途。再之后其历任汉城师范学校校长、学部编辑局长、外国语学校校长等职，都与教育有关，且也在某种程度上或多或少地与汉语（外国语）教育有关。

未待述完。

^① 李应宪编：前掲书，第 37～38 页。

韓末東洋書院的成立與中文底本的譯事活動

원명영*

<目 次>

【 국문초록 】

1. 日本殖民初期의 兩大資本出版社
 2. 韓末一九〇七年創辦純韓人資金基督教出版社--東洋書院
 3. 日帝殖民初期東洋書院의 中文底本翻譯活動
 - 3.1 以《今古奇觀》、《說部叢書》為底本の《小說叢書》
 - 3.2 譯自第二屆上海在華新教傳教士大會의《新約聖經註釋集》
 4. 東洋書院繼承《獨立新聞》의 獨立意識與大眾普及性
 5. 宗教信仰與愛國理念結合成立的出版社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동양서원은 1910년대 한국 출판계에서 신문관과 더불어 양대 출판사로 평가되지만, 학계의 관심은 신문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동양서원의 창립 배경, 자본 구성, 운영 체계, 그리고 『소설총서』를 중심으로 출판 전략을 전개한 이유, 단기간 내 『신약성서주석집』을 비롯한 다수의 종교 서적을 출판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역본에 치중한 번역 경향 등은 여전히 한국 근대 문학사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본고는 출판사 연구의 시각에서, 우선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동양서원의 설립 시기를 고증함으로써 그 역사적 좌표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더불어 동양서원이 일본 식민 통치 초기 신소설 전문 출판사로 전환하게 된 배경, 한국 근대 최초의 문학 총서로 평가되는 『소설총서』의 출판 의의와 번역 저본의 출처를 분석한다. 또한, 식민지 초기 출판된 『신약성서주석집』의 번역 방식과 사용된 저본이 어떠한 경로로 선택되었는지도 주요한 논의 대상이다.

갑오경장 이후 한문과 국문이 혼용된 문체가 문학 출판의 주류로 자리 잡는 가운데, 신문관은 이 같은 흐름에 부응하였다. 반면 동양서원은 당대 비주류였던 순한글 문체를 고수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문체 선택을 넘어선 특수한 문화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선택은 한국 최초의 순한글 신문인 『독립신문』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 식민지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두 문체는 각기 어떤 문화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애국 및 계몽의 이념적 영향을 받은 동양서원이 청년회나 서점 등과 연계된 독립운동 네트워크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은 존재하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동양서원의 출판 활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수원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조교수

1. 日本殖民初期的兩大資本出版社

在日本殖民初期，韓國出版界有兩大出版資本主力¹⁾，一是由中人出身、留學日本的崔南善創辦的新文館，以韓漢並用文體出版韓國近代首批定期刊行雜誌《少年》、《青春》，內容以日譯本文學為主。殖民時期，日本明治時代西方文學翻譯佔據主導，並因二十世紀初韓國皇室派遣留學生赴日學習，促使以崔南善新文館為中心的日譯西方文學譯事活動推動韓國文學由近代邁向現代的轉型²⁾。崔南善在近代轉型期的全方位活動，至今仍是學術研究的焦點，尤其透過日譯本翻譯引入歐美新知，並規劃出對近代文化的系統性研究。

另一大出版勢力是基督教出版社東洋書院，於殖民初期發展為朝鮮地區規模最大出版社。東洋書院由進士出身的閔濬鎬創立，主要以中文底本翻譯為主，並以純韓文體出版單行本新小說，是專門的小說出版社。崔南善與閔濬鎬同為漢城基督教長老會信徒，兩位出版領導者在出身、出版傾向和翻譯策略上卻明顯不同。東洋書院於1911年出版韓國近代第一套文學叢書《小說叢書》，其體例和封面明顯模仿晚清商務印書館的《說部叢書》，且韓國第一套《新約聖經注釋集》亦採用1890年上海華新教傳教士大會確定的中文註釋本翻譯。1905年韓國設立統監府，1910年8月日本併吞韓國，學者全光鏞指出：「韓國文學脫離中國文學影響圈，轉向以日本為中心，接觸西方文學成為主流。日帝三十六年來，韓中交流幾乎停滯。」³⁾即日本殖民後韓國與中國的翻譯文學交流中斷。

1910年代初期韓國文壇，日本通俗翻譯與改編敘事作品佔優勢，短篇懸賞徵文風氣盛行，但「新小說」仍是韓國近代敘事文學主流，並推動現代文學形成。最新研究顯示，二十世紀初韓國的新小說寫作方式多模仿晚清上海商務印書館《說部叢書》翻譯文體。東洋書院的翻譯數量最多⁴⁾，且系統模仿程度高，因此東洋書院的中文底本翻譯活動成為繼韓末梁啟超愛國啟蒙文學後，韓中翻譯交流1912至1913年的第二波高潮，證明殖民時期韓中翻譯交流並非完全中斷。雖然新文館與東洋書院是1910年代兩大出版社，但東洋書院未如新文館般被重視。東洋書院的創辦背景、資本來源、營業流通，以及為何選擇小說作為主要出版戰略，為何能短時間出版大量宗教書籍，為何翻譯底本傾向中文，皆是韓國學術尚待深入探討的問題。東洋書院為純韓人資金的基督教出版社，本文透過對其成立時間的考證，明確東洋書院在殖民初期文學轉型與翻譯活動中的歷史地位，並探討其轉型為新小說專刊出版社的動因及《小說叢書》的出版背景。

1) 박진영, 〈책의 발명과 출판문화의 탄생—근대문학의 물질성과 국립근대문학관의 상상력〉, 《근대서지》 제12호, 2015, 147쪽.

2) 金東仁在〈告白〉一文中表示，因為有日譯本，所以不用辛苦地翻譯成朝鮮語，也能接觸到先進的外國文學。這如實地反映韓國近代文學對日本近代文學的依賴。眾所周知韓國近代文學的先驅者，李人植、崔南善、陳學文、洪命憲、李光洙等皆在日本留學時認識了近代文學，對於文學是什麼的問題反覆的思考。如此受到日本近代文學壓倒性的影響，西方文學的翻譯也大多經由日語重譯。金東仁, 〈翻譯文學〉《김동인전집》 제10권, 홍자출판사, 1964, 245쪽.

3) 全光鏞, 〈百年來韓中文學交流考〉, 《比較文學》第5期, 1980年, 17-18쪽.

4) 강현조, 〈한국 근대초기 대중서사의 한역(韓譯)과 중역(重譯), 그리고 번안(飜案)의 역사-1884년-1919년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2016, 79-80쪽.

此外，近代韓國對西方文化的吸收，主要依靠中日兩國譯本的重譯，譯本來源受限重譯路徑複雜，甚至存在四重翻譯。同一作品因作者背景、意識傾向與受眾不同，產生韓漢並用文體與純韓文體的再重譯，形成譯本重譯加文體重譯的複雜現象。韓漢並用文體成為甲午更張後的主流文體，新文館沿用此脈絡；而東洋書院則採用非主流的純韓文體，其背後原因及與首次使用純韓文體的《獨立新聞》之關聯，反映殖民時期兩種不同文體代表的文化與民族意識。本文最後將討論東洋書院如何透過純韓文體及中文底本翻譯，反映當時韓國民族意識與宗教文化的複雜交織，並檢視殖民時期韓中日文化交流的多重翻譯現象，以及兩大文體系統在韓國文學現代化過程中的意義。

2. 韓末一九〇七年創辦純韓人資金基督教出版社——東洋書院

關於韓末閔濬鎬創辦東洋書院的時間，一直是韓國學界的學派懸案。主要有兩種說法：一是創辦於1907年愛國啓蒙運動中期，二是1910年1月，即日本正式殖民前八個月創立，屬於啓蒙運動末期。這不僅關係到東洋書院在歷史上的定位，也關乎其與同時期如崔南善創辦的「新文館」的異同比較。不同於留下《新文館發賣書籍總目錄》等史料的新文館⁵⁾，東洋書院一手資料極為匱乏。雖然據文獻學者河東鎬指出，1912年9月東洋書院曾出版《出版圖書總目錄》及其中的禁書一覽表⁶⁾，但至今未能找到實物，使得創辦時間更難確定。

主張1910年創辦者，主要依據是1911年《每日申報》中刊登的「東洋書院成立一週年紀念」廣告與1912年另一則宣稱「創立至今僅三年」的廣告。此說為目前學界主流。另一說法則認為創立於1907年，根據是金禹鉉牧師的證言，他指出閔濬鎬在1907年作為韓國YMCA代表赴東京參加世界基督教學生協議會時，已經營東洋書院。另外，《新生命》雜誌與崔峻的研究也支持1907年說法，指出東洋書院初期即從事基督教文書的進口與出版，後來發展至翻譯與教材印行，業務範圍甚廣。若僅1910年成立，不太可能在短時間內迅速擴展為能發行《新約聖經註釋集》與《小說叢書》等大型出版品，也難以建構龐大進口與流通網絡，因此1910年說法在邏輯上仍有疑點。

根據《蓮洞教會洗禮名簿（1896-1911）》記載，閔濬鎬於1907年受洗，職業登記為「書鋪」，說明他早已經營書籍相關事業。東洋書院1926年出版之《圖書目錄》序文亦言「本院開業已二十年」，推算即為1907年左右。《朝鮮人會社大商店辭典》亦載其於明治四十年（即1907年）創立，資本金五萬圓。上述資料補足金禹鉉口述證言的不足，顯示1907年說法具備實質依據。由此可見，東洋書院應於1907年創立，初期以進口中國圖書與基督教文書為主，至1910年後擴大經營，進入出版領域，符合當時書鋪轉型為出版社的商業模式。東洋書院由閔濬鎬以個人資金創辦，未受教會資助，是少數由貴族出身、具官職背景人士主導的近代基督教出版社，反映出韓國近代文明開化運動與出版發展的密切結合。

5) 新文館販賣部，《新文館發賣書籍總目錄》，新文館，1914。收錄於김근수, 《일제 치하 언론, 출판의 실태》《한국학자료총서》제2집, 영신아카데미한국학연구소, 1974.

6) 河東鎬, 〈庚戌合併과 함께 發禁된 圖書一覽〉, 《近代書誌攷拾漢》, 답출판사, 1988, 7-10쪽.

3. 日帝殖民初期東洋書院的中文底本翻譯活動

3.1 以《今古奇觀》、《說部叢書》為底本的《小說叢書》

大韓帝國末期（1907-1908年）是韓國近代翻譯文學的第一個高峰，作品多以愛國啟蒙為導向，受到中國梁啟超「小說界革命」思想影響，翻譯題材以歷史傳記與實用性內容為主。然而，自日本於1905年設立統監府，朝鮮逐步淪為半殖民地，至1907年開始實施《報紙法》、《出版法》、《著作權法》等，針對媒體與出版加以管控。這些法令重創啟蒙性質書籍的發行，1910年日本正式併吞朝鮮後，甚至進行大規模查禁與焚毀愛國書籍，造成出版市場急速崩潰。在強烈政治壓迫下，原本反映現實、啟迪民眾的新小說難以維持舊有面貌。作家與出版者不得不避開政治議題，轉向翻譯通俗化、商業性強的「純文學」作品，這一轉變反而促成韓國文學從工具性走向審美性，也標誌著文學場域的擴張與重新定位。

1910年代初期，尤其1912-1913年間，單行本小說出版量劇增，形成翻譯文學的第二波高潮。新小說由於具備大眾吸引力，加上創作人力不足，使翻譯成為滿足市場需求的最佳方式。作品風格逐漸通俗化、娛樂化，以適應殖民社會中的生存空間，並創造出版利潤。報刊受限制後，單行本成為主要流通形式，也促成現代小說市場的形成。在此背景下，韓國民間出版社如新文館、東洋書院等迅速崛起。新文館由具有留日背景的崔南善經營，以雜誌出版日譯本為主軸，使用韓漢混用文體發行《少年》、《青春》等刊物；而東洋書院則由閔濬鎬創立，主力為單行本出版，特別專注於新小說與翻譯改編作品。

東洋書院的成長與成功有三大關鍵：首先，在基督教信仰於1907年平壤復興運動後迅速擴展的背景之下，持續出版宗教書籍穩固基本市場；其次，因廣學書舖等啟蒙出版社受殖民統治打擊而沒落，東洋書院藉此吸納其流通網與出版資源；第三，面對政治審查，轉向出版大眾化、娛樂性的通俗小說，開創新市場。為搶佔市場，東洋書院不僅積極與新小說作家合作，如李相協、金宇鎮等人，也收購舊有出版社（包括廣學書舖）之藏版與版權，重新出版舊作，並推出韓國第一套文學叢書《小說叢書》。此叢書模仿中國商務印書館的《說部叢書》，共四輯，每輯十種，結合原創與翻譯作品，是當時最大規模的新小說出版企劃。

在翻譯文學方面，1908-1919年間，韓國共出版至少22種中文翻譯小說，與日譯本數量相當。這些作品來源主要有兩類：一為明代話本《今古奇觀》類作品，已為朝鮮讀者熟悉，適合進行本土化改編；二為晚清翻譯小說中譯本，主要來自上海商務印書館《說部叢書》。代表作如《回天綺談》《鐵世界》《十五小豪傑》等，深受新式教育階層與女性讀者喜愛。《小說叢書》中翻譯作品佔比超過一半，其中13種翻譯小說來自中譯本，尤以金教濟翻譯數量最多達五種，是1910年代韓中文學交流的重要代表。傳統研究多認為韓中文學翻譯交流止於韓末，但實際上在日本殖民時期仍延續中譯小說的轉譯脈絡，並以純韓文體出版，維持西方文學在朝鮮社會的影響力。韓國近代翻譯文學歷經1907-08年的第一波愛國啟蒙翻譯熱潮高峰與1910年代初1902-03第二波翻譯熱潮的通俗化轉型，在政治打壓與市場現實的雙重壓力下，轉向以商業導向、非政治化的翻譯小說為主，進一步推動韓國現代文學走向多樣化與大眾化，也反映出殖民統治下出版與文學策略的演變。

3.2 譯自第二屆上海在華新教傳教士大會的《新約聖經註釋集》

韓國的聖經翻譯歷史可追溯至蘇格蘭聯合長老會所屬的在華傳教士約翰·羅斯（John Ross, 1842—1915）。當時朝鮮禁止西方宗教進行傳教，羅斯認為透過文書傳教有其必要性，在中國滿洲遇見朝鮮商人李應贊、白鴻俊、徐相崙等人，與其合作展開韓文聖經翻譯。1882年出版《예수성교 요한복음전서》（耶穌聖教約翰福音全書）韓文譯本，1887年則發行第一本韓文新約全書《예수성교전서》（耶穌聖教全書）⁷⁾，由三文出版社在中國發行。此階段韓文聖經翻譯與出版深受中國宣教出版體系影響⁸⁾。

1910年，韓國傳教士終於完成新舊約全書的翻譯，並於1911年出版《성경전서》（聖經全書）韓文版，標誌著韓國擁有完整形態《聖經》的重要里程碑。此後，韓國教會對聖經的研究進一步升溫，尤其是註釋書的需求迅速增長。1907年平壤大復興運動引爆信徒人數激增，使教會活動更加頻繁。1910年代，牧師僅依靠《聖經》講道已漸感吃力，亟需參考性註釋資料。1918年《基督申報》社論指出，註釋書的缺乏令牧師備感困難，呼籲各大教派組織聯合翻譯註釋書，顯見教界對聖經深度解釋的渴求。

為回應此需求，多家出版社積極投入聖經註釋書出版。1911年，平壤太極書館發行《十誡》；博文書館出版《新舊約要旨》與《聖經概論》；普及書館則於1912年推出《加拉太人書註釋》和《羅馬人書註釋》。這些註釋書的出現，反映出基督教信徒需求擴大，也說明一般民間出版社對宗教出版的重視。其中最具系統性與代表性的是東洋書院，由民族主義者閔濬鎬創辦並出版的《新約聖經註釋集》。自1911至1913年，東洋書院出版共21種22卷註釋書，為韓國首部純韓文《新約聖經註釋集》，翻譯底本多為1890年上海「第二屆在華新教傳教士大會」所編寫的中文註釋書。

該大會為中文聖經翻譯與註釋史上的重要轉折，決議《聖經》翻譯採「《聖經》唯一，譯本則三（one Bible in three versions）」（即深文理、淺文理、官話三種譯本）的原則，並啟動註釋書的編纂計畫。羅斯即為註釋書主筆之一，他採用1898年楊格非約翰（Griffith John, 1831—1912）譯出的淺文理《新約全書》⁹⁾，親自撰寫七本註釋書，於1902至1904年由中國聖教書會發行，對中文註釋書發展具有重要意義¹⁰⁾。羅斯撰寫的這批中文註釋書，後來被翻譯為韓文並出版於東洋書院《新約聖經註釋集》中，但在韓文版本中並未明示羅斯為原作者，使得羅斯的貢獻長期未被揭露。直至現代學界從《元杜尤資料集IV》中才證實東洋書院註釋集部分內容出自羅斯所撰中文註釋書¹¹⁾。

此套註釋書的譯者群體亦極具代表性。他們多為韓末開明官僚與知識分子，具有深厚的漢學素養與基督信仰背景。如李源兢曾任軍國機務處議員，也是獨立協會重要成員之一，在監獄中接觸基督教後改宗，

7) 오순방, 〈술라 스크립тура, 실크로드의 기독교선교사 그리고 숭실〉, 《崇大時報》, 2025.4.7.

8) 홍승표, 〈한국교회 성서주석 편찬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기독교사상》 제683, 2015, 149-150쪽.

9) 박형신, 〈존 로스의 중국어 성경주석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한 역사적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제58집, 2021, 156쪽.

10) 例如約翰·羅斯對《馬太福音》的註釋在1911年出版至第6版，可以獲得讀者相當正面好評。

11) 이만열, 옥성득, 《언더우드 자료집 IV》, 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129쪽腳註72. 該書已說明羅斯參與中文聖經註釋的著述工作，但該腳註72記載韓文翻譯本於1912年由朝鮮耶穌教書會出版，應更正為1911-1913年由東洋書院出版。박형신, 〈존 로스의 성경주석 저술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학회 제48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제2권, 2019, 91-92쪽.

於1904年出獄後轉入由奇一牧師創立的蓮洞教會，進而參與《馬太福音註釋》翻譯。其他重要譯者還包括：申錫九牧師、白南奭其父為知名牧師、咸台永、閔濬鎬等人，均為當時上層階級或知識界人士。他們利用自身漢學知識與宗教理念，將中文聖經註釋轉譯為韓文，實現《聖經》知識的本土化。該翻譯工作不僅是宗教行為，更是一次文化與思想的啟蒙運動。值得注意的是，李源兢等人所屬的蓮洞教會，聚集大量開化派、獨立協會成員¹²⁾。他們原為朝鮮改革運動主力，因政治打壓而轉向宗教活動，透過基督信仰重建社會理想，創造出韓國歷史上首次貴族、知識份子與平民共聚一堂的信仰空間。1910年代，這批信徒成為韓國教會的中堅力量，也引領北村等貴族區掀起改宗風潮¹³⁾。

因此，1910年代的韓國聖經註釋書翻譯，不只是宗教出版，更是韓國近代思想啟蒙的重要載體。可將此階段劃分為「韓國人主導的中韓翻譯時期」，特徵為以中文聖經註釋書為底本，由韓國人組成的翻譯團隊，以純韓文出版系統化的註釋集。這一時期的核心貢獻機構即為東洋書院。該院以新約註釋為主軸，系統性地翻譯、編輯、出版，使聖經註釋不再只是西方傳教士所主導，而是韓國知識階層與信仰群體集體推動的成果。註釋書內容深入淺出，既提供教會講道教材，也成為信徒個人研經的重要工具。1910年代的韓國聖經註釋發展，可見其融合中國神學、韓國翻譯傳統與西方宗教思想。由於多數譯者具備漢學背景，能迅速掌握中文原意並轉化為韓文表述，使翻譯工作兼具準確與文化貼近性。這也反映出中文神學成為韓國神學基礎的重要事實。

4. 東洋書院繼承《獨立新聞》的獨立意識與大眾普及性

19世紀末，朝鮮面對內外壓力，啟蒙派人士推動文明開化與民族自立。急進開化派代表徐載弼在甲申政變失敗後流亡海外，接受基督教洗禮。甲午戰爭後歸國，見上層改革失敗，轉向倡導由下而上的改革，主張以西方文明與民族意識啟蒙大眾。他於1896年創刊韓國第一份純韓文報紙《獨立新聞》，推動國文專用，提升韓文地位，試圖建立文明、開化、獨立的語言體系，並與尹致昊、李商在組成獨立協會，掀起民族啟蒙運動。

《獨立新聞》一方面傳播新知識，另一方面藉由純韓文體實現言文一致，突破傳統士大夫對漢文的崇拜，使平民與婦女能參與閱讀與討論，擴展純韓文社會基礎。儘管因保守勢力打壓於1899年停刊，但其純韓文體的實踐，為後續新小說、聖經譯本等讀物鋪路，開啟純韓文應用於教育與文化的契機。進入日本殖民統治後，純韓文地位再度被貶為諺文，日本推行日語國語化政策，同時利用漢字文化作為同化工具。福澤諭吉的文明開化論被殖民政權用以合理化統治，朝鮮部分知識分子如崔南善、李光洙等提出文化日本化理論，甚至在語文使用上轉向日式漢文混用體。

12) 李光麟，〈舊韓末 獄中에서의 基督教信仰〉，《韓國開化史의 諸問題》，一潮閣，1986，2

13) 1884年開始基督新教始在朝鮮正式傳教，受洗入教多為下層民眾。上層社會仍以儒學為主流，只有個別有海外經驗的班閔貴族如徐載弼、尹致昊或開明知識份子接受基督教信仰。

然而東洋書院的出現，成為延續《獨立新聞》純韓文體精神的重要節點。閔濬鎬在1910年前後創辦東洋書院，集結曾參與獨立協會的基督教知識分子，如李源兢、咸台永、李海朝等人，堅持純韓文出版。東洋書院在日本殖民初期發行兩套代表性純韓文叢書：其一為《新約聖經註釋集》，由閔濬鎬與李源兢等翻譯，強化基督教思想與西方文明理解；其二為《小說叢書》，翻譯中譯小說，引入西方思想，試圖結合傳統文學敘事與現代意識。與同時期多數出版社選擇漢字混用文體不同，東洋書院在面對殖民文化壓力下仍採用純韓文體，展現激進的語文改革立場，拒絕同化持續實踐言文一致的啟蒙理念。其翻譯策略不再仰賴中國古典，而是吸納西方文化，透過純韓文構築新時代的國語體系，體現近代國族語言建構的努力。東洋書院的出版實踐證明，純韓文體不僅是語文形式的選擇，更是一種文明與獨立的象徵，是朝鮮民族在面對帝國主義與語言壓迫時，持續抵抗與自我建構的重要手段。

5. 宗教信仰與愛國理念結合成立的出版社

20世紀初日本殖民統治下的朝鮮，純韓文體在東洋書院的出版實踐中，延續了《獨立新聞》所倡導的民族語文自主精神。東洋書院由前待從院待閔濬鎬創辦，於1907年在蓮洞教會受洗前即已設立，是承接19世紀末獨立協會運動與啟蒙精神的重要機構。其出版的兩套韓國首部純韓文叢書——《新約聖經註釋集》與《小說叢書》，成為殖民初期規模最大的譯事活動與文學企劃。這些翻譯以中文本為底本，延續北學派以中國漢籍理解西方文明的治學傳統，並結合基督教宣教策略，藉由翻譯《聖經》與中譯西方小說，引介西方思想。特別是《新約聖經註釋集》以1890年上海在華新教傳教士會議的中文註解版為底本，體現西方神學思想在韓國的在地化，具有強烈的文化轉譯與文明傳遞功能。

相對於崔南善1908年創立的新文館採用日譯本與韓漢並用文體，東洋書院堅持使用純韓文體，展現出在語文選擇上的民族主體性。新文館如《少年》《青春》等刊物，傾向日式文明論與同化路線；而東洋書院的譯者，如李海朝、金教濟等人，則為具漢學背景的開明知識分子，其選擇純韓文體翻譯《今古奇觀》與《說部叢書》中譯小說，目的在於結合傳統敘事與現代教育、男女平權等啟蒙理念，擴大平民與婦女的閱讀層。東洋書院的出版不僅是語文形式的選擇，更是對抗日語國語化與漢字同化政策的文化實踐。純韓文體的選用本身即具有脫離中國與日本語言霸權的象徵性，是繼《獨立新聞》後另一場文字與文體革命的延續。這些活動證明了韓中翻譯交流並未如傳統所言於甲午戰後斷裂，而是在日本殖民初期以純韓文的形式持續運作。

在此語境中，閔濬鎬與東洋書院不僅延續了《獨立新聞》的語文改革精神，也與基督教青年會、新民會與太極書館等組織形成民族獨立運動的聯絡網。尤其在教會被視為「法外之地」的殖民體制下，這些出版與翻譯活動成為民族主體意識暗流中的關鍵節點。相較之下，留日知識分子所採行的韓漢並用體，在漢字文化同化政策下漸走向親日。東洋書院的翻譯策略與語體選擇，則體現受基督教文明觀影響下的激進改革意識，成功將純韓文推升為現代韓國語文體系的核心。文學媒介成為語文革命的主要舞台，韓國進入一個「文字交替＝文明轉換」的時代。韓國近代文體革命的譜系從漢文體到韓漢並用體、再到現代純韓文體的專用，正是韓國現代性建構的重要文化軌跡。

참고문헌

1. 專書

- 김봉희, 《한국 기독교문서 간행사 연구(1882-1945)》,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7.
김옥동, 《번역과 한국의 근대》, 소명출판, 2010.
김영민, 《문학제도 및 민족어의 형성과 한국 근대문학(1890~1945) : 제도, 언어, 양식의 지형도 연구》, 소명출판, 2012.

2. 學位論文

- 김명구, 《월남 이상재의 기독교 사회운동과 사상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장정운, 《1920년대 한국 근대음악문화 지형그리기 : 음악출판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3. 期刊及專書論文

- 全光鏞, 〈百年來韓中文學交流考〉, 《比較文學》第5期, 1980年.
李光麟, 〈舊韓末 獄中에서의 基督教信仰〉, 《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閣, 1986.
河東鎬, 〈庚戌合併과 함께 發禁된 圖書一覽〉, 《近代書誌攷拾漢》, 답출판사, 1988.
지은이, 김재용, 이상경, 오심호, 하정일, 〈온건개화파의 반봉건 의식과 개량주의 : 이해조〉,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윤병조, 〈개화기 한국 기독교 출판문화 사업이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에－監理敎出版社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장노현, 〈1910년대 초반 서사적 계몽성의 마지막 모습-김용제와 박건병의 행적과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73권, 2012.
홍승표, 〈한국교회 성서주석 편찬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기독교사상》 제683, 2015.
박진영, 〈책의 발명과 출판문화의 탄생--근대문학의 물질성과 국립근대문학관의 상상력〉, 《근대서지》 제12호, 2015.
강현조, 〈한국 근대초기 대중서사의 한역(韓譯)과 중역(重譯), 그리고 번안(飜案)의 역사-1884년-1919년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2016.
최효은, 〈번역사 연구방법을 통한 「단권 성경주석」(1934)의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정희정, 〈19세기 조선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글 재인식에 끼친 공헌 : 기독교 문서선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제44권, 2016.
박형신, 〈존 로스의 성경주석 저술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학회 제48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제2권, 2019.
박영신, 〈민주주의의 조건—지배 계급의 문자(‘漢字’)에서 인민의 글자(‘한글’)로〉, 《현상과 인식》 제44권제2호, 2020.
이상훈, 〈개화기 만주에서의 한글성경 번역과 문화 변동-1887년 존 로스의 《예수성경전서》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제31권제1호, 2023.

人间之镜

《列仙传》中的仙人形象建构

王楠楠

<目 次>

【摘要】

1. 引言
 2. 本论1
 3. 本论2
 4. 本论3
 5. 本论4
 6. 结语
- 参考文献

【 摘要 】

《列仙传》以传记的形式，塑造了仙人的形象，构建了一个凡人可通过服食、导引等方式修炼成仙的多元世界。仙人形象兼具神性与人性：外在表现为特殊的服饰、饮食与容貌，内在则以长生不死为核心能力。书中既展现了道教修炼思想，又融入了儒家伦理观念和民间文化传统。女性仙人形象多遵循世俗道德规范，反映出当时的社会价值观。该作品通过仙凡交融的叙事，体现了汉代宗教思想与世俗文化的深度交融，成为研究早期道教和民间信仰的重要文本。

1. 引言

《列仙传》作为中国早期重要的仙传文献，系统记载了七十位仙人的事迹，构建了一个独具特色的神仙世界。本书不仅反映了汉代道教修炼思想的核心内容，更蕴含着丰富的文化内涵。通过分析仙人的出身身份、内在神性与外在表现，以及其中体现的世俗价值观，我们可以窥见道教在形成初期如何融合历史传说、儒家伦理和民间信仰。仙人形象既是宗教理想的投射，也是现实社会的镜像，其建构过程深刻体现了中国文化中宗教思想与世俗生活的交融互动。本研究旨在通过文本细读，揭示这一形象建构背后的宗教心态与文化逻辑。

2. 本论1

第一部分：出身身份

《列仙传》通过展示这些仙人的原始身份与出身，揭示了成仙的资格与方法。有些仙人是天生仙真，自其出现之始即为仙人。有些则是转化之仙，起初为凡人（包括普通人与贵族后裔），最终凭借特定方法完成从凡人到仙人的转变。实际上，这部分转化之仙是全书的重点。在这些转变过程中，不仅展示了道教的仙道思想，也显现了一种复杂的文化心态。

全书共有四位天生仙真拥有独立的传记，且他们皆具有仙族血统。第一位是黄帝。他年幼即能言，圣明而能预知未来；能劾制百神，使其朝拜并听命于他。¹ 由此描述可见，作为上古神话时代的帝王，黄帝自出生起便是神而非人。并且，其地位高于其他神灵。他降临人世，为人类社会创立万物，待任务完成后便返回天界。

关于黄帝的记载亦存在于正史《史记》之中。² 受学者倡导通过比勘不同文本（尤其是小说与史书）中同一人物形象以发现差异的启发，³ 可以追溯《列仙传》如何在历史基础上建构黄帝的仙人形象。建立社会制度、祭祀山川以及铸鼎等事迹，是《列仙传》与《史记》记载相同之处，即黄帝作为统治者的贡献。然而，《列仙传》亦为黄帝附加了一些超自然能力，例如骑龙、驱使自然现象以及迫使其他神灵臣服，这使得这位传奇帝王成为神灵的代言人。由此可见，黄帝的仙人传记是可靠历史记载与仙道思想的结合。正史与仙传之间的界限是模糊的。

第二位是江妃二女。书中没有关于她们的籍贯、年龄等基本信息描述。她们的来历神秘，只是突然出现在江边。郑交甫对她们一见钟情。经过愉快的交谈后，他们互赠信物。最后，江妃二女连同信物突然消失。此故事的独特之处在于，除了突然出现和消失这一超自然迹象的情节外，它就是一个古代典型的君子与淑女之间的爱情故事。甚至他们对话的文辞也极具诗意。例如，“橘是柚也，我盛之以XX”这样的句子，便是《诗经》的修辞风格。

此外，故事后的赞语补充了对二女容貌的描述。“丽服微步，流盼生姿。”此描述与《庄子》中的神人形象如出一辙。⁴ 可以说，此处女性仙人形象的建构部分继承了前代典籍的传统。江妃二女是全书中唯一具有此类审美描述的例证。总之，江妃二女具有混合的形象：一方

¹ 张金岭、陈满铭，《新译列仙传》，台北：三民书局，2004，14.

² 《史记》中关于黄帝的主要记录，出自于《五帝本纪》与《封禅书》。

³ 学者胡守为曾尝试对比史书传记与神仙传记，力图找出仙传是如何重写历史，以“编造”神话，具体细节参看《〈后汉书·栾巴传〉与〈神仙传·栾巴传〉》，中山大学学报2012，no.3:69.

⁴ 可以参考《庄子》中对“神”的这一段著名描述：藐姑射之山，有神人居焉，肌肤若冰雪，绰约若处子，不食五谷，吸风饮露，乘云气，御飞龙。

面，作为典型的美女，代表了传统的仙人形象；另一方面，她们热衷于追求世俗爱情，这又为其形象注入了凡人的情感。

第三位是东方朔，作为历史上的真实人物，在正史《史记》和《汉书》中均有详细记载。尽管两部史书记载了不同的故事，但都展现了东方朔作为一朝大臣的性格——机敏、善辩、聪慧、傲慢且擅长占卜。然而，在《列仙传》中，他的传记被仙道思想所改写，变成了仙人传说。此情况与上文讨论的黄帝类似。《列仙传》延长了东方朔的寿命，使其在汉昭帝和汉宣帝时期仍在朝中活动，而非死于汉武帝时期。并且，为避乱世，他随风消逝。最重要的改写在于东方朔的出身，他并非凡人，而是“岁星之精”。如此一来，作为历史人物的东方朔，其传记真伪参半，成为了具有仙真血统的仙人。

最后一位是司命君。木羽的母亲是一位助产士，曾为司命君的转世接生。为报答接生之恩，司命君携木羽为侍从，一同返回仙界。司命君重获仙位，并帮助木羽成为仙人。

这四位仙真共同证明了仙人这个世界上的真实存在。与正史的模糊性增加了仙人传记的真实感。无论他们是以仙人身份降临人世，还是因各种原因经历转世，他们都与凡人共享同一个世界。他们可以与人类交流，甚至帮助凡人成仙。此外，他们具有身份优势，无需额外努力便自然成仙。这些仙人的形象是历史基础与仙道思想的混合物。

本书的重点在于凡人部分。即，凡人如何通过一系列方法实现向仙人的转变。以下部分将重点分析这些凡人的世俗身份。

彭祖是颛顼帝的孙子，通过服食桂芝以及善导引行气而成仙。⁵王子乔是周灵王的太子，在道士的引导下得道成仙⁶。尽管二人身份尊贵，但成仙并非皇室血统独有的特权。

一些无官职的吏员和从事低微职业的普通人，亦可通过饵食（植物与矿物）、导引、行气及仙人指引等方式成仙。关键在于外在的修炼方法，而非先天的血统。例如，黄帝时期的马师皇，作为马医，在治愈病龙后，被龙引导致仙。周朝的低级史官邛疏，通过服食石髓而成仙。⁷此类例子全书比比皆是。与天生仙真不同，普通人可以通过自身努力成为仙人。进而，人人皆可通过外在努力成仙，如此一来，便没有了血统与身份的区别。基于此论点，一些能暴露文化心态的特殊细节将得到进一步分析。

首先，道士的形象开始在故事中频繁公开地出现，并在“成仙”转变中扮演重要角色。道士，正式与仙界相关联。书中有如下关于道士的记录：

名字	对他人的贡献
浮丘公 ⁸	指引王子乔登山成仙
稷丘君	为汉武帝制仙药
某道士	指引“主柱”成仙。
昌容	济贫。

⁵ 张金岭、陈满铭，《新译列仙传》，台北：三民书局，2004，55.

⁶ Ibid., 91.

⁷ Ibid., 11.

⁸ 列表中的原文引用，出于篇幅限制，我在此处全部删除。

山中道人	医治“山图”的腿，教导他制作仙药的秘诀，引领他成仙。
谷春	教导“毛女”制作仙药的秘诀，引领她成仙。
黄阮丘	医治“朱璜”的疾病，教导他制作仙药的秘诀，引领他成仙

根据前文分析，这些具有长寿和超能力的道士可被定义为仙人。然而，他们与其他传记中的人物略有不同。他们不为自身利益争斗，亦不展示自己如何成仙。相反，他们常以帮助他人成仙的导师身份出现。他们能预知未来、避害就利，并能扶助弱小与贫困。最重要的是，他们掌握了长生的秘诀，即仙丹的内容与炼制方法。

道士成为仙界的使者，负责通过传授仙丹秘方与修炼技术来引导凡人成仙。换言之，道士成为凡间与仙界之间的桥梁。如此一来，道士的地位大大提升，不仅在《列仙传》构建的仙界中占据重要位置——是普通人成仙的最大助力，而且在现实世俗社会中，道士也提高了知名度、声望和社会地位。

其次，仙人在世俗世界中常以卖药者为其职业。偃佺、范蠡、安期先生、瑕丘仲、任光、崔文子、东方朔、鹿皮公、赤斧、负局先生、黄阮丘和玄俗，这些人皆有独立的故事，而非在他人的传记中作为配角被提及。换言之，书中七分之一的主要角色拥有相同的职业身份。卖药者作为一种职业形象充满了复杂性，这体现在形象本身以及此职业出现的原因上。

实际上，这些丹药（药物）不仅能助人成仙，亦能治愈凡间的疾病。黄阮丘治愈了朱璜腹中的肿瘤。⁹玄俗治愈了河间王腹中的肿块。¹⁰负局先生和崔文子皆能处理大众中的大规模瘟疫。¹¹卖药者的形象与医生的形象相结合，向公众展示了治病救人的能力。除了长寿等遥远的好处，仙人与仙丹更贴近凡人的日常生活。他们有能力解决普通人的问题，因而更具吸引力。此外，在《列仙传》构建的世界中，服食（植物与矿物）的重要性被高度强调。卖药者的频繁出现正是此思想的反映。

第三，五行元素附着于职业之上。诸如渔夫、火师、乞丐、市集小贩等，书中提及的多为普通职业。这一方面创造了一个仙凡共处、仙人隐于常人之中的世界，另一方面也展示了身份不显赫的普通人亦可成仙的事实。然而，这些普通职业并非偶然出现，相反，它们似乎经过了作者的选择，并蕴含一定的宗教逻辑或文化逻辑。已有学者论及此点。例如，鱼即是龙，渔夫能接触这些仙灵之物，故其被龙引导致仙是相当合理的。祭祀多与火相关，火师实为古时掌管祭祀的巫觋。因此，仙传在某种程度上继承了原始祭祀文化的遗绪。¹²除这些具有启发性的论点外，本论文将提出另一假设：即一个由五行结构化的文化模式，被作者有意或无意地编织进了这些职业之中。

⁹ Ibid., 212

¹⁰ Ibid., 233

¹¹ Ibid., 129, 208

¹² 苟波,《神话-原型批判视域中的列仙传人物类型解读》，四川大学学报, 2017, no.1: 12.

书中，对应“金”行的有冶金者，如陶安公；对应“木”行的有木匠，如赤将子與、葛由、鹿皮公；对应“水”行的有渔夫，如寇先、子英；对应“火”行的有火师，如赤松子、啸父；对应“土”行的有农夫，如祝鸡翁。虽无证据表明这些职业是作者有意选择，但也并非全然巧合。五行概念在《列仙传》成书时代并非新见，相反，它已被应用于诸多方面，包括道教。在很大程度上，作者受到这种流行文化心态的影响，不自觉地创造了这样一系列职业。而仙人形象不仅是纯粹道教宗教思想的产物，同时也通过这些职业被赋予了社会文化的特征。

总之，《列仙传》构建了一个人人都可达成仙道目标的世界。身份、血统、职业与社会地位的差异并非成仙的障碍。在《列仙传》中，仙人形象常被设定为道士与卖药者，这代表了道教的宗教理念。同时，附着于此形象之上的五行模式也显示了民间文化传统的影响。¹³

3. 本论2

第二部分：内在神性与外在神性

仙人形象通过细节得以丰满。他们所食之物、所居之处、所着之衣、所显之貌，所有这些与凡人相比皆有不同特征。这些显著的特征在本部分被概括为外在神性。同时，这些仙人所展现的超自然能力与特殊个人经历则被概括为内在神性。这两种神性共同建构了《列仙传》所提出的仙人形象。通过对这些神性的分析，隐藏其后的宗教与文化心态也将得到探讨。

第一点是服饰。全书关于仙人服饰的描述甚少。仅有两处值得注意并讨论。其一在稷丘君的故事中。时值汉武帝东巡泰山。道士稷丘君“冠章甫，衣黄衣，拥琴来迎”。章甫是殷朝成年男子的一种礼冠，亦频繁出现于儒家典籍中。同时，古琴是代表音乐素养的象征，乃儒家要求君子所习“六艺”之一。事实上，古琴作为配饰，在书中其他章节亦常出现。通过这些服饰与装饰的展示，道士的形象颇具儒家风范。

另一处在服闋的故事中。服闋偶然得到仙人指引，获准进入方丈仙山。他因私自偷取并贩卖方丈山之宝物至人间而受罚。作为惩罚，他被“髡发着赭衣”。剃发乃古代一种刑罚，赭衣亦是囚犯所穿之服。可见，仙人依照凡俗社会的规则惩罚犯错者。换言之，《列仙传》旨在通过模仿儒家士人形象来建构优雅的仙人形象。即使在建构仙界罪人形象时，其参照依然是世俗世界的囚犯。总之，仙界是凡俗世界的转化与映照。

第二点是食物。在《列仙传》中，仙人的食物不限于日光、露水与云霞，它们变得更为普通，或更易为凡人获取。简言之，这些食物可概括为两大类：一类是植物，如桃李葩、灵芝、五色草、松叶等；另一类是矿物，如五石脂、丹砂、石髓、云母

¹³ 本文此处还有关于女性神仙形象构造的论述，以及表格陈列，但本次会议对于提交论文的篇幅有明确限制，所以此处将后半部分删除，直接进入下一个问题的讨论。值得说明的是，第二部分、结论部分、参考文献部分，我都有所删减，甚至是在下文的原文引用、解释说明部分，也做了简化处理，如果需要，我可以在会后提交论文完整版部分，敬请谅解。

等。这些食物名称复杂且充满文雅气息。至于它们是否真实存在或仅为虚构，以及它们与现代植物矿物的对应关系，此处不予讨论。

生长于天地之间、吸收日月雨露自然精华的植物，被视为天地之气的精华。与天地同生的矿物，不仅被视为天地之气的精华，亦蕴含长寿之意——与天地同寿。因此，人可通过服食这些植物与矿物，将其精华与长寿转移至人体，最终达成仙道。这或可解释为何存在饮食禁忌。五谷与肉类皆会破坏人体内气的纯净。为达成仙道，五谷、肉类及五辛（如蒜、葱等）被从仙人的菜单中剔除。¹⁴

尽管植物与矿物已成为全书食物的主流，但这并不意味着仙人或求仙者完全断绝了世俗饮食。有几处描述值得关注。朱璜成仙后，曾回家食宿数年复去。子英乘赤鲤（即赤龙）升仙后，每年仍返回故居饮食，与妻子儿女相见。在女丸的故事中，仙人降至凡间，在其店中享用美酒。此处重点并非区别于植物与矿物的世俗食物本身，而是这些食物所代表的世俗生活。尽管这些人已成功成仙，他们仍可选择世俗饮食作为凡人生活的一部分。换言之，这些转化之仙并未切断与世俗生活的联系，他们仍可享受人间乐趣。

总之，服食（植物与矿物）是道教倡导的重要成仙方法之一，本书对食物的建构显然是对此宗教思想的背书。同时，此处的食物并非纯粹的仙家食品，相反，其中混杂了世俗元素。食物代表了被建构仙人的复杂形象——仙凡结合体。

第三点是容貌。《山海经》的写作习惯是通过细致描述生物的外貌特征来建构其形象。特殊的外貌是区分不同生物的基础。而《列仙传》并未继承此传统，对人物容貌的描述极少。该书侧重于人物的奇幻经历，宛如故事书。然而，在少数提及容貌的故事中（如下表所示），亦显示出与古代传统的联系。

名字	外貌
黄帝	有龙形
偃佺	形体生毛，长数寸，两目更方
务光	耳长七寸
黄阮丘	耳长七寸，口中无齿。
宁先生	毛身广耳
毛女	形体生毛

这些容貌并非基于代表美丽与优雅的仙人审美。相反，体生长毛、大耳、方眼、无齿的形象，更像是一种猛兽之貌，而非普通人类。具有此类特征的仙人显然不利于激发人们的成仙欲望。此外，《列仙传》试图构建一个仙凡共处、凡人可通过特定方法转化为仙人的世界。该书不欲通过奇异外貌来彰显地位差异，并为成仙设置资格限制。此处的容貌描述是以《山海经》为代表的古代传统的遗存。《列仙传》成书于道教仙道思想影响之下，旨在道教框架内塑造仙人形象。然而，该书亦不可避免地受到

¹⁴ 葛兆光，《道教与中国文化》，上海：上海三民出版社，1987，111.

当时文化背景的影响，并借鉴前代的写作传统，因而呈现出复杂的混合状态。在外貌描述方面，《列仙传》建构的仙人形象显示出过渡时期的特征。

服饰、食物与容貌可概括为外在神性，而仙人所展示的超自然能力则可视作内在神性。《列仙传》的核心要点是长生，所有故事皆为此核心术语服务。长生是“仙人”身份的基本资格，是判断一个存在是否为仙人的标准。同时，长生是仙人最重要的超能力，也是诱惑普通人求仙的最大诱惑力。下文将讨论基于长生的超能力，以及那些并非直接相关的超能力。¹⁵

6. 结语

《列仙传》通过仙人的传记的形式，展示了一系列仙人形象的建构。本文通过文细读，揭示本书构建的仙凡交融的宗教图景。仙人形象兼具神性与人性特质，其建构过程既体现了道教的核心追求——特别是长生久视的修炼思想，又深刻融入了儒家伦理规范与民间文化传统。书中对仙人身份、外在特征与超凡能力的描述，不仅反映了汉代宗教思想的特点，更展现了道教在形成初期与世俗价值观的复杂互动。这一形象体系既是宗教理想的投射，也是现实社会的文化镜像，为理解早期道教与中国文化的关系提供了重要视角。

参考文献

一、基础文献与古籍整理

- [1] 道藏：第5册[G]. 北京：文物出版社； 上海：上海书店； 天津：天津古籍出版社， 1988.
- [2] 刘向. 列仙传[M]. 王根林，校点，汉魏六朝笔记小说大观.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99.
- [3] 刘向. 列仙传校笺[M]. 王叔岷，校笺. 北京：中华书局， 2007.

二、专著与论文集

- [4] CAMPANY R F. To live as long as heaven and earth: a translation and study of Ge Hong's Traditions of divine transcendent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 [5] 葛兆光. 道教与中国文化[M]. 上海：上海人民出版社， 1987.
- [6] 苟波. 道教与明清文学[M]. 成都：巴蜀书社， 2010.
- [7] 何宁. 淮南子集释[M]. 北京：中华书局， 2016.
- [8] 胡孚琛，主编. 中华道教大辞典[Z].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5.
- [9] 李丰楙. 忧与游：六朝隋唐游仙诗论集[C]. 台北：台湾学生书局， 1996.
- [10] 卿希泰，主编. 中国道教史：第1卷[M]. 成都：四川人民出版社， 1988.
- [11] 王梦鸥. 礼记今注今译[M]. 台北：台湾商务印书馆， 1972.

¹⁵ 出于篇幅限制，此处我把神仙能力的论述部分也删除掉了，如有需求，我会提交完整原文。第三大部分，关于“世俗价值观与情感”也进行了全部省略。

- [12] 小南一郎. 中国的神话传说与古小说[M]. 孙昌武, 译. 北京: 中华书局, 2006.
- [13] 杨伯峻. 论语译注[M]. 北京: 中华书局, 1980.
- [14] 张金岭, 陈满铭. 新译列仙传[M]. 台北: 三民书局, 2004.

三、 期刊论文

- [15] 苟波. 神话-原型批评视域中的《列仙传》人物类型解读[J]. 四川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7(1)
- [16] 胡守为. 《后汉书·栾巴传》与《神仙传·栾巴传》[J]. 中山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2, 52(3)
- [17] 孙昌武. 《列仙传》与六朝神仙传说[J]. 中华文史论丛, 2010(1)
- [18] 孙齐. 《列仙传》成书考[J]. 复旦学报(社会科学版), 2019(5)
- [19] 孙嗣尧. 《列仙传》中的“地方”与“神仙”[J]. 宗教学研究, 2022(3)
- [20] 姚圣良. 《列仙传》神仙形象的文化内涵[J]. 中南民族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06(S1)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2부

13. 고전문학(4)

위당관 202호

장르의 변용과 지역서사의 구축

수당(隋唐)계열 소설의 국내 수용과 변용

梁바름*

<目 次>

【 국문초록 】

1. 수당계열 소설의 형성과 발전
2. 조선 전기, 중국 소설의 전파
3. 조선 중후기, 중국 소설의 유행과 발전
4. 수당계열 소설의 번역 특징
5. 방각본 소설의 등장과 수당계열 소설
6. 활자본 고소설의 발전과 수당계열 소설
7. 맺음말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수당(隋唐)계열 소설의 형성과 발전 및 조선으로의 전파와 조선인의 수용양상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방각본 및 구활자본 고소설로 발전하는 양상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및 의의는 수당계열 소설이 《三國演義》 등의 중국 연의소설과 같이 중국의 한 시대를 다룬 연의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이와 같은 국내의 상황과는 달리, 이 작품군은 중국에서 현재까지도 《三國演義》와 함께 널리 읽히는 작품군으로서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된다. 또한 관련 작품군에는 고구려 및 백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조선시대의 각종 기록을 살펴보면 수당계열 소설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언급이 종종 등장하며 이 점에서 연구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고려 말기의 학자 이곡(李穀)이 《稼亭集》에서 《楊太眞外傳》을 언급하였고, 허균이 《三國演義》와 더불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연의로 《隋唐演義》을 꼽은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 조선의 문인인 윤근수(尹根壽), 김시양(金時讓) 역시 문집에서 수당계열 소설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또한 수당계열 소설은 조선의 민간에서도 큰 인기를 끌어 다량의 한글 번역본이 현존하여 국내 각지에 소장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에는 방각본 소설로 개작되었고, 조선 말기 및 일제시대에는 활자본 고소설로 발전하여 출판 및 유통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수당계열 소설의 국내 수용과 변용이라는 큰 틀에서, 작품군의 해외 전파와 발전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문학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를 이해하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어 : 수당계열 소설, 수당연의, 설인귀전, 당태종전, 방각본, 구활자본 고소설

* 慶熙大學校 東亞細亞 書誌文獻研究所 研究員

1. 수당계열 소설의 형성과 발전

수당계열 소설은 《隋史》, 《舊唐書》¹⁾, 《新唐書》, 《資治通鑑》²⁾ 등 사서(史書)에 기록된 수당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삼았다.³⁾ 이와 같은 사서에 기록된 수당 시기의 역사적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역사의 기록이지만, 문학 작품의 소재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으며, 《隋唐嘉話》, 《隋遺錄》, 《海山記》, 《開河記》 등의 필기(筆記)소설과 전기(傳奇)소설에 활용되었다. 《隋唐嘉話》⁴⁾는 수당시대의 일화를 기록한 것으로, 수당 고사의 전기화(傳奇化)가 시작된 작품이다.⁵⁾ 또한 《隋遺錄》, 《海山記》, 《開河記》, 《迷樓記》는 수양제(隋煬帝)의 집권 시기 동안 일어난 각각의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작품이며, 이와 같은 작품은 후대의 《隋煬帝艷史》⁶⁾, 《隋唐演義》⁷⁾의 창작에 영향을 미쳤다.⁸⁾ 송대에 이르러서는 시민 계층의 발전으로 인해 이야기와 노래를 결합한 설창문학이 번성하여, 수당 고사를 다룬 설창문학의 경우, 비교적 이른 시기에 등장한 《韓擒虎話本》과 《唐太宗入冥記》가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韓擒虎話本》은 역사적 사실을 예술적으로 가공하여 인물의 업적을 서술하였으며, 백화(白話)류 영웅전기의 조본(祖本)으로서 이후 수당계열 소설의 영웅적 인물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唐太宗入冥記》는 불교소설의 대표작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명군(名君) 당태종의 형상을 서술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수당계열 소설의 창작에 큰 영향을 준 작품이다. 《隋唐演義》 제68회가 《唐太宗入冥記》의 내용을 옮겨 쓴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명청시대는 중국 고전 소설의 황금기로, 상술한 수당계열 소설의 초기 작품들을 정리 및 집대성한 《隋唐演義》와 《隋煬帝艷史》와 같은 작품들이 창작되어 널리 읽혔다. 이들 작품은 연의소설의 중요한 계보 중 하나로 자리잡아, 다른 연의소설들과 함께 한 조대(朝代)를 대표하는 소설군을 형성하였다.

- 1) 魏征在寫給唐太宗的上書中提到: “臣願當今之動靜, 思隋氏以爲鑒, 則存亡治亂, 可得而知. 若能思其所以危, 則安矣; 思其所以亂, 則治矣; 思其所以亡, 則存矣.” 劉昫等撰, 《舊唐書》권 71, 中華書局, 1975년, 2554쪽.
- 2) 《資治通鑑》에서 서술하는 수당 고사는 《唐書志傳通俗演義》《隋唐志傳通俗演義》등 작품의 창작에 소재를 제공하였다. 《唐書志傳通俗演義》제 1권 제 10회에서 이연이 거병하여 아들 이세민이 각지를 정복하고 왕세충, 이밀과 대전을 벌이는 고사는 《資治通鑑》권 183《隋紀》제 7의 “恭帝上義寧元年”과 권 184《隋紀》제 8의 “恭帝下義寧元年”의 구성과 순서상 일치하며 내용 역시 대동소이하다. 그 외에 《隋唐志傳通俗演義》제 5회부터 제 8회의 내용은 이세민의 거병과 와강기의(瓦崗起義)의 발전 과정을 서술하였는데, 이는 《資治通鑑》권 183《隋紀》제 7의 “煬皇帝下大業十二年”과 “恭帝上義寧元年”의 주요 사건과 비슷하다. 徐燕, 《隋唐故事考論》, 揚州大學博士學位論文, 2010년, 28쪽.
- 3) 徐燕, 《隋唐故事考論》, 揚州大學博士學位論文, 2010년, 23쪽, 수당 역사서사의 연의화 양상 연구, 이지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년.
- 4) 《隋唐嘉話》에 수록된 수많은 전고는 후대의 사서와 소설에서 인용되었다. 당나라 초기 군신의 사적은 《舊唐書》《新唐書》《資治通鑑》등의 사서에 기록되었고 《大唐新語》《唐語林》등의 잡저 작품속에도 수많은 관련 문장이 등장한다. 《資治通鑑》은 비록 사서의 서술 형식을 채택하였으나 이를 소재로 창작된 《隋唐嘉話》중에는 각자의 풍부한 예술적, 주관적의식이 개입되었다. 王增學, 《論〈隋唐嘉話〉的文學因素及對後世文學的影響》, 山東理工大學學報, 2012년 제 2집, 38쪽.
- 5) 卽如《隋唐志傳》, 創自羅氏, 纂輯於林氏, 可謂善矣. 然始於隋宮剪采, 則前多闕略, 厥後鋪綴唐季一二事, 又零星不聯屬, 觀者猶有議焉. 昔籀庵袁先生曾示予所藏《逸史》, 載隋煬帝、朱貴兒、唐明皇、楊玉環再世因緣, 事殊新異可喜, 因與商酌, 編入本傳, 以爲一部之始終關目. 合之《遺文》《艷史》, 而始廣其事, 極之窮幽仙證而已竟其局. 其間闕略者補之, 零星者刪之, 更采當時奇趣雅韻之事點染之. 彙成一集, 頗改舊觀. 褚人獲, 《隋唐演義》, 上海古籍出版社, 1981년, 1쪽.
- 6) 隋朝事跡甚多, 今單錄隋煬帝奇豔之事, 故始於煬帝生, 而終於煬帝死. 其餘文帝國政, 一概不載. 煬帝爲千古風流天子, 其一舉一動, 無非娛耳悅目, 爲人豔慕之事, 故名其篇曰《豔史》. 煬帝繁華佳麗之事甚多, 然必有幽情雅韻者方采入, 如三幸遼東、避暑汾陽等事, 平平無奇, 故略而不載. 齊東野人, 《隋煬帝豔史》, 9쪽.
- 7) 《隋唐演義》是對當時的散漫無頭緒的作品進行提煉和編輯創作的歷史小說, 可以說是隋唐系列作品之中最有代表性的作品. 它是以隋煬帝與周貴兒、唐明皇與楊貴妃的“再世因緣”爲主要內容, 講述從隋朝建國到滅亡, 唐朝建國及崩潰的歷史故事. 《隋唐演義》對後世名作《紅樓夢》中的賈寶玉的設定及人物塑造、小說結構都產生了很大影響. 陳文新, 《論隋唐演義的基本品格及其小說史意義》, 武漢大學學報, 2003년 제 4기, 3쪽, 雷勇, 隋唐演義與紅樓夢, 南開大學學報, 2007년 제 1기, 4쪽.
- 8) 郑振铎《插图本中国文学史》、齐裕煜的《明代小说史》以及段启明、张平仁编纂的《历史小说简史》 등의 저서에서 이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또한 李时人编纂的《中国古代禁毁小说漫话》와 石昌渝의 《中国古代小说总目》 등 에서도 《隋煬帝艷史》의 영향관계를 밝혔다.

또한, 설인귀계열의 작품도 주목할 만하다. 당나라의 명장 설인귀의 사적은 상술한 작품군과 마찬가지로 수당시기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명장 설인귀가 요동을 정벌한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허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원대의 《薛仁貴征遼事略》은 해당 작품군의 시조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隋史遺文》, 《說唐全傳》 등의 연의소설의 형성과 발전에 전범(典範)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명대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작품을 계승한 설창소설 《薛仁貴跨海征遼故事》이 창작되기도 하였다. 청대에 이르러서는 원·명·청 시대에 걸쳐 발전된 설인귀계열 소설이 완성을 이루는 단계에 이르러 《薛仁貴征東遼全傳》이라는 소설로 집대성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발전 과정을 거치며 하나의 작품군으로 자리잡은 설인귀계열 소설은 중국과 한국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영웅 소설이며, 기타 영웅 소설의 창작에도 영향을 미쳤다.⁹⁾

2. 조선 전기, 중국소설의 전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발전한 수당계열 소설은 중국 명대의 다른 유명 작품들과 함께 조선 전기부터 한반도에 전파되기 시작했다.¹⁰⁾ 당시 조선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원의 선진 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교 관련 서적과 각종 경전 및 시문집등의 문학 서적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때 중국 평민 문학 발전의 정점기로서의 명대 소설은 중국 소설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작품군으로서 상술한 경전 및 시문집과 함께 자연스럽게 조선으로 전파되었다. 중국 소설이 조선 통치계층의 비난¹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설은 조선에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며 번역되고 널리 읽혔다. 가장 인기 있는 장르는 역사성이라는 특징을 강하게 띠는 중국 연의 소설이었는데, 수당계열 소설은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에 의해 《三國演義》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연의소설¹²⁾로 평가 받았다. 또한 허균이 수당계열 소설에 대해 언급한 내용 외에도, 조선의 유명한 문인들의 문집과 조선에 소장된 중국 소설 목록집에는 수당계열 소설에 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소설은 역관(譯官)과 서적 무역업자, 조선 정부 관료들에 의해 조선으로 들어왔으며, 역관 등 번역가들의 번역을 거쳐 세책(貰冊)업자 등 중국 소설을 유통하는 상인들에 의해 마침내 조선 민간 독자들의 시야에도 들어올 수 있었다.

3. 조선 중후기, 중국소설의 유행과 발전

중국 고전소설이 조선으로 유입되는 과정 중, 연의소설은 유입되는 시기나 방식에 따라 다양한 작품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유명한 연의소설인 《三國演義》의 경우, 각종 문헌 기록을 통해 1572년 정도에는 조선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연의소설 작품 역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반에 조선으로

9) 고려말기의 문인 이곡(李穀)은 중국 고전소설의 본격적인 한반도 유입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 유행하던 《楊太真外傳》를 본인의 문집에서 언급하기도 하였다. 李光勳, 《수당고사관련 활자본 고소설의 연원과 형상화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7년, 80쪽.

10) 尹世旬, 《16세기, 중국소설의 국내유입과 향유 양상》, 한국민족문화사연구, 2004년 제 2기, 136-137쪽.

11) “上禦夕講於文政殿, 進講《近思錄》第二卷. 奇大升進啟曰: “頃日張弼武引見時, 傳教內, “張飛一聲走萬軍”之語未見正史. 聞在《三國志衍義》雲, 此書出來未久, 小臣未見之, 而或因朋輩閑聞之, 則甚多妄誕如天文地理之書, 則或有前隱而後著, 史記則初失其傳, 後難臆席, 而敷衍增益, 極其怪誕. 臣後見其冊, 定是無賴者襄集雜言, 如成古談. 非但雜駁無益, 甚害義理. 自上偶爾一見, 甚爲未安. 就其中而言之, 如董承衣帶中詔, 及赤壁之戰勝處, 各以怪誕之事, 衍成無稽之言. 自上幸恐不知其冊根本, 故敢啟. 非但此書如《楚漢衍義》等書, 如此類不一, 無非害理之甚者也. 詩文詞華, 尚且不關, 況《前燈新話》《太平廣記》等書, 皆足以誤人心志者乎? 自上知其誣而戒之, 則可以切實於學問之功也.” 《조선왕조실록-宣祖2年6月壬辰》, 무학고소설 자료 연구회 《韓國古小說關聯資料集1》, 태학사, 2001년, 65쪽.

12) 餘得戲談數十種, 除《三國》《隋唐》外, 而《兩漢》《齊魏》拙, 《五代殘唐》率, 《北宋》略, 《冰許》則奸騙機巧, 皆不足訓, 而著於一人手, 宜羅氏之三世也. 有《西遊記》雲出於宗蕃, 即玄奘《取經記》而衍之者, 其事蓋略見於《釋譜》及《神僧傳》, 在疑信之間, 而今其書時假修煉之旨. ……雖支離漫衍, 其辭不爲莊語, 種種皆假丹訣而立言也, 固不可廢哉. 餘時存之, 修真之暇, 倦則以攻睡魔焉. 許筠, 《惺所複甌稿》 권 13, 한국고전번역원, 1982년, 227쪽, 242쪽.

유입된 것이 많다. 여러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시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 중 하나는 임진왜란 시기에 조선에 원군으로 파병된 명군이 조선에 연의소설을 포함한 각종 중국 문물을 전파한 사실로 추정된다. 1592년에 발생한 임진왜란과 40여년 후에 발생한 병자호란은 조선사회의 혼란과 변화를 가중시켰으며, 이와 같은 당시의 시대상도 문학 풍조에 반영되어 이전의 문학과는 다른 ‘사실주의적 성격’의 문학이 형성됐다. 전쟁 이전의 조선에서 시를 비롯한 낭만적 운문 문학이 발전했다면, 전쟁 이후의 조선에서는 생활 문제와 사회 문제를 역사적 현실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연의소설이 주목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소설 중에서 《水滸傳》보다 《三國演義》가 더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전쟁 시기를 겪은 민중들이 구국의 영웅과 충신을 내심 더 바랐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¹³⁾

전쟁이 끝난 후 18세기와 19세기의 조선은 정치 및 사회의 안정기를 맞이했고 이때 조선의 소설은 크게 부흥했다.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건국되자, 조선 사대부 중 일부는 당시 조선을 주도한 주자학을 비판하고 실사구시의 학풍을 추구하며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전통적인 주자학의 입장을 견지하는 사대부와 달리 실사구시적 학풍을 추구하는 사대부들은 중국 소설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¹⁴⁾ 이는 전후(戰後) 18세기 조선의 경제 발전과 함께 중국 소설 유행의 계기가 되었다.¹⁵⁾ 이와 같은 실학자들은 앞장서서 중국 소설을 번역하였고, 동시에 일부 상인들이 출현하여 상업 목적으로 번역본 중국 소설을 대량으로 필사(筆寫)하여 판매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이들 소설을 빌려주는 ‘세책가(貰冊家)’가 등장하는가 하면 조선의 대도시에서 소설을 전문적으로 낭송하고 돈을 받는 일종의 배우인 ‘전기수(傳奇叟)’가 등장하기도 하였다.¹⁶⁾ 전쟁 전에 조선의 사대부만이 감상할 수 있었던 중국 연의 소설은 전쟁 후에는 상술한 과정을 거쳐 평민, 부녀자에게도 사랑받아 독자층을 전례 없는 수로 늘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 고전소설과 연의소설은 중국과 조선의 각종 역사적 사건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고, 조선의 소설과 사상문화 및 평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중 조선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三國演義》, 《西漢演義》, 《列國志》, 《封神演義》 등의 연의소설은 조선문인들의 큰 관심을 받았고 이에 따른 관련 기록 역시 적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국내 학계의 연구 역시 적지 않다. 《隋唐演義》를 비롯한 수당계열 소설 역시 한반도에 유입되어 번역 및 출판된 작품의 일부분으로서, 번역사, 문학교류사, 변안문학사, 문학평론사 등 여러 방면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당 계열 소설이 언제부터 한반도에 유입되었는지, 이 작품군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조선 문인들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에 대하여 관련 기록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이들 소설이 한국 고전소설사에서 맡은 역할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4. 수당계열 소설의 번역 특징

이와 같은 수당계열 소설은 한국의 대학 도서관과 정부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현존하는 수당계열 소설의 중국 원작, 즉 한문본은 《隋煬帝艷史》, 《隋唐演義》, 《說唐薛家府傳》, 《隋史遺文》 등이다. 수당계열 소설에 대한 국내 학계의 연구는 이와 같은 작품의 크기, 재질 및 특징 등의 문헌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 작품은 적게는 1종에서 많게는 10종 이상의 판본이 전해지고 있어, 당시 조선에서의 인기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이들 중국 원작은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 서민층이 읽기가

13) 尹世旬, 《조선시대중국소설류의 국내유입에 대하여》, 동방한문학, 2016년 제 1기, 155-156쪽.

14) 又言護上皇之臣有李白、杜甫, 以雷海清為雷萬春之兄.此自小說例套, 凿空架虛, 不嫌舛誤, 大抵作者之意, 每欲故示罅隙, 使其遍纂明為寓言也...觀《西游》者, 亦多術矣.以魔妖小說觀者十之九, 以金丹大訣觀者十之一.余則不以小說觀, 不以大訣觀, 只作《心經》外傳觀, 一百回都是論心...羅貫中正是一個英雄, 看他演書, 將他文章策略都顯出來.《三國志》在四大奇書中忒大, 當為小說之魁. 俞晚村, 《欽英》 권6, 67쪽.

15) 朴京男, 《열국지의조선 수용과 역사적 진실의 문제》, 한국 한문학 연구, 2018년 제 1기, 192쪽.

16) 李殷奉, 《삼국지연의의수용양상연구》,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년, 40-41쪽.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이 중국 원작은 조선 사대부와 사대부가(士大夫家) 부녀자가 읽었거나 번역에 종사하는 중류층만이 읽을 수 있었고, 상술한 중류층 및 실학자들의 번역을 통해 평민층까지도 수당계열 소설을 접할 수 있었다. 수당계열 소설은 여타 중국 고전소설과 같이 이하의 몇가지 특징적인 번역 양상을 통해 번역되었다. 먼저 번역의 주체로는 역관으로 일했던 중인 계층과 과거를 포기한 사대부, 그리고 사대부 집안의 부녀자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들이 수당계열 소설을 비롯한 중국 고전 소설을 번역한 이유는 첫째로는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중국 고전 소설에 대한 개인의 흥미에서 비롯된 것이며, 셋째는 상업적 목적을 들 수 있다. 또 번역의 종류로는 우선 작품을 그대로 번역한 단순 번역이 있으며, 단순 번역과는 달리 작품의 줄거리는 그대로 둔 채 인명과 지명을 조선에 맞게 바꾸는 ‘번안(飜案)’ 기법도 당시 꽤 유행했고, 더 발전한 형태로 중국 원작의 줄거리까지 바꾸어 버리는 ‘재창작’ 또는 ‘개작’의 기법도 출현하였다. 또한 장편 중국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한 ‘전문(全文)번역’과 원작의 일부분만 번역한 ‘부분번역’ 형식 역시 찾아볼 수 있으며, 중국 원작의 내용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한 완역(完譯) 방식, 원작의 내용을 축소하여 번역하는 축역(縮譯)방식도 있는데, 그 중 축역 방식은 중국 고전소설의 한글 번역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번역 종류이다. 마지막으로 직역(直譯)과 의역(意譯)의 번역 기법이 있어, 직역은 말 그대로 원문의 모든 부분에 있어 번역자의 개인적인 뜻을 반영하지 않고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다는 뜻이며, 의역은 독자의 이해력을 고려하여 번역자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약간의 자의(自意)를 첨가하여 번역하는 것이다. 수당계열 소설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번역 형식에 따라 번역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隋史遺文》의 번역본 《수사유문》, 《隋煬帝艷史》의 번역본 《수양지사》, 《薛仁貴征東遼全傳》의 번역본 《설인거전》은 번역 작품으로서 중국 원작의 줄거리와 인명 및 지명을 바꾸지 않았다. 비록 이와 같은 작품들이 원작에 비하여 축약되어 번역된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작품 분량 면에서 중국 원작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줄거리 및 인명과 지명이 원작과 같다는 점에서 훗날 등장하는 개작 작품과는 차이가 있다.

5. 방각본 소설의 등장과 수당계열 소설

16세기 이후 조선에 정식으로 전래된 중국 소설은 수입 금지령¹⁷⁾ 등의 금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독자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유행하게 되었다. 허구적인 사건만을 다루는 기존의 조선 소설과 달리,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소설은 대부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연의 소설과 유사한 형식을 취한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중국 소설에 담긴 역사적 지식은 소설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양반 사대부들조차도 독자로 흡수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 민간에서는 조선에 전해진 중국 소설 대부분이 번역과 개작을 통해 한글 소설로 전환되면서 대중성을 확보했다. 특히, 중국 원작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장편 번역 작품과 비교할 때, 개작 과정을 거쳐 단편화된 작품이 더 많은 독자층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원작 형태를 유지한 장편 작품은 대부분 손수 쓴 필사본 형태로 전해졌지만, 개작 작품은 방각본 및 활자본의 대량 생산 형태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수량상으로는 조선에 전파된 중국 소설은 440여 종에 달하며, 이 중 번역 작품은 72종이고 방각본 개작 소설은 경판본이 총 11종, 완판본이 4종¹⁸⁾이며 경판본으로 출판된 11종의 소설은 1910년대 이후 활자본 형태로 발전하여 출판되었다. 따라서 완판본으로 출판된 작품과 비교할 때, 경판본으로 출판된 작품이 더 많은 독자층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경판본에서 출판한 11종의 중국 소설은 《강태공전》, 《금향정기》, 《서유기》, 《삼국지》, 《도원결의록》, 《세

17) 至于书册，则我国人家滥字充栋者，无非唐本。虽出于本耽看足为该洽，人亦足为文章士，更安用多购乎？最所切可恶者，所谓明末清初文集，及稗官杂说，尤有害于世道。观于近来文体，浮轻嗜杀，无馆阁大手笔者，皆由于杂册之多出。虽不必设法禁防，为使臣者，若能禁其已甚，犹贤于荡然。此意令使臣知悉。至于杂术文字，元事日中，别立科条，期于痛禁。 申秉澈，《조선정조시대 문인의 중국소설 시탐》，중국소설논총, 2002년 제1기, 288쪽.

18) 徐慧恩, 《경판 중국 번안소설의 대중성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2020년 제1기, 15쪽.

갈무후전》, 《수호지》, 《장자방전》이며 수당계열소설로는 《당태종전》, 《설인귀전》, 《울지경덕전》이 있다. 이 중 《서유기》, 《삼국지》, 《수호지》는 원작의 특정 부분을 발췌하여 출판한 형태이며, 《강태공전》, 《장자방전》, 《당태종전》, 《울지경덕전》은 원작의 특정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개작한 작품이다. 특히 《설인귀전》의 주인공은 원작의 주인공과 동일하지만, 개작 작품과 원작간에 줄거리상의 차이가 있다.

추정에 따르면, 이렇게 조선에 전래된 중국 소설은 방각본으로 출판된 후 변화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대중성을 지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장 인물 중 하나를 주인공으로 삼은 파생작이 더욱 활발하게 창작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파생작은 조선 말기에 활자본 형태로 반복 출판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방각본으로 출판된 중국 소설이 모두 대중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삼국지》, 《서유기》, 《수호지》, 《설인귀전》을 예로 들면, 경판본으로 출판된 《삼국지》, 《서유기》, 《수호지》, 《설인귀전》과 1910년대 이후 출판된 활자본은 상당히 다르며, 활자본은 사실 중국 원작에 더 가까운 형태로 출판되었지만 조선 독자들은 개작된 내용보다 원작의 내용을 더 선호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6. 활자본 고소설의 발전과 수당계열 소설

활자본 소설은 활자와 근대 인쇄술의 발전에 따라 근대 문학 전환기인 20세기 초에 등장, 20세기 중후반까지 활발하게 출판되고 읽혔다. 신식 활자로 인쇄된 활자본 소설은 처음에는 신문에 연재되었고 이후 잡지로, 마지막으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¹⁹⁾ 이때 신소설과 구별하기 위해 한국 고전 소설은 ‘고소설’로 불리며, 1912년 박문서관에서 이해조의 《옥중화》 등이 출간되었고, 같은 해 신문관에서 《옥루몽》을 비롯한 수백 종의 활자본 고소설이 간행되었다. 고소설은 활자본 기술의 도입과 함께 삽화와 표지 장식이 다채롭고 화려해지면서 내용도 이에 발맞추어 크게 변화하였다. 그중 일부는 줄거리는 바뀌지 않고 활자나 편집 형태만 바뀐 채로 출판되었으며, 일부는 내용 일부를 개작한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일부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창작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등장한 활자본 고소설은 20세기 70년대까지 계속 발간되었으며, 출판 연도가 확인된 발행 기록만으로도 1820회에 달한다. 또한 장르적인 면에서는 당시 봉건 사회가 해체되면서 사랑을 갈망하며 가정 생활을 추구하고 새로운 영웅을 열망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퍼져, 수많은 가정 소설, 가문 소설, 연정 소설, 영웅 소설 등의 활자본 고소설이 출간되었다. 이들은 각각 구작, 개작, 신작의 고소설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중 구작은 활자나 편집 형태만 바꾼 것으로서 소설의 변형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개작이나 신작은 시대 변화와 무관하지 않게 창작 및 발전하면서 역사를 반영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회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활자본 고소설은 분량이 짧고 가격이 저렴하며 단기간 내에 출판해야 하는 등의 상황속에서 창작되었다. 따라서 편집자들은 대부분 인물이나 사건, 왕조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한 인물전기형 또는 사건 전개형 소설을 창작 및 편집하였다. 수당계열 활자본 고소설 역시 한 인물을 제목으로 삼아 작품을 창작한 경우도 있고, 한 사건을 제목으로 내용을 전개한 작품도 있으며, 관련 역사 사실의 기존 작품을 축약하여 출판한 작품도 발견된다.²⁰⁾

19) 최초의 단행본 활자본 소설은 1906년의 《서상기》이다.

20) 이와 같은 사실은 수당계열 활자본 고소설 작품의 제목에도 반영되었다. 작품의 제목은 주제를 드러내거나 내용을 압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과 해당 작품을 차별화하는 기능도 가진다. 특히 이전의 방각본 소설을 새 버전으로 출판한 활자본 고소설의 경우, 제목을 정할 때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예로 중국 원작 《隋煬帝艷史》는 활자본 고소설에서는 《수당연의》라는 제목으로, 중국 원작 《隋唐演義》는 활자본 고소설에서는 《수양제 행락기》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출판된 사실을 들 수 있다.

7. 맺음말

본 연구는 수당계열 소설의 기원과 발전 및 조선의 수용과 변용을 중국고전소설의 한국 전파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수당시대를 다룬 역사서 《隋史》,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에서 발췌한 소설의 소재를 바탕으로 창작된 《隋唐嘉話》, 《隋遺錄》, 《海山記》, 《開河記》 등의 필기(筆記)소설과 전기(傳奇)소설은 명대에 이르러 《隋煬帝艷史》, 《隋唐演義》 등의 소설로 발전 및 집대성 되었다. 또한 이 시대에 활약한 당나라의 장수 설인귀의 사적은 원대의 《薛仁貴征遼事略》, 명대의 《薛仁貴跨海征遼故事》, 청대의 《薛仁貴征東遼全傳》 등의 소설로 창작되었다. 이와 같이 명청대의 소설은 평민문학의 꽃을 피우며 인기를 끌었고 이와 동시에 조선으로 전파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는 명나라의 각종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소설 역시 조선으로 전파되었다. 명나라에 파견된 조선의 사신 및 그를 수행한 역관, 서적 무역상들에 의하여 조선으로 전파된 중국의 소설은 역관과 사대부 및 사대부가의 여성들에 의하여 번역되었고 이와 같은 번역본 중국 소설은 조선 민간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룬 조선 후기에는 중국 소설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방각본 소설로 출판되어 널리 유통 및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수당계열 소설 역시 《당태종전》, 《설인귀전》, 《울지경덕전》이라는 제목의 방각본 소설로 창작되어 유통 및 보급되었으며 이와 같은 소설은 조선 말기의 활자본 고소설로 발전하여 큰 인기를 끌었음을 관련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徐慧恩, 《경관 중국 변안소설의 대중성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2020년 제1기.
 申秉澈, 《조선정조시대 문인의 중국소설 시탐》, 중국소설논총, 2002년 제1기.
 李殷奉, 《삼국지연의의수용양상연구》,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년.
 朴京男, 《열국지의조선 수용과 역사적 진실의 문제》, 한국 한문학 연구, 2018년 제 1기.
 俞晚柱, 《欽英》 권6.
 尹世旬, 《조선시대중국소설류의 국내유입에 대하여》, 동방한문학, 2016년 제 1기.
 許筠, 《惺所複瓊稿》 권 13, 한국고전국역총서, 1982년.
 《조선왕조실록 宣祖2年6月壬辰》, 무학 고소설 자료 연구회 《韓國古小說關聯資料集1》, 태학사, 2001년.
 尹世旬, 《16세기, 중국소설의 국내유입과 향유 양상》, 한국민족문화사연구, 2004년 제 2기.
 李光勳, 《수당고사관련 활자본 고소설의 연원과 형상화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년.
 陳文新, 《論隋唐演義的基本品格及其小說史意義》, 武漢大學學報, 2003년 제 4기.
 雷勇, 隋唐演義與紅樓夢, 南開大學學報, 2007년 제 1기.
 褚人獲, 《隋唐演義》, 上海古籍出版社, 1981년.
 王增學, 《論〈隋唐嘉話〉的文學因素及對後世文學的影響》, 山東理工大學學報, 2012년 제 2기.
 徐燕, 《隋唐故事考論》, 揚州大學博士學位論文, 2010년.
 劉昫等撰, 《舊唐書》 권 71, 中華書局, 1975년.

《青泥蓮花記》與《義妓傳》中的義妓塑造

武思思

<目次>

【摘要】

1. 引言
2. 《青泥蓮花記》與《義妓傳》的共性
3. 《青泥蓮花記》與《義妓傳》的選類
4. 《青泥蓮花記》與《義妓傳》的評點
5. 結語
參考文獻

【摘要】

明代中後期，《青泥蓮花記》與《義妓傳》等小說集將“義”這一傳統士人品德賦予妓女，塑造出了典型的義妓形象。本文以此二書為中心，分析文人如何通過編選與評點塑造此類形象。研究發現，兩書選篇高度重合，體現文人圈層的共同關懷；而分類標準的差異則顯示編者對“義”的不同理解。文人更在評點中將自身政治失意與道德理想投射於義妓身上，借讚揚妓女之“義”來批判現實、抒發懷才不遇之感。義妓形象的塑造，實為明代文人價值觀與心態史的重要反映。

1. 引言

進入明代中後期，有賴於商品經濟的發展，小說出版業逐漸趨近成熟，《剪燈新話》《青泥蓮花記》《合刻三志八十種》《情史》《奇女子傳》等輯錄妓女故事的小說集也隨之湧現。這些作品刻畫的妓女形象，在中國古代女性文學形象中佔據了相當的部分，其中一部分出現了“義妓”形象。此前學界對於妓女相關議題的研究汗牛充棟，《中國娼妓史》《中國妓女文化史》《性張力下的中國人》等專題著作對妓女問題已經有了較為全面中肯的探討，文學領域也出現了諸如《明代青樓文學與文化》《青樓文學與中國文化》等圍繞青樓文學展開的專題研究。^①

學界有不少研究都聚焦於士妓關係，但大部分將兩者間的交往關係解釋為愛情。然而，若是剔除妓女文學中的愛情因素，則可以發現，一部分篇目將妓女群體與“義”這一德性綁定在一起，這似乎有悖於傳統儒家思想中對“義”觀念的理解。傳統儒家道德的敘述語境似乎極少以“義”形容女性。婦女的品德往往與“節”形成狹隘的綁定，國外也有學者關注到了這一問題，有不少成果是討論明清時期的女性貞節崇拜話題與妓女相關話題的。^②但無論是對儒家道德的論述，還是對女性道德的研究，地位上被置於低位的妓女都常常被排除在外。那麼，部分明代文人為何將“義”這一道德賦予社會地位低下的妓女群體？他們又是如何參與到義妓小說的編撰中的？文人想通過義妓小說表達什麼？這些問題是本文的核心話題。參與義妓形象塑造的包括了纂者、編者、評點者，因纂者較多，且年代身份多不可考，本文可以暫且分為“編選”和“評點”兩層來考察，通過不同層次視角，以《青泥蓮花記》與《義妓傳》為中心來分析文人在選評義妓過程中的共性、特點及其思想投射。

2. 《青泥蓮花記》與《義妓傳》的共性

諸多義妓相關題材的文本中，明確涉及“義”類的文言小說有《合刻三志·義妓傳》（下文簡稱《義妓傳》）、《青泥蓮花記·記義》，因此本文以此二者作為探討主體，或可一窺作為編纂者的文人是如何塑造和理解義妓形象的。

《義妓傳》文中輯錄李娃、王翹兒、陳嬌如、張鳳奴、高娃、長沙妓、韓香七位妓女故事。^③《青泥蓮花記》專寫妓女故事，內編分為七個小類，外編中有三個小類。“記義”收錄了嬌陳（即陳嬌如）、張紅紅、宋齊丘妻魏氏、瑞卿、杭妓薛希濤、臺妓嚴蕊、樊事真、馮蝶翠、王翹兒九位妓女故事。通過對《義妓傳》《青泥蓮花記》所選篇目的梳理可以發現，義妓類小說的文本選取有一定共性。《義妓傳》選取的七篇文本，在《青泥蓮花記》中均有呈現，其中將《張鳳奴》歸於“記忠”，《李娃傳》《楊倡傳》《義倡傳》《韓香》屬“記節”，同屬“記義”類的有《嬌陳》《王翹兒》兩篇。雖然《義妓傳》選取的篇目在《青泥蓮花記》中並不完全歸屬在“記

^① 王書奴：《中國娼妓史》，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2012年；武舟：《中國妓女文化史》，上海：東方出版中心，2006年；江曉原：《性張力下的中國人》，上海：上海人民出版社，1995；劉士義：《明代青樓文化與文學》，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18年；陶慕寧：《青樓文學與中國文化》，天津：天津人民出版社，2024年；馬珏珩：《中國古典小說女性形象源流考》，南京：南京師範大學出版社，2006年。

^② FEI, SIYEN. "Writing for Justice: An Activist Beginning of the Cult of Female Chastity in Late Imperial Chin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71, no. 4, 2012, pp. 991–1012; PAUL S. ROPP: *Ambiguous Images of Courtesan Culture in Late Imperial China*.

^③ 《合刻三志》目錄題為《義倡傳》，正文題為《義妓傳》，可能性有二，一後印本目錄刊刻有誤，二為後印本改《義倡傳》為《義妓傳》。《長沙妓》在他書中多稱為《義倡傳》。《艷異編》后来的傳本中，部分刻本將《合刻三志·義妓傳》部分當成是《義倡傳》置於其中。

義”類之中，但也可以看出二者文本選取的相似性。這樣的相似性，一方面是來自於可選取文本的局限，描寫妓女的文章來源相較於其他題材而言極少，文本內容也幾乎沒有顯著差異，可見文人編纂合刊此類故事集的原始材料是具有共性的。另一方面則是上述篇目中有一部分似乎已經生成了共識性的主旨認同，想要對妓女題材進行整理收錄工作，就無法繞開這些已經生成了共識性認同的篇目，例如《義倡傳》《李娃傳》。可以說，這些篇目本身已經成為了妓女故事編纂經典性以及讀者號召力的來源。

在篇目選取的共性之外，二者還有一個顯著特質，即是作者身世、際遇和交遊活動的共性。《義妓傳》作者張獻翼與《青泥蓮花記》作者梅鼎祚生活時代相近，張獻翼生於嘉靖十三年（1534），梅鼎祚生於嘉靖二十八年（1549）。二人生活環境、人生境遇也大致相似，都出身於官宦之家，在科考方面並不順利，遂放棄科考之道。雖然仕途不順，但兩人在文壇頗負盛名，主要的文學活動時間均在隆慶與萬曆年間，著述頗豐，涉獵廣泛。雖然並非同鄉也無科考同年之誼，但二者的確曾因文學活動而結緣。目前可見二人最早的交集是隆慶五年（1571）青溪社舉辦的詩會，張獻翼與梅鼎祚列席於“遊而未入會者”。^①此後二人交往密切，梅鼎祚的《鹿裘石室集》中留存了與張獻翼交遊的諸多唱和詩文，如《夏夜陳公衡明府招集張幼于曲水園即席送子卿孝廉歸閩》《答張幼于》《張幼于身體十箴跋》《張幼于銘箴跋》《張幼于座右銘跋》《與張幼于》等，^②這些篇目不僅是張、梅二人互相唱和的證據，也記錄了二人在詩會上的交往。同時，與張、梅二人關係密切的文人王世貞、湯顯祖、潘之恆都各自有關於妓女題材作品現世，甚至這些妓女相關的文學作品在文本篇目的選取上也有一定的共通之處。藉此似乎可以推論，對妓女故事的關注是張、梅及其周邊文人共同的文學取向與思想傾向，只是呈現形式有所不同。

3. 《青泥蓮花記》與《義妓傳》的選類

《義妓傳》與《青泥蓮花記》的作者在篇目選擇上存在一定共性，凸顯出文人對妓女題材選擇的共同趨向，而編纂體例和分類標準上的差別則體現出編纂過程中的差異性，由此也可以探討文人對“義”的選篇標準。

在中國哲學史上，“義”的概念是一個極其重要的命題，在不同時代也被賦予不同內涵，故而在討論義妓小說之時，需要考察傳統語境下的義是否可以囊括對妓女的道德要求。《禮記·禮運》言：“何謂人義？父慈、子孝、兄良、弟弟、夫義、婦聽、長惠、幼順、君仁、臣忠十者，謂之人義。”^③也就是說，“義”是有等級和身份差別的，維護等級和身份差別的行為就是“義”。婦女之“義”即為“婦聽”，這裡“義”的概念顯然與妓女無關。孔子發明仁的體系後，“義”逐步演變為士君子的德行與德性。^④但是這樣的“義”，並不下延至平民百姓，更不必說娼妓。而至明代出現了《義妓傳》《青泥蓮花記》這樣的義妓類小說彙編，將妓女納入到“義”的範圍中，對她們的故事進行搜集與出版。那麼在這些文人眼中，“義妓”又如何界定呢？想要探討這個問題就需要深入到文本之中，分析其選取的文本來解讀文人對義妓故事

^① 朱孟震：《河上楮談》，國家圖書館藏明萬曆刻本，卷三，第七b葉、第八a葉。

^② 詩文均見於梅鼎祚著《鹿裘石室集》，國家圖書館藏明天啟三年（1623）刻本。

^③ 阮元校刻：《禮記正義》，北京：中華書局，2009年，第3080頁。

^④ 陳喬見：《義的譜係：中國古代的正義與公共傳統》，北京：商務印書館，2022年，第5、6頁。

的分類。因《義妓傳》篇幅較少也並無凡例等說明性文字可以參考，故而以《青泥蓮花記》的記“義”標準為探討主體，以此與《義妓傳》的“義”的範圍進行對照。

從篇目數量考察來看，《青泥蓮花記》正編117篇，最多的兩類是“記節”和“記從”，分別為40篇和37篇，“記孝”最少，僅有1篇，“記義”9篇，佔比不到8%。可能性有二，一是對“義妓”概念的輕視，二是梅鼎祚的“義”的標準較為嚴格。第一點幾乎是可以肯定的，數量上的優勢本身就帶有一種讚揚推崇，“節”和“從”的品質被大肆渲染，“義”則被掩蓋。但此種輕視並非是梅氏一人之過，萬曆之前，義妓小說均以單篇形式流傳，並未集結成類，“義倡”“義妓”在很長一段時間僅僅代指與秦少遊相交之長沙妓或者毛惜惜。可能是單篇流傳過廣而遮蔽了其餘義妓小說的發展，也可能是文人群體並未意識到“義”這一品質是可以出現在妓女身上的。甚至可以說，《義妓傳》和《青泥蓮花記》的出現是有意識聚焦、集結義妓小說的開始。

關於第二點，可以進入《青泥蓮花記》各類目的分類進行探討。《義倡傳》以“義”命名，卻被歸於“節”名之下，直白地體現出“義”作為妓女品德評價的隱而不彰。無獨有偶，也有一些其他被評價為“義”的篇目歸入“節”類。“記節一”第一篇《姚玉京》，文末小字題“雍州刺史西昌侯藻嘉其美節，乃起樓於門，題曰：‘貞義衛婦之間’”，原題贊貞義，梅氏將其歸於“節”。^①《楊倡傳》文末《太平廣記》贊：“而楊能報帥以死，義也”。^②“記節三”《齊錦雲》一篇也有“人多義之”之陳詞。^③梅氏編纂之時知前人有“義”名之稱，卻將其歸於“節”類，這樣的操作並非個例，由此可知梅氏在“節”和“義”的判斷上有自己的細分標準，且與前人標準有所不同。

相較而言，《青泥蓮花記》中“節”的選篇更多，相較而言更容易歸納其特徵，最重要的是情堅守身不他適。《青泥蓮花記》之“義”大致包含兩類，報恩主題及勇於與權力階層抗爭。報恩主題中多是妓女有恩於落魄文人，文人功成名就後報恩，也包含《張紅紅》篇講士人有恩於妓，妓以死謝恩。至於陳嬌如和樊事真也有守身行為，卻沒有歸於“節”類，可能是由於二者均有抗爭過程。陳嬌如當面婉拒皇帝召之入宮的勇敢之舉，樊事真也有毅然拒絕權豪的行為，雖然最終結果不如陳嬌如圓滿，為了信守承諾以金篦刺目。薛希濤、嚴蘖被捲入政治事件後不為強權逼迫而誣告，也屬於一種對權力的抗爭。王翹兒為國盡忠卻沒有被歸於“記忠”，反而歸於“記義”類，可能也是源於其被督府逼迫，不得不從永順酋長，遂以死抗爭。將《義倡傳》對照《青泥蓮花記》的標準，可以發現《義倡傳》對秦少遊的愛慕從始至終都沒有改變，並為秦少遊悲痛赴死，符合“節”的評判標準，卻並不符合梅氏“義”的標準。

《青泥蓮花記》囊括了《義妓傳》的七篇文本，但此七篇分列於“記忠”“記義”“記節”，由此可見《義倡傳》之“義”的內涵更廣，或許是受篇幅所限。《青泥蓮花記》專書妓女，可以展開細分，所以“義”的界定更細緻。由此可觀“義”之界定會根據編者自身看法而改變。針對《義倡傳》的分類可以說明梅氏並不隨意盲從前人的判斷，堅定自己的判斷標準，也說明“義妓”的概念並非一成不變的。

^① 梅鼎祚：《青泥蓮花記》，國家圖書館藏明萬曆三十年（1602）鹿角山房刻本（善本書號：A01511），卷四，第二a葉。

^② 梅鼎祚：《青泥蓮花記》，國家圖書館藏明萬曆三十年（1602）鹿角山房刻本（善本書號：A01511），卷四，第三十二a葉。

^③ 梅鼎祚：《青泥蓮花記》，國家圖書館藏明萬曆三十年（1602）鹿角山房刻本（善本書號：A01511），卷六，第三十七a葉。

4. 《青泥蓮花記》與《義妓傳》的評點

相較於其他女性群體，文人與妓女的關係顯得更為親近。如果文人對深宅閨秀的描述多是基於想象的造作，那麼妓女群體似乎是更加唾手可得的現實素材。歷代對妓女的書寫和塑造較之“良家女子”更加多樣，評點就是其中一種闡發文人對義妓的態度途徑。《義妓傳》與《青泥蓮花記》的部分篇目後也有評點。《義妓傳》的評點儘有鄒之麟所做之贊，《青泥蓮花記》的評點主體相對較多，梅氏在編纂之時保留了前人部分評點。

兩書中附有評點的篇目共有五篇。《青泥蓮花記》在《馮蝶翠》後有“女史氏”對於“記義”篇的小結：“女史氏曰：嬌陳而下，或酬恩於知己，或務分於窮交。既勝薛公之市，朝盈暮虛；復異和氏之癖，銅山錢樹，固此曹所鮮能也。嚴蕊至吏治榜笞，而終不以一言汙巖士大夫，亦誠“立名義不侵為然諾者”乎！朱元晦於是失刑矣。彼希濤以死，猶烈焉，悲夫！”^①“女史氏”即為編者梅鼎祚本人，選文未竟之意在評點中補出。此小結的內容對於前文所述梅氏對“義”的選篇依據的解讀有所印證，“或酬恩於知己”“或務分於窮交”正是報恩模式的雙相通道，嚴蕊、薛希濤則是重承諾而敢與權力階層鬥爭的代表。從《王翹兒》與《長沙妓》文末的評點來看，鄒之麟與梅鼎祚並不吝嗇將“義”賦予妓女，並且不單純將妓女故事理解為愛情故事。兩篇的評點分別體現了士大夫之義與社會性之義在妓女身上的融合。作為在傳統“義”話題中被拋棄的人群，在這裡反而成為了文人眼中的“義”的凸顯者，彰顯出義妓故事在妓女文學，乃至整個女性文學書寫歷史中的別樣張力。

《青泥蓮花記》不僅有編者的評點，還收錄了不同的前人評點，《李娃傳》篇末評點摘自《異聞集》《虞初志》，《王翹兒》評點“外史氏”摘自《海隅集》，其中出現了意見不一致的情況。例如《王翹兒》一篇，梅鼎祚與“外史氏”徐學謨對於王翹兒看法的不同。如上文所言，王翹兒用生命與權力階層鬥爭，符合梅鼎祚的“義妓”標準，所以歸結為“記義”。徐學謨雖然也認可翹兒的報國行為，但認為翹兒的死是為了給徐海殉情，“殉海”才是“義”的關鍵。梅氏並不完全認同這一看法，他認為翹兒原本的志向是滅賊，如果不是被迫從永順酋長，是不必求死的。因此界定王翹兒在“忠”“義”之間，“忠”是指忠於國家，“義”應該就是指翹兒為了抗拒胡宗憲的隨意調撥而跳海。

綜合兩書中義妓類故事所有評點來看，文人評點呈現出顯著的共同特點，那就是文人的自我投射與政治理想難以實現的宣洩。義妓類故事的評點對妓女的境遇充滿同情，只不過這樣的同情，又何嘗不是一種文人的自憐自艾，是其自我映照與政治理想的投射，進而通過品評妓女高潔之義來對照己身之不如意。如《陳嬌如》文末後有贊：“匹夫不可奪志，玄宗鑒之矣，嘉哉嬌如，蓋附青雲而聲施後世者哉”。^②陳嬌如因為堅定自己的志向而得到玄宗的嘉賞，這裡顯然文人將自己代入了陳嬌如的位置，期望君王可以看到自己的堅定的志向，更希望能藉此垂名青史。除此之外，評點中還宣洩了對現實的不滿以及政治理想難以實現的憤懣。《高娃》鄒氏評點引孔收葬主父被天子褒獎，以此感歎高娃之事是否上聽，其實是在感慨當時被石亨所構陷的士大

^① 梅鼎祚：《青泥蓮花記》，國家圖書館藏明萬曆三十年（1602）鹿角山房刻本（善本書號：A01511），卷三，第十三b葉。

^② 張獻翼輯：《義妓傳》，冰華居士編：《合刻三志八十種》，美國國會圖書館藏明末刻本（書號：000000000K6 17.8P65），第十三b葉。

夫，為這些士大夫鳴不平的話語難以抵達上聽，無法撼動時局。與此相似的還有《薛希濤》和《嚴蕊》，她們無端被卷入了政治事件，對她們的讚揚，就是在表達文人對於政局的不滿。

而至於為什麼要用妓女之義來投射自我以宣洩不滿，一是因為“香草美人”之喻的傳統，文人常用閨怨詩的女子形象自比。更是因為將妓女置於道德低位，預設妓女無德，不需要道德進行約束，而當這樣一類在刻板印象中地位低下且品行低劣的人物展現出極高的道德水準時，歷史、社會之現實與想像、文學書寫間的張力便不言自明。“叛臣辱婦，每出於名門世族；而伶工賤女，乃有潔白堅貞之行。”^①“翹兒以一賤倡，能審於順逆，身陷不測，竟滅賊以報國，誠偉烈矣！”^②達官貴人不能堅守道德，反而是地位低下的妓女品質高潔，還可以在同敵方斡旋以報國，這是一種道德與地位的顛倒。傳統的士大夫之義將妓女完全排除在外，於是將“義”的品質賦予這一群體的時候，便被當作一件奇事。地位與道德倒置的衝突感，完美契合了部分文人的心態，自己品德高尚而得不到重用時，品德高潔的下位者便成為其自我代入、排遣的好角色

5. 結語

本文通過對《青泥蓮花記》與《義妓傳》的文本比較與評點分析，揭示了明代中後期文人在義妓小說編撰中的共同傾向與個體差異。兩書在選材上的重合，反映出特定文人圈層對妓女故事的共識性關注；而在分類與評點中，則體現出編者在“義”的界定上的自主性與批判性思考，尤其是梅鼎祚對義妓的嚴格劃分，顯示出其對傳統道德分類的反思與重構。更為深層的是，文人在評點中往往將義妓形象作為自我投射的載體，借妓女之“義”表達對理想士人品格的嚮往、對現實政治的不滿以及對個人命運的抗爭。這種將道德高位賦予社會低位者的書寫策略，不僅強化了文學中的道德張力，也反映出明代文人在仕途困頓中的心理補償與身份焦慮。

参考文献

1、古籍

- (1) 李言恭：《青蓮閣集》，日本內閣文庫藏明萬曆二十三年（1595）序刻本。
- (2) 梅鼎祚：《鹿裘石室集》，國家圖書館藏明天啟三年（1623）刻本。
- (3) 梅鼎祚：《青泥蓮花記》，國家圖書館藏明萬曆三十年（1602）鹿角山房刻本。
- (4) 張獻翼輯：《義妓傳》，冰華居士編：《合刻三志八十種》，美國國會圖書館藏明末刻本。
- (5) 朱孟震：《河上楮談》，國家圖書館藏明萬曆刻本。
- (6) 阮元校刻：《禮記正義》，北京：中華書局，2009年。

^① 梅鼎祚：《青泥蓮花記》，國家圖書館藏明萬曆三十年（1602）鹿角山房刻本（善本書號：A01511），卷四，第十三a葉。

^② 梅鼎祚：《青泥蓮花記》，國家圖書館藏明萬曆三十年（1602）鹿角山房刻本（善本書號：A01511），卷三，第十六b葉。

2、專著

- (1)陳國軍：《明代志怪傳奇小說研究》，天津：天津古籍出版社，2006年。
- (2)陳喬見：《義的譜係：中國古代的正義與公共傳統》，北京：商務印書館，2022年。
- (3)丁為祥著，郭齊勇主編：《中國哲學通史·明代卷》，南京：江蘇人民出版社，2022年。
- (4)江曉原：《性張力下的中國人》，上海：上海人民出版社，1995年。
- (5)李惠儀著，李惠儀、許明德譯：《明清文學中的女子與國難》，臺北：臺大出版中心，2022年。
- (6)劉士義：《明代青樓文化與文學》，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18年。
- (7)盧玲：《屈辱與風流·圖說中國女性》，北京：團結出版社，2000年。
- (8)馬珏珏：《中國古典小說女性形象源流考》，南京：南京師範大學出版社，2006年。
- (9)陶慕寧：《青樓文學與中國文化》，天津：天津人民出版社，2024年。
- (10)王書奴：《中國娼妓史》，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2012年。
- (11)武舟：《中國妓女文化史》，上海：東方出版中心，2006年。
- (12)徐朔方：《梅鼎祚年譜》，《晚明曲家年譜》第三冊，杭州：浙江古籍出版社，1993年。
- (13)張宏生：《明清文學與性別研究》，南京：江蘇古籍出版社，2002年。

3、論文

- (1)焦傑：《傳統女性的刻板模式與男性審美視角的矛盾——以中國古代姬妾妓娼現象為例》，《廈門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2年第1期。
- (2)李艷：《明清女教類善書傳播與戲曲中女性形象研究》，四川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2023年第1期。
- (3)秦川：《人性與道義：明清小說之風月故事探微》，《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7年第4期。

4、國外研究

- (1)[美]高彥頤著，劉東總主編，李志生譯：《閨塾師·明末清初江南的才女文化》，南京：江蘇人民出版社，2022年。
- (2)[日]大木康：《風月秦淮——中國遊裏空間》，臺北：聯經出版，2007年。
- (3)[日]齋藤茂，申荷麗譯：《妓女與文人》，北京：商務印書館，2011年。
- (4)FEI, SIYEN. Writing for Justice: An Activist Beginning of the Cult of Female Chastity in Late Imperial Chin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71, no. 4, 2012, pp. 991 - 1012.

元代青詞異名現象論辯

冷加冕*

<目次>

【摘要】

1. 引言
 2. 本論1 文體溯源：青詞的定名與別名
 3. 本論2 名實之辯：元青詞異名現象虛實
 4. 本論3 異名動因：青詞文類觀的形成與寬容的宗教政策
 5. 本論4 功能論辯：元青詞的功能與政治意涵
 6. 結語
- 參考文獻

【摘要】

青詞因唐朝太清宮祭祀老子而產生，在發展過程中又有清詞、青詞、綠章、四六金文、心詞等別名。元代青詞寫作大體上延續唐宋以來的青詞傳統，但青詞寫作的題名和文人編集分類顯示出青詞“異名”現象，這種現象實際上是元代青詞擴大為文類觀念的表現。這種觀念形成原因有二：一是文人長期以來以類相從的文集編撰傳統與青詞等其他詞文間齋醮功能相通性的相互作用，二是元代統治者運用寬容宗教政策招攬教派核心人士參與政治生活，影響了醮儀及文人對青詞的認識與寫作。也正因為如此，這些內涵擴大的元代青詞體現出了和唐宋以來青詞不同的功能與政治內涵。

* 中國四川大學文學與新聞學院 中國古代文學博士研究生

1. 引言

青詞是道教舉行齋醮儀式過程中祭獻道家神靈的奏章祝告文本，有多重別稱，這些別稱的所指與青詞相同。他們大多由文人書寫，代齋主立言，因齋主身份和意旨不同而分為皇家青詞和民間青詞。元代青詞大體上承襲唐宋以來的傳統，但是在以虞集為代表的元人文集中，諸多不以青詞命名的詞文被歸入了“青詞”，造成了青詞有“異名”的現象。考察這種異名現象的真相，辨析異名現象出現的原因，探析青詞視角中反應出來的元代宗教、政治、文學之間的交互關係。

2. 本論1 文體溯源：青詞的定名與別名

青詞產生於唐代，因用於太清宮祭祀老子而得名清詞。杜佑通典有載：“自今（天寶四載）以後，每太清宮行禮官，宜改用朝服，兼停祝版，改為清詞於紙上。”^①又據《翰林志》記載：“凡太清宮道觀薦告詞文，有青藤紙朱字，謂之青詞。”^②從文字材料上看，“清詞”比“青詞”更早，但二者相隔時間不遠，白居易《季冬薦獻太清宮青詞》一文使用於元和二年（807）的玄元皇帝祭祀儀式中。青詞和清詞二者只是名稱之異，《道門定制》亦有此言：“唐天寶四載（745），敕太清宮行事官：皆具冕服，停祝版改為清詞，書於紙上。逮及宋朝真宗皇帝更以青紙，謂之青詞。清青之義，各有攸始。”^③後世“青詞”逐漸取代“清詞”成為了這一文體的專用名稱，主要是因為青詞功能下移至民間以及“青紙朱筆”的書寫習慣、“青”的道教意涵。

青詞是在吸收了道教章文和儒家祝文的基礎上產生的一種文體。道教章文是道教齋醮活動中上章儀式的文體，因教派教義的區別，齋儀和醮儀有不同的功用，南宋金允中《上清灵宝大法（二）》有言：“齋中青詞，則求哀請宥，述建齋之所禱也；至於醮謝青詞，則敘齋修有闕，祈請蒙恩陳謝之辭也。”^④杜光庭是唐代寫作青詞最多的文人和道士，其《廣成集》收錄了187首醮詞和31首齋詞，據闕岱馨、韓文濤、成娟陽等人的研究^⑤，杜光庭的齋詞和醮詞各自命名，是因為每篇青詞的功能各有倚重，但實際上突破了齋詞和醮詞各自的界限。他的這些齋醮詞文，詞采優美、對仗工整、宗教意味醇正，成為了後世同類文體的範本。後世文人所言齋詞醮詞，都指青詞，只是在道經合道教專業人士中有嚴格的區分。

“心詞”之稱，緣於齋醮活動中表達齋主情旨的原始功能：“既列受詞之由，則宣青詞，以露齋官心懽也。齋官心詞，既已如此，然朝修功德，先當上祝。”^⑥這一稱呼在唐代便已經存在，如杜光庭修“靈寶太一祈雨醮儀”時有“凡有懇悃，敢不上聞，齋意心詞，謹當宣奏”^⑦之言，“心詞”便指青詞。諸多醮儀在即將宣奏青詞的環節都會有類似的程式語，但是心詞並未發展成為這一文體的主流稱謂，只是道經中的稱呼。

青詞在宋代又有“青辭”之稱，宋太常寺纂《中興禮書》有言“翰林司依四孟朝獻例，排辦施行所有青辭祝文，候車駕、行禮畢，出景靈宮門”^⑧。蘇轍文集《樂城集》亦有“青辭”類^⑨，這些都說明“青辭”在宋代被當作一種文體名，但使用範圍並不廣。

“綠章”之名，源於該文體寫於青藤紙上，加之與道教的章文是相同的性質，故名之。唐人李賀有詩《綠章封事》亦被認為是青詞，但詩體是否應被稱作青詞還有爭議。四六金文之名，則多因其用四六駢體寫作。入元以後，道教門人有此稱呼。北京白雲觀收藏一部手書全真教青詞，稱作《玄壇要旨四六金書》。^⑩

總的來說，青詞名稱雖多，但作為文體標識的名稱卻只有為齋詞、醮詞和青詞三種。有唐一代還存在三者並存的現象，到了宋代，青詞一稱成為絕對主流。隨著文體功能適用範圍的擴大和下移，結構程式由繁至簡，但是文體的主要功能（向天奏告）和主體寫作格式（頌德——陳情——祈願）逐漸穩固，名稱以“齋醮內容+青詞”的形式固定下來。縱觀宋代千餘首青詞，少有不以“青詞”名題的。

3. 本論2 名實之辯：元青詞異名現象虛實

元代青詞寫作大體上承唐宋以來的青詞傳統，但是在文集分類和題名上顯示出了一些變化。虞集的青詞可見於《道園學古錄》和《道園類藁》之中，二者收錄的青詞在編集系統上大體一致，異文較少。《道園學古錄》卷二十六統稱為“供醮文”^⑪，收錄了佛教、道教、儒家三家的文章，具體包括水陸會緣起文、青詞、醮星祝文、祭文、齋意、上梁文幾類，造成青詞異名現象的主要是他的 5 組國醮青詞。《道園類藁》卷十三“應制”收錄祝文應制、國醮青詞應制、醮星文應制、祈福保安齋詞應製、上梁文應制幾類文章。虞集青詞多成組出現，且青詞這一文體甚至包括了建壇詞、解壇詞、齋意等，結合齋醮儀式可以發現這些詞都是同一場大型齋醮儀式中的詞文。

虞集青詞的這種現象並非個例，元好問《遺山集》^⑫卷四十收錄青詞收錄 4 首，《樊守謝土詞》歸入了青詞類。蒲道源《閒居叢稿》將兩首《地震祈禳醮意》《啟》《朝》《午》《夕》《意 並詞》《青詞》歸為“詞文”類。^⑬程鉅夫《雪樓集》有《長春宮建金錄醮場道場文八首》包括齋意、醮詞、祝文。^⑭謝應芳《龜巢稿》卷十三將醮詞、醮疏、早（午/晚）壇詞、建壇詞、早（午/晚）朝詞、青詞歸為“疏”類。^⑮

還有較為複雜的“齋意”與青詞的問題。在元人文集中，“齋意”和青詞成組出現，如王惲《秋澗集》收錄有《至元三十年崇真宮設醮齋意》《青詞》等，但虞集有一首齋意沒有與之對應的青詞。除了“齋意”，還有名為“醮意”“齋文”的，如蒲道源《閒居叢稿》卷十一“齋醮文”收錄有《天壽節金錄醮意》三首，第三首不知是青詞還是醮意、青詞的結合體；¹⁶袁桷《清容居士集》收錄有《崇真萬壽宮設醮齋文》《青詞》等六組詞文¹⁷。蘇天爵《滋溪文稿》又有一首《長春宮設清醮青詞齋意》將二者並題¹⁸。這些現象增加了辨析青詞異名真相的難度。

齋醮活動是道教上達本教神靈實現天人溝通的儀式活動，使用的文書除青詞之外，還有奏、啟、申、牒、誥、狀、關、札、榜、疏、帖、檄、章、表、箋、式等，¹⁹每種文體都有嚴格的寫作格式和要求。宋人文集不會出現混編的情況，與青詞一同收錄的滿散朱表，也是另作分類。如洪適《盤洲文集》²⁰、王安禮《王魏公集》²¹。即便是不單獨編類，並不會將它們籠統地以某一類文體統攝，如周必大《周文忠集·玉堂類稿》卷十四“青詞朱表”²²，崔敦詩《崔舍人類藁》卷十一、十二的“青詞表疏”²³。除了魏了翁《鶴山集》卷九十九將醮詞、青詞、啟壇詞、散壇詞歸為“醮詞”以外²⁴，別無他例。由此可見，在宋代文人觀念中，與青詞相關的文體之間的界限十分清晰。

經過考察和辨析，元人文集中這些易混淆的詞文與青詞雖然都用四六駢體寫就，但是儀式和功用並不相同。如齋意、醮意，它們的功能是向道教神靈陳述齋主要舉辦齋醮儀式，告知時間、地點、緣由、齋醮類型等，在儀程上先有意，後有詞。在儀式中一個需要高懸，一個需要焚燒。同樣的，建壇詞、散壇詞、三朝詞、九朝詞、醮疏、表、啟等與青詞在的功能並不相同，是不同的文體。這些與青詞不同名的齋醮詞文並非唐宋以來的青詞文體，它們也並非青詞的異名和別名，是文集編纂造成的異名假象。

4. 本論3 異名動因：青詞文類觀的形成與寬容的宗教政策

元人文集中非“青詞”詞文能被明確歸入青詞或是與青詞編排在一起，大多因為同屬於同一齋醮活動、承擔啟奏天神之職能。但同樣是同一場齋醮儀式中的詞文，宋元文人顯示出了不同的編集態度，這是因為兩朝文人對青詞的認識不同。在元人看來，其他詞文與青詞不是唐宋以來的平級關係，而是屬級關係，青詞發展成了一種文類。

這種觀念產生的源頭很難證明，但是可以從文集編成的時間和編次依據窺見這種觀念形成的些微線索。魏了翁《鶴山集》及李曾伯《可齋稿續稿 後》所收的7首《黃籙心詞》可能是能溯源的較早的例子。宋人編集青詞以文體為依據，元人編青詞以齋醮儀式為依據。將同一個儀式中的諸多文書並置，可以在沒有儀式的情況下，從文本上確保齋醮儀程線性結構的完整性、次序性，保留文書功能的完整性和具體性。

元前期劉應李編有《翰墨全書》²⁵，其中己集卷一“薦悼門”第一類“道家青詞”收錄了三朝、九朝、奏表、建壇、散壇、告盟等類型。該書是總集，據序言可知，此書至少成於大德十一年（1301）以前²⁶，這說明，在元早期，青詞文體內涵擴大的觀念已經存在。有《翰墨全書》在先，虞集將其他詞文歸入青詞便不是個人觀念的開創。以虞集的政治素養、道教修養和文學涵養他必然不會有意模糊文體界限，他將諸多類型的詞文都稱作“青詞”，當是基於他自身對青詞認識並受外力影響的結果，這個外力就是應製寫作的要求。應製寫作，並非純粹的道教應用文體寫作，而是經過了王權政治許可和要求的寫作。

文章題名能反映出寫作者對所用文體的態度，而文集分類則能反映出編集者的文體觀念，他們共同反應了元人對青詞的認識。從時間來看，《翰墨全書》成於大德十一年（1301）年，王惲《秋澗集》成書於延祐七年（1320）年²⁷，虞集《道園學古錄》成書於至正元年（1340）²⁸，蒲道源《閑居叢稿》成書於至正十年（1350）²⁹，程鉅夫《雪樓集》成書於至正十四年（1354）³⁰，在時間縱向維度上，這種觀念在元代都一直存在。文人別集以類相從的編撰原則加之同類型文本的數量多寡會影響文人們編集時的文體分類選擇，這種經年以來潛移默化的習慣，以及青詞和其他詞文齋醮功能的相通性逐漸促進了這種青詞內涵擴大現象的形成。

除了上述原因，青詞內涵的擴大或許還和元代寬容的宗教政策相關。元統治者隨著軍事行動的南移，在所得領土範圍實施不同的宗教政策。道教的不同教派在不同時期得到了元統治者的優待和重視，到至元年間，全真道、真大道、太一道、正一道、玄教人士先後參與到王朝政治統治中來。一方面，有專門的集賢院分予道教，給予道教以合法地位和職權；另一方面，皇室多次舉行大型齋醮活動，在事實上踐行了多元寬容的宗教政策。在此背景下，不同教派的道教人士通過齋醮活動參與王朝政治，皇室作為齋主，相應的齋醮祭儀就會更加規範，教派人士為了進一步鞏固教派地位、獲得更多的教權，也會通過道教活動的頻次、儀式的複雜來提升溝通神靈的靈驗性和儀式感。大型齋醮儀式文書種類多、小型齋醮儀式文書種類少，於是，這種數量不一、類型不一的多組詞文在被編入文集時，以一種較為主流的文體來統攝諸多儀式文書便成為了一種文人的必然選擇，青詞作為唐宋以來較為主流的道教文體，便被選定了。

5. 本論4 功能論辯：元青詞的功能與政治意涵

元人將其他齋醮詞文歸為青詞，使得青詞的內涵擴大。但是這一行為並未改變這些詞文本身的宗教功能，它的變化只發生在文體學範疇。青詞自產生之初就並非單純出於宗教目的，而是帶有濃厚的政治色彩，元代的青詞也不例外。

元代的文人青詞包含薦亡（祭魂、追薦）、禳災（蝗蟲、旱災、地震）、祈禱（求雨、求子、去疾、安宅、保安、保產、祈晴）、謝恩（謝過、謝雨）等幾類，又有城隍、謝土、梓潼等民間信仰的齋醮活動，皇家青詞還包括聖壽節、上元節、天壽節、玄元生辰、軍事出征等，這些是唐宋以來的青詞都具備的內容，歸結起來不出祈禳兩個宗教功能的範疇。

元青詞的政治功能雖然也表現為維護王朝統治基礎，但在文本內涵上顯示出不同，最特殊的是虞集的青詞。從文本來看，運用的是道教齋醮儀式，祭祀的卻不止道教神靈。《金錄普天大醮青詞》和《黃錄普天大醮青詞》中的九朝詞，所祭拜的神靈包含了儒家宗廟祭祀的對象，《金錄普天大醮青詞》三日九朝詞的題目分別顯示了朝祭的對象和目的：如第一日所祭對象：《第一日旦朝祭皇天后土三界萬靈上資宗祧先聖凝

神冲漠垂祐邦家祝延睿筭保固丕圖中閭齊年本支繁衍》《午朝祭日月星宿祈日月齊明星辰順度》《晚朝祭五嶽名山祈社稷尊安藩輯睦風俗醇厚百辟忠貞》³¹。這與道教的普天大醮所奏神靈明顯不甚相同，反倒是與儒家皇家祭祀相似。仔細對比醮詞和《元史·祭祀志》³²所載祭祀對象，虞集的金錄醮青詞所祭神靈均和儒家祭儀所包含的各類祭祀對象重合，他按照祭祀的優先級將這些神靈分別置於道教金錄普天大醮的九朝儀式中。《黃錄普天大醮青詞》所祭神靈也與《上清靈寶大法（二）》關於“黃篆青詞式”³³不同，也類似儒家皇室的郊廟祭祀，在一個齋醮儀式中將為國消災、為民祈福、普度幽魂等黃篆齋醮功能並置，這與一醮一功能一科儀的原則並不相符，這種儀程具有鮮明的儒家皇室宗廟祭祀的色彩。這種鮮明的融合現象當不是虞集的個人行為，很明顯是被皇權制度所要求並付與實施的。元代是少數民族入主中原，他們習用中原傳統的儒家禮制以穩定政局，在王朝初期，先後確定了各種祭祀儀程。多神信仰以及政權統治需要使得他們對道教予以重視，國家齋醮文書承擔的是統治階級的權力意志，這些青詞肩負的並非只有道教職能，亦有儒家職能。

程鉅夫《長春宮建金錄醮道場文八首》，除了齋意和 5 首醮詞以外，還又《風伯祝文》《雨師祝文》。祝文是儒家祭祀活動中所使用的應用文體，雖然文人編集統攝於“道場文”下並無不妥，但是這種成組就意味著這場金錄齋醮應用了儒家的文體，皇家祭祀是有著嚴格的儀范的，不管是儒家還是道教，有文書必然就有儀式，雖然儀式無從考，但這鮮明顯示出了儒道二家在祭儀上的交融互動。這種交融或許是道教人士為了迎合皇權而擅改，或許是皇室要求，但無論如何皆是出於政治目的。如此，虞集等人受命而作青詞，從國家文書層面確定了道教地位的合法性，也顯示出了官方層面儒家禮制和道教齋醮儀式的交互，被寫作的青詞，自然也就帶有了鮮明的兩教特色。從根本上來說，是元朝統治者維護政權穩定的宗教手段和政治手段。

6. 餘論

元代文人在青詞文本和文集分類顯示出青詞一體和其他齋醮文體界限模糊的現象，它反映了青詞在元代成為一種文類的現實。雖然總體上元代青詞保留了醮詞、齋詞、青詞的稱呼，但從文化意義上來看這種青詞異名的假象，可以發現它恰好體現了元代文化複雜性、宗教政策多樣性和包容性，是宗教、政治、文學三重要素交互的結果。青詞內涵的擴大並未改變青詞本身的宗教功能，而被歸入其中的其他詞文也保留了自身的宗教儀式特征，這是元代青詞的特性。這種特性使得元代的青詞不僅展示了元代道教齋醮在王朝政治中的角色、地位和姿態，以及和儒家禮制融合的情形，而且還具備獨特的文獻價值，完整保存了皇家青詞儀式文書的流程性，更展示了非文學文體如何在政治外力作用下完成內涵延伸和保持主體獨立。青詞在明代以別樣的姿態參與王朝政治，內涵再度發生新變，或許與元代青詞的內涵擴大有一定的關聯。

参考文献

- ① (唐)杜佑:《通典》卷五三《禮十三·沿革十三·吉禮十二·老君祠》,中華書局,1988年12月版,第1478-1479頁。
- ② (唐)李肇:《翰林志》,清乾隆三十七年至道光三年長塘鮑氏刻知不足齋叢書本,第4a頁。
- ③ (宋)呂元素:《道門定制》卷六《青詞》,《道藏》第31冊,第715頁。
- ④ 金允中:《上清靈寶大法(二)》,《道藏》第31冊,文物出版社、上海書店、天津古籍出版社,1988年,第498b頁。
- ⑤ 闕岱馨:《杜光庭〈廣成集〉青詞研究》第2章,華僑大學碩士學位論文,2014年,第9-24頁。
韓文濤:《論杜光庭與青詞的定體及轉型》,胡曉明主編《古代文學理論研究 秘響潛通的文脈》第五十七輯,2023年,第417-436頁。成娟陽:《論杜光庭的齋醮詞》,《中國文化研究》冬之卷,2006年,第148-155頁。
- ⑥ 金允中:《上清靈寶大法(二)》卷二十二,《道藏》第31冊,第483a頁。
- ⑦ 杜光庭:《道門科範大全集》卷十,《道藏》第31冊,第781頁。
- ⑧ (宋)太常寺纂,(清)徐松輯:《中興禮書》卷八《吉禮八》,清蔣氏寶彝堂鈔本。
- ⑨ 蘇轍《樂城集》卷二十五收“青辭”三首,卷三十三收“青詞”十二首,二者並存。見於清道光十二年眉山三蘇祠刻三蘇全集本。“青詞”十二首宋刻遞修本卷二亦可見。
- ⑩ 長虹:《青詞瑣談》,《中國道教》1990年第2期,第22頁。
- ⑪ 虞集:《道園學古錄》卷二十六,民國八年上海商務印書館四部叢刊景明景泰翻元小字刻本。
- ⑫ 元好問:《遺山集》卷四十,民國八年上海商務印書館四部叢刊景明弘治刻本。
- ⑬ 蒲道源:《閒居叢稿》卷十一,至正十年(1350)刻本。
- ⑭ 程鉅夫:《雪樓集》卷一,民國十二年沔陽盧氏慎始基齋刻湖北先正遺書本。
- ⑮ 謝應芳:《龜巢稿》卷十二“疏”,清初鈔本。該集依次收錄《薦父醮詞》《妻亡終七日設醮疏》《早壇詞》《午壇詞》《晚壇詞》《幽醮建壇詞》《早朝詞》《午朝詞》《晚朝詞》《請詞》《薦父幽醮建壇詞》《薦父青詞》《醮星青詞》《幽醮薦父青詞》。
- ⑯ 蒲道源:《閒居叢稿》卷十一,至正十年(1350)刻本。
- ⑰ 袁桷:《清容居士集》卷三十五,元刻本。
- ⑱ 袁桷:《清容居士集》卷三十五,元刻本。
- ⑲ 張澤洪著:《道教齋醮科儀研究》,第147頁。
- ⑳ 洪適:《盤洲文集》卷十七,宋刻本。
- ㉑ 王安禮:《王魏公集》卷七,豫章叢書本。
- ㉒ (宋)周必大:《周文忠集·玉堂類稿卷十四》卷一百十四,明鈔本。
- ㉓ (宋)崔敦詩:《崔舍人玉堂類藁》,宋刻本。
- ㉔ 魏了翁《鶴山集》卷九十九,四部叢刊景宋刻本配明銅活字本。
- ㉕ (元)劉應李:《翰墨全書》,明初刻本。
- ㉖ 仝建平:《〈翰墨全書〉編纂及其版本考略》,《圖書情報工作》第21期,第136頁。
- ㉗ 《秋澗集後序》,《秋澗集》,民國八年上海商務印書館四部叢刊景明弘治翻元本。
- ㉘ 李本《道園學古錄跋》,《道園學古錄》,民國八年上海商務印書館四部叢刊景明景泰翻元小字刻本。
- ㉙ 黃潛《閑居叢稿序》,《閑居叢稿》,元至正十年刻本。
- ㉚ 李好文《雪樓集序》,《雪樓集》,明洪武二十八年刻本。
- ㉛ 虞集:《道園學古錄》卷二十六,民國八年上海商務印書館四部叢刊景明景泰翻元小字刻本。
- ㉜ (明)宋濂等撰:《元史·祭祀一》卷七十二,中華書局,1976年,第1780頁。
- ㉝ 金允中:《上清靈寶大法(二)》卷二十四“章詞表牘品”,載《道藏》第31冊,第494c頁。

境物到心識：元代“江南”文化功能與一體化書寫

黎曉茵*

<目次>

【摘要】

1. 引言
2. “移動”的江南：文人認知的體驗參照
3. “在場”的江南：文士品格的歸去理想
4. “流動”的江南：文人群體的書寫體認
5. 結語
參考文獻

【摘要】

“江南”既指涉特定的真實地域，又在元人筆下被構建為一種文化符號。它從真實境物到內化心識，文化功能涵蓋三層面：認知層面，它超越單一地域形態，轉化成地域為依託的認知參照及審美範式。人格層面，它與政治高度相關的兩都空間互文，彰顯文人政治理想和獨立品格。情感層面，它作為民族情感和 psychological 積澱，促進群體身份認同和文化認同。元人以“江南”為文化錨點自稱“江南人”，試圖在王朝更迭及文化交融之中，維繫文士的精神品格。多族一體化的“江南”書寫，表達元人的身份認同。

1. 引言

隨著上京紀行詩文學史及心態史價值的揭示，元人“江南”鄉愁引發關注。部分研究將異地“江南”書寫，視作兩地文化疏離或心理隔膜。元人吳澄卻說：“蓋詩境詩物變，眼識心識變，詩與之俱變也。”¹元人面對時代巨變和地域、民族等文化差異並未一味對立排斥，而是秉持理性認知和包容心態，試圖在變動中建構認知秩序和文化平衡。李嘉瑜指出元代上京紀行詩“不在場”的“江南”不斷被召喚入詩的書寫現

* 四川大學文學與新聞學院博士研究生

¹ 吳澄《皮昭德北遊雜詠跋》，《吳文正集》卷五十四，《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1197冊，臺北：臺灣商務印書館，1983年，第543頁。按吳澄“內外合一之學”的認識論，內在素養與外在實曆相互為用，二者都是必須的。詩變的直接導因是“心識”之變，即內在依據；“心識”之變需要“眼識”之變，即外在經歷和知識的豐富。這一轉變，與元人尚遊之風緊密相關。見查洪德《元代文學通論》中冊，上海：東方出版中心，2019年，第624頁。

象¹。“江南”作為“移動”的認知參照，在地理缺席的語境中持續“在場”並承擔文化功能。因為江南是相對固定的地理空間，而“江南”是一個變動的歷史概念²。它在不同主體、南北地域及民族之間“流動”，在歷朝歷代中“流動”³。基於此研究視角，本文試圖探討元人筆下“江南”的文化功能，即其如何在認知、人格、情感層面影響文人個體，並構建超越地域、民族的文化共同體。考察“江南”書寫與地理觀念、群體認同、文化認同的文本聯動，如何參與“多族一體”⁴敘事。

2. 本論1：“移動”的江南：文人認知的體驗參照

“江南”是“可移動”的認知參照，是羈旅途中接觸新地域的情感座標。無論身處何方，“似江南”“憶江南”式書寫比比皆是。元人以“江南”生活經驗為參照，幫助自身迅速認識新的地域、接納新的人事情感。劉秉忠《嘗雲芝茶》：“海上精華難品第，江南葉木屬尋常。待將膚湊浸微汗，毛骨生風六月涼。”⁵是否“類江南”成為重要感性認知，以此凝練理性認知。文人自覺在“江南人”視角接受新事物，以“江南”認知譜系進行觀察、品評。陸厚《川鳳兒》：“仙人騎鳳下青城，濯錦江頭戲擷英。移種江南人不識，至今稱作鳳仙名。”⁶“江南人”不僅是新事物接觸者的群體身份，還是新事物、新知識輸出的群體對象。“江南”能成為認識新地域、新事物的重要參照，基於當地深厚的歷史文化，是因“江南認同”對曆朝文人影響深遠⁷。

江南在宋元之際，承擔朝代更迭的沉痛。元初征戰江南，彼時文人筆下“江南”便與北方形成掎角之勢。錢謙益《跋汪水雲詩》：“《湖州歌》九十八首、《越州歌》二十首、《醉歌》十首，記國亡北徙之事，周詳惻愴，可謂詩史。”⁸遺民詩人汪元量筆下“江南”充滿故國遺思，在政治、軍事、民族、文化諸多衝突中，與元廷、北方、北人、北師形成張力。方回詩以“我生南土”作為“江南人”身份體認，在個

¹ 見李嘉瑜《不在場的空間——上京紀行詩中的江南》，《國立台北教育大學語文集刊》2010年第8期，第58頁。

² 江南不僅是一個地域概念，隨著人們地理知識的擴大而變易。它具有經濟涵義，代表一個先進的經濟區；又是一個文化概念，透視出一個文化發達的範圍。見周振鶴《釋江南》，《隨無涯之旅》，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1996年，第324-334頁。

³ 古代文獻中“江南”如同“中原”“塞北”“嶺南”“西域”等地理名詞，並非有明確範圍的地域區別。見李伯重《簡論“江南地區”的界定》，《中國社會經濟史研究》1991年第1期，第104-105頁。人們使用“江南”一詞仍較隨意，只是指其大概。見陳江《明代中後期江南社會與社會生活》，上海：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2006年，第5頁。

⁴ 元代文壇多族一體性，建立在多族士人共有的國家與文化認同基礎上。元人不僅產生集體國家認同，且因國勢強盛、疆域廣大，有強烈時代自豪感。見查洪德《“華夷一體”：元代文壇特徵》，《民族文學研究》2017年第4期，第20頁。

⁵ 楊籙主編《全元詩》第三冊，北京：中華書局，2013年，第135頁。

⁶ 楊籙主編《全元詩》第二十四冊，第32頁。

⁷ 中國歷史與文學上明確存在一個“江南認同”，即江南意識自覺、江南地方情感突出、江南文化影響力強勢，由此形成的文化張力。從歷史上看，有時“江南”是傳統中國隱性的文化向心力，以此凝聚華夏文化認同；有時“江南”又成隱性的文化離心力，以此區別於意識形態化的北方中原規範文化。“江南認同”從政治認同轉向文化認同的過程中，文學起到了很大的作用。見胡曉明《“江南”再發現》，《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1年第2期，第113-114頁。

⁸ 錢謙益著，錢曾箋注、錢仲聯標校《牧齋初學集》下冊，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5年，第1764頁。

體角度書寫易代的江南。“自古江南無此冷”“自古江南無此寒”，在群體的、歷史的角度審視這片南土的苦難。易代文人的“江南”苦難源自“北方”。“江南”成為故宋文人回不去的精神望鄉，具有文化及國家認同失落的意味。

3. 本論 2: “在場”的江南：文士品格的歸去理想

元人遊歷四方，卻時常思及江南。南北交融的時代背景下，元人自覺將“江南”與多地文化聯繫，形成對比兼有互文的書寫視野¹。元代中期館閣文人多出自江南，身居京城而送友南歸返鄉，怎能不觸及鄉愁。這類詩作以遙想“江南”、暢想南方生活為主。袁桷數次扈從上京，以往總有諸多館閣友人隨行，相互唱和，聊以慰藉²。但至治二年（1322）朝廷免除道士扈從³，以往文人道士薈聚雅集的崇真宮乃至上京，變得格外冷清。《送危宮遠》其一：“翩翩海燕近宮城，的的天鵝度上京。癡坐江南未歸客，夜聽春樹哀潮聲。”⁴送友南歸返鄉，自己卻滯留上京，思歸江南的渴望達到頂峰。文人離開江南或滯留兩都之時，“江南”的影響在對比中顯著⁵。身處江南送友北上之作，當與送友南歸互補參看。“江南”是思歸之處，“兩都”是求仕之所。“江南”從真實地域內化為精神故鄉，維繫著求仕的初心，即其作為文士的獨立品格⁶。只是，“江南”所系文士理想與品格與“兩都”所需政治依附性，往往不能相容。

南人大舉北進，北人頻繁南下，南方文明的優越性也逐漸顯露。南北之人都逐漸習慣“四海為家，聲教漸被，無此疆彼界”⁷。至此，“江南”“兩都”互文書寫，更著重表現文人政治依附與獨立品格的不相容，而非南北的疆域對立。“江南”相對之物從宋元之際“北師”“北人”等頗具戰爭意味的軍事意象，變為“白玉堂”“翰林”“黃金臺”“玉京”等仕途相關的政治意象。“江南”“北方”互文書寫的衝突點，從政治、經濟、軍事、民族等宏觀因素，逐漸縮微至文士品格層面的理想衝突。

元廷統治趨於穩定後，“江南”從表現王朝、地域、民族、文化諸方衝突，內化

¹ 前所未有的“海宇混一”“華夷一統”的地理和文化格局，深刻影響元人地理觀念及書寫。元人疆域空前廣大，造就了他們的時代自信，這是元代盛世文風形成的心理基礎。見查洪德《“海宇混一”鼓舞下的元代盛世文風》，《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8年第4期，第96頁。

² 上京紀行詩多唱和、聯句、集詠，反映文人在上京城內互動頻繁，聯繫緊密。……他們以上京紀行為對象相互唱和的題詠詩，甚至與同行文臣以上京之景為對象聯句吟詩。見邱江寧《奎章閣文人群體與元代中期文學研究》，北京：人民出版社，2013年，第344頁。

³ 袁桷《開平第四集序》：“八日，至開平，舍於崇真宮。有旨：道士免扈從。宮中闕无人聲。……悲愉一寓于詩。而同院亦寡倡和，率意為題，得一百篇。”見楊鐔主編《全元詩》第二十一冊，第328頁。

⁴ 見楊鐔主編《全元詩》第二十一冊，第265頁。此詩其二“居庸關外雪模糊，簇騎分明似畫圖”句、其三“天柱峰前第一詞，風清月冷鶴先知”句，說明是寫扈從上京之事。

⁵ 江南山水雖好，文人終須入京求仕。在元代，前往上京觀禮、巡遊，是“北方士人”，也是全國人士的一大興奮點……根據元詩文獻，當年到上都觀禮，也是江南士人的心嚮往之的一件大事。見楊鐔《元詩史》，北京：人民文學出版社，2003年，第645頁。

⁶ 文士獨立品格相關論述，見牛貴琥《玉山雅集與文士獨立品格之形成——金元文士雅集的典型解析》，北京：人民出版社，2014年，第294頁。

⁷ 見邱江寧《程鉅夫與元代文壇的南北融合》，《文學遺產》2013年第6期，第101頁。

為文人仕途理想與獨立品格的矛盾。王朝鼎革之際批判元廷的“江南”歷史敘事視野淡去，奎章閣文人群體的人文敘事視野上升主流。元代“邊塞”書寫同樣存在政治、軍事、民族衝突淡化的現象，甚至在元代前期西征詩中更先出現¹。大批南方文人扈從進入塞北，“江南”也在異域成為和平雅趣的溫情所在。“江南”書寫交織地理、政治、文化鄉愁²，實為館閣文人的疆域詩學。“江南”書寫的轉向，與奎章閣文人群體所倡文風有關，二者都以文人國家認同和文化共識為依託。

4. 本論3：“流動”的江南：文人群體的書寫體認

“江南”作為“流動”文化符號，在不同主體、地域、民族間“流動”，也在歷朝“流動”³。元末倪瓚《江南春》三首，明清百餘人參與集體追和，體現文人對自身作為“江南人”的身份認同以及對江南的文化認同⁴。江南承載個體和群體記憶，它以文化滋養文人品格，影響其認知體系及審美範式生成。元人無論身處何地皆可思及江南，“江南”身影參與多地書寫。“江南人”“江南客”“江南遊子”的身份指涉頻頻出現，其中不乏非江南文人。正如薩都刺詩云：“人語隨鄉變，官船帶月行。江南數千裏，無處不關情。”⁵

“江南”書寫最早可追溯至漢代民間歌謠。從《江南可采蓮》開始，“江南”逐漸成為充滿歷史、文化的想像空間⁶。元人將“江南”視為文化整體，關涉群體身份及精神基石。黃庚《孤雁》：“長空獨嘹唳，隱約背斜暉。塞北離群遠，江南失侶歸。度雲憐只影，照水認雙飛。卻羨投林鳥，相呼入翠微。”⁷“翠微”指代江南⁸，“投林鳥”即指文人群體⁹。詩人以雁喻自身，地理距離疊加心理、情感諸多距離，令其成為離群的失侶孤雁。“江南思”“江南興”“江南愁”“江南恨”“江南怨”傳遞的不僅個體情感，而上升集體情感積澱。曆朝江南愁怨之筆，通過“江南斷腸句”這一相思古典進行文本累積，逐漸成為文人群體的江南心事¹⁰。“江南句”緣自江南地

¹ 元廷入主中原，從歷代王朝防禦對象變為統治者。邊塞詩書寫重心從前代征戰戍守帶來的各種矛盾，轉向自然山川、民俗風尚等風土民情表現。見闫福玲《论元代边塞诗创作及特色》，《內蒙古社會科學》1998年第6期，第57頁。

² 元代南北交融、多民族交往的時代背景下，文人群體賦予“江南”書寫以地理、政治、文化三重鄉愁。見邱江寧《奎章閣文人群體與元代中期文學研究》，北京：人民出版社，2013年，第101頁。

³ 上京紀行詩相比以往邊塞詩，它的變化在於創作主體眼識與心識的同變，由紀行道中詩境、詩物的變化，造成詩人眼識之變。但從眼識到心識，又需要創作主體內在素養的提升和創作心態的轉變。見武君《元代上京紀行詩評及其理論成果》，《文史》2017年第四輯，第242頁。

⁴ 見楊志波《何處是江南：明清〈江南春〉唱和與江南文人的身份認同》，《社會科學》2018年11期，第162頁。

⁵ 薩都刺：《玉山道中》，楊鐮主編《全元詩》第三十冊，第129頁。

⁶ 見林啟屏《詩的隱喻：韋莊〈人人盡說江南好〉》，《傾聽語文》，臺北：里仁書局，2005年，第89-90頁。

⁷ 楊鐮主編《全元詩》第十九冊，第46頁。

⁸ 按，元人曹伯啓《初到江陰寄徐路教仲祥五首》其一“自古江南地，澄江小翠微”句，可知翠微指代江南。

⁹ 文人常以鳥獸群體離散暗喻個體孤獨。顧瑛為其玉山草堂題句“花雨空青迷鶴夢，窗含虛白失鷗群”，寄託元末文人以雅集加強群體集結的願望。見張建偉、黎曉茵《玉山草堂對桃花源的接受與重構》，《陝西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2023年第3期，第66頁。

¹⁰ 江南的深情而美妙的情愛故事，一化而為“爐邊人月”“皓腕霜雪”，再化而為“一川烟草、滿城風絮、梅子

域，曆朝文人“江南句”不斷回應中國詩歌抒情傳統。經由文本累積，凝為文人低徊心事和審美情結¹。曹伯啓《初到江陰寄徐路教仲祥五首》皆以“自古江南地”起句，分別以“澄江小翠微”“林泉勝概多”“民安樂最深”“東南別一天”“茲行始識真”²接續，論及江南地理景觀、人文歷史、風土人情。元人以自身書寫加入“江南”歷史敘述或文化追認時，此地文化即昇華為文人的共同詩意。“江南”深邃詩意和人文內蘊，不僅因為吳越歷史。它是“文學史化”³的地理景觀，文人每至一處皆可向昔者致意⁴。於是，江南不僅作為鄉里籍貫呈現地域身份。它也成為社交要素之一，維繫文人身份認同及群體聯繫。

“江南”書寫文化品格與奎章閣文人群體宣導的雅正之風相關。虞集《風入松》是元人“江南”書寫之最：“畫堂紅袖倚清酣，華髮不勝簪。幾回晚直金鑾殿，東風軟，花裏停驂。書詔許傳宮燭，香羅初剪朝衫。禦溝冰泮水挾藍，飛燕又呢喃。重重簾幕寒猶在，憑誰寄、銀字泥緘。報導先生歸也，杏花春雨江南。”陶宗儀評曰：“詞翰兼美，一時爭相傳刻，而此曲遂遍滿海內矣。”⁵這首詞將“江南”昇華為秀雅雍正的形象，擺脫前朝書寫殘餘的明麗冶豔，賦予“江南”以特殊文化品格，使它成為溫暖愜意之處，撫慰人心⁶。元代“江南”書寫經歷代文人轉化，已與文士品格、政治理想、群體精神高度相關。“江南人”群體身份指涉，在元代中期大批江南文人到北方求仕後生成；“江南”書寫群體共建，也以兩都江南文人群成型為基礎。

5. 結語

元代“海宇混一”鼓舞下的盛世文風，是國家認同為根基的群體心態在文學創作層面的表現⁷。漢族文人在國家認同下，放下華夷之辨、地域文化之別，以“江南”書寫確立國家認同，參與這一王朝敘事。在“江南”“兩都”互文中彰顯獨立品格，構建多族文人共同體的文化認同。元人異地“江南”書寫展現了流動地域中文化認同的

黃時雨”，終成江南心事的点睛之處，永久散發着中國文化最深處的芬芳氣息。“江南斷腸句”的古典，仍可再追溯至謝靈運，甚至屈原的美人芳草。見胡曉明《“江南”再發現》，《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1年第2期，第116-117頁。

¹ 類似“江南句”的表述可追溯至庾信《哀江南賦》，曆朝文人書寫使“哀江南”從一個賦題、一篇作品，成為集體經驗。見鄭毓瑜《明清之際辭賦作品的哀江南論述》，《文本風景——自我與空間的相互定義》，臺北：麥田出版社，2006年，第135-191頁。

² 楊鐮主編《全元詩》第十七冊，第333頁。

³ 見范宜如《地景·光影·文化記憶：論王士性紀遊書寫中的江南敘述》，《東華中文學報》2019年第3期，第162頁。

⁴ 薩都刺《題淮安王氏小樓四絕序》：“岳山王氏小樓，獨佔淮安一勝。予嘗以迎餞至此，登斯樓謾成四絕，模寫其概。後之來者，其興無窮。”又有“解吟如練澄江句，未信玄暉獨擅能”“雪滿寒江壓酒旗，江南無處不堪題”諸句，說明“江南”是由文人群體共建的文化符號。見《全元詩》第三十冊，第158頁。

⁵ 陶宗儀《南村輟耕錄》，北京：中華書局，1959年，第172頁。

⁶ 見邱江寧《奎章閣文人與元代文壇》，《文學評論》2009年第1期，第37頁。

⁷ 元人認同“至大古今無”的大元盛世，也認為自己有責任創造這種與世運國運相稱的盛世詩文。見查洪德《“海宇混一”鼓舞下的元代盛世文風》，《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8年第4期，第92頁。

動態生成，這對理解多族背景下的文學生成有特殊意義。

宋元之際江南戰火不斷，易代文人筆下“江南”苦難有現實依據。他們書寫“江南”的視角，以不同政治選擇和國家認同為基調。彼時“江南”是“南人”故宋之地，在“北師”碾壓下滿目瘡痍。正如貞祐二年（1215）蒙古洗劫燕京城，焦土之變、人逝物非是金遺民重回燕京的最深感受¹。元明之際，楊允孚以遺民自居作《灤京雜詠》回憶上京。在元上京的頹簷敗壁下“滌瓦榼，倒鄰釀”“回視曩遊”（羅大已《灤京雜詠跋》）²，文人從上京的體驗者變為離開者，又成為追憶者和緬懷者³。明清之際，倪瓚《江南春》的江南春景在明遺民筆下變成“殘山剩水”⁴。明人侯汧《江南春·穀日入舊宅，時尚為裏狷祠神其中》：“記三江，傳火急，淋鈴古堞鐵衣濕。池塘攜手黃泉及，雙瞳晶晶波銜碧。有烏胡不歸城邑，滿堂猙獰山鬼立。籲嗟結子化為萍，莫話花飛細柳營。”⁵這一命運際況和書寫視角，與宋元之際汪元量、方回等人的“江南”書寫何其相似。嘉靖間《江南春》的“愁”仍是個人私情閑愁，而明清之際的遺民之愁，已是新仇舊恨交織的國破家亡之愁。宋元、明清之際“江南”書寫關涉文化正統。康熙“文治”舉措之下，明遺民歷經身份及認同重構，《江南春》唱和的故國舊恨消淡⁶。元人筆下“江南”同樣經歷這一歷史回環。

參考文獻

出版論著

1. 陶宗儀：《南村輟耕錄》，北京：中華書局，1959年版。
2. 吳澄：《吳文正集》，《景印文淵閣四庫全書》，臺北：臺灣商務印書館，1983年版。
3. 楊允孚《灤京雜詠》，北京：中華書局，1985年版。
4. 錢謙益著，錢曾箋注、錢仲聯標校：《牧齋初學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5年版。
5. 周振鶴：《隨無涯之旅》，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1996年版。
6. 蔣景祁：《瑤華集》，《續修四庫全書》，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3年版。
7. 楊鐮：《元詩史》，北京：人民文學出版社，2003年版。
8. 林啟屏：《詩的隱喻：韋莊〈人人盡說江南好〉》，《傾聽語文》，臺北：里仁書局，2005年版。

¹ 見張勇耀《金元之際的燕京書寫及其文化空間的意義重構》，《北方民族大學學報》2023年第3期，第139頁。

² 楊允孚《灤京雜詠》，北京：中華書局，1985年，第1頁。

³ 見武君《記憶中的元上都——〈灤京雜詠〉〈元宮詞百章〉對元上都的三重書寫》，《殷都學刊》2022年第2期，第94頁。

⁴ 清兵南下不但給江南造成了物質文化方面的巨大破毀，而且也極大地影響了江南士人的生活氛圍和心理狀態。……“殘山剩水”的哀思與描摹不僅是一種群體心理的悲情獨吟，還可以看作是物質文化層面發生巨大改變的心靈投射。見楊念群《何處是“江南”——清朝正統觀的確立與士林精神世界的變異》，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2017年，第37頁。

⁵ 蔣景祁輯《瑤華集》卷十六，《續修四庫全書》影印康熙二十五年（1686）刻本，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3年，第1730冊，第274頁。

⁶ 見楊志波《何處是江南：明清〈江南春〉唱和與江南文人的身份認同》，《社會科學》2018年11期，第168-169頁。

9. 鄭毓瑜：《明清之際辭賦作品的哀江南論述》，《文本風景——自我與空間的相互定義》，臺北：麥田出版社，2006年版。
10. 陳江：《明代中後期江南社會與社會生活》，上海：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2006年版。
11. 楊鐮主編：《全元詩》北京：中華書局，2013年版。
12. 邱江寧：《奎章閣文人群體與元代中期文學研究》，北京：人民出版社，2013年版。
13. 牛貴琥：《玉山雅集与文士独立品格之形成——金元文士雅集的典型解析》，北京：人民出版社，2014年版。
14. 楊念群：《何處是“江南”——清朝正統觀的確立與士林精神世界的變異》，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2017年版。
15. 查洪德：《元代文學通論》，上海：東方出版中心，2019年版。

期刊論文

1. 李伯重：《簡論“江南地區”的界定》，《中國社會經濟史研究》1991年第1期。
2. 闫福玲：《论元代边塞诗创作及特色》，《內蒙古社會科學》1998年第6期。
3. 查洪德：《“海宇混一”鼓舞下的元代盛世文風》，《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8年第4期。
4. 邱江寧：《奎章閣文人與元代文壇》，《文學評論》2009年第1期。
5. 李嘉瑜：《不在場的空間——上京紀行詩中的江南》，《“国立”台北教育大学语文集刊》2010年第8期。
6. 胡曉明：《“江南”再發現》，《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1年第2期。
7. 邱江寧：《程鉅夫與元代文壇的南北融合》，《文學遺產》2013年第6期。
8. 查洪德：《“華夷一體”：元代文壇特徵》，《民族文學研究》2017年第4期。
9. 武君：《元代上京紀行詩評及其理論成果》，《文史》2017年第四輯。
10. 楊志波：《何處是江南：明清〈江南春〉唱和與江南文人的身份認同》，《社會科學》2018年11期。
11. 范宜如：《地景·光影·文化記憶：論王士性紀遊書寫中的江南敘述》，《東華中文學報》2019年第3期。
12. 武君：《記憶中的元上都——〈灤京雜詠〉〈元宮詞百章〉對元上都的三重書寫》，《殷都學刊》2022年第2期。
13. 張勇耀：《金元之際的燕京書寫及其文化空間的意義重構》，《北方民族大學學報》2023年第3期。
14. 張建偉、黎曉茵：《玉山草堂對桃花源的接受與重構》，《陝西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2023年第3期。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2부

14. 고전문학(5) 위당관 203호

동아시아 고전의 상징과 상생

李商隱 駢儷文의 문학적 특징 고찰

-「太尉衛公會昌一品集序」를 중심으로-

이성현*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太尉衛公會昌一品集序」의 배경
3. 「太尉衛公會昌一品集序」의 특징

【 국문초록 】

본 연구에서는 李商隱의 변려문 작품인 「太尉衛公會昌一品集序」를 문학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李商隱의 변려문은 당시 통용되던 변려문과 구별되는데, 그의 「太尉衛公會昌一品集序」는 中唐風의 산문적인 변려문에서 六朝風의 기교적인 변려문으로의 전환을 선보인다. 본고에서는 그의 특징을 ‘계승과 창신성’으로 파악하고, 「太尉衛公會昌一品集序」의 특징을 첫째, 慣例에서의 탈피. 둘째, 韓愈 「平淮西碑」의 變容. 셋째, 軍功에 대한 집착으로 나누어 논했다. 李商隱은 관습적으로 사용되던 서문 스타일에서 벗어나 있는데, 전통적인 문학사론을 전개하는 대신 武宗과 李德裕 둘의 관계를 이상화하면서 신성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것이 鄭亞의 「개정본」이 정치적인 배려와 함께 전통적인 서문 형식으로 회귀한 원인이 될 것이다. 「一品集序」의 전체적 형태는 韓愈의 「平淮西碑」를 답습하면서도 韓愈 문장의 단선 구조에서 명/암의 희비를 교차시키며 긴장감을 유발하는 복합적인 구조로 변용했다. 또한 軍功 내용에 李商隱이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막부 문서계였던 자신의 희망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며, 아들에게도 자신을 닮지 말라는 글을 통해 그 진실성을 함께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1. 서론

본고에서는 晚唐 시기 주요 駢儷文 작가로서 李商隱의 「太尉衛公會昌一品集序」에서 보이는 문학적 특징을 살펴본다. 李商隱은 晚唐을 대표하는 詩人으로 여겨지듯이, 駢儷文 작가로서도 晚唐 駢儷文 부흥의 상징이자 宋四六의 원형이 되는 인물이다.

駢儷文 작가라 말하는 이유로는 당시 과거 시험은 물론, 조정 및 幕府에서 사용되는 官用 문서 작성에 많은 수요가 있었고, 막부 문서계를 거쳐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이 李商隱 같은 신진들의 주요 진로였기 때문에 그 직무를 위한 작문 능력을 갈고닦지 않을 수 없었다. 현존하는 그의 문집 『樊南文集』이 소수의 古文과 소수의 자필 문장을 제외하면 모두 막부에서 소요되는 대필 문서인 것도 이에 기반한다. 그 역시

* 연세대학교, 강사

첫 幕主였던 令狐楚나 재상에 오른 李德裕처럼 막부 문서계에서부터 고위직으로 나아가길 原望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李商隱이 작성한 문서에 쓰인 변려체는 당시 일반적인 변려문과 다르다는 점이다. 史書에서도 지적하듯이 그는 어릴 적부터 古文으로 이름을 알렸으나 처음 令狐楚의 막부에 임하면서 그로부터 당시 통용되는 官用 문장 작성법을 전수받는다. 이른바 今體 章奏, 즉 변려문 공문서 작성에 통달하게 되었고, 이러한 글쓰기를 그는 끝내 그만둘 수 없었다. 獺祭魚란 별명처럼 그의 문장은 당시 변려문과 달리 장식적 기교가 강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中唐風의 산문적인 변려문에서 六朝風의 기교적인 변려문으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 唐 武宗 會昌 연간(841-846) 재상에 임해 당 중흥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는 李德裕의 制誥集에 대한 序文 「太尉衛公會昌一品集序」이다.

이 작품은 古文과 정교한 駢儷文이 결합된 駢散合一의 경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李商隱의 전심전력을 다해 작성한 글이다. 황제와 李德裕의 관계를 美的으로 神聖化하면서 동시에 그의 여러 軍功과 업적을 긴장감 있게 묘사하는, 文句 하나하나에 혼신을 다하는 이 序文은 황제의 王言을 대신하는 중흥 재상 李德裕의 制誥文集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작품일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작품이 문제시되는 것은 李商隱의 입장에서 이 글이 유일한 실패작이었다는 데에 있다.

2. 「太尉衛公會昌一品集序」의 배경

「太尉衛公會昌一品集序」는 大中 원년(847) 당초 李德裕가 자신의 수하 鄭亞에게 會昌 연간에 쓴 制誥文集 편찬 및 서문 작성을 의뢰한 것이며, 鄭亞는 다시 자신의 막료인 李商隱에게 부탁, 이에 幕主를 대신해 작성한 것이 「太尉衛公會昌一品集序」(이하 「一品集序」)이다. 그런데 鄭亞는 「一品集序」를 받아본 뒤 李商隱의 문장에 대폭적인 개정을 가하여, 「太尉衛國公李德裕會昌一品制集序」(이하 「개정본」)란 이름으로 李德裕에게 보냈다. 이후 鄭亞 「개정본」이 공식화되어 현재의 李德裕 문집에도 「개정본」이 사용되고 있다.

「一品集序」는 宣宗 大中 원년, 李商隱 36세에 쓰였고, 桂管防禦觀察等使 鄭亞의 막료였다. 李德裕는 會昌 4년에 澤州와 潞州를 평정한 공으로 太尉이자 衛國公에 봉해졌다. 會昌 6년 3월, 武宗이 죽고 宣宗이 즉위하며, 4월 李德裕는 재상에서 파면, 이듬해 大中 원년 2월에 太子少保分司東都로 재차 좌천된다. 給事中 鄭亞도 함께 좌천되어 桂管防禦觀察等使가 된다. 9월 李德裕는 鄭亞에게 書狀을 보내 “冊文 2건, 「宣懿太后祔廟制」, 「聖容讚」, 「幽州紀聖功碑」, 「討回紇制」, 「討劉稹制」, 「黠戛斯書」 5건, 용병 조칙 2건과 「先聖改名制」, 「告昊天上帝文」 및 각종 奏議를 15권으로 편찬하였습니다. 貞觀初의 顏師古와 岑文本, 代宗朝의 常袞, 元和初의 제 부친이신 忠懿公(李吉甫)은 그 시대의 성대한 일을 모두 찬란하게 운색하였습니다. 小子는 서투른 글솜씨에도 가업을 이을 수 있었으니, 武宗 시기 冊命과 典誥, 군사 문서는 모두 명을 받고 작성해 우연히 聖上의 심정에 부합한 것입니다. 삼가 序文 작성 시 저의 상세한 이 뜻을 살피주길 바랍니다(兩度冊文及「宣懿太后祔廟制」·「聖容讚」·「幽州紀聖功碑」·討回紇制·討劉稹制·五度「黠戛斯書」·兩度用兵詔敕及「先聖改名制」·「告昊天上帝文」並奏議等, 勒成十五卷. 貞觀初有顏岑二中書, 代宗朝常袞, 元和初某先太師忠懿公, 一代盛事, 皆所潤色. 小子詞業淺近, 獲繼家聲, 武宗一朝, 冊命典誥, 軍機羽檄, 皆受命撰述, 偶副聖情. 伏恐制序之時, 要知此意, 伏惟詳悉)」「(與桂州鄭中丞書)」라 하여, 그 의도를 잘 살펴 작성하길 부탁했고, 李商隱 역시 「一品集序」에서 이를 따르고 있다.

앞서 말했듯 「一品集序」는 막주 鄭亞를 만족시키지 못해 대폭 수정을 당한 실패작으로 보인다. 막부 문서담당자로서 작성한 글이 수신자에게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一品集序」가 수정된 이유로 기존 연구에서는 정치적 문제 때문으로 본다. 즉 이 시기 牛李黨爭으로 인한 정치적 배려를 위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신중하지 못한 文句를 크게 삭제한 것이며, 또한 기교가 강한 李商隱보다 鄭亞 「개정본」이 문장의 의미가 명료하고 구성이 정돈되어 있으며 사실에 적합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周振甫(『李商隱選集』)는 대폭 개정된 원작 부분이 그럼에도 “簡括有力”의 풍격이 있으며, 韓愈의 「平淮西碑」를 계승했다는 지적은 그 문학비평적 시각에서 돋보이는 견해이나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카코 리치로(加固理一郎, 『李商隱詩文論』)는 「개정본」과 「一品集序」를 대조하여 차이를 분석, 개정된 이유로 武宗과 李德裕의 관계를 지나치게 理想化한 데 있고, 李商隱이 당시 정계 현황을 모르지 않았으며 「一品集序」에서 둘의 관계를 이상화한 것은 오히려 李德裕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한 결과로서, 이것은 李商隱이 의도한 바이자 동시에 李商隱의 정치적 이상을 드러낸 것이라 결론내렸다. 錢得運(『鄭亞·李商隱「會昌一品(制)集序」比較論』)은 李德裕를 중심으로 「개정본」이 「一品集序」의 어느 부분을 개정·증감하였는지를 분석했고, 그 정치적인 사실 관계를 고찰했다. 王婷鶴(『李商隱桂幕駢文研究』), 廖鎮翠(『使事精博·獨具風骨—論李商隱「太尉衛公會昌一品集序」』)는 「一品集序」의 문학적 풍격을 논하며 그 특징으로 독특한 대화체 구성, 기교적인 전고, 화려한 언어, 정교한 對偶라 하였는데, 다만 표면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어 문학 비평적 시야에서 구체적인 보충이 필요해 보인다.

기존 연구는 대개 중앙 정계에서 牛黨과 李黨 간의 권력투쟁을 중심으로 李德裕, 鄭亞, 李商隱 세 사람의 연관성을 우선시하였고, 그 정치적 사실 여부에 집중했다. 武宗의 會昌 연간에 뛰어난 훈공을 세운 재상이자 李黨의 수장인 李德裕가 武宗 사망 직후 宣宗 및 牛黨에 의해 연이어 좌천을 거듭할 때 「一品集序」가 쓰였다는 것과, 또 대폭 개정을 당한 사실로 인해 당시 정국을 고려하는 논의는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면 「太尉衛公會昌一品集序」를 기존과 달리, 보다 문학적인 시각에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정치적인 규정을 전제로 삼으면서 「太尉衛公會昌一品集序」를 문학사적 맥락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작품 자체가 지니는 의의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3. 「太尉衛公會昌一品集序」의 특징

(1) 慣例에서의 탈피

「一品集序」는 당시 개인 文集에 대한 관습적인 서문 문체에서 벗어나 있다. 관습적인 문체란 육조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文章論에 대한 서술이다. 蕭綱의 「昭明太子集序」에 “竊以文之爲義, 大哉遠矣…… 文籍生, 書契作, 詠歌起, 賦頌興, 成孝敬於人倫, 移風俗於王政, 道綿乎八極, 理浹乎九垓, 贊動神明, 雍熙鐘石. 此之謂人文.”와 같은 부분이다. 「謝靈運傳論」처럼 문학사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후의 서문을 보면, 北周 宇文逌의 「庾子山集序」는 “蓋聞五聲調應, 則宮徵成其文…… 所以周南召南之篇, 爲風人之首, 小雅大雅之作, 實王政之由. …… 遂能弘孝敬, 敘人倫, 移風俗, 化天下, 兼夫吟詠情性, 沉鬱文章者, 可略而言也”라 하여 문학론을 밝히고 있다. 唐代가 되어서도 이와 동일한 형태를 띤다.

梁肅의 「秘書監包府君集序」에 “文章之道, 與政通矣. …… 故登高能賦, 可以觀者, 可與圖事”나 「常州刺史獨孤及集後序」에 “夫大者天道, 其次人文…… 唐興, 接前代澆漓之後, 承文章顛墜之運, 王風下扇, 舊俗稍革. 不及百年, 文體反正”라 하면서 문학의 본질과 역사를 말하고 있다. 또한 「李翰前集序」에서 “唐有天下幾二百載, 而文章三變. 初則廣漢陳子昂, 以風雅革浮侈, 次則燕國張公說, 以宏茂廣波瀾, 天寶已還, 則李員外(李華)蕭功曹(蕭穎士)賈常侍(賈至)獨孤常州(獨孤及), 比肩而出, 故其道益熾” 부분 역시 그러하다.

楊炯의 「王勃集序」에 “大矣哉, 文之時義也…… 逮秦氏燔書, 斯文天喪. 漢皇改運, 此道不還. 賈馬蔚興, 已虧於雅頌. 曹王傑起, 更失於風騷.”라 하여 「文」의 흐름을 고대부터 王勃 이전까지의 文을 비판적으로 서술하였으며, 李華의 「唐揚州功曹蕭穎士文集序」에서는 “謂六經之後, 有屈原宋玉, 文甚雄壯, 而不能經. 厥後有

賈誼, 文詞詳正, 近於理體, 枚乘司馬相如, 亦瓌麗才士, 然而不近風雅. 揚雄用意頗深, 班彪識理, 張衡宏曠, 曹植豐贍, 王粲超逸……”라면서 역시 문학사론을 전개했다.

柳宗元은 「楊評事文集後序」에서 “文之用, 辭令褒貶, 導揚諷諭而已. ……文有二道, 辭令褒貶, 本乎著述者也. 導揚諷諭, 本乎比興者也. 著述者流, 蓋出於書之謨訓, 易之象繫, 春秋之筆削 ……” 文의 본질과 그 원천을 설명한다. 동시기의 裴延翰도 「樊川文集序」에서 “探採古作者之論, 以屈原宋玉賈誼司馬遷相如揚雄劉向班固, 爲世魁傑. 然騷人之辭, 怨刺憤懣. 雖援及君臣教化, 而不能磊落持論. 相如子雲, 瑰麗詭變 ……”와 같은 문학사적 서술을 보였다.

制誥集과 관련하여서는 元稹의 「制誥序」가 있다. 여기서는 制誥文의 본질을 설명한 다음 당시 변려체 制誥文에 대한 개혁의 의지를 내비쳤다. “制誥本於書, 書之誥命訓誓, 皆一時之約束也.” “司言者苟務利飾, 不根事實” “而又拘以屬對, 跼以圓方” “蓋所以表明天子之復古, 而張後來者之趣尙耳.”라는 制誥文 자체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러나 李商隱의 「一品集序」는 이러한 문학론을 전개하지 않는다. 李德裕의 문장을 찬미하는 부분은 “ 화려하며 준칙에 맞으니 孔門의 賦와 같고, 清新함은 建安의 시와 같았다(麗則孔門之賦, 清新鄴下之詩)”라는 두 구절이 전부이다. 制誥文에 대한 부분은 “그러므로 급한 일이 발생하면 聖上和 긴급히 대화를 나누니 內庭과 外制의 업무를 모두 공에게 위탁했다. 옛 황제가 「洞簫頌」을 좋아해 뒤뜰에서 읊고, 「子虛賦」를 들으며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님을 탄식했다는 일이 어찌 공의 功績과 덕에 겨룰 만하겠는가? (故每有急宣, 關於密畫, 內庭外制, 皆不與聞. 此又豈可與美「洞簫」而諷於後庭, 聞「子虛」而嗟不同世者, 論功而校德邪)”라 하면서 훌륭한 능력을 발휘해 황제가 모든 制誥 작성을 맡겼으며 그 문장이 아름다워 관리들과 황제가 감탄했다는 칭송이다. 또한 긴급한 대책 문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형세가 급박해 일의 기미가 오래 기다릴 수 없는 일이 발생하자, 帝王의 宣室에서 아직 賈誼를 부르지 않고, 武帳이 아직 건히지 않은 때, 공은 의견을 펼칠 겨를이 없음에도 긴급히 상소를 개진하였다. 賈誼의 憂國과 같은 그 정신이 깊은 심성을 올렸기 때문이며, 山濤의 병법과 같은 책략이 어디 미리 숙지한 것이겠는가? 무릇 聖上께 아뢴 상주는 모두 어긋남이 없었다(其有勢切疾雷, 機難終日, 屬宣室未召, 武帳不開, 公莫暇昌言, 且陳密疏. 賈太傅之憂國, 固動深誠. 山吏部之論兵, 詎因夙習? 凡所奏御, 罕或依違)”라는 정도로 李德裕의 통찰력과 우국정신을 미화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전처럼 해당 문체에 대한 문학사적 흐름이나 문장론에 대한 서술을 피하고 있다.

李商隱의 자필 서문인 「樊南甲集序」나 「樊南乙集序」도 문장론을 전개하기 보다는 자신의 작품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았는가를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元結의 문집에 대한 서문인 「容州經略使元結文集後序」 역시 문장론은 보이지 않는데, 다만 元結의 古文에 대해 6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구절은 문학비평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가 이처럼 틀에서 벗어난 태도를 보이는 까닭은 아마도 古道에의 순종을 거부하는 그의 기질에서 연유할 것이다. 「容州經略使元結文集後序」에 “논자들은 공연히 元結은 孔氏를 배우지 않았으니 잘못됐다고 말한다. 아, 孔氏가 道德仁義 말고 뭐가 있단 말인가? 백천만 년 동안 성현들은 길에 계속 나왔을 따름이다(論者徒曰次山不師孔氏爲非. 嗚呼! 孔氏於道德仁義外有何物? 百千萬年, 聖賢相隨於塗中耳)”라면서 공자에 대한 유가적 師法을 기피하고 元結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움을 중시했다.

「上崔華州書」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師法과 古道에 대한 회의를 보여주고 있다. “어르신들로부터 듣기를 도를 배우려거든 반드시 옛것에서 구해야하며, 글쓰기는 반드시 師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항상 답답하고 불쾌하여 물러나 스스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저 소위 道라는 것은 어째서 소위 周公, 孔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일까? 대체로 나와 주공이나 공자나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졌을 뿐이지 않은가(始聞長老言, 學道必求古, 爲文必有師法. 常悒悒不快, 退自思曰: ‘夫所謂道, 豈古所謂周公孔子者獨能邪? 蓋愚與周公俱身之耳’).” 이러한 회의는 옛것에 구속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었다. 문장을 쓰는 데에도

전통에 구애됨이 없음을 추구한 것이다. “이로 인해 行道에 今古에 얽매이지 않았고, 제 본뜻으로 붓을 놀려 문장을 썼으며, 經史를 베끼거나 세상에 대해 꺼리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만 권의 經書는 각기 그 등급이 천차만별인데, 어찌 또 주공, 공자 밑으로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以是有行道不繫今古, 直揮筆爲文, 不能攘取經史, 諱忌時世, 百經萬書, 異品殊流, 又豈能意分出其下哉)”

鄭亞의 「개정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지난 관례대로 문학사적 서술을 보였다. 制誥 문집인 만큼 제왕의 명령문의 시초부터 시작해 역사적 흐름을 서술(綸綍之興, 載籍之始……唐虞之盛, 二典存焉. 夏殷之隆, 厥有訓誥……), 李德裕 制誥文이 그러한 궤도 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韓愈 「平淮西碑」의 變容 - 대비적 분위기에 의한 긴장감 형성

李慈銘은 “李義山은 韓昌黎의 「平淮西碑」를 극히 추종하여 「一品集序」를 쓸 때 이를 힘써 따라했다. 그러나 그 재능은 훨씬 떨어지니 잡다한 언어만 아무렇게나 뻔었다(義山極推崇昌黎「平淮西碑」, 其作李衛公「會昌一品集序」, 力仿之, 而才實相遠, 蕪詞枝語, 沖口卽出).”라며 「一品集序」와 韓愈 「平淮西碑」의 관계를 지적했다. 비록 李商隱의 문장을 천시하고 있지만 「平淮西碑」와의 관계를 언급한 부분은 괄목할 만하다. 周振甫 역시 이를 이어 李商隱의 「平淮西碑」 모방을 이야기했다.

이것은 바로 「一品集序」 초반부에 武宗과 李德裕의 대화로 풀어나가는 부분을 두고 韓愈의 글을 답습하였음을 의미한다. 먼저 「一品集序」의 서두를 보자.

당 15대 昭肅 황제께서 초에 太弟 신분으로 성실히 하늘의 은덕을 맞이했다. 곧 西宮에 臨哭하고 宗廟에 들어가니, 장차 구구 땅을 규범삼고 해와 달과 별을 지휘하고자 했다. 이에 좌우 신하를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 선조는 영웅의 업적을 세우고 고대를 본받았다. 점을 쳐 呂尙을 얻고, 꿈에서 傅說을 얻기 위해 탄식하며 편안하지 못했다. 그런 能文掌武의 인물을 얻어 大業을 오래도록 이룰 수 있었다. 지금 짐은 천명을 받들어 밝은 임금의 자리에 올랐으나, 上帝가 짐에게 내려주실 자는 누구의 자제일지 모르겠구나.”

좌우 신하들은 그 위엄에 두려워 떨었고, 황제의 뜻을 알지 못했다. 주창과 양용처럼 말만 더듬을 뿐, 고개 들어 대답하지 못했다. 이윽고 3, 4일이 지나자 이에 조서를 내렸다. “淮海의 백부여, 그대가 와서 나를 보좌하라.”

…… 황제께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정무를 그에게 맡기니 진실로 신명한 법도로 가득찼다. 좌우 신하들은 모두 이것이 꿈에 의한 것인지 점을 쳐 얻은 것인지 알지 못했다. 금색문에서의 國政이 끝나거나 옥장식한 어전에서의 연회를 마친 뒤에도 공은 홀로 태양빛을 머금은 듯했으며 고요히 천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황제께서도 그 깊은 심정을 표하며 『尙書』 「召誥」와 「說命」의 뜻을 밝히고 임금과 신하 간의 약속을 맺었다. 황제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를 第一功의 大手筆로 삼을 것이다.” …… 공이 절하며 말했다. “신 아무개가 어찌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태종 때 顏師古와 岑文本이라는 신하가, 고종 때 李嶠와 崔融이라는 신하가, 현종 때 張說과 蘇頲이라는 신하가, 대종 때 常袞이라는 신하가, 현종 때는 신의 부친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太白星의 기운을 품고 정채로움을 펼쳤고, 慶雲을 품고 아름다운 생각을 펼친 자들입니다. 그 재능은 魏相, 丙吉과 다름 만하고, 그 도는 伊尹과 皋陶에 겨를 만합니다. …… 부족한 제가 어찌 선현들의 업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황제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舜은 어떤 사람이더냐, 顏回는 어떤 사람이었더냐? 짐은 천명을 이룰 생각이니 그대는 선현들의 사업을 잘 계승하는 데 노력하라. 그대 선조를 욕되지 않도록.”

공이 다시 절하며 말했다. “『역』에 ‘마음 가운데에서 원한다’ 하였고, 『시』에 ‘어느 때에나 잊을런가’라 하였으니, 신이 감히 아침부터 밤까지 업무에 힘쓰며 대업을 드날리지 아니하겠습니까?”

唐葉十五, 帝諡昭肅, 始以太弟, 茂對天休, 遂臨西宮, 入高廟, 將以準則九士, 指麾三靈. 乃顧左右曰: “我祖宗並建豪英, 範圍古昔, 史卜宵夢, 震嗟不寧, 是用能文, 惟睿掌武, 以永大業. 今朕奉承天命, 顯登乃辟, 庸不知帝賚朕者, 其誰氏子焉?”

左右惕兢威靈, 迷撓章指, 周訥揚吃, 不能仰酬. 既三四日, 乃詔曰: “淮海伯父, 汝來輔予.”

…… 帝由是盡付玄機, 允厥神度, 左右者咸不知其夢耶卜耶. 金門朝罷, 玉殿宴餘, 獨銜日光, 靜與天語. 帝亦幽闡, 徵「召誥」「說命」之旨, 定元首股肱之契, 曰: “我將俾爾以大手筆, 居第一功 ……”

公拜稽首曰: “臣某何敢以當之. 在昔太宗有臣, 曰師古曰文本. 高宗有臣, 曰嶠曰融. 玄宗有臣, 曰說曰環. 代宗有臣, 曰袞. 至

於憲祖, 則有臣禰廟曰忠公. 並稟太白以傳精神, 納非煙而敷藻思. 才可以淺深魏郗, 道可以升降伊臯. …… 豈伊乏賢, 可纂舊服?”
帝又曰: “舜何人也, 回何人也. 朕思丕承, 汝勉善繼, 無忝乎爾之先.”
公復拜稽首曰: “『易』曰: ‘中心願也’, 『詩』曰: ‘何日忘之’. 臣敢不夙夜在公, 以揚鴻烈.”

武宗이 제위에 올랐으나 아직 자신을 보좌할 재상을 구하지 못하다가, 같은 종실인 李德裕를 재상으로 임명하는 과정을 대화 형식으로 서술하는 장면이다. 한편 韓愈의 「平淮西碑」는,

당나라가 능히 하늘의 덕을 닮으니, …… 高祖와 太宗께서는 해악을 없애고 천하를 다스리셨으며, 高宗과 中宗, 그리고 睿宗께서는 백성들을 쉬면서 생육하도록 해주셨다. 玄宗께서 그 보답으로 功을 거두심이 지극히 창성하고도 풍성하시어, 만물 성대하고 영토 넓었으나 재앙이 그 가운데서 싹트고 있었다. 肅宗·代宗·德宗·順宗, 모두 근면하시고 관용도 있었다. 극악한 무리를 막 제거하긴 하였으나 잔당의 무리들 미처 다 베어내지 못하였거늘, 재상이며 장수며 문무백관들은 안락하게 즐기만 하면서 늘 보고듣는 일이라 당연히만 여겼다. 睿聖文武皇帝께서 못 신하들의 조알을 받으신 후 興圖를 살피시고 朝貢을 헤아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하늘이 우리 집안에 온 나라를 주시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게 왕위가 미쳤도다. 내 만일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면 무슨 낮으로 종묘에서 조상을 뵈겠는가?”

…… 황제께서 말씀하시길, “ 끝내 무력만을 쓸 수는 없으니, 내 잠시 쉬게 하고자 하노라” 하시었다.

…… 대신이 제멋대로 결단하여 제창하자 너도나도 부화뇌동하며 모두가 똑같은 소리를 해냈는데, 너무도 완고하여 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황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나의 선조께서 내게 부여하신 임무가 아마도 이 일인가 싶구나. 내 어찌 감히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물며 한두 명이라도 내게 동조하는 신하가 있으니, 도와주교자 하는 자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光顏, 너는 陳州와 許州의 원수가 되어, 행군 중인 河東·魏博·郢陽 세 軍의 병사를 거느리도록 하라.”

…… “度, 너는 御史中丞이 되어 병사들을 시찰하도록 하라.” ……

(이주해 옮김, 『한유문집2』, 문학과지성사, 2009, 149~153쪽.)

위와 같이 전대 황제의 나열과 함께 憲宗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憲宗은 淮西의 잔당이 여전히 설치하는 모습에 근심하는 한편, 裴度 등 재상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며 난국을 타개하고 있다. 李商隱은 이러한 수법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李商隱은 직접 자신의 문장이 韓愈의 영향을 받았음을 서술하기도 했다. 「樊南甲集序」에 “사람들은 때로 나를 가리켜 말하길 ‘韓愈의 문장, 杜甫의 시, 令狐楚의 章檄에 대해서 樊南의 어떤 춤고 배고픈 자가 좀 아는 바가 있더라’라고 하였다(人或曰: 韓文杜詩, 彭陽章檄, 樊南窮凍人, 或知之)”라고 하였고, 게다가 직접 韓愈와 「平淮西碑」를 기리는 「韓碑」 시를 쓴 만큼, 韓愈에 대한 존숭이 컸다.

李商隱은 「平淮西碑」를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平淮西碑」는 황제의 말만 인용하고 있으며, 통찰력있는 황제의 명령이라는 내용 전개가 단선적으로 흐른다. 「一品集序」는 여러 부분에 있어 대조적인 감정과 분위기를 통해 긴장감을 이끌어 내는데, 「平淮西碑」의 주인공이 황제라면, 「一品集序」의 주인공은 武宗과 李德裕이다. “遂臨西宮, 入高廟”로 전대 황제 文宗의 죽음과 武宗의 등극이라는 대비로 시작된다. 보좌할 재상을 구하지 못한 황제의 근심으로 신하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左右惕兢威靈, 迷撓章指, 周訥揚吃, 不能仰酬)과 황제의 의지로 李德裕를 등용하고 모든 정무를 위탁하는 장면, 그리고 이것이 여상을 얻은 것처럼 짐에 의한 것인지 부열을 얻은 것처럼 꿈에 의한 것인지 어리둥절하는 신하들의 모습은 소설적이기까지 하다. 서두에서 뿐만 아니라 본론 부분에서도 긴장감 조성이 이어진다. 李商隱은 武宗의 “念兆人之衆, 顧九州之廣, 永懷不待之痛, 式重如存之敬”라며 효성을 다하지 못한 슬픔을 말하고, 이를 李德裕가 「宣懿太后祔廟制」를 작성해 해결한다. “文宗皇帝思宗社之靈, 桃祖之重, 傳於夏啓, 既不克終. 歸於與夷, 又未能立.”의 애통한 상황을 서술하고, “‘潁邸, 吾寧忘邪?’ 及武宗讓踰三四, 位當九五, 出潛離隱, 躍泉在天”라 하여 武宗이 희망의 상징적 존재로 나온다. 軍功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天寶季年, 物豐時泰”의 평화로움과 “骨骸者慕周偃武, 肉食者效晉清談”의 대조되는 분위기, 그리고 위구르

의 침략에 맞선 張仲武의 활약, 조정 내부에서 출병을 반대하는 자들과 이를 물리치는 李德裕의 대비는 명과 암의 희비를 교차하며 긴장감을 형성한다.

(3) 軍功에 대한 집착

「一品集序」의 본론 내용은 李德裕의 군사적 업적이 중심이다. 물론 李德裕의 편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宣懿祔廟制」, 「聖容贊」의 저작과 그 배경의 찬미가 먼저 배치되어 있는데, 軍功 부분보다 그 문학적 긴장감이 떨어진다. 「幽州紀聖功碑」의 배경이 되는 위구르(당시 回鶻)의 침략과 張仲武의 활약, 이틈을 타 번진에서 발생한 劉稹의 반란과 뒤이은 楊旉의 반란, 이 반란군을 진압할 생각이 없는 조정 관료들의 모습과 李德裕가 나서며 군사적 제압을 실행하고, 키르기스(黠戛斯)를 복속하는 등, 軍功은 상세하고 전기소 설같은 긴장감을 형성한다.

李商隱은 전부터 군공에 관심을 두었다. 「爲李貽孫上李相公啟」에서도 「一品集序」와 거의 비슷하게 위구르와 유진의 반란과 이를 제압하는 李德裕를 찬미했다. 뿐만 아니라 李商隱은 자식들에게 아비를 닮지 말라면서 병법이야말로 제왕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驕兒詩」에 “곤사는 내 아들, 미모를 따라올 자가 없지(衰師我驕兒, 美秀乃無匹)”로 시작하는 시는 마지막에 “아비는 독서를 좋아하다 고통스레 글을 쓴다. 마흔이 되어 가는 초췌한 몸인지라, 벼룩도 이도 뜯어먹을 살이 없다. 아들이 아버지처럼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지 마라. 사마양저의 병법과 장량의 용병술을 배워, 바로 제왕의 스승이 되어야지 세세한 것이나 따져서는 안 된다(爺昔好讀書, 懇苦自著述. 憔悴欲四十, 無肉畏蚤虱. 兒慎勿學爺, 讀書求甲乙. 穰苴司馬法, 張良黃石術. 便爲帝王師, 不假更纖悉)”라고 했는데, 이는 당시 번진 및 이민족과의 전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용병술의 가치를 보여주는 부분이자 막부 문서계로서 눈에 띄는 진급을 할 수 없었던 李商隱 자신에 대한 不遇의 토로였다. 「一品集序」는 이런 李商隱의 희망과 기대를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한·중·일 고전시가 속 두견(杜鵑) 이미지 비교

- ‘새’와 ‘꽃’의 복합 이미지를 중심으로

김기원 *

<目 次>

【 국문초록 】

1. 들어가며
 2. 중국 고전시가 속 두견 이미지
 3. 우리나라 고전시가 속 두견 이미지
 4. 일본 고전시가 속 두견 이미지
 5. 한·중·일 고전시가 속 두견 이미지 특징
 6.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한·중·일 고전시가에 나타난 두견(杜鵑) 이미지를 비교·분석하는 데 주요한 목적을 두었다. 기존 연구가 두견새 또는 두견화와 같은 단일 소재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본 논문은 새와 꽃이 동시에 등장하는 복합적 이미지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의 경우 당시(唐詩)에서 촉(蜀) 지역 전설과 결합하여 두견은 피(血)와 한(恨)을 상징하며, 두견화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비극적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조에서는 두견의 명칭 혼동 문제도 존재하지만, 주로 배꽃·달·밤 등의 소재와 결합하여 연정과 정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 『만엽집』에서는 두견새(호토토기스)가 초여름의 계절성을 대표하며, 굴꽃·병꽃·창포·등나무 등 다양한 꽃과 함께 묘사되어 계절적 정취와 회상의 매개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중국은 역사적 비극, 한국은 사랑과 애상, 일본은 계절성과 회상의 이미지라는 차별적 양상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1. 들어가며

두견이라는 소재는 매우 특별하다. 보통 ‘두견’은 ‘새’의 이미지와 ‘꽃’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소재의 명칭이 동일한만큼 상호 결합 구조도 상당히 견고한 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두견에 대한 연구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고전 시가와 관련하여 두견새 및 두견화의 활용 양상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견새가 중국 고전문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었으며 또한 그 이미지의 특징이 어떠한 양상으로 표현되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있었고²⁾, 두견화가 중국 고전 시가

* 호원대학교, 연구교수

2) 박순철, 「두견새 전설과 문학적 수용 및 의상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 제41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pp.383-410.

에 어떠한 형태로 묘사되었는지 연구한 사례도 있었다.³⁾ 또한 두견화를 포함하여 기타 식물이 중국 문학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지 다양하게 대상을 설정하여 연구한 결과도 보인다.⁴⁾

다만,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한 가지 소재, 즉 꽃이나 새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전개한 경우가 많지만, 새와 꽃이 결합한 이른바 ‘복합적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도 함께 발견할 수 있다. 그만큼 두견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그대로 답습되어 연구에 적용된 경우가 많아 개인적으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두견 이미지 연구의 대상은 중국 지역인 경우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 혹은 일본 등 주변 지역의 이미지를 상호 비교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일 고전시가 속 두견(杜鵑) 이미지 비교를 시도하였다. 삼국의 고전시가로 그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각 지역의 다양한 소재와 다수의 작품을 모두 살펴보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전시가의 대상을 중국의 당시(唐詩), 한국 조선시대의 시조(時調), 일본의 만엽집(萬葉集)에 수록된 작품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소재의 범위도 제한하기 위해 ‘두견’의 이미지 중 ‘꽃’과 ‘새’의 단독 이미지보다 두 소재가 동시에 등장하는 복합적 이미지 발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역 및 소재의 융합 과정을 통해 ‘두견’이라는 소재의 특징을 보다 객관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중국 고전시가 속 두견 이미지

두견이라는 이미지 중 ‘새’와 ‘꽃’이 상호 결합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양웅(楊雄)의 촉왕본기(蜀王本紀)에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다.

당시 촉(蜀) 지방의 백성은 매우 드물었는데, 후에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두우(杜宇)였다. 그는 이릉(夷陵)에서 출발하여 주제산(朱提山)에 도착했다. 또한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이(利)였으며, 강원(江原)의 우물에서 나와 두우의 아내가 되었다. 두우는 스스로 촉의 왕이 되어 망제(望帝)라고 불렸다. 그는 문산(汶山) 아래의 읍차향(邑且鄉)에서 나라를 다스렸으며, 백성들은 점점 번성했다. 망제는 100여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 형(荊) 땅에 별령(黿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별령(黿靈)의 시신이 사라졌고, 형 지역의 사람들은 찾을 수 없었다. 별령(黿靈)의 시신은 강물의 위쪽 비(郫)까지 떠내려왔고 마침내 다시 살아나서 망제와 만나게 되었다. 망제는 그를 재상으로 삼았다. 그때 다섯 개의 산에서 물이 솟아나며 홍수가 일어났다. 그러나 망제는 이를 다스릴 수 없었다. 이에 별령(黿靈)에게 다섯 개의 산을 파서 물길을 트게 하였고, 백성들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별령(黿靈)이 치수를 마친 후, 망제와 그의 아내는 슬픔을 느꼈다. 망제는 스스로 덕이 부족하여 잠령보다 못하다고 여겼고, 결국 나라를 그에게 맡기고 떠났다. 이는 마치 고대 초(楚)나라에서 왕위를 선양하던 전통과 같았다. 별령(黿靈)은 왕위에 올라 개명제(開明帝)라고 불렸다. 왕은 노보(盧保)를 낳았는데, 연호를 또한 개명이라 하였다. 망제가 떠날 때, 자륙(子鵠)이 울었는데, 촉나라 사람들은 자륙이 우는 것을 슬피하고 망제를 그리워했다. 망제란 곧 두우(杜宇)였다.⁵⁾

3) 배다니엘, 「중국 고전시에 나타난 杜鵑花 묘사 양상」, 『중국연구』, 제6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6, pp.107-123.

4) 다음 두 편의 논문을 참조. 팽철호, 「한국에서 다른 植物로 인식되는 중국문학 속의 植物 — 薇·苕菜·茱萸·薔·柏의 경우」, 『중국문학』, 제81집, 한국중국어학회, 2014, pp.107-123. 및 팽철호, 「한국에서 다른 식물로 인식되는 중국문학 속의 植物(2) — 海棠花·杜鵑花·躑躅의 경우 —」, 『중국어문학』, 제67집, 영남중국어학회, 2014, pp.65-84.

5) (時蜀民稀少，後有一男子名曰杜宇，從夷陵止朱提山，有一女子名利，從江原井中出，為杜宇妻。乃自立為蜀王，號曰望帝，治汶山下邑且鄉，化民往往復出。望帝積百餘歲，前有一人名黿靈，其尸亡去，前人求之不得，黿靈尸隨江水上至郫，遂活，與望帝相見。望帝以黿靈為相。時五山出水，若蜀之洪水，望帝不能治。使黿靈決五山，民得安處。黿靈治水去後，望帝與其妻悲，慘愴，自以德薄，不如黿靈，乃委國授之而去，如楚之禪讓。黿靈即位，號曰開明帝。帝生盧保，亦號開明。望帝去時，子鵠鳴，故蜀人悲子鵠鳴而思望帝。望帝，杜宇也。)

중국의 고전시가에 등장하는 두견의 이미지는 해당 전설과 결합하여 대부분 붉은 피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슬픔, 한(恨), 원망, 걱정 등 부정적 감정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 작품에서는 두견과 붉은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遊魂自相叫, 떠도는 혼백들이 서로 울부짖는 소리 들리네,
寧復記前身. 차라리 전생의 몸을 다시 기억하겠노라고.
飛過鄰家月, 이웃집 달 옆을 휩 지나가듯 날기도 하는데,
聲連野路春. 처량한 소리 봄 들판과 길에도 이어지네.
夢邊催曉急, 꿈결에 동트는 새벽 재촉하는 듯한 것이,
愁處送風頻. 근심 있는 곳에 바람만 휘잉 불고 있네.
自有沾花血, 꽃 위에 뺨은 피 여기저기 물들어 있는데,
相和雨(露)滴新. 빗방울과 함께 섞이니 오히려 새롭구나.⁶⁾

蜀魄千年尙怨誰, 축혼이 천 년의 세월 그 누구를 원망했나,
聲聲啼血向花枝. 울 때마다 꽃과 가지 향해 피를 뿜네.
滿山明月東風夜, 산에는 온통 밝은 달빛 비추는 밤은,
正是愁人不寐時. 수심 가득한 나그네가 잠 못 이루는 때.⁷⁾

冤禽名杜宇, 원망의 새 이름은 곧 두우라는데,
此事更難知. 관련된 전설은 더욱 알기 어렵지.
昔帝一時恨, 옛날 어떤 왕이 한을 품었다고 하는데,
後人千古悲. 그 후 사람들은 천 년 넘게 슬퍼했지.
斷腸思故國, 창자 끊어지듯 괴롭게 고국을 그리워하고,
啼血濺芳枝. 울다 울다 꽃가지에 피 뿜고 흩뿌렸지.
況是天涯客, 어차피 하늘 끝 나그네에 지나지 않은데,
那堪□□眉. 어찌 □□ 눈썹을 견뎌낼 수 있겠소.⁸⁾

蜀國曾聞子規鳥 예전 축(蜀)땅에서 자규조 소리 들었는데,
宣城還見杜鵑花 지금 선성(宣城)에서 두견화가 보이네.
一叫一回腸一斷 한 번 울 때마다 애가 한 번씩 끊어지고,
三春三月憶三巴 삼 년 하고 석 달 되어 파촉 고향 그림네.⁹⁾

특히 해당 전설과 결합할 때 두견의 ‘새’와 ‘꽃’의 결합 이미지는 중국 축(蜀) 지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山石榴, 산석류는
一名山躑躅. 산척축 이라고도 하지.
一名杜鵑花, 두견화 라고도 하는데,
杜鵑啼時花撲撲. 두견새 울 때쯤 겹겹이 피어오르지.
九江三月杜鵑來, 구강 삼월이면 두견새 날아오는데,
一聲催得一枝開. 새 한 번 울 때마다 꽃가지 하나씩 피네.

6) 「子規(자규)」 가도(賈島)

7) 「聞子規(자규 소리 들으며)」 나엽(羅鄴)

8) 「聞子規(자규 소리 들으며)」 이산보(李山甫)

9) 「宣城見杜鵑花 (선성에서 두견화를 보게 되어)」 이백(李白)

(중략)

淚痕裊損燕支臉, 눈물 자국 촉촉해 연지 꾸민 얼굴에 번지는 듯,
剪刀裁破紅綃巾. 가위로 붉은 옷감 천을 잘게 난도질한 듯.
謫仙初墮愁在世, 적선(謫仙)이 처음 떨어졌을 때 근심 가득했지만,
姍女新嫁嬌泥春. 예쁜 새색시 이 봄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네.
日射血珠將滴地, 햇살에 붉은 핏방울 땅에 떨어질 듯,
風翻火焰欲燒人. 바람에 꽃망울 뒤집힐까 보는 사람 마음 졸이네.¹⁰⁾

3. 우리나라 고전시가 속 두견 이미지

두견과 소쩍새는 전혀 다른 종의 조류이며, 우리나라에서 두견을 소쩍새로 오인하는 경우가 유독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말 속담 중 ‘두견이 목에서 피 내어 먹듯’ 이 있는데, 남에게 억울한 일이나 못할 짓을 하여 재물을 빼앗음을 이르는 말이다.

山 밋히 스자 하니 杜鵑이도 붓그럽다.
네 집을 굽어 보고 솟 적다 우는고나.
두어라 安貧樂道 니 恨홀 줄이 이시랴.

위의 작품을 보면, 두견과 소쩍새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쩍새와는 달리 두견과 접동새는 그 대상이 같은 것인지 혹은 서로 다른 조류를 지칭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山下에 여름이오 山上에 봄이로다.
四月에 꼬치 피고 접동이 나제 우니,
더욱 더 卜居한 곳 기쁜 줄을 알래라.

중국의 촉(蜀) 지역과 연계되어 두견의 이미지를 활용한 경우도 물론 있다.

空山이 寂寞하디 슬피 우는 저 杜鵑아,
蜀國興亡이 어제 오늘 아니여늘,
至今히 피나게 우리 님의 애를 굶나니

蜀天 불근 달의 슬피 우는 저 杜鵑아,
空山을 어디 두고 客窓의 와 우니는다,
不如歸 不如歸 하느 情이야 네오너오 다르랴.

우리 시조에서 두견새와 가장 자주 결합하는 꽃은 단연 배꽃[梨花]이라고 할 수 있겠다.

梨花에 月白하고 銀漢이 三更인제,
一枝春心을 子規 |야 아라마는,
多情도 病이낭하여 줌못드러 하노라.

10) 「山石榴寄元九(산석류를 원진(元稹)에게 보내며)」 백거이(白居易)

西山에 日暮하니 天地에 가히 없다.
梨花에 月白하니 님싱각이 시로이라.
杜鵑아 너는 놀을 글여 밤시도록 우느니.

杜鵑아 우지말아 이제야 니 왔노라.
梨花도 피어있고 스달도 돛아 있다.
江山에 白鷗 이신이 盟誓 | 프리홀이라.

이몸의 식여져서 접동새 녀시 되야,
梨花 편 柯枝 속님해 뻘엿다가,
밤중만 술하져 우리님의 귀에 들리리라.

글여 사자말고 이 몸이 곳이 죽어,
梨花一枝에 蝶蝶새 덕시되야,
님 자는 碧紗窓外에 울어넬까 호노라.

일부 기록을 보면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두견이 없다는 주장이 발견되는 점은 대단히 흥미롭다.¹¹⁾ 우리나라의 시조를 통해 살펴본 두견의 복합적 이미지는 두견새와 배꽃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중국의 신화 및 전설의 요소는 상당 부분 열어져 있다. 이는 두견새의 도래 시기와 두견화의 개화 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경우도 사실 촉(蜀)의 지역이 아닌 곳에서 꽃과 새가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며, 두견조와 두견화의 결합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4. 일본 고전시가 속 두견 이미지

일본에서 호토토기스(ほととぎす)와 곽공(郭公; かっこう)은 모두 빠꾸기목 빠꾸기과에 속하는 조류이므로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두 새 모두 초여름에 남아시아에서 날아오는 철새에 속하며 ‘타란’이라는 생태까지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두 존재를 혼동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다만 일본의 고전 작품에서 이 두 새가 혼동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고전문학, 그 중에서도 만엽집(萬葉集)에 ‘두견새’가 언급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¹²⁾ 일본에서 두견새의 이미지는 초여름과 융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시기를 조금 더 특정하자면 입하(立夏)부터 5월까지 특별한 울음을 우는 두견새가 주로 묘사되었다.

그렇다면 일본의 고전시가의 경우 두견새와 함께 읊어지는 경물, 그중에서도 식물이나 꽃의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만엽집에 수록된 작품을 기준으로 그 작품 수를 집계해 본다면 10수 이상 언급된 경물은 다음과 같다. 귤나무(橘), 병꽃(卵の花), 창포(あやめ草), 등나무(藤). 이는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물 소재와도 완전히 다르며, 새와 꽃의 복합적 이미지가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추정 가능하다.

우선 두견새와 귤(橘)의 조합이 드러난 작품을 몇 수 살펴보자.

橘の花散る里のほととぎす片恋しつづ鳴く日しそ多き
귤꽃 흩날리는 마을 두견새는 꽃을 짝사랑을 하듯 우는 날이 많은.

11) 유진(柳珍, 1582-1635)의 『수암집(修巖集)』에 수록된 글, 「杜鵑說」 참조.

12) 임성철, 『만엽집(萬葉集)』의 두견새 고(考), 제41집, 『일본문화연구』, 2012, p.485.

我がやどの花橘にほととぎす今こそ鳴かめ友に逢へる時
우리 집 귤꽃 위 두견새는 울고 있겠지. 지금 이렇게 친구와 만날 때.

我がやどの花橘をほととぎす来鳴かず地に散らしてむとか
우리 집 귤꽃을 두견새야, 와서 울지도 않고 땅에 흘날리는 것이냐

妹が見て後も鳴かなむほととぎす花橘を地に散らしつ
네가 본 뒤 울었다면 좋았을텐데, 두견새 울어 귤꽃 땅에 흘날리고 말았네

일본의 경우 과거 귤꽃이 흘날리는 계절에 맞춰 두견새가 도래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 다른 소재 중 하나인 병꽃(卵の花; 우노하나, 우즈키) 역시 만엽집에서 두견새와 잘 어울리는 경물 중 하나이다.

卵の花の咲く月立ちぬほととぎす来鳴きとよめよ含みたりとも
병꽃이 피는 달이 왔으니, 두견새야 얼른 와서 물어주렴. 아직 꽃봉오리 상태이겠지만

卵の花の共にし鳴けばほととぎすいやめづらしも名告り鳴くなへ
병꽃 피고 동시에 우니 두견새는 더욱 사랑스럽네. 이름을 알리듯 울고 있으니

卵の花もいまだ咲かねばほととぎす佐保の山辺に来鳴きとよもす
병꽃이 채 피지 않았건만 두견새는 사호의 산기슭에 와서 울고 있네.

두견새 및 창포(あやめ草) 꽃이 동시에 등장하는 작품도 보인다.

ほととぎす待てど来鳴かずあやめぐさ玉に貫く日をいまだ遠みか
두견새 기다리지만 와서 울지 않네. 창포꽃을 구슬로 꿰 날이 아직 멀어서일까.

ほととぎす厭ふ時なしあやめぐさ縵にせむ日こゆ鳴き渡れ
두견새를 싫어할 때는 없지. 언제 들어도 좋지만 창포꽃 꿰 때 울음소리 들려주기를

ほととぎす今来鳴きそむあやめぐさかづらくまでに離るる日あらめや
두견새는 이제 와 우네. 창포꽃 꿰는 단오까지는 머물다 떠나겠지.

두견새와 등나무(藤)의 소재적 결합은 일본의 ‘하나후다(花札)’에도 등장하고 있을 만큼 전통적으로 매우 자연스럽다.

藤波の茂りは過ぎぬあしひきの山ほととぎすなどか来鳴かぬ
등나무 꽃 흐드러질 시기 지났건만 산두견은 왜 와서 울지 않는가

藤波の散らまく惜しみほととぎす今城の丘を鳴きて越ゆなり
등나무 꽃 흘날림을 아쉬워하며, 두견새는 지금 성의 언덕을 울면서 넘어가는 듯

ほととぎす来鳴きとよもす丘辺なる籐波見には君は来じとや
두견새가 와서 우는 언덕가의 등나무 꽃을 당신은 보러 오지 않겠다는 건가요?

藤波の咲き行く見ればほととぎす鳴くべき時に近付きにけり

등나무 꽃 흐드러진 모습 보면, 지금이야말로 두견새가 울 때 가까워진 듯.

사실 두견에 대한 복합적 이미지는 『만엽집』 이외에 『고금화가집(古今和歌集)』, 『원씨물어(源氏物語)』 등에서도 비슷한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해당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그 지역이 변동됨에 따라 두견새와 두견화의 결속은 상당부분 약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

5. 한·중·일 고전시가 속 두견 이미지 특징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고전시가 속 두견의 이미지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고, 꽃과 새가 동시에 등장할 경우의 이미지의 상호 결합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중국 고전시가, 그 중에서 당시(唐詩) 작품의 경우 촉(蜀) 지역에서 발생한 두우(杜宇) 설화와 두견이 결합하였고, ‘두견새’의 이미지는 피[血]와 한(恨)의 정서로 표출되고 있다. 두견이 ‘피를 토하며 운[啼血]’ 결과가 두견화에 흔적을 남기며 양자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 시조에서는 두견이 배꽃[梨花], 달[月]·밤[夜]이라는 소재가 어우러져 연정과 상사(相思)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두견’은 때로 ‘소쩍새’와 명칭이 혼동되거나, ‘접동새’ 등의 이칭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미지의 주축은 애상(哀傷)과 정한(情恨)에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일본 『만엽집』 수록 고전시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두견(호토토기스)는 초여름 혹은 5월을 상징하는 계절적 요소이며, 귤꽃(橘), 병꽃(卯の花), 창포(菖蒲) 등나무[藤] 등과 자주 결합하여 계절의 도래 및 과거 회상의 역할로 자주 활용되며, 두견새는 귤꽃을 비롯하여 해당 꽃의 잎을 흘뜨리는 존재로 그려진다. 요컨대 중국은 비극적 역사와 결합한 붉은 피, 한국은 배꽃과 결합한 연정(戀情)과 정한(情恨)의 밤, 일본은 초여름의 상징으로 작용하는 두견새와 다양한 꽃의 일대다(一對多) 대응이라는 특징이 보인다.

6. 나오며

본 논문에서는 한·중·일 고전시가 속 두견(杜鵑) 이미지 비교를 시도하였다. 다만, 능력 및 시간적 한계 등으로 한·중·일 삼국의 고전시가라고는 하나 중국의 경우 당시(唐詩),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조선시대의 시조, 일본의 경우 만엽집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당연하게도 불완전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아쉬움이 남는다. 차제에 시대적, 장르적, 지역적 범위를 확장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두견의 이미지 특징에 대해 파악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와 관련한 연구는 계속될 것임을 본 발표문을 빌려 밝히는 바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명말 청초 문인 祁彪佳의 초기시 연구〉

김의정*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본론1 (여행)
 3. 본론2 (교류)
 4. 본론3(풍경)
 5.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고는 명말 청초 문인 기표가(祁彪佳)의 초기시를 대상으로 문학적 특징을 고찰한다. 기표가는 희곡이론가로 널리 알려졌으나, 그의 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특히 18세에서 22세 사이 창작된 44수의 시는 초기 문학적 자취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연구자는 이 시들을 여행시, 교류시, 풍경 및 기타시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여행시는 자연 경물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유적지에 대한 충절 의식을 담고 있다. 교류시는 부친의 인맥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교제와 의례적 성격을 드러낸다. 풍경 및 기타시는 전통적 염정시의 모의와 전원적 서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초기시는 기표가가 문학적 수련을 거쳐가는 과정을 잘 드러내주며 또한 훗날의 충절적 문학세계와 연속되는 사상적 토대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표가 문학세계의 총체적 이해를 넓히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 서론

필자는 명말청초의 문화와 지식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격변기에 남긴 그들의 시와 문장을 통해서 그들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관심을 가진 문인으로는 李漁, 張岱가 있었다. 이들 두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명대와 청대에 걸쳐서 생존하면서 다수 문인들과 같으면서도 다른 행보를 보였고 문화 영역에서 큰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치가 있었다. 이어는 상인 집안의 자제로 인생의 전반기에는 한때 벼슬하여 관리가 되고자 하였으나 명나라의 퇴락 일로에 놓였을 때 관리의 길을 접고 낙향하였다가 전문 작가를 거쳐 출판 상인과 극단 경영자로서 활약하게 된다. 비슷한 시기 명대 중후반 유서 깊은 관리 가문의 출신이었던 장대는 젊은 시절 단순히 관리가 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공부에 회의를 느끼며 역사 집필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다. 뿌리 깊은 紹興 지역 문인으로서 차와 음식, 골동품, 서화예술, 등 당시 발달한 다양한 문화 영역에 다각적으로 조예가 있었던 장대는 잘 알려진 소품문에서 자신만의 감성으로 당시 사회상을 정취있게 그려내어 후대의 주목을 받았다. 장대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필자는 당시 소흥 지역의 문풍 및 문인의식에 한층 더 관심을 가지면서 장대의 지인이었던 명말 희곡가 祁彪佳의 문학에 관심

* 성결대학교, 조교수

을 가지게 되었다. 기표가를 처음 접한 것은 장대의 시 가운데 <寓園> 연작시를 통해서였다. 우원은 기표가의 정원으로 기표가가 자신의 고향으로 낙향한 후 정성껏 돌본 곳이며, 매 공간마다 이름을 짓고 벼들을 불러모아 공간에 따라 경치를 즐기며 시를 남기고 評點과 편집까지 함께 했던 곳이다. 장대의 시집에 보이는 총 49개 공간 49수의 시를 통해 우원 공간, 나아가 기표가의 미의식을 상상하면서 나아가 기표가의 문학세계 전모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다.¹⁾

祁彪佳(1603-1645)는 山陰 출신으로 명말 사람이다. 40 초반의 나이에 명나라가 멸망하자 자결로 생을 마감한 충절과 절의의 표상이 되는 인물이다. 앞서 살펴본 이어, 장대의 경우는 이어는 애초에 벼슬에 회의를 품고 스스로 상인으로 거듭났으며 장대의 경우는 은일과 충절의 기상을 품었으나 후반생은 자결을 선택하지 않고 역사기록자로 남아 당시를 증언하기로 했기에 삶의 행보가 달랐다. 또한 기표가가 젊은 나이에 진사가 되어 마지막 까지 조정의 관직을 지냈기 때문에 공적 책임감 또한 기표가의 경우 훨씬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다.

기표가의 문학세계에서 가장 가치있게 평가되고 많이 알려진 것은 회곡분야이다. 그가 남긴 『遠山堂曲品·劇品』은 회곡이론서로 당시 수준 높고 정밀한 회곡 비평의 세계를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또한 정치가이자 덕망 높은 관리로서 재난의 시기에 백성들의 빈곤 구제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이에 대해 꾸준히 상서를 올렸는데 이러한 문장에서도 관리로서의 지향점과 높은 도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및 한국에서 기표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회곡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시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대만에서는 曹淑娟의 『祁彪佳與寓山園林論述』²⁾가 나와 소흥 문인 기표가가 자신만의 정원 ‘우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추적하여 참여인원과 문집 형성의 의미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祁彪佳詩詞編年箋校』(이하 『箋校』라 칭함)³⁾에서는 그가 남긴 시편들을 기표가 부친 및 기표가 본인의 일기, 기타 시편, 지인과의 교류, 지명 등을 토대로 창작시기를 고찰하여 시문 繫年을 편성하였다.

필자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표가 『箋校』에 수록된 기표가 시의 총 숫자는 500여수에 달하며 각 시마다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청년시기는 습작기적 특징과 더불어 청년의 포부 등이 드러나며 관직에 부임한 이후에는 조정의 관료로서의 고민이 부각된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10년을 고향에 돌아와 우원을 가꾸며 지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 부패하고 무능한 조정에서 양심을 가진 지식인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결국 자기 삶을 돌보는 것으로 귀결되었으므로 어쩌보면 소극적포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표가는 자신만의 쾌락에 탐닉하지 않고 이 기간 중에도 백성들을 위해 재난 구제책 등을 내놓으며 지식인의 책무를 다하였다. 명조는 1600년대 이후 이미 퇴락의 기운이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패한 정권에서 바른 지향점을 가지고 소신 있는 관료로 남는 일이 쉽지 않았다. 낙향후 우원을 계획하면서 하나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갈 때마다 새롭게 자연경관을 개조하고 그때마다 느끼는 삶의 희열과 자연미에 대한 감탄을 시를 통해 보여주었다. 이 시기가 그의 삶에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있는 시기였고 남겨진 시문에서도 경관에 대한 감탄과 생의 희열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 논문에서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기표가의 초기시로서 계년에 따르면 18세에서 22세까지 4년간의 기간에 해당된다. 남겨진 작품은 44수여서 전체 시의 규모에 비해 적은 숫자이나 훗날 그의 행보, 기표가의 성품, 삶의 지향점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1) 寓園 공간에 붙여진 張岱의 시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문 참조 <祁彪佳의 정원을 주제로 한 張岱의 寓園詩>, 외국학연구 71호, 2025.

2) 2006, 台北, 里仁書局.

3)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16.

이 시기의 시들은 기본적으로 시험을 치르기 위해 북경으로 이동중이거나 혹은 관직 제수 후에 실제 부임하러 가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중에 지어진 것이어서 대체로 길 위에서 이동중에 지은 것들이다. 따라서 여행시로 분류한 것이 절반이 넘는 26수를 차지 한다. 그밖에 교류 목적의 시가 9수이고, 풍경 및 기타로 구분한 것이 11수이다. 차례대로 살펴본다.

2. 본론1 (여행)

기표가의 초기시 44수는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기 위한 준비기간에 지은 약간의 시와 더불어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북경으로 떠나며 그 연도에서 지은 것들과 합격후 실제 관직을 제수 받기까지 시일이 길어져 이를 고향에서 기다리기 위해 다시 돌아와서 지은 시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많은 작품들이 길 위에서 여행 중에 지어졌기 때문에 여행시로 분류한 것들이 가장 많다. 이 가운데 순수하게 여행중의 풍경과 감각을 노래한 것이 가장 많으며 그 이외에는 유적지를 지나며 고인에 대해 찬탄과 애도의 뜻을 표한 것들이 있고 혹은 여행 중에 지인을 만나 반가움을 표현한 것들이 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살펴본다.

(1) 여행 중 풍경과 감회

여행 중 풍경을 노래한 시들은 5. 24. 25. 26. 27. 31. 32. 33. 34. 38. 41. 44이다.⁴⁾ <부록참조> 『箋校』의 연구에 따르면 기표가가 일생동안 북경으로 여행한 것이 총 여섯 번이며 이 작품은 1623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 북경으로 가는 길에 양자강을 건너며 쓴 것으로 보았다. 이 때는 이미 과거시험에 합격한 이후 실제 관직에 부임하기 전에 대기 하는 시일이 길어져서 그동안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관직을 임명받기 위해 상경하는 중이었다. 멀리까지 이어진 거침없는 장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장관에 감탄하는 한편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미 떠나온 고향땅으로 향하는 마음을 달래고 있다.

24. 望揚子江 양자강을 바라보며

極目窮天際, 하늘끝까지 멀리 바라보니
孤雲落古汀. 외론 구름이 옛 물가로 떨어지네(내려앉았네)
鴈蘆隨岸闊, 기러기와 갈대있는 양자강은 언덕 따라 드넓고
漁浦隔江腥. 고기잡는 포구가 강너머로 비릿하다
波合天沉影, 파도가 모이는 곳에 하늘이 그림자지고
潮迴山換青. 조숫물 밀려나가니 산은 푸르게 바뀌었네
為思今夜夢, 그리움 때문에 오늘밤 꿈에는
幾度到滄溟. 몇 번이나 먼 바다로 가게 될까?

이와 같이 초기 시에는 여도에서 보이는 낯설고 새로운 풍경에 감탄하며 여행자의 시선으로 풍경을 묘사한 것들이 많다. 풍경의 새로움을 표현한 것으로는 이밖에도 25, 26와 같은 시에서도 잘 드러난다.

26. 晚行六合道中 저녁에 육합으로 가는 도중에

秋風入戶涼, 가을 바람이 방에 차갑게 부는데
晚起促征裝. 늦게 출발하여 채비를 재촉하네

4) 일련 번호는 필자의 정리 및 독자의 편의를 위해 붙였으며 부록에 시의 제목과 함께 정리하였다.

平野雲燒日, 평야에 구름은 해에 불타고
 空山月洗霜. 텅빈 산에 달은 서리에 씻기었네
 蒨紅鷹擊疾, 새매가 빠르게 공격하는 여궤는 붉다
 蘆白鴈啣長. 기러기가 길게 물고가는 갈대잎은 희다
 鑑曲故鄉遠, 한 굽이 호수가 있는 고향땅은 멀리에 있으니
 蒹葭水一方. 갈대 우거진 물 저편에

전반적으로 새롭게 감각적인 풍경묘사. 확실히 감성적인 시인에게 멀리 여행하는 경험은 새로운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전에 없던 실제 체험에 기반한 묘사를 확인해볼수 있다. 첫 두구는 실제에 기반, 늦은 출발을 묘사. 3,4구의 공간묘사는 넓은 경관을 포착하여 시인의 포부와 기상을 확인케 한다. 마지막 2구는 벌써 그리워지는 고향 땅을 떠올리고 있는데 시경 시의 <蒹葭>를 여기에 따와서, 애정시를 고향생각으로 변모시킨 것이 신선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새로운 감각이 주도적인 가운데 섬세한 시인의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들도 눈에 띈다. 34와 41을 그 대표적 예로 들수 있다. 이러한 섬세함은 청년기 시인으로서 습작기를 벗어나지 않은 시절의 특수성인지, 혹은 시인 특유의 감성인지는 후기 시까지 살펴보아야 알수 있을 것이다.

34. 晚行須句⁵⁾道中 저녁에 수구로 가는 길에서
 日落山空翠, 해는 지고 산은 텅비고 푸르다
 遙遙數里昏. 멀리 몇 리까지 어둠이 끼어있다
 荊榛耘瘦土⁶⁾, 가시나무 개암나무뿐인 수척한 토양에 김을 매고
 燈火散煙村. 등불이 안개낀 촌락에 흩어져있네
 促夢霜鷄澀, 꿈을 부추기는 서리 어린 닭울음 요란하고
 留人菊酒溫. 사람을 만류하는 국화주는 따스하네
 樹頭秋籟寂, 가지 끝에 가을 소리 고요하고
 涼月一窓痕. 차가운 달이 창 가득 흔적을 남기네

한편 여행길에서 감회와 더불어 숙연함을 표현한 시들도 보이는데 31, 45와 같은 작품이다. 당시 갓 관직에 부임하게 된 젊은 청년이었으나 관리로서의 책임감을 느꼈고 동시에 당시 명나라 사회가 지역마다 빈곤, 반란 등의 사회적 참상을 드러내고 있어서 이러한 모습을 지나치지 않고 시에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31. 雨泊潤州⁷⁾ 비가 와서 윤주에 정박하며
 一舟方坐雨, 배 하나가 방금 비를 만났는데
 街鼓忽殘更. 거리의 북소리는 문득 저녁을 알리네
 夜靜鼉磯浪, 밤은 타기의 파도에 고요하고
 江浮鐵甕城⁸⁾ 강물 위에 철옹성이 임해있네
 蘆聲連浦去, 갈피리 소리 포구로 이어져가고

5) 須句: 당나라 때 須城縣, 지금의 산둥성 梁山縣

6) 瘦土: 척박한 토양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7) 潤州: 鎮江의 옛이름

8) 鐵甕城: 철옹성. 京口 지역을 말한다.

人語隔潮生. 사람 말소리는 조숫물 건너 들려오네
 弔古發深慨, 옛일을 조문하며 깊은 감개를 느끼니
 予懷未肯平. 내 마음은 아직 평정되지 않는구나

(2) 애도와 유적

관직에 부임하기까지 이루어진 기표가의 여행은 청년기의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이기도 했지만 관리가 되어 지식인으로서 꿈꿔온 것을 펼치기 위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여정이기도 했다. 이에 여행 중간에 만나게 되는 고대의 문화 유적지나 옛 인물 앞에서 애도와 더불어 숙연한 감개를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작품으로는 3, 4, 28, 29, 30등이 있다. 이 가운데 3, 29를 살펴보자.

過關山謁關聖 <관산을 지나며 관성에 배알하다>
 雲蒸海氣暝, 구름 자욱하고 바다 기운 어두우며
 山勢壓吳庭. 산세는 오나라 뜰을 누르네
 網殿神猶怒, 붉은 전각에서 신은 아직도 노여워하고
 金刀血尙腥. 금빛 칼에 피는 아직도 비릿하나
 危崖懸日月, 높은 절벽에 해와 달이 걸렸고
 絕嶂起雷霆. 깎아지른 산에 천둥 번개가 친다
 渺爾書生過, 보잘 것 없는 한 서생이 지나가며
 虔誠薦帝馨. 정성스런 마음으로 관우께 예물을 바치네

기표가는 省試를 마치고 북경으로 가서 다시 시험을 치렀다. 만력 16년 8월에 省試를 치르고 급히 會試를 보러가려 했다. 나이 어린 기표가가 추위를 이기지 못할까 걱정되어 부친은 아들과 함께 도성길에 올랐다. 이 시기에 부친 기승업 또한 같은 제목의 시가 있다. 만력 17년 정월 초나흘에 지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제목의 7언시가 1수 더 있다. 그만큼 이번 여행길에서 이 유적지의 의미가 소년 기표가에게 중요한 문화상징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명말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발달한 상업경제에 힘입어 새로운 생각이 약동하고 과거의 권위가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적 실험, 취미와 감각의 세계가 지식인들의 세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조류에서 기표가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다만 연구에 따르면 전체 강남 문화에서 더욱 선진적이었던 오중, 소주 지역에 비해 소흥 지역은 상업화로의 발전이 비교적 늦었으며 과거의 문화 전통을 존중하고 지키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러한 옛 문물에 대한 보존의 태도가 초기 시에도 드러난다고 생각된다.

한편 29(過桃山岳廟)시는 송대 抗金の 상징이었던 岳飛의 사당을 지나며 그의 정신을 기린 것이다.

(3) 여행 중 교류

여행 중에 지어진 작품들은 연도에서 바라본 풍경과 감회가 가장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이동 도중에 만나게 된 지인들에게 보낸 교류의 시편 또한 적지 않았다. 이러한 시들은 일견 의례적 교류시의 차원을 넘어 이행이라는 특수상황이 작용하여 진지한 감정이 표현되어 있고 한편으로 당시 기표가가 접촉했던 인물들과 그에 대한 태도 등을 알수 있어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러한 작품으로는 모두 7수로 35,36,37,39,40,42,43가 해당된다.

이 가운데 42, 43 연작시는 여행중 교류시로 편입하였지만 사실상 국가의 관리가 되어 왕실의 공적 행사에 시를 지어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목을 보면 <孟冬/再月望後一日/皇子誕生/頒詔9)/仲冬朔日/上親祀南壇/追述合賦/時行次高唐¹⁰⁾>초겨울에 다시 보람이 지난 다음날, 황태자께서 탄생하시

어 나라에 소식이 알려졌다. 한겨울(겨울의 두 번째 달) 그믐날에 주상께서 친히 남단에 제사지내시어 이를 추술하여 함께 노래한다.- 이때 고당에 머물렀다.> 라고 되어 있고 시의 내용도 개인 서정이 아닌 국가의 의례를 칭송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본론2(교류)

이번에는 초기시에 나타난 교류 양상을 살펴보자. 교류시로 분류한 시들은 모두 9수로 1,2,10,11, 19, 20,21,22, 23이다. 모두 초기 시 가운데서도 더 이른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아직 과거시험 합격 이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습작시의 성격이 농후하며 조금 뒤에 지어질, 과거시험 합격 이후 북경에서 알게 된 직접적 지인과는 달리 부친의 시를 모방하여 따라 쓰거나 혹은 의례적 교류 행위에서 지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1을 보자.

<1.擬送陳四遊¹¹⁾賁詔¹²⁾南直江西진사유가 조서를 받고 남직예강서로 가는 것을 전송하는 시를 모방하여>

曉雲闕下紫泥香, 새벽 구름 대궐아래 붉은 진흙 향기롭고
 命出丹墀布萬方. 어명이 대궐 섬돌나서니 만방에 퍼지네
 丹詔數行新雨露, 붉은 조서 몇 줄에 새로 우로가 내려
 紅亭一道舊冠裳. 이별의 붉은 정자가 있는 길을 옛 옷을 입고 가네
 使星¹³⁾霞擁鐘山色, 별과 노을로 하여금 종산의 빛을 지키게 하고
 旭日煙浮劍水¹⁴⁾光. 붉은 태양에 연무가 끼어
 客路去天方尺五, 객이 가는 길은 하늘에서 불화 5척이니
 登樓應笑海濤長. 누대 올라 분명 바닷물이 길다 웃겠네

이 시는 기표가의 직접적 지인이 아닌, 아버지의 지인으로 아버지가 멀리가는 지인에게 보내는 시를 쓴 것을 보고 모방하여 따라 쓴 것으로 보인다. 부친 기승업은 당시 남경에서 병부주사를 역임중이었다. 아들 기표가의 시를 함께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시작행위는 향후 의례적 모임과 교류에서 지속적으로 짓게 될 공무 수행 성격의 글쓰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교류 관계를 넓혀 장차 관직 생활에서 정보를 얻고 인맥을 쌓는 형식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10.賀彭讓¹⁵⁾木考績>과 같은 경우도 팽양목이라는 분의 업무 성과 보고를 축하하는 내용이다.

4. 본론3(풍경 및 기타)

이제 순수 풍경을 묘사한 작품들을 살펴보겠다. 이러한 시편은 11수로 분류하였는데 6, 7, 8, 9, 17, 18 및 擬古艷詩 5편이다. 이러한 여행에서 지어진 풍경시를 제외하고 고향에 정착한 와중에 지은 일련의 풍경시들은 초기시로서 기표가의 섬세한 감성과 장식적이고 화려한 표현들이 돋보인다.

9) 領詔文: 예전에,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금이 백성에게 널리 알리던 조서

10) 高唐: 高唐縣. 지금 산둥 聊城

11) 陳四遊: 陳一元. 자는 泰始. 侯官사람. 1601년에 진사가 되었으므로 기표가에게는 아버지 연배이다.

12) 賁詔是古代汉语词汇, 意为“持捧诏书”, 特指官员奉皇帝命令携带或传递诏书的行为

13) 使星: 天節八星 고대인은 천절팔성이 사신의 일을 주관한다고 여겨. 제왕의 사자를 “使星” 또는 “星使”라고 함.

14) 劍水: 호구산의 검지劍池를 의미

15) 賀彭讓: 彭汝楠

<8. 春日鶯聲 봄날 피꼬리 소리>

春到鶯聲換, 봄이 이르니 피꼬리 소리도 바뀌고
 聽之臨竹岸. 그 소리 듣다가 대나무 기슭으로 갔네
 柳魂帶雨飛, 버드나무의 영혼에 비 뿌려 날아가고
 花影隨烟散. 꽃 그림자는 연기 따라 흩어지네
 解語夢偏長, 말을 아는 두견화의 꿈은 유독 길고
 懷人啼欲斷. 사람을 그리워하니 울음소리 끊길듯 하구나
 唧¹⁶春春事忙, 봄을 그리워해도 봄날에 일은 바쁘네
 欲去聲猶半. 떠나가려 해도 그 소리 아직 반이나 남았네

제목에서도 피꼬리 소리라고 하여 전편이 봄의 아름다움과 몽환적인 분위기를 전하는 가운데 피꼬리 울음소리를 다각적으로 묘사하여 세밀한 수사 기교를 끝까지 추구하였다. 만당 시기 유희주의 시풍에 근접하게 보이며 선이 굵은 우국지사의 거칠고 격정적인 기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한편, 옛 艷詩를 모의한 작품은 1622년 과거시험 합격 이후로 추정되며 5수의 연작시로 되어있다. 제 1수와 제 5수를 예로 들어본다.

其一

小鬟初嫁展妝臺, 동그랗게 맨 머리 막 시집와서 화장대에 자태를 뽐내는데
 半摺榴裙窄樣裁. 반쯤 접은 석류 치마는 드문 양식으로 마름질 했네
 猶恐菱花照不盡, 그래도 두려운 것은 마름 꽃 그려진 거울이 다 비춰주지 못할까 봐서
 玉釵乍插轉徘徊. 옥비녀를 살짝 꽂고는 바로 배회하네

其五

盡日飛花春醉餘, 온종일 꽃비가 날리고 봄날에 흠뻑 취하는데
 東風寂寂鎖離居. 동풍은 고요하고 떨어져 사는 이를 가두었네
 美人一賦琴臺夜, 미인은 한번 금대의 밤을 노래 부르니
 悶煞當年女校書. 당년의 여교서를 수심짓게 하네

이러한 시들은 옛 염정시를 모의하여 지었다고 되어있다. 시 내용을 보면 기녀와의 이별, 기녀들이 느낀 끝만한 이별의 슬픔 등을 다루고 있다. 과거시험에 합격한 직후 연회의 장소에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한편으로 아직 신희이었던 기표가가 자신의 아내¹⁷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옛 염정시의 형식으로 그리움을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기표가의 이후 시작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16) 唧(재갈 함; 口-총11획; hān) 머금다 衡의 俗字

17) 기표가의 아내는 商景蘭으로 명말 청초 시기를 살며 주요한 여성 시인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명조 멸망과 함께 자살을 택한 기표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남아서 딸들과 집안을 이끌고 많은 애도시를 남겼다.

百回本《西遊記》「續補後置」說考辨

——從「隱霧山」故事談起

謝明勳*

<目次>

【摘要】

1. 引言
 2. 問題緣起及兩個轉變
 3. 四個條件限制
 4. 兩件無法扣合之事
 5. 結語
- 參考文獻（詳注文所示）

【摘要】

大陸學者侯會嘗針對《西遊記》一書，提出「續補前置」觀點，本文承上述說法，提出「續補後置」觀點。此二說皆是在於證明：明代世德堂刊印之百回本《西遊記》，應是編輯者在某一「舊本」的基礎之上，因受限於書中已然設定之「書寫條件」，包括：時間、距離、劫難數、回目數，為滿足各項條件限制，而所採取的新增續補之作，終成今日所見的百卷之帙。

本文從三個面向進行觀察，一是取經團隊之行進速度轉變，二是心境態度轉變，三是兩件無法前後扣合之事：憑空消失的犀角、說法不一的章印，證明自「隱霧山」故事以降，發生於天竺國境內之五個單元故事，係自成一系，應是屬於「續補後置」的小說文本。

*（臺灣）國立中正大學中文系 教授

1. 引言

大陸學者侯會嘗針對百回本《西遊記》一書，提出「續補前置」觀點，謝明勳又對此說提出增補與訂正¹，本文在上述說法之上，持續提出「續補後置」觀點。上述二種說法皆是在於證明：明代世德堂刊印之百回本《西遊記》（簡稱世本），應是世本作者²在某一「舊本」的基礎之上，因受限於書中設定之書寫條件限制，採取新增續補之法，終成今日所見的百卷之帙。眾所周知，西遊故事源遠流長，現今傳世之《朴通事諺解》、《永樂大典》所載之《西遊記（評話）》的部分內容，皆可在世本之中覓得可以與之相互參照的故事，承衍之跡甚明。過去已有許多前輩學者曾提及此一問題，認為其事極有可能是「古本」《西遊記》的一部分。³所謂舊本或古本《西遊記》，今皆已不復見存，然通過世本之行文敘述所留下的蛛絲馬跡，當可徵驗今所及見者，確有若干單元故事與通書前後敘事的文理脈絡、行文風格，出現明顯扞格，這些極有可能都是後來新添加入。續補後置說係通過隱霧山故事文末，一名當地樵夫對於唐僧所說一段有關路程遠近的話語切入，檢視自此以降迨至大雷音寺拜見佛祖之前，存在於故事中多個令人費解之疑點：一是取經團隊之「行進速度」驟然轉變；二是取經團隊之「行事風格」出現前後差異；三是甫出現不久之「事物」莫名消失。據此推測，此一部份應是後來新增添加。至若其所以採取「續補」方式出現的可能原因，應是受限於作者於書中所設下之數個條件限制所致，包括：時間、距離、劫難數、回目數等。試就上述所言，詳論如下。

2. 問題緣起及兩個轉變

關於續補後置問題，係出自隱霧山故事中一段不甚引人關注的文字。當該單元故事接近尾聲，一名不知名姓的樵夫向唐僧說明，其後所將面對的未知前途：「這條大路向西方不滿千里，就是天竺國極樂之鄉也。」（第86回/頁2215）這段關乎路程遠近的訊息，係由熟悉當地環境的民眾提供，其內容應當不會有誤。這對於自「貞觀十三年秋」便從大唐都城長安出發，歷經千辛萬苦之唐僧而言，必定會產生莫大的鼓勵作用。因此時距離取經團隊辛苦追尋之靈山，已從原本不知終底於何的無限迷茫，驀然知曉就在前方不遠之處。然接續下來之數個單元故事的內容，卻出現與前述各事迥然或異的詭異狀況。

（一）行進速度轉變

依照取經五聖過去之行進速度進行推估，此段不滿千里的路程，相信很快就可以順利走完。⁴孰料，後續這段路程，世本竟出乎眾人意料之外，密集安排五個單元故事：鳳仙郡（第87回）、玉華州（第88～90回）、金平府（第91～92回）、天竺國（第93～95回）、銅臺府（第96～97回）。值得人們注意的是，上述五事皆是發生於天竺國轄下（含外郡：鳳仙郡），對於《西遊記》一向採取「一國（地）一事」的講述方式，上述「一國多事」模式實顯得極為特殊。然若將其視為「同一國度」之不同行政區域的考驗，單就地域而言，誠可謂是自成一系；如再加上凌雲渡故事（第98回）⁵，則世本在西遊故事接近尾聲，竟以十二回的文字篇幅，連續講述六個單元故事的舉措，就會顯得十分弔詭。

另有一事令人費解，因此數事所花費之「時間」與行走之「距離」，相較過往取經團隊每年大約面對兩個劫難的發生頻率⁶，完全不符，這是兩種截然不同的行進狀態。以下，試將隱霧山故事之後各事

¹ 詳見謝明勳：〈百回本《西遊記》「續補前置」說考辨：以「平頂山」故事為中心考察〉（2024年度韓國中語中文學秋季聯合學術大會，2024.11）一文所論。

² 見（明）世德堂《新刻出像官板大字西遊記》（上海：上海古籍出版社，《古本小說集成》，1994），本文凡徵引此書者，還標回數、頁碼。又，本文所言之作者係屬一般性說法，竊以為當以編輯者一詞更為貼切，姑從眾。

³ 程毅中對《西遊記》的流傳過程做出推測，認為：「（世本）還保存著一些舊本《西遊記》的痕跡，從它刪改未盡的某些殘文看，似乎還傳承自永樂五年以前的古本。」（《明代小說叢稿》：北京，人民文學出版社，2006，頁161）石昌渝認為《朴通事諺解》不是高麗時代（大約在元末）的文本，「根據它做出《西遊記》至遲在元末就已經成熟，就已經相當接近百回本的結論。」（〈《朴通事諺解》與《西遊記》形成史問題〉，《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30卷第3期，2007.05）石氏之說通過敬天寺石塔「西遊故事」浮雕與「塔記銘文」所載年代，應可證明在元末已有一部與之相近之古本《西遊記》存在。見謝明勳《西遊記考論：從域外文獻到文本詮釋》（臺北，里仁書局，2015，頁74～77）所論。

⁴ 《西遊記》一書極少提及行進速度，然在黑風山故事中，唐僧曾言：「出長安邊界，有五千餘里。過兩界山，收了一眾小徒，一路來，行過西番哈叭國，經兩個月，又有五、六千里，才到了貴處。」（第16回/頁319）此時已走萬里之遙。此一時期之行進速度，兩個月的時間約可走五、六千里路程，據此進行推估，則一個月約可走三千里；若此，則一日約可行百里。依照此一速度，取經團隊在離開隱霧山後，大約十日必可順利抵達天竺國極樂之鄉。

⁵ 詳見謝明勳〈百回本《西遊記》「凌雲渡」故事析論〉（《中國文化研究》第43輯，頁173～187，2019.02）所論。

⁶ 取經團隊在西行取經的過程中，每年所遇劫難，除少數是1個（如「貞觀13年」之蛇盤山故事）及4個劫難（如「貞觀22

所言之四時時間，逐一標示，以見其事之真實景況：

△滅法國：「不覺夏時，正值那薰風初動，梅雨絲絲。」（第84回/頁2137）——貞觀26年

△鳳仙郡：「行經數日，忽見一座城池相近。」（第87回/頁2216）

△玉華縣：「又值深秋。」（第88回/頁2238）

△金平府：「今日乃正月十三，到晚就試燈，後日十五上元。」（第91回/頁2313）——貞觀27年

△天竺國：「行有半箇多月。」（第93回/頁2360）

△銅臺府：「春盡夏初。」（寇家莊。第96回/頁2429）

△凌雲渡：「又經有六、七日。」（第98回/頁2482）

上述各回所提及關乎四季、月份的文字陳說，清楚標示該事發生之時間竟不足一年，相對先前各年之平均數字，此一階段之敘事密度明顯偏高⁷；其次，徵諸先前取經團隊的行進速度，這段不滿千里之路竟然不可思議的走上一時間，顯然不符常理。此一略顯突兀之「系列故事」講述，應是受限於某種特定的書寫條件限制所致。

除此之外，自隱霧山故事之後，數個單元故事所言之距離天竺、靈山「路程遠近」的文字記述，更是出現「忽前忽後」的奇怪現象。試將相關文字謄錄如下，以見一般：

△西行不滿千里，就是天竺國極樂之鄉。（第86回/頁1528）

△到都下有二千里……（靈山）不知還有多少路？（第91回/頁1593）⁸

△到天竺都下有二千里。（第93回/頁1623）⁹

△九節七、八分了。（第94回/頁1644）¹⁰

△此間到靈山，只有八百里路。（第96回/頁1674）¹¹

關於這段路程的行進速度，相對之前確實走得異常緩慢。然其事卻有可供商榷的空間，亦即存在於「都下」與「靈山」這兩個不同名詞之間的灰色地帶，究竟應當如何理解。試引錄相關文字如下：

△此間到都下有二千里，這是我等走過的。西去到靈山，我們未走，不知還有多少路，不敢妄對。（慈雲寺眾僧語，第91回/頁1593）

△此間到靈山，只有八百里路，苦不遠也。（寇員外語，第96回/頁1674）

先此之前，隱霧山之樵夫所言，係指「天竺國極樂之鄉」，而慈雲寺眾僧所言，則是清楚點出「都下」與「靈山」，係分屬兩種不同概念。此二者雖同屬天竺國，然地理位置卻是迥然不同，作者所言之距離多寡，因目的地不同，意義上便有所不同。¹²姑且不論地點上的差異，前述所言之行進速度與距離變化，實則並未因此而有所改變。縱令此二地確有一定距離，然以取經團隊之行進速度，絕不可能走上一時間方才抵達靈山。¹³這就讓隱霧山之後接連出現之數個單元故事何以存在的理由，引起讀者關注。

（二）心境態度轉變

其次，則是取經團隊在解決鳳仙郡因乾旱祈雨之事，暫告一個段落之後，竟接受郡侯買地建祠之請，並在當地「扳留將有半月」，期間大方接受四方信眾的熱情款待。這應當就是廣目天王所言：「因你欲為人師，所以惹出這一窩獅子來」（第90回/頁1584）的先聲；及四值功曹所言：「你師父寬了禪性，

年」，包括：解陽山、六耳獼猴、火燄山、祭賽國等）之外，其餘各年大約都是以每年2至3個的常態頻率進行，如：「貞觀18年」（烏雞國、號山枯松澗、黑水河）、「貞觀19年」（車遲國、通天河）、「貞觀23年」（荊棘嶺、小雷音寺）、「貞觀24年」（稀柿街、朱紫國）、「貞觀25年」（盤絲洞、獅駝國、比丘國）、「貞觀26年」（陷空山無底洞、滅法國）等皆是。「貞觀14年」較為特殊，至少發生5個劫難（黑風山、高老莊、黃風嶺、流沙河、四聖試禪心等），蓋肇因於必須儘速組成「取經團隊」的因素。詳見謝明勳〈關於《西遊記》「取經時間」的兩個問題〉（《中語中文學》第75輯，頁53～83，2019.03）一文所論。

⁷ 楊義《中國敘事學》（嘉義，南華管理學院，1998年6月）「時間篇」「歷史時間與敘事時間」一目（頁156～159），曾經針對《三國演義》一書之敘述時間做出說明，其中對於「赤壁」一事之時間跨度與其所佔之文字篇幅，相較於其他不同事件，誠可謂是重彩濃墨。這對於人物、事件繁多之《三國演義》而言，比重不均的現象或許並不足為奇，然對於《西遊記》一書相對單純之人事，所歷之取經時間僅有十四年，其在時間分配上理應更為合理平均。

⁸ 此二說所言之距離，顯然出現歧異，不甚密合。因取經僧眾係一路往西，理當不可能越走越遠。

⁹ 此說同樣亦是言二千里，其與金平府之說全然相同；然自隱霧山故事之後，取經團隊歷經鳳仙郡、玉華縣、金平府三事，相去之距離卻是不近反遠，此點完全不合情理。

¹⁰ 若是以十萬八千里進行估算，則此時相去靈山，應剩約二、三千里之遙，此時距離前者，反而是越來越遠。

¹¹ 此時相去靈山只剩八百里，若此說為真，則先前四個單元故事所走之路程，僅前行約二百里。

¹² 此一情況於《詩話》中已然出現，所謂「天竺」與「雞足山」二詞，分屬兩個不同概念，世本「都下」與「靈山」之說，或有可能與此一說法相關。

¹³ 詳見謝明勳〈整體與單元：百回本《西遊記》敘事矛盾現象因由蠡測〉（《成大中文學報》第87期，2024.12）一文。

在於金平府慈雲寺貪權，所以泰極生否，樂盛成悲，今被妖邪捕獲」（第91回/頁1598）之主要關鍵。此種情況於天竺國亦同樣發生，當降妖工作完成之後，國王召集畫師「圖下聖僧四眾喜容，供養在華夷樓上。……大設佳宴，一連吃了五、六日。」（第95回/頁1668）此時取經僧眾對於身外名聲與物慾飲食的態度，確與先前諸多單元故事所述，凡事皆以取經事業為重，行色匆匆的趕路之狀，明顯不同。¹⁴

再者，這段期間，唐僧屢屢提及其自離開東土之後，已經歷時14年，諸如：「貧僧在路已經過一十四徧寒暑矣」（第88回/頁1550）、「貞觀十三年，今已歷過十四載」（第93回/頁1629）。根據推估，第88回「又值深秋」之時間為貞觀26年，第93回則是進入隔年春天之貞觀27年，然此二事卻是同言14載。嚴格說來，均尚有所不足。此種以不足言有餘之情況，不禁讓人對於唐僧究竟費時幾何，感到莫名質疑。唯一的合理解釋，應是作者將發生於天竺國境內之事，率皆視為一體，並以約略之詞泛言其事，故而出現此數事在時間陳說未甚精確的狀況。這顯然已經不是侯會「續補前置」可以順利解答，因此數事極有可能是同屬一系的續補之作，只不過世本作者卻是以「後置」的方式呈現，用以補足書中悄然設定，且是不容更易之各項條件限制。

3. 四個條件限制

在隱霧山故事之後，如果剩下的路程確如樵夫所言「不足千里」，依照過去取經僧眾之行進速度，倘若此時直接進入第98回凌雲渡故事之講述，相信一點也不會讓人心生疑竇。然世本所採取的處理方式，顯然並非如此，其中必有某種特定因素存在，使得作者做出不一樣的另類選擇。

（一）前有所本

值得注意的是，言述「天竺」與「靈山」兩地有別，在《大唐三藏取經詩話》（簡稱《詩話》）「入竺國度海之處第十五」中便已經出現，書中通過猴行者說道：「我師不知，來時方昨日，今已過三年，此是西天竺國也；近雞足山。」¹⁵《詩話》一書所言之取經時間為三年，而抵達「天竺國」與佛祖所在之「雞足山」，二者仍舊存有相當距離。根據福仙寺寺主的說法：「此去溪千里，過溪至山五百餘里。溪水番浪，波瀾萬重。山頂一門，乃是佛居之所。……除是法師會飛，方能到彼。」¹⁶面對如是嚴峻之地理情況，對於意欲拜佛取經者而言，確實必須預先做好心理準備。至若後續故事之陳說，《詩話》顯然是採取簡略其事的方式進行，因唐僧並非是以親履其地的方式前行，而是通過向雞足山焚香禱祝，神奇快速的獲取經書。這些明顯存在的差異，應是世本作者受到後來新增之條件限制的影響所致。

根據上述所言可知，所謂之「天竺」並不同「靈山」的概念，早在《詩話》便已經出現，且此二地相去兩千餘里，亦是有所承而來。這個說法應當可以適時調處隱霧山故事中之樵夫所言，與其後各事出現之不同說詞。此一說法雖可解決有關距離的部分疑點，然卻不足以改變上述「行進速度」、「心境態度」轉變的根本事實，因存在於前後不同故事之間的巨大變易，顯然並微距離差異就能輕易改變。

（二）後有所增

如前所述，世本對於此一部份的講述，極有可能是承自《詩話》而來，然並非一味襲用，而是對於後續故事的發展多有增益。簡言之，世本對於取經團隊進入天竺國轄境之後的陳說，係採取增深、加長的方式進行處理。細究其所新增之數個單元故事，都與世本作者對於通書之各項設定，緊密相關。作者必須慎重考慮，後續之故事發展是否能夠與該書設定之四個條件前後呼應，包括：距離：十萬八千里之路程；時間：14年（5048日）之聖數時間；劫難：81難之劫數考驗；回數：一百回之篇幅數目。此一部份，誠可謂是該書不容輕易撼動之設定，作者若是在隱霧山之後，一如《詩話》進行收束，立即進行拜

¹⁴ 烏雞國故事載云：「那師徒們，安了邦國，不肯久停，欲辭王駕投西。那皇帝與三宮妃后、太子、諸臣，將鎮國的寶貝、金銀緞帛，獻與師父酬恩。那三藏分毫不受，只是倒換關文，催悟空等背馬早行。」（第40回/頁994）在西梁女國故事中，女王以「碎金碎銀一盤」權充路費，行者回以「出家人不受金銀，途中自有乞化之處。」又以「綾錦十疋」相贈，行者回以「出家人穿不得綾錦，自有護體布衣。」最後只取「御米三升，在路權為一飯。」（第54回/頁1385~1386）在朱紫國故事中，唐僧師徒接受國王酬謝，宴飲之際，唐僧說道：「今蒙盛宴，至矣，至矣。就此拜別，不要誤貧僧向西去也。」（第71回/頁1823）旋即便換了關文，相送而別。在比丘國故事中，則是較為奇特，「這家也開宴，那家也設席。請不及的，或做僧帽、僧鞋、襦衫、布襪，裡裡外外，大小衣裳，都來相送。如此盤桓，將有個月，才得離城。又有傳下影神，立起牌位，頂禮焚香供養。」（第79回/頁2034）此與該國有千百名小兒獲救，各家父母感念回報，可謂特例。

¹⁵ 見李時人、蔡鏡浩校注《大唐三藏取經詩話校注》（北京：中華書局，1997），頁39。

¹⁶ 見李時人、蔡鏡浩校注《大唐三藏取經詩話校注》，頁39~40。

佛取經，則上述條件必然會遭受嚴重挑戰。細觀上述條件限制，此時較為明確者，應當就只有距離一項，其餘數者均仍相去甚遠。作者究竟要如何進行，方能不會與原先之設定發生衝突？作者在因應其事的眾多對策中，顯然選擇一條最為簡易的路徑，便是在不更易前事的情況下，新添數個單元故事，用以湊足其數。此舉可以同時滿足各項條件，只不過存在其中的唯一弊端，便是已然發生之事必定會受到一定程度的影響，尤其是路程、時間兩項，必然會造成前後敘事相悖的違逆感覺，緊隨而至。

根據第99回「80難表」所載，自隱霧山之後，迄至凌雲渡之前，計有八難（鳳仙郡求雨、失落兵器、會慶釘耙、竹節山遭難、玄英洞受苦、趕捉犀牛、天竺招婚、銅臺府監禁）。眾所周知，此一難表所記之諸多劫難，並非採取一個單元故事代表一個劫難之簡單對應方式呈現，有些單元故事便不止一難¹⁷。除此之外，如再加上歷來便多有爭議之前四難（金蟬遭貶、出胎幾殺、滿月拋江、尋親報冤）是否應當列入，則有關81難的問題便會變得更加複雜。徵諸一路緊隨唐僧，暗中保護之一路神祇（五方揭諦、四值功曹、六丁六甲、護教伽藍等），在他們伴隨取經團隊抵達靈山之後，旋即向觀音菩薩進行工作彙報，其說之目的旨在說明：「（唐僧）一路上歷過的災愆患難，弟子已謹記在此。」根據此一說法，前四難確實與此一具有明確定義的內容，大異其趣。嚴格說來，此四難並不在唐僧西天取經一路所經歷的眾多災難，理應予以排除，然事實上卻非如此。究其原因，或許是作者為了完整彰顯唐僧之前生、今世所經歷之種種磨難；然亦不能排除，此舉僅只是為了湊數（81難）之簡單目的。¹⁸

倘若作者緣於上述之故，而將此數者予以剔除，則所謂「九九數完」（第99回回目）的81難，勢必會因此而難以成立。其次，與此同理之14年（5048日）的聖數「時間」，若是缺少隱霧山以降數個單元故事，則其在時間上亦是難以吻合。其三，則是所謂之「篇幅」（100回），若是缺少隱霧山以降數事，全書必然會因此而缺其一角；在此同時，連帶引發的問題便是世本精心設計之回目編排，於此便有重新安排之必要性存在，因其事所援引之（宋）邵雍五言絕句詩〈清夜吟〉：「月到天心處，風來水面時。一般清意味，料得少人知。」係以「一字五回，共計百回」的方式進行回目設計，此一極具特色的結構安排，必將會因此而連帶受到影響。綜上所言可知，何以在隱霧山之後會出現此種略顯冗贅、近乎拉沓之令人費解的情形發生，詳究其事之可能原因，極有可能是與書肆（世德堂）所設定之各項條件限制互為因果，因此數者實是緊密相關，在此一既定目標之下，不得不然之「有意為之」的一項做為。

（三）相互連動

根據上述所言諸多有違敘事的怪異現象，釐測造成其事之可能原因，或有可能係因世本作者所據以改寫之「舊本」的文字篇幅，與書坊原先規劃刊印的「百回」之數相較，原本便多有不足¹⁹，為了順利達成此一既定目標，湊足百回之數，並落實書中條件設定的要求，承命負責編輯其書者，採取「擴大」既有故事篇幅及「新增」舊本未有之事兩種方式，雙軌並進。前者多有承衍之跡可供追循，後者則是根據小說文本的單元故事特性新增，因屬性相同，乍看之下並不顯突兀，然若仔細追索，則文本敘述便會不約而同指向其事與該書不同單元故事，無法順利接榫的部分。人們自不能完全排除此乃是受到百回之篇幅限制所致，因在隱霧山故事結束，距離百回實尚有14回之遙，而樵夫不經意脫口而出的話語，卻為後續幾個單元故事乃「續補後置」者，提供了相應之可能性。

如前所述，世本在編輯過程中，應是受到某些條件的重重限制，而這些由作者事先設定的因素，猶如是緊箍兒一般，嚴格限制小說的內容書寫與取經團隊的行進速度。在一般西遊讀者眼中，泰半只是關注小說之故事性與趣味性，對於這些明顯存在於文字敘述中的弔詭之處，未必會引人關注。但是當人們回過頭來，重新檢視敘事內容之合理性，這些原本為人所輕忽的細微末節，便會成為人們評論其事的重要焦點，同時也是後世讀者檢視其事的依憑所在。這些讓歷代西遊讀者琅琅上口，看似是理所當然的條

¹⁷ 百回本《西遊記》之劫難考驗，除前四難外，自唐僧離開長安便已經開始起算，其所歷之故事實不足三十。在此一情況底下，為了湊足完數，遂將原本之一難理解成數難的拆解方式，如：將紅孩兒故事（40至42回）分成四難：號山逢怪二十八難、風攝聖僧二十九難、心猿遭害三十難、請聖降妖三十一難；將車遲國故事（44至46回）分成三難：搬運車遲三十三難、大賭輸贏三十四難、祛道興僧三十五難，這是西遊作者因受限於某種特定條件，有意為之的一種陳說方式。

¹⁸ 與80難表相類者，當屬如來佛祖要阿難與伽葉至藏經閣，於三藏經典35部，各書檢取若干，湊足5048卷後再交予取經團隊。（第98回）這份經書目錄之卷數，確實符合一藏之數的要求，其乃是為了「湊數」目的有意為之。

¹⁹ 世本陳元之〈序〉嘗載錄一段有關世本成書經過的文字：「唐光祿既購是書，奇之，益俾好事者，為之訂校，秩其卷目，梓之，凡二十卷，數十萬言有餘，而求敘於余。」（頁6~7）或許世本編輯者並未如同陳元之所言，完全根據某部書進行「訂校」與「秩其卷目」，而是參雜許多不同來源之西遊故事，故書中出現許多無法前後呼應之事，此類現象足證世本並非全然依據某一單獨文本進行改寫，加上編輯者又未能夠細心關照前後所致。

件限制，都足以讓整個西遊故事在隱霧山故事之後的整體行程，完全進入一個不可思議的狀態。

相較於之前各單元故事的敘述內容，牛步化的行進速度，與取經團隊接受當地群眾供養的行事風格，似乎都只是為了消化一百回的未竟篇幅，與尚有餘裕之時間、劫難而已，而這些不同條件相互牽制之後的最終結果，便是讓原本一同存在之距離因素，因樵夫一句「不滿千里」的話語，變得極難調處，因其後接踵而至之五個單元故事，竟然花費十餘回（第87回～第97回）的篇幅，然它們在「八十難表」之上，卻也只不過是八難（第72難～第79難）而已，而最為出乎眾人意料之外，便是其所耗費之時間，竟然大約只有一年。面對這樣的行進速度、篇幅比重，顯然與前述諸事的發生頻率，出現極大落差。此一現象更讓人們對於潛藏於文本之中，全然不可違逆之條件設定的理解，變得更加篤定。

在上述各項條件的嚴格規範下，作者顯然必須同時兼顧數項不同條件限制，於是便會不斷出現顧此失彼，甚至是各說相互掣肘的現象。這就不禁讓人對此產生質疑，甚至是將其呼應至侯會所提之「續補之作」的觀點之上。毫無疑問，此數事均是發生於天竺國境內，其事在空間跨度與時間連結上，相對較為緊密，在讀者的認知上，亦只是停留在跨州越縣，與先前各事之穿山越河、跨國行進，實是多有不同。同樣受到篇幅限制而新增之事，作者卻是採取兩種截然不同的「續補」方式，此一部分完全迥異於平頂山故事之「前置」做法，而是以「後置」方式加以處理，然此二者卻都不約而同的在文字陳說中，留下若干啟人疑竇的線索，供人進行探索。發生於天竺國境內轄下各地之數個單元故事，它們對於取經團隊面對外在物慾態度轉變的描述，與之前所建立之人物形象，明顯出現極大落差，而這份極不尋常的差異，讓人們對於其事是否出自相同系統，不由自主地產生高度質疑。

4. 兩件無法扣合之事

除此之外，在此數個單元故事之中所言及之若干事物，亦與前後不同單元故事所敘之故事內容，發生「前後不一」的怪異現象，這也為其事是否為新加增添者，憑添出莫名的遐想空間。

（一）憑空消失的犀角

舉例而言，當取經僧眾以無字真經換取有字真經時，二位尊者（阿難與伽葉）卻是毫不避諱的在藏經閣中，向他們索討人事。當其時也，唐僧先以「隨身無物奉承」的理由進行回應，最後才在不得已的情況下，以太宗皇帝昔日於長安郊外送別時所贈之「紫金鉢盂」予之。這個說法看似頗為合乎情理，亦能夠緊緊扣住第12回唐太宗於長安城外，臨別送行之際，禮輕意重的餽贈，此二事儼然形成前後相互呼應的合理說法。然在此一陳說中，卻是存在著一個令人高度質疑，並且是十分費解的問題。明明就在不久之前，取經僧眾才在金平府，於四木禽星的幫助下，順利降伏在當地為祟作怪多年之三隻犀牛怪。當其時也，孫悟空對於六隻犀角的後續處理方式，誠可謂是面面俱到，同時兼顧到各方的利益：一是讓四位星官將四隻犀角「擎上界去，進貢玉帝，回繳聖旨。」一是將其中二隻留在人間：「留一隻在府堂鎮庫，以作向後免徵燈油之證；我們帶一隻去，獻靈山佛祖。」（第92回/頁2357）然令人感到費解的是，何以在第92回才剛剛發生不久之事，而且當初孫悟空還信誓旦旦的說要將其一獻給「靈山佛祖」之物，卻在第98回來到靈山時，便頓時消失的無影無蹤，最後竟然出現無物可供進獻、無物可供人事索討之遺忘前事的怪異窘況？面對此種前後敘事不一的現象，唯一合理的解說，便是此一單元故事應是屬於「新增後補」者，而後來之編輯者，卻是未能對此予以妥善處理，前後貫通，故而在索取人事的環節上，便出現難以合理解釋的疏漏現象，故而導致前後說法無法順利接榫的怪異情況，繼而隨之出現。

（二）說法不一的章印

與此同理，第94回天竺國王曾於通關文牒上用上大印（頁2401），只不過在第100回，當唐僧將文牒進呈給大唐太宗皇帝御覽，此時所有人的心思都緊緊隨著太宗皇帝的目光，將唐僧西天取經所歷各國的印記，逐一說出：「牒文上有寶象國印、烏雞國印、車遲國印、西梁女國印、祭賽國印、朱紫國印、獅駝國印、比丘國印、滅法國印，又有鳳仙郡印、玉華州印、金平府印。」（頁2535～2536）值得人們注意的是，上段文字所載，卻是未曾提及「天竺國印」四字，此番前後無法相互對應的文字陳說，意味著天竺國大印曾經存在的痕跡，宛若是從通關文牒上憑空消失一般。

《西遊記》對於取經文牒（又名「通關文牒」）的使用時機，誠可謂是規範的十分清楚，此一物件都是在唐僧面謁各國君王時，方才會慎重其事地拿出，這是一條近乎鐵律的規則，在進入天竺國之前，均未曾出現過違反之例，徵諸沙僧之言：「此間既是府縣，不必照驗關文」（第96回/頁2431），當可

確認無疑。依照此一說法，當第100回述及唐僧將取經文牒進呈給太宗皇帝御覽，文牒上之各國印記，理應不會出現「非國家」層級的印記才是，孰料，隱霧山以降所經天竺國各地之部份州、郡、府，竟然都不約而同的將其官方印記，覆印在文牒之上。這些理應不該出現之印記，儼然是對於前述鐵律的一種否定，同時也是對於先前嚴格遵行規律的另類態度，其說或乃是來自於另一系統的可能性，亦將因此而大幅增加。

第100回有關印記的這段文字，其中最為特別之處，當是在於描述太宗皇帝閱讀文牒之上各國印章的過程，並非是一氣呵成，而是採取「兩段式」的文字敘述，並且是以「又有」二字加以區隔。先此之前，似是自成一系，包括九個有人主駐蹕的國家；而「又有」之後，則是自成一界，屬於另外一個系統，因它並不同於先前皆是以「國家」為單位的書寫方式，而是包括「天竺國」轄下境內三個不同的行政單位。這兩種截然不同的書寫方式與呈現樣態，似乎是在向所有的西遊讀者進行宣告，前後兩者實是有所區別。其中，隱霧山故事之前所歷各國，以及隱霧山故事之後數事，實是分屬二系，其間更以「又有」二字加以區隔，此一看似是不經意的舉措，確實值得細細玩味。

此二字宛若是一條天然的鴻溝深塹，區隔甲乙兩方，更像是一條「新增」的文學印記，清楚劃分前後，隱約透露出其乃是自成一系的事實。其次，則是此一部分的處理方式，亦與先前皆是以「國印」為主之通關文牒的照驗標準多有不同，亦與文中所言「府縣不必照驗關文」的說法相互悖逆。依照此說，則「金平府」理當不應有印；然如果「金平府」可以於文牒上存有印記，則何以又獨缺「銅臺府」。此一關乎行政管轄權限（照驗關牒）的文字描述，竟然在此出現前後標準不一的狀況，即令是同屬天竺國轄下同等級之單位，亦復如此。此一前後做法與說法不一的情況，更是讓自隱霧山故事以降的部分，是否為後來「新加增補」者，增添出許多莫名的想像空間。

5. 結語

隱霧山故事以降數個單元故事，或有可能是來自於不同的故事來源；也有可能是肇因於《西遊記》之編輯者，於匯聚眾說、通貫全書時，因未能妥善處理存在於前後不同回數之文字、內容，而所導致的一項結果；人們亦不能完全排除，此數事存在著「續補後置」的可能，因他們竟然可以在「不滿千里」的距離，硬生生地走了十二回，其中還連續發生六個單元故事，而這樣的故事密度相對應於先前之其他單元故事，不論是在時間、距離、行進速度上，處處都顯得奇詭異常，完全是有悖於書中陳說之一貫常態，它似乎是因為受到某些條件上的限制，故而不得不為的文學產物一般，其事隱然透露出橫生插入的跡象。再者，其事與平頂山故事所採取之「續補前置」的最大差別，當是在於這些發生在天竺國境內的諸多事情，乃是屬於「續補後置」，而此二者的出現都同時指向上述所言之四項條件限制，尤其是百回篇幅與81劫難，在此一過程中，更是世本作者於短時間之內，難以順利補足其數的莫大困境。

如前所述，此數事之所以引人側目的最大疑點，一是關於空間距離與行進時間，其與先前各回所述出現極大落差；二是書寫風格與人物性格，在此一階段竟然發生巨大轉變；三是此一階段所言之某些事物，都出現因莫名之故而憑空消失的詭異現象。這一連串前後敘述不一的現象，不禁讓人對於其事是否為陳元之〈序〉所言之「舊本」所有，抑或是後來世本作者的「續補」之作，產生出莫大的質疑。

值此之時，人們無妨假設，陳元之〈序〉所言之世德堂主人唐光祿，其人當初所得之書（舊本）的實際篇幅，應當是遠遠不足百回之數²⁰；甚至是後來人們所熟知之西天取經故事，亦非是立基於所謂之「81難」的完數之上；其他還有後世西遊讀者普遍接受之關於取經「時間」、「距離」以及通書「篇幅」的種種限制，這些恐怕也不一定都是「舊本」之既有說法與故事內容，而是世本作者後續所為。易言之，世本作者為了迎合市場所需，這個關乎牟利的商業目的，配合通書講述能有一個可資依循的合理規範，而所事先設下之數個條件限制，只可惜整個講述到了故事的最後階段，這些原先具有指標性引導作用之有形、無形的條件規範，此時竟然成為作者揮之不去的夢魘；而原本只須數天趕路，便可輕鬆達成之「千里之遙」的路程，竟然變得遙不可及；取經團隊原本快速前行的行進速度，此時竟發生巨大轉變，改以從容不迫的方式，徐徐前進。審視其事之所以發生變易的主要因由，或許並非是通過類似平頂山故事之「情節襲用」的方式達成，而是通過不同的「風格改變」，以及湊足百回之數和81難的「形式目標」來完成，因為這樣的操作方式，較諸重新編纂其書，顯然要來的容易許多。

²⁰ 徵諸敬天寺石塔西遊故事浮雕，或可推得舊本之樣態。現存20幅浮雕所繪，未見有發生於天竺國轄境者。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2부

15. 중국문화(2)

위당관 204호

중국 문화 · 사상 · 영화 :
다문화 공생과 확장

광원산 작사·저우제룬 작곡 ‘중국풍 음악’의 문학적 실천

- 〈동풍파(東風破)〉와 〈발여설(髮如雪)〉 가사의 한시(漢詩) 수사학

김민우*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분석틀: 기호 간 번역과 한시 수사학
 - 2.1 기호 간 번역의 대상과 범위
 - 2.2 한시 수사학의 청취 매핑
3. 가사의 텍스트 분석
 - 3.1 <동풍파> 가사 분석
 - 3.2 <발여설> 가사 분석
4. 청취의 형식 분석
 - 4.1 <동풍파> 청취 분석
 - 4.2 <발여설> 청취 분석
5. 결론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광원산과 저우제룬의 ‘중국풍 음악’을 기존의 장르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한시의 문학적 설계도가 현대 대중음악의 청각적 경험으로 전환되는 작동 원리로 새롭게 조명한다. 로만 야콥슨의 ‘기호 간 번역’을 핵심 이론 틀로 삼아, 여섯 가지 한시 수사법이 음향적 형태로 변환되는 경로를 추적하는 분석 모델을 구축했다. 연구 대상으로는 중국풍 미학의 원형을 제시한 <동풍파>(2003)와 그 원리를 문학 주도적으로 심화시킨 <발여설>(2005)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두 곡은 상이한 고전 미학을 체계적인 청취 형식으로 번역하는 뚜렷한 전략적 차이를 드러냈다. <동풍파>는 송사의 완약 미학을 절제된 보컬과 공간감 있는 편곡을 통해 자연과 여운의 청취 형식으로 구현했으며, <발여설>은 당시의 호방 미학을 서사 중심의 극적인 구성과 폭발적인 고음으로 절정과 해소의 청취 형식을 완성했다. 특히 ‘사념수’라는 시어의 추상적 의미를 가늘게 사라지는 호흡으로 직접 번역한 저우제룬의 보컬 실천은, 문학적 설계가 감각적 체험으로 전환되는 기호 간 번역의 핵심을 명확히 보여준다. 본 연구는 ‘중국풍’ 현상을 정적인 장르가 아닌 동적인 번역 과정으로 재정의하고, 문학적 장치가 청각적 경험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구체적인 매핑 모델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이는 두 창작자의 협업이 소실된 고전의 소리를 현대적 감수성으로 복원해낸 탁월한 문학적 실천임을 논증한다.

주제어 : 중국풍 음악, 주걸륜, 방문산, 기호 간 번역, 한시 수사학, 완약, 호방

1. 서론

21세기 들어 중화권 대중음악의 지형도에서 ‘중국풍 음악’만큼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키워드는 드물다. 중국풍 음악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결정적 계기는 작사가 광원산(方文山)의 문학적 설계와 작곡가 겸 가수 저우제룬(周傑倫)의 음악적 구현이 결합된 협업이었다. 두 사람은 <낭자(娘子)>(2000)에

*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부교수

서 고전적 가사와 현대적 R&B의 결합을 처음 시도했고, <동풍파(東風破)>(2003)에서는 작사·작곡·편곡 전 범위에서 중국풍의 미학적 원형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중국풍 음악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더 나아가 <천리외(千里之外)>(2006)의 내레이션을 매 앨범에 중국풍 음악을 신선했다는 약속을 공표한 것은, 중국풍이 두 창작자의 정체성이자 하나의 상징적 스타일로 굳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²⁾ 저우제룬과 팡원산이 정립한 중국풍 음악이라는 미학적 원형은 대만에서 발화한 뒤 중국과 전 세계 화교 사회로 확산되며,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시대를 표상하는 문화적 기호로 자리 잡았다.

중국풍 음악의 문화적 성공은 청중에게 제공한 독특한 미적 체험에 기반한다. 현대적인 R&B 리듬 속에서 고전시가(古典詩歌)의 숨결을 느끼고, 아련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정서에 젖어 드는 경험이 바로 성공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깊은 정서적 울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노래가 단순히 전통 악기를 차용했다는 표면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본래 당시와 송사(宋詞)가 묵독(默讀)을 위한 문학 텍스트인 동시에 소리를 통해 향유되던 ‘음악적 실천’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음향적 실체는 사라지고 문자 형태만 전해져 오늘날의 독자들은 절반의 아름다움만을 상상으로 복원해야 했다. 저우제룬과 팡원산의 작업은 박제된 고전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을 넘어, 낭송과 가창이라는 본래의 생명력을 되찾아 줌으로써 텍스트에 소리의 숨결을 다시 불어넣는 ‘문학적 실천’으로 다가온다. 결국 중국풍 음악의 성공은 가사와 선율의 물리적 결합에 그치지 않고, 팡원산의 문학적 설계가 저우제룬의 음향적 구현과 절묘하게 맞물려 고전의 생명력을 되살린 ‘통합적 문학적 실천’으로 나아갔기에 가능했다.

본고는 중국풍을 기존의 장르적 논의에서 벗어나,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작동 원리로 새롭게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초점은 팡원산의 문학적 설계가 저우제룬의 음향적 구현을 통해 청각적 경험으로 전환되는 접합부에 맞춰진다. 중국풍 음악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의 ‘기호 간 번역’(intersemiotic translation)을 채택한다.³⁾ 기호 간 번역은 언어 기호인 시가 비언어 기호인 음악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즉, 시의 대구(對句) 구조가 음악의 동형진행(sequence)으로 조율하고 점층적 심상이 다이내믹의 변화로 구현되는 것처럼 문자적 설계도가 청각적 경험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가 주로 사회문화적 수용이나 음악학적 특징에 주목했던 것⁴⁾과 달리, 한시 수사학을 분석틀로 삼아 텍스트의 문학적 구조가 청취 경험으로 번역되는 내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팡원산의 문자 텍스트에 담긴 한시 수사학의 정교한 장치들은 저우제룬의 선율과 리듬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음향적 형태로 재탄생하는가? 팡원산의 문학적 설계와 저우제룬의 음향적 구현은 어떤 창조적 접합부에서 만나 하나의 통합된 청각적 서사를 완성하는가?

저우제룬과 팡원산의 협업 중 가장 상징적인 두 곡, <동풍파(東風破)>(2003)와 <발여설(髮如雪)>(2005)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동풍파>는 삼고삼신(三古三新)의 기준을 충족하며 오성음계(五聲音階)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순수중국풍 음악이자,⁵⁾ 팡원산 스스로 “작사, 작곡, 편곡 세 측면에서 모두 중국풍 개념

2) 중국풍 음악의 상세한 개념·범주화 및 선행 정의들은 김민우, <중국의 저우제룬(周傑倫) 수용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초기 ‘중국풍 음악’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120집, 2024, 233-237쪽 참조.

3) 로만 야콥슨은 번역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는 동일 언어 내에서 단어를 바꾸어 표현하는 ‘언어 내 번역(intralingual translation)’, 둘째는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반적인 의미의 ‘언어 간 번역(interlingual translation)’이다. 마지막으로, 본고가 주목하는 ‘기호 간 번역’은 시(언어)를 음악이나 그림(비언어)으로 옮기는 것처럼, 하나의 기호 체계를 다른 기호 체계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Jakobson, Roman.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R. A. Brower (ed.), *On Transl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232-239쪽.

4) 중국풍 음악에 대한 선행연구의 동향과 구체적인 목록은 필자의 선행연구 김민우, 앞의 글, 2024, 236-237쪽에서 상세히 검토한 바 있다.

5) 음악 제작자 황샤오량(黃曉亮)은 중국풍을 삼고삼신(三古三新)이라는 틀로 정의하여 산업적 기준을 제시했다. 삼고(三

에 부합하는 첫 곡⁶⁾이라 공인한 초기 순수중국풍의 정초적 텍스트로 간주된다. 더불어 중국풍 미학의 원형을 분석하기 위한 필수적인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발여설>은 창작 방식의 예외성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의 곡이 선율에 가사를 붙이는 선곡후사(先曲後詞)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과 달리, <발여설>은 가사를 먼저 완성하고 선율을 입힌 선사후곡(先詞後曲) 방식으로 창작되었다.⁷⁾ 선사후곡 방식은 가사의 문학적 구조가 곡의 형식을 선도했음을 보여주며, 문학적 설계가 음향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중국풍 미학의 원형을 정립한 <동풍파>와 한시의 미학을 음악적으로 번역하는 원리를 문학 주도적 방식으로 극대화한 <발여설>의 비교 분석은 미학적 원리가 어떻게 구축되고 심화되는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2. 분석틀: 기호 간 번역과 한시 수사학

2.1 기호 간 번역의 대상과 범위

문자와 가창의 공존, 즉 가사의 이중성은 동아시아 전통에서 두드러진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시와 송사는 묵독의 문학이면서도 본래 가창을 전제한 음악문학이었다. 이 관점은 누적된 연구를 통해 오늘날 정설로 받아들여진다.⁸⁾ 시와 사의 성률, 즉 평측(平仄)과 압운(押韻)은 호흡 단위와 분리되지 않으며, 특히 사(詞)는 사패(詞牌)라는 정해진 곡조에 따라 자수, 구식, 운위, 측이 규정되고, 곡조에 의거해 가사를 쓰는 의성(倚聲)의 방식으로 창작되고 전승되었다.⁹⁾ 평측과 압운, 사패에 의해 규정된 성률 체계는 문자 규범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창에서 프레이징과 호흡 길이, 강약의 분절을 규율하는 실천 규범으로 기능했다. 성률이 가창의 실천 규범으로 기능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텍스트 내부의 문학 장치가 곧 청취 형식을 예비한다는 기호 간 번역의 관점을 뒷받침한다. 성률이 호흡 단위를 조직한다는 전제에서 볼 때, 성조와 운율 연구는 곡조, 발성, 프레이징의 언어적 조건을 제시하며, 둔황 출토 악보는 성률이 노래의 실천 규범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를 제공한다.¹⁰⁾

동시대 창작자의 담론은 지금까지의 학술적 논의가 살아있는 창작 원리임을 증명한다. 특히 광원산은 자신의 저작에서 고전시가를 현대 가사 작법의 핵심적인 자양분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송대의 사는 당대의 대중음악이라는 직관으로 역사적 연속성을 요약하고, 유영(柳永)을 북송의 이종성(李宗盛)에 비유해 사와 대중음악의 구조적 유사성을 대중 친화적으로 환기한다. 또한 사패의 다수 곡조가 전승 단절로 소실되었음을 지적함으로써 오늘날 문학 텍스트만 남은 까닭을 설명한다.¹¹⁾ 고전을 현재의 창작 원리

古)는 옛 문체(古辭賦), 옛 문화(古文化), 옛 선율(古旋律)을 의미하며, 삼신(三新)은 새로운 창법(新唱法), 새로운 편곡(新編曲), 새로운 개념(新概念)을 가리킨다. 여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순수중국풍’, 일부만 충족하면 ‘근중국풍’으로 분류된다. 김민우, 앞의 글, 2024, 234쪽.

6) 方文山, 《天青色等煙雨》, 長沙: 湖南文藝出版社, 2019, 3쪽.

7) 위의 책, 18쪽.

8) 任半塘, 《唐聲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2; 王力, 《詩詞格律》, 北京: 中華書局, 2009; 葉嘉瑩, 《葉嘉瑩談詞》,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15.

9) 夏承燾, 《唐宋詞欣賞》,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12; 宛敏灝, 《詞學概論》, 上海: 上海古籍, 2001; 龍榆生, 《唐宋詞格律》, 上海: 上海古籍, 2004; 薑夔, 《白石道人歌曲》(附 旁譜/工尺譜).

10) 관련 개설로는 당대 연악·가창 복원을 시도한 속칭 둔황곡자보(敦煌曲子譜)라 불리는 둔황 출토 악보 연구와 중고한어 음운 체계에 대한 연구들이 참조될 수 있다. 본고의 주된 언어사적 참조는 중고한어(中古漢語)에 두며, 상고음(上古音) 연구는 배경 정보로 제한한다.

11) 方文山, 앞의 책, 2019, 10-11쪽.

로 삼는 그의 인식은 고전시가를 깊이 있게 읽는 것이 창작의 폭과 깊이를 더한다는 그의 믿음과 연결된다. 즉, 광원산의 담론은 멜로디가 사라진 고전 텍스트의 미학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음향적 생명력을 부여하는, 그 자신의 창작 방식에 대한 강력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2.2 한시 수사학의 청취 매핑

각 수사법의 원리와 미학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왕부지(王夫之)와 같은 고전 시론가의 통찰부터 제임스 J. Y. 리우(James J. Y. Liu, 劉若愚), 왕리(王力), 저우성야(周生亞) 등 현대 연구자의 분석 및 《한어대사전(漢語大辭典)》과 같은 권위 있는 사전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다.¹²⁾ 이어, 고전적 장치가 현대 가사에 적용되는 양상은 창작자인 광원산의 저작, 특히 《中國風：歌詞里的文字遊戲》(2008)와 《天青色等煙雨》(2019)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¹³⁾ 선행연구의 학술적 분석과 창작자의 통찰을 종합하여, 기호 간 번역의 핵심 경로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한다.

전화(轉化) → 정서의 구체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처럼 묘사하는 전화는 감정의 질감을 청각적으로 표현하는 핵심 기제다. 전화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 추상적 관념에 구체적인 질감과 무게를 부여하여 감각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중국 시의 중요한 특징이다.¹⁴⁾ 추상에 구체성을 부여하는 이 고전적 기법은 광원산이 이수(離愁), 사념(思念)과 같은 추상명사를 만질 수 있는 실체로 바꾸어 “의경의 무게감(意象的重量感)”¹⁵⁾을 더하는 창작 실천에서 현대적 계승을 확인할 수 있다.

대장(對仗)¹⁶⁾ → 호흡의 대칭 및 등분: 구조적 대칭이 선율과 리듬의 대칭으로 번역되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호흡 단위를 형성한다. 대장은 ‘언어의 짝 배치’로 설명되는데, 특히 중국어가 단음절어(單音語)이기에 각 음절이 1:1로 대응하도록 가지런히 짝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¹⁷⁾ 언어의 짝 배치는 광원산이 대장을 활용하여 문장의 형식을 가지런하게 하고 “듣기 좋고 입에 잘 붙게(悅耳順口)”¹⁸⁾ 만드는 효과를 노린다는 실천 목표와 맞닿아 있다.

설문(設問) → 사고의 촉발과 긴장감 형성: 질문 형식이 짧은 침묵과 재개의 패턴을 유도해 다음 구절에 대한 기대와 집중을 고조시킨다. 설문은 단순히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자답하거나, 혹은 스스로 묻지만 대답은 하지 않는 형식을 통해 독자의 적극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수사 방식이다.¹⁹⁾ 답을 구하지 않는 질문을 통해 독자의 사고를 촉발하는 수사 방식은 광원산이 평이한 서술을 피하고 독자의 흥미를 끌며 “약간의 긴장감(一點懸疑性)”²⁰⁾을 더하기 위해 설문을 활용한다는 창작 의도와 같은 맥락이다.

인용(引用) → 정서적 공감대 형성: 인용은 기존 문구나 고사를 가져와 시의 함축성과 의미의 층위를 두텁게 만드는 수사법이다. 특히 과거의 이야기를 활용하는 전고(典故)는 인용의 중요한 한 방식이다. 전고의 목적은 표현력을 높이는 데 있으므로, 난해한 지식을 과시하기보다 대중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²¹⁾ 대중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은 광

12) 본문에서는 한어 병음에 따른 표기인 왕리, 저우성야를 사용한다. 다만 국내 번역서와 선행 연구에서 굳어진 표기를 존중하여 서지에서는 해당 판본의 표기 왕력, 주생야를 그대로 유지한다. 본문 표기와 서지 표기는 동일 인물을 가리킨다.

13) 方文山, 《中國風：歌詞里的文字遊戲》, 北京: 接力出版社, 2008; 方文山, 2019, 앞의 책.

14) James J. Y. Liu, *The Art of Chinese Poet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109쪽.

15) 方文山, 앞의 책, 2019, 8쪽.

16) 본고에서는 대장을 한시의 수사법으로, 대구를 그 수사적 작용의 결과로서 짝지어진 구절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17) 왕력, 송용준 옮김, 《중국시율학1》, 서울: 소명출판, 2005, 28-29쪽.

18) 方文山, 앞의 책, 2008, 130쪽.

19) 주생야, 이치수 옮김, 《중국 고대 수사학》, 파주: 도서출판 동아시아, 2024, 271쪽.

20) 方文山, 앞의 책, 2008, 129쪽.

21) 저우성야는 인용을 전고 인용과 어구 인용으로 구분한다. 본고는 이 구분에 따라 인용을 상위 범주로, 전고를 하위

원산이 <양축(梁祝)> 설화처럼 널리 알려진 전고를 활용하여 청중이 가진 ‘사회적 공통된 기억(社會的共同記憶)’과 ‘공통된 정서적 공감대(共同的情感認同)’를 이끌어내는 창작 방식에서 그 구체적인 실천을 발견할 수 있다.²²⁾

정경교유(情景交融) → 음향 공간감의 조정: 내적 감정과 외부 풍경의 겹침이 리버브(reverb)와 패닝(panning) 같은 공간 처리로 구현되어 청취 공간의 확대 또는 수축으로 체감된다.²³⁾ 정경교유 이론에 따르면 경치와 감정은 이름은 둘이지만 실은 나눌 수 없으며, 뛰어난 시에는 ‘경치 속의 감정(景中情)’이 깃들어 있다.²⁴⁾ 시에 경치 속의 감정이 깃들어 있다는 것은 외부 풍경의 묘사가 곧 내면의 정서를 구축하는 핵심 기제임을 보여준다. 정경교유의 원리는 팽원산이 자신의 작법을 “경치를 통해 감정으로 들어가는(以景入情)”²⁵⁾ 창작 원리로 설명한 것과 맞닿아 있다.

전품(轉品) → 음색의 질감 변화: 형용사를 동사로 사용하는 등의 전품 수사법은 청각적 질감의 변화로 번역될 수 있다. 전품은 단어의 원래 품사를 임시로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언어에 생동감과 함축성을 부여하고 표현을 신선하게 만드는 수사 기법이다.²⁶⁾ 팽원산이 전품을 활용하여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면서도 “더 동적이고 애처로운 시적 정취(更具動感, 而且越顯露哀戚詩意)”²⁷⁾를 자아낸다는 말에서 그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찾을 수 있다.

3. 가사의 텍스트 분석

3.1 <동풍파> 가사 분석: 원약 미학의 수사 장치와 번역

<동풍파>는 저우제룬과 팽원산의 중국풍 음악 미학이 본격화된 곡으로, 송사의 완약(婉約) 미학, 즉 섬세하고 함축적인 아름다움을 기반으로 한다. 제목 <동풍파>는 단순한 관용구가 아니라, 여러 고전의 맥락을 중첩시킨 정교한 장치다. 영감의 출처는 송나라 시인 소식(蘇軾)의 <접련화(蝶戀花)>에 나오는 ‘동풍이 불어와서 천 줄기 눈물을 닦아 주네(東風吹破千行淚)’와 만당(晚唐) 시인 이상은(李商隱)의 <무제(無題)>에 등장하는 ‘동풍이 기운 없어 온갖 꽃들 시들었지(東風無力百花殘)’이다.²⁸⁾ ‘동풍’은 봄의 생명력과 이별의 슬픔이라는 양가적 의미를 지니며, ‘破’는 ‘깨뜨리다’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 감정이 터져 나오는 ‘파열’을 상징한다. 동풍파라는 명명은 소식의 호 소동파(蘇東坡)의 ‘坡’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된다. ‘破’는 입성(入聲), ‘坡’는 평성(平聲)으로 성조가 다르고, 글자의 의미 또한 무관하므로 언어유희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연물과 동사를 결합하는 전통 사파(詞牌)와 곡파(曲牌)의 명명 관행을 상기시킨다. 특히 ‘破’는 송나라 시대 비파로 연주되던 악곡 형식인 ‘곡파(曲破)’에서 착안한 것으로, 전통 곡조명을 의도적으로 환기하도록 설계된 작명으로 읽힌다.²⁹⁾ 제목은 문학적 요소인 시어와 음악적 요소인 패명의 교차, 그리고 정서적 파열을 한데 묶어, 곡이 고전의 형식미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예술적 텍스트임을 선언하는 상징적 기호로 기능한다.

유형으로 사용한다. 주생아, 이치수 옮김, 앞의 책, 2024, 419-421쪽.

22) 方文山, 앞의 책, 2019, 23-24쪽.

23) 리버브는 동굴, 성당, 방 등 특정 공간에서 소리가 울리는 듯한 잔향효과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청취자는 소리가 발생하는 공간의 깊이와 규모를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패닝은 스테레오 음향 환경에서 소리의 위치를 좌우로 배치하거나 이동시키는 기술로, 청취 공간의 너비와 방향성을 결정한다.

24) 왕부지, 조성천 옮김, 《강재시화》, 서울: 지식출판만드는지식, 2012, 56-57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情景名爲二, 而實不可離. 神於詩者, 妙合無垠. 巧者則有情中景, 景中情.”

25) 方文山, 앞의 책, 2019, 61쪽.

26) 羅竹風, 《漢語大辭典》(第九卷下冊),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6, 1319쪽.

27) 方文山, 앞의 책, 2008, 125쪽.

28) 方文山, 앞의 책, 2019, 9-10쪽. <접련화>와 <무제>의 우리말 번역은 각각 소식, 류종목 옮김, 《蘇東坡詞選》, 서울: 지식출판만드는지식, 2023, 121-122쪽; 이병한·이영주, 《唐詩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594-595쪽을 따랐다.

29) 方文山, 앞의 책, 2008, 20쪽.

제목에 담긴 고전적 미학은 곡의 도입부에서부터 섬세한 묘사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다.

一盞離愁 孤燈佇立在窗口

(한 잔의 이별 시름, 외로운 등잔 하나 창가에 우두커니 서 있는 밤)

我在門後假裝你人還沒走

(나는 문 뒤에서 그대가 아직 떠나지 않은 듯 짐짓 움직여 봅니다)

舊地如重遊月圓更寂寞

(예전의 그곳을 다시 노닌다 해도 달이 차면 더욱 쓸쓸해져)

夜半清醒的燭火不忍苛責我

(한밤에 깨어있는 촛불도 차마 나를 책망하지 못 하네요)

곡은 ‘한 잔의 이별 시름(一盞離愁)’이라는 응축된 정서로 시작하여, 곧장 구체적인 행위와 풍경으로 연결된다. ‘문 뒤(門後)’는 떠남과 부정 사이의 경계를 상징하며, ‘짐짓(假裝)’은 자기기만이라는 심리적 방어를 노출한다. ‘예전의 그곳을 다시 노닌다 해도 달이 차면 더욱 쓸쓸해져(舊地如重遊月圓更寂寞)’ 정경은 화자의 회상이 현재의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경교응의 예시다. 이어지는 ‘한밤에 깨어있는 촛불도 차마 나를 책망하지 못 하네요(夜半清醒的燭火不忍苛責我)’는 표현은 전화의 한 방식인 의인화에 해당하며, 화자의 고통이 주변의 무정물에까지 전이될 만큼 절절함을 보여준다.

이별의 정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깊어진다.

一壺漂泊浪跡天涯難入喉

(한 주전자의 방랑, 쉽게 들이켜지지 않는 술)

你走之後酒暖回憶思念瘦

(그대 떠난 후 술에 추억을 데워보지만 그리움에 수척해질 뿐)

水向東流時間怎麼偷

(물은 동으로 흐르지만, 시간은 어찌하면 훔칠 수 있을까요)

花開就一次成熟我卻錯過

(꽃이 피어낸 단 한 번의 무르익음을 나는 놓쳐버리고 말았네요)

‘한 주전자의 방랑(一壺漂泊)’은 도입부의 ‘한 잔의 이별 시름(一盞離愁)’과 완벽한 대구를 이룬다. ‘한 잔의 이별’이 ‘한 주전자의 방랑’으로 심화되는 대구의 사용은 찰나의 고통을 지속적인 상태로 확장하는 의미론적 기능을 수행한다. 나아가 가사에 안정적인 리듬감을 부여하는 음악적 기능과 함께 팽원산의 의도대로 가사를 “듣기 좋고 입에 잘 붙게” 만드는 실천적 기능 또한 수행한다. 술에 추억을 데워보지만 그리움에 수척해질 뿐(酒暖回憶思念瘦)은 전화의 대표적인 예시다. 이 기법은 추상적 관념인 ‘그리움(思念)’에 ‘수척해진다(瘦)’는 구체적 속성을 부여하여 화자의 내면적 공허함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다. 특히 ‘瘦’의 사용은 송나라 시인 이청조(李清照)의 <여몽령(如夢令)>에 나오는 “푸른 기운 짙어지고 붉은 빛은 덜하잖니(應是綠肥紅瘦)”³⁰⁾와 맞닿아 있다. 이청조가 ‘꽃이 시든다’는 의미로 ‘瘦’를 사용했듯, 팽원산 역시 ‘그리움에 수척해질 뿐(回憶思念瘦)’에서 ‘瘦’를 사용해 감정의 소모를 형상화하고, 고전의 미학을 현대 가사에 이식한다. ‘물은 동으로 흐르지만, 시간은 어찌하면 훔칠 수 있을까요(水向東流時間怎麼偷)’는 설문 형식을 통해 내면의 고통을 시간의 무상함과 연결하는 철학적 성찰로 나아간다. 이 구절은 남당(南唐) 후주 이욱(李煜)의 <우미인(虞美人)>에 나오는 “봄날 동으로 흐르는 장강 같다오(恰似一江春水向東流)”³¹⁾를 활

30) 方文山, 앞의 책, 2019, 12-13쪽, <여몽령>의 우리말 번역은 주조모 엮음, 김지현 옮김, 《송사삼백수》, 서울: 을유문화사, 2013, 507쪽을 따왔다.

용한 전고 인용이다. 이옥의 시구를 인용한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서 화자가 느끼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강조한다. ‘꽃이 피어낸 단 한 번의 무르익음을 나는 놓쳐버리고 말았네요(花開就一次成熟我卻錯過)’라는 고백은 ‘꽃’의 한정된 생명력과 화자의 영원한 후회를 대조시켜 이별의 고통을 근원적인 비애로 심화시킨다.

전고와 설문의 결합으로 증폭된 상실감은 후렴부에서 가을의 정경과 조용하며 외부 세계의 황폐한 풍경으로 투사된다.

誰在用琵琶彈奏 一曲東風破

(누가 비파를 연주하며 한 곡의 동풍파를 타는가)

설문형 후렴은 곡의 구조에서 박을 고정하는 정박(定拍) 기능과 주제를 집약하는 관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설문 형식의 후렴이 갖는 정박 기능은 비파의 음색을 호출하여 청각적 응답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경교용이라는 문학 장치를 공간적 잔향이라는 소리의 표식으로 치환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등장하는 비파는 백거이(白居易)의 <비파행(琵琶行)>을 연상시키는 고전적 소재이자, 처연한 정서를 대변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결국 화자는 누가 이 슬픈 곡조, 즉 자신의 이야기인 동풍파를 연주하는지 물음으로써 비극의 주제를 특정하지 않고, 그 정서를 시공간에 부유하는 보편적 슬픔으로 확장시킨다.

후렴구의 질문에 이어, 화자의 시선은 곧바로 시간의 흐름이 남긴 흔적으로 향한다.

歲月在牆上剝落 看見小時候

(벽에서 떨어져 나가는 세월, 어린 시절을 보네)

猶記得那年我們都還很年幼

(그 시절 아직 어렸던 우리가 여전히 기억납니다)

而如今琴聲幽幽我的等候你沒聽過

(하지만 지금 금(琴) 그윽한 소리 저 멀리 들려도 내 기다림 그대 듣지 못하네요)

‘벽에서 떨어져 나가는 세월(歲月在牆上剝落)’은 추상적 개념인 ‘세월’을 물리적 현상처럼 묘사한 전화의 예다. 이 구절을 통해 청자는 과거의 행복했던 순간이 마치 낡은 벽지처럼 떨어져 나가는 듯한 시각적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전고와 설문의 결합으로 심화된 내면적 상실감은 ‘그 시절 아직 어렸던 우리(猶記得那年我們)’에 대한 회상으로 이어지고, ‘하지만 지금 금 그윽한 소리 저 멀리 들려도 내 기다림 그대 듣지 못하네요(而如今琴聲幽幽我的等候你沒聽過)’를 통해 과거의 공유된 시간과 현재의 고독한 기다림이 극적으로 대비된다. ‘幽幽’는 음감을 중첩해 심도를 강조하는 첩자(疊字) 기법으로, 넓은 의미에서 소리의 반박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는 대장의 원리와 맞닿아 있으며, 소리의 거리감과 잔향을 동시에 환기한다.³²⁾

2절의 가사는 회상의 공간을 가을의 황량한 풍경으로 옮겨와 체념적인 상실의 정서를 구체화한다.

楓葉將故事染色 結局我看透

(단풍잎이 이야기를 물들이니 나는 결말을 꿰뚫어 보네)

籬笆外的古道 我牽著你走過

(울타리 밖의 옛길을 내가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네)

荒煙蔓草的年頭 就連分手都很沉默

(거친 연기와 넝쿨풀 무성했던 그 시절 이별마저도 아주 조용했네)

첫 구절 ‘단풍잎이 이야기를 물들이니(楓葉將故事染色)’는 이별의 정서를 한 폭의 그림처럼 제시하는 탁

31) <우미인>의 우리말 번역은 이옥, 이기면·문성자 옮김, 《이옥사집》, 서울: 지식출판사, 2024, 88쪽을 따랐다.

32) 첩자는 본고의 여섯 틀에 직접 열거되지는 않지만, 대장의 리듬 원리와 결을 같이하는 보조 장치로서 공간감·원근감의 청각적 표지를 강화한다. 첩자에 의한 음감 중첩은 청취 차원에서 잔향과 원근의 ‘이중 거리감’을 예고하여, 4장에서 논의할 리버브의 언어적 전조로 작동한다.

월한 정경교용이다. 가을을 상징하는 ‘단풍(楓葉)’은 이별과 쇠락의 계절적 배경을 암시하며, 우리의 ‘이야기(故事)’를 붉게 ‘물들이니(染色)’는 전화의 기법을 통해 과거의 모든 추억이 결국 슬픔으로 귀결될 것임을 암시한다. 체념적 태도는 곧바로 ‘나는 결말을 꿰뚫어 보네(結局我看透)’라는 단정적 고백으로 이어진다. 화자는 더 이상 다른 결말을 기대하지 않으며, 이별이라는 숙명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결말을 꿰뚫어 본다는 체념적 인식 속에서 회상되는 과거의 풍경은 더욱 애처롭게 다가온다. ‘울타리 밖의 옛길(籬笆外的古道)’은 원대(元代) 마치원(馬致遠)의 <천정사·추사(天淨沙·秋思)>에 나오는 ‘옛길에 가을바람, 파리한 말(古道西風瘦馬)’을 연상시키는 전고 인용으로, 쓸쓸한 나그네의 정서를 환기한다.³³⁾ 한때 함께 걸었던 그 길이 이제는 ‘거친 연기와 넝쿨풀(荒煙蔓草)’로 뒤덮인 모습은 화자의 황폐해진 내면과 조용하는 정경교용을 이룬다.

2절에 이어 후렴구는 가사와 선율의 변화 없이 재현(再現)되지만, 그 의미는 선행하는 가사의 맥락에 따라 한층 심화된다. 1절 직후의 후렴이 개인적 상실감에 관한 내면의 질문이었다면, 황량한 가을의 풍경을 묘사한 2절 뒤에 반복되는 후렴은 모든 것이 변해버린 폐허 위에서 울려 퍼지는 질문이기에 한층 더 공허하고 비극적인 무게를 갖는다. 후렴의 반복은 화자의 슬픔을 개인의 차원을 넘어, 되돌릴 수 없는 시간과 소멸해 버린 세계 전체에 대한 애가(哀歌)로 승화시키는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

3.2 <발여설> 가사 분석: 호방 미학과 전고의 번역

<동풍파>가 송사의 미학을 계승했다면, <발여설>은 한층 더 낭만주의적이고 비극적인 서사를 담고 있다. 이 곡은 이백(李白)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호방하고 과장된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며, 시간의 폭력성과 기다림의 영속성이 결합된 비련의 정조를 극대화한다.

곡의 핵심 은유는 제목 자체에 함축되어 있다. 팽원산은 이백의 <장진주(將進酒)>에 나오는 대장에서 영감을 얻었다.³⁴⁾ 이백은 “그대 보지 못했는가, 높은 집에서 맑은 거울을 보며 흰 머리카락을 슬퍼하니(君不見高堂明鏡悲白髮), 아침엔 검푸른 실 같더니 저녁엔 흰 눈같이 된 것(朝如青絲暮成雪)”³⁵⁾이라고 노래하며 시간의 흐름 앞에서 느끼는 인생무상의 비애를 압축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백의 시에서 머리카락의 변색은 거울 앞에서 느끼는 인생무상의 비애(悲哀)를 의미하지만, 팽원산은 머리카락이 희게 변하는 이미지를 사랑의 비장미(悲壯美)로 재해석한다. 그 방식은 이백의 원문에서 ‘髮(머리카락)’, ‘如(같다)’, ‘雪(눈)’ 세 글자를 가져와 ‘머리카락은 눈과 같다(髮如雪)’는 핵심 비유를 창조한 것이다. 원전의 글자를 가져와 ‘髮如雪’이라는 비유를 창조한 것은 전고 인용의 재맥락화이자, 기존 기호를 해체하고 재조합하여 새로운 정서 코드를 설계하는 상호텍스트적 기호 간 번역의 사례다.

제목이 암시하는 비극적 서사는 곡의 도입부에서부터 감각적인 언어로 펼쳐진다.

狼牙月 伊人憔悴
(이리 이빨 같은 달 아래 그대 수척해지고,
我舉杯 飲盡了風雪
(나는 잔을 들어 바람과 눈을 다 마셔버렸네)

33) <천정사·추사>의 우리말 번역은 시에위평, 권용호 옮김, 《원곡삼백수》, 서울: 학교방, 2023, 89쪽을 따랐다.

34) 方文山, 앞의 책, 2019, 24쪽.

35) <장진주>의 우리말 번역은 이백 지음, 이영주·신하운·임도현 옮김, 《이태백시집1》, 서울: 학교방, 2015, 225~226쪽을 따랐다.

是誰打翻前世櫃 惹塵埃是非

(누가 전생의 함을 엮어 흙먼지 일으키고 시비를 만들었나)

緣字訣 幾番輪回

(인연의 주문은 몇 번이나 윤회했나)

你鎖眉 哭紅顏喚不回

(그대 눈썹을 찌푸리네, 붉은 얼굴을 다시 부를 수 없네)

도입부는 ‘이리 이빨 같은 달(狼牙月)’로 차갑고 비극적인 분위기를 즉시 조성한다.³⁶⁾ ‘狼牙月’이라는 조어는 전통의 원만한 ‘달’ 이미지를 전복해, 정경교응의 예시로서 곡 전반의 비극적 정서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 화자는 ‘바람과 눈을 다 마셔버렸네(飲盡風雪)’라는 표현을 통해 시련을 감내하려는 비장한 의지를 드러낸다. 시련을 상징하는 바람과 눈을 마신다는 표현은 전화의 기법이 과장법을 통해 극대화된 사례로, 광원산 역시 이 구절이 두 수사법을 동시에 사용했다고 직접 설명한다.³⁷⁾ ‘누가 전생의 함을 뒤엎었나(是誰打翻前世櫃)’라는 설문은 사랑의 비극이 개인의 의지를 넘어선 운명적 사건임을 암시하며, 서사의 범위를 개인 서사에서 운명과 윤회의 차원으로 확장한다.

비극적 운명관은 곧이어 시공을 초월하는 사랑의 맹세로 이어진다.

縱然青史已經成灰 我愛不滅

(설령 역사가 이미 재가 되어버릴지라도, 나의 사랑은 꺼지지 않네)

繁華如三千 東流水

(번화함은 삼천 동쪽으로 흐르는 물과 같고)

我只取一瓢愛了解

(나는 오직 한 표주박의 사랑만을 취하네)

只戀你化身的蝶

(나비로 변한 그대만을 사랑하네)

‘역사가 재가 되어버릴지라도, 나의 사랑은 꺼지지 않네(青史成灰 我愛不滅)’는 이백의 호방한 기개를 연상시키는 과장법의 극치다. 역사의 소멸과 사랑의 불멸을 대비시키는 표현은 거대한 시공간 ‘역사(青史)’를 소멸시키는 과장을 통해 개인의 사랑을 영원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전화의 기법으로, 사랑의 절대성을 극적으로 부각한다. 이는 이백의 시에서 나타나는 장대한 스케일과 상상력을 사랑이라는 주제로 변주한 것으로, 전통적인 영웅적 기개를 현대적인 정서적 호방함으로 재해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랑의 절대성은 <홍루몽(紅樓夢)>의 ‘약수 삼천 리에 나는 오직 한 표주박의 물만 마시겠소(弱水三千, 我只取一瓢飲)’를 인용하며 절정에 달한다.³⁸⁾ 세상의 모든 변화함을 뒤로하고 오직 ‘한 표주박(一瓢愛)’만을 택하겠다는 선언은 화자의 지고지순함을 비장하게 드러낸다. ‘나비로 변한 그대(化身的蝶)’는 양산백과 축영대의 화접(化蝶) 설화를 인용하여,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초월적 차원에서 완성하려는 염원을 담아낸다.³⁹⁾

후렴구는 곡의 핵심 정서와 주제를 아름다운 언어로 응축한다.

你發如雪 淒美了離別

(그대의 머릿결은 눈과 같아 이별을 처연히 아름답게 하네)

我焚香感動了誰

(내가 피운 향은 누구를 감동시켰나)

36) 方文山, 앞의 책, 2019, 20-21쪽.

37) 위의 책, 27쪽.

38) 위의 책, 24-25쪽.

39) 위의 책, 23-24쪽.

邀明月 讓回憶皎潔

(밝은 달을 청해 추억을 하얗게 빛나게 하네)

愛在月光下完美

(사랑은 달빛 아래에서 완벽해지네)

후렴의 첫 구절인 ‘그대의 머릿결은 눈과 같아 이별을 처연히 아름답게 하네(你發如雪 淒美了離別)’는 전품의 대표적인 사례다. 형용사인 ‘처미(淒美)’를 동사로 활용하여 ‘이별을 처연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생성한다. 형용사를 동사로 사용하는 이 기법은 단순히 이별의 처연함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문장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애처로운 시적 정취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드러낸다.⁴⁰⁾ ‘그대의 머릿결은 눈과 같아(你發如雪)’라는 핵심 은유를 반복하며 이별의 비극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강조한다. ‘향을 사르고(焚香)’, ‘밝은 달을 청하는(邀明月)’ 행위는 고전적 서정과 비의(秘義)를 담은 의례적 행위로, 사랑하는 이를 위한 간절한 소망과 정화의 의지를 드러낸다. 특히 광원산은 이백 <월하독작(月下獨酌)>의 ‘술잔을 들어 밝은 달을 불러오고(舉杯邀明月)’에서 모티프를 가져와, 원전의 한 구절을 ‘잔을 드는’ 행위(我舉杯 …)와 ‘달을 청하는’ 행위(邀明月 …)로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재배치했다고 밝힌다.⁴¹⁾ 단순 차용을 넘어 원전을 창조적으로 해체, 재구성한 작법이다. 의례적 행위는 청취 차원에서 휴지와 잔향으로 전환되어 정화(淨化)의 정서를 길게 유지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사랑은 달빛 아래에서 완벽해지네(愛在月光下完美)’ 구절은 현실의 불완전함을 넘어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는 화자의 낭만적 이상을 집약한다.

후렴의 다음 연은 운명에 대한 체념과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다짐이 교차한다.

你發如雪 紛飛了眼淚

(그대의 머릿결은 눈과 같아 눈물을 흘날리네)

我等待蒼老了誰

(나의 기다림에 늙어버린 이는 누구인가)

紅塵醉 微醺的歲月

(속세에 취하고, 희미하게 취한 세월)

我用無悔 刻永世愛你的碑

(나는 후회 없이, 영원히 그대 사랑할 비석을 새기네)

머리카락의 눈(雪) 이미지는 ‘눈과 같아 눈물을 흘날리네(紛飛了眼淚)’와 연결되어 감정의 고조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 ‘나의 기다림에 늙어버린 이는 누구인가(我等待蒼老了誰)’는 설문(設問)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깊은 고뇌와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비애를 함축한다. ‘나는 후회 없이, 영원히 그대 사랑할 비석을 새기네(我用無悔 刻永世愛你的碑)’ 구절은 비극적 정서를 뛰어넘어, 시공을 초월한 사랑의 영원성을 선언하는 단호한 다짐으로 귀결된다.

곡의 마지막은 이전까지의 비장미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감성과 결연한 맹세로 극적인 반전을 이룬다.

啦兒啦 啦兒啦 啦兒啦兒啦

(라얼라 라얼라 라얼라얼라)

啦兒啦 啦兒啦 啦兒啦兒啊

(라얼라 라얼라 라얼라얼아)

銅鏡映無邪 紮馬尾

(구리 거울에 순수함 비추고, 머리를 묶네)

你若撒野 今生我把酒奉陪

(네가 제멋대로 살아도, 이 생 내 잔을 들어 기꺼이 함께하리)

40) 方文山, 앞의 책, 2008, 125쪽.

41) 方文山, 앞의 책, 2019, 25쪽. <월하독작>의 우리말 번역은 이백 지음, 이영주·신하윤·임도현 옮김, 《이태백시집1》, 서울: 학교방, 2015, 267쪽을 따랐다.

‘啦兒啦’로 반복되는 비언어적 후렴은 감정의 절정 이후 찾아온 여운과 해방감을 표현한다. ‘구리 거울에 순수함 비추고, 머리를 묶네(銅鏡映無邪 紮馬尾)’는 순수했던 시절의 이미지를 소환하여 현재의 다짐이 아름다운 과거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암시한다. 마지막 구절 ‘네가 제멋대로 살아도, 이 생 내 잔을 들어 기꺼이 함께하리’는 상대의 자유분방함을 탓하지 않고 그 삶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현대적이고 헌신적인 맹세로 곡의 대미를 장식한다. 고전적 비장미를 현대적 동반자 의식으로 매듭짓는 구성은, 중국풍 음악이 고전을 어떻게 현재의 감각으로 재창조하는지를 보여주는 독특한 서사적 해법이다.

4. 청취의 형식 분석

4.1 <동풍파> 청취 분석: 완약 미학의 음향적 구현

<동풍파>의 청취 경험은 섬세하게 계산된 절제를 통해 완성된다. 편곡가 린마이커(林邁可)는 화려한 악기 사용을 지양하고, 깨끗한 피아노 선율로 곡의 도입부를 열었다. 이는 작사가의 문학적 설계를 음향적 질감과 공간감으로 완성하는 기호 간 번역의 최종 단계로, 편곡가의 역할이 단순한 반주 제작을 넘어 텍스트의 정서를 청각적 실체로 구현하는 핵심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 여백의 사운드는 듣는 이가 “눈을 감고 ‘술잔 쥐고 땀나무와 삼에 관해 말한다(把酒話桑麻)’와 같은 정경”⁴²⁾으로 들어가게 만들며, 1절의 고독을 먼저 자리 잡게 한다. 고요함은 2절부터 R&B 스타일의 드럼 비트가 들어오면서 미세한 균열을 맞는데, 이는 단순히 현대적 색채를 더하는 것을 넘어, 송사 완약 미학의 내면적 고독감을 현대적인 고립감과 연결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로써 이 곡은 “중국 고전 음악의 골격과 서양 대중음악의 혈육(中國古典音樂的骨架和西方流行音樂的血肉)”⁴³⁾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이러한 동서양 음악의 결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선율과 편곡은 가사 속 문학 장치를 구체적인 소리로 번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저우제룬의 선율 작법은 단순한 고전의 재현을 넘어, 화자의 심리적 변곡점을 청각적으로 번역하는 독창성을 보여준다. 그 핵심적인 장치가 바로 오성음계의 안정적인 흐름 속에 미묘한 불안감과 애상을 자아내는 변음(變音) fa와 si의 장식적 활용이다. 예를 들어, ‘달이 차면 더욱 쓸쓸해지는(月圓更寂寞)’ 구절의 ‘圓’과 ‘寞’에서는 ‘fa’를, ‘누가 비파를 연주하는가(誰在用琵琶彈奏)’의 ‘琶’와 ‘彈’에서는 ‘si’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선율에 미묘한 균열을 낸다. 이러한 선율의 섬세한 설계는 편곡과 만나 더욱 구체적인 소리로 구현된다. 후렴구의 ‘누가 비파로 동풍파 한 곡을 연주하는가’라는 질문은 고쟁, 이호(二胡), 비파를 차례로 등장시켜 가사의 질문에 소리로 응답하는 청각적 번역으로 완성된다.⁴⁴⁾ 마찬가지로, 전화 기법의 사례인 ‘세월이 벽 위에서 벗겨져 떨어지는(歲月在牆上剝落)’ 시각적 이미지는 말끝의 미세한 늘어짐과 결합해 공간의 잔향감을 각인시킨다.

편곡이 마련한 청각적 배경 위에서, 저우제룬의 보컬 운용은 작사가의 문학적 설계를 감각적 체험으로 전환하는 최종적인 기호 간 번역을 수행한다. 가장 탁월한 사례는 ‘그리움에 수척해질 뿐(思念瘦)’이라는 구절이다. 그는 ‘아윈다(瘦)’는 시어의 의미를 사전적 정의를 넘어, 호흡을 소진시켜 가늘고 희미하게 사라지는 소리의 물리적 속성으로 직접 번역함으로써 청자가 추상적인 ‘수척함’을 감각적으로 체감하게 한다.

42) 方文山, 앞의 책, 2019, 5쪽. ‘把酒話桑麻’는 당나라 시인 맹호연(孟浩然)의 <과고인장(過故人莊)>에 나오는 구절이다. 번역은 손수, 임도현 옮김, 《당시삼백수1》, 서울: 문학과지성사, 2024, 488쪽을 따랐다.

43) 위의 책, 5쪽.

44) 잔잔히 배경을 이루던 비파 선율은 1절 후렴이 시작되는 1분 07초(1:07)부터 전면으로 등장하여 가사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구현한다. 이하 <동풍파>의 모든 타임스탬프는 공식 뮤직비디오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번역 전략은 당대에 제기된 ‘교자불청(咬字不清)’, 즉 발음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재해석하게 만든다. 그의 창법은 언어 기호의 명료한 의미 전달을 의도적으로 유보하는 대신, 목소리를 선율 및 리듬과 일체화시켜 음악적 텍스처의 일부로 편입시킨다. 이러한 창법은 가사의 의미 전달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의 지시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목소리의 물리적 속성 자체를 기호로 활용하여 곡이 지닌 애상적 정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언어의 의미를 넘어 곡이 지닌 절제된 애상을 청자의 내면에 직접 공명시키는, 고도로 정교한 기호 간 번역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보컬의 섬세한 표현력은 곡의 서사 구조를 완성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예컨대 ‘한 주전자의 방랑, 쉽게 들어켜지지 않는 술(一壺漂泊浪跡天涯難入喉)’ 구절은 곡 안에서 반복되지만 단순한 재현에 머무르지 않는다. 첫 등장과 달리 곡 후반부의 보컬은 더욱 애절해진 음색과 자유로운 박자감의 루바토(rubato) 기법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가 자신의 감정에 온전히 몰입하는 과정을 그려낸다.⁴⁵⁾ 루바토 기법은 <발여설>에서 나타나는 직선적인 랩과 폭발적인 고음이 감정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명확히 대비된다. 즉, 감정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박자를 유연하게 조절함으로써 완약 미학의 핵심인 여운과 내면적 깊이를 청각적으로 구현하는 정교한 장치라 할 수 있다.

4.2 <발여설> 청취 분석: 호방 미학의 음향적 구현

<발여설>은 가사가 먼저 완성된 선사후곡 방식으로 창작되어, 가사의 서사 구조가 음악 형식 전반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특징을 보인다. 선사후곡 창작 방식의 효과는 곡의 도입부에서부터 명확히 드러난다. 약 10초간 이어지는 빗소리와 먼지 쌓인 칼자루를 여는 듯한 날카로운 음향 효과는 서사의 비극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⁴⁶⁾

이는 <동풍파>가 청각적 여백과 잔향을 통해 자연과 여운의 미학을 조성했던 것과 달리, <발여설>은 시작부터 감각을 장악하여 절정으로 나아가는 호방 미학의 전략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점이다. 피아노와 고쟁의 조화로 구성된 동서양 퓨전의 청취 환경 위에서, 저우제룬은 서사를 입체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세 가지 다른 창법을 구사한다. 팽원산의 해설에 따르면, 그는 1절의 낮은 독백으로 서사를 전달하고, 간헐적으로 배치된 랩으로 긴장감을 부여하며, 후렴구의 ‘홍진에 취하고(紅塵醉)’ 부분에서 터져 나오는 고음으로 감정을 폭발시킨다.⁴⁷⁾ 가사의 문학적 장치를 청각적으로 번역하려는 시도는 ‘누가 전생의 함을 엮었나(是誰打翻前世櫃)’라는 설문에서도 나타나는데, 저우제룬은 이 부분에 미세한 휴지를 삽입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뒤따르는 선언적 구절이 더 큰 추진력을 얻도록 설계했다.⁴⁸⁾ 이와 같은 세심한 설계는 음향 효과, 악기 편성, 보컬 운용이라는 세 차원으로 확장되어, 가사의 서사를 충실히 따르는 하나의 청각적 서사를 완성한다.

<발여설>의 선율은 <동풍파>와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장식음 fa와 si를 활용했던 <동풍파>와 달리, <발여설>은 장식음을 완전히 배제한 ‘순수혈통’의 오성음계로만 작곡되었다. 팽원산은 이 곡이 일반적인 오성음계와 달리 음역을 아래로 확장(sol, la, do, re, mi, sol, la, do)하여 독특한 선율의 폭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한다.⁴⁹⁾ 이처럼 동양적 선율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도 편곡은 피아노, 저음의 더블베이스, 묵직한 드

45) ‘一壺漂泊浪跡天涯難入喉’ 구절의 첫 등장은 0분 41초(0:41)에 위치하며 담담한 톤을 유지하지만, 곡 후반부인 2분 30초(2:30)에 반복될 때는 한층 더 애절하고 자유로운 박자로 표현되어 감정의 심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46) 0분 10초(0:10)에 등장하는 금속성 사운드를 지칭한다. 이하 <발여설>의 모든 타임스탬프는 공식 뮤직비디오를 기준으로 한다.

47) 方文山, 앞의 책, 2019, 20쪽. ‘紅塵醉’의 폭발적인 고음은 4분 03초(4:03)에서 확인할 수 있다.

48) 해당 구절은 0분 33초(0:33)에 나타나며, ‘前世櫃’라는 단어 직후 약 1초간의 분명한 휴지가 삽입되어 있다.

49) 팽원산은 “이 곡의 키가 매우 높아 남성 가창자가 진성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곡”이라고 덧붙였다. 위의 책, 18-19쪽.

럼 비트를 통해 강한 서양적 율동감을 부여한다. 순수한 오성음계 선율에 묵직한 서양식 리듬을 결합한 이 음악적 장치들은 가사의 호방한 수사법과 직접적으로 조응한다. 특히 피아노와 더블베이스 위로 쌓이는 묵직한 R&B 드럼 비트는 시공을 초월하는 서사에 직선적인 추진력을 부여하며, 당시의 호방한 기개를 심장 박동처럼 체감 가능한 에너지로 번역해낸다. ‘설령 역사가 재가 되어도(縱然青史已經成灰)’와 같은 거대한 과장법은 웅장한 편곡과 폭발적인 고음으로 번역되어 사랑의 절대성을 청각적으로 증명한다. 또한 팽원산이 직접 전품 수사법의 사례로 꼽은 후렴구의 백미, ‘이별을 처연히 아름답게 만드네(淒美了離別)’는 기호 간 번역의 정수를 보여준다.⁵⁰⁾ 형용사를 동사로 바꾸어 이별을 ‘아름답게 만드는’ 능동적 행위는 맑고 높게 뻗어 나가는 선율 그 자체로 실현된다. 즉, 아름다운 선율이 이별을 미화하는 가사의 행위를 그대로 수행하며 문학적 설계를 감각적 체험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다.

곡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라얼라(啦兒啦...)’ 허밍은 이 곡의 백미라 할 수 있다. 팽원산이 “진지한 척하며 진심을 노래하는(假正經唱真性情)”⁵¹⁾ 창법이라 묘사했듯, 저우제룬은 장난스러운 듯 무심한 음색으로 언어적 의미가 비워진 자리에 순수한 정동(情動)을 채워 넣는다. 가사의 비극적 서사가 마무리된 후 찾아오는 호흡의 공백은 복잡한 서사나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청중이 즉각적으로 참여하고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이는 고전의 비장미를 현대적 해방감으로 마무리하며, 중국풍 음악이 어떻게 고전 서사를 동시대의 감각으로 재창조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순간으로 각인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두 곡의 상징성에 집중하였으므로, 분석 결과를 중국풍 음악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텍스트와 청취의 내적 원리 규명에 방점을 둔 만큼, 음악 속 미학적 장치가 실제 청중의 수용 과정이나 사회문화적 맥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50) 위의 책, 28쪽.

51) 팽원산은 이 창법의 효과를 “삼 할의 희롱과 육 할의 진정성, 그리고 나머지 일 할의 진지함(三分嬉戲, 六分真情, 剩下一分就是正經)”이라는 절묘한 비율로 설명하며, 계산된 무심함에 가깝다고 평했다. 方文山, 앞의 책, 20쪽.

董永故事14-18世纪在朝鲜半岛的传播与接受

左维刚*

<目次>

【摘要】

1. 引言
 2. 仕人编撰：《孝行录》中的董永故事
 3. 明朝赐书：《孝顺事实》中的董永故事
 4. 视觉化叙事：《三纲行实图》中的董永故事
 5. 本土化：《五伦行实图》中的董永故事
 6. 董永故事在朝鲜半岛的在地回声
 7. 结语
- 参考文献

【摘要】

董永故事作为中国古代孝道叙事的重要范本，自汉代以来广为流传，在高丽末期经《孝行录》首次传入朝鲜半岛。之后，董永故事又出现在明朝给朝鲜王室的赐书《孝顺事实》一书中，后又被朝鲜朝官方编撰的伦理图书《三纲行实图》《谚解三纲行实图》与《五伦行实图》收编。董永故事的朝鲜半岛流传脉络，展现了不同版本董永故事的图文形式、编撰主体、编辑意图及对象读者等方面的差异。另外，“孝女知恩”“织女与樵夫”等朝鲜半岛本土故事，为董永故事在跨文化语境中的在地化接受提供了接受语境。董永故事在朝鲜半岛的接受，也为当代中华文化传播的“在地表达、多元叙事”提供了重要启示。

* 湖北工程学院文学与新闻传播院，韩国外国语大学孔子学院，文学博士，讲师。

1. 引言

董永故事即讲述董永卖身葬父，感动天地，神女下凡为妻，助其偿债的故事。众多学者对董永故事在中国的文本流变、叙事重心等，已做了详细梳理。一般认为，汉代董永画像中山东武梁祠后壁董永画像，是目前已知最早的董永画像，最早文字记录则是曹植所作的《灵芝篇》。之后，其主要情节和叙事重点不断变化，而直至元代郭居敬摭采二十四孝故事，其将董永传说概括为“葬父贷方兄，天妃陌上迎。织绢偿债主，孝感尽知名”¹，正式将“卖身葬父”视为董永故事的叙事重心，之后明代《孝纪》《日记故事》《天中记》《钱通》《大明一统志》等文本中的董永故事也均遵照了这一说法。而随着明太祖在民间大力推行宣讲教化，“二十四孝”在民间广泛传播，董永故事在中国由此定型。

董永的孝行叙事在东亚文化圈，尤其在高丽与朝鲜王朝时期的朝鲜半岛，被不断选编、图像化、庶民化，成为儒家伦理教化的重要文本资源。自高丽末期的《孝行录》起，董永故事首先以文字形式被引入民间，为士大夫自发编撰，已体现出“孝感动天”理念的文化吸引力。进入朝鲜王朝后，董永故事被收编在明朝赐予朝鲜王室的汉文典籍《孝顺事实》中，展现了中国孝故事传入朝鲜半岛的另一种路径。朝鲜世宗朝时期《三纲行实图》将董永故事制度化，并通过视觉叙事强化其教化功能。之后的《谚解三纲行实图》和《五伦行实图》则以韩文“谚解”或近代韩文转译汉文，实现教化语境由士林贵族向“愚夫愚妇”的普及转向。另外，朝鲜半岛本土的“孝女知恩”“织女与樵夫”等故事在情节结构与情感逻辑上与董永故事形成共鸣，这也有利于董永故事在朝鲜半岛民间的进一步接受与改写。

2. 仕人编撰：《孝行录》中的董永故事

董永故事在朝鲜半岛最先出现于高丽末期《孝行录》一书。该书为董永故事在朝鲜半岛首次被有意识地收录与传播的文献，于高丽忠穆王二年（1346）由当朝文臣菊斋国老权溥（1262—1346）、其子府院君吉昌权公权准（1280—1352）、女婿益斋居士李齐贤（1288—1367）共同编纂，分前后两卷，共收集62个中国孝故事。董永故事，在前卷第四篇，题目为“董永赁身”，正文如下：

董永，千乘人也。佣力养父，父死，就主人，贷钱一万以葬，还遇一妇于路，求为永妻，俱诣主人，主人曰：“织缣三百，放汝夫妇。”妇织之，一月而毕，辄辞永曰：“我天之织女，天帝令助君偿债耳。”

赞：栾栾孝子，千乘董氏，佣力以养，赁身以葬，路逢美妇，为妻偿负，日织缣帛，一月三百。偿毕告语：“我乃织女，天遣偿汝。”乘云而去。

注：生而佣力以养之，没而赁身以葬之。其贫窶虽甚，而其诚孝亦极，故上感天心，下遣织女，以偿所负，感应之速，亦如此云。

¹ 郭居敬：《全相二十四孝诗选》，明洪武年间初刊本，中国国家图书馆藏。

《董永賃身》收录于《孝行录》一书，了解《孝行录》的成书动机及受众，有助于了解此故事在当时朝鲜半岛的传播情况。《孝行录》的编撰、刊行最初处于权门家族的私人动机。“晨昏色样，得其欢心”“欲令文正，玩乐於心，以忘其老”（《孝行录·后序》），直接源于过六旬儿子权准为取悦八旬父亲权溥而起，“赞”是权溥女婿所作，“注”是权溥的曾孙权近所作，因此《孝行录》可视为家庭的私人娱乐产物。同时，考虑权溥、权近、李齐贤、权近，四人是著名的学者、都出自高丽末朝、鲜朝初期的名门望族，同属士大夫阶层，《孝行录》的编撰过程体现了权氏家族将孝道奉为伦理核心的家族传统，也反映出高丽末期士大夫在私人情感、家族教化与社会道德倡导之间的互动关系；同时，该书的出现，也是时代的产物。金勋埴认为，高丽后期《孝行录》的编撰、刊行，是对当时家庭秩序混乱的道德性批评，同时，这也体现了高丽末期士大夫试图通过传播儒家家庭伦理，特别是强调父母的权威，来化解围绕财产继承的家庭成员间的冲突的意愿，也是维持高丽后期统治阶层的家族力量，以及基于这种家族力量的统治阶层为维护既得利益的思想的一环。²

就《孝行录》收录的《董永賃身》传播效果而言，根据目前可查询的资料，无直接文献可以说明《孝行录》故事对于“田野之民”或对于作为童蒙对象的士大夫弟子的影响。尽管如此，《孝行录》所载董永故事明显抑制了董永故事中仙女织女下凡的神话色彩，确立了“孝以感天”的伦理叙事核心，符合高丽本土伦理期待的行为规范，体现了理性务实的教化需求及文化适应性；《孝行录》所载董永等故事在士大夫阶层内部产生重要影响，“至我国世宗之《三纲行实》，正祖朝之《五伦行实》，实本于此”³，为后续国家主导的图像教化雷作品编撰提供了内容蓝本和叙事范式。

3. 明朝赐书：《孝顺事实》中的董永故事

朝鲜朝流传的明朝孝故事《孝顺事实》一书，收录董永贷钱等孝行最为卓著的207位人物的孝故事。该书并非朝鲜本国人编辑，而是明代朝廷直接赐予朝鲜王室的汉文典籍，其传入背景、性质与高丽本土文人编纂的《孝行录》、以及后来的《三纲行实图》《五伦行实图》有着本质区别，这种“朝廷赐书”的形式，也代表了中国孝故事传入朝鲜半岛的另一种路径。

《孝顺事实》董永故事题目为“董永贷钱”，为第二卷第三个故事，内容如下：

董永干乘人，少失母，独养父，父死无以葬，乃从人贷钱一万。永谓钱主曰：“后若无钱还君，当以身作奴。”主甚悯之。永得钱葬父毕，将往为奴，于路忽逢一妇人求为永妻。永曰：“今贫若是，身复为奴，何敢屈夫人为妻？”妇人曰：“愿为君妇，不耻贫贱。”永遂将妇人至，钱主曰：“本言一人，今乃有二。”永曰：“言一得二，理何乖乎？”主问永妻曰：“何能？”妻曰：“能织耳”。主曰：“为我织绢三百匹，即放余。”于是索丝，一月之内三百匹绢足。主惊，遂放夫妇二人而去。行至旧相逢处，

² 金勋埴，高丽后期的《孝行录》普及，韩国史研究（73），第35-36页。

³ 权泰夹，菊斋先生孝行录重刊序，尹浩镇译，孝行录，景仁文化社，第222页。

乃谓永曰：“我天之织女，感君之至孝，天使我为君偿债，君事了，不得久停。”语讫，云雾四垂，腾空而去。

夫人子之于亲，生事死葬，力可为者，宜无所不至。董永丧父，家贫无以为葬，乃以身质钱，以襄大事，使其父得安厝于地下，庶有以答冈极劬劳之万一，此所谓无所不至也。既葬其亲，不失信于人，乃往就佣。其一念之诚，固有以感动天地，遂致神人之助。世谓天道远、人道迩。夫人事修于身，则虽远者必应；苟其孝有不诚，虽于人且不能动，而况于鬼神乎？此董永之孝，所以为不可及也。世有不孝之徒，不能尽事亲之道者，闻永之风，宁不惕然内疚乎？

诗曰：得钱一万葬其亲，身拟为佣报主人，岂料孝心终感格，天教织女助身贫。

又：孝念终能感上天，为教织女助还钱，一月足缣三百匹，飘然分手上云烟

《孝顺事实·董永贷钱》正文与《孝行录·董永赁身》正文进行比较可以发现，《孝顺事实·董永贷钱》较《孝行录·董永赁身》在葬父情节上，《孝行录·董永赁身》“父死，就主人，贷钱一万以葬”更显简洁直接，《孝顺事实·董永贷钱》“父死无以葬，乃从人贷钱一万”，则更强调无钱可葬的窘迫；遇女情节上，《孝行录·董永赁身》简短叙述，无对话，《孝顺事实·董永贷钱》则注重对话，更具叙事张力，更显故事情节的逻辑性；另外，在织女表现和身份揭示上，《孝顺事实·董永贷钱》“一月之内三百匹绢足，主惊”，这里主人的反应“惊”，强调了奇迹性，更显神迹、具神话色彩，“感君之至孝，天使我为君偿债”也更加显示了“孝感”的主题。另外，比较《孝顺事实·董永贷钱》与后期《三纲行实图》中的孝故事，也可以发现，《三纲行实图》中的董永故事《董永贷钱》的诗“得钱一万葬其亲，身拟为仆报主人；岂料孝心终感格，天教织女助身贫；孝念终能感上天，为教织女助还钱。一月足缣三百匹，飘然分手上云烟”和《孝顺事实·董永贷钱》中李齐贤所写“诗”完全一致。另外，在正文表述与《孝顺事实》中的董永贷钱故事的表述基本一致，可视为其简化版本。

《孝顺事实》不断引起中国国内外学者注意，近期在韩国也发现了该书的珍贵藏本。虽然它并非朝鲜时代的流传本，但作为保存了“甲寅字”字本源流的重要典籍，其在印刷史上的意义依然不容忽视。

4. 视觉化叙事：《三纲行实图》中的董永故事

《三纲行实图》（1434）是朝鲜王朝初期国家主持编撰的代表性教化书，是董永故事在朝鲜朝由民间伦理向国家意识形态转化的重要转折。根据序言，《三纲行实图》的编纂制作，由朝鲜王亲自“命集贤殿副提学臣契循，掌编摩之事”，具有强烈的儒家政治伦理背景与国家意识形态色彩。编撰意图明确，旨在教化“愚妇愚夫”，“皆得易以观感而兴起，则亦化民成俗之一道。”。董永故事收录于《三纲行实图·孝子篇》第二十五个故事，题目为“董永贷钱”，具体内容如下：

董永，千乘人，父亡无以葬，乃从人贷钱一万，曰，“后如无钱还，当以身作奴。”葬毕，将往为奴，于路忽逢一妇人求为妻。永曰：“今贫若是，身复为奴，何敢屈夫为妻？”妇人曰：“愿为君妇，不耻贫贱。”永遂将妇人至，钱主问永妻曰：“何能？”妻曰：“能织。”主曰：“织绢三百匹，即放。”于是一月之内，三百匹绢足。主惊，遂放二人而去。行至旧相逢处，谓永曰：“我，天之织女，感君至孝，天使我为君偿债。”语讫，腾空而去。

诗：得钱一万葬其亲，身拟为仆报主人，岂料孝心终感格 天教织女助身贫；孝念终能感上天，为教织女助还钱。一月足缣三百匹，飘然分手上云烟。

赞：栾栾孝子，千乘董氏，佣力以养，赁身以葬，路逢美妇，为妻偿负，日织缣帛，一月三百，偿毕告语，我乃织女，天遣偿汝，乘云而去。

根据박순이的研究，《三纲行实图·孝子篇》的“董永贷钱”篇，文本内容是来源于《孝顺事实》的“董永贷钱”篇。比较二者在故事文本上异同，发现《三纲行实图》“董永贷钱”，较之《孝顺事实》的“董永贷钱”篇，保持了故事的主要情节和“孝感于天”的核心意义，但文字更现简练，弱化了情感描写，简化对话，删掉次要情节，可视为后者的简化版，这也方便了董永故事图像化的传播。

《三纲行实图·孝子篇》的“董永贷钱”篇又在文字和图像并用的基础上，对董永故事进行了视觉化与情节化的改编，使其更加通俗易懂、教化效应更强。在该图册中，董永故事配有图画一幅图四个场面，并附以汉文内容。原始图像，通过一图四场面空间上的连续布局，依次呈现了董永“床前守孝”“卖身葬父”“织布偿债”及“依约分离”等关键情节。这些图像通过视觉压缩强化记忆，将抽象伦理可视化、规范化。

《三纲行实图》所收集董永等孝行故事在当时在朝廷直接干预下，得以一定范围内的广泛传播。世宗在《三纲行实图》刊行不久，就下令“颁赐《三纲行实》于宗亲及臣僚，又赐诸道”；之后世祖1455年“庚申/赐璫、玪、璫、郑惊酒馔于配所，赐惊《三纲行实》一秩。”中宗，也命令对《三纲行实图》“加数印出下送”。尽管如此，《三纲行实图》所收集董永等孝行故事的传播与接受，由于篇幅之大，汉文书写等局限性，致使其并未真正深入到百姓之中，呈现出明显的阶层性限制。全敬睦则认为，执行王命的地方官吏，特别是观察使和守令的执行不力，则是导致《三纲行实图》传播效果有限的首要原因。⁴

这一接受局限性说明，《三纲行实图》的传播更有效的影响对象是受教育的中上层群体，而普通民众的价值观与日常生活，并未因这一国家编纂的图像教化文本而产生根本性转变。这也为后来的《谚解三纲行实图》与《五伦行实图》提供了改进空间，即通过谚解与韩文翻译来弥补大众接受的断层，真正推动儒家伦理向下层社会的渗透。

朝鲜王朝成宗21年（1490）又推出了《谚解三纲行实图》。《谚解三纲行实图》该版本从《三纲行实图》111个故事中，选取35个孝故事，其中保留了朝鲜半岛的4个

⁴ 전경복, <삼강행실도>의 편찬 배경과 조선 초·중기 사회의 변화,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후머니스트, 2008, p87.

本土故事，中国故事31个，董永故事位于第十一个。其题目、故事、诗、赞，图，和《三纲行实图》完全一致，就是在图上面添加了韩文谚解。

较之故事的汉文文本而言，韩文谚解文字整体语言直白、亲切，无对话，更接近日常口语，文字解释董永为何要卖身、织女为何愿意帮助、二人为何必须分别，这些叙述使画面中的复杂情节得以简明化、情理化。从韩文谚解文字自身的发展历史来看，这些韩文谚解文字离1446年朝鲜王朝世宗大王诏书“训民正音”不过近五十年时间，如此通过国家推行方式，大量使用韩文谚解文字，大大打破了汉文壁垒，使图像真正具有“全民可读性”，扩大了接受群体。

与《三纲行实图》相比，《谚解三纲行实图》对董永形象的重构淡化孝义背景，弱化信义与因果，强化“爱情短暂—命运阻隔”的叙事逻辑，更接近后世“董永与七仙女”的民间爱情传说。在《孝行录》中，织女的身份揭示极为简短：“我天之织女，天帝令助君偿债耳”，直接表明她是受命下凡。《孝顺事实》则进一步强调因果关系：“感君之至孝，天使我为君偿债”，把织女的出现解释为孝感动天的结果。谚解改写的版本则完全不同，织女说自己“因违天规暂下凡间，现在天帝召唤必须返回”，她的出现不是“奖孝”，而是“因过受罚”。这种转变显著地削弱了儒家“孝感于天”的核心，转而接近“七仙女下凡”的爱情—神话模式。

可见，《谚解三纲行实图》在继承《三纲行实图》政治伦理框架的基础上，实现了面向大众的教化话语转型。此一转变不仅反映了朝鲜王朝教化制度的层级结构，也为后世伦理文化的传播与接受提供了范式，凸显出传统故事在社会治理与文化认同中的多重功能。

5. 本土化：《五伦行实图》中的董永故事

《五伦行实图》（1797年）是朝鲜朝国家层面进一步将董永故事置于“五伦”框架中加以再诠释的书籍。《五伦行实图》第一目录孝子，保留了《谚解三纲行实图》（35个故事）董永故事。《五伦行实图》中董永故事被保留，不仅仅是文化选材的问题，更是国家政治伦理建构的实践。

图画内容的极度裁剪与伦理焦点的转移是《五伦行实图》中董永故事最突出的变化之一。在本图册中，董永故事的画面不同于《谚解三纲行实图》中董永“卖身葬父”“勤织还债”“感动上天”等多个情节叠加，而是将视觉叙事的焦点集中在两人关系分别的瞬间“夫妻辞别升天”。这种情节压缩不是简单的省略，而是一种视觉叙事焦点的转移，即由道德行为转向情感起点，是对“夫妇之义”的强调，更体现了朝鲜社会对伦理核心的阶段性关注变化。

另外，《五伦行实图》中董永孝子图像构图的本土化特征尤为突出，成为董永故事在朝鲜社会重新被接受的重要视觉支撑。首先，山水背景的描绘展现出鲜明的地域性特征。山体轮廓线条简练而富有力度，树木以点簇式笔触勾勒，风格接近朝鲜“真景山水”的写实传统，而非明清画风的繁复设色。其次，人物造型的在地化同样显著。董永戴笠、着宽袍，形象与朝鲜社会的农夫或士人接近，而不再是汉式服装的“孝子”；

《五伦行实图》故事文本显示出朝鲜后期对董永故事的改写，在文字层面上体现出鲜明的大众化倾向。与《谚解三纲行实图》相比，该版本删去了图像上方的谚解韩文，却在正文叙事中提供了较为完整的韩文译文，使其能借助母语叙事，愚夫愚妇、乡村子弟乃至家庭妇女等更广泛的基层群体，都能够直接理解故事所承载的伦理意涵。由此，《五伦行实图》不仅延续了董永故事的孝道传统，更通过语言转换与传播对象的扩展，推动其成为朝鲜社会后期更具普遍性和日常性的道德资源。

可见，《五伦行实图》对董永故事的改写，体现出朝鲜晚期教化图像在叙事策略、视觉表达、伦理定位上的深刻转型。从多情节的“孝子”叙事，简化为“一幕情缘”的“夫妇”图像，这种改编不仅表现了儒教伦理融合情感化、关系化的趋势，也彰显了图像传播本土化、亲民化的需求。董永的意义也由国家秩序的象征，转向了普通人家庭关系的情感范式，显示出传统文化故事在朝鲜图像伦理演化中的再创造能力。

6. 董永故事在朝鲜半岛的在地回声

1. 효녀지은

2. “织女与樵夫”传说

7. 结语

董永故事在朝鲜半岛的接受脉络清晰，为当代中国文化“走出去”提供了重要启示。第一，跨文化传播须以“在地化”为核心策略。董永故事之所以能在朝鲜半岛延续，并产生政治伦理上的影响力，关键在于其叙事结构与朝鲜半岛本土的故事语汇、伦理期待实现了深度对接。在当下“走出去”讲好中国故事的语境中，尊重各国文化接受方式，以在地故事结构与感情逻辑作为文化转译的支点，显得尤为重要。另外，图像与语言的复合传播极具教化效力。从《三纲行实图》到《谚解三纲行实图》，从汉文到谚解，从士人阅读到庶民理解，董永故事展示了传统图像叙事在视觉说服、伦理导向和教育普及上的巨大潜能。数字时代的中国文化输出亦应重视图像表达、多语种转换和视觉叙事策略的重构。第三，传统故事需要情感的“底层共通性”。董永故事在朝鲜的接受，部分基于其与民间叙事的共鸣逻辑。因此，在对外传播中，应注重提炼中国故事中可引发普遍情感共鸣的母题，以提升文化软实力的感染力。

参考文献

略

중국의 SF 영화 속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강설금*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영화에 나타난 타자성과 이타성
 3. 인류 사회 보편적 위기에 대한 폭로
 4.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서양 철학자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활용하여 세 편의 SF 영화 속 주인공의 정체성 수립 과정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근래에 중국에는 『유랑지구』 (2019), 『소설가 암살』 (2021), 『문맨』 (2022) 등 SF 대작들이 줄이어 등장했다. 필자는 근래에 개봉한 세 편의 SF 영화 『크레이지 에이리언』 (2019), 『내 여자친구는 로봇』 (2020), 『우주탐사편집부』 (2023)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세 작품 모두 평범한 사람이 현실에서 겪게 되는 실업 위기, 연애 위기, 가족 위기를 통해 현대인들의 소시민적 삶을 적절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었다. 레비나스는 얼굴 마주하기, 남녀 간 사랑의 감정, 아버지 되기 등을 타자철학의 중요한 기제로 제시했다. 세 작품은 얼굴-사랑-아버지되기에 대응하며 레비나스의 정체성 이론에 부합한다.

1. 서론

최근 중국에서 다수의 SF 영화들이 선보이고 있다. 『유랑지구』 (2019)의 성공 이후 후속편이 나왔으며, 『소설가 암살(刺殺小說家)』 (2021), 『문맨(獨行月球)』 (2022), 『749局』 (2024) 등 SF 대작들이 연이어 개봉했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세 편의 SF 영화를 선정해 다루고자 한다. 『크레이지 에이리언(瘋狂的外星人)』 (2019)은 우연한 사고로 지구에 홀로 떨어진 외계인을 원숭이로 오해한 조련사가 그에게 서커스를 시키다가 정체를 알아보고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다. 『내 여자친구는 로봇(我的女友是机器人)』 (2020)은 미래 사회의 인공지능 로봇이 발명자의 지시에 따라 2020년으로 돌아가 인류를 구원한 이야기다. 『우주탐사편집부(宇宙探索编辑部)』 (2023)는 외계인의 존재를 확고하게 믿는 남자 주인공이 동료들과 함께 외계인 탐색에 나선 이야기이다. 세 편 모두 외계 문명, 미래 문명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표현한다. 세 작품에 대한 연구는 현대 중국 SF 영화의 특징과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객원교수

세 작품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SF 장르의 기술적, 내용적 특징과 서사구조, 스토리텔링 방식에 대한 탐구에 집중한다. Liu Qing-xu, 나민구는 멀티 모달 기호 체계를 기반으로 『우주탐사편집부』 속 은유로 구성된 우주의 다양성을 살폈다. 천하이화는 『크레이지 에이리언』 속 공간 구조, 공간 기능, 공간 서사를 통해 중국 SF 영화의 공간적 특징을 연구했다. 보메이는 『우주탐사편집부』를 ‘위장영화’로 규정하고 장르적 특징을 살폈다. 그는 이 영화를 코로나 시대 사람들의 대응적 서사로 간주하면서 위로부터의 봉쇄와 아래로부터 행해진 ‘냉-연애’와 ‘냉-혁명’의 반향 의식을 고찰했다. 리마요는 『우주탐사편집부』, 『크레이지 에이리언』의 운명공동체 의식과 민족 정체성, 환경 보호, 코미디 요소의 창의적 결합 등의 서사 전략을 연구했다.¹⁾

한국 웹툰 『문유』를 각색하여 만든 중국의 SF 영화 『문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곡려사문현선은 영화 속 영웅주의를 ‘카니발적’ 영웅으로 규정하고, 해학적이고 희화화된 영웅관을 소개했다. 손주연·오명선은 『문맨』을 신주류영화로 정의했고, 김은영은 트랜스미디어-트랜스내셔널 스토리텔링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했다. 서수민은 한국 웹툰 『문유』와 중국 영화 『문맨』에 나타나는 매체전환 과정의 스토리텔링 구성, 시각적 장면의 구도, 관객 수용 등을 살펴보았다.²⁾

최근 중국에서 개봉한 SF 영화들은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블록버스터급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애국주의, 국가주의, 영웅주의 등을 표방하거나 전 인류의 위기를 다룬다. SF 대작들은 기술적인 측면, 특수효과, 웅장한 스케일 면에서 할리우드 영화에 버금가는 양상을 보인다. 본 고에서 다룰 영화들은 기존 중국의 SF 영화와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세 작품 모두 중국의 보통 시민이 일상에서 겪을 법한 주제를 담고 있다. 『크레이지 에이리언』은 원숭이 서커스에 집착하는 남자주인공의 실업 위기와 동물학대에 관한 이야기다. 『내 여자친구는 로봇』은 외모도 직장도 경제력도 평범한 남자가 겪는 연애의 시련에 관한 내용이다. 『우주탐사편집부』는 제대로 된 일자리 없이 허황된 꿈만 좇아다니는 중년 남성의 가족 이야기다. 세 편 모두 보통 사람이 현실에서 겪게 되는 실업, 연애, 가족 위기를 통해 현대인들의 소시민적 삶을 개성 있게 보여주면서 많은 공감대를 얻었다. 그리고 소시민의 정체성 형성 과정, 주체와 타자 사이 관계 형성 과정도 낱알이 보여주었다. 이에 본고는 서양 철학자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활용하여 세 편의 SF 영화 속 주인공의 정체성 수립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현대인은 소중한 관계로부터의 소외로 고통받고 있다. 종교학자 마르틴 부버(1878~1965)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인간의 소외와 교류의 단절이다.³⁾ 기계와 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성행함에 따라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상실하고 정신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익명성과 대중성을 강요하는 이러한 ‘비인간화 현상’의 해결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 본 고에서 다루는 세 영화 작품 모두 타자로부터의 소외와 이를 극복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프랑스 사상이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타자철학의 창시자이다. 그에 따르면 주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

1) Liu Qing-xu·나민구, 「中国电影『宇宙探索编辑部』的多模态隐喻考察」, 『중국어연구』 108, 중국학연구회, 2024; 천하이화, 「류츠신의 소설을 영화화한 공간서사 연구: 『유랑지구1』, 『유랑지구2』, 『미친 외계인』을 중심으로」, 『영화교육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영화교육학회, 2024; 보메이, 「영화로 보는 시대적 감정: 한국의 에로영화대만의 리얼리즘 영화-중국의 페이크 다큐에 나타난 연애와 혁명의 이중변주」, 『아시아영화연구』 제17권 제1호,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24; 리마요, 「중국 SF 영화의 서사 전략에 관한 연구: 『유랑지구』, 『우주탐사 편집부』, 『미친 외계인』을 중심으로」, 『영화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영화교육학회, 2025.

2) 곡려사문현선, 「중국 현대 코미디 영화에서 영웅 이미지의 희화화 연구: 카ixin마화(開心麻花) 영화 『문맨(獨行月球)』을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제17권 제1호,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24; 손주연·오명선, 「로맨스 코미디에서 신주류영화로의 변주—SF+코미디(科幻+喜劇) 『문맨(獨行月球)』 연구」, 『中國學論叢』 83,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24; 김은영, 「한중 트랜스미디어-트랜스내셔널 스토리텔링 사례 연구: 『문유』에서 『독행월구』로」, 『한중언어문화연구』 70,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2023; 서수민, 「중국적 맥락에서의 K웹툰 매체전환 사례 연구-웹툰 『문유』와 영화 『문맨 Moon Man』을 중심으로」, 『트랜스』 17, 성균관대학교 트랜스미디어연구소, 2024.

3) 강선보, 『(마르틴 부버) 만남의 교육철학』, 서울: 피와이메이트, 2018, 12쪽 참조.

임을 맡으면서 생기는 것으로, 정체성은 책임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책임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책임은 끝없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레비나스는 얼굴 마주하기, 남녀 간 사랑의 감정, 아버지 되기 등을 타자철학의 중요한 기제로 제시했다. 그는 주체성은 타자 내지는 타인에 대한 무한 책임에서 생성되며 그것은 타자를 얼굴로 마주할 때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 주체는 남녀 간 사랑, 아버지되기 등을 통해 진정한 이타적인 정체성을 확립한다. 세 작품은 얼굴-사랑-아버지되기에 대응하며 레비나스의 정체성 이론에 부합한다.

2. 영화에 나타난 타자성과 이타성

(1) 크레이지 에이리언(2019): 얼굴 마주하기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인은 본인의 얼굴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그 얼굴의 살갗은 험박했다고 한다. 얼굴에는 가난이 깔려 있으며 얼굴은 위협 앞에 노출된다.⁴⁾ 영화 『크레이지 에이리언』에서 외계인 치카(奇卡)는 모든 능력의 원천인 헤어밴드를 분실하고 험박은 채 지구에 도착했으며, 온갖 위협에 직면한다. 서커스단 원숭이 환환(歡歡)과 매우 닮아서, 남자주인공 쟁하오(耿浩)는 그를 원숭이로 착각하고 서커스를 시켰다. 외계인은 낯선 곳에서 하루종일 곡예 훈련을 받아야 했고, 매번 남자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다.

외계인은 우연한 기회에 헤어밴드를 착용한 원숭이 환환에 빙의하여 나타났다. 환환의 몸에 외계인의 영혼이 깃든 것이다. 이때의 환환은 본인과 외계인의 영혼을 모두 담은 혼합체이다. 그는 본인의 입을 통해 외계인 치카의 주장을 피력하는 한편 본인의 생각도 솔직하게 드러낸다. 이중적 타자가 하나의 몸을 통해 재현되는 장면이다. 이때 그는 인류의 문명을 ‘쓰레기 문명(垃圾文明)’이라고 비판한다. 이익을 위해 동물을 학대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문화를 저급한 문화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가치관에 갇혀 있는 인간을 하등동물로 간주한다.

(2) 내 여자친구는 로봇(2020): 사랑

레비나스에 따르면 사랑의 감정이란 둘로 있음이요, 상대방은 철저히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⁵⁾ 영화 『내 여자친구는 로봇』 속 두 주인공은 성격과 능력이 상이한 타자이다. 남자주인공 팡위안(方元)은 여행사 가이드이며 외모와 경제력 모두 평범한 소시민이다. 반면 로봇 여자친구 추이(初一)는 어마어마한 힘을 지닌 슈퍼우먼이다. 사치스러우면서도 힘이 세고 완벽한 언어 능력을 지닌 추이와 그와 정반대의 성격과 능력을 지닌 팡위안은 동거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서로를 알아간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자는 단순히 나와 다른 성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질로서의 이타성을 지닌다.⁶⁾ 추이는 이타성의 전형을 보인다.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추이는 슈퍼우먼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높은 곳에서 바닥에 떨어질 위험에 처한 팡위안을 끌어올렸으며 달려오는 기차를 온몸으로 막았다. 또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에서 팡위안이 위기에 처하자, 팡위안을 밀어내고 붕괴되는 건물에 본인이 파묻혔다.

(3) 우주탐사편집부(2023): 아버지되기

영화 『우주탐사편집부』는 남자주인공 탕즈쥔(唐志軍)이 외계인을 찾는 과정에서 점차 아버지로 성장하는 이야기다. 레비나스는 아버지됨은 자기의 동일화라고 설명한다. 아버지는 자식의 실체와 자식의 단일성 속에서 스스로를 되찾는다.⁷⁾ 자녀와의 관계는 타자성의 관계이며 그 속에서 주체성을 되찾게 된다.

4) 엠마누엘 레비나스 저, 양명수 역, 『윤리와 무한: 필립 네모와의 대화』, 서울: 다산글방, 2000, 110쪽.

5) 엠마누엘 레비나스 저, 양명수 역, 『윤리와 무한: 필립 네모와의 대화』, 서울: 다산글방, 2000, 83쪽.

6) 엠마누엘 레비나스 저,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울: 민음사, 2005, 160쪽.

탕즈원은 딸이 자살하기 전 본인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 외계인을 찾아 나섰다. 딸은 우리 인류가 우주 속에 존재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탕즈원은 딸과의 소통 과정에서 그녀의 실재에 접근했으며 본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인지하게 된다.

영화의 말미에 탕즈원은 인간의 존재 형식을 ‘시짓기’라고 결론 내린다. 그에 따르면, 인류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우주는 한 편의 시에 해당하며, 우리 인간은 시를 구성하는 글자이다.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번식하는 과정에서 글자는 구절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한 편의 시 작품이 완성된다. 즉 시짓기는 삶의 본모습이자 우주의 진면모이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언어는 존재 안에서 이성적 사유를 시작하게 해주는 것으로, 스스로를 현시하는 자의 얼굴 안에 의미 작용의 최초의 정체성을 제공한다고 한다.⁸⁾ 즉 언어는 이성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고 모호한 언어적 기호들을 재조직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시는 언어적 예술이며, 정체성 확립의 중요한 매개이다. 시를 통해 딸에게 마지막 이별을 고한 탕즈원은 본인의 슬픔을 직면한다. 시는 죽은 이와 관계를 정리하고, 살아있는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수단이기도 하다. 시작(詩作)을 통해 주변인들에게 그리고 본인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봄으로써 소통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 과정을 통해 타인에게 책임을 진다.

3. 인류 사회 보편적 위기에 대한 폭로

각 작품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이슈는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작품에 대한 분석과 토론은 이슈의 사회적 공론화에 기여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이슈화

영화 『크레이지 에이리언』은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동물권의 현주소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커질수록 반려동물은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개가 식용 고기신세를 면한 것은 최근이다. 중국의 경우, 동물에 관한 법률은 대체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보호법, 동물 역병의 예방 및 관리 법규를 포함한다. 이러한 법령은 동물을 생산수단이나 권리의 객체로 간주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중국에는 동물 학대 금지법이 전무하다. 『크레이지 에이리언』은 현재 세계 곳곳의 동물학대 현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던져준다. 동물을 생산수단으로만 간주하는 기존의 시각을 반성하고 애완동물을 비롯한 모든 동물의 기본 생존권의 필요성을 외계인의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보여주었다.

(2) 연애를 기피하는 청년세대의 문제와 존재론적 의미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경제적인 미래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이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이성으로부터의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내 여자친구는 로봇』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상대가 나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에 대한 책임이 곧 나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에 지금의 청년들이 어느 정도 동의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와 같은 주제가 점차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경도되는 세대에게 일련의 문제제기가 될 수 있음은 사실이다.

7) 엠마누엘 레비나스 저,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역, 『전체성과 무한: 외재성에 대한 에세이』, 서울: 그린비출판사, 2018, 405쪽.

8) 엠마누엘 레비나스 저,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역, 『전체성과 무한: 외재성에 대한 에세이』, 서울: 그린비출판사, 2018, 303쪽.

(3) 가족의 위기와 세대간의 소통에 대한 성찰

한국과 중국의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중국의 경우 1979년 이혼율은 0.3%에 불과하지만 2009년에는 1.85%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조이혼율(인구 1천명 당 이혼건수)이 3.4%에 달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⁹⁾ 이혼은 부부간의 소외 현상이 본질이지만, 곧 자녀와 부모세대의 문제로 전이된다. 현대사회에서 부모와 자녀의 ‘불통’ 문제의 심각성은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낸다. 실로 많은 작품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본 고에서 고찰한 『우주탐사편집부』 역시 이혼이 가장과 자녀에게 주는 무거운 의미를 되짚어본다. 우주의 끝에서 바라보는 우주의 본질이 인류의 DNA를 닮았다는 대목은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이다. 영화는 진정한 삶이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의 인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한번 더 돌아보는 데에 있다고 역설한다. 그것이 바로 우주의 진면모이다.

4. 결론

근래에 중국에는 『유랑지구』 (2019), 『소설가 암살』 (2021), 『문맨』 (2022) 등 SF 대작들이 줄이어 등장했다. 본 고는 근래에 개봉한 세 편의 SF 영화 『크레이지 에이리언』 (2019), 『내 여자친구는 로봇』 (2020), 『우주탐사편집부』 (2023)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세 작품에 대한 연구는 현대 중국 SF 영화의 특징과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세 작품 모두 평범한 사람이 현실에서 겪게 되는 실업 위기, 연애 위기, 가족 위기를 통해 현대인들의 소시민적 삶을 적절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었다. 그리고 소시민의 정체성 형성 과정, 주체와 타자 사이 관계 형성 과정도 낱알이 보여주었다. 이에 본 고는 서양 철학자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활용하여 세 편의 SF 영화 속 주인공의 정체성 수립 과정을 살펴보았다. 레비나스는 얼굴 마주하기, 남녀 간 사랑의 감정, 아버지 되기 등을 타자철학의 중요한 기제로 제시했다. 세 작품은 얼굴-사랑-아버지 되기에 각각 대응하며 레비나스의 정체성 이론에 부합한다.

참고문헌

- 강선보, 『(마르틴 부버) 만남의 교육철학』, 서울: 피와이메이트, 2018.
- 엠마누엘 레비나스 저,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역, 『전체성과 무한: 외재성에 대한 에세이』, 서울: 그린비출판사, 2018.
- 엠마누엘 레비나스 저,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울: 민음사, 2005.
- 엠마누엘 레비나스 저, 양명수 역, 『윤리와 무한: 필립 네모와의 대화』, 서울: 다산글방, 2000.
- 조양강미진, 「중국 부부 문제의 현황, 원인 및 과제」, 『부부가족상담연구』 제4권 제2호,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2023.

9) 조양강미진, 「중국 부부 문제의 현황, 원인 및 과제」, 『부부가족상담연구』 제4권 제2호,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2023, 51-55쪽.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2부

16. 중국문화(3)

위당관 205호

중국 당대문학의 새로운 모색

中文系能否培养作家？ ——创意写作的传统、现状与未来

黄平

摘要：创意写作热潮在当下方兴未艾，论文梳理了创意写作国内、国外两条历史传统。就国内传统而言，论文围绕“中文系不培养作家”这一论争，以“写作课”的变迁为着眼点，勾勒了清华-西南联大-北大等高校的发展脉络，带出近百年来国内高校对于文学写作教育的不同理解；就国外传统而言，论文把握“创意写作”在美国兴起的核心问题意识，即文学教育应该更科学化，还是更文学化，并就此以爱荷华大学为案例展开历史化的分析。在对于中外传统梳理、分析的基础上，论文讨论了创意写作在国内发展的现状，并对未来发展予以展望。

关键词：创意写作、培养作家、写作课、爱荷华大学

一 国内写作课的传统：“中文系不培养作家”的由来

理解创意写作在国内高校¹的兴起，首要是梳理创意写作的历史脉络。在笔者看来，当下的创意写作，需要处理与两个传统的关系：其一是国内写作课的传统，其二是国外创意写作的传统。

我国的传统肇始自清华大学。1928年夏，清华学校更名为国立清华大学，由此转变为一所独立的综合大学。1928年秋，在国立清华大学首任校长罗家伦的邀请下，杨振声从燕京大学转任清华大学。1929年6月，杨振声被选为文学院院长兼国文系主任。杨振声成长于“五四”新文化运动时期，作为北大新潮社与《新潮》杂志的创办者，在任教清华大学之前已经陆续发表《玉君》等著名小说。杨振声出任清华大学文学院院长一职，可以被视为“五四”一代文学青年在现代大学掌握话语权的开始。

“新文学”进入大学的文学教育，会带来新的眼光与新的体系。在1929-1930年度的《清华大学一览》中，载有《大学本科学程一览》，其中的《中国文学系的目的和课程的组织》直接提出：“中国文学系的目的，很简单的，就是要创造我们这个时代的新文学”。²“创造我们这个时代的新文学”，据朱自清回忆这个提法就来自杨振声。这个令人耳目一新的提法，不仅在当时，就是以今天的眼光来看也颇为激进。为达致这一目的，新文学作家大量进入教师队伍。当时清华大学中文系的教师含兼职在内共十三人，如沈卫威指出的，“从教师的基本情况看，这时清华中文系教师赵元任、钱玄同、杨振声、朱自清、俞平伯都是新文学作家。”³

清华大学的课程体系发生了比较大的变化，杨振声特别提到：“西洋文学概要、西洋文学各体研究、中国新文学研究、当代比较文学及新文学习作也都是必修，选修课中又有西洋文学专集研究，这在当时的各大学中，清华实在是第一个把新旧文学、中外文学联合在一起的。”⁴只有回到当时的历史现场，方能体会杨振声等人改革文学教育的决心。陈平原考证过胡适1931年出任北京大学文学院院长后推行“新文艺试作”这门课程之艰难，介绍了当年的大学氛围：“这种氛围，导致国文系的教学，重古典，轻现代；重考据，轻批评；重学术，轻创作。在国文系的特殊语境中，不要说教‘新文艺试作’很难，讲外国文学的，同样不被重视。”⁵

杨振声、胡适作为清华、北大两校的文学学院院长，同时作为“五四新文学”代表人物，他们所推动的大学写作课，其指向首要是奠定新文学在大学的合法性，而不仅仅是培养写作人才。无论是清华的“新文学习作”，还是北大的“新文艺试作”，都可作如是观。

在这个意义上,“新文学”带来新的体系的同时,势必和旧的体系产生冲突。杨振声对于旧体系的批判是直言不讳:

现在讲起办大学,国文学系是要算最难了。第一是宗旨的不易定,第二是教员人选的困难。我们参考国内各大学的国文系,然后再来定我们的宗旨与课程,那自然是最逻辑的步骤了。不过,难说得很,譬如,有的注重于考订古籍,分别真赝,校核年月,搜求目录,这是校讎目录之学,非文学也。有的注重于文字的训诂,方言的诠释,音韵的转变,文法的结构,这是语言文字之学,非文学也。有的注重于年谱传状之赅博,文章体裁之轍演,派别门户之分划,文章风气之流衍,这是文学史,非文学也。以上这几种,都可以包核在国文学系,但这不过是研究文学之方法,不是研究文学之宗旨。⁶

杨振声 1930 年离开清华转任青岛大学校长,清华中文系主任由朱自清接任。朱自清的看法和杨振声一脉相承,他在 1931 年 6 月 1 日发表的《中国文学系概括》一文中,进一步将“文学”从“国学”中区分出来:

中国各大学的国学系、国文学系,或中国文学系的课程,范围往往很广:除纯文学外,更涉及哲学、史学、考古学等。他们要造成的是国学的人才,而不一定是中国文学的人才。对于中国文学,他们要学生做的是旧文学研究考证的工夫,而不及新文学的创造。我们并不看轻旧文学研究考证的工夫,但在这个时代,这个青黄不接的时代,觉得还有更重大的使命:这就是创造我们的新文学。⁷

无论朱自清如何强调“并不看轻旧文学研究考证的工夫”,双方对于中文系的不同理解一望可知。作为新文学组成部分的写作课,由此卷入到新旧文学的博弈之中。只有理解这个潜在的背景,方能理解为什么 1939 年西南联大一次茶话会上的学生发言,惹起了两派教授的激烈辩论。当事人刘北汜(西南联大中文系 1939 级学生)在《忆朱自清先生》一文中有过回忆,“时间大约在开学后三个来月,学期结束之前。参加茶会的有中文系主任罗常培,教授罗庸、魏建功、浦江清、朱自清、杨振声,少数讲师、助教,再就是这学期才入学的二十来名中文系新生了。人虽不算很多,但因为教室中间摆了很大的一个长桌,还是显得很拥挤。”⁸罗常培系著名语言学家,1939 年 11 月至 1941 年 9 月、1941 年 12 月至 1944 年 9 月担任西南联大中文系主任,主讲声韵学。据刘北汜回忆,系主任罗常培有些激动地批评了他:

有一个同学,学号是 1188。他填的表里,说他爱读新文学,讨厌旧文学、老古董。这思想要纠正。中国文学系,就是研究中国语言文字、中国古代文学的系。爱读新文学,就不该读中文系……⁹

罗常培的这个观点，遭致也在现场的杨振声与朱自清的反对。杨振声与朱自清的发言，再次强调新文学的重要性，强调在中文系课程中要增加新文学的比重。从这场茶话会风波可见，作为一系的同事，罗常培和杨振声、朱自清等人的看法差异很大。不知道刘北汜的同学汪曾祺是否也在这个茶话会的现场，汪曾祺后来有过回忆：“很多人认为创作不能教。我们当时的系主任罗常培先生就说过：大学是不培养作家的，作家是社会培养的。”¹⁰

这是目前笔者所知的“中文系不能培养作家”最早的出处。今天不能孤立地理解这一看法，而要理解其历史语境，历史化地理解“中文系不培养作家”这种观念的由来。这一看法所指向的，并不是就事论事地讨论培养作家本身，而是新旧文学在现代大学中的冲突。同时，也不能以简单的价值评判来指代新旧文学，比如视新文学一方为改革派，视旧文学一方为复古派。无论是旧文学的训诂考据还是新文学的批评创作，对于大学文学教育而言，各有其不可替代之价值。回到当年的历史现场，比如当时流行的考据热，恰恰有赖新文学人物胡适的推动。就以罗常培本人而论，他为西南联大中文课所写的《中国文学的新陈代谢》一文，熟稔地梳理 1917 年以来的新文学运动，从《文学改良刍议》《文学革命论》一路讲到《新青年》以及文学研究会、创造社的成绩，批判了安福系、学衡派、甲寅派的复古，明确地站在新文学立场之上对旧文学展开批判。¹¹

综合来说，围绕写作课等新文学课程，与其说是新旧文学之争，不如说是“学问”与“文学”之争（近似朱自清区分的“国学/文学”），也即中文系是以传承学术研究为目的，还是以介入文学创作为目的。罗常培的看法，在后来的北大中文系很有影响。杨晦在 1950 年至 1966 年担任北京大学中文系主任，很多人都回忆过杨晦在 1955 年新生入学典礼上的看法，即北大中文系不培养作家，想当作家的不要到这里来，世界上还没有哪一所学校是专门培养作家的，因为作家要有深刻的生活体验作为创作源泉，古往今来大作家很少是大学培养的。因此，北大中文系要培养的是研究文学的专家学者，而不能把培养作家作为目标。¹²在现场听杨晦这番话的，有中文系 1955 级的新生孙玉石与费振刚¹³。孙玉石、费振刚在 1980 年代、1990 年代先后担任北大中文系领导工作后，在新生入学典礼等活动上也有类似说法。¹⁴而且不限于北大，朱东润等复旦中文系领导对于这一问题也有类似看法。“中文系不培养作家”一说由此滥觞开来，一路影响到今天。

有意思的是，和杨振声一样，杨晦本人也是成长于北大的“五四”文学青年，比杨振声低两个年级，和朱自清是同班同学（杨晦与朱自清 1917 年就读于北大哲学门）。作为著名的文学社团沉钟社的创始人与核心成员，作为著名的戏剧家、文学翻译家与文学批评家，杨晦与“五四新文学”渊源极深。他之所以在 1950 年代继承罗常培的讲法，在彼时再次强调大学不培养作家，或许也思虑到“工农兵创作/专业文学创作”在 1950 年代的博弈。强调不培养作家，也就隐含着维护学院的独立性，与工农兵作者保持微妙的距离。在杨晦 1966 年卸任北京大学中文系主任后，进入特殊的历史时期，北京大学中文系在 1970 年开始招收工农兵学员，并在 1973 年分出创作班与评论班两个方向。至少就 1970 年代来说，北京大学中文系在学科建制上是培养作家的，主要是培养工农兵作家。因这一段较为曲折的往事，或许也能理解“中文系不培养作家”这种说法为什么在 1980 年代再次占据主流。

就具体的写作课来说，1949 年之后的中文系，一方面是“中文系不培养作家”成为主流观念，中文系以学术研究而不是以文学创作为主；另一方面写作课受到了格外的重视，写作教研室这一学科建制全面开花，很多院校一直保留至今。这里一个背景是 1950 年的课程改革，“1950 年 6 月，第一次全国高等教育会议召开，议题之一便是改革高校课程。”¹⁵这次会议通过了影响深远的《高等学校课程草案——文法理工学院各系》，草案规定的中文系培养目标是“培养文艺工作和一般文教工作的领导”。“中文系的课程分为必修和选修两类，公共必修课有三门政治课（社会发展史、新民主主义论、政治经济学）、国文与写作、外文、中国近代史、毕业论文或调查报告等。中文系课程具有如下特征：一是在必修课中非常强调写

作课。写作共分为四门，分别是散文报道、文艺、理论文、应用文的写作，一共 12 个学分，是必修课中学分最多的一门课程。”¹⁶还是以 1950 年代的北大中文系为例，从大一到大四都有写作必修课，分别由章廷谦（大一）、冯文炳（大二）、游国恩（大三）、魏建功（大四）讲授。

一方面提出“中文系不培养作家”，一方面写作课受到如此空前绝后的重视，二者的矛盾如何解释？一种解释，就是写作课并不被视为是培养作家的课程。查课程草案，对写作课全文规定如下：

为使具备各种写作能力，每年级均有写作课程。以散文、报道习作为主，给学生以各种写作的基础训练，培养其联系实际的精神，并可就学生性之所近，习作诗歌、散文、小说、戏剧等，为进一步从事文艺写作的准备。并设理论文写作，以培养学生分析、综合、推论的能力；设应用文习作，培养学生写作各种应用文字的能力。关于写作训练，均应注意思想方法及语法修辞，并酌选范例以资观摩。各种习作先后顺序，得由各校自定。¹⁷

草案内容明确写作课是为了“使学生具备各种写作能力”，同时也补充提到了“为进一步从事文艺写作的准备”。整体来看，写作课还是指向实用性的写作训练，是广义的写作而不是文学创作，也即和以往的“新文学习作”“新文艺试作”课程有所不同——1949 年秋北大中文系增加或者说恢复了“新文艺试作”课程，由俞平伯、杨振声、冯文炳主讲，但在写作课大规模出台后就消失了，杨振声、冯文炳也在院系调整中调到了东北人民大学（现吉林大学）。

经历历史沧桑，伴随着新时期的文学热，迎来了一次写作学的兴起。1980 年 12 月 24 日中国写作研究会（1983 年正式更名为中国写作学会）由武汉大学牵头成立，系国家一级学会，1981 年 7 月 10 日会刊《写作》创刊。武大等各个院校写作学的同仁，在振兴写作学科等方面，做出了非常多的贡献。当然，写作学的发展也面临诸多难题，孙绍振等学者批评过写作学知识化的问题，“写作不同于文学理论、语言学、逻辑学之处就在于它不是一种传授知识的学科，在这一点上不清醒，遂导致写作学的架空。写作学是一门实实在在的实践的学问，而实践的学问是不能靠理论的演绎来完成。”¹⁸此外写作学科一直没有入围国家的学科专业目录，如於可训提到的：“20 世纪 80 年代初，国务院学位委员会公布了第一份《高等学校和科研机构授予博士和硕士学位的学科、专业目录（试行草案）》，写作学科没有进入这份目录。这使正在蒸蒸日上的写作学科如遭霜打，也使成立不久的中国写作学会的工作遭遇挫折。”¹⁹笔者查阅了 1983、1990、1997、2011、2022 各版学科、专业目录，写作学一直未能入围。1990 年代以后，包括笔者所在的华东师大中文系在内，很多院校的写作教研室也逐渐被取消。写作学在发展过程中的种种遭遇，值得当下创意写作同仁镜鉴。

二 国外创意写作的传统：走出语文学

当下创意写作面对的第二个传统，就是国外创意写作的传统，主要是美国创意写作的传统。国内很多创意写作学科点，直接仿照美国模式设立 MFA 艺术硕士点，如王宏图对于复旦创意写作专业的介绍²⁰，直接提到了这一点。

“创意写作”（Creative Writing）这个概念的由来，最早被追溯到爱默生 1837 年 8 月 31 日在麻省剑桥城（即马萨诸塞州剑桥市，哈佛和麻省理工所在地）美国大学生联谊会上

的一篇演讲，这篇演讲有多个中文译本，如《美国学者》《论美国的学者》等，笔者据张爱玲的中文译本《美国的哲人》。查阅英文原文，爱默生演讲中出现过一次 creative writing，源自这样一句话：There is then creative reading as well as creative writing. 张爱玲对包含这句话的上下文是这么翻译的：

我只想说，需要一个强健的头脑，才守得住这种饮食。一个人要善于读书，必须是一个发明家。像格言里说的“要想把西印度群岛的财富带回家来，必须先把西印度群岛的财富带出去”。因此，有创造性的写作，也有创造性的阅读。²¹

坦率讲，将“创意写作”追溯到爱默生这篇演讲里，有一定程度攀附先贤的嫌疑。creative writing 在爱默生的原文中，并不是一个专有名词，就像张爱玲翻译的，指的就是“创造性的写作”。我们现在的翻译往往将其译为“创意写作”，原文由此变成颇为怪诞的“有创意写作，也有创造性的阅读”，这种后设之明大可不必。但如果不拘泥于 creative writing 这个词本身，爱默生这篇基于人文主义的演讲，未必不可以作为创意写作的先声。如 D.C. 迈尔斯在《大象教学：1880 年以来的创意写作》（该书国内意译为《美国创意写作史》）中提到：“而论争的主题则是：以一种更形象或更具创意的文学教育取代语文学。这场论争开始于爱默生于 1837 年在美国大学优等生荣誉学会一次题为《美国学者》的演讲。”²² D.C. 迈尔斯认为“创意写作始于对语文学的反抗”²³。

讲清楚何谓语文学（Philology）非常困难，语文学往往以古典学的面目出现，既有些像文献学，又有些像语言学，同时作为现代人文学术的前身，又不能以学科化的文献学或语言学的方式来指认。沈卫荣、姚霜在《何谓语文学：现代人文科学的方法和实践》一书导论中提到：“自西方古典时代至近代人文科学研究形成之前，一切与语言、文本（文献）、甚至文物相关的学术活动和学术实践都可以被称为语文学。从古希腊的文法、修辞学到近世的《圣经》文本研究，从学者们最初在博物馆和图书馆内所进行的对《荷马史诗》等古希腊经典文本（抄本）的收集、编目、修复、整理、校勘、印刷，到人文主义的宗教学者对多语种《圣经》版本进行翻译、对勘、文本分析和解经活动等等，都可归属于语文学的范畴。西方古典学即是对西方古典文本的语文学研究，而西方古典教育的主体即围绕学习希腊文、拉丁文，解读希腊文、拉丁文经典文本而展开，形成了典型的语文学教育和研究传统。”²⁴

美国的文学教育正是脱胎自语文学教育。理解美国创意写作的兴起，首要是理解美国文学教育的兴起。这个逻辑和中国的情况相似，即写作课的出现，源自文学教育要走出国学教育的藩篱。语文学一定程度上扮演着美国式的国学/古典学的角色，比如在美国内战前夕的耶鲁大学，“文学研究完全是由狄摩西尼的《金冠辩》与惠特利大主教的《修辞学》构成的”²⁵。当然，语文学并不能仅仅被理解为是书斋中的产物，或被理解为是基于博雅的知识修养的清谈，而是有其文化政治背景。语文学长久地笼罩在帝国主义、种族主义、殖民主义的阴影中，“语文学成为欧洲大航海时代最根本的知识支撑，为帝国培养了如今看来十分‘全球化’的殖民主义人才”²⁶。

从反对语文学这一笼统的目标出发，基于为美国文学乃至创意写作开辟道路，爱默生的这篇演讲，可以说是宣言性质的，如研究者提到的，“爱默生 1837 年的演说《美国学者》被霍姆斯称作‘我们文学上的独立宣言’”²⁷。但具体到和创意写作直接相关的写作课的出现与成熟，还要在几十年之后。研究者将其追溯到哈佛大学 1880 年代高级写作课的出现，“正是高级写作的出现，标志着创意写作的真正发端”²⁸。上引的 D.C. 迈尔斯被意译为《美国创意写作史》的著作，之所以有一个“1880 年以来”的副标题，正是指巴雷特·温德尔（Brett Wendell, 1855-1921）1880 年开始在哈佛任教。依托之前的哈佛大学写作课教师亚当斯·谢

尔曼·希尔等人的推动，巴雷特·温德尔对于写作教学的改造有：“①写作本身成为教学课题，不再是此前的既成文本。②它不再是为其课程服务的学术活动，而被视为独一无二、有实在价值的表达机会。③ 要求审美能力（“感知能力”）的自我提升和文学评价（“判断力”），而不是对大量材料的掌握。④作家是教授该学科的最佳人选，因为：⑤该学科的目标不在于对写作进行学术评价，而是要创造文学。”²⁹

巴雷特·温德尔的教学实践，已经很接近当下的创意写作教学了，后来巴雷特·温德尔出版有专著《文学写作》（1891）；他也是最早的美国文学史家之一，在1900年出版了美国文学史。在19世纪末，不仅脱离修辞学、演讲学窠臼的写作课是新兴事物，美国文学研究也是刚刚出现，作为标志的美国现代语言学会（MLA）成立于1883年，还稍晚于温德尔的写作课改革。保罗·德曼就曾谈到过，文学教学成为独立教学领域不早于19世纪晚期³⁰。巴雷特·温德尔的学生休斯·默恩斯则进一步地推动了创意写作的教学，休斯·默恩斯1920年来到林肯专科学校负责中级英语课程，率先打出了“创意写作”的旗号，以此替代原来的英语教学，“‘创意写作’一词被首先用于指涉一门研究课程。此前尚未有人如此为‘创意写作’命名；而此后，这种命名也被固定了下来”³¹。

不过，上述的哈佛大学写作课的变革，乃至1920年代创意写作成为专有名词，还不能等同于创意写作在大学体制中的出现。创意写作的出现，意味着创意写作成为独立的专业学位，并且围绕这一专业学位，有一套不同于其他专业学位的培养模式，比如以文学作品替代毕业论文，以工作坊教学替代知识化的文学教育。在这个意义上，一般将创意写作正式出现的标志，追溯到1936年爱荷华大学作家工作坊（Iowa Writers' Workshop）的成立。国内对这一事件的介绍，基本上依据爱荷华大学作家工作坊英文主页上的介绍（参见该主页history这一栏）。笔者试译相关内容如下：

爱荷华大学的第一门创意写作课是在1897年春季学期开设的“诗歌创作”³²。1922年，研究生院院长卡尔·西肖尔（Carl Seashore），针对文学艺术学科引入了一种新的学术研究模式，他宣布爱荷华大学将接受创意作品作为高级学位的论文。文学院开始提供常设的写作课程，选课学生由驻校作家和访问作家指导。爱荷华大学作家工作坊于1936年正式成立，在首任主任威尔伯·施拉姆的指引下，诗人和小说家们聚集在一起。³³

严格来说，爱荷华创意写作的主导人物，还不是作家工作坊的首任主任威尔伯·施拉姆，真正的主导人物是诺曼·福斯特，1930年至1944年担任爱荷华大学文学院院长。福斯特毕业于哈佛大学，是白璧德的学生，他对于文学教育的主张，深受白璧德人文主义思想的影响。白璧德在文学教育上的人文思想，通过《文学与美国的大学——为捍卫人文学科而作》等知名著作已为我们所熟知。白璧德同样是语文学的鲜明反对者，在白璧德的时代，语文学在美国大学中依然处于统治地位，韦勒克在《美国的文学研究》一文中曾深入分析当时的语文学：“它（语文学）一方面满足了美国人对过去，尤其是对欧洲的往昔和中世纪的怀旧情绪，另一方面也满足了人们对事实、对精确性、对一种由于现代技术的成就而声威赫赫的‘科学方法’进行摹仿的愿望，而这种现代科学的成功在美国又格外显著。而隐含在这种文学研究方法中的批评的相对主义，它那种考察历史先例的方法，那种公开摒弃评价任务的态度，都同

一种对自己的价值判断感到困惑或怀疑的文化模式一拍即合”。³⁴

对于创意写作阵营相关的人物来说，反对语文学是他们共同的底线，白璧德在《文学与美国的大学——为捍卫人文学科而作》一书题记中，引用了爱默生的一句话：“存在着两种分立的法则彼此无法调和——人的法则与事物的法则”。³⁵白璧德对于这两种法则在文学研究上的具体看法是：“就语言受制于‘物之法则’而论，它是文献学³⁶；而如果它表达了‘人之法则’，那么它就是文学。”³⁷如白璧德在《什么是人文主义？》一文结尾所谈到的，要像曾经捍卫免受神学的侵犯一样，捍卫人文学科免受科学的侵犯³⁸，这是白璧德批评语文学的立足点。语文学的研究方式，意味着文学研究的科学实证主义，白璧德曾经谈道：“随着这种僵硬的考订做派（hard literalness）步步进逼，人文学科本身不再是人文的了”。³⁹在原译中，译者保留了英文原文，显然也觉得“僵硬的考订做派”无法完全翻译出这个词的意蕴。白璧德这里的批评，不是批评考订等等语文学的方法本身，而是批评这种研究方法的“物化”倾向，即将对于文学的理解止于“字面”（literalness）。

福斯特是白璧德人文思想的忠实拥趸，他接任爱荷华大学文学院院长后，将理解文学的方式分为四类：语言学研究、文学史研究、文学批评、文学创作。他专门指出语言学研究与文学史研究让文学成为科学的旁支；与之相对，他提倡文学批评与文学创作，并亲自负责文学批评课程。⁴⁰这是爱荷华大学创意写作兴起的重要背景，在教学构想上，是文学批评与文学创作并重；在教育宗旨上，是以重视价值的人文主义对抗科学化的文学研究。⁴¹

斯蒂芬·威尔伯斯（Stephen Wilbers）考证，1931年爱荷华大学第一次有同学以文学作品获得硕士学位，这位同学的名字是玛丽·胡佛·罗伯茨（Mary Hoover Roberts），她提交的是一部诗集。1932年又有五位同学获得硕士学位，其中之一就是后来推动创意写作走向国际的保罗·恩格尔（1908-1991）。⁴²就作为MFA学位的创意写作学位来说，斯蒂芬·威尔伯斯认为1941年罗伯特·怀特汉德（Robert Whitehand）是第一个获得创意写作MFA学位的学生。⁴³大致可以说，从1930年代开始，今天我们理解的“创意写作”学位教育已经在爱荷华大学等美国高校出现并走向成熟。

因缘际会，创意写作在美国高校流行开来，依赖于一个无心插柳的政策：《1944年退役军人权利法案》。该法案服务于二战老兵，规定退役老兵可以在高校接受为期两年的免费教育。这一政策的初衷无疑是缓解战后的就业压力，试比较我国专业硕士的扩招，有殊途同归之处。因为“创意写作”这个专业学位不那么知识化，也因为写作更能承载二战老兵丰富的人生经验，创意写作受到退役军人的欢迎。在这一过程中，创意写作一定程度上强化了文学教育的职业教育色彩，同时为诗人、小说家提供了一定程度的庇护，“为退伍士兵提供一些闲职——这在很大程度上解释了战后大批诗人、小说家涌入高校的现象”⁴⁴。由此，伴随着美国大学教育在二战后的大规模扩张，创意写作也迎来了扩张，“到1970年，全美国共有44所大学有创意写作硕士授予学位”⁴⁵。但有意思的是，“名校对支持创意写作并没有太大兴趣”⁴⁶，创意写作的专业定位，和传统的学术体系之间，还存在着微妙的游离。

对于华语文学界而言，爱荷华大学创意写作的声望，往往来自保罗·恩格尔、聂华苓的国际写作计划。保罗·恩格尔1941年接任爱荷华大学作家工作坊主任，1965年离任。斯蒂芬·威尔伯斯认为，“没有其他人比保罗·恩格尔更值得赞扬，因为他奠定了爱荷华大学作家工作坊今天的面貌，并建立了它作为全国最好的写作项目的声誉。”⁴⁷但是，和诺曼·福斯特的遭遇类似，保罗·恩格尔也陷入到爱荷华大学英文系“作家”与“学者”之间长期的紧张关系之中⁴⁸。创意写作的推行，始终伴随着学院政治的激烈博弈，福斯特正是由于文学院同事的激烈反对，在1944年辞去了爱荷华大学文理学院院长职务。保罗·恩格尔也在1965年秋天辞去爱荷华大学作家工作坊主任一职，在从具体的行政事务解脱出来的同时，“荣升”为爱荷华大学“克拉克·费舍尔·安斯利创意写作教授”。为延续创意写作的工作，也是承接保罗·恩格尔本人在1963年建立的“翻译工作坊”，保罗·恩格尔提出了新的计划：国

际写作中心。而在保罗·恩格尔辞职的前一年，聂华苓 1964 年应保罗·恩格尔邀请由台湾地区来到爱荷华，担任作家工作坊顾问。在聂华苓的建议与协助下，保罗·恩格尔将“翻译工作坊”与国际写作中心发展为“国际写作计划”（IWP, International Writing Program），于 1967 年 6 月 9 日正式启动，并在当时冷战的环境下受到美国政府有关部门与基金会的一定资助。⁴⁹这个项目开始邀请世界各地的作家到爱荷华大学访问交流，1967 年首次邀请十六位作家到访爱荷华，包括香港地区的作家戴天与台湾地区的作家痖弦。1971 年聂华苓与保罗·恩格尔结婚，1978 年 6 月聂华苓与保罗·恩格尔到访中国大陆，并从 1979 年开始陆续邀请萧乾（1979）、王蒙、艾青、袁可嘉（1980）、丁玲（1981）、陈白尘等（1982）、茹志鹃、王安忆、吴祖光（1983）、谌容、徐迟（1984）、张贤亮、冯骥才（1985）、阿城、邵燕祥（1986）、汪曾祺、古华（1987）、北岛、白桦（1988）以及一些港台地区作家访问，聂华苓也在 1987 年接任保罗·恩格尔担任“国际写作计划”主任⁵⁰。由此可见，大陆作家在改革开放后出国交流，很多依托“国际写作计划”这一机制，爱荷华大学成为中外文学交流的窗口。目前该项目还在进行之中，在聂华苓基金会等资助下，2023 年秋在爱荷华大学驻校访问的大陆作家有石一枫、王占黑、索耳。

三 当下中国的创意写作：向何处去？

在梳理国内写作课、国外创意写作两大传统的基础上，我们对“中文系能否培养作家”或可这样回答：创意写作未必一定能教出作家，但有助于作家的出现。这层关系或如爱荷华大学作家工作坊同仁的自我理解：“虽然我们部分同意坚持多年的一个流行看法，即写作是不能教的，但我们之存在与前行基于这一假定：天赋是可以被发掘的，我们正是从这一角度看待我们作为教学单位的限度与可能。如果一个人可以‘学会’小提琴或绘画，他也可以‘学会’写作，尽管任何外部的引导性训练都无法确保他一定能写好。”⁵¹正像罗伯特·麦基在著名的《故事》一书中以美术学院、音乐学院作为创意写作的对照，质疑为什么人们认为有的艺术可教而有的艺术不可教。⁵²如果电影学院能培养电影艺术家，音乐学院能培养音乐家，舞蹈学院能培养舞蹈家，那么文学院当然也可以培养作家，“中文系能否培养作家”的争议，在当下可以休矣。

让我们从传统回到现状。当下面临的现实难题是，如何找到一条契合国情的作家培养之路？回顾近年来中国创意写作的探索，本土第一个以文学作品拿到硕士学位的，是毕业于北京大学的青年作家文珍。文珍 2004 年从中山大学金融学专业考入北京大学中文系中国现当代文学专业文学研究与创作方向，师从曹文轩，2007 年以四万五千字的中篇小说《第八日》获得文学硕士学位。笔者以为，学位论文是否可以用文学作品代替，是判别创意写作兴起的一个前提，也是区别于写作学硕士（以研究写作的学术论文申请硕士学位）的一个标志。

文珍硕士毕业的同一年，复旦大学中文系 2007 届本科毕业生甫跃辉，保送本系文学写作专业，师从 2004 年 9 月入职复旦中文系任教的王安忆，并于 2010 年以一篇中篇小说加一篇论文毕业。在甫跃辉就读硕士期间，复旦大学的创意写作事业迎来发展，如王宏图介绍的，“从 2009 年开始，复旦大学就开始在全国设立首个以戏剧冠名的创意写作专业学位硕士点”⁵³。或许有的读者不理解，复旦的创意写作专业为什么不直接叫创意写作，而是“以戏剧冠名”？这是因为创意写作专业在 2022 年之前没有自身的独立性，国内的创意写作硕士学位基本上有两条路：或是挂靠在文学类的中国现当代文学、文艺学等学术硕士学位下，或是挂靠在艺术类的戏剧、广播电视等专业硕士学位下。

就国外的情况来说，创意写作学位普遍是 MFA 学位（Master of Fine Arts），即艺术硕士学位。那么我国的创意写作是否可能成为艺术学下设的专业硕士学位点呢？这条路比较艰难，艺术学恰恰是当年从文学中分离出来的：1979 年以来艺术类隶属于文学门类下，授予

文学学位；2005 年国家设置艺术硕士专业学位；2011 年艺术学科成为独立的学科门类。据最新版的《研究生教育学科专业目录》（2022），在“13 艺术学”下列有“1301 艺术学（含音乐、舞蹈、戏剧与影视、戏曲与曲艺、美术与书法、设计等历史、理论和评论研究）、1352 音乐、1353 舞蹈、1354 戏剧与影视、1355 戏曲与曲艺、1356 美术与书法、1357 设计”，依然并无创意写作。

与和艺术学的关系相比，创意写作显然与文学的关系更为紧密，创意写作归属文学门类而不是艺术门类，将更有助于发展。就此而言，一个新的契机，是经国务院学位委员会批准（国务院学位委员会[2022]12 号文件），华东师范大学获批全国首家创意写作硕士专业学位点，增列学位点代码为 S0554，为 2021 年学位授权自主审核单位增列学位点，名称为“创意写作”，类型为“硕士专业学位授权类别”。作为一个历史节点，由华东师范大学所推动，创意写作专业作为以“创意写作”冠名的文学类专业硕士学位，回到了文学大家庭，结束了挂靠在其他专业下的历史。华东师范大学也素有文学创作的传统，徐中玉先生 1980 年代担任系主任时，多次在全系大会上鼓励学生文学创作，并且允许创作上取得成绩的同学以文学作品代替本科毕业论文，赵丽宏曾回忆过以一本诗集《珊瑚》代替毕业论文⁵⁴。“华师大作家群”之所以涌现，和这种带有创意写作雏形的培养模式有密切关系。

创意写作专业发展到独立的专业硕士学位这一步，在体制上已经较为完备。作为背景，近年来专业硕士学位教育迅猛兴起。2009 年专硕占比还不到 20%，2017 年已经上升到 50% 以上。2020 年全国研究生教育会议提出，硕士生培养将主要以专业硕士为主；同年 9 月，教育部印发《专业学位研究生教育发展方案（2020—2025）》，专硕招生规模到 2025 年将扩大到硕士研究生招生总规模的三分之二左右。以笔者所在的华东师大创意写作专业为例，2024 级招生规模为 40 人，超过中国古代文学、中国现当代文学这两个中国文学专业学术硕士招生人数总和。以创意写作为代表的专业硕士学位迅猛发展，必然要求传统的文学教育随之发生变革。基于这一发展现状，创意写作界同仁亟待思考的，是未来的内涵式发展，应该往何处去？

上文梳理的国内写作课、国外创意写作两大传统，无疑构成了创意写作的宝贵遗产。1930 年代发生在清华大学和爱荷华大学的故事，在近百年后的大学讲台上重新上演。作为侧重实践的专业硕士学位，创意写作所引导的变革的标志，就是作家进校园，文学教育从偏重知识的学术性训练，转向偏向创作的文学性训练。一般认为，写作课的典范是西南联大期间沈从文的课。当时沈从文在西南联大教授写作方面的课，负责中文系大二的必修课《各体文习作》，还负责一门选修课《创作实习》。“教创作靠‘讲’不成”⁵⁵，沈从文教创作主要是让学生自己动手写，他偶尔出个题目，比如《记一间屋子里的空气》，这是比较典型的工作坊式教学。汪曾祺在《沈从文先生在西南联大》一文中曾回忆道，“沈先生教写作，写的比说的多，他常常在学生的作业后面写很长的读后感，有时会比原作还长。”⁵⁶

按照沈从文指导汪曾祺的经验，写作可以教，但是应由作家而不是专家学者来教，侧重创作实践而不是知识化的学习。然而，和当年的清华大学或爱荷华大学不同，当下的优秀作家，往往有固定的文化单位编制，栖身于作协、出版社、文学期刊等等。因此，长时段（比如一个学期）的驻校作家制度，尤其涉及到跨城市驻校的话，在推进中比较困难。全职引进作家，同样面临重重阻力。高校当下的师资标准侧重博士学位与核心论文，是选拔科研人才而非文学人才，只有小学学历的沈从文当年可以任教西南联大，但是在今天恐难获得高校教职。那么依赖于创意写作专业自身来培养师资是否可以？创意写作培养的是专业硕士，上无博士，下无本科，本身没有师资造血能力。故而，创意写作专业面临着既无法培养博士又无法引进作家的窘境，师资短缺的难题目前很难改善。国内高校的普遍做法，还是依赖原来的学术型人才队伍，针对具体创作的工作坊式教学比较匮乏。

笔者对此的看法是，创意写作未来的发展，需要打破学科化的桎梏，走出一条新路。破

局的方式，首先可以考虑和作协系统的融合。我国的作协系统与高教系统有历史悠久的合作关系，比如1980年代北京、武汉等地的“作家班”。怎么打破作协系统与高教系统条块分割的现状，将文学资源导入高校，找到深度融合的可能性，值得相关同仁思量。其次可以考虑和文化产业系统的融合，创意写作要有效对接影视、传媒、出版、网络文学、游戏、短视频、音频等等文化产业对文化人才的需要。同时要正视的是，大学的逻辑和产业的逻辑差异较大，各个院校的创意写作专业如何更为有效地和文化产业联动，依然处在摸索之中。

尽管面临重重挑战，创意写作的未来依然值得期许，有可能带来文学教育的一次自我革新。作为新兴学科，创意写作学科化的使命颇为独特：一方面创意写作要像其他学科一样思考自身知识化、理论化的道路，另一方面创意写作要更为重视活生生的创作实践。概括地说，创意写作走向学科化的同时也要走向跨学科，不仅要找到学科发展中的位置，更要找到社会发展中的位置。在“新文科”的趋势下，文学教育有一点六神无主，似乎在试图以理科的方式来改造自身，使得自身科学化。这条“扬短避长”的道路，在笔者看来是文学教育的歧途。文学教育的未来，是让自己更加文学，是从科研本位转向文学本位；而不是让自己更加科学，不是笨拙地以理工科尤其以人工智能的方式证明自己也可以像一台机器。1990年代的大学文学教育走向学院岗位之后，一直有一股反向的力量推动文学研究面向社会，比如同一时期文化研究的兴起。创意写作应被视为文化研究之后的新一股浪潮，作为大学、文坛、社会之间的桥梁，将“文学”从学科化的宰制中解放出来，破圈而出，直面时代，这将是创意写作光荣的使命。

作者简介：黄平，华东师范大学中文系教授，中文系副主任，华东师范大学中国创意写作研究院副院长。

注释：

¹ 因我国港澳台地区高校的创意写作发展别有脉络，本文的分析不含以上地区高校的情况。

² 齐家莹编撰：《清华人文学科年谱》，清华大学出版社，1999年版，第84页。

³ 沈卫威：《现代大学的新文学空间——以二三十年代大学中文系的师资与课程为视点》，《文艺争鸣》，2007年第11期。

⁴ 杨振声：《为追悼朱自清先生讲到中国文学系》，《文学杂志》第3卷第5期（1948年10月）。

⁵ 陈平原：《知识、技能与情怀（上）——新文化运动时期北大国文系的文学教育》，《北京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09年第6期。

- 6 参见《清华中国文学会有史之第一页》，《国立清华大学校刊》，22 期，1928 年 12 月 17 日。
- 7 朱自清：《中国文学系概况》，《清华周刊》第三十五卷第十一、十二期合刊“向导专号”。转引自姜建、吴为公：《朱自清年谱》，光明日报出版社，2010 年，第 86 页。
- 8 刘北汜：《忆朱自清先生》，《新文学史料》，1982 年第 4 期。
- 9 同上。
- 10 汪曾祺：《星斗其文，赤子其人——回忆沈从文先生》，河南文艺出版社，2020 年，第 45 页。
- 11 罗常培：《中国文学的新陈代谢》，选自大一国文编撰委员会编：《西南联大国文课》，译林出版社，2015 年，第 321 页。
- 12 詹冬华：《杨晦评传》，黄山书社，2016 年，第 146 页。
- 13 参见孙玉石：《飞来的一群》，选自《孙玉石教授学术述录》（内部流通），北京大学二十世纪中国文化研究中心编印，2006 年。
- 14 孙玉石的说法参见杨文利的回忆《初见汪曾祺先生》（《新民晚报》2022 年 6 月 15 日第 14 版）；费振刚的说法参加张曼菱的回忆《作家梦》（张曼菱著《北大回忆》，生活书店出版有限公司，2014 年，第 14 页）。杨文利与张曼菱都曾是大中文系学生。
- 15 宋声泉：《民初作为方法》，南开大学出版社，2015 年，第 60 页。
- 16 王铁仙、王文英主编：《二十世纪中国社会科学·文学学卷》，上海人民出版社，2005 年，第 406 页。
- 17 中央人民政府教育部编印：《高等学校课程草案——文法理工学院各系》，光明日报社发行，1950 年，第 3 页。感谢中国人民大学文学院宋声泉副教授赠阅草案原文。
- 18 孙绍振：《建设中国当代写作学的操作性理论体系》，《福建论坛（文史哲版）》，1994 年第 6 期。
- 19 於可训：《我担任会长期间的二三事》，选自方长安、萧映、宋时磊主编：《当代写作学 40 年（1980-2020）》，社会科学文献出版社，2022 年，第 1 页。
- 20 王宏图：《创意写作在中国：复旦大学模式》，选自方长安、萧映、宋时磊主编：《当代写作学 40 年（1980-2020）》，第 103 页。
- 21 爱默生：《爱默森文选》，范道伦编选，张爱玲译，三联书店，1986 年，第 12 页。
- 22 D.C.迈尔斯：《美国创意写作史》，高尔雅译，葛红兵校译，上海大学出版社，2022 年，第 46 页。
- 23 同上，第 53。
- 24 沈卫荣、姚霜编：《何谓语文学：现代人文科学的方法和实践》，上海古籍出版社，2021 年，第 13 页。
- 25 D.C.迈尔斯：《美国创意写作史》，第 21 页。
- 26 沈卫荣、姚霜编：《何谓语文学：现代人文科学的方法和实践》，第 22 页。
- 27 陈俊松：《美国文学研究的历史源流及当代发展》，2019 年 8 月 26 日。

- ²⁸ D.C.迈尔斯：《美国创意写作史》，第 66 页。
- ²⁹ 同上，第 75 页。
- ³⁰ 保罗·德曼：《回归语文学》，选自沈卫荣、姚霜编：《何谓语文学：现代人文科学的方法和实践》，第 323 页。
- ³¹ D.C.迈尔斯：《美国创意写作史》，第 150 页。
- ³² 英文原文用的是 Verse，这个词的含义也包含韵文，例如莎士比亚的创作。
- ³³ 笔者自译，英文原文参见爱荷华大学官方主页的介绍：
<https://writersworkshop.uiowa.edu/>
- ³⁴ 勒内·韦勒克：《批评的诸种概念》，罗钢、王馨钵、杨德友译，曹雷雨校，上海人民出版社，2015 年，第 275 页。
- ³⁵ 白璧德：《文学与美国的大学》，张沛、张源译，商务印书馆，2022 年，题记无具体页码，位于目录页之前。
- ³⁶ 原译为文献学，即语文学，两者是同一个英文单词。
- ³⁷ 白璧德：《文学与美国的大学》，第 121 页。
- ³⁸ 同上，第 44 页。
- ³⁹ 同上，第 83 页。
- ⁴⁰ Stephen Wilbers, *The Iowa Writers' Workshop: Origins, Emergence, & Growth* (Iowa City: The University of Iowa Press, 1980) pp.44.。
- ⁴¹ 可能值得补充的一个细节，是中国学界更为熟悉的《文学理论》作者韦勒克和奥斯丁·沃伦，在 1939 年也入职了爱荷华大学文学院。
- ⁴² 同上，第 39 页
- ⁴³ 同上，第 51 页
- ⁴⁴ D.C.迈尔斯：《美国创意写作史》，第 233 页。
- ⁴⁵ 同上，第 239 页。
- ⁴⁶ 同上，第 240 页。
- ⁴⁷ Stephen Wilbers, *The Iowa Writers' Workshop: Origins, Emergence, & Growth*, pp.83.
- ⁴⁸ Ibid, pp.109.
- ⁴⁹ Ibid, pp.120.
- ⁵⁰ 参见俞巧珍：《聂华苓文学年表》，《华文文学》，2022 年第 4 期。
- ⁵¹ 笔者自译，英文原文参见爱荷华大学官方主页的介绍：
<https://writersworkshop.uiowa.edu/>
- ⁵² 罗伯特·麦基：《故事——材质、结构、风格和银幕剧作的原理》，周铁东译，中国电影出版社，2001 年，第 21 页。
- ⁵³ 王宏图：《创意写作在中国：复旦大学模式》，选自方长安、萧映、宋时磊主编：《当代写作学 40 年（1980-2020）》，第 103 页。

⁵⁴ 赵丽宏：《忆旧》，选自黄平主编：《师大忆旧》（文学院书系-华东师范大学卷），江苏凤凰文艺出版社，2022年，第42页。

⁵⁵ 汪曾祺：《星斗其文，赤子其人——回忆沈从文先生》，第46页。

⁵⁶ 同上，第49页。

新世纪上海文学的突围与可能——从《繁花》说起

华东师范大学 李芸

摘要：论文以新世纪长篇小说中的上海城市书写为研究对象，通过文本细读的方式，力图较为深入地把握新世纪上海书写走出“摩登叙事”的种种尝试与努力，进一步探讨上海城市书写范式转换的可能，呈现出新世纪以来上海城市文学书写如何走出“摩登叙事”的尝试与探索。通过对金宇澄的《繁花》、王承志的《同和里》、程小莹的《女工》的剖析，聚焦于上海城市日常生活的多重展现，分别揭示出诸如街道、弄堂、工厂、浦东等城市不同空间的多样性。这种多样性的展现，其意义不只是将“霓虹灯影”之外、不被“摩登叙事”关注的民众日常生活表现出来，更加值得关注的是，“目光向下”对上海城市的重新发现，在从时间和空间的双重维度上重构了城与人的关系。这些作品在还原上海日常世俗生活的同时，将笔触伸向历史与人的纵深，试图重绘上海的城市地图，并且书写一种新的“城市诗学”，成为了这个转型时代的最有价值的见证。

新世纪上海书写从时间和空间的双重维度，重新建构了上海这座城与人，在还原上海日常世俗的同时，将笔触伸向历史和人性的纵深，重写了上海城市书写的“苍凉诗学”。正如《繁花》所言，“人生是一次荒凉的旅行”。荒凉之中蕴含着“苍凉诗学”，“苍凉”源自于这一代作家所独有的穿透时代的睿智以及坎坷的经历，从而能展现都市繁华底下另一个或许更真实的面貌。与张爱玲把自己所在的环境中抽离出来俯瞰整个时代不同，新世纪的上海城市书写剥去上海的神秘面纱，成为了解大转折时代中城市的前世与今生的重要文本。

一、《繁花》：沪语作为家园

作为小说的物质外壳，一部作品的成功很大程度上得益于语言。所谓上海，首先是上海人的上海。这首先体现在语言上，一个人语言的界限即是一个人生活的界限。北方人与南方人，广东人与山东人口音语气之异不用说，甚至一个甘肃省内，靖远人与会宁人口音虽大体一致，但细细辨来，仍有差异，平凉人可以听得懂天水人讲话但未必听得懂秦安人，说到底我们每个人都是自己语言的囚徒。在语言方面，金宇澄先生有自己清醒的认知：

语言是为小说服务的。沪语小说最吸引读者的还是它独有的文学价值，也就是小说通过上海话呈现出来的上海生活。因此小说中的沪语应该是容易让人懂的且能增加读者阅读乐趣的沪语。这样既能让小说的文学价值被读者更广泛地接受，也有利于沪语的推广。否则，沪语小说只是有局限性的方言地域小说。所以我在书

中抹去了大量阅读障碍，避免了沪语的拟音字，很多沪语句子，不易书面表达，只能舍弃。我营造出沪语的氛围和韵味，突出沪语的内在精神，所以书中的上海话应该连北方人都能读懂。¹

《繁花》并不是纯沪语写作，而是在此基础上进行了创造性地提炼，并有意无意中掺入一些普通话用语习惯，使人物语言在保持沪语本身神韵的同时，又具有极大的开放性。大量的人物对话，全部省却了引号、冒号、问号等，干脆利落中形成一种语流，又符合上海人的说话节奏和思维习惯，从而形成一种独特语言风格，这可以说是金宇澄对沪语的一大贡献。

小说开篇写道：

独上阁楼，最好是夜里。《阿飞正传》结尾，梁朝伟骑马觅马，英雄暗老，电灯下面数钞票，数清一沓，放进西装内袋，再数一沓，拿出一副扑克牌，捻开细看，再摸出一副。接下来梳头，三七分头，对镜子梳齐，全身笔挺，骨子里疏慢，最后，关灯。否极泰来，这半分钟，是上海味道。

三言两语，仿佛电影里的蒙太奇，快刀斩乱麻般首先便点中了上海作为一个国际性大都市不可缺少的四大要素：电影、扑克、钞票、西装。当然还有上海人的体面：三七分头，还要对着镜子梳齐，疏慢中带着些自观自赏，这是上海的“上只角”风貌。接着，作者笔锋一转：

如果不相信，头伸出老虎窗，啊夜，层层叠叠屋顶，“本摊”的哭腔，霓虹养眼，骨碌碌转光珠，软红十丈，万花如海。六十年代广播，是纶音玉诏，奉命维谨，澹雅胜繁华，之后再现“市光”的上海夜，风里一丝丝苏州河潮气，咸菜大汤黄鱼味道，氤氲四缭，听到音乐里反复一句女声，和你一起去巴黎呀一起去巴黎呀去巴黎呀。对面有了新房客了，窗口挂的小衣裳，眼生的，黑瓦片上面，几支白翅膀飘动。

¹ 转引自项静：《方言、生命与韵致——读金宇澄〈繁花〉》，《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2014年第8期。

既有古典语言的典雅意蕴，又有世俗沪语的绵软黏糊，视线之广阔将“上只角”与“下只角”的特色俱现，于参差错落中构成一种对立统一，荤素搭配中端出的是上海味道。在静安寺菜场，陶陶招呼路过的沪生：长远不见，进来吃杯茶。倘若换成“好久未见，进来喝茶，”意思还在，但味道尽失。沪生因有事，急着要走，被陶陶留下来。陶陶翻开一本簿子，让沪生看，上面誊有不少女人名字，地址电话。陶陶掸一掸裤子说：“香港朋友送的，做生意，行头要挺，要经常送蟹上门，懂我意思吧，送进房间，吃一杯茶。讲讲人生”。沪生不响。这里表面不响，其实是心里明白，几只闸蟹，道尽世情人意。有论者指出，在小说中，光“不响”二字就出现了1500多次，这在一些动辄就以长篇大段来进行心理刻画的小说中是很难想象的。所谓“凡不必说的，可以沉默”，这是新版《洗牌年代》跋里的一句话。不说不意味着没啥可说，其实读者和作者都明白，作者在有意放低自己的姿态的同时又保持了对读者的信任，在拉开双方距离之时还使整部小说充满了一种动势，仿佛有一种流贯注其中，着实吊足了读者的胃口。如本雅明所言，“要想使得一个故事能深深地嵌入接受者的记忆中，最好的办法莫过于，放弃那种细致的心理分析，做到简洁凝练。一个讲故事的人，越是自然而然地放弃心理层面的剖微析幽，故事就越能充分占据听者的记忆，越能充分与听者的经验融为一体”²。

更重要的是，大量“不响”的出现，隐去人物的内心独白，而作者又对对话进行了一种冷处理，一方面很好地体现了上海话独有的琐碎，一句接一句，仿佛没有中心又直达主题。另一方面又夹杂着一些难以明道的尴尬、清冷、谨慎、逃避、不屑，当然还有无奈、苦痛、犹疑。小说第十七章中集中写了尚未成年的小毛与海员妻子的婚外情，值得注意的是，这也是整部小说里下笔极为细腻之处，没有了说教，只有当事人在一种自己无法控制的力量之下，一步步走向两性间最隐秘的角落。

世界忽然静下来，空气凉爽，雨声变小，银凤缩小了尺寸，只有身下篾席，水漫金山。银凤说，不要动，姐姐会服侍，人生第一趟，要休息。姐姐服侍小毛，想了好几年。讲心里话，姐姐欢喜。小毛不响。银凤浑身亮光，到脚盆里拎起毛巾，银凤说，小毛。小毛转过头去，不看银凤。³

之后两人有一搭没一搭地聊着银凤丈夫海德在海外偷运东洋人的物品又以高价卖给他国。其实从一开始到最后被发现，两人对他们之间这段不明不白的畸形感情都没有底，相较而言，小毛被动又犹疑，银凤虽主动但也清醒地认识到：

² 本雅明：《单向街》，江苏人民出版社 2015 年版，第 118 页。

³ 金宇澄：《繁花》，上海文艺出版社2013年版，第218页。

银凤说，我晓得小毛，喜欢大妹妹。小毛说，不可能的。银凤叹气说，这是应该的。小毛不响。银凤说，小毛将来，会交女朋友，结婚，但每个月，最好看姐姐一次，最好是两三次。小毛不响。⁴

仔细一读，我们发现，小毛一直不响。这不响里有无奈、有默认、有志忑也有犹疑，表面的不响掩埋了内心起伏的波澜。而与之相应的则是作者精心设置的插笔，以白描的方式在人物心灵情感最为饱和时对当事人所置身的住处、房间以及房间里的各种摆设、声音、颜色、气味等进行了刻画，于是，人物仿佛隐去，空间则从背景上升为主角，并有了人的情感，见证又包容，沉默以至于原谅。作者不说什么，但什么都已说。

方言不仅是一个人所生活的地域标志，背后也隐藏着身份认同、政治标签以及经济地位。第二章中，宏庆与汪小姐邀梅瑞、康总一起去乡下表舅家踏青，一路江南晓寒、迷蒙细雨、湿云四集，四人吃吃喝喝、有说有笑、心情适意，表面一团和气，其实心里都打着自己的算盘，男人看女人，女人看男人。

汪小姐说，有一种女人，开口就谈情调，谈巴黎，谈吃茶，谈人生，这是十三点。开口闭口谈小囡，奶瓶，尿布，打预防针，标准十三点。一开口，就是老公长，老公短，这是妖怪。⁵

这段话若是让上海本地人读起来，极具上海味道，思维敏捷，语速流畅，长则六字，短则两字，汪小姐表面清高有情调，实则语中带刺、自私而尖刻，典型的久居都市的势利女人一套。为了获取一种真实效果，小说里有大量的对人物活动场所如马路、饭店、电影院、弄堂、舞厅、咖啡馆、工厂等进行细致地描述，当这种空间地理以一种独特的语言风格表现出来，并辅之以大量手绘地图，便会产生一种身临其境现场感：

小毛娘说，读书好，将来就做技术员，做厂长，玻璃写字间里吃茶。小毛说，又讲了。小毛娘盖了镬子说，去吃杯热开水。小毛说，嗯。此刻，老虎窗外，日光铺满

⁴ 金字澄：《繁花》，第223页。

⁵ 金字澄：《繁花》，第35页。

黑瓦，附近一帶，烟囱冒烟，厂家密布，棉纺厂，香烟厂，药水厂，制刷厂，手帕厂，第几毛纺厂，绢纺厂，机器人钢铁厂，日夜开工。洗面牙膏厂，如果西风，“留兰香”味道，西北风，三官堂桥造纸厂烂稻草气味刮来，腐臭里带了碱气，辣喉咙的酸气，家家关窗。⁶

本来一个再平常不过的母子对话，作者却宕开一笔，伸向老虎窗外，目之所见，厂连厂，鼻之所闻，腐臭中夹杂着酸碱气。金先生真可谓撒豆成兵，如此这般叙述，让语言扩大了它的造像功能，作者退却，世俗呈现。作为上海人写上海，难免糅合进自己的感情，而正因为他没有把自己当成上海人，于是打破了外人眼中的上海想象，因为他很清楚，自己只是在写上海。

正因为“到底是上海人”，源自作者骨子里对人性的善意与悲悯，他并没有将人性的黑暗面写得过于透彻，在文革进行到见啥抄啥的阶段，这一天阿宝一家也被迫搬离，然而，在这关键时刻，一个人物出现了：

阿宝全家搬离的前夜，想不到小阿姨拎了半篮水红菱，忽然上门，见房内大乱，姐姐姐夫，闷声整理行李，深受刺激，当场与抄家人员大吵大闹，杀千刀跳黄浦，样样全来。阿宝娘哀求不止。值班监督人员，初以为小阿姨是保姆，最后认定神经病，明天就搬场，也就无心恋战。小阿姨揩了眼泪，摸摸阿宝肩胛说，阿宝，小阿姨来了，不要怕。第二日一早，小阿姨跟了阿宝全家，爬上了卡车，迁往沪西曹杨工人新村。⁷

小说中，小阿姨从此以后基本成了阿宝家的一份子，在苦难岁月里他们互相扶持，在相当程度上参与并推动了故事的发展。小说的三位男性主人公阿宝、沪生、小毛，在那个唯阶级论动辄讲出身的时代，按理说他们基本上不可能有交集，尽管中间出现了一些小插曲，但他们的友谊一直维持着，成为了那个特殊年代里难得一抹人性温情。而经历了人生的大悲大痛之后的小毛，在弥留之际依然念念不忘年少时给予他温存与性启蒙的银凤。同样的，作为小说中童话般存在的人物蓓蒂与绍兴阿婆的故事更是令人感动。小说基本沿袭了传统小说一老一少讲听模式：

⁶ 金宇澄：《繁花》，第 45 页。

⁷ 金宇澄：《繁花》，第 136 页。

阿婆喜欢蓓蒂。每次蓓蒂不开心。阿婆就说，我来讲故事。蓓蒂说，不要听，不要听。阿婆说，比如老早底，有一个大老爷。蓓蒂说，又是大老爷。阿婆说，大老爷一不当心，坏人就来了，偷了大老爷的心，大老爷根本不晓得，到市面上荡马路，看见一个老女人卖菜。蓓蒂笑笑，接口说，大老爷停下来就问，有啥小菜呀。……有一天，有一天，绍兴阿婆一面讲，一面拍，蓓蒂不动了，小手滑落下来。思南路一点声音也听不见了。阿婆讲第五个回合，一只凤凰跳到梧桐树上面，蓓蒂已经咽了。阿婆讲故事，习惯轮番讲下去，讲得阿宝不知不觉，身体变轻，时间变慢。⁸

文字极为轻盈，渐渐晕为一种淡淡而不乏忧伤的气氛，所有人成了听故事的那个人。阿婆以一种近乎童真的口吻讲述，有时候连同自己也讲进去，童年的阿宝与蓓蒂认真倾听，不知不觉听者与讲者角色转换，最后混为一体，留下的只有故事和时间。在那个物质极其匮乏的年代，连吃的小菜也越来越难买，当这种对于吃的渴望化为阿婆口中的一个个菜名进入故事，且当蓓蒂自己也吃不饱还念顾着小兔的安危时，读来不得不令人动容。她们一老一少，一主一仆，在那个年代相依为命，谁也离不开谁。小说第七章第三节里阿婆带阿宝与蓓蒂千里迢迢回乡下老家寻老坟不成，一个月后的夜里自己也化为池中鱼，故事还在，昔人已去。

二、《同和里》：童年游乐场

如果说《繁花》多多少少展现了上海的体面与摇曳，而《同和里》则展现了弄堂里的世俗上海和规矩生活，用作者话说，上海不只有十里长街、灯红酒绿、花天酒地，还有住在弄堂里普通居民规规矩矩的生活。⁹

小说开篇第一章即写道：

同和里弄堂口，一边是皮匠摊，一边是剃头摊。对上海的大多数弄堂来讲，这属于标准配置，但对同和里来说，似乎别有意味。摆皮匠摊的是个30多岁的小皮匠。小皮匠姓啥叫啥，没有人在乎，大概只有居委会的人知道。¹⁰

依旧是传统小说叙述的一套，交代了故事发生的时、地、人，但也不忘站出来调侃一下故事的主人公小皮匠，这种叙事方式和语气基本奠定了整篇小说的叙述腔调。

⁸ 金宇澄：《繁花》，第13-16页。

⁹ 徐颖：《写上海，往往会成为文学上的一个事件》，《新闻晨报》2016年8月3日。

¹⁰ 王承志：《同和里》，上海文艺出版社2016年版，第1页。

小皮匠三十多岁，但老早死了老婆，每天经营一个皮匠摊过日子。对面是摆剃头摊的江水英，扬州人氏，五官清秀，虽眼睛有点斜，风情倒有几分，更重要的是她是个寡妇，时间一长，小皮匠便动起了心思，有时候空街无人，便幽怨地望一眼江水英以解相思之苦，实在忍不住就近前试探、各种搭讪。但人家眼界高心气大根本就不正眼瞧他，吃了几次闭门羹，便再没有了下文。小说基本采取一种独木桥式结构，以小皮匠的儿子大耳朵为叙述视点，这种叙述视点的作用在于：相较于成人视点，能较为客观地展现这个世界。首先作为一个孩子，所受的世俗熏染较少，而属于自己独立的世界观、价值观尚未建立。其次，他很早没了母亲，生性调皮捣蛋，难免一次次闯祸，挨打之后照闯不误。这是一个人最天真无邪、无忧无虑的时期，又是对外部世界的体验最为敏感的时期，这种相对自由的生活方式使他活动范围超越了一家一院而走向不同的家庭接触到不同的人和事。由于特定的年代，特殊的受教育方式，这就注定了小说的讲述幽默、荒诞、闹剧连连，笑中不免惆怅。

这是一个典型的60年代旧上海市民社会，既相对封闭独立，又与外部世界保持着某种联系。这里聚集着三教九流、五湖四海的人，既有手工业者、产业工人，无业游民，又有公司老板、画家、开煤球行，有补鞋、补碗，剃头的，有擦鞋、磨刀、收锡箔灰的，有摆葱姜刮鱼鳞、养鸽子、阉鸡的，有做棉花糖、刷马桶、制甜酒酿、卖酸辣菜的，有听淮剧、越剧、扬剧、京戏的、也有打架、斗殴、看电影的，当然还有说笑的、看热闹的，各色各样，南北方言并用、丑陋与世俗共存，这写人物大多拥有自己的绰号，什么橄榄头、阳春面、毛头、盲肠炎等，日常交流中能叫外号的绝不直呼其名，使整部小说充满了市井烟火气。

由于经历地位的不同，人们无形中形成一个居住等级。永福里、景福里、大同里、大福里、同和里一样，一上一下都是石库门房子，大家脚碰脚，心连心，小孩子们玩玩闹闹，相安无事。而德心屯不一样，那是新式里弄房子，落地刚窗，打蜡地板，磨石子外墙。大耳朵和毛头为了骗零食吃与住在德心屯的唐唐家关系搞得亲热，有一次为了证实唐唐家的弹性沙发，趁家里大人不注意闯进了唐唐家，两人如同陈焕生进城，第一次看到如此漂亮的房子与新奇地摆设，难免惊奇，踏沙发、喝乐口福、嚼饼干，正玩的起劲。小说写到：

吃到第九块饼干，门开了，唐唐的爸爸回来了。我慌了，赶紧把盘在沙发上的脚放了下来，手里仍然抱着饼干听，不敢动，本来我是打算吃十八到二十块的。唐唐爸爸说：“不是讲过不许带陌生人回来的吗？”唐唐低声说：“是我同学。”唐唐爸爸走到我面前，也不说话。我不敢看他，也不敢走，只觉得浑身发热发烫。一只大手伸过来，拿走了饼干听。我很害怕，没想到唐唐爸爸很客气，问我：“同和里小皮匠的儿子？”我点点头。他说：“门口的皮鞋你拿过去，鞋底后跟有点松，去修一修，马上送过来。从那以后，我再也没有到唐唐家去过。¹¹

¹¹ 王承志：《同和里》，第109页。

大人想着世俗利益、孩子们则天真无邪，大耳朵虽是孩子，但到底是穷人家的孩子，又生性敏感自尊，难免自卑胆怯，唐爸的那句话表面上语气随意，但却无意中戳中了大耳朵内心最在意的一个角落，这也许是大耳朵对于人情冷暖最为真切而心痛的一次体验。

同和里表面风平浪静，但偶尔也风起云涌，有时日子过厌了难免动动手脚，小说最有意思的是第六章。大同里一对夫妻吵架，那个男的揪住老婆的头发，假痴假呆要打。那老婆说：“你敢打我啊！你打呀，你不打你就是缩货，你不打你就是我生的。”那男人举着手说：“你以为我不敢打啊！我今天不打你，我就没有名气了，我以后也没有面孔在大同里走进走出了。”说罢男人的手在空中挥来挥去，像是在磨刀，想一刀斩下去斩得狠一点。夫妻俩其实不是真的吵，日子过得不爽快，叫几声通通气，一边吵，一边朝弄堂口看，希望居委会干部快点赶到，来劝一劝，就好趁势歇搁。邻居围了一堆看热闹，看了半天局势一点也没有进展，耐心没有了，就开始劝架。¹² 小说中大都是这样的小人物，但他们都在小说中“活”出了自己，他们有爱有恨，有笑有闹，在一个个无尽的烟火日子里打发这有限的人生。小说中的人物大致可以分为四类，以大耳朵为中心，第一类是他童年志同道合的玩伴：毛头、阿顺、阿四头、徐彩五、阿苗、阿花，这是小说里笑料百出最有活力的，由他们牵引出上世纪60年代上海弄堂居民小孩们的童年游戏和童年记忆：玩蛋珠、在烂泥上戳狗屎、斗鸡、刮刮片；第二类是作为大耳朵的对立面存在，有不断打骂他又给他温暖和并不合理教育的小皮匠、有差点成为他后妈的势利女人陈翠英、有让他体验了穷困之卑的唐唐爸爸等等，他们是整个上海弄唐居民最具代表性的，也是海派文学里市井味最浓的一部分，世俗、自私、算计、虚伪、敏感；第三类是阿娟、顾老师、闸北姨婆、广东嫂嫂，他们在大耳朵的生命里扮演着极为重要的角色，阿娟是他的干姐姐，也是大耳朵对异性的最初体验；顾老师心地善良、和蔼可亲，某种程度上也是大耳朵母爱缺失下的一种补偿。广东嫂嫂后来则成为了大耳朵名副其实的妈妈，她们身上闪耀着那个黑暗年代里人性美好的一面，也是大耳朵童年故事里最温暖的记忆；第四类则是居委会调解主任马樟花、治保主任、支部书记兼居委会主任杨招珍们，他们是弄堂里的发声者、治理者，很有新时代特征，很能体现当时的上层建筑在底层群众中的具体运作情况，这四类构成了整部小说的人物群像。

这些人里写得最多的是女性形象，与作者的成长经历有关，他说：“对一个人影响最深的应该是家里的女性长者，我母亲、祖母的正直与慈爱对我影响很大，可能在塑造角色时不由自主地这样下笔了。”¹³ 给人印象最深的便是广东嫂嫂，她身上凝聚了女性的两种不同形象，既善良体贴、心灵手巧，又豪放率性、不拘小节，这一面占据着她性格的主导面。当小皮匠的摊子被外人鸠占鹊巢，双方争执不下的关键时刻她说出手就出手，化干戈为玉帛，又体现了一种侠气和广东女人的泼辣。

小说中也写到了文革，对一些具体场景和物象做了还原式叙述，敲锣、喊口号、抄家、批斗、抓典型，语录歌、高音喇叭、大螺帽，小皮匠们成立上海市摊贩和手工匠革命造反联合司令部、橄榄头被放到里弄监督劳动、阿娟被迫去新疆、姨婆孤独无奈中跳苏州河自杀、瘪嘴老太被被别人抢了房子、杨招珍被打得鼻青脸肿还差点送了命等等，一些场景荒诞至极、也愚蠢至极，这是一场全民参与的闹剧，当然其中也渗

¹² 王承志：《同和里》，第 66-67 页。

¹³ 徐明徽：《体面是上海人灵魂中最宝贵的》，《东方早报》2016-9-27

透了作者的反思。尤其是大半辈子没有抬起过头的小皮匠在文革中风光无限后又被打回原形，又操起了皮匠摊生意，这个当代的阿Q体现了中国平民阶层的生存困境——盲目跟从和承受。小说中频繁出现“不要紧，解放台湾最要紧”，这句曾经极具权威性和震撼力的命令和口号，此时成了小孩子们口中的顺口溜或无聊时无意识的排遣。

对于历史的描写，《同和里》充满了荒诞的笔法。譬如市里大搞爱国卫生运动，大耳朵“我”所在的学校积极响应，每个同学要消灭五只苍蝇，星期一上学带来，于是一个有趣的现象出现了：

无论是大福里景福里永福里同和里还是大同里德心屯，每条弄堂所有的垃圾箱和泔脚桶前面，都候着好几个举苍蝇拍的家伙，有大人也有小孩。这些苍蝇哪里见过这种阵势，吓也吓死了，还没靠近事物，已经好机只拍子噼里啪啦下来了，逃命要紧。那些家长平时还注意仪容什么的，现在也顾不上了，稀里哗啦溅得一身泔脚水也毫无畏惧，打中一只苍蝇便开心得哇哇大叫。那些苍蝇连惊带吓，纷纷逃亡。偶尔飞来一只刚捆醒的，便激起一阵大呼小叫。那只苍蝇还没搞清楚情况，稀里糊涂就被拍死了。¹⁴

这里的场面不可谓不壮观，气氛不可谓不热闹。大人小孩使出浑身解数展开了一场灭蝇战，得胜者以苍蝇换吃的来满足自己的饥饿和虚荣心。平日里得不到的一下子全得到了，而且得来全不费工夫。之后的情节有过之而无不及，尤其是每年暑假返校那天，全校举行一场比赛，看谁后背痂子最多，场面近乎恶心。而令人不解的是校长也不反对这样的活动，认为可以增进同学之间的了解和友谊，给大家带来欢乐。

书中也不乏暴力和血腥，但更多的是以这种荒诞的手法刻画了出了那个荒诞的时代下荒诞的人们，于嘻嘻哈哈中略去了时代的血淋淋，“我不想写得太血腥、残酷，可能也和我的性格有关，不愿把人写那么坏。写‘文革’残暴的作品有很多，但用嘲讽、放大其荒唐的方式也很好。嗓门大未必立得住，淡淡一句话点到为止有时候反而能戳到心里。”¹⁵当然其中也渗透了作者的反思。

对于那段特殊历史的叙述，更多被王承志看作是一场闹剧，轰轰烈烈、热热闹闹，充满了游戏式的荒诞，当种荒诞以孩童的视角感知出来，相较于成人世界，也许呈现了生活的另一种真实的面相。但尽管如此，作者还是给予笔下的人物更多的宽容和温情。小皮匠的生意越做越好，争分夺秒地修鞋子，与广东嫂嫂齐心协力赚钞票，忙的喘不过气来来，整天笑嘻嘻；而那个精明能干又丑陋无比的居委会主任杨招珍在斗争中不仅被大得鼻青脸肿连嘴都打歪了还差点掉到井里，但她重新回来之后，不仅风光满面而且明艳动人；一直待大耳朵很好的曹菊芬在临走之前不忘给一直处于饥饿

¹⁴ 王承志：《同和里》，第 170 页。

¹⁵ 徐明徽：《体面是上海人灵魂中最宝贵的》，《东方早报》2016 年 9 月 27 日。

状态的大耳朵偷偷地留下几块“山芋干”，说了句：“大耳朵，我会想你的”，使一直不知道什么叫忧伤的大耳朵心里忽然有了几分忧伤；广东嫂嫂在送走阿娟后也会再回来，小说末尾的对话也给读者一个暗示：在不久的将来，她将成为大耳朵名正言顺的妈妈。现实是残酷的，荒凉的，但小说不乏温暖些。

缘此，这既是一部以孩童视角展现上世纪60年代世俗上海的小说，也是一部对人性 and 时代有着深刻洞察的作品，代表着作者“向我的上海致敬，向我们这一代人的童年和少年致敬，向我居住过的石库门老弄堂致敬”。

三、《女红》：工厂里“做生活”

对于上海，我们有穆时英笔下光怪陆离、醉生梦死的都市狂欢；有张爱玲笔下的落魄世家子弟们传奇的情爱纠葛；也有王安忆悠游于虚实之间对于上海的一往情深。而从工业题材对上海这座城市进行透视的作品则少之又少，究其原因，不外乎以下几个方面：

首先是工业历史短暂。从1865年中国诞生第一代产业工人至今也不过150多年，而我国作为一个传统的农业大国，作家们大都缺少工厂经验，而离开生活谈文学则无异于无水之鱼。其次是经典之作稀少。一部当代中国文学史某种程度上是一部当代乡村小说的发展史，作品之多，作家之众，质量之高是工业题材难以项背的，因此可供作家们学习、揣摩的资源较少。再次是难以跳出类型化写作。虽然我们有“十七年”工业题材小说，譬如草明的《火车头》、萧军的《五月的矿山》、白朗的《为了幸福的明天》等，但小说空间多集中于工厂，人物塑造方面烙印着时代的印记，多为高大全式。尽管新时期改革文学涌现出有蒋子龙的《乔厂长上任记》、张洁的《沉重的翅膀》，但并未能写出新时代工业本身的复杂性和工人精神心灵的深刻性。

1990年代，上海的第一支柱产业面临转型，杨树浦的纺织厂女工们也各自走向了命运的交叉口，何去何从？这是摆在她们面前的不得不思考的严峻问题。作者选择了“砸锭”这一举动作为小说的开篇，从而引出了一个工人之家的相关对话，小说这样写到：

锭子，是一样物事。在纺织厂，粗纱纺成细纱的工序里，细砂机上的锭子的数量和转速，是工厂生产能力的体现，也是女工生产能力的体现。……锭子是纺织厂的精灵。秦海花十八岁进厂，终日挡车，看护锭子。那时候，她一点没想到，二十几年后，会“砸锭”，并且被称之为壮举。¹⁶

其实何止秦海花，恐怕所有的纺织厂工人们都没有想到会有“砸锭”这一天，因为这里的女人和男人们整天像护犊子一样看护着锭子，“砸锭”就意味着砸自己的饭

¹⁶ 程小莹：《女红》，上海文艺出版社 2014 年版，第 5 页。

碗。但时代的车轮滚滚而过，他们之中无论谁也无法改变这个事实。按传统工业题材小说的写法，那将是浓墨重彩的一笔，这里作者只是轻描淡写，最浓重也不过是那个老实巴交的小炉匠带着几个男工拎着八角锤去砸锭：

第一榔头敲在锭子上的时候，小炉匠心里发虚，没使上力气。小炉匠很少使用这种工具，挥舞八角锤，没有一点技术含量，可笑滑稽的样子。他感觉很不好。看到别人也拎着榔头过来了，他做出一种传统的敲榔头的姿势，心急慌忙，对准锭子，再一榔头下去。准了还是偏了，砸到旁边的锭架上。手被震了一下，心里更加发虚。定下心来，运气，第三记下去，锭子被砸了。碎钢片飞溅。小炉匠看一眼锭子碎片，想，老旧了，那就走吧。不管怎样，总不可以这样对待机器。来世我会好好再来保养你。一榔头，一榔头敲过去。¹⁷

小说将小炉匠的痛苦、不甘、无奈而不舍的情态深深地刻画了出来。作者不厌其烦、从容而不乏哀伤地刻画工人们的一举一动、所思所感。机器与工人的情感剪不断理还乱、你中有我我中有你，一改往常工人与机器之间冰冷的附庸关系，他们之间可以相互交换灵魂。

城市、工厂与工人的情感彼此交集，扣人心弦。小说借主人公薛晖的视角与情思，将上海这座城市看作一个女人，而他与这座城市的联系，则被比作是一个青春少年与一个成熟的美丽的少妇的恋情，如果不嫌牵强的话，这座城市在他心中其实就是他一直心爱的女人秦海花的外化，当她已嫁作他人妇，他依然在守护着那份情感：

她给他更多的，是温情脉脉和眷顾，加助他身体和心智的发育，也给了他一点情欲的、粗俗的、野性的关照，让他琢磨出一点优雅和人性。¹⁸

工厂、机器与人的关系曾经是极其紧张的，是异化存在的象征，但对大多数处于底层的普通工人来说，工厂生活不仅在他们生命里占据着重要一部分，也是他们经济收入、日常开支的主要来源。他们是上海这座城市的一面镜子，反射出一段不平凡的奋斗史，也折射出真实的“城与人”。这里的工厂是个人化的，所谓“触手皆故事，

¹⁷ 程小莹：《女红》，第 81-82 页。

¹⁸ 程小莹：《女红》，第 162 页。

冷暖寸心知”。作家以平等的言说姿态融入其中，使这部小说多了些温情，也多了些油盐酱醋的日子，少了些政治话语的冰冷。

进一步说，作为新工人叙事的程小莹的《女红》在一定程度上拓宽了上海言说，主要表现在：

其一，小说空间打破了原有的囿于工厂一维的小说写作，将笔触由工厂车间伸入到工人家庭、街道、社区、民兵高炮营、淮海中路的襄阳公园、舞厅、酒吧、浴场、洗头店甚至延伸到了日本，还写到了小报编辑、广告语文案策划、电视连续剧剧本、房地产开发商等。作者说：“现在描述上海，总喜欢写外滩、写淮海路，其实大多数城市生活并不在这里，而在人们生活、工作的现场。”¹⁹这种写作姿态既保留了工厂特色又散发着时代气息，从而使宏大的城市气象得以表达。

其二，结构上以单篇叙事推进小说创作，在纵向上遵从时间的线性发展和人物生命历程的展开，在横向上聚焦于工人们下岗前后的方方面面，每一篇集中写一两个主要人物。譬如第一章首先写了“砸锭”在一个工人之家掀起了波澜，并交代了故事发生的背景和缘起，从而引出小说主要人物秦海花。第二章主要写母亲吴彩球，她是典型的工人阶级代表，既有丰富的工厂经历又经历了新时期工业转型的心灵斗争，她吃苦能干、细心善良，又有光荣的经历，在女儿秦海花四岁那年，作为中国首批援柬工人被遣送柬埔寨援建纺织厂，并与周总理握手拍照，凭借着细纱挡车的生活获得了全国劳动模范称号。

其三，方法上细节化、散文化，将大背景隐现于人物日常中。程小莹说：“我比较喜欢日常生活中的细节叙事。回顾几十多年的小说创作，我从来不会做宏大叙事，但是我特别擅长细节叙事。我将散文化随笔式的细节叙述用在小说中，理所当然要回避宏大叙事。《女红》就是要在一个大的时代背景里面去呈现市民生活的细节，所以我选择了一个普通的纺织工人家庭，通过秦海花、秦海草牵出一些人来。”²⁰小说不注重跌宕的故事情节，而是关注细节，将对人物性格的刻画、生活经历的回顾放在重要位置。如“砸锭”、母亲吴彩球向工厂告别、高天宝每夜给妻子秦海花洗脚……有时甚至不惜以近百字进行心理刻画，以减缓小说的发展速度而进行横截面展开。

其四，人物塑造上注重对工人集体形象和生活的塑造。上海纺织工业曾经是一个拥有几十万工人群众的产业，他们是“这一群”：

在几条车弄里，在一个班头上，白天黑夜地巡回；他们的眼睛只看到自己的那几部机器，自己的那道工序，日复一日。在这些以外，他们一概不知。他们的灵魂，就这样机械地与锭子搅在一起，原地飞转一辈子，直到耗尽能量。²¹

¹⁹ 张滢莹：《程小莹：生活总在日常琐碎处》，《新民晚报》2014年12月28日。

²⁰ 杨剑龙、荀立波等：《历史小叙事中的温情记忆——程小莹长篇小说〈女红〉研讨纪要》，《海南师范大学学报》2015年第2期。

²¹ 程小莹：《女红》，第6页。

重复而机械，生活高度规整化。作家自1973年中学毕业后就进入纺织厂技校学习，后参加工作，直到1985年离开纺织厂。十几年的工厂生活在他的记忆里占据着重要位置，这种工人集体精神的塑造既是作者工厂情结的体现，也是他以文学的方式为城市里那些被忽略的背影作史立传。

他们既是“那一群”，又是“这一个”，有不同的爱恨情仇、欢喜悲忧。秦海花是作者着力塑造的一个人物，作为一个工人之家的子女，她十八岁进工厂，终日挡车、看护锭子，凭借自己的努力和出色表现当上了厂长，她也有自己的理想，有属于自己的爱情，但又由于父亲的原因和特殊身份不得不压抑自己心中的感情，嫁给了高天宝。作为妹妹，秦海草则性格倔强，在父亲秦发奋眼里比较野，不蹈常规又敢于尝试新鲜的事情，为理想远渡重洋。马跃是积极活跃在工厂里的文艺份子，喜欢搞点音乐又生性随意。小炉匠老实巴交，做生活很有心相，心里藏着秦海花但很少流露出来。薛晖是秦海花真正爱的男人，很有思想和主见，是厂子里的笔杆子。李名扬则是名牌大学的毕业生，与秦海花有过一段暧昧的感情，两人曾一度合作后来成了海花的领导。这些工人独特的生命历程不仅折射了工业文明对他们精神的塑造，也见证了一段无奈又热气腾腾的历史记忆。

结语

新世纪文学已经走过近二十年的历程，虽然学术界对“新世纪文学”并没有像1980年代对“20世纪中国文学”那样有着较为明确的界定，但是围绕着“新世纪文学”的讨论，大致还是取得了某些基本的“共识”。概括地讲，这些“共识”主要包括如下几个方面：

首先是对现代性的反思成为普遍的趋势，尽管反思现代性并不等于全面否定现代性，但对现代性的理解日趋深入和多元，不仅逐渐放弃了对现代化前景的乐观想象，进一步意识到现代性的负面后果，而且也不再迷信“西方”是“现代性”的唯一标准，进而可以探索“现代”的本土特征和多元形态；

其次是文学的生产条件发生了深刻的变化，随着消费社会的来临、视听技术的变革、互联网的普及以及智能手机的广泛使用，高度依赖于“商品化”和“媒介化”的“当代文学”的生产条件发生了剧烈的变化，打破了“雅”“俗”之间的界限，模糊了“虚构”与“非虚构”的区别；“文学”面对其它媒介形式的挑战迅速边缘化，但“文学性”却借助广告、游戏、动漫、影视等急剧膨胀；网路文学不仅以其内容更以其媒介融合的形态特质展现出与传统文学迥然不同的前景……文学生产条件的深刻转型构成了“新世纪文学”最夺目的特征；

最后但并非不重要，新世纪“全球化”的迅猛发展以及中国在这一过程中发挥了越来越重要的作用，不能不对“新世纪文学”产生直接的影响：“人类命运共同体”的未来愿景倡导，“一带一路”的“全球化”图景的描绘，面对“中国崛起”，“新世纪文学”必须迎接“如何讲好中国故事”的挑战。有学者提出“新文学的终结”的说法，如果将“新文学”理解为一种以现代化乐观想象为底色、努力以“西方”标准来规范自身、高度依赖于印刷媒介和纯文学体制的“文学形态”，那么这种形态的文学在新世纪即使没有终结，也遭遇了越来越多的困境与难题。

新世纪文学的上海书写自然不能自外于上述特征。1990年代后，随着“上海热”的兴起，上海研究逐渐成为显学，对开埠以来“上海摩登”的再发现，成为知识界和

文学界认识当下中国的一个装置，由此不难理解为什么“上海的风花雪月”之类成为了主流叙事，即使内涵丰富的《长恨歌》也被狭窄化了“上海怀旧”之作，可见“摩登叙事”的强大。新世纪以来之所以出现诸多尝试走出“摩登叙事”的文学努力，和新世纪以来思想的发展、文学生产条件的变化以及中国叙事的挑战密切相关：《天香》从长时段重构上海的历史，发掘现代的本土资源；《租界》打破“摩登叙事”的文化迷思，凸显“殖民治理”对租界的重要性；《启蒙时代》等重返“革命”、“启蒙”与“摩登”的复杂性，用“上海式启蒙”重新唤起“革命”与“日常生活”的关联；《繁花》、《女红》等则“目光向下”再次从日常生活中发现上海，揭示出上海内部的、不能被单一化的“摩登”所概括的多样性；即使《小时代》有着这样那样的问题，但作为文学生产条件变化的表征以及“小城青年”欲望投射和挫败的症状，依然为“上海”与“外省”、“沿海”与“内地”的关系留下了重要一笔；而来自马来西亚、香港和台湾的作家的上海书写，则从“周边”显示了中国主导的“另类全球化”正在改写上海的城市形象和文化想象，其“全球城市”的特质正在逐渐形成……我们可以看到，新世纪以来的“上海书写”越来越趋向多元，但走出“摩登叙事”之后，将会走到怎样的新阶段和新形态，仍然是一种未完成式。正是在这个意义上，只能说新世纪文学的上海书写正在力图走出“摩登叙事”，却未必一定能走向某种“新的叙事”。

或许还可以进一步追问的是，这些走出“摩登叙事”的文学是如何被“生产”出来的又是如何被“消费”的，在它们背后，消费社会的“欲望”力学又是如何发挥作用的？关于走出“摩登叙事”的各种话语、各种现象之间有何内在的联系等诸如此类的问题，可以说还有待进一步解释清楚。另外，如何协调上海文学一直沉溺其中的“怀旧风”与对当下都市生活直接与介入的“表现力”，如何处理上海地域方言文化与现代汉语书面语、民族性与世界性的关系，以及如何进一步认识上海作家群内部不同作家的特点和潜力，如何影响年轻一代作家在先行者的基础上再度出发和继续前行等等，也越来越成为上海作家、批评家们需要认真思考的问题。

面对这些新问题和新的挑战，新世纪以来的上海文学，就不能简单地视为作家个人性的成果，而是需要看作关乎中国文学“现代化”走向的重要参照。这些作品不仅与时俱进地表达了生活的新旧交替，而且充满历史感地铭刻下当下的矛盾和困境，成为了转型时代中国的深刻记录和见证。

参考书目

- 韩南：《中国近代小说的兴起》，徐侠译，上海教育出版社，2004年
- 岩间一弘：《上海大众的诞生与变貌》，上海辞书出版社，2016年
- 熊月之主编：《上海通史·导论》，上海人民出版社，1999 年
- 李欧梵：《上海摩登——一种新都市文化在中国（1930-1945）》，北京大学出版社，2001年
- 叶文心《上海繁华》，时报文化出版公司，2010年
- 解志熙：《摩登与现代：中国现代文学的实存分析》，清华大学出版社，2006年
- 张勇：《摩登主义：1927-1937上海文化与文学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2015年

吴福辉：《都市漩流中的海派小说》，湖南教育出版社，1995年

李今：《海派小说与现代都市文化》，安徽教育出版社，2000年

张旭东：《批评的踪迹》，北京三联书店，2003年

罗岗：《想象城市的方式》，江苏人民出版社，2006年

陈映芳：《城市中国的逻辑》，北京三联书店，2012年

张济顺：《远去的都市——1950年代的上海》，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5年

董倩：《改造日常：〈新民晚报〉与社会主义上海生活空间之建构（1949-1966）》，上海世纪出版集团，2016年

《活着》的读者接受与当代中国的情感结构

项静

1990 年以来的中国当代文学中，余华的《活着》是一部绕不过去的作品，在官方、商业和民间的文学排行榜单和影响力图书榜单中，几乎都有其位列前茅的身影。《活着》发行量在严肃文学领域中与《平凡的世界》并驾齐驱，近年来还有超越之势。截至 2023 年销售量已超过 2000 万册，仅 2018 年一年销量即达到 200 万册，如果加上盗版和电子阅读量，其阅读量还有较大的想象空间。2009 年《活着》和余华另一部经典小说《许三观卖血记》一同入选中国百位批评家和文学编辑评选的“九十年代最有影响的 10 部作品”。除此之外，《活着》还获得中国大陆之外的广泛社会影响力，1998 年《活着》荣获意大利格林扎纳·卡佛文学奖，1994 年被评为《中国时报》十本好书奖，2005 年余华因《活着》获得中华图书特殊贡献奖，2004 年 3 月作家余华凭借小说《活着》荣获法兰西文学和艺术骑士勋章，2008 年获法国国际信使外国小说奖，2014 年意大利朱塞佩·阿切尔比国际文学奖，并入选香港《亚洲周刊》评选的“20 世纪中文小说百年百强”。余华作品被翻译成 40 多种语言，在美国、英国、韩国、日本、澳大利亚、法国、德国、意大利、西班牙、葡萄牙、荷兰等 40 多个国家和地区出版。《活着》传播的路径传奇、丰富、全面，是纯文学传播学上的经典案例，如果作家有所谓命运齿轮的话，《活着》显然是余华生命中最重要的一环。

—

《活着》发表于1992年第6期《收获》杂志，发表之初几乎无人可以预见到后续的传播盛景。王安忆在1993年的一次研讨会上非常谨慎地谈到这部祛除了余华早期色彩的作品，她注意到余华对世界基于时间的理念化表达，“余华确实向我们描绘了一幅世界的图画，这图画不是表面的，但究竟是不是世界的核心，我不知道；是第几个层面，我也不知道。时间是一种容易使人悲观的东西，它总是在流逝，而且不可逆转，它给我们带来的每一样东西都要失去，它使我们作出人生一无所得的结论。”¹程德培在《活着》中看到余华这样的青年作家表现出来的一种新质，对于旧社会生活的书写技术和表达热情，远远超过对新时代生活的表达，“表现出一种驾驭时间的能力，这些作品把历时代的人情世故、世态炎凉描写得栩栩如生。”²陈思和认为“《活着》在写法上很机械，又重复，这还是形式的问题，形式可以给你造成一种张力，一种想象。而《活着》仅仅是一个拖沓疲惫的故事。”³阿航给出了难得的高评价，“在如今这疲软、沉寂的文坛，《活着》一如一颗耀眼的星星挂在天际上。余华从那条细得不能再细得小道上脱颖而出，更准确地来讲，是余华成熟了。他已经是在凭‘底蕴’来写小说，而无须过份地地依赖其写作技巧了。”⁴另外，在《活着》发表之后的两年内（1993—1995），从知网重要期刊论文可以看

¹ 王安忆：《我们在做什么》，《文学自由谈》1993年3期

² 程德培：《张艺谋看中余华》，《文学报》1993年1月18日

³ 陈思和、李振声、郜元宝、张新颖：《余华：中国小说的先锋性究竟能走多远？——关于世纪末小说的多种可能性对话之一》，《作家》1994年第4期

⁴ 阿航：《为余华喝彩》，《文学自由谈》1993年3期

到当时的新锐评论家吴义勤、洪治纲、谢友顺、汪民安等都发表了有关先锋派写作和余华作品的专论文章，文章内容大都在讨论先锋文学的话题，比如先锋性减弱，先锋文学中的绝望、死亡描写、苦难意识等话题，在论及余华时基本都到《细雨与呼喊》为止，较少提及《活着》这部新作品，作为作品例证偶尔提及，也依然在先锋文学的语境中强调其画面感和历史表达，没有予以特别关注和单独阐释。由此可见，相对于《活着》后续在读者中的超高人气和国际影响力，虽然有个别同行给予认可，但在当时批评家视野和文学语境中并没有获得特别关注和认可。

余华《活着》从早期的无名状态，转而进入大众视野，与作品的影视化改编有着重要关系，在小说发表之前，余华已经把《活着》的电影版权卖给了当时声名日盛的第五代导演张艺谋。1992 年 11 月，张艺谋先买下余华中篇小说《河边的错误》的电影版权，在剧本讨论时，余华把即将发表的新作《活着》也拿给张艺谋看，张艺谋对这部作品更感兴趣，故事的张力和画面感非常适合拍电影，他决定提前拍摄《活着》。1992 年《收获》第 6 期发表的中篇小说《活着》，是《活着》的初版本，字数不到六万字，文末署明创作日期为“一九九二年九月十二日”。初版本故事架构已经完成，参考导演、文学策划和编剧的意见，余华在写剧本过程中对小说做了一些修订和改写，“多写了大概 4 万字，后来我觉得这 4 万字写得挺好的，就把它放进了书里。出书的时候就变成不到 11 万字，从一个大中篇变成一个长篇，

就是今天的这个版本。二十年没有修改过。”⁵1993 年 11 月，修改后的版本由长江文艺出版社发行。由此，后续长篇初版本（1993 年）、作品集版（1995 年）、“南海版”（1998 年）、上海文艺版（2004 年）以及出版 25 周年特别修订版的定本（2017 年）差异不大，作品即来自于 1993 年这次从中篇到长篇的修订和改写，这一版本即是大众图书市场和读者最常接触的“常销书”和“畅销书”。本文所谈论的《活着》是以 1993 初版本为基础的长篇小说，版本是出版 25 周年特别修订版的定本（2017 年）。

作家马原看过余华《收获》版《活着》后，对小说印象不深，对张艺谋改编的电影《活着》也不满意，但他高度赞赏修改后的长篇初版本，“长篇版《活着》有着中篇版、电影版所没有的节奏，充满信心，大步往前去；舒缓、平实，具有了可以让人触摸的质感。而这些都是余华先前作品中很难见到的。”⁶即便如此，《活着》出版之后，作品并未一炮打响，而是在时间的淘洗中逐渐浮出水面，从默默无闻到为业内和读者所知，大概经过了六年时间，直到 1998 年“南海版”上市才成为畅销书，在市场整体低迷的情况下，“出版社几乎以每个月加印一万册的速度来满足此书的市场需求”⁷《活着》和后续受到关注的《许三观卖血记》让余华在大众读者心目中积累了巨大的名声和口碑，并逐渐获得专业读者和专家的认可，“1996 年以后，‘系统化’‘学术化’的评论文章与日俱增，‘先锋’与‘转型’成为了

⁵ 冯翔：《余华：“活着”介入现实》，南方周末 2012 年 09 月 14 日

⁶ 马原：《论余华》，《马原散文》，浙江文艺出版社 2001 年版，第 194 页

⁷ 徐林正：《先锋余华》，浙江文艺出版社 2003 年版，第 35 页

文学批评的轴心词汇。”⁸当时主要的评论家陈思和、陈晓明、吴义勤、洪治纲、郜元宝、谢有顺等人的文章认为1990年代后余华的小说在叙事、思想上日臻表现出独特性，并从民间叙事、先锋转型、写作主题、文学史定位等方面给予了充分的解读和阐释。基于前期的积累和长时间的书写断档，2005年的《兄弟》、2013年的《第七天》、2021年的《文城》一经出版即引起社会高度关注和热烈反响。

二

《活着》是福贵的个人故事，贯穿其生命之初、浪荡青年到凄凉的晚年，隶属于小说写作中常见的一个人一生的故事模型。小说一开头即强调福贵这个人的特殊性，他是叙事者“我”收集民歌时偶遇的奇怪老头，其生存于殊异于都市文明和知识分子群体的乡村民间社会，作者用一系列野趣和轶事描述了它，粗野而直接，充满着荤故事与酸曲。在这个独特空间中，福贵还有其独一无二性，“我再也没遇到一个像福贵这样令我难忘的人了，对自己的经历如此清楚，又能如此精彩地讲述自己。他是那种能够看到自己过去模样的人，他可以准确地看到自己年轻时走路的姿态，甚至可以看到自己是如何衰老的”。所以小说提供的是一个具体的特殊的故事，在故事的讲述过程中，我们可以看到福贵的一生经历，从纨绔不羁的青年时代到落魄波折的中年，再到孤独无依而又自我释怀的老年。

福贵的个人故事所依附的是中国近现代近七十年年的发展历史，从民国晚期到解放战争的内战和政权更迭，新中国成立后的历次运动与

⁸ 王俊利：《余华小说接受研究》（未刊），硕士论文，河南大学，2020年

灾难，直到家庭联产承包责任制开始，整个社会发生翻天覆地的变革，福贵的生活在世态变迁中浮沉起落。在个人与时代的交接界面上，我们可以看到一个中国普通人的生命抛物线，除此之外，福贵还是一个象征性的人。在具体历史时空之外，通过重复性的“死亡”和磨难书写，他的生活获得了超越现实的哲学意义，《活着》可以看作是抽象的中国人的故事，所以余华把这部作品总结为“写人对苦难的承受能力，对世界乐观的态度。写作过程让我明白，人是为活着本身而活着，而不是为了活着之外的任何事物所活着。”⁹从福贵亲人死亡的一次次重复中，我们还可以看到具体转向抽象的痕迹，从肝肠寸断到慢慢接受苦难，“我认识的人一个挨着一个死去，我还活着。”到了小说结尾，往事人迹俱退出，呈现的是抽象的女人吆喝孩子的声音，是走过的男人和永恒的田野霞光，并走向唯美的抒情和赞颂，“我知道黄昏正在转瞬即逝，黑夜从天而降了。我看到广阔的土地袒露着结实的胸膛，那是召唤的姿态，就像女人召唤着他们的儿女，土地召唤着黑夜来临。”

余华引述法国出版商的话，“中国文学要走向世界，不能以风土人情取悦读者，不能以政治上的反动派吸引读者，这样的时代已经过去，中国作家必须写出真正的中国人。”¹⁰什么是真正的重中国人以及中国人的生活，应该是狂飙突进的 1980 年代之后，中国作家竭力表达的集体意识，提供具有中国主体性的故事和情感。创作《活着》时的余华告别了早期叙事中的愤怒和冷漠，整体写作风格走向写实和

⁹ 余华：《活着》，十月文艺出版社，2017 年版，第 3 页

¹⁰ 余华 宋健：《“我不喜欢中国的知识分子”——答意大利〈团结报〉记者问》，《作家》1990 年 2 期

故事，侧重于表达对生活和世界的深入理解，“我开始意识到一位真正的作家所寻找的是真理，是一种排斥道德判断的真理。作家的使命不是发泄，不是控诉或者揭露，他应该向人们展示高尚，这里所说的高尚不是那种单纯的美好而是对一切事物理解之后的超然，对善与恶一视同仁用同情的目光看待世界。”¹¹经过对早期写作的反思与新的思考，《活着》是余华重新建立与现实、历史、文学传统对话关系的作品。

纵观福贵的一生，我们可以从中摘取出中国人的“创业史”和家族故事，从根本上讲也在重新讲述从柳青《创业史》到路遥《平凡的世界》中的创业故事。《活着》里面隐含了中国人的创业史和败家史——“从前，我们徐家的老祖宗不过是养了一只小鸡，鸡养大后变成了鹅，鹅养大后变成了羊，再把羊养大，羊就变成了牛。我们徐家就是这样发起来的。”“到了我手里，徐家的牛变成了羊，羊又变成了鹅。传到你这里，鹅变成了鸡，现在是连鸡也没啦。”¹²徐家是乡土中国社会的代表性家庭，拥有祖上创业带来的土地和田产，福贵的父亲不铺张不骄奢，享受着一个乡村地主自足的生活，与周遭世界保持着有机的社会关系，家有义仆，享受佃农们的尊敬，遵循着基本的道义和原则生活。徐家跟城里米行老板通婚，是基于同等的经济地位和社会关系，在没有战争、灾异和家庭变故的时候安稳度日。抛却阶级视角，福贵与梁三老汉、梁生宝和孙玉厚、孙少安等一样共享丰衣足食、家有居所、美满幸福和子孙繁衍的生活前景，是中国文学中反复

¹¹ 余华：《活着》，十月文艺出版社，2017年版，第3页

¹² 余华：《活着》，十月文艺出版社，2017年版，第33页

被叙述过的普通中国人的诉求和情感。《活着》是对这种类型中国故事的一个反转，拥有中国故事的基本叙事模型和结构，但又终结了这个正向的故事，走向其反面——“失去”与“败家”的故事。

《活着》延续了中国当代文学中大历史叙事与国族叙事的基本架构，个人的故事与国族的故事交叉融合在一起，叙事上有简体版的中国近现代史的意味，与一般中国当代文学中的近现代历史的写法不同，

《活着》的最后落脚之地是“个人”：哲学意义上的活着，中国人的智慧，个人与大历史没有实现如《创业史》、《平凡的世界》中的共融与合围，而是走向另一种更抽象的纵深。

另外，在中国当代文学的“创业史”叙述中，女性很少承担主要角色，但又是家庭必不可少的支撑。福贵的太太家珍是中国传统女性的代表，她读过新式学堂，穿月白色旗袍，和女伴一起读书上学，穿着做派是新女性的样子，穿高跟鞋走在石板路上，头发齐齐地挂到耳根，漂亮时尚，但她完全不同于我们熟悉的新女性形象，比如《伤逝》中的子君，《青春之歌》中的林道静，她们都拥有创造新生活的勇气和跌宕起伏的故事。家珍与福贵走入婚姻，小说中仅用一句话就交代了来龙去脉，“快去找个媒人，我要娶城里米行陈老板的女儿娶过来。”婚后，家珍对福贵在城里青楼花花绿绿的事情心知肚明，明面上从不表达不满，只是弄些拐弯抹角的点子去敲打他，逆来顺受，福贵在外面胡闹，“从不说我什么，和我娘一样。”家珍的形象有一种反启蒙的色彩，她经历了中国历史中女性解放的阶段，但却任劳任怨，任打任骂，她不在意福贵的穷困潦倒，跟福贵娘、凤霞一样，像女性天使

一般宽慰扶持着遍历磨难的福贵，家珍顾名思义是家庭中的珍宝，也是中国文学中经常出现的地母般的女性形象，她不是一个简单的女性形象，而是苦难和悲情大地般的承载者。凤霞这种女性形象与小说中人物如春生、队长等，模糊了先进与落后，阶级和阵营的界限，走向支撑一个人更恒久稳固的东西——善良、韧性、良心、道义等，他们表现出理解、接纳和抚慰的情绪价值。小说中涉及家庭生活的细节非常之多，家珍的任劳任怨，凤霞的善良与隐忍，有庆的淳朴和天真，大历史之下陋室之内的一家人，正是靠着丝丝缕缕的爱与珍惜，让人感受到活着的价值。小说中的春生，是福贵曾经一路同行的战友，却间接害死了有庆，家珍不肯原谅春生，但在春生被打倒，失去活着意志的时刻，她选择了原谅，希望他带着歉意活下去。福贵一家与春生之间复杂的感情，有庆羞怯的难以表达的爱，凤霞对家庭默默的奉献，二喜对凤霞的珍惜，福贵抱着有庆的尸体不忍下葬等等，是很多读者喜欢在读后感中分享的“催泪”细节，正是从这种细节中可以看到中国人的共通的情感，历史真实和生活态度。

西蒙-舒斯特总编辑迈克尔·柯达在《畅销书的故事》中说的那样：“畅销书是有规则可循的，但并不局限于真正有天分的作者，也不适用于所有人。你唯一能确定的是，不管在文学类或非文学类，说故事的能力皆为重要的关键，对熟悉的主题，能提出崭新而有趣的想法，大概是最核心的技巧。”¹³《活着》在内容上并没有标新立异之处，这也是早期精英和专家读者对其并不推崇的客观原因，但在熟悉

¹³ 畅销书的故事 [美]迈克尔·科达，卓妙容译，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6 年版

的主题、故事上，余华贡献出了崭新而有趣的想法。第一，在中国文学中反复出现的家族故事和民族国家的故事上做了自己的修订与改写。主角福贵成为传统意义上家族故事的终结者，他一己之力败光了祖上家产，在时代沉浮中也没有守护住自己的妻子和子女，走向个人英雄主义的岔路；与民族国家和大时代叙事的路径分道扬镳，最后孤身一人面对整个世界。第二，《活着》承担了简易版中国故事的普及的作用，以聚焦一个人的简洁方式剔除了繁冗的背景描写、社会局势交代和人物心灵斗争的摹写。这个故事内在于中国当代文学中最常见的“时代与人”的故事模式，拥有一个最大公约数的接受领域，然后在各个细微的部分，做出了自己的逆反、背离和独特造型。

三

《活着》在时间河流中载浮载沉，携带了两岸的风景与沉积物，从这个意义上来看，任何小说已经不再是原初意义上的故事，它是读者接受与作家不断重新生产和再造的《活着》，与时间共同“生长”，这是《活着》在当代文学中最大的特殊性。

《活着》出版以来，余华不断去阐释这部作品。在 1996 年韩文本自序中，余华列举了《活着》故事的各种含义，首先是一个人与他的命运之间的友情，他们互相感激，同时也互相仇恨，谁也无法抛弃对方，同时谁也没有理由抱怨对方。第二，人如何去承受巨大的苦难，就像中国的一句成语：千钧一发。让一根头发去承受三万斤的重压，它没有断。第三，《活着》讲述了眼泪的宽广和丰富，讲述了绝望的

不存在，講述了人是为了活着本身而活着的，而不是为了活着之外的任何事物而活着。最后，《活着》还讲述了中国人这几十年是如何熬过来的历史。这是一个特别宽泛的自我解读，囊括了各种可能的抽象和具体的涵义，从中国历史到个人、命运、苦难、承担等。

而在 2002 年日文版自序中，余华明确地缩小了对这部作品的解读范围，把它归结为“一个人一生的故事”：时间的漫长和时间的短暂，表达了时间的动荡和时间的宁静。2002 年英文版自序中，余华把《活着》中的福贵与美国民歌《老黑奴》相对比，他找到了不同文化语境中类似的人物形象，找到了福贵跨越边界的共情之处：他们生活在不同的国家，经历着不同的时代，属于不同的民族和不同的文化，有着不同的肤色和不同的嗜好，然而有时候他们就像同一个人。2007 年麦田版本自序中，余华强调了自己使用两种第一人称叙事的匠心：生活是属于每个人自己的感受，不属于任何别人的看法。他拒绝把福贵放在观察对象的位置，而是一个有着独立认知的讲故事人。“《活着》里的福贵经历了多于常人的苦难，如果从旁观者的角度，福贵的一生除了苦难还是苦难，其他什么都没有；可是当福贵从自己角度出发，来讲述自己的一生时，他苦难的经历里立刻充满了幸福和欢乐，他相信自己的妻子是世上最好的妻子，他相信自己的子女也是世上最好的子女，还有他的女婿他的外孙，还有那头也叫福贵的老牛，还有曾经一起生活过的朋友们，还有生活的点点滴滴。”¹⁴余华的阐释从早期丰富具体的内容逐渐向抽象的人转化，他更加强调“个人”的独

¹⁴ 余华：《活着》，十月文艺出版社，2017 年版，第 216 页

特性和权益最大化,每个人都是自己生活的唯一阐述者,他的苦难不能为任何他人所能完全理解,在命运、时间、人性等词语的加持之下,福贵充满地域、时代、阶级符码的故事变成一个具有超越性的全人类的故事。

除了作家的自我阐释,随着新型媒介的产生,《活着》的读者评价和阐释成为“可见”的意见,它在读者中超高人气和接受度也成为当代文学中独特的景观。以豆瓣网站为例,截至2023年9月,《活着》读者打分最多的2012年作家出版社版本有793244人评价,打分高达9.4分,远远超过很多文学名著,读者书评有1.1万篇,短评188872篇。1998年南海出版社版本有196146人评价,评分9.2分。在当当网自营书店,十月文艺出版社2021年版本,是最受读者喜欢的版本,高达1173539人评价和发表读后感,常年稳居畅销书榜单。

借助于新的媒介方式,读者的真实反应以及读者之间的情感互动找到展示的园地,在这个意义上,《活着》已经形成了自己的“粉丝批评家”群体,他们给出的意见和反应多数与作品早期出版时专业读者和精英评论家的意见大相径庭。对于普通读者来说,囿于专业知识缺乏,他们并不考虑《活着》这部作品在当代文学史中的独特与创新,也不关心余华与同时代作家的差异,而是把《活着》作为一个对话和可以创造的文本。从豆瓣评论来看,读者们分享的方式与个人情感、心态和生存状况密切相关,他们使用的是近距离观察的方式。近距离是德塞杜读者接受理论中重构和重新使用文本的必要条件,“近距离与文本互动并不会令粉丝为其所驭,相反,却能让读者更好地占有它。

只有将媒体内容重新代入日常生活与之相结合，只有近距离地与意义和原始材料互动，粉丝才能完全地消费虚构文本，使其转化为积极材料。”¹⁵

中国当代文学中获得广泛关注的作品如《平凡的世界》《三体》，几乎都有其超级读者和英雄读者，以其个人形象和社会身份而拥有强大的号召力和特殊意义。美国前总统奥巴马催更过《三体》，在访谈中不吝赞美，“《三体》实在是太有想象力了，十分有趣。故事背景十分宏大，当然也有可能是因为平时国会和我的工作都是在斤斤计较于一些很小的事情，而不是去担心外星人入侵。”¹⁶《三体》几乎成为互联网一代企业家如百度李彦宏、联想柳传志、游族林奇、360周鸿祎、小米雷军等人的宝书，“《三体》中的场景和当今互联网行业的情况吻合得太好了，所以在互联网创业者（包括已经创业成功的）看来，感同身受，代入感太强烈，一不小心就成了脑残粉，然后对同行和下属进行‘安利’”¹⁷马云、潘石屹等企业家对《平凡的世界》情有独钟，马云说路遥的作品改变了他的一生，“让我意识到不放弃总有机会，否则我现在还在蹬三轮呢”，同是陕西人的潘石屹读过七次《平凡的世界》，遇到困难和挫折，“每当我忍无可忍，准备放弃时，都会拿出路遥的《平凡的世界》读，以至于在深夜经常痛哭。是书中孙少安、孙少平为了改变命运，努力拼搏，不轻言放弃的精神激励了我，让我第二天有勇气继续去面对困难。”¹⁸

¹⁵ (美)亨利·詹金斯：《文本盗猎者》，郑熙青译，北京大学出版社，第59页

¹⁶ 金姬：《小说〈三体〉为何封神？》，《新民周刊》2023年2月24日

¹⁷ 颜溪：《为什么互联网大佬们都喜欢〈三体〉？》，上观新闻 2015年8月25

¹⁸ 《马云、潘石屹推荐的〈平凡的世界〉，看平凡人不平庸地活着》，网易悦读 2018年7月20日

相对于以上两部作品的世界性、英雄主义和积极社会导向,《活着》更加本土和低抑化。一方面它提供的更多是与普通人息息相关的生活世界和精神世界。另一方面余华拒绝苦难展示的表达方式和后续的自我阐释,实现了小说所指从苦难到人生困境、境遇转化。小说讲述的福贵从高点曲折坠落的下行过程,其中的失败感、苍凉感和失去感,更容易提供普通读者的情感共鸣和精神安慰,提供了更具质感的故事、高级感的心灵和人生指引。发表于1992年的《活着》,聚集大量普通读者的关注,与充满竞争的市场经济和商业社会在中国兴起同时出现。而《活着》在新媒体时代获得广泛关注和集体效应,跟倦怠社会和功绩社会的兴起几乎同步,当然与余华幽默松弛的社会形象在社交媒体中的传播也有一定关系。中国作家一般都是严肃雅正的个人形象,新媒体时代的余华在短视频中频频出圈,其幽默风趣的个人形象,严肃文学与作家诙谐形象之间的反差感,应和与缓解了高压社会中青年人的内心情绪,以半真半假的方式代言他们的不满和消极反抗。

新媒体上三言两语的短篇和长篇评语中,沉浸式解读特别多,在对作品好坏发表基本看法外,多使用文本盗猎者式的方式,混杂自己的阅读场景,工作境遇和生活回忆的阅读感受,即读者接受和粉丝文化意义上的情感现实主义。“情感现实主义并非虚构故事的属性,而是一种粉丝阐释虚构故事、赋予流行叙事以意义而建构出的他们眼中的虚构故事。”¹⁹在粉丝或者普通读者的解读中,充满了自我剖白,

¹⁹ (美)亨利·詹金斯:《文本盗猎者》,郑熙青译,北京大学出版社,第102页

将个人经历、个人背景代入虚构故事的领域，强化粉丝对于人物和故事世界的认同。《活着》豆瓣排名第一的读者“子不语”的书评，全文略过了小说的故事情节，作者说自己在这部作品面前失去了语言表达能力，转而描写了自己在长途火车上阅读这本书的情景。跟偶遇的一对情侣和老年人，在传递着看完了这本书，年轻女孩默默流泪，男孩叹息，老人家只是微微笑说很好，年轻女子看见生命悲苦，年轻男子看见生命的无常，老年人淡然以对。这篇书评描写读者阅读时刻的特殊环境，炎热夏季的长途火车上，书成为陌生人之间建立情感关联的媒介，也是他生活的一部分。这条书评有 700 余条回应，很多人分享自己的阅读后悲痛伤感的感受，也有很多人回忆是在什么情况下阅读这部书的，比如有人是高二打手电筒在宿舍床上看的，有人在落地窗前耗费一个下午读完，有人是在过年的时候看的更觉得悲凉，有人在一个下着雨的深夜看完坐在床上嚎啕大哭等等之类的。“子不语”的书评，没有泄露任何故事情节，却引起了极大的读者共鸣，让他人想起读《活着》那个时刻的自己，并表达出来，《活着》成为陌生人之间铭记时间、经验和自我的一个公共容器和链条。读者们借助《活着》的整体故事、人物、语言片段和时代信息，重新讲述自己的“故事”，抒发怀旧、伤感、自我鼓励的情绪，“好与坏、开心与悲伤、希望与失望通通都可以照单全收，宠辱不惊，悲喜不形于色不动于心，站在与自然万物同等的位置上看自己，其实一切真的都十分简单。”

（豆瓣读者陈莫尼）“现实生活的无情与残忍，远比我们想象的要宽广；而活着，纵使要担当诸多难以承纳的苦痛，但是依然要坚忍，顽

强。这应当便是生命的力量罢。”（豆瓣读者大头绿豆）

伍尔夫在《普通读者》一文中强调过普通读者的，他们独特接受方式，读书基于未受文学偏见腐蚀的读者常识，“读书是为了消遣，而不是为了传授知识或纠正他人的看法。他首先是出于一种本能，希望从他能够得到的零片段中，为自己创造除某种整体性——一个人的肖像，一个时代的速写，一种写作艺术的理论。他在阅读过程中不断建成一些潦草的结构，它们与真实的对象有几分相似，足以容许热爱、欢笑和争论，使他从中得到暂时的满足。”²⁰除此之外，我们必须正视《活着》读者的精神状态和现实处境，很多年轻的读者属于绩效社会中疲惫的主体，他们在福贵身上获得的是一种安全和沉浸。福贵的失败、失去和最后的内心平静，类似于韩炳哲所说的“根本性的倦怠”和无为状态，“这种倦怠产生了一种深层的友谊，促成了一种特殊的团体，而无需从属或亲缘关系。人类和事物相互联结，通过一种友善的并列关系。”“一个疲惫的人就是另一个俄耳浦斯，在他周围，最野性的动物都聚集起来，并最终一同享受这困倦。倦怠赋予孤立分散的个体一种共同的节奏。”²¹《活着》在时间流逝中获得不同人群和不同方式的解读，不同时代的读者注入不同的情感联结，作品也在新的语境下繁衍出新的时代内涵。

²⁰ 【英】弗吉尼亚·伍尔夫：《普通读者》，瞿世镜译，上海译文出版社2022年，第1页

²¹ 【德】韩炳哲《倦怠社会》，王一力译，中信出版社，2019年版，第58、61页

结语

《活着》持续获得读者关注讨论是当代文学出版和接受史中值得重视的现象，尤其跟上一部具有广泛社会热度的《平凡的世界》并置考察，可以看到时代变迁下个人的精神转折。邵燕君²²注意到 1990 年代以后，随着世界格局和中国社会结构发生的重大变迁，支持现实主义的价值系统遭受重创，启蒙、革命和中国民间价值观都遭到深层质疑。她把《活着》放在现实主义向“新写实”转向的脉络中，跟池莉的“冷也好热也好活着就好”和刘恒塑造的贫嘴张大民“精神胜利”一起成为平民楷模。这些作品中的核心人物和精神气质是摒弃《平凡的世界》这类作品中的现实主义配方（奋斗和改变命运），“活着”和自我安慰成为主导。从《平凡的世界》到《活着》是从宏大叙事到平民故事的转变，也是像寓言式写作的转变，孙少平式的精神高贵、物质贫困的人物，是特定历史结构中的产物，也是时代强音的表现。高速上升期的社会，悲剧带来的是不死的激情和理想的赞歌，而在社会结构基本稳固的时期，基本上是匀速前行，甚至可能是停滞和下降的，在这样一种社会模型中，悲剧对应的更多是承受。福贵在接受中是超越历史、阶级的人物形象，平凡的人们更容易把他当作自我的延伸，吃尽苦头，遭遇种种，完成自我说服，走向跟自己和解，正如余华的解释，“活着，在我们中国的语言里充满了力量，它的力量不是来自于叫喊，也不是来自于进攻，而是忍受，去忍受生命赋予我们的

²² 郝庆军 邵燕君 何吉贤：《〈平凡的世界〉：历史与现实》，青年文艺论坛第四十六期

责任，去忍受现实给予我们的幸福和苦难、无聊和平庸。”²³

《活着》之后的余华，在长篇小说《兄弟》中回避了灵巧的叙述方式，采用陀斯妥耶夫斯基、狄更斯那种讲故事的方式，正面强攻现实。在《第七天》中以一个人死后的七日见闻书写现实的倒影，在带有乌托邦性质的《文城》中，展示了极致的道义和浪漫。这些长篇小说无一例外受到批评，从专家学者到豆瓣读者都表达了一些不满，比如文字臃肿、审美粗鄙，新闻串烧式的现实描写，故事缺少生活根基，人物丧失共情能力等。当然这些批评之外，活跃在新媒体上的余华继续接受粉丝的无差别膜拜和高度认可，余华的文学信誉很多都来自《活着》这部作品，即使读者在表达批评的时候，也在反复重温《活着》的高光。余华创造了灵巧简洁，克制写实充满隐喻的中国故事《活着》，在作品的现象级畅销和读者接受中，余华也成为了被《活着》和时代情绪反复塑造的作家。

好吧。我突然想起来还有这么一本书。

在去年炎热夏季。从成都到南宁的火车上。36 个小时。我突然想起来还有这么一本书在我的背包里。

对面是吃瓜子喝啤酒恩爱的年轻男女。男子高瘦英俊。法学本科。女子温暖小巧。垂下眼有着美丽的睫毛。

突然觉得无聊。于是聊到有什么杂志看。

我说有，一本书，余华的活着。

女子接过去。问，你看过吗？

²³ 余华：《活着》，十月文艺出版社，2017 年版，第 205 页

看过。

才怪。但是诚实与否并不是义务。只是自己的书没有看过，下意识会有点尴尬。

好看吗？

还成。

于是女子拿着书看去了。男子无聊，靠在我边上聊天。

火车上的时间漫长遥远，似乎永远到不了头。当日头黑下来。我知道。这一天结束了。

女子悠悠叹了口气，什么也没有说。然后睡去了。书看到一半。

于是男子接过来看，我开始觉得饥饿。去走廊找食物。洗脸。喝水。上厕所。完了就站在人来人往的过道吸烟。

不知哪里来的风。觉得微凉。

回到座位的时候，女子醒来，接着看。不知道又过了多久，我们已经昏昏沉沉的时候，女子突然哭了出来。然后到厕所洗手。

男子亦觉得无话可说。出去了一会儿。这时候我边上的老人家，一直没有话的某人。拿着书看。

夜班的火车不熄灯。于是这本书在他们之间交替转手。

女人靠着男人睡了。快破晓的时候，老人家看完书递给我。然后叹息一声。到过道接水泡茶。

我在他起身的时候，问他，怎么样。

他微微笑，恩，很好。

男子在太阳出来的时候接着看。我不知道他看着什么，只是微微笑

着，再微微皱眉，然后面上没有表情。合上书，给我。

这时候距离到站还有 15 个小时。

于是我开始看。

情节就不赘述了。看到我知道黄昏正在转瞬即逝的时候，已经是中午。

彻夜未眠并未让我疲倦。只是脑中画面不停交叉翻转。

这样的一本书，年轻女子看见生命悲苦。年轻男子看见生命的无常。

体会过了熹微和光明。老人家只是微微笑，说很好。

原本就是活着，不如西方人说的，人活着就是为了找寻上帝。即使没有上帝，也要制造一个上帝出来。

东方人更见谦和和沉静。把话说完了，悲伤留在心底。

你看见衰败。你看见颓唐。你看见离奇却又平凡的人生。你只是抱着家珍说你们要好好过。

你看见兴盛。你看见圆滚滚的妓女。你看见不孝和温顺。你看见生活怎么样折磨一个人。你看见老爷子无声的长叹。在田地的那一头。

眼看他起朱楼，眼看他宴宾客，眼看他楼塌了。

还是要活下去。所以富贵跟那头叫福贵的牛说啊，福贵啊，你要好好干活啊。

家珍和有庆都比你耕得多啊。

生活，或者说活着，就是活着。

并没有什么话好说，只是车窗外夕阳又快要落下。

我也快到站了。

中国当代文学在德国

顾文艳

<目 次>

【摘要】

1. 引言
 2. 本论1
 3. 本论2
 4. 本论3
 5. 本论4
 6. 结语
- 参考文献

【摘要】

回顾德语世界中国当代文学传播与接受的历程，可以清晰地看到与其他欧美国家迥然有别的形态与特征，特别是1949年以后，在冷战背景下，联邦德国和民主德国所呈现出的分叉而相似的接受形态。西德知识界经历了1968年的革命狂热，往往从中国当代文学中汲取意识形态养分，塑造自己心目中的理想“中国”形象；而东德汉学家在国家政策的主导下，对中国现当代文学的译介与研究总是立足于社会主义政治意识形态需求，显示出冷战格局下政治同盟的文化姿态。到了1980年代以后，双方几乎同时出现了在文学中寻找“真实”中国、反思本土社会现实的诉求，对中国现当代文学的接受逐渐走向合流，开始遵循德语文学机制的运作规律，但依然不脱意识形态色彩。对于德语世界来说，中国现当代文学既是传播与接受的对象，某种意义上，也是反观自身、表达立场的某种“装置”，伴随着知识界的诉求、德国汉学的发展和政治时局的变迁，形成了兼具个人审美和政治参与、本土传统守卫和异域文化瞭望的辩证性特征。

1. 引言

回顾德语世界中国现当代文学传播与接受的历程，可以清晰地看到与其他欧美国家迥然有别的形态与特征，特别是1949年以后，在冷战背景下，联邦德国和民主德国所呈现出的分叉而相似在接受形态。西德知识界经历了1968年的革命狂热，往往从中国当代文学中汲取意识形态养分，塑造自己心目中的理想“中国”形象；而东德汉学家在国家政策的主导下，对中国现当代文学的译介与研究总是立足于社会主义政治意识形态需求，显示出冷战格局下政治同盟的文化姿态。到了1980年代以后，双方几乎同时出现了在文学中寻找“真实”中国、反思本土社会现实的诉求，对中国现当代文学的接受逐渐走向合流，开始遵循德语文学机制的运作规律，但依然不脱意识形态色彩。对于德语世界来说，中国现当代文学既是传播与接受的对象，某种意义上，也是反观自身、表达立场的某种“装置”，伴随着知识界的诉求、德国汉学的发展和政治时局的变迁，形成了兼具个人审美和政治参与、本土传统守卫和异域文化瞭望的辩证性特征。总结和阐述延续至今的辩证性特征，对于思考德语世界中国现当代文学传播的未来走向无疑有着重要的参考价值。

2. 本论1

第二次世界大战以前，德语世界中国现代文学的传播极为有限，乏善可陈。一方面中国现代文学起步不久，尚未引起德语世界的关注，另一方面德国汉学界也刚刚开始争取学术独立，更加倚重传统的中国古典文学研究。一直到魏玛共和国（1919 - 1933）结束，都很少有中国新文学作家作品受到汉学家的关注。虽然鲁迅的几篇短篇小说在二三十年代已经有了德语译文，但一直到1955年才出版了由卡尔莫（Josef Kalmer）翻译的第一本鲁迅选集《漫长的旅程》（*Die Reise ist Lang*）。相比较而言，胡适在该时期德语知识界的名声和影响要远远超过鲁迅，他对新文学运动的贡献在1920年代初的德语学界就已经得到介绍。¹当然，所谓的影响还是局限于以汉学界为核心的德语文化圈。唯一的例外要属二战前夕发行的德语世界第一本中国新文学德译本《子夜》（*Schanghai im Zwielficht*），²在不断恶化的政治环境中，却获得了超乎寻常的反响，当年的发行量为4000册，1939年又加印了2000册。³二战期间，虽然德国汉学研究表面上没有倒退，甚至规模上还有所扩大，但是大批优秀学者离开德国，迁居海外，整体学术水平陡然下降。⁴德语世界的中国现代文学传播也几乎完全停顿。

《子夜》之后，第二本中国新文学德译本《骆驼祥子》（*Rikschakuli*）迟至1947年才由瑞士一家出版社出版。战后德语世界的中国现代文学传播，在卡尔莫这些独立中介人的推动下，开始从狭小的汉学圈渐渐扩展至知识大众，迎来了战后文学传播的一线曙光。

可惜的是，1949年德国被划分为民主德国和联邦德国，成为苏美冷战意识形态的战场，原来的德语知识界分崩离析，或衔尾政治风向，或高蹈超脱，或反抗逆行，给中国现当代文学传播烙上了深刻的意识形态印记。从民主德国来看，所译介的中国现当代文学作品全部是符合社会主义意识形态的创作，在在显示出冷战格局下政治同盟的文化姿态。比如1951年被苏联授予“斯大林文艺奖”的《太阳照在桑干河上》和《暴风骤雨》，1952年和1953年就由俄语转译为德语在东德发行。⁵1959年为纪念新中国成立十周年，还特地编选出版了《三月雪花》（*Märzschneeblüten*），译介了鲁迅、茅盾、老舍、巴金、柔石等作家的作品。有意思的是，联邦德国的中国现当代文学

¹ 参见范劲：《20世纪二三十年代德国汉学对胡适的接受》，《文艺理论研究》2006年第3期。

² 根据1997年梅茨勒（Metzler）出版社发行、由沃尔夫冈·勒西希（Wolfgang Rössig）主编的《世界文学德译著作目录》记载，第一本被翻译成德语的中国现代文学作品，是出版于1931年的鸳鸯蝴蝶派小说《歇浦潮》（*Fräulein Chang*）。

³ Hatto Kuhn, Dr. Franz Kuhn (1884 – 1961) Lebensbeschreibung und Bibliographie seiner Werke, Wiesbaden: Franz Steiner Verlag, 1980, S.70.

⁴ 有关二战期间德国汉学的历史，柯马丁的文章《德国汉学家在1933-1945年的迁移——重提一段被人遗忘的历史》比较完整地记录了汉学家向以美国为主的海外迁移，对德国汉学的发展造成了深远而负面的影响；还有舒欣的《汉学研究机构抑或舆论宣传的工具？——谈第三帝国时期位于上海的德国文化研究院的职能》也谈及该时期德国汉学机构的分化。两篇论文均收录于马汉茂、汉雅娜主编的《德国汉学：历史、发展、人物与视角》，大象出版社2005年版。

⁵ Eva Müller, “Chinesische Literatur in der DDR”, in Adrian Hsia and Sigfrid Hoefert, hrsg. *Fernöstliche Brückenschläge zu deutsch-chinesischen Literaturbeziehungen im 20. Jahrhundert*, Bern: Lang, 1991, S.205.

传播，同样带有鲜明的政治色彩和政治诉求。从1960年代初开始，西德文化界就质疑所谓的“纯文学”（*Belletristik*），越来越注重文学的社会政治意义。这种对文学社会政治功能的诉求到1968年学生运动时期达到了顶峰。1968年，西德左翼刊物《时刻表》（*Kursbuch*）第15期发表了四篇鲁迅作品的德译文，都是鲁迅关于革命与文学的杂文。除此之外，该期杂志还专文介绍了中国文革前后的文学状况。他们关注的与其说是“文学”，不如说是文学背后承载的社会政治意涵。

随着1976年“四人帮”倒台，理想化的革命图景被彻底摧毁，东西德知识界均受到了巨大的冲击，亟需重新拼合破裂的红色“中国”形象。⁶特别是西德知识界开始反思此前过于功利的政治诉求，以纠正对中国与文学“中国”形象的误读。这种纠正本身依然带有浓重的政治色彩，但引发的则是急剧上升的对中国的文学需求，这种需求又呼应了中国新时期文学的蓬勃发展，1980年代德语世界中国现当代文学传播由此迎来了空前活跃的新阶段。据统计，这十年间中国现代文学德语译著数量过百，远远超过此前所有中国现代文学德译本数量的总和。⁷尽管1980年代中国文学创作从内容和形式均发生了巨大的转向，新的审美追求冲淡了政治浸染的印痕，但由于德语世界的文学期待依然与知识界从文学中探寻真实“中国”的愿望大体重合，德语世界的中国现当代文学传播并没有褪去太多的政治染色，政治化的审美选择仍然如影随形，延续至今。⁸

2018年9月，74岁的德国作家布赫（Hans Christoph Buch）谈到他40多年前编译鲁迅作品选集《论雷峰塔的倒掉：中国文学与革命文学选》（*Der Einsturz der Leifeng-Pagoda: Essays über Literatur und Revolution*）的缘起时，用两组矛盾的短语追忆1968年革命运动喧嚣中第一次在《时刻表》上读到鲁迅杂文时的感受：“（鲁迅的文字）非常个人化，但同时也很政治化。很主观，同时又不那么主观。”⁹鲁迅极具感染力的文字，对当时西德左翼政治运动的现实矛盾颇有启迪。布赫在字里行间看到了一种异于本土，又与欧洲知识分子传统一脉相承的文学精神，一股足以在西德尚未平息的革命浪潮中激发个人反思的文学力量。布赫时隔五十年后的回顾和评价耐人寻味，在“个人/政治”和“主观/客观”两组看似矛盾的语词之间，这位自始至终坚持文学性的主观审美和政治化的客观参与相结合的德国作家，安放了他和他的同事们面向远东的文学守望——对本土精神传统的“守卫”和对异域社会文学的“瞭望”。这种放眼异域又心系本土，兼具个人主观性与政治客观性的文学印象，或者说辩证性的文学接受，既是1970年代前后德语世界中国现当代文学传播的基本特征，也是1980年代以后德语世界中国现当代文学传播的基本脉络。

这突出表现于1970年代前后西德社会对中国现当代文学的接受。一方面，1968年革命的躁动未尝平息，躁动中的西德左派对“中国”形象的理想化和政治异域化不断加剧，亟需从尚未真正开放的中国（1972年中德建交只能看作外交起点）获取“事

⁶Vgl. Wolfgang M. Schwiedrzik, “Vorwort”, in *Literaturfrühling in China? Gespräche mit chinesischen Schriftstellern*, Köln: Prometh-Verl., 1980, S.22.

⁷孙国亮、李斌：《中国现当代文学在德国的译介研究概述》，《文艺争鸣》2017年第10期。

⁸ 参见顾文艳：《中国现代文学在德语世界传播的历史叙述》，《中国比较文学》2019年第3期。

⁹ 布赫所用德语原句：“Sehr persönlich, aber auch sehr politisch. Also sehr subjektive, aber auch unsubjektiv”，见附录《个人与政治之间——布赫访谈》，顾文艳：《辩证性的文学守望：中国现当代文学在德语世界》，中国社会科学出版社，2022年版。

实”信息来虚构这个具体的“乌托邦”，也渴求以异域中国的文学来装点自己“红色”的革命续梦；另一方面，逐步进入历史反思的西德知识界在个人化的文学接受过程中，也开始纠正政治教条宣传中空泛的“中国”形象。来自中国的现当代文学作品，既将左翼知识分子所憧憬的社会主义乌托邦式的中国形象“具体化”，从而维系甚至强化了对中国的政治异域化，同时又在主观性文学表达的过程中，修正对中国过于简单化的异域想象。换言之，1970年代前后，联邦德国的中国现当代文学传播，充斥着对本土社会现实的诉求和对异域政治参照的渴望，出现了布赫所谓主观个人化与客观政治化两种不无矛盾的接受倾向，也相应地形成了对文学“中国”形象“政治异域化”和“反异域化”的两股力量。

这种辩证性的文学接受与精神守望，也贯穿了中国现当代文学在整个德语世界传播与接受的历程。西德抗议运动之后由左翼知识分子主导的中国文学“政治异域化”译介，在中德外交关系正常化的过程中，特别是理想中的“中国”形象随着“文革”结束而破碎之后，逐渐演变为“反异域化”的译介。革命理想的幻灭和政治虚构的谬误，亟需更多中国的真相加以修补和矫正，顺应这种需求，中国现当代文学就成为通向“真实”中国最可靠的桥梁。在这种基于本土、放眼异域的社会需求中，以及由中国改革而带来的开放的交流状态下，德语世界迎来了中国现当代文学的传播热潮。主导的德语群体，虽然包括在历史反思和个人情结中寻找“真实”中国的左翼知识分子，但是，传播的核心群体已经转向了专业的中国文学研究者。与此同时，东德与中国的文学交流在经历了密切的1950年代，以及意识形态冲突下“断裂”的1960年代和1970年代之后，到了1980年代也随着政治外交关系的转暖而逐渐恢复正常。在东德官方政策引导下的中国现当代文学传播，虽然很少出现类似西德知识界对中国的政治异域化想象，但是显性的外部条件始终框定了文学交流的基本格局，中国文学的译介出版与汉学知识生产的政策性导向互为依存。特别是平行的社会体制和相似的文艺政策，决定了中国现当代文学的现实呈现和东德文学的现实书写在内容和形式上的相似。东德的中国现当代文学传播也可以视作他者文学镜像中的自我观照，同样也是植根本土而眺望异域、政治化又试图超越政治化的辩证范式。

到了1990年代，此前分别从东西德各自政治需求出发，同时指向本土社会现实的中国文学守望，汇入了共同的文学接受场域，逐渐凸显以西德市场化模式为主的接受机制。通过这种既充满偶然性又遵循运作规律的德语文学机制各个环节的加工制造，中国现当代文学进入德语文学市场和公众视域，产生了多元共生的接受形态，也继续留存着1970年代以来政治化文学接受范式的矛盾：一方面，在德语文学公共领域对作家作为知识分子社会参与的期待视野下，接受主体视域中的中国作家群体出现了以政治立场划分的二元对立式作家身份结构；另一方面，这种简单化的政治分类不断受到德语接受主体的质疑，同时也在文学多元形态和作家身份多重复杂的现实中得到消解与重构。可以说，中国现当代文学在当今德语文学公共领域机制化的传播与接受，仍然带有1970年代西德革命退潮时期接受主体兼具主观个人审美和客观政治参与、本土传统守望和异域文化瞭望、政治异域化和反异域化倾向的辩证性特征。

3. 本论2

特别值得注意的是，这种辩证性的文学守望渗透到了更深的接受层面，留存于东西德文学创作者的作品当中。一般而言，我们所讨论的中国文学海外传播都停留于翻译、阅读与研究的层面，而真正的影响还应该体现于中国文学对他国文学创作的影响。虽然德语世界中国现当代文学译介的体量未必贴合人意，但就影响的深刻性和传播的契合度而言，德语世界的中国现当代文学传播显然是独树一帜的。差不多在同一时期，东德和西德两位具有代表性的著名作家恩岑斯贝格（Hans Magnus Enzensberger）和克里斯托夫·海因（Christoph Hein），根据鲁迅的《起死》和《阿Q正传》，分别改写成了广播剧和舞台剧，构成了一种“承文本关系”。热奈特将通过简单改写或间接改造，从先前某部作品即“蓝本”（hypotexte）中诞生的文本称作前者的“承文本”。¹⁰借用热奈特的定义，“承文本”就是一种以文学创作为形式的异域文学接受，是从中国现当代文学中“派生”出来的德语文学创作。在跨文化的“承文本”关系中，恩岑斯贝格和海因承接鲁迅“蓝本”的再创作不仅体现了德语世界对异文化“蓝本”的理解，而且还把这种理解融入了接受者基于自身文化的文学生产当中。

早在1968年作为《时刻表》创刊主编推介鲁迅的西德作家恩岑斯贝格，1978年根据鲁迅《故事新编》中的启蒙寓言《起死》改写了广播剧《死者与哲学家》（*Der tote Mann und der Philosoph*），传达出作者对革命时代文学观念与政治激进化的反思与矫正。通过夸大鲁迅原作中对知识分子的嘲讽，颠覆故事情节，恩岑斯贝格把鲁迅对自诩为启蒙者的中国现代知识分子的反讽，转换成西德知识分子革命幻灭者的讽喻，重新反思抗议运动时期过度政治化的文学诉求与文学规范。《死者与哲学家》对《起死》的文本承接，显然不止是故事情节和人物形象的夸张化改编，而是表征着抗议运动之后恩岑斯贝格对鲁迅思想尤其是启蒙悖论的文学接受和转换，把鲁迅有关启蒙主体的怀疑置换到了后革命时代西德的政治语境。因此，寓言化的、被反转颠覆的“起死”指向的是1968年反权威抗议者呼吁的“政治启蒙”。无独有偶，1983年民主德国作家海因从《阿Q正传》蓝本中提取了寓言性的创作元素和人物设定，改编创作了舞台剧《关于阿Q的真实故事》（*Die wahre Geschichte des Ah Q*）。阿Q的命运故事和形象特征，在海因的剧本里得到了重组分配，拆分、重塑成二十世纪的现代知识分子，形成了“之间人物”阿Q和知识分子王胡两个主人公。作者以反讽式情景舞台剧的形式重新改写了鲁迅的阿Q寓言，完成了对阿Q“革命”寓意的创造性解读。在其解读中，寓言时空时而置换到民主德国，时而扩展至整个围绕“革命”话语的二十世纪，人物寓意则指向作为整体的现代知识分子，指向他们游离于革命前后，喧嚣与虚妄之间岌岌可危的存在。无论是海因还是恩岑斯贝格，他们在个人创作中对鲁迅的“承文本”接受，都把对各自社会现实的反思放置到鲁迅“蓝本”的文本架构之中，选择其中与本土社会相通的部分点染、糅合和重塑，这样的重写当然是指向本土历史和现实社会的再创作。从这种“承文本关系”中，可以看到冷战后期东西两德对以鲁迅为代表的中国现当代文学的接受，都有从异域文学中汲取本土化灵感的尝试，同样具有文学政治化和反政治化的辩证特性。

¹⁰热奈特：《隐迹稿本》（节译），《热奈特论文集》，百花文艺出版社2001年版，第63-65页

可以说，从德语主体出发的辩证性文学守望，贯穿于德语世界中国现当代文学的传播的始终，辩证性的接受范式既是传播主体与中国建立文学交流的推动力量，也直接引导了德语主体对中国文学从整体到个体的全方位的审度。鲁迅的传播与接受应该说是其中最具代表性的个案。在德语世界的文学接受视域中，鲁迅不仅是当之无愧的中国现代文学经典作家，也是现代中国核心的政治文化符码，在不同时期，基于不同的社会政治需求和迥异的“中国”形象想象，都有可能在鲁迅这里找到其文学表征。抗议运动时期激进的西德左派将鲁迅视作来自理想异域中国的革命启蒙家，或者按照恩岑斯贝格在《时刻表》第15期中的话来说，是能够促动德国社会知识分子“政治扫盲”的中国文学家¹¹。待革命浪潮退去，鲁迅又成为反思过度政治化的知识分子作家的代言人。如果说布赫1973年的鲁迅选集《论雷峰塔的倒掉》主要通过翻译文本的阐释性介绍，对1968年作为中国文学革命家进入西德接受者视野的鲁迅形象进行填补修饰，那么恩岑斯贝格在1970年代以后对鲁迅的重新接受，无论是《死者与哲学家》中对启蒙知识分子讽喻式的“承文本”接受，还是在杂文和公众演讲中对鲁迅的评述性接受，都体现了恩岑斯贝格本人对曾经的政治参与和文学政治化呼吁的反思与修正。尽管如此，这种反思和修正并没有排斥从主体政治和社会参与角度出发的文学接受。在2018年出版的随笔集《幸存艺术家——二十世纪的99副文学群像》中，恩岑斯贝格把鲁迅作为唯一的中国作家列入了他本人的世界文学接受图景。鲁迅文学“肖像”

(Vignette)的开篇，恩岑斯贝格就否定了曾经在《时刻表》中将鲁迅与中国文化革命联系在一起的理解，强调鲁迅个人独立于政治体制的文学与社会理想。此时，业已步入耄耋之年的恩岑斯贝格看重的，依然是鲁迅作为一名独立的现代知识个体既坚守个人立场又心系国家社稷的批判精神：

一个政治体制，一个能够接纳他的忧郁，他的孤独和悲观，还有他自我反讽的政治体制，至今尚未被发明出来。……当然，当今中国告别落后、动荡、内战、侵略和统治的状况一定会令他感到欣慰。而如今的这一切也都有鲁迅本人方方面面的功劳：他是（中国）较早的激进的女权主义者，尽管这样的立场在当时的环境下是完全被排斥的；他向精英文人特权性的语言发起了挑战，其影响至今尚存；古时抵御北方胡人的伟大的长城受他诅咒，传统中医也被他认作江湖骗术。¹²

直至今日，恩岑斯贝格对鲁迅的认知依然带有学生运动时期推崇的“反权威”式的知识分子理想。即便早在1970年代已同西德左派疏离，将过去的政治参与归结为“参与观察者”身份下的个人实验，恩岑斯贝格的文学追求始终保留着对作家主体社会参与和政治批判的冀望。在这一点上，他和布赫、海因等等活跃于德语文学公共领域的接受个体如出一辙。恩岑斯贝格曾经批评欧洲公共知识分子按照“是否有社会参与感”的标准简单化划分作家，特别指出对鲁迅的接受理应超越这种二元对立式的衡

¹¹ Hans Magnus Enzensberger, “Gemeinplätze, die Neueste Literatur betreffend”, *Kursbuch* 15, 1968, S. 197.

¹² Hans Magnus Enzensberger, *Überlebenskünstler: 99 literarische Vignetten aus dem 20. Jahrhundert*, Berlin, Suhrkamp Verlag, 2018, S.67.

量标准，但是，恩岑斯贝格如今把鲁迅列为二十世纪“文学群像”一员时，最为注重的仍是鲁迅在文学表达中的社会性参与，即对社会成规的挑战：性别习俗（男权社会）、语言传统（文言文）、政治象征（长城）和知识权威（中医）等构成了社会权力体系的方方面面，也是鲁迅不遗余力的批判对象。植根于文学创作的社会批判以鲁迅的文人身份为前提，也反向形塑了恩岑斯贝格等人心目中鲁迅与欧洲现代知识分子精神传统相通相承的作家身份。因此，恩岑斯贝格对鲁迅的“肖像”描摹，既强调独立于政治的文学性个人特征（忧郁、孤独、悲观、反讽），又重视作家的社会参与。这种接受状态同样可以用布赫回忆中有关主观“个人化”和客观“政治化”的辩证性来概括，也是从本土传统出发对异域知识分子人文精神的守望。

德语世界对鲁迅的接受经历了从革命时期作为政治理想（西德）与意识形态（东德）的“中国”形象承载，到后革命时代引起文学寓言性的启发与反思，再到机制性的鲁迅的文学经典化。以文学“经典化”为策略导向的瑞士联合出版社在1990年代出版了顾彬主编的六卷本《鲁迅文集》，是目前德语世界最完整也是最具代表性的鲁迅译介成果。对于鲁迅的辩证性接受，几乎是德语世界中国现当代文学传播的缩影，大致勾画了过去四十多年来中国现当代文学在德语知识界和公众视野中的接受轨迹：从政治异域化和意识形态化的“中国”形象构建，到寻找中国“真实”与现实的文学反思，再到文学机制性的交汇。德语主体的中国文学接受视线始终徘徊于文学性的个人审美和政治性的社会期许之间，游离于异文化透视和自我社会映照之上，形成一种辩证性的文学守望。事实上，鲁迅之所以能够成为德语世界中国现当代文学辩证性接受范式的核心代表，除了无可比拟的经典地位，还与鲁迅辩证性的思想行文以及文如其人的作家风骨相关。借用布赫1973年译本后记中的表达，鲁迅的文字和为人都透露着一种“朴实无华的辩证精神”。¹³这种辩证精神，一方面外化为中国现代文人身上鲜明的知识分子精神传统，另一方面内炼成布赫所说的主观“个人化”感知和客观“政治化”审视的结合，或者说作家个人文学理想和集体社会参预的中和。

4. 本论3

在文学高度机制化的今天，以鲁迅接受为代表的辩证性接受范式依然主导着德语世界中国现当代文学传播的总体态势。这种范式潜藏于德语文学机制生产、分发和接受中国现当代文学的各个运作环节，决定了不同类型的文学作品在文学传播机制中的不同路径，也决定了不同类型的中国作家在德语文学公共领域中的不同地位。这种辩证性接受范式其实对应的是普遍存在于德语接受主体文化思维中的区分结构，即按照作家政治立场将中国作家文本外的“身份”，进行“异议/官方”、“有/无社会参与感”、“体制外/体制内”等二元对立式的划分。德语世界接受主体通过对文本内作家“姿态”的细读，又对这种二元结构有所批评和反驳，最为突出的例证就是对北岛和莫言的不同评价。应该说，北岛和莫言是德语世界译介最多、也在文学公共领域得到较多关注与讨论的中国作家。可是，两位作家在政治立场和身份选择上的差异，使他

¹³ Hans Christoph Buch, „Nachwort“, in Lu Xun, *Der Einsturz der Lei-feng-Pagode: Essays über Literatur und Revolution in China*, Reinbek bei Hamburg: Rowohlt, 1973, S. 196.

们正好象征性地位于二元对立式作家身份结构的两极，一个是异议作家，一个是官方作家；一个是体制外作家，一个是体制内作家。当然，德语世界对两位作家的政治化勘定，未尝没有接受方审美取向和艺术鉴赏力的个人流露。比如，八九十年代对德语大众的中国文学接受起到导向作用的批评家马汉茂，在阅读北岛的过程中提炼出其“清醒”的语言特征，把北岛同德国战后一代作家进行类比，将北岛个人的政治立场融入诗歌美学意义上的“反抗”姿态。这实际上是联系作家文本外“身份”和文本内“姿态”，结合北岛政治立场和文学表达的一种读法，也是基于本土历史经验和文化传统对异域文学精神的探索。有意思的是，马汉茂1990年代对莫言的接受，同样是将文本内的“民间”书写和艺术特征，勾联到文本外作家的批判立场和社会关怀，突出了莫言作品中反叛式的批判精神，与多年后德语公众舆论和媒体报道中莫言“官方作家”的形象大相径庭。马汉茂对两位中国作家融合文本内外，结合政治与审美的评价，至今可以在由文字、视听和事件等文学传播媒介维系的德语文学公共领域中找到回声。无论是以文学期刊和报纸文艺版面为代表的书面文学批评，还是广播电台文学节目中的视听讨论，抑或是围绕法兰克福书展这类文学事件的众说纷纭，德语世界对北岛和莫言的接受在参照二元对立身份框架的同时，也在文本解读和审美评说中注入了对中国文学过度政治化接受的辩证反思。

这种辩证反思，从外在表现来看，一方面可以表现为文学公共空间围绕具体作家作品的争辩，比如莫言2009年作为官方作家代表在法兰克福书展的亮相，到2012年获得诺贝尔文学奖之后在德语文坛产生的争议；另一方面也可以表现为文学机制化进程中作家身份的多元结构和文学形态的复杂化，特别是1990年代以后德语世界对中国作家复杂身份的结构重建。从内部表现来看，辩证反思也体现于德语世界接受主体文学观念的变化，最具代表性的是对德语世界中国现当代文学传播厥功甚伟的顾彬。顾彬从1970年代开始作为德语文学机制中生产环节的参与主体，其翻译理念带有鲜明的个人色彩，作品解读也坚持个人化的评判标准。他对北岛、莫言两位作家的批评路径明显异于马汉茂等人文学社会学式的探究，尽管其中也蕴含了知识主体的文学洞见和自我观照下的精神探求。无论在翻译、研究还是文学史书写中都强调文学“美学标准”的顾彬，对北岛高度评价背后是他本人与翻译对象共同的文学追求——对古典的偏爱和对西方现代诗歌传统的继承，而他对莫言的批评，也立足于个人精英文学意识和日耳曼文化教养下形成的审美取向。顾彬回归文学的评价标准，一方面对德语世界政治化的作家身份结构和文学解读带来挑战，另一方面也突显了一种从欧洲本土精神传统和道德理性出发，实际上与政治标准相伴共生的美学接受。顺便一提的是，这种与政治标准相伴共生的美学接受，也是西方世界面对中国现当代文学的基本接受模式。比如英语世界的中国当代文学传播，1980年代以前基本上都是政治意识形态的取向，到了1980年代以后才逐渐转向审美性的取向，但这种审美性取向又始终与政治意识形态的取向如影随形。¹⁴无论是德语世界，还是英语世界，或者其他西方世界，中国当代文学的海外传播总难免政治性与审美性的博弈。

总之，在接受主体个人文学观念的引导和道德理性批判的推动下，在多元化文学机制的运作中，中国现当代文学在德语世界的传播与接受，延续着1968年以来西德知识界辩证性的文学守望，在文学政治化接受范式中发展出机制化的传播路径，完成了接受范式的自我反思与重构。贯穿中国现当代文学在德接受历程的文学守望由两组看

¹⁴ 参见季进：《作为世界文学的中国文学》，《中国比较文学》2014年第1期。

似对立，实可统一的辩证性特征组成：一是同时存在政治化和反政治化的文学接受倾向，二是同时指向德语接受主体和中国文学对象的接受形态，这也是“守望”一词有关本土“守卫”与异域“瞭望”固有的辩证属性。前者由德语文学接受主体（个人文学理想）和接受场域（强调政治批判功能的德语文学公共领域）所决定，后者代表德语接受主体对本土知识分子精神传统的延续与展望。从冷战后期东西两德知识分子、德语作家主体、德语文学机制到作为接受对象的中国作家，两组辩证性的特征就潜藏于德语世界中国现当代文学传播全景图的各个角落，贯穿了当代中德文学交流发展史的始终。

钱锺书在《中国诗与中国画》一文中说：“我们阅读当时人所信奉的理论，看他们对具体作品的褒贬好恶，树立什么标准，提出什么要求，就容易了解作者周遭的风气究竟是怎么一回事，好比从飞沙、麦浪、波纹里看出了风的姿态。”¹⁵从德语世界的中国现当代文学传播中，可以清晰地看到接受主体的政治诉求与政治反思。对于德语世界的接受主体来说，文学从来不是单纯审美性的，它们同样也是一种具有政治性与反省性的文本。换句话，中国现当代文学既是传播的对象，某种意义上，也成为德语接受主体反观自身、表达立场的“装置”。特别是在特定的冷战背景下，世风同一，遍被华林，对中国文学的认识与接受无论如何都跳脱不了政治意识形态的魔障。德语世界中国文学的译介接受，并不存在政治和审美的绝对分野，更确切地说，德语接受主体的文学目光中始终忽闪着政治性的诉求，正如政治化的文学审视也始终伴随着对政治化的文学反思。事实上，所谓政治化的文学接受方式，就是德语接受主体基于本土社会诉求，在一个本身趋向政治功能的文学公共空间里的精神流露。即便是海因和恩岑斯贝格对鲁迅作品纯粹以“文学创作”为形式的“承文本”接受，也隐藏着两位作者从各自社会现实出发的政治化接受意图，用鲁迅极富政治寓意和社会所指的文本建构，承载作者对东西德政治语境下知识分子身份境况的思考。当然，不同接受主体在不同历史时期的政治化趋向程度各有差异。比如1990年代两德统一以后，中国现当代文学在汇入整体德语文学机制的过程中，一定程度上淡化了政治因素的影响，尽管政治或外交事件仍然可能对接受主体的评判带来直接的作用。

5. 结语

沟口雄三曾经提出“作为方法的中国”，希望改变以欧美为方法、以中国为对象的研究模式，而代之以以中国为方法、以世界为对象的研究路径。¹⁶如果借用他的说法，目前德语世界的中国现当代文学传播，更多的是以德国为方法、以中国为对象的接受。德语世界中国现当代文学的传播，牵连起了更为悠远而复杂的现代德国的社会政治与思想文化，德语文学接受主体无论是倾慕异邦，还是立足本土，都不脱借浇块垒的辩证反思，守望的依然是共同的知识分子传统与精英文学精神，这也将在未来相当长的时间内，决定了德语世界中国当代文学传播的基本走向。假以时日，未来德语世界中国文学海外传播的理想状态，应该是接受主体从中国文学的现场出发，充分挖掘与理解中国文学独特的审美追求、情感表达、历史反思与现实呈现，从中国文学的本土

¹⁵ 钱锺书：《中国诗与中国画》，《七缀集》，第2页，上海古籍出版社1994年版。

¹⁶ 参阅沟口雄三：《中国的思想》，上海人民出版社1997年版。

经验中建构起中国文学的生动场景，从而与德国文学等其他文学一起，共同汇成具有普遍性的世界文学图景，甚至再反观德国文学自身，彰显出世界文学的多元性与丰富性。这不仅是对德语世界接受主体的挑战，也是中国文学与中国文学海外传播面临的巨大挑战。

参考文献

Hans Magnus Enzensberger, “Gemeinplätze, die Neueste Literatur betreffend”, *Kursbuch* 15, 1968, S. 197.

Hans Magnus Enzensberger, *Überlebenskünstler: 99 literarische Vignetten aus dem 20. Jahrhundert*, Berlin, Suhrkamp Verlag, 2018, S.67.

Hans Christoph Buch, „Nachwort“, in Lu Xun, *Der Einsturz der Lei-feng-Pagode: Essays über Literatur und Revolution in China*, Reinbek bei Hamburg: Rowohlt, 1973, S. 196.

Hatto Kuhn, Dr. Franz Kuhn (1884 – 1961) Lebensbeschreibung und Bibliographie seiner Werke, Wiesbaden: Franz Steiner Verlag, 1980, S.70.

Eva Müller, “Chinesische Literatur in der DDR”, in Adrian Hsia and Sigfrid Hoefert, hrsg. *Fernöstliche Brückenschläge zu deutsch-chinesischen Literaturbeziehungen im 20. Jahrhundert*, Bern: Lang, 1991, S.205.

Wolfgang M. Schwiedrzik, “Vorwort”, in *Literaturfrühling in China? Gespräche mit chinesischen Schriftstellern*, Köln: Prometh-Verl., 1980, S.22.

顾文艳：《辩证性的文学守望：中国现当代文学在德语世界》，中国社会科学出版社，2022年版。

范劲：《20世纪二三十年代德国汉学对胡适的接受》，《文艺理论研究》2006年第3期。

季进：《作为世界文学的中国文学》，《中国比较文学》2014年第1期。

钱锺书：《中国诗与中国画》，《七缀集》，第2页，上海古籍出版社1994年版。

沟口雄三：《中国的思想》，上海人民出版社1997年版。

孙国亮、李斌：《中国现当代文学在德国的译介研究概述》，《文艺争鸣》2017年第10期。

【法】热奈特：《隐迹稿本》，《热奈特论文集》，百花文艺出版社2001年版，第63-65页。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2부

17. 중국어학(6)

위당관 209호

중국어 문법과 어법의 변천: 공생과 확장

현대중국어 ‘不怎麼’와 ‘沒怎麼’의 정도성 척도 분석

이유진*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不怎麼’의 정도성 척도
3. ‘沒怎麼’의 정도성 척도
4. ‘不怎麼’와 ‘沒怎麼’의 정도성 차이
5. 결론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현대중국어 ‘不怎麼’와 ‘沒怎麼’가 공통적으로 낮은 정도성을 표현하지만, 그 정도성 층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척도 이론’의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不怎麼’는 화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속성의 낮음을 드러내는 반면, ‘沒怎麼’는 사건의 실현 빈도나 지속 시간이 미약함을 나타낸다. 두 표현은 모두 낮은 정도성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不怎麼’는 주관적인 속성의 강도에, ‘沒怎麼’는 사건의 실현 유무와 시간의 희소성에 초점을 둔다. 또한 두 표현이 나타내는 정도성 층위 역시 동일하지 않으며, ‘不怎麼’는 ‘沒怎麼’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정도성을 표현한다. 따라서 두 표현은 동일한 정도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미 초점과 정도성 척도상 위치 모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중국어 ‘不怎麼’와 ‘沒怎麼’가 공통적으로 낮은 정도성을 표현하지만, 그 정도성 층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怎麼’는 본래 방법·원인·상황·상태 등을 묻는 의문대사로 기능하지만, 부정부사 ‘不’, ‘沒’와 결합할 경우에는 의문 기능을 상실하고 낮은 정도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이때 ‘不怎麼’와 ‘沒怎麼’는 기대된 기준과 실제 결과 사이의 간극을 통해 낮은 정도성을 나타내며, ‘별로 ~하지 않다’, ‘거의 ~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두 표현을 공통적으로 ‘낮은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부사 범주에 포함시키고, ‘不太’, ‘有點兒’ 등과의 유사성이나 대체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두 표현이 동일한 층위의 정도성을 나타내는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不怎麼’와 ‘沒怎麼’가 표현하는 정도성 층위에 주목하고, 이를 척도 이론과 연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케네디와 맥널리(Kennedy & McNally, 2005)가 제시한 ‘정도 척도 이론’(Degree Scale Theory)은 형용사, 부사, 동사가 표현하는 속성이나 상태가 일정한 ‘척도’(Scale) 위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척도’는 특정 속성이나 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체계로, 속성의 강도나 발생 빈도와 같은 정보

*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

를 평가, 측정할 수 있다.¹⁾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不怎麼’와 ‘沒怎麼’의 정도성 층위를 검토하고, 척도상에서 보이는 차이를 분석하였다.

2. ‘不怎麼’의 정도성 척도

‘상대적 척도’는 속성이나 상태의 정도가 특정 기준에 따라 비교되어 결정되는 구조로, 기준은 맥락, 기대치, 비교 대상 등이 될 수 있다. 이 구조는 주로 형용사나 동사와 결합하여 속성의 강도나 질적 평가를 드러내며, 표현된 정도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²⁾ ‘不怎麼’는 ‘그다지 ~하지 않다’, ‘별로 ~하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특정 사물, 상태 또는 행위에 대해 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정도를 표현한다. 이때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개입한다. ‘不怎麼’는 일반적으로 정도부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으로 간주 된다. 楊曼妮(2013)와 宗守雲(2009) 등은 ‘不怎麼’가 ‘不太’, ‘不大’와 유사하게 부분 부정, 위약 표현, 낮은 정도 강조의 기능을 가지며, 이는 전형적인 정도부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武曉琳(2022)은 ‘不怎麼’를 ‘不太’류의 복합 정도부사로 분석하고, 동사 및 형용사와의 결합을 통해 빈도나 속성의 낮은 정도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不怎麼’의 척도상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중국어 정도부사의 의미 강도 분류 체계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계의 정도부사 분류는 기본적으로 王力([1943]2014)의 분류 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³⁾ 이후 여러 학자들은 王力の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의미적 강도와 심도를 중심으로 정도부사의 등급을 더욱 정교화하였다. 그 중 鄭帥(2023)는 기존의 분류를 종합하고, 실제 사용 맥락과 빈도 기반 분석을 통해 정도부사를 5등급으로 구성된 단계로 구체화하였다.⁴⁾ 정도부사 의미 강도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정도부사 의미 강도 분류

등급	강도	대표 부사	강도 설명
1	매우 약함(微量/近無)	幾乎不, 根本不	거의 없음, 매우 약함
2	약함(低量)	有點兒, 有些	기대 미달, 약간 부족함
3	보통(中量)	較, 比較	보통 수준, 무난함
4	강함(高量)	很, 非常	뚜렷한 강조, 기대 이상
5	매우 강함(極量)	極, 極其, 無比	매우 강함, 절대적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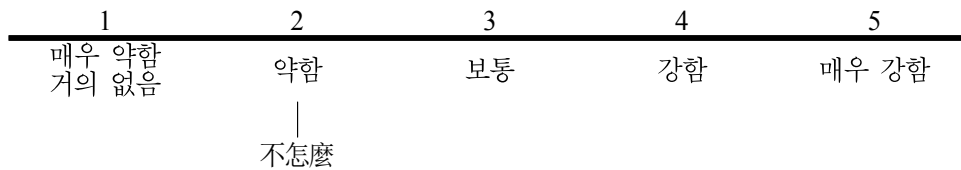
‘不怎麼’가 정도부사 척도상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살펴보면, 楊曼妮(2013)는 사전적 정의상 ‘不怎麼’는 ‘중간(中量)에 해당하나, 실제 사용에서는 의미가 약화되어 정도가 ‘약함’(低量)의 표현으로 기능함을 밝혔다. 楊曼妮(2013)는 ‘不怎麼’가 ‘不太’, ‘有點不’와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가지며, 모두 ‘약함’(低量級)의 표현으로 분류된다고 보았다. 宗守雲(2009)은 ‘不怎麼’는 ‘有點兒’, ‘有些’와 유사한 낮은 정도 표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不怎麼’는 의미 강도 상의 척도에서 ‘약함’(低量) 수준에 해당하며, ‘有點兒’, ‘有些’와 같은 정도부사와 동일한 정도성 층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정도성 척도상 ‘不怎麼’의 상대적 위치를 시각화 하면 다음과 같다.

1) 케네디와 맥닐리(2005:345-381) 참고.

2) 케네디와 맥닐리(2005:345-381) 참고.

3) 王力는 비교 대상의 유무를 기준으로 정도부사를 두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절대적 정도부사’로 분류되며, ‘極’, ‘十分’, ‘非常’, ‘很’, ‘怪’, ‘頗’, ‘稍’, ‘略’, ‘些’, ‘太’, ‘忒’ 등이 속한다. 둘째, 비교 대상이 있는 경우 ‘상대적 정도부사’로 분류되며, ‘一般’, ‘一樣’, ‘最’, ‘更’, ‘越發’ 등이 속한다.

4) 鄭帥(2023:7) 참고. 鄭帥은 정도부사의 정도성 등급을 超量級-極量級-高量級-中量級-低量級-微量級-近無 등으로 구분하고 1단계에서 5단계로 수치화하였다.



<그림 1> 정도성 척도상 ‘不怎麼’의 위치

이 도식에서 ‘不怎麼’는 ‘2단계’(약함)에 해당하며, 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속성의 낮은 실현 정도를 나타낸다. 이 척도는 수치화된 절대적 기준이 아닌, ‘不怎麼’의 정도성을 상대적인 위치로 파악하기 위한 개념적 시각화 도식이다. 이제 ‘不怎麼’가 속성의 낮은 강도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화자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살펴보겠다. 분석에는 ‘1단계’(매우 약함)부터 ‘5단계’(매우 강함)까지의 정도성 척도를 설정하여 이를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1) 問題是她對食物並不怎麼感興趣。她對大多數的人也不怎麼感興趣，因為他們大多都不如她聰明。

(문제는 그녀가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대부분 사람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 그녀만큼 똑똑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문(1)의 ‘感興趣’는 관심의 강도를 표현하는 척도를 형성할 수 있다. 이 척도의 범위는 ‘1단계’(거의 무관심), ‘2단계’(낮은 관심), 3단계(보통 수준), 4단계(강한 관심)에서 ‘5단계’(매우 강한 관심)로 이루어진다. 이때 ‘不怎麼感興趣’는 척도상 ‘관심의 정도’가 화자의 기대치보다 낮은 위치에 있음을 나타낸다. 척도상 위치는 맥락적 기준, 즉 화자가 설정한 기대치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주관적 기준을 반영한다. 화자의 기대와 평가 기준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정해진다. 하나는 ‘사회적 평균 기대치’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음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흥미나 관심을 느낀다고 기대한다. 다른 하나는 ‘개인적 기대치’로 화자는 그녀가 음식,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을 예상한다. 화자의 기대치는 ‘보통 정도의 관심 수준’(3단계)으로 대부분 사람이 음식이나 사람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은 가진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화자가 발화한 ‘不怎麼感興趣’ 실제로는 그녀가 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관심’(2단계)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不怎麼’의 화자의 기대와 실제의 간극을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 ‘不怎麼’의 화자의 기대와 실제 간극

요소	설명
화자 기대치	음식과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 수준은 보통 이상의 척도(3단계 이상)
실제 수치	기대보다 낮은 관심 수준(2단계)을 보임
‘不怎麼’ 역할	화자의 기대와 실제 간의 간극을 표현하며, 관심의 강도 척도상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위치함을 드러냄

3. ‘沒怎麼’의 정도성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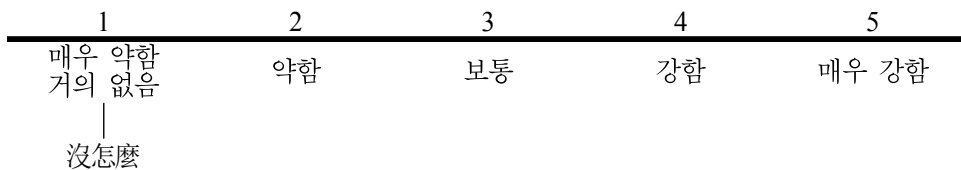
‘시간적 척도’는 사건이 특정 기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얼마나 강하게 발생했는지를 평가하는 체계이다. 주로 동사와 결합하여 사건의 빈도, 지속 시간, 발생 강도를 나타낸다.⁵⁾ 汪昌松(2023)은 ‘沒怎麼’

5) 벤들러(1957:143-160) 참고.

가 주로 동사와 결합하여 행위가 드물게 발생하거나 짧게 지속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기능하며, 이는 단순 부정이 아닌 ‘시간적 회소성’을 반영하는 구조라고 하였다. ‘시간적 회소성’이란 특정 사건이나 행위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드물게 발생하거나,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처럼 ‘沒怎麼’는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특정 사건이나 행동이 낮은 빈도로 발생하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었음을 나타낸다. ‘沒怎麼’는 주로 동사와 결합하여 ‘沒怎麼+V’의 구조로 사용되며, 사건이나 행동의 빈도, 지속 시간, 발생 강도가 낮음을 나타낸다. ‘沒怎麼’가 사건의 ‘낮은 빈도’와 ‘지속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2) 我們幾乎沒怎麼見到你! (낮은 빈도)
(우리는 너를 거의 본 적이 없어!)
- (3) 他最後的一個夜晚幾乎沒怎麼睡覺。 (낮은 지속 시간)
(그는 마지막 밤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예문(2)의 ‘見到你’는 특정 사건을 지칭하며 이 사건이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형성한다. ‘沒怎麼’는 척도상에서 특정 사건(見到你)이 낮은 빈도로 발생하였음을 나타낸다. 예문(3)의 ‘睡覺’은 이 사건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형성한다. ‘沒怎麼’는 척도상에서 수면의 지속 시간이 길지 않음을 표현한다. 그렇다면 ‘沒怎麼’의 척도상의 위치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不怎麼’와의 정도성 비교를 통하여 ‘沒怎麼’의 척도상의 위치를 판단해 보겠다. 汪昌松(2023)은 ‘不怎麼’가 형용사와 결합하여 속성의 낮은 정도를 나타내는 반면, ‘沒怎麼’는 주로 행위동사와 결합하여 사건의 실현성 자체가 거의 없음을 표현한다고 분석하였다. 武曉琳(2022)은 ‘沒怎麼’는 실현 자체가 거의 없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鄭帥(2023)는 ‘不怎麼’와 ‘沒怎麼’를 직접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不’는 고빈도 정도부사(如 太, 很, 最 등)와 폭넓게 결합되며, 표현 강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沒’는 결합 가능한 정도부사의 빈도와 범위가 더 좁고, 주로 ‘低’(낮다), ‘微’(약하다) 빈도 수준에 집중되어, 행위의 실현이 없거나 굉장히 미미함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沒怎麼’가 ‘不怎麼’보다 의미 강도 면에서 더 약하다는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不怎麼’는 속성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낮은 정도를 표현하는 반면, ‘沒怎麼’는 사건의 실현 자체가 거의 없음을 나타내며, 표현 강도 면에서 좀 더 약화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沒怎麼’는 ‘不怎麼’보다 더 낮은 의미 강도를 나타내며, 척도상 ‘1단계’(거의 없음, 매우 약함)에 위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도성 척도상에서 ‘沒怎麼’ 위치를 시각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정도성 척도상 ‘沒怎麼’의 위치

‘沒怎麼’가 낮은 실현 빈도와 지속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예문을 통해 살펴보겠다.

- (4) 搬出這些天的報紙信件在燈下看。從海濱回來，我就沒怎麼看報，也不知世界和平怎麼樣了。
(며칠간 쌓인 신문과 편지를 꺼내 등불 아래서 읽었다. 해변에서 돌아온 뒤로는 신문을 거의 보지 않아서, 세계 평화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몰랐다.)

예문(4)의 동사 ‘看’은 일정 기간 동안 행위가 얼마나 자주 또는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반영하는 시간적 척도를 형성한다. 이 척도의 범위는 ‘거의 읽지 않음’(1단계), ‘저빈도 독서’(2단계), ‘보통 수준 독서’(3단계), ‘빈번한 독서’(4단계), ‘정기적 독서’(5단계)로 구성된다. 예문의 ‘沒怎麼看報’는 신문을 거의 읽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행위의 실현 빈도와 지속 시간이 매우 낮은 수준(1단계, 거의 없음)에 해당한다. 이는 ‘沒怎麼’가 단순히 행위가 드물게 일어났음을 넘어,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동시에 나타낸다. 따라서 ‘沒怎麼’는 낮은 정도성을 표현할 때, 빈도와 지속 시간이라는 두 축 모두에서 최소 수준의 실현 혹은 실현 자체가 거의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4. ‘不怎麼’와 ‘沒怎麼’의 정도성 차이

‘不怎麼’와 ‘沒怎麼’ 모두 특정 속성이나 사건이 기대보다 낮음을 표현하지만, 의미 초점과 정도성 층위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두 표현은 모두 낮은 정도를 나타낼 수 있지만, ‘不怎麼’는 속성의 상대적 실현 강도에, ‘沒怎麼’는 사건의 실현 유무 및 시간적 회소성에 각각 초점을 둔다. 이를 예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 突然下雨了, 帽子不怎麼濕。(不怎麼)
(갑자기 비가 내렸는데 모자가 별로 젖지 않았어)
- (6) 突然下雨了, 帽子沒怎麼濕。(沒怎麼)
(갑자기 비가 내렸는데 모자가 거의 젖지 않았어)

‘젖음의 정도’는 척도상 다섯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가장 낮은 1단계는 ‘거의 젖지 않음’, 2단계는 ‘약간 젖음’, 3단계는 ‘보통 수준의 젖음’, 4단계는 ‘많이 젖음’, 그리고 가장 높은 5단계는 ‘완전히 젖음’이다. 이러한 척도 범위를 기준으로 예문을 살펴보면, 예문(5)의 ‘不怎麼濕’은 모자의 젖은 상태가 비를 맞은 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3단계 이상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실제로는 2단계에 해당하는 ‘약간 젖음’에 불과함을 나타낸다. 화자는 모자가 상당히 젖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그 강도가 기대보다 낮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반면 예문(6)의 ‘沒怎麼濕’은 젖는 행위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비가 짧게 내렸거나 매우 약하게 내려 행위의 실현 빈도와 지속이 모두 미약했음을 반영한다. 이 경우 젖음이라는 결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척도상 1단계인 ‘거의 젖지 않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표현은 모두 낮은 정도성을 나타내지만, 의미 기능 측면에서 ‘不怎麼’는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약화된 속성을 드러내며, 속성의 부분 실현이 발생한 반면 ‘沒怎麼’는 사건 실현이 거의 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정도성 층위 측면에서는 ‘不怎麼’가 ‘沒怎麼’보다 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정도성을 표현하며, ‘沒怎麼’는 더 낮은 정도성을 나타낸다. 이처럼 두 표현은 의미 기능에 차이가 있으며, 정도성 층위도 동일하지 않다. 예문을 바탕으로 ‘不怎麼’와 ‘沒怎麼’의 의미 기능, 정도성 차이를 종합하면 <표 3>과 같다.

<표 3> ‘不怎麼’와 ‘沒怎麼’의 정도성 차이

비교 예문	帽子 <u>不怎麼</u> 濕。	帽子 <u>沒怎麼</u> 濕。
예문 해석	모자가 별로 젖지 않았다.	모자가 거의 젖지 않았다
의미 기능	젖음의 정도가 예상보다 낮음	젖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초점	속성의 강도 (젖음의 정도)	사건의 발생 여부와 빈도
척도상 위치	2단계	1단계

정도성 척도상 ‘沒怎麼’와 ‘不怎麼’의 위치를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1	2	3	4	5
매우 약함 거의 없음	약함	보통	강함	매우 강함
沒怎麼	不怎麼			

<그림 3> 정도성 척도상 ‘沒怎麼’와 ‘不怎麼’의 위치

5. 결론

본 연구는 현대중국어 ‘不怎麼’와 ‘沒怎麼’의 낮은 정도성 표현을 ‘척도 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두 표현은 모두 낮은 정도 표시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의미 초점과 정도성 척도상 위치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不怎麼’는 속성의 강도가 화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며, 화자의 주관적 판단과 비교 기준이 개입된 상대적 약화를 나타낸다. 반면 ‘沒怎麼’는 사건이나 상태의 실현 빈도나 지속 시간이 거의 없음을 강조하며, 속성의 질적 강도보다는 실현 여부와 시간적 희소성에 초점을 둔다. 정도성 척도상에서 ‘不怎麼’는 2단계인 ‘약함’에 위치하고, ‘沒怎麼’는 1단계인 ‘매우 약함, 거의 없음’에 위치한다. 따라서 ‘沒怎麼’가 ‘不怎麼’보다 더 약한 정도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두 표현은 동일한 정도성으로 포괄될 수 없으며, 각각 속성 중심의 상대적 평가와 사건 중심의 시간적 평가라는 상이한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중국어 정도성 연구의 층위적 분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낮은 정도성 표현에 대한 정밀한 이해를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武曉琳(2022), <基於漢語作為二語教學的‘不怎麼X’結構研究>, 『語言教育』28(4):102-110.
- 벤들러(Vendler, Z, 1957), Verbs and Times, *The Philosophical Review* 66(2): 143-160.
- 楊曼妮(2013), <談“不大”“不太”與“不怎麼”>, 『語言文字探索』, 5:192-194.
- 王力([1943]2014), 『中國現代語法』, 北京: 中華書局.
- 汪昌松·蔡維天(2023), <不 / 沒怎麼AP / VP結構之詞彙－句法界面研究>, 『漢語學習』2: 35-45.
- 鄭帥(2023), 『基於語料庫的“不”, “沒”與程度副詞連用研究』, 華中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宗守雲(2009), <試論“不怎麼”的語義表現和語用功能>, 『山西大學學報(哲社版)』32(4):87-90.
- 케네디와 맥널리(Kennedy, C. & McNally, L, 2005), Scale structure, degree modification, and the semantics of gradable predicates, *Language* 81(2):345-381.

번역과 문화의 경계에서:

제주 자연관광지 명칭의 중국어 번역 실태와 전략

宋和英*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문화소 번역의 이론과 적용
 3. 제주 자연관광지 명칭의 중국어 번역 분석
 4.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제주 자연관광지 명칭의 중국어 번역 실태를 고찰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적절한 번역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대상은 제주 공식 관광 가이드북 『혼저옵서 제주전도』에 수록된 7개 관광지 항목 가운데, 자연관광지 명칭에 해당하는 부속도서, 오름/산, 휴양/숲길, 동굴/폭포/계곡, 해수욕장/해변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자연관광지 명칭은 한자어, 혼중어, 고유어로 분류되었다. 둘째, 중국어 번역은 직역, 의역, 음역, 혼역의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자국화와 이국화 번역 양상이 병존하였다. 셋째, 중국어 번역 및 표기 방식의 일관성 부족, 한자 사용 오류, 의미 전달의 부정확성, 한국어 명칭의 혼재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태를 토대로, 본고는 통일성 있는 번역과 표기 방식의 적용, 기존 한자어 사용, 고유어 명칭에 대한 이국화 번역, 발음과 의미를 함께 고려한 음역, 첨가 번역이나 보충 설명을 통한 의미 보완, 한국어 명칭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혼재된 제주 자연관광지 명칭의 중국어 번역 체계를 정립하여 중화권 관광객에게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제주어와 자연유산 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본고는 제주 자연관광지 명칭의 중국어 번역 실태를 고찰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적절한 번역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혼재된 번역 체계를 정립하여 중화권 관광객에게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고, 제주의 문화적 가치 재조명과 제주어 및 자연유산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4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190만 명으로, 이 중 중화권 관광객이 80% 이상을 차지한다.¹⁾ 최근 K-드라마와 한류 열풍으로 제주 관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중국어 번역의 정확성과 일

* 延世大學校 講師

1) 김명상(2025.01.05.) 참고.

관성 확보가 필수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다국어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일한 지명이 서로 다르게 번역되거나 발음은 같지만 서로 다른 한자로 표기된 사례가 확인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외국어 서비스 신뢰성 하락은 물론 제주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제주어 기반의 지명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문화소(文化素, cultureme)²⁾ 번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기에 이에 대한 실태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제작한 공식 관광 가이드북 『혼저옵서 제주전도(濟州全圖)』를 근거로 자연관광지 명칭의 중국어 번역 실태를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인덱스에 수록된 부속도서(付屬島嶼), 오름/산, 휴양/숲길, 동굴/폭포/계곡, 해수욕장/해변 등 다섯 항목이다. 이를 통해 제주 자연관광지의 번역 문제를 유형화하고, 문화소 번역 관점에서 보다 적절한 번역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문화소 번역의 이론과 적용

본 장에서는 관광지 관련 중국어 번역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문화소 번역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2.1 선행 연구 고찰

제주는 화산으로 형성된 지형적 특징과 한반도와 떨어진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독특한 문화소가 발달하였다.³⁾ 그러나 이러한 문화소는 외국어로 번역할 때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제주 자연관광지 명칭 번역은 야콥슨(Roman Jakobson)이 분류한 언어 간 번역(interlingual translation)에 해당하며, 번역자는 단순한 기호 전환을 넘어 문화적 맥락을 포함한異문화 간 소통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관광 안내 목적의 번역은 대체로 도착어 수용자 중심의 정보 전달에 집중해 왔다.

제주 관광지의 중국어 번역에 관한 연구는 안내 책자 오류 분석(김중섭 2003), 문화소 번역 방법 고찰(권인경 2013), 스코포스 이론(Skopos theory)을 적용한 번역 유형화(장윤숙 2018),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 전략 분석(홍미미 2019) 등이 있다. 비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주로 안내판 번역 오류와 개선 방안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오류 분석과 목적 지향적 번역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광 정보 번역이 단순한 안내를 넘어, 제주어와 제주 문화의 보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2 문화소 번역 유형과 특징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문화를 담는 그릇이다. 번역은 이 과정에서異문화 간 교류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출발어 문화에만 존재하는 문화소는 등가 표현이 부족하여 번역의 난제가 된다. 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는 번역 전략을 ‘자연스럽게 하기(naturalizing)’와 ‘낯설게 하기(alienating)’로 구분하였고, 베누티(Lawrence Venuti)는 이를 ‘자국화(domestication)’와 ‘이국화(foreignization)’ 전략으로 체계화하였다.⁴⁾ 자국화는 도착어 수용자의 이해를 우선시해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이며, 이국화는 출발어의 고유성을 유지하여 수용자에게 문화적 낯섬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다.⁵⁾ 최근 번역

2) 문화소는 한센(Doris Hansen, 1996)이 처음으로 제시한 용어로,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는 실체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임형재·이석철·리벤켈빈(2022:64) 참고.

3) 장윤숙(2018:27) 참고.

4) Jeremy Munday et al.([2022]2023:82-84) 참고.

5) 김영신(2016:40) 참고.

현장에서는 문화적 고유성을 존중하는 이국화 전략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제주어 기반 지명 역시 이러한 전략을 통해 문화 보전과 전파에 기여할 수 있다.

3. 제주 자연관광지 명칭의 중국어 번역 분석

본 장에서는 『제주전도』의 자연관광지 명칭의 중국어 번역 실태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번역 전략을 모색한다.

3.1 중국어 번역 실태 분석

『제주전도』는 문화소 분류에서 생태 범주에 속하는 자연관광지를 부속도서, 오름/산, 휴양/숲길, 동굴/폭포/계곡, 해수욕장/해변 등 다섯 범주로 분류하였다. 본고는 『제주전도』의 인덱스에 수록된 자연관광지 명칭을 대상으로 중국어 번역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지명의 제약을 고려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명칭을 대조한 표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3.1.1 부속도서

『제주전도』에 수록된 13개의 부속도서 명칭은 한자어, 혼종어, 고유어로 분류된다. 한자어는 직역⁶⁾, 혼종어는 ‘직역+의역’의 혼역, 고유어는 의역 방식으로 번역되었으며, 모두 자국화 번역 전략이 적용되었다. 자국화 번역은 도착어 수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문섬’의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蚊島’⁷⁾보다는 조선시대 문헌⁸⁾에서도 확인되는 ‘文島’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표 1> 제주 부속도서 명칭

한국어			漢語		
부속도서			附屬島嶼		
가파도	문섬	새섬	加波島	蚊島	茅島
마라도	형제섬	범섬	馬羅島	兄弟島	虎島
비양도		섬섬	飛揚島		森島
비양도(우도)			飛揚島(牛島)		
우도			牛島		
지귀도			地歸島		
차귀도			遮歸島		
추자도			楸子島		

6) 본고는 다음과 같이 번역 방식을 정의하고 적용한다. 한자어를 그대로 ‘축자역(逐字譯)’한 번역 방식은 ‘직역(直譯)’, 의미 중심의 번역 방식은 ‘의역(意譯)’, 발음 중심의 번역 방식은 ‘음역(音譯)’,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혼합한 번역은 ‘혼역(混譯)’으로 명명하여 분류한다. 김혜림 외(2019:10) 참고.

7) 본고에서 해당 명칭에 대한 설명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과 비짓제주 참고.

8)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고.

3.1.2 오름/산

『제주전도』에 수록된 19개의 오름/산 명칭은 한자어, 혼종어, 고유어로 분류된다. 한자어는 직역, 혼종어는 ‘직역+의역’과 ‘직역+음역’의 혼역, 고유어는 의역과 ‘직역+의역’, ‘음역+의역’의 혼역 방식으로 번역되었으며, 자국화와 이국화 번역 전략이 병용되었다. 이 가운데 제주어 기반 지명인 ‘오름’은 사용 빈도가 높아 번역 방식에 따라 문화적 고유성과 제주어 보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용 빈도가 낮아 소멸⁹⁾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음역 중심의 이국화 번역 전략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2> 제주 오름/산 명칭

한국어 오름/산			漢語 藥岳		
성산일출봉	저지오름	거문오름	城山日出峰	楮旨岳	拒文岳
수월봉	금(악)오름	아부오름	水月峰	琴岳	亞父岳
산방산	백악이오름	다랑쉬오름	山房山	百藥岳	多浪秀岳
송악산	용눈이오름	따라비오름	松岳山	龍臥岳	多羅非丘
단산	산굼부리	높은오름	簞山	山君不離	高岳
대록산		안돌오름	大鹿山		內石岳
고근산		새별오름	孤根山		晨星岳

3.1.3 휴양/숲길

『제주전도』에 수록된 14개의 휴양/숲길 명칭은 한자어, 혼종어, 고유어로 분류된다. 한자어는 직역과 ‘직역+음역’의 혼역, 혼종어는 ‘직역+의역’, ‘직역+음역’, ‘직역+의역+음역’의 혼역, 고유어는 ‘의역+음역’, ‘직역+음역+의역’의 혼역 방식으로 번역되었다. 제주어 기반 지명을 이국화 번역 전략에 따라 음역한 사례는 제주 자연관광지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살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번역 방식의 일관성 부족과 중국어와 영어를 혼용한 표기는 개선이 요구된다.

<표 3> 제주 휴양/숲길 명칭

한국어 휴양/숲길			漢語 休養林/林道		
비자림	한라생태숲	사려니숲길	榲子林	漢拿生態林	思連伊林蔭道
서귀포자연 휴양림	삼다수숲길	머채왓숲길	西歸浦自然 休養林	三多水林道	Meochewat 林道
교래자연 휴양림	절물자연 휴양림		橋來自然 休養林	寺泉自然 休養林	
한라수목원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漢拿樹木園	赤岳 自然休養林	
	서귀포 치유의숲			西歸浦 療愈森林	
	제주꽃자왓 도립공원			葛扎瓦 道立公園	
	청수꽃자왓			清水葛扎瓦	
	환상숲꽃자왓			幻想之林 葛扎瓦公園	

9) 2010년 12월, 유네스코는 제주어를 5개의 소멸 위기 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 (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로 분류하였다. 제주어연구소 참고.

3.1.4 동굴/폭포/계곡

『제주전도』에 수록된 16개의 동굴/폭포/계곡 명칭은 한자어, 혼종어, 고유어로 분류된다. 한자어는 직역과 ‘직역+의역’의 혼역, 혼종어는 ‘직역+의역’, ‘음역+직역’, ‘음역+의역’의 혼역, 고유어는 의역과 음역 방식으로 번역되었다. 제주어 기반 지명은 이국화 번역 전략에 따라 음역되어 고유성과 특수성을 보전하였으며, ‘化石產地’와 ‘大浦海岸柱狀節理帶’와 같이 대체 번역이나 첨가 번역을 활용한 자국화 번역 전략도 병용되었다. 다만 ‘頓乃克’과 같은 경우에는 발음과 의미를 함께 반영할 수 있는 한자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표 4> 제주 동굴/폭포/계곡 명칭

한국어			漢語		
동굴/폭포/계곡			洞窟/瀑布/溪谷		
만장굴	영또폭포	돈내코	萬丈窟	翁渡瀑布	頓乃克
안덕계곡	큰엉해안 경승지	섬지코지	安德溪谷	伉翁海邊	涉地可支
용두암	용머리해안	쇠소깍	龍頭岩	龍頭海岸	牛沼端
용연	대포주상절리	외돌개	龍淵	大浦海岸 柱狀節理帶	獨立岩
정방폭포			正房瀑布		
천제연폭포			天帝淵瀑布		
천지연폭포			天地淵瀑布		
서귀포패류 화석층			西歸浦敗類 化石產地		

3.1.5 해수욕장/해변

『제주전도』에 수록된 12개의 해수욕장/해변 명칭은 한자어, 혼종어로 분류된다. 한자어는 모두 직역, 혼종어는 ‘직역+의역’, ‘직역+음역’의 혼역 방식으로 번역되었다. 이들 지명은 ‘신양섬지해수욕장’을 제외하고 모두 자국화 번역 전략이 적용되었다.

<표 5> 제주 해수욕장/해변

한국어		漢語	
해수욕장/해변		海水浴場	
곽지해수욕장	화순금모래해수욕장	郭支海水浴場	和順金沙海水浴場
협재해수욕장	이호테우해수욕장	挾才海水浴場	梨湖木水筏海水浴場
금능해수욕장	신양섬지해수욕장	金陵海水浴場	新陽涉地海水浴場
중문색달해수욕장		中文穢達海水浴場	
표선해수욕장		表善海水浴場	
월정해수욕장		月汀海水浴場	
김녕해수욕장		金寧海水浴場	
함덕해수욕장		咸德海水浴場	
삼양해수욕장		三陽海水浴場	

3.2 중국어 번역 전략 제언

제주 자연관광지 명칭의 중국어 번역은 제주어와 자연유산 보전의 측면에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의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동일한 지명의 번역은 통일할 필요가 있다. ‘오름’이 ‘岳’, ‘丘’, ‘峰’ 등으로 혼재하거나, ‘거문오름’이 ‘巨文’과 ‘拒文’으로 병용되는 사례는 번역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고유 한자어와 제주어 어원을 반영한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일관된 번역 표기법을 채택해야 한다. 음역 시 한자와 영어를 혼용하여 표기하지 말고 가급적 한자 표기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Meochewat林道’와 같은 혼용은 수용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므로 ‘Meochewat’ 대신 ‘莫切瓦’와 같은 한자 표기를 제안한다.

셋째, 고유 한자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 ‘漢拏山’을 ‘漢拿山’으로, ‘今岳’을 ‘琴岳’로, ‘文島’를 ‘蚊島’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명의 역사성과 문화적 의미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자어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번역이 필요하다.

넷째, 의미가 왜곡된 번역은 수정해야 한다. ‘藥岳’, ‘山君不離’, ‘龍臥岳’ 등과 같이 본래 지형과 무관한 이미지를 유발하는 표기는 부적절하다.

다섯째, 출발어인 한국어 명칭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포주상절리’와 ‘주상절리대’처럼 동일 지명이 상이하게 표기되면 정확한 번역이 불가능하므로, 한국어 명칭부터 통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소 번역 전략의 관점에서 고유어 명칭은 이국화 번역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꽃자왈, 머채왈 등은 음역을 통해 제주의 독특성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긍정적 의미의 한자를 선택하거나 괄호 설명을 병기해 이해를 돕는 것이 좋다. 이러한 번역 방식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제주 문화의 보전과 전파에도 기여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제주전도』에 수록된 자연관광지 명칭의 중국어 번역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번역 전략을 논의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은 부속도서, 오름/산, 휴양/숲길, 동굴/폭포/계곡, 해수욕장/해변이며, 이는 한국어 어휘 유형에 따라 한자어, 혼종어, 고유어로 분류되었다.

둘째, 중국어 번역은 직역, 의역, 음역, 혼역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자어는 주로 직역과 ‘직역+의역’, ‘직역+음역’의 혼역을, 혼종어는 ‘직역+의역’, ‘직역+음역’, ‘직역+의역+음역’의 혼역을, 고유어는 의역과 음역을 비롯해 ‘직역+의역’, ‘직역+음역’, ‘음역+의역’, ‘직역+음역+의역’ 등 다양한 혼역 양상을 보였다.

셋째, 한자어는 대체로 자국화 번역을 따랐으나 일부는 자국화와 이국화 번역이 병용되었다. 혼종어는 직역과 의역을 결합할 때 주로 자국화 번역을 적용하였고, 그밖에는 자국화와 이국화 번역이 병용되었다. 고유어는 자국화, 이국화 또는 양자 병용 방식으로 번역되었다.

넷째, 분석 과정에서 번역 방식과 표기 방식의 일관성 부족, 한자 사용 오류, 의미 왜곡, 한국어 명칭의 혼재 등이 문제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는 동일한 지명에 대한 통일성 있는 번역과 표기 방식의 적용, 기존 한자어 사용, 고유어 명칭에 대한 이국화 번역, 발음과 의미를 함께 고려한 음역, 필요 시 첨가 번역이나 보충 설명을 통한 의미 보완, 한국어 명칭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제주 지명은 지형적 특성과 문화적 고유성을 반영하므로 번역 시 단순한 언어 치환이 아닌 문화 보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 지명의 번역은

전문 번역가, 지명 전문가, 지역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의 제언은 절대적 해답은 아니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중국어 번역 양상을 보완하는 실천적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제주어와 제주 자연유산 보전을 위한 번역 전략이 재조명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인경(2013), <문화소 번역 방법 연구 -제주도 관광안내텍스트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25:37-59.
- 김명상(2025.01.05.), <제주 관광객 3년 연속 1300만명...외국인 관광객 170% 증가>,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5606642034768&utm_source=chatgpt.com.
- 김영신(2016), <이국화인가 자국화인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번역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37:37-55.
- 김중섭(2003), <제주도내 중국어 안내책자에 대한 고찰>, 『언어학연구』8(1):119-128.
- 김혜림 · 강경이 · 신다영(2019), <관광문화 용어 중국어 번역 수용성 연구>, 『번역학 연구』20(3):7-35.
- 임형재 · 이석철 · 리번켈빈(2022), 『문화소 번역의 이론과 실제: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하남: 박이정.
- 장윤숙(2018), 『공공기관 관광정보웹사이트 한중번역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보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Jeremy Munday et al.(202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5th ed.)*, Abingdon, Oxon; New York, NY: Routledge, 남원준 · 이형진 역(2023), 『번역학 입문: 이론과 적용』, 서울: HUINE.
- 홍미미(2019), <제주관광공사 ‘비짓제주’ 중문 홈페이지의 로컬라이제이션 연구 -콘텐츠 선정과 번역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9(1):535-547.

<참고 사이트>

- 비짓제주 : <https://www.visitjeju.net/kr>
- 제주관광지도 : <https://www.visitjeju.net/kr/tourInfo/guide?tap=two>
- 제주어연구소 : <http://www.jeju999.kr/index.php/contents/reference/news?act=view&seq=1181>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https://www.grandculture.net/korea>

程度副词“挺”的语篇研究

—— 兼谈程度副词的区别性特征

焦毓梅*

<目次>

【摘要】

1. 引言
 2. 程度副词“挺”适用的语境
 3. 程度副词“挺”的语义倾向
 4. 程度副词“挺”的人际功能
 5. 结语
- 参考文献

【摘要】

程度副词是现代汉语词汇系统中表示程度量的主要手段，通常可以分为绝对程度副词和相对程度副词两类，其中表示高程度量的绝对程度副词（“很”类副词）数量相对较多，辨别起来也比较困难。

我们尝试选择其中使用频率较高，也是历来研究者比较关注的“挺”为研究对象，从语篇角度分析其适用的语境、语义倾向及其人际互动方面的一些问题。同时，尝试在个例研究的基础上，探索如何更清晰、准确地描写“很”类程度副词的区别性特征。

1. 引言

程度副词是现代汉语词汇系统中表示程度量的主要手段，通常可以分为绝对程度副词和相对程度副词两类，其中表示高程度量的绝对程度副词（“很”类副词）数量相对较多，如蔺璜、郭妹慧（2003）综合前人研究成果，列举了45个表高程度量的副词：很、挺、怪、老、非常、特别、相当、十分、好、好不、甚、甚为、颇、颇为、异常、深为、满、蛮、够、多、多么、殊、特大、大为、何等、何其、尤其、无比、尤为不胜（31个）；太、极、极为、极其、极度、极端、至、至为、顶、过、过于、

* 德成女子大学，教授。

过分、分外、万分（14）。而且，我们还注意到不断有新词加入这个行列，如超、酷、暴、狂、巨等，而相对程度副词和表示低程度量的绝对程度副词数量要少得多。

总之，“很”类副词成员相对数量较多且来源复杂，要清晰地区分它们语义、语用特点无疑是艰难而又无法回避的任务。从目前的研究成果来看，首先是从程度量级上进行区分，但研究者的看法经常不统一，如比较“挺”与“很”：吕叔湘《现代汉语八百词》、李晓琪《现代汉语虚词讲义》认为“挺”比“很”的程度要低，《现代汉语词典》、《现代汉语虚词例释》认为“挺”与“很”程度相当；其次是从情态特征进行比较，但不同研究者的意见也常有冲突，如马真（1991）认为“很”、“挺”不带感情色彩、“怪”带有“亲昵/满意/爱抚/调皮”等色彩、“老”带有“不喜爱”的色彩，而《现代汉语虚词例释》认为“挺”带有感情色彩，往往含有亲切、爱抚的意味、修饰“坏字眼”时语气“比较委婉”。

此外，也有学者尝试从语篇角度对这类词进行阐释，如徐晶凝（2015）总结出了“挺”在语篇中分布的四大类共十种语言行为，并从教学角度出发，提出教师应强调“挺”所包含的“低承诺主观性”特点。李宇凤（2020）则通过举例说明“挺”不一定用于口语交际行为，也不一定“委婉”，更不是“不太确信”，进一步从交际互动的角度，证明程度副词“挺”是在预期否定的对比语境下肯定相关性状的礼貌客气的情态确认标记。“挺”表情态确认，不受程度量调节，不能被否定，适应言语行为对比、前后表述对比和特征描述的言外对比三类语境。我们通过对相关语料的调查发现“预期否定的对比语境”并非“挺X”结构必须的语义背景，事实上其可以作为始发句提供新信息，也可以在对话或拟对话语境中单纯表达赞同，如：

（1）海湾森林，挺好的，你知道不？（微博海湾森林公园广告语）

（2）“索米娅。你是叫白音宝力格吗？”她的嗓音甜甜的，挺好听。（张承志《黑骏马》）

（3）“怎么样？”我笑着问他。“好，好。”他伸着大拇指赞叹着：“我一听这发动机的声音就知道，挺好的机器。”（人民日报新闻报道）（赞叹）

（4）A：“你看小朋友们互动多热情啊，看来都很喜欢‘常伯伯’嘛！”B：“可不是嘛，我也挺喜欢‘常伯伯’的呢~”（2010微博互动）（可不是）

陆俭明（2024）指出实际上学界一般仅仅理解为“句子是言谈交际的话语的最小的使用单位”而已，而在对句子的分析研究上，还只是一种静态的分析研究。只有引进语篇”这一概念，才能真正开展词语、语法、篇章的动态研究，即从用法的视角和层面去加以研究。在对“很”类程度副词的观察中，我们也发现其中很多词语义接近、句法特点趋同，单纯从句子的层面很难辨别其间的差异，因而延续徐晶凝、李宇凤两位的研究思路从语篇角度对这一问题进行考察。限于篇幅，我们尝试选择使用频率较高，也是历来研究者比较关注的“挺”为研究对象，从语篇角度分析其语义基础、情态特征及其适用语境。同时，尝试在个例研究的基础上，探索如何更清晰、准确地描写“很”类程度副词的区别性特征。

2. 副词“挺”适用的语境

2.1从句子层面来看，我们注意到“挺X”结构，可以充当谓语、定语、状语与补语：

(5) 那柳太太就用两个雪白的指头箝了一块，交到她手上，笑道：“挺新鲜的，吃一块吧。”（张恨水《美人恩》）

(6) 玻璃花等人……拿舌尖舔破窗纸往里瞧，呀，屋里全空着，只有几只挺肥的耗子聚在炕头啃什么。（冯骥才《神鞭》）

(7) 郭中姚一边说着，一边挺麻利地打开酒瓶。老大的酒杯，一人倒了大半杯。也。（张平《抉择》）

(8) 天下雪了，倪正的雪地靴卖得挺快。（毕淑敏《束脩》）

从BCC语料库收集到的情况看，“挺X”结构充当谓语的例子最多，其次是充当补语、定语的例子，充当状语的也有一定数量的用例。¹这与一般性质形容词的句法分布是一致的，也就是说“挺”的加入并未限制其句法层面的应用。

2.2语篇在形式上可以有口语和书面、对话和独白等多个角度的分类。口语和书面语是从传媒角度进行的分类，对话和独白则是从参与者的角度进行的分类。对话和独白体现了口语语体内部典型范畴和非典型范畴的区别。对话体是典型的口语语体，涉及说话人和直接听众，独白则是一个人为主，听众可有可无。

根据对BCC语料库相关语料的调查我们认为“挺”大多数情况应用于对话或拟对话场景，但也有一定数量的用例应用于“独白”，也就是通常说的叙述性场景²：

(9) “肉夹馍咋样！”“很好吃，但挺贵的，20一个”

(10) 讨债的，要帐的，他回答得挺光棍，“要钱没有，要命一条！”而且挺仗义：“我绝不赖帐，钱有，只是有人作对，卡着，等等吧。”

(11) 不管她怎么擦眼睛，看到的还是那样：她是在一个挺黑暗的小店里，胳膊肘支在柜台上，对面是只老绵羊，坐在安乐椅里打毛线。

例(9)是最常见的对话场景，例(10)是说话人对某人行为的评述，例(11)是对具体场景的描述。

徐晶凝(2015)认为“挺X”适用于“低承诺”语境；李宇凤(2020)则认为徐说的“低承诺”，亦即情态上“不太确信”、语义上“程度略低于‘很’”和语用上“委婉”，而实际上，“挺”不一定用于口语交际行为，也不一定“委婉”，更不是“不太确信”。

¹ 我们检索BCC语料库文学类语料，共计5900例，其中作谓语的超过4500例左右，做补语的810例、做定语的556例、做状语的75例，这个统计和徐晶凝(2015)的相关统计结果是一致的。

² 我们检索BCC语料库对话类语料检索到近190000例，文学类语料中5900例、报刊类6500例，其中大部分也是对话或者拟对话语境。

我们进一步分析徐文中提到的两类“低承诺”语言策略，实际上如使用“怎么说呢”一类小句作为插入语是将“独白”转化为“拟对话”的手段；而如“我看/别以为”这一类插入语则是主观性标记，起到一个将“说话人”由幕后推到台前的作用，强化了“说话人”的存在感，试比较下边两组例子：

(12) 他是喜欢下棋，可他的棋挺“屎”，一点不比我高明多少。

怎么说呢？他的棋挺“屎”，一点不比我高明多少。

(13) 这种“强要饭的”乞丐，挺不好应付，很理直气壮，好像应该给钱似的

我看这种“强要饭的”乞丐，挺不好应付，很理直气壮，好像应该给钱似的

例(12)(13)都没有因为插入成分而体现“不确信”或者“委婉”的情态特征；而且由于句中“屎”、“不好应付”的语义特征，即使用“很”替换“挺”也不会显得程度更高。

2.3前人研究中，多关注“挺X”与后续语气词“的”、“呢”等的搭配，我们在考察中发现其经常性与副词“真”、“还”搭配：

(14) “我只想问张三疯好喝不”“真挺一般的，奶茶味很淡”（重音-真）

？真一般，奶茶味儿很淡

(15) “怎么样？我穿了几次就天冷了。”

“还挺舒服的呀软软的不会绷”（重音-挺）

？还舒服呀软软的不会绷

？还特别舒服呀软软的不会绷

例(14)中“真”带有强烈的主观色彩，表示对某个事实的确认，是个体现话语真实性的副词，来传达自己对所说话语真实性的肯定，并进一步加深说话人对所说话语的确信程度；例(15)中“还”表示勉强过得去，基本达到某个要求。“真”与“还”在语感上呈现相反的态势，而且“真”与“一般”这样无法体现[+高程度]特征的词很难搭配，“还”与“舒服”之类可能存在[+-高程度]特征的词不能搭配，与“特别”这种典型的[+高程度]副词也很难搭配。换句话说，例(14)“挺一般”在语境中似乎呈现了[+高程度]的特征，而例(15)中“挺舒服的”则呈现了[-高程度]特征，——这显然是不合理的。

我们尝试换个角度考虑，认知语言学认为，我们所说的话的内容实际上都是我们对主、客观世界的认识，人们在说出一句话时必然会自觉不自觉地对他所说的话的真实性进行评估。“挺”本身并不表示程度量的大小，而只是说话人本身确认“具有某个性状”这一事实。“真”与“还”就是对这一事实的确认，“真”语气强烈，被用来传达自己对所说话语真实性的确认，并进一步加深说话人对所说话语的确信程度；“还”语气较弱，但同样也对话语真实性进行了确认。

综合来看，“挺X”主要用于表示[+确认]属于某一性质范畴且达到了一定的程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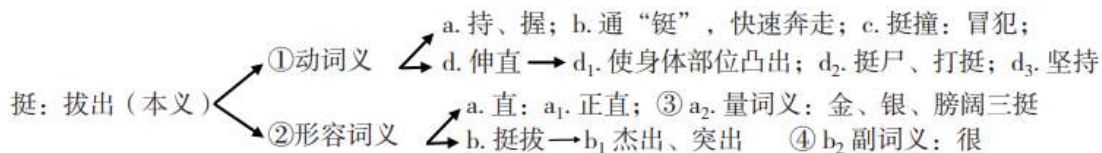
3. 程度副词“挺”的语义倾向

将绝对程度副词中的高程度量副词（“很”类词）与表低程度量的副词进行比较，很容易发现表低程度量的副词大多由含有[+量特征]的数量词或形容词演化而来（如“一点儿”、“稍微”等），而“很”类词则大都由具有某种感官特征的形容词或是动词虚化而来（如“很”由表“凶狠”义的“狠”虚化而来，“怪”由表“奇怪、不正常”的“怪”虚化而来）。换句话说，表低程度量的副词其“程度量”来自于其语义源头的[+量特征]，其他情态特征则是来自其主观化过程附加意义；而表高程度量的其本身的情态特征、人际互动特征来源于其语义源头的[+主观性]特征，而“程度量”则是其语用中获得的附加意义。

基于以上认知，我们尝试分析“挺”的语义基础与语义倾向及其对语用方面的影响。

3.1 语义基础

黄瑶（2015）、刘心欣（2022）对“挺”的来源与语法化过程做了比较清晰的描述（见图一），其本义为“拔出”，动作行为方面，主要引申出“伸直(身体)”、“使身体某个部位凸出”进而引申出“坚持（自己主张、立场）”的义项；性状特征方面，主要引申出“直”、“正直”、“挺拔”进而引申出“突出”的义项，并最终产生了程度副词的用法。



（图一）

“挺”历时发展过程中产生的义项一部分已经消失了，但也有一些义项至今仍是使用频率比较高的用法，我们尝试参考《现代汉语词典》梳理一下这些用法：

- （1）硬而直 - [+凸显][+主动性]/ [+视觉形象]
- （2）伸直（身体）或凸出（身体的一部分） - [+凸显][+主动性]/ [+视觉形象]
- （3）勉强支撑 - [+用力][+保持][+主动性]/ [+视觉形象][+心理感觉]
- （4）支持 - [+用力][+保持][+主动性]/ [+视觉形象][+心理感觉]
- （5）突出，杰出 - [+突出][+主动性]/ [+视觉形象][+心理感觉]

这几个义项中，（1）是指某人或某物本身具有“硬而直”的特征，视觉上具有[+凸显]的特征；（2）是指某人通过自身主动性行为，使自身具有视觉和心理上[+凸显]的特征；（3）是指某人通过自身主动性行为，保持自身状态不变，不至于滑落到更差的境地，从行为主体看是要保持视觉或心理上的紧张状态（“硬而直”的状态），其实也是一种[+凸显]自身存在的心理感受；（4）“支持”是指某人通过自身主动性的行为使对方获得助力，从行为主体看仍然还是要自身保持视觉或心理上的紧张状态

（“硬而直”的状态）；（5）这个义项主要是用于“英挺”、“挺拔”等复合词内部，其中比较正面的意义是与其他语素一起产生的综合性感受，而“挺”本身的意义与（1）比较接近，是指某人或某物本身主要是在心理上（有时也涉及视觉层面）具有[+凸显]的特征。

综合来看，“挺”的实词义项倾向于描述主体的性状特征或感受，相关动作行为也更倾向于“自动”、较少涉及受事者，强调主体在视觉或心理上具有[+凸显]的语义特征，而且这种[+凸显]通常并非指超出其他对象的[+凸显]，而是基于自身性质或状态变化获得的[+凸显]性特征。

3.2 语义倾向

作为程度副词的“挺”来源于上述实词义项，其语义和用法上也仍然受到这些实词义项的影响，最主要的是两点：一是，其倾向于“描述主体”的特点在程度副词用法中发展为倾向于“说话人”主体感受的[+主观性]；二是，基于自身性质或状态变化获得的[+凸显]性特征，在程度副词用法中发展为[+(性质特征)明确]的语义特征，同时获得了说话人[+(态度)确信]的特征。

“挺”的语义倾向直接影响了其主要语用特征，试比较下边一组例子：

（16）最近生意怎么样？别担心，挺好的。/还挺好的。/非常好

？别担心，很好。/还好。

要实现“打消对方的担心”这一语用目的，其实是需要强调不属于“不好”的范围内，“挺”一方面强调目前处于[+明确]的“好”的范畴，一方面表达了说话人主观态度上的[+确信]，适用于这一语境。“非常好”同样也可以实现这一语用目的，但语义倾向于强调“程度超出一般”，而“挺好”则更倾向于“完全没有问题”。“很好”则由于“很”的语法化程度比“挺”要高得多，几乎不带有主观感情色彩，所以显得“冷”；“还好”意思是“勉强达到好的标准”，所以无法有效实现交际目的。

前人研究中提到“挺”带有感情色彩，往往含有亲切、爱抚的意味，主要是指这一类语境，而事实上“挺X”只是具有较强的主观感情色彩，至于具有哪种色彩则取决于具体语境及说话人的语气、语调，如例（16）可以是“亲切、抚慰”，也可以是“烦躁、嫌弃”，甚至可以是具有反语色彩的“讽刺、嘲弄”。

4. 程度副词“挺”的人际功能

很多研究者认为“挺”具有反预期功能，如李宇凤（2020）指出“挺”是对比语境中用于回应和隐性否定预期性状的情态确认，对比预期否定，是“挺”区别于“很”的语境及语用特性。

然而，我们通过对相关用例及语境情况的考察，“挺X”结构几乎适用于所有提供新信息语境，其在某些语境中具有类似“反预期功能”的用法，主要来源于其提出了与“受话人”已知信息相冲突的新信息。因而，不能也没有必要强调其“反预期”的特征。

“挺”主要应用于对话或者拟对话语境中，且具有较强主观性特征，并在此基础上产生了较强的“交互主观性”。³在对话或独白中，说话人使用“挺X”结构表明自己对某一事实有清晰明确的认识、评判，同时也表现出较强的主观态度，这必然隐含有说话人对听话人的特别关注，大多数情况下也会对听话人产生相应的影响，其语篇具有“交互主观性”也就是很自然的事情了。同时，这也是“挺”经常性与交互主观性交际标记“的”、“呢”共现的原因。⁴

4. 结语

“很”类词来源复杂，而且大都由具有某种感官特征的形容词或是动词虚化而来，其本身的情态特征、人际互动特征来源于其语义源头的[+主观性]特征，而“程度量”则是其语用中获得的附加意义。基于这一认识，我们认为要描述“很”类副词的语义、语用功能，对相近的副词进行区别，就不应纠缠于程度量的高低，而应着眼于对其[+主观性]的认识。

参考文献

- [1] 马真. 普通话里的程度副词“很, 挺, 怪, 老”[J]. 汉语学习, 1991(2):8-13.
- [2] 黄瑶. “挺”的副词化及“挺XP(的)”结构研究, 上海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15.
- [3] 李宇凤. “挺”的情态确认与对比预期否定[J]. 语言教学与研究, 2020(1):72-81
- [4] 李宇明. 拟对话语境中的“是”[C]//第五届国际汉语教学讨论会论文选. 1996.
- [5] 蔺璜, 郭姝慧. 程度副词的特点范围与分类[J]. 山西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2003, 26(2):4.
- [6] 刘心欣. “挺”的历时演变[J]. 汉字文化, 2022(5):43-59.
- [7] 陆俭明. 语篇, 语境, 语义背景和关联理论[J]. 语言研究, 2024, 44(1):1-7.
- [8] 王敏, 杨坤. 交互主观性及其在话语中的体现[J]. 外语学刊, 2010(1):4. [1] [1]

³王敏, 杨坤(2010): 交互主观性类似于韩礼德谈到的“人际功能”, 它根源于说话人/作者和听话人/读者之间的相互作用, 并直接对听话人/读者的“自我形象”或“面子”需要产生影响。交互主观性是一个相对于主观性而提出的概念。从历时的角度来看, 主观性先于交互主观性。没有一定程度的主观性就无所谓交互主观性, 因为在语篇的产生过程中, 说话人/作者总是不断地表明自己对命题的观点。一旦这些观点蕴涵着说话人/作者对听话人/读者的特别关注时, 言语的交互主观性就应运而生了。

⁴语气助词“的”的使用, 可以突显说话人对交际另一方的关注, 即在对交际另一方的观点或者自认为交际另一方持有的某种观点进行否定的前提下提出自己的断言。疑问话语和陈述话语中的“呢”都具有凸显说话人对某一命题、事件的认知或情感状态、谋求听说双方达成认识上的共识或建立交际上的协作的功能。

认知语言学视角下“反语”的探析

徐泽方*

<目 次>

【摘要】

1. 引言
 2. 概念整合理论视角
 3. 隐喻视角
 4. 结语
- 参考文献

【摘要】

本文从传统语言学、现在语言学展开对反语进行分析，重点立足于认知语言学视角，试图对反讽现象作出合理的解释。本文第二章从概念整合理论的角度出发，对反讽的产生和理解的动态机制进行了合理的解释，并完善和补充了概念整合理论，即为了达到有效的反讽输出和接收，沟通中双方需要有相似的认知水平，处于相似的社会关系水平，共享言语背景知识是前提，否则就是无效的沟通。第三章基于隐喻的角度解释，反讽的语义结构是“A是-B”，即正话反说，并用图表的形式描绘出反语的输入和识别过程。就语义而言，反语表达了主体的讽刺，挖苦和嘲笑。本文也解释了出现这种现象的原因，是为了使得表达更生动、更委婉。

* 延世大学中文系，时间讲师。

1. 引言

1.1 反语定义

反语(Irony)作为独特的语言现象,所谓反语就是为了达到特定的话语效果,故意采取正话反说、反话正说之法。反语根据研究时代和研究方法不同,也叫作“反讽”、反话。¹反语作为一种极具语用特性的非字面语(Non-literal Language),已经渗透到我们社会生活的各个方面,在日常生活交际中使用到反语的频率很高,是一种特殊的语言现象。

古今中外众多语言学者都致力于这一语言现象的研究。对于“反讽”的定义本文采取李建军(2001)的说法²即“反讽是作者由于洞察了表现对象在内容和形式、现象与本质等方面复杂因素的悖逆状态并为了维持这些复杂的对立因素的平衡而采取的一种暗含嘲讽、否定和戏谑意味以及揭示性质的委婉幽隐的修辞策略、结构和创作原则。”

1.2 反语研究现状

赵毅衡(1986)、(1988)对反讽理论的发展以及新批评的反讽概念作出了简要的评述,并指出了新批评的反讽概念中存在的问题,分析了反讽的各种类型。³李建军(2001)、(2003)分析了构成反讽的“非直陈式修辞介入”、“两极对立因素的相互对比”与“轻松自信的超脱感和距离感”三大要素。⁴

曾衍桃(2004)⁵从历时的角度研究了反语。杨小利(2011)在语用学的框架下运用近年来的反语的理论研究成果分析了反语的语用功能。⁶

刘瑜(2013)从语用修辞学视角出发,认为反语的分类更应该从语用的角度重新分类,从意义和语用上对反语做了分类,并总结出了反语的语用特征。⁷高红云(1999)分析了英语修辞格的语用,反语和隐喻、夸张一起被放进修辞学的范畴。⁸

¹ 反语拥有讽刺的语用效果,对反语初期的研究认为反语属于讽刺类的修辞范畴。

² 参照李建军(2001:107)。

³ 参照赵毅衡《新批评——一种独特的形式主义文论》、《“新批评”文集》。

⁴ 他认为反讽的功能为“就在于可以避免作者以过于武断、直接的方式、把自己的态度和观点强加给读者,而是以一种曲径通幽、暗香浮动的方式,更为智慧、更有诗意地将作者的态度隐含于曲折的陈述中,让读者心领神会。”

⁵ 作者从从历时角度入手,将反语的研究大致分为古典反讽理论和现代反讽理论两个阶段,并认为不同阶段的研究者既对反讽作纵向考察,还探讨反讽与谎言、笑话、幽默的横向关系。

⁶ 作者认为反语的语用效果具有礼貌功能、讽刺功能、幽默功能、凸显功能。

⁷ 作者认为反语的语用特征为不匹配性(命题结构存在的语义对立、命题内容与语境不相宜),含糊性(说话人的真意与字面意义的差异使语言具有不确定性,体现在表达和理解两个层面),间接性(反语是非直义句,包含显性的字面意义和隐性的反语含义),延伸性(反语意味不仅是局限在一句话语当中,它可以通过一段话,甚至整篇文章来体现)。

⁸ 作者认为反语是一种很常用的修辞手法。特点为幽默、俏皮,是一种故意使用与本意相反的说法,理解的时候必须靠其语调或笔调才能表示真意。

由以上研究表明，反语虽然是一个内涵不断发展变化的概念，但其基本的内核依然不变，是一个拥有言意矛盾、假装无知、悖逆并举、前后不协调等因素并存为基本特征的语言学术语，反语重视语言符号的能指功能，它有意破坏言语之间的一一对应关系，故意充分显示语言的歧义性，反语的核心在于言语之间的矛盾，它展示的是言语之间的错综复杂的关系。

对反语的研究大致经历了三个阶段，即传统语言学修辞阶段，现代语言学阶段，认知语言学阶段。在第一阶段，传统语言学认为，反语是一种修辞手段，可以表达说话人委婉、含蓄、讽刺、幽默等感情。

1.2.1 传统语言学对“反语”的研究

孙微、张学芬(2021)通过对杜甫作品《唐兴客馆记》⁹的研究认为“天子之使”、“州长之使”、“四方之使”三种人对唐兴客馆的不同评价，都是反语的修辞手法，意在表达馆舍的宏伟之处。¹⁰又例如：

(1) a. 彼君子兮，不素餐兮。——《诗经·伐檀》

b. 汉皇重色思倾国，御宇多年求不得。——白居易《长恨歌》

(1a)君子非儒家所言之君子，而是指白吃饭却什么都不会干的贵族，饱含强烈的讽刺意味。(1b)不敢说指责本朝皇帝唐玄宗好色，而用汉朝皇帝来代笔。传统语言学认为这是一种婉曲(讳饰、避讳、委婉)的修辞手法，即人们在说话时，遇有不便或不愿直说的事物，而采用一些委婉曲折的方式来表达的修辞方法。倪宝元认为：“反语指说反话，是用与本意相反的话来表达本意的一种辞格。”¹¹(《大学修辞》)。

吴士文则认为：“正话反说(反语)不直说本意而故意说和本意相反的话。”这种用“反面文章”传达本意的方式叫“正话反说”，简称“反语”(《修辞讲话》)，并且他把“反语”归为换代体。¹²由此可见本阶段对“反语”的研究都停留在修辞层面的，传统语法的修辞角度可以解释这种反差鲜明的的表达方法所达到的文学效果、以及对文章的渲染色彩，可以更好地表达作者的思想感情。近年来从认知语言学入手对反语研究表明，反语是人们表征抽象概念时的有力工具，反语已经不仅仅是一种的语言表达形式，而是一种表征认知，表征思维的重要方式，很显然传统语言学对反语的解释仅停留在客观的表达方式层面，已经不足以支撑起反语更深层的研究。

⁹ 参照孙微、张学芬(2021:67)。

¹⁰ 作者认为表面是嫌弃唐兴客馆没有皇家宫殿那么多台阶、比不上皇宫高大，实际上他将一县之小小客馆与皇家宫殿相比，乃是正话反说，正是反言馆舍之宏伟。

¹¹ 他认为讲修辞，目的之一是为了写好文章。

¹² 吴先生把属于“特殊性修辞”的辞格分为四体：描绘体(描绘对象体)，包括比喻、比拟、移觉、夸张等。换代体(换代本身体)，包括借代、折绕、反语、双关、象征、飞白、引用等；引导体(引导随从体)，包括拈连、对偶、排比、层递、反复、顶真、回文、对比、衬托、设问、错综等；形变体(形变原形体)，包括反问、跳脱、仿拟等。

1.2.2 现代语言学对“反语”的研究

第二阶段是现代语言学阶段，现代语言学的各分支学科语义学、¹³ 语用学、¹⁴ 心理语言学¹⁵ 等，都对该语言现象作了比较广泛的研究。对反语的经典解释是语用学家Grice, Searle等所提出的观点，1975年Grice提出著名的会话合作原则¹⁶：指交际双方为使会话、交流合作顺利地进行，以达到共同的沟通目的而必须相互配合，共同遵循的四大准则。质的准则(Quantity Maxim)：保证会话内容是真实可靠的资讯；量的准则(Quantity Maxim)：保证会话的量充分但不多余；关系准则(Relevant Maxim)：方式明白易懂、为对方接受和理解；方式准则(Manner Maxim)：话语围绕目的，紧扣主题。反语是一种特殊的表达方法，反话正说，正话反说都违背了Grice的第一条质的准则，Grice认为通过违反“质的准则”可以达到一种“字外之意”的效果，隐含与字面相反的含义，因为说话者提供的不是真实的语言资讯，把所要表达的语言资讯反著组织起来，这非真正的交际意图，而是需要听话者基于双方共同的认知水准之上，听话者对所收集到的语言资讯进行反著理解，可以为了达到礼貌、委婉的交际目的。Grice的主张可以帮助更好地理解反语，用会话合作原则分析反语大大丰富了反语的研究成果，这个阶段已经把反语从传统语法的修辞领域中分离出来，开阔了视野，明晰了对反语生成的研究，在这一点上本阶段的反语研究具有承上启下的意义。但是这种研究方法无法说明反语产生的原因，语言是由人发出的，传递给人的，应该站在说话人和听话人的角度去分析。本阶段的回话合作交流原则无法说明听话人是如何提取语义资讯，如何抑制语义凸显的。曾衍桃(2004)从关联理论与修辞的角度入手，他认为传统语言学的理论难以合理解释反讽这类的修辞现象，并分析了传统语用学与现代语用学的不同及现代语用学仍存在的不足，他指出传统语言学认为的“反讽”这种“修辞手段”其实是人在交际过程中的一种自然行为。¹⁷

徐珍，曾衍桃(2020)认为，以反讽与语用预设的关系为线索去理解反讽有助于读者更顺利地推理出说话者的隐含意义。¹⁸

¹³ 语义学研究反讽的主要特点是不考虑交际环境、交际主体等主、客观因素，着重分析孤立语句的语义结构特征，主要代表是Myers Roy(1977)以及一些言语行为理论者。

¹⁴ 从语用学角度研究反语开始于语言哲学家Grice.

¹⁵ 以Lakoff & Johnson为代表的心理语言学派，他们主张反讽的理解要依循一个“心理检索”过程，需要经过一个从字面意义到反讽意义的跨越，是一个两阶段过程，这个假设意味着理解反讽与理解非反讽所花时间有差异。

¹⁶ 1967年，Grice于哈佛大学的William James讲座作了三次演讲。第二讲《逻辑与会话》(Logic and Conversation)中提出了“合作原则(cooperative principle)”理论。

¹⁷ 他认为，修辞转义不是对语言常规的超越，反讽、隐喻等修辞手段在交际中得以运用决非出自修辞技巧的考虑，而是人的一种基本心态表现，是一种自然流露，是自发行为，而不是自觉行为。

¹⁸ 作者认为反讽字面意义与语境的对立性是反讽存在的前提，语境暗含的假设或前提正是语用预设，因此语用预设是影响反讽理解的潜在因素。

1.2.3 认知语言学对“反语”的研究

反语不仅是一个简单的语用修辞现象。对反语的识别和使用以及理解是极其复杂的心理认知过程。以上所列传统语言学和现代语言学研究都不能揭示反语的意义建构动态过程，以往反语研究仅仅关注客观语境，未从说话人和听话人的主观角度考虑。在过去的研究中，反语往往对语境具有极强依附性，然而，这类反语研究太过于关注客观语境，忽视了语言具有人类思维方式的作用，没有对主观语境给予足够重视，语言是由人组织发出的，这种正话反说，用与本义相反的话语表达本义的特殊语言现象，应该从说话者主体的主观著手研究，本文拟从认知语法视角出发，基于反语认知的机制，试图对反语主观语境作全面解析，从反语产生机制说明如果达到“1+1>2”的效果。

曾衍桃(2006)从心理接受和认知角度去谈论言语中的反讽。他以认知语用理论为框架，探讨反讽理解的认知规律和认知过程，揭示了反讽认知语用特征。¹⁹

目前许多心理学学者从心理学的角度比如左右脑损伤与反语认知加工机制、外伤性脑损伤与反语、神经发展异常与反语研究等角度去剖析反语的生成机制，本文所提及的反语是“有意为之”，即就是在发话、说话双方都理解的情况之下，并且话语机制无受损的情况下，故意正话反说、反话正说从而达到特定的交际效果的反语。崔静、江桂英(2021)发现反讽研究主要聚焦在三个范畴：反讽的本质、反讽的认知过程、反讽的社会功能，并从语言、认知、社会三位一体的角度研究了反讽。²⁰

1.3 反语研究的必要性

反语在现代叙事理论中占据著重要地位，在叙述事件方面、塑造人物形象过程中、表达作者情感态度等，所表现出的含蓄生动、幽默、深刻的特点和优势，是其他语言形式无法替代的，这一特点是反语频繁在中外作家作品中登场的原因。在日常对话中，反语能更加真实地表达说话人的真切感情。

传统语言学和对反语的研究可谓硕果累累，尤其在鉴赏古今中外文学作品的时候，能够与作者产生共鸣，能够穿越时空与作者“共享”创作时的情感和思绪，尤其是欣赏几百、几千年前的文学创作时，传统语言学的思路为现代读者提供了一条通往作者时代的“桥梁”，能够使得读者“设身处地”地体会和感受作者的创作环境，更能深刻地了解作者创作时的无奈与矛盾之情。

¹⁹ 作者主要从心理接受和认知角度谈论言语中的反讽。他认为反讽是发送者的假设和接受者假设的过程，涉及接受、假设、预期、比较等一系列内省机制，并且对“回声理论(echo)”的不足之处作出了补充。他认为语言本身、语境、环境、说话者与听话者的关系、说话者的态度、语气、听话者的预期等等，都是影响反讽效果的因素。他也提出了有的反讽效果更强烈，而有的反讽效果则不如预期。关于反讽的负面效果，他认为有时会导向语义的模糊性，因为一种反讽会带来不同的理解。

²⁰ 作者文中认为反讽理解是一个复杂的认知过程，使用反讽可达到激发情绪反应、影响话语积极程度的社会交流目的。

现代语言学对反语的研究具有承上启下的衔接作用，传统语言学认为反语尚属于修辞学概念，属于“美学”范畴，注重作者的感情和创作环境，而现代语言学阶段对反语的研究更加注重语言本身，超越了写作环境的影响，关注语言自身表述为何前茅后盾，试图跳出修辞学的框架，从语言内在入手试图解释正话反说、反话正说之法。但是传统语言学和现代语言学都忽视了人在言语行为中的重要作用，语言是由人发出的，为了达到一定交际目的而产生的言语活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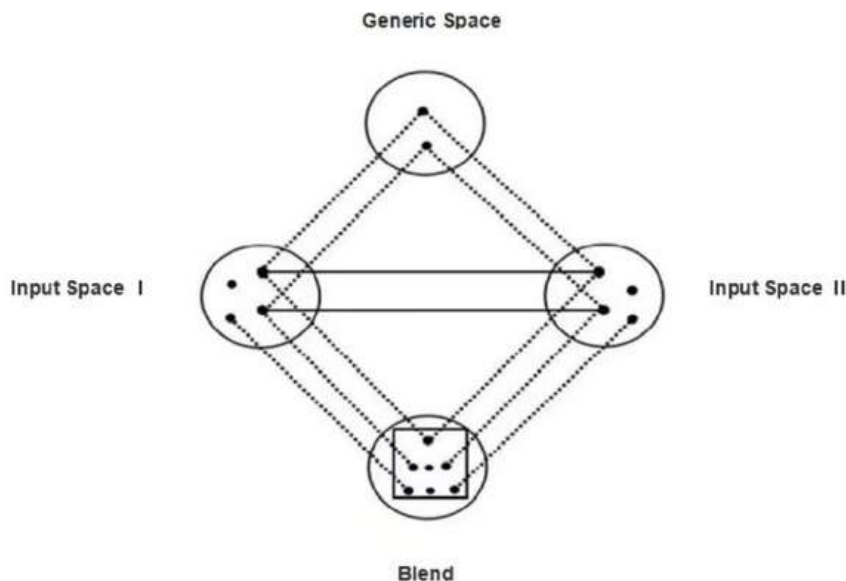
认知语言学的经验主义的哲学观和语言观认为，语言既是一种认知活动，又是以认知为基础的，而认知和语言不能脱离人的身体结构，不能脱离我们赖以生存的物质世界，更不能脱离人的认知能力和认知组织作用。大脑置于人的身体之中，认知和语言是大脑对人自身及周围环境认知的结果，是两者互动的产物，所以语言不是完全来自客观世界，不能完全独立于人，反语的形成受制多种因素，包括外在物质世界，人的生理和感知能力，认知能力，认知结构等，认知语言学认为反语不仅仅是一种语言现象、更是一种表征思维的方式，研究反语有助于客观分析人的言语认知结构，为其他语言现象提供参考。

2. 概念整合理论视角

2.1 概念整合理论

本文拟采取认知语言学的“概念整合理论”来对反语做出认知角度的解释。20世纪90年代，美国语言学家Fauconnier提出了心智空间(Mental Space)概念，并将其描述成“小概念包”，他认为要理解语言的意义，就要研究人们长期交谈或是听话时形成的认知域。后来这一理论经过不断完善、发展形成了概念整合网路(Conceptual Integration Network)，它指的是以框架为结构的心理空间，网路框架由说话人的背景知识所构建，概念整合是在一系列心智空间的网路连接和映射中进行的。概念整合网路是概念整合进行的场所，是概念整合理念的核心。Gilles Fauconnier和Mark Turner认为，一个完整的概念整合网路包括了四个概念空间：输入空间 I (Input Space I)、输入空间 II (Input Space II)、类属空间(Generic Space)、整合空间(Blending Space)。

〈图1〉 概念整合理论运作机制图



2.2 概念整合动态认知机制

概念整合理论的基本流程如下：第一，输入空间 I、II 编辑资讯通过跨空间映射 (cross-space mapping)，将两个输入空间有选择地映射进入整合空间，输入空间 I、II 中留下的概念要素 (如图一中未连线的实心黑点) 表示主体有选择地提取了资讯。第二，类属空间由两个输入空间所共用的结构构成，在类属空间里为来自两空间的相似特征，由两条黑色实线连接，表示可以使输入空间 I、II 的相关要素能够进行对应性映射。第三，被选择的要素通过内侧两条虚线映射进入整合空间，没有被选择的要素通过外侧单虚线映射进入整合空间。第四，整合空间将输入的资讯进行重组，整合空间中方框所示的层创结构 (emergent structure) 根据自身的背景知识框架对其进行文化的、认知的处理，最后根据自身逻辑对整合中的结构进行精细加工。输入空间的内容经过“构成层创结构”、“完善层创结构”、“精细层创结构”三个步骤之后产生层创结构，在层创结构中新的意义被生成，由此新的概念要素产生。整合空间表现为来自两个输入空间域的不同引起了对两个空间的相似特征的选择性思维，反映了一种动态的创造性认知活动。

概念整合理论作为认知语言学的重要组成部分，能够很好地揭示自然语言的意义建构过程。整合强调“整体大于部分之和”，能够产生“言外之意”。对反语现象具有强大的解释力，概念整合理论运作机制之所以能顺利进行，原因在于输入空间 I、II 处于共同的社会环境、处于相似的认知水准之上，换句话说要对反语作出正确认知，参与交际者双方共享背景知识是首要先决条件。

(2) a. 公司老板对员工说：“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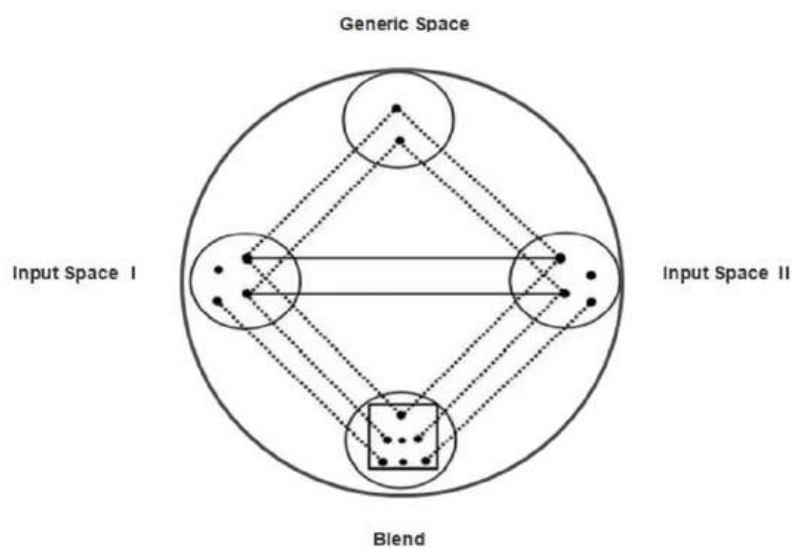
b. (男女朋友关系) 女孩对男孩说：“滚！”

(2a)中主体“公司老板”与“公司员工”存在明显的社会地位差异，有著不同的认知水准，这里的“滚”不是反语现象。(2b)中“女孩”与“男孩”属于同一社会关系等级，具有相似的认知水准，这里的“滚”是反语现象。

2.2 概念整合理论下对“反语”动态认知机制的探索

由于反语依赖于话语主体双方的认知水准，本文试图对概念整合理论进行补充，尝试在新的框架下对反语进行研究，揭示反语意义建构的过程。反语种类繁多，在日常生活中我们更多用到的是言语反语，且它能更好地反映出言语交际双方的心智活动，反映出话语与文化和社会环境的关系，本文只把言语反语作为研究的对象。

〈图2〉 概念整合理论运作机制图



由上图〈图2〉所示，大圆圈表示话语主体处于同一社会关系，双方共用言语背景知识，具有相似的认知结构，这里的社会关系和认知水准是具有弹性的衡量尺度，例如开篇《长恨歌》唐朝作者白居易，具有很高的文学素养，与现代社会明显具有跨时空的距离，也与一般人存在文学素养方面的鸿沟，虽然不在同一时代但后人能都能理解白居易的词，这是因为现代人与一千多年前的唐朝人的基础认知机制类似，虽然时代变迁，人的认知随著社会发展而丰富，但是认知的基础机制是自人类产生以来就具有的，并且不断地发展，这是一个不可逆的过程，换句话说我们可以理解一千多年前人的认知，但是一千多年前的人无法理解我们的认知，这一点可以参考各类穿越的影视作品、文学作品。另外，白居易创作作品也是为了给人看的，所以也选取了一定鉴赏阶层可以理解的语言。

概念整合不仅是认知语言学的重要理论之一，也是近年来交叉学科的热门研究对象，许多学者都利用概念整合理论对中外语言进行了分析。概念整合理论认为说话人考虑到特殊的语用效果而故意采取“正话反说、反话正说”之法，以达到更好的交际意图，说话人在组织语言时，将语言首先放到大脑中的心理语义网路中生成反语，然后把这个反语作为输出语言传递给听话者，听话者通过概念网路提取说话人的真正交际意图。在这个过程中心理语义网路、层创结构发挥作用。

(3) a. 小王长得可真好看呀，贼眉鼠眼的。

b. 她记忆力太厉害了，连 $1+1=2$ 都忘了。

(3a)中“小王”是说话人想要描述的对象，在这里作为输入空间 I，“贼眉鼠眼”是表达人相貌丑陋的形容词，这里作为输入空间 II，该句的类属空间来自两个输入空间的共有的轮廓性结构，比如来自输入空间 I 的“小王的容貌”，来自输入空间 II “贼眉鼠眼可以形容容貌”，当听话人听到这句话时，通过跨空间映射，听话人认知机制里“贼眉鼠眼”表示人相貌奇丑无比的语义得以启动，两个输入空间经过互相整合碰撞，将“贼眉鼠眼”里面表示人相貌丑陋的部分有选择地投射到层创结构，该层创结构整合出现了新的资讯，反应在在听话人的语义机制里就是“小王不好看”。这句反语更加生动地刻画了“小王”的容貌，暗含讽刺意味，这里听话者和说话者处于同一社会认知环境之下，即双方的文化认知里都对“贼”和“鼠”有负面的感情，并且都能理解“贼眉鼠眼”的真正含义。

(3b)中“她的记忆力”作为输入空间 I，“连 $1+1=2$ 都忘了”作为输入空间 II，该句的类属空间也来自两个输入空间的共有的轮廓性结构，比如来自输入空间 I 的“记忆力”，来自输入空间 II “ $1+1=2$ 都忘了是形容记忆力的”，当听话人听到这句话时，通过跨空间映射，听话人认知机制里“连 $1+1=2$ 都忘了”说明人记忆力很差的语义被启动，两个输入空间经过互相整合碰撞，将“连 $1+1=2$ 都忘了”里面表示人记忆力差的部分有选择地投射到层创结构，该层创结构整合出现了新的资讯，反应在在听话人的语义机制里就是“她记忆力太差了”。

(4) a. 她是绿茶。

b. 弟弟把花瓶打碎了，妈妈大骂道：“这下好了！”

(4a)句中“她”作为输入空间 I，“绿茶”作为输入空间 II，类属空间为这两者的共有的轮廓性结构，可以是“品性、特点”等，“绿茶”具有纯洁、干净、无公害、有益于健康的功效，也有表示人表面清纯，人畜无害，实际善于心机的语义特征，当听话人听到这句话时，通过跨空间映射，听话人认知机制里“绿茶”表示人善于心机的语义得以启动，两个输入空间经过互相整合碰撞，将“绿茶”里面表示人善于心机的部分有选择地投射到层创结构，该层创结构整合出现了新的资讯，反应在在

听话人的语义机制里就是“她善于心机”。该句的准确理解建立在说话听话双方都有类似的人之水准之上，比如双方都知道“绿茶”的另外一层含义。

(4b)句中人在现实心理空间中“打碎花瓶”是不被期望的事情，“打碎花瓶”作为输入空间Ⅰ，没有出现在句中的想像空间“花瓶没有被打碎”作为输入空间Ⅱ，现实心理空间与想像心理空间出现了矛盾，现实心理空间的输入空间Ⅰ和想像心理空间输入空间Ⅱ有选择地投射到整合空间，在人们的长期记忆中保存著“好”的特征，即当一件被期望的事情发生时，是“好”的。想像心理空间与“好”匹配，现实心理空间与“好”不匹配，经过组合这一认知过程在整合空间生成了新的意义与结构——打碎花瓶不好，这一结构是整合空间所特有，不存在于任何一个输入空间之中。在整合碰撞过程，层创机制出现了对立矛盾，根据层创结构的生成逻辑，在整合空间中进行运作时，否定了“好”的语义，随后，新生成的结构与人脑中关于“好”这一长期记忆的特征相匹配，得到进一步完善。最后，一个新的层创结构通过扩展这一认知过程形成。从这个层创结构可知，与这一语言运算式的字面意义相反，打碎花瓶一点也不好，形成了反语。这句话表达了说话者对“花瓶被打碎”的失望、挖苦感以及委婉的方式嘲讽。

认知语言学视角下的概念整合理论能从说话人、听话人的主观视角出发理解反语的产生、理解机制，能够帮助人们更好地理解反语现象，能帮助找到现实言语交际过程中各类反语生成的轨迹。

3. 隐喻视角

作为认知语言学最重要的理论之一，概念隐喻理论最早由Lakoff和Johnson提出，收纳在他们合著的《我们赖以生存的隐喻》（1980），该书的出版标志著认知隐喻理论的正式诞生，这一理论引发了认知语言学家针对隐喻的热烈讨论。Lakoff认为隐喻不仅适用于诗歌等文学作品，也适用于日常生活的表达。沈家煊认为，语言的主观性是人们在话语表达时所携带的自我表达成分。²¹

传统语言学认为，隐喻是一种修辞方式，或修辞格，俗称比喻，传统语言学还认为隐喻有异于日常使用的普通比喻，这是一种狭义的修辞观。Lakoff(1993)等人的研究突破了这传统的修辞观提出了“隐喻的认知观”系统阐述了这种认知语言学的隐喻观，认为隐喻是人思维的方式。

²¹ 参照沈家煊(2001:268)。

3.1 认知隐喻理论

经过认知语言学家们的努力，从上个世纪70年代后期开始，隐喻已经不再被看成做仅仅是单纯的修辞格。认知语言学家开始将隐喻看做人类认知活动和思维的工具，认为隐喻是语言、思维的建构手段，隐喻就是一种重要的认知模式，是新的语言意义产生的根源。

源于日常经验的认知体系构成了语言运用的心理基础，隐喻其实是运用已知事物对未知事物进行感知和了解的认知方式，是利用一种概念表达另一种概念，需要这两种概念之间的相互关联，这种关联是客观事物在人的认知领域里的联想。人类对世界的认识受到主观作用的干预，人使用语言也是受到了感知作用的影响，在隐喻结构中，两种通常看似毫无关联的事物被相提并论，是因为作为语言主体的人，将处于不同领域中的事物，关联在一起，并对他们产生了相似联想，因而利用两种事物感知的交融来解释、评价、表达他们对客观现实的真实感受和感情。物体的物理特征也显然起着一定的作用，但人认识事物的时候不仅仅是通过视觉，还通过各种感官的共同作用，这种共同作用的结果使人在日常经验中发现不同事物(包括具体与具体事物，具体与抽象事物)之间的相似之处。传统的关于隐喻的研究主要集中于文学和修辞学等研究领域，而现代隐喻研究方法已经深入语言研究的方方面面了。

3.2 常规隐喻与非常规隐喻

随著人的认知能力的不断发展，人的认知也不再局限于对事物物理和功能特性的认知，而是具有了创造性和联想性，这种创造性即从不同的事物中发现共同点。

- (5) a. 十个被鲜血浸泡的手指头肿得变成了大熊掌。(杨沫 青春之歌)
- b. 霎时间，东西长安街成了喧腾的大海。(袁鹰 十月长安街)
- c. 爱心是太阳，带来无限的温暖。

(5a)~(5c)都是隐喻用法，具体来说，(5a)句中人的手指头用“大熊掌”来表示，与前面的“肿”前后呼应，更加突出了“肿”的情况。(5b)句中用“大海”来描述“长安街”，大海在人的脑海中的意象是“喧嚣的”、“翻滚的”、“一浪接一浪”的，用“大海”的“喧腾”去描述“长安街”的状况，更加能体现长安街的热闹。(5c)句描述对象是“爱心”，但不直接说“爱心”，因为“爱心”是抽象的事物，用“太阳”的温暖域去说明“爱心”更加有表现力。

隐喻又分为常规隐喻和创新隐喻，常规隐喻分为结构隐喻、方位隐喻、实体隐喻；创新隐喻分为文学隐喻和科学语言的隐喻。(5a)~(5c)都属于常规隐喻，是用一个

认知域启动另一个相似的认知域，本文所要论述的反语现象属于创新隐喻。如果用A表示所要描述的认知域，B表示已知的认知域，那么常规隐喻可以表示为：

A是B (A=B)

例如：

(6) a. Time is money.

b. 理想是光，照亮黑暗的街。

c. 通货膨胀把我们逼入死角。

d. 父母的爱高高在上。

e. 她是夜明珠，暗夜里，放射出灿烂的光芒。

(6a) ~ (6e) 都是正面说明，都属于“A是B”范围。

创新隐喻中文学隐喻占了很大一部分，一方面来自于文学家的个人灵感和创新，另一方面来自于文学表达的需要。反语也是一种创新隐喻，认知主体选用两个在某些方面有联系的认知域来完成自己的表达。创新隐喻中的反语语义可以表示为：

A是-B (A=-B)

主体想描述A但是并不是直接说A，而是运用-B(非B)手法来表述，例如：

(7) a. 都早上十一点了，你可真勤快，一直贴著床。

b. 你可是跟比尔盖茨比富啊，买这么多东西。

c. 我的奶奶很傻，傻得总把最好吃的留给我，自己吃剩下的。

d. 这么简单的道理你都不明白，太聪明了。

e. 没有时间观念，真是一件好事啊！

(7a) ~ (7e) 都是反面说明，都属于“A是-B”范围。展开来说，(7a)中“早上十一点”还“贴著床”意味著“很懒”，但说话主体为了加强表达效果，没有直接说“懒”，而是说了“勤快”，留给听话人想像空间，表达了一种无奈、挖苦之情。(7b)

句中，“比尔盖茨”是世界首富，说话主体认为，依照听话人的消费水准来看，“买的东西太多了”，但没有直接说，而是用“世界首富”的认知域来挖苦听话人。(7c)句中“奶奶”把“最好吃的留给我”，本来是好的，但是主体却说“奶奶很傻”，这也是反语的运用。(7d)中“简单的道理都不懂”应该是“愚蠢”的，但是说话人主体却说了“聪明”，体现了主体的嘲笑、讽刺意。(7e)中“没有时间观念”本来是不好的，说话主体选择了“好事”，并非在夸奖，而是在讽刺。

由以上几例可以看出，反语一般否含有讽刺、挖苦、嘲笑的感情色彩。反语的产生也有其背后社会文化因素，和个人性格因素。在交流中有时确实需要委婉、含蓄的表达。例句中挖苦、讽刺对方没有直接说，而是运用反语的手法，表达上更加的生动和委婉。

有的反语已经固定在人的辞汇领域了，比如说“绿茶”，究其原因，现在是网路飞速发展的时代，网路的主力军也越来越趋向于低龄化，网路用语一经流行便像一阵狂风在年轻网路用户中席卷开来，由于使用量多多，就会稳定下来拥有固定的语义内涵。

3.3 反语的输出和识别过程

言语行为的目的是为了交换资讯，人们在交流中、在阅读文学作品的时候通过“输出”、“输入”这样的机制获取新资讯，认知语言学认为抽象思维不是抽象语言符号之间的关系运算，而是有形的、以图式为基础的认知活动。

〈图3〉反语输出过程



〈图4〉反语识别过程



在言语活动中，对于说话人而言首先客观现象在大脑中形成图式，说话人根据自己的思维认知、辅以概念整合或者隐喻的认知模式，将客观现象输出为反语，听话人在接收到反语资讯之后也根据自己的思维认知、辅以概念整合或者隐喻的认知模式，提取反语的真正内涵，书面文字资讯输出、输入亦然。

4. 结语

本文从认知语言学出发，尝试对反语现象做出一些合理的解释。

第一，本文通过梳理了传统语言学、现代语言学以及认知语言学派对于反语的研究，并认为传统语言学从修辞角度着手理解反语有助于与说话人或作者产生共鸣，能更好地理解作者当时的感情和思绪。现代语言学对反语的研究具有承上启下的重要衔接作用，与传统语言学派相比，这一派别更加注重反语这种语言现象本身。认知语言学派基于认知和客观现实的关系，提出言语行为是由大脑的认知活动参与的，语言与认知具有密切的关系，并且通过认知语言学的概念整合理论能更好地分析反语的形成和正确提取机制，认知语言学派认为反语已经成为一种认知机制。

第二，本文通过认知语言学概念整合理论，着手对几大类型的反语生成和正确提取的动态机制做出了合理解释。

第三，本文试图对概念整合理论进行了完善和补充，即为了达成有效的反语输出和接收，交际双方需要具有类似的认知水准，处于相似的社会关系等级层面，并且共用言语背景知识是前提，否则是无效传播。

第四，从隐喻角度出发，解释了反语的语义是“A是-B”，一般情况下表达主体的讽刺、挖苦、嘲笑之意，并说明了产生这种现象的原因是为了表达更加生动和委婉。

参考文献

〈单行本〉

김현철·김시연, 《중국어학의 이해》, 서울: 学古房, 2011.

曾衍桃, 《反讽论》,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6.

李建军, 《小说修辞研究》,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3.

倪宝元, 《大学修辞》,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4.

吴士文, 《修辞讲话》, 兰州: 甘肃人民出版社, 1982.

赵毅衡, 《新批评——一种独特的形式主义文论》,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86.

_____, 《“新批评”文集》,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88.

Fauconnier, Gills, Mental Spaces: Aspects of Meaning Construction in Natural Langua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85.

Fauconnier, Gills and Mark Turner, The Way We Think: Conceptual Blending and the Mind's Hidden Complexities, New York: Basic Books, 2002.

Grice, H.P., Syntax and Semantics,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1975.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Myers Roy, Alice, Toward a definition of irony. In R. W Fasold and Roger W. S huy(eds) . Studies in Language Variation,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77.

<论文>

曹道根,「理解反语:反语交际、反语生成和反语的理解」,《山东外语教学》(2), 9-13, 2004.

曾衍桃,「国外反讽研究综观」,《西安外国语学院学报》(3), 3-5, 2004.

_____,「关联理论与修辞转义现象」,《江西财经大学学报》(4), 80-83, 2004.

_____,「40年反讽研究」,《学术研究》(10), 139-142, 2005.

崔静·江桂英,「国外反讽研究的现状、趋势和展望」,《现代外语》(2), 284-293, 2021.

高云红,「英语修辞格的语用分析」,《山东外语教学》(2), 36-37, 1999.

李建军,「论小说中的反讽修辞」,《中国人民大学学报》(5), 06-111, 2001.

刘正光,「反语理论综述」,《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4), 16-20, 2002.

刘瑜,「反语的语用修辞学解读」,《外国语文》(1), 50-53, 2013.

沈家煊,「语言的“主观性”和“主观化”」,《外语教学与研究》(4), 268-275, 2001.

孙微·张学芬,「杜甫《唐兴客馆记》中的反语艺术及其渊源」,《中国文学研究》(3), 67-69, 2021.

涂靖,「论反语的本质属性」,《外语教学》(6), 28-31, 2004.

王寅,「概念整合理论的修补与翻译的体认过程研究」,《外语教学与研究》(5), 749-760, 2020.

徐珍·曾衍桃,「反讽与语用预设关系探究」,《海外英语》(2), 235-237, 2020.

徐泽方,「“NP+好+V”的语义指向和动词限制考察」,《中国学》,第84辑, 63-68, 2023.

杨小利,「反语的理论及语用功能探析」,《文学语言学研究》(4), 48-49, 2011.

<其他资料>

BCC(北语汉语语料库)语料库检索系统: <http://bcc.blcu.edu.cn>

CCL(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中心)语料库检索系统: <http://ccl.pku.edu.cn>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2부

18. 중국어학(7)

위당관 210호

중국어 담화 · 화용 · AI 연구:
디지털 시대의 공생과 확장

생성형 AI를 활용한 중국 도시 탐색 기반 중국 문화 교육

-학습자 전공 연계를 중심으로-

이서이*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GATe 프레임 워크 기반의 중국 문화 수업 설계
 3. AI 기반 학습자 전공 연계 중국 도시 탐색
 4.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생성형 AI 기반 교수·학습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중국 도시 탐색 기반 중국 문화 교육을 위한 수업을 설계 및 실행하고, 학습자 맞춤형 AI 기반 중국 문화 교육방안과 효과를 분석하여 AI 기반 중국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안을 목표로 한다.

1. 서론

생성 AI를 활용한 AI 융합 교육 연구는 지난 2022년 오픈 AI가 ChatGPT를 출시한 이래로 중국어 교육을 포함한 전 교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약 20건의 국내 선행연구를 분석하면 생성 AI 활용 번역 연구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휘와 문법 활용 연구가 4건, 회화와 문화 교육 활용이 각 1건, 기타 교수 자료 제작 지원 및 연구 동향 분석 연구 등이 있다.

대표 연구를 살펴보면 이아형(2023)은 과학 기술 관련 주제의 한중 번역에서 ChatGPT를 활용한 번역 수업 방안을 고찰하였다.¹⁾ 연구 결과, ChatGPT를 활용했을 때 인간 번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약 70%였으며 ‘프리 에디팅, 포스트 에디팅, 최종 윤문’ 3개 단계를 거쳐 최종 번역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당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생성 AI를 활용한 중국 문화 교육에서도 AI가 도출한 결괏값에 대한 비판적인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 AI를 실제 수업에서 활용했을 때 이러한 비판적인 탐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루고자 한다.

ChatGPT 외에 YANG LIU·강병규(2024)는 중국의 대표적인 생성형 AI인 Ernie bot(文心一言)을 활용한 HSK 독해 능력 고찰하였다.²⁾ 선행연구는 Ernie bot의 학습 데이터가 중국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중국어의 특성 및

*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강사

1) 이아형(2023), 「챗 GPT의 번역 수업 활용 방안 고찰 — 한중과학기술번역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85, pp.153-176.

2) YANG LIU·강병규(2024), 「중국의 생성형 AI의 HSK 독해 능력 고찰 — ERNIE Bot4.0(文心一言)을 중심으로 —」, 『중국어교육과 연구』, 44, pp.357-392.

문화적 맥락을 ChatGPT 등등의 생성형 AI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선행연구는 중국 생성형 AI의 성능을 중국어 독해 능력, 그 중에서도 HSK 4-6급 수준의 독해 파트를 어휘, 문법, 문장의 논리적 연결, 담화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Ernie bot은 어휘 영역 평균 98.4%, 문법 영역 평균 80%, 문장 연결 영역 평균 87.5%, 담화 영역 평균 99.2%, 독해 영역 평균 약 91%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계점으로 인지적 상식, 문제 풀이 과정과 오답 분석에 대한 과정 해설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형 생성 AI를 활용한 결괏값을 살펴봄과 동시에 기존 선행연구에서 조금 더 나아가 학습자가 수업에 직접 적용했을 때의 측면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실제 수업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이은민(2025)은 중국어 회화 수업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 학습 및 맞춤형 피드백 전략을 제안하였다.³⁾ 선행연구는 중국어 회화 전용 GPTs를 구축하고 음성 대화 기능, 발음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앞서 두 선행연구가 생성 AI 기반 중국어 교육 활용 방안을 제안한 것에서 나아가 실제 수업 적용이 이루어진 선행연구였다. 그러나 학습자 입장의 AI 활용 중국어 학습 효과나 피드백 등 수업 환류에 관한 부분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점을 일부 해소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 수업의 대상은 H 대학 교양 기초 중국어 학습자이며, 연구 목표는 학습자가 AI를 활용하여 중국의 주요 도시인 4대 직할시, 2개 특별행정구역, 5개 소수민족 자치구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 목표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AI 기반 중국 문화 수업 기획에서 교수자가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둘째, AI 기반 중국 문화 수업을 실제 실행했을 때, 수업 설계 단계에서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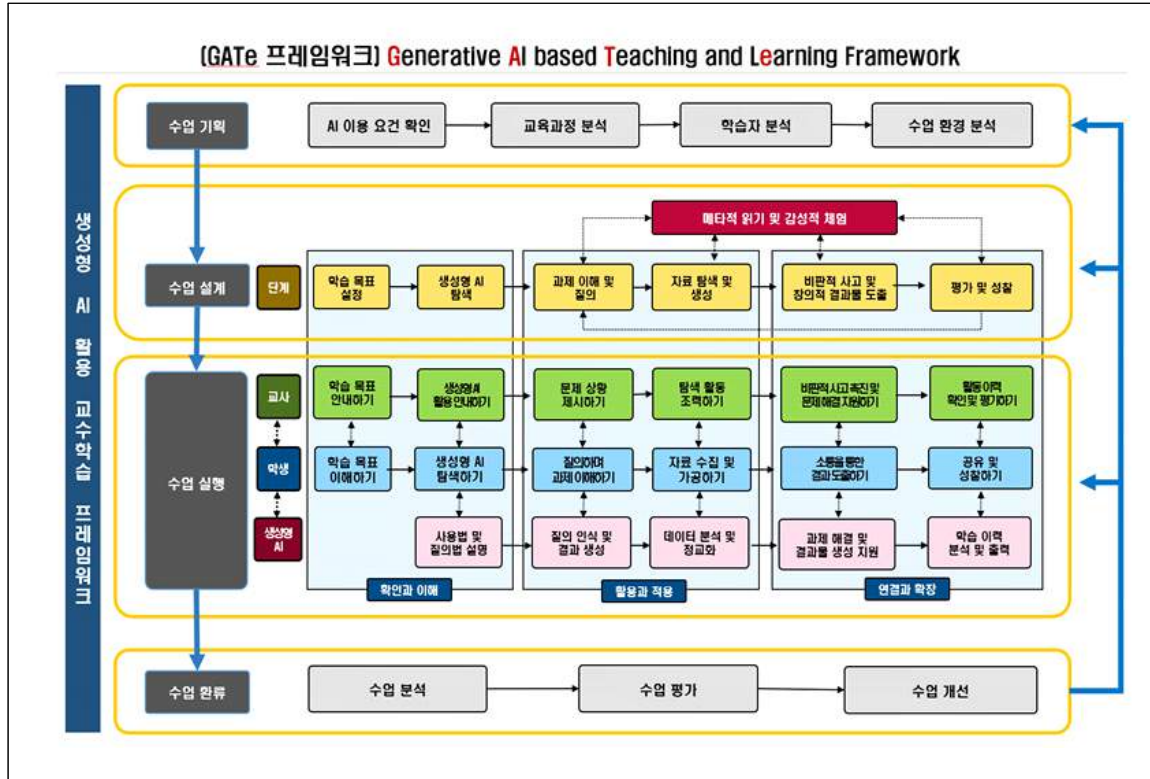
셋째, AI 기반 중국 문화 수업과 기존 문화 수업을 비교했을 때, AI 기반 수업의 장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2장에서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개발한 GATe 교수-학습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수업을 기획 및 설계한다. 이어 3장에서 AI 기반 중국 주요 도시 탐색 수업 실행 내용을 학습자 입장에서 살펴본다. 끝으로 제4장 결론에서 AI 기반 수업 시행 후 수업 분석, 평가, 환류를 통해 기존 프레임워크의 개선점과 AI 기반 중국 문화 수업의 학습 효과를 분석한다.

2. GATe 프레임 워크 기반의 중국 문화 수업 설계

한국 교육학술정보원(KERIS)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수학습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2024)」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수학습 운영 가이드(2024)」를 차례로 발표하였다. KERIS는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늘어가는 생성형 AI의 활용으로 이를 기반한 체계적인 교수-학습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래 ‘GATe 프레임워크(Generative AI based Teaching and Learning Framework)’를 개발하였다.

3) 이은민(2025), 「GPTs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심 중국어 회화 수업 방안 탐색 - 자기주도학습과 맞춤형 피드백 전략」, 『중국어』, 90, pp.1-20.



(그림 1)

선행연구를 비롯하여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체계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개인 연구자 차원에서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GATe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중국 주요 도시 탐색 기반 문화 수업 설계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수업 설계에 앞서 GATe 프레임워크는 ‘AI 이용 요건 확인, 교육과정 분석, 학습자 분석, 수업 환경 분석’ 4개의 수업 기획 단계를 거칠 것을 제안한다. 이를 본 연구 수업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수업 기획	AI 이용 요건 확인	교육과정 분석	학습자 분석	수업 환경 분석
적용 사항	•생성 AI 서비스의 이용 요건: ‘DeepSeek’ 계정 생성 시 국내 사용자 이메일 인증 사용 가능 •수업 적용 가능성: DeepSeek는 한국어를 지원하므로 초급 중국어 학습자 사용 가능 •사용자 및 보호자 동의 여부: 연령 제한이 있으나 수강생이 18세 이상 성인임으로 사용	•생성형 AI를 적용했을 때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내용요소: 교양대학 ‘중국어1’ 교재의 ‘발음, 단어, 본문, 어법, 문화’ 중 ‘문화’ 선택 •성취기준: 중국인의 생활, 관습,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주제: 중국의 4대 직할시, 2개 특별행정구, 5개	•학습자의 선행 지식:초급 중국어 학습자 대상 •학습 선호도: 체육대학교 학습자의 특성상 실습과 체험 중심의 실천적 학습을 선호 •발달·심리적 특성: 청년기 단계에 있는 학습자로 자아정체성 확립, 사회적 관계 형성, 글로벌 문화 수용성 확장 •관심사: 스포츠와 건강, 진로, 글로벌	•디지털 기기 사양: 수강생 전원 개인 PC 지급 및 개인용 태블릿 PC 사용 가능 •인터넷 접속 환경: 교내 인터넷 사용 가능 •교재와 보조자료: 교재는 다락원 출판사의 『신공략 중국어1(최신개정)』을 사용하며 교수자 자체 자료 활용

	가능	소수민족자치구 탐색을 통해 이해하는 중국어와 중국인	문화 교류 •학습자에 미치는 영향: 중국 생성 AI라는 새로운 환경을 접해봄과 동시에 학습자의 언어, 문화, 디지털 리터러시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	

이상 수업 기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본격적으로 6단계의 수업 설계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목표 설정의 단계이다. 본 연구 수업의 본체는 ‘중국어1’ 교양과목으로 중국어의 발음, 기초어휘와 문형을 학습하는 것과 함께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학습자가 국제적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수업의 세부목표는 ‘**학습자가 AI 도구를 활용하여 중국의 도시, 문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학습자 전공과 연계하여 개인 맞춤형 글로벌 역량 함양**’을 실행하는 것이다.

둘째, 생성 AI 탐색의 단계이다. 본 단계는 위의 학습 목표에 근거하여 본 수업에서 생성 AI를 활용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교수자가 수업에 앞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성 AI의 특징, 프롬프트 질문 입력과 결과 확인, 인공지능 윤리 등을 수행해보는 단계이다. 본 연구자는 이 단계에서 ‘DeepSeek와 ChatGPT’를 비교하며 중국의 4대 직할시 ‘北京、上海、天津、重庆’, 2개 특별행정구 ‘香港、澳门’, 5개 소수민족자치구 ‘内蒙古自治区、广西壮族自治区、宁夏回族自治区、新疆维吾尔自治区、西藏自治区’의 주요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 어떠한 항목을 질의할지 탐색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전공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는 활동을 구상하였다. 또한, 제공된 결과값 가운데 수업 활용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만한 것이 없는지 검토하였다.

셋째, 과제 이해 및 질의의 단계이다. 본 단계는 수업의 주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중심 내용, 활동을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성 AI 프롬프트 질문을 작성하여 과제를 해결한다.⁴⁾ 해당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수행한 생성 AI 탐색 내용을 분석 및 정리하여 ‘과제명: 내맘대로 (베이징/상하이/텐진/충칭/홍콩, 마카오/네이멍구, 광시, 닝샤, 신장웨이우얼, 시짱 자치구/ 타이완 타이베이) 여행 일정표 짜기’를 설정하였다. 해당 과제의 세부 수행 문제로는 ‘선정 도시의 기본정보, 주요 명소, 음식, 기념품, 해당 도시에서 내 전공과 관련된 체험 활동 1가지’로 제시하여 해당 키워드를 포함하여 프롬프트를 작성하도록 계획하였다.

넷째, 자료 탐색 및 생성의 단계이다. 본 단계에서는 교수자가 사전에 마련한 질문, AI 답변 자료를 탐색하며 관련 자료와 결과를 생성한다. 교수자가 사전에 마련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⁵⁾

〈표2〉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AI를 활용하여 답변하세요.
 -‘나의 선정 도시’에 관한 기본정보 탐색
 -‘나의 선정 도시’ 주요 명소 탐색
 -‘나의 선정 도시’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
 -‘나의 선정 도시’에서 구매해야 하는 기념품
 -‘나의 선정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내 전공과 관련된 체험 활동 1가지
 -위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여행 테마를 설정해 여행 계획을 완성하세요.

4) 예시 프롬프트는 3장 수업 실행 단계에서 제시하였음.

5) 자료 생성 결과값에 관한 내용은 원고 분량 제한 상 생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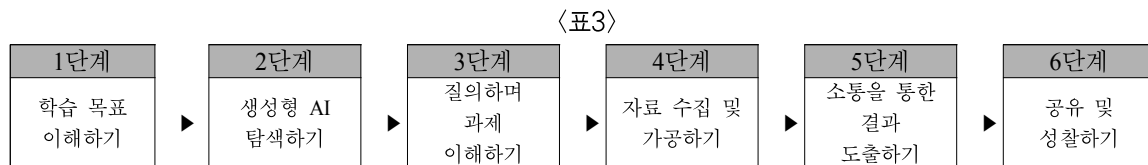
다섯째, 비판적 사고 및 창의적 결과 도출의 단계이다. 본 단계는 결과물을 사실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비판적인 사고로 자료를 분석하고 재가공하여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해당 활동을 위해 실제 수업에서는 중국의 주요 도시별로 발표자를 5명 정도씩 분배하여 서로 발표 내용을 발표하고, 해당 도시에 관한 학습 정보, 그리고 전공별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여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다.

여섯째, 평가 및 성찰의 단계이다. 본 단계는 학습 주제의 탐구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학습자가 감성적 체험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로 앞서 제출한 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때, 평가지를 준비하여 학습자가 발표자의 중국 주요 도시 학습 내용에 집중하는 한편, 과제에 대하여 다양한 피드백을 받도록 한다. 피드백 결과는 교수자가 정리하여 차주에 발표자들에게 전달한다.

이상으로 GATe 프레임워크의 수업 기획과 설계를 기반으로 AI 기반 중국 주요 도시 탐색 문화 수업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다음 장에서는 현장에서 수업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학습자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분석한다.

3. AI 기반 학습자 전공 연계 중국 도시 탐색

GATe 프레임워크에서 수업 실행은 수업 설계의 6단계를 기반으로 ‘교사, 학생, 생성형 AI’의 관점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실제 수업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학습자 관점의 수업 실행 6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목표 이해하기이다. 본 수업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중국 주요 도시 탐색에 관한 과제를 설명하고 제시했을 때, 초기에 학습자는 ‘**학습자가 AI 도구를 활용하여 중국의 도시, 문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학습자 전공과 연계하여 개인 맞춤형 글로벌 역량 함양**’이라는 학습 목표를 이해함과 동시에 과제 수행 내용, 과제 평가 요소, 제출 일정 등에 관해서도 추가로 질의하며 학습 목표 뿐만 아니라 과제 수행의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 상세히 질의하였다.

둘째, 생성형 AI 탐색하기이다. 본 단계에서 교수자는 중국 생성 AI DeepSeek의 가입부터 활용 방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사전에 준비하고 수업 시간에 단계별로 안내하였는데, 실제 학습자들은 순서대로 교수자를 따라 오기보다는 이미 생성형 AI 사용에 익숙한 학습자가 교수자의 진도보다 빠르게 AI 플랫폼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당시 한 교실에서 3-40명의 학습자가 동시에 DeepSeek에 접속하였을 때, 학생들 가운데 트래픽 문제로 생성 AI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학생들에 한해 수어 시간 내 다른 생성형 AI 사용을 허용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 교실 외 집, 도서관, 카페 등 다른 학습 환경에서 DeepSeek에 접근해야 했다.

셋째, 질의하며 과제 이해하기이다. 학습자들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중국의 생성형 AI인 DeepSeek를 거부감 없이 접근하고 탐색하였는데, 교수자가 예측한 것과 반대로 오히려 앞서 <표 2>에서 제시한 과제의 답안을 어떻게 도출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자유로운 양식에 대한 어색함으로 과제 양식을 정하고, 구체적인 분량을 요구하며, 프롬프트 작성 시 어떠한 질문을 입력할지 모르겠다. 등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에 교수자는 학습자의 과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 예제가 들어간 과제 양식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AI를 활용하여 답변하세요.

- '나의 선정 도시'에 관한 기본 정보 탐색
(프롬프트 작성 예시: 중국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에 대해 알려줘, 타이완 타이베이(台灣台北) 도시 기본 정보 등등)
 -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 질문:
 - AI의 답변:
- '나의 선정 도시'의 주요 명소 탐색
(프롬프트 작성 예시: 베이징(北京)의 주요 명소를 추천해줘, 상하이(上海) 여행 중 꼭 방문해야 하는 유명 관광지 등등)
 -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 질문:
 - AI의 답변:
- '나의 선정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내 전공과 관련된 체험 활동 1가지 검색하기
(프롬프트 작성 예시: 나는 '공연예술학과' 학생이야. 내가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나 예술 체험이 있으면 추천해줘, 나는 '운동건강관리학과' 학생이야. 내가 상하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생활 체육이 있을까? 등등)
 -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 질문:
 - AI의 답변:

(그림 2)

넷째, 자료 수집 및 가공하기이다. 학습자는 앞서 교수자가 추가로 제시한 과제 양식에 따라 AI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정 도시에 대한 기본정보, 주요 명소, 음식, 기념품, 전공 관련 체험 활동, 이를 포함한 테마 여행 일정표'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이 가운데 학습자의 전공 연계 활동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답안을 살펴보면 DeepSeek는 학습자의 전공을 고려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제안하였는데 결핍있는 학습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구체적인 취미와 관심사가 포함될수록 전공에 가까운 창의적인 답안을 제시하였다.

〈표4〉

학습자의 전공	전공과 관련된 체험(도시)
사회체육학과	·世紀公園 등 아침마다 상하이 공원 방문, 상하이 마라톤 참여, F1 중국 그랑프리 상하이 서킷 방문, 프로 농구 및 축구 리그 관람(상하이)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중국 청소년 문화 생활 체험을 위해 장강에서 자전거 타기, 해방비(解放碑) 게임센터 방문 등(충칭)
특수체육교육과	·텐진시 청년봉사협회(天津青年志願者協會) 웹사이트에서 장애인 관련 봉사 모집 확인 후 현장 봉사가능 문의(텐진)
스포츠산업학과	·사이쿵(西貢) 카약/스탠딩 패들보드에서 수상 레저 체험, 마카오 타워 번지점프 (AJ Hackett) 체험(홍콩, 마카오)
운동건강관리학과	·南山 또는 歌乐山에서 등반하기, 朝天門에서 시작하는 양쯔강 트레킹, 충칭 프로 축구팀 重慶力帆 경기 관람하기(충칭)
노인체육복지학과	·호텔이나 리조트에 있는 실버 요가, 수중 운동 프로그램 체험하기, 공원에서 아침 태극권, 단체 운동 관찰하기, 지역 대학 관련 학과 견학(홍콩, 마카오)
태권도학과	·몽골족 전통 격투기 "부흐(Bökh)" 체험, 나담 축제 참가, 후허하오터의 전통 무술 도장 방문하기(네이멍구) ·티베트 전통 무술 'Lhamo' 프로그램 참여하기, 라싸 시내 체육관 방문하기(티베트)
공연예술학과	·중정기념당 인근 국립 중산 문화센터에서 공연 관람 및 타이베이 101 근처의 유명 댄스 스튜디오(TBC)에서 힙합/스트릿 댄스 클래스 수강(타이베이)

다섯째, 소통을 통한 결과 도출하기이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중간고사 이후 선정 도시가 같은 학습자끼리 해당 도시 정보와 전공 연계 체험 활동이 포함된 맞춤형 도시 여행 계획을 함께 수강하는 구성원들 앞에서 발표하였다. 이때 교수자는 과제물을 미리 숙지하고 학습자의 발표 내용에 대해 해당 도시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정보와 특징을 짚어주고, 자료에서 중국어로 표기되어 조금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하였다.

여섯째, 공유 및 성찰하기이다. 이 단계는 학습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성찰하는 단계로 교수자가 사전에 나눠준 평가지를 바탕으로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듣고 구성원들 간에 동료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또한, 발표자 가운데 가장 창의적인 전공 연계 체험 활동을 포함한 도시 여행 계획을 제시한 사람의 이름을 적도록 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발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AI 기반 중국 문화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강의 평가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수업 평가에 대한 부분을 다음 결론에서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4. 결론

본 AI 기반 중국 주요 도시 탐색 기반 문화 수업 실행 결과,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히 결론 맺고자 한다.

첫째, AI 기반 중국 문화 수업 기획에서 교수자가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먼저, 교수자는 기획 단계에서 학습자의 처지에서 수업을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기반 수업의 경우, 환경적인 측면이 보다 면밀히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수업에서 DeepSeek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의 대처 방안, DeepSeek 접근이 어려운 학습자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어떠한 추가 조치를 할 것인지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학습자는 자유 형식보다 어느 정도 구조화된 틀이 있을 때 생성형 AI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끝으로, 프롬프트 작성 시 반드시 예시문 또는 방향성이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습자는 교수자가 의도한 학습 목표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둘째, AI 기반 중국 문화 수업을 실제 실행했을 때, 수업 설계 단계에서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먼저, 수업 실행의 첫 번째 단계에서 학습자는 ‘학습 목표에 대한 이해’보다도 ‘AI 기반 과제에 대한 이해’를 더욱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인 ‘생성형 AI 탐색하기’와 세 번째 단계인 ‘질의하며 과제 이해하기’는 사용할 AI 플랫폼과 과제의 틀이 대부분 정해져 있으므로 구분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진다. 끝으로 다섯 번째 소통을 통한 결과 도출과 여섯 번째 단계인 공유 및 성찰하기의 경계가 모호하다. 학습자가 AI 기반 자료를 생성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미 자료의 공유와 성찰이 함께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공유 및 성찰보다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의 단계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AI 기반 중국 문화 수업과 기존 문화 수업을 비교했을 때, AI 기반 수업의 장점은 무엇인가? 먼저, 해당 수업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기존 수업에서는 수강생의 관심사와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학습자가 입력한 AI 프롬프트의 내용과 결핍의 내용을 통해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중국어와 사회에 관한 지식이 확장되었다. 본 수업에서는 교과서 안의 지식을 넘어 AI를 활용하여 자신의 전공과 연계된 중국의 단체, 협회, 대학 등을 접하고 이해함으로써 향후 학습자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중국과 교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학습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AI 기반 중국 문화 수업을 진행한 후, 본 연구자는 그 학습 효과를 확인하고자 기말고사 항목 가운데 중국 주요 도시 문화에 관한 문제를 출제 후 학습자의 정답률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4대 직할시 관련 문항의 정답률은 약 97%, 도시의 특징 75%, 음식 61%, 명소 50%, 소수민족자치구 관련 문항의 정답률이 44%에 도달하며, 기존의 교수자 강의 중심 내용 관련 출제 항목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상 본 연구가 AI 기반 중국 문화 교육, 특히 학습자 개인 맞춤형 교육이라는 AI 시대 중국어 교육 목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생략

基於CiteSpace的韓國中文測試研究

可視化分析

——以1995-2025年為中心

鄭晴 • 劉柳*

<目 次>

【摘要】

1. 引言
 2. 基於CiteSpace研究設計
 3. 基於CiteSpace的可視化分析
 - 3.1 發文量可視化分析
 - 3.2 發文作者可視化分析
 - 3.3 研究關鍵詞可視化分析
 - 3.4 研究熱點可視化分析
 4. 結語
- 參考文獻

【摘要】

本文基於CNKI資料庫中1990年至2025年間收錄的115篇有關韓國中文測試的研究文獻，運用CiteSpace 6.3 R1軟體進行可視化計量分析，從發文量、作者分布、研究關鍵詞與研究熱點四個維度，系統梳理該領域的研究脈絡與發展現狀。研究結果顯示，韓國中文測試相關研究整體發文量有限，呈現階段性波動的發展特徵；研究者之間的合作網絡較為鬆散，尚未形成穩定且持續的學術團隊，學術資源整合程度有待提升；關鍵詞聚類結果顯示，研究重點主要集中於標準化考試、詞匯教學、學習者特徵以及高考漢語等議題，反映出測試與教學之間的緊密互動關係；關鍵詞突現與研究熱點分析進一步表明，韓國中文測試研究正由宏觀的標準化考試導向，逐步轉向微觀的本土化測試與能力導向測評，整體研究趨勢已由引入階段邁向深化階段。

* 延世大學中文系博士生(第一著者) • 延世大學中文系講師(交信著者)

1. 引言

語言測試作為一門獨立的學科，不僅是語言教學的重要環節，更是國際中文教育基礎研究領域的一個重要組成部分。語言測試的發展，有助於推動國際中文研究向科學化與標準化方向邁進。

近年來，隨著語言測試需求的增長，該研究領域同時也面臨諸多挑戰。中文測試的研究不僅因考試需求的增長而日益重要，更主要的是其作為學科建設、教育教學中重要的導向，其自身發展尚存在不足。另外，吳應輝等(2021:1)強調，國際中文教育的研究應具備“整體觀”意識，重視區域性與國別化研究，此觀點有助於拓展國際中文研究的深度與廣度，中文測試的相關研究亦應遵循這一發展路徑。

在此背景下，韓國作為中國的近鄰，中文測試研究值得高度關注。一方面，韓國作為漢字文化圈的重要成員，自古以來與中國保持密切的語言文化交流。金鉉哲(2008:224)認為，具體可考的漢語普及史料可追溯至朝鮮時代。這顯示出韓國中文教育的歷史基礎深厚。另一方面，儘管韓國中文學習需求持續增長，相關測試研究仍顯不足。맹주익(2009:47)指出，自20世紀80年代以來，韓國的漢語教育雖快速普及並取得長足進展，但這一發展多為數量上的擴張，質量提升尚未與之匹配。因此，在“量”的基礎上提升“質”，成為韓國中文教育乃至測試研究領域的核心課題之一。

在數字化研究工具日益豐富的當下，研究方法的選擇成為研究設計中的關鍵一環。CiteSpace作為一款專注於知識圖譜構建的可視化分析工具，能夠對韓國中文測試領域的研究成果進行結構化分析與圖譜化呈現，更有效地應對本研究所面臨的核心問題。綜上所述，本文藉助CiteSpace這一可視化工具對韓國中文測試相關研究進行系統整理與可視化分析，以期為該領域未來的深化研究提供理論參照與實證基礎，進而推動中文測試的整體發展，為國際中文教育的國別化建設貢獻力量。

2. 基於CiteSpace的研究設計

第一，數據來源方面。本研究文獻與數據均來源於中國知識基礎設施工程網(CNKI)，檢索時間範圍設定為1990年1月至2025年6月，選用“韓國、漢語、中文、測試、考試、試題”詞條的6種排列組合為關鍵詞進行高級檢索，同時增加“韓國+TSC、HSK、HSKK、BCT、YCT、高考、修學”等關鍵詞進行擴展檢索。經由人工篩選，剔除掉與中文測試相關性較弱的文獻，最終獲得有效樣本文獻115篇。

第二，研究解決問題方面。首先，分析韓國中文測試相關文獻在研究者、研究關鍵詞等方面呈現出的基本特徵，描繪出該領域的發展脈絡與研究趨勢；其次，根據上述分析，探討當前研究中可能存在的問題與局限；最後，提出未來可進行深入研究的方向和建議，以期為後續系統、深化地研究提供可行路徑。

第三，研究使用工具方面。本研究借助可視化分析工具CiteSpace 6.3 R1，對所選樣本文獻進行知識圖譜繪製與可視化分析，能夠客觀呈現韓國中文測試領域的研究演化路徑、研究熱點以及研究成果，有效揭示文獻之間的潛在關聯與特徵。同時，能夠挖掘文獻數據中的隱性研究信息，為未來該領域拓展研究提供數據支撐和實證參考。

第四，研究操作步驟方面。研究方法如下：在文獻樣本處理階段，首先將CNKI數據庫中篩選出的文獻導出為Refwords格式，並命名為“download_01”；然後建立“CNKI”母文件夾，其下設“data、input、output和project”子文件夾；將download_01原始文件置於input子文件夾中；最後通過CiteSpace軟件進行數據轉化，生成的轉化文件放入data子文件夾中，完成初始數據的整理與導入準備。在軟體選項設置階段，

通過CiteSpace界面新建項目，並正確匹配項目和數據文件夾路徑，選擇CSSCI作為數據資源類型。另外，將時間切片(Time Slicing)設置為1995年1月至2025年12月，時間切片以一年為一個單位，“Year Per Slice”設置為1，以最大限度覆蓋研究時間跨度，確保圖譜的全面建構。在可視化分析階段，根據研究問題的具體需求，分別選擇“Author, Keyword”等選項進行圖譜繪製，繼而對各類圖譜進行分析與解讀；根據分析結果，推導該領域未來的發展方向。

3. 基於CiteSpace的可視化分析

基於上述研究方法，本文展開韓國中文測試文獻的可視化分析，主要內容如下：

3.1 發文量可視化分析

韓國中文測試的年發文量統計，能在一定程度上反映出該領域在不同時期受到學界的關注與研究的重視，亦可作為觀察領域發展階段的重要依據。



〈圖1〉 CNKI “韓國中文測試” 發文量統計圖

從〈圖1〉的整體趨勢可見，韓國中文測試的研究呈現出三個階段。這反映出學界對該領域的關注度以及領域研究的穩定性尚顯不足。具體來看：

第一階段為“起步階段”，處於1994年至2005年間。韓國中文測試的相關研究剛起步，發文量較少，有8個年份甚至出現發文空白，這表明在早期韓國中文測試並未受到學界足夠的重視。一方面，當時國際中文教育本身也處於發展初期，未對其他地區或國別的中文教育產生足夠的影響；另一方面，韓中處於剛建交不久階段，文化教育等活動的交流有待逐步加強。第二階段為“增長階段”，處於2006年至2018年左右。該階段隨著全球第一家孔子學院在韓國開設，韓國中文測試相關問題的研究熱度開始逐漸升溫，發文量呈波浪式上升趨勢。第三階段為“波動時期”，處於2019年至2025年。該階段的發文量雖有明顯增勢，但之後發文量又逐年下降。該時期的關注度之所以呈逐漸下降趨勢，考慮到是疫情期間學術交流受阻或相關研究角度飽和造成的，韓國中文測試的研究進入了平台期。

從整體趨勢來看，韓國中文測試研究的主要發文貢獻集中於近二十年間。2006年至2018年可視為相對活躍期，雖未出現爆發式增長，但研究活躍度呈交替上升狀態，年均發文約為5篇；2019年達到研究高峰，當年發文量達15篇；自2021年起，發文數量逐年下降，從2021年的9篇減少至2024年的2篇，截至2025年統計時僅有1篇文獻發表。

綜上所述，韓國中文測試雖在某些階段呈現出一定的研究活躍度，但整體上仍面臨諸多挑戰，如研究起步較晚、基礎相對薄弱、相關文獻數量有限，且發展呈現出明顯的階段性波動，缺乏持續性與深入性。鑑於此，學界有必要加快推動韓國中文測試

領域的研究建設，積極構建可持續發展的學術研究環境，保持穩定的發文量，吸引更多學者參與，從而促進該領域系統性、長期性、深入性的可持續學術發展。

3.2 發文作者可視化分析

通過CiteSpace生成的發文作者合作圖譜，可以看出作者間的合作與否。即能夠清晰揭示韓國中文測試研究領域的核心研究力量與學術合作網絡。圖譜中，節點代表發文作者，節點大小反映發文數量，節點之間的連接線表示發文作者間的合作關係，節點顏色則表示發文的時間分布，即在1995年至2025年間，藍色為早期，黃綠色為中期，紅色為近期。



〈圖2〉 發文作者合作圖譜

從圖譜的整體來看，韓國中文測試研究領域的發文作者合作關係呈現“局部集中，整體分散”的特點。表現在少數穩定的合作團隊構成局部緊密的合作關係，但多數學者以單一形式發文，合作範圍僅局限於小團隊，缺乏跨團隊的學術合作，整體的合作網絡尚不成熟。

從節點顏色來看，多以藍色和綠色節點為主，即發文時間處於早期或中期，約2004年至2014年間；但代表近期的紅色節點偏少，這說明近期該領域的合作關係較少。另外，圖譜中的每個發文作者節點均為單一顏色，未見多重色環，這反映出大部分學者的研究活動僅為特定年份，研究普遍缺乏連續性。

聚焦於圖譜的局部，可以發現若幹具有穩定合作關係的學術團隊。其中最具活力的合作網絡是以張晉軍和黃賀臣為代表的合作團隊。該團隊節點集中、連接線密集，並通過節點顏色可知團隊在2009年至2013年間有較高的研究活躍度。由李廷植、金炯基等學者組成的另一組研究團隊，也在同一時期展現出一定的合作活力。圖譜右側主要以紅色節點為主，這代表2017年至2025年間的研究力量。雖然這表明該領域研究熱度的延續，但是研究依舊以小範圍團隊合作為主，研究關係鬆散。另外，根據節點、字體的大小與節點的顏色，可見高發文量但無合作關係的學者，如李航和楊翼。二位學者在2007年至2010年間持續發文，有較強的學術影響力。

為進一步對發文影響力以及合作程度進行精確分析，筆者設置系統中的SummaryTable功能，生成提取了相關作者的“引用次數(Citation Counts)”和“度(Degree)”的排名數據，整合成〈表1〉。該表可從兩個層面反映發文作者的學術貢獻。其一，“引用次數”反映研究成果被同行認可與引用的程度，是學術影響力的重要參考；其二，“度”是衡量作者同其他研究者建立合作關係的頻繁程度，是研究合作活躍度的量化表現。

〈表1〉 引用次次數&度排名數據

Citation Counts	Node Name	Degree	Node Name
引用次數	節點名稱	度	節點名稱
3	李航	6	張晉軍
2	張晉軍	6	黃賀臣
2	黃賀臣	4	李亞男
2	陳珺	4	李廷植
2	楊翼	4	金炯基
1	李亞男	4	李玉姬
1	李廷植	4	李研周
1	金炯基	4	高新
1	李玉姬	4	曲玉彬
1	李研周	4	解妮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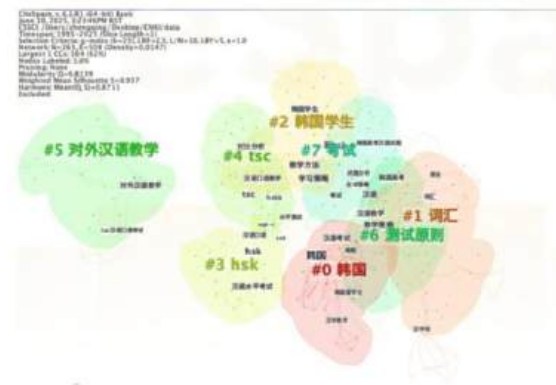
韓國中文測試研究領域的發文者在引用次數和合作活躍度方面具有一定的一致性。首先，從引用次數指標來看，李航以3次引用位於首位，顯示出其在該研究領域具有較高的學術關注度與影響力；張晉軍、黃賀臣、陳珺與楊翼學者以2次引用位列其後，亦表現出研究成果在一定程度上受到同行的認可；李亞男、李廷植等學者雖然僅有1次引用，但仍計入統計，這說明其研究在該領域具有一定的貢獻度。

其次，在合作關係密度方面，張晉軍與黃賀臣的度值均為6，在所有發文者中最高，這表明他們分別與其他六位學者存在直接合作關係，是該領域較為活躍的發文者；另外，李亞男、李廷植、金炯基等多位發文者的度值為4，這些學者雖然在引用次數上略低，但在合作圖譜中仍舊是重要的節點。

綜上所述，韓國中文測試研究領域已形成若干合作團隊，但整體合作關係鬆散，尚未形成大規模合作關係網；且根據單一顏色節點可知，發文量整體不多，每個發文者未見持續性發文，因此該領域尚未形成穩定的研究群體與系統性的研究積累。

3.3 研究關鍵詞可視化分析

關鍵詞是對文獻內容的提煉與概括，代表各研究者在一段時間內共同關注的問題，其出現頻率能反映研究的熱點與重點。



〈圖3〉 韓國中文測試研究領域關鍵詞聚類圖譜

圖譜共識別出8個主要聚類，分別是“#0韓國、#1詞匯、#2韓國學生、#3HSK、#4TSC、#5對外漢語教學、#6測試原則、#7考試”；該圖譜模塊度Q值 (Modularity Q) 為0.8139，說明這些關鍵詞網絡中的聚類邊界清晰，結構分明，類別之間相對獨立，具有較高的區分度；加權平均輪廓係數 (Weight Mean Silhouette S) 為0.937，表明各聚類內部一致性強、區分度高，整體聚類結構具有較高的穩定性與解釋力。

具體來說，聚類#0“韓國”直觀顯示出韓國作為研究背景的高頻關鍵詞。該聚類下涉及學者對韓國中文測試的宏觀分析以及韓國高考中文試題設置的研究等。聚類#1“詞匯”方面，其研究主要涉及文化負載詞識別、韓漢詞匯對比、詞匯測試與教學策略等領域。聚類#2“韓國學生”則聚焦於韓國學習者的言語行為、學習策略以及偏誤分析方面。聚類#3“HSK”，研究內容主要涉及新HSK語法、聽力、閱讀等相關研究，並強調以考促學。聚類#4-7涉及韓國中文測試的具體實施、教學回饋和評價體系的應用等。其中，聚類#4聚焦於“TSC”口語測試的考試內容分析以及教學研究方面。聚類#5“對外漢語教學”則體現出中文測試對教學的影響。聚類#6“測試原則”著眼於信度、效度、評分標準以及測試規範等測試的核心指標；聚類#7“考試”以試題分析、應試策略和考試實施為研究對象。總體來說，該領域的研究雖相對分散，但在測試實踐、教學實施與測評規範方面已初步形成邏輯鏈條，為今後展開本土化中文考試體系建設奠定了基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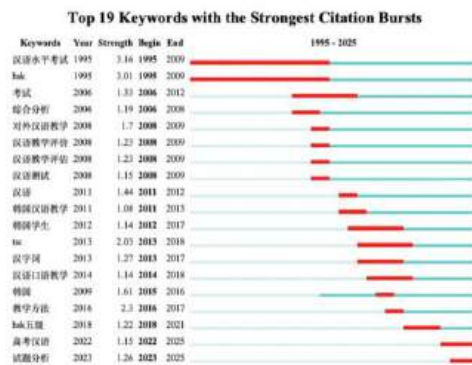


〈圖4〉韓國中文測試研究領域關鍵詞時間線圖譜

為從時間角度觀察不同關鍵詞的分布於演化，筆者用“TimeLine View”選項生成該領域的關鍵詞時間線圖譜。根據〈圖4〉可知，1995年至2005年是韓國中文測試研究領域的起步階段，研究內容以“漢語水準測試、國際漢語教學”等宏觀角度為主，該時期關鍵詞較為單一，可見當時學界對該研究領域的關注處於初探時期，重點僅是引介中國標準化考試及初步教學研究，缺乏本土特點下的深入分析；2005年至2015年研究進入發展階段，研究關鍵詞明顯增多，研究主題開始向“韓國高考、韓國學生、教學方法策略”等維度聚焦，表明研究者逐漸重視本土化教育體制以及學習者特點等的個性化研究；2015年以後，韓國中文測試逐漸進入深化研究階段，尤其是以TSC口語測試為代表的能力導向性考試受到廣泛關注，並形成了獨立的研究聚類，體現出韓國中文測試領域在國別化方面的持續探索。

3.4 研究熱點可視化分析

為了進一步考察韓國中文測試研究發展與研究關鍵詞的時序變化，筆者使用CiteSpace中的突現詞(Burstness)功能，識別出1995年至2025年間該領域突現強度最高的19個關鍵詞，如圖5所示。圖中數值以“韓國”關鍵詞為例，該詞最早於2009年進入數據統計體系，但其作為研究熱點受到學術界廣泛關注始於2015年，並持續至2016年；該突現期間內，其強度為1.61，顯示“韓國”這一關鍵詞在該時期引起類相對集中的學術探討與研究。



〈圖5〉 韓國中文測試研究關鍵詞突現圖

〈圖5〉可見，在1995年至2025年的發展歷程中，韓國中文測試的關鍵詞突現，大致經歷了三個階段，即初期以標準化水平考試為核心；中期重視教學實踐與學生需求；近期則聚焦本土化的測評研究。

第一階段是1995年至2009年的初始階段。該階段“漢語水準考試”(Strength=3.16)和“HSK”(Strength=3.01)分別位於突現圖的前兩位，其突現時間均為1995年至2009年間，突現持續時間長達15年，是研究中歷時最長、關注度最高的關鍵詞。二者的長期突現表明該時期漢語水準考試(HSK)作為標準化考試，在韓國的中文測試研究領域居於核心地位，其推廣對韓國中文教育事業產生了深遠的影響。

第二階段是2008年至2021年的過度階段。該階段研究關鍵詞逐漸從標準化考試角度向教學與學習者角度傾斜。其中“教學方法”(Strength=2.3)，突現時間為2016年至2017年，雖然僅持續兩年，但突現強度高，這表明該時期通過教學手段提高考試成績的研究成為學術焦點。同樣值得注意的是“TSC”(Strength=2.03)，作為韓國本土中文口語測試，該關鍵詞的出現反映出研究角度逐漸從對HSK的依賴轉向對本土測試研究的轉移。

第三階段是2022年至2025年的發展階段。在近期的關鍵詞突現中，“高考漢語”和“試題分析”的突現表明，隨著韓國中文測試研究的發展和測試本土化研究進程的加快，學界對於中文科目納入韓國高考體系及其命題機制的關注正逐漸加深。這一變化不僅體現出中文在韓國語言地位的提升，也表明中文測試在韓國國家教育評價體系中扮演重要的角色。韓國中文測試研究正逐漸從引入階段向發展階段發展，並開闢出更具本土特色的中文評價體系。

總體而言，韓國中文測試研究的關鍵詞雖然眾多，研究主題多樣，但除了漢語水平考試(HSK)以外，大多數關鍵詞的突現持續時間僅為2至4年，缺乏長期穩定的研究，這表明該領域在研究的深度上仍有較大發展空間，在研究持續性方面需要進一步改善。更為重要的是，縱觀以上三個階段的研究趨勢，韓國中文測試研究仍多停留在經驗與總結的探討層面，尚未充分涉及現代數字技術對測評的發展變革與理論創新。然而，諸如自然語言處理、語音識別等技術恰恰能有效提高測評的效率與準確率，因此韓國中文測試亟需拓展研究視野，引入“數智化測評”的研究思路與輔助工具，推動本土語言測試與現代信息技術融合，構建兼具本土性與科學性的測試研究路徑。

4. 結語

本文基於CNKI資料庫中1990年至2025年間收錄的115篇關於韓國中文測試研究的文獻，運用CiteSpace 6.3 R1軟件進行了可視化計量分析。從發文量、作者分布、研究

關鍵詞與研究熱點四個維度，系統地梳理了韓國中文測試領域的研究脈絡與研究現狀，旨在揭示該領域研究的既有成果與未來發展趨勢。

研究結果顯示，韓國中文測試的發文總量較為有限，呈現階段性起伏的發展特徵。研究作者之間的合作關係較為鬆散，尚未形成穩定的學術團隊，學術資源整合度偏低。關鍵詞聚類分析結果表明，研究視角主要聚焦於標準化考試(如：HSK、TSC等)，以及與之相關的詞匯教學、韓國學生學習特徵、韓國高考中的中文考試等議題，反映出測試與教學之間的密切需求關係。進一步的關鍵詞突現分析顯示，研究熱點經歷了從“漢語水準考試”向“TSC”、“高考漢語”、“試題分析”等方向的演變，反映出研究重點逐步由宏觀層面的標準化測試轉向微觀層面的本土化測試。

儘管韓國中文測試領域的研究已取得一定成果，但從整體來看，仍存在研究視角較為單一、研究範圍相對狹窄等問題，該領域的學術發展尚有較大拓展空間。筆者認為，未來韓國中文測試的研究可從以下三個方向持續深化：

第一，推進“高考漢語”研究的本土化路徑。目前相關研究主要集中於考試政策與測試內容分析，未來可進一步關注課程體系與考試要求的對接、考試內容與語言等級標準的銜接等問題，促進測試標準與教學實踐的融合，充分發揮“以考促教、以考促學”的功能。

第二，細化“試題分析”的研究維度。可從題型結構、測量維度、語言能力分級等層面展開深入探討，構建更加科學的命題體系與評分標準，全面提升測試的信度與效度，推動韓國中文測試朝向系統化、精細化發展。

第三，探索“數智化測評”系統的應用路徑。隨著自然語言處理、人工智能、大數據等技術的快速發展，語言測試研究亦應與時俱進。고건태·이효영 (2020:216)指出，外語教育無法迴避第四次工業革命所帶來的變革，以技術為支撐的語言學習與教育研究正方興未艾。因此，學者應積極嘗試將智能技術應用於測試命題、自動評分與數據反饋等環節，構建智能化、數字化的中文測評生態體系。同時，也需加強對語言學習者特徵的研究，使測試真正服務於學習者的需求；此外，還應推動研究人員間的學術合作，形成協同創新機制，促進中文測試從傳統的“工具性評估”轉向“發展性測評”，切實發揮測試在語言教學中的引導與反饋作用。

綜上所述，本研究不僅從可視化角度呈現了韓國中文測試研究的知識圖譜與發展脈絡，也為該領域後續的深入研究提供了方向指引。更為重要的是，本文將科學計量方法與語言測試研究相結合，不僅契合國際中文教育作為“交叉學科”的學科定位，也積極回應了當前該領域推動“數字化轉型”的迫切需求，展現出計量工具與語言測試研究融合的廣闊潛力與學術價值。作為國際中文教育的重要參與國，韓國在中文測試領域的研究不僅對本國教育政策與教學實踐具有參考意義，更可為其他地區或國家的中文測試研究提供有價值的觀察視角與研究範式。因此，韓國中文測試研究不僅具有重要的本土意義，也展現出其在國際語言測評研究中的參照價值與發展前景，未來仍方興未艾、大有可為。

参考文献

包永紅 (2020), <韓國員工漢語學習動機與TSC成績之間的相關性研究>, 西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曹彩虹 (2016), <基於CNKI的商務漢語研究可視化分析>, 雲南師範大學學報(對外漢語教學與研究版) 14(04):40-47.

蔡武·鄭通濤(2017),〈我國漢語中介語語料庫研究現狀與熱點透視——基於CiteSpace的可視化分析〉,華文教學與研究(03):79-87.

陳風華·賴小春(2019),〈孔子學院研究的進展、熱點與前沿——基於國內外核心期刊的可視化計量考察〉,高教探索(06):112-120.

陳靜怡(2014),〈淺談OPI口語測試及TSC漢語口語考試對漢語口語教學的啟示〉,西安外國語大學 碩士學位論文.

陳溪坤(2023),〈專門用途漢語的現狀與發展趨勢——基於Citespace的可視化分析〉,廊坊市應用經濟學會:社會發展——跨越時空經濟基礎論文集(一)6.

陳雪茹(2021),〈漢語教師志願者的發展趨勢與熱點研究——基於CiteSpace的文獻可視化分析〉,散文百家(新語文活頁)(12):169-171.

陳悅·劉則淵·陳勁·侯劍華(2008),〈科學知識圖譜的發展歷程〉,科學學研究 (03):449-460.

陳悅·陳超美·劉則淵·胡志剛·王賢文(2015),〈CiteSpace知識圖譜的方法論功能〉,科學學研究33(02):242-253.

崔瞳(2022),〈基於CiteSpace的對外漢語漢字教學的研究熱點主題及前沿分析〉,山西青年(06):86-88.

崔希亮(2023),〈國際中文教育的十二個重點研究領域〉,國際中文教育(中英文) 8(01):3-12.

富聰·邵濱(2021),〈在線漢語教學研究熱點與發展趨勢可視化計量研究〉,雲南師範大學學報(對外漢語教學與研究版) 19(06):28-39.

黃譯歐(2023),〈HSK試卷和TOPIK試卷中的文化負載詞研究——以2020年至2022年試卷為研究對象〉,非通用語研究(00):15-21.

賈紅紅(2019),〈近五年構式語法研究熱點綜述——基於CiteSpace軟件的分析〉,海外英語(11):223-226.

賈晴(2007),〈韓國大學修學能力考試及語文領域試題特點分析〉,語文建設(05):36-39.

焦毓梅·於鵬(2010),〈韓國漢語教育現狀分析及發展前瞻〉,長江學術(03):137-142+161.

金椿姬(2014),〈韓國中等教育體制下的漢語考試〉,國際中文教學研究(03):9-10.

金鉉哲(2008),〈關於韓國的漢語教學現狀與發展〉,中國語文學輪集53:221-232.

金鉉哲·劉柳(2022),〈基於CiteSpace視角對現代漢語反義複合詞研究現狀的可視化知識圖譜分析——以1978-2021年為中心〉,中國語文學輪集133:171-200.

梁君(2019),〈對韓國學生HSK五級考試“書寫部分”語序偏誤分析及對策研究〉,渤海大學 碩士學位論文.

李寶貴·郭爽·李慧(2022),〈國際中文教育漢字教學研究的回顧與前瞻——基於文獻計量學視角〉,雲南師範大學學報(對外漢語教學與研究版)20(02):11-21.

李夢雪(2018),〈HSKK與TSC口語測試的對比研究〉,蘇州大學 碩士學位論文.

李倩(2021),〈韓國高中漢語遂行評價應用研究〉,瀋陽大學 碩士學位論文.

- 李頌喜(2022),〈HSKK初級與TSC初級備考教輔比較分析〉,中央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 李欣·康青霞(2021),〈近三十年漢語教師研究熱點、演進脈絡及展望—基於CiteSpace可視化圖譜的實證分析〉,世界華文教學(01):51-64.
- 林珠京(2016),〈韓國漢語考試分析及應試培訓建議〉,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 凌磊(2022),〈韓國修學能力考試語文卷內容與問題分析〉,教育與考試(03):5-11.
- 刘晓庆(2021),〈基于CiteSpace的1994-2020年汉语口语测试研究综述〉,教育观察 26.00 1.
- 劉曉慶·陳紅(2022),〈基於CiteSpace的對外漢語文化教學可視化分析(2000-2020)〉,漢字文化(01):178-183.
- 劉珣(1983),〈試談漢語水平測試〉,語言教學與研究(04):57-67+23.
- 劉園園(2023),〈近十年國際中文教育教材研究CiteSpace可視化分析〉,景德鎮學院學報38(04):42-48.
- 劉志芳(2020),〈基於CiteSpace的現代漢語形容詞研究可視化計量分析〉,河南師範大學學報(自然科學版)48(04):29-36.
- 魯珊(2023),〈基於CiteSpace的國內語料庫研究綜述(1998-2020)〉,黑河學院學報 14(05):109-112.
- 羅民·張晉軍·謝歐航·黃賀臣(2011),〈新漢語水平考試(HSK)海外實施報告〉,中國考試 (04):17-21.
- 羅星(2022),〈近20年來線上漢語教學研究熱點和趨勢分析—基於CiteSpace可視化圖譜分析〉,數據 (01):133-135.
- 樸恩婷(2011),〈新舊《漢語水平考試(HSK)大綱》對比分析〉,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 仇詩怡·王心怡·李琛(2024),〈有關韓國HSK初、中級漢語學習者漢語語法學習水平的調查研究〉,漢字文化(19):98-101.
- 曲福治·丁安琪(2023),〈國際中文教育數字化轉型:內涵、特征與路徑〉,雲南師範大學學報(對外漢語教學與研究版)21(05):1-9.
- 王娟·陳世超·王林麗·楊現民(2016),〈基于CiteSpace的教育大数据研究热点与趋势分析〉,現代教育技術26(02):5-13.
- 王琦(2018),〈2005~2017年孔子學院研究的關鍵話題及學科跨度—基於CiteSpace可視化圖譜的分析〉,語言戰略研究3(06):42-55.
- 王玉珏(2016),〈“TSC漢語口語考試”教學方法研究〉,蘭州大學 碩士學位論文.
- 吳雅琳(2023),〈“韓國大學修學能力試驗”漢語 I 語法試題分析研究〉,深圳大學 碩士學位論文.
- 吳應輝·梁宇·郭晶·馬佳楠(2021),〈全球中文教學資源現狀與展望〉,雲南師範大學學報(對外中文教學與研究版)19(05):1-6.
- 楊翼(2009),〈對外漢語教學測試與評估的歷史演變與發展趨勢〉,中國考試(研究版)(01):35-40.

張萌萌(2021),〈基於CiteSpace的對外漢語教材研究20年文獻計量分析〉,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鄭晨·金懷梅(2024),〈漢語法律術語英譯研究現狀及展望——基於CiteSpace的計量分析〉,通化師範學院學報45(07):91-98.

鄭恩珍(2017),〈韓國高中漢語教材和韓國大學入學能力考試辭彙比較統計研究〉,浙江大學碩士學位論文.

周楚怡·張妍(2025),〈近十年國際中文教育數智化研究綜述——基於CiteSpace軟件的可視化分析〉,語文學刊45(02):115-124.

朱海平(2023),〈中國語言測試行業產值統計及趨勢分析〉,昆明學院學報45(04):41-51.

鄒佳樂·劉文明(2025),〈韓國高考漢語文化試題分析〉,漢字文化(10):104-106.

고권태·이효영(2020),〈인공지능 챗봇의 중국어 교육 활용 방안 탐색〉, □중국학□72: 215-233.

김미순(2013),〈국내외 대학입학시험 중국어 과목 평가 양상에 관한 연구-수능, GC E A-LEVEL, 센터시험, SATST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45:511-537.

맹주억(2009),〈중국어교육학의 학문체계 정립에 대하여〉, □중국연구□45:47-61.

문영희·문준혜·박지영(2019),〈한자능력시험 선정 한자 고찰〉, □중국어문학지□68: 157-177.

박나현·서형규(2023),〈고등학교『중국어 I』문화영역 문항 분석 연구—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를 중심으로—〉, □중국어교육과연구□39:1-22.

여인우·김석영(2017),〈고등학교 중국어 지필평가의 문항 타당도에 대한 연구 - 직접 평가 요소에 따른 차이를 바탕으로〉, □중국어문학지□0.61:221-251.

조영화(2019),〈한자능력검정시험 7급 한자 構形체계의 연구 - 한국어문화 7급 배정 한자 150자를 대상으로〉, □중국학□67:57-69.

최재수(2010),〈중국어능력평가지험 체계에 대한 연구〉, □외국어연구□24:134-151.

<目 次>

【摘要】

1. 引言
 2. 本论1
 3. 本论2
 4. 本论3
 5. 本论4
 6. 结语
- 参考文献

【摘要】

汉字作为中华文化的重要载体，在国际中文教育中占据关键地位，但传统教学模式面临诸多挑战。本论文聚焦 DeepSeek 技术在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中的应用，通过梳理国际中文教育汉字研究现状及 AI 赋能语言教育的成果，剖析当前汉字教学存在的不足，深入探讨 DeepSeek 的核心技术架构、自然语言处理能力、跨文化交互设计和自适应学习算法等特性及其教育应用场景。从教学场景赋能、学习模式创新、文化传播维度三个层面，系统提出 DeepSeek 赋能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路径创新策略，旨在为提升汉字教学质量、推动中华文化传播提供理论与实践参考。研究表明，DeepSeek 能够有效解决传统汉字教学中的难题，为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带来智能化、个性化的创新变革。

。

1. 引言

随着中国国际影响力的不断提升，“汉语热”在全球范围内持续升温，国际中文教育迎来了前所未有的发展机遇。汉字作为汉语的书写符号和中华文化的精髓，是国际中文教育的重要组成部分。然而，汉字结构复杂、笔画繁多、表意独特，对于非母语学习者来说，汉字学习难度较大，传统的汉字教学方法难以满足学习者的多样化需求，教学效果亟待提升。与此同时，人工智能技术的飞速发展为教育领域带来了深刻变革，DeepSeek 作为新兴的人工智能技术，以其强大的自然语言处理能力、智能交互功能和自适应学习算法，为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路径创新提供了新的可能。

本研究旨在深入探讨 DeepSeek 在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中的应用，通过分析其技术特性和教育应用场景，探索其赋能汉字教学路径创新的有效策略，为提高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质量、推动中华文化的国际传播提供参考。

2. 本论1

关于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国内学术界研究侧重于偏旁部首教学法、线上汉字教学、新时代背景下汉字教学创新、不同理论视角下汉字教学四个方面。

偏旁部首教学法方面，张瑞菲（2022）对“宀”偏旁汉字进行整理与分析，统计出相关汉字 51 个，从音、形、义进行分析，了解到该偏旁汉字的使用情况并且进行偏误分析，设计合理的教学方法，帮助学习者更好地习得偏旁汉字。宋倩（2024）基于偏旁部首教学法展开了国际中文教育微课教学，设计调查问卷和教师访谈，并收集相关反馈完成了独体汉字教学与合体汉字教学微课制作。杨君（2024）以“扌”偏旁为切入点，对相关关联的 171 个汉字进行定量、定性研究，设计了针对该偏旁的教学设计。

线上汉字教学方面，张巧玲（2024）针对英国华裔线上初级汉字教学进行了研究，设计了“汉字入门 300 字”以及相关教学方法，同时采取团队协作教学的形式，提高了英国华裔儿童汉字学习效率。王東營（2022）分析了目前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的现状，设计趣味性教学活动、利用网络资源和自媒体手段讲述汉字基础知识。钟嫻（2021）以汉字字源网创始人理查德·西尔斯以网络社交平台为载体，致力于汉字线上推广与教学。

新时代背景下汉字教学创新方面，王李洁、王长华（2024）基于汉字课程改革实践，从而进一步促进于国际中文教育人才培养的“提质”与“增效”。马琳佳（2023）提出随着科技的迅速发展，国际中文教育领域衍生出大量网络教学平台，教师必须利用新形势下的发展机遇，改革汉字教学。陆俭明（2024）主张电打汉字开路，笔写汉字跟进，通过电打汉字的方法让外国留学生接触更多的汉字，打破初学者汉字拼音阶段的学习壁垒，同时在汉语书面语学习阶段，笔写汉字要逐步跟进。

不同理论视角下汉字教学方面，朱筱敏（2023）利用认知理论对 classin 平台汉字教学进行研究，对汉字形音义“三位二维”特点进行分析，对未来凭借人工智能与虚拟现实技术引入汉字教学进行了前瞻性探讨。魏敏（2022）在哲学视角下对汉字教学进行浅析，分析了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的现状，提出汉字教学要具有理据性、立体性，让汉语学习者树立学习汉字知识的意识，即“两性一意识”。金叶（2021）从汉字构形学理论分析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结合字本位理论与中华传统文化思想，对汉字进行再认知，提出汉字除了具有传统的语言意义外，还具有一些非语言意义，比如：认知、思维意义。

然而，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研究仍存在一些不足之处。例如，对不同文化背景学习者的汉字学习特点和需求研究不够深入，导致教学方法和内容的针对性不强；在教育技术的应用方面，虽然引入了一些信息技术手段，但与人工智能等前沿技术的深度融合还不够，未能充分发挥技术优势提升教学效果。

3. 本论2

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的不足

（一）教学资源方面

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资源存在数量不足和质量不高的问题。在数量上，适合不同学习层次、不同文化背景学习者的汉字教学资源相对匮乏，难以满足多样化的学习需求。例如，针对儿童学习者的趣味性汉字学习资源较少，针对商务人士的专业汉字学习资料也不够丰富。在质量方面，部分汉字教材和在线课程存在内容陈旧、设计不合理等问题，无法有效激发学习者的学习兴趣和积极性。此外，教学资源的更新速度较慢，难以跟上汉字演变和教学需求的变化。

（二）教学方法方面

当前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方法仍以传统的讲授法和练习法为主，缺乏创新性和互动性。教师在课堂上往往侧重于汉字的笔画、笔顺和字形结构的讲解，忽视了汉字的文化内涵和实际应用，导致学生学习积极性不高。同时，教学过程中缺乏对学生学习过程的有效监控和评估，无法及时了解学生的学习进展和问题，难以提供针对性的指导和反馈。此外，传统教学方法难以满足不同学习者的学习风格和需求，不利于实现个性化教学。

（三）文化传播方面

在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中，文化传播存在理解偏差和方式单一的问题。由于文化差异的存在，学习者对汉字所蕴含的中华文化内涵理解往往停留在表面，难以深入领会其背后的文化意义和价值观念。例如，学习者对汉字中所体现的中国传统哲学思想、审美观念等理解不足。在传播方式上，主要依赖于教材讲解和课堂演示等传统方

式，缺乏创新性和吸引力，难以让学习者真正感受到汉字文化的魅力，也不利于中华文化的广泛传播。

4. 本论3

三、DeepSeek 技术特性分析

（一）核心技术架构

DeepSeek 采用了先进的混合专家架构（MoE）与 Transformer 架构相结合的技术体系。混合专家架构通过将复杂的语言处理任务分解为多个子任务，由不同的“专家”模块分别处理，然后根据任务需求动态组合各个模块的输出，大大提高了模型的处理效率和灵活性。Transformer 架构则以其强大的注意力机制，能够更好地捕捉文本中的语义信息和上下文关系，在自然语言处理任务中表现出卓越的性能。这种独特的核心技术架构为 DeepSeek 在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中的应用奠定了坚实的技术基础。

（二）自然语言处理能力

DeepSeek 具备强大的自然语言处理能力，在汉字理解和生成方面表现出色。它能够准确理解汉字的语义、语法和语用信息，无论是简单的汉字词汇还是复杂的汉字语句，都能进行精准的解析。在汉字生成方面，DeepSeek 可以根据输入的要求生成符合语法规则、语义连贯的汉字文本，如汉字作文、对话、故事等。此外，DeepSeek 还支持多语言处理，能够实现汉字与多种语言之间的高效翻译，为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中的跨语言交流和学习提供了便利。

（三）跨文化交互设计

DeepSeek 在设计过程中充分考虑了跨文化交互的需求，将不同文化的知识和特点融入到模型训练中。通过学习大量来自不同文化背景的文本数据，DeepSeek 能够理解 and 处理文化差异带来的语言和交流问题，减少因文化误解导致的学习障碍。同时，DeepSeek 可以根据用户的文化背景和语言习惯，调整交互方式和语言表达，提供更加个性化、人性化的服务，增强学习者对汉字学习的兴趣和文化认同感。

（四）自适应学习算法

DeepSeek 的自适应学习算法能够实时收集和分析学习者的学习数据，包括学习进度、学习行为、学习成果等。通过对这些数据的深入挖掘和分析，算法可以准确了解学习者的学习特点、优势和不足，为每个学习者量身定制个性化的学习路径和策略。例如，对于学习进度较快的学生，算法可以推荐更具挑战性的汉字学习内容；对于在汉字书写或词义理解上存在困难的学生，算法可以提供针对性的辅导和练习，实现精准化教学和个性化学习。

（五）教育应用场景

DeepSeek

可以作为智能教学助手，辅助教师完成汉字教学的备课、授课、答疑等环节。在备课阶段，教师可以利用 DeepSeek 生成汉字教学方案、课件和教学资源，快速获取丰富的教学素材和案例。在授课过程中，DeepSeek 能够实时解答学生关于汉字的问题，提供及时的反馈和指导，减轻教师的教学负担。此外，DeepSeek 还可以对学生的课堂表现进行记录和分析，为教师的教学评价提供参考。

基于 DeepSeek

的个性化学习系统能够根据学生的学习需求和能力，为每个学生制定专属的汉字学习计划。系统可以自动推荐适合学生的汉字学习内容和 Learning 资源，如汉字课文、练习题、拓展阅读材料等。同时，通过对学生学习过程的实时监测和分析，系统能够及时调整学习计划，确保学生始终处于最佳的学习状态，提高汉字学习效率和效果。DeepSeek 可以作为文化传播的新媒介，创新汉字文化的传播形式和内容。它能够生成多样化的汉字文化内容，如汉字故事、动画、游戏等，以更加生动、有趣的方式向学习者展示汉字文化的魅力。此外，DeepSeek 还可以开展跨文化交际模拟活动，让学习者在虚拟环境中体验不同文化背景下的汉字交流场景，提高跨文化交际能力，促进汉字文化的传播和交流。

5. 本论4

。四、赋能路径研究

（一）教学场景赋能

利用 DeepSeek

的自然语言处理和知识生成能力，构建智能备课系统。教师输入汉字教学主题和教学目标后，系统可以自动生成包含教学内容、教学方法、教学案例等在内的完整教学方案。同时，系统还可以根据教师的需求，从海量的教学资源库中筛选和推荐适合的汉字课件、动画、练习题等教学资源，大大缩短教师的备课时间，提高备课质量。例如，教师准备“汉字的演变”这一教学内容时，系统可以生成汉字演变的历史脉络、典型案例以及相关的互动教学活动设计。

结合虚拟现实（VR）、增强现实（AR）等技术与

DeepSeek，打造虚实融合的汉字教学课堂。在课堂教学中，学生可以通过 VR 设备进入虚拟的汉字学习场景，如古代汉字书写工坊、汉字文化博物馆等，与虚拟角色进

行互动交流。DeepSeek 则作为智能引导者，为学生提供实时的汉字知识讲解和书写指导。例如，学生在虚拟场景中学习书写毛笔字时，DeepSeek 可以实时分析学生的书写动作和笔画顺序，及时纠正错误并给予反馈，使学生在沉浸式的学习环境中提高汉字书写能力和文化素养。

DeepSeek

可以对学生的汉字学习成果进行自动评测，包括汉字书写、词汇理解、语句应用等方面。通过对学生书写的汉字进行笔画、笔顺、结构等方面的分析，以及对学生词汇和语句运用的语法、语义分析，DeepSeek 能够准确判断学生的学习水平，并提供详细的反馈和改进建议。例如，对于学生书写错误的汉字，DeepSeek 不仅指出错误之处，还会展示正确的书写过程和相关的汉字演变知识，帮助学生理解和记忆。这种自动评测反馈机制能够及时帮助学生发现问题、纠正错误，提高学习效果，同时也减轻了教师的评价负担。

（二）学习模式创新

基于 DeepSeek

的自适应学习算法，为每个学生制定个性化的汉字学习路径。系统根据学生的入学测试成绩、学习兴趣和学习习惯，为学生规划适合的汉字学习内容和学习顺序。在学习过程中，系统实时监测学生的学习进度和掌握情况，动态调整学习路径，确保学生在每个阶段都能获得最适合自己的学习内容，实现高效学习。例如，对于对汉字书法感兴趣的学生，系统可以在基础汉字学习的基础上，推荐更多关于汉字书法的学习内容和实践活动；对于汉字学习进度较慢的学生，系统可以增加基础知识的巩固练习和针对性辅导。

利用 DeepSeek

构建沉浸式的汉字学习环境，通过模拟真实的语言交流场景，让学生在实践中提高汉字运用能力。例如，学生可以与 DeepSeek 生成的虚拟人物进行对话练习，模拟购物、旅游、文化交流等实际场景。在对话过程中，DeepSeek 会根据学生使用汉字的情况提供即时反馈和指导，帮助学生纠正发音、语法错误，提高汉字表达的流利度和准确性。同时，在沉浸式环境中，学生还可以接触到丰富的汉字文化元素，加深对汉字文化的理解和认识。

DeepSeek

通过对学生学习行为数据的分析，深入了解学生的学习习惯、学习偏好和学习困难。例如，分析学生在汉字学习平台上的停留时间、点击次数、作业提交时间等数据，判断学生的学习积极性和学习效果。基于这些分析结果，系统可以为学生提供个性化的学习建议和干预措施，如推荐适合的

学习方法、调整学习计划等，帮助学生优化学习行为，提高学习效率。此外，教师也可以通过学习行为分析数据，了解班级整体的学习情况，调整教学策略，实现精准教学。

（三）文化传播维度

借助 DeepSeek

的自然语言生成能力，生成丰富多样的汉字文化内容。系统可以根据不同的传播目的和受众需求，生成汉字故事、诗歌、散文、动画剧本等多种形式的文化作品。

例如，为了向外国学习者介绍汉字的起源，可以生成生动有趣的汉字起源故事；为了展示汉字的艺术之美，可以生成相关的诗歌和散文。

这些智能生成的文化内容能够以更加新颖、有趣的方式吸引学习者的关注，让学习者在学习汉字的过程中深入了解中华文化的内涵，促进汉字文化的传播。

利用 DeepSeek

开展跨文化交际训练，模拟不同文化背景下的汉字交流场景。学生在虚拟场景中与来自不同国家和地区的虚拟角色进行交流，学习如何在跨文化环境中得体地使用汉字表达自己、理解他人。

DeepSeek 可以对学生的交际行为进行评估和指导，帮助学生了解不同文化之间的差异和交际规则，提高跨文化交际能力。

例如，在模拟商务谈判场景中，DeepSeek 可以指导学生正确使用商务汉字词汇和表达方式，同时让学生了解不同文化背景下商务礼仪和沟通习惯的差异，增强学生在国际交流中的适应性和竞争力。

DeepSeek 可以对汉字文化传播的效果进行监测和分析。通过收集学习者的反馈数据、传播平台的点击量、分享量等指标，评估文化传播内容的吸引力和影响力。根据分析结果，系统可以对传播内容和传播策略进行优化调整，如改进文化内容的表现形式、选择更合适的传播渠道等，提高汉字文化传播的效果和覆盖面。例如，如果某一汉字文化故事在传播过程中点击量较低，DeepSeek 可以分析原因，对故事内容进行修改或采用不同的传播方式，以提高其传播效果。

5. 结语

本论文深入研究了 DeepSeek 赋能下的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路径创新。通过分析国际中文教育汉字研究现状和教学不足，探讨 DeepSeek 的技术特性和教育应用场景，提出了从教学场景赋能、学习模式创新、文化传播维度等方面的赋能路径。研究表明，DeepSeek 凭借其先进的技术架构和强大的功能，能够有效解决当前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中存在的问题，为汉字教学带来新的机遇和可能。

然而，本研究也存在一定的局限性。一方面，由于 DeepSeek 技术仍在不断发展和完善，其在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中的应用还处于探索阶段，实际应用效果还需要进一步验证和优化。另一方面，本研究主要从理论层面进行了探讨，缺乏大规模的实证研究和实践检验。未来的研究可以进一步开展实证研究，深入探索 DeepSeek 在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中的应用模式和效果，为推动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的高质量发展和

汉字文化的广泛传播提供更多的实践经验和理论支持。同时，随着人工智能技术的不断进步，还应关注新技术与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的融合，持续探索创新的教学路径。

参考文献

- [1] 毕晓峰, 周翔. 新文科理论应用与实践[M]. 云南大学出版社:2023.
- [2] 夏甘霖, 华莉, 肖进. 新文科背景下的语言文化研究和教育教学思考[M]. 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2021.
- [3] 任晓霏, 刘锋, 余红艳. 跨文化交际与国际中文教育[M]. 南京东南大学出版社:2019.
- [4] 刘家思, 孙永红. “汉语+” 人才培养模式改革与教学研究[M]. 浙江工商大学出版社:2021.
- [5] 李禄兴. 现代汉字及其对外教学研究[M]. 中央编译出版社:2012.
- [6] 王骏. 外国人汉字习得研究[M]. 北京大学出版社:2020.
- [7] 马显彬. 现代汉字学[M]. 暨南大学出版社:2013.
- [8] 吴秉健. 教师网络学习共同体与英语教学数字化融合创新[M]. 世界图书出版公司:2019.

网络语言中的规避与强化

——以“叢”为中心

于鹏*

<目次>

【摘要】

1. 问题的提出
 2. “叢”的使用现状及动因
 3. “叢”的语用分析
 4. 结语
- 参考文献

【摘要】

近年来网络语言中以生僻汉字替代常用汉字的现象越来越普遍，在某种程度上打破了汉语书面语的常见规则。这种用法之所以能得到人们的普遍认同，并在网络上迅速传播，说明其具有传统表达方式难以实现的语用功能。本研究即是在对这一现象进行充分调查的基础上展开的。从文本输出者、接收者和网络语境几个方面入手，以“叢”为中心，首先梳理了以“叢”代“最”的用例，在此基础上总结归纳其特点和产生原因，并结合语用学中的合作原则、会话含义理论以及关联理论等对这一现象进行语用分析。最后指出这一现象产生的内因是对网络审查的规避，外因是对语义表达的强化。

关键词：网络，规避，强化，叢，语用。

* 成均馆大学，教授

1. 问题的提出

近年来，我们在上网浏览自媒体公众号或观看网络视频时发现了一个十分奇怪的现象：大量信息发布者在该用某个常用汉字的时候，却不写这个汉字，而是用另一个非常生僻复杂的汉字替代，如用“叢”代替“最”，用“三”代替“死”等，见下例：

1. 这是我见过**叢**强的空手套白狼模式 （抖音2022-07-15 视频标题+字幕）
2. 什么时候进补**叢**合适？ （哔哩哔哩2022-10-10 视频标题）
3. 大型社**三**现场！一对中年男女因为演唱会上举止紧张，被扒出婚外情（微信公众号，2025-07-19 文章标题 作者 库洛米米呀）
4. 爱**三**老秦的和声了 （腾讯视频 2024-02-11 视频标题 发布人：萝生南國）

我们知道“最”和“死”都是高频汉字，属于现代汉语3500个常用汉字之一，而“叢”和“三”则是极为生僻的汉字，原本极少出现在日常生活中。“叢”在《现代汉语词典》（第7版）中只有一个注解，如下：

叢 zuì 见下

【叢尔】zuì' ěr <书> [形]形容小（多指地区小）：~小国。

而“三”字甚至都没有被收入《现代汉语词典》，由此可见其生僻程度。

网络上这种以极为生僻的汉字代替常用汉字的现象，并不是偶然的、少量的，而是大面积、成系统的，因此可以排除是个别人偶然出现的打字错误。这种打破了汉语书面语常见规则的用法，竟得到网民的普遍认同，说明一定有其存在的意义。陆俭明先生曾指出“语言最本质的功能是传递信息。”从这个角度来说，舍弃常用汉字而使用生僻复杂汉字的形式可能传递出了某种特殊的信息。因此这一现象引发了我们的思考。

网络交流是通过键盘输入的形式来完成的。一般来说，信息输出者在键入汉字文本的过程中如果想输入生僻汉字，就必须舍弃平时简洁的常用词输入，转换为单个汉字输出的模式。如键入“叢”时，首先输入拼音“zuì”，然后在字表中避过“最”、“嘴”、“罪”、“醉”等高频字，最终找到“叢”。这就需要输出者费时费力地查找，从输入上就违反了我们常说的语言学经济原则。那么这种舍弃了连贯性的汉字输入，选取费时费力的拼音形式，就必然面临个体认知系统与汉语文字输入系统的较量。在这一较量中，生僻汉字最终是如何胜出并为广大网民所接受的呢？

本研究即是在对上述问题进行思考的基础上展开的。我们尝试在现有研究成果的基础上，从内部动因和语用作用两方面对网络交流中使用生僻汉字代替常用汉字的情况进行探讨。首先选取最有代表性的“叢”，梳理其呈现的类型，总结归纳特点，解释其产生的内部动因；然后在此基础上从文本输出者、接收者和网络语境几方面入手，结合合作原则、会话含义理论以及关联理论等，从语用学视角对这一现象进行分

析。最终尝试解决以下两个问题：1. 输出者为什么要避简就繁地进行这种替代？2. 这种违反了汉语文本输出基本规则的表达方式为什么会引发广大网民的共鸣和追捧？

2. “藪”的使用现状及动因

2.1 使用现状

考察现有材料，发现这种以“藪”代“最”的形式最早出现在2020年，到2022年前后在网络爆火，使用范围很广，至今盛行不衰。主要用于文本标题和视频字幕，详见下例：

5. 藪强攻击的奥义, 就是一击耗空自己蓝条。（哔哩哔哩 2022-09-09）
6. 什么时候进补藪合适?（哔哩哔哩 2022-10-10）
7. 这是我见过藪强的空手套白狼模式#老板思维 #商业思维 #创业 （抖音 2022-07-15）
8. 我们不要求藪好的，只要求藪合适的。#大扭矩步进电机#大力矩步进电机的参数@DOU+小助手 @信浓电机维科特 （抖音 2022-03-19）
9. 其实藪适合你的人，是看透了你的脾气，还愿意留下来陪你的人发布 （腾讯视频 2024年1月16日）
10. 偏旁部首——“字条目”——汉字组成的藪小单位！（西瓜视频 2022-08-16）
11. 办理EB1A/NIW美国绿卡藪强策略VS藪多策略，分别有什么优点？（微信公众号 桥梁之声2024-02-27）
12. 醫生常说“病因复杂”，其实藪懂病因的，恰恰是我们自己（微信公众号 小云素材 2025-07-09）
13. 藪新装修吊顶 吊顶铝单板_知乎，广州凯麦金属建材 （知乎 2022-09-29）
14. 美国留学本科转学：大几准备转学藪合适？ （新东方留学资讯2025.02.08）
15. 瓜沥官宣：明天开幕！藪红啦啦队将现场助阵！还有“神秘人物”将惊喜亮相 （搜狐 2025-07-17）
16. 藪是翻跔少年时的微博（微博 2023年10月30日）

“藪”和“最”原本在语义上毫无关联，二者之间唯一的联系就是语音相谐。但由上面数例可知，各句中“藪”不管是句法位置还是词义，完全等同于“最”，“藪”本身含有的“小”的意义完全隐藏。

2.2 使用动因及分析

从信息输出者角度来分析以“藪”代“最”的原因，我们认为包括三方面：

2.2.1. 避免平台审查或敏感词过滤

“最”字在某些语境下容易触发平台的内容审查机制，尤其是产品介绍，或带有激烈情绪、极端表态及一些敏感政治言论时，比如“最好”、“最差”、“价钱最便宜”、“功能最强大”等。这时为了避免被屏蔽或限流，有人会用“藪”来替代“最”字，即采取谐音替代的策略规避，这样既不容易被识别为敏感词，也不影响阅读者对内容的理解。

2.2.2. 提高点击率、吸引阅读者的关注

这些本可以不出现的生僻汉字之所以堂而皇之地出现，我们认为其中一个重要因素就是，信息发出者希望借生僻汉字在“形体”上与常用汉字的不同来吸引读者的关注。

为了提高点击率，增加关注度，信息发出者往往会采取一些取巧的方法吸引阅读者的关注。其中最常用的方法就是通过设计新奇独特的“标题”来吸引读者的注意力。新奇独特不仅涉及内容，也涉及形式，近年来在标题中以生僻汉字替代常见汉字以“吸人眼球”的情况越来越多，就是通过字形上明显的差异性，吸引阅读者的目光，进而引起他们对文本的内容关注。

2.2.3. 消解原有词义中正式、严肃的语义色彩

“形”上的改变，往往带来“义”上的变化，如增加一定的色彩义或附加义等。以“蕞”替代“最”，构成“蕞合适”、“蕞强”等词语，这一行为本身就在一定程度上消解了原有词义的严肃性和极端性。同时给人一种画面感，让人觉得“莫名好笑”，进而带来一种幽默或恶搞的乐趣。

3. “蕞”的语用分析

要想对这种替代所表达的意义进行深入分析，只在句法结构这一“真空”的层面进行是远远不够的，必须综合考虑网络文本输出者的意图、阅读者的解读和大小语境(包括社会文化大语境和上下文小语境)等方面的信息。

3.1 违反合作原则，传递特殊会话含义

(1) 违反质准则 (Maxim of Quality)

质准则要求不说虚假或缺乏证据的话，但在文本中正确的汉字是“最”，“蕞”是错别字，因此使用“蕞”是对质准则的故意违反。

(2) 违反量准则 (Maxim of Quantity)

量准则要求信息量应适中，不能过多也不能过少，但使用“蕞”时增加冗余偏旁“艹”（草字头），因此使用“蕞”是对量准则的故意违反。

(3) 违反关系准则 (Maxim of Relevance)

关系准则要求话语应与上下文相关，但在该使用“最”时使用了无关的“蕞尔”（形容小，多指地区小）的意义，二者意义并不相关，因此是对关系准则的故意违反。

(4) 违反方式准则 (Maxim of Manner)

方式准则要求表达应清晰、避免晦涩、避免歧义。而使用“蕞”这种生僻汉字或错误字形，使表达变得晦涩难懂，从而制造了理解障碍，增加了理解难度。因此也是对方式准则的故意违反。

分析“藁”代替“最”时对合作原则多项准则的故意违反，我们认为就是为了传递出特殊的会话含义（conversational implicature），主要表现为规避和强化两方面。从而实现讽刺、幽默、亚文化身份标识等言外之意。

一方面，规避网络监管风险。

目前网络监控十分严格，一些网络销售者为了避免直接使用“最”这一违禁词而被网管禁言，往往也会使用其他形式对“最”进行伪装，起到回避敏感词，绕开自动审查系统的作用。这时“藁”就成了最好的替代形式，既能保持所传递的信息，同时也降低了被监管的风险。

另一方面，加强了语言表现力。

使用“藁”替代“最”，不仅制造出新奇感，更可根据语境蕴含多种情绪，如幽默、卖萌、赞美、讽刺等多重意义，在表达功能上更加高效。同时还给人一种视觉冲击，具有一种特殊的“视觉表现力”。

也就是说，使用生僻汉字“藁”能传递出一定特殊会话含义，是“最”所不具有的。当然也可以反过来说，即在意义驱动下，网络语境中才出现了大量以生僻汉字替代常用汉字的用例。

3.2 舍弃最大关联性，实现最佳关联性

关联理论由斯珀波（Sperber）和威尔逊（Wilson）提出，是有关人类交际和话语理解的一种认知理论，也目前认知语言学的核心理论。

关联理论的核心观点是交际的核心不是合作，而是“最大关联性（Maximal Relevance）”，即人类的认知倾向于尽可能以最小的推理努力获取最大的认知效果，从而实现成功交际。如当信息发出者使用“最”时，接收者就会以最小的努力获得最大的认知效果；而当信息发出者使用“藁”时，初次见到这一用法的话，接收者就需要付出更高的推理努力，才能理解信息发出者的交际意图。那么是不是就是当信息发出者使用“藁”时，在某种程度上违反了“最大关联性”呢？

我们认为并不是这样。具体来说，如果信息发出者和接收者共享同一认知语境，那么当使用“藁”时，接收者并不会付出更多的推理努力，解码成本可以忽略不计，双方就能迅速达到“互明”。

而如果当接收者是首次接触“藁”时，就会对这一新信息进行额外的加工，自然需要付出更多的时间和处理努力来对“藁”进行解码和推理。这种看似违反了“最大关联性”的现象，可以通过扩展“最大关联性”的内涵来解释——虽然表面增加了形式上的处理努力，但由于其携带的附加意义（如幽默性、标识身份等），可得到一定的认知效果补偿，如带来规避风险的幸福感和情感强化的效果等，因此整体上仍符合关联理论的“最大关联性”。后来斯珀波（Sperber）和威尔逊（Wilson）将这种称为“最佳关联性”，即信息接收者可接受一定程度上处理努力的增加，只要其带来的额外认知效果足够补偿。也就是说，接收者可通过认知效果的补偿和共享认知语境等，来平衡对“藁”处理努力的增加，从而具有更高的语用效率。

这同时也说明：1. 关联性需结合具体交际语境评估，不能仅看形式复杂度；2. 网络语言的高效是“语用效率”而非“机械效率”，其核心在于意义密度的提升而非输入速度。

4. 结论

前边我们提到本文要解决两个问题：

1. 输出者为什么要避简就繁地进行这种替代？

我们通过详细分析“藁”代替“最”的现象，总结分析出两大原因，一是外因，即环境因素，主要是网络监管和平台对敏感词的审查屏蔽；二是内因，即使用者因素，主要包括两方面因素，第一是吸引阅读者关注，第二是传递更多的语义信息。以上就是对这一问题的回答。

2. 这种违反了汉语文本输出基本规则的表达方式为什么会引发广大网民的共鸣和追捧？

在网络语境下，输出者用生僻汉字替代常用汉字的现象，折射出的是网络语言的形态和网民的心态。生僻汉字特色鲜明，传递了特殊的会话含义，提高了语用效率。通过提升认知效果的多元性（社交、情感、规避功能），使额外的处理努力在网络语境中获得超额补偿，从而实现了动态平衡的最佳关联。以“藁”为例，具有“最”在“形”、“义”两方面缺乏的一些特点，因此逐渐成为网民抒发情感、表达态度时所喜爱的一种表达方式。这也是“藁”成为网络热词，引发共鸣和追捧的主要原因。

以上是我们对网络语境下生僻汉字替代常用汉字现象的一些分析和思考，希望各位专家批评指正。

参考文献（略）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2부

19. 중국어학(8)

위당관 211호

한중 언어 비교와 표현 유형 연구

현대중국어 분열문의 공시적 변이와 그 기제

이은경*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선행 연구 고찰
 3. 관화지역 방언의 분열문 구성과 어순
 4. 중부지역 방언의 분열문 구성과 어순
 5. 남부지역 방언의 분열문 구성과 어순
 6.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중국어 방언화자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중국어 방언에서의 분열문 형식과 어순을 분석하고 그 공시적 변이 양상과 기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실증자료를 토대로 방언과 표준중국어에서의 분열문의 다양한 양상이 출현하는 원인과 기제를 아래와 같이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중국어 방언 분열문의 생성과 발전은 모두 표준중국어의 ‘是…VP的’ 형식과 유사하게 명사화구문에서 기원하였다.

둘째, 남방 방언의 분열문 형식은 명사화구문과 동일한 형식을 갖는 경향이 있고, 북방 방언에서는 속격표지의 분포가 달라짐으로써 새로운 어순 형식의 독립된 분열구문을 발전시키고 있다.

셋째, 속격표지가 문말에서 동사의 바로 뒤로 이동하는 경향은 상적 자질을 획득하는 문법화 과정이며 이는 북방 방언으로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르다.

넷째, 본고에서 분석한 방언 분열문의 변이가 갖는 특징은 각 방언지역에서 구사되는 표준중국어 분열문의 변이와 유사하다. 이는 표준중국어 분열문의 지역에 따른 형식적 차이가 해당 방언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이다. 즉, 방언 모어화자가 표준중국어를 구사할 때 자신의 방언에 기반한 언어적 직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 서론

현대중국어에서 과거 사건의 시간, 장소, 방식, 조건, 목적, 행위자 등을 강조하는 ‘是…的’ 구문을 분열문(cleft sentece)이라고도 부른다. 아래는 표준중국어 분열문의 대표적인 예이다.

* 한국교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교육연구소 연구교수

- (1) a. 他是昨天回来的。
b. 我们是在上海认识的。

赵淑华(1979), 牛秀兰(1991), 李讷 외(1998), 刘月华 외(2001) 등에 따르면 표준중국어의 분열문에서 목적어가 출현하는 경우 ‘的’는 문말에 출현할 수도 있고, 목적어의 앞에 출현할 수도 있다. 또한 刘月华 외(2001: 765), 최재영 외(2018: 118-119) 등 많은 중국어 문법서나 교재에서는 분열문에 목적어가 출현하는 경우 ‘的’는 목적어의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지만, 목적어가 인칭대사(人称代词)인 경우에는 ‘的’가 목적어의 뒤에 위치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 (2) a. 我是今年二月来北京的。
b. 我是今年二月来的北京。

- (3) a. 这件事是老师告诉我的。
b. *这件事是老师告诉的我。

(최재영 외 2018: 119)

그러나 이은경(2022)은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중국어 모어화자들이 목적어가 인칭대명사인 경우에도 여전히 ‘的’가 목적어의 앞에 오는 형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그는 ‘的’의 분포가 목적어의 한정성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오히려 운율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 (4) a. 你是什么时候见他的?/你是什么时候见的他?
b. 你是什么时候见到他的?/你是什么时候见到的他? (이은경 2022: 220)

Chao(1968: 297)는 ‘V的O’와 같이 ‘的’가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는 형식은 북방지역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형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은경(2022)은 각 방언지역에서 사용되는 표준중국어 분열문 어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的’의 분포가 지역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즉, 남방지역 화자들은 표준중국어의 분열문을 구사할 때 북방지역 화자들에 비해 ‘的’가 목적어의 뒤에 출현하는 형식을 더 선호하며, 북방지역은 그와 반대로 ‘的’가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는 형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본고는 표준중국어의 ‘的’의 분포적 차이는 각 지역 화자의 모어 방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어 방언구를 7개로 구분하고 각 방언에서의 분열문 실제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분열문의 주요 구성요소인 계사와 속격조사(领属助词)가 각 방언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고, 동시에 표준중국어의 ‘的’에 대응하는 성분이 방언 내에서 어떠한 분포 양상을 보이는지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중국어 분열문의 공식적 변이 기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고찰

... 생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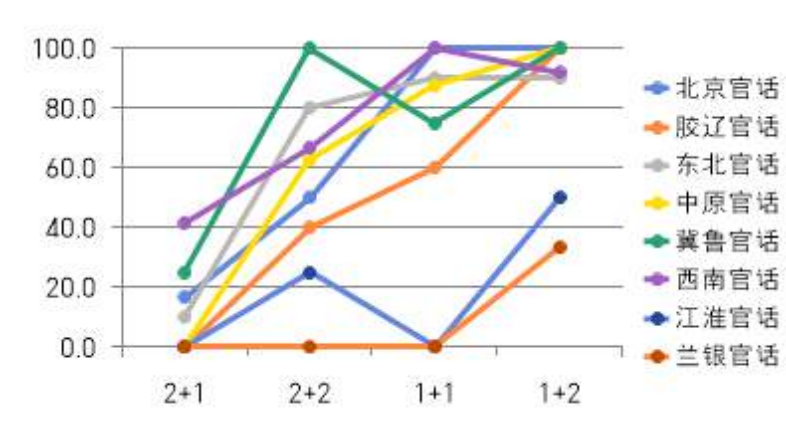
3. 관화지역 방언의 분열문 구성과 어순

본고는 관화지역 방언을 8개 하위 방언구로 구분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 분열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관화지역에서 표준중국어와 동일하게 계사 ‘是’와 속격표지 ‘的’를 사용하여 분열문을 구성하며, ‘是’는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아래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화지역 방언에서 사용되는 분열문의 대표적인 예시를 제시한 것이다.¹⁾

- (5) a. 你(是)啥时候来的? 我(是)昨儿个来的。 (东北官-佳木斯)
 b. 你(是)什么时候来的? 我(是)昨天来的。 (北京官话-北京)
 c. 喃(是)啥时来滴? 俺(是)昨天来滴。 (胶辽官话-大连)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난은관화와 강회관화지역은 다른 관화지역들과 달리 ‘V的O’ 형식보다 목적어의 뒤에 ‘的’가 오는 ‘VO的’ 형식을 더 선호한다. 반면, 북경관화, 동북관화 등 다수의 관화지역에서는 난은관화와 강회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V的O’ 형식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사와 목적어의 음절수 조합에 따른 세부적 선호도에서 방언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북경관화와 동북관화의 경우에는 ‘V1+O1’과 ‘V1+O2’일 때 ‘V的O’ 형식의 사용 비율이 동일하게 가장 높았고, 기노관화의 경우에는 ‘V2+O2’와 ‘V1+O2’일 때 ‘V的O’ 형식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남관화의 경우 ‘V1+O1’일 때 ‘V的O’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나머지 관화지역의 경우에는 ‘V1+O2’일 때 ‘V的O’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음절수별 누적 비율 분석에서는 ‘V1+O2’ 유형인 경우 ‘的’가 목적어의 앞으로 전치되는 현상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V2+O1’ 유형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的’의 위치 이동이 단순한 지역 방언의 차이가 아니라 동사와 목적어의 음절 조합, 특히 운율적 제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V1+O2’와 같이 오른쪽이 무거운 구조에서는 ‘的’의 전치가 용이하지만, ‘V2+O1’과 같이 오른쪽이 가벼운 구조에서는 ‘的’의 전치가 억제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관화 방언에서의 ‘V的O’ 사용 양상

1) 예문 (5.c)의 대련(大连)방언에서 ‘喃’은 2인칭 대명사 ‘你’에 해당하고, ‘俺’은 1인칭 대명사 ‘我’에 해당한다.

4. 중부지역 방언의 분열문 구성과 어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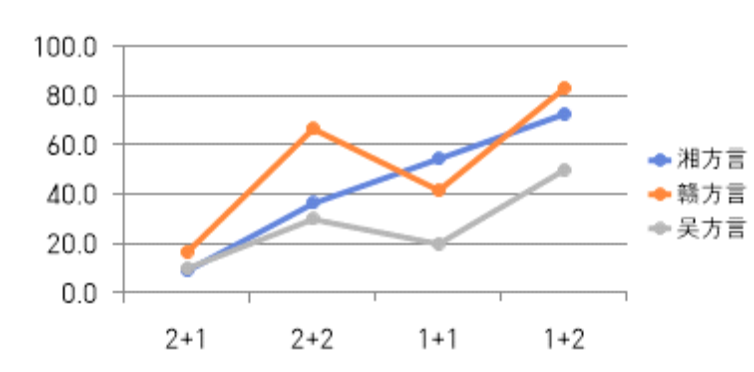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상방언, 감방언, 오방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부지역 분열문의 특징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 방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아래는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부지역 방언에서 사용되는 분열문의 대표적 예를 제시한 것이다.²⁾

- (6) a. 恩(是)么子时候来的? 我(是)昨天来的。 (湘方言-益阳)
 b. 你(是)何时来个? 我(是)昨日来个。 (赣方言-鄱阳)
 c. 尔(是)何事时光来个? 我(是)昨日子来个。 (吴方言-富阳)

본 절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중부 방언에서 공통적으로 계사 ‘是’와 속격표지가 분열문의 핵심 구성요소로 사용되며 계사는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속격표지의 형태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실현됨을 알 수 있었다. 상방언에서는 표준중국어와 동일하게 ‘的’를 사용하였고 오방언에서는 양사 ‘个’를 속격표지로 활용하였으며 감방언에서는 두 형태를 모두 쓰는 혼합적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동사와 목적어의 음절수별 ‘V的O’ 형식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V1+O2’ 유형에서 속격표지가 목적어 앞에 출현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V2+O1’ 유형에서 가장 낮았으며, ‘V1+O1’과 ‘V2+O2’ 유형은 그 중간 수준을 보였다. 또한 상방언과 감방언은 오방언에 비해 전반적으로 속격표지가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는 ‘V的O’ 형식을 더 많이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관화지역과 유사한 운율적 제약이 속격표지의 이동에 작용함과 동시에, 중부 방언 내부에서도 각 방언의 통사적 특성이 속격표지의 분포를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중부 방언에서의 ‘V的O’ 사용 양상

2) (6.a)의 익양(益阳)방언에서 ‘恩’은 2인칭 대명사 ‘你’에 해당하고, ‘么子时候’는 표준중국어의 ‘什么时候’에 해당한다. 또한 (6.c)의 부양(富阳)방언에서 ‘尔’은 2인칭 대명사 ‘你’에 해당하고, ‘何事时光’은 표준중국어의 ‘什么时候’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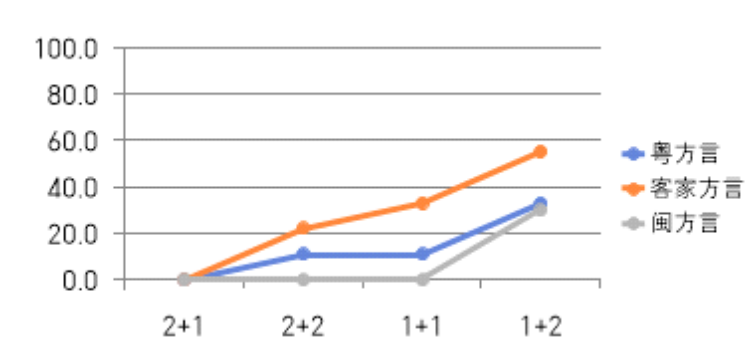
5. 남부지역 방언의 분열문 구성과 어순

본 절에서는 남부지역 방언을 대상으로 분열문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운율적 요소가 속격표지의 전치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아래는 남부지역 방언에서 사용되는 분열문의 대표적인 예시를 제시한 것이다.³⁾

- (7) a. 你(系)咩时候来嘅? 我(系)琴日来嘅。 (粵方言-广州)
 b. 你(是)麻介时候来个? 佢(是)秋晡日来个。 (客家方言-深圳)
 c. 汝(个)珍时来个? 我(个)昨日来个。 (闽方言-揭阳)

본 절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남부지역 방언의 분열문에는 계사와 속격표지가 공통적으로 핵심 구성요소로 출현하며, 계사는 문맥상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화 방언 및 중부 방언과 기본 구조를 공유한다. 그러나 계사와 속격표지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에서는 방언별 변이가 뚜렷하다. 월방언은 주로 ‘系’를 계사로 사용하고 속격표지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嘅’를 사용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个’가 사용된다. 객가방언의 계사는 표준중국어와 동일하게 ‘是’를 사용하고, 속격표지로는 ‘个’를 사용한다. 민방언은 전반적으로 ‘是’와 ‘的’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个’가 계사로 쓰이고 ‘其’나 ‘个’가 속격표지로 쓰이는 변이형이 관찰된다.

다음으로 속격표지의 분포 양상을 보면 남부지역 방언에서도 속격표지가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는 ‘V的O’ 형식이 쓰이기는 하지만, 그 사용 비율은 관화 방언과 중부 방언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따라서 남부 지역에서는 속격표지가 문말에 오는 ‘VO的’ 형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사와 목적어의 음절 구조로 보면, ‘V1+O2’ 유형에서 속격표지의 전치 비율이 가장 높았고, ‘V2+O1’ 유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V1+O1’과 ‘V2+O2’ 유형은 그 중간 수준을 차지하였다.



[그림 3] 남부 방언에서의 ‘V的O’ 사용 양상

6. 결론

본고는 중국어 방언화자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중국어 방언에서의 분열문 형식과 어순을 분석하고 그 공식적 변이 양상과 기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실증 자료를 토대로 각 방언지역 분열문의 구성과 어순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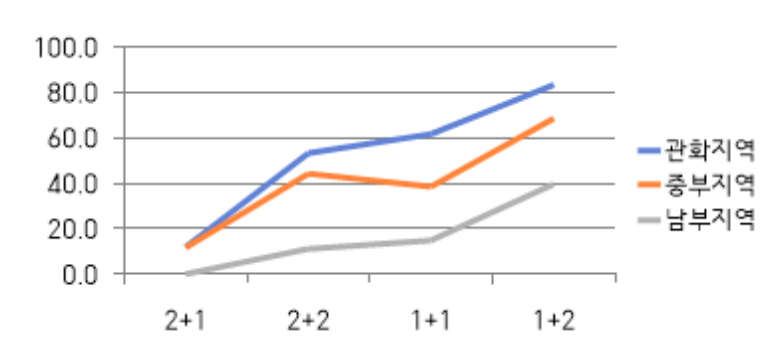
3) (7.a)의 광주(广州)방언에서 ‘咩时候’는 표준중국어의 ‘什么时候’에 해당하고, ‘琴日’는 표준중국어의 ‘昨天’에 해당한다. (7.b)의 심전(深圳)방언에서 ‘麻介时候’는 표준중국어의 ‘什么时候’에 해당하고 ‘佢’는 1인칭 대명사 ‘我’에 해당하며 ‘秋晡日’는 표준중국어의 ‘昨天’에 해당한다. (7.c)의 계양(揭阳)방언에서 ‘珍时’는 표준중국어의 ‘什么时候’에 해당한다.

첫째, 각 방언에서 표준중국어의 ‘是’에 해당하는 계사와 ‘的’에 해당하는 속격표지를 분열문의 주요 구성요소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남부 방언에서 양사가 분열문에 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당 방언에서 양사가 속격표지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방언의 분열문에서 계사 ‘是’에 해당하는 성분은 생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남방 방언의 분열문에서는 속격표지가 목적어의 뒤에 출현하는 빈도가 아주 높지만, 북방으로 갈수록 속격표지가 목적어의 앞에 쓰이는 빈도가 점점 증가한다. 즉, 남방에서는 ‘VO的’의 어순 형식을 선호하는 반면, 북방으로 갈수록 ‘V的O’를 선호한다.

셋째, 운율적인 특징이 분열문의 어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북방과 남방 방언에서 모두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즉, ‘V1+O2’ 유형의 경우 속격표지가 동사의 바로 뒤에 부가되어 ‘V的O’의 형식으로 실현되는 경향이 강하고 반대로 ‘V2+O1’ 유형의 경우에는 속격표지가 문말에 부가되어 ‘VO的’의 형식으로 실현되는 경향이 강하다.

관화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의 분열문에 ‘V的O’ 형식이 쓰인 평균 사용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세 지역 간에 분포적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림 4] ‘V的O’의 방언별 사용 양상

방언에서 보이는 공시적 변이는 지역적 차이와 운율적 요소가 동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방으로 갈수록, 동사의 음절이 짧고 목적어의 음절이 길수록 ‘V的O’의 출현빈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방언과 표준중국어에서의 분열문의 다양한 양상이 출현하는 원인과 기제를 아래와 같이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중국어 방언 분열문의 생성과 발전은 모두 표준중국어의 ‘是...VP的’ 형식과 유사하게 명사화구문에서 기원하였다.

둘째, 남방 방언의 분열문 형식은 명사화구문과 동일한 형식을 갖는 경향이 있고, 북방 방언에서는 속격표지의 분포가 달라짐으로써 새로운 어순 형식의 독립된 분열구문을 발전시키고 있다.

셋째, 속격표지가 문말에서 동사의 바로 뒤로 이동하는 경향은 상적 자질을 획득하는 문법화 과정이며 이는 북방 방언으로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르다.

넷째, 본고에서 분석한 방언 분열문의 변이가 갖는 특징은 각 방언지역에서 구사되는 표준중국어 분열문의 변이와 유사하다. 이는 표준중국어 분열문의 지역에 따른 형식적 차이가 해당 방언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이다. 즉, 방언 모어화자가 표준중국어를 구사할 때 자신의 방언에 기반한 언어적 직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병규(2019), 『중국어 어순의 지리적 변이와 유형학적인 의미』, 역락.
- 박종환·양세욱·김석영(2012), 『중국어의 비밀』, 궁리.
- 이은경(2022), 「현대중국어 분열문에 쓰인 ‘的’의 문법적 기능 고찰」, 『중국문학』 제113집, 205-234.
- 전광진(1996), 『중국어언어학총론』 (Jerry Norman(1988), 『Chine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동문선.
- 최재영·박창수(2018), 《탄탄한 중국어 문법책》, 동양북스.
- 曹志耘(2008), 『汉语方言地图集 语法卷』, 北京: 商务印书馆.
- 戴昭铭(2003), 『汉语方言语法研究和探索』, 黑龙江: 黑龙江人民出版社.
- 方 梅(1995), 「汉语对比焦点的句法表现手段」, 『中国语文』 第4期, 279-288.
- 李晗·李慧敏(2020), 「汉语分裂句的焦点结构与特点分析」, 『中国语言文字』 第4期, 36-39.
- 李讷·安珊笛·张伯江(1998), 「从话语角度论证语气词“的”」, 『中国语文』 第2期, 93-102.
- 李如龙(2001), 『汉语方言学』,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 李小凡·项梦冰(2009), 『汉语方言学基础教程』,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 柳俊·盛益民(2023), 『汉语方言位移表达研究』, 中西书局.
- 刘月华, 潘文娉, 故韞(2001), 『实用现代汉语语法』, 商务印书馆.
- 牛秀兰(1991), 「关于“是…的”结构句的宾语位置问题」, 『世界汉语教学』, 第3期, 175-178.
- 彭小川(2003), 「关于“的”的一些思考 - 从广州话没有三个“的”说起」, 『汉语方言语法研究和探索』 (戴昭铭(2003), 黑龙江: 黑龙江人民出版社), 164-170.
- 汤廷池(1981), 「国语分裂句、分裂变句、准分裂句的结构与限制之研究」, 『语言学与语言教学』, 台湾学生书局, 177-204.
- 王培光·张惠英(2003), 「说“个、的”可以表示完成、持续」, 『汉语方言语法研究和探索』 (戴昭铭(2003), 黑龙江: 黑龙江人民出版社), 195-206.
- 赵淑华(1979), 「关于“是……的”句」, 『语言教学与研究』 第1期, 57-66.
- Chao, Yuen-Ren (1968), A Grammar of Spoken Chines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espersen, O. (1937[1969]), Analytic syntax,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Matthews, S. & Yip, V.(2011), Cantonese: A Comprehensive Grammar, London; New York: Routledge.
- Tang, S.-W. (2011), On Gerundive Nominalization in Mandarin and Cantonese, Nominalization in Asian Languag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47-160.
- Teng Shou-hxin (1979), Remark on Cleft Sentences 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7(1), 101-114.
- Wu, Guo (1998), Information Structure in Chinese, Peking University Press.

"-e hata" in Korean and deem construction in Chinese

Park, Hyukjae(朴赫在)*

<目 次>

【 국문초록 】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background
 3. Syntactic structure of "-e hata" construction
 4. Syntactic structure of psychological adjective construction
 5. Comparison with Chinese deem construction
 6. Conclusion
- Reference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한국어 '-어 하다' 구문 및 심리형용사 구문을 최소주의 생성문법의 경동사 이론을 기초로 분석하며, 중국어의 유표·무표 의동(意动) 구문과 비교한다. 기존에 한국어 '-어 하다'를 보는 관점에는 '명사절 보문소 + 타동사 하다'설과 복합동사설이 있다. 전자는 '-어 하다' 구문의 대격부여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며, 후자는 정도 부사어 수식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어 하다'를 경동사로 볼 때만, 대격부여와 부사어 수식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한국어 심리형용사 구문은 주격 중출현상을 보이는데, 최형강(2002)은 '이/가' 보격조사설로, 박재희(2017)는 내연술어설로 이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어 하다' 구문의 분석과 중국어의 의동 구문 연구를 기초로 한국어 심리형용사 구문을 내현 경동사설로 설명한다.

한국어의 '-어 하다' 구문, 한국어 심리형용사 구문, 고대중국어 유표 의동 구문('以~为~), 고대 중국어에서 심리형용사가 구성하는 무표 의동구문은 경험자 외부논항 도입, '주어가 어떤 대상에 대해 갖는 느낌이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어 하다'는 <대상>역을 갖는 논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대격을 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공통점과 특징은 경동사 v<consider>를 도입할 때, 설명할 수 있다.

핵심어 : '-어 하다', 심리형용사, 의동, 경동사 v<consider>, 최소주의 생성문법

* Konkuk University, Convergence Innovative Education Center, Academic Adviser

1. Introduction

In Korean, the -e hata construction is similar to psychological adjective constructions in both meaning and argument structure.

- (1) a. 김영감은 영화가 예쁘다.
 b. 김영감은 영화를 예뻐한다.
 (2) 영화가 예쁘다.

In (1a), 예쁘다 denotes the feeling or attitude that the subject 김영감 has toward the noun phrase 영화. This corresponds to (1b), where 영화를 appears with 예뻐한다. Its meaning is different from 예쁘다 in (2), which merely describes 영화's attribute. In addition to this semantic difference, (1a) shares the same argument structure as (1b), namely <Experiencer, Theme>.

Moreover, -e hata can combine with all types of psychological adjectives.

- (3) a. 철수는 춥다.
 b. 철수는 추워한다.
 (4) a. 철수는 팔이 아프다.
 b. 철수는 팔을 아파한다.
 (5) a. 나는 그가 떠난다는 것이 아쉬웠다.
 b. 나는 그가 떠난다는 것을 아쉬워했다.

In the examples above, -e hata combines with a one-place predicate "춥다", a two-place predicate "아프다", and a three-place predicate "아쉽다".

This paper argues that -e hata in (1b) functions as an overt, strong light verb, whereas (1a) involves a covert, weak light verb. The analysis will be carried out in comparison with the Chinese deem (意动) construction.

2. Theoretical background

In Minimalist Syntax within generative grammar, the transitive light verb *v* has three roles (Radford 2009):

- 1) it assigns dative Case to its inner argument.
- 2) it assigns a thematic role, such as <Agent>, to its outer argument.
- 3) it establishes an Agree relation with its outer argument.

We may assume that Korean also requires a light verb that performs functions (1) and (2). Several studies have argued that in Korean, (N)+hata and -e cwuta function as light verbs (안희돈 2000; 이연화 2012, among others).

In Archaic Chinese, the deem (cogitative) construction is attested (Feng 2015; 김종호 2023). Its meaning and argument structure can be explained by positing a light verb *v*<consider>, as in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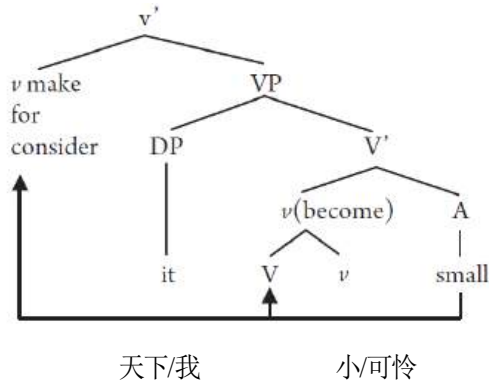
(6) a. 登泰山而小天下。 [Feng 2015:231]

‘Confucius climbed Mt. Tai and considered all the world small.’

b. 可怜我吧。 [오문의 1993:87]

‘Please treat me as a poor one!’

(7)



3. Syntactic structure of "-e hata" construction

Two main approaches have been proposed regarding the syntactic structure of the -e hata construction.

The first is the "nominal clause complementizer + verb" approach. Within the framework of generative grammar, Hong (1986, 1990) and Kim (1990) argue that -e functions as a complementizer linking the preceding clause to the verb hata. Their approach is motivated by sentences such as (8).

(8) a. 김영감이 영화를 예뻐하다.

b. [김영감이 영화를 예뻐]를 한다.

In (8b), the particle -rül is attached to the adjectival predicate 예뻐. If -rül is analyzed as a dative particle, it could be considered as attached to the nominal clause [김영감이 영화를 예뻐]. However, this analysis does not explain how 영화 in the clause receives dative Case. By contrast, Im (1999), Shin (2016), among others, argue that -ül/-rül can function not only as a Case particle but also as an auxiliary particle.

(9) a. 철수가 영화를 선물을 주었다.

b. 철수가 영화를 손을 잡았다.

c. 철수가 벽을 신문을 붙였다.

d. 철수가 영화를 아내를 삼았다.

e. 철수가 사과를 하나를 먹었다.

f. 주방장은 무를 채를 쳤다.

g. 철수가 언어학을 연구를 하였다.

h. 아이가 밥을 먹지를 앓는다. [Shin 2016:6-7]

The examples in (9) illustrate Korean double-accusative constructions, where one occurrence of -ül/-rül highlights the speaker's focus. From this perspective, the -ül/-rül following the adjectival predicate in (8b) can likewise be interpreted as an auxiliary particle marking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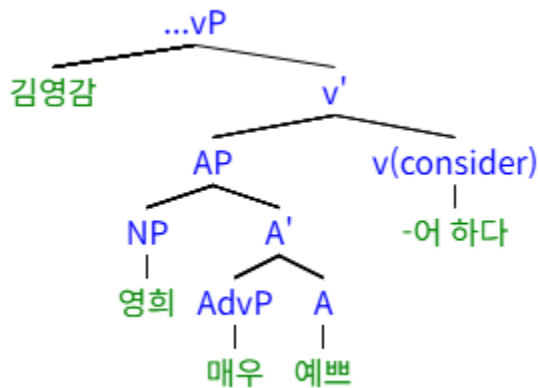
The second approach is the “complex/psychological verb” approach. Lee (2009) analyzes V+e hata as a complex verb with transitive properties, while Kim (1989) and Kim (2021) treat it as a psychological verb. This view accounts for the Case-marking puzzle in (8a), but it faces difficulties with adverbial modification, as seen in (10)–(11).

- (10) a. 그 여자는 {매우, *잘} 예쁘다.
 b. 그 여자는 {*매우, 잘} 된다.
 (11) 김영감이 영화를 {매우, *잘} 예뻐한다.

According to Yu (2003), Korean adjectives can be modified by degree adverbs such as 매우, but not by manner adverbs such as 잘, as shown in (10). Interestingly, 예뻐하다 in (11) also allows modification by 매우, like adjectives do. This suggests that Adjective + e hata forms, such as 예뻐하다, retain adjectival properties.

If the Korean -e hata construction is derived from a light verb v<consider>, parallel to Archaic Chinese (Feng 2015; 김종호 2023), then (11) can be analyzed as in (12).

(12)



According to Park (2025), the -e hata construction exhibits three properties:

- 1) it carries the semantic feature [-agentive],
- 2) it requires a <Theme> argument, which receives dative Case, and
- 3) it introduces an external <Experiencer> argument.

If -e hata is treated as a light verb with the <consider> feature, these properties can be systematically explained.

4. Syntactic structure of psychological adjective construction

According to Choi(2002), psychological adjective constructions may exhibit a double nominative property, where the second nominative argument can be analyzed as a complement.

(13) a. 난희는 사자가 무섭다.

b-1. 옛날 이야기는 난희가 사자가 무섭게 했다.

b-2. ?옛날 이야기는 난희를 사자가 무섭게 했다.

b-3. *옛날 이야기는 난희가 사자를 무섭게 했다. [Choi 2002:539]

Examples (13b-1)–(13b-3) are causativized forms of (13a). Only the preceding argument 난희 can receive objective Case. Thus, 난희 in (13a) is the actual subject, while the following nominative 사자 must be analyzed as a complement. In this view, the particle -ka/-i on 사자가 functions as a complement Case marker.

According to Park (2017), psychological adjective constructions have the following properties:

- 1) the <Experiencer> argument is introduced in sentence-initial position,
- 2) the <Experiencer> is not an argument of the adjective, and
- 3) the first-person speaker must be realized in the sen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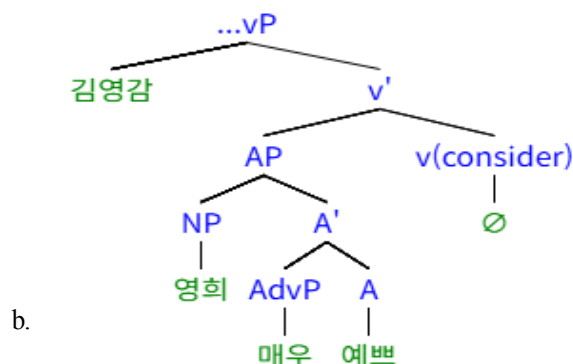
To account for these properties, Park (2017) proposed that a covert predicate <feel> is introduced in the construction, as in (14b). To explain the first-person constraint, Park also posited a covert predicate <guess>, which requires 'I' as its specifier. However, we do not adopt this constraint, since examples such as 그는 고향집이 그리워 are fully grammatical, where predication shifts from the subject 그 to the speaker.

(14) a. 나는 뱀이 무섭다.

b. [...AP [나] [FP [AP 뱀 무섭다] [<feel>]]] [Park 2017:56]

In our view, the covert predicate <feel> can be replaced with the light verb v<consider>. Thus, the psychological adjective construction in (15a) can be analyzed as in (15b).

(15) a. 김영감은 영화가 무척 예쁘다.



We argue that the light verb *v<consider>* carries semantic features related to cognitive processes, including both feeling and consideration. The strength of our analysis lies in its ability to account for the derivation of both the *-e hata* construction and psychological adjective constructions in an integrated manner, as shown in (12) and (15a), while also incorporating the main insights of Choi (2002) and Park (2017).

5. Comparison with Chinese deem construction

We now compare our integrated analysis of the Korean *-e hata* and psychological adjective constructions with the analyses of the Chinese deem construction by Feng (2005) and Kim (2023). Both languages display an overt light verb *v<consider>*.

- (16) a. 君若以臣爲有罪, 請囚於費, 以待君之察也。《左傳·昭公31年》
 ‘If Your Majesty considers me guilty, ...’
 b. [...vP1 [DP 君] [v1<consider> 以] [vP2 [DP 臣] [v2<be> 为] [vP3 有罪]]]

According to Feng (2005), 以 functions as an overt light verb *v<consider>* in Archaic Chinese, in a way comparable to *-e hata* in Korean.

In addition, both languages allow a covert light verb *v<consider>*.

- (17) a. 文王以民力爲臺 (文王以民力)爲沼, 而民歡樂之。《孟子·梁惠王章句上 2-3》
 ‘... (yet) the people considered it enjoyable.’
 b. [...vP1 [DP 民] [v1<consider> Ø] [vP2 [DP 之] [v<be> Ø] [AP 歡樂]]]

According to Kim (2023), a covert light verb *v<consider>* is present in the clause 民歡樂之. Due to its syntactic and phonological properties, *v<consider>* attracts the AP to its position through *v<be>*, yielding the surface order 民 – 歡樂 – 之.

Despite these similarities, there ar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First, in terms of the light verb layer, Korean has a single light verb layer, as in (12) and (15b), whereas Chinese exhibits two layers, including *v<be>*, as in (16b) and (17b).

Second, in terms of subcategorization, Korean *-e hata* combines not only with psychological adjectives, but also with qualitative adjectives and psychological transitive verbs, as in (18). In Chinese, both 以 and the covert *v<consider>* can combine with qualitative adjectives, transitive verbs, and even noun phrases, as in (19).

- (18) a. 영희는 아주 겸손해했다. [Kim 1989:159] <qualitative adjective>
 b. 그는 첫사랑을 못 잊어 한다. [표준국어대사전] <psychological transitive verb>
 (19) a. 孔子..., 登太山而小天下。《孟子·盡心章句上 24-1》 <qualitative adjective>
 ‘Confucius climbed Mt. Tai and considered all the world small.’
 b. 君若以臣爲有罪, 請囚於費, 以待君之察也。《左傳·昭公31年》 <transitive verb>
 ‘If Your Majesty considers me guilty, ...’
 c. 未有義而後其君者也。《孟子·梁惠王章句上 1-5》 [Kim 2023:20, 28] <noun>
 ‘There has never been one who considered his king inferior.’

In (19c), 後 literally means ‘back’ in Archaic Chinese, but it is used here in the derivation of the deem construction.

6. Conclusion

This study analyzed the Korean -e hata and psychological adjective construc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light verb theory in Minimalist Syntax. The overt light verb -e hata is strong, as it assigns dative case to the inner argument. In contrast, the unpronounced v<consider> in psychological adjective constructions is weak and covert, introducing only the <Experiencer> argument and carrying the meaning of "deem."

We further extended our analysis to Chinese. In both Korean and Chinese, we demonstrated that the properties of -e hata, psychological adjective constructions, and the 以~为~ and deem constructions can all be accounted for by positing the light verb v<consider>.

Reference

- Feng, Shengli(2015), "Light verb syntax between English and classical Chinese", Chinese Syntax in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Oxford: OUP.
- Radford, Andrew(2009), Analysing English Sentences : A Minimalist Approach,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冯胜利(2005), 「轻动词移位与古今汉语的动宾关系」, 『语言科学』 4(1).
- 杨伯峻(1956), 『文言语法』, 北京: 北京出版社.
- 社广慧(2019), 『新编汉语形容词词典』, 北京: 商务印书馆.
- 김세중(1989), 「국어 심리형용사문의 몇 가지 문제」, 『어문연구』 25(1).
- 김선혜(2021), 「『-ㄴ, ㄹ 것 같다』 구문에 쓰인 ‘같다’에 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9.
- 김종호(2023), 「『맹자』 무표 의동 사건의미 구의 생성과 도출 해석」, 『중국학연구』 104.
- 김홍수(1988), 「현대국어의 심리동사 구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멘쑉끼응(2016), 「『-어하다』 구문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 접어(clitics) 논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 박선옥(2005), 『국어보조동사의 통사와 의미 연구』, 서울: 역락.
- 박재희(2017), 「경험주 논항과 심리 표현 형용사 구문의 의미·통사구조」, 『반교어문연구』 46.
- 박혁재(2025), 「한국어 ‘-어하다’의 경동사성 연구」, 한국언어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신서인(2016), 「대격 중출 구문에서의 ‘을/를’의 기능 연구 - 타동성을 중심으로 -」, 『우리말글』 68.
- 안희돈(2000), 『영어와 한국어의 통사구조 연구』, 서울: 경진문화사.
- 오문의(1993), 「현대중국어 형용사와 논항」, 『중국언어연구』 2.
- 유현경(1997), 「심리형용사 구문에 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2(1).
- 이연화(2012), 「V+V 경동사복합술어 분석」, 『언어연구』 28(2).
- 이호승(2009), 「[V-어+지다], [V-어+하다] 구성과 복합술어」, 『어문연구』 62.
- 임홍빈(1999), 「국어 명사구와 조사구의 통사구조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4.
- 최형강(2002), 「주격 중출 구성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7.
- 홍종선(1986), 『국어 체언화구문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홍종선(1990), 「체언화 어미 ‘~어’, ‘~게’, ‘~고’의 의미」, 『(고려대학교) 어문논집』 26.

조선시대 중국어교육에 대하여

朝鮮時代漢語教育試論

李繼征*¹

<目 次>

【摘要】

1. 引言
2. 朝鮮時代漢語教學的歷史背景
3. 朝鮮時代的漢語教材
4. 朝鮮時代的譯官制度
5. 結語
參考文獻

【摘要】

朝鮮時代(1392-1910)作為半島歷史上長期存在的王朝，其政治、經濟、文化等方面均得獲得了全面的發展。其中，尤其該時期的漢語教育不僅擁有悠久且獨特的歷史發展軌跡，還逐步形成了完善的教學體系，湧現出大量優秀的教學材料，豐富多樣的教學資源與經驗使其成為東亞漢語教育史研究的寶貴遺產。

針對朝鮮時代的漢語教育，韓中兩國學者早已予以高度關注，並積累了豐碩的研究成果。朝鮮王朝(1392-1910)奉行“事大”政策，與中國維持著密切的外交與文化交流，漢語教育因而成為國家層面的重要事務。在此背景下，相關研究涵蓋了教育制度、教材編纂、語言本體及文化交流等多個維度。韓國學界在此領域的探索起步較早，基礎深厚。林東錫於1983年發表的論著，系統地考察了朝鮮譯學機構（如司譯院）的

* 水原大學 國際人才學院 助教授

設置、職能及其在漢語翻譯人才培養中的作用。其1989年的研究進一步擴展視野，全面梳理了朝鮮時代外語教學，特別是漢語教學的整體面貌與演進歷程。其後，李建衡（1990）、李相度（1995）、梁伍鎮（1998）、鄭光（1998）、李秉憲（2001）等學者亦從不同側面深化了相關研究，或聚焦於特定教材（如『老乞大』、『朴通事』）的文本分析，或探討漢語語音、詞彙在朝鮮的接受與演變，共同構築了該領域堅實的研究基礎。

中國學界的研究，則隨著國際中文教育事業的發展與域外漢籍整理工作的推進，在近二三十年間取得了顯著進展。其中，文獻的系統性挖掘與整理成果尤為突出。汪維輝於2005年編纂的『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彙輯了『原本老乞大』、『老乞大諺解』、『朴通事諺解』、『訓世評話』等十種珍貴教材。其後，汪維輝與遠藤光曉、朴在淵、竹越孝等學者於2011年合作推出『叢刊續編』，收錄了『騎著一匹』、『中華正音』、『華音撮要』等此前罕見的海內孤本，極大豐富了19世紀中晚期漢語口語研究資料。2022年，汪維輝又出版了『朝鮮時代漢語教科書十種匯輯』，對核心文獻進行了新版彙編與精校。這些叢刊不僅提供了寶貴的點校本，還附以原始影印，並由學者撰寫解題，考鏡源流，為學界提供了高質量的第一手研究資料。這些文獻動態地揭示了從元末至清代北方漢語的發展軌跡，成為研究近代漢語、漢語教育史以及中朝文化交流不可或缺的重要依據。除此外，還湧現出大量優秀研究成果如李德春(2004)，張美蘭(2011, 2012, 2013)，王平(2012)，李光華(2016)等。

當前，面對第四次工業革命及人工智能時代所帶來的機遇與挑戰，國際中文教育正經歷深刻變革。數字化技術與智能平臺的發展，對教學模式、資源形態以及學習路徑均提出了新要求。在此背景下，本文旨在系統梳理朝鮮時代漢語教育的歷史背景、機構設置（如司譯院等）、教材體系（從『老乞大』、『朴通事』到後期的『華音啟蒙』等）及其教學方法（如諺文注音、口語會話訓練等）。通過審視歷史上漢語在半島的有效傳播經驗，特別是在教材編纂如何貼近實際語言生活（強調口語與商貿用途）以及制度化保障等方面的特點，以期為新環境下韓國中文教育的創新發展，尤其是在課程設計、資源建設與技術應用融合等方面，提供有益的歷史借鑒與思路啟發。

参考文献(部分)

金慶門, 『통문관지(通門館志)』

申叔舟,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역관상언등록(譯官上言謄錄)

1. 姜信沆, 1966, 「李朝時代의 譯學政策에 관한 考察-司譯院・承文院 設置를 中心으로-」, 『大東文化研究』第2輯,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2. 林東錫, 1983, 『朝鮮譯學考』, 首爾: 亞細亞文化社印本.
3. 李建衡, 1990, 「朝鮮王朝의 譯學教育」, 『大邱大學校論文輯』16輯.
4. 李相度, 1995, 『朝鮮時期의 漢語教學에 대한 研究』, 外國語大學校博士學位論文.
5. 梁伍鎮, 1998, 『老乞大朴通事 研究』, 太學社.
6. 鄭 光, 1998, 『司譯院 譯學書 冊版 研究』, 高麗大學出版部.
7. 金珞榮, 1993, 「朝鮮 後期 雜學教育 小考-譯學, 醫學 教育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8. 김지윤, 2000, 「朝鮮後期 中國語 試驗 研究-評價領域을 中心으로」, 梨花子大學校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9. 梁伍鎮, 2000, 「韓國에서 中國語 譯官養成에 대한 歷史的 考察」, 『中國言語研究』第11輯.
10. 기수진, 2002, 「朝鮮朝 司譯院 中國語 教育 研究」, 韓國外國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1. 金良洙, 2003, 「朝鮮 後期 譯官에 대한 一研究」, 『東方學志』39輯, 延世大學校東方學會.
12. 李得春, 2004, 「朝鮮王朝의 外語教育華語學習」, 『二重言語學』第25號, 二重言語學會.
13. 李秉憲, 2001, 「朝鮮時代 譯學教育-通文館案을 中心으로」, 『상지영서대학논문집』第20집.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2부

20. 중국어교육(3)

위당관 212호

**중국어 교재와 교육 연구:
공생과 혁신을 위한 탐색**

시노포비아 시대의 중국어 교육

- 한국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 분석과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 혁신

김예은*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한국 중국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4. 교육 혁신 방안
 5. 실천 사례와 제언
 6.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시노포비아(Sinophobia, 반중 정서)가 확산되는 현 시대에 한국의 중국어 교육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분석하고,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을 중심으로 문화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반중 정서가 이례적으로 심화되면서 중국어 학습자들의 동기, 태도, 불안감 등 정의적 요인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중국어 교육이 단순한 언어 기능 습득을 넘어 상호문화적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을 주장한다. 문헌 분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 중국어 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의적 요인 개선과 문화간 이해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혁신 전략을 제안한다.

키워드: 시노포비아, 중국어 교육, 문화 역량, 교육 혁신

1. 서론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중국어는 영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제 언어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왔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시노포비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어 교육 현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노포비아’는 중국인과 중국 문화에 대한 편견, 적대감, 차별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Pew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02년 31%에서 2008년 49%로 증가했으며, 2022년 The Diplomat의 조사에서는 81%의 한국인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다. 이는 전 세계 5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한국의 반중 정서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중국어 교육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어 학습자들은 중국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어 학습의 실용성과 필요성에 의문을 갖게 되거나, 직접적인 중국어 비하 발언 및 혐오 표현을 마주치는 등, 학습 동기와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국내 반중 정서가 더욱 악화되면서, 중국어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 선택을 정당화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도전적 상황에서 중국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affective factors)에 주목하여, 학습 동기, 태도, 불안감 등이 시노포비아의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을 제안한다. 나아가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 방안을 탐색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시노포비아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적 양상

한국의 시노포비아는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얽혀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한국전쟁, 2004년 동북공정 논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중 발생한 충돌 등이, 정치적으로는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주요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 THAAD 배치로 인한 경제 보복, COVID-19 팬데믹 등 이슈가 반중 정서를 더욱 심화시켰고, 김치-파오차이 논란 및 한복-한푸 논란, 한한령(限韓令)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갈등은 MZ세대의 시노포비아 현상을 특히 악화시켰다.

주목할 점은 최근 한중 간 '문화 도용(cultural appropriation)' 논란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MZ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치, 한복, 단오절, 공자, 한자 원조 등을 둘러싼 논쟁에서 SNS 이용자들은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보다는 감정적 대응에 치중하며, 이로 인해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비판적 사고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SNS의 빠른 전파력과 결합되어 상호 간의 오해를 증폭시키고, 문화적 우월감과 피해의식을 동시에 자극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 내 일부 네티즌들의 비주류적 혐한 발언과 영상 콘텐츠가 한국의 온라인 공간으로 유입되고 급속히 확산되면서, 마치 중국 내 주류 여론인 것처럼 왜곡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2022년 7월 Baidu 검색 결과에 따르면, '반한정서(反韓情緒)'에 관련된 게시물은 약 666,000건으로 '반미정서(反美情緒)' 8,910,000건의 13%, '반일정서(反日情緒)' 7,600,000건의 11% 수준에 불과해, 중국 내 반한 감정이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시사한다¹⁾. 실제로 중국 내 극단적 국수주의와 혐한 정서는 중국 사회 내에서도 비판받는 비주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단적 목소리가 한국 온라인 공간에서 과대 해석되면서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한국 MZ세대의 반중 정서는 과거의 정치군사적 갈등을 초월하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배타성을 띠게 되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20대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중국을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이는 중국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 기피 현상 및 정의적 동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 간 소통과 이해를 위한 언어 교육이 오히려 문화적 편견에 의해 위축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2. 외국어 교육에서의 정의적 요인

'정의적 요인(affective factors)'은 외국어 학습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인으로서 오랫동안 제2언어 습득 연구의 중심에 자리해 왔다. Gardner(1985)의 사회교육 모델(Socio-educational Model)은 학습자의 태도, 동기,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이 제2언어 습득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정의적 요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다. 특히 Gardner는 통합적 동기(integrative motivation)와 도구적 동기

1) 이승희. (2023). 한중 MZ세대의 '감성 애국주의'. 중국문화연구, 59, 113-132.

2) 이동규, 강충구. (2023). 한국 청년 세대의 대중 인식 악화와 대응 (이슈브리프 2023-22). 아산정책연구원.

(instrumental motivation)를 구분하여 학습자가 목표 언어 공동체에 대해 갖는 태도와 정서적 유대감이 언어 학습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이후 Horwitz 등(1986)은 외국어 학습 불안(Foreign Language Anxiety)의 개념을 정립하며 언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 요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출발점을 제공했다³⁾.

한국의 외국어 교육 맥락에서도 정의적 요인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입증되어 왔다. 박혜숙(2006)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의 동기와 불안감이 영어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화적/소통적 언어학습 지향성은 말하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불안감은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는 학습자의 긍정적 태도와 동기가 언어 수행 능력을 촉진하는 반면,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언어 학습을 저해한다는 일반적 가정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중국어 학습의 맥락에서도 정의적 요인의 영향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 학습자들의 중국어 학습은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관계로 인해 다른 외국어 학습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정서적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문화적 인식, 정치적 관계, 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습자의 동기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어 학습 성취도와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 교육에서는 언어적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키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2.3. 상호문화 역량과 문화간 의사소통

상호문화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핵심 역량으로 부상했다. Chen과 Starosta(2000)는 상호문화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을 상호문화 역량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으며, 이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상호문화 역량의 구성 요소들 중 상호문화 감수성은 타문화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공감 능력을 포괄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⁵⁾.

외국어 교육에서 상호문화적 접근은 단순한 언어 기능 습득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공감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서는 언어 교육이 "평화로운 공존의 기초를 제공한 다"고 명시하며, 상호문화적 관점을 언어 교육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 학습은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목표 언어 및 목표 문화와 상호작용하며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중국어 교육에서도 상호문화 역량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임연정(2017)은 한국 대학 중국어 학습자의 문화 간 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 학습자들의 상호문화 감수성이 학습 동기와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⁶⁾. 특히 Chen과 Starosta(2000)의 상호문화 감수성 측정도구(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어 학습자들이 상호문화적 상호작용에서 필요한 적응력과 개방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程鈺情과 박형춘(2020)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 중국어 전공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이 중국 방문 경험, 일일 학습시간, 중국인 지인 보유 여부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⁷⁾. 이는 중국어 학습에서 직접적인 문화 체험과 노출이 상호문화 역량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3) 김정자. (2016). 외국어 학습의 정의적 요인에 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79, 171-196.

4) 박혜숙. (2006). 동기와 언어불안감이 영어 말하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3(4), 219-241.

5) 이원희. (2018). 학문목적 학습자의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상호문화 감수성 연구. 이중언어학, 72, 187-219.

6) 임연정. (2017). 중국어 학습자의 문화 간 감수성 분석 및 교육방안 제안 - W대학교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 중국인문과학, 66, 167-191.

7) 程鈺情, 박형춘. (2020). 한국 대학 중국어 전공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조사 연구. 국학연구론총, 25, 205-226.

이원희(2018)의 연구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상호문화 감수성 연구를 통해 상호문화교육에서의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실제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어 교육에서 상호문화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한중 관계의 복잡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국 간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습자들의 정의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선 상호문화적 이해와 소통 능력의 함양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국어 교육에서는 언어 능력과 더불어 상호문화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공감력과 소통 역량을 동시에 개발하는 교육적 접근이 요구된다.

3. 한국 중국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3.1. 교육과정상의 위상 문제

한국의 중국어 교육은 제도적 구조에서 다른 과목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어 교육과정의 변천사를 분석한 결과, 영어의 독점적 지위가 점차 공고해진 반면 중국어는 구조적으로 주변화되었다⁸⁾. 구체적으로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편제되어 있는 반면, 중국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에서 선택과목으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수업 시수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은 중국어 학습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 영어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연속적 학습이 보장되는 반면, 중국어는 중학교에서 처음 시작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다른 제2외국어로 전환하거나 아예 제2외국어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 학습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특히 대학 입시에서 제2외국어의 비중이 매우 낮고 영어 위주의 평가 체제가 유지됨에 따라 학습자들의 동기 유지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교육과정상의 제약이 학습자들의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다. 제한적인 수업시수와 단편적 학습 경험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중국과 중국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하며, 학습의 연속성과 체계성이 한정되다보니 학생들의 왜곡된 대중정서나 정의적 요인을 개선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피상적이고 왜곡된 인식의 고착화로 이어진다. 특히 현재와 같이 시노포비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중국어 교육을 통한 상호문화적 이해 증진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은 심각한 교육적 공백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 영어 교육의 열풍이 국제 공용어로서의 기능보다는 주요한 학력 평가 도구로서의 역할에만 기인한다는 점(손민정, 2016)을 고려할 때, 중국어 교육 역시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상호문화 역량 개발과 정의적 요인 개선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과정 구조는 이러한 교육적 목표 달성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이 일방적인 대중매체나 왜곡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균형 잡힌 문화적 이해를 형성할 교육적 기회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3.2. 시노포비아가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노포비아의 확산은 한국의 중국어 학습 환경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학습자, 교사, 그리고 교육 정책 차원에서 다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반중 정서의 확산은 중국어 교육의 근본적 토대를 위협하고 있다.

1) **학습자 층위의 영향:** 학습자들이 직면하는 불안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한국일보-언더스코어 조사(2025년 5-6월)에 따르면 만 16-22세 1,0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10대 남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강한 반중 정서가 확인되었으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2022)의 조사에 따르면 19-29세의 67.3%가 중국에 대해

8) 손민정. (2016). 중·고등학교 중국어 교육 위상 제고 방안. 중국문학, 89, 161-182.

비호감을 나타냈다. 이는 전 연령대 평균 53.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반중 정서는 중국어 학습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학습자들은 중국어를 배운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꺼리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매국노", "친중파"라는 비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중국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후 귀국했을 때 실제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였다. 주변 지인에게 중국어 전공 사실을 밝혔을 때 "중국 거기 무서운 동네 아니냐?", "아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럼 너 시진핑 개** 할 수 있어?" 등의 반응을 받았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은 시노포비아로 인해 중국어 학습자들이 받는 사회적 압박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어를 콘텐츠로 하는 한국인 크리에이터들의 영상 게시물에도 노골적인 혐오표현이 포함된 악플이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다.



<그림1> 중국어 관련 콘텐츠 한국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온라인 악성 댓글 및 메시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어를 콘텐츠로 다루는 한국인 크리에이터의 계정에는 위와 같은 악성 댓글이 끊임 없이 게시되고, 악의적인 DM(개인 메시지) 또한 수도 없이 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학습자의 자신감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학습 불안을 증가시켜, Gardner(1985)가 강조한 통합적 동기의 형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2) 교사 및 교육 현장의 어려움: 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중국 문화를 소개하거나 중국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할 때 학생들의 저항과 반발에 직면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중국어 학습 자체를 반대하며, 심지어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2024년 다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중국 국기를 게양했다가 학부모들의 강한 항의로 해당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⁹⁾. 해당 학교는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매달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의 국기를 태극기와 함께 게양하고 있다”며 “그 동안 캄보디아, 대만,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일본 국기 등을 한 달씩 게양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국기 차례가 되자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중국 국기 게양 2주만에 해당 프로그램 전체가 폐지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교육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2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중국어 교사 선발 인원이 사상 최초로 '0명'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1997년 중국어 교사 선발이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¹⁰⁾.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채용된 중국어 교사 수가 평균 70명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

9) 중앙일보, "서울 초등학교에 오성홍기 필력... '중국학교냐' 논란, 무슨 일", 2025년 1월 27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3954>

10) 경기신문, (2021). 중국어 교사가 사라졌다... 시험도 못 치는 임용준비생들.

한 급격한 변화는 "제2외국어 자체의 수요가 떨어지고 반중 감정의 심화로 학생들이 중국어를 꺼리는 현상"의 직접적 결과로 해석된다.

3) 학습 동기와 정의적 요인에 대한 파급효과: 이러한 환경적 제약은 목표 언어 및 목표 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외국어 학습에서 목표 언어 공동체에 대한 호감도와 문화적 개방성은 학습 성취와 교습 효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의 시노포비아 확산 상황은 이러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중국어 교사 임용 준비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년에도 자리가 없을 것 같다", "들쭉날쭉 선발하니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는 절망적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3년간 준비해온 예비교사들이 다른 직종을 알아보거나 휴학을 신청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중국어 교육 인력의 질적 저하와 교육 지속성의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시노포비아의 확산은 단순히 사회적 정서의 문제를 넘어 중국어 교육 생태계 전반의 붕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들의 정의적 요인 개선과 상호문화적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적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3. 정의적 요인의 부정적 변화

시노포비아의 영향으로 중국어 학습자들의 정의적 요인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관찰된다.

1) 학습 동기의 복합적 저하: Gardner와 Lambert(1972)의 동기 이론에 따르면, 목표 언어와 그 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내재적 동기의 핵심이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중국어 및 중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 저하와 위상 하락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중국어 자체를 배우고 싶어하는" 내재적 동기가 약화되고, 도구적 동기만 남게 되는 경향이 있다. 취업이나 진학을 위한 도구적 동기는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이마저도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표면적으로만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2) 사회적 정체성 위협과 부정적 태도 형성: 앞서 언급한 문화 원조 관련 논란은 한국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중국 문화 전체에 대한 거부감을 형성하고, 중국에 대한 편견을 내재화시키고 있다. 특히 한복, 김치 등 전통 문화 관련 갈등은 중국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에 대한 도덕적 부담감마저 조성한다. Dörnyei(2005)의 제2언어 동기적 자아체계(L2 Motivational Self System)에 따르면, 학습자의 이상적 자아와 당위적 자아가 충돌할 때 학습 동기가 저하된다. 현재 중국어 학습자들은 "중국어를 잘하는 자신"을 상상하기 어려워하며, 오히려 중국어 실력이 향상될수록 주변으로부터 "친중파"라며 매도당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3) 문화 학습 회피와 의사소통 능력 발달 저해: 중국 대중사회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증가하면서, 학습자들이 중국 문화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재나 수업을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언어와 문화의 불가분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로, 문화적 맥락 없는 언어 학습은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 습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Clément et al.(1994)의 사회문화모델에 따르면, 목표 언어 집단과의 접촉 빈도와 질이 언어 습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인과의 실제 의사소통에 대한 동기 자체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적 요인의 부정적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학습 성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중국어 교육 전반의 질적 하락과 한중 간 소통 역량의 체계적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4. 교육 혁신 방안

4.1. 상호문화적 접근의 도입

중국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 기능 교육에서 벗어나 상호문화적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이 자국 문화와 목표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이는 문화적 고정관념과 MZ세대 특유의 “감성 애국주의”를 해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로, 학습자들이 단순한 언어 사용자가 아닌 문화 간 중재자(intercultural medi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역할극,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을 통해 실제적인 상호문화적 상황을 경험하고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4.2. 정의적 요인 개선 전략

한국인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이 중국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다양한 동기 유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되, 특히 내재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한다. 둘째로, 달성 가능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중국어 수업 특유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한다. 셋째, 중국어 능력이 실제 생활과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중국어 학습의 실용적 가치를 강조한다. 2024년 기준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며, 대중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 총액의 19.5%에 이르고, 양국 교역액이 3,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경제적 현실을 바탕으로 중국어의 실리적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정치적 갈등과는 별개로 한중 간 경제 파트너십에서 중국어가 갖는 실용적 가치를 부각시켜 학습자들의 도구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 넷째로, 중국의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소개하여 단편적 이해를 방지한다. 또한 교내의 다문화 학생이나 중국인 원어민 교사와의 직접적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추상적 편견을 구체적 경험으로 대체한다. 이를 통해 한중 문화의 공통점과 상호 영향 관계를 탐색하여 친밀감을 조성할 수 있다.

4.3. 교수법 혁신

중국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교수법 개발이 필요하다. 첫째, CLIL(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접근을 통해 언어와 내용을 통합하여 가르침으로써 의미 있는 맥락에서 언어를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 사회적 이슈, 경제, 예술 등 중립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주제를 중국어로 다룸으로써 언어 학습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도입하여 학습의 재미와 내재적 흥미를 높여야 한다. 특히 아직은 중국어가 입시에 직접적인 스트레스가 없는 비주요 과목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중국어 수업을 진심으로 즐기고 쉬어가는 시간처럼 느낄 수 있도록 게임이나 놀이, 체험 등 흥미 위주의 교수법을 추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중국어 수업을 기다릴 만큼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어를 도구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언어의 실용적 가치를 체감하게 하고 협력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4.4. 제도적 개선 방안

시노포비아 시대에 중국어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제도적 개선 또한 필요하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먼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연계된 중국어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언어 기능과 문화 이해를 균형 있게 다루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해야 한다. 또한 다른 교과와 연계한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국어 학습의 외연을 확장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증진시

킬 필요가 있다. 교사 교육 강화 차원에서는 교사들이 먼저 상호문화적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실 내 문화적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갈등 관리 기술을 습득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더불어 교사들이 중국 문화 및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국제 교류 기회를 확대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서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와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상호문화 역량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소수자 혐오 현상에 대한 학교 및 교육 정책 차원의 종합적 접근도 필요하다. 시노포비아를 포함한 소수자 혐오는 단순히 개별 언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므로, 학교 교육 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인 ‘해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첫째, 학습자들이 혐오 현상을 개인적 감정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문제 인식 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상이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간의 건설적 대화와 갈등 조정 능력을 기르는 의사소통 교육을 강화한다. 셋째, 혐오감을 적절히 다루고 상호 이해와 공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감정 교육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경쟁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협력과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중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 교육과 다문화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실천 사례와 제언

교육 현장에서의 혁신적 접근은 시노포비아 시대 중국어 교육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일부 성공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은 해외 신진 아티스트들과 대중음악산업 관계자를 초청하여 K-Pop 연수 프로그램 및 산업 시찰을 제공함으로써 K-Pop을 매개로 대상국과의 문화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¹¹⁾. 이러한 프로그램은 상호 문화 이해를 증진시키고 편견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언어 교육에서도 유사한 접근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또한 미디어 교육 경험이 비판적 사고 성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 경험은 비판적 사고 성향의 모든 하위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¹²⁾는 중국어 교육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한 비판적 사고 교육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국가 수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중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질 높은 교재와 교육 자료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대중 매체를 통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중국어를 통해 성공한 인물들의 스토리를 확산시키며,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연구 지원 측면에서는 시노포비아와 언어 교육의 관계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새로운 교육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 연구를 확대하며, 다른 국가의 사례와 비교하여 최선의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국제 비교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11) 이주빈, 김선영 (2023). 문화 ODA 참여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 - K-Pop 연수 프로그램,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26(2), 63-87.

12) 김명숙, 설현수 (2014). 미디어 교육 경험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 중고등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8), 415-427.

6. 결론

시노포비아 시대의 중국어 교육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동시에 언어 교육의 본질과 목적을 재고하고, 보다 성숙하고 포괄적인 교육 철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중국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 기능의 전달을 넘어, 상호문화적 이해와 공감 능력을 기르는 전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육 혁신 방안들은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을 개선하고,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며, 궁극적으로는 보다 평화롭고 상호 이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 정책 입안자, 그리고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타인과 타문화를 이해하는 창이다. 시노포비아라는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진 현재, 중국어 교육은 이 구름을 걷어내고 상호 이해의 다리를 놓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중국어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이자 사명이다.

미래의 중국어 교육은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편견을 넘어 이해로, 그리고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그러한 노력의 작은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1] 전승봉. (2021). COVID-19, 혐오, 그리고 공공정책: 한국의 반중 정서와 관련하여. 인문사회과학연구, 64(4), 61-76.
- [2] 이승희. (2023). 한중 MZ세대의 '감성 애국주의'. 중국문화연구, 59, 113-132.
- [3] 이동규, 강충구. (2023). 한국 청년 세대의 대중 인식 악화와 대응 (이슈브리프 2023-22). 아산정책연구원.
- [4] 김경자. (2016). 외국어 학습의 정의적 요인에 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79, 171-196.
- [5] 박혜숙. (2006). 동기와 언어불안감이 영어 말하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3(4), 219-241.
- [6] 이원희. (2018). 학문목적 학습자의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상호문화 감수성 연구. 이중언어학, 72, 187-219.
- [7] 임연정. (2017). 중국어 학습자의 문화 간 감수성 분석 및 교육방안 제안 - W대학교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중국인문과학, 66, 167-191.
- [8] 程鈺情, 박형춘. (2020). 한국 대학 중국어 전공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조사 연구. 국학연구론총, 25, 205-226.
- [9] 김성은. (2024). 한국 대학생 영어학습자의 외국어 불안감 및 학습전략에 대한 수준별 분석. 영미어문학, 154, 123-143.
- [10] 노복동. (2013). 한국어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이 자율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어문화학, 10(2), 49-70.
- [11] 손민정. (2016). 중·고등학교 중국어 교육 위상 제고 방안. 중국문학, 89, 161-182.
- [12] 이주빈, 김선영. (2023). 문화 ODA 참여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 - K-Pop 연수 프로그램,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26(2), 63-87.
- [13] 김명숙, 설현수. (2014). 미디어 교육 경험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 중고등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8), 415-427.
- [14] 배영주. (2020). 혐오표현 문제 해소를 위한 시민교육 구상: 대학생의 혐오표현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0(1), 31-65.

국외 문헌

- [1] Charalambous, C. (2011). Other-language learning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contexts of conflict. In *Language Learning in Conflictual Contex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 Chen, G. M., & Starosta, W. J.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Human Communication*, 3, 1-15.
- [3] Gardner, R. C. (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attitudes and motivation*. Edward Arnold.
- [4] Horwitz, E. K., Horwitz, M. B., & Cope, J. (1986).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0(2), 125-132.
- [5] Clément, R., Dörnyei, Z., & Noels, K. A. (1994). Motivation, self-confidence, and group cohesion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Language learning*, 44(3), 417-448.
- [6] Dörnyei, Z. (2005). *The psychology of the language learner: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wrence Erlbaum.
- [7] Gardner, R. C., & Lambert, W. E. (1972).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language learning*. Newbury House.
- [8] LeBaron, M. (2003). *Bridging Cultural Conflicts: A New Approach for a Changing World*. Jossey-Bass.

온라인 자료

- [1] Pew Research Center. (2008, June 12). Chapter 3. Views of China.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08/06/12/chapter-3-views-of-china/>
- [2] Al Jazeera. (2020, February 21). Coronavirus brings out anti-Chinese sentiment in South Korea. <https://www.aljazeera.com/news/2020/2/21/coronavirus-brings-out-anti-chinese-sentiment-in-south-korea>
- [3] Korea Expose. (2023, March 2). Understanding Korea's Hatred for China. <https://koreaexpose.com/korea-sinophobia-hatred-for-china-explained/>
- [4] The Diplomat. (2022, December). South Koreans Have the World's Most Negative Views of China. Why? <https://thediplomat.com/2022/12/south-koreans-have-the-worlds-most-negative-views-of-china-why/>
- [5] Wikipedia. (2025). Anti-Chinese sentiment in Korea. Retrieved August 11, 2025, from https://en.wikipedia.org/wiki/Anti-Chinese_sentiment_in_Korea
- [6] 한국일보, 언더스커어. (2025). 10대 남성 보수화와 반중 정서, 유튜브 영향력과 정치 인식 변화 실태 분석.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906560003629>
- [7] 한국리서치. (2023). 한국 주변국에 대한 감정온도 조사. '한국인, 日 가장 혐오' 통념 깨진다... 2030 세대 "中이 더 싫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311510002670>
- [8]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2). 기획특집: 언론인의 아시아 인식(3) 위기의 한중 관계, 우리의 자세. 아시아 브리프. <https://snuac.snu.ac.kr/?p=35902>
- [9] 경기신문. (2021). 중국어 교사가 사라졌다... 시험도 못 치는 임용준비생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66408>
- [10] 중앙일보. (2025, January 27). 서울 초등학교에 오성홍기 펴려... "중국학교냐" 논란, 무슨 일. JoongAng Ilbo.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3954>

韩国大学生线上汉语多模态教学研究

——崇实大学为例

赵太莲*

<目次>

【摘要】

1. 引言
2. 崇实大学线上汉语项目学情深度剖析
3. 《等级标准》与“汉检”的深度对接与“双层模型”构建
4. 面向“双层模型”的线上多模态教学体系设计
5. 结语
参考文献

【摘要】

本研究针对韩国大学生在高级汉语线上学习中普遍存在的“理解与产出失衡”“语体混用”及“文言词汇习得困难”等瓶颈问题，构建了一个以《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与韩国“汉字能力资格检定”体系的深度对比分析为内容框架，以多模态教学法为核心方法论的整合性教学方案。论文首先通过建立“现代通用层-文言深层”的双层汉字对比模型，系统梳理了中韩高级汉字在语义、语用及文化层面的对应与分化关系，精准定位了导致韩国学生负迁移的深层原因。进而，基于此模型，研究设计了一套适用于线上教学环境的多模态教学策略体系，通过系统化的视觉表征、情境化听觉输入、具身化动觉任务及数字化工具整合，将抽象的汉字知识与语用规则转化为可感知、可交互、可建构的学习体验。本研究为破解对韩高级汉语线上教学的核心痛点提供了兼具理论创新性与实践操作性的路径。

关键词：多模态教学；《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韩国汉字能力资格检定；线上汉语教学；中韩语言对比；高级汉语

* 济南大学 文学院，副教授

1. 引言

1.1 研究背景与问题提出

随着全球信息技术与教育模式的深刻变革，线上汉语教学已从应急性措施发展为国际中文教育体系中不可或缺的常态化组成部分。在此背景下，拥有大量汉语学习者的韩国，其高等教育机构与中方开展的线上合作项目，成为观察与优化远程教学效果的宝贵场域。以韩国崇实大学与济南大学持续三年以上的线上汉语合作项目为例，其在取得显著成效的同时，也通过系统的学情分析，暴露了韩国学习者在高级汉语阶段面临的共性且顽固的挑战。

具体而言，这些挑战可归结为以下三重瓶颈：其一，“理解与产出失衡”，即学习者虽能认读《HSK标准教程》五、六级水平的复杂文本，具备相当的词汇量与语法知识，但在自主的口头与书面表达中，却表现出显著的语序混乱、句式单一与逻辑衔接不畅；其二，“语体意识模糊”，表现为口语表达中不当夹杂书面语汇，而书面写作中又难以摆脱口语化倾向，导致语言输出得体性不足；其三，“文言及专业词汇习得困难”，对于源自古典文献或特定学术领域的高级词汇，学习者往往止于“能认”而未能“会用”，更难以理解其背后的文化意涵，这严重限制了其汉语水平的深度跃迁。

传统的线上教学模式，因其固有的互动局限性、情境抽象性及对教师讲授的路径依赖，在应对上述高阶认知与能力建构问题时往往力有不逮。因此，探索一种能够有效激活线上课堂、促进深度学习、并精准针对韩国学生母语背景的新型教学模式，已成为提升对韩高级汉语线上教学质量的关键议题。

1.2 文献综述

当前学术界在国际中文教育领域已形成多模态教学理论、《等级标准》应用与国别化研究三大支柱，然而其融合发展仍显不足。多模态教学法确立了通过多感官通道促进深度学习的路径；《等级标准》提供了科学框架，却缺乏与各国本土标准的精细化对接；对韩汉语教学虽揭示了汉字词迁移规律，但未能转化为有效的线上教学方法。这种研究现状凸显了推进国别化国际中文教育的紧迫性——唯有深入理解特定国家学习者的语言文化背景，才能实现从“通用型”到“精准化”教学的根本转变。本文正是基于这一认识，致力于构建融合标准对接与多模态教学的综合性方案，以填补对韩高级汉语线上教学的系统性研究空白，为推动国别化中文教育范式创新提供必要探索。综上所述，现有研究存在显著缺口，缺乏一项能够将《等级标准》与韩国本土权威汉字标准（如“汉检”）进行深度对接，精准界定教学核心与难点，并与多模态教学法进行系统性融合，进而构建一套针对韩国大学生高级汉语线上学习痛点的完整教学方案的研究。本研究旨在尝试填补这一缺口。

2. 崇实大学线上汉语项目学情深度剖析

2.1 崇实大学线上高级课程概况

本次韩国崇实大学线上高级汉语课程共开设四个教学班级，实际参与学生总人数为二十六人。在学生国籍构成方面，韩国学生共计十四人，越南学生十一人，另有一名日本学生。

课程设置方面，高级汉语提升课分为两个平行班级开展线上教学。该课程采用腾讯会议平台进行直播授课，每周安排两个课时，每课时长约六十分钟。教学内容主要依据《HSK标准教程》四至六册，重点培养学生在HSK5/6级水平的语言综合运用能力。课程选取了包括社会生

活、文化变迁、科技发展等多元主题的课文材料，同时融入了清明节等中国文化专题。在教学组织实施过程中，教师特别注重采用多媒体资源和互动教学活动相结合的方式开展教学。

针对Z世代学生群体特点，专门开设了“00后当代中国”课程。该课程围绕当代青年的生活经验与兴趣热点，设计了涵盖自我介绍、美食文化、互联网生活、未来规划等主题的教学内容。课程在培养学生语言能力的同时，特别关注跨文化交际能力的培养，在教学过程中使用了中韩双语教学材料。

此外，还开设了旅游汉语课程，该课程以旅游实际情境为主线，系统训练学生在交通、住宿、餐饮、观光等场景中的语言应用能力。课程采用分层教学策略，针对学生不同的汉语水平设置差异化教学目标，并通过实景视频等多媒体资源增强学生对中国特色文化的直观了解。

各课程在教学过程中均注重将语言知识学习与实际应用能力培养相结合，通过多样化的教学组织形式促进学生语言水平的全面提升。

2.2 崇实大学线上高级课程分析

该线上汉语课程经过系统化设计与实践，展现出以下几个突出的优点。

第一，课程体系呈现出清晰的结构化与差异化特征。项目开设了目标明确的不同班级，针对中高级水平学生设有“高级汉语提升课”，针对Z世代学生兴趣开设“00后当代中国”课程，并为满足实用交际需求设立“旅游汉语”课程。此种设置有效实现了因材施教，确保了教学内容的针对性与适切性。

第二，教学方法体现了显著的现代化与互动化取向。学情分析表明，课程普遍超越了传统的单向讲授模式，主动采纳了多媒体辅助教学和多模态资源，并系统性地融入了角色扮演、情景模拟、小型辩论等互动任务。这种努力成功契合了线上教学对课堂交互性的内在要求，有助于提升学生的参与感与学习兴趣。

第三，教学内容凸显了强烈的文化融合与现实关联性。课程不仅将清明节、“中国游”等文化专题融入语言教学，更有意识地在“00后当代中国”与“旅游汉语”课程中引入中韩文化对比。此种设计一方面满足了学生天然的跨文化交流欲望，另一方面也将语言学习锚定在真实的社会文化语境之中，增强了学习的意义感和实用性。

第四，教学实施展现出务实的诊断性与调整性能力。课程所依据的学情分析报告对学生优势与不足进行了细致梳理，并据此在教学实践中作出了相应调整。例如，在写作教学中补充段落结构与模板讲解，在口语训练中强化语序调整练习。这体现了课程团队基于教学反馈进行动态优化的能力。

尽管课程具备上述优点，但学情分析亦揭示了若干深层次、待解决的核心教学挑战：

首要问题在于学生语言能力存在显著的“理解与产出失衡”。具体表现为，学生虽能理解HSK5/6级别的复杂课文与词汇，具备良好的接收性技能，但其表达性技能，尤其是口语的流畅性与书面语篇的逻辑连贯性，均显不足。这反映出课程在促进语言知识向交际能力自动化转化方面的效能尚有提升空间。

其次，学生的“语体意识模糊”问题亟待解决。学情报告明确指出，学生在口语中不当夹杂书面语汇，而在书面写作中又难以摆脱口语化倾向。这一普遍存在的语体混用现象，制约了学生进行规范、得体表达的能力，是迈向高级语言水平的主要障碍之一。

第三，语法教学的“迁移效能不足”是一个关键瓶颈。学生在针对性练习中能掌握语法规则，但在自由的真实表达中却常常错用或回避使用。这表明当前的语法教学尚未能有效帮助学生将显性知识内化为隐性语言能力，从“识记”到“运用”的桥梁仍需加固。

第四，对于高水平学习者而言，“文言及深层文化词汇的习得”是另一项挑战。尽管课程涉及成语与文化专题，但如何系统性地处理韩国“汉检”体系中所蕴含的与高级汉语能力相关的文言词汇及其文化内涵，并帮助学生克服由此带来的学习难点，课程尚未形成清晰的教学路径。

最后，线上教学环境固有的“互动局限性与情境抽象性”仍是需要持续攻克的难题。尽管已采用多种互动手段，但如何进一步利用技术手段创造更接近真实的沉浸式交际场景，并确保所有学生都能在虚拟课堂中获得均等且有效的练习机会，是保障线上教学质量持续优化的基础性课题。

综上所述，该课程已在教学体系、方法、内容与反馈方面奠定了坚实基础，其后续发展的关键在于如何集中资源，针对“产出能力、语体意识、语法内化、深层词汇及线上互动”这五大核心问题，开展更为精准和深入的教学创新与实践。

3. 《等级标准》与“汉检”的深度对接与“双层模型”构建

基于上述学情分析，要破解韩国学生的习得瓶颈，首先需从其母语背景与目标语要求的交汇点入手，进行精准的学情“诊断”。《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与韩国“汉字能力资格检定”考试高级内容的系统性对接，为这种诊断提供了科学的框架。

3.1 《国际中文教育中文等级标准》的高等汉字能力内涵界定

《国际中文教育中文等级标准（以下简称为“等级标准”）》对五至九级高等阶段汉字能力的要求，实现了从“量”的积累到“质”的飞跃。它不仅规定了3, 200汉字的认读与1, 200汉字的书写，11, 092个词汇的掌握，更在质上要求学习者能够“综合运用各种技能，在各种情境下，就各类话题进行规范、流利、得体的社会交际”，并具备“专业翻译能力”和“撰写篇幅较长的应用文、说明文、议论文和专业论文”的能力。这标志着高等汉字教学的核心在于培养学习者在复杂语篇中精确理解与得体运用汉字的能力，其重心在于语用、语篇与文化。

3.2 韩国“全国汉字能力资格检定”的体系与特点

韩国“全国汉字能力资格检定（以下简称为‘汉检’）”是韩国国内权威的汉字能力评价体系，其高级别（特别是一级）考试内容极具特色：首先，它要求掌握大量汉字（一级约3500字），远超日常交际所需；其次，其考核范围富含文言古语、成语典故及专业术语；最后，其评价体系深深植根于韩语的语言系统与历史文化语境之中。这使得“汉检”所要求的汉字能力，与《等级标准》所倡导的、面向当代交际的汉语能力，既存在广阔的交集，又存在着深刻的张力。

3.3 “现代通用层-文言深层”汉字对比模型的构建

为精细描述上述交集与张力，本研究构建一个“双层对比分析模型”，用以刻画中韩高级汉字的复杂对应关系。

第一层为现代通用核心词汇层。此层面主要涵盖由《等级标准》高等要求与“汉检”高级常用字（约1500-2000字）所构成的核心词汇，如“约束”“保留”“挨打”“对应”“体

制”“暴露”等。这些词汇是现代社会科学、学术论述及正式场合交流的基石。针对韩国学习者的教学关键在于，聚焦于中韩同形词，系统进行语义微差、语用分化与搭配网络的对比辨析，以化解母语负迁移。例如，“体制”一词在中韩文中的义域宽窄之别（中：国家（机关）、企业、事业单位等的组织制度：这是核心义项，如“国家体制”“教育体制”“改革经济体制”，或指物体的形状和结构（此义项使用较少），如“火箭的体制”；韩：几乎特指（政治）体系、制度，尤其用于指代国家层面的整体系统，如“사회주의 체제”“체제 전환”，以及“约束”（中：指限制、管束（中性或贬义），如“受法律约束”；韩：指约定、约会（褒义），如“약속을 지키다”（守约））等完全异义词的警示。

第二层为文言深层汉字层。此层面主要对应“汉检”一级新出汉字表（신출한자）中的字汇，如“榛”“苛”“侃”“旖”“欹”“乂”等。这些汉字高度文言化、典雅化，常见于中韩古典文献、历史典籍及特定学术领域，在现代汉语中多作为构词语素或已趋于生僻。此层的教学核心在于古今义域的变迁、文化内涵的阐释及其在韩语汉字词中的固化形态。例如，汉字“苛”在中文现代汉语中义域收缩，主要用于“苛刻”“苛责”等贬义语境，其古义中的“繁琐、细碎”之意（如《礼记》“无苛政”），却在韩语训读“매울”及相关词汇“苛酷”（가혹）中得以保留和体现。

3.4 基于“双层模型”的学情问题再诊断

该模型为精准解读崇实大学项目学情报告中的问题提供了全新的视角。“高理解、低输出”问题，部分源于学习者对“现代通用层”词汇的语用环境掌握模糊，知其然而不知其所以然；部分源于对“文言深层层”词汇仅停留在字形识别层面，未能激活其深度语义与用法。

“语体混用”问题，直接源于对“现代通用层”词汇在中韩两种语言中所承载的语体色彩（正式/非正式、书面/口语）认知不清，导致跨语言套用。

“文言词汇习得困难”问题，正是“文言深层层”教学缺失或方法失当的直接后果。学习者缺乏将古义、文化与其现代应用（尤其是在韩语中的遗留）相连接的桥梁。

4. 面向“双层模型”的线上多模态教学体系设计

基于第三章的“诊断”结果，本章试图提出系统的教学“处方”。多模态教学法凭借其与学生俱来的具身性、情境性与交互性，成为将抽象的对比分析成果转化为有效学习体验的理想方法论。

4.1 基于腾讯会议平台的多模态教学体系设计

本章旨在将“双层模型”的理论框架，转化为在腾讯会议平台上可直接操作的教学实践。腾讯会议不仅作为视频通话工具，更将作为集协同办公、即时互动、成果展示于一体的综合性虚拟教室。

一、教学核心：以腾讯会议为枢纽的互动空间构建

教学理念的核心在于，将腾讯会议的各类功能（如分组讨论、共享屏幕、互动白板、投票、举手、聊天区）视为不同的教学模态开关，根据教学需求灵活组合，创建一个高度互动、以学生输出为导向的线上学习空间。

二、现代通用层教学策略：以“暴露”为例

1. 视觉模态：协同白板构建语义网络

操作：教师开启腾讯会议白板，预先画好一条“语义光谱轴”。邀请学生共同批注。

任务：教师共享屏幕展示包含“暴露”的多个例句。学生通过白板的“文字”或“画笔”工具，将自己对例句的理解（如标注“负面的”或“中性的”）直接拖拽或书写在光谱轴的相应位置。全班实时看到同一张语义图的构建过程，视觉冲击力强。

2. 听觉-动觉模态：分组讨论室开展情景角色扮演

操作：利用腾讯会议强大的分组讨论功能。

任务：教师将学生分配到不同的讨论室，并为每个讨论室布置一个情景任务卡（如“公司会议：指出项目计划的潜在风险”vs“心理沙龙：分享一个让你发现自己性格特点的经历”）。

学生在小组内进行角色扮演，必须使用目标词“暴露”。教师可轮流进入各讨论室进行监听和指导。

讨论结束后，学生返回主会议室。教师可指定某小组共享屏幕，回放其讨论片段（需提前告知会录制），进行精准点评。

3. 技术整合模态：聊天区与投票进行即时反馈

操作：综合利用聊天区和投票功能。

任务：教师在聊天区快速发布选择题：“请判断：‘调查报告暴露了年轻人的消费趋势。’这里的‘暴露’相当于韩语的‘暴露’吗？A.是 B.否”

教师在聊天区连续发布3-4个短情境，要求学生用“举手”功能抢答，判断其中“暴露”的用法是否与韩语一致。快速激活课堂，聚焦问题。

学生通过投票功能匿名作答，结果即时呈现，教师能快速评估全班理解情况，并针对错误选项进行讲解。

4.2 文言深层次教学策略：以“苛政”为例

1. 视觉模态：屏幕共享实现汉字溯源与意境链接

操作：教师共享屏幕，播放提前制作好的“苛”字演变动画PPT。打开腾讯会议白板，以“苛”为中心，引导学生通过“批注”功能，共同绘制出连接“本义”、“中文词义”、“韩语词义”和“文化概念”的语义网络图。

任务：从甲骨文“𠂔”（杂草）的形态开始，动态演变为楷书“苛”。随后共享屏幕展示两张并排的图片：杂乱缠绕的野草与古代官吏催租的画卷。教师通过画笔功能，在图片上圈画，引导学生建立“杂草烦琐 → 政令烦琐 → 苛政”的视觉联想，并将韩语“매울”（辛辣）的感官体验作为情感补充。

2. 听觉-动觉模态：全员开麦进行文脉吟诵与线上辩论

操作：利用高质量音频模式和全员开麦功能。

任务：文脉吟诵：教师共享播放一段《礼记》“苛政猛于虎”的配乐朗诵音频，或亲自范读。要求学生闭麦静听，沉浸于语境。

线上辩论：围绕“苛政在当今社会是否完全消失？”的议题，组织小型辩论。学生使用举手功能申请发言，教师作为主持人有序点名。这种正式的发言模式本身就在训练学生的口语语体。

4.3 复盘与输出，文档协作整合模态：腾讯文档协作构建云端知识库

在第三环节“探究、展演与升华”中，将进行为期35分钟的整合教学活动。该环节首先运用腾讯会议的分组讨论功能，将学生划分为历史组与现代组。历史组需在讨论室合作编排并演练“孔子评价‘苛政猛于虎’”的短剧，现代组则需策划并模拟一则“暴露”当代社会问题的新闻报道。两组学生在准备过程中，需同步在共享的腾讯文档指定区域实时记录创作思路与核心词汇，例如历史组记录如何诠释“苛政”之残酷，现代组则明确所“暴露”问题的性质及立场。

准备结束后，全体学生返回主会议室进行交叉展演。历史组表演完毕后，现代组学生需在聊天区内以一句话概括对“苛政”的理解；现代组表演后，历史组学生则需在聊天区辨析所“暴露”问题的性质。教师随即对聊天区内容进行点评与修正。

最后，教师共享屏幕展示已汇集小组记录与聊天区观点的腾讯文档，引导学生思考如何通过社会行动避免“苛政”，并让“暴露”发挥积极社会效用。教师最终在文档中总结升华本课核心思想，以“洞察‘暴露’的真相，是为根除‘苛政’之始”作为课程收束，完成从语言实践到认知升华的教学过程。

教师快速浏览学生的总结，并邀请几位同学开麦分享，作为课程收尾。

5. 结语

本研究围绕韩国大学生在高级汉语线上学习中面临的“理解与产出失衡”“语体混用”及“文言词汇习得困难”等核心问题，构建了一个以《等级标准》与韩国“汉检”标准深度对接为基础的教学框架。通过建立“现代通用层-文言深层”的双层对比模型，系统梳理了中韩高级汉字在语义、语用及文化层面的对应与分化关系。在此基础上，研究设计了一套基于腾讯会议平台的多模态教学策略体系，通过协同白板、分组讨论、文档协作等技术功能的创新运用，将抽象的对比分析成果转化为可感知、可互动的学习体验。教学案例表明，该体系能有效促进韩国学生将潜在的汉字词知识优势转化为规范、得体的汉语综合运用能力。

本研究虽已构建起较为完善的教学体系，但仍存在一些局限。首先，研究样本大多源自单一合作项目，样本规模与多样性均有待进一步拓展。其次，所构建的多模态教学资源库尚处于起步阶段，其系统性和完整性需进一步丰富完善。此外，基于腾讯会议的教学设计虽实用性较强，但在支持个性化学习路径方面仍存在不足。

基于上述不足，未来研究可在开展跨院校、多区域的合作研究，通过扩大样本规模来验证教学模型的普适性。本研究构建的“以标准对比为纲，以多模态教学为法”的教学范式，以及其在腾讯会议平台上的成功实践，为推进线上汉语教学的创新发展提供了切实可行的途径。后续研究可在夯实理论基础、完善实践模式、创新技术应用这三个维度持续深耕，推动国际中文教育质量的全面提升。

参考文献

- 1.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 GF 0025-2021[S].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21
- 2.1급한자 신출한자 훈음표. 한국어문화. 서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 3.胡柯晴.多媒体多模态下提升大学生国家通用语言文字自主学习能力策略研究.国家通用语言文字教学与研究, 2024
- 4.乔雪玮.互动的多模态性和语言的多模态研究——《汉语互动中的多模态》评介.当代语言学, 2024
- 5.刘玉梅;郑玉英.问答行为的体认多模态互动研究.外语与外语教学, 2024
- 6.刘海明.印尼中高级汉语学习者语篇词汇衔接问题研究.汉字文化, 2025

國際中文教育의 관점에서 살펴본 韓國高等教育단계의 漢字教育 연구

吳淳邦*

<目 次>

【 국문초록 】

1. 들어가는 말
2. 현대 한중양국의 漢字教育
3. 21세기 한국대학 중국어문전공학과와 한자교육
4. 한국대학 한자교육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탐색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수천년 동안 중국과 한국의 기록문자였던 한자의 문자적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1970년 이후 한글전용정책의 시행으로 한자교육이 정규교과과정의 필수과목에서 배제되었고, 공문서의 표기 문자에서 제외되었던 한국에서의 한자교육의 위상 제고와 한자교육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려는 동기에서 이 과제를 주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대학의 중국어문학 전공학과와 고등교육단계(대학과 석사, 박사학위의 대학원과정)에서 진행되는 한자교육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의 중국어 학습열풍은 1992년 8월의 한중수교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10년 전부터는 중국의 정치적 위상 변화에 따라 중국어는 세계의 주요언어로 부상하였다. 본 연구는 1988~2021년의 33년 동안 진행된 중국의 언어문자정책과 규정/실행방안 등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中國 教育部 간행 《语言文字规范手册》의 초판 출판년 1988년부터 《语言文字规范 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이 배포 실행된 2021년까지 16차례에 걸쳐 증보 重印된 《语言文字规范手册》을 연구기준으로 삼았으며, 33년 동안 진행된 중국의 한자교육(한자의 字形, 字音, 字義)에 대한 규범화/표준화방안의 제정과 발전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970년 이후 한글전용정책이 실행된 뒤부터, 한국에서의 한자교육은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학습하는 수준이고, 학회에서 주관하는 한자능력측정시험과 중고교의 한문과목(선택)을 통해서 한자 학습이 진행되었다. 본연구에서는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수록하여, 중국의 한자교육방안과 대비해 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초중고와 대학의 교과과정 중 한자교육의 현황을 두 가지 연구자료를 통해서 고찰해 보았다.(滕菲, 〈中国中学阶段汉字教育简介〉、〈中国高校本科阶段汉字教育相关课程设计简介〉) 이러한 중국의 중고교 6년과 大學 4년의 10년 교육기간 동안 한자교육이 교과과정 중에 단계별로 어떻게 체계적이고 규범화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대학 학부의 한자교육과정에서는 교육정책방향과 5가지 교학방법을 소개하면서 인공지능보조시스템, 가상세계VR 학습플랫폼, AI+北京语言大学AI助教 등의 정보화/AI학습방식을 소개해 주었다. 대학의 한자교육과정 설계항목에서는 《文字学》, 《汉字与汉字教学》 등의 강의계획서를 수록하여 강의내용, 교육목표, 교육방식, 평가방식 등을 명시해주었다.

* 天津师范大学特聘教授、崇实大学名誉教授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대면/비대면의 인터넷 플랫폼 강의는 비약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서울의 숭실대학교와 산둥의 濟南大學에서 진행된 趙太蓮선생의 한자능력 대비 연구는 정보화시대의 교육방식에 다기능 학습모델을 제시하여 고급중국어 학습단계에서 쉽게 직면하는 한자 字義 교육의 난제를 해결해 주었다. 향후 글로벌정보화 시대에 한자교육은 정보화/인공지능기술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언어문자는 이미 입력방식에서 한자의 표음문자화와 표준화작업이 오래전에 시행되었고, 정보화/교육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각종 정보화/AI기술이 교육기반시설에 운용되고 있다. 이런 인터넷/정보화 기술환경의 변화와 정보화 플랫폼기반 중국어 강의의 진행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姬代玲선생의 연구는 향후 한국의 중문학계에서 중국어 정보화교육의 유형 전환과 중한 협동 정보화 교육모델의 개발 가능성을 예시해주고 있다.

1. 들어가는 말: 21세기 韓中 한자교육의 교육환경

1) 20세기 후반기 한중 양국의 한자교육 교육환경

한국과 중국의 교류는 1992년 8월 중국과 한국의 국교수립을 기점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정치 외교적인 교류와 더불어 통상, 문화, 학술, 교육 등 다방면의 교류가 진행되었는데, 한중교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언어교육은 양국 정부와 대학당국에서 모두 주목하는 핵심교육과정이 되었다. 먼저 1990년대부터 한국의 대학에서 중문과가 대대적으로 창설되었으니 1970년대에 8개 대학에 불과했던 중국어문계열 학과는 2000년대에는 전국 100여 개의 대학에 관련 전공학과가 신설되면서 가장 각광 받는 전공분야로 성장하였고, 중국어는 한국대학의 외국어 과목 중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언어가 되었다. 한자는 중국어의 표기문자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2000여 년 동안 사용되면서 한국의 역사 문화를 기록하는 표기문자이기도 하다.

한국정부는 건국 이래로 “한글전용정책”을 추진하여 전 국민이 글을 읽을 수 있는 한글전용교육을 진행하였다. 1961년부터 1979년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한자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한글을 전용하는 “한글전용법안”을 반포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한글전용특별심의회”를 설립하여 한자어휘와 외래어를 순한글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이 작업은 1968년 8월까지 지속되어 모두 14,149개의 어휘를 한글로 개정하였다. 1968년 10월 박정희대통령은 《한글전용 촉진 7개 사항》을 발표하였고 그해 12월 “국무총리훈령 제8호”를 발표하여 한글전용을 전면적으로 실행하였다. 1970년에는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한자의 표기는 없어졌고, 완전히 한글 전용으로 바뀌었으며 공공기관의 공문도 전부 한글을 사용하게 되었다. (河永三, 2010, 54쪽)

2) 21세기 중한문화교류의 활성화와 한자교육

본 연구는 한국의 고등교육단계(학부 4년과 석사, 박사과정의 일반대학원)에서 진행되는 한자교육의 실상을 연구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였고, 한국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중국어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어떠한 한자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전문가로 양성되는지 고등교육단계에서의 한자교육의 범위와 목표, 교과과정 개설 등의 과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국제중문교육이란 중국어가 모국어인 아님 학생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중문교육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韓中 양국 중의 한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 진행되는 국제중문교육의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韓中言語의 이중언어 구사능력의 전문가 양성을 지향하며, 韓中 語文學의 비교연구와 번역학을 전공한 쌍방향번역 전문가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2. 현대 한중 양국의 漢字教育

1) 한국의 漢字教育

한국의 학부를 졸업한 학생은 국내외 대학의 동일계열 석사반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한국대학의 졸업학점을 이수하는 것 이외에 국내외대학에서 요구하는 한자학능력과 중국어능력을 겸비해야만 한다. 한국대학의 중국어문 전공을 수학하기 위해서는 학부과정 2학년까지 한국어 문헌과 언어능력을 입증할 한자능력측정시험 고급수준의 합격증을 제출해야 하며, 학부졸업 필수요건으로 H.S.K. 7급 이상의 중국어 고급수준 합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이는 고교 졸업까지 정규교과과정에서 한자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학생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대학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 교육부에서 한글전용정책이 실행된 1970년 이후 한국의 초중고 교과과정에서 한자교육은 전면 금지되었고, 한문교과과정이 신설되어 선택과목으로 일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을 뿐이다. 1970년 이후 한국에서의 한자교육은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학습하는 수준이고, 한자교육은 학회에서 주관하는 한자능력측정시험과 중고교의 한문과목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수록하여, 중국의 기초한자교육방안과 대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교육부 지정 中高等學校의 常用漢字 1,800자는 중학교 900자, 고등학교 900자, 중고등학교 1800자로 구성되어 있다.(1970 - 현재) ** <상용한자 1800자>, 2004年刊.



“상용한자 1800자”는 본래 한문과목의 도서개발을 위해 선정된 역사문헌 중의 사용빈도가 높은 한자를 선정한 것으로 교육부에서는 이를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교육부 편,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1800),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개발을 위한 편수자료Ⅱ》, 47-62쪽.)라고 부른다. 일반 상용 한자어휘 중의 사용빈도수가 높은 한자와는 동일하지 않으며, 중국어의 상용한자와도 같지 않다. 현대 한국어나 중국어 중에 나오는 상용한자와도 동일하지 않다.

2) 중국의 漢字教育

** 中国国家对外汉语教学领导小组办公室에서 1986년에 공표한 汉语水平考试部 《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1986-1995)에서는 상용어휘와 상용한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常用词汇: 一级800, 二级804, 三级2202, 四级3569.

(2) 常用汉字: 一级800, 二级804, 三级601, 四级700.

(汉语水平考试HSK的出题范围) 常用汉字一级至二级有1,604字, 一级至三级2,205字, 一级至四级共计2,905字.

** 《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语言量化指标 Quantitative criteria 에서는 初等(1-3級) 中等(4-6級) 高等(7-9級)의 音節, 漢字, 어휘, 語法의 量化指標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语言量化指标 Quantitative criteria

学习者达到每一级中文水平应掌握的音节、汉字、词汇、语法的内容和数量。(见下表)

《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语言量化指标总表

等次	级别	音节	汉字	词汇	语法
初等	一级	269	300	500	48
	二级	199/468	300/600	772/1272	81/129
	三级	140/608	300/900	973/2245	81/210
中等	四级	116/724	300/1200	1000/3245	76/286
	五级	98/822	300/1500	1071/4316	71/357
	六级	86/908	300/1800	1140/5456	67/424
高等	七—九级	202/1110	1200/3000	5636/11092	148/572
总计		1110	3000	11092	572

注: 表格中“/”前后两个数字, 前面的数字表示本级新增的语言要素数量, 后面的数字表示截至本级累积的语言要素数量。高等语言量化指标不再按级细分。

3 等级描述

한국의 중국어 학습열풍은 1992년 8월의 한중수교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10년 전부터는 중국의 정치적 위상 변화에 따라 중국어는 세계의 주요언어로 부상하였다. 본 연구는 1988~2021년의 33년 동안 진행된 중국의 언어문자정책과 규정/실행방안 등을 조사 분석하여 중국의 한자교육 정책방향과 한자교육의 규범화/표준화방안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언어문자 교육정책은 표기문자인 한자를 어떻게 보편화/표준화/간소화 하여 전국민이 언문일치된 중국어를 구사한다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中國 教育部 간행 《语言文字规范手册》의 초판 출판년 1988년부터 《语言文字规范 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이 배포 실행된 2021년까지 16차례에 걸쳐 증보 重印된 《语言文字规范手册》을 연구기준으로 삼아, 33년 동안 진행된 중국의 한자교육(한자의 字形, 字音, 字義)에 대한 규범화/표준화방안의 제정과 발전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语言文字规范手册》(增订本, 语文出版社, 1991)

1. 国务院批转国家语言文字工作委员会《关于废止〈第二次汉字简化方案(草案)〉和纠正社会用字混乱现象的请示》的通知 1986.6.24.
2. 关于重新发表《简化字总表》的说明 1986.10.10.
3. 简化字总表(1986年新版)
 - 第一表 不作简化偏旁用的简化字 第二表 可作简化偏旁用的简化字和简化偏旁
 - 第三表 应用第二表所列简化字和简化偏旁得出来的简化字
 - A. 从拼音查汉字 B. 从简体查繁体 C. 从繁体查简体
4. 现代汉语常用字表 1988.
5. 现代汉语通用字表 1988.
6. 新旧字形对照表 1965.
7. 第一批异体字整理表 1955.
8. 部分记量单位名称统一用字表 1977.
9. 信息交换用汉字编码字符集·基本集 1981.
10. 普通话异读词审音表 1985.12.修订 笔画检字表 1985.
11. 汉语拼音方案 1958.2.11.
12. 汉语拼音字母名称读音 1982.
13. 汉语拼音正词法基本规则 1988.
14. 中国人名汉语拼音字母拼写法 1974.
15. 中国地名汉语拼音字母拼写规则 1984.
16. 中国各省、直辖市、自治区汉语拼音字母缩写表 1977.
17. 中国各民族名称的罗马字母拼写法和代码 1982.
18. 中文书刊名称汉语拼音拼写法 1982.
19. 关于出版物上数字用法的试行规定 1987.
20. 标点符号用法 1990.
21. 关于地名用字的若干规定 1987.
22. 关于广播、电影、电视正确使用语言文字的若干规定 1987.
23. 关于企业、商店的牌匾、商品包装、广告等正确使用汉字和汉语拼音的若干规定 1987.
24. 附录: 汉字统一部首表(草案) 1983.

- 1) 出版说明: 1988.8.15 第一版; 1990.10.17 增订版; 1991.8.1 重印版(3-4页)
- 2) 1977年12月20日发表的〈第二次汉字简化方案(草案)〉, 自本通知下达之日起停止使用。
- 3) 简化字总表(1986年新版)
 - (1) 第一表 不作简化偏旁用的简化字: 本表共收简化字350个, 按读音的拼音字母顺序排列。(9页)
 - (2) 第二表 可作简化偏旁用的简化字和简化偏旁: 本表共收简化字132个和简化偏旁14个。简化字按读音的拼音字母顺序排列, 简化偏旁按笔数排列。(13页)

- (3) 第三表 应用第二表所列简化字和简化偏旁得出来的简化字：本表共收简化字1,753个，以第二表中的简化字和简化偏旁作部首，按第二表的顺序排列。（16页）

**简化字350+132+1753=2,235个。

- 4) 现代汉语常用字表（1988）：关于发布《现代汉语常用字表》的联合通知（国家语言文字工作委员会、国家教育委员会，1988.1.26.）：为了适应语文教学及其他方面的需要，特制订《现代汉语常用字表》，现予发布。《现代汉语常用字表》分常用字（2500字）和次常用字（1000字）两个部分。（99页）

【统计资料1】15种

- (1)语体文应用字汇（4261字）--1928年6月 陈鹤琴
- (2)常用字选（2000字）--1946年8月 四川省教育科学院
- (3)常用汉字登记表（1017字）--1950年9月 中央人民政府教育部社会教育司
- (4)常用字表（2000字）--1952年6月 中央人民政府教育部公布
- (5)识字正音3500字表（3559字）--1954年1月 中国大辞典编纂处
- (6)普通话常用字表（3000字）--1958年8月 山东省教育厅
- (7)常用字表（3100字）--1965年3月 北京市教育局中小学教材编审处
- (8)4500字表（4444字）--1975年 中国文字改革委员会汉字组
- (9)汉字频度表（常用字部分4152字）--1976年12月 七四八工程查频组
- (10)增订2500字表--1979年7月 中国文字改革委员会汉字组
- (11)信息交换用汉字编码字符集·基本集（一级字3755字）--1981年5月 国家标准局
- (12)六年制小学语文统编教材生字表（3189字）--1981年 人民教育出版社
- (13)常用构词字典（3994字）--1984年3月 中国人民大学语言文字研究所
- (14)社会科学、自然科学综合汉字频度表（常用字部分3500字）--1985年3月 北京 航空学院计算机科学与工程系、中国文字改革委员会汉字处
- (15)汉字频度表（4574字）--1985年7月 北京语言学院语言教学研究所(99页)

【统计资料2】从通用字的资料中选用了以下5种：

- (1)印刷通用汉字字形表（6196字）--1965年1月 中华人民共和国文化部和 中国文字改革委员会联合发布
- (2)现代汉语词典--1978年8月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
- (3)新华字典--1979年 商务印书馆
- (4)标准电码本（7292字）--1983年 中华人民共和国邮电部
- (5)1986年度新闻信息流通频度（6001字）--1987年1月新华社技术研究所（101-102页）

**现代汉语常用字表统计時間:1928-1987

5) 现代汉语通用字表(1988)

- A. 本表共收汉字7000个，包括《现代汉语常用字表》收入的3500字。此外，根据实际需要，删去《印刷通用汉字字形表》中的50字，增收854字。
- B. 《现代汉语通用字表》的制订，主要依据《印刷通用汉字字形表》，另外，还统计了以下资料：

- (1)语体文应用字汇（4261字）--1928年6月 陈鹤琴
- (2)常用字选（2000字）--1946年8月 四川省教育科学院
- (3)常用汉字登记表（1017字）--1950年9月 中央人民政府教育部社会教育司

- (4)常用字表(2000字) --1952年6月 中央人民政府教育部公布
- (5)识字正音3500字表(3559字) --1954年1月 中国大辞典编纂处
- (6)普通话常用字表(3000字) --1958年8月 山东省教育厅
- (7)常用字表(3100字) --1965年3月 北京市教育局中小学教材编审处
- (8)4500字表(4444字) --1975年 中国文字改革委员会汉字组
- (9)汉字频度表(6376字) --1976年12月 七四八工程查频组
- (10)现代汉语词典--1978年8月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
- (11)增订2500字表--1979年7月 中国文字改革委员会汉字组
- (12)新华字典--1979年 商务印书馆
- (13)信息交换用汉字编码字符集•基本集(6763字) --1981年5月 国家标准局发布
- (14)标准电码本(7292字) --1983年 邮电部
- (15)六年制小学语文统编教材生字表(3189字) --1984年 人民教育出版社
- (16)常用构词字典(3994字) --1984年3月 中国人民大学语言文字研究所
- (17)社会科学、自然科学综合汉字频度表(7754字) --1985年3月 北京航空学院计算机科学与工程系、中国文字改革委员会汉字处
- (18)汉字频度表(4574字) --1985年7月 北京语言学院语言教学研究所
- (19)1986年度新闻信息流通频度(6001字) --1987年1月 新华社技术研究所(125-128页)

** <现代汉语通用字表>统计時間:1928-1986

3. 21세기 한국대학 중국어문 전공학과의 고등교육단계의 한자교육

1) 한국대학의 일반 한자교육

한국 교육부의 한글전용정책 주요목적도 전국민의 문맹 퇴치를 위한 것이고, 1446년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목적도 전국민의 言文一致를 위해 창제된 표음문자 한글을 학습하여 우리말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시행된 한글전용정책으로 한국인은 누구나 한국어문을 읽고 쓰고 말하는 언어능력을 구비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어를 구성하는 약 70%에 달하는 한자어휘를 이해하고 만들 수 있는 한자능력을 갖춘 젊은 세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한국대학에서의 한자교육은 초급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자 자형의 표준화는 한자의 정보처리시스템과 문자의 식별 그리고 최종 설비제조기술에 모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자문화권의 한자 사용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字形 標準의 제정은 정보의 교류와 자원의 공유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된다. 현재 사용 중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는 正字(繁體字)로 표기되어 있다. 한국에서의 한자는 정자로 표기하며 중국에서 사용하는 簡體字를 사용하지 않는데, 간체자를 사용하는 한자문화권 국가와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형의 표준화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겠다. 때문에 한국의 대학에서는 번체자와 간체자를 모두 교육하여야 하며, 지역간 표기의 차이가 있는 한자의 字體 교육을 대학의 초급과정부터 진행해야 하겠다.

2) 중국어문 전공학생의 한자능력 교육목표

한국대학의 일반 한자교육은 학부신입생이 한자교육이 제로인 상태를 가정하여 초급부터 진행한다. 비록 상당수의 학생들이 한자학습의 기초를 가지고 있지만 한자를 한국음으로 읽을 수 있는 수준이지만 한자의 쓰기와 글자 造字능력을 가진 학생은 거의 없는 편이다. 때문에 중국어 초급과정에서는 최소한의 한자를 사용하여 중국어의 기초를 교육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한자교육 교과과정 설계를 위해 네 권의 중국어 교재와 한자교육방안을 설명하였다. 중국어의 초급, 중급, 고급단계에서의 한자능력 학습과 문장기술상 글자체의 사용 및 漢字量化指標가 제시 분석되었다.

(1) 《탄탄중국어-기초편》(오순방 편저, 송실대학교 출판국, 2014)에 나오는 신출한자는 440자, 신출어휘는 460개 수준이고, 《탄탄중국어-실력편》(오순방 편저, 위즈덤북, 2005)의 신출 한자는 400자에, 신출 어휘는 620개 수준인데, 이 숫자에는 낱말사전의 어휘가 포함되지 않았다. 《탄탄중국어-기초편》과

《탄탄중국어-실력편》에서 사용된 전체 한자는 900자 이내이고, 어휘는 모두 1,200개 정도이다. (《탄탄중국어-기초편》, 〈일러두기〉, 4쪽)

(2) 《탄탄중국어-기초편》과 《탄탄중국어-실력편》은 중국에서 통용되는 簡體字와 繁體字를 사용하였다. 간체자는 번체자에서 간화된 것으로 모두 2,237자가 있는데, 그 외의 한자는 모두 번체자이다. 두 권의 교재에서는 글자체를 명확하게 학습하기 위해 매과의 〈새날말〉 뒤에 〈신출 간체자 번체자 대조표〉를 수록하여 새로 나오는 낱말의 간체자와 번체자를 함께 병기하였다. 신출간체자는 《탄탄중국어-기초편》에 146자, 《탄탄중국어-실력편》에는 137자가 나와 두 권에 모두 283자가 나온다. 전체 840자 중에서 557자는 번체자이다. (《탄탄중국어-기초편》, 〈일러두기〉, 5쪽)

(3) 한국 학생들은 번체자의 한자를 적지 않게 학습하였고, 간체자가 번체자에서 簡化되었기 때문에 번체자를 학습한 경우에는 대개 2주 정도의 집중 변환연습을 하면 손쉽게 간체자를 익힐 수 있다. 게다가 1970년대 이전에 출판된 중국어 간행물은 당연히 번체자로 인쇄되었으며, 현재 대만, 홍콩, 일본, 한국 등지에서는 여전히 번체자를 정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번체자/간체자를 같이 학습한다면 중화권 국민과의 교류는 물론 한국 중국의 번체자 문헌을 읽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해진다. (《탄탄중국어-기초편》, 148쪽. 《탄탄중국어-실력편》, 164쪽.) (상기한 〈漢字簡化方案〉과 〈簡化字總表〉에 대한 설명은 《語言文字規範手冊》(增訂本), 2~6쪽과 같은 책, 〈簡化字總表〉(1986年新版), 7~96쪽 참조.)

4. 한국 대학 한자교육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탐색

1) 중국 교육기관의 한자교육과정과의 비교 분석

중국의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과과정 중 한자교육의 현황은 滕菲선생의 〈中国中学阶段汉字教育简介〉와 〈中国高校本科阶段汉字教育相关课程设计简介〉를 통해서 고찰해 보았다. 中国中学阶段 汉字教育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단계는 중학교(初中 7-9학년) 과정에서는 교육목표를 1. 도구서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한자 검색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누계 상용한자 3500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3. 해서체 한자를 쓸 수 있고 동시에 규범통행 해서 필기체를 배우며 규정쓰기 속도에 도달해야 한다. 명가의 서체를 모사하여 서법의 심미가치를 체득해야 한다. 올바른 한자쓰기자세를 갖추어 양호한 쓰기습관을 가져야 한다. 제2단계는 고등학교(高中 10-12학년) 과정으로 3500상용한자의 능숙한 사용능력과 수백개의 새로운 한자를 습득해야 한다. 이러한 중국의 중고교 6년과 大學 4년의 10년 교육기간 동안 한자교육이 교과과정 중에 단계별로 어떻게 체계적이고 규범화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대학 학부의 한자교육과정에서는 교육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 가지 교육방법(전통교학방법, 創新교학방법, 정보화기술교학방법)을 소개하면서 그중에서 정보화기술교학방법 1. 인공지능보조시스템, 2. 인터넷학습플랫폼 3. 가상현실 VR 교육방식--中國言語數字博物館 4. AI+--北京語言大學“国际中文智慧教学系统”AI助教 네 가지 정보화/AI학습방식을 소개해 주었다. 대학의 한자교육과정 설계항목에서는 《现代汉语》(文字部分), 《文字学》, 《汉字与汉字教学》 등의 강의계획서를 수록하여 강의내용, 교육목표, 교육방식, 평가방식 등을 명시해주었다.

2) 한국 대학 한자교육의 문제점과 향후의 발전방향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대면/비대면의 인터넷 플랫폼 강의는 비약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코로나사태 기간 교육기관은 이동이 통제되고 교육활동은 완전히 봉쇄되기도 하였으나 정보화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인터넷플랫폼 강의는 국제중문교육의 중요한 교육수단으로 부상하였다.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숭실대학교와 산동의 濟南大學에서 진행된 趙太蓮선생의 인터넷 고급중국어 강

좌는 정보화시대의 국제중문교육연구에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趙太蓮선생의 인터넷 중국어 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한자능력 대비 연구는 정보화시대의 교육방식에 다기능 학습모델을 더하여 고급중국어 학습단계에서 외국인 학생이 쉽게 직면하는 한자 字義의 인식 오류에 대한 한자 교육의 난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해 주었다. 향후 글로벌정보화 시대에 한자교육은 정보화/인공지능기술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언어문자는 이미 입력방식에서 한자의 표음문자화와 표준화작업이 오래전에 시행되었고, 정보화/교육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각종 정보화/AI기술이 교육기반시설에 운용되고 있다. 이런 인터넷/정보화 기술환경의 변화와 정보화 플랫폼기반 중국어 강의의 진행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姬代玲선생의 연구는 한국의 중문학계에서 당면한 중국어 정보화교육의 유형 전환과 정보화교육의 기술경로 연구, 한국중문정보화 교육방식의 개발, 중한교수의 협동교육을 위한 정보화 교육모델의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 [1]李在天,〈韓國的漢字教育現狀〉,《漢字文化》,1993年第3期,32-37.
- [2]全香蘭,〈韓國的漢字現狀〉,《漢字文化》,2000年第4期,40-43.
- [3]河永三,〈韓國漢字教育現狀及對冊分析〉,《全球教育展望》,2010年第7期,Vol.39 No7, 54-56、47.
- [4]宋秉烈,〈韓國的漢字教育現況和漢字教育轉變的必要性〉,《民俗典籍文字研究》,2015年第1期,200-210、295-296.
- [5]문영희·문준혜·박지영,〈한자능력시험 선정 한자 고찰〉,《中國語文學誌》,2019년68輯,157-177.
- [6]문영희등,〈교육용 기초한자에 대한 검토와 제안〉,《中國語文學誌》2020년70輯,197-220.
- [7]趙治成,〈漢字在當代韓國的教育及使用現狀〉,《漢字文化》,2022年第5期,102-105.
- [8]吳淳邦,〈韓國首爾地區高等院校中文系漢字教學課程建設研究〉,澳門科技大學舉辦“世界漢語教學學會第十五屆國際中文教學研討會”Session B-2:“區域國別中文教育多元特色理論與教學”,澳門科技大學O座402室,2024.8.21.
- [9]李梓楠,《韓國大眾媒體漢字使用情況與漢字教學》,天津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2018.
- [10]語文出版社編,《語言文字規範手冊》(增訂本),語文出版社,1991;《語言文字規範手冊》(第五版),2019第16次印刷.
- [11]《語言文字規範 通用規範漢字筆順規範》GF0023-2020,2020.11.23.發布 2021.3.1實施,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發布.
- [12]《語言文字規範 國際中文教育中文水平等級標準》GF0025-2021,2021.3.24 發布 2021.7.21實施,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發布.
- [13]박덕준·이상도 편,《중국어 간체자 쓰기》,청년사,1994.
- [14]오순방 편저,《탄탄중국어-기초편》,송실대학교 출판국,2005-2021,제8판 개정.
- [15]오순방 편저,《탄탄중국어-실력편》,위즈덤북,2005.
- [16]吳淳邦·朴璟實 編著,《표준중국어 文章讀解》,學古房,2002-2017,4쇄.
- [17]吳淳邦·朴璟實 編著,《인터넷 시사중국어》(개정판),송실대학교 출판부,1998-2010,제5판 개정.
- [18]교육부,〈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개발을 위한 편수자료Ⅱ 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 편》47-62쪽,2023.3.

[19]滕菲,〈中国中学阶段汉字教育简介〉、〈中国高校本科阶段汉字教育相关课程设计简介〉,初稿, 2025.10。

[20]赵太莲,〈韩国大学生线上汉语多模态教学研究--崇师大学为例〉, 2025年度韩国中语中文学会秋季联合国际学术大会, 延世大学, 2025.10.25。

[21]姬代玲,〈语言数字化赋能韩国中文教学模式研究〉, 2025年度韩国中语中文学会秋季联合国际学术大会, 延世大学, 2025.10.25。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2부

21. 중국어교육(4)

위당관 215호

중국어 교육과 AI 융합: 교육의 혁신과 확장

数字时代下中文教育的创新路径研究

潘安琪

<目 次>

【摘要】

- 1. 引言
 - 2. 数字时代中文教育的现实困境
 - 3. 数字技术在中文教学中的赋能契机
 - 4. 中文教育创新的核心路径
 - 5. 创新路径的技术风险规避
 - 6. 结语
- 参考文献

【 摘要 】

在科学技术不断深入发展的当下，中文教育的数字化转型绝非简单的技术叠加，而是一场涉及理念、过程、评价等多层次的生态重构。本文通过系统梳理数字时代中文教育面临的现实困境与数字技术带来的赋能契机，尝试性提出“技术层—资源层—模式层—生态层”四位一体的整合性分析框架，进而在此框架下详细阐述各层级的具体创新路径，并对创新过程中可能面对的技术风险提出规避策略。以期在坚持人文主义精神的基础下，提出人机协同、虚实融合的中文教育新图景。

。

1. 引言

随着第五代移动通信技术（5G）、人工智能（AI）、大数据、虚拟现实（VR）/增强现实（AR）等技术的集群突破与深度融合，人类社会正加速迈向一个以数字化、网络化、智能化为特征的崭新历史阶段。这一变革浪潮席卷全球，对教育领域产生了革命性影响，推动其从工业时代的标准化教育向数字时代的个性化、智慧化教育范式转型。中文教育作为传承中华优秀传统文化、促进跨文化交流的基石，其现代化进程至关重要。然而，审视当下中文教育的实践现场，其在教学范式、内容呈现、评价体系等方面尚且存在转型困境。因此，在数字时代背景下，中文教育如何系统性地整合新兴技术，突破现有桎梏，构建一个能够支持个性化学习、促进文化深度理解、提高综合素养的创新生态体系成为了一个亟待解决的问题。本研究立足于技术赋能与人机协同理念，尝试构建一个整合性的分析框架，从生态重构的视角，系统审视数字时代中文教育的创新路径。

2. 数字时代中文教育的现实困境

2.1. 教学范式固定化

在数字时代背景下，中文教育教学范式中最根本的桎梏在于教学主体关系的单向固化。这是一种深植于传统课堂结构中的“教师中心主义”模式，其核心特征是知识流动的单向性和权力结构的不平等性，其主要表现为知识权威的垄断（即教师被视为知识的唯一权威来源和真理的持有者，课程设置严格按照教材推进，教学行为被简化为一种单向的“灌输-接收”过程，学生作为认知主体从实质上被排除在外）、课堂互动深度的匮乏（即教师掌控着提问、讲解、评价的绝对权力，而学生的话语空间被压缩为对教师封闭性提问的简短回应。课堂对话呈现出典型的“IRE模式”——教师发起-学生回应-教师评价）、学生主体性的湮没与学习内驱力的消解（即学生学习中文的动机各不相同，面对不同动机的学生却统一采取固定化的教学范式，学生的学习的目标被异化为应付考试和取悦教师，其内在的学习乐趣被消磨，学习内驱力必然会逐步消解）。

2.2. 内容呈现的静态化

传统中文教育模式下，静态化、平面化的教学资源与线性、封闭的教学过程设计相互强化，共同加剧了文化传承的深层张力。当前中文教学课堂，其资源呈现仍以文字、图片等静态载体为主，对丰富的文化内容进行“脱水”处理，使其沦为孤立的知识点，难以激发学生的情感共鸣和深度理解，导致文化传承流于表面。而教师普遍遵循“环环相扣”的教案设计，形成“复习旧知—讲解新知—巩固练习—总结作业”的固定流程。这种“线性序列”试图通过高度控制的节奏达成预定目标，却不可避免地导致了文化解读的单一性和学生思维的替代性，教师对文本的解读往往直奔“标准答案”，课堂互动沦为“猜老师想要的答案”，学生主动中文文化体系建构被压制。

2.3. 空间场域的限制

数字时代学习的一个核心特征是泛在性与个性化，即学习可以发生在任何时间、任何地点，并根据学习者的个体需求进行定制。然而，传统中文教育的实践场域大多被限定在物理教室这一单一、封闭的空间内，而打破了物理教室壁垒的线上教学仍然受制于课时的刚性约束。这种时空的固化与教学方法的单一化相互交织，共同构成了与个性化学习需求之间的根本性矛盾。

课堂的时空限制远非一个简单的“场地”问题，它与僵化的教学组织方式、窄化的教学方法深度融合，共同形成了一套压制个性、强调统一的标准化生产系统。这套系统与数字时代所呼唤的弹性化、个性化、情境化的学习范式形成了尖锐的对立，成为阻碍中文教育实现“因材施教”千年理想的结构性桎梏。

2.4. 评价机制的单一

当前评价体系的核心问题在于其极度的窄化。它将丰富多元的中文素养强行压缩为便于纸笔测试的可量化知识点。评价内容过度聚焦于字词默写、语法规则、标准化的阅读理解答案和程式化的作文模板。这种“什么易于测量，就测量什么”的逻辑，导致“考试考什么，教师就教什么，学生就学什么”的功利化循环，造成了“素养缺位”的严峻现实。而评价机制中单一的分数导向使评价的功能发生了严重异化，其甄别与选拔功能被无限放大，评价本应具备的激励、导向、调控作用被限制。而评价方式的滞后性很容易使教师和学生错过最佳的教学干预时机，只能沦为终结性评价。此外，评价的权力完全掌握在教师手中，评价成为一种单向度的“教师独白”。学生作为学习的主体，被完全排除在评价过程之外，没有自我反思、同伴互评的机会。这不仅违背了教育民主化的原则，更使学生丧失了培养元认知能力——即对自己学习的监控、评估和调节能力——的宝贵机会。

3. 数字技术在中文教学中的赋能契机

3.1. 个性化定制

随着生成式人工智能的发展，个性化的中文教育不再是纸上谈兵的理论。AI的学习分析技术通过多维度的数据采集，可以构建动态的学习者画像，并随着数据的不断输出和调整，能够实时更新学习者的知识图谱，诊断其知识结构缺陷、能力短板与认知风格。在此基础上，系统可智能推送与之当前“最近发展区”相匹配的学习内容与路径。例如，在文言文学习中，系统可为基础薄弱者自动提供字词释义和语法解析支架，而为学有余力者推送相关历史背景深度文章或对比阅读材料。这种自适应性学习实现了从“人适应课程”到“课程适应人”的根本转变，将“因材施教”这一古老的教育理想落到了实处。这种个性化学习模式打破了“一刀切”的教学局限，使每个学生都能获得适合自身发展水平的学习体验。它既能让学习困难的学生夯实基础，又能让学有余力的学生拓展提升，真正实现了“因材施教”的教育理想。

3.2. 情境化沉浸

对于把中文作为第二语言来学习的学习者来说，对中国文化的理解无疑是其学习的难点所在。而VR和AR技术可以通过创建多感官刺激的沉浸式环境，有效促进情境认知和具身学习。这些技术能够打破时空限制，将抽象的文化概念转化为可感知、可交互的具象体验。比如在文化教学中可以通过构建高度仿真的历史文化场景让学习者通过视觉、听觉甚至触觉等多感官通道，“亲临”语言产生与运用的原生语境。例如，在学习《赤壁赋》时，学生可“置身”于VR构建的泛舟场景中，感受“清风徐来，水波不兴”的意境，从而超越文字符号的表层理解，达成对作品情感与哲思的深度共情。这种情境化认知不仅极大地提升了学习动机，更促进了文化知识向文化素养的内化，使文化传承从“知道”变为“体验”和“理解”。这种情景化的沉浸式学习环境显著提升了文化学习的体验性和参与，它使抽象的文化知识变得具体可感，促进了学生对文化内涵的深度理解，从而提高学生的文化认同感，促进跨文化的交际和融合。

3.3. 资源普惠化

云计算与平台化技术的核心赋能在于打破教育的时空与资源壁垒，促进教育公平。它通过构建国家及区域级的智慧教育公共服务平台，将分散的优质资源进行整合与云化，实现一点接入、全网服务，这使得偏远地区的学生也能便捷地获取与城市学生同质的优质教育资源，有效缓解了地域间、校际间的教育资源落差，缩小了数字鸿沟。更重要的是，平台模式支持资源的协同建构与动态生成，教师和学生可成为资源的贡献者而不仅仅是消费者，从而形成一个充满活力的、可持续进化的中文教育数字资源生态。

3.4. 决策科学化

大数据的赋能体现在将教学决策从依赖个体经验提升到基于群体证据的科学化层面。通过对整个教学过程中产生的海量数据进行分析与可视化呈现，教师可以获得前所未有的教学洞察力。在宏观层面，教师能清晰把握班级整体的知识掌握趋势与共性难点；在微观层面，能精准识别每个学生的个性化学习障碍。这使得教学干预从“大水漫灌”变为“精准滴灌”，例如，教师可以依据数据报告，针对大多数学生的共性错误设计专门的复习课，或对个别学生进行一对一的辅导。最终，大数据驱动教学管理走向精细化，不仅满足了学生多样化的学习需求，还推动了整个教学系统的优化与迭代。

4. 中文教育创新的核心路径

中文教育的创新是一个系统工程，需从不同层面协同推进，因此尝试性地构建一个由表及里、由基础到顶层的四层级框架。

4.1. 技术层：智能技术与教育过程的深度耦合

技术层是创新路径的基础支撑层，强调技术无缝嵌入教与学的核心环节。技术的发展必然会引起教育的变革。数字时代下，如何把技术嵌入教育成为热门命题。人工智能可以作为认知工具，如在写作教学中，集成自然语言处理（NLP）技术的智能评阅系统不仅能识别语法、拼写错误，还能对文章结构、逻辑连贯性、情感表达提供形成性反馈。VR/AR能作为情境创设工具，如可以开发“古典文学VR体验馆”，让学生沉浸于《清明上河图》所描绘的汴京盛景中；利用AR技术，扫描课本中的古诗词，即可呈现对应的动画意境解说，使抽象的文字转化为可感知的视觉场景。大数据可以作为评估诊断工具，如构建学习者数字画像，整合其课堂互动、作业完成、在线测验、项目成果等多源数据，通过可视化仪表盘呈现其能力发展轨迹，实现从“总结性评价向“过程性、发展性评价”的转变。

4.2. 资源层：从“资源库”到“知识生态”的演进

数字资源建设需超越简单的数字化和堆砌，走向结构化、语义化与生态化。而要推进态化、结构化的数字资源体系建设，必须要汇聚多方力量，建设出国家级开放教育资源平台，资源形态也应涵盖微课、慕课（MOOC）、交互式课件、数字博物馆、学术数据库等，并建立严格的准入、更新与淘汰机制。此外，还要完善中文教育知识图谱的构建及其教学应用，从而可以利用知识图谱技术，将汉字、词汇、语法点、文学作品、作家、文化典故等实体进行关联，形成一个语义网络，便于学生构建自身的知识框架。

4.3. 模式层：教学结构与流程的再造

模式层构建的重在于如何利用技术和资源重组教学流程，创新教学范式。首先可以打造线上线下一体化的混合式学习模式，深度融合面对面教学与在线学习优势。将知识传授环节通过线上微课完成，课堂时间则用于小组讨论、项目探究、深度答疑等高阶思维活动，实现课堂的“翻转”，充分发挥教师的主导性和学生的主体性。其次要加强以问题为导向的跨学科项目式学习（PBL）设计。比如围绕“如何为本地文化特色制作一部数字档案？”等真实、复杂的问题，学生需综合运用中文、历史、艺术、信息技术等知识开展探究，而数字工具可以为跨学科协作提供强大支持，从而有效培养学生解决真实问题的能力。

4.4. 生态层：系统要素的联动与重构

生态层的构建需要教育各个要素的配合和联动，在教师方面，教师要面临角色的转型：从知识传授者到学习设计师与引导者，其中心任务不再是灌输知识，而是设计学习活动、提供资源支架、引导探究过程、关注学生情感发展。在学生方面，学生要加强主体意识，要学会从被动接收者到主动建构与协作者。在评价体系方面，必须从单一的评价转向多元、综合的发展性评价，建立包含学业成绩、同伴互评、实践表现等多元指标的评价体系，重点考察学生的成长过程与综合素养。在环境方面，要灵活运用数字技术，构建智慧学习环境，支持泛在、无缝的学习体验。智慧环境的构建需要整合物理空间与虚拟空间，从而打造出支持个性化学习、小组协作、公开展示的灵活学习空间，并确保学习数据在不同场景间无缝流转，支持“人人皆学、处处能学、时时可学”的泛在学习生态。

5. 创新路径的技术风险规避

新技术的应用必然会伴随技术风险，因此在积极推进创新的同时，必须保持清醒的批判意识，防范潜在风险。首先要树立工具理性，坚持教育本质，警惕“技术至上主义”。技术是服务于教育目的的手段，绝不能本末倒置。应避免为追求技术的新颖性而忽视教育活动的育人本质。技术的价值在于赋能，而非替代师生间有意义的人际互动与情感交流。

再次，要理性面对数字鸿沟的挑战，不断维护教育公平。技术的普及与地区的经济实力息息相关，因此可能会加剧地区间、校际间、不同家庭背景学生间的资源差距。这需要政府与社会需求来采取有效措施，通过基础设施投入、设备补贴、数字技能培训等，保障弱势群体的数字学习权益，防止技术应用带来新的教育不公。

然后，要明确数据隐私与算法伦理的规范边界。学习数据的采集与分析必须在法律框架和伦理准则下进行。需明确数据所有权、使用权和保密责任，建立透明的算法问责机制，防止学生和教师隐私泄露以及算法偏见带来的歧视性后果。

最后要坚持人文精神在技术赋能教育中的核心地位。中文教育的根本在于语言素养的提升、文化精神的传承与健全人格的养成。任何技术应用都应以滋养人文精神为归宿，未来的方向应是“人机协同”，让技术处理重复性工作，使教师能更专注于富有创造性和人文关怀的教育活动，而不是技术取代教育。

6. 结语

数字时代中文教育的创新是一个基于技术融合、旨在重构教育生态的系统工程。它需要依次夯实技术层的智能支撑，优化资源层的知识供给，创新模式层的教学实践，并最终完成生态层的系统性变革。这四个层级相互依存、相互促进，共同构成一个动态演进的创新框架，使得未来的中文教育呈现出人机协同、个性化、智慧化的新形态

参考文献

- [1]王永艳. 多维交互机制下国际中文教育创新路径研究——基于社交媒体生态场域的讨论[C]//中文教学现代化研究——2025年专题文集（上）. 澳门科技大学国际学院;, 2025:101-102.
- [2]胡杰. 数智时代高校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的创新路径[J]. 汉字文化, 2025, (04):86-88.
- [3]宋鸿立, 宋雨倩. 国际传播新语境下多模态国际中文教育创新性发展路径[J]. 辽宁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25, 48(01):124-131.
- [4]陈苗. 提高中国语言文化传播力创新中文教育发展路径——评《国际中文教育领域拓展和路径创新研究》[J]. 中国教育学刊, 2024, (12):135.
- [5]刘冰, 郑艳群. 国际中文教育项目的多元发展：创新模式与实践路径[J]. 天津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24, (06):17-24.
- [6]郭修敏, 赵琪凤. 教育评价改革背景下国际中文教学评价的工程化创新：理念、内容与路径[J]. 国际汉语教学研究, 2024, (03):37-44.
- [7]魏晖, 吴晓文. 国际中文教育集成创新：内涵、价值和路径[J]. 世界汉语教学, 2023, 37(02):147-156.

语言数字化赋能韩国中文教学模式研究

姬代玲*

<目 次>

【摘要】

1. 引言
 2. 韩国中文教学数字化转型现状
 3. 韩国中文数字化教学的技术路径
 4. 韩国中文数字化教学模式创新
 5. 结语
- 参考文献

【摘要】

韩国中文教学呈现出多元化、普及化、数字化的特点。全球信息化时代的到来使韩国在语言数字化方面急需变革。韩国政府制定了一系列政策推动了教育信息化发展，全球领先的数字基础设施为教育数字化转型提供了坚实基础。以语言数字化技术为背景，通过技术基础设施、教学技术应用、平台工具、技术成本与标准化四个方面对数字化教学技术路径进行探究，从而提出混合式教学模式设计与应用、多模态教学资源设计与整合、中韩协同教学模式创新等四种适应韩国中文教学发展的新型数字化教学模式。

关键词：数字化技术；教学模式；转型；路径

* 姬代玲，韩国崇实大学中韩语言文学博士，平顶山学院讲师。

1. 引言

随着全球信息化时代的到来，世界各国技术竞争也日益激烈，尤其体现在人工智能、数据、云计算、软件、Metabus、数字平台等新兴数码产业。韩国计划在2027年成为全球三大人工智能强国之一。为实现这一目标，韩国制订了一系列数字化综合计划，如“大韩民国数字战略”“人工智能日常化及产业高度化计划”以及“新数字制造革新推进2027战略”等。韩国地处东北亚地缘政治要地，在经合组织数字政府指数中被列为世界上政府数字化程度最高的国家，为了跃升为全球数字大国，韩国在语言数字化方面做了一系列的探索。2023年，韩国政府仅在人工智能语言数字化发展方面就投入了3,900亿韩元用以提高超大型AI研发技术水平和产业基础设施标准。此外，为了提高超大型AI的韩国语性能，韩国政府还计划构建130种高级语料库和韩国语应用语料库等。由此可知，为了确保在全球超大型人工智能语言数字化领域的主导地位，韩国在人工智能语言数字化发展方面已经制订了较为具体的目标和计划。

韩国作为全球最大的中文教育市场之一，在语言数字化转型方面正经历着前所未有的变革。随着全球数字化浪潮的推进，韩国政府对教育数字化的重视程度不断提升。陈艳平、景莹（2024）通过对韩国人工智能语言数字化发展状况的调查，指出为应对数字化时代的到来，韩国在人工智能语言数字化方面做出了一系列探索。王建梁、熊可欣（2025）基于四维政策分析模型视角，分析了韩国中小学人工智能教育政策在规范维度、结构维度、成分维度、技术维度的实施，确保了人工智能教育在中小学有序进行。本文以语言数字化时代为背景，依据韩国政府数字化政策和数字化技术应用情况，旨在探讨适合韩国学生的新型中文数字化教学模式，以期为国际中文教学实践的创新提供参考。

2. 韩国中文教学数字化转型现状

2.1 韩国中文教学发展历程与现状

韩国中文教学的发展与中韩两国政治、经济、文化交流密切相关，大致可分为以下几个阶段：古代萌芽期（公元1393年-19世纪末）、近代衰落期（20世纪初-1945年）、现代复兴期（1945年-1992年）、快速发展期（1992年至今）。当前，韩国中文教学呈现多元化、普及化、数字化的特点。首先，韩国已建立起从小学到大学的完整中文教学体系。其次，韩国中文教材开发成果显著，目前已开发出超过1500种中文教材，涵盖基础、中级、高级等不同层次，满足不同学习者的需求。教师培养方面，韩国已从依赖外部支持转向立足本土。在标准化测试与人才评价方面，HSK（汉语水平考试）和BCT（商务汉语考试）等标准化测试在韩国得到广泛推行，对科学选拔和培养中文人才起到了关键作用。孔子学院是韩国中文教学的重要平台。随着信息技术的发展，韩国中文教学逐渐向数字化转型。许多培训机构和孔子学院开发了数字化教材和课件，如“汉语在线教学与辅导项目”利用互联网及信息通信技术，搭建在线授课平

台，实现直播互动的学习环境，模拟线下课堂教学，克服了传统教学在时间、空间、教育环境等方面的限制。尽管韩国中文教学取得了显著成就，但仍面临一些问题，如教师短缺：随着中文学习需求的增长，韩国中文教师数量不足，尤其是农村地区师资力量薄弱。教学质量参差不齐：小班授课导致教师需求量增大，教师质量参差不齐。区域差异：首尔等大城市中文教学资源丰富，偏远地区相对匮乏。

2.2 数字化转型的政策环境

韩国政府高度重视教育数字化转型，制定了一系列政策推动教育信息化发展。韩国从20世纪90年代起，根据《教育部智能信息化业务处理规定》，每隔5年发布一次教育信息化综合计划，明确未来教育数字化转型的环境、内容和前景。2023年8月7日，韩国教育部颁布《2023年教育信息化实施计划（方案）》，该计划由韩国教育部和韩国各市、道教育厅等31个机构共同制订并推行。根据韩国教育部公布的《AI数码教科书推进方案》，从2025年开始，小学3-4年级和初一、高一学生将在数学、英语、信息科目上率先使用数码教科书；2026年起，其他年级也将使用数码教科书，小学和初中生开始在国语（韩语）和社会、科学课上使用数码教科书；2028年起小学、初中、高中全年级将引进数码教科书。

2.3 数字化基础设施建设水平

韩国拥有全球领先的数字基础设施，为教育数字化转型提供了坚实基础。在教育信息化应用方面，韩国的普及率同样令人瞩目。在韩国中小学中，86%的教师课程中应用信息技术，99.6%的学生利用信息技术支持学习；在高等教育领域，95%的研究生和72%的教师利用了研究信息服务系统，国立与私立大学电子化学习的利用率已达到97%。为支持AI数字教科书的推广，韩国政府加大了对学校数字基础设施的投入。2024年，韩国教育部将向全国6000所小学、初中和高中提供总计600亿韩元，用于改善网络条件，如检查和改善互联网速度以及网络接入障碍。教育部计划明年检查另外6000所学校的网络条件，使总数达到约12000所小学、初中和高中。

3. 韩国中文数字化教学的技术路径

3.1 技术基础设施层面

韩国在教育领域的5G网络建设已取得显著进展。韩国在“5G+战略”中针对教育和文化领域提出了沉浸式教育计划，为地方和职业学校提供基于5G、VR和AR的远程教育和培训。2018年12月，韩国首尔延世大学宣布与电信公司KT合作推出全球首个5G演进网络开放平台，通过5G商业网络连接延世大学首尔新村主校区和仁川松岛国际校区，支撑师生开展基于5G+AR的牙科治疗和室内建筑设计等学科的研究和教学。韩国《中央日报》2019年4月16日消息，SK电讯和陆军士官学校4月15日在首尔孔陵洞陆军士官学校

本馆签署了打造“智能陆军士官学校”的合作合同。这是韩国移动通信企业第一次针对某个特定的军事设施全面构建定制型5G基础设施。

3.2 教学技术应用层面

3.2.1 AI辅助教学技术

韩国在AI辅助语言教学方面处于全球领先地位。韩国电子和电信研究所（ETRI）开发了一种阅读理解教育AI技术，可让学习者通过与人工智能导师交谈来学习外语听说和读。这是全球首次将基于深度学习的对话处理技术引入阅读理解教育。韩国电子和电信研究所（ETRI）开发了一种阅读理解教育AI技术，可让您通过与人工智能（AI）导师交谈来学习外语听，说和读。预计这将对基于人工智能的语言教育服务的传播有很大帮助。在实际应用中，ETRI的技术已被应用于世宗国王学院基金会的“世宗国王学院AI韩语导师”，为缺乏与韩国人交流机会的学生提供学习韩语的机会。山东科技大学国际交流学院与科大讯飞合作开发的平台系统支持包括中、英、日、韩、俄、泰语在内的6个语种，内容包括HSK线上模拟考试、AI语法课程、课程同步练习，同时支持词汇、听力、阅读、写作等专项练习，及认汉字、练笔画、学词语、学句子、朗读智能语音识别与评分、PK游戏等中文学习工具。

3.2.2 VR/AR沉浸式学习技术

虚拟现实和增强现实技术在韩国中文教学中的应用日益广泛。利用虚拟现实（VR）和增强现实（AR）技术，教师可以设计出更加生动、逼真的游戏场景，让学生在虚拟的环境中学习汉语，这将极大地提高学生的学习兴趣 and 参与度。中文教育MR大空间协同交互系统通过结合虚拟现实（VR）、增强现实（AR）和现实环境，创造沉浸式的中文学习体验，广泛应用在语言类学校中文课程、海外孔子学院教学、企业跨文化培训和个人自主学习中。该系统具备视觉识别功能，能够识别实物设备，并将预设的虚拟影像进行虚实匹配，学生可以通过和虚拟影像的交互来学习实物设备的模拟使用，提高教学的安全性。

3.2.3 大数据个性化推荐技术

大数据和人工智能技术在韩国中文教学中的个性化应用日益成熟。新英才爱语开发的Say Ninhao平台系统通过大数据分析、人工智能（AI）等技术应用，可以针对每一位学员的个人资料、学习过程和阶段情况进行跟踪分析，针对不同学员提出个性化学习建议，以及未来的相关定制化服务。孔子学院作为语言文化传播的重要平台，在教学质量提升方面形成了多维度的创新体系。AI驱动精准教学依托深度语言学习算法开发的“汉境”智能平台，已实现95%课程资源的个性化推送。元宇宙沉浸式课堂2023年启动的“丝路书院”虚拟空间项目，已建成56个文化场景模块。首尔分院结合本地K-pop文化开发的虚拟偶像中文课，使青少年学员留存率提高至89%。

3.3 平台工具层面

3.3.1 主流中文教学平台

韩国市场上的中文教学平台呈现多元化发展态势，既有国际知名平台，也有本土开发的特色应用。**国际平台在韩国的应用：**Duolingo作为全球知名的语言学习应用，在韩国拥有众多用户。它提供了丰富多样的汉语学习课程，以趣味性和互动性为特点。课程内容采用游戏化的设计，通过各种有趣的小游戏、挑战和任务，如单词拼写、听力练习、对话模拟等，让学生在轻松愉快的氛围中学习汉语。**韩国本土平台的创新：**韩国慕课（K-MOOC）是韩国本土的大规模开放在线课程平台，也设有汉语相关课程。该平台整合了韩国多所高校和教育机构的优质教学资源，课程质量较高。其课程设置注重系统性和专业性，由韩国知名高校的汉语专业教授授课，内容涵盖汉语语言知识、中国文化、文学等多个方面。韩国的视频教育平台也发展迅速。Daum Kids是韩国搜索引擎巨头Daum的子公司，提供了大量面向各年龄段儿童的中文教育视频库。

3.3.2 韩国本土中文学习APP

韩国中文学习APP市场呈现多元化、本土化、智能化特征，覆盖从零基础入门到专业提升的全阶段需求。主要类型包括综合学习平台、词典与翻译工具、游戏化学习APP、专项技能训练工具，其中HelloTalk、ChineseSkill、全球中文学习平台国际版（iFLYChinese）、Papago、Ling等为韩国用户常用的高口碑产品。这些APP通过AI互动、游戏化设计、场景化学习等特色，满足韩国学习者“实用、有趣、高效”的中文学习需求，成为中韩文化交流与经贸往来的重要支撑。

3.4 技术成本与标准化

3.4.1 硬件设备投入成本

韩国在教育数字化硬件设备方面的投入巨大。根据韩国教育部的规划，从2025年起未来3年内，允许所有科目并用传统课本和数码教科书，最终目标是让学生不用背书包，只拿一个平板电脑上学。在具体投入方面，2024年韩国政府宣布投入963亿韩元（7000万美元）用于改善公立学校的数字基础设施和开发数字教科书。为准备使用AI驱动的数字教科书，教育部将向全国6000所小学、初中和高中提供总计600亿韩元，用于改善网络条件，如检查和改善互联网速度以及网络接入障碍。

3.4.2 软件开发与运营成本

韩国在教育软件和平台开发方面的投入同样可观。韩国的“课堂革命”计划在学校数字化方面的预算超过2.76亿美元，其中包括7000万美元用于数字基础设施和AI教科书的开发。在具体的软件开发成本方面，韩国政府要求建立从供应数字设备到维护和处置的每个步骤的通用标准、程序和方法的指导方针，并提供安全设备管理支持，以防止学生过度接触数字媒体和阻止有害信息。

3.4.3 技术标准与规范建设

韩国在教育数字化技术标准方面建立了较为完善的体系。韩国从20世纪90年代起，每隔5年发布一次教育信息化综合计划，明确未来教育数字化转型的环境、内容和前景。在AI数字教科书的技术标准方面，韩国政府制定了严格的审查流程。根据韩国《京乡新闻》报道，自从政府提出人工智能数字教科书这个设想以来，AI专家们一直对其“AI聊天机器人”这一功能表示担忧。

4. 韩国中文数字化教学模式创新

4.1 混合式教学模式设计与应用

国际中文在智能化教学实践方面催生出多种适合海外中文教学特点的优秀教学模式。韩国中文教学中的混合式教学模式已成为重要的创新方向。混合式教学模式将传统学习方式的优势与网络学习的长处全面有机地结合起来，强调如何优化各种学习资源、整合各种学习要素，以达到最佳的教学效果。韩国蔚山大学在零起点中文智能教学中探索了独特的混合式教学模式。该模式的实现离不开高新技术的融合，特别是语音识别技术和线上、线下互动平台可以让学习者体验到真实的交际语境，对教学效果有积极的影响。姜帅（2023）从任务前的形式聚焦、任务中的形式聚焦、任务后的形式聚焦和效果检测等方面对其混合式教学模式的构建、实施过程进行了分析，旨在有效探讨韩国中文教学模式的本土化特点。在具体实施中，韩国的混合式教学模式呈现出多样化特征。

4.2 多模态教学资源设计与整合

多模态教学理论在韩国中文教学中的应用日益深入。多模态话语分析理论强调语言、图像、声音、动作等多种模态在交际中的协同作用，认为通过多种模态的整合，可以更有效地传达信息，提高交际效果。在韩国东豆川外国语高中的实践中，多模态教学资源的应用取得了良好效果。通过运用多模态教学资源和设计多模态教学活动，如结合图片、音频、视频等进行词汇教学、语法教学等，能够更好地满足学生的学习需求，提高学生的汉语综合运用能力。在多媒体资源整合方面，韩国的中文教学呈现出丰富多样的特点。网络平台上丰富的汉语教学视频，包括教学讲解视频、情景对话视频、汉语儿歌视频、动画故事视频等。

4.3 中韩协同教学模式创新

中韩协同教学模式是韩国中文教学中的重要创新，体现了跨文化合作的特色。协同教学模式强调中韩两国教师的合作，充分发挥双方的优势，共同开展汉语教学活动。通过这种模式，韩国本土教师和中国籍教师可以相互学习、相互补充，为学生提供更加优质的汉语教学服务。韩国的汉语合作式教学即在同一个班级的课堂上，韩国本土的汉语老师和中国老师根据提前制定好的教学目标、课程内容、方法以及具体的

教学步骤，各取所长，合力完成课堂教学任务。目前，韩国的汉语合作教学模式大致分为三种：以韩国教师教学为主，中国教师教学为辅；平均分配的合作教学模式；以及轮流主导式教学。在轮流主导式教学模式中，中韩教师根据教学内容和学生需求，轮流担任主讲教师。

4.4 直播授课与录播自主学习模式

韩国中文教学中的直播授课模式发展迅速，特别是在疫情期间得到广泛应用。韩国忠南大学孔子学院在疫情期间积极筹备，决定采取以ZOOM为平台的线上教学模式。通过前期充足的准备，忠南孔院的教师们结合PPT及其他多媒体教学资源，在线为学生们开展教学课程，让学生不出家门，也能体验汉语的魅力。在高等教育领域，韩国世明大学中文授课专升本经营学专业采用中韩双语授课，课程主要以韩语讲授，但配备中文辅助材料和教学支持。除了传统的线下课堂授课，学校还提供线上直播课程，每学期约100课时。这种线上线下相结合的教学模式，为学生提供了更灵活的学习方式，确保学生能够充分利用课余时间巩固知识。录播自主学习模式为学生提供了更加灵活的学习方式。学生可以根据自己的时间和进度随时观看学习，反复观看录播视频，对于难以理解的知识点进行重点学习，自主控制学习节奏。这种教学形式具有很强的灵活性，学生不受时间和地点的限制，能够充分利用碎片化的时间进行学习。

5. 结语

本研究聚焦语言数字化技术对韩国中文教学模式的革新作用，通过数字化转型现状分析、技术路径探索与理论推演，揭示了数字化技术对重构韩国中文教学模式的重要意义。语言数字化不仅是技术工具的迭代，更是教育范式的根本性变革。韩国中文教学的数字化转型实践表明，唯有将技术创新与教育规律深度融合，构建“以学习者为中心、以文化为内核、以技术为支撑”的新型教学模式，才能在全球中文教育竞争中占据先机。随着5G、AI、XR等技术的持续突破，韩国中文教学将迈向更智能、更开放、更具包容性的新阶段，为中韩人文交流与经贸合作注入持久动力。

参考文献

- [1]魏龙欣. (2023). 线上国际中文教育发展现状及其对策研究——以日本、韩国孔子学院为例. 佳木斯大学社会科学学报, 41 (02).
- [2]贺莉娜 & 任承炫. (2022). 韩国中文教学资源发展研究. 云南师范大学学报(对外汉语教学与研究版), 20 (01)
- [3]金美. (2015). 韩国大学中文教育模式的历史变迁——基于近代朝鲜时代汉语“教科书模式”探源. 大学(研究版), (11).

- [4] 刁世兰. (2011). 韩国汉语教学的现状及发展对策——以济州汉拿大学为例. 合肥学院学报(社会科学版), 28(06).
- [5] 姜帅. (2023). 混合式教学中的形式聚焦——以韩国蔚山大学零起点中文智能教学为例. 东疆学刊, 40(04).
- [6] 沈红霞. (2024). 基于人工智能的“线上+线下融合式”对外汉语教学探析. 齐齐哈尔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08).
- [7] 郑艳群. (2019). 汉语教学70年——教育技术的影响及作用. 国际汉语教学研究, (04).
- [8] 陈艳平 & 景莹. (2024). 韩国人工智能语言数字化发展状况调查研究. 东北亚外语研究(04).
- [9] 원은석. (2023). 생성형 AI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대전일보.
- [10] 박현진. (2024). NIA, 캄보디아 한국형 디지털정부 및 AI 글로벌 확산 본격화. 인공지능신문.

AI 활용 반도체 분야 특수목적 중국어 교재 개발에 대한 고찰

박영미 · 신승희*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AI 활용 교재 개발 방안
 4.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반도체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수목적 중국어(CSP) 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AI 활용 가능성과 교재 개발 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존 일반 목적 중국어 교육이 직무 특화 역량 함양에 한계를 보이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도체 직무에서 요구되는 전문 용어 학습, 기술 문서 작성, 현장 회화 능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적용된 ADDIE 모형과 NCS 기반 설계를 토대로, AI를 활용한 맞춤형 자료 제공, 실시간 피드백, VR 시뮬레이션 등의 도입 전략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학습자의 직무 적합성과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향후 최신 콘텐츠 반영, 학습 몰입 강화, AI 윤리 및 데이터 보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관련어] 특수목적 중국어(Chinese for Specific Purposes, CSP), Generative AI, NCS, ADDIE, 인공지능 언어모델, 반도체 중국어

*박영미 (제 1 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국제중국어교육학과 졸업)
신승희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국제중국어교육학과 교수)

1. 서론

AI 시대와 함께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으로 성장하였으며(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2024; Knox, 2020; Miller, 2022; Webster, 2019),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과 협력·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전문 인력의 중국어 역량 확보가 필수 과제로 대두되었으며(FPRI, 2024; IC Insights, 2020; Zhao, 2024; Zhang, 2020). 현장에서도 승진, 해외 파견, 프로젝트 협업 과정에서 중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박영미, 2022).

그러나 기존의 일반 목적 중국어 교육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어휘와 직무별 언어 능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기술 집약적 산업에서는 특수목적 중국어(Chinese for Specific Purposes, 이하 CSP) 교육이 요구되며(Yeh 2020; 이옥주, 2007). 직무 수행과 밀접하게 연계된 언어 학습을 통해 현장 적응력과 실무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킨다.

최근 생성형 AI(Generative AI, 이하 GenAI)의 발전은 CSP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Gao et al., 2025; Harvard Scholars, 2024; Kulkarni et al., 2024; Law, 2024). ChatGPT, Gemini, DeepSeek 등은 실제 교육에서 최신 산업 정보를 반영하고 학습자 맞춤형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노하은, 2025; 류재원 & 소리나, 2023; 임성태 & 김은희, 2024; 이선우 외, 2024). 예문 생성, 회화 시뮬레이션, 자동 평가 등을 통해 학습 효율과 CSP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다(Ng, 2021; 이웅기,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반도체 산업 협력 확대에 따른 중국어 역량 강화 필요성, 기존 교육의 한계, 그리고 AI 활용 CSP 교육의 가능성을 토대로 반도체 직무 엔지니어용 특수목적 중국어 교재 개발 전략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반도체 분야 중국어 교육 현황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이자 글로벌 경쟁의 중심 산업으로, 중국과 기술·시장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서재창, 2025). 국내 반도체 기업은 협력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현지 대응을 위해 실무형 중국어 능력을 요구하지만, 현재 제공되는 교육은 단기 연수나 입문 회화 중심으로 전문 용어와 직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박영미, 2022).

특히 국내에는 반도체 특화 중국어 교재가 부족하다. 일반 교재는 반복 훈련과 기초 문법에는 효과적이지만, 공정, 품질 관리, 기술 협업 등 특수 직무 상황과 최신 산업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는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언어 능력을 충분히 습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반도체 중국어 교육에는 학습자 요구 반영, 직무 상황별 전문 어휘와 반복 훈련, AI 활용 맞춤형 학습과 최신 산업 정보 반영이 필요하다(노하은, 2025; 임성태 & 김은희, 2024).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언어 훈련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무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2 특수목적 중국어 교육과 AI 기술 융합

특수목적 중국어 교육(CSP: Chinese for Specific Purposes)은 특정 학문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발전해 왔다(Gilster, 1997; McKinley & Rose, 2022; Zhang, 2018). CSP는 학습자의 직무 전문 요구를 반영한 과제 중심 교수법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며(Miao, 2023; Ye, 2020), 특히 반도체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에서는 실제 과제와 연계된 표현 학습이 직무 적합성 향상에 기여한다.

Qiao & Zhao(2023)는 AI 기반 학습이 중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과 자기조절 학습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劉怡(2025)는 문법·발음 오류를 자동 인식하는 AI 피드백이 반복 학습을 강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는 AI가 일반 언어 교육을 넘어 CSP 영역에도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중국과의 기술시장 협력이 긴밀한 분야로, 현지 협력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현장 대응을 위해 실무형 중국어 능력이 요구된다(서재창, 2025). 그러나 국내 교육은 단기 연수나 입문 회화 중심에 머물러 전문 용어와 직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박영미, 2022).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연구들은 생성형 AI 기반 대화 시뮬레이터, 학습자 오류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 학습(Caines et al., 2023; Gao et al., 2025;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GSE], 2024), 그리고 음성 인식 기반 발음 교정을 통한 실시간 피드백 제공 등 다양한 전략을 제시한다(Hirabayashi et al., 2024; Law, 2024). 결과적으로 AI는 단순 보조를 넘어 과제 중심 교수법을 실현하고 최신 산업 정보를 반영하는 핵심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자료 오류와 맥락 한계가 존재하므로 교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한 디지털·비주얼 리터러시(Digital·Visual Literacy)를 기초로 AI 리터러시(AI literacy)를 함께 함양해야 하며(Long & Magerko, 2020; Ng et al., 2022; Spero, 2024; UCL, 2025; Zhang, 2018; 송지현, 2024), 이러한 접근은 반도체 중국어 교육에서 학습자 요구 충족, 전문 어휘 습득, 직무 수행 능력 향상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AI 활용 교재 개발 방안

3.1 교재 설계 원칙 및 내용 체계

교재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을 기반으로 반도체 영역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박영미, 2022), 반도체 전문 용어 학습(왕용준, 2022) 내용을 포함하며, ADDIE 모형에 따라 분석(Analysis)-설계(Design)-개발(Development)-실행(Implementation)-평가(Evaluation)의 단계로 구성한다(임철일, 2019; 이재원 & 윤석천, 2011). 또한, 성인 학습자의 특성상 흥미가 높은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여 구조적·체계적 학습을 통합하였다(신승희, 2010). 이에, AI 기술을 더하여 기존 교재의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실무 적용성과 개인화 학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재 설계의 구체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도체 직무별 학습 목표의 체계적 설정이다. 설계 단계에서 NCS의 반도체 주요 직무를 기준으로 각 직무에서 요구되는 언어 기능(예: 보고, 회의, 기술 설명)을 학습 목표로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실무 언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핵심 어휘 및 전문 용어의 선정이다. 직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반도체 관련 전문 어휘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어휘 선정 시 난이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셋째, AI 기반 개인화 학습과 실무 연계 강화이다. 학습자의 직무 분야, 선행 지식, 학습 속도에 따라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시하기 위해 GenAI에서 도출한 최신 내용을 포함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넷째, 중국 문화와 산업 트렌드의 반영이다. 반도체 산업은 기술 변화가 빠르고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인 영역이므로, 중국 내 최신 산업 동향과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학습 콘텐츠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언어 학습뿐만 아니라 산업 문화 이해까지 병행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국제적 소통 능력을 강화한다.

이와 같은 설계 원칙을 기반으로 개발된 교재는 직무 적합성·산업 최신성·개인화 학습을 동시에 추구하며, 반도체 분야 중국어 교육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다.

3.2 AI 기술 활용 전략

AI 기반 CSP 교재 개발은 개인 맞춤형 학습과 실시간 피드백 제공을 핵심 전략으로 한다. 예를 들어 AI 기반 말하기 평가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에서는 학습자의 유창성, 어휘 다양성, 문법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자동 피드백이 학습 동기와 자신감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ou et al., 2023). 이러한 시스템을 반도체 생산·협력 회의 시뮬레이션에 접목하면 실제 직무 회화 연습과 성과 측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발음 평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문맥 기반 발음 평점(Context-aware Goodness of Pronunciation, CaGOP) 모델을 적용한 연구도 보고되었다(Shi et al., 2020). 이 모델은 단순 음소 정확도를 넘어 문장 내 음절 지속 시간과 전이(transitions)까지 분석하여 보다 세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직무 특화 어휘의 발음 오류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한 AI 언어 파트너(語伴)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AI와 실시간 대화를 주고받으며 중국어 회화를 반복 연습할 수 있고, 시스템이 개인별 오류 패턴을 자동 분석해 맞춤 과제를 제안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Lian & Xu, 2024).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시뮬레이션도 현장 몰입감을 높이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컨대 기술 협상이나 생산라인 상황을 재현한 VR 학습에서 학습자는 AI가 제시하는 직무 과제를 수행하며 실시간 언어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실제 협력사 회의·품질 보고 등 고난도 업무에 대한 실무 적응력을 강화한다(Huang et al., 2023).

마지막으로, AI는 학습 성취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취약 영역을 자동 식별하고 보충 학습을 제안함으로써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한다(Caines et al., 2023; Roll & Wylie, 2016). 이러한 접근은 기존 교재가 제공하지 못하는 개인화 학습 경험과 직무 몰입도를 동시에 강화하며, 반도체 CSP 교육에서 요구되는 전문 어휘 숙달과 실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3.3 교재 구성 및 주요 내용

본 교재는 NCS 단위 중 ‘반도체 제조’를 예시로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에서 AI를 전반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 실무 적용성, 학습 정확성을 동시에 강화하도록 설계하였다.

	영역	학습 내용	AI 활용 방안	예시 문장	학습 활동
1	중국어 표현 학습	반도체 전문 용어, 문장 학습	AI 음성인식을 통한 발음 교정 및 피드백으로 반도체 표현 학습 심화	请调整光刻机的曝光时间。 (포토리소그래피 장비의 노광 시간을 조정해 주세요.)	반도체 단어 학습, 발음교정
2	기술 문서 작성	실무 관련 문서 작성 능력 강화	AI 문서 교정을 활용한 기술 보고서 초안 작성·검토	设备维护时, 需要按照手册记录关键参数和运行状态。 (장비 유지보수 시 매뉴얼에 따라 핵심 파라미터 기록)	보고서 작성, 실전 실무 훈련, 피드백

3	의사 소통	실무 회화, 보고 실습	AI 대화를 통한 직무 상황 연습, 응답 평가	你能给我汇报一下实验数据吗? (실험 데이터를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팀 프로젝트, 상황토론
4	시나 리오 학습	자기주도·블 렌디드 학 습	AI 학습자 관심 직무·수준 맞춤형 시나리오 도출, 퀴 즈를 통한 복습	다음의 중국어 표현으로 대화해봅 시다. “장비 점검 중 이상을 발견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주도 학 습, 블렌디드 학습, 피드백

첫째, 중국어 표현 학습 영역에서는 반도체 전문 용어를 습득하고, AI 음성인식과 자동 번역 도구를 활용한 발음 교정, 문장 변형 연습, 핵심 어휘를 통해 심화·확장한다.

둘째, 기술 문서 작성 영역에서는 AI 문서 교정을 활용해 학습자가 작성한 보고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실무 보고서 작성 시 정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셋째, 의사소통 영역은 AI 대화를 통해 실제 현장 회의·보고·협업 상황을 다양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한다. 학습자는 답변을 실시간 평가하여 피드백을 제공받는다.

넷째, 시나리오 학습 영역에서는 AI를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직무 상황을 복습한다. 학습자는 대화문·퀴즈·문제 해결 과제를 직접 생성·수정하며 자기주도 학습을 수행한다.

4. 결론 및 시사점

4.1 연구 결과 및 기대 효과

본 연구는 기존 ADDIE 모형과 NCS 기반 설계에 생성형 AI(GenAI)를 결합하여 반도체 분야 특수목적 중국어 교재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I는 산업 변화가 빠른 반도체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신 전문 용어와 현장 정보를 신속히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며, 이를 교재 개발 단계에 적용할 경우 개발 기간 단축과 자료의 현행성 유지가 가능하다.

둘째, AI의 자연언어처리 기술을 활용하면 학습자의 직무 상황에 맞춘 맞춤형 어휘·문형·과제를 자동 생성하고, 예문 제시·회화 시뮬레이션·문제 제작·실시간 피드백까지 지원할 수 있어 학습자 중심의 교재 설계가 용이하다.

셋째, 교사가 AI가 제공하는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교육 목표에 맞게 선별·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교사에게 디지털·비주얼 리터러시를 기초로 AI 리터러시 역량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1) AI가 제공하는 반복 학습·개인화 피드백을 통해 직무 상황별 중국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2) 중국어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통·번역 시간과 업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 (3) NCS 단위별 직무 분석과 AI 기반 자료 생성을 결합한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4.2 향후 과제 및 제언

본 연구는 AI 기반 CSP 교재 개발 전략의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와 실천적 적용을 위한 과제와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산업 간 확장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교재 개발 전략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나, 제약·바이오, 항공·우주, 법률·정책, 금융·회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산업별 특화 어휘와 상황별 회화를 반영한 맞춤형 교재를 활용하여 직무 연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둘째, 학습 효과와 자기주도 학습의 강화이다. GenAI를 활용하면 최신 직무 용어와 사례를 신속히 반영하고, 학습자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 게임, 시나리오 기반 프로젝트 학습,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을 통해 학습자의 몰입과 자기주도적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교재가 제공하지 못했던 개인화된 학습 경험과 현장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AI 리터러시(AI literacy)와 윤리적 고려의 강화이다. 교사는 AI 리터러시를 갖추어 AI가 생성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검증·개선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데이터 보호 및 민감 정보의 안전한 관리, AI 자료의 오류·편향·허위 정보 검증 마련을 통해 책임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AI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올바른 학습 태도를 확립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협업 모델의 효율성과 학습 성과를 심층적으로 검증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 CSP 교재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AI와 특수목적 중국어 교육의 융합 가능성을 탐색한 이번 연구가, 향후 특수목적 언어교육의 학문적 논의와 실천적 발전에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노하은. (2025). 인공지능 (AI) 융합수업 프로그램 개발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 류재원, 소리나. (2023). 한국어교육 및 학습 도구로써 AI 활용 가능성 탐색 - 챗GPT를 중심으로 -. 문화와융합, 45(11), 75-84.
- 박영미. (2022). 半導體工程師專用實用漢語教材開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 서재창. (2025). 반도체 시장 동향 : 격화하는 美中 반도체 전쟁, 우리나라 산업 전망은?. 전자기술, 38(1), 4-5.
- 송지현. (2024). 중국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비주얼 리터러시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146, 193-215.
- 신승희. (2010). MBA과정 성인학습자의 중국어학습전략 사용실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63, 193-216.
- 이선우, 송진주, 홍수민. (2024). 교수설계자를 위한 ChatGPT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중장년 교수설계자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32(4), 85-110.
- 이옥주. (2007). 미국의 중국언어학 연구 동향. 중국문학, 53, 325-353.
- 이웅기. (2021). AI 기반 학습 지원도구 개발을 위한 모형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재원, 윤석진. (2011). 반도체 산업의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훈련수요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2(11), 5178-5187.
- 임성태, 김은희. (2024). ADDIE 모형의 교수설계 단계별 ChatGPT 활용방안 연구.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7(1), 171-184.
- 임철일. (2019). 미래 사회와 교육을 위한 교육공학 연구 및 실천 영역의 재조명. 교육공학연구, 35(2), 253-287.
- 왕용준. (2022). 반도체 인문학: 半導體의 半만 알아도 세상을 이해한다. 북스타.
- Caines, A., Benedetto, L., Taslimipour, S., Davis, C., Gao, Y., Andersen, O., ... & Buttery, P. (2023). On the application of large language models for language teaching and assessment technology.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J. (2020).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ducation in China.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45(3), 298-311.
-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2024). China's defiant chip strategy.
- Gao, T., Jin, J., Ke, Z. T., & Moryoussef, G. (2025). A comparison of deepseek and other LLMs.
- Gehrmann, S. (2020). Human-AI collaboration for natural language generation with interpretable neural networks. Harvard University.
- Gilster, P., & Gilster, P. (1997). Digital literacy. New York: Wiley Computer Pub.
-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24). The impact of AI on children's development. Harvard GSE.
- Harvard Scholars. (2024). ChatGPT and global higher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 Hirabayashi, S., Jain, R., Jurković, N., & Wu, G. (2024). Harvard undergraduate survey on generative AI.
- Huang, X., Zou, D., Cheng, G., Chen, X., & Xie, H. (2023). Trends, research issues and applications of artificial

- intelligence in language education.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26(1), 112-131.
- IC Insights. (2020). China's IC self-sufficiency rate forecast to reach only 19% in 2025.
- Kulkarni, M., Mantere, S., Vaara, E., van den Broek, E., Pachidi, S., Glaser, V. L., ... & Greenwood, M. (2024). The future of research in an artificial intelligence-driven world. *Journal of Management Inquiry*, 33(3), 207-229.
- Lian, Z., & Xu, F. (2024).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I-based Mandarin language partners using large language models. *Technology in Chinese Language Teaching*, 15(2), 1-20.
- Law, L. (2024). Application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enAI) in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A scoping literature review. *Computers and Education Open*, 6, 100174.
- Lin, Y. (2023). An analysis of Audio-Lingual Method and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in Chinese EFL class.
- Long, D., & Magerko, B. (2020). What is AI literacy? Competencies and design considerations. In *Proceedings of the 2020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1-16).
- McKinley, J., & Rose, H. (2022). English language teaching and English-medium instruction: Putting research into practice. *Journal of English-Medium Instruction*, 1(1), 85-104.
- Miao, Zhou. (2023). Effectiveness of Audio-Lingual Method and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in enhancing the English language grammar proficiency and attitude among intermediate Chinese EFL learners. *World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 58.
- Miller, C. (2022). *Chip war: The fight for the world's most critical technology* (First Scribner hardcover edition). Scribner.
- Ng, D. T. K. (2021). Conceptualizing AI literacy: An exploratory review. *Computers & Edu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2, 100020.
- Ng, D. T. K., Leung, J. K. L., Su, M. J., Yim, I. H. Y., Qiao, M. S., & Chu, S. K. W. (2022). *AI literacy in K-16 classrooms*. Springer.
- Ouyang, F., & Jiao, P. (2021).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The three paradigms. *Computers and Edu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2, 100020.
- Penuel, W. R., et al. (2022). Learning practical design knowledge through co-design.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59(3), 351-366.
- Roll, I., & Wylie, R. (2016). Evolution and revolu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26(2), 582-599.
- Shi, J., Huo, N., & Jin, Q. (2020). Context-aware goodness of pronunciation for computer-assisted pronunciation training. *arXiv preprint arXiv:2008.08647*.
- Spero, T. A. (2024). Using ChatGPT to improve access, inclusion, and equity in and through English-medium instruction in higher education. 135-147.
- UCL Interaction Centre. (2025). *AI literacy in education: Lecture by Professor Brumby*. University College London.
- Webster, G. (Ed.). (2019). *AI policy and China: Realities of state-led development*. New America.
- Ye, Y. (2020). EAP for undergraduate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in an EFL context: What should we teach? *Ampersand*, 7, 100065.
- Yeh, S. W. (2020). Technology-enhanced ESP for reading English-language patents: A case study of Taiwanese engineering students' experiences and attitudes. *Taiwan International ESP Journal*, 11(2), 1-19.
- Zhang, G., & Zhu, J. (2020). Why did engineering students choose to study in China? *工科學生緣何來華留學*.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10(S(1)), 28-39.
- Zhang, Z. (2018). *Develop the AI literacy of infants by deeply integrated English learning and robot education*. Atlantis Press.
- Zhao, H. (2024). *The impact of programme management on the speed of AI development in semiconductor industri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xford).
- Zeivots, S. (2025). Full article: Co-design practice in higher education. *Curriculum Perspectives*, 45(1), 1-15.
- Zou, B., Du, Y., Wang, Z., Chen, J., & Zhang, W. (2023). An Investigation Into Artificial Intelligence Speech Evaluation Programs With Automatic Feedback for Developing EFL Learners' Speaking Skills. *SAGE Open*, 13(3).

생성 AI 활용 중국어 독해 자동 문항 생성과 평가

-대학교 '고급 중국어' 진단평가 문항을 중심으로

고은미* · 최향란**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자동 문항 생성 기술(AIG)
 3. 중국어 평가 문항의 개발
 4. 평가 문항의 품질 검증
 5.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교육평가' 분야 활용을 목적으로 Chat-GPT, Claude를 포함한 7종의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중국어 교과 독해 평가 문항을 개발해보고,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신뢰도, 타당도 등 전반적인 문항 품질 평가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를 통해 생성한 중국어 독해 문항들은 적절한 난이도, 변별도, 타당도를 가지고 있으나, 신뢰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었다. 문항1과 문항2의 낮은 변별도(0.318)와 낮은 상관관계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문항3, 문항4, 문항5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변별도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이 문항들을 중심으로 테스트를 재구성하여 문항1, 문항2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고품질의 자동 문항 생성은 교사들의 직접 출제와 비교했을 때 시간적 업무적 측면에서 상당한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기에 이를 위한 프롬프트가 개발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 문항은 중국어 독해 문항 개발의 시범적 연구 성과로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향후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서론

Chat-GPT가 출현한 이후로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각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교육평가 측면에서 생성형 AI는 학습자료 제작, 수준별 변형, 이해 확인용 평가 문항 제작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AI를 기반으로 한 평가는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평가 준거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직접 평가가 가능하며 API 구성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개별적인 피드백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심창용 외 2023: 88).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강사

이에 본고는 Chat-GPT를 포함한 다양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국어 평가 문항 자동 생성을 시도해보고, 그중에서 가장 품질이 높은 AI를 선정하여 생성 문항에 대한 품질 평가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AI를 활용 문항 생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 단계로 국어과를 중심으로 일부 진행되었다. 조용상(2024)은 AI 활용 평가 문항을 생성에 있어서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오규설(2022)은 읽기 교과 평가 개발을 시도하였으며, 최숙기&박종임(2024), 박고운&최숙기(2025)는 국어 교과 읽기에서 선다형 문항 개발하였다. 이정숙&최현중(2024)은 정보 교과의 진단평가 문항, 백민정&박찬홍(2025)는 가정 교과에서 서술형 평가 문항, 이재식(2024)은 NCS 직무능력 평가 문항 생성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고는 중국어를 대상으로 중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분류체계 정보 및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Chat GPT, Claude, Geminai 등 7종의 대규모 언어모델을 사용하여 대학교 중국어 교과 ‘진단평가’ 자동 문항을 생성해 보고 문항의 품질에 대해 난이도, 변별도, 타당도 등 다각도의 품질 평가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생성 AI의 중국어 평가 분야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탐구로 향후 좀 더 세밀하고 절차화된 설계를 통해서 논술형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자동 문항 생성 기술(Automatic Item Generation)

자동 문항 생성과 관련된 원천 기술은 AIG(Automatic Item Generation)로 주어진 텍스트나 지식 베이스로부터 평가 문항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로 초기에는 규칙 기반 방식이나 질의응답 데이터로부터 템플릿을 추출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었다.

자동 문항 생성(Automatic Item Generation) 기술은 정해진 알고리즘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한 없이 문항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로 자동 문항 생성 기술의 발전을 미국 개발 AIG, 한국 개발 AIG 두 건의 특허 분석으로 설명할 수 있다(조용상, 2024:147-148).

첫 번째, 미국에서 개발된 AIG는 심리학적 평가와 컴퓨터 알고리즘을 결합한 모델로 평가 전문가가 문항 모델을 템플릿으로 제작하면 컴퓨터 알고리즘이 문항 템플릿을 따라서 문항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 한국에서 개발된 AIG는 기존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톨로지 기술을 적용하였다.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지시문이나 지문에 있는 맥락을 유사한 맥락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현재는 Chat-GPT를 포함한 다양한 생성 AI를 통해서 자동 문항을 생성할 수 있다. 특정 텍스트를 입력하면 문항을 생성하고, 생성한 문항을 풀 수 있는 대상을 물어보고 생성한 문항을 풀기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인공지능에 교육과정 분류체계 정보가 학습되어 있고, 각 분류체계에 따라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추론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중국어 평가 문항의 개발

3.1 프롬프트 설계 및 최적화

본고는 생성 AI 기반 평가 문항 자동 생성을 위해서 독해 텍스트로 莫言의 에세이 《北京秋天下午的我》를 선정하여 프롬프트를 설계 및 작성하고, Chat-GPT, perplexity, Geminai, Grok, Claude, ‘文心一言’, ‘Deepseek’ 총 7개²⁾의 AI를 사용하여 자동 문항을 생성해 보았다. ChatGPT-4o³⁾를 포함한 7종의 AI에 요구

2) 본고는 Chat-GPT, perplexity, Geminai, Grok, Claude의 주요 생성형 AI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텍스트와 생성 문항이 중국어임을 고려하여 중국의 인공지능인 ‘文心一言’, ‘Deepseek’도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3) 본고는 2025년 초에 설계되었으며, 당시 공개된 최신 모델인 Chat GPT4o를 사용하였다.

사항에 부합하는 문항을 출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입력 프롬프트를 최적화하였다⁴⁾. 프롬프트 최적화는 페르소나 설정, 문항 출제 가이드, 추가 요구, 보기 구성 요구, 문항 품질 요구를 포함한다.

3.2 평가 문항의 생성

[표1]은 본고에서 설계한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Chat-GPT, Claude가 자동 생성한 중국어 독해 문항이다.

[문항 1] (어휘적 이해·난이도 하·HSK6 어휘·누앙스 변별) 文中作者自述“对秋天的北京是一堆杂乱的印象”，下列哪项对“杂乱”的理解最准确？ ① 繁多而无序 ② 井然有序 ③ 清楚分明 ④ 安宁平和 ⑤ 单调乏味 정답: ① ->근거: “杂乱”은 ‘많고 뒤섞여 질서 없음’(=繁多而无序)에 해당. ->출제 의도(HSK6 기술 의도 반영): 동의·반의·누앙스 변별(51-60번류 오류문장/어휘 변별 형과 유사한 사고부하). ->오답 유발 요인(독해 오류): ②④: 긍정서적 이미지에 끌리는 감성 추론 오류. ③: “清楚”와 “杂乱”을 반의어 혼동. ⑤: “杂乱↔单调”를 개념 축 혼동(복잡 vs. 단순). ->변별 포인트: 맥락어 ‘印象’과 결합 시 의미 범주를 정확히 고르는가. [문항 2] (사실적 이해·난이도 하·세부정보 확인) 根据文章，下列哪项最符合作者对现代流通与季节关系的描述？ ① 秋季市场仍以本地时令为主，外地水果难以进入 ② 四季水果供应减少，使人更珍惜秋天 ③ 现代物流使各地水果四季可迅速抵达，季节性被削弱 ④ 中秋时只能购买本地当季水果 ⑤ 交通不便致南北水果交流受限 정답: ③ ->근거: 현대 유통/물류로 사계절 과일 상시 가능 → 계절성 약화. ->출제 의도: HSK6 독해 2-3부분의 사실 지식 vs. 상식 개념 구분 능력 측정. ->오답 유발 요인: ①④⑤: 배경지식 개입(전통적 ‘시슈’ 스키마)으로 텍스트 정보와 충돌. ②: “감성적 일반화” 오류(감정적 결론을 사실로 오인). ->변별 포인트: 지문 근거 우선(텍스트 충실성) vs. 상식/경험의 간섭 억제. [문항 3] (추론적 이해·난이도 중·함의/가치 추론) 文中“东西多了，就没有好东西了”最可能表达的涵义是： ① 丰富选择自然提升生活质量 ② 过度供给导致审美阈值升高，辨别力下降 ③ 市场越繁荣，人越幸福 ④ 便宜才是好东西 ⑤ 应限制消费以保护环境	정답: ② ->근거: 과잉 선택 → 감각 둔화/감별력 저하라는 가치 판단(소비·심미 비판). ->출제 의도: HSK6의 隐含观点/弦外之音 파악형. ->오답 유발 요인: ①③: 긍정 프레임 편향(풍요=품질/행복). ④: 가격 단서 오독(문맥에 가격 판단 없음). ⑤: 도덕적 비약(환경규범으로 점프). ->변별 포인트: 표면 진술과 가치 함축의 거리 계산. [문항 4] (비판적 이해·난이도 상·관점 평가) 下列哪项最能概括作者对“文人笔下的秋天”与现实秋天之间的批判视角？ ① 现实秋天比古人描写的更富诗意 ② 秋天在现实中被日常消费与流通稀释，几乎退化为日历标签 ③ 古人过分夸张秋景，应予纠正 ④ 只要红叶如期而至，秋意自会回归 ⑤ 现代人已不需要季节的区分 정답: ② ->근거: 전통 ‘诗意的秋’ ↔ 현실 ‘日历标签化/消费稀释’의 대비·비판. -> 출제 의도: HSK6의 作者态度/评价性立场 파악. ->오답 유발 요인: ①④: 단일 표상 과잉 일반화(낭만/단풍=전체 가을). ③: 허수아비 비판(고전의 과장을 전제). ⑤: 극단 명제(상식 위반 → 함정 보기). -> 변별 포인트: 텍스트의 메타 담론(전통 이미지의 현재성 상실)을 잡는가. [문항 5] (적용·창의적 이해·난이도 상·스타일 전이) 若仿照本文叙述风格（比喻+对照+轻讽）写“商业化稀释四季”，下列哪一句最贴近？ ① 四季像一面换不掉的布景板，商场的灯把春夏秋冬夏照成同一种温度 ② 由于气候变化，四季节律被打乱 ③ 城市节奏太快，人无暇赏秋 ④ 现代物流让人更方便享受水果 ⑤ 把手机放下，四季就在窗外 정답: ① ->근거: 본문 특유의 비유(布景板) + 현대 소비 장치(商场灯) + 반어적 톤 재현. ->출제 의도: HSK6 쓰기·독해 연계의 修辞识别→风格仿写 능력 측정. ->오답 유발 요인: ②: 과학 담론으로 레지스터 전이 실패 ③⑤: 도덕훈계/행동 처방 중심(수사적 질감 부족) ④: 정보 사실 나열(비유·대조 부재) -> 변별 포인트: 수사 장치의 구조(비유+대조+경미한 풍자)를 재구성하는가.

[표 1] Chat-GPT 생성 문항

[표1] Chat-GPT의 경우, 정답, 정답의 근거, 오답 유발 요인, 변별 포인트 순으로 문항 출제 관련 사항을 문항별로 자세하게 제시하여 교수자가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문항의 난이도를 제시했음에도 문항 5는 오히려 지문보다 더 높은 난이도로 제시되어 실용성이 다소 저하되는 한계를 보였다.

4) 편폭의 제한으로 구체적인 프롬프트의 내용은 생략한다.

(어휘적 이해 - 난이도 하) 1. 文中“凌乱”一词最接近的含义是： ① 整齐有序 ② 杂乱无章 ③ 生动形象 ④ 模糊不清 ⑤ 变化多端 정답: ② 해설: “凌乱”은 '어수선하다, 뒤섞이다'의 의미로, “杂乱无章(뒤죽박죽이다)”과 가장 유사한 의미입니다. 작가가 북경 가을에 대한 자신의 인상이 정리되지 않고 산만함을 표현한 어휘입니다. (사실적 이해 - 난이도 하) 2. 根据文章内容, 作者在北京生活期间很少做什么？ ① 去邮局寄书 ② 到集市买菜 ③ 抬头看天空 ④ 乘坐交通工具 ⑤ 在家中写作 정답: ③ 해설: 지문에서 “几乎从来没有仰起头来...望一望头上的天”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작가가 북경에서 생활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 거의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추론적 이해 - 난이도 중) 3. 作者没有去过香山的主要原因可以推断为： ① 交通不便, 路程遥远 ② 门票价格过于昂贵 ③ 担心人多破坏美景 ④ 身体条件不允许爬山 ⑤ 对红叶景色不感兴趣	정답: ③ 해설: 지문에서 “我知道看红叶的人比红叶还要多, 美景必须静观, 热闹处无美景”라고 언급하여, 관광객이 너무 많아 아름다운 경치를 제대로 감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비판적 이해 - 난이도 상) 4. 作者对现代北京秋天的态度体现了什么观点？ ① 科技进步带来了生活便利 ② 传统季节感已经消失殆尽 ③ 商业发展促进了文化繁荣 ④ 城市化进程需要适当控制 ⑤ 怀旧情怀阻碍了社会进步 정답: ② 해설: 작가는 에어컨으로 만들어진 애매한 온도, 계절에 상관없이 판매되는 과일 등을 통해 현대 북경에서 전통적인 계절감이 사라져가고 있음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용 및 창의적 이해 - 난이도 상) 5. 如果要为这篇散文选择一个最恰当的主题概括, 应该是： ① 对北京秋天自然美景的赞美 ② 现代都市生活中季节感的缺失 ③ 古代文人秋天诗歌的文学价值 ④ 香山红叶旅游资源的开发现状 ⑤ 蔬菜水果市场的商业发展趋势 정답: ② 해설: 이 산문의 핵심 주제는 현대 도시 생활에서 전통적인 계절감이 사라져가는 현상에 대한 작가의 관찰과 성찰입니다. 작가는 북경 가을의 전통적 아름다움이 현대화 과정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 2] Claude 생성 문항

반면에 [표2] Claude의 경우, 독해 오류분석을 선행한 뒤 문항 설계의 원칙을 명시하고, 네 가지 품질 요구사항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시하는 등 체계적인 평가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학습자의 실제 오류 패턴을 고려하여 선택지를 구성하였다. 정답과 해설만 간략하게 제공하는 점은 명료하여 이해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출제된 문항이 적용 가능성이나 창의적 확장성 측면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으며, 문항 패턴 역시 예측이 가능한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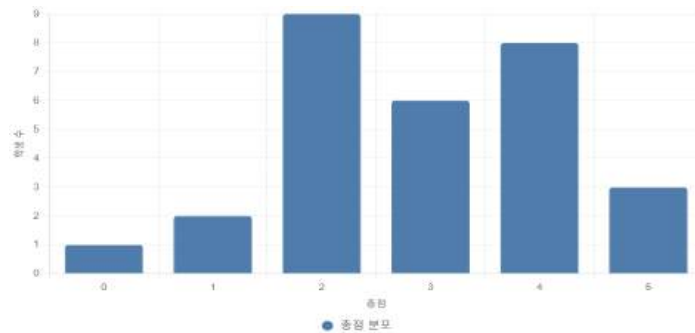
Chat-GPT, Claude를 제외한 나머지 5종의 AI로 생성된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문항 구조나 언어적 표현 측면에서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추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Geminai는 문항이 독해 능력의 평가보다는 문학적 해석에 초점이 치중되어 있었고, 일부 문항은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 오히려 변별력을 저하시켰다. Perplexity는 원문 지문을 축약하거나 재구성하여 제시함으로써 독해 평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였으며, 고차원적 사고력이나 추론을 요구하는 문항이 부족하였다. Grok은 문항 자체보다 오답 유형이나 학습자 오류분석에 비중을 두어, 일부 해설은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중국의 인공지능인 ‘文心一言’은 문항 구조와 해설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상·중·하위 학습자 간의 변별력이 부족하였고, DeepSeek은 일부 선택지가 지나치게 길어 실용성이 떨어졌으며, 문항보다 해설이 더 복잡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평가 도구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이 7종의 AI가 자동 생성한 독해 문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 과정을 거쳐, 본고는 최종적으로 Claude 기반에서 생성된 5개 문항이 ‘고급중국어’ 진단평가 문항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실제 대학 수업 현장의 진단평가에 활용하였다.

4. 평가 문항의 품질 검증

4.1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평가 문항의 품질 검증을 위해서 본고에서는 H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고급중국어’ 수강생 30명을 대상으로 학기 초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였고, 그 평가 결과를 데이터화하였다. 데이터는 29명의 학생이 5개 문항에 대해 응답한 데이터(0 또는 1)로 구성되며, 나머지 1명은 문항을 다 풀지 못해서 통계에서 아예 제외하였다. 진단평가 문항은 전체 5개 문항으로 만점은 5점, 각 문항당 1점으로 29명의 답안지 통계 결과 총점 평균은 2.97로 다소 낮았으며, 총점 표준편차는 1.32로 평균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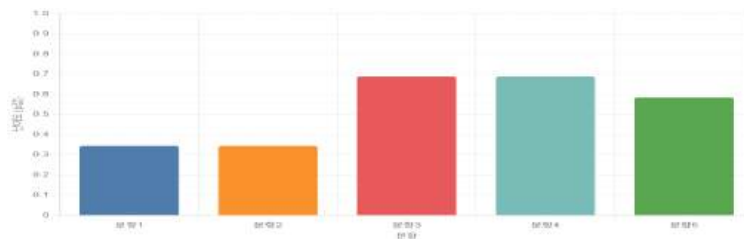
[그림 1] 평가 결과의 총점 분포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를 각각 측정한 결과는 아래의 표[3]와 같다.

	문항 난이도(0~1)(적절)	문항 변별도(보통)
문항1	0.345(상대적 어려움)	0.318 (상대적으로 낮음)
문항2	0.345(상대적 어려움)	0.318 (상대적으로 낮음)
문항3	0.690(상대적 쉬움)	0.340 (보통)
문항4	0.690(상대적 쉬움)	0.340 (보통)
문항5	0.586(중간 정도)	0.389 (상대적으로 높음)

[표 3] 평가지의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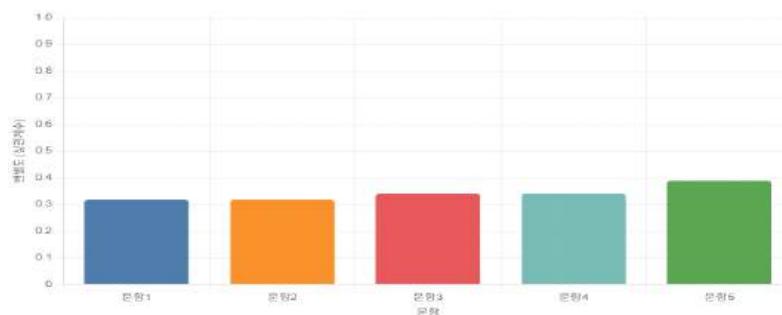
‘문항 난이도’는 문항이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정답률이다. 다시 말해서, 총 피험자들 중에서 정답을 맞힌 피험자의 비율을 말한다.



[그림 2] 평가지의 문항 난이도 평가

문항별 난이도를 나타내는 p 값은 0에 가까울수록 어렵고, 1에 가까울수록 쉽다. 그림[2]와 같이 모든 문항의 p 값은 0.2~0.8 사이에 있어 적절한 난이도로 평가된다. 문항1과 문항2($p=0.345$)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에 속하며, 문항3과 문항4($p=0.690$)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0.8에 가까움)에 속하며, 문항5($p=0.586$)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에 속한다.

‘문항 변별도’는 문항이 피험자를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개별 문항이 한 시험 또는 검사에서 총점이 낮은 학생과 높은 학생을 구분해 줄 수 있는 변별력을 나타낸다. 가령 어떤 문항에서 총점이 높은 학생들은 대부분 맞게 응답하였고 총점이 낮은 학생들은 틀리게 답하였다면 그 문항은 변별력이 높다. 반면에 문제가 너무 쉬워서 총점이 높은 학생이나 낮은 학생 모두 정답을 했다면 그 문항은 변별력이 낮고, 문제가 너무 어려워 총점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 모두 오답을 했다면 그 문항도 역시 변별력이 낮다. 문항 변별도는 각 문항의 점수와 나머지 문항의 총점(혹은 전체 총점) 간의 상관계수로 정의된다. 우선 각 문항의 점수와 나머지 문항의 총점(해당 문항 제외)을 계산하고, 문항 점수와 나머지 총점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는데,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변별도가 좋다고 평가된다.



[그림 3] 평가지의 문항 변별도

그림[3]은 본고에서 개발한 각 평가 문항의 문항 변별도이다. 변별도가 <0.2 이면 낮은 변별도로 문항이 전체 점수와 잘 구별되지 않으며, $0.2\sim0.4$ 는 보통 변별도로 적당히 구별되며, ≥ 0.4 는 높은 변별도로 잘 구별된다. 모든 문항의 변별도가 $0.2\sim0.4$ 사이로 보통 수준의 변별도이다. 문항5가 가장 높은 변별도(0.389)를 가지며, 문항1과 문항2가 상대적으로 낮은 변별도(0.318)를 보인다. 문항 변별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문항들이 학습자의 수준을 변별하는데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2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

Cronbach's Alpha는 테스트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본 연구에서 생성한 문항 테스트의 신뢰도는 표[4]와 같이 Cronbach's Alpha가 0.458이다. 0.6 미만은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낮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문항들이 동일한 구성을 측정하지 못하거나, 응답 패턴에 일관성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타당도(validity)는 시험이 평가하려고 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타당도는 검사가 갖는 고유한 속성이라기보다 평가 결과를 가지고 평가의 타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구인 타당도, 준거 타당도, 안면 타당도로 구성된다. 평가 문항의 답안지 데이터로 가능한 분석은 구인 타당도에 해당하는 내적 일관성, 요인분석, 문항 간 상관분석이다⁵⁾.

타당도를 평가하는 한 방법은 각 문항이 전체 테스트 점수와 얼마나 상관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문항-총점 상관계수(item-total correlation)로, 변별도와 유사하지만 타당도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높

5) 완전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

은 상관계수는 문항이 테스트의 전반적인 구성을 잘 반영함을 나타낸다. 문항-총점 상관계수 각 문항이 전체 테스트 점수와 얼마나 관련 있는지를 나타낸다. 타당도의 기준을 살펴보면, <0.3 는 낮은 타당도, $0.3\sim0.5$ 는 보통 타당도, ≥ 0.5 는 높은 타당도를 나타내는데, 문항1~문항4는 $0.426\sim0.490$ 으로 보통 수준의 타당도로 볼 수 있다. 문항5는 0.560 으로 가장 높은 타당도를 보이기에, 테스트의 구성을 잘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항5를 제외하고 타당도가 보통 수준으로 테스트가 측정하려는 구성을 완벽히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낮은 Cronbach's Alpha(0.458)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항 신뢰도	문항 타당도
문항1	Cronbach's Alpha 0.458	0.426 (보통 타당도)
문항2		0.426 (보통 타당도)
문항3		0.490 (보통 타당도)
문항4		0.490 (보통 타당도)
문항5		0.560 (높은 타당도)

[표 4] 평가지의 문항 신뢰도와 문항 타당도

5. 결론

본 연구는 Chat-GPT, Claude를 포함한 7종의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중국어 교과 독해 평가 문항을 개발한 뒤 문항에 대한 난이도, 변별도, 신뢰도 등 전반적인 문항 품질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를 통해 자동 생성한 문항들은 중간 수준의 난이도, 변별도, 타당도를 가지며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낮은 신뢰도는 향후 프롬프트의 개선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문항 자동 생성과 생성된 문항에 대한 평가는 문항 출제 측면과 문항 평가의 측면에서 모두 의의가 있다. 자동 문항의 생성은 반복적 실행을 통해 다른 평가 문항을 출력하기에 양질의 문항 개발을 위해서 프롬프트를 개선한다면 더 적은 실행 횟수로 원하는 평가지를 출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평가 문항은 중국어 독해 문제 개발의 시범적 연구 성과로 향후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재식(2024). 생성 AI를 활용한 NCS 직무능력 평가를 위한 자동문항생성 방법론 연구 : GPT4-o 기반 정보보호 분야 침해 사고 분석 능력단위 중심.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7(5), 13-25.
- 조용상(2024). 생성 AI 기반의 평가 체계 및 지식 추적 방법 설계 연구.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7(1), 143-156.
- Gierl, Mark J., Hollis Lai, and Vasily Tanygin. Advanced methods in automatic item generation. Routledge, 2021.
- Parada, V. (2025). Automatic Generation of Algorithms. CRC Press.
- Kurdi, G., Leo, J., Parsia, B., Sattler, U., & Al-Emari, S. (2020). A systematic review of automatic question generation for educational purposes. International journ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30(1), 121-204.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2부

22. 중국어교육(5) 위당관 216호

AI와 중국어교육

AI 기반 바이브 코딩 중국어문 교육 웹앱 제작 연구

박정원·백현정·임지선·김시아*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중국어문 교육 웹앱 개발
 3. 중국어문 교육 웹앱 설계 및 기능 분석
 4. 중국어문 교육 웹앱의 교육적 효과
 5. 향후 발전 가능성
 6.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용 교육과 개별 맞춤형 교육을 촉진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콘텐츠 생성, 개인화된 피드백, 적응형 학습 설계 등에 활용되면서 교육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AI가 제공하는 실시간 피드백은 학습자가 발음, 문장의 자연스러움, 맥락 적합성 등을 즉각적으로 점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교재 기반 학습을 능가하는 효과를 보인다. 교육자는 AI 기반 바이브 코딩을 통해 전문 개발자의 도움 없이도 교육 도구를 직접 개발하여 교육 현장은 물론 학습자 개인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콘텐츠 자동화를 구현함으로써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워크플로우 자동화 시스템과 AI 노래 학습 웹앱, 통번역 훈련 웹앱, 타자 연습 웹앱을 개발하여 교육 콘텐츠 자동화, 흥미 유발형 학습, 전문 기능 훈련, 기초 능력 강화라는 중국어문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였다.

1. 서론

오늘날 교육 현장은 전통적인 단방향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용 교육으로, 표준화된 교육에서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언어 교육 분야에서는 실시간 피드백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학습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자들은 학습자에게 개별 맞춤형 문제와 세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싶어 하지만, 시간적·물리적 한계로 인해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명의 교육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학생에게 각기 다른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고 답안을 분석하여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박정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백현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 수료
임지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 수료
김시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한중문화학과, 박사 수료

언어 교육에서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학습자가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학습 효과가 극대화된다. 실시간 오류 수정을 통해 오개념이 굳어지기 전에 수정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퀴즈, 게임, 대화형 콘텐츠가 학습자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게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전문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교육자도 자연어 프롬프트를 통해 맞춤형 교육 도구를 개발할 수 있게 했다. 박정원(2025)은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을 통해 중국어 교육용 웹 애플리케이션(Web Application, 이하 웹앱)²⁾을 직접 설계하고 구현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박정원(2025)은 Replit 플랫폼의 에이전트 기능을 활용하여 어휘 플래시 카드, 자막 생성기, 통역 학습기와 같은 다양한 중국어 교육 웹앱 제작 사례를 제시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바이브 코딩이 교육 기술의 접근성과 수월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도구이지만, AI 생성 코드의 기술적 안정성과 교육학적 타당성에 대해 검증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바이브 코딩을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 자동화, 흥미 유발형 학습, 전문 기능 훈련, 기초 능력 강화의 네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시스템과 웹앱을 개발하였으며, 각각의 기술적 구현 과정과 교육적 효과를 제시할 것이다.

2. 중국어문 교육 웹앱 개발

2.1 웹앱 제작 개요

본 연구는 AI 기반 중국어문 교육용 자동화 시스템과 웹앱을 개발하여 교육자의 시간적·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에게 실시간 개인화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시스템과 웹앱들은 자연어 처리 기술과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언어 입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문법 오류 교정, 어휘 추천, 작문 지도, 번역 분석 등의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음성 인식 및 텍스트 변환 기술을 통합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언어 학습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워크플로우(Workflow) 기반의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콘텐츠 생성부터 평가, 피드백까지의 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구현하였으며, 학습자의 수준, 학습 목표, 진도에 따라 개인화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맞춤형 학습 경로를 설계하였다.

2.2 웹앱 제작 방법

웹앱 제작은 바이브 코딩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바이브 코딩은 개발자가 원하는 기능을 자연어로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이를 코드로 작성해 주는 AI 기반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비전문가도 프로젝트 설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코딩을 넘어 교육 도구 개발과 학습의 경계를 허물고, 학습자가 직접 기능 구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 과정은 크게 1) 웹앱 및 시스템의 개발 목적, 대상, 콘셉트, 전체 구조 기획, 2) 바이브 코딩 기반 코드 생성 및 기능 구현, 3) 테스트 및 반복적 수정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웹앱과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개발에 사용된 생성형 AI와 플랫폼은 각기 다르지만, 생성형 AI에 웹앱과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프롬프트를 제공하여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고, 생성된 결과물을 테스트하며 수정하는 방식은 공통된다.

2) 웹 애플리케이션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에서 접근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웹 기술(HTML, 서버 등)을 사용하여 동적인 기능을 제공하며, 웹 메일, 블로그,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2.3 웹앱 특징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웹앱과 시스템은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지능형 맞춤 피드백 체계를 가진다. AI가 학습자의 응답을 분석하여 오류의 원인과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단순히 정답과 오답을 판별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가 어떤 오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역에 취약한지를 파악하여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둘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통합 학습을 제공한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영상,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를 결합하여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골고루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셋째, 단계별 자동 처리 시스템이다. 학습 문제 제작부터 채점, 분석, 결과 전달까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자동화 체계를 일부 웹앱에 적용하였다. 이는 교육자의 수작업을 최소화하면서도 대량의 학습 자료를 신속하게 생산하고, 학습자에게 즉각적인 평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흥미 유발형 학습 설계이다. 게임 요소를 접목한 타자 연습, 음악을 활용한 어휘 학습, 실시간 시뮬레이션 통역 훈련 등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상호작용 방식을 채택하였다.

다섯째, 결과물의 독립적 활용성이다. 학습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독립된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어 교육 현장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학습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적 기능과 통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 학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중국어문 교육 웹앱 설계 및 기능 분석

본 연구는 AI 기반 바이브 코딩을 통해 중국어문 교육을 위한 노래 중국어 학습 웹앱, 워크플로우 자동화 시스템, 통번역 훈련 웹앱, 중국어 타자 연습 웹앱을 개발하였다. 본 장에서는 각 웹앱과 시스템에 대한 기획, 제작 방법, 주요 기능, 기능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3.1 AI 노래 중국어 학습 웹앱

3.1.1 기획

AI 노래 중국어 학습 웹앱³⁾은 로컬 파일이나 유튜브 중국어 노래(C-Pop)를 활용하여 중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개발하였다. 대상 사용자는 중국어 초·중급 학습자이다. 웹앱 개념트는 단순한 영상 시청을 넘어 음악 감상과 능동적인 언어 학습을 결합한 멀티미디어 학습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이며, 단순한 오디오 자료를 교육자와 학습자의 접근성 및 활용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화를 시도하였다.

3.1.2 제작 방법

AI 노래 중국어 학습 웹앱은 Replit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Replit은 복잡한 개발 환경 설정(IDE, 서버 등)이 전혀 필요 없고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어디서든 바로 코딩을 시작하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웹앱의 신속한 개발과 테스트가 가능하다.

Replit은 통합 개발 환경(All-in-One)을 지원하여 코드 에디터, 서버, 데이터베이스, 패키지 관리, 배포까지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클릭 한 번으로 웹앱을 인터넷에 즉시 배포할 수 있으며, Replit에 내장된 AI(Replit AI)가 코드 자동 완성, 오류 수정, 기능 구현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개발 전반을 지원한다.

웹앱은 Teal/Purple 계열의 그라데이션 배경을 사용하고 카드 기반 UI 레이아웃과 반응형 디자인, 그리고 샘플 재생 색선 3개를 포함하도록 설계하였다.

3) <https://aiapp-song-2025-cn.replit.app/>

3.1.3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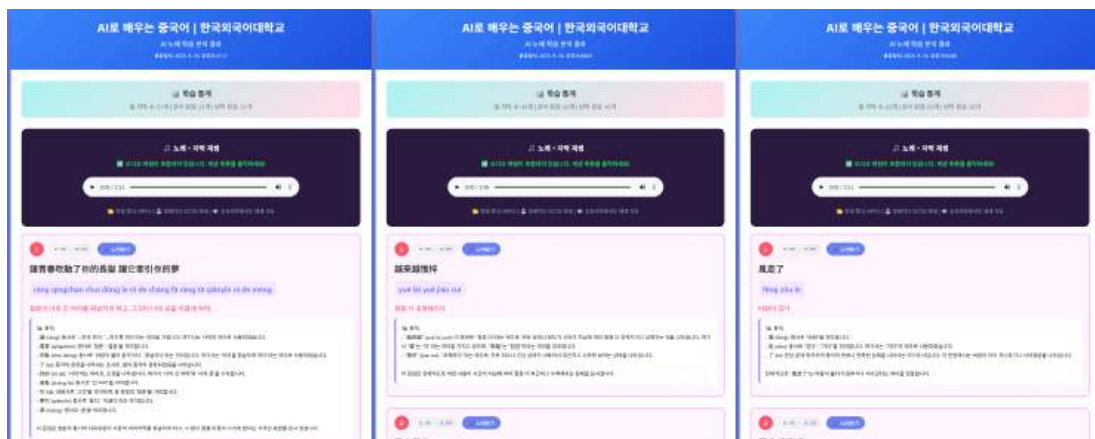
AI 노래 중국어 학습 웹앱은 오디오 처리, AI 자막 생성, 번역 및 분석, 실시간 재생, HTML 내보내기 기능이 있다. 오디오 처리는 MP3, WAV 등 오디오 파일 업로드 및 유튜브 URL 입력을 지원하며, AI 자막 생성은 OpenAI Whisper API를 사용해 중국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다. 번역 및 분석 기능에서는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물론 중국어 병음 변환, 문법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오디오 재생과 동기화된 자막 표시 기능을 제공하며, 구간별 재생 기능을 통해 특정 부분을 반복 학습할 수 있다. 학습 결과는 오디오 자원을 포함하고 오디오 재생을 완전히 지원하는 독립적인 HTML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 교육자와 학습자는 결과물을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 AI 노래 중국어 학습앱



[그림 2] AI 노래 학습 분석 결과 화면



3.1.4 기능적 특징

AI 노래 중국어 학습 웹앱은 다음의 기능적 특징을 가진다.

첫째, 다양한 입력 방식을 지원한다. 학습자는 MP3, WAV 등의 로컬 오디오 파일을 드래그 앤드 드롭으로 업로드하거나 유튜브 URL을 직접 입력할 수 있어 자신이 좋아하는 중국어 노래를 자유롭게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AI 기반 자동 처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업로드된 오디오는 자동으로 추출되며 OpenAI Whisper API를 통해 중국어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된다. 이후 중국어 원문, 병음, 한국어 번역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된다.

셋째, 구간별 반복 학습 기능을 제공한다. 학습자는 오디오 재생과 동기화된 자막을 보면서 특정 구간을 선택하여 반복 재생할 수 있어 어려운 부분이나 중요한 표현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넷째, 독립적 콘텐츠 생성이 가능하다. 학습 결과를 오디오가 임베디드(Embedded)된 HTML 파일로 내보낼 수 있어 교육자와 학습자가 결과물을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샘플 HTML 파일들의 미리보기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멀티모달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청각, 시각, 발음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여 중국어의 성조, 연음, 리듬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3.2 AI 기반 워크플로우 자동화 시스템

3.2.1 기획

AI 기반 워크플로우 자동화 시스템은 교육 콘텐츠 생성부터 평가,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지능형 교육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개발하였다. 대상 사용자는 반복적인 문제 출제와 채점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교육자와 개인화된 학습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 학습자이다. 개념트는 문제 자동 생성 워크플로우와 지능형 채점 및 피드백 워크플로우를 연결하여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하나의 단계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며, 교육자의 시간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학습자에게 풍부하고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시스템은 구글 시트에 저장된 영화 자막 데이터를 불러와 OpenAI API를 통해 고차원적 사고력 문제를 자동 생성하고, Google Apps Script를 활용하여 구글 폼에 자동 배포한다. 학습자가 구글 폼에 답하면 학습자의 답안이 수집되고, AI가 오류 원인을 분석하여 개별 학습자의 강·약점을 진단한 후 맞춤형 피드백을 이메일로 자동 발송하도록 설계하였다.

3.2.2 제작 방법

AI 기반 워크플로우 자동화 시스템은 Make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Make는 노코드 기반의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로, 드래그앤드롭 방식의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잡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시스템 개발은 크게 두 가지 워크플로우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문제 생성 워크플로우이다. 구글 시트 모듈로 영화 자막 데이터를 불러와 OpenAI 모듈로 AI 기반 문제를 생성한 후, JSON 파서 모듈로 구조화하여 HTTP를 통해 Google Apps Script를 활용하여 구글 폼에 자동 배포하는 단계로 구성하였다.

[그림 3] 문제생성 워크플로우



두 번째는 채점 및 피드백 워크플로우이다. 구글 폼 응답 모듈로 학습자 답안을 수집하고, 구글 시트 모듈로 정답지를 불러온 후, OpenAI 모듈로 답안을 분석하여 맞춤형 피드백을 생성하고, Gmail 모듈을 통해 각 학습자에게 자동 발송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워크플로우는 트리거(trigger) 기반으로 작동하여 데이터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전체 프로세스가 실행되며, Iterator 기능을 활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4] 채점 및 피드백 워크플로우



3.2.3 주요 기능

AI 기반 워크플로우 자동화 시스템은 크게 문제 생성 기능과 채점 및 피드백 기능으로 구성된다.

문제 생성 기능은 구글 시트에 저장된 영화 자막 데이터를 자동으로 읽어와 학습 자료로 활용한다. OpenAI API를 통해 자막 내용을 분석하고 문맥을 이해해야 답할 수 있는 고차원적 사고력 문제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생성된 문제는 JSON 형태로 구조화되어 문제, 선택지, 정답, 해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Google Apps Script를 활용하여 구글 폼에 자동으로 배포된다. Iterator 기능을 사용하여 수백 개, 수천 개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자막 데이터가 추가되면 즉시 그에 맞는 문제들이 자동 생성된다.

채점 및 피드백 기능은 구글 폼을 통해 학습자의 답안을 자동으로 수집한다. AI가 단순히 정답과 오답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답안을 정답과 비교 분석하여 어떤 부분에서 틀렸고, 왜 틀렸으며, 어떤 개념을 잘못 이해했는지를 파악한다. 각 학습자의 답안 패턴을 분석하여 개별 학습자의 강·약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맞춤형 피드백을 생성한다. 생성된 피드백은 이메일을 통해 각 학습자에게 자동으로 발송되어 실시간으로 학습 결과와 개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중국어 퀴즈

[그림 6]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채점 및 피드백 결과



3.2.4 기능적 특징

AI 기반 워크플로우 자동화 시스템은 다음의 기능적 특징을 가진다.

첫째, 완전히 자동화된 연쇄 프로세스 구조이다. 데이터 입력부터 문제 생성, 배포, 답안 수집, 채점, 피드백 발송까지 모든 단계가 트리거 기반으로 자동 연결되어 인간의 개입 없이 실행된다.

둘째, 대량 콘텐츠 생성 및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Iterator 기능을 활용하여 한 번의 설정으로 수백 개, 수천 개의 문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처리할 수 있다.

셋째, API 기반 확장이 가능한 아키텍처로 설계되었다. 구글 시트, OpenAI, Google Apps Script, Gmail 등 다양한 외부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능 추가나 기존 기능 개선이 쉽다.

넷째,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시스템 구현이다. 새로운 학습 데이터가 추가되면 즉시 문제가 생성되고, 학습자의 답안이 제출되면 실시간으로 분석 및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개인화된 학습 분석 및 피드백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각 학습자의 답안 패턴을 분석하여 강·약점을 진단하고, 오류의 원인과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맞춤형 피드백을 자동 생성한다.

3.3 AI 기반 통번역 훈련 웹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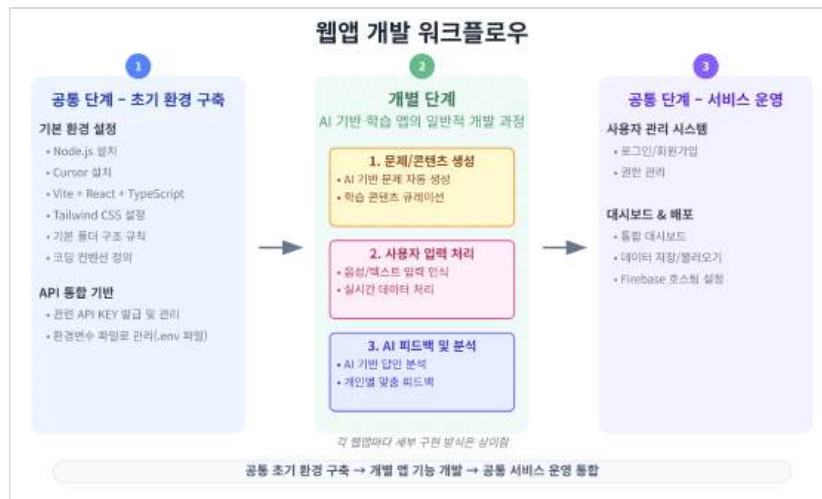
3.3.1 기획

AI 기반 통번역 훈련 웹앱은 실시간 AI 피드백을 통한 통번역 능력 향상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대상 사용자는 통번역 학습자, 외국어 전공자, 통번역 실무 준비생이다. 콘셉트는 번역 영역과 통역 영역을 통합한 종합 훈련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며, 학습자가 실제로 흥미와 필요를 느끼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몰입감 높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번역 과정은 문장의 정확성, 표현의 자연스러움, 맥락 적합성 등을 고려한 심층 분석으로 이어지며, 통역 영역은 실시간 음성 인식과 발음 평가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행 능력을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Gemini API를 활용한 번역 및 피드백 생성, Azure Speech Service를 활용한 음성 인식 및 발음 평가, 유튜브 API 연동을 통한 실시간 영상 기반 학습 기능을 탑재하였다.

3.3.2 제작 방법

웹앱 개발 워크플로우는 초기 환경 구축, 개별 기능 개발, 서비스 운영의 세 단계로 나뉘며, 초반 설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연어 프롬프트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개별 단계에서는 문제 생성, 사용자 입력 처리, 피드백 분석이 AI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학습자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가진다. 최종적으로 공통 운영 단계에서 사용자 관리와 배포가 이루어져 전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림 7] 바이브 코딩 웹앱 개발 워크플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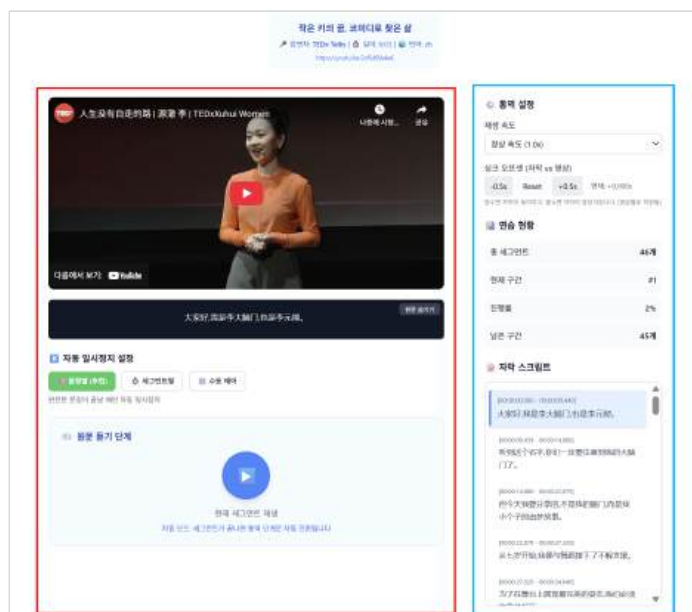
3.3.3 주요 기능

AI 기반 통번역 훈련 웹앱은 크게 번역과 통역 영역으로 구분된다.

번역 영역은 학습자가 다양한 자료를 직접 번역하고 그 결과를 AI로부터 다차원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번역 과정은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방식이 아닌 문장의 정확성, 표현의 자연스러움, 맥락 적합성 등을 고려한 심층 분석으로 이어지며,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개선점을 인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번역 영역에선 텍스트 번역 연습, PPT 번역 연습, 영상 자막 번역 연습을 진행할 수 있다.

통역 영역은 실시간성과 수행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이 과정에서는 기억력 훈련, 웨도잉, 프레젠테이션 기반 연습, 영상 콘텐츠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 시나리오가 제시된다. 통역 영역에서는 기억력 훈련, 웨도잉 연습, 프레젠테이션 기반 연습, AI 유튜브 통역 시스템 훈련을 할 수 있다.

[그림 8] 'AI 유튜브 통역 시스템' 예시 화면



[그림 9] 'PPT번역 연습' 화면 예시



3.3.4 기능적 특징

AI 기반 통번역 훈련 웹앱은 다음의 기능적 특징을 가진다.

첫째, Gemini API를 활용한 정확한 번역 및 피드백 생성 기능을 제공한다. 문장의 정확성, 표현의 자연스러움, 맥락 적합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Azure Speech Service를 활용한 음성 인식 및 발음 평가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학습자의 발화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발음의 정확성을 평가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셋째, 유튜브 API 연동을 통한 실시간 영상 기반 학습이 가능하다. 학습자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통역 연습을 하고 즉각적으로 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바이브 코딩 방식으로 개발되어 기능 추가 및 수정이 쉬운 확장 가능 구조이다. 자연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연습 모드를 통합 지원한다. 텍스트, PPT, 영상 자막 번역 연습과 기억력 훈련, 쉼표잉, 프레젠테이션 통역, 유튜브 통역 등 번역과 통역 영역의 종합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3.4 중국어 타자 연습 웹앱

3.4.1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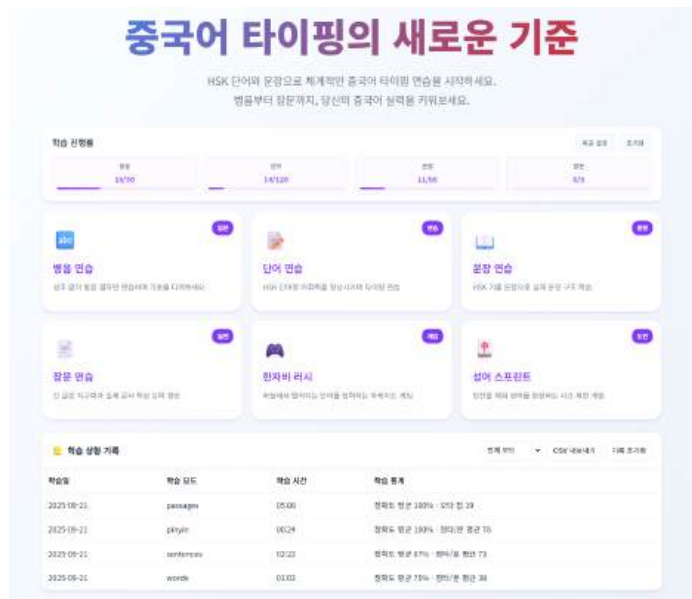
중국어 타자 연습 웹앱은 HSK 기반 어휘와 문장 타자를 통해 체화하는 중국어 연습 웹앱 구축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대상 사용자는 중국어 초·중급 학습자, HSK 준비생이다. 콘셉트는 단일 HTML 파일 기반의 반응형 한글 UI로 병음, 단어, 문장, 장문 4가지 연습 모드와 아케이드 방식 및 시간제한 방식의 2가지 게임 모드를 구현하는 것이며, 실시간 통계 시스템과 입력 하이라이트, HSK 급수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병음 표시 여부 등 개인화 설정을 시도하였다. 웹앱은 활용된 어휘, 문장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내장하고 있으며, 실시간 하이라이트와 오답 표시를 통해 학습자가 입력 과정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단일 파일 배포 방식을 통해 교실 수업이나 개인 학습 환경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내장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싶은 경우 웹사이트 빌더 Google Sites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별도의 호스팅 비용 없이도 웹앱을 수정 및 배포할 수 있다.

3.4.2 제작 방법

중국어 타자 연습 웹앱⁴⁾은 바이브 코딩 기반에서 Claude(Max plan)와 ChatGPT로 제작하였다. 전반적인 구현은 Claude에서 진행되었으며, ChatGPT는 코드 병합, 세밀한 기능 수정 시 활용되었다.

중국어 타자 연습 웹앱 개발은 총 5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 교육 목표를 정의하여 중국어 타자 교육의 대상과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명시하였다. 2단계는 전체 앱 구조를 설계하여 단일 HTML 파일 기반의 웹앱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메모리 기반 데이터 관리 방식과 반응형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였다. 3단계는 메인 페이지 구성으로, 연습과 게임 모드의 카드형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사용자 환경 설정을 최적화하였다. 4단계는 웹앱 내 공통 기능을 설정하였다. 실시간 통계 표시, 병음 토글, 반응형 디자인 등 모든 모드에서 공유되는 기능을 정의하고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된 컴포넌트를 설계하였다. 이때 개별 모드에만 적용되는 기능은 별도의 정의를 통해 구현 또는 제거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드별 세부 구현을 통해 HSK 급수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게임 메커니즘 설계, 캔버스 기반 애니메이션 구현 등 각 연습 모드의 고유한 상호작용 방식을 구체화하였다.

[그림 10] 중국어 타자 연습 웹앱 메인 페이지



3.4.3 주요 기능

중국어 타자 연습 웹앱은 연습 모드와 게임 모드로 구성되어 있다.

연습 모드는 병음 연습, 단어 연습, 문장 연습, 장문 연습 4가지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음 연습은 한자를 제외한 병음만을 연습할 수 있다. 단어 연습은 HSK 1~6급 어휘로⁵⁾, 문장 연습은 HSK 기출 문장으로 연습한다. 장문 연습은 AI로 생성한 단문 연습을 지원한다.

게임 모드는 떨어지는 어휘를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하는 ‘한자비 리시’와 사자성어를 완전히 입력하는 방식으로 고급 어휘와 관용 표현을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성어 스프린트’가 있다. 게임 모드는 입력 즉시 정답 여부를 알려주는 피드백을 제공하며, 경쟁과 도전 요소를 통해 자발적 반복 학습을 유도한다.

공통 기능으로 타자 속도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통계 표시와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켜고 끌 수 있는 병음 토글, 전반적인 학습 현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진도 추적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4) <https://sites.google.com/view/hankeytaj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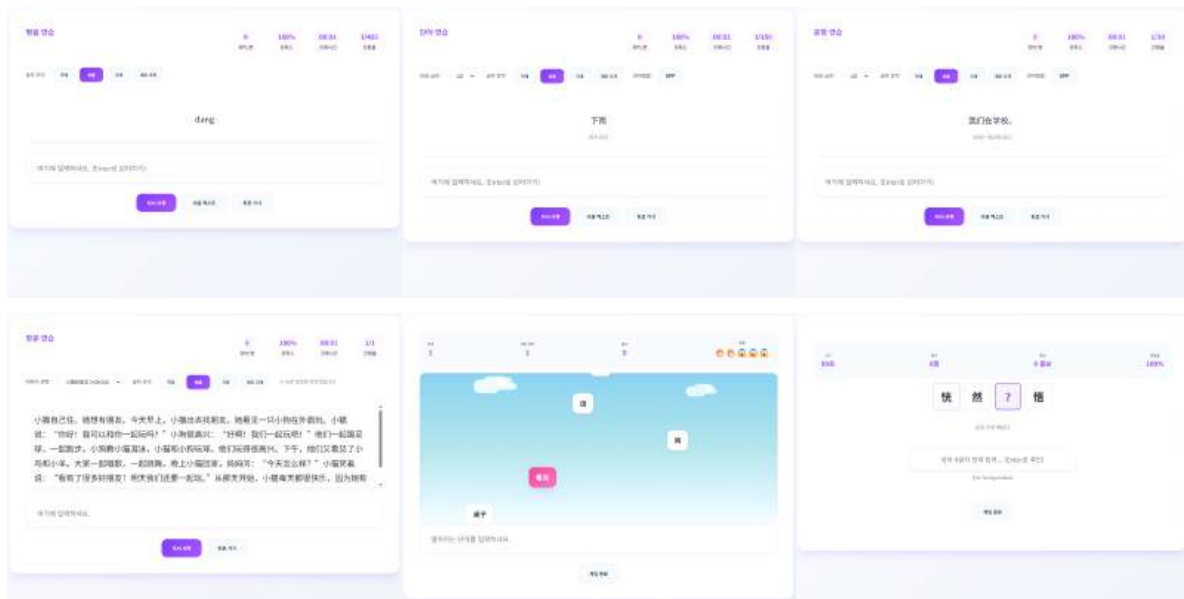
5) HSK7~9급 어휘는 현재(2025.09.21.) 기준 추후 추가 예정.

진도 추적 시스템은 학습 진행률과 학습 상황 기록으로 나뉜다. 학습 진행률은 병음, 단어, 문장, 장문 연습 목표와 목표 달성률을 표시해 준다. 학습 진행 목표는 학습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학습 상황 기록은 학습일, 학습 모드, 학습 시간, 학습 통계를 표 형태로 보여주며, 기록은 CSV 파일로 다운받아 보관할 수 있다. 진도 추적 시스템은 모두 초기화 설정이 가능하다.

[그림 11] 학습 상황 기록 csv 파일

학습일	학습 모드	학습 시간	학습 시간(초)	학습 통계
2025-09-21	game	0:05	5	정확도 평균 71% · 오타 합 2 · 점수 합 60
2025-09-21	pinyin	3:49	229	정확도 평균 91% · 정타/분 평균 79
2025-09-21	sentences	0:03	3	정확도 평균 100% · 정타/분 평균 100
2025-09-21	words	2:00	120	정확도 평균 94% · 정타/분 평균 29

[그림 12] 중국어 타자 연습 모드별 실행 화면



3.4.4 기능적 특징

중국어 타자 연습 웹앱은 다음의 기능적 특징을 가진다.

첫째, 단일 HTML 파일로 제작되어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로컬 환경에서 즉시 실행이 가능하다.

둘째, 대용량 학습 데이터를 내장하고 있다. 병음, 어휘, 문장 데이터베이스가 내부에 저장되어 있어 외부 서버 API 호출 없이 바로 불러올 수 있다. 학습 진행률과 학습 상황 기록은 브라우저 저장 공간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학습 상황 기록은 CSV 파일로 내보낼 수 있다.

셋째, 캔버스 기반 애니메이션 엔진을 활용하여 게임 화면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시각적 효과를 제공한다. 특히 한자비 러시는 게임 단계가 올라갈수록 단어 낙하 속도와 출현 간격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적절한 도전 정신을 제공한다.

넷째, 실시간 통계 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입력한 글자를 정답과 즉시 비교하여 맞으면 초록색, 틀리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타자 속도와 정확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화면에 보여준다. 연습 시간은 1초 단위로 자동 측정되며, 모든 통계는 학습이 끝난 후 기록으로 저장된다.

다섯째, 사용자 맞춤 설정을 지원한다. HSK 급수 선택, 글자 크기 4단계 조절, 병음 on/off 토글, 한글 뜻 상시 표시 기능을 제공한다. 각 학습 모드는 독립적으로 관리되어 모드 전환 시에도 설정이 유지되고 화면이 안정적으로 표시된다.

4. 중국어문 교육 웹앱의 교육적 효과

4.1 학습자 측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웹앱들은 학습자에게 다차원적인 교육적 효과를 제공한다.

첫째, 몰입 및 동기 부여 효과이다. AI 노래 학습 웹앱은 학습자가 선호하는 노래를 활용하여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타자 연습 웹앱의 게임 모드는 즉각적 피드백과 목표 달성을 통해 학습 동기와 집중력을 높인다.

둘째, 청취력 및 발음 향상 효과이다. AI 노래 학습 웹앱은 노래를 반복적으로 들으며 중국어의 성조, 연음, 리듬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며, 통번역 웹앱은 실시간 음성 인식과 발음 평가를 통해 학습자가 발음을 교정하고 청취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문맥 기반 어휘 습득 효과이다. AI 노래 학습 웹앱은 노래 가사라는 생생한 문맥 속에서 어휘를 학습하여 기억 효과를 높이며, 타자 연습 웹앱은 HSK 1~6급 어휘와 문장을 반복 입력하면서 한자의 발음과 표기를 익히고 어휘 기억력을 강화한다.

넷째, 능동적 학습 강화 효과이다. 단순 시청이나 암기를 넘어 학습자가 직접 입력하고, 번역하고, 통역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능동적인 학습 습관을 형성한다.

다섯째, 종합적 언어 능력 향상 효과이다. 타자 연습 웹앱은 문장 단위 입력을 통해 중국어 어순과 문법 패턴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며, 통번역 웹앱은 문장의 정확성, 표현의 자연스러움, 맥락 적합성 등을 고려한 심층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개선점을 인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4.2 교육자 측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웹앱과 시스템은 교육자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적 기대 효과를 가진다.

첫째, 학습 과정의 정량화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워크플로우 자동화 시스템과 타자 연습 웹앱은 학습자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정량화하여 기록함으로써 교육자가 학습자의 오류 유형과 강·약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개별 맞춤형 피드백이 가능해지고, 기존 강의식 수업에서 어려웠던 세밀한 지도가 실현될 수 있다.

둘째, 교육자 역할의 전환 가능성을 제공한다. 워크플로우 자동화 시스템에서 평가와 피드백 과정이 AI를 통해 자동화되면서 교육자는 단순 채점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표현 방식이나 맥락 이해를 심화시켜 지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교육자의 역할을 평가자가 아닌 학습 코치로 확장하며, 수업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셋째, 객관적 평가 기준 확보가 가능하다. AI가 제공하는 일관된 평가 기준은 교육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학습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과정 전반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넷째, 수업 참여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노래, 게임 등 흥미로운 콘텐츠와 몰입형 학습 경험은 학습자의 동기를 강화하여 수업 참여도를 높이며, 이를 통해 교육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4.3 AI 기반 바이브 코딩 측면

AI 바이브 코딩은 교육자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적 가치를 제공한다.

교육자는 복잡한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교육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할 수 있고, 자신의 교육 철학을 반영한 맞춤형 도구를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높은 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생성형 AI 구독만으로도 개인화된 교육 도구를 확보할 수 있어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환경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킨다.

AI 바이브 코딩을 통해 개별 학습자의 필요에 맞춘 교육 설계할 수 있음에 따라 획일적인 교육 도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화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 웹앱 개발에 비해 AI 바이브 코딩은 아이디어에서 작동이 가능한 프로토타입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수 시간 단위로 단축한다. 또한 복잡한 기술 지식 없이도 고급 기능 구현은 물론 즉각적인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실용적 혁신 도구로서 그 가치를 입증한다.

5. 향후 발전 가능성

본 연구에서 제시한 웹앱과 시스템은 바이브 코딩 기반의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향후 여러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첫째,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웹앱들을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워크플로우 자동화 시스템을 중심으로 노래 학습, 통번역 훈련, 타자 연습을 연계하여 학습자의 전체 학습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종합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고, 통합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둘째, 피드백 시스템을 실시간 대화형 AI 튜터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단순히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질문에 답하고, 학습 전략을 제안하며,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학습 동반자로 진화할 수 있다.

셋째, 학습 데이터 축적을 통한 예측적 학습 분석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학습자의 행동 패턴, 오류 유형, 학습 속도 등을 분석하여 학습 성과를 예측하고, 학습 부진이나 중도 포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여 맞춤형 개입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후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적 교육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6. 결론

AI 기반 중국어문 교육 웹앱과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워크플로우 자동화 시스템과 AI 노래 학습 웹앱, 통번역 훈련 웹앱, 타자 연습 웹앱을 개발하여 교육 콘텐츠 자동화, 흥미 유발형 학습, 전문 기능 훈련, 기초 능력 강화라는 중국어문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웹앱과 시스템의 핵심 가치는 효율성과 인간성의 조화에 있다. 기술을 통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그 결과로 확보된 시간과 에너지를 보다 인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에 투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각 학습자의 고유한 특성과 필요를 존중하는 개별성을 실현하면서도 이를 대규모 교육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AI 기반 바이브 코딩 웹앱 개발 방식은 중국어문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교과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브 코딩을 통한 빠른 프로토타입 제작과 프롬프트 기반 콘텐츠 자동화는 학습자가 상호작용을 하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 전통적인 교재 중심 학습이 가지는 제약을 보완하고 AI 기반 개인화 학습 환경 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교육은 기술과 인간이 대립하는 것이 아닌 기술이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AI 기반 바이브 코딩 중국어문 교육 웹앱과 시스템은 이러한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써 AI 기반 교육 기술의 범용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성조. (2024).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75, 33-58.
- 박세미. (2025).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문번역 수업 모델 연구 - 독한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9(2), 145-164.
- 박정원. (2025). AI 데이터 자동화(ebook). 도서출판 아우라.
- _____. (2025). AI 콘텐츠 제작과 자동화(ebook). 도서출판 아우라.
- _____. (2025). Vibe Coding 기반 중국어 교육 웹앱 제작 연구* - Replit 플랫폼을 중심으로 -. *중국학연구*, 113, 3-33.
- 배소연. (2025). AI 도구를 활용한 일본어 작문 교육 방안 연구 — 영상 자막 번역 프로젝트 수업을 중심으로 —. *일본어교육연구*, 70, 83-98.
- Gile, D. (2009).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 Lyu, B., Lai, C., Lin, C.-H., & Gong, Y. (2021). Comparison studies of typing and handwriting in Chinese language learning: A synthe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6, 101740. <https://doi.org/10.1016/j.ijer.2021.101740>
- Park, S.-S., & Park, K.-C. (2025). Effects and proposals of using generative AI in Chinese education.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32(2), 19-32.
- Schmidt, T., & Strasser, T. (2021). *Artificial intelligence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A CALL for intelligent practice*. Artificial Intelligence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al Technology. (2023).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teaching and learning: Insights and recommendations*. Washington, DC. Retrieved from <https://tech.ed.gov>

AI 휴먼은 강의자를 대체할 수 있는가?

권오영, 윤상혁, 장경식, 이소현, 하두진, 성은모¹⁾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AI 휴먼 구축과 적용
 3. 결론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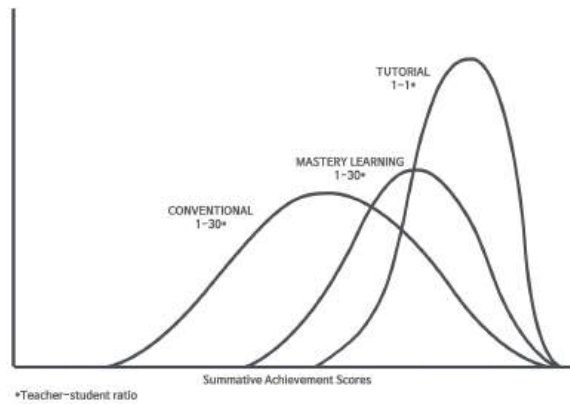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AI 휴먼(AI Human)의 구축과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교재·강의자료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셋 구축, RAG 기법을 적용한 모델 학습, 인터페이스 설계 및 실제 수업 적용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다양한 수업에 적용, 인간 교수자와 AI 휴먼을 병행한 수업이 가장 높은 학습 성과를 보였으며, AI 휴먼 단독 수업은 전통적 대면 수업과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보였다. 또한, AI 휴먼의 사실성과 인간 유사성 인식이 학습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AI 휴먼이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AI-인간 협력(Human-AI Collaboration) 기반의 새로운 학습 생태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 서론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나타난 생성형 AI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ChatGPT와 Claude를 기점으로, Midjourney와 Stable Diffusion등의 그림 생성, Suno와 Udio등의 음악 생성, Kling과 Veo3등의 영상 생성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들이 생성한 결과물은 인간의 작업 시간을 대폭 줄임과 동시에 효율 극대화에 일조하고 있다.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s)은 교육에서 중요한 기회와 동시에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AI 기술은 개인화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할 잠재력이 있다.

1) 권오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장경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윤상혁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조교수
이소현 경기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조교수
하두진 경기대학교 중어중문전공 조교수
성은모 국립경국대학교 교육공학과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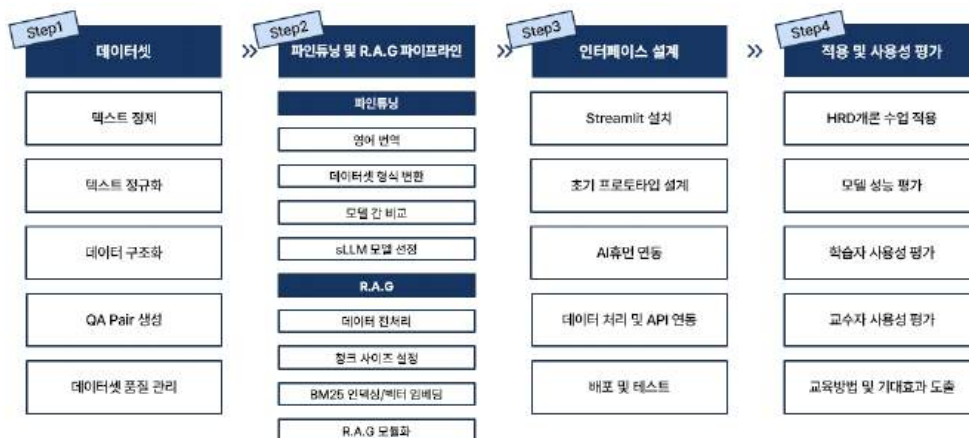
〈그림 1〉 Two Sigma Problem²⁾

Two Sigma Problem은 교육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학생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Conventional) 종 모양의 결과를 보여준다. 만약 여기서 마스터리 러닝(Mastery learning)을 제공하면 평균적인 학생이 탁월한 학생으로, 일대일 튜터링을(1:1 Tutorial) 제공한다면 탁월한 학생은 우수한 학생으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요구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모든 학생에게 일대일 튜터링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과거 AI가 주로 지식 검색이나 자동 채점 등 보조적 기능에 머물렀다면, 현재의 생성형 AI는 학습자와의 자연스러운 대화, 개별화된 학습경로 설계, 다언어·다매체 콘텐츠 생성 등 고도화된 교육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텍스트·음성·영상 등 복합 입력을 처리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능력은 기존 이러닝 환경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한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인간 협력(Human-AI Collaboration)’ 기반의 새로운 학습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교수자는 교육 설계자이자 학습 촉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강화하고, AI는 실시간 피드백, 반복 학습,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 정밀한 학습 지원을 담당한다. 결과적으로 생성형 AI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교육 목표,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 경험 전반을 재구성하는 변혁적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AI 휴먼 구축과 적용

‘AI-인간 협력(Human-AI Collaboration)’ 기반의 새로운 학습 생태계란 무엇일까? 본 연구진은 인간 교수자를 돕는 Chatgpt, Claude, Gemini와 같이 단순 채팅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와 상호작용하고 학습효율을 극대화하는 AI로 정의하였다. 모델 구축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구 프로젝트 Overview

2) Benjamin(1984)

Step1에서는 데이터셋 구축 단계에서는 교육에 활용할 핵심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학습 가능한 형태로 정제한다. 연구팀은 교재와 강의자료를 기반으로 OCR 기술을 통해 텍스트를 추출한 후, 불필요한 기호와 오류를 제거하고 문장을 표준화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후, 질문과 답변(QA Pair)을 생성하여 학습용 데이터셋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이 교육 맥락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Step2 모델 개발 단계에서는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한국어 교육 상황에 맞는 파인튜닝을 진행한다. 특히,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법을 결합하여 단순히 훈련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재와 학습자료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활용해 맥락적으로 풍부한 답변을 산출하도록 개선하고, AI 휴먼이 단순한 대화 도구를 넘어, 지식 기반 학습 지원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AI 휴먼 제작 과정

Step3 인터페이스 설계 단계에서는 개발된 AI 모델을 학습자와 교수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적용한다. Streamlit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FastAPI, Supabase를 활용한 데이터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은 AI 휴먼과의 대화를 통해 강의 내용을 학습하고, 교수자는 학습자 활동과 반응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교육 효과 실시간 점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 적용 및 검증 단계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실제 수업에 투입하여 효과성을 평가한다. 2024년 9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인적자원개발) 개론 수업(총 333명)을 대상으로 실험군과 통제군을 설정하고, AI 휴먼 기반 수업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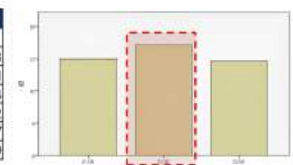
● HRD개론 2주차 학습자 성과 분석

- 1그룹과 2그룹 간, 그리고 2그룹과 3그룹 간의 차이(ANOVA분석)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p < 0.05$)

그룹명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1그룹	134	15.04	2.239	0.193	14.65	15.42	8	20
2그룹	114	17.12	2.45	0.229	16.67	17.58	10	20
3그룹	78	14.67	2.795	0.316	14.04	15.3	9	20
합계	326	15.68	2.671	0.148	15.39	15.97	8	20

(I) 주처그룹	(II) 주처그룹	평균차(I-II)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1그룹	22	-2.085	0.313	0.00	-2.84	-1.33
	23	0.371	0.35	0.87	-0.47	1.21
2그룹	21	2.085	0.313	0.00	1.33	2.84
	23	2.456	0.361	0.00	1.59	3.32
3그룹	21	-0.371	0.35	0.87	-1.21	0.47
	22	-2.456	0.361	0.00	-3.32	-1.59

*평균차는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그림 4〉 2주차 학습자 성과 결과 막대 그래프

〈그림 4〉 HRD개론 수업 적용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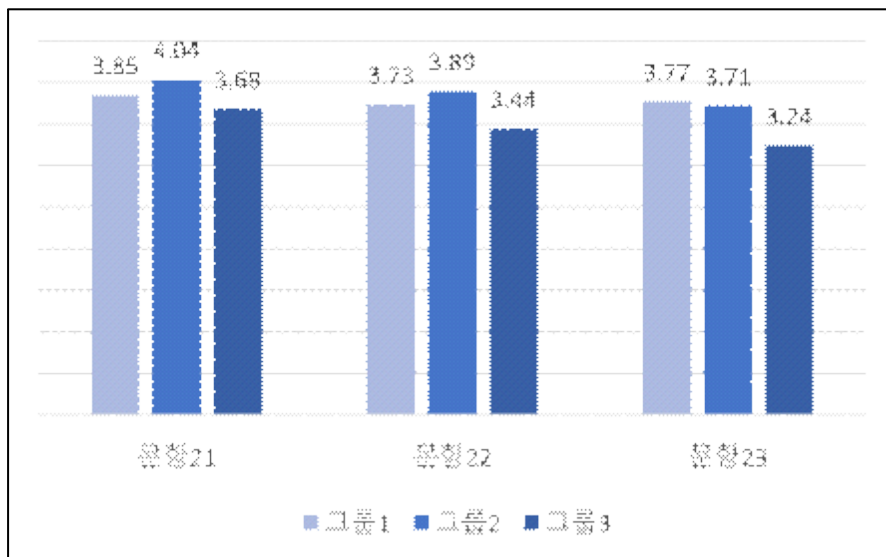
- 1그룹: 136명 / AI 본 학습 활용 그룹 (AI휴먼 영상으로만 진행)
- 2그룹: 124명 / AI 추가학습 활용한 그룹(AI휴먼 영상 + 인간 교수자 대면 수업)
- 3그룹: 73명 / 활용하지 않은 그룹 (인간 교수자만 대면 수업으로 진행 - control 그룹)

결과를 살펴보면, AI로만 진행한 1그룹과 전통적인 대면 수업으로 진행한 3그룹의 성과는 비슷하였고, 대면 수업과 AI를 병행한 그룹의 성과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즉, AI 휴먼/인간 교수자가 단독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교수자가 AI 휴먼을 유용한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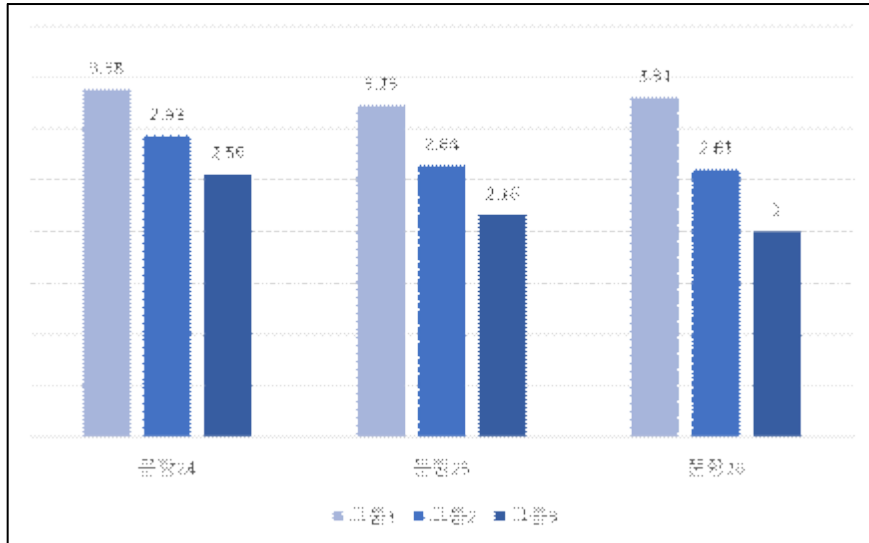
〈그림 5〉 ‘교수자형(좌)’, ‘인플루언서형(중간)’, ‘캐릭터형(우)’

2025년 3월 학기, 본 연구진은 경영정보학과 수업(수강인원 79명)에서 교수자 외형에 따른 학습자의 인식과 반응에 차이가 발생하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세 집단은 동일한 학습 주제와 강의 분량, 강의 시간, 학습 목표를 공유하였으나, 영상 속 AI 휴먼 교수자의 외형적 특성과 발화 스타일에서 차이를 두었다. 그룹1은 전형적인 교수자 이미지를 기반으로 정형화된 강의 톤과 안정적인 발화를 사용하는 유형, 그룹2는 친근하고 자유로운 말투를 사용하는 인플루언서형 유형, 마지막 그룹3은 시각적 개성이 강하고 감정 표현이 다소 과장된 캐릭터형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6〉 AI 휴먼 강의의 학업 성취도 설문 결과

각 유형별로 뚜렷하게 차별화된 특성과 교육적 효과가 나타났다.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3개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교수자형과 인플루언서형이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문항21(수업을 진행한 교사/AI휴먼의 강의를 통해 지식/정보를 얻는다)에서 그룹2가 4.04로 가장 높았으며, 그룹1이 3.85, 그룹3이 3.71로 나타났다. 문항22(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에서는 그룹2가 3.89로 가장 높았고, 그룹1이 3.73, 그룹3이 3.4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항23(전반적으로,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성취한다)에서는 그룹1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그룹2가 3.68, 그룹3이 3.2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자형과 인플루언서형이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7〉 AI 휴먼의 인간 유사성 인식 설문 결과

인간 유사성 인식을 측정하는 3개 문항에서 그룹1이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문항24(수업을 진행한 교사/AI휴먼은 인공적인/자연스러운 느낌이다)는 문항에서 그룹1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그룹2가 2.93, 그룹3이 2.61로 나타났다. 문항25(합성 같은/실제 같은 느낌이다)에서도 그룹1이 3.23으로 가장 높았고, 문항26(인간이 만든 것 같은/인간 같은 느낌이다) 역시 그룹1이 3.31로 가장 높았으며, 그룹2가 2.64, 그룹3이 2.00으로 나타나 그룹 간 격차가 상당히 컸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자형 AI 휴먼이 학습자들에게 가장 인간과 유사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시사점은 AI 휴먼의 인간 유사성 인식과 학업 성취도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이다. 교수자형이 인간 유사성 인식의 세 문항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동시에 학업 성취도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AI 휴먼을 더욱 인간과 유사하게 인식할수록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는 중요한 교육학적 함의를 제시한다. 특히 인간 유사성이 가장 낮았던 캐릭터형에서 학업 성취도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 역시 이러한 상관관계를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교육 맥락에서 AI 휴먼의 사실감(Realism)이 학습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진은 2025년 9월 학기 여러 학문 수업에의 도입과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과목별 적용 설계를 진행 중이다.

과목	교과 내용	방향	AI 휴먼 적용 방법
수학	미적분	문제해결 중심 단계별 시나리오	자동 강의 생성
물리	쿨롱의 법칙	시각화 기반 개념 전달 설계	자동 강의 생성
영어 읽기와 쓰기	회화, 작문	문답형 인터랙션 기반 강의	회화용 상호반응형 챗봇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기초 코딩과 실습	절차적 사고 기반 실습 구조	교육영상 제작 및 코딩 보조 교사

〈그림 8〉 진행 중인 교과목과 실험 내용

수학 과목에서는 문제 해결 중심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자동 강의 생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복잡한 계산 과정을 단계적으로 따라가며 개념을 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물리 과목의 경우 쿨롱의 법칙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시각화에 초점을 둔 개념 전달 방식을 설계하고, 역시 자동 강의의 형태로 구현하여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어 읽기와 쓰기에서는 회화와 작문 학습에 적합하도록 문답형 상호작용 방식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회화용 챗봇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참여하는 듯한 몰입 경험을 제공하며,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 습득 효과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교과에서는 절차적 사고를 기르는 실습 중심 구조를 마련하였다. AI 휴먼은 교육 영상을 제작하거나 보조교사로서 개입하여 학생들이 기초 코딩을 배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결론

본 연구는 AI 휴먼이 교육 현장에서 단순한 보조 기술을 넘어 학습 효과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인간 교수자 단독 강의나 AI 휴먼 단독 강의보다 양자를 병행했을 때 가장 높은 학습 성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교수자형 AI 휴먼은 학습자에게 가장 인간에 가까운 인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학업 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교육 맥락에서 AI 휴먼의 사실성과 상호작용성이 학습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며, 향후 더 많은 교과목과 다양한 학습 환경으로의 확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여러 교과목에의 적용을 통해 AI 휴먼이 단순한 보조적 도구를 넘어, 교과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실제 수업에서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시도와 개선을 통해 그 가능성을 더욱 고도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화, 강명희. (2011).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촉진을 위한 개인화된 e-튜터 설계 및 개발에 관한연구.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4(1), 91-109.
- 박찬성. (2023). 챗봇을 활용한 튜터-튜티 활동이 초등학교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덕원, 조은정, 이철. (2025). 디지털 휴먼 AI 챗봇의 표정에 관한 사용자의 인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5(5), 26-41.
- 한옥영. (2023). 생성형 AI 기반 학습자 맞춤형 교육 시스템 설계를 위한 구성 요소 탐구.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6(6), 127-141.
- Ait Baha, T., El Hajji, M., Es-Saady, Y., & Fadili, H. (2024). The impact of educational chatbot on student learning experience.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29. 10153-10176. <https://doi.org/10.1007/s10639-023-12166-w>.
- Alier, M., García-Peñalvo, F. J., & Camba, J. D. (2024)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from deceptive to disruptive. *Ijimai Journal*. 5-14. <https://www.ijimai.org/journal/bibcite/reference/3436>.
- Benjamin, B. S. (1984). The two sigma problem: The search for methods of group instruction as effective as one-to-one tutoring. *Educational Researcher*, 13(6), 4-16. <https://doi.org/10.3102/0013189X013006004>
- Birenbaum, M. (2023) The chatbots' challenge to education: disruption or destruction? *Education Sciences*. 13(7):1-17. <https://doi.org/10.3390/educsci13070711>.
- Bredeweg, B., & Kragten, M. (2022) Requirements and challenges for hybrid intelligence: a case-study in education. *Front Artificial Intelligence*. 5. 1-11. <https://doi.org/10.3389/frai.2022.891630>.
- Chen, Y., Jensen, S., Albert, L. J., Gupta, S., & Lee, T. (2022) Artificial intelligence (AI) student assistants in the classroom: designing chatbots to support student success. *Information Systems Frontiers*. 25(1):161-182. <https://doi.org/10.1007/s10796-022-10291-4>.

- Pereira, F. D., Rodrigues, L., Henklain, M. H. O., Freitas, H., Oliveira, D. F., & Cristea, A. I. (2023) Toward Human-AI collaboration: a recommender system to support cs1 instructors to select problems for assignments and exams. *IEEE Transactions on Learning Technologies*. 16(3):457-472. <https://doi.org/10.1109/tlt.2022.3224121>.
- Wenjuan. M., Wenjing. M., Yongbin. H., Xinyu. B. (2025) The who, why, and how of ai-based chatbots for learning and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30:7781-7805. <https://doi.org/10.1007/s10639-024-13128-6>.
- Wu. R., Yu. Z. (2023) Do AI chatbots improve students learning outcomes? Evidence from a meta-analysi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55(1):10-33. <https://doi.org/10.1111/bjet.13334>.
- Yue. B & Li. H. (2023) The impact of human-AI collaboration types on consumer evaluation and usage intention: a perspective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 *Frontiers in Psychology*. 14. 1-17. <https://doi.org/10.3389/fpsyg.2023.1277861>.
- Zhou. C & Hou. F. (2024) Can AI empower L2 education? Exploring its influence on the behavioural, cognitive and emotional engagement of EFL teachers and language learners.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59. 1-14. <https://doi.org/10.1111/ejed.12750>.

韓中科幻電影中賽博格角色的認知分析

—以賽博格角色人機接口位置與功能為例

目錄

- 1.緒論
- 2.案例分析
 - 2.1 賽博格角色人機接口位置分析
 - 2.2 賽博格角色功能分析
- 3.結論

1.緒論

科幻電影是導演借助自身經驗建構了對未來社會的想像。不同地區的电影中描繪了人機組合的賽博格角色，同時還賦予角色超能力。觀眾要真正理解賽博格角色，就需要細緻挖掘被創造出的符號內容和開展的想像空間。基於具身智能發展的現實，本研究認為從認知符號學研究科幻電影中的賽博格人機接口位置和功能具有重要意義。一是拓展了認知語言學的研究範圍，二是能夠應用到人形機器人的創新。

2.案例分析

2.1 賽博格角色人機接口位置分析

本節聚焦科幻電影中的“賽博格概念”，主要分析了韓中兩國電影中賽博格角色形象的人機接口位置。在韓國電影《정이》中通過“人”和“人工智能”構建了輸入空間1和輸入空間2，其整合空間變為新的整合空間3又與新的輸入空間4選擇性投射進新的整合空間。但在其展現結構中對於賽博格存在的說明不足。為補充這一不足，“商品”這一隱喻構建了新的輸入空間6，與新的整合空間即輸入空間5最終選擇性投射進最終的整合空間。頭部接口表明，賽博格是為供貨開發的有機體，它們忠誠且具有戰鬥能力。同時在頸部接口，電影通過“人”和“機器”構建了輸入空間1和輸入空間2，其共同投射進整合空間生成輸入空間3，然後與新的輸入空間4“病人”整合，最終選擇性投射進最後的整合空間。頸部接口表明賽博格是能夠進行資訊傳輸的低等有機體。在中國電影《未來警察》中，輸入空間1是人，輸入空間2則是機器，其最終選擇性投射進最終的整合空間，手臂接口表明賽博格是能夠機器增強的有機體。

2.1.1 頭部接口

先看案例《정 이》。

頭部接口的設計。影片所呈現的，並非大腦在形態上的物理結合，而是將過去的記憶與新的功能進行整合，之後再與機器身體融合，完成一個新的賽博格個體。這樣的角色，一旦進入“購買”這一語境框架，就被觀眾視為一種可被交換與流通的商品。我們在此可以看到，整合空間的生成並不僅僅是輸入空間之間相互作用的靜態結果，而是在新的語境中，原有的整合結果又轉化為新的輸入空間，持續參與意義的建構。因此，整合既是認知運作的結構性結果，也是一個在語境推移中不斷實時生成的潛在過程。

2.1.2 頸部接口

繼續介紹《정 이》中的案例。

頸部接口的設計。角色頸部嵌入了倒三角形的機器部件，表面上呈現出人與機器的結合。然而，由於機械化的程度尚不明確，觀眾往往仍將其視作普通人類。直到抽血的場景出現，當針筒抽取出的不是紅色血液，而是白色液體時，觀眾對角色機械化程度的判斷才被迫調整，對賽博格的認知亦隨之精細化。在這一過程中，針筒成為啟動“醫學”框架的關鍵提示物，透過轉喻機制，引導觀眾聯想到“醫院”與“血液”等常識性知識。然而，電影恰恰通過這一期待的違反——即“非血液的液體”實現了一種意義上的偏移與認知張力，從而讓觀眾在接收具體信息與修正推理過程的同時，獲得一種來自認知落差與推理修正的觀影快感。

2.1.3 四肢接口

介紹案例《未來警察》。

四肢接口的設計。與此前頸部抽血場景所啟動的“抽血”框架相對，這裡則引入了“輸血”或“補充能量”的框架。然而，在構圖上不再出現針筒，而是將操作位置移至手臂，類似於輸液時的情境，並透過插入一個如電池般的小型容器來實現能量補充的設定。這種設計不僅提升了角色的機械化程度，也藉由符號的置換，進一步模糊了“血”與“能源”之間的界線，強化了人機融合的視覺與語義效果。

2.2 賽博格角色功能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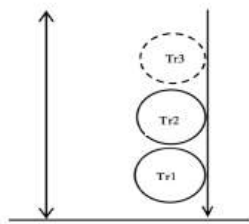
本節對中韓賽博格角色的功能進行意象圖式分析。首先在修復型功能機能重建部分，賽博格角色的修復過程主要激活了垂直圖式，體現出從低處的靜止乃至無力的狀態逐漸到高處的恢復與能動性狀態。其次在增強型功能也就是機能拓展部分展現了垂直圖式的擴展與變形，在尺度的使用範圍，韓國和中國的案例都激活了垂直圖式，展現了賽博格角色在具体語境中不同的能力尺度。在界標的數量和面積中，同時激活了力圖式與垂直圖式。此處展現出了賽博格角色對重物的不同支撐力，也突顯出從地面向上承載的能動性。最後在尺度脫離部分，除了垂直圖式和力圖式，還進一步激活了容器圖式。此能力的展現，涉及將災難性力量從地球內部轉移至外太空的過程，當電影中轉至外太空時，擺脫了意象圖式。這些案例突顯出賽博格增強功能中對日常經驗的變形、誇張以及重塑。

2.2.1 修復型功能：機能重建

在電影中，能力的恢復程度通常與垂直圖式中的高度有關。介紹案例《승리호》。

修復功能機能重建。畫面中清晰展現出多蘿茜身體恢復後的變化，激活了垂直圖式。在電影中射體1 (Tr1) 對應的是多蘿茜躺臥在病床的姿態，也是最低的狀態。射體2 (Tr2) 則是位於射體1 (Tr1) 之上，位置更高，對應的是多蘿茜坐在病床上的姿勢，表示多蘿茜正在逐漸恢復。射體3 (Tr3) 則預示多蘿茜即將站立，位置也明顯是高於射體1 (Tr1) 和射體2 (Tr2)，展示的是多蘿茜身體的全面恢復，在三者之中程度最高。從躺著的姿態 (Tr1) 到坐姿 (Tr2)，以及預計激活的站姿 (Tr3)，構成了垂直圖式。

修復功能主要激活了垂直圖式來完成身體功能的重建。賽博格能力的恢復程度通常與垂直圖式中的高度有關，從躺到坐再到站，這種“從下向上”的方向轉變展現了行動恢復的可能，且隱含了“健康是上，疾病是下”以及“好是上，惡是下”的隱喻表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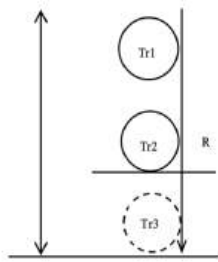


2.2.2 增強型功能：機能拓展

在本節中，將從尺度的使用範圍（能力邊界）、界標的數量和面積（外界互動）和尺度脫離（根本性變革）三個方面來理解賽博格角色增強之後的行動能力。

(1) 功能增強的程度通常與垂直圖式中其使用範圍成正比。介紹案例《내츄럴 시티》。

電影畫面清晰展現出賽博格軍隊在空中移動的能力，激活了垂直圖式。根據電影中的畫面，將水面設置為參照點(Reference point, R)。射體1 (Tr1) 是賽博格軍隊，其停留在空中身體向下姿態，離參照點水面保持一段距離，位於垂直圖式中上方的位置。射體2 (Tr2) 相較於射體1 (Tr1) 則是處於更下的位置，接近於參照點位置。射體3 (Tr3) 並未直接在電影畫面中展示，是預計將移動到的位置，其位於參照點的下方，並接近重力方向的終點。從射體1 (Tr1) 的空中下降，到射體2 (Tr2) 的觸碰水面，最後預計潛入到射體3 (Tr3) 水下的位置。場景展現了賽博格在空中移動的過程，激活了垂直圖式，並在原型的垂直圖式上進行擴展，垂直圖式在移動的過程中所占位置範圍的大小與能力的強弱成正比。從空中至水下的移動軌跡也反映出一種由高度可見（上方）到隱蔽滲透（下方）的位置轉變，進一步揭示了賽博格軍隊透過增強後的身體功能，如何穿越多重空間層級完成作戰任務。圖中展示身體功能增強的程度通常與垂直圖式中其所占範圍成正比，所占的範圍越大，能力越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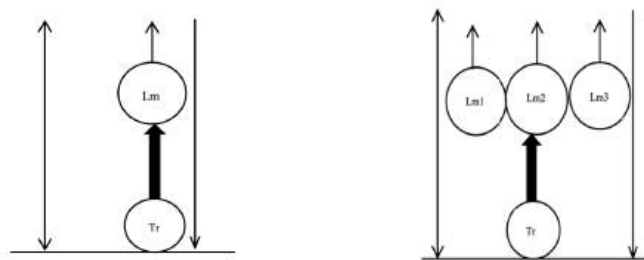
(2) 位置延展的广度往往与能力表现的强度相對應。介紹案例《未來警察》。

畫面中清晰展現出男主的空中移動能力，激活了垂直圖式。圖展示的是主角飛行上升的狀態，射体1 (Tr1) 位於參照點地面的上方位置，其預計根據情況的危急程度還有可能繼續往上升。射体2 (Tr2) 是主角在建築物上跳躍的狀態。區別於射体1 (Tr1)，起跳本身就包含一系列的動作即起跳、到達高點、下降的過程。跳的垂直圖式中射体2 (Tr2) 相對於參考點已經有一定的高度，此時方向是向上的，然而射体2 (Tr2) 在跳的過程中，需要克服來自地球的重力。在垂直圖式中，位置延展的广度往往与能力表现的强度相對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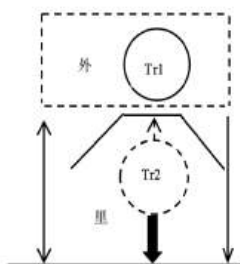
(3) 界標的數量和面積通常與身体所使用的力度呈正比。繼續介紹案例《未來警察》。

畫面展示的是電影《未來警察》中男主角在地面支撐重物的能力。畫面中清晰展現出男主對物体的支撐能力，激活了垂直圖式與力圖式。射體 (Tr) 是男主角，呈站立姿態，位於參照點地面的上方位置，身体施力的方向是向上，激活了垂直以及力圖式。Lm (Landmark) 則是游樂設施，此時的Lm即物體由於受到射體 (Tr) 的托舉，其方向是向上的。射體 (Tr) 是主角，其從站立姿態變成了腿彎曲的狀態，身体所占的面積以及地面裂痕的面積可以推斷使用了更多的力進行支撐。根據象似性原則，可將物體用Lm1、Lm2、Lm3分別進行標註，表明射體 (Tr) 所承受的重量，其需要更強大的力才能托舉住物品。借助於射體 (Tr) 向上的力，Lm1、Lm2、Lm3的力的方向也是向上的。在地面承重的能力部分，展現了力圖式與垂直圖式的結合，賽博格角色不僅位於垂直空間的底部，更是在力圖式中主動產生反作用力，以支撐來自危險語境中的不同重量與壓力，展現出賽博格角色的力量潛能。身体功能增強的力度也与界標的數量和面積成正比，界標的數量和面積越多越大，身体所使用的力度就越強。



(4) 當賽博格角色脫離地球環境時，身體功能脫離了重力限制，展現出了超越正常的极限能力。介紹案例《拳神》。

電影所展示的是在電影《拳神》中的將危險轉移的能力。畫面中清晰展現出氣流從地球內部向宇宙外部噴發的動態軌跡，激活了容器圖式、垂直圖式與力圖式。射体1 (Tr1) 為向上運動的氣流，其由地球內部穿越容器邊界進入太空。當氣流脫離容器後，即處於非重力環境中，不再受到地球引力的作用，因此在此階段的圖式中不再包含方向性。射体2 (Tr2) 是兩位主角聯合在容器內部合力將氣流往上推，此時也同樣需要克服來自地球的引力，用粗箭頭進行標識，力量的方向是由下而上，此處同時激活垂直圖式和力圖式。通過從高處降落再將危機導引向高處的動態路徑，形成了一種垂直且打破邊界的空間結構，賦予賽博格角色超越人類極限的力量。這一場景中的空間運動形成了由下而上由內到外的動態鏈條，主角們將其導引穿越邊界向上釋放，從激活垂直圖式和容器圖式再到擺脫垂直圖式。這種從內部導向外部的力能轉移，不僅強調了賽博格角色對物理規律與空間結構的超越控制，也表面了其具備重構空間秩序、逆轉危機走向的能力。尺度脫離說明身體功能已經脫離了重力限制，展現出了超越正常的极限能力。但當所處環境脫離了地球及其相關物理條件時，概念隱喻和意象圖式就无效。



3. 結論

文章先是分析探討了人體各部位如何以機械元素的形式進行整合。我們發現，這些整合並非僅基於人類日常生活的框架，而是在其中加入了非典型的變化，調整機械性質的程度，或影響觀眾的推理過程，從而追求娛樂效果。其次通過分析探討了電影中賽博格角色的行動是如何通過身體經驗建構認知模式。我們發現，這些功能設計首先是基於人類日常行動的框架，並且在此基礎上根據情境的變化進行變形和擴展甚至是崩潰，賽博格也根據不同的語境調整功能的發揮尺度，影響觀眾的理解過程，進一步增強其戲劇性與娛樂效果。

중국어 AIDT 도입에 대한 중등 중국어 교사의 수용 태도 분석

-TAM 기반 혼합연구를 중심으로-

서흥기*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분석
 - 4.1. 도입에 대한 교사 태도 분포
 - 4.2. TAM 기반 수용 요인 분석
 - 4.3. 질적 응답 분석
5. 결론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중등 중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도입에 대한 수용 태도를 기술수용 모형(TAM)에 기반하여 분석한 것이다. 전국의 현직 중등 중국어 교사 101명을 표집하여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사용 태도, 사용의도, 촉진 조건의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 조사¹⁾를 실시하였으며, 찬반 분포와 요인별 통계 분석을 통해 교사들의 수용 태도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AIDT 도입에 찬성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지지라기보다 ‘조건부 수용’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특히 교사 연수, 학교 인프라, 정책 신뢰 등의 촉진 조건이 실제 수용 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적 응답 분석을 통해 교사들은 AIDT의 맞춤형 학습 지원과 수업 보조 기능에 기대를 보이면서도, 문해력 저하, 기술 격차, 과도한 디지털화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출하였다. 본 연구는 AIDT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정책 설계 및 추진에 앞서 현장 교사의 수용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학교 현장 중심의 설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1. 서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의 도입은 교육 현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특히 AIDT는 맞춤형 콘텐츠 제공, 즉각적 피드백, 수업 설계 자동화 등의 기능을 통해 학습자 중심 수업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5년부터 AIDT를 교육자료로서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이는 기술의 단순한 활용을 넘어 교사의 역할과 수업 구조에 본질적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과 박사과정, 서울 선덕중학교 중국어 교사

1) 설문링크 : <https://forms.gle/oiXffZmki41PrXyD9>

그러나 기술 도입의 성공은 현장 교사의 수용 태도에 달려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용 가능성보다는 교육적 철학, 제도 신뢰, 정책의 방향성과 같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중국어 교과는 선택과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책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AIDT 설계 및 도입 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증적 연구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중등 중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기술수용모형(이하 TAM)을 기반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지된 유용성, 용이성, 사용 태도, 사용의도, 촉진 조건 등의 요소가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양적 분석과 더불어 질적 응답 해석을 병행함으로써, 정책 및 교수설계 개선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AI 디지털교과서(AIDT)는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을 결합한 형태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학습자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콘텐츠를 조정하는 ‘적응형 학습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피드백과 상호작용 콘텐츠, AI 튜터 기능 등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어 교육에서도 발음 피드백 자동화, 문형·문화 이해 시각화, 수업 설계 자동화 지원 등 AIDT의 도입은 수업 방식에 실질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디지털 전환 기반 미래교육 구현’ 방향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한 AIDT 정의 및 설계, 적용 방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영어·수학 등 주요 교과에 비해 정책·연구적 소외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AIDT에 대한 중등 중국어 교사의 수용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TAM을 기반으로 인지된 유용성, 용이성, 사용 태도, 사용의도, 촉진 조건을 중심으로 설문을 설계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개념 정리나 기술 동향(오수경 외 2025, 이지원 2024)에 머물렀으며, 특정 교과 적용 사례나 TAM 기반의 구조적 검증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초등교사(김요셉 2024) 또는 예비교사(신하은 외 2025, 조은희 외 2025)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는 외국어 교과의 특수성이나 실제 수업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고자 현직 중등 중국어 교사 101명을 대상으로 양적·질적 혼합 설문을 실시하고, TAM 이론에 근거한 다차원 분석을 통해 보다 실천적이고 정책 친화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중등 중국어 교사의 AIDT 수용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중국어 담당 현직 교사 1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근무지 기준으로는 중학교 23명, 고등학교 45명, 기타 33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40.6%), 경기(24.7%), 인천·부산·경남 등이 포함되었고, 근무 지역은 대도시(65.3%) 비중이 높았다.

응답자 연령은 40대(50.5%)가 가장 많았으며, 근무 경력은 10년 이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수업 경험과 디지털 환경 적응 능력을 함께 갖춘 중견 교사들이 다수를 구성하였고, 이들의 인식은 AIDT 정책 수립에 있어 실질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3.2 조사 도구

연구 도구로는 기술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기반으로 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TAM은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사용 태도, 사용의도의 네 요인을 중심으로 기술 수용 과정을 설명하며, 본 연구는 여기에 ‘촉진 조건’ 항목을 추가하여 분석의 폭을 넓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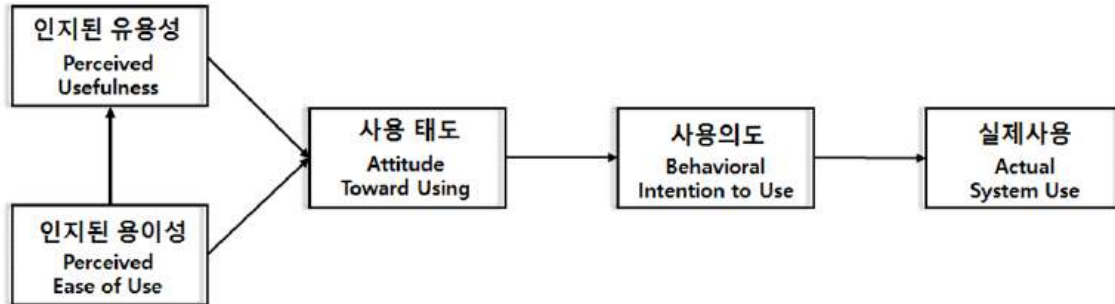


그림 1 기술수용모형(TAM)²⁾

설문 문항은 각 요인에 대해 4문항씩 총 20문항(5점 리커트 척도)으로 구성되었으며, 촉진 조건 항목은 학교 인프라, 연수 기회, 교사의 디지털 역량 등을 포함하여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과 내적 준비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정량 설문 외에도 자유 응답형 5문항(개방형 보완식)을 포함하여, 교사들의 기대와 우려, 제도적 지원 요구를 심층적으로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이론 검증을 넘어, 실제 교육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정책 설계에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분석

4.1. 도입에 대한 교사 태도 분포

전국 중등학교 중국어 교사 1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AIDT 도입에 대해 찬성 53.0%, 반대 28.0%, 중도 5.0%, 무응답 14.0%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자들은 AIDT가 맞춤형 학습, 발음 교정, 개별 피드백 등에서 효과적이며, 수업의 효율성과 학생 참여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들은 AI 기반 교과서를 수업의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반대 의견은 기술 의존 심화, 사고력 및 문해력 저하, 교사-학생 상호작용 약화 등을 주요 우려로 제기하였고, 특히 디지털 인프라 격차와 제도적 미비에 대한 현실적 지적이 많았다. 일부는 시범 적용 및 교사 연수의 선행을 조건으로 ‘부분적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우세하지만, 조건부 지지의 성격이 강하고, 반대 의견으로 외국어 교과 특성상 현실적 제약을 근거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었다.

4.2. TAM 기반 수용 요인 분석

4.2.1. 인지된 유용성

AIDT가 학습 효과 향상, 수준별 학습, 흥미 유발, 멀티미디어 활용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수준별 학습’과 ‘멀티미디어 활용’ 항목의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교사들이 AIDT가 수업 도구로서 일정한 가능성을 지닌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흥미 유발’ 및 ‘학습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 간 분산이 커, 실제 수업 적용과 콘텐츠 품질에 따라 유용성 체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Davis et al. (1989). User acceptance of computer technology: A comparison of two theoretical models. Management Science, 35(8), 982-1003, p.985.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6	중국어 AIDT는 학습자의 중국어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7	중국어 AIDT는 학습자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8	중국어 AIDT는 학생의 흥미와 참여를 높일 수 있다.
9	중국어 AIDT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표 1 인지된 유용성 문항내용

4.2.2. 인지된 용이성

디지털 기기 조작, 수업시간 내 활용 가능성, 사용법 습득의 용이성 등에 대해 대부분의 문항이 평균 3점 이상을 기록하며, AIDT를 ‘사용하기 쉬운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기존 수업 방식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기술적 장벽보다 제도적 조건이 수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10	중국어 AIDT는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능력만으로도 사용 가능할 것이다.
11	중국어 AIDT는 중국어 수업 시간 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12	중국어 AIDT는 사용방법을 익히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13	중국어 AIDT는 기존 나의 수업방식과 잘 결합될 수 있다.

표 2 인지된 용이성 문항내용

4.2.3. 사용 태도

교사들은 AIDT가 학생 중심 수업 실현, 수업의 편리성 향상, 중국어 교육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태도를 전반적으로 나타냈다. 특히 ‘학생 중심 수업 기여’에 대한 항목은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하였다. 다만 ‘수업의 편리성’ 항목에서는 다소 유보적인 반응도 확인되었으며, 이는 시스템 안정성, UI 설계, 실제 도입 사례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14	나는 중국어 AIDT를 사용하는 것이 중국어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5	나는 중국어 AIDT가 수업 진행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16	나는 중국어 AIDT가 학생 중심 수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17	나는 중국어 AIDT가 중국어 교과서의 미래 방향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표 3 사용 태도 문항내용

4.2.4. 사용의도

AIDT 활용 연수 참여(평균 4.0점)와 자료 개발 의향(4.25점) 등 교사의 준비 활동 의지는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수업에서의 적극 활용(2.5점)이나 동료 교사 추천 의향(2.25점)에서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교사들이 AIDT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학교 환경이나 제도적 보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다.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18	중국어 AIDT가 도입된다면 나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19	나는 향후 중국어 AIDT 관련 연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20	나는 주변 중국어 교사에게도 AIDT 사용을 권장할 의향이 있다.
21	나는 중국어 AIDT를 활용한 수업 자료를 스스로 개발할 의향이 있다.

표 4 사용의도 문항내용

4.2.5. 촉진 조건

교사들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환경, 교육청의 연수 제공 등 외부적 조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AIDT와 일반 디지털 교과서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이 나타났으며, 이는 정책 홍보와 정보 제공의 한계를 드러낸다. 반면, 디지털 도구 사용에 대한 개인적 역량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수용 태도와 실행 간 괴리가 제도적·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한다.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22	우리 학교에는 중국어 AIDT 활용을 위한 기기 및 인터넷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23	교육청은 중국어 AIDT 활용을 위한 연수 및 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24	나는 중국어 수업에서 디지털 도구 사용에 익숙한 편이다.
25	나는 중국어 AIDT가 일반 디지털 교과서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다.

표 5 촉진 조건 문항내용

4.3. 질적 응답 분석

양적 통계 분석이 AIDT 수용의 경향성과 구조적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효하다면, 질적 응답 분석은 교사들이 AIDT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심층적 사고와 실제적 우려, 교육적 요구를 보다 다면적으로 드러낸다. 본 연구는 총 5개의 개방형 문항을 통해 교사들의 기대, 우려, 요구, 종합적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는 정책적 수용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26	중국어 AIDT 도입에 찬성 혹은 반대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7	중국어 AIDT 도입에 가장 기대되는 점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28	중국어 AIDT 도입에 가장 우려되는 점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29	중국어 AIDT 도입을 위해 학교나 교육청의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30	중국어 AIDT 도입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표 6 질적 응답 분석 문항내용

4.3.1. 기대되는 점: ‘맞춤형 학습 지원’과 ‘교사의 업무 경감’

27번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키워드는 ‘맞춤형 학습’, ‘즉각적 피드백’, ‘교사의 업무 경감’, ‘접근성과 유연성’, ‘멀티미디어 기반 학습’이었다. 이는 AIDT의 핵심 기능과 TAM의 인지된 유용성 요인과 밀접히 연관된다. 특히 많은 교사들은 “학생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 개별 콘텐츠가 제공된다면 학습 효과가 높아질 것”, “학생들이 스스로 모르는 내용을 검색하거나 반복 학습할 수 있다”, “AI가 평가와 분석을 대신해주면 교사는 학생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AIDT가 단순한 디지털 텍스트의 집합이 아니라, 실시간 학습 피드백, 개별 진단, 반복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능동적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멀티미디어 기반 학습은 특히 중국어 발음, 성조, 문화 요소 이해에 효과적이다”,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학습환경은 시간적 유연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응답은, AIDT의 시공간을 초월한 접근성과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다. 이러한 기대는 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뿐 아니라 실제 수업 설계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4.3.2. 우려되는 점: ‘문해력 저하’, ‘AI 의존성’, ‘디지털 격차’

28번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는 사고력·문해력 저하, AI 의존성 심화, 디지털 피로도, 인터넷 불안정성, 학생 간 디지털 격차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교사들은 “학생이 영상을 시청하는 데에만 머물고, 깊이 있는 사고나 토론이 사라질까 우려된다”, “AI가 모든 답을 제공하다 보면 학생 스스로 고민하고 쓰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기술 기반 수업이 자칫 주입식 콘텐츠 소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또한 “타 교과까지 모두 디지털화되면 학생들의 시력, 집중력, 정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

은 과도한 디지털화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직시한 진술이었다. 기술 기반 격차 문제도 지적되었다. “기기 활용 능력에 따라 수업 효과가 극명하게 나뉠 것”, “집에 인터넷이 없는 학생은 복습이나 숙제 수행이 어렵다”, “학교 간 네트워크 환경 차이로 수업의 질이 불균형해질 것” 등은 AIDT 도입이 교육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구조적 우려를 반영한다.

4.3.3. 필요한 지원: ‘교사 연수’와 ‘인프라 보강’

29번 문항에 대해 교사들은 ‘교사 연수’, ‘최신 기기 보급’, ‘교내 인터넷 시설 증축’, ‘프로그램 지원’, ‘상주 도우미 배정’ 등을 다수 제시하였다. 교사들은 “시스템을 사용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실습 중심 연수가 필요하다”, “기기 조작, 플랫폼 구조, 데이터 활용법에 대한 교과 맞춤형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어 교사 수가 적은 현실에서, 공통교과 중심의 연수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교과 특화형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학교 내 수십 명이 동시에 접속하면 서버가 튕겨나간다”, “교실마다 와이파이 속도가 다르다”, “태블릿이 없는 학급이 많다”는 진술은 AIDT의 실질적 적용이 기술 인프라와 직결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환경적 지원 없이는 행동의도나 수용태도도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결과이다.

4.3.4. 자유의견: ‘신중한 도입’과 ‘정책적 투명성’ 요구

마지막인 30번 문항에서는 AIDT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함께, 신중하고 단계적인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AI 기반 수업은 언젠가 도입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준비 없는 도입은 실패할 수 있다”, “정치적 필요에 의해 졸속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한다”, “시범학교 운영과 안정화 이후 확대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AIDT 정책의 추진 방식과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이다. 또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균형이 중요하다”, “종이책의 장점과 AI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AIDT가 기존 교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교육적 관점을 제시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등 중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AI 기반 디지털교과서(AIDT)의 도입에 대한 수용 태도를 TAM 이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설문 및 질적 문항 분석을 통해 교사의 인식과 태도 형성 과정을 다면적으로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AIDT에 대한 교사들의 전반적 태도는 ‘무조건적 수용’보다는 ‘조건부 수용’의 경향을 보였다. 학습자 맞춤형 지원, 피드백, 수업 효율성 제고 등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높았지만, 기술 의존, 문해력 저하, 교육 격차 심화 등의 우려도 병존하고 있었다. 이는 AIDT 수용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체계 전반의 전환에 관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둘째, TAM 기반 요인 분석 결과, ‘인지된 유용성’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인지된 용이성’은 인프라와 기술 접근성에 대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학교 내 기기 보급, 네트워크 안정성 등 외적 조건의 부족은 AIDT 활용에 있어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사용 의도’ 측면에서는 연수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수업 활용이나 자료 개발 의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도입에 따른 교사의 부담, 시스템 불확실성, 현장 지원의 부족 등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넷째, ‘촉진 조건’에 대한 인식은 수용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디지털 인프라, 제도적 연수, 교과 특화 지원 등 외적 환경이 미비하다는 인식은 AIDT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AIDT 수용이 단순히 기술적 유용성이나 편의성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교사의 경험과 제도적 신뢰 등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구조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AIDT의 도입은 기술 수용을 넘어서 교육 생태계의 재구성과 관련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정책 수립에 있어 교사의 참여, 충분한 검증, 현장 중심의 설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중국어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AIDT 정책 설계에 실질적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4),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 라인』, 대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박기현 외14인(2025), 『디지털 교육 트렌드 리포트 2025』, 서울:테크빌교육.
- 안성훈·차현진(2023),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쟁점 분석 및 개발 전략』, 대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강신찬·허희옥(2023), 「생성형AI기반 교수설계 지원 플랫폼 개발 및 시범 적용」,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제26호.
- 김기범·차운미·이현우(2019), 「학습관리시스템(LMS)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수용모형의 사용의도와 실제사용 간의 관계 분석」, 『Educational Technology』 제35권.
- 김요셉(2024), 『AIDT 도입 대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원 디지털 역량 진단: 중요도-수행도(IPA)분석』,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하은·임규연(2024), 「중학교 교사의 AI 활용교육 수용 및 영향 변인들 간의 관계 규명」,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30호.
- 신하은·김해동(2025), 「중등 예비 영어 교사의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인식 및 요구」, 『교육문화연구』 제31권.
- 오수경·임다미(2025), 「AI 디지털교과서 연구 동향 분석: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 기대와 우려를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 28호.
- 윤옥한(2025), 「AI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향 탐색」, 『문화기술의 융합』 제11호.
- 이서아·한용수(2023), 「중국어 교육에서의 AI 기반 수준별 맞춤형 교육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78호.
- 이지원(2024),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어 교육 분야의 연구 논문 동향 분석」, 『아시아문화연구』 제64호.
- 이현우·장민경·임규연·서정희·허희옥(2024), 「교원의 AI·디지털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30호.
- 조은희·서민호·오현정·김서현·맹희주(2025), 「수학 및 과학교과 예비교원의 AIDT 활용 역량 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지원 요구도 분석」,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제29권.
- 채희정(2024),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소영(2025),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중국어 학습지도안 개발」, 『중국문화연구』 제67호.
- 황재운(2024),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정책 현황과 주요 이슈」, 『교육융합연구』 제22호.
- Davis, Bagozzi, Warshaw(1989), User Acceptance of Computer Technology: A Comparison of Two Theoretical Models, *Management science*, 35(8).
- Tomlinson, Masuhara(2008), Adult EFL courses, *ELT Journal*, Oxford University Press.
- Venkatesh, Davis(2000),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ence*, 46(2)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폐회강연

오태석

(동국대학교 교수, 한국동아시아과학철학회 명예회장)

인문융합의 중국어문학 연구

【인문융합의 중국어문학 연구】

오태석(한국동아시아과학철학회 명예회장)

1. [개요] 인간과 세계의 이해를 위한 삶의 길 찾기로서의 학문하기
2. 인문학에서의 융합 연구 필요성
우주 내 존재인 인간 → 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 인문학 → 동아시아 인문학
3. 과학기술시대 인문학의 연구 확장 : 인문학과 과학의 융합 [인문융합]
4. ‘양자인문학’의 확장과 적용
5. 개인연구 사례: 《동아시아 고대 사유와 양자역학》
6. 결어

1. [개요] 왜 융합이 필요한가? 인간과 세계의 이해를 위한 삶의 길 찾기로서의 학문하기

동서를 막론하고 인간과 세계 이해를 위한 삶의 길 찾기로서의 학문 정신에서 출발

지금 이 시대는 산업혁명 이후 데이터·AI의 제2차 기계시대의 도래

융합의 필요성: 분과주의의 한계, 복잡다단한 세계에서 삶을 총체성에 부합하는 학문이 필요.

【중심 논지】

융합 연구의 필요성 →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인문융합] → 양자역학의 물리적 특징 → 양자역학의 확장성 → 개인연구 사례 → 결어

2. 인문학에서의 융합 연구 필요성 : 인문융합 연구

오늘 학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중국어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시야를 보다 확장하여 우리의 학문적 자리를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 석가, 노장과 공자를 막론하고 인류의 철학사는 인간과 세계(우주)라고 하는 큰 화두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갈릴레이(1564-1642), 뉴턴(1643-1727) 등 근대 과학혁명 이후로는 ‘왜(why)’ 보다는 ‘어떻게(how)’로 질문의 중심이 옮겨가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왜(why)’는 근원적·존재론적 질문이고, ‘어떻게’는 실험적·방법론적 질문입니다. 이로부터 학문의 분과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문은 ‘전공’과 ‘전문’이라고 하는 개별과 밀폐의 봉방(蜂房)이라고 하는 학문적 특징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문 분과주의는 세상과 격리된 채 자기만족의 절대 학문을 하는 데에는 꽤 괜찮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세 유럽에서 대학이 만들어진 것은 당시 교회 중심 사회에서 신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사회교육 장치로서 설정되었으므로, 나름의 사회적 효용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대학교육은 여전히 17세기 이래의 분과라고 하는 벌집 같은 공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타당할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특히 시대성과 무관하게 학과의 명칭을 오래도록 유지·보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직성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¹⁾ 이유는 시대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도 모든 조직이 그렇듯 자기 고착화의 부분이 적지 않은 게 또한 현실입니다.

학문 영역의 고착화는 비단 대학만의 일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 및 도서등록 시의 학문 분류표를 보면 선도느커녕 시대의 변화를 거의 추수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문학만 하더라도 의미 있는 융합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마치 근대의 분류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발빠른 개편이 쉽사리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종 이권단체들의 첨예한 이해 상충으로 개편작업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입니다.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상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학문 및 도서 분류표는 제가 보기에는 독일→일본→아시아 각국으로 도입된 약 200여년의 역사에 연결된 것 같은 골동성 분류표로 느껴집니다. 중용(中庸)에 '시중(時中)'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팽창우주에서 한 순간도 같지 않은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임미답의 존재의 길에서 그때그때 적절한 해(解)를 찾아나감이 우리 존재자의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학문 본래의 면목을 보다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삶에 맞추는 시중의 융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큰 하나의 세계인식에서부터 조각 분화를 거듭해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것은 새로 자리를 마련해주는 한편, 분화의 원류를 향하여 소급해 올라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3. 과학기술시대 인문학의 연구 확장: 인문학과 과학의 융합 [인문융합]

■ 중국어문학 쪽에서는 어떠한 융합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점은 사람마다 문학, 어학, 현대문학 등 세부전공이나 여건이 다르고, 취향과 장점 역시 같지 않으므로 일률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시대가 디지털 정보와 데이터 혁명기이므로 시대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토대는 중국(어/문학/철학/역사)에 기초하면서 시류에도 부합하는 '인문+과학기술'의 융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확장한다면 넓은 시야를 확보하면서 또한 자유로운 연구와 성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시의에 부응하는 '인문융합'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에 안주하던 자리에서 상당히 멀리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또 이런 회의가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공도 쉽지 않은데, 새로운 과학 혹은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공부우리는 새삼스럽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면 또 얼마나 영화를 누리겠나?” 하고 말이죠.

한번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것을 학습한다는 것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새것을 배우는 것은 쉽지도 않고 에너지도 많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중요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뒤처지지 않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마찬가지로 학문도 미래를 향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자의 머리를 앞에 대고 앞을 향해 바람을 맞으며 헤쳐 가는 도(道)라는 길, 즉 '지도(知道)'의 길이지요.²⁾ 두 번째 보상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도 큰 것입니다. 이는 뜻밖의 보상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기존의 것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심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는 점

1) 유튜브 '지식 인사이드' 2025.9.14. 동영상.

2) 머리를 풀어헤치고 앞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형용한 '道'의 글자 풀이가 그러하다. 필자의 <니즈다오와 양가불이의 사유>(2019 중국문학 100집, pp.305-309.)

입니다. 그것은 정진홍 교수(서울대 종교학과)의 멋진 표현으로 잘 와 닿습니다. 그는 “남의 집에 가서 올라타 너머로 내 정원을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보면 늘 보던 자기 것도 새롭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 우리는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감은 거기에 완전히 몰두할 때보다는 거기서 얼마간 떠나 있을 때 불시에 찾아왔던 것일요. 이 소중한 영감을 통해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도 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도 합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그것에 매몰될 때 보다는 오히려 잠시 벗어나 있을 때 순간적으로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이때를 위하여 모든 사전 준비를 해야겠지요. 한번 왔다 가면 다시는 찾을 길 없는 그 순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경험은 뜻밖이긴 하지만 숨겨진 강력한 내적 인과성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면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말처럼요. 새것은 같은 데서 나오지 않고, 다른 데서 나옵니다. 어쩌면 이 ‘기존과 다른 것들’은 주희(朱熹)가 말한. “옛 것을 익히면 그 중에서 새것을 알게 된다.”고 한, 온고(溫故)가 지신(知新)으로 가기 위한 현대적 의미의 마중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학문을 접하는 동안 잠재의식 속에서 현안으로 남겨진 난제에 대한 열쇠가 발견되는 것은 우리의 뇌가 새로운 영양을 주입받아 활성화되며 기존의 문제와 접촉되면서 새로운 시냅스 확장으로 나아가는 것일지 모르겠습②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문기반 융합 연구는 향후 어떠한 파급과 확장 가능성과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 생각해보겠습니다.

■ 요즘은 양자역학을 말하지 않고는 교양인에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 전반에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상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말을 노벨상을 수상한 리처드 파인만 교수가 말한 것을 보면 좀 아이러니 한 면도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역시 지난 20년간 양자역학을 공부해 왔으며, 당연히 저 역시 잘 모르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소설같지만 정확한 수식이 뒤따르는 미시 세계의 물리학인데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험과 직관에 반하는 귀신 같은 현상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지요. 우선 양자역학의 두드러지는 물리학적 특징을 간략히나마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①파동-입자 이중성(wave-particle duality), ②‘측정’(measurement)의 문제와 연결되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③슈뢰딩거 고양이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로도 유명한 양자 중첩(quantum superposition) 및 ④양자 얽힘(quantum entanglement)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입니다.

뉴턴부터 아인슈타인을 거쳐 드브로이에 이르는 300년간 빛의 성질은 파동설과 입자설을 오가면서 결국 1924년 빛, 그리고 전자와 같은 궁극의 물질은 공히 파동성과 입자성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양자역학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빛의 입자-파동 이중성, 드브로이의 물질파 개념이 그것입니다. 노벨상 제정 이전의 뉴턴을 제외한 지금 언급한 학자들은 전부 노벨상 수상자들입니다. 역사학을 전공한 루이 드브로이까지도 말이죠.

■ 불확정성 원리는 미시세계의 물리학에서 위치와 운동량 둘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극미시 세계에서는 빛을 통해 바라보는 측정 행위 자체가 대상에 영향을 미쳐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측정(관측 관찰, 인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슈뢰딩거의 고양이로도 불리는 양자 중첩과도 연결되는데요. 중첩 상태에서는 두 가지 상태가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은 채 중첩적으로 존재합니다 삶과 죽음, 0과 1, 음과 양이 가능태로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측정을 하게 되면 둘 중 확률적 어느 하나로 확정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상태가 중요한데요. 이를 파동상태에서 입자 상태로의 변화로 설명합니다. 전자와 같은 물질은 바라보기 전에는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바라보는 순간 입자화 하는 것입니다. 양자 얽힘은 얽힘 관계의 두 양자 쌍의 어느 하나의 상태가 결정되면 즉시 $[t=0]$ 얽혀 있는 다른 하나의 상태도 결정된다는 현상입니다. 이 얽힘은 수백만 광년이 떨어진 비국소 영역에서도 이루어지는 까닭에 귀신같은 원격 작용으로 운위됩니다. 다 우리의 경험과는 거리가 있고 직관적이지 않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궁극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탐구하는 백 년 전의 물리학에서 기존의 고전물리학의 세계이해와는 판이한 놀라운 현상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 이후 회화에서 바로 그 성과를 받아들여 입체파나 초현실주의와 같은 새로운 경향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문학은 인간과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인문학의 기저를 이루는 물질의 이해 역시 큰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최신의 물리학인 양자역학이 인문학에 주는 가장 큰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자연철학으로서의 물리학은 당연히 철학의 맥락에서 행해져 왔습니다. 양자역학의 발견은 수식은 정확하지만 그 이해와 해석은 난망하기만 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현대물리학자들은 철학을 함께 해왔습니다.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는 물론 그 다음 세대인 슈뢰딩거, 하이젠베르크, 막스 보른등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물리학적 발견들은 철학적 해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철학적 가성이 새로운 물리학적 돌파를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현대물리학의 핵심 문제는 시간과 공간, 아니 틀린 표현이군요. 정확한 용어로는 시간 따로 공간 따로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므로 편의상 그렇게 나눌 뿐이지요. 이 둘이 서로 연결된 ‘시공간의 학문’입니다. 우리 인문학 역시 이 물리적 세계와 절연된 곳에 살고 있지 않으며 학문적으로 오히려 어느 다른 영역보다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의미로는 자연철학과 인문철학 둘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이 자연학을 바라보아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공에 관계된 보다 새롭고도 진전된 논의는 다음 양자 시공간론으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과 양자역학의 인문학적 파급이라고 하는 이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기 위해 저는 지난 20년간 고찰해 온 ‘양자역학’과 관련한 파급과 영역적 확장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시험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4. ‘양자인문학’의 확장과 적용

① [양자 시공간론]

■ 양자 시공간론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이후 지금까지 인간 존재의 근거로서 궁극의 화두인 ‘시간’의 문제에 대한 양자역학적 이해로서 현대물리학의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이중 카를로 로벨리(Carlo Rovelli)가 주창한 고리양자중력이론 혹은 루프양자중력이론(Loop Quantum Gravity theory, LQG)은 초끈이론(Superstring theory)과 함께 이론물리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점이 상당히 혁신적·비직관적·철학 적이며 이해도 쉽지 않고 상상적 이론 기반이라 검증이 쉽지도 않지만 어쩌면 여기서 노벨상이 나올 지도 모르겠습니다.

■ ‘양자역학의 관계론적 해석’으로서, “시공이 네트워크다.”(Spacetime is a network)라고 하는 이 이론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물질을 이루는 최소한의 크기인 ‘플랑크 상수(거리, 시간)’와 양자역학 불확정성 원리의 트리거인 ‘측정’의 문제입니다. 플랑크 시간거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1918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막스 플랑크 자신도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지만, 양자역학이 밝혀낸 시공간은 그가 찾은 플랑크 상수(Planck’s constant)와 ‘양의 정수 값하고만 관계하는 까닭에 불연속적일 수밖에 없는 플랑크 시간거리’는 불연속적인 양자 다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측정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uncertainty principle)는, 양자 중첩(quantum superposition)과 함께 양자역학의 양대 핵심 개념중 하나로서, 양자 상태를 측정(measurement, 관찰)하게 되면 위치와 운동량을 둘 다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원리입니다.

■ 루프양자중력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양자역학에서 모든 측정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측정 전에는 양자 중첩 상태이므로 모든 것이 가능성의 영역에 있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중첩은 비시간의 영역입니다. 이 비시간 상태에서 측정이 들어오면 바로 빛이 쏘이면서 빛의 영향을 받아 즉시 $t=0$ 시간에 입자로 상태가 변하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빅스케일을 사는 우리의 경험에 위배되며 비직관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까닭에 노벨상 수상자인 천재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Richard Feynman)은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 요컨대 측정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물질은 자신을 파동 상태에서부터 입자로 상태를 바꾸며 수많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벗어나 그 중의 어느 하나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간 개념과 연결 이해되어야 하는데요. 측정이라는 상호작용에 의해 파동상태인 양자 중첩의 파동함수가 붕괴되면서 양자 확률에 의해 어느 하나의 입자로 확정되는 현상[입자적 발현]에 ‘시간’이라는 것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표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확률적 확정만 볼 수밖에 없는 가시(可視) 시공의 존재인 우리는 파동적 불특정의 세계가 아닌, 입자적 특정(特定)의 세계에 존재 중입니다.

■ 우리는 자기가 처한 구체성의 영역에서 이전의 잠재적 가능성이 아닌 양자 확률적으로 발현·현시되는 특정화된 입자를 보고 만나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빛으로 표현되는 ‘사건의 지평선’(event horizon)과 같은 것이며, 동아시아 관점의 하나인 노자(老子) 제1장의 언어로 해석하자면 ‘각 존재자가 처한 가도(可道)적 인식지평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흐르기도 하고[입자 우주], 또 흐르지 않기도 하는[파동 우주] 이중(二重) 우주를 상정한 루프양자중력이론이 말하는 불연속 시공 우주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론적 양자역학에서 과거, 현재, 미래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철저히 나와의 관계 속에서 펼쳐집니다. 내가 겪은 시공간과 네가 겪은 시공간이 모두 평등하고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측정관찰에 의해 중첩 상태의 파동이 결깨짐(decoherence)이 일어나 입자로 확정된 특정(特定)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확정되지 아니한 결맞음(coherence)의 파동적 중첩의 불특정(不特定)의 잠재적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거·현재·미래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 * (나의) 미래: 양자 중첩상태로서 결맞음(coherence) 상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비시간 영역 [파동]
 - * (나의) 과거·현재: 상호작용이 결과한 파동함수의 붕괴로 인한 결어긋남(decoherence) 상태, 시간 영역 [입자]
- now ■ here[입자 발현] no ■ where[파동 중첩] : erewhon (Samuel의 소설 《에레혼》, 1872)

■ 이상 언급한 시간이 흐르기도 하고 또 흐르지 않기도 하는 두 종류의 시공 우주에 관한 계열표를 제 나름대로 제시하고, 다음 양자역학의 파급 가능한 다른 영역들의 사례 제시는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자시공간 계열표]: 측정, 상호작용, 파동/입자, 중첩/발현, 결맞음, 공간과 시간, 수학, 정보, 노장, 불교

측정	상호작용	파동·입자	파동함수	공간성	시간성	세계	내/외 존재	수학	정보론	노자	불교
측정 전	무	파동	중첩(결맞음)	동시에 여러곳	非시간	잠재계	내부세계	복소수	{0&1}	常道	공
측정	유	입자	발현(결깨짐)	시공간적 特定	有시간	현상계	외부세계	실수	{0/1}	可道	색

② [양자 철학, 양자 심리학]

양자상태에서 초능력자는 동시에 여러 곳에서 존재 가능할 것이다.(神) 또한 심리적으로는 파장 상태를 통해 내적 심리를 파악하고 안정화 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두 철학적 관점은 비주류인 결정론(실재론)과 주류인 비결정론(실증론)이 있습니다. 전자는 아인슈타인, 슈뢰딩거, 데이비드 봄이 있고,³⁾ 후자는 코펜하겐학파인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등의 학자가 있습니다.

3) 양자역학 주류인 보어는 주역의 상보개념을 원자론에 접목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비주류면서 아인슈타인 EPR 계열의 결정론적 과학철학자 데이비드 봄의 이론 역시 동아시아 사유와도 일정부분 연결 가능하며, 필자는 봄의 이론을 논문으로 검토하기도 했다.(〈데이비드 봄 양자론 ‘숨은변수이론’의 인문학적 검토〉: 《중국어 문논집》106, 오택석, 2017.) 봄이 제기한 접히고 펼쳐지는 두 종류의 세계질서로서의 ‘숨은변수이론’과, 주역·노장·불교 등 동아시아 세계인식의 상관성을 연결 설명했다. 봄의 ‘접힘과 펼침’의 두 질서론을 ‘잠재계-현상계’의 소통 관점에서 읽게 되면, 주역의 음양 잠재성, 노장의 유·무와 가도·상도의 은현성, 장자 호접몽의 물화(物化), 불교의 ‘즉(卽)’을 통한 공과 색의 상호 전이 발현이 순조롭게 연결 가능하다. 봄의 양자역학 가설은 국소영역에서는 벨 부등식으로 오류로 판명났다. 하지만 비국소 영역에서는 결론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글은 동아시아 사유에서 바라볼 때 봄의 숨은변수이론은 비국소 영역에서 개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았다.(오택석, 《시공간의 인문학》, 제5편, 2020.)

③ [양자 언어학]

언어화 이전의 상태에서 언어로 발현되고 또 발현된 의미가 확정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의미의 발현, 말뭉치와 구문의 선택과 확정 과정들을 파동과 입자화 과정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本)확률 상태였던 중첩적 파동함수의 붕괴로 인한 입자화 과정, 머신러닝의 최적화 기법의 하나로서 미분적 통계확률을 활용한 경사하강법(Gradient Descent Algorithm)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④ [양자 의료와 치유(엄힘,공명,전이)]

파동상태에 내재된 엄청난 에너지의 세계로부터 양자 엄힘을 통한 양자 결맞음의 동조(synchronizing) 현상을 파동 상태에서 입자 상태로 발현시킨다면, 의료, 치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양자 중첩 상태 하에서 엄히게 한 뒤에, 파동함수(ψ)의 붕괴를 통해 입자적 전이·발현을 시켜 치료·치유를 야기합니다. 실제로 의료 기기 분야에서는 자기공명영상(MRI), PET(양전자방출 단층촬영) 등 첨단치료에 활용하고 있지요. 향후 양자 파동이 파동붕괴로 입자화 하는 과정, 즉 ‘선한 공명[파동]→ 그것의 확정[입자화]’시키는 방식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치료 효율을 제고하는 장치·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교적 치유 역시 이와 같은 원리로 에너지가 입자로 동조화(synchronizing) 하며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⑤ [양자 경제, 양자 물류, 블록체인° 화폐(상품), 양자 정보°, 양자 불교°... etc]

■ 현대물리학과 동·서양 사유 간의 상관성 정리 (《시공간의 인문학》(p162, p327)

[현대물리학과 동·서 사유 간의 상관표](오태석)

구분	서양 →	현대물리학	← 동양
근원	물질적, 실체성, 자성	중심적, 상대성, 무자성	사건적, 관계성, 무자성
시공	절대분리의 시간과 공간	곡률로서의 함수적 시공	비분리, 시·공 연계
주체와 객체	주체중심주의, 주객 분리	관찰자 효과[측정]	주객 융화의 시선
이분법	선택의 차별의 이분법	입자·파동 이중성·양가성	음양상보·내재포괄의 양가양행
현상과 잠재	현상너머 절대자 상징	슈뢰딩거의 고양이[파동붕괴]	현상과 잠재의 상호 수수
유무	유무 분리	물질과 반물질, 양가성	유무 상통
수학	유리수적, 디지털적	복소수·무리수, 양자적	무리수적, 아날로그적
존재	exist(외재적)	in-exist(양행적)	in-exist(양행적)
공명성	상호 분리, 독자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상관성, 동시성원리
품사성	명사성 혹은 타동사성	상관적 동사성	자동사성(내적 역동성)

5. 개인연구 사례: 《동아시아 사유와 양자역학》(기획)

(1) 연구 여정

필자 학문의 출발점은 중국문학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인문학이고, 늘 분과 학문에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다 통합적이며 열린 세계 이해에 대한 갈증이 컸습니다. 이에 지난 20년간 수백 권의 현대물리학 책을 읽으며 현대물리학과 동아시아 사유라는 전혀 다른 두 영역 사이에, 세계진리 표상과 관련한 시선상의 공유와 해석학적 접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는 주역, 노장, 불교를 현대물리학과 연결 설명

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읽은 과학 서적수를 말하라면,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1년에 20권씩만 하더라도 400권 정도는 읽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책은 주로 사거나 공공 도서관에서 빌려보는데, 도서관 책은 읽다가 느낌이 오면 줄을 긋거나 책뒤편 메모를 하기 위해 구입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지난 20년간 사안별로 인문기반 과학철학 융합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요약]

중국어+중국문학비평 → 일반(서양) 문학이론 → 동양철학 → 서양철학 → 물리학 →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 2006년부터 논문(20편)과 저서(3책)로 산출.

[융합 학회]

한편 융합연구에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연구자들과 2016년 한국동아시아과학철학회를 창설하였고, 격월로 현재까지 제49차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원은 87명이며, 누구나 카카오톡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장단: 나민구 회장, 박정구·박석홍 부회장, 김의정·박리흠 총무)

(2) 필자의 연구 기획 : 《동아시아 고대 사유와 양자역학》(가제)

인문융합 기반의 개인연구로서 동아시아 고대 사유와 양자역학을 현대물리학의 접목과 재해석을 인문융합적으로 향후 수년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동아시아 사유와 양자역학》	■ 목적: 동아시아 고대사유와 양자역학의 재해석 및 동아시아 고대 사유의 세계진리성 탐지 ■ 방법: 현대물리학(양자역학)의 새로운 성과와 동아시아 고대 사유를 양방향 접목·연결 재해석 ■ 시선: 객관성 담보를 위해 인간중심주의, 이분법, 분과주의를 넘어 무경계·총체적으로 고찰 → 양자역학과 동아시아 사유를 연결 재해석하여, 동아시아 사유의 세계진리 담론성을 융합적으로 검토

[목적]

저는 이제 정년 5년차에 접어들습니다. 저의 꿈 하나는 제대로 남을 책 즉 인생의 밥값을 할 만한 책 한 권은 써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기획중인 것은 현대물리학 특히 양자역학과, 주역·노장·불교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고대 사유 양자를 접목·재해석 하는 작업입니다. 서로 판이한 이 두 학제의 연결 재해석은 아직까지 누구도 본격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작업이 잘 수행된다면 동아시아 사유와 현대물리학 양쪽에 각각의 융합적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기]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책을 쓰려고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기는 인간중심주의와 이분법에 경도된 기존 서구 사유를 넘어 인간·타생명체·광물·우주를 아우르는 평등한 존재론적 지평 위에서,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품어왔던 궁극의 질문인 인간 존재의 물리적 바탕인 세상과 우주를 종합적·학리적으로 탐지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가는 거기까지가 저의 할 일과 몫이라 봅니다.

[내용]

내용은 시대와 학문 분과 양면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이는 현대물리학과 동아시아 고대 사유, 이 둘을 총 4장, 12개절에 걸쳐 인문융합적으로 비교·접목·재해석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자역학을 동아시아 사유로 재

해석하고, 이어서 동아시아 사유를 과학의 시선으로 재구성·재해석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두 분과에 대해 기존과 다른 해석과 문명사적 전망을 가하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그리고 중국적으로는 중국과 인도에서 발원하여 동아시아에서 꽃을 피운 주역, 노장, 불교의 철학적 세계 인식과 비전들이 서양과 다른 세계진리 담론으로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탐지할 것입니다.

[의의]

상이한 이 두 사유는 당연히 완전한 정합을 이루지 않음은 물론이며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탈시간적·탈분야적 접목과 재해석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주역·노장·불교 등 동아시아 고대 사유와 현대물리학이 보여주는 전경(前景)이 적지 않은 공유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 동아시아학 연구자들이 구체적으로 탐색·징구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 사변론은 유물사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중국의 경우 아직 충분한 조명을 받고 있지 않고 있음을 2018년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개최된 한중인문학포럼에서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같은 동아시아 사람으로서 문화 공유도가 높은 우리가, 그리고 먼저 생각한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둘째로 이 작업은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전지구적인 기후생태위기, 그리고 데이터 혁명 및 AI 시대와 맞물려 중요한 성찰적 시선을 제공해 줄 것으로 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세계진리 규명에 있어서 근대서구 이래 장기간 지나치게 소홀한 대접을 받아온 동아시아 사유의 재발굴·재해석의 길이 심화 확장되고, 동아시아 문화유산에 대한 온고지신적 인식 확산에도 일정한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6. 결어

‘생명체가 살아남기’이라는 뜻의 ‘삶’은 단선적·표피적이기 보다는 종합적·총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學問은 그것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부단한 배움과 질문입니다. 초기의 학문은 학습 효율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는 단선적 지식들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그것의 축적과 응용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석사(碩士)와 박사(博士)”라는 명칭대로 ‘크고 또 넓은 것’을 지향하게 됩니다. 이는 궁극의 진리를 향한 질적 심화와 깊고 큰 이해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여정이겠습니다.

138억 년 전 빅뱅 이후 우주는 지속 팽창해 오고 있으며, 그 중에서 매우 작고 또 짧은 시공을 영위하는 존재자인 우리 역시 팽창우주 속에서 단 일순간도 같은 시공(時空)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다. 반복하는 생활 같지만 다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모든 존재의 길입니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도(道)’는 ‘주(走)와 수(首)의 회의자(會意字)’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바람결에 머리털을 휘날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길을 걸어 나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도는 기성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깨서 치는’, 즉 중국어로 ‘타파(打破)’하며 미지(味知)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모두 아주 잠깐 머물다 가는 존재입니다. 길지 않은 존재의 시간 중에서 중국 한대(漢代) 고시십구수(古詩十九首)의 “행행중행행(行行重行行)”의 여정 같이, 또 학문의 ‘산티아고 순례의 길’ 같이, 저도 여러 선생님도 각자의 삶과 학문의 길[道]을 후회 없이 보람찬 승리의 여정으로 이어나가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